제주의 세시풍속 구술자료 및 단행본

구술자료집

① 《새철 드는 날 꼬넷기 아정 멩기민 베염 난덴 골아
-제주시 동부 지역》, 2021.

② 《정월 보름날 산메 청 오곳이 밥 뒈민 운 좋덴
-서귀포시 동부 지역》, 2022.

③ 《마 카운디 하늬부름 불민 마가 장찬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 2023.

④ 《영등에 쉐걸름 내민 구더기 궨덴
-제주시 서부 지역》, 2024.

단행본

①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1
-제주시 동부 지역》, 2021.

②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2
-서귀포시 동부 지역》, 2023.

③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3
-서귀포시 서부 지역》, 2025.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
-서귀포시 서부 지역

비매품
9 791199 402010 93380
ISBN 979-11-994020-1-0

제주학총서 81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3
김미진 김성용 김순자 최연미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총서 81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

-서귀포시 서부 지역

김미진 김성용 김순자 최연미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인문 · 사회 ·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 연구기관입니다.

주소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전화 064-726-5623 **전송** 064-900-1840
누리집 http://www.jst.re.kr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

– 서귀포시 서부 지역

제주학 총서 81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

집필진 김미진 김성용 김순자 최연미 현혜림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전화 064-726-5623
누리집 www.jst.re.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각 Ltd (064-725-4410)

발행 2025년 12월 30일

ISBN 979-11-994020-1-0 93380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81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

– 서귀포시 서부 지역

김미진
김성용
김순자
최연미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일러두기

1.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은 서귀포시 서부 지역의 세시풍속 이야기를 제주어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책의 구성은 Ⅰ. 들어가며, Ⅱ. 서귀포시 서부 지역 세시풍속, Ⅲ. 마을별 · 월별로 살피는 세시풍속으로 이루어졌다.

2. 이 책에는 서귀포시 서부 지역 9개 마을(서귀포시 동 지역 4곳, 안덕면 2곳, 대정읍 3곳)의 세시풍속 이야기를 제주어 구술로 풀어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표준어로 대역하여 이해를 도왔다.

3. 구술 발화는 필자들이 참여했던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3'의 결과물로 발간된 구술자료집 《마 카운디 하늬ᄇᆞ름 불민 마가 장찬다》(2023)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4.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칼국'처럼 제주어에 작은따옴표를 표시하고 각주에 뜻을 달았다.

5. 'Ⅲ. 마을별 · 월별로 살피는 세시풍속'은 월별로 달라지는 풍속과 생업을 함께 기록하여 제주 지역 세시풍속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차례〉

일러두기 · 4
책을 내며 · 7

Ⅰ. 들어가며 · 11

Ⅱ. 서귀포시 서부 지역 세시풍속 이야기 · 47
1. 서귀포시 상효동 · 49
2. 서귀포시 법환동 · 159
3. 서귀포시 하원동 · 233
4. 서귀포시 대포동 · 319
5. 안덕면 감산리 · 377
6. 안덕면 서광서리 · 453
7. 대정읍 상모1리 · 507
8. 대정읍 보성리 · 647
9. 대정읍 신평리 · 697

Ⅲ. 마을별·월별로 살피는 세시풍속 · 757

● 찾아보기 · 911

책을 내며

제주는 바람이 길을 내고, 돌이 시간을 쌓으며, 제주어로 세상을 이어온 섬입니다.

절기마다 바뀌는 제주의 하늘과 바다의 색, 오름과 들판의 냄새와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한 해의 시간들을 말해 줍니다. 제주의 세시풍속은 바로 그 자연 속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다시 이어져 온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고, 제주의 생활과 풍습, 그 속의 언어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사라져가는 이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제주시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서귀포시 동부 지역, 2023년 서귀포시 서부 지역, 2024년 제주시 서부 지역까지 연차별 조사를 진행하고 구술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새철 드는 날 끄넷기 아졍 뎅기민 베염난덴 골아》(2021), 《정월보름날 산메 쳥 오곳이 밥 뒈민 운 좋덴》(2022), 《마 카운디 하늬ᄇᆞ름 불민 마가 장찬다》(2023), 《영등에 쉐걸름 내민 구더기 궨덴》(2024)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 구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별 풍속을 재편집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주어로 풀어 쓴 세시풍속 1-

제주시 동부 지역》, 2023년 《제주어로 풀어 쓴 세시풍속 2-서귀포시 동부 지역》을 발간했고, 그 세 번째 결실로 펴내는 책이 이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3 - 서귀포시 서부 지역》입니다. 이 책은 2023년 진행된 현지 조사와 구술 채록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고 덧붙인 것입니다.

이 책에는 서귀포시 서부 지역 9개 마을(상효동, 법환동, 하원동, 대포동, 안덕면 감산리·서광서리, 대정읍 상모1리·보성리·신평리) 어르신들의 세시풍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연구진은 26차례의 현지 조사를 통해, 마을별 당제와 마을제, 절기와 농사일, 명절과 놀이, 금기와 신앙 등 각 마을이 지닌 고유한 풍속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각 마을 어르신들의 제주어 구술을 표준어로 대역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풍속을 기록한 민속 자료집이 아니라, 제주인의 일상과 언어, 그리고 삶의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의 복원 기록입니다. 구술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는 제주의 삶을 살아낸 한 세대의 증언이자, 앞으로의 세대가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땀과 발자국으로 이 책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센터 김미진, 현혜림 선생님과 김순자 전 센터장님을 비롯한 연구진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오랜 기억을 들려주신 각 마을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제주 고유의 문화와 언어, 생활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여, 제주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주인의 삶과 언어를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I

들어가며

1. 조사 개요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절기에 따라 행하던 여러 가지 행사이다. 이는 1년 주기로 하여 명절, 신앙, 액막이, 금기, 농사일, 놀이 등의 풍습으로 그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한다. 급변하는 사회 변동과 환경 변화로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민속과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 세시풍속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과 다른 세시풍속을 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동서와 남북의 지역 차이가 나타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제주학연구센터는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동서 지역과 서귀포시 동서 지역을 나누어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세시풍속의 특징,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풍속을 제주어로 기록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또한, 사라지는 제주의 문화와 언어를 축적하고 기록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 **조사 지역**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서부 지역 9개 마을
- **조사 내용** 마을별 세시풍속
- **조사 방법** 문헌조사, 현지 조사, 연구진 회의

1) 연구진 구성

연구진은 내부 2명, 외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다.

- **연구 책임**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공동 연구** 김순자(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성용(전 중등학교 교장)
  최연미((사)제주어연구소 이사)
  현혜림(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2) 조사 범위

조사 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부 지역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귀포시 4개 마을(옛 중문면 지역 2개 마을), 안덕면 2개 마을, 대정읍 3개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고려하였다. 해안 마을로는 서귀포시 법환동, 대포동, 안덕면 감산리, 대정읍 상모1리이고, 중산간 마을로는 서귀포시 상효동 · 하원동, 안덕면 서광서리 · 보성리 · 신평리를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다.

(1)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했으며, 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문헌조사는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대한 마을지, 역사문화지 등을 토대로 조사 마을의 생활상과 생업

등을 조사, 정리하였다.

현지 조사는 2023년 3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차례 진행하였다. 현지 조사 방법은 조사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보자를 만나 〈구술로 쓰는 세시풍속 이야기 월별 조사 질문지〉를 토대로 세시풍속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지에는 옛 지명 등 조사 마을에 대한 사항과 월별 세시 풍속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 등이 담겼다. 질문지를 바탕으로 마을당 평균 2~4시간 정도 조사하였다. 또한, 해당 마을의 전경, 지명 관련 주요 지점을 촬영하여 기록하였다. 현지 조사 시 디지털 녹음기와 캠코더 등을 사용하여 구술 발화를 기록하였고, 사진 촬영은 디지털카메라와 휴대 전화, 드론 등을 활용하였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3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 세시풍속 관련 어휘를 추출하고, 마을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2) 제보자

제보자는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부 지역 해당 마을의 노인회장과 마을 이장 등의 추천으로 마을에서 오래 생활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토박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귀포시 상효동 2명, 법환동 3명, 하원동 2명, 대포동 2명, 안덕면 감산리 2명, 서광서리 2명, 대정읍 상모1리 5명, 보성리 4명, 신평리 2명 등 24명이다. 다음 〈표 1〉은 조사 마을별 제보자 정보이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정보

조사 마을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서귀포시 상효동	양유정	여	1936년
	오봉식	남	1937년
서귀포시 법환동	김효원	여	1936년
	현월선	〃	1938년
	권옥열	〃	1941년
서귀포시 하원동	강상흥	남	1941년
	강대선	여	1938년
서귀포시 대포동	강부택	남	1940년
	임정일	여	1930년
안덕면 감산리	고만부	남	1939년
	진문자	여	1940년
안덕면 서광서리	고수남	남	1935년
	임태순	여	1937년
대정읍 상모1리	강경찬	남	1939년
	우명창	〃	1943년
	강창유	〃	1937년
	박순자	여	1948년
	고춘열	〃	1947년
대정읍 보성리	송길춘	남	1939년
	고정자	여	1933년
	신순배	〃	1937년
	강정자	〃	1940년
대정읍 신평리	김여권	남	1940년
	이순자	여	1943년

(3) 조사 내용 및 자료 정리

조사 내용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부 지역 9개 마을의 세시풍속이다. 세부 내용은 마을제, 당제, 문전철갈이, 액막이, 명절, 벌초, 신구간 등 제주에서 행하였던 월별 세시와 절기별 생업 등이다.

조사한 내용은 제주어로 전사하여 구술자료집 《마 카운디 하늬ᄇᆞ름 불민 마가 장찬다》(2023)를 발간하였다. 이 구술자료집을 바탕으로 마을별 세시 풍속 자료를 요약, 정리하고 표준어와 사진 자료 등을 곁들여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Ⅰ. 들어가며, Ⅱ. 서귀포시 서부 지역 세시풍속 이야기, Ⅲ. 마을별 · 월별로 살피는 세시풍속 등 3장으로 구성하였다. Ⅰ장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부 지역 9개 마을에 관한 조사 개요를 밝혔다. Ⅱ장은 서귀포시 상효동, 법환동, 하원동, 대포동, 안덕면 감산리, 서광서리, 대정읍 상모1리, 보성리, 신평리 순으로 세시풍속을 월별로 정리, 제주어 구술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표준어로 대역할 때 일대일 대응이 어려운 어휘는 각주를 달아 그 뜻을 밝혔다. Ⅲ장은 마을별 · 월별에 따른 풍속과 농사일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귀포시 서부 지역 세시풍속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엮었다.

2. 조사 마을 소개

1) 서귀포시 상효동

서귀포시 상효동은 한라산 남쪽 중산간 지대에 있는 마을로 상효1동(서상효)과 상효2동(동상효)으로 나누어지며 행정동으로는 영천동에 속한다. 과거 '웃세둔', '중쉐둔', '알쉐둔'으로 나뉘어지던 효돈 마을은 현재 하효, 신효, 상효로 구분한다. 그중 '웃쉐둔'으로 불리는 상효동은 동쪽으로 남원읍 하례리가 서쪽으로는 토평동, 남쪽으로는 신효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상효1리, 2리, 3리로 구분되었는데 상효



상효1동 마을회관 및 청년·부녀회관.



상효2동 마을회관.



법호촌 마을회관.



전기 가설 기념비.

3리 지역은 현재 법호촌과 돈내코로 나눠진다. 법호촌은 제주사법보호위원회 후원으로 만들어진 마을로 '가나안촌'이라고도 불렸다. 돈내코는 계곡과 폭포로 이루어진 유원지 이름이기도 하고 그 주변 마을을 이르기도 한다.

상효동은 기후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감귤, 밭작물,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주업이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감귤 스마트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상효동 주민은 마을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부녀회, 청년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 꾸리는 농촌생태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마을 주요 기관으로는 마을회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돈내코유원지 등이 있다.

마을 주변 오름으로는 '영천악'과 '칡오름'이 있다. '영천악'은 마을의 북쪽을 감싸고 있으며 상효동과 남원읍 하례리의 경계 지점에 있다. 또 '칡오름'은 상효동 서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칡넝쿨이 무성하다 하여 '칡오름'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오름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장소인 포제단이 있으며, 나무와 숯을 구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상효동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곳으로, 효돈천, 돈내코 등이 있으며


영천악.


칡오름.


돈내코 원앙폭포.


조가물.

마을 안에는 용천수인 '조가물', '구상물' 등이 있다. '돈내코'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용출하여 폭포와 못을 이루고 있다. 예전에는 생활용수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시키는 피서장소이자 물놀이 장소인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용천수로 '조가물'이 있다. 이 주변에 거주하던 '조씨 집안의 물'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용천수의 수량이 일정하고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마을 주민들도 일부러 찾아왔다고 한다. 지금도 용천수 주변을 정비하여 보존하고 있다.

2)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시 법환동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정남쪽 해안 일대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서귀포시 호근동 해안을 접해 있고 서쪽으로 '두문이물'을 중심으로 강정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동서로 길게 바다와 인접한 형태로 '동동네, 섯동네, 알동네, 웃동네'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법환동 주민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여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법환동의 지형은 고도가 낮은 해안 마을의 전형이다. 높은 산이나 오름이 없고, '빽빽동산, 야니ᄆᆞ루동산, 제석동산, 무클동산, 양지ᄆᆞ루동산, 물골동산' 등 낮은 동산만 여럿 있다. 그중 '제석동산'이 제일 높으며 이 동산에는 포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다.

한편, 법환동은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해안 곳곳에 용천수가 있다. '막숙물, 공물, 베염주리, 두문이물, 넙은물, 시나물' 등을 생활용수로 이용하였다.

'막숙물'은 용천수 가운데 가장 큰 물로, 법환 포구를 달리 '막숙포구'라고 하기도 한다. 이곳은 공민왕 23년(1374)에 일어난 '목호의 난' 최후


법환 포구.


법환 포구와 막숙물.


웃물.


동카름물과 서카름물.

격전지 중 한 곳이다. '막숙'이라는 명칭은 법환 포구에 막을 치고서 최영이 군사를 독려하며 목호의 잔당을 섬멸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곳 주변으로는 '웃물, 동카름물, 서카름물, 엉덕물'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

식수로 많이 활용하던 '웃물'은 법환 마을에서 가장 위쪽에서 물이다. 이곳을 달리 '엉덕물'이라고도 한다. '동카름물'은 법환동 동쪽에서 나는 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1988년 빨래터로 새롭게 조성되었다고 한다. '서카름물'은 섯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용천수는 식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원한 물이 사시사철 흘러 여름철 휴식처로 이용하기도 한다.

마을 안에는 '공물'이 있다. 산에서 내려와 '막숙'으로 빠지는 물이다. '막숙물'만큼이나 차가워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또 '물골'이라는 큰 물통이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목욕하는 물이 있고, 다른 한쪽엔 소를 먹이는 물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그 형태나 터가 남아 있지 않다.

법환동 앞에는 범섬이 있다. 범섬은 호랑이 형세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 섬이 법환동을 지킨다는 속설이 마을 주민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범섬 옆에 작은 섬은 '새끼섬'이라고 한다. 특히 범섬은


공물.


범섬과 새끼섬.

최영 장군이 몽고의 세력을 소탕하며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르던 역사적인 장소다. 그리고 범섬 주변에는 자리돔이 많이 잡히기도 하며, 해산물이 풍부하여 법환 해녀들이 주로 물질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범섬에 고구마나 미나리를 반찬거리로 조금씩 기르거나, 봄철이면 소를 올려 기르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었다.

법환동은 마을의 안녕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을 기원하는 '앞당, 일뤳당, ᄋᆞ드렛당'이 있다. '앞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본향당이다. 좌정한 신은 '안씨할머니'로 여신이다. 제물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앞당.


일뤳당과 ᄋᆞ드렛당.


줌녀상.


최영 장군 승전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념하고자 다녀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뤳당'은 본래 다른 곳에 있었으나 몇 년 전 현재 자리로 옮겨와 '앞당'과 함께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일뤳당'은 매달 7 · 17 · 27일에 다니는 당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아이들 피부에 허물이 나지 않게 계란을 제물로 올려 기원하였다고 한다. 한편 '우드렛당'은 서호리에 있던 당이라고 한다. 이곳은 놀란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제물을 차려 가는 당이다. 제보자 구술에 따르면 '푸다시하는 당'이라고 한다. 매년 정월이면 앞당, 일뤳당, 우드렛당 순서로 마을의 신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법환동 해안가에는 법환동 어촌계와 야영장 등이 있으며 법환해녀학교와 '좀녀상'이 있다. 또한, '목호의 난'을 승리로 이끈 최영 장군을 기리기 위해 승전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3)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하원동은 한라산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영실계곡부터 일주도로까지 이어진 중산간 마을이다. 동쪽은 도순동, 서쪽은 중문동과 인접하였으며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남쪽으로는 서귀포 해안이 내려다 보인다. 예로부터 하원동은 상원, 중원, 하원처럼 구분되었지만 제주4 · 3사건과 6 · 25전쟁을 겪으며 법화사 아래인 하원 마을만 남게 되었다. 이후 중문면 하원리에 속했다가 2006년 행정 구역이 개편되면서 서귀포시 하원동이 되었다. 마을 주민은 과수업,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마을에는 하원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여러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옛 탐라대학교, 하원동

탐라왕자묘, 존자암지, 법화사, 약천사, 하원공동목장 등이 있다.

하원동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찰과 유적이 많다. 특히 법화사는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사찰로 전해지며, 인근에는 존자암지와 탐라왕자묘 등 문화유산도 남아 있다.

자연자원으로는 오름, 물 등이 풍부하다. 동산과 오름으로는 '법화동산, 포젯동산, 저산이ᄆᆞ루, 뒷동산, 물동산, 허가동산, 정등머들, 구산봉'이 있다. 그중 '구산봉'은 서귀포시 하원동과 중문동 경계 부근에 있으며 지형이 높아 정상에 구산봉수가 있었다. 이곳에서 망을 보았다고 하여 달리 '굿산망'이라고도 한다. 또 물도 풍부한 지역으로 '큰이물, 통물, 동인수, 대상골물, 비들물, 지세못' 등 용천수가 있다. 마을 주민은 '통물'을



하원마을 표지석.


하원복지회관.


법화사.


약천사.



탐라왕자묘.(2015년 촬영, 제주학아카이브 자료)



법화사 구품연지.

주로 사용하였고, '섯동네' 주민은 '동인수'를 활용했다고 한다. 영실계곡에서 법화사로 흘러 고인 '비들은물'도 있었는데 이 물은 주로 마소를 먹이는 물로 이용했다고 한다.

하원동의 당은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수호신이 좌정한 '동횃



뒷동산 비바리당.(2019년 촬영, 제주학아카이브 자료)

본향'과 '뒷동산 비바리당' 등 두 곳이 있다. 정월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물로 올려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빌었다고 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단골 대부분이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4) 서귀포시 대포동

서귀포시 대포동은 서귀포시 중심부에서 서쪽에 있는 해안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월평동, 서쪽으로는 색달동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대포포구가 자리하고 있다. 대포동은 예로부터 큰 포구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큰개'라고 한다. 마을은 완만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남쪽은 해안 절벽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해안가 일대는 현무암층이 드러난 주상절리대가 있어 제주도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은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는 반농반어가 주를 이루지만, 1970년대 이후에 어항을 정비하여 관광어항지로써 관광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대포마을회관, 주상절리전망대, 대포항, 대포어촌체험마을, 옛 경비초소, 대포연대 등이 있다.

한편, 대포연대는 제주도 연대 38개소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봉수와


대포마을복지회관.


대포동 어촌계.


대포 포구.


대포주상절리.

해안 감시 기능의 해안 방어시설이다. 1996년 제주도 기념물 제23-12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형태는 2000년대에 복원되었다. 또 옛 대포동 전경초소는 대포동 해안 절벽 지대에 위치한 옛 경비시설로 1960년대부터


대포연대 전경.


대포동 옛 전경초소.


구명물 전경.


구명물.



콧뎅이ᄆᆞ루 웃당.

2021년까지 해안 감시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초소다. 이후 유휴시설로 남겨졌지만 2023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서귀포 미래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포동에는 높은 오름은 없고 마을 안에는 물이 풍부하다. '큰개물, 구명물, 동낭알' 등은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상수도 보급으로 생활용수 기능은 줄어들고 일부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대포동에는 '할망당'과 '어부당', '자장코지 줌녀당'이 있다. '할망당'은 마을 주민이 가정의 안녕과 자녀의 복을 기원하며 제를 지내던 곳이다. 제일은 6월, 11월 또는 매달 이렛날이다. 좌정한 위치는 대포동 '콧뎅이ᄆᆞ르'이고, '웃당, 샛당, 알당' 세 곳이 있다. 세 곳 모두 신목이 있으며 현재도 단골이 다니고 있어 지전과 물색이 걸려 있다.



대포 본향 콧뎅이ᄆᆞ루 샛당.



콧뎅이ᄆᆞ루 알당.



자장코지 좀녀당.



어부당.

한편 어부와 해녀들이 해산물의 풍요와 해상 안전을 비념하는 어부당과 해녀당이 있다. 어부당은 달리 개당이라고 하며 어부가 바다로 조업하러 나가기 전 또는 초하루나 보름에 이곳을 찾아 기원한다고 한다. 포구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넋을 기원하기 위하여 요왕굿을 치르는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자장코지 좀녀당'은 대포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곳은 해녀들이 좋은 날을 택하여 메 3기, 갖은 제숙을 준비하여 간다고 한다.

5) 안덕면 감산리

안덕면 감산리는 한라산 남서쪽 안덕면 중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창천리, 서쪽으로는 화순리, 남쪽으로는 대평리와 인접하고 있다. 이 마을은 '동동네, 중동네, 섯동네' 등 3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이곳은 완만한 구릉지 지형이며 토양이 비옥하여 보리, 콩, 고구마 등 밭농사가 주업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 감귤 재배가 본격화되면서 감귤이 주요 소득원이 되었다. 마을에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여러 단체가 운영되고, 주요 시설로는 마을회관, 감산작은박물관, 새마을도서관, 남덕사 등이 있다.



감산리 복지회관.



감산작은박물관 및 민속자료실.



양제수.



양제수물.


도고새미.


통물.


남반내.


ᄌᆞ베남수.

자연자원으로는 '신산오름, 물오름, ᄃᆞ레오름, 감산오름' 등이 있다. 그 중 '감산오름'은 낮은 봉우리가 있어 마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이곳은 물이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안덕계곡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용천


생이물.


샛소.

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당물, 도고섬, 통물, 주베남수, 양제수, 코큰밧물, 각싯물' 등이 있고, 모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중 '코큰밧물'은 겨울에도 물이 따뜻하여 날이 좋으면 빨래하러 주민들이 모였다고 한다. 감산리는 안덕계곡과 곳곳에 용천수가 있어 '쒜울논, 친남밧논, 서안골논, 동알골논' 등과 같은 논이 형성되어 논농사를 짓기도 하였다고 한다.

감산리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 가정의 평안과 자손 번성 등을 기원하는 '도고새미 일렛당, 우드렛당, 통물당' 등 당이 여럿 있다.

'도고새미 일렛당'은 안덕계곡 중턱에 위치하며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


도고새미 일렛당.


도고새미 일렛당 물색.


통물당 신목.


통물당.

았고, 제단은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뉘어 있다. 주로 정월 초이렛날에 메밀도래떡, 과일, 메 세 그릇, 보시메 한 그릇, 생선, 고기, 소지, 술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렸다고 한다. 예전에는 심방이 함께 다녔지만, 현재는 개인별로 다닌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안덕계곡 안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과 바위 그늘집터 등이 있다. 안덕계곡 상록수림은 하천 주변의 원시 식생이 잘 보존되어 후박나무, 보리장나무, 담팔수, 참식나무와 고사리류 등 여러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탐라시대 후기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엉덕'과 동굴이 남아 있어 당대 주민의 주거 유형이 보존되고 있다. 또한 감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으로 토기와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6) 안덕면 서광서리

안덕면 서광서리는 한라산 남서쪽 중산간 지역에 자리한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서광동리, 서쪽으로는 구억리, 남쪽으로는 덕수리와 경계하고 있다. 예로부터 서광리, 덕수리, 사계리, 동광리를 통칭하여 '자단이, 주단이'라고 전해졌고, 1912년 이후 넓은 평지라는 의미로 '광청이, 광쳉이'라고 불리었다. 1938년 서광리가 1, 2구로 나뉘었고 1963년 건공동 일대를 서광동리, 그 이외의 지역을 서광서리로 분리하였다. 서광서리는 온화한 기후로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감귤과 밭작물 재배가 주민들의 주업이 되고 있다. 마을 주민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공동목장조합 등 자생단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 마을회관, 광화사, 옛 서광국민학교 터 등이 있다. 최근에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귤 따기 체



서광서리 복지회관.



서광서리 마을회관과 공동목장조합 사무실.



넙게오름.



남송이오름.

험, 밭담길 걷기 등 농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광서리는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이지만, 주변에는 넙게오름, 남송이오름 등이 있다. 넙게오름은 거북이 모양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광약이오름이라고도 한다. 남송이오름은 동광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행정구역은 서광서리에 속한다. 이 오름은 마을공동목장이 있는 곳이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마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오름의 형태가 '소로기'와 닮아 오름에 '소로기'가 많이 산다고 마을 주민들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봄철이면 오름에 불을 놓아 '소로기'를 쫓아 마을 피해를 막았다고도 한다. '소로기'는 솔개의 제주어다.

한편, 서광서리는 '옛날엔 물만 이서시민 살기 좋은 디'라는 말이 전해


넙게물.


동산물.


마소용 물.


마소용 물.

지듯 물이 귀한 지역이다. 대부분 물은 빗물을 받은 '앚인물'과 시멘트로 물통을 만든 석회물이라고 한다. '앚인물'로는 '넙게물, 동산물, 새물, 당나못' 등이 있다. 이 물을 긷기 위해서 주민들은 땅에 물이 고이면 모아놓았다가 먼지가 가라앉으면 깨끗한 윗물만 바가지로 떠서 허벅에 길어다가 먹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오름 가운데 있는 물은 소나 말을 먹이는 물로 활용되었다. 현재도 물이 고여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일뤳할망당'은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으며 매년 정월 초이렛날 찾아간다. 메 서너 그릇, 도래떡 등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렸다고 한다. 주로 가정의 안녕과 자손의 건강을 비는 곳이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졌으며 그곳에 '동산물절'이라는 절이 세워졌다고 한다.

7) 대정읍 상모1리

대정읍 상모1리는 서귀포시 서쪽 끝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안덕면 사계리, 서쪽으로는 하모리, 북쪽으로는 대정읍 인성리와 접하여 있다. 상모리는 일제강점기 때에는 1, 2구라 불리었지만 해방 직후 통합하여 상모리로 되었다. 1985년부터 행정구역상 대정읍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로 구분한다. 자연마을로는 상모1리 산이수동, 이교동, 상모2리는 서상동, 대동, 상모3리는 중하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상모1리는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 비옥한 땅을 갖춰 농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대부분 주민은 마늘, 양파, 보리, 고구마 등 밭작물과 감귤 과수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단체를 꾸리고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상모1리사무소와 마을회관, 옛 상모리 농업창고 등이 있다.

상모1리의 지형은 평탄한 들판이 펼쳐져 있지만, 남쪽으로는 해안 절


이교동 마을회관과 이사무소.


이교동 회관.


상모2리 복지회관.


옛 상모리 농업창고.

벽이 아름다운 송악산과 북쪽으로는 완만한 능선을 이룬 모슬봉이 자리하여 마을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송악산은 예전에는 '절울이'라고 불렸으며 소를 방목하는 곳이었다. 대략 1945년 무렵에 목장조합원 240명


산방산.


모슬봉.


정지논못.


소통.


모슬포 금융조합 건물.


옹중석.

이 모여 마을목장을 이루었으나 이후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목장도 사라졌다. 이후 1992년까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모슬봉은 예로부터 주민들이 방목과 일부 농경지로 활용하였지만 정상부에 군사시설이 있어 민간인 통제 구역이다. 현재는 관광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상모1리는 물이 귀한 곳이었다. 용천수가 없었던 이 마을은 정지논못, 절왓물, 솜통, 새통, 엉기물 등 연못이나 물통에 고인 빗물을 받아다가 먹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가물어서 물이 나오지 않거나 제사나 명절, 마을제 등 큰일을 치를 때는 이웃마을 하모리의 신영물을 떠다 먹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역사적인 장소인 모슬포 금융조합 건물, 모슬포우체국 터와 상징물 옹중석이 있다. 모슬포 금융조합 건물은 1930년대에 건립된 건물로 지역 농민과 상인이 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조선식산은행이었다. 근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로써 현재도 그 모습이 남아 있다. 모슬포우체국 터는 모슬포 지역의 통신 거점지로 우편, 전보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현재는 건물의 모습은 없고 표지석만 남아 있다. 옹중석은 상모리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상징물로, 생김새는 돌하르방과 닮았다.

8) 대정읍 보성리

대정읍 보성리는 구억리, 안성리, 인성리, 동일리, 신평리가 둘러싼 중산간 마을로, 대정읍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다. 보성리는 중동, 독고동, 사통, 하동 등 네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이 마을은 조선 중기 대정고을을 동성리와 서성리로 구분하여 부르다가 1864년 동성리가 인성리와 안성리로 분리되었고, 1887년에는 서성리를 보성리로 개칭하였다. 이 마을은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여러 단체가 있다. 보성리의 지형이 완만하며 화산회토로 배수가 좋은 토양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


보성리 표지석.


보성리 복지회관.


보성초등학교.


대정현성 일부.

들은 감귤, 감자, 마늘, 양파 등 밭작물 재배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한편, 주요 기관으로는 보성리 복지회관, 보성초등학교, 대정현성 등이 있다.

대정현성은 조선 태종 18년에 축조된 대정읍성의 터 중 하나로, 제주도 남서쪽의 중심지였다. 성 안에는 동헌, 객사, 향교, 군기고 등이 자리해 대정 지역의 행정과 군사,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현재 보성리 마을 중심부가 옛 현성 터로, 성벽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성리의 자연자원으로는 오름, 물 등이 있다. 오름으로는 돈귓동산이 있으며 이는 돼지의 귀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예로부터 이 지역은 '큰물'이라 불린 용천수가 있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매립 정비되어 그 모습이 사라졌지만, 일부 '빈갯물, 봉우릇, 족은굿' 등은 확인할 수 있다.

'봉우릇'은 비가 내린 다음 못에 물이 가득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 봉우수라 불리었다고 한다. 이 물 왼편에서는 빨래를 하고, 맞은편은 마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빨래터는 본래 '팡'이 놓여져 있었지만 1989년 확장 보수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여러 차례 재보수하면서 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족은굿'은 마소용으로 사용하던 물이


봉우릇.


족은굿.


사상백공희수거사비.


동계 정온 선생 유허비.

라고 한다. 여기서 '굿'은 땅을 움푹하게 판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다. '족은굿'은 보성리에서는 마소용으로 물을 가두기 위하여 파낸 곳이다. 현재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새들이 날아온다고 한다.

이 외에도 대정 지역의 역사, 문화, 교육의 모습이 담긴 비석들도 여럿 있다. '사상백공희수거사비'는 조선 후기 제주목사를 역임한 백희수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며, '동계 정온 선생 유허비'는 조선 중기 학자인 정온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9) 대정읍 신평리

대정읍 신평리는 대정읍 중산간 마을로, 서쪽으로는 무릉2리와 동일2리, 동쪽으로 보성리, 북쪽으로 구억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이 마을의 옛 지명은 '웃날웨'로, 넓은 들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1864년 보성리와 일과리 일부 지역을 분리 통합하여 신평리가 되었고, 2006년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가 되었다. 이 마을은 알동네, 웃동네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지형이 대체로 평평하고 흙이 좋아 예로부터 기와, 옹기를 굽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달리 '옹기밧'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옹기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마을 주민이 감귤, 한라봉 등 과수 재배나 마늘, 양파 등의 밭작물 수확 등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여러 단체를 꾸리고, 주요 기관으로는 신평리 마을회관, 신평보건진료소, 신평분교 옛터 등이 있다.

특히 신평생태체험학교는 가족이나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 곶자왈 탐방, 곤충 관찰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신평리 표지석.


신평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평생태체험학교.


신평생태체험학교 내 숯가마터.

다. 또 생태체험학교에는 숯가마터를 조성하여 예전에 이 마을의 생업으로 행해졌던 숯 굽는 전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평리 마을 자원으로는 오름, 용천수, 물통, 저수지 등이 있다. 평평한 지형인 신평리에는 유일하게 높은 '한수기오름'이 있다. 용천수로는 '산물코지'가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하여 달리 '산물'이라고도 한다. 마을제나 가정에서 제사, 명절 등 중요한 날에 길어다 쓰는 귀한 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지하수 개발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매립되어 그 모습이 보존되지 않고 있다. 한편, 마을 안에 '도리못, 한질못' 등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연못형 지형이 남아 있다. 이곳은 식수나 마소용으로


도리못.


웃보.


신평리 마을 비석.


열녀오씨지문.

사용되었다고 한다. '도리못'은 신평리 복지회관에서 남서쪽에 있다.

제보자 구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논이 있었기 때문에 신평리는 '쌀밥 먹엉 사는 동네'라고 한다. 이러한 논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 저수지인 '웃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웃보'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면적이 좁아졌지만, 현재도 농사용, 우마급수용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알동네 물통, 신물대 물통, 처남밧 물통, 서녁물 물통, 앞물통'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주로 목욕용이나 마소 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외 마을 자원으로 신평리에는 열녀오씨지문 등이 있다. 열녀오씨지문은 구억리에서 신평리로 들어오는 도로 왼편에 있다. 열녀 오씨는 제주 화순 사람으로 신평리 박성림의 처를 말한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남편을 기리는 마음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 모두가 효성과 정절을 칭찬하였으며, 1941년에 그 후손이 열녀 오씨를 기리고자 이 비석을 도로 길목에 세웠다고 한다.

II

서귀포시 서부 지역 세시풍속 이야기

1. 서귀포시 상효동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 방에 지기

ᄀᆞ루 어디 강 ᄀᆞᆯ아 방에로 지주. 이어 이어, 이어 이어 방에로 지주. 미리 (ᄊᆞᆯ) 크주게, 미리. 젤 미리가 ᄊᆞᆯ 크고, ᄊᆞᆯ, ᄊᆞᆯ 물에 시경 커. 커근에 뒷날 건져근에 그걸 ᄲᅳᆺ아, 방에 지멍. 남방에, 돌혹 잇고. 그거에 져근에. 게난에 저 동세도 잇곡 영 헌 사름은 둘리 허주마는 엇이민 혼자 헤야주 어떵헐 거라. 경헤야 뒈어. ᄀᆞ레는 그 방에 찌는 걸로 헤져. 경 헤여. 경헨 살안, 떡허고.[1]

가루 어디 가서 갈아 방아로 찧지. 이어 이어, 이어 이어 방아로 찧지. 미리 (쌀) 담그지, 미리. 제일 미리 쌀 담그고, 쌀, 쌀 물에 씻어서 담가. 담가서 뒷날 건져서 그걸 빻아, 방아 찧으면서. 남방아, 돌확 있고. 그거에 찧어서. 그러니까 저 동서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은 둘이 하지마는 없으면 혼자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야 돼. 맷돌은 그 방아 찧는 걸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살았어, 떡하고.

1) 오유정 구술. 대부분 오유정 구술이므로 이후의 자료에서 제보자 정보를 생략한다.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언 말랑 말앙 허라. 말안 가난 놈이나 웃나. 대로한질 놀레로 가라. 놀레 모른 애기네덜아 나신드레 베우레 오라. 베웁선가 마이간 소남 지엉 보난 아니 우더라. 아니 우난 새 ᄀᆞᆯ른 방이.

이어 이어 이어도 해라, 이언 말고 말아서 해라. 말고 가니까 남이나 웃는다. 대로 한길 놀러로 가라. 놀러 모른 아기들아 나에게 배우러 와라. 배우는가 '마이간' 소나무 지어 보니 아니 울더라. 아니 우니까 새 그른 방아.

몰르지게. 몰르지, 알 수가 엇지. 노래가 그거 다 방에 짛는 거라. 심방 허는 것도 봐신디 말아신디 몰른디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세콜방에 새 글럼서라 헌 거 들어봐신가?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세콜방에 새 글럼서라 헌 건 사름이 세 사름 허민 이걸 새 글렁 잘못 져. 게민 자기가 시집가민 ᄋᆞ섯 콜로도 새 맞촤. ᄋᆞ슷 사름이 헤도 그추룩 새를 맞춘다 이거라. 그추룩허멍 살고렌 눈물 지멍 가시오름 강당장칩에 세콜방에 새 글럼서라. 전성 궂인 이내몸 가난 ᄋᆞ슷 콜로 새 ᄀᆞᆯ라간다. 새 ᄀᆞᆯ라. 영 그다음 이거 이걸 일로 심주게, 방에를 이짝으로 이짝으로 지치면 웬쪽으로 헷당 ᄂᆞ단쪽으로 헷당 헐 거 난에. 강당장아, 강당장아, 진ᄀᆞ루 서사 낭웨여, ᄃᆞᆫ장 서사 칼국이여 그 소님 와도 헤 줄 것이 엇인디 어디 시민 허느니 그축 헹 거 노래.

모르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노래가 그거 다 방아 찧는 거야. 무당 하는 것도 봤는지 말았는지 모르는데 '가시오름'[2] '강당장'[3] 집에 '세콜방아'[4] 사이 맞지 않고

2) '가시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이다.
3) '강당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살았다는 부자를 이른다.
4) '세콜방에'는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찧는 일을 말한다.

있더라 한 거 들어 봤는가?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콜방아' 사이 맞지 않고 있더라 한 건 사람이 세 사람 하면 이걸 사이가 맞지 않아서 잘못 찧어. 그러면 자기가 시집가면 여섯 '콜'도 사이 맞춰. 여섯 사람이 해도 그처럼 사이를 맞춘다 이거야. 그처럼 하면서 살았다고 눈물 지으면서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콜방아' 사이 그르고 있더라. 전생 궂은 이내몸 가니 여섯 '콜'도 사이가 고르게 된다. 사이 고르게. 이렇게 그다음 이거 이걸 이리로 잡지, 방아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찧으면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고 할 거니까. '강당장'아, '강당장'아, '진ᄀᆞ루' 있어야 '낭웨'다, 단 장 있어야 '칼국'[5]이다 그 손님 와도 해 줄 것이 없는데 어디 있으면 하느냐고 그처럼 해서 그거 노래.

진ᄀᆞ루는 ᄀᆞ루 곤 ᄀᆞ루, 곤 ᄀᆞ루가 서사. 기자 ᄀᆞ루, ᄀᆞ루, 곤 ᄀᆞ루. 낭웨는 떡이지게. 떡 기냥 낭웨엔 헌 떡은 침떡 닮은, 비슷헌 떡인디 그 떡ᄀᆞ라 낭웨라, 일름이. 이추룩 영 ᄉᆞ랑헌 거. 보리빵, 보리빵 아니고 기냥 밀ᄀᆞ루떡치룩 헌 거주게. 밀ᄀᆞ루 허는 거주 옛날 그 말은 진ᄀᆞ루라, 진ᄀᆞ루. 진ᄀᆞ루 서사 낭웨여, 돈 장 서사 칼국이여. 맛 존 장이 이서사 칼국을 멘들 거 아냐? 맛 존 장 엇언 칼국을 못헌다 이거라. 그런 거 엇인디 소님을 ᄃᆞᆯ앙 오민 나가 어떵 헹 처리를 허느닌 남편안티 허는 말. 경허는 말.

'진ᄀᆞ루'[6]는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있어야. 그냥 가루, 가루, 고운 가루. '낭웨'[7]는 떡이지. 떡 그냥 '낭웨'라고 하는 떡은 시루떡 닮은, 비슷한 떡인데 그 떡보고 '낭웨'야, 이름이. 이처럼 이렇게 기름한 거. 보리빵, 보리빵 아니고 그냥 밀가루떡처럼

5) '칼국'은 메밀가루나 밀가루 반죽 따위를 방망이로 밀어서 굵직굵직하고 조각지게 썰어서 끓인 음식이다.
6) '진ᄀᆞ루'는 곱게 간 밀가루를 말한다.
7) '낭웨'는 밀가루로 술 따위를 넣어 발효시킨 후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쪄낸 떡이다.

한 거지. 밀가루 하는 거지 옛날 그 말은 '진ᄀᆞ루'야, '진ᄀᆞ루'. '진ᄀᆞ루' 있어야 '낭웨'다, 단 장 있어야 '칼국'이다. 맛 좋은 장이 있어야 '칼국'을 만들 거 아니냐? 맛 좋은 장이 없어서 '칼국'을 못한다 이거야. 그런 거 없는데 손님을 데리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느냐고 남편한테 하는 말. 그렇게 하는 말.

(섣ᄃᆞᆯ그믐날 ᄌᆞᆷ자민 눈썹 희어 분다) 그런 말이 잇어. 겐디 눈썹 안 희언게. 안 자도 눈썹 안 희어, 거 거짓말.

(섣달그믐날 잠자면 눈썹 하얗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눈썹 하얗게 안 되더라. 안 자도 눈썹 안 하얘, 거 거짓말.

(2) 차례

- **떡국멩질**

(떡국멩질) 이디도 허주, 허는 사름은. 허는 사름은 허는디 우린 무사 아니 헤신고 허민 너미 구신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걸 다 그거 허곡 그거 허곡 허젠 허민 너무 힘들어. 게난 밥만 허고 국만 허고 겅 헷어. 허기 전에 헤영 다 허는 게 아니고 ᄒᆞᆯ 때 ᄀᆞ찌. ᄒᆞᆯ 때 떡국 헤근에 올리고 또 밥헹 올리고 ᄒᆞᆫ번에 막 헤, ᄒᆞᆫ번에. (떡국) 내려둰 이거 치우지 아녕 그대로 밥 올려. 겅 허는 거. 겅 허여. 안 치와. 게 아녀는 집은 아녀고. 정월 멩질 그추룩만 ᄀᆞᆫ주.

(떡국명질) 여기도 하지, 하는 사람은. 하는 사름은 하는데 우린 왜 하지 않는고 하면 너무 귀신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걸 다 그거 하고 그거 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밥만 하고 국만 하고 그렇게 했어. 하기 전에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같이. 할 때 떡국 해서 올리고 또 밥해서 올리고 한꺼번에 막 해, 한꺼번에. (떡국) 내려두고 이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밥 올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 안 치워. 그렇지 않는 집은 않고. 정월명질 그처럼 말하지.

• 진설하기

탕쉬부떠 ᄆᆞᆫ여 올리주. 탕쉬부터 ᄆᆞᆫ여 올려. 제 때 막 뒈사 (밥국) 올리는 거고. 탕쉬 올려근에 ᄆᆞᆫ 소님 오랑 절허곡 탕쉬만 올려근에 그레 또 오면은 술잔 놔근에 술 비와근에 또 올리곡 다 헤여. 경 허당 밥허고 국은 젤 마지막에 올려. (국은) 소고기 아니민 바닷고기. ᄂᆞᆷ삐나 메역이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엇어. (적은) 젤 이짝. 젤 뒤에. 이디 ᄒᆞ나 저기 ᄒᆞ나. 이디 이추룩 영 아지곡 과일, 이디 과일.

'탕쉬'[8]부터 먼저 올리지. '탕쉬'부터 먼저 올려. 제 때 막 되어야 (밥국) 올리는 거고. '탕쉬' 올려근에 모두 손님 와서 절하고 '탕쉬'만 올려서 그리 또 오면은 술잔 놔서 술 비워서 또 올리고 다 해. 그렇게 하다가 밥하고 국은 젤 마지막에 올려. (국은) 소고기 아니면 바닷고기. 무나 미역이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적은) 젤 이쪽. 젤 뒤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이처럼 이렇게 앉고 과일, 여기 과일.

경 허민 탕쉰 이디 뒈주게. 이디 영 쭉, 일로 쭉허게. 탕쉬 올리면 ᄒᆞᆫ 사름이 세 개 아니고 ᄀᆞ찌, 사이 조난 ᄀᆞ찌 먹어. 구신, 이 분이 ᄀᆞ찌 먹어. 콩ᄂᆞ물, 또 뭐 호박 ᄀᆞ뜬 거. 여러 가지, ᄒᆞᆫ 서너니 가지 올리주. 묵은

8)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을 말한다.

따로, 따로, 딴 그릇에. 묵메물. 고사리 메물, 묵메물, ᄂᆞ물채 메물 ᄃᆞᆫ딱 메물이엔은 ᄀᆞᆯ아야 뒈어. 메물. 아니 게난 탕쉬엔 ᄀᆞᆯ아도 뒈주마는 메물이엔 ᄀᆞᆯ아사 정확허주게. 메물이엔 ᄀᆞᆯ아사 이거 고사리 메물, 호박 메물, ᄂᆞᆷ삐 메물, ᄃᆞᆫ딱 경헹, 묵메물 경 메물이엔 ᄀᆞᆯ아사주. (떡은) ᄀᆞ치 놔. 게민 이거 영 안 헤여, 이디 ᄒᆞ나 노민 뒈주. 갈랑 먹어.

그렇게 하면 '탕쉬'는 여기 되지. 여기 이렇게 쭉, 이리로 쭉하게. '탕쉬' 올리면 한 사람이 세 개 아니고 같이, 사이 좋으니까 같이 먹어. 귀신, 이 분이 같이 먹어. 콩나물, 또 뭐 호박 같은 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올리지. 묵은 따로, 따로, 딴 그릇에. '묵메물'[9]. 고사리 '메물'[10], '묵메물', 나물채 '메물' 모두 '메물'이라고 말해야 돼. '메물'. 아니 그러니까 '탕쉬'라고 말해도 되지마는 '메물'이라고 말해야 정확하지. '메물'이라고 말해야 이거 고사리 '메물', 호박 '메물', 무 '메물', 모두 그렇게 해서 '묵메물' 그렇게 '메물'이라고 말해야지. (떡은) 같이 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안 해, 여기 하나 놓으면 되지. 갈라서 먹어.

숟구락 이디 두 갠 놔야 뒈. 두 개 이거 두 개 다 ᄀᆞ치. 게근에 이거 헤당 이레 찔르곡, 이레 찔르고. 또 앗아불 때도 이거 빠다근에 이레 찔르곡. 경 헤낫어. 모삿접신 아래, 이 상보단 아래 상 잇잖아. (모삿접시에) 아무것도 안 놔. 어떤 집인 미깡낭 썹도 ᄒᆞ나 ᄐᆞᆫ아당 놓고, 어떤 집인 새 껍. 새, 껍. 것도 ᄒᆞ나 헤당. 저 무꺼근에 영 그 뭐 모양 내왕, 새 껍으로. 모양 내왕 놓곡 경 헤여. 이 큰집인 그 놓는 낭이 이서. 썹, 썹 놓는 썹이 이서. 굽돋은접시 이시민 허주마는 엇주게, 엇어. 엇이민 기자 접시에도 허고.

9) '묵메물'은 메밀묵을 가늘게 채 썰어서 나물처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다.
10) '메물'은 고사리, 콩나물, 호박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채소 따위를 말한다.

(요즘은) 안 놔. 안 놓고 저 이디 무신 잔 헤나민 이디 무시거 이서. 잔 헤나민 저 술이나 감주나 이레 쪼끔 비우는 거 이선게.

숟가락 여기 두 갠 놔야 돼. 두 개 이거 두 개 다 같이. 그래서 이거 해다가 이리 찌르고, 이리 찌르고. 또 가져 버릴 때도 이거 빼다가 이리 찌르고. 그렇게 했었어. '모삿접시'[11]는 아래, 이 상보단 아래 상 있잖아. ('모삿접시'에) 아무것도 안 넣어. 어떤 집엔 귤나무 잎도 하나 뜯어다 놓고, 어떤 집은 띠 껍질. 띠, 껍질. 그것도 하나 해다가. 저 묶어서 이렇게 그 뭐 모양 내서, 띠 껍질로. 모양 내서 놓고 그렇게 해. 이 큰집은 그 놓는 나무가 있어. 잎, 잎 넣는 잎이 있어. 굽달이[12] 있으면 하지마는 없지, 없어. 없으면 그저 접시에도 하고. (요즘은) 안 놔. 안 놓고 저 여기 무슨 잔 하고 나면 여기 무엇 있어. 잔 하고 나면 저 술이나 감주나 이리 쪼끔 비우는 거 있더라.

(멩질헐 때 상 멧 개 출립니까?) 우리 막 하영 헤낫어. 열, 열두 개. (식게를) 열두 번 허주. 매날 식게주. 또 그것에 삭망 혼 덜에 두 번 허곡. 제 열두 번 허곡 멩질, 멩질 네 번 허곡, 혼 덜에 두 번씩 삭망허곡 허민 매날 허는 거라, 매날. 진짜 겅 허주게. 멩질 네 번, 네 번허곡 또게 그 삭망,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으민 삭망 혼 덜에 두 번 허주. 보름날 허곡 초ᄒᆞ룰날 허곡. 경 허곡 또 그때에 ᄆᆞᆫ 삼 년 허민 그다음 담제허곡 그추룩 헤여. 백일허곡. 백일 뒈민 그때게 살단에 백일허민 그 설러비어나, 설러빗주게. 백일허민. 겐디 이딘 백일허곡 또 그다음 또 상식이엔 헤근에 매날 밥 놓곡. 상식이엔, 매날 놓곡. 거 놓곡 또시 그 삭망 두 번 허곡 제허곡 멩질허곡 허민 아녀는 날이 엇인 거 닮아. 아녀는 날이 하주마는, 하주마는.

---

11) '모삿접시'는 제사에서, 술을 따르는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은 띠의 묶음을 넣는 접시를 말한다.

12) '굽달이'를 제주에서는 '굽돋은접시'라고 하는데 굽이 달린 접시를 말한다.

(명질할 때 상 몇 개 차립니까?) 우리 아주 많이 했었어. 열, 열두 개. (제사를) 열두 번 하지. 맨날 제사지. 또 그것에 삭망 한 달에 두 번 하고. 제 열두 번 하고 명질, 명질 네 번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삭망하고 하면 맨날 하는 거야, 맨날. 진짜 그렇게 하지. 명질 네 번, 네 번 하고 또 그 삭망, 어머니나 아버지나 죽으면 삭망 한 달에 두 번 하지. 보름날 하고 초하룻날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때에 모두 삼 년 하면 그다음 담제하고 그처럼 해. 백일하고. 백일 되면 그때 살다가 백일하면 그 그만둬 버렸, 그만둬 버렸지. 백일하면. 그런데 여긴 백일하고 또 그다음 또 상식이라고 해서 맨날 밥 놓고. 상식이라고, 맨날 놓고. 그거 놓고 또 그 삭망 두 번 하고 제하고 명질하고 하면 안 하는 날이 없는 거 같아. 안 하는 날이 많지마는, 많지마는.

• 차례 지내기

우리 그때는 막 하. 굉장히 하낫어. 저녁때까지. 경헷는데 그루후제 조끔 갈랏어. 자꾸 갈랏어. 우리 족은아덜이니까 마주막 뒈주. 우린 종손칩이가 젤 말째. 저녁 뒈불어. 경 뒛주. 우리 동네가 이 알동네ᄁᆞ지 전부. 우리 큰아덜은 여기 잇고, 두 번째는 저 알동네 잇고, 우리가 세 번째. 거니까 부락이 전부. 멩질상. 멩질상이나 젯상이나 뭐. 이디 밥상, 국상 놓고. 아니, 아니, 말째라, 젤 말째 탕쉬 말째, 탕쉬가 말째. 젤 ᄆᆞᆫ처 밥상, 밥, 국, 적, 고기, 고기 이디 영 노민. 여기, 여기는 바닷고기. 홍동백서헷주게. 홍동, 홍동이민 붉은 건 사과. 배는 (이짝에).[13]

우리 그때는 아주 많아. 굉장히 많았어. 저녁때까지. 그랬는데 그후에 조끔 나눴어. 자꾸 나눴어. 우리 막내아들이니까 마지막 되지. 우린 종손집이 젤 말째. 저녁 되어 버려. 그렇게 됐지. 우리 동네가 이 아랫동네까지 전부. 우리 큰아들은 여기 있고, 두

13) 오봉식 구술. 보조 제보자로 중간중간 구술 내용이 나올 때 제보자 정보를 제시한다.

번째는 저 아랫동네 있고, 우리가 세 번째. 그러니까 부락이 전부. 명질상. 명질상이나 제상이나 뭐. 여기 밥상, 국상 놓고. 아니, 아니, 말째야, 젤 말째 '탕쉬' 말째, '탕쉬'가 말째. 젤 먼저 밥상, 밥, 국, 적, 고기, 고기 여기 이렇게 놓으면. 여기, 여기는 바닷고기. 홍동백서했지. 홍동, 홍동이면 붉은 건 사과. 배는 (이쪽에).

• **잡식**

이디 사름덜은 양반이난에 제사헤여근에 그 저 잡식도 안 허메. 잡식도 아녀. 이디 이 부락, 상효. 잡식도 아녀. 겡 어른덜신디 밥 아져다가 다 먹읍디가 헹 들렁 오는 거. 이디 사름은 다. 이디 오씨, 오씨 집안에 잡식 아녀. 나 처음 오난 ᄒᆞ쏠 이상케, 이상허듯 헨게. 우린 경 아녕 그 잡식을 허주게, 우리 친정엔. 이딘 오난에 어른덜신디 밥 아져당 놧다근에. 그자 내령, 물도, 숭늉 올린 것도 앗당 먹어 불곡 원 올리는 거 엇어. 이지금도 경 허여. 이디 막 그런 구신 엇인 디. 게난 저레 올레레 데끼는 거 엇어. 전혀 엇어. 안 헤, 당췌. 이디도 다른 집이 무신 성이 다른 씬 허지. 오칩인 안 헤. 다른 성이 다른 성은 헤. (문전상) 안 헤. 문전 몰른 공ᄉᆞ가 잇어, 이디. 진짜 문전 안 헤. 본상 하나만 옵디가 헹 그 어른 왕 가 불민 메기.

여기 사람들은 양반이니까 제사해서 그 저 '잡식'[14]도 안 해. '잡식'도 안 해. 여기 이 부락, 상효. '잡식'도 안해. 그렇게 어른들에게 밥 가져다가 다 드셨습니까 해서 들고 오는 거. 여기 사람은 다. 여기 오씨, 오씨 집안에 잡식 안 해. 나 처음 오니까 조금 이상하게, 이상하듯 하더라.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잡식'을 하지, 우리 친정엔. 여긴 오니까 어른들에게 밥 가져다 놨다가. 그저 내려서, 물도, 숭늉 올린 것도

14) '잡식'은 조상이나 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제물을 조금씩 뜯어내는 것, 또는 그것을 뿌려서 귀신을 대접하는 일이다.

갖다가 먹어 버리고 원 올리는 거 없어. 지금도 그렇게 해. 여기 막 그런 귀신 없는데. 그러니까 저리 오래에 던지는 거 없어. 전혀 없어. 안 해, 당최. 여기도 다른 집에 무슨 성이 다른 씬 하지. 오씨집은 안 해. 다른 성이 다른 성은 해. (문전상) 안 해. 문전 모른 공사가 있어, 여기. 진짜 문전 안 해. 본상 하나만 오셨습니까 해서 그 어른 와서 가 버리면 끝.

- **고팡제**

고팡엔 허여, 이디. 건 칠성이엔 허멍 고팡에 강. 그자 항 우에 그런 디 올려. 우린 제 안 허난 그런 거 안 허주게. 메누리가 허주. 헐 때는 게메 이런 무신 저 가구 영 논 디 시민 그런 디도 허고. 고팡 엇어부난 부엌에 놔, 부엌에. 엇어부난, 고팡이 엇어부난, 집을. 똑ᄀᆞ뜬 거. 도세기, 뒈지고기만 안 허는 거. 본상엔 올리는디 칠성엔 아녀. (나머진) 똑ᄀᆞ따. 국 올리주게. (탕쉬는) ᄒᆞ나에만, 그릇 ᄒᆞ나에. (묵은) 그 탕쉬레 ᄒᆞ나. (그릇) 세 개 아니 ᄒᆞ나, 그릇 ᄒᆞ나에 (위에) 묵메물. 경허는 거. (떡도) 다 올려, 다. 건디 그건 ᄂᆞᆷ은 안 줘. 식구만 먹어.

고방에는 해, 여기. 그건 칠성이라고 하면서 고방에 가서. 그저 항아리 위에 그런데 올려. 우린 제 안 허니까 그런 거 안 하지. 며느리가 하지. 할 때는 글쎄 이런 무슨 저 가구 이렇게 놓은 데 있으면 그런 데도 하고. 고방 없어져 버리니까 부엌에 놔, 부엌에. 없어져 버리니까, 고방이 없어져 버리니까, 집을. 똑같은 거. 돼지, 돼지고기만 안 하는 거. 본상엔 올리는데 칠성엔 안 해. (나머진) 똑같아. 국 올리지. ('탕쉬'는) 하나에만, 그릇 하나에. (묵은) 그 '탕쉬'에 하나. (그릇) 세 개 아니 하나, 그릇 하나에 (위에) '묵메물'. 그렇게 하는 거. (떡도) 다 올려, 다. 그런데 그건 남은 안 줘. 식구만 먹어.

(3) 절식

• 멩질떡

떡도 솔벤 절벤 인절미 우찍 허주게. 거난에 젤 ᄆᆞᆫ여 침떡은 밧이고 그다음에 인절민 밧 영 짤라진 밧이고 저 해는 절벤, ᄉᆞᆯ벤은 ᄃᆞᆯ, 우찍은 벨. 겅허는 거. 떡 헤근에 게난 그거 올리는 그 ᄎᆞ례가 이서. 밧 영, 영허민 영 ᄉᆞ랑헌 건 밧. 이거 영 파니로 영헌 건 인절미 또 해는 동글랑헌 거 절벤, 해, ᄃᆞᆯ 반착은 ᄉᆞᆯ벤, 영 그거는 ᄃᆞᆯ 반착 뜻에서 헌 거고 또 벨 요만이 헌 떡, 건 세 개 올리주. 영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게메 요새 사름덜 경 (기름떡처럼) 멘들주게. 옛날은 요추룩, 저, 엇이난 걸 거라. 엇이난, 영영 접으곡이, 그것이 옛날 떡. 경 헤낫주게. 경헤근에 그 세 개, ᄃᆞᆯ 반착 건 영 헌 것에 딱 끈어 부난 ᄃᆞᆯ 반착. 또 해는 두 개 헹 딱 부쩡 누르떠 불주. 게난 그거 해. 게난 그 뜻에서.

떡도 솔편, 절편, '인절미'[15] 웃기떡 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루떡은 밭이고 그 다음에 '인절미'는 밭 이렇게 잘린 밭이고 저 해는 절편, 솔편은 달, 웃기떡은 별. 그렇게 하는 거. 떡 해서 그러니까 그거 올리는 그 차례가 있어. 밭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름한 건 밭. 이거 이렇게 이랑으로 이렇게 한 건 '인절미' 또 해는 동그란 거 절편, 해, 달 반쪽은 솔편, 이렇게 그거는 달 반쪽 뜻에서 한 거고 또 별 요만큼 한 떡, 그건 세 개 올리지. 이렇게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글쎄 요새 사람들 그렇게 (기름떡처럼) 만들지. 옛날은 요처럼, 저, 없으니까 그럴 거야,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고, 그것이 옛날 떡.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그 세 개, 달 반쪽 그건 이렇게 한 것에서 딱 잘라 버리니까 달 반쪽. 또 해는 두 개 해서 딱 붙여서 눌러 버리지. 그러니까 그거

15) '인절미'는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이다.

해. 그러니까 그 뜻에서.

• 멩질 음식

젤 먼여 허는 거 고사리. 꺼꺼다근에 놧다근에 거 솖앙 그거 보끄민. 묵허고 적허고. 돈 엇이난 고기 점이 요만썩 헤근에 네 개썩 꿰어, 요만썩 썰엉. 소고기허곡 뒈지고기. 그때는 네 개, 묵도 네 개, 다 네 개. 묵도 네 개. 거난 그것이 무슨 때문이닌 허민 ᄉᆞ디 ᄉᆞ대 허겟습니다. ᄉᆞ디 ᄉᆞ대, 나가 멩질을 허젠 ᄒᆞ민 일대, 이대, 삼대, ᄉᆞ대, 경헤근에 ᄉᆞ디 ᄉᆞ대 허겟습니다 헹 네 개. 네 개 끈엉, 네 개난 ᄉᆞ디 ᄉᆞ대허쿠다. ᄉᆞ디 ᄉᆞ대허쿠다 헌 거, 네 개. 네 개.

제일 먼저 하는 거 고사리. 꺾어다가 놨다가 그거 삶아서 그거 볶으면. 묵하고 적하고. 돈 없으니까 고기 점이 요만큼씩 해서 네 개씩 꿰어, 요만큼씩 썰어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그때는 네 개, 묵도 네 개, 다 네 개. 묵도 네 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때문이냐고 하면 '스디 스대' 하겠습니다. '스디 스대', 내가 명질을 하려고 하면 일대, 이대, 삼대, 사대, 그렇게 해서 '스디 스대'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개. 네 개 잘라서, 네 개니까 '스디 스대'하겠습니다. '스디 스대'하겠습니다 한 거, 네 개, 네 개.

(4) 과세

• 세배 드리기

(정월 멩질날) 세배 디리레 남자만 가주게. 세뱃돈이 어디 서? 엇어, 엇어 그냥 무주건 절헹 나오곡, 절헹 나오곡 허는 거. 겐디 (감주) 그런 거 먹엉 가렌 헤도 기냥 나와. 나오는 사름이 많아. 거 다 어떵. (세뱃돈을 아이들에

게) 학교 가가사. 학교 가사. 그땐 세뱃돈이 하영 주질 못헷주게. 엇이난 쪼끔씩.

(정월 명질날) 세배 드리러 남자만 가지. 세뱃돈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조건 절해서 나오고, 절해서 나오고 하는 거. 그런데 (감주) 그런 거 먹어서 가라고 해도 그냥 나와. 나오는 사람이 많아. 거 다 어떻게. (세뱃돈을 아이들에게) 학교 가야. 학교 가야. 그땐 세뱃돈을 많이 주질 못했지. 없으니까 쪼끔씩.

저 알동네ᄁᆞ지 다 뎅겻어. 종일, 종일. 어른 잇는 디 다 가. (세뱃돈) 그런 거 엇어. (어른들은) 술도 주곡 감주도 주곡 헤.[16]

저 아랫동네까지 다 다녔어. 종일, 종일. 어른 있는 데 다 가. (세뱃돈) 그런 거 없어. (어른들은) 술도 주고 감주도 주고 해.

2) 새철드는날

• 금기

(ᄂᆞᆷ이 집이 가지 말라) 건 무슨 따문인지 겅허여. 가지도, 경 ᄀᆞᆯ아나 부난 가지도 못허고. 새철드는날. 그날이 꼭 징어젼 잇는 거. 매해마다 그날.

(남의 집에 가지 말라) 건 무슨 때문인지 그렇게 해. 가지도, 그렇게 말해 버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새철드는날'[17]. 그날이 꼭 정해져 있는 거. 매해마다 그날.

16) 오봉식 구술.

3) 포제

• 제관 선정

포제부터 헐 거. 포제허젠 허민은 사름 젤 우이, 우잇사름이고 이런 손도 다 이추룩 깨끗헤야 뒈고 손꼬락 ᄒᆞ나 엇어도 안 뒈고, 어디 병신 뒈민 안 뒈어. 포제, 큰 제관을 못 허여. 제관허젠 허민 큰 제관, 게난 거 국궁백 허는, 국궁백 허는 사름이 세 사름이 사야 뒈는 거주게. 절허는 거영, 큰 제관이 세 사름이 이서사 제관 시작허는 거. 경헤근에 난 나도 허는 거 구경헌 거뿐. 그디 강 뭐 나가 어떵, 여자난 몰르주. (남편도) 헤낫주게. 여자덜 자기 집이들은 가야만 거 허게 뒀어. 메도 허고, 메 때문에 그디 먹을 거 시껑 가살 거난에게. 거난 그거를 여자가 헤사주게. (음식) 만들어야 뒐 거라 부난. 오늘부떠 저 남저 제관을 허면은 삼일 거기서 멕이고 마을회관에서 허면, 전이. 옛날은 집이, 집이서 헷주게. 집이서, 큰집이서, 큰제관 헌 집이서. 게난 사름 ᄀᆞᆯ려사. 돌아가멍 이디 ᄒᆞᆫ 번 허민 동상효 ᄒᆞᆫ 번 허고, 동상효 ᄒᆞᆫ 번 허민 이디 ᄒᆞᆫ 번 허고, 경 헤낫주게. 경 허단에 이제도 경은 헤, 이제도 경은 허는디 그걸 영 발 ᄒᆞ꼼 절아도 안 뒈곡게. 절아도 안 뒈. 큰 제관을 허젠 허민 그추룩 헤야 뒈.

포제부터 할 거. 포제하려고 하면 사람, 젤 위, 윗사람이고 이런 손도 다 이처럼 깨끗해야 되고 손가락 하나 없어도 안 되고, 어디 병신 되면 안 돼. 포제, 큰 제관을 못 해. 제관하려고 하면 큰 제관, 그러니까 그거 '국궁백'[18] 하는, '국궁백'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서야 되는 거지. 절하는 거랑, 큰 제관이 세 사람이 있어야 제관 시작하는

17) '새철드는날'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로 입춘을 말한다.
18) '국궁백'은 국궁 배례를 뜻하는 것으로 윗사람이나 위패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 절하는 것으로 포제의 제차 중 하나다.

거. 그렇게 해서 난 나도 하는 거 구경한 거뿐. 거기 가서 뭐 내가 어떻게, 여자니까 모르지. (남편도) 했었지. 여자들 자기 집 남편들이 가야만 그거 하게 됐어. 메도 하고, 메 때문에 거기 먹을 거 실어 가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가 해야지. (음식) 만들어야 될 거여서. 오늘부터 저 남자 제관을 하면 삼일 거기서 먹이고 마을회관에서 하면, 전이. 옛날은 집에, 집에서 했지. 집에서, 큰집에서, 큰제관 한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 가려야. 돌아가면서 여기 한 번 하면 동상효 한 번 하고, 동상효 한 번 하면 여기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도 그렇게는 해, 이제도 그렇게는 하는데 그걸 이렇게 발 조금 절어도 안 되고. 절어도 안 돼. 큰 제관을 하려고 하면 그처럼 해야 돼.

• 금줄

포제다 허민 가질 아녀 아시에. 아무나 가지 아녀. 남저들은 가. 남저들은 가는디 여전 절대 안 들어가. 출리는 사름 웨론 안 들어가. 그 경로당에 제관덜이 다 이서도 나 금줄 치는 거 안 봣는디. 포제허젠 허민 삼일 정성.

포제다 하면 가질 않아 아예. 아무나 가지 않아. 남자들은 가. 남자들은 가는데 여자는 절대 안 들어가. 차리는 사람 외로는 안 들어가. 그 경로당에 제관들이 다 있어도 나 금줄 치는 거 안 봤는데. 포제하려고 하면 삼일 정성.

• 산메 치기

(밥은) 그거 산메로 쳐. 사발에서 밥을 헌 거주게. 이디 물 이거 물 솟디 물 놧지. 이레 쏠을, 곤쏠은 그 사발뚜께로, 사발뚜께로 숩빡 넹기, 넘, 잘잘잘 넹기지만 말젠 허민 밥이 딱 맞고. 좁쏠은 반 더 놔야 뒈. ᄒᆞ나 더 놔야 뒈, 안 허민 ᄀᆞᆯ라. 산메 치는 게. 뚜께가 그 사발뚜께로. 그 사발뚜께

로 밥을, 쏠을 놩 시져야 뒈어. 물은 무주근 ᄀᆞ득게. 무주근 ᄀᆞ득게, 무주근 ᄀᆞ득게 놓곡. 좁쏠은 ᄒᆞ나 놩 시질 건디 ᄒᆞ나 노민 밥이 ᄀᆞᆯ라. 게난에 이걸로 반만 더 놔. 그 사발뚜께로. 게난 세 갤 헤사주게. 세 개, 세 개. 찹쏠허곡 허민 네 개로구나, 네 개. (곤쏠 하나) 찹쏠 ᄒᆞ나, 좁쏠 두 개라. 겡 네 개, 경 허는 거.

(밥은) 그거 '산메'로 쪄. 사발에서 밥을 한 거지. 여기 물 이거 물 솥에 물 넣었지. 이리 쌀을, 흰쌀은 그 바리뚜껑으로, 바리뚜껑으로 가득 넘기, 넘, 잘잘잘 넘치지만 않으려고 하면 밥이 딱 맞고. 좁쌀은 반 더 넣어야 돼. 하나 더 넣어야 돼, 안 하면 곪아. '산메' 찌는 게. 뚜껑이 그 바리뚜껑으로. 그 바리뚜껑으로 밥을, 쌀을 넣어서 씻어야 돼. 물은 무조건 가득하게. 무조건 가득하게, 무조건 가득하게 넣고. 좁쌀은 하나 넣어서 씻을 건데 하나 놓으면 밥이 곪아. 그러니까 이걸로 반만 더 넣어. 그 바리뚜껑으로. 그러니까 세 갤 해야지. 세 개, 세 개. 찹쌀하고 하면 네 개로구나, 네 개. (흰쌀 하나) 찹쌀 하나, 좁쌀 두 개야. 그렇게 네 개, 그렇게 하는 거.

바드렝이 놩 물 놩 허는디 이것이 물이 만약에 물 ᄲᅳᆩ따나 보고 싶으면 뚜께 열앙 보는 게 아니고 물을 거령 이레 착 치데겨, 솟드레. 게민 나 죽나 허민 물이 ᄲᅳᆩ뜬 거고. ᄀᆞ만이 기자 잘잘잘잘 가민 물이 안 ᄲᅳᆩ뜬 거라. 파시시시시 허주게, 나 죽노라, 나 죽노라 허민 물이 엇인 거고 게난 그땐 물을 더 놓는 거고 경 안허민 그대로 ᄉᆞ망. 핫튼 오십 분만은 물 놩 ᄉᆞᆷ으민 뒈주게. 뒈는디 분시 몰른 사람은이 물 ᄲᅳᆩ땀시카부덴 자꾸 열아 불민 밥이 재기 뒈질 아녀. 저기 나왕, 게난에, 영 허민 짐 팡팡 나불곡 허민. 난 그메 허레 자꾸 가. 겐디 이젠 늙어 부난 안 감서. 건디 자꾸 가 저 마을, 마을회관에. 게메 헐 중 몰랑, 몰랑. 알민 다 헐 수 잇는디 알질 못허여.

게난 나 자꾸 ᄀᆞᆯ아불주. 게민 이디 물을 착 치데기민 나 죽노라 허민 물이 엇엄고 ᄀᆞ만이 허민 다 이신 거난 그축 헹 허렌 시겨줘. 나 자꾸 시겨. 자꾸 경허라 물 이디서 심엉 영 착 치데기민 나 죽노라 허민 물이 엇이난 나 죽노라 허는 거고. 경 안허민 물 잇젠게.

경그레 놓아서 물 넣어서 하는데 이것이 물이 만약에 물 밭는가 보고 싶으면 뚜껑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물을 떠서 이리 착 끼얹어, 솥에. 그러면 나 죽는다 하면 물이 밭은 거고. 가만히 그저 잘잘잘잘 가면 물이 안 밭은 거야. '파시시시시' 하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 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땐 물을 더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ᄉᆞ망'. 하여튼 오십 분만은 물 넣어서 때민 되지. 되는데 분수 모른 사람은 물 밭을까봐 자꾸 열어 버리면 밥이 재게 되질 않아. 저기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김 팡팡 나 버리고 하면. 난 그 메하러 자꾸 가. 그런데 이젠 늙어 버리니까 안 가고 있어. 그런데 자꾸 가 저 마을, 마을회관에. 글쎄 할 줄 몰라서, 몰라서. 알면 다 할 수 있는데 알질 못해. 그러니까 나 자꾸 말해 버리지. 그러면 여기 물을 착 끼얹으면 나 죽는다 하면 물이 없어지고 있고 가만히 하면 다 있는 거니까 그처럼 해서 하라고 시켜줘. 나 자꾸 시켜. 자꾸 그렇게 해라 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착 끼얹으면 나 죽는다 하면 물이 없으니까 나 죽는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 있다고.

- **뒌술**

그자 술. 술허곡 막 그거는 담아살 거주, 술을. 미신 막걸리 그런 걸로 안 뒈고, 뒌술. 담으민 그거 거령 가는 거. 오메기 헤근에 좁쏠로 허는 술 잇잖아. 그거게 영 술 헤영 놔두민 ᄀᆞᆯ르주게. 게민 거 영 거령. 이젠 경 안 헴실 거라. 오메기 헤근에 누룩 놩 헹 놔두민 술이 뒈어. 쏠, 좁쏠로,

흐린좁쏠로. 흐린좁쏠허고 누룩 서껑, 서껑 헹 놔두민 술이 뒈어. 밥 헤영 누룩 놔근에 막 젓어근에 놔두면. 항아리 그 얼마 안 허는 거난 항아리 안 담아도 영 놔두민 ᄀᆞᆯ라근에 저 밥은 알르레 가곡 우이 곱딱허게 물이 ᄀᆞᆯ라. 게민 그것이 뒌술. 뒌술 걸른 거주게. 뒌술 아래 ᄀᆞᆯ라앚고 우이 곱닥헌 거 청주엔 허여, 것ᄀᆞ라. 우에 게 청주, ᄀᆞᆯ라앚인 게 뒌술. 끌리지 아녀, 그자 먹어져. 지금은 기자 술로 헴실 거라. 막걸리 아니고 그냥 술, (소주).

그저 술. 술하고 막 그거는 담가야 할 거지, 술을. 무슨 막걸리 그런 걸로 안 되고, '뒌술'[19]. 담그면 그거 떠서 가는 거. 오메기 해서 좁쌀로 하는 술 있잖아. 그거 이렇게 술 해서 놓아두면 가라앉지. 그러면 거 이렇게 떠서. 이젠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거야. 오메기 해서 누룩 넣어서 해서 놓아두면 술이 돼. 쌀, 좁쌀로, 차좁쌀로. 차좁쌀하고 누룩 섞어서, 섞어서 해서 놓아두면 술이 돼. 밥 해서 누룩 넣어서 막 저어서 놓아두면. 항아리 그 얼마 안 하는 거니까 항아리 안 담아도 이렇게 놓아두면 가라앉아서 저 밥은 아래로 가고 위에 곱게 물이 고여. 그러면 그것이 '뒌술', '뒌술' 거른 거지. '뒌술' 아래 가라앉고 위에 고운 거 청주라고 해, 그것보고. 위의 게 청주, 가라앉은 게 '뒌술'. 끓이지 않아, 그저 먹을 수 있어. 지금은 그냥 술로 하고 있을 거야. 막걸리 아니고 그냥 술, (소주).

- **포제 음식**

거난 고사리 ᄀᆞ뜬 것도 헤도 보끄지 아녕 그냥 솖앙 그냥, 생으로 그냥. 고사리도 허고, ᄂᆞ물 허곡. 생걸로, ᄂᆞᆷ삐. 생걸로, 생걸로. 솖으지 안허영. 그자 소금만 허는 거라. (채 썰어근에) 그거민 뒈어. 도세기 전인 전체 올려 나신디, 전체엔 헌 건 ᄆᆞᆫ딱이주. 이지금은 전체로 영 떼어, 쪼끔씩. 다리

19) '뒌술'은 차조 등을 발효하여 맑은 술을 걸러내고 남은, 술지게미가 섞인 술이다.

ᄒᆞ나에 요만씩 떼근에 그걸 열두, 열두 뻬난에, 사름이나 도세기나 열두 뻬난 열두 개로 그차. 겅 헹 그창 그걸 담앙 아졍 강 올려놔근에. 그거 이름이 전체, 전체 놓앗단 말로 전체. 겅 허영 그것이 전체. 전체엔 헌 건 ᄆᆞᆫ 놧젠 말 아니라? ᄆᆞᆫ 올라왓젠 허는 거, 도세기 ᄒᆞ나가 다 올라왓젠 ᄀᆞᆫ는 거 전체, 그거 일름이 전체.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것도 해도 볶지 않고 그냥 삶아서 그냥, 생으로 그냥. 고사리도 하고, 나물 하고. 생걸로, 무. 생걸로, 생걸로. 삶지 않고. 그저 소금만 하는 거야. (채 썰어서) 그거면 돼. 돼지 전엔 전체 올렸었는데, 전체라고 한 건 모두지. 지금은 전체로 이렇게 떼어서, 쪼끔씩. 다리 하나에 요만큼씩 떼어서 그걸 열두, 열두 뼈니까, 사람이나 돼지나 열두 뼈니까 열두 개로 잘라. 그렇게 해서 잘라서 그걸 담고 가져가서 올려놔서. 그거 이름이 '전체', 전체 놓았다는 말로 '전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체'. '전체'라고 한 건 모두 놓았다는 말 아니냐? 모두 올라왔다고 하는 거, 돼지 하나가 다 올라왔다고 말하는 거 '전체', 그거 이름이 '전체'.

• 음복

(제지내고 나서) 먹어, 먹어. 다 먹어. 솟도 불 ᄉᆞᆯ르는 디도 잇곡 다 헤여. ᄉᆞᆷ앙, ᄉᆞᆷ으는 디도 잇고, 만들아 놔근에 옛날 만들어 놔근에 솟도 앚지곡 아싯날부떠 가근에 막 헤여 그디. 하인이엔 헌 거 이서낫주게, 옛날에. 그런 사름덜 강 다 헤여. 우린 그런 딘 안 가. 집이서만 헹 보내주. 게민 집이선 그 사름네 오도록 기다리는 거라. 제헹 다 오도록, 밤이 그 사름덜. 그디 기다려근에 오민 또시 그디 ᄉᆞᆷ아근에 그디서 또 잔칠 헤여. ᄌᆞᆷ자곡 잘 못 헤여. 고생허주, 그디서 간 사람, (음복은) 간 사름만 먹어.

(제지내고 나서) 먹어, 먹어. 다 먹어. 솥도 불 사르는 데도 있고 다 해. 삶아서, 삶는 데도 있고, 만들어 놔서 옛날 만들어 놔서 솥도 안치고 전날부터 가서 막 해서 거기. 하인이라고 한 거 있었었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 가서 다 해. 우린 그런 덴 안 가. 집에서만 해서 보내지. 그러면 집에선 그 사람들 오도록 기다리는 거야. 제해서 다 오도록, 밤에 그 사람들. 거기 기다려서 오면 또 거기 삶아서 거기서 또 잔치를 해. 잠자고 잘 못 해. 고생하지, 거기서 간 사람, (음복은) 간 사름만 먹어.

4) 안택

• 올레코시

(문전대우허고 안택) ᄀᆞ따. 안택도 허고. ᄀᆞ치, ᄒᆞᆫ 날에. 문전대우엔, 문전, 올레코시. 올레코시엔 ᄀᆞᆫ주게 것ᄀᆞ라. 게믄 올레코시 허민 다 헤지는 거, ᄀᆞ뜬 거. ᄒᆞᆫ 날에 그 할망이 ᄒᆞ나엔 허여. 게난 메를 일곱 개 거리는 거라. 상 논 게 아니고 초석 페왕 초석에 쭉 그자 초석에. 게 할망상 노민 할망상만 영 큰 거 ᄒᆞ나, 크지 아년 거 ᄒᆞ나 놔근에 경 허는 거.

(문전대우하고 안택) 같아. 안택도 하고. 같이, 한 날에. '문전대우'라고, 문전, '올레코시'. '올레코시'라고 말하지 그것보고. 그러면 '올레코시' 하면 다 하게 되는 거, 같은 거. 한 날에 그 할머니가 하나라고 해. 그러니까 메를 일곱 개 뜨는 거야. 상 놓는 게 아니고 초석 펴서 초석에 쭉 그저 초석에. 게 '할망상' 놓으면 '할망상'만 이렇게 큰 거 하나, 크지 않은 거 하나 놔서 그렇게 하는 거.

• 안택

(심방 빌어다근에 집이서) 건 안택이엔 헹 허주, 일 년에 ᄒᆞᆫ 번. 심방

빌어다근에게. 날 봐사주기, 날 봐사주. 존 날 받앙 아무 날 와도렌 헹 오는 거고. 오면은게 막 이디 벌려 놓주게, 무시거 밥허곡 국허곡 궤기 굽곡 헤근에 떡허고 경헹 올려노민게 그 심방이 오라근에게 나 요전이 ᄀᆞᆯ아 신디. (문전대우) 이 집이 오젠 허난 올레 오난 올레 문 제, 마당 드난 마당 장 제, 집 가 제로 오랏수다. 이디 본 집은 오씨 부인, 오씨 집이고 양씨 부인, 나는 양가난 오씨 집안에 완 보난 안으로 안성방은 양씨 부인이고 경 헹 그런 말 ᄀᆞᆫ는 거. 거는 그런 거 허는 거. 그런 거.

(무당 빌려다가 집에서) 그건 안택이라고 해서 하지, 일 년에 한 번. 무당 빌려다가. 날 봐야지, 날 봐야지. 좋은 날 받아서 아무 날 와달라고 해서 오는 거고. 오면은 막 여기 벌여 놓지, 무엇 밥하고 국하고 고기 굽고 해서 떡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 무당이 와서 나 요전에 말했는데. (문전대우) 이 집에 오려고 하니까 오래 오니까 오래 문 자, 마당 드니까 마당 장 자, 집 가 자로 왔습니다. 여기 본 집은 오씨 부인, 오씨 집이고 양씨 부인, 나는 양가니까 오씨 집안에 와서 보니 안으로 '안성방'[20]은 양씨 부인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말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 안택 음식

(그때 떡은) 동글랑동글랑헌 동글랑, 돌레떡. (밥은) 쌀밥. 밥헹 하영 거릴 거난에 막 큰 솟디 하영 헤사 쭉 거려사 헐 거. 본래 일곱 개 거리곡 집안에 거리곡 조왕에 거리곡 그축 헹 그때 올 때 거리젠 허민 막 여라 개라. 일곱 개 걸 거려 놓는 거 원. 일곱 갠. (조왕에 거리고.) 칠성에 거리고, 문전. 열 개도 더 거리민 더 거려.

(국은) 고기국 끌리민 아무 고기나 뒈고. 생선도 뒈고, 바닷고기도 뒈고

20) '안성방'은 굿하는 집안의 여자 주인을 말한다.

그냥 고기도 뒈고, 소고기도 뒈고. 국이 겅 허영. 뒈지고긴 안 허고. 뒈지고긴 안 헤. 뒈지고긴 원 심방 오젠 허민 먹지도 안허여. 소고기만, 소고기, 바닷고기만.

(안택헐 땐 탕쉬) 허긴 허주게. 게난 세 손 납짝 고사리채, 두 손 납짝 콩ᄂᆞ물채. 심방 오랑 ᄀᆞᆯ는 말이 쭉 벌여 노면은 눈으로 보민 뭐 헌 거 알잖아. 게민 언 메나 단 메나 녹이 올라 당산메. 지어 잡술메 보람메 받읍서. 이 집이 이추룩 ᄎᆞᆯ려시난 절로 오랑 올레, 올레 오난 올레 문 제, 마당 드난 마당 장 제, 집 가 제로 오랏수다. 문전 몰른 공서가 시멍 주인 몰른 나그네가 십니까. 그걸 받읍센 허젠 언 메나 단 메나 녹이 올라 당산메. 지어 잡술메 받읍서. 세 손 납짝 고사리채, 두 손 납짝 콩ᄂᆞ물채, 맛이 좋다 무수채. 그추룩 헹 받읍센 ᄀᆞᆯ아놩 그축 ᄀᆞᆯ아놩 그다음은 올랑 ᄎᆞᆯ랑 ᄌᆞ수지엔 헌 건 저 술, 술ᄀᆞ라 올랑 ᄎᆞᆯ랑 ᄌᆞ수지나 계란 안주 받읍서, 오톰 생성 받읍서 그축 헹은에 이거 보멍 다 ᄀᆞᆯ아. 이거 보멍. 나 그 사름 ᄀᆞᆫ는 거 들언. 들언 웨우는 거. 난 다 그 사름 허는 거 웨왕 다 웨와 나, 다 웨와. 거 다 웨와. 나 심방 절로 왕 이디 왕 갈 때ᄁᆞ지 할망이 ᄂᆞᆷ이 집이도 막 뎅기곡 허민 졸주게. 할망 졸지 맙서, 할망 졸지 맙서, 무사 졸암수과. 나도 심방질 헤지쿠다 헹 막 할망신디 경알라 ᄀᆞᆫ는 사름 원.

(그때 떡은) 동글동글한 동그란, 도래떡. (밥은) 쌀밥. 밥해서 많이 뜰 거니까 아주 큰 솥에 많이 해야 쭉 떠야 할 거. 본래 일곱 개 뜨고 집안에 뜨고 조왕에 뜨고 그처럼 해서 그때 올 때 뜨려고 하면 아주 여러 개야. 일곱 개 그걸 떠 놓는 거 원. 일곱 갠. (조왕에 뜨고.) 칠성에 뜨고, 문전. 열 개도 더 뜨면 더 떠.

(국은) 고깃국 끓이면 아무 고기나 되고. 생선도 되고, 바닷고기도 되고 그냥 고기도 되고, 소고기도 되고. 국이 그렇게 해서. 돼지고긴 안 하고. 돼지고긴 안 해. 돼지고긴

원 무당 오려고 하면 먹지도 않아. 소고기만, 소고기, 바닷고기만.

(안택 땐 탕쉬) 하긴 하지. 그러니까 세 손 납짝 고사리채, 두 손 납짝 콩나물채. 무당 와서 하는 말이 쭉 벌여 놓으면 눈으로 보면 뭐 한 거 알잖아. 그러면 언 메나 단 메나 녹이 올라 '당산메'. 지어 잡술 메, '보람메' 받으세요. 이 집에 이처럼 차렸으니까 저리로 와서 오래, 오래 오니까 오래 문 자, 마당 드니까 마당 장 자, 집 가자로 왔습니다. 문전 모른 공사가 있으며 주인 모른 나그네가 있습니까. 그걸 받으시라고 하려고 언 메나 단 메나 녹이 올라 '당산메'. 지어 잡술 메 받으세요. 세 손 납짝 고사리채, 두 손 납짝 콩나물채, 맛이 좋다 무채. 그처럼 해서 받으시라고 말해놓고 그처럼 말해 놓고 그다음은 '올랑 촐랑' 'ᄌᆞ수지'라고 한 건 저 술, 술보고 '올랑 촐랑' 'ᄌᆞ수지'나 계란 안주 받으세요, 옥돔 받으세요 그처럼 해서 이거 보면서 다 말해. 이거 보면서. 나 그 사름 말하는 거 들었어. 들어서 외우는 거. 난 다 그 사람 하는 거 외워서 다 외워 나, 다 외워. 거 다 외워. 나 무당 저리로 와서 여기 와서 갈 때까지 할머니가 남의 집에도 막 다니고 하면 졸지. 할머니 졸지 마세요, 할머니 졸지 마세요, 왜 졸고 있습니까. 나도 무당질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막 할머니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원.

• 제비점

ᄊᆞᆯ 영 훅 데껑 짝 맞이면은, 영 훅 데껑 짝 맞이민 좋은 거, 어느 날 어떵 헌 거. 열ᄒᆞᆫ 방울도 짝글러도 열ᄒᆞᆫ 방울도 좋은 거. 그다음은 짝, 세 방울, ᄋᆞ답 방울, 열두 방울 그추룩 좋은 거옌 허멍 그추룩 주니까 그자. 두 방울, ᄋᆞ섯 방울, ᄋᆞ답 방울, 열ᄒᆞᆫ 방울. 좋은 거옌 허멍 겅 헨게. 씹지 말앙 ᄉᆞᆷ지렌 헤여. 영 먹엉 물 먹엉 먹어 불주. ᄀᆞᆫ는 말 잘 들엉. 그거ᄀᆞ라 제비ᄊᆞᆯ, 제비ᄊᆞᆯ.

그 사름이 접앙 주주게. 훅 데껴근에. 겅 허는 거. 게 나 그 할망, 할망

아니라도 여자주게. 거난 나 그 사름 ᄀᆞᆫ는 거 들엉 웨우는 거. 다 웨와. 저 산에 그 영 내도 멧 개옌 ᄀᆞᆫ는 거 아흔아홉, 아흔아홉 개주게, 한라산에. 거난에 그 내가 ᄒᆞᆫ 골 엇언 은도 못 나고 금도 못 나고 아흔아홉, 골이 아흔아홉 개라부난에 ᄒᆞᆫ 골이 셔시민 백 골이 뒈시민은 은도 나고 금도 나곡 헐 건디. 심방 허는 말이 아흔아홉 골이라부난에 은도 금도 못 난에 경 살앗수다 경 헹 ᄀᆞᆯ아. 게난 경 헹 아는 거주, 나 어떵 헹 걸 무신 간 봣어? 간 볼 수도 엇고, 강 볼 수도 엇고, 가지도 못허고. 심방 ᄀᆞᆫ는 거 들엇단.

쌀 이렇게 훅 던져서 짝 맞으면, 이렇게 훅 던져서 짝 맞으민 좋은 거, 어느 날 어떻게 한 거. 열한 방울도 짝 맞지 않아도 열한 방울도 좋은 거. 그다음은 짝, 세 방울, 여덟 방울, 열두 방울 그처럼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처럼 주니까 그저. 두 방울, 여섯 방울, 여덟 방울, 열한 방울.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씹지 말고 삼키라고 해. 이렇게 먹어서 물 먹어서 먹어 버리지. 하는 말 잘 들어서. 그거보고 '제비쏠', '제비쏠'.

그 사람이 집어서 주지. 훅 던져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게 나 그 할머니, 할머니 아니라도 여자지.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서 외우는 거. 다 외워. 저 산에 그 이렇게도 내도 몇 개라고 말하는 거 아흔아홉, 아흔아홉 개지, 한라산에. 그러니까 그 내가 한 골 없어서 은도 못 나고 금도 못 나고 아흔아홉, 골이 아흔아홉 개라서 한 골이 있었으면 백 골이 되었으면 은도 나고 금도 나고 할 건데. 무당 하는 말이 아흔아홉 골이라서 은도 금도 안 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거지, 나 어떻게 해서 그걸 무슨 가서 봤어? 가서 볼 수도 없고, 가서 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무당 말하는 거 들었다가.

• 신발 단속

게난 그것이 끗나면 그 끗나민 신발 단속허렌 허주게. 신발 단속헙서. 그 구신ᄀᆞ라 허는 말이 이디 다 오란 먹을 거 먹고 다 헤시난 신발 단속헙서. 나가 오랑 이 주당에 와근에 앚앙 졸당 가구데고 이 주당에 물무허지 나게 맙서 헌 거는 자기가 오랑 빌엉 가불구데고 펜안허게 해줍센 허는 말이라. 나가 오랑 졸당 가구데구 물무허지 나게 맙서. 신발 단속헙서. 신발 단속헹 잘 ᄒᆞᆫ저 가불렌, 이젠 ᄆᆞᆫ 떠나라는 거주. 올 땐 어서 옵서, 어서 옵서 헤 놔근에 갑센 헹 보내 비살 거 아니? 구신덜. 거난 그 말 ᄀᆞᆯ는 거. 겡 처음 올 때는 신발 벗엉 들어 옵센 해놩 말쩬 신발 단속헙센 ᄀᆞᆯ아 가. 게민 그때부떤 보내는 거. 겅 헨 그런 거 들엇단, 들엇단. 헐 충은 몰라.

(허제비) 에, 그런 거 헌 건 안 헤. 저 바당에서 허는 건 봐도 이디서 허는 건 안 봣어. 바당에서 허는 거만 봣어, 안택.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그 끝나면 신발 단속하라고 하지. 신발 단속하십시오. 그 귀신보고 하는 말이 여기 다 와서 먹을 거 먹고 다 했으니까 신발 단속하십시오. 내가 와서 이 집안에 와서 앉아서 졸다가 가고지고 이 집안에 '물무허지' 나게 마십시오 한 거는 자기가 와서 빌어서 가버리고지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사 하는 말이야. 내가 와서 졸다가 가고지고 '물무허지' 나게 마십시오. 신발 단속하십시오. 신발 단속해서 잘 어서 가버리라고, 이젠 모두 떠나라는 거지. 올 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 놓고 가십시오 해서 보내 버려야 할 거 아니? 귀신들.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 그래서 처음 올 때는 신발 벗어서 들어오십시오 해놓고 말째는 신발 단속하십사 말해 가. 그러면 그때부턴 보내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들었다가, 들었다가. 할 줄은 몰라.

(허수아비) 에, 그런 거 한 건 안 해. 저 바다에서 하는 건 봐도 여기서 하는 건 안 봤어. 바다에서 하는 거만 봤어, 안택.

5) 정월대보름과 걸궁

(1) 정월대보름

(대보름엔) 아니 헷어, 우리. 아니 헨, 멩질 아년. 무주건 안택은 ᄒᆞᆫ 사름이, 어느 사름이라도 다 헤, 매집이. 예수만 안 믿는 집인 헤. 예수 믿는 집인 안 허고. 이신 거는 저 심방 거 저 머허는 거. 심방 일 년에 ᄒᆞᆫ 번 허는 거 잇주게. 일렛날허고 ᄋᆞ드렛날허고. 그런 거 이서낫주. 겐디 이젠 심방도 엇어져 불고 그디도 질 멘들아 불고.

옛날에 자치기 헤낫저, 자치기. 영영 허는 거. (연 날리기) 아무 때나 허는 거. 동산에 가근에. 연 날리는 거 아무 때라도.

(대보름엔) 안 했어, 우리. 안 했어, 명질 안 했어. 무조건 안택은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도 다 해, 매집에. 예수만 안 믿는 집은 해. 예수 믿는 집은 안 하고. 있는 거는 저 무당 거 저 뭐하는 거. 무당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지. 이렛날하고 여드렛날 하고. 그런 거 있었었지. 그런데 이젠 무당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도 길 만들어 버리고.

옛날에 자치기 했었다, 자치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연 날리기) 아무 때나 하는 거. 동산에 가서. 연 날리는 거 아무 때라도.

(2) 걸궁

걸궁 옛날 헤낫어. 건 막 두린 때 헤난. 집집마다 돌아뎅기멍 허는 거. 헤난 거 나 ᄒᆞᆫ 번 봐낫어. 나 쪼끔 역앙은 안 헷거든.[21]

21) 오봉식 구술.

걸궁 옛날 했었어. 그건 아주 어릴 때 했었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했던 거 나 한 번 봤었어. 나 쪼끔 커서는 안 했거든.

6) 방에

• 방에산 놓기

기냥 산에 불부찌는 거주. 산에, 오름에 불부찌는 거 아니고. 쉐 질루젠 허난 진둑 케와 불젠. 진둑, 진둑. 이 산에 가면은 그 담ᄀᆞ라 굽은담인디 젤 한라산 막은 담, 굽은담인디 그 담으로 알르레만 부쪄야 뒈주게. 그 담으로 우트레 부찌민 안 뒈. 경헤근에 것ᄀᆞ라 방에산. 방에 놓는 말로 방에산, 방에산 허는 거. 불부찌는 거 저 우이 부쪄실 거라. 거난 그디가, 목장허는 디, 쉐 질루는 디. 게난 그디 부찌는 것인디 한라산더레 불 가지 말게시리 막아근에 강 부찌는 거, 사름덜 가근에. 그디 쪼그만허게 불을 부쪄근에 ᄆᆞᆫ 껑은에 다음 부찌지 안허민 한라산더레 가불어. 불 가지 못허게 막아놩. 방에산 노레 감젠 헤근에 방에산을 강 놓는 거. 사름덜이 강 불을 놓는 거라. 이 정도 어느 정도 헤근에 쭉허게 방에산 놔근에 걸 부쪄. 부쪙 ᄆᆞᆫ딱 끼왓다근에 이제 방에 놓는, 방에 놓는 건 방엘 노면은 그레 넘어가지 못허주게, 방에산 놔부난. (방에산에) 불부쪄 베어. 먼저 불부쪙 ᄆᆞᆫ 꺼 불어. 그거 이름이 방에산. 방에 못허게 허는 말로 방에산 노레 갈 거여, 어느 날은. 겡 방에산 놔근에 불부찌면 한라산드레 불이 못 가잖아. 한라산 못 카게 허난 방에산. 게난 사름덜이 부락 사람 다 가사 허는 거. (방에산 먼저 불뿌쪙) 끈 다음에, 그다음 날 봐근에 불부찌레 가는 거주. 쉐 목장 허젠. 기냥 불부찌레 가는 거. (끄는 건) 꺼동 왐주 남으민. 사름덜이 경 막 올라가민 꺼동 왐주.

그냥 산에 불붙이는 거지. 산에, 오름에 불붙이는 거 아니고. 소 기르려고 하니까 진드기 태워 버리려고. 진드기, 진드기. 이 산에 가면은 그 담보고 굽은담인데 젤 한라산 막은 담, 굽은담인데 그 담으로 아래만 붙여야 되지. 그 담으로 위로 붙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것보고 '방에산'[22]. 방화 놓는 말로 '방에산', '방에산' 하는 거. 불붙이는 거 저 위에 붙였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목장하는 데, 소 기르는 데. 그러니까 거기 붙이는 것인데 한라산으로 불 가지 않게끔 막아서 가서 붙이는 거, 사람들 가서. 거기 조그맣게 불을 붙여서 모두 꺼서 다음 붙이지 않으면 한라산으로 가 버려. 불 가지 못하게 막아놔서. '방에산' 놓으러 간다고 해서 '방에산'을 가서 놓는 거. 사람들이 가서 불을 놓는 거야. 이 정도 어느 정도 해서 쭉하게 '방에산' 놔서 걸 붙여. 붙여서 모두 껐다가 이제 방화 놓는, 방화 놓는 건 방활 놓으면은 그리 넘어가지 못하지, '방에산' 놔 버리니까. ('방에산'에) 불붙여 버려. 먼저 불붙여서 모두 꺼 버려. 그거 이름이 '방에산'. 방화 못하게 하는 말로 '방에산' 놓으러 갈 거야, 어느 날은. 그래서 '방에산' 놔서 불붙이면 한라산으로 불이 못 가잖아. 한라산 못 타게 하니까 '방에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락 사람 다 가야 하는 거. ('방에산' 먼저 불붙여서) 끈 다음에, 그다음 날 봐서 불붙이러 가는 거지. 소 목장 하려고. 그냥 불붙이러 가는 거. (끄는 건) 꺼두고 오고 있지 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올라가면 꺼두고 오고 있지.

• 서미역과 부구리

쉐 질루젠 진둑. 지금은 진둑이 물엉 지금 서구포 사름도 죽엇젠 허고나마는 진둑, 진둑이엔 헌 거 잇주게. 저 쪼끌락헌 것ᄀᆞ란 이름이 서미역. 그거 또꼬망이 터지지 안허영 또꼬망 막은 거 베렝이라, 베렝이가. 문 먹으민 또꼬망 막아부난 죽는 거주. 똥 싸지 못허난. 피 뿔아 먹는 거. 피 뿔아

22) '방에산'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탈 만한 것을 없애고 어느 정도의 넓이로 둔 지대로 방화선을 이른다.

먹엉 다 먹으민 떨어지는 거, 똥 못 싸는 거난.

쪼끌락, 쩨끌락허게 처음 생긴 게 서미역. 그것이 좀 크민 부구리. 진둑, 진둑이엔 헌 건 이제사 생긴 거. 물엉 죽는 게 진둑이. 쩨끌락헷당 막 크주게. 게민 또꼬망이 엇인 거라. 게난 털어질 수벳기 잇나? 다 먹으난. 긁어주레 가곡 만들아근에 게난 쉐 질루는 사름이 헷주. 우리도 헤낫어.

소 기르려고 진드기. 지금은 진드기 물어서 지금 서귀포 사람도 죽었다고 하더구나마는 진드기, 진드기라고 한 거 있지. 저 조그마한 것보곤 이름이 '서미역'. 그거 똥구멍이 터지지 않아서 똥구멍 막은 거 벌레야, 벌레가. 모두 먹으면 똥구멍 막아 버리니까 죽는 거지. 똥 싸지 못하니까. 피 빨아 먹는 거. 피 빨아 먹어서 다 먹으면 떨어지는 거, 똥 못 싸는 거니까.

조그마, 조그마하게 처음 생긴 게 '서미역'. 그것이 좀 크면 '부구리'. 진드기, 진드기라고 한 건 이제야 생긴 거. 물어서 죽는 게 진드기. 조그마했다가 아주 커지지. 그러면 똥구멍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있나? 다 먹으니까. 긁어주러 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 기르는 사람이 했지. 우리도 했었어.

7) 생업

(1) 보리 밟기

이만이 크민, 그걸 눈 오민 얼민은 땅이 들러지니까 거, 그걸 뿌리가 상허지 안허게 불르는 거.[23]

23) 오봉식 구술.

이만큼 크면, 그걸 눈 오면 얼면은 땅이 들리니까 거, 그걸 뿌리가 상하지 않게 밟는 거.

(보리농사는) 감저, 감저 파뒈근에 허난에. 고구마 파동 헷어. 그때 보리 허주게. (보리 밟기는) 보리 막 나근에 커사게. 붤르는 거, 커사. 이만썩 커사, 보리밧 붤라낫주. 무주건 붤르민 뒈주. 눈 오라나민 붤르는 거난에. 거 영 들러지난게, 영 누르뜨는 거 영헹 누르뜨는 거. 사름이 붤르는 거. 아이덜 잘 못헤여. 발은 쩨끌락허곡게.

(보리농사는) 고구마, 고구마 파두고 하니까. 고구마 파두고 했어. 그때 보리 하지. (보리 밟기는) 보리 막 나서 커야. 밟는 거, 커야. 이만큼 커야, 보리밭 밟았었지. 무조건 밟으면 되지. 눈 오고 나면 밟는 거니까. 거 이렇게 들리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해서 누르는 거. 사람이 밟는 거. 아이들 잘 못해. 발은 쪼끄맣고.

□ 2월

1) 영등

• 영등할망

영등ᄃᆞᆯ. 영등할망 들어오민 비가 오곡 나가 불민 날이 좋곡 헌덴 ᄀᆞᆯ으난 그자 그거벳기 몰라. (상효는) 바당 엇어. (바당에 이신 당) 이서난디, 겐디 이젠 것도 설러불고 안 가. 볼목리 (바당 줘 불언.) 신체 묻지 실펀, 옛날 어른덜. 바당 엇어. 엇이난 무사 영등굿을 헤여? 안 허주. 아녀. 메누리가

영등할망이 잘 출령 오면 날이 좋고 막 허수허게 출령 오민 비가 온덴 그런 말 들언. 영등할망이엔만 골아. 금년에 영등할망이 잘 출령 들어오면은 날이 좋고 막 허술허게 출령 오민 비가 온덴. (영등할망은) 보름날 나감은 허는디. 초ᄒᆞ를날 들어왕 보름날. 겐디 그 영등할망 왕 가불민 바다에 강 보민 영등할망 가 불민 까 먹어난 겁더기가 자꾸 이서. 바당에 보여. 겁더기. 영등할망 가빗젠 허민, 보여. 영등할망 까 먹엉, 잡아먹엉 가 빗젠 허멍 거 보여. 이디 경 아무것도 잘 아녀는 디라.

영등달. 영등할머니 들어오면 비가 오고 나가 버리면 날이 좋고 한다고 말하니까 그저 그거밖에 몰라. (상효는) 바다 없어. (바다에 있는 당) 있었는데, 그런데 이젠 그것도 그만둬 버리고 안 가. 보목리 (바다 줘 버렸어.) 시체 묻기 싫어서, 옛날 어른들. 바다 없어. 없으니까 왜 영등굿을 해? 안 하지. 안 해. 며느리가 영등할머니가 잘 차려서 오면 날이 좋고 아주 허술하게 차려서 오면 비가 온다고 그런 말 들었어. 영등할머니라고만 말해. 금년에 영등할머니가 잘 차려서 들어오면은 날이 좋고 아주 허술하게 차려서 오면 비가 온다고. (영등할머니는) 보름날 나가기는 하는데. 초하룻날 들어와서 보름날. 그런데 그 영등할머니 와서 가 버리면 바다에 가서 보면 영등할머니 가버리면 까먹었던 껍데기가 자꾸 있어. 바다에 보여. 껍데기. 영등할머니 가 버렸다고 하면, 보여. 영등할머니 까 먹어서, 잡아먹어서 가 버렸다고 하면서 그거 보여. 여기 그렇게 아무것도 잘 안 하는 데야.

□ 3월

1) 청명과 한식

(1) 쳑명

쳑명이엔 허영 겅 허여. 산에 강 가시 케곡 허메. 산에 강 산담, 저 거시기 봄벌초 허곡 헤나신디 봄벌초 허곡 산담에 풀 비어나신디 ᄆᆞᆫ딱 우리 공동미 산에 ᄆᆞᆫ 이장헤 빗주게. 이젠 그냥 오월 단오에 강 허곡 두 번만 헤여, 벌초. 빔만 허민 뒈니까 이젠 그 산담 그런 거 엇이. ᄆᆞᆫ딱 경헤부난에 그런 거 풀 비는 거 그자 산에 강 아이덜이 알앙 허여.

청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산에 가서 가시 캐고 해. 산에 가서 '산담', 저 거시기 봄벌초 하고 했었는데 봄벌초 하고 '산담'에 풀 베었었는데 모두 우리 공동묘지 산에 모두 이장해 버렸지. 이젠 그냥 오월 단오에 가서 하고 두 번만 해, 벌초. 베기만 하면 되니까 이젠 그 '산담' 그런 거 없이. 모두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거 풀 베는 거 그저 산에 가서 아이들이 알아서 해.

(2) 한식 멩질

한식 멩질ᄀᆞ라 무시거엔 헌다마는. 정월 멩질허고, 오월, 팔월 허민 세 번 허고. 한식 이서. 한식이엔 헌 날이 따로 이신디양. 한식 메칠날산디 이서. 한식 헤낫어. 똑ᄀᆞ따, 똑ᄀᆞ뜨게 허여. 그 한식부떠 안 허고 그다음 오월 멩질 안 허고 허난에 이 안네 종손이엔 헌 사름이 우리ᄀᆞ라 잘 헤놩 먹을 건디 무사 안 헴딘 허멍 헤낫어. 무사 멩질 네 번 다 허지 아년 안 헴젠. (종손집은) 허단 안 헷어, 그디도. 못 헤, 못 헤. (한식을 안한 지) 하영 뒈실 거라. 아메도. 아이덜이 ᄒᆞᆫ 두 개, 세 개 날 때ᄁᆞ지 허단 안 헷어. 다섯 개 나시난. 오월 (멩질)이 늦게 엇어젼. 한식은 빨리 엇어지고.

한식 명질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마는. 정월 명질하고, 오월, 팔월하면 세 번 하고. 한식 있어. 한식이라고 한 날이 따로 있는데요. 한식 며칠인지 있어. 한식 했었어. 똑같아, 똑같게 해. 그 한식부터 안 하고 그다음 오월 명질 안 하고 하니까 이 '안네' 종손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보고 잘 해놓아서 먹을 건데 왜 안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했었어. 왜 명질 네 번 다 하지 않고 안 하고 있다고. (종손집은) 하다가 안 했어, 거기도. 못 해, 못 해. (한식을 안 한 지) 많이 되었을 거야. 아무래도. 아이들이 한 두 개, 세 개 날 때까지 하다가 안 했어. 다섯 개 낳았으니까. 오월 (명질)이 늦게 없어졌어. 한식은 빨리 없어지고.

2) 소 기르기

(1) 쉐 올리기

(소는) 봄이, 봄이. 언제 올려져신고? 풀, 새풀 나가민 올리주. 청명 ᄀᆞ리에 올려실 거라. 쉐 하영 질롸낫어. 난 저 어디 성판악 그ᄁᆞ지 갓어. 그자 상잣이 아니고 한라산, 상산에 올리는 거. ᄒᆞᆫ 번은 나 군인 가불 때 그 쉐가 겨울 들어가니까 내려온 거라, 집이. 할머니 ᄆᆞᆫ딱 이거 어디 쉐 와시닌 ᄃᆞ울려 불엇어. ᄃᆞ울려 부니까 그 쉐가 우리 밧디 간 촐밧이 이섯어. 그디 간 잇엇어. 겐 뒷날 풀 비레 가보니까 그디 다 이서. ᄂᆞᆷ이 쉐 와시카부덴게.[24]

(소는) 봄이, 봄이. 언제 올렸나? 풀, 새풀 나가면 올리지. 청명 즈음에 올렸을 거야. 소 많이 길렀었어. 난 저 어디 성판악 거기까지 갔어. 그저 '상잣'이 아니고 한라산,

24) 오봉식 구술.

상산에 올리는 거. 한 번은 내가 군인 가버릴 때 그 소가 겨울 들어가니까 내려온 거야, 집에. 할머니 모두 이거 어디 소 왔느냐고 내쫓아 버렸어. 내쫓아 버리니까 그 소가 우리 밭에 가서 꼴밭이 있었어. 거기 가서 있었어. 그래서 뒷날 풀 베러 가 보니까 거기 다 있어. 남의 소 왔을까 봐.

촐이, 하영 질루민 촐이 부족헤 가주게. 집이서 주는 게, 지가 알앙 먹엉 살렌 경 헹 미릿 올리는 거. 미릿 올리는 것도, 먹을 거 엇이난. 기자, 무대뽀 산에 올리는 거. 올렷다근에 강 촞아오고, 봐주는 사름 엇이. (테우리 없이) 내부는 거. 한라산에 내부는 거. 건디 쉐가 와, 쉐가. 가을 들민 ᄂᆞ령와 ᄎᆞᄎᆞ 올령 내불민 ᄂᆞ려와 가 ᄎᆞᄎᆞ. 게민 우리 쉐 봐시녠 허민 사름덜토 봐져렌 헤근에 어느쯤에 이서렌 ᄀᆞᆯ아주곡. 겡 ᄀᆞᆫ주. 그 ᄒᆞᆫ디 논 사름덜이 하주게. 게민 그런 사름ᄀᆞ라 우리 쉐 봐져닌 허민 봐져렌 ᄀᆞᆯ아주곡 겅 허여. 누게네 쉔 중 다 알곡. 이젠 관리허는 사름 엇이민 도둑 맞앙 안 뒈어이. 우린 그자 놔.

꼴이, 많이 기르면 꼴이 부족해 가지. 집에서 주는 게, 자기가 알아서 먹어서 살라고 그렇게 해서 미리 올리는 거. 미리 올리는 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기자, 무데뽀 산에 올리는 거. 올렸다가 가서 찾아오고, 봐주는 사람 없이. ('테우리' 없이) 내버리는 거. 한라산에 내버리는 거. 그런데 소가 와, 소가. 가을 들면 내려와 차차. 올려서 내버리면 내려와 가 차차. 그러면 우리 소 봤냐고 하면 사람들도 봤다고 해서 어디쯤에 있더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말하지. 그 함께 놓은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 그런 사람보고 우리 소 봤냐고 하면 봤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해. 누구네 소인 줄 다 알고. 이젠 관리하는 사람 없으면 도둑맞아서 안 돼. 우린 그냥 놔.

우리 쉐 도둑도 두 개나 도둑 맞안. 큰 밧 앞이도 이디 매언 놔둔 거 클러 가불고 암쉔 산에 놘 놔두난 어느 때 몰앙 가불고. 송아지 내비뒁 가난 송아지 ᄀᆞ만이 어멍 몰아, 심어가 분 디 간 보난 ᄀᆞ만이 이시난 송아지만 ᄃᆞᆯ아완. (쉐) 촞이레 가주게. 촞이레 간 보난에게 큰 쉔 아져가 불고, 도둑 아져가 불고 족은 거 새끼만 ᄒᆞ나 이시난 것만 ᄃᆞᆯ아완. 거 살련 막 컨 오래 살앗주. 겐 풀아 빗어.

우리 소 도둑도 두 개나 도둑 맞았어. 큰 밭 앞에도 여기 매어 놔둔 거 끌러 가버리고 암소는 산에 놓아 두니까 어느 때 몰아서 가 버리고. 송아지 내 버려두고 가니까 송아지 가만히 어미소 몰아, 잡아가 버린 데 가서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송아지만 데리고 왔어. (소) 찾으러 가지. 찾으러 가서 보니까 큰 소는 가져가 버리고, 도둑 가져가 버리고 작은 거 새끼만 하나 있으니까난 그것만 데리고 왔어. 그거 살려서 아주 커서 오래 살았지. 그래서 팔아 버렸어.

(2) 도름쉐

쉐 ᄀᆞ꾸레 뎅겨낫주. ᄀᆞ꾸레. 그거는 도름쉐엔 헤여근에 만약에 이 근처에 쉐 ᄆᆞᆫ ᄒᆞᆫ디 헤근에 이 사름 오늘 가민 저 사름 내일 가곡 그추룩 헹 도름쉐 헤낫주. 게난 같이 놔근에 그 사름덜이 오널 나 가고 낼 느네 가곡 겅 허멍 돌아가멍 도름쉐. 그런 거 헷어. 풀 멕이곡 물 멕이곡 허당 어둑으민 ᄆᆞᆯ앙 오랑 쉐 멥서, 쉐 멥서 허곡 뒷날 아침 갈 땐 쉐 내몹서, 쉐 내몹서 헌 거는 쉐 노민 가켄 ᄀᆞᆫ는 거고. 쉐 내몹서, 쉐 내몹서 허곡 오민 쉐 멥서, 쉐 멥서, 쉐 들이멥서, 쉐 들이멥서. 이녁 집드레 착착 들어와. 경헨 살앗어. 무주건 허켄 허민 다 ᄀᆞ찌. 이 동네 ᄒᆞ켄 허는 사름 떨어불진 아녀, 다

헤여. 두 사름썩 가주게. ᄒᆞᆫ 번에 얏튼 ᄒᆞᆫ 스무 마리 넘어. 산에 가민 물 멕이는 디도 잇곡 쉐 멕이는 디도 잇어, 산에 가민. ᄇᆞ딘 디, 갓다왓다. 게난에 군인 가분 때 그런 거 허젠 허민 애기 ᄃᆞᆯ앙 가고 애기 업엉. 어쩔 수 엇잖아. 쉘 ᄀᆞ꽈살 거고 안 ᄀᆞ꾸민 안 뒈지. 이녁 당번 돌아오민 헤야 뒈어. 거난 애기 ᄃᆞᆯ앙 가근에 애기 업곡 그 쉐 경허민. 쉐가 어둑어 가민 집이, 소리허면 쉐 집이 가젠 허는 소리로 어려어려허민 다 고개, 고개 돌려, 알르레. 집드레 고개 돌려. 아침 갈 땐 몰민 우트레 돌리곡 쉐가 알아, 쉐가. 암쉐, 수커, 암커 헤근에 흘레만 안 지민 얼마든지 강 오는 거 존디 놀멍 강 오는디. 흘레졍은 이거 바로 사름 ᄒᆞ나 죽어, 진짜.

소 돌보러 다녔었지, 돌보러. 그거는 '도름쉐'라고 해서 만약에 이 근처에 소 모두 한데 해서 이 사람 오늘 가면 저 사람 내일 가고 그처럼 해서 '도름쉐' 했었지. 그러니까 같이 놔서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고 낼 너희 가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도름쉐'. 그런 거 했어.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하다가 어두워지면 몰아서 와서 소 매십시오, 소 매십시오 하고 뒷날 아침 갈 땐 소 내모세요, 소 내모세요 한 거는 소 놓으면 가겠다고 말하는 거고. 소 내모세요, 소 내모세요 하고 오면 소 매세요, 소 매세요, 소 들여 매세요, 소 들여 매세요. 자기 집으로 착착 들어와. 그렇게 해서 살았어.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다 같이. 이 동네 하겠다고 하는 사람 떼어 버리진 않아, 다 해. 두 사름씩 가지. 한 번에 하여튼 한 스무 마리 넘어. 산에 가면 물 먹이는 데도 있고 소 먹이는 데도 있어, 산에 가면. 가까운 데 갔다 왔다. 그러니까 군인 가버린 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애기 데리고 가고 애기 업어서 어쩔 수 없잖아. 소를 돌봐야 할 거고 안 돌보면 안 되지. 자기 당번 돌아오면 해야 돼.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가서 애기 업고 그 소 그러면. 소가 어두워 가면 집에, 소리하면 소 집에 가자고 하는 소리로 어려어려하면 모두 고개 돌려, 아래로. 집으로 고개 돌려. 아침 갈 땐 몰면 위로 돌리고 소가 알아,

소가. 암소, 수컷, 암컷 해서 '흘레'만 안 하면 얼마든지 가서 오는 거 좋은데 놀면서 가서 오는데. '흘레'하면 이거 바로 사람 하나 죽어, 진짜.

암쉐도 메곡 숫쉐도 메곡 다 허주게. 나민 나는 대로 메난 어떨 거니. 아이고 암쉐 ᄒᆞ나 메당 보민 부렝이 나불곡. 그 ᄀᆞ꾸레 뎅기멍 생겨분 거주 ᄆᆞᆫ. 경헌 거난 부렝이 나불곡 암쉐 나불곡 허민 생긴 대로 나는 거. 흘레져. 거난 막 궂주게. 못 젼디곡, ᄆᆞ숩곡. 막 ᄉᆞᄆᆞᆺ 흘레졋다 허민 그 남저가 여저를 딱 부떠근에 무신 움직거렬 져? 움직거리질 못혀. (도름쉐는) 한 일주일에 ᄒᆞᆫ 번은 헤야주. 둘리서 가는 따문에 일주일에 ᄒᆞᆫ 번 하영 허민 ᄒᆞᆫ 열흘에 ᄒᆞᆫ 번 허고 족영 허민 일주일에 ᄒᆞᆫ 번 가야지. 정심 아지곡. 정심 안 아졍 가민 애기도 먹어살 거고, 어멍도 먹어살 거고 어떵헤? 옛날은 동고리착이엔 헌 거 이서낫어. 차롱 쩨끌락헌 거 그것에 싸고. 물은 그디 강 봉강 먹곡, 냇물.

(남편은 군대 가서) 서른여섯 ᄃᆞᆯ을 살앗지 안허꽈? (지금보다) 곱 살앗어, 곱 살앗어. 게난 군인 강은에 제대헹 올 때ᄁᆞ지 아득헤여, 오래여. 어느 때민 왕 ᄒᆞ나 마타불민 나가 살 거난에 버쳐, 버쳐.

암소도 매고 수소도 매고 다 하지. 낳으면 낳는 대로 매니까 어떻게 할 거니. 아이고 암소 하나 매다 보면 부룽이 나 버리고. 그 돌보러 다니면서 생겨버린 거지 모두. 그런 거니까 부룽이 나 버리고 암소 나 버리고 하면 생긴 대로 나는 거. 흘레해. 그러니까 아주 나쁘지. 못 견디고, 무섭고. 막 사뭇 흘레한다 하면 그 수컷이 암컷과 딱 붙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이지 못해. ('도름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둘이서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면 한 열흘에 한 번 하고 적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야지. 점심 가지고. 점심 안 가져 가면 애기도 먹어야 할 거고, 어머니도

먹어야 할 거고 어떡해? 옛날은 '동고리착'[25]이라고 한 거 있었어. 채롱 쪼끄마한 거 그것에 싸고. 물은 거기 가서 주워서 먹고, 냇물.

(남편은 군대 가서) 서른여섯 달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곱 살았어, 곱 살았어. 그러니까 군인 가서 제대해서 올 때까지 아득해, 오래야. 어느 때면 와서 하나 맡아 버리면 내가 살 거니까, 부쳐, 부쳐.

3) 묘제

• 큰제

큰 제 먹으레 가주. 우리 저 동이 수산 가. 산 잇주게, 웃대 산. 삼월 달쯤. 묘제, 묘제. 거기서 허는 사름이 잇주게, 종손. 땅이 막 널러. 충분이 제헐 만이, 제월전. 이디 우리 종손네는 저 중문서 이디ᄁᆞ지 ᄂᆞᆷ이 땅 안 발라서 왓젠. 그렇게 땅이 많아, 게난 눌터엔 헤근에. 눌 누는 밧 이서. 밧이 저디 막 널르게 수만 평 잇엇어.[26]

게난 그거 일름이 눌터. 눌 누는 디. 게난 사름덜 빌어다근에 그디서 보리 두드리곡, 집이서 허는 게 아니고 눌터 그디 강. 그추룩 살안 안넨, 종손넨 경 살곡.

큰 제 먹으러 가지. 우리 저 동쪽에 수산 가. 산 있지, 윗대 산. 삼월쯤 묘제. 거기서 하는 사람이 있지, 종손. 땅이 아주 넓어. 충분히 제 지낼 만큼, 제위전. 여기 우리 종손은 저 중문에서 여기까지 남의 땅 안 밟아서 왔다고. 그렇게 땅이 많아, 그러니까 '눌터'[27]라고 해서. 가리를 가리는 밭 있어. 밭이 저기 아주 넓게 수만 평 있었어.

25) '동고리착'은 대오리를 엮어 네모나게 만든 그릇이다. 주로 들일을 갈 때 도시락으로 사용한다.
26) 오봉식 구술.

그러니까 그거 일름이 '눌터'. 가리 가리는 데. 그러니까 사람들 빌려다가 거기서 보리 두드리고,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눌터' 거기 가서. 그처럼 살았어, '안네'는, 종손네는 그렇게 살고.

4) 생업

(1) 논농사

• 논 달루기

논 헤낫주. ᄒᆞ꼼 헤낫어, 우리도 ᄒᆞ꼼 헤낫어. 처음에 모종 놔근에, 멧 월세사 놔신디 요기서 요만이 크민 그다음은 거 메어근에 무껑 논 달롸근에 싱그주게. 논 갈앙게, 갈아놩 물 받아. 물을 갈아놩 받아, 그다음 달루는 거. 그 무시거 쉐로 달루주 뭐, 쉐로. 그것ᄀᆞ라 무신거엔 헌다마는 나 ᄀᆞᆫ지 못허크라. 둥그리는 거, 막 발 영 하영 박아근에, 낭으로 뒌 거. 낭으로 뒌 거 발 막 하영 박아근에 그거 쉐 몰민 쉐 이꺼가민 그것이 막 둥글어 가주게. 거 막 발로 ᄇᆞᆯ라지는 거. 논 달루는 건 이서낫저. 영 발 만들앙 영 이만이 허게 헤근에 발 만들앙. 논 메 헐 때, 저 달롼, 논이 달롸사 메 싱글 거 아니? 게난 그런 거. 나룩, 나룩허는 거주게. (물) 받아근에 갈앙, 간 후제, 간 후제 물 받아 노민 땅이 흐랑허주게. 게민 그거 끗으면 땅이 막 ᄇᆞᆯ려지주게. 게난 경 허렌 허는 거.

논 했었지. 조금 했었어, 우리도 조금 했었어. 처음에 모종 놓아서, 몇 월에야 놓았는지 요기서 요만큼 크면 그다음은 거 매어서 묶어서 논 골라서 심지. 논 갈아서, 갈아

27) '눌터'는 단으로 묶은 곡식 등을 쌓은 더미인 '눌'을 만들 터를 말한다.

놓고 물 받아. 물을 갈아 놓고 받아, 그다음 고르는 거. 그 무엇 소로 고르지 뭐, 소로.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마는 나 말하지 못하겠어. 굴리는 거, 아주 발 이렇게 많이 박어서, 나무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발 아주 많이 박아서 그거 소 몰면 소 이끌어 가민 그것이 막 굴러 가지. 거 막 발로 밟는 거. 논 고르는 건 있었어. 이렇게 발 만들어서 이렇게 이만큼 하게 해서 발 만들어서. 논 모 할 때, 저 골라서, 논이 골라져야 모 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벼, 벼 하는 거지. (물) 받아서 갈아서, 간 후, 간 후 물 받아 놓으면 땅이 물렁하지. 그러면 그거 골면 땅이 막 밟아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 4월

1) 사월 초파일

(1) 절에 가기

절간에 뎅겨낫주게. 뎅기단 이제 메누리신디 물림 시작허난 안 뎅겨. 신사절간. 구룡사. 이제 옮겻주마는 얏튼 이름이 구룡사라. 서귀포 시내 그디ᄀᆞ라 신사동산인디. 신사 그디 절 이름이 신사절간이라. (사월 초파일에) 가주게. 그자 무주건 절허곡 돈 올리곡 허는 거. 절은. 뭘 몰르난. 등도 싸곡게. 등 사근에 싸곡. 그자 시님 허렌 헌 대로 허는 거. 아무것도 몰르난. 열심히 갈 수가 엇어. 군인 가불곡 난 애기 ᄃᆞᆯ곡 가질 못헤. 우리 아이덜은 열심이 뎅겨. 이지금 저디, 그디 나 뎅겨난 디. 건디 그디 지금 옮겻어. 관음도량 구룡사. 열심이 다녀. 난 경 못허고. 나 뎅겨난 디 뎅기는 거

뿐이주. 게고 우리 어머니는 절에 뎅기곡 허질 못허게 살아선게. 기자 밥 먹곡 줌자곡 아프곡 경만 헨 살아노난.

절에 다녔었지. 다니다가 이제 며느리에게 물려주기 시작하니까 안 다녀. '신사절간'.[28] 구룡사. 이제 옮겼지마는 하여튼 이름이 구룡사야. 서귀포 시내 거기보고 '신사동산'[29]인데. 신사 거기 절 이름이 '신사절간'이라. (사월 초파일에) 가지. 그저 무조건 절하고 돈 올리고 하는 거. 절은. 뭘 모르니까. 등도 켜고. 등 사서 켜고. 그저 스님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갈 수가 없어. 군인 가버리고 난 아기 돌보고 가질 못해.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다녀. 지금 저기, 거기 나 다녔던 데. 그런데 거기 지금 옮겼어. 관음도량 구룡사. 열심히 다녀. 난 그렇게 못하고. 나 다녔던 데 다니는 거뿐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하지 못하게 살았더라. 그저 밥 먹고 잠자고 아프고 그렇게만 해서 살아 놓으니까.

(2) 머리 깎기

(초파일날 애기덜 머리 깎는 거) 헷주게. 무사사 허는 것산디 그 ᄆᆞᆫ질락허게 두린애긴 까까 불고 역은 애긴 ᄒᆞᆯ 영 알로 까끄곡 헷어. 펜안헌덴, 두린 때 삼 세 번 짤라주면 문짝 ᄀᆞᆺ아 불민. 경헌덴 헹 그축 헤낫어. 무주건 세 번. 나근에 삼 년. 문짝 까끄는 거. 좋은덴 허난게 허는 거뿐, 경 ᄀᆞᆯ으난 헌 거뿐. 여자아이덜도 까깟주.

(초파일날 아기들 머리 깎는 거) 했지. 왜 하는 것인지 그 매끈하게 어린아긴 깎아

28) '신사절간'은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던 자리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29) '신사동산'은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는 동산이라는 뜻의 지명이다.

버리고 큰 애긴 조금 이렇게 아래로 깎고 했어. 편안하다고, 어릴 때 삼 세 번 잘라주면 말끔히 잘라 버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처럼 했었어. 무조건 세 번. 태어나서 삼 년. 말끔히 깎는 거.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뿐, 그렇게 말하니까 한 거뿐. 여자아이들도 깎았지.

2) 생업

(1) 논농사

• 나룩 메살룸

(논에 물 받은) 다음에, 다음에 안 허민 달루질 못허주게. 달룬 다음엔 싱거. 그거 싱글 거. 모 뽑아근에 거 싱거. 영 맞촹. 그다음에 저 비료 줘근에. ᄒᆞ쏠 크민 메살룸이엔 헌 게 이서. 이거 영 허민 영 컷주게, 크민 메살룸이엔 헌 건 영허민 이거 영영헹 흑을 막 이추룩 헤사 이것이 커, 이것이. 흑을 막 영 문작허게 멘들아사.

이거 나룩이라. 이거는 영 헤불지 못허게 영영 허멍 막 흑을 영 문작허게 만들아야 이게 커. 이것ᄀᆞ라 메살룸. 겐디 거 일름은 메 살루는 거. 메살룸이엔 헌 건 이것이 살아나렌. 막 ᄆᆞᆫ직아. 막 흐랑허게. 허리가 다 죽어져 거.

거 이만이 크민 허주. 이만이 큼 시작허민 오래오래 클 때도록 게민 막 말쩨라 가민 물 뿟땅 못허민 이추룩 못허민 검질이라도 영 뽑아사, 검질이라도 뽑아사. 물만, 물만 잘 대민 물만 잘 대지민 하영 안 나는디, 물 안 대지민 검질 쳐 나.

댈 수가 엇어, 물이 엇엉, 족앙. 이디 제수장 물이라부난에. (검질) 막 나. ᄆᆞᆯ피엔 헌 거 처나곡. 나룩밧디 ᄆᆞᆯ피. 거 처나곡.

(논에 물 받은) 다음에, 다음에 안 하면 고르질 못하지. 고른 다음엔 심어. 그거 심을 거. 모 뽑아서 거 심어. 이렇게 맞춰서. 그다음에 저 비료 줘서. 조금 크면 '메살룸'이라고 한 게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컸지, 크면 '메살룸'이라고 한 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흙을 막 이처럼 해야 이것이 커, 이것이. 흙을 막 이렇게 문적하게 만들어야.

이거 벼야.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흙을 이렇게 문적하게 만들어야 이게 커. 이것보고 '메살룸'. 그런데 거 이름은 모 살리는 거. '메살룸'이라고 한 건 이것이 살아나라고. 막 만져. 아주 물렁하게. 허리가 다 죽어져 그거.

거 이만큼 크면 하지. 이만큼 크기 시작하면 오래오래 클 때까지 그러면 아주 말째라 가면 물 밭아서 못하면 이처럼 못하면 김이라도 이렇게 뽑아야, 김이라도 뽑아야. 물만, 물만 잘 대면 물만 잘 댈 수 있으면 많이 안 나는데, 물 안 대면 김이 많이 나.

댈 수가 없어, 물이 없어서, 적어서. 여기 '제수장' 물이라서. (김) 막 나. 돌피라고 한 거 처나고. 논에 돌피. 거 처나고.

(2) 깨농사

ᄉᆞ월 초파일쯤엔 (날) 좋으민 아이고 올린 꿰 조켜. 그런 거 이녁 그 경험허영 벳긴 몰라. 날 조민, 날 조민게, 겅허주게. 비 오곡 막 허민 꿰 궂곡.

사월 초파일쯤엔 (날) 좋으민 아이고 올해는 깨 좋겠다. 그런 거 자기 그 경험해서 밖엔 몰라. 날 좋으면, 날 좋으면, 그렇게 하지. 비 오고 막 하면 깨 궂고.

(3) 감저농사

감저는 모종 놔사주. 감저 이디 씨 놩 놧당 크민 그 잘라다근에 짤라당 싱그는 거. 그자 이런 디 영 홈파근에 이추룩 헤근에 더펑 놔두민 뒈주게. 거름 놩 그게 모종 놓는 거. 이게 감저고 영허민 이걸 영 파, ᄒᆞᆯ. 파근에 이추룩 놔 가 영, 놔근에 흑 더프곡 이디 거름을 좀 헤여. 거름 헹 놔두민 이게 나주게, 이디서 나. 나민 이게 꿀이라. 꿀이민 걸름 줭 놔두민 커. 그거 비어다근에 이제 밧 갈앙 놓는 거. 갈앙 이 꿀 헤영 꾹꾹꾹 찔르는 거. 옛날은 영헹 영 찔러신디 지금은 영, 영 찔러, 지금은. 겅 찔러. 꿀 비어나민 구감. 그게 먹을 게 엇어. 꿀만 안 비어난 땐 먹을 게 잇엉 오늘치룩 ᄒᆞ나 먹어지는디 꿀 비어불민 먹을 게 엇어, 구감. 밧디 가근에게, 옛날은 영영 헷주게. 밧 갈앙 만들앙, 영 헤신디 지금은 영. 이거 세와. 지금은 영 세와. 전인 눅져신디 옛날은. 게난에 지금은 허는 거 보민 이거 영영 싱거근에 영영영영, 겅허여. 지금은 겅허여. 옛날은 이거 다 눅졋어. 겐디 이것에 이것에 부뜨게. 영허민 요거 감저꿀이민 또 이디 부뜨게 영 부뜨게. 겅헨 싱것어. 겅헌디 ᄒᆞᆫ짝으로만 크민 뒈어. ᄒᆞᆫ짝으로만 크민 이추룩 이것이 영 일어사멍 일로 영 감저 들곡 ᄒᆞᆫ짝으로 일어사민 크주게. 겅 헤낫어. (감저꿀 심는 건) 유월절까지 ᄆᆞ꽈야 뒈어. 안 싱그면 금년은 비 하영 왓주마는 유월절 뒈민 날이 좋아 불어. 이추룩 햇빗 낭 게민 죽주게. 게난 그 전에 유월절 전에 다 끗내와야 뒈어. 감저꿀 내는 건 ᄒᆞᆫ 둘만 전이 허민 뒘직허다.

고구마는 모종 놔야지. 고구마 여기 씨 놓아서 놨다가 크면 그 잘라다가 잘라다가 심는 거. 그저 이런 데 이렇게 홈파서 이처럼 해서 덮어 놓아두면 돼지. 거름 넣어서 그게 모종 놓는 거. 이게 고구마고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파, 조금. 파서 이처럼 놓아 가 이렇게, 놓아서 흙 덮고 여기 거름을 좀 해. 거름 해서 놔두면 이게 나지.

여기서 나. 나면 이게 덩굴이야. 덩굴이면 거름 줘서 놓아 두면 커. 그거 베어다가 이제 밭 갈아서 놓는 거. 갈아서 이 덩굴 헤영 꾹꾹꾹 찌르는 거. 옛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찔러, 지금은. 그렇게 찔러. 덩굴 베고 나면 '구감'[30]. 그게 먹을 게 없어. 덩굴만 안 벤 땐 먹을 게 있어서 오늘처럼 하나 먹게 되는데 덩굴 베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 '구감'. 밭에 가서,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했지. 밭 갈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거 세워. 지금은 이렇게 세워. 전엔 눕혔는데 옛날은.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거 보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 지금은 그렇게 해. 옛날은 이거 다 눕혔어. 그런데 이것에 이것에 붙게. 이렇게 하면 요거 고구마덩굴이면 또 여기 붙게 이렇게 붙게. 그렇게 해서 심었어. 그런데 한쪽으로만 크면 돼. 한쪽으로만 크면 이처럼 이것이 이렇게 일어서면서 이리로 이렇게 고구마 들고 한쪽으로 일어서면 크지. 그렇게 했었어. (고구마덩굴 심는 건) 유월절까지 마쳐야 돼. 안 심으면 금년은 비 많이 왔지마는 유월절 되면 날이 좋아 버려. 이처럼 햇빛 나서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 그 전에 유월절 전에 다 끝내야 돼. 고구마덩굴 내는 건 한 달만 전에 하면 될 것 같다.

(4) 귤농사

(귤은) 봄이 뭐 전정헤야주. (꼿 피기 전이) 전정헤여, 전정. 거름허곡. 꼿 피민게 그때도 거름 주곡 전정헤 나민 그다음 소독, 농약. 지금은 ᄒᆞᆫ이엇어, 지금은. 옛날은 유산동 ᄒᆞᆫ 번 허곡 다이센 ᄒᆞᆫ 번 허곡 경 허민 거자 뒛는디, 다니악이나 잇당 ᄒᆞᆫ 번썩 허는디 지금은 이거 원 ᄒᆞᆫ이 엇어. 그다음 농약만 끗나민 탈 걸로 생각헹 풀 걸로 생각허주게. 적과허곡 그전에. 이제

30) '구감'은 고구마 모종을 얻기 위해 심은 씨고구마에서 고구마순을 잘라 내고 남은 해묵은 고구마를 이른다.

헤도 뒈곡, 그 전에 헤도 뒈곡. 그다음에게 익으민 풀 거 소독허영 익으민 풀 거.

지금은 드러 (농약) 허여. 옛날엔 그추룩 안 헤여. 다이센, 다이센이엔 헌 거 허곡, 디프로탄 ᄒᆞᆫ 번 허곡, 유산동인가 뭐 그거 ᄒᆞᆫ 번 허곡 허민, 옛날은 뒈신디 게난 그 우리가 처음 미깡낭 헐 땐 막 돈을 벌어져, 벌어지메. 잘허민 일년에 밧도 ᄒᆞ나 사곡 겅 허여. 지금은 이건 소독 하영 들엉. 농약 깝이 너무 하영 들어. (옛날은) 도세기똥도 허곡 쉐똥도 허곡 ᄃᆞᆨ똥도 허곡 그거. 십이월 초부터 타는 거, 그때부터 시작허영.

(귤은) 봄이 뭐 전정해야지. (꽃 피기 전이) 전정해, 전정. 거름하고. 꽃 피면 그때도 거름 주고 전정하고 나면 그다음 소독, 농약. 지금은 한이 없어, 지금은. 옛날은 '유산동'[31] 한 번 하고 '다이센'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됐는데, '다니악'이나 있다가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이거 원 한이 없어. 그다음 농약만 끝나면 딸 걸로 생각해서 팔 걸로 생각하지. 적과하고 그전에. 이제 해도 되고, 그전에 해도 되곡. 그다음에 익으면 팔 거 소독해서 익으면 팔 거.

지금은 들이 (농약) 해. 옛날엔 그처럼 안 해. '다이센', '다이센'이라고 한 거 하고, '디프로탄' 한 번 하고, '유산동'인가 뭐 그거 한 번 하고 하면, 옛날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 귤나무 할 땐 막 돈을 벌 수 있어, 벌 수 있어. 잘하면 일 년에 밭도 하나 사고 그렇게 해. 지금은 이건 소독 많이 들어서. 농약 값이 너무 많이 들어. (옛날은) 돼지똥도 하고 소똥도 하고 닭똥도 하고 그거. 십이월 초부터 따는 거, 그때부터 시작해서.

31) '유산동', '다이센', '다니악', '디프로탄'은 귤나무에 뿌리는 농약의 한 종류다.

□ 5월

1) 오월 멩질

단오 멩질엔 그런 거 저런 거 엇주게. (특별한 거) 엇어 그거 똑ᄀᆞ찌. 보리헐 때난에게 막 바쁠 때. 망종이엔 말만 들엇지 무신거 헌덴 말은 안 들엇어. 보리 비어비사, 보리 비어근에 ᄆᆞᆫ 장만헤비사 그다음은 새 농사 헤살 거주게. (오월) 멩질, 멩질 ᄀᆞ리에가 보리 한창헐 때. 그때가 한창. 비엉 ᄆᆞᆫ 두드령, 그다음 농사헐 거.

단오 명질이라고 그런 거 저런 거 없지. (특별한 거) 없어 그거 똑같이. 보리할 때니까 막 바쁠 때. 망종이라고 말만 들었지 무엇 한다고 말은 안 들었어. 보리 베어 버려야, 보리 베어서 모두 장만해 버려야 그다음은 새 농사 해야할 거지. (오월) 명질, 명질 즈음에가 보리 한창헐 때. 그때가 한창. 베어서 모두 두드려서, 그다음 농사헐 거.

2) 생업

(1) 보리농사

• 보리 베기

(보리) 언제부터사 비어져신디 알아지크라. 고고리 노랑헤 가민. 좀도 졸바로 못 자곡 보리 때문에. 그냥 경 거둬들여얀다 그런 건 몰르고 그자 무주건 거둬들이는 거 재기, 부지런이 거 홀트곡. 그거 그냥 이런 기계로

영 저 보리클에 영 훌터근에 그다음 이디서 두드려 도께로. 도께로 두드려 근에 불려근에 그거. 무신 보리엔 ᄀᆞᆫ는 건 그냥 것보리옝은 그 따문 ᄀᆞᆫ는 건 아니주. 것보리. 두줄보리, ᄉᆞᆯ오리, 보리가, 보리 종류.

(보리) 언제부터야 베었는지 알 수 있겠어. 이삭 노랗게 되어 가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리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거둬들여야 한다 그런 건 모르고 그자 무조건 거둬들이는 거 재게, 부지런히 거 훑고. 그거 그냥 이런 기계로 이렇게 저 보리그네에 이렇게 훑어서 그다음 여기서 두드려 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드려서 불려서 그거. 무슨 보리라고 말하는 건 그냥 겉보리라고 해서 그 때문 말하는 건 아니지. 겉보리, 두줄보리, 쌀보리, 보리가, 보리 종류.

• 보리 거피기

살암시난 기계에 먹엇주. ᄆᆞᆯᄀᆞ레 ᄀᆞᆯ앗주게, ᄆᆞᆯᄀᆞ레. 이디 ᄆᆞᆯᄀᆞ레 이디 이서낫어. ᄆᆞᆯᄀᆞ레 ᄀᆞᆯ앙 그거 거피엉 ᄀᆞ레 ᄀᆞᆯ아근에 밥헹 먹언 살안. 게도 것도 엇엉 못 먹어. ᄆᆞᆯᄀᆞ레 ᄀᆞᆯ민 ᄀᆞ진 냥 잇주게. 게난 벌러살 거 아니라. ᄀᆞ레 안 ᄀᆞᆯ민 벌럴져게. ᄀᆞ레 ᄀᆞᆯ아사 벌르주. 거피는 거. 벌르젠 허민. 벌러근에 체로 쳐근에 우이로 헌 건 또 벌르고 아랫 건 먹고 경 헷어.

살고 있으니까 기계에 먹었지. 연자방아에 갈았지, 연자방아. 여기 연자방아 여기 있었어. 연자방아에 갈아서 그거 거피해서 맷돌 갈아서 밥해서 먹고 살았어. 그래도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연자방아 갈면 온전한 대로 있지. 그러니까 쪼개야 할 거 아니냐. 맷돌 안 갈면 쪼개지느냐. 맷돌 갈아야 쪼개지. 거피하는 거. 쪼개려고 하면. 쪼개서 채로 쳐서 위로 한 건 또 쪼개고 아래 건 먹고 그렇게 했어.

• **보리 서먹기**

(보리) ᄉᆞ못 익기 전이 먹젠 허민게, 배고프니까. 경 헤근에 솖아근에 그거 삭삭 궤는 물에 영 드리쳥 허민 재기 ᄆᆞᆯ르고 그자 널민 재길 안 ᄆᆞᆯ라, 먹젠 허민, 먹어살 건디, 배고프난. 그 보릴 비어다근에 물 궤왕, 물. 솟데 물 궤와근에 콱콱 찔르면 재기 ᄆᆞᆯ라. 콱콱 찔렁 이거 홀타노민.

고고리난 영영 들이쳐근에 앗으곡 들이쳥 앗으곡 헤근에게, 보리낭채. 낭은 보리낭은 안 들어가고 고고리만 들어가고, 들어갓당 나오고, 끓인 물에, 삭삭 궤는 물에. 게믄 사름은 안 더울 거? 덜 익어도 경 헹 더운 물만 적지민 재기 ᄆᆞᆯ라. 경헹 ᄀᆞᆯ앙 먹어. 보리 서먹엄젠은 ᄀᆞᆫ주. 거난 보리 서먹곡 감저 서파먹곡. 감저, 고구마, 서파먹는 거. 파먹어사주. 안 든 때, ᄆᆞᆫ 안 큰 때. ᄆᆞᆫ 안 큰 때 파먹는 거. 게난 그걸로 땔 살아. 저냑도 살고 정심도 살곡 아침만 밥 먹곡. 그추룩 살앗어.

(보리) 사뭇 익기 전에 먹으려고 하면,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삶아서 그거 삭삭 끓는 물에 이렇게 들이뜨려서 하면 재게 마르고 그냥 널면 재게 안 말라, 먹으려고 하면, 먹어야할 건데, 배고프니까. 그 보릴 베어다가 물 끓여서, 물. 솥에 물 끓여서 콱콱 찌르면 재게 말라. 콱콱 찔러서 이거 홅아 놓으면.

이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이뜨려서 갖고 들이뜨려서 갖고 해서, 보릿대째. 나무는 보릿대는 안 들어가고 이삭만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끓은 물에, 삭삭 끓는 물에. 그러면 사람은 안 더울 거? 덜 익어도 그렇게 해서 끓은 물만 적시면 재게 말라. 그렇게 해서 갈아서 먹어. 보리 '서먹엄젠' 말하지. 그러니까 보리 '서먹곡' 고구마 '서파먹곡'. 고구마, 고구마, '서파먹는' 거. 파먹어야지. 안 들었을 때, 모두 안 클 때. 모두 안 클 때 파먹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땔 살아. 저녁도 살고 점심도 살고 아침만 밥 먹고. 그처럼 살았어.

(2) 누에 기르기

• 누에와 번데기

(누에) 질롸낫주게. 봄에 봄 나가민 누에씨 요멘썩 헌 거 주민 깨와근에게 그거 좀 네 번 자야 뒈는가? 좀자근에 그 좀자민 고출 만들아, 실 헤근에. 게민 그 고추 싸근에, 싸는 건 어떠느냐민 삶아, 솟 헤근에. 삶으민 그 기계 영영영 실을 빠는 거라. 빠근에 허민 그 실 또 풀어사, 감은 걸 풀어사 또 놀악, 메역, 짜곡 허민 시간이 원.

누에만 헤지민 허는 거. 게나저나 뽕이, 지금은 세비지 안헤신가. 게난 그 뽕 세지 안 헌 때 먹는 거주게. 먹으민 다 먹으민 실 뒈는 거라. 게난 이전에 실을 빠. 이전에. (장마철에) 그때. 거고 막 먹곡, 먹어. 지금도 풀잖아, 어디서 풀아. 것ᄀᆞ라 무시거엔 헌다마는 일름, 번데기 풀아. 난 거 먹어, 먹어보지, 나 손으로 막 헤도 먹어보지도 안 허고. 사보지도 안 허고. 계속 헤노난, 할망이. (번데기) 바렘은 곱닥헤도 난 먹지 못헤여. 입더레 놓지 못헤여, 못 놔.

(누에) 길렀었지. 봄에 봄 나가면 누에씨 요만큼씩 한 거 주면 깨워서 그거 잠 네 번 자야 되는가? 잠자서 그 잠자면 고치를 만들어, 실 해서. 그러면 그 고치 싸서, 싸는 건 어떻게 하느냐하면 삶아, 솥 해서. 삶으면 그 기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실을 빼는 거야. 빼서 하면 그 실 또 풀어야, 감은 걸 풀어여 또 날고, 매고, 짜고 하면 시간이 원.

누에만 하면 허는 거. 그러나저러나 뽕이, 지금은 쇠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뽕 쇠지 않을 때 먹는 거지. 먹으면 다 먹으면 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실을 빼. 이전에. (장마철에) 그때. 그리고 막 먹고, 먹어. 지금도 팔잖아, 어디서 팔아.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마는 이름, 번데기 팔아. 난 거 먹어, 먹어보지, 나 손으로 막 해도 먹어보지도 않고. 사보지도 않고. 계속 해놓으니까, 할머니가. (번데기) 보기에는 고와도 난 먹지 못해. 입에 넣지 못해, 못 넣어.

□ 6월

1) 유월절

유월절 칠뤌 초일렛날. 음력 초일렛날. (유월절 전이 농서를) 다 헤야 뒈는 거, 아명 좋은 밧도. 그날꺼진 뒈어, 그날꺼지. (그날 넘어 불민) 씨가 안 뒈, 잘 안 사. 유월절. 거난 매해마다 칠뤌 칠석날 헤야 뒈, 저 그날꺼지 생각을 헤야 뒈어.

유월절 칠월 초이렛날. 음력 초이렛날. (유월절 전에 농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무리 좋은 밭도. 그날까진 돼, 그날까지. (그날 넘어 버리면) 씨가 안 돼, 잘 안 서. 유월절. 그러니까 매해마다 칠월 칠석날 해야 뒈, 저 그날까지 생각을 해야 돼.

2) 둑 잡아먹는 날

유월스무날. 일년 살젠 허난에게 사름이 허약허난 몸보신허는 모냥으로. 우린 둑, 이 하르방이 둑을 먹으민 안 뒈니까 원 먹어 보지 안혯어. 애기들 어렷을 땐 먹어나고. 겡 허단 이젠 당취 이 사름이 아픈 사름이라 부난에. 뇌졸징으로 완전 죽어낫어. 겐에 서울대학병원 간 살앙완에 이추룩 오래

살멘. 난 하르방 따문에 삼계탕을 못 먹어, 안 먹어봔. (병아리) 킵주게, 그거 잡앙 먹곡. 봄에부떠 허면은 재게 크는 건 재게 크고, 뜨게 크는 건 뜨게 크는 건 뜨게 크고, 지금은 ᄆᆞᆫ 물어병 허는디 그땐 그자 이디 놩 질롯주게, 추접험은 헤여. 막 이런 디 들어오고 막 궂음은 헤여. 겅 헤도 놩 그자 질루민 저런 디 새끼도 나고 이런 담 우이도 나곡 겅허멍 살아신디 아이고.

유월스무날. 일 년 살려고 하니까 사람이 허약하니까 몸보신하는 모양으로. 우린 닭, 이 할아버지가 닭을 먹으면 안 되니까 원 먹어 보지 않았어. 애기들 어렸을 땐 먹었었고. 그래서 하다가 이젠 당최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 버리니까. 뇌졸중으로 완전 죽었었어.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가서 살아서 와서 이처럼 오래 살고 있어. 난 할아버지 때문에 삼계탕을 못 먹어, 안 먹어봤어. (병아리) 키우지, 그거 잡아서 먹고. 봄에부터 하면은 재게 크는 건 재게 크고, 늦게 크는 건 늦게 크는 건 늦게 크고, 지금은 모두 물어 버려서 하는데 그땐 그저 여기 놓아서 길렀지, 더러움은 해. 막 이런 데 들어오고 막 궂음은 해. 그래도 놓아서 그저 기르면 저런 데 새끼도 낳아도고 이런 담우이도 나곡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아이고.

3) 당제

당에가 음력 유월이주. 초일렛날 가고 초여드렛날 가고 두 번. 초일렛날은 당에 이디서 가고 당, 당. 게고 ᄋᆞ드렛날은 바당에 가고. 두 번 가. 유월에, 칠일, 팔일, 그때. (칠일은) 제베낭알. 그때 제베낭 막 큰 제베낭 이성, 그디 제밤낭 막 크난 이젠 아래 그늘 치주게. 게난 그디 일름이 제베낭알. (이젠) 질 뒈빗어, 그디. 질 만들아불언. 엇어져 불언, 어디 부떠난 지도 몰라. 우리만 알주. 몰라. 보지 안허난에 어떵 알아. 일년에 ᄒᆞᆫ 번 가. 저

두 번 그추룩 헹 두 번도 가메. 동짓덜에도 혼 번 가고. 정월 헤신디 동짓덜 헤신디 건 확실헌 거 몰르크라.

이딘 막 이디 막 사름 삶이 막 간단헌 부락. 이디, 이 부락은. 무신거 허는 게 엇어. 진짜 구신 오민 오랑 밥 먹으민 문 먹읍디가 헹 상 아져와부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헤. 문젤 허나 무신 잡식을 허냐, 진짜 옵디가 헹 밥 먹읍서 헤근에 상 출령 밥 문 먹엇수과 헹 아져와부는 거 끗. 게난 그 숭눙도 아져 강 헤나민 아져오민 먹고, 사람이. 그 저 우리 예춘선 거 올리메, 저 지붕 우트레, 우리 친정에선. 이딘 그런 거 엇어. 올레레 데끼는 것도 엇고 아무것도 엇어, 이디. 기자 사는 거. 구신은 구신만 살곡 생인은 생인만 살아.

당에 음력 유월이지. 초이렛날 가고 초여드렛날 가고 두 번. 초이렛날은 당에 여기서 가고 당, 당. 그리고 여드렛날은 바다에 가고. 두 번 가. 유월에, 칠일, 팔일, 그때. (칠일은) '제베낭알'. 그때 구슬잣밤나무 아주 큰 구슬잣밤나무 있어서, 거기 구슬잣밤나무 아주 크니까 이젠 아래 그늘 지지.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제베낭알'. (이젠) 길이 되었어, 거기. 길 만들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우리만 알지. 몰라.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아. 일 년에 한 번 가. 저 두 번 그처럼 해서 두 번도 가. 동짓달에도 한 번 가고. 정월 했는지 동짓달 했는지 건 확실한 거 모르겠어.

여긴 막 여기 막 사람 삶이 아주 간단힌 부락. 여기, 이 부락은. 무엇 하는 게 없어. 진짜 귀신 오면 와서 밥 먹으면 모두 드셨습니까 해서 상 가져와 버리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해. 문제를 하나 무슨 제반을 하나, 진짜 오셨습니까 해서 밥 드세요 해서 상 차려서 밥 모두 드셨습니까 해서 가져와 버리는 거 끝. 그러니까 그 숭늉도 가져가서 하고 나면 가져오면 먹고, 사람이. 그 저 우리 신예리에선 그거 올려, 저 지붕 위로, 우리 친정에선. 여긴 그런 거 없어. 오래에 던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디.

그저 사는 거. 귀신은 귀신만 살고 생인은 생인만 살아.

4) 생업

(1) 조농사

• 조 파종

보릿그르에 보리 초불 갈앙 놧다근에 감저 고구마도 싱그고 조도 갈고 조, 서숙, 서숙, 조. 것도 허곡. 고구마도 싱그고. (조를 파종하려면) 두불 갈아, 조는 그대로도 헐 수 잇는디 궂인 밧은 그대로 허곡 이추룩 좋은 밧은 두 번 갈아사. 말론 두불밧이엔 헤여, 그거ᄀᆞ라 두불밧이엔 ᄀᆞᆯ아. ᄒᆞᆫ 번 갈앙, 두 번 갈앙 조 허는 것ᄀᆞ란 두불밧. 초불밧, 초불밧은 ᄒᆞᆫ 번 간 것ᄀᆞ라 초불밧. 두 번 간 것ᄀᆞ라 두불밧. 안 좋은 밧, 궂인 밧은 ᄒᆞᆫ 번 갈아도 농사가 뒈는디 존 밧은 두 번 갈아사 농사가 뒈어. 검질을 잘 메사주게. 골르게, 골르게 쭉 골르게 잘 메야 뒈는디. 초불밧, 두불밧허고 초불밧은 유월절 전이 막 농살 헤야 뒈고, 초불밧은. 두불밧은 이추룩 좋은 밧은 낼이 유월절이면 오늘 헤도 뒈어. 경헤야 더 염아지곡, 게사 잘 뒈고. 초불밧이 산에 밧이고, 두불밧은 가름팟이고 경허는 거.

보리 그루터기에 보리 초벌 갈아서 놓았다가 고구마, 고구마도 심고 조도 갈고 조, 서숙, 서숙, 조. 그것도 하고. 고구마도 심고. (조를 파종하려면) 두벌 갈아, 조는 그대로도 할 수 있는데 궂은 밭은 그대로 하고 이처럼 좋은 밭은 두 번 갈아야. 말로는 '두불밧'이라고 해, 그거보고 두불밭이라고 말해. 한 번 갈아서, 두 번 갈아서 조 하는 것보고 두벌밭. 초벌밭, 초벌밭은 한 번 간 것보고 초벌밭. 두 번 간 것보고 두벌밭. 안 좋은

밭, 궂은 밭은 한 번 갈아도 농사가 되는데 좋은 밭은 두 번 갈아야 농사가 돼. 김을 잘 매야지. 고르게, 고르게 쭉 고르게 잘 매야 되는데. 초벌밭, 두벌밭하고 초벌밭은 유월절 전에 막 농살 해야 되고, 초벌밭은. 두벌밭은 이처럼 좋은 밭은 내일이 유월절이면 오늘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더 지고, 그래야 잘 되고. 초벌밭이 산에 밭이고, 두불밭은 '가름팟'[32]이고 그렇게 하는 거.

• 조 불리기

(조) 불려낫주게. 처음은 쉐 이시난 불리단 말젠 섬비로 끗음만 헷어, 처음은. (물테우리) 그걸로 헤낫주게. 걸로 허단에 것이 엇어가난에 섬비로 끗언 헷어. (조 불릴 때 고사) 이딘 그런 거 엇덴 허난. 말만 제석할망이주. 원 이딘 절대 그런 건 엇어. 제 허곡 그런 거 엇어. 이 부락이 경헌 디라. 우린 테우리 그런 거 빌어보진 안허연. 나냥으로 허지. 나 소리도 잘허메, 테우리 소리. 잘헤여. 밧 불리는 거게. 어려어려어려어려려. 허 어어어, 어어려 덜덜.

잘 부뜨렌게, 씨 잘 사렌. 씨 잘 사는 건 이거 영 낭 죽지 말앙 잘 사렌, 잘 살렌. 보린 아니주. 보리는 보린 불르는 건 무사녠 허민 그 눈 오민 영 들러지잖아. 거난 그거 딱 불라 불렌 그 따문 불르는 거고, 조는 씨 잘 세우젠. 묻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영 사근에 서렌게, 서렌. 누워불주게, 누워 비어. 게난 이거 잘 묻어지민 잘 사잖아. 산 것ᄀᆞ라 우린 삿젠 허주마는 서서 허잖아, 섯젠. 잘 세우렌. (씨가 사야) 잘 크곡 고고리가 잘 뒈어.

조도 불리고, 젤 처음 산디. 그다음은 저 거시기 산디 전이 그다음은 조라도 궂인 밧은 그때허고 산디 헤낭 그다음. 좋은 밧은 더 잇당, 유월절 뒈사. 거자 뒈사 씨 삐곡 불르곡 어려려 허멍 불르곡

32) '가름팟'은 마을 안에 있는 밭으로 토질이 좋아서 이모작이 가능하다.

(조) 밟았었지. 처음은 소 있으니까 밟다가 말째는 '섬피'[33]로 끌기만 했어, 처음은. (말테우리) 그걸로 했었지. 그걸로 하다가 그것이 없어져 가니까 '섬비'로 끌어서 했어. (조 밟을 때 고사) 여긴 그런 거 없다니까. 말만 '제석할망'[34]이주. 원 여긴 절대 그런 건 없어. 제하고 그런 거 없어. 이 부락이 그런 데야. 우린 테우리 그런 거 빌려보진 않았어. 나대로 하지. 나 소리도 잘해, 테우리 소리. 잘해. 밭 밟는 거. 어려어려어려어려려. 허 어어어, 어어려 덜덜.

잘 붙으라고, 씨 잘 서라고. 씨 잘 서는 건 이거 이렇게 나서 죽지 말라고 잘 서라고, 잘 살라고. 보린 아니지. 보리는 보린 밟는 건 왜인고 하면 그 눈 오면 이렇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딱 밟아 버리라고 그 때문 밟는 거고, 조는 씨 잘 세우려고. 묻힌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서서 서라고, 서라고. 누워 버리거든, 누워 버려. 그러니까 이거 잘 묻히면 잘 서잖아. 선 것보고 우린 섰다고 하지마는 서서 하잖아, 섰다고. 잘 세우라고. (씨가 서야) 잘 크고 이삭도 잘 돼.

조도 밟고, 젤 처음 밭벼. 그다음은 저 거시기 밭벼 전에 그다음은 조라도 궂은 밭은 그때하고 밭벼 하고 나서 그다음. 좋은 밭은 더 있다가, 유월절 돼야. 거의 돼야 씨 뿌리고 밟고 어려려 하면서 밟고.

□ 7월

1) 칠석

칠월 칠석 허민게 무시거 헐 거 이서? 칠월 칠석이엔 헤근에 막 ᄒᆞ꼼

33) '섬피'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다.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든다.
34) '제석할망'은 농업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풍농의 신이다.

놀레 가오곡 허주. 음력 칠월, 음력 칠월이 막 젤 더운 때라. 옛날 말이 유월 더위 더위옝 말라, 칠월 더위가 한더위여 허주게. 경 ᄀᆞᆯ아. 유월 더위 더위옌 말라. 정칠월[정칠뤌]이 한더위러라. 느네 유월에 덥덴 허지 말라. 정칠월 나보라 더 덥나 이 말이여, 그 말. 지금도 그 말 ᄀᆞᆯ아. 오늘도 일허레 가난 막 더우난 유월 더위 더위옌 말라 정칠월이 한더위러라. 이제 우리 ᄀᆞᆫ는 걸로 ᄀᆞᆯ아.

칠월 칠석 하면 무엇 할 거 있어? 칠월 칠석이라고 해서 아주 조금 놀러 갔다오고 하지. 음력 칠월, 음력 칠월이 아주 젤 더운 때야. 옛날 말이 유월 더위 더위라고 하지 마라, 칠월 더위가 한더위야 하지. 그렇게 말해. 유월 더위 더위라고 마라. 정칠월이 한더위러라. 너희 유월에 덥다고 하지 마라. 정칠월 나봐라 더 덥다 이 말이야, 그 말. 지금도 그 말 해. 오늘도 일하러 가니까 아주 더우니까 유월 더위 더위라고 마라 정칠월이 한더위러라. 이제 우리 말하는 걸로 말해.

2) 백중

중간에 우리 쉐 질루게 뒈니까 나가 성장헤서 쉐 질루게 뒌, 쉘 많이 질롯어. 거난 뎅겨낫어, 그 굴에. 그 굴이 궹장이 기퍼. 이름이 뭐, 이름은 몰르겟어. 사름덜 그디 이 동네 사름덜 많이 가. 가민 거기서 밥 항고 가져강 항고에 밥헤근에 올령. (제물은) 이녁만씩, 국은 안 허고. 또 새벡이 가주 새벡이. 새벡이 가민은 처음 온 사름은 어둑은 때 허는디 내중에 사름덜은 붉은 다음에. (제 지내기도) 이녁만씩. 자기만씩. 술 가졍간 사름은 가졍가고 안 가졍간 사름은 안 가졍가고. 술 좋아허는 사름은 이녁 먹젠 가졍가는 거.[35]

중간에 우리 소 기르게 되니까 내가 성장해서 소 기르게 돼서, 소를 많이 길렀어. 그러니까 다녔었어, 그 굴에. 그 굴이 굉장히 깊어. 이름이 뭐, 이름은 모르겠어. 사람들 거기 이 동네 사람들 많이 가. 가면 거기서 밥 '항고'[36] 가져가서 '항고'에 밥해서 올려. (제물은) 자기만큼씩, 국은 안 하고. 또 새벽에 가지 새벽에. 새벽에 가면 처음 온 사람은 어두운 때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밝은 다음에. (제 지내기도) 자기만큼씩. 자기만큼씩. 술 가져간 사람은 가져서 가고 안 가져간 사람은 안 가져가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

백중에 쉐 질루는 사름 백중제허여. 우리 쉐 엇이난 뭐. 쉐 이신 사름만 허는 거. 산에 가근에. 보진 안허고 집이서 출령 가는 건 봣어. 그디 간 제허는 건 안 보고, 친정에서 출령 가는 건 뭐냐면 밥허고, 궤기 굽곡, 국허고 헹 아졍가, 세 개. 겡 그디 강 간 사름덜 먹엉 와. 나 가보진 안 헷어. (궤기는) 오톰생선. (상웨떡) 그런 거 안 헨게. 밥허는 거 잇주, 항고. 군인들 밥 헤 먹는 거. 항고, 이름이 항고. 그거 쌀 아졍, 쌀 그레 그 밥헐 그거보다 넘지 안헐 만이 쏠 놔근에 물은 그대로 하영 노민 뒈는 거. 물은. 그디 강 (밥헤). 우리 친정에선 집이서 헹 가는 거 봣어, 나. 물은 그디 가민 이시난 밥헹 그디 강 고기 궈. 쌀도 쌀로 아졍가난 고기도 날걸로 아졍가곡, 숟구락은 아졍가곡. 소 잘뒈라고, 백중제엔 허영 허여. 백중제옌. 백중이 십사 일날 허민 보름날 ᄃᆞᆼ경 허는 거주게, 십오 일날. 밤이 가민 허는디 새벡이, 새벡이 거난 그날이 백중. 테우리코시엔 헌 건 헴신디 말암신디 몰라, 난 안 들어봔. (당에서 무구 말리기) 건 그, 날 받앙 허지 안허영 아무 날이나 존 날은 허는 거주 무신, 존 날. 백중제가 뒈가민 (마불림제)

35) 오봉식 구술.
36) '항고'는 '반합(飯盒)'의 일본어로 직접 밥을 지을 수 있게 된, 알루미늄으로 만든 밥그릇이다. 주로 군인이나 등산객들이 쓴다.

겅 ᄀᆞᆯ을 수도 이실 테주마는 우린 그런 말은 안 ᄀᆞᆯ아보고.

백중에 소 기르는 사람 백중제 해. 우리 소 없으니까 뭐. 소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산에 가서. 보지는 않고 집에서 차려서 가는 건 봤어. 거기 가서 제하는 건 안 보고, 친정에서 차려서 가는 건 뭐냐면 밥허고, 고기 굽고, 국하고 해서 가져가, 세 개. 그래서 거기 가서 간 사람들 먹어서 와. 나 가보진 않았어. (고기는) 옥돔생선. (상화떡) 그런 거 안 하더라. 밥하는 거 있지, 반합. 군인들 밥해 먹는 거. 반합, 이름이 '항고'. 그거 쌀 가져서, 쌀 그리 그 밥할 그거보다 넘지 않을 만큼 쌀 넣어서 물은 그대로 많이 넣으면 되는 거. 물은. 거기 가서 (밥해). 우리 친정에선 집에서 해서 가는 거 봤어, 나. 물은 거기 가면 있으니까 밥해서 거기 가서 고기 구워. 쌀도 쌀로 가져가니까 고기도 날걸로 가져가고, 숟가락은 가져가고. 소 잘되라고, 백중제라고 해서 해. 백중제라고. 백중이 십사 일날 하면 보름날 당겨서 하는 거지, 십오 일날. 밤에 가면 하는데 새벽에, 새벽에 그러니까 그날이 백중. '테우리코시'라고 한 건 하는지 마는지 몰라, 난 안 들어봤어. (당에서 무구 말리기) 그건 그, 날 받아서 하지 않고 아무 날이나 좋은 날은 하는 거지 무슨, 좋은 날. 백중제가 되어가민 (마불림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지마는 우린 그런 말은 안 말해 보고.

3) 처서

그자 백중 처서 넘으면 검질이 막 좋다근에 저 멜 거 막 하다근에 백중 처서 넘으민 이것이 울멍 간다. 세 사름이 서이뚤, 세 사름이 사는디 너네 서이 살아근에 나 해바라기쿨이엔 헌 거 잇주게. 해바라기 나 우만 막앙 놔두라, 너네 검질메는 거 망헤우켄 ᄀᆞᆫ넨 헤영 어른덜 그 말 들언 나.

너네 서이뚤이 살아도, 검질 ᄒᆞ는 말이 서이뚤신디 나 우만 꺼껑 놔두라,

굽으로 메지 안허영. 우만 꺼껑 놔두민 너네 서이뚤은 망헤지켄. 검질이 큰다 이거라. 검질이 곧는 말. 게난 그 듣는 사람은 사람이고. 게난 잘 메렌 허는 거주, 잘 메렌, 잘 메렌. (서이뚤은) 뚤 두 개, 어멍에 뚤 두 개, 서이뚤. 나 우만 막앙 놔두라. 망헤우켜. 검질 못 메엉 망헌다. 게난 그게 이름이 해바라기. 날 우만 막앙 놔두라. 겐디 그게 그치룩 골아나난산 디 영 무시거 뽑앙 우막앙 놔두민 이만이 커, 그 풀이. 나 말쩨랑 헤다 주건 봐, 어떤 건지. 검질이주, 검질. 우만 짤르민, 안 쫄랑, 메 불민 죽어 부는디, 뿔리까지 메야 뒈는디 안 멘다 이거라. 게난 잘 못헴젠 헌 말이주.

(처서에는) 검질이 울멍 간다. 그꼬진 막 체서꼬지는 백중 체서꼬지는 금년은 윤덜 이서 부난에 저 체서가 문여 들 거라 아메도 백중보단. 겐디 윤덜 엇인 땐 체서가 말쩨주게, 언제나. 겐디 백중은 똑 정헤진 날이 이서. 겅 허난 겅 허는디 그게 정헤지는, 체서는 정헤진 날 엇어. (모기도) 그것이 맥덜을 못 춰, 체서 넘으면. 이지금은 막 모기도 힘이 이성 허고 허단에, 엇일 거라.

그저 백중 처서 넘으면 김이 아주 좋다가 저 맬 거 아주 많다가 백중 처서 넘으면 이것이 울면서 간다. 세 사람이 '서이뚤'[37], 세 사람이 사는데 너희 셋이 살아서 나 '해바라기쿨'이라고 한 거 있지. '해바라기' 나 위만 막아서 놔둬라, 너희 김매는 거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어른들 그 말 들었어, 나.

너희 '서이뚤'이 살아도, 김 하는 말이 '서이뚤'에게 나 위만 꺾어서 놓아 둬라, 밑둥으로 매지 않고. 위만 꺾어서 놓아두면 너희 '서이뚤'은 망하게 된다고. 김이 큰다 이거야. 김이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매라고 하는 거지, 잘 매라고, 잘 매라고. ('서이뚤'은) 딸 두 개, 어머니에 딸 두 개, '서이뚤'. 나 위만

37) '서이뚤'은 어머니와 딸 둘, 세 명을 한꺼번에 이르는 것이다.

막아서 놔둬라. 망하게 하겠다. 김 못 매서 망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해바라기'. 날 위만 잘라서 놔 둬라. 그런데 그게 그처럼 말해서인지 이렇게 무엇 봅아서 위 잘라서 놓아두면 이만큼 커, 그 풀이. 나 말째는 해다 주면 봐, 어떤 건지. 김이지, 김. 위만 자르면, 안 잘라서, 매어 버리면 죽어 버리는데, 뿌리까지 매야 되는데 안 맨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못한다고 한 말이지.

(처서에는) 김이 울면서 간다. 그까진 막 처서까지는 백중 처서까지는 금년은 윤달 있어 버리니까 저 처서가 먼저 들 거야 아무래도 백중보단. 그런데 윤달 없을 땐 처서가 말째지, 언제나. 그런데 백중은 꼭 정해진 날이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해지는, 처서는 정해진 날 없어. (모기도) 그것이 맥들을 못 춰, 처서 넘으면. 지금은 막 모기도 힘이 있어서 하고 하다가, 없을 거야.

4) 더위 깨기

(1) 물맞이

모욕허레도 가고, 공천포 바당에. 물 맞이레도 가고. 공천포는 그자 바당에 놀레 가는 거고, 자리훼 먹고, 자리훼 먹곡 놀레 가는 거고, 물 맞이레 가는 딘 돈내코 제라헌 물 맞는 디가 이서. 돈내코, 나는물도. 그디 일름이 나는물도. 막 크게 나주. 탕탕탕 털어지멍, 일로 올라가민. 난 나는물도로 뎅겨낫어.

ᄊᆞᆯ 아졍강 죽 썽 먹곡 추우니까, 막 오래 물 맞아불민 막 추워. ᄊᆞᆯ 아졍가근에 영 냄비 아졍가근에 죽 쒕 먹어. 낭 봉강 (불 ᄉᆞᆷ앙). 낭 많이 이서 내에, 내에난게. ᄊᆞᆯ만 아져가민 물은 그디 시난에게 ᄊᆞᆯ만 아지민 옛날에 짐치도 맛존 거 엇엉 기자 대강 장이나 ᄒᆞᄊᆞᆯ 아졍가곡 맛존 짐치가 엇어.

지금만이 맛 존 거 아니. 일만 일만 허멍 사난 쉬곡 놀곡 허레 간 거. 놀레 간 거. 아침, 아침 가근에 어둑어사 와. 밤ᄌᆞᆷ은 안 자고, 가차우니까. 집이 왕 자고. 영 천막 쳐근에 자는 사름도 이서, 겐디 난 안 자.

아기 안 ᄃᆞᆯ앙 가주. 무수와. 어디레 씨러지민 어떵헤. 시어머니 시난에 시어머니신디 멧겨 놓고 가. 동네 사름덜 ᄀᆞ찌 가는 거주. 할망도 안 ᄃᆞᆯ앙 가고. 씨러지민 이건 난리여. 물에 털어져도 죽을 거고. 아이덜 씨러지민 다치고.

목욕하러도 가고, 공천포 바다에. 물 맞으러도 가고. 공천포는 그저 바당에 놀러 가는 거고, 자리회 먹고, 자리회 먹고 놀러 가는 거고, 물 맞으러 가는 덴 돈네코 제대로 된 물 맞는 데가 있어. 돈내코, '나는물도'. 거기 이름이 '나는물도'. 아주 크게 나지. 탕탕탕 떨어지면서, 이리로 올라가면. 난 '나는물도'로 다녔었어.

쌀 가져가서 죽 쑤어서 먹고 추우니까, 아주 오래 물 맞아 버리면 아주 추워. 쌀 가져가서 이렇게 냄비 가져가서 죽 쑤어서 먹어. 나무 주워서 (불 때서). 나무 많이 있어 내에, 내니까. 쌀만 가져가면 물은 거기 있으니까 쌀만 가지면 옛날에 김치도 맛있는 거 없어서 그저 대강 장이나 조금 가져가고 맛좋은 김치가 없어. 지금만큼 맛있는 거 아니. 일만 일만 하면서 사니까 쉬고 놀고 하러 간 거. 놀러 간 거. 아침, 아침 가서 어두워야 와. 밤잠은 안 자고,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천막 쳐서 자는 사름도 있어, 그런데 난 안 자.

아기 안 데리고 가지. 무서워. 어디로 쓰러지면 어떡해. 시어머니 있으니까 시어머니에게 맡겨 놓고 가. 동네 사람들 같이 가는 거지. 할머니도 안 데려 가고. 쓰러지면 이건 난리야. 물에 떨어져도 죽을 거고. 아이들 쓰러지면 다치고.

(2) 모래찜

모래찜 허주, 공천포 강. 저, 밀 알지? 밀 헤근에 ᄀᆞ레 이렇게 ᄀᆞᆯ아. 빵떡 헤근에 그거 가졍 강 먹고. 기자 빵, 빵헷주. 밀빵. 상웨떡, 상웨떡. 동글락허게 허구정 허민 동글락허게, ᄉᆞ랑허게 허구정 허민 ᄉᆞ랑허게.

공천포, 일허다근에 그 쉬레 가는 거라. 아픈 디 낫넹 허는 말은 낫넹 허는디 우리 두린 때난 거 그자 허는 거엔 강 허는 거. 이디 모래 이디 막 더끄곡 이디ᄁᆞ지 더끄곡 요거만 바레지곡 막 더퍼줘근에. 바당물에 휘고, 바당물에 휘주게. 나 해녀라낫어. 바당물에 휘고. 하효 모래찜질 헷젠 말은 엇어. 쇠소깍에 모래 이서. 겐디 그디 모래찜질 허는 거 안 봣어. 공천포, 공천포. 멀어도 그디 가. 그디만 가. 물이 좋아, 물이, 나는 물이. 나는 물이 완전 공천폰 알아주는 디. 게난 그디 물나는밧도 이서. 공천폰 요거 부락이면 부락 신작로 넘엉 한라산 쪽으로 큰 물. 그추룩 물이 이서. 물이. (조개물) 그보단 더 크게 나는 물인디 이젠 어떵사 헌디 메완에 공장 짓어 빗어, 공장. 그디ᄀᆞ라 물나는밧이엔 허는가?

(모살뜸허거나 물 맞이민) 존넨, 존넨. 지금도 경헌디 난 그땐 아프지 안 헌 때난 좋은디 궂은디 무조건 돌아뎅기곡 물에 강 히곡, 이거 더프곡 장난, 이거 더프곡 요디만 영헹 우산 써근에 영 누민 우락우락허주게. 막 모살 이레 막 더꺼 노민. 게민 막 너무 더우민 일어낭 바당물에 겨들곡 바당물에 들엇당 바끗디 나오고 그거 재미로 허는 거, 재미로.

모래찜 하지, 공천포 가서. 저, 밀 알지? 밀 해서 맷돌 이렇게 갈아. 빵떡 해서 그거 가져가서 먹고. 그저 빵, 빵 했지. 밀빵. '상웨떡', '상웨떡'. 동그랗게 하고 싶으면 동그랗게, 기름하게 하고 싶으면 기름하게.

공천포, 일하다가 그 쉬러 가는 거야. 아픈 데 낫는다고 하는 말은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 때니까 거 그저 하는 거라고 가서 하는 거. 여기 모래 여기 막 덮고 여기까지

덮고 요거만 보이고 막 덮어줘서. 바닷물에 헤엄치고, 바닷물에 헤엄치지. 나 해녀였었어. 바닷물에 헤엄치고. 하효 모래찜질 했다는 말은 없어. '쇠소깍'에 모래 있어. 그런데 거기 모래찜질 하는 거 안 봤어. 공천포, 공천포. 멀어도 거기 가. 거기만 가. 물이 좋아, 물이, 나는 물이. 나는 물이 완전 공천폰 알아주는 데. 그러니까 거기 '물나는밧'도 있어. 공천폰 요거 부락이면 부락 신작로 넘어서 한라산 쪽으로 큰 물. 그처럼 물이 이서. 물이. (조개물) 그보단 더 크게 나는 물인데 이젠 어떻게야 했는지 메워서 공장 지어 버렸어, 공장. 거기보고 '물나는밧'이라고 하는가?

(모래찜하거나 물 맞으면) 좋다고, 좋다고. 지금도 그런데 난 그땐 아프지 안 한 때니까 좋은지 궂은지 무조건 돌아다니고 물에 가서 헤엄치고, 이거 덮고 장난, 이거 덮고 요기만 이렇게 해서 우산 써서 이렇게 누우면 우럭우럭하지. 막 모래 이리 막 덮어 놓으면. 그러면 막 너무 더우면 일어나서 바닷물에 기어들고 바닷물에 들었다가 바깥에 나오고 그거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5) 자리젓 담기

(자리) 그땐 막 풀레 와신디 이젠 저 볼목리가 막 그거 뭐로 뒈근에 볼목리 사레 가야 뒈어. 옛날엔 사레 가주게. 조레기 요만인 헌 구덕, 요만인 헌 거 아졍강 배레 혹 데끼민 얼마 살 거 그레 거려노민 거 상 와. 겡 그거 메엉 오멍 ᄒᆞ나썩 먹고, 자리 먹어. 집이 왕 보깡도 먹고, 소금 헷당 구웡 먹고 겅헷어.

옛날은 자리젓 잘뒌게 중간으로부떠 자리가 잘 안 뒈어. 자리젓은 잘뒈민 맛좋고 안 뒈민 판이여. 판이라. 옛날은 그 소금 놔근에 ᄉᆞ대 일 놩 허민 뒌덴 허는디 원 안 뒌게. (자리영 소금이영) ᄉᆞ 대 일 헌덴. 경헹 딱 더꺼근에 삼수세기엔 헌 풀이 이서. 풀, 무신 풀이녠 허민. 짝짝 저레ᄁᆞ지 벋어, 그것

이. 이것이 자리젓 헌 거민 그 풀 헤당 영 더끄민 ᄑᆞ리가 못 와. 탁탁 부떠 그 풀르레. 거 이름이 삼수세기. 삼수세기 게난 거 탁탁 부떵 못허난 그거 헹 우이 더껑 내불민 두께 착 봉헤 불민 ᄑᆞ리 안 일어근에 자리젓에 베렝이가 안 일주게. 거 안 더끄민 베렝이 일어. (삼수세기는) 손바닥추룩 이추룩 여라 개가 아니고 세 개. 겐디 그것이 가시 이성 이런 디라도 부찌민 착착 부떠. 게난 ᄑᆞ리가 뎅기민 부떠비어 못 가. 그디 더끄는 거, 그거 더끄면은 ᄑᆞ리 일 염려가 하나도 엇어. 경 헹 헤낫어. 경 헌디 늙어가난 것도이 안 뒈라.

겐디 자리를 헤근에 그릇에 놔근에 소금을 허는디 소금헤근에 그 자리 배를 깍깍 접아야 뒈어. 안 접으민이 그디 소금 안 들어근에 ᄉᆞᆯ진 때 소금 안 들어근에 자리젓이 잘 안 뒈주게. 게난 그걸 영 손으로 젭아야 뒈어. (내장) 나오라고. 소금 들라고. 경 허는 거. 자리 젭아. 소금 헹 놧다근에, 소금 헹 놧당, 그 이제 소금 녹으민 물 뒈잖아이. 물 뒈민 영영 헤우멍 ᄆᆞᆫ딱 그릇에 오래 놔둘 그릇에 놔근에 그 자리 국물 물은 영 놧당 ᄯᆞᆯ라근에 우이 건 허고 아랜 비늘이영 막 궂인 거 잇주게, 게난 건 버려야. 경 헹 만드는 거.

(자리돔) 그땐 막 팔러 왔는데 이젠 저 보목리가 막 그거 뭐로 되어서 보목리 사러 가야 돼. 옛날엔 사러 가지. '조레기' 요만큼한 구덕, 요만큼한 거 가지고가서 배로 혹 던지면 얼마 살 거 그리 떠 놓으면 거 사서 와. 그래서 그거 매어 오면서 하나씩 먹고, 자리돔 먹어. 집에 와서 볶아서도 먹고, 소금 했다가 구워서 먹고 그랬어.

옛날은 자리젓 잘됐는데 중간으로부터 자리가 잘 안 돼. 자리젓은 잘되면 맛있고 안 되면 판이야, 판이라. 옛날은 그 소금 넣어서 사대 일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원 안 되더라. (자리돔이랑 소금이랑) 사 대 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딱 덮어서 환삼덩굴

이라고 한 풀이 있어. 풀, 무슨 풀이냐고 하면. 짝짝 저리까지 뻗어, 그것이. 이것이 자리젓 한 거면 그 풀 해다가 이렇게 덮으면 파리가 못 와. 탁탁 붙어 그 풀에. 거 이름이 '삼수세기'. 환삼덩굴 그러니까 그거 탁탁 붙어서 못하니까 그거 해서 위에 덮어서 내버리면 뚜껑 착 봉해 버리면 파리 안 일어서 자리젓에 벌레가 안 일지. 그거 안 덮으면 벌레 일어. (환삼덩굴은) 손바닥처럼 이처럼 여러 개가 아니고 세 개. 그런데 그것이 가시 있어서 이런 데라도 붙이면 착착 붙어. 그러니까 파리가 다니면 붙어버려 못 가. 거기 덮는 거, 그거 덮으면은 파리 일 염려가 하나도 없어. 그렇개 해서 했었어. 그런데 늙어가니까 것도 안 되더라.

그런데 자리를 해서 그릇에 놔서 소금을 하는데 소금해서 그 자리돔 배를 깍깍 집어야 돼. 안 집으면 거기 소금 안 들어서 살찐 때 소금 안 들어서 자리젓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손으로 집어야 돼. (내장) 나오라고. 소금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 자리 집어. 소금 해서 놨다가, 소금 해서 놨다가, 그 이제 소금 녹으면 물 되잖아. 물 되면 이렇게 이렇게 헹구면서 모두 그릇에 오래 놓아 둘 그릇에 놔서 그 자리돔 국물 물은 이렇게 놨다가 따라서 위의 건 하고 아랜 비늘이랑 아주 궂은 거 있지,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6) 생업

(1) 김매기

• 조컴질

(조컴질은) 커사, ᄒᆞᆯ 커사. 칠월에 해살 거라. 벌레기엔 헤근에 그 ᄒᆞ나썩 나온 것도 벌레기 침이엔 헤근에 허곡 그다음 조컴질 메곡. (벌레기는) 이영 처음 허민 묵은 검질 ᄒᆞ나씩 잇주게. 묵은 검질 그것ᄀᆞ라 벌레기. 조컴질로

아주 처음 메지 말앙 벌레기 둘를 때가 잇어. 벌레기 ᄆᆞᆫ여, 벌레기가 조컴질보단 ᄆᆞᆫ여. 벌레기 둘름이엔 ᄀᆞᆯ아. 조팟디 검질, 옛날 검질덜, 그거.

초불, 두불, 세불, (조컴질은) 세 번. 세 번 안 허민 안 뒈어. 첫 번은 씨 솎암젠 헤근에 허곡 두 번차는 또시 또 그 씰 잘 세움이엔 헹 두 번차 메곡 세 번 메사 고고리가 영 오그라지게 커. 세 번째는 마지막이난 잘허민 이 조고고리가 영 허지 아녀, 조고고리가 그추룩 헤야.

(보리밧딘) 대우리, (조와 ᄀᆞ랑조) 고고리가 완전 틀려. 조팟딘 워낙 검질을 잘 메노니까 서불, 세불 메고, 잘 메노니까 겅, 세밀허게 엇어. 잘 메난, 세불 메어 건. ᄀᆞ랑조. (조와 구분) 검질 자꾸 메는 사름은 알긴 알아. 겐디 이추룩 아가씨 ᄃᆞᆯ앙가민 아나? 몰르지. 그거 메살 거여 허민 이거 멥니까 허곡 허주게, 몰라. 자꾸 허는 사름은 ᄀᆞ랑존지 존지 아는디 그 ᄀᆞ랑존 메살 거여 허민 어느 것이 ᄀᆞ랑조꽈, 몰라, 몰랑 못허는 거. 말젱 헹 안허는 건 아니.

(조 김은) 커야, 조금 커야. 칠월에 해야 할 거라. '벌레기'라고 해서 그 하나씩 나온 것도 '벌레기' 치기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 조 김매고. (벌레기는) 이렇게 처음 하면 묵은 김 하나씩 있지. 묵은 김 그것보고 '벌레기'. 조 김으로 아주 처음 매지 말고 '벌레기' 두를 때가 있어. '벌레기' 먼저, '벌레기'가 조 김보단 먼저. '벌레기' 두르기라고 말해. 조밭에 김, 옛날 김들, 그거.

초불, 두불, 세불, (조 김은) 세 번. 세 번 안 하면 안 돼. 첫 번은 씨 솎는다고 해서 하고 두 번째는 또, 또 그 씨를 잘 세운다고 해서 두 번째 매고 세 번 매야 이삭이 이렇게 오그라지게 커.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까 잘하면 이 조 이삭이 이렇게 하지 않아. 조 이삭이 그처럼 해야.

(보리밭엔) 귀리, (조와 가라지) 이삭이 완전 달라. 조밭엔 워낙 김을 잘 매 놓으니까

세벌, 세벌 매고, 잘 매 놓으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없어. 잘 매니까, 세벌 매 건. 가라지. (조와 구분) 김 자꾸 매는 사람은 알긴 알아. 그런데 이처럼 아가씨 데리고 가면 아니? 모르지. 그거 매야할 거야 하면 이거 맵니까 하고 하지, 몰라. 자꾸 하는 사람은 가라지인지 조인지 아는데 그 가라지는 매야 할 거야 하면 어느 것이 가라지입니까, 몰라, 몰라서 못하는 거. 말려고 해서 안하는 건 아니.

□ 8월

1) 벌초

(1) 가지벌초

새벡이 가는 사름 잇고 뭐 낮이 가는 사름 잇곡. 이 하르방 군인 가부난 나 혼자 헷잖아, 벌초를, 나 혼자. 군인 가 부니까. 아덜은 쩨끌락, 안 난 때. 똘 ᄒᆞ나, 똘이 ᄆᆞᆫ여 난, 똘 ᄒᆞ나 난에 할망 잇주게, 씨어멍. 씨어멍을 애기 ᄃᆞᆯ아줍센 멧겨동, 나만 간다니까 나 혼자. (삼춘 제대헹 오난) 그다음 ᄀᆞ찌 가살 거 아냐. 아덜 두령 헐 나위가 엇주게. 군인 강 온 후제 애기 난 거난 거 두령 허지 못허주게. 거난 손지가 손지 대 나난 손지가 간 ᄒᆞ는 말이, 막 팔월에 가민 덥곡 허난 할머니 허난 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 나가 만든 거 아니여. 느네 집이서 다 만들아 논 거주, 나 만든 거 아니여 허난, 이녁 막 못 젼디난이 무사 이추룩 만들안딘, 어디 저 공동미나 만들주 이런 걸 무사 만들안딘, 나 만든 거 아니여 난 절대 이디 완 만들지도 아녀고. 이건 막 고급이여, 느 생각헤 보라. 아빠 군인 가불곡, 하르방 군인

가불곡 허민 나 혼자, 혼자 그것 강 이거 비곡 치우곡 거 다 그축 헷어. 어이구 나. 것도 ᄒᆞ나 두 개민 허주마는 열네 자리씩 혼자, 나가 다 혼자.

새벽에 가는 사람 있고 뭐 낮에 가는 사람 있고. 이 할아버지 군인 가 버리니까 나 혼자 했잖아, 벌초를, 나 혼자. 군인 가 버리니까. 아들은 쪼그만, 안 낳았을 때. 딸 하나, 딸이 먼저 낳았어, 딸 하나 낳아서 할머니 있지,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아기 돌봐 달라고 맡겨두고, 나만 간다니까 나 혼자. (삼촌 제대해서 오니까) 그다음 같이 가야할 거 아니냐. 아들 어려서 할 나위가 없지. 군인 가서 온 후에 아기 낳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 어려서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손자가 손자 대 나니까 손자가 가서 하는 말이, 막 팔월에 가면 덥고 하니까 할머니 하니까 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너희 집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니까, 자기 아주 못 견디니까 왜 이처럼 만들었냐고, 어디 저 공동묘지나 만들지 이런 걸 왜 만들었냐고,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난 절대 여기 와서도 만들지도 않고. 이건 아주 고급이야, 너 생각해 봐라. 아빠 군인 가 버리고, 할아버지 군인 가 버리고 하면 나 혼자, 혼자 그것 가서 이거 베고 치우고 거 다 그처럼 했어. 어이구 나. 그것도 하나 두 개면 하지마는 열네 기씩 혼자, 내가 다 혼자.

(2) 모둠벌초

모둠벌초 허주게. 그거 모둠벌촌 따로 가주게. 가지벌초가 열네 자리여. 모둠벌초 강 하르방 엇으난 나가 대신 가 또. 난 젊은 때 막 일을 잘허주게. 그런 비는 것도 막 잘허고, 이 하르방 엇인 디서 ᄀᆞᆯ으민 거짓말이엔 허주, 거짓말은 아니 절대, 나가 잘헤. 비는 것도 나가 훨씬 하르방보다 잘 헤나고.

밥 얻어 먹곡. 이 종손네 집이 가민게 상웨떡 헹 주고. 상웨떡 헨에 거

요만씩, 요만이 멘들아근에. 크게 만들앙 ᄒᆞ나씩 주고. 그거 얻어먹젠 가주, 어떵. 얻어먹지 안헤도 가살 거난 종손네. 겐디 아이가 가켄 헤도 우리 ○호, 가켄 헤도 하르방이 안 ᄃᆞᆯ앙 갓어. 게난 아부지 지금 안 ᄃᆞᆯ앙 가난 난 후제도 안 간다고 벌초허레, 왜 지금 가고정헐 때 ᄒᆞᆫ 번도 안 ᄃᆞᆯ앙 가는디 나 후제 역아근에 일헐 땐 안 가켄 겅 헤낫어.

모둠벌초 하지. 그거 모둠벌촌 따로 가지. '가지벌초'가 열네 기야. 모둠벌초 가서 할아버지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가 또. 난 젊을 때 막 일을 잘했지. 그런 베는 것도 아주 잘하고, 이 할아버지 없는 데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거짓말은 아니 절대, 내가 잘해. 베는 것도 내가 훨씬 할아버지보다 잘 했었고.

밥 얻어 먹고. 이 종손네 집에 가면 상화떡 해서 주고. 상화떡 해서 거 요만큼씩, 요만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하나씩 주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가지, 어떻게. 얻어먹지 않아도 가야 할 거니까 종손네. 그런데 아이가 가겠다고 해도 우리 ○호, 가겠다고 해도 할아버지 안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안 데리고 간 후에도 안 간다고 벌초하러, 왜 지금 가고싶을 때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는데 나 후에 커서 일할 땐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었어.

이딘 우리, 우리가 지금 세 번채 종손이난 우리 아덜이, 큰아덜이 세 번째 종손, 종손 뭘 허주게. 게난 이번 열ᄋᆞ답 자리. 열ᄋᆞ답 자릴 거라. 열ᄋᆞ답 자릴 ᄆᆞᆫ딱 공동미 만들앗어. 돈 줘에 종손칩이서 돈은 당허고 저 그 종손칩이가 돈이 많주게. 이 저 자전, 자전이 많으니까 이 두에도 지금 밧, 종손칩 밧이 이서. 겐디 돈은 그디서 당헤신디 우리 큰아덜이 거 다 앞장선에 ᄆᆞᆫ딱 천리헷어. 거 만들안. 게난 우리 아덜이 세 번차 종손이주. 이 하르방은 잘 몰르는디 우리 아덜이 걸 막 잘 알아. 철저헤여.

겐디 어떵 제와시닌 허민 팔월 일일날 허난에 안 가는 사름 이선에게, 게난 팔월이민 무주건 공일날, 무주건 공일날 허민 안 오는 사름 엇다 헨에 무주건 공일날 헤. 경허단에 올리 다 천리헷어.

여긴 우리,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종손이니까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세 번째 종손, 종손 뭘 하지. 그러니까 이번 열여덟 기. 열여덟 기일 거야. 열여덟 기를 모두 공동묘지 만들었어. 돈 줘서 종손집에서 돈은 당하고 저 그 종손집이 돈이 많지. 이 저 제전, 제전이 많으니까 이 뒤에도 지금 밭, 종손 집 밭이 있어. 그런데 돈은 거기서 당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거 다 앞장서서 모두 이장했어. 그거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세 번째 종손이지. 이 할아버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걸 아주 잘 알아. 철저해.

그런데 어떻게 정했냐고 하면 팔월 일일 하니까 안 가는 사람 있어서, 그러니까 팔월이면 무조건 공일날, 무조건 공일날 하면 안 오는 사름 없다 해서 무조건 공일날 해. 그렇게 하다가 올해 다 이장했어.

초ᄒᆞ룻날, 벌초. 초ᄒᆞ를날 뒈민 벌초 헤사주게. 겐디 지금은 공일날 아무 때라도, 아무 때라도. 옛날에 엇이난 기자 호미 아져강 비어신디 지금은 떡도 허고 과일허곡 술 아졍가근에 이런 공동미허민 이런 저 젯상을 만들주, 큰 돌 헤근에. 그거 허여근에 그레 올려근에 절허곡 헤사 허는 거 지금은. 우리도 겅 허여 지금은. 겅 안 헐 때 이거만썩 이거만썩 저 어디, 이디 강 묻억 저레 강 묻억 헤부난 그거 ᄆᆞᆫ 따라다니멍 그거 안허영 그자 그대로 간 빔만 헷주게, 절은 허고, 그대로. 우리 제헐 때는 문제도 안 허곡 아무것도 안 헌덴 헷지. 거난 그 식이여 바로, 엇이난에 그추룩 살앗어.

초하룻날, 벌초. 초하룻날 되면 벌초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공일날 아무 때라도,

아무 때라도. 옛날에 없으니까 그저 낫 가져가서 베었는데 지금은 떡도 하고 과일하고 술 가져가서 이런 공동묘지하면 이런 저 제상을 만들지, 큰 돌 해서. 그거 해서 그리 올려서 절하고 해야 하는 거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해 지금은. 그렇게 안 할 때 이거만큼씩 이거만큼씩 저 어디, 여기 가서 묻고 저리 가서 묻고 해버리니까 그거 모두 따라다니면서 그거 안 해서 그저 그대로 가서 베기만 했지, 절은 하고, 그대로. 우리 제할 때는 문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식이야 바로, 없으니까 그처럼 살았어.

2) 팔월 멩질

(1) 멩질 준비

• 생선 보관

(바닷고기) 사다 놓주게, 사다 놔. 보관허젱 허민 그, 이지금사 막 보관허기 쉽주게, 냉장고 시난에. 그때는 ᄉᆞᄆᆞᆺ 거자 멩질 부떠야 사 와. 보관허지 못헤영. 고사리도 헹 놔두민 좀 일곡. 지금은 좋주마는 옛날은 경 헷어. (보리항에 생선을 넣어두는 것) 경헤도 뒌덴 헤도 난 헤보지 안헷어. 걸엉 놔두민 먹을 나위 엇어, ᄆᆞᆯ라, 바싹 ᄆᆞᆯ라. 먹을 나위 엇이.

(바닷고기) 사다 놓지, 사다 놔. 보관하려고 하면 그, 지금이야 막 보관하기 쉽지, 냉장고 있으니까. 그때는 사뭇 거의 명질 붙어야 사 와. 보관하지 못해서. 고사리도 해서 놔두면 좀 일고. 지금은 좋지마는 옛날은 그렇게 했어. (보리항아리에 생선을 넣어두는 것) 그래도 된다고 해도 난 해보지 않았어. 걸어서 놔두면 먹을 나위 없어, 말라, 바싹 말라. 먹을 나위 없이.

• 옷 준비

(팔월 멩질에는) 모시두루막, 모시두루막 허주. 모시, ᄒᆞᆫ 번 허민 죽도록 입주게. 풀허곡게. 아덜 거나 안 헤지민 좋아, 아덜 것도 ᄆᆞᆫ 허주. 게난 하르방 거허곡 아덜 거 허곡 경 헌다. 장게간 후제 헤 줘사주게, 장게간 후제. 메누리가 헐 충을 잘 알민 허는디 지냥으로 못헹 어디 강 헤왐서. 헤오는 거 알아도 나 아이고 너무 실퍼.

이제 게난 하르방이 나이가 한에 들어가 부난 족은아덜 ᄒᆞ나만 허민 뒈어. 세 갤 헤야잖아. 세 개 허젠 허민 정벵이 적삼, 그 두루막허곡 허민 ᄒᆞᆫ 구덕 허잖아. 그걸 ᄆᆞᆫ 풀허곡 다리곡 ᄯᆞᆷ은 잘잘허곡 아이고.

(팔월 명질에는) 모시두루마기, 모시두루마기 하지. 모시, 한 번 하면 죽도록 입지. 풀하고. 아들 거나 안 하면 좋아, 아들 것도 모두 하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하고 아들 거 하고 그렇게 한다. 장가간 후에 해 줘야지, 장가간 후에. 며느리가 할 줄을 잘 알면 하는데 자기대로 못해서 어디 가서 해오고 있어. 해오는 거 알아도 나 아이고 너무 하기 싫어.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들어가 버리니까 작은아들 하나만 하면 돼. 세 갤 해야 하잖아. 세 개 하려고 하면 잠방이 적삼, 그 두루마기 하고 하면 한 바구니 하잖아. 그걸 모두 풀하고 다리고 땀은 잘잘하고 아이고.

• 풀 먹이기

밀풀. 무주건 ᄉᆞᆲ은 건 뒈는 거. 아무거라도 ᄉᆞᆲ은 건 뒈어. 생걸로 헷당은 좀 먹어. 무주근이 아무것도 ᄉᆞᆲ아사 뒈어. ᄉᆞᆲ앙 헌 거는 좀 안 먹엉, 영 어디 강 뭐 살 때 분시 몰랑 허민 이것이 천 아니? 옷이민 영영 털민 생풀 헌 건 털어진다게. ᄀᆞ루가 털어져. 영영 허민 털어져. 겐디 ᄉᆞᆲ은 풀은 안

털어져. 게난 영 헤영 안 털어지는 거는 안 썩어. 좀도 안 일고. 영 헹이디 영 털어지는 건 좀 먹어. 그게 문제야 젤. 좀 먹곡 잘 안헹 놔두민 안 뒈어. 잘허곡 ᄇᆞᆯ르곡 또 걸 멧 번 손 봐근에 헤사 다림을 싹 잘 다려지주게. 발로 ᄇᆞᆯ라. 영 헤영 영 헹 딱 개 놔근에 발로 ᄌᆞ근ᄌᆞ근 ᄇᆞᆯ라. 이걸 또 영 풀엉 탁탁 털어.

밀풀. 무조건 삶은 건 되는 거. 아무거라도 삶은 건 돼. 생걸로 했다가는 좀 먹어. 무조건 아무것도 삶아야 돼. 삶아서 한 거는 좀 안 먹어서,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살 때 분수 몰라서 하면 이것이 천 아니? 옷이면 이렇게 이렇게 털면 생풀 한 건 떨어진다. 가루가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떨어져. 그런데 삶은 풀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는 거 거는 안 썩어. 좀도 안 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먹어. 그게 문제야 젤. 좀 먹고 잘 안해서 놔두면 안 돼. 잘하고 밟고 또 그걸 몇 번 손 봐서 해야 다림을 싹 잘 다려지지. 발로 밟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개어 놔서 발로 자근자근 밟아. 이걸 또 이렇게 풀어서 탁탁 털어.

• 다림질하기

탁탁 털어근에 또 이젠 영 아니 개난 딜로 아니 개난 딜로 이렇게 개근에 이디 뭐 더꺼근에 크게 더껑 막 ᄇᆞᆯ라. ᄇᆞᆯ르민 그게 잘 풀어지민 영 봉안 풀어진 건 손으로 영 잘 헤근에 헹 놔두민 다리기가 쉽주게. 게 아멩이나 허민 막 다리기 궂어, 잘 안 다려지곡. 널엇당 들여근에. 하영 ᄆᆞᆯ르기 전에 두 번 헤사 젖인 때 허곡 또 거자 ᄆᆞᆯ랑 허곡 헹 두 번. 겐디 풀허멍사라 오래 놔두지 안헹 다리면 잘 다려지고 오래 놔두민 가시글락헹 잘 안 다려져. 그거 모시라부난 가시글락허주게. 경 허고 중간에 중국 모시 낫젠 헤근에 거 싼 거난 그거 사민 그거를 물 빠근에 희게 빠사주, 중국 모시 막

더룬 걸 희게 빠근에 걸로 만들아근에 옷 헨 입졋주.

탁탁 털어서 또 이젠 이렇게 아니 개었던 데로 아니 개었던 데로 이렇게 개어서 여기 뭐 덮어서 크게 덮어서 막 밟아. 밟으면 그게 잘 풀리면 이렇게 봐서 안 풀린 건 손으로 이렇게 잘 해서 해서 놔두면 다리기가 쉽지. 그러게 아무렇게나 하면 막 다리기 궂어, 잘 안 다려지고. 널었다가 들여서. 많이 마르기 전에 두 번 해야 젖은 때 하고 또 거의 말라서 하고 해서 두 번. 그런데 풀하면서 바로 오래 놔두지 않고 다리면 잘 다려지고 오래 놔두면 '가시글락'해서 잘 안 다려져. 그거 모시라서 '가시글락'하지. 그리고 중간에 중국 모시 나왔다고 해서 거 싼 거니까 그거 사면 그거를 물 빼서 희게 빼야지, 중국 모시 막 더러운 걸 희게 빼서 걸로 만들어서 옷 해서 입혔지.

• **쪼끼**

정벵이영. 적삼, 정벵이, 쪼끼. 중의적삼 맞아. 옛날은, 이지금은 영 헹 영 짓 영 ᄃᆞᆯ민 쪼끼 안 입어도 뒛주, 지금은. 겐디 옛날은 똑 쪼낄 헷저게. 영 단추 메부난, 영 헨에 영 단추, 영 헨 단추 메부난에게 이걸 쭉허게 이지금, 이지금은 그추룩 헹 영 헹 ᄃᆞᆯ앙 이레 쫙 ᄃᆞᆯ아오민 쪼끼 안 헤도 뒈. 옛날은 쪼끼 헷어. 옛날이주 옛날, 우리가 클 때 쪼끼 항시 헷어. 겐디 이젠 안 헤도 뒈. 겐디 이젠 또 새 식으로 그 옷 안 헴서.

잠방이랑. 적삼, 잠방이, 조끼. 고의적삼 맞아. 옛날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깃 이렇게 달면 조끼 안 입어도 됐지, 지금은. 그런데 옛날은 꼭 조낄 했어. 이렇게 단추 매어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추, 이렇게 해서 단추 매어 버리니까 이걸 쭉하게 지금, 지금은 그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달아서 이리 쫙 달아 오면 조끼 안 해도 돼. 옛날은 조끼 했어. 옛날이지, 옛날, 우리가 클 때 조끼 항시 했어. 그런데 이젠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젠 또 새 식으로 그 옷 안 하고 있어.

• 남자 한복 혼수품

겨고 시집가민 그디서가 헤줘어, 또. 뚤 아진 집이서가. (제주)시 쪽으론 안 헤실 거라. 이디선 막 헷어. 모시로도 허곡 저 한산모시로도 허곡 한산모시 막 비싸잖아. 한산모시 그걸로도 허고, 안동페, 베, 안동베엔 헌 거 비싼 거 이서. 그것도 허고. 잘사는 집이 잔치허민 그런 거 헤 오고, 못사는 디 허민 그런 것도 안 허민, 것도 씨어멍이 헤사 뒈어. 친정어멍이 헤주는 건디. 두루막허곡 바지저고리허곡, 모시 두루막이영 이딘 다 헷어. 두 벌 헤사. 나도 뚤은 ᄑᆞ난 헤주고 메누린 ᄒᆞ나도 안 와서라. 사위 거 헤줘주게. (여름 거, 겨울 거) 두 불 헤줘주게. 경 헷어. 이디 뚤 풀민 헤줘어. 경 막 못살지만 안허민 헤줘어. 나가 헤 주주게, 어떵 헤 줘야주게. 게 모시 사다근에 천, 모시. 힘들어, 힘들어, 막 힘들어. ᄒᆞᆫ 이틀 헤야 뒈어. 시집가젠 허민 헤사주. 시집가젠 허민 시집갈 때 출령 가사주게.

그리고 시집가면 거기서 해줬어, 또. 딸 가진 집에서가. (제주)시 쪽으론 안 했을 거야. 여기선 막 했어. 모시로도 하고 저 한산모시로도 하고 한산모시 막 비싸잖아. 한산모시 그걸로도 하고, 안동베, 베, 안동베라고 한 거 비싼 거 있어. 그것도 하고. 잘사는 집에 잔치하면 그런 거 해 오고, 못사는 데 하면 그런 것도 안 하면, 것도 시어머니 해야 돼. 친정어머니 해주는 건데. 두루마기하고 바지저고리하고, 모시두루마기랑 여긴 다 했어. 두 벌 해야. 나도 딸은 파니까 해주고 며느린 하나도 안 왔더라. 사위 거 해줬지. (여름 거, 겨울 거) 두 벌 해줬지. 그렇게 했어. 여기 딸 팔면 해줬어. 그렇게 아주 못살지만 않으면 해줬어. 내가 해 주지, 어떻게 해 줘야지. 그러게 모시 사다가 천, 모시. 힘들어, 힘들어, 막 힘들어. 한 이틀 해야 돼. 시집가려고 하면 해야지. 시집가

려고 하면 시집갈 때 차려서 가야지.

(멩질 먹을 때도) 게난 그거로 헤여. 큰옷 싯고 그디서 새서방칩이서 자기가 큰옷은 헹 놔두고 멩질에 허는 옷 기자 영 소님 받곡 허는 옷은 헹 와. 지금은덜 안 헤도. 큰옷. 두루막 입고 그 우에 또 큰옷이 이서. 우이 저 쓰는 수건 저 두건이엔 안 골앙 유건. 두건은 영장헐 때 쓰는 거고 유건은 제헐 때 쓰는 거고. 거 놧당 멧 년이라도 허는 거. 풀도 허주게. 풀 헤, 풀 허지 안허민 그것이 영 쓰민 영 꺼꺼져. 게난 영허게 영 잘 헹 놔둬서 허여.

(애기덜) 옷도 헤야 뒈고. 옷도 그 돈 엇이민 문딱 자기가 멩지 차민 멩지로 허곡, 미녕 차민 미녕으로 허곡 겅 헤여. 멘들앙 입주게, 멘들앙. 잘 만들진 안 허여. 기자 어떵 어떵 만들앙 살아. 이추룩 영 만들앙 입고. 난 다 이런 거 헐 수 잇어.

(멩질 먹을 때도) 그러니까 그거로 해. 큰옷 있고 거기서 새신랑 집에서 자기가 큰옷은 해서 놔두고 명질에 하는 옷 그저 이렇게 손님 받고 하는 옷은 해서 와. 지금은 안 해도. 큰옷. 두루마기 입고 그 위에 또 큰옷이 있어. 위에 저 쓰는 수건 저 두건이라고 안 말하고 유건. 두건은 영장할 때 쓰는 거고 유건은 제할 때 쓰는 거고. 거 놨다가 몇 년이라도 하는 거. 풀도 하지. 풀 해, 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꺾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해서 놔둬서 해.

(아기들) 옷도 해야 되고. 옷도 그 돈 없으면 모두 자기가 명주 짜면 명주로 하고, 무명 짜면 무명으로 하고 그렇게 해. 만들어서 입지, 만들어서. 잘 만들진 않아. 그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살아.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난 다 이런 거 할 수 있어.

• **모시 창옷**

모시는 ᄒᆞᆫ 번 허면 죽을 때ᄁᆞ지 안 헤도 뒈주게이. ᄲᆞᆯ앙 풀허곡 허민 뒈곡 허는디 이놈의 중의, 바지저고리는 매해마다 헤야잖아. ᄲᆞᆯ앙 또 끼우곡, ᄲᆞᆯ앙 끼우곡. 두루막도 이지금은 세탁허민 뒈주게. 겐디 그땐 물에 ᄲᆞᆯ아근에 또 다려근에 또 두 개 부쪙. 두루막이엔 헌 건 두 개 부찌난 두루막이주게, 두 개난 두루막. 두 개 그거 안 부찌곡 거죽 부찌난 이름이 두루막. 게난 또시 여름 저, 팔월 멩질에 허는 건 창옷, ᄒᆞᆫ 착이난 ᄒᆞ나난, 안 안 놓주게. 안 안 노난 그거 말헐 땐 창옷. 두루막이엔 헌 건 두 개 부찌니까 두루막, 두 개니까 두루막. 팔월에는 ᄒᆞ나니까 창옷. ᄒᆞᆫ 착이엔 헹 창옷. 그추룩 말헌 거.

모시는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되지. 빨아서 풀하고 하면 되고 하는데 이놈의 중의, 바지저고리는 매해마다 해야 하잖아. 빨아서 또 끼우고, 빨아서 끼우고. 두루마기도 지금은 세탁하면 되지. 그런데 그땐 물에 빨아서 또 다려서 또 두 개 붙여서. 두루마기라고 한 건 두 개 붙이니까 두루마기지, 두 개난 두루마기. 두 개 그거 안 붙이고 거죽 붙이니까 이름이 두루마기. 그러니까 또 여름 저, 팔월 명질에 하는 건 창옷, 한 쪽이니까 하나니까, 안감을 안 놓지. 안감을 안 놓으니까 그거 말할 땐 창옷. 두루마기라고 한 건 두 개 붙이니까 두루마기, 두 개니까 두루마기. 팔월에는 하나니까 창옷. 한 쪽이라고 해서 창옷. 그처럼 말한 거.

• **후루메**

(후루메는) 아저씨 거주게이 후루메엔이, 아저씨 건디 후루메엔 헌 건 그 입엉 어디 가곡 허는 거 잇는디. 두루막이 그것이 그거라. 그것이라, 두루막이 후루메라. 두 겹, 것도 두 겹. 안 논 건 두루막, 후루메. 안 안

논 건 창옷. 창이엔 헌 건 ᄒᆞᆫ 착이난에 창옷.

(후루메는) 아저씨 거지 '후루메'라고, 아저씨 건데 후루메라고 한 건 그 입어서 어디 가고 하는 거 있는데. 두루마기 그것이 그거야. 그것이야, 두루마기가 '후루메'야. 두 겹, 것도 두 겹. 안 놓은 건 두루마기, '후루메'. 안 안 놓은 건 창옷. 창이라고 한 건 한 쪽이니까 창옷.

• 정벵이 적삼

정벵이 적삼. 바지저고리는 두루막에 부뜬 게 바지저고리. 그 창옷에 입는 건 정벵이 적삼. 경 ᄀᆞᆫ는 거. 시엔 중의적삼이엔 헴실 거라, 이딘 또 정벵이 적삼이엔 헤. 정벵이 적삼. (정벵이) ᄒᆞᆫ 겹이난. 바지엔 헌 건 두 개난. (모양은) 똑ᄀᆞ뜨곡. 겐디 정벵이 만듬보단 두 개 영 부찌는, 부찌는 따문에 부쪄사. 우리 저고리 부쪙 허는 거 식으로. 아이고 처음은 것도 못허민 막 궂나. 헤져사 그거 허영 ᄉᆞ나이도 입지곡 나 씨아방 엇인 디 가난헌 디, 씨아방 신 디 가민 씨아방 옷ᄁᆞ지 허렌 허여. 막 힘들어. 씨집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때사 손으로 헤사느녜. 광목 사다근에 흰 걸로 헤근에 아이고. 나 원 나만 경 헌 게 아니고 놈도 경 허멍 살아시녜, 어떵 허느니, 거 헤사주.

잠방이 적삼. 바지저고리는 두루마기에 붙은 게 바지저고리. 그 창옷에 입는 건 잠방이 적삼. 그렇게 말하는 거. 시엔 고의적삼이라고 하고 있을 거야, 여긴 또 잠방이 적삼이라고 해. 잠방이 적삼. (잠방이) 한 겹이니까. 바지라고 한 건 두 개니까. (모양은) 똑같고. 그런데 잠방이 만들기보다 두 개 이렇게 붙이는, 붙이는 때문에 붙여야. 우리 저고리 붙여서 하는 거 식으로. 아이고 처음은 것도 못하면 아주 나빠. 할 수 있어야

그거 해서 남자애도 입히고 나 시아버지 없는 데 가난한 데, 시아버지 있는 데 가면 시아버지 옷까지 하라고 해. 아주 힘들어. 시집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때야 손으로 해야 하잖아. 광목 사다가 흰 걸로 해서 아이고. 나 원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남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아, 어떻게 하니, 그거 해야지.

(2) 차례상

• 멩질 음식

(팔월 멩질) 쏠허곡게 옛날은 쏠 엇이난에 곤쏠 먹엉 살지 안헹 보리쏠 먹엉 살곡 좁쏠 먹엉 살곡 곤쏠은 헷당 그런 멩질 때나 먹는 거라. 그축허고 고기, 고기허곡게 소고기 그땐 못사니까 소고기 못허여근에 뒈지고기만 허민 뒛어, 뒈지고기만. 살아져 가난 소고기허고 적도 두 가지 허고, 옥돔 생선국허민 세 가지 뒈는 거. 고사린 언제나 허곡 엇으나 시나 고사리 허곡 세 손 납짝 고사리채 두 손 납짝 콩ᄂᆞ물채 경 허는 거. 고사리허고 콩나물허고 묵메물허고 세 개, 세 개만 허민 뒈난.

(팔월 명질) 쌀하고 옛날은 쌀 없으니까 흰쌀 먹어서 살지 않고 보리쌀 먹고 살고 좁쌀 먹고 살고 흰쌀은 했다가 그런 명질 때나 먹는 거야. 그처럼 하고 고기, 고기하고 소고기 그땐 못사니까 소고기 못해서 돼지고기만 하면 됐어, 돼지고기만. 살 만해 가니까 소고기하고 적도 두 가지 하고, 옥돔 생선국하면 세 가지 되는 거. 고사린 언제나 하고 없으나 있으나 고사리 하고 세 손 납작 고사리채 두 손 납작 콩나물채 그렇게 하는 거. 고사리하고 콩나물하고 묵 '메물'하고 세 개, 세 개만 하면 되니까.

• 멩질떡

(정월 멩질이영) 똑ᄀᆞ타. 똑ᄀᆞ뜬 떡 ᄀᆞᆺ사 그 절벤, 그거 솔벤, 절벤 허고 침떡은 똑 아래 노난에. (침떡은) 밧. 인절미도 그 땅. 침떡은 영 수랑헌 거 이만이 헌 거. 수랑헌 거. 땅, 인절민 밧. 절벤은 해, 솔벤은 ᄃᆞᆯ. 우찍은 젤 우이 거 무시거니게. 벨, 그걸로, 그거라. 땅으로부떠 그 이유가 다 이서. 거난 죽으민 세깍신 신고게. 요디 이디 ᄌᆞ근ᄌᆞ근 안헹 ᄒᆞ나, 두 개, 세 개, ᄒᆞ나, 두 개, 세 개, ᄋᆞᄉᆞᆺ 개라도 세깍신이엔 허여, 세깍신. 인절민, 인절민 똑 이건디 이추룩 네귀방장, 네귀방장허게 헤영 네귀방장허민 밧, 이거 밧파니라, 밧. 그다음은 동글랑헌 절벤은 해. 그다음은 이거 영, 영허민 ᄃᆞᆯ 반착 아냐? ᄃᆞᆯ 반착. ᄃᆞᆯ 반착이민 솔벤, 해는 우찍. 거 다 이유가 이서.

(정월 명질이랑) 똑같아. 똑같은 떡 금방 그 '절벤'[38], 그거 '솔벤'[39], '절벤' 하고 시루떡은 꼭 아래 놓으니까. (시루떡은) 밭. 인절미도 그 땅. 시루떡은 이렇게 기름한 거 이만큼 한 거. 기름한 거. 땅, '인절미'는 밭. '절벤'은 해, '솔벤'은 달. 웃기떡은 제일 위의 거 무엇이니. 별, 그걸로, 그거라. 땅으로부터 그 이유가 다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세깍신' 신고. 요기 여기 차근차근 안하고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여섯 개라도 '세깍신'이라고 해, '세깍신'. '인절미'[40]는, '인절미'는 꼭 이건데 이처럼 네모반듯, 네모반듯하게 해서 네모반듯하면 밭, 이거 밭이랑이야, 밭. 그다음은 동그란 절편은 해. 그다음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ᄃᆞᆯ 반쪽 아니냐? 달 반쪽. 달 반쪽이면 솔편, 해는 웃기떡. 그거 다 이유가 있어.

---

38) '절벤'은 멥쌀가루를 반죽하여 떡본으로 눌러 만든, 둥근 모양의 떡이다. 주로 동그란 모양을 두 개 붙여 만들기도 하고 하나로 만들기도 한다.
39) '솔벤'은 멥쌀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찍어 낸 뒤, 시루에 솔잎을 깔아 찐 떡이다.
40) '인절미'는 메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정사각형으로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이다.

• 침떡과 눈 붙이기

(침떡은) 하양헌 침떡 허는 집 잇곡 ᄑᆞᆺ 놓앙 허는 디 이서. 이딘 저 헤영헌 걸로 이거 침떡이민 이디 눈 벡여. ᄒᆞ나 두 개 ᄑᆞᆺ으로. 흰 거 멘들아놩 이디 ᄑᆞᆺ 젭아당 이레 영 꼭 누르뜨곡 젭아당 꼭 누르뜨고 헹 눈 벡여. 무신 이윤지 몰라 나.

(눈은) 이디, 이디 ᄒᆞ나, 두 개. 가운디만 부쪄. ᄑᆞᆺ ᄉᆞᆷ아근에 영 ᄒᆞᄉᆞᆯ 카지왕. 카지왕 이레 두 밧디. 두 빗, ᄒᆞᆫ 상에 두 빗. 박아, 떡마다 다 박아. 그날 쓸 거. 떡 헤놩, ᄆᆞᆫ 베놩 영영 박아. 흰떡 헤놔근에. (ᄑᆞᆺ) ᄉᆞᆷ앙 ᄯᅳ로 놧당, 거 ᄆᆞᆫ 헤놩, 그 시리에 거 빵, 빠근에 ᄆᆞᆫ 차롱에 헤논 후제 박주. 이디서 시리에서 영영 두 밧디 딱 박아. 난 그거 이유 몰르크라.

(시루떡은) 하얀 시루떡 하는 집 있고 팥 놓고 하는 데 있어. 여긴 저 하얀 걸로 이거 시루떡이면 여기 눈 박아. 하나 두 개 팥으로. 흰 거 만들어 놓고 여기 팥 집어다가 이리 이렇게 꼭 누르고 집어다가 꼭 누르고 해서 눈 박아. 무슨 이윤지 몰라 나.

(눈은) 여기, 여기 하나, 두 개. 가운데만 붙여. 팥 삶아서 이렇게 조금 터뜨려서. 터뜨려서 이리 두 군데. 두 '빗'[41], 한 상에 두 '빗'. 박아, 떡마다 다 박아. 그날 쓸 거. 떡 해 놓고, 모두 베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박아. 흰떡 해 놓고. (팥) 삶아서 따로 놨다가, 거 모두 해 놓고, 그 시루에 거 빼서, 빼서 모두 채롱에 해 놓은 후에 박지. 여기서 시루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딱 박아. 난 그거 이유 모르겠어.

• 중궤 약궤

인절미 크게 헌 건 약궤, 약궤가 커. 거 허는 집 아이고. 옛날은 똑 영장나민 그걸 헷주. 영허민 약궤가 영 네귀방장허게 크게 헤여. 크게 헤근에

41)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이다.

이거 영 고망을 뚤라. ᄒᆞ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고망 뚤랑 약궤, 겅 헤라. 겅헹 이걸 또 떡을 지져, 이거. 쌀떡으로 허는 거, 지져. 지름 헹 지져. 이거만 지지민 허주마는. 중궨 이런 고망은 안 뚤르는디 이추룩 만들주. 이추룩 만들아근에 이것도 지져. 중궤, 약궤. 게난에 그 중궤, 약궤를 영장난 때 못허민 따시 이 사름은 위헹, 이 사름 울엉은 중궤, 약궤 못헌다 헤근에 안 허주게.

(멩질 때나 식게 때) 안 허여. 영장 때만 헤사. 허민 다시 또 헐 수 잇는디. (영장 때 안 허민) 못헌다. (중궤, 약궤는) 영장떡이라. 영장 때 헤나민 허고, 안 헤나민 안 허여. (오칩인) 중궤, 약궤 ᄒᆞ게 살질 안 헷어. 나가 완 보난 당취.

'인절미' 크게 한 건 '약궤'[42], '약궤'가 커. 거 하는 집 아이고. 옛날은 꼭 초상나면 그걸 했지. 이렇게 하면 약과가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크게 해. 크게 해서 이거 이렇게 구멍을 뚫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구멍 뚫어서 '약궤',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걸 또 떡을 지져, 이거. 쌀떡으로 하는 거, 지져. 기름 해서 지져. 이거만 지지면 하지마는. '중궤'[43] 이런 구멍은 안 뚫는데 이처럼 만들지. 이처럼 만들어서 이것도 지져. '중궤', '약궤'. 그러니까 그 '중궤', '약궤'를 초상났을 때 못하면 다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위해서는 '중궤', '약궤' 못한다 해서 안 하지.

(명질 때나 제사 때) 안 해. 초상 때만 해야.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데. (초상 때 안 하면) 못한다. ('중궤', '약궤'는) 초상떡이야. 초상 때 하고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허여. (오씨 집은) '중궤', '약궤' 하게 살질 않았어. 내가 와서 보니까 당최.

---

42) '약궤'는 메밀가루나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네모나게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 낸 떡으로 가운데 구멍을 다섯개 정도 뚫는다.

43) '중궤'는 좁쌀 가루나 메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지져 낸 떡이다.

• **솔벤 절벤**

이것이 ᄀᆞ루 아니? ᄀᆞ루민 영 놩 물 놔근에 이걸 막 ᄆᆞᆯ아. ᄆᆞᆯ아근에 더런 영 ᄃᆞᆯ름허곡 더런 내불곡 헤영 반은, 반은 ᄉᆞᆲ아. 반은 ᄉᆞᆲ앙 노민 이제 막 달루민 떡이 멘들아질 거 아니? 그때부떤 이제 완전 ᄉᆞᆲ앙 잘 뒌 후젠 동글랑동글랑허게 요추룩 동글랑동글랑허게 만들앙 두 개 부쪄근에 영 두 개 영 놔근에 이걸로 딱 누르뜨민, 영헹 누르뜨민 이거 절벤헤근에, 기름 ᄇᆞᆯ르곡 헤근에, 지름 이디 지름 ᄇᆞᆯ랑 끗.

물 놩, 물 놩. 물 왈탕왈탕 궤는디 (ᄉᆞᆲ아). 꺼내엉 이제 이디 안 ᄉᆞᆲ은 거허고 ᄉᆞᆲ은 거허고 ᄒᆞᆫ디 놩. 반죽헤근에 솔펜은 그냥 영헹 솔펜, 솔펜본으로 영 떠근에 솔펜 허민 솔입 놩 치민 솔펜이고.

절벤은 ᄉᆞᆲ을 때 ᄒᆞᆫ번에 ᄉᆞᆲ아 비어 막 멘들앙. 반반 안헹 그거는 ᄆᆞᆫ딱 ᄉᆞᆲ아야. 잘 ᄉᆞᆲ앙 ᄒᆞᆫ 번 허민 끗날 거난. 겐에 그건 이거로 누르뜨민 끗나니까. 겅 헤근에 절벤은 겅 헤근에 끗내고 솔벤은 두 번 허고.

(솔벤은) ᄎᆞᆷ지름, ᄎᆞᆷ지름. 역불 안 ᄇᆞᆯ라도 솔벤은 따시 헹 허는디, 이걸로 누르뜨는 건 이것에 ᄇᆞᆯ랑 허당 보민 다 ᄇᆞᆯ라져. 이것에 ᄇᆞᆯ랑 누르떠사 영 누르뜨민 이레 부뜨지 안헐 거주. 부떠불민, 지름 ᄇᆞᆯ랑 영 누르떠 나민 안 부뜨주게. 게민 그냥 차롱에 헹 놔두민 뒈어. 게민 뒈는 거. 나 첨 떡 실피 헷저.

이것이 가루 아니냐? 가루면 이렇게 넣어서 물 넣어서 이걸 막 반죽해. 반죽해서 더러는 이렇게 잘라내고 더러는 내버리고 해서 반은, 반은 삶아. 반은 삶아서 놓으면 이제 막 반죽하면 떡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때부턴 이제 완전 삶아서 잘 된 후엔 동그랗게 동그랗게 요처럼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두 개 붙여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놔서 이걸로 딱 누르면,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거 '절벤' 해서, 기름 바르고

해서, 기름 여기 기름 발라서 끝.

물 넣어서, 물 넣어서. 물 '왈탕왈탕' 끓는데 (삶아). 꺼내서 이제 여기 안 삶은 거하고 삶은 거하고 함께 넣어. 반죽해서 '솔펜'은 그냥 이렇게 해서 '솔펜', '솔펜본'으로 이렇게 떠서 '솔펜' 하면 솔잎 넣어서 찌면 '솔펜'이고.

'절벤'은 삶을 때 한번에 삶아 버려 막 만들어서. 반반 안하고 그거는 모두 삶아야. 잘 삶아서 한 번 하면 끝날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이거로 누르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절벤'은 그렇게 해서 끝내고 '솔벤'은 두 번 허고.

('솔벤'은) 참기름, 참기름. 일부러 안 발라도 '솔벤'은 다시 해서 하는데, 이걸로 누르는 건 이것에 발라서 하다 보면 다 발려. 이것에 발라서 눌러야 이렇게 누르면 이리 붙지 않을 거지. 붙어 버리면, 기름 발라서 이렇게 누르고 나면 안 붙지. 그러면 그냥 채롱에 해서 놓아두면 돼. 그러면 되는 거. 나 참 떡 실컷 했어.

• 우찍과 보따리

우찍 이거 그 뽄도 잇주마는 영 누르뜨는 뽄도 잇주마는 쪼글락허게 헤근에 영영 헤근에 만들민. '솔펜' 식으로 허민 뒈는 거. 솔펜, 솔벤 치는 식으로 쳐근에. 거민 뒈는 거. 솔벤 헐 때 만들앙. 솔벤 헐 때 ᄒᆞ쏠 넴경 만들앙게. 겡헹 헹 놔두민 뒌 거. 기름떡 허듯이도 헤나실테주마는 그런 거 아니. 솔벤, 솔벤 헐 때 헷어.

(계란전) 옛날은 안 헤낫어, 당취. 고사리 허곡 헹이, 경허는 집은 똑헤. 안 헤연. 보따리 쌍 간덴 허멍 계란 헤영 이추룩 헤근에 이레 고사리 ᄒᆞ나 놔근에. 쌍 갈 거옌 허멍, 싸지도 안허는 거. 싸지도 안허는 거주게, 솔찍이.

웃기떡 이거 그 떡살도 있지마는 이렇게 누르는 떡살도 잇지마는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솔펜'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솔펜', '솔벤' 찌는 식으로 쪄서. 그러면 되는 거. '솔벤' 할 때 만들어서. '솔벤' 할 때 조금 남겨서 만들어서. 그래서 해서 놓아두면 되는 거. 기름떡 하듯이도 했었겟지마는 그런 거 아니야. '솔벤', '솔벤' 할 때 했어.

(계란전) 옛날은 안 했었어, 당최. 고사리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집은 꼭 해. 안 했어. 보자기 싸서 간다고 하면서 계란 해서 이처럼 해서 이리 고사리 하나 놔서. 싸서 갈 거라고 하면서, 싸지도 않는 거. 싸지도 않는 거지, 솔직히.

(3) 진설하기

겐디 하도 웃쉬가 하노민 이걸 하영 헤노민 상에 ᄆᆞᆫ 올리길 궂어. 게난 세 가지썩 헤사 ᄒᆞ나, 두 개, 세 개, 그추룩 헹은에 헤사주. 구신이 하면, 웃쉬. 웃쉬가 하면 그거를 ᄆᆞᆫ 그 수정이 ᄆᆞᆫ 헤노민 올릴 수가 엇어. 게고 삼 부체 허는 집이 잇주게. 우리 집인 삼 부체가 엇이난 뒈는디 삼 부체 허는 딘 밥 세 개 올려 불민 올릴 디가 잇나? 밥 세 개, 국 세 개 올려 불민, 경 허주 삼 부체 헤불민 무주건 ᄒᆞᆫ 상. (메물은) ᄀᆞ치 먹는 거. 건 ᄀᆞ치 먹는 거. 게난 국, 밥은 따로 헤야 뒈주게. (과일이랑 고기) 것도 ᄀᆞ찌. 떡도 ᄀᆞ찌. 다른 건 사이가 좋앙 갈라 먹고, 그 놈의 밥, 국은 ᄯᅳ로 헤야 뒘. 세 개 놔. ᄒᆞ나, 두 개, 세 개, ᄒᆞᆫ 상에. ᄒᆞᆫ 상에 세 개, 삼 부체. 다른 조상은 다른 상. 이디 이디 ᄀᆞ찌 에염에 놓주게. 만약에 웃쉬가 하민 일로 이레 문짝 ᄎᆞᆯ리주, ᄆᆞᆫ딱.

상 영헤근에 이 큰 상 ᄒᆞ나, 두 개, 세 개 허고 또 남으민 절로 영 꼬고려근에 또 다른 상 놓고 경 헷주게. 일로 헤당 이디 세 개, 네 개, 네 개 싱그고 그축 헤여. 열네 개라도 할망 하르방이 ᄒᆞ나난에게 거 ᄒᆞᆫ 번 ᄎᆞᆯ릴 거난에게

열네 상을 다 올릴 게 아니난에 헤져. 겐디 혼자 죽어도 ᄒᆞᆫ 상, 둘리, 부부가 죽어도 ᄒᆞᆫ 상, 경 헤노난 하는 거. 게난 하는 거.

그런데 하도 조상이 많으면 이걸 많이 해 놓으면 상에 모두 올리기 궂어. 그러니까 세 가지씩 해야 하나, 두 개, 세 개, 그처럼 해서 해야지. 귀신이 많으면, '웃쉬'. 조상이 많으면 그거를 모두 그 숫자 모두 해 놓으면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삼 부처 허는 집이 있지. 우리 집인 삼 부처가 없으니까 되는데 삼 부처 하는 덴 밥 세 개 올려 버리면 올릴 데가 있나? 밥 세 개, 국 세 개 올려 버리면, 그렇게 하지 삼 부처 해 버리면 무조건 한 상. ('메물'은) 같이 먹는 거. 그건 같이 먹는 거. 그러니까 국, 밥은 따로 해야 되지. (과일이랑 고기) 그것도 같이. 떡도 같이. 다른 건 사이가 좋아서 갈라서 먹고, 그 놈의 밥, 국은 따로 해야 돼. 세 개 놔. 하나, 두 개, 세 개, 한 상에. 한 상에 세 개, 삼 부처. 다른 조상은 다른 상. 여기 여기 같이 옆에 놓지. 만약에 조상이 많으면 이리로 이리 모두 차리지, 모두.

상 이렇게 해서 이 큰 상 하나, 두 개, 세 개 하고 또 남으면 저리로 이렇게 구부려서 또 다른 상 놓고 그렇게 했지. 이리로 해다가 여기 세 개, 네 개, 네 개 심고 그처럼 해. 열네 개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니까 그거 한 번 차릴 거니까 열네 상을 다 올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혼자 죽어도 한 상, 둘이, 부부가 죽어도 한 상,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많은 거. 그러니까 많은 거.

(4) 달 구경

잔친 엇어, 잔치 안 헤봣어. 일 버쳐근에 어느 절에 그거 헐 저르가 엇어. 일 버쳥.(달을) 저 바당에, 가는 사름 바당에 강 봐. ᄃᆞ라미 말만 ᄃᆞ라미주 안 가. 말만 ᄃᆞ라미. 월라산, 월라산 허메. (달은) 아니라. 바당에 가사,

바당에 모실포 거자 간 디도 가민 그 영 섬 영 ᄒᆞ난 ᄒᆞ꼼 큰 거, ᄒᆞ난 족은 거 영 헌 디. 혀가 나오주게, 세가, 해가, 해가 영 나왕, 그거 보레 가고 저 동쪽으로 가민 또 해 뜨는 거 보레 가고 겅 헤여. 난 저 모실포 가는디 그 영 형제섬이엔 헌 딜로 글로 나오는 거 보레만 ᄒᆞᆫ 번 가왓주, 안 가완.

(체육대회) 잇당 ᄒᆞᆫ 번이나 허긴 헤여, 체육대. 밤이 노래 불르곡 기자 거 간단히. 옛날은 어떵사 헤신디. 그때 나가 젊은 때 이디 온 후젠 헷어. 체육대회 그런 건 헷어. 기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날 봥 헨게.

잔친 없어, 잔치 안 해봤어. 일 부쳐서 어느 겨를에 그거 할 겨를이 없어. 일 부쳐서. (달을) 저 바다에, 가는 사람 바다에 가서 봐. 'ᄃᆞ라미'[44] 말만 'ᄃᆞ라미'지 안 가. 말만 'ᄃᆞ라미'. 월라산, 월라산 해. (달은) 아니야. 바다에 가야, 바다에 모슬포 거의 간 데도 가면 그 이렇게 섬 이렇게 하난 조금 큰 거, 하난 작은 거 이렇게 한 데. 혀가 나오지, 혀가, 해가, 해가 이렇게 나와서, 그거 보러 가고 저 동쪽으로 가면 또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그렇게 해. 난 저 모슬포 가는데 그 이렇게 '형제섬'[45]이라고 한 데로 그리로 나오는 거 보러만 한 번 갔다 왔지, 안 갔다 왔어.

(체육대회) 있다가 한 번이나 하긴 해, 체육대회. 밤에 노래 부르고 그저 거 간단히. 옛날은 어떻게야 했는지. 그때 내가 젊을 때 여기 온 후엔 했어. 체육대회 그런 건 했어.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날 봐서 하더라.

---

44) 'ᄃᆞ라미'는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보이는 오름 이름이다. 월라산이라고도 한다.
45) '형제섬'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섬 이름이다.

□ 10월

1) 수확하기

촐 비어사주게. 쉐촐 비어사 뒈주게. 촐 비엉 촐 다 헤지민 검질 비곡 촐 비곡 헤영 다음에는 새 익으민 새 비엉 집 일 거. 새 비곡 각단이엔 헤영 각단 비곡. 각단은 새보다 족은 거. 영 ᄌᆞᆯ른 거. 거 헤여근에 줄 놓는 거 것ᄀᆞ라 각단, 큰 건 새.

(조는) 저 새 비기 쪼끔 전에 헐 거라. 촐 비어 난 다음에 장만헐 거. 산디가 ᄆᆞᆫ여 허주게, ᄆᆞᆫ여멍 말멍 비슷허게 ᄀᆞ찌 헤여. (십일월) 새 비엉 집 일엉 거민 일 다혯젠 허주게. 금년 일 다 헷다. (보리는) 동짓달에 헤실 걸. ᄒᆞᆫ 달 못 쉬주게. 허당 보민 일헐 때가 뒈비어, 또 허곡 또 허곡. 게원 쉬는 날은 ᄒᆞ나도 엇인 거 닮아. 매날 일만 헤진 거 닮아.

(보리는) 동짓달에 헤실 걸. ᄒᆞᆫ 달 못 쉬주게. 허당 보민 일헐 때가 뒈비어, 또 허곡 또 허곡. 원 쉬는 날은 ᄒᆞ나도 엇인 거 닮아. 매날 일만 헤진 거 닮아.

꼴 베야지. 소꼴 베어야 되지. 꼴 베어서 꼴 다 하면 잡초 베고 꼴 베고 해서 다음에는 띠 익으면 띠 베서 집 일 거. 띠 베고 '각단'이라고 해서 '각단' 베고. '각단'은 띠보다 작은 거. 이렇게 짧은 거. 거 해서 줄 놓는 거 것보고 각단, 큰 건 띠.

(조는) 저 띠 베기 쪼끔 전에 할 거야. 꼴 베고 난 다음에 장만할 거. 밭벼가 먼저 하지, 먼저면서 말면서 비슷하게 같이 해. (십일월) 띠 베어서 집 일어서 그러면 일 다했다고 하지. 금년 일 다 했다. (보리는) 동짓달에 했을 걸. 한 달 못 쉬지. 하다 보면 일할 때가 되어 버려, 또 하고 또 하고. 원 쉬는 날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맨날

일만 한 거 같아.

(보리는) 동짓달에 했을 걸. 한 달 못 쉬지. 하다 보면 일할 때가 되어 버려, 또 하고 또 하고. 원 쉬는 날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맨날 일만 한 거 같아.

2) 메주 만들기

메준 날 봐. 솖을 때. 듹날이나 개날이나 도세기날이나 뭐. (쉐날은) 안 솖아. 야튼 개날이나 토, 돗, 도세기날이나 그추룩 그런 좋은 날로 봉강. 토끼날 말고 저 무시거니 염소, 그런 날 허는 거, 좋은 날.

솖앙은에 뿟아 틔우주게. 이런 마다리에 담아근에 막 발로 붋아도 뒈곡, 발에 뭐 신엉, 붋아도 뒈곡, 옛날에 방에 이신 때 방에 졋주. 방에 엇이난 보통 밟아, 보통. 난 남방에도 허는 거만 봣주, 나가 헤보진 안헷어. 난 발로 붤라. 그다음에 만들아근에게. 영 만들앙 둘아메어, 둘아메어. 찍, 찍, 나룩찍. 나룩 이디 이서. 나룩 이신 집 이서. 메달앙 ᄀᆞ만이 놔두민 이게 믈르곡 트곡 허주게.

둘아멩 놔두민 지가 트고, 트고 곰팡이 피고 막 지가 허여, 지가. 영 데명 놔둔 거는 잘 안뒐 수가 이서. 데명 놔둔 거는. 데명 놔두주게. 영 데미민 막 곰팡이 너무 피어근에 막 헌 거 잇곡, 둘아멘 건 그런 거 엇어. 게난 둘아메는 게 좋아. 흑쏠 헐 때 궂어도. 그자 데미는 거는 게 아멩이나 막 데미주마는, 겨고 그거 자꾸 손 봥 뒤집어야 뒈고. 겐디 둘아메는 건 지가 알앙 허여.

메주는 날 봐. 삶을 때. 닭날이나 개날이나 돼지날이나 뭐. (소날은) 안 삶아. 하여튼 개날이나 토, 돼지, 돼지날이나 그처럼 그런 좋은 날로 골라서. 토끼날 말고 저 무엇이

니 염소, 그런 날 하는 거, 좋은 날.

삶아서 빨아 틔우지. 이런 마대에 담아서 막 발로 밟아도 되고, 발에 뭐 신어서, 밟아도 되곡, 옛날에 방아 있을 때 방아 찧었지. 방아 없으니까 보통 밟아, 보통. 난 남방아도 하는 거만 봤지, 내가 해보진 않았어. 난 발로 밟아. 그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매, 달아매. 짚, 짚, 볏짚. 벼 여기 있어. 벼 있는 집 있어. 매달아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마르고 트고 하지.

달아매서 놔두면 자기가 트고, 트고 곰팡이 피고 막 자기가 해, 자기가. 이렇게 쟁여서 놔둔 거는 잘 안될 수가 있어. 쟁여 놔둔 거는. 쟁여서 놔두지. 이렇게 쟁이면 막 곰팡이 너무 피어서 막 한 거 있고, 달아맨 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달아매는 게 좋아. 조금 할 때 궂어도. 그저 쟁이는 거는 그러게 아무렇게나 막 쟁이지마는, 그리고 그거 자꾸 손 봐서 뒤집어야 되고. 그런데 달아매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

3) 무명 짜기

(1) 목화솜에서 실 빼기

• 멘네 붙르는 물레

물레, 붙르는 물레, 멘네 붙르는 물레. 씨 까는 거. 이거 영 심고, 이거 영 심고 이것이 시민, 이것이 멘네라, 이건 꼴앙 앚아, 이거는. 딱 꼴앙 아지민 이거 영 심곡 이 트멍드레 놔근에 이거 둘르민 씨는 이레 털어지고 멘넨 저짝으로 가곡. 경 허는 거, 이거. 물레, 물레. 씨 까는 물레. 이거 귀. 이거 꼴앙 앚아근에 허여, 꼴앙 앚앙. 이걸로 이건 오른짝으로 이거 영 허곡 이건 이레 영 이레 물리면 씨는 이레 떨어지고 멘넨 저짝으로 가고.

물레, 바르는 물레, 목화 바르는 물레. 씨 까는 거. 이거 이렇게 잡고, 이거 이렇게 잡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목화야, 이건 깔고 앉아, 이거는. 딱 깔고 앉으면 이거 이렇게 잡고 이 틈으로 넣어서 이거 돌리면 씨는 이리 떨어지고 목화는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물레, 물레. 씨 까는 물레. 이거 귀. 이거 깔아서 앉아서 해, 깔아서 앉아서. 이걸로 이건 오른쪽으로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건 이리 이렇게 이리 물리면 씨는 이리 떨어지고 목화는 저쪽으로 가고.

• 멘넷정 만들기

이디 요디 미싱 놔근에 저 화장실 이제사 멘든 거난 요디 미싱 놔근에 탁 벌겨놔근에 ᄒᆞ꼼 허곡 안 허곡 애기 ᄃᆞᆯ렌 허민 애기 ᄃᆞᆯ곡 경허당 허곡 허난 어느 때 헌 거 몰라. 베클 찰 때 매날 허주. 매날. 여름에도 허곡, 겨울에도 허곡.

아무 때나 헤여. 아무 때나 만들어 노멍 허는 거. 요만인 헌 지럭시 허게시리 정이엥, 거 일름이 정이주게, 정, 멘넷정. 겐디 거 만들아 놧다근에 이추룩 이런 이런 그릇에 쫙 놧다근에 물레 헤영 영 감앙 실, 실 만들앙 허는 거난 아무 때 헤도 뒈어. (멘네) 타근에 멘네 까근에, 까주게 까, 씨를 까. 씨를 까민 그 정은 아무 때나 강 태우는 디 강 멘들어야주게. 집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강 만들아 오민 이거엔 헤도 이것이 아니고 박스, 박스에 그걸 만들앙 영 차북허게 헹 놔둬. 보통 여름에 잘 허여. 이런 디 내놩 겅헤연.

여기 요기 재봉틀 놔서 저 화장실 이제야 만든 거니까 요기 재봉틀 놔서 탁 벌여서 조금 하고 안 하고 아기 돌보라고 하면 아기 돌보고 그러다가 하고 하니까 어느 때 한 거 몰라. 베틀 짤 때 맨날 하지. 맨날.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아무 때나 해. 아무 때나 만들어 놓으면서 하는 거. 요만큼 한 길이 하게끔 고치라고

해서, 거 이름이 고치지, 고치, 고치. 그런데 거 만들어 놨다가 이처럼 이런, 이런 그릇에 쫙 놨다가 물레 해서 이렇게 감아서 실, 실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아무 때 해도 돼. (목화) 따서 목화 까서, 까, 씨를 까. 씨를 까면 그 고치는 아무 때나 가서 타는데 가서 만들어야지.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서 만들어 오면 이거라고 해도 이것이 아니고 박스, 박스에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놔둬. 보통 여름에 잘 해. 이런 데 내놔서 그렇게 했어.

• 줏는 물레

물레 줏는 거 줏는 물레. 이거는, 영영 돌리믄 이거 이디서, 이디서 허믄 이것이 영영 헤근에 감아지주게, 이디, 감아져. 이거 감아지믄 이걸 또 풀어사 뒈어, 감아놩. 감아놔근에 떼어근에 이거 떼믄 이디 이것이 쫄른 게 ᄒᆞ나. 영 떼엉 이런 디 놔근에 탁 두드리믄 타글락허게 이것만 나와.

(실만) 빠져. 이거 탁 때리믄 무시거 때리는 거 이서. 때리믄 이거만 빠지믄 그때는 이거 뚜시 이추룩헌 거 실 건디. 멘네, 멘네 헐 때 헤도 이거 가레기, 가레기주게, 가레기 계속 감앙 헤노믄 이레 영 감아근에 헤져. 가레기선 줏는 거. 이거 영 가레기 영 이거 가레기주게. 이거 가레기믄 이레 영영 헹은에 줏앙 이레 올려, 이레. 이건 둘름만 허곡 이거 영 올리믄 이만이 크주게. 이만이, 이만이 올라와. 올라오믄 이걸로 이제 만드는 거라.

물레 잣는 거 잣는 물레.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거 여기서, 여기서 하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기지, 여기, 감기지. 이거 감기면 이걸 또 풀어야 돼, 감아 놓아서. 감아 놓아서 떼어서 이거 떼면 여기 이것이 짧은 게 하나. 이렇게 떼어서 이런 데 놓아서 탁 두드리면 '타글락'하게 이것만 나와.

(실만) 빠져. 이거 탁 때리면 무엇 때리는 거 있어. 때리면 이거만 빠지면 그때는

이거 다시 이처럼 한 거 있을 건데. 목화, 목화 할 때 해도 이거 가락, 가락이지, 가락 계속 감아서 해 놓으면 이리 이렇게 감아서 할 수 있어. 가락에선 잣는 거. 이거 이렇게 가락 이렇게 이거 가락이지. 이거 가락이면 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아서 이리 올려, 이리. 이건 돌리기만 하고 이거 이렇게 올리면 이만큼 크지. 이만큼, 이만큼 올라와. 올라오면 이걸로 이제 만드는 거야.

(2) 베짜기

• 메기와 날기

이걸로 영 막 세와 놩 열 개 헤 놩, 열 개 헹 쭉 세와놔근에 저레 헤근에 것ᄀᆞ라 미녕 ᄂᆞᆯ암젠 허주. 미녕 ᄂᆞᆯ암젠, 그다음 메엄젠. 그다음 참젠 겅 허는 거. 메고, 잉에 걸고. 잉에 걸고, 그다음 짜는 거. 이건 ᄇᆞ디집이로구나게. 이거 비. 이거 베짜는 저 미녕허고 베 짜는 비. 비, 영 던지는 거 아니라, 던지는 거. 비엔 허고 이건 집, ᄇᆞ디집. 요거 ᄇᆞ디, 요것도 ᄇᆞ디. 요 안에 ᄇᆞ디 이신게. 이것이 멧 새, 멧 새 헷주게. 열두 새여, 뭐 일곱 새, ᄋᆞ답 새 헷어. 겐디 이건 ᄌᆞᆷ진 거난에 열두 새 뒈는 거고. 홁게 헤근에 허는 건 이거 홁게 헹 허는 거. 멧 새, 멧 새가 이서.

이걸로 이렇게 막 세워 놓고 열 개 해 놓아서, 열 개 해서 쭉 세워 놔서 저리 해서 그것보고 무명 난다고 하지. 무명 난다고. 그다음 맨다고. 그다음 짠다고 그렇게 하는 거. 매고, 잉아 걸고. 잉아 걸고, 그다음 짜는 거. 이건 바디집이로구나게. 이거 북. 이거 베짜는 저 무명하고 베 짜는 북. 북,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 던지는 거. 북이라고 허고 이건 집, 바디집. 요거 바디, 요것도 바디. 요 안에 바디 있네. 이것이 몇 새, 몇 새 했지. 열두 새여, 뭐 일곱 새, 여덟 새 했어. 그런데 이건 자잘한 거니까 열두

새 되는 거고. 굵게 해서 하는 건 이거 굵게 해서 하는 거. 몇 새, 몇 새가 있어.

• **베차기**

할망 따문에. 할망이 이걸 허니까. 나 헌 건 잘 못헴젠 헨에 꼬리허주, 꼬리. 놀 허지 아녕 꼬리, 나 헌 건 꼬리허영. 질게 헌 게 놀이고, 꼬린 이렇게 차는 거. 꼬리로 만들곡. 게민 할망 어디 가불면, 아이고 우리 할망 어느 때민 어디 가불코 헹, 가불민 강 걸 짜는 거라. 짜민 그리치지게. 잘못헤 불어. 게민 막 욕을 허는 거라. 그추룩 욕을 들어도, 계속 할망만 어디 가민 허는 거라. 게민 할망 못허게 헤봐도 소용엇이 막 허당 말째라 가난 잘 짜 가난, 큰년아 요거 왕 헤 불라, 요거 왕 헤 불라. 겡 헤낫어.

이거 (베틀) 참신게. 요게 잉에, 이거 귀마리, 도꼬마리엔 헤도 뒈고. 막 골아나신디 잊어빌엉 곧지 못허쿠다게. 이건 짜진 거고. 짜지민 다락 이거 눌리, 이걸로 뚱겻닥 놧닥 허는 거주게, 걸령, 뚱겻닥 놧닥. 건디, 이거 잉에고 이것이 영 들르민 들러지민 이레 화륵 들어가곡 내불민 이것이 알르레 가곡, 이것이 우트레 올라오주게. 게민 이것도 화륵 드리치곡, 겡 헹 허는 거, 베클.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이걸 하니까. 나 한 건 잘 못한다고 해서 북하지, 북. 날 하지 않고 북, 나 한 건 북해서. 길게 한 게 날이고, 북은 이렇게 짜는 거. 북으로 만들고. 그러면 할머니 어디 가 버리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언제면 어디 가 버릴까 해서, 가 버리면 가서 그걸 짜는 거라. 짜면 그르치지. 잘못해 버려.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처럼 욕을 들어도, 계속 할머니만 어디 가면 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못하게 해봐도 소용없이 막 하다가 말째라 가니까 잘 짜 가니까, 큰년아 요거 와서 해 버려라, 요거 와서 해 버려라. 그렇게 했었어.

이거 (베틀) 짜고 있네. 요게 잉아, 이거 도투마리, '도꼬마리'라고 해도 되고. 막 말했었는데 잊어 버려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짠 거고. 짜면 와락 이거 눌러, 이걸로 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는 거지, 걸려서, 당겼다가 놓았다가. 그런데, 이거 잉아고 이것이 이렇게 들면 들리면 이리 확 들어가고 내버리면 이것이 아래로 가고, 이것이 위로 올라오지. 그러면 이것도 확 들이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베틀.

□ 11월

1) 당제

(1) 제베낭알 당제

• 당에 가는 날

제베낭알. 제단 이서나신디 이젠 질 만들아 부난 문 못아져 빗어. 엇어져 불언. 그디가 신작로 뒈 빗어. 옮기지도 안 허고, 심방도 죽어 불고. 옮기지 안헨 엇어졋어. (제일은) 초일렛날, 열일렛날, 스무일렛날 가오고 으드렛날은 바당에 가오고, 두 번. (동네 사름덜) 다 가낫어, 다. 이젠 것도 설러 불고. 당도 엇어져 불고, 당도 엇어져 불고 할망도 죽어불고 허난 원 설러젼. (정월에 당에 가는) 그거 엇어. 그거 안 헤. 못 봣어, 나. 그런 거 이신디도 이실 테주게.

'제베낭알'[46]. 제단 있었는데 이젠 길 만들어 버리니까 모두 마 버렸어. 없어져 버렸

46) '제베낭알'은 서구포시 상효동의 당 이름으로 구슬잣밤나무의 아래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 거기가 신작로 되어 버렸어. 옮기지도 않고, 무당도 죽어 버리고. 옮기지 않고 없어졌어. (제일은) 초이렛날, 열이렛날, 스무이렛날 갔다 오고 여드렛날은 바다에 갔다 오고, 두 번. (동네 사람덜) 다 갔었어, 다. 이젠 것도 그만둬 버리고. 당도 없어져 버리고, 당도 없어져 버리고 할머니도 죽어 버리고 하니까 원 그만두게 됐어. (정월에 당에 가는) 그거 없어. 그거 안 해. 못 봤어, 나. 그런 거 있는 데도 있을 테지.

• **제물**

(제물은) 이녁만썩, 이녁 집이서 만들아근에. 떡허고 돌레떡허고 그 고기 굽곡. 탕쉬 ᄀᆞ뜬 건 못 허민 말고. 무주건 짝 맞게 아졍 가. 아멩헤도 ᄒᆞᆫ 열 갠 헤사주. 이거 차롱이 ᄒᆞ나가 아니고 두 개라. 이거 ᄒᆞ나, 두 개. 차롱이 두 개. 무주건 떡은 ᄀᆞ뜬 떡, 밥도 ᄀᆞ뜬 밥인디 차롱이 두 개에 놔. 아메도 구신이 둘이난 두 개 놤실 거라. 아메도 그 두 개 헤 가민 열 개자락 안 놔도 뒈어. 고기도 두 개, 밥도 두 개. 밥은 또 사발에 ᄒᆞ나, 보시에 ᄒᆞ나 헹 두 개. 게난 것도 두 개, 차롱 두 개에 똑ᄀᆞ따. (차롱 ᄒᆞ나에 사발밥, 보시밥.) 떡, 돌레떡, 궤기 군 거. 궤기 ᄒᆞ나. 바당고기. 바당에 거 쓰는 걸로 헤사. 조기도 뒈주마는 아메도 생선허주. 비늘, 비늘 이신 거. (생선은) 옥돔이엔 헌 말.

(제물은) 자기만큼씩로, 자기 집이서 만들어서. 떡하고 도래떡하고 그 고기 굽고. '탕쉬' 같은 건 못 하면 말고. 무조건 짝 맞게 가지고 가. 아무래도 한 열 갠 해야지. 이거 채롱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 이거 하나, 두 개. 채롱이 두 개. 무조건 떡은 같은 떡, 밥도 같은 밥인데 채롱 두 개에 놔. 아무래도 귀신이 둘이니까 두 개 놓고 있을 거야. 아무래도 그 두 개 해 가면 열 개까지 안 놔도 돼. 고기도 두 개, 밥도 두 개. 밥은 또 사발에 하나, 보시에 하나 해서 두 개.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개, 채롱

두 개에 똑같아. (채롱 하나에 사발밥, 보시밥.) 떡, 도래떡, 고기 군 거. 고기 하나. 바닷고기. 바다의 거 쓰는 걸로 해야. 조기도 되지마는 아무래도 '생선' 하지. 비늘, 비늘 있는 거. (생선은) 옥돔이라고 한 말.

• **제비쏠**

(당에 갈 때) 말은 아녀. 게고 아침 인칙 가민 사름도 못 봐. 저 산에덜 막 산에 가는 거 닮은 디 가부난 못 봐, 못 봐. 큰큰헌, 큰큰헌 구덕에 포도 이따만헌 걸로 싸지 안허민 차롱 세 개 두께 더껑 놔 봐. 얼마나 하느니? 거 졍 가야지, 졍 가. 그레 또 심방나시 쏠 놓곡, 쏠 아지곡. 그 저 제비쏠헐 거게. 건 심방이 아졍 가 불주게. 겨난 심방 나시주. 제비쏠헐 쏠 놓곡게. 흔 사발, 뒈약세기로 ᄒᆞ나, 게난 거 놓고. 게민 그거 차롱 세 개민 세 사발 놔야주. 게난 그거 다 그디 책임자가 젭아 봐사 영허우다 정허우다 ᄀᆞᆯ을 거난에 경헐 거. 굿 당당 두드리멍 허진 아녀고 말로, 말로. 말멩, 말미만. 거당 말미만 헤동 오는 거.

(당에 갈 때) 말은 안 해. 그리고 아침 일찍 가면 사람도 못 봐. 저 산에들 막 산에 가는 거 같은 데 가 버리니까 못 봐, 못 봐. 크디큰, 크디큰 바구니에 포도 이만한 걸로 싸지 않으면 채롱 세 개 뚜껑 덮어서 놔 봐. 얼마나 많니? 거 져서 가야지, 져서 가. 그리 또 무당 몫 쌀 놓고, 쌀 가지고. 그 저 '제비쏠' 할 거. 건 무당이 가져가 버리지. 그러니까 무당 몫이지. '제비쏠'[47] 할 쌀 놓고. 한 사발, 식되로 하나, 그러니까 거 넣고. 그러면 그거 채롱 세 개면 세 사발 놔야지. 그러니까 그거 다 거기 책임자가 집어 봐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할 거. 굿 당당 두드리면서 하진

47) '제비쏠'은 위로 집어던져 손에 잡힌 쌀알의 수효로 점을 치는 제비에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않고 말로, 말로. '말멩'[48], '말미'만. 그러다가 '말미'만 해두고 오는 거.

(2) 선씨 일월

(계란) 것도 솖앙 가. 두 갠디 그건 무시거 선씨 이신 사름. 성이 오씨, 양씨 경 허잖아, 게민 선가, 현가. 현가 이신 사름은 그 일월[일뤌]이 따로 잇주게. 겐디 건 또 차롱을 또 출려야 뒈어. 게난 그 계란 두 개 솖아 놓곡. 밥 두 개 더 거리고. (차롱) 세 개 가졍 가야 뒈. 둑세기 두 개만 뚜난 거주. 밥도 두 개. 떡도 두 개, 두 개썩 네 개. 그디 저 선씨 일월이주게. 선씨 일월이난 오라방허고 누이난에 오누이난에, 그건 똑ᄀᆞ뜬 밥에, 똑ᄀᆞ뜬 떡에, 경 헤낫어. 경 허는 거 봣어. 난, 우린 아니난에 놈 허는 거 본 거. 게고 그런 선씨 그런 거 안 헴실 거라.

(계란) 그것도 삶아서 가. 두 갠데 그건 무엇 현씨 있는 사람. 성이 오씨, 양씨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현가, 현가. 현가 있는 사람은 그 '일월'[49]이 따로 있지. 그런데 건 또 채롱을 또 차려야 돼. 그러니까 그 계란 두 개 삶아 놓고. 밥 두 개 더 뜨고. (채롱) 세 개 가지고 가야 돼. 달걀 두 개만 다른 거지. 밥도 두 개. 떡도 두 개, 두 개씩 네 개. 거디 저 현씨 '일월'이지. 현씨 '일월'이니까 오빠하고 누이니까 오누이니까, 그건 똑같은 밥에, 똑같은 떡에,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난, 우린 아니니까 남 하는 거 본 거. 그리고 그런 현씨 그런 거 안 하고 있을 거야.

2) 동지

48) '말멩'은 무당이 굿을 할 때 기원하는 말을 뜻한다. '말미, 말명'이라고도 한다.
49) '일월'은 일가 내지 씨족의 수호신을 이르는 말이다.

(동지팥죽) 헤 먹는 사름 헤 먹고 실픈 사름 안 허고. 무시것산디 구신 다울린덴 허멍 헤 먹어. 난 풋죽 먹은 것에 구신 ᄃᆞᆯ아나카? 생각나민 먹고. 일부러 쒕 먹을 때도 잇주게, ᄒᆞᆫ 번이나. 무신 애기동지옌 허멍 안 험도 헤여. 무신 뜻인지도 모르고. (동지에 팥죽 쑤는 사람) 지금도 이실 거라. 겐디 난 안헤. 메누리가 절에 잘 뎅기난 받아와, 아져와. 동지풋죽 먹읍서 허멍. 겡 먹어봄은 헷어. 나가 집이서 헤진 안 허여.

(동지팥죽) 해서 먹는 사람 해서 먹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무엇인지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해서 먹어. 난 팥죽 먹은 것에 귀신 달아날까? 생각나면 먹고. 일부러 쑤어서 먹을 때도 있지, 한 번이나. 무슨 아기동지라고 하면서 안 하기도 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동지에 팥죽 쑤는 사람) 지금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난 안 해. 며느리가 절에 잘 다니니까 받아와, 가져와. 동지팥죽 드세요 하면서. 그래서 먹어보기는 했어. 내가 집에서 하진 않아.

3) 생업

(1) 삼베 짜기

• 삼 삼기

베 짜는 거? 거 씨 뿌려근에 지금 막 컴주게, 지금. 밧이 휘앗허게 커. 게민 크민 그거 비어근에. 지금쯤 빌 땐디. (여름에) 비어근에 걸 또 벳겨, 벳겨근에 소곱에 건 데껴 불곡 껍덕만 헤근에, 껍덕만 헹 솟디 놩 숢아. 숢아근에 그다음 물에 가근에 시쳐. 막 물에 강 영 영허멍. 시지민 그거 막 헤영허주게. 헤영허민 그걸 영 깨어, ᄆᆞᆫ 손으로 영 깨엉 ᄆᆞᆫ. 이추룩

솔진 건디, 솔진 건디 이추룩 깨어, 깨어. 실 믄 나민 이디 동무릅에서 영영허멍 거 믄 삼아, 삼 삼아. 겡 거 베.

감아근에게 이추룩 이추룩 차롱에, 차롱에 영영 삼으멍 이레 영영영영 헤 놓주게. 헤노민 그냥 영 둥기민 범벅지주게. 이레 콩을 노나, 풋을 노나 헹 자락 놔근에 영 둥경은 아니 헤졍 것만 나와, 항나씩, 항나만. 눌러졍 항나썩만 그냥 둥경은, 그냥 영 둥경은 벙뎅이 져. 게난 콩이나 풋이나 자락 놔, 자락 노민 그거 영 허민 항나만 나오주게. 항나만 허민 그게 헤져 근에 겅 허멍 삼 삼앗젠 허난.

베 짜는 거? 그거 씨 뿌려서 지금 막 크고 있지, 지금. 밭이 휘황하게 커. 그러면 크면 그거 베어서. 지금쯤 벨 땐데. (여름에) 베어서 그걸 또 벗겨, 벗겨서 속의 것은 던져 버리고 껍데기만 해서, 껍데기만 해서 솥에 놔서 삶아. 삶아서 그다음 물에 가서 씻어. 막 물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씻으면 그거 아주 하얗게 되지. 하얗게 되면 그걸 이렇게 쪼개, 모두 손으로 이렇게 쪼개서 모두. 이처럼 살진 건데, 살진 건데 이처럼 쪼개, 쪼개. 실 모두 나면 여기 무릎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 모두 삼아, 삼 삼아. 그래서 그거 베.

감아서 이처럼 이처럼 채롱에, 채롱에 이렇게 이렇게 삼으면서 이리 이렇게 이렇게 해 놓지. 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당기면 범벅이 되지. 이리 콩을 놓거나, 팥을 놓거나 해서 와락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는 안 되고 그것만 나와, 하나씩, 하나만. 눌러서 하나씩만 그냥 당겨서는, 그냥 이렇게 당겨서는 덩어리 져. 그러니까 콩이나 팥이나 와락 넣어, 와락 넣으면 그거 이렇게 하면 하나만 나오지. 하나만 하면 그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삼 삼았다고 하니까.

□ 12월

1) 납평날

• 소웽이엿

(꿩엿, 닭엿) 놈덜은 골아도 난 안 만들어 봔. 나 옛날에 저 무신거 먹으민 존녠 허난에 그것ᄀᆞ라 약장시덜은 엉겅퀴, 엉겅퀴 헨게마는. 소웽이, 그거 간 파 오민 그걸로 엿 만들렌 허난 엿 만드난 궂언 먹을 수가 엇어라. 먹을 수 엇언게. 뿔리로 허는 거. 말만 들언 허난에 허는 공력만 들엇주, 못 먹크란게. 궂어. 몸에 ᄆᆞᆫ 좋덴 허난 게메 거 첨 두렷주. 그걸 무시거허레 한라산에 강 파당 그걸 헐 거라. 파 오는 사름도 신디. 하르방이 (파 오고) 나 만들고. 못 먹크라라게. 너미 그걸 하영사 놔져신디 막 야게 아판에 먹을 수가 엇언게. 겅도 헤낫어.

엿사게 감쥐헤근에게. 감쥐 골 잇잖아, 골허고게. 보릿골 잇저. ᄑᆞ는 것도 이서. 골허곡 좁쏠, 흐린좁쏠, 검은 거나, 검은 거. 흐린좁쏠헤근에 흐린좁쏠, 그거 엿허젠 허민 막 밥이엔 헤도 밥이 아니고 반은 죽이고 반은 밥이고 흘착허게 헤근에게. 거에 그 골에 헹 서껑 놔두민 궤여, 궤예. 것이 궤민 그거 접지랑 거 솖당 보민 엿 뒈어. 거 막 솖으당 보민 엿 뒈어. 솖으믄 헤도 건 물로 솖앙은 물로 먹게 멘들고, 엿으로 허젠 허민. 오래 딸리고, 게믄 엿 뒈어. 겅 헹 허는 거. 그런 날 받앙, 날 보멍은 안 헤봣어.

(꿩엿, 닭엿) 남들은 말해도 난 안 만들어 봤어. 나 옛날에 저 무엇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것보고 약장사들은 엉겅퀴, 엉겅퀴 하더라마는. 엉겅퀴, 그거 가서 파 오면 그걸로 엿 만들라고 하니까 엿 만드니까 궂어서 먹을 수가 없더라. 먹을 수 없더라.

뿌리로 하는 거. 말만 들어서 하니까 하는 공력만 들었지, 못 먹겠더라. 궂어. 몸에 모두 좋다고 하니까 글쎄 거 참 어렸지. 그걸 무엇하러 한라산에 가서 파다가 그걸 할 거야. 파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할아버지가 (파 오고) 나 만들고. 못 먹겠더라. 너무 그걸 많이야 넣었는지 아주 목 아파서 먹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도 했었어.

엿이야 감주해서. 감주 엿기름 있잖아, 엿기름하고. 보리 엿기름 있어. 파는 것도 있어. 엿기름하고 좁쌀, 차좁쌀, 검은 거나, 검은 거. 차좁쌀해서 차좁쌀, 그거 엿하려고 하면 막 밥이라고 해도 밥이 아니고 반은 죽이고 반은 밥이고 되게 해서. 그거에 그 엿기름에 해서 섞어서 놔두면 괴어, 괴어요. 그것이 괴면 그거 짜서 거 삶다가 보면 엿 돼. 거 막 삶다가 보면 엿 돼. 삶으면 해도 건 물로 삶아서는 물로 먹게 만들고, 엿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달이고, 그러면 엿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날 받아서, 날 보면서는 안 해봤어.

2) 신구간

(1) 이사

신구간에 이사. 저디서 살단 이레 와도 기냥 왓주, 무신. 신구간 그런 거 엇이. 신구간에게 ᄆᆞᆫ 구신 하늘로 올라가 불면 이제 그 엇인 때 가는 거옌, 우린 메누리덜토 신구간 그런 거 안 헤 봣어. 무주건 헤지민 강 사는 거. 그런 구신 위허고 그넌 거 엇어, 전혀. (처음에 가져가는 거) 푸는체허곡 채 아졍 간덴 허는디 우린 그런 것도 엇어. 그자 솟 아졍 강 밥헹 먹으민 뒌 거. 솟 사오나 어떵 헤사주, 솟 엇인디 어떵 헐 거라. 엇어 부난. 체, 체, 대체, 거름체, 그런 거. 푸는체에 거 놔근에. 경 헌덴 ᄀᆞᆯ아남은 헤도 헤보진 안 헷어. 푸는첸 이렇게 푸끄는 거고, 체는 치는 거고, 그거.

신구간에 이사. 저기서 살다기 이리 와도 그냥 왔지, 무슨. 신구간 그런 거 없이. 신구간에 모두 귀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없을 때 가는 거라고, 우린 며느리들도 신구간 그런 거 안 해 봤어. 무조건 하면 가서 사는 거. 그런 귀신 위하고 그런 거 없어, 전혀. (처음에 가져가는 거) 키하고 체 가져간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것도 없어. 그저 솥 가져가서 밥해서 먹으면 되는 거. 솥 사오거나 어떻게 해야지, 솥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없어 버리니까. 체, 체, 대체, '거름체', 그런 거. 키에 그거 놔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기는 해도 해보지는 않았어. 키는 이렇게 부치는 거고, 체는 치는 거고, 그거.

(2) 집알이

(새로 산 집에) 처음은 무신 저 성냥 아졍간다 뭐헌다 헤신디 돈 아져가는 거 닮안게. 성냥, 이추룩 영 큰 것도 아졍가고 또 저, 빨래비누, ᄀᆞ루, 슈퍼타이 그런 것도 아졍가고. 겡 헨게. 우리 집이 이 집 헐 때 어떤 하르방 성냥을 아졍와시난 알안. 몰를 건디. 게난 그거 아졍오는 건가 헤연. (손님에게) 줄 거 엇어. 밥만 먹엇주. 줄 게 엇어. 줄 거 헤놔야 주주, 펀찍, 밥만 먹엉 갑서 허는 거.

(상량식) 우린 그런 거 안 헤. 집 짓엉 멧길 때부터 상량식 안 허켄 ᄀᆞᆯ안. 아시에 우린 그런 건 안 헌다, 무주건 짓으민 짓는 거. 살민 사는 거. 이사 그런 거 엇는 거. 허는 집 헤여. 저 상ᄆᆞ루, 상ᄆᆞ루 올릴 때 양펜이 돈 ᄃᆞᆯ아멘덴. 성줄 헤사 귀양을 내주. 성주 안 낸 디 귀양 못 내. 성주풀이가 ᄆᆞᆫ여, 귀양이 말쩨. 할망 죽으난 (귀양풀이) 헷어, 씨어멍 죽으난. 귀양풀이도 허고 성주풀이도 허고.

(새로 산 집에) 처음은 무슨 저 성냥 가져간다 뭐한다 했는데 돈 가져가는 거 같더라. 성냥, 이처럼 이렇게 큰 것도 가져가고 또 저, 빨랫비누, 가루, 슈퍼타이 그런 것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더라. 우리 집에 이 집 할 때 어떤 할아버지 성냥을 가져오니까 알았어. 모를 건데.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는 건가 했어. (손님에게) 줄 거 없어. 밥만 먹었지. 줄 게 없어. 줄 거 해 놓아야 주지, '편찍', 밥만 먹어서 가세요 하는 거.

(상량식) 우린 그런 거 안 해. 집 지어서 맡길 때부터 상량식 안 하겠다고 말했어. 아예 우린 그런 건 안 한다, 무조건 지으면 짓는 거. 살면 사는 거. 이사 그런 거 없는 거. 하는 집 해. 저 용마루, 용마루 올릴 때 양편에 돈 달아맨다고. 성주를 해사 귀양을 내지. 성주 안 낸 데 귀양 못 내. 성주풀이가 먼저, 귀양이 말째. 할머니 죽으니까 (귀양풀이) 했어, 시어머니 죽으니까. 귀양풀이도 하고 성주풀이도 하고.

3) 집 일기

(1) 지붕이기

(초집 지붕) 일어사주. 아무 날이나, ᄇᆞ름 안 부는 날은. 가을 들어사, 가을. 가을 새가 익어사, 비어근에게 ᄆᆞᆯ려근에. 십이월 뒈사 보통 허긴 허주게. 게난 새가 익어사. 새가 퍼렁허주게, 처음은. 살아가민 익어 그게, 곡석 익는 식으로. 게민 그 새가 익어사. 게 줄 놔근에. 나 줄도 막 잘 놔. 돌리는 것사 아무나 허주마는 이렇게 놓는 거. 막 잘 놔. 일 년에 ᄒᆞᆫ 번. ᄒᆞᆫ 번 안 허민 태풍 불민 불려나. 경 허여.

(초가 지붕) 일어야지. 아무 날이나, 바람 안 부는 날은. 가을 들어야, 가을. 가을

띠가 익어야, 베어서 말려서. 십이월 돼야 보통 하긴 하지. 그러니까 띠가 익어야. 띠가 퍼렇지, 처음은. 살아가면 익어 그게, 곡식 익는 식으로. 그러면 그 띠가 익어야. 그러게 줄 놓아서. 나 줄도 아주 잘 놔. 돌리는 것이야 아무나 하지마는 이렇게 놓는 거. 아주 잘 놔. 일 년에 한 번, 한 번 안 하면 태풍 불면 불려. 그렇게 해.

(2) 창호지 바르기

(창호지 바르는) 것도 날 안 보고 아무 날이나. 고망만 안 터지민 뒌 거. (멩질) ᄀᆞ리 그런 거 엇어. 우리 지금, 지금도 이디도 벌초 날 봥 허는 사름 잇주게. 겐디 우린 그런 거 엇어. 아무 날이나 자기 가지는 날. 기자 날씨 존 날, 겅 헤여. 낼 가젠 허당 비가 자락자락 오민 안 가. 안 갓당 다시 비 오지 안 허곡 날 조민 그때 가. 겨곡 아이덜 공일날 가곡.

(창호지 바르는) 것도 날 안 보고 아무 날이나. 구멍만 안 터지면 된 거. (명질) 즈음 그런 거 없어. 우리 지금, 지금도 여기도 벌초 날 봐서 하는 사람 있지.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없어. 아무 날이나 자기 갈 수 있는 날. 그저 날씨 좋은 날, 그렇게 해. 낼 가려고 하다가 비가 주룩주룩 오면 안 가. 안 갔다가 다시 비 오지 않고 날 좋으면 그때 가. 그리고 아이들 공일날 가고.

4) 섣달그믐날

(1) 장 담그기

• **택일**

게민 또 날 봥 ᄃᆞᆼ가. ᄃᆞᆨ날이나 개날이나 뭐 그런 거. 야튼 영 봥 ᄆᆞᆯ라시민 담으민 뒈어. 시쳥게, ᄃᆞᆷ는 날 아무 날이라도 ᄃᆞᆷ는 날. ᄆᆞᆯ리지 안허여, 그대로 시지는 날 드리쳥. 어떠 안헤. 물 놀 거난에 그날, 그날 물 놀 거주게. 섣ᄃᆞᆯ그믐날 허민 새ᄃᆞᆯ, 저 정월 나민 소금을 안 논넨 허주게, 소금. 소금을 경 장에 놧다 들엇다 안 헌덴. 장을 경 만들엉 놔불면은 이유가 엇어. 장 뭐 벤허나 그런 것도 엇고 딱 소금 마탕 놔 불민. 섣ᄃᆞᆯ에 헤야 뒈곡 그 전에 헤도 뒈. 아무 때라도 물 마춘 거니까. 메주만 ᄆᆞᆯ르민 허는 거. 무조건 ᄀᆞ슬 허민, ᄀᆞ슬 틀민 콩 헤근에, 콩 헤영 ᄉᆞᆲ앙 ᄆᆞᆯ류민 뒈는 거난에 아무 때 헤도 뒈어.

그러면 또 날 봐서 담가. 닭날이나 개날이나 뭐 그런 거. 하여튼 이렇게 봐서 말랐으면 담그면 돼. 씻어서, 담그는 날 아무 날이라도 담그는 날. 말리지 않아, 그대로 씻는 날 들이뜨려서. 어떻지 않아. 물 넣을 거니까 그날, 그날 물 넣을 거지. 섣달그믐날 하면 새달, 저 정월 나면 소금을 안 넣는다고 하지, 소금. 소금을 그렇게 장에 넣었다 들었다 안 한다고. 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놔 버리면 이유가 없어. 장 뭐 변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딱 소금 맡아서 넣어 버리면. 섣달에 해야 되고 그 전에 해도 돼. 아무 때라도 물 맞춘 거니까. 메주만 마르면 하는 거. 무조건 가을하면, 가을 들면 콩 해서, 콩 해서 삶아서 말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 때 해도 돼.

• **소금물**

겐디 이게 다라라이, 다라 큰 다라 시민 이게 이게 메주, 메주민 이디 물 하영 놀 거 아니? 물 놔근에 계란을 놔근에 계란 노민 백 원짜리 동전만이 딱 맞이민 트주게. 생 거. 게민 안 맞이민 ᄀᆞᆯ라앚아, 계란이. 소금물을 허는

거라, 물 하영 놔근에. 계란을 띠와, 띠우면은 딱 맞이민 이디 백 원짜리만이 우로 뜰 때, 똑 맞이면, 족영 족으민 더 놓곡 또 덜 놓곡 경허민 그만이 맞게 헹 장을 담그면 장에 다시 소금 안 접아놔도 딱 맞앙 좋아. 경 헌디 경 안허면 소금 놓곡 안허면 벤헤. 그 잘리에 싸놓곡 막 허주게. 경 허여. 경 헤영 장 담아불민 혼 번에 허는 거.

항에 게메 그 다라에 물을 그레 비우는 거. 메주, 시진 메주 담은 드레, 겡 숫도 놓곡 고추도 놓곡 경 허는 거. 소금물 맞촹 놔불민 곰팡이도 안 피고, 소금물을 아시에 이것이 딱 맞인 거주게, 맞인 거난. 그추룩 맞앙 헤불민 곰팡이도 안 피고 베렝이도 안 일곡 막 좋아. 그추룩 담그민 아까추룩 소금물 헹 담그면 이유가 엇어.

그런데 이게 대야야, 대야 큰 대야 있으면 이게 이게 메주, 메주면 여기 물 많이 놓을 거 아니야? 물 넣어서 계란을 넣어서 계란 넣으면 백 원짜리 동전만큼 딱 맞으면 뜨지. 생 거. 그러면 안 맞으면 가라앉아, 계란이. 소금물을 하는 거야, 물 많이 넣어서. 계란을 띄워, 띄우면 딱 맞으면 여기 백 원짜리만큼 위로 뜰 때, 꼭 맞으면, 적게 적으면 더 넣고 또 덜 넣고 그러면 그만큼 맞게 해서 장을 담그면 장에 다시 소금 안 집어넣어도 딱 맞아서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소금 넣고 안하면 변해. 그 자루에 싸놓고 막 하지.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장 담가 버리면 한 번에 하는 거.

항아리에 그러게 그 대야에 물을 그리 붇는 거. 메주, 씻은 메주 담은 데, 그래서 숯도 넣고 고추도 넣고 그렇게 하는 거. 소금물 맞춰 넣어 버리면 곰팡이도 안 피고, 소금물을 살짝 이것이 딱 맞는 거지, 맞는 거니까. 그처럼 맞아서 해버리면 곰팡이도 안 피고 벌레도 안 일고 아주 좋아. 그처럼 담그면 아까처럼 소금물 해서 담그면 이유가 없어.

□ 윤달

(윤달에) 천리도 허고 이사도 허고 그넌 거벳기 무시거 허여? 호상옷은 난 윤ᄃᆞᆯ 허지 안헨 아무 때나 ᄆᆞᆫ딱 헤 놧어, 나냥으로 허는 거난 윤ᄃᆞᆯ 그런 거 엇이 그냥 무주건 시간 나는 대로 윤ᄃᆞᆯ에도 허곡 그자 달에도 허곡 허는디 윤ᄃᆞᆯ에 하영 허주. 무사산디 윤ᄃᆞᆯ 헤여.

(윤달에) 이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런 거밖에 무엇 해? 수의는 난 윤달 하지 않아서 아무 때나 모두 해 두었어, 나대로 하는 거니까 윤달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시간 나는 대로 윤달에도 하고 그냥 달에도 하고 하는데 윤달에 많이 하지. 왜인지 윤달 해.

2. 서귀포시 법환동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 콩나물 기르기

십오일 전이부떠 콩ᄂᆞ물부떠 놔야. 집이서 모물찍 솔아근에 밑에 채 놔근에 허민 콩ᄂᆞ물이 곱주게. 크는 것이 고와. 경헤영 그거 벳깃디 놓민 재기 안 크민 구둘에 놔사. 이제보담 (날씨가) 더 추우난.[50] 옛날 집이서 다 콩ᄂᆞ물 시루에 놩 키왓어.[51] 물도 주고 십오일 뒈사 완전 먹을 만이.[52]

십오일 전부터 콩나물부터 놔야. 집에서 메밀짚 살라서 밑에 채 놔서 하면 콩나물이 곱지. 크는 것이 고와. 그래서 그거 밖에 놓으면 재우 안 크면 구들에 놔야. 이제보다 (날씨가) 더 추우니깐. 옛날 집에서 다 콩나물 시리에 넣어서 키웠어. 물도 주고 십오일 돼야 완전 먹을 만큼.

• 바닷고기 준비

---

50) 현월선 구술.
51) 권옥열 구술.
52) 김효원 구술.

고기도 사다근에 영 패쌍 그땐 냉장고 엇인 때난게 문 패쌍 물류왕 노꼿에 헤근에 이런 공장에 문 걸엉. 그땐 옥돔 벼랑 안 헷어. 우럭, 어렝이 ᄀᆞ튼 거. 옥돔은 사젠 허민 비싸. 영영 베 젓으멍 강 옥돔 요 범섬 아래 가근에 나까오민 세 개 꿰어근에 얼마.[53] 게곡 옛날엔 옥돔 잘 안 낫어. 조기 ᄒᆞ나 꿰엉 (옥돔이영) 세 개 꿰어근에 얼마. 경헤도 못 사근에. 기자 각제기가 잘 낫어예.[54] 이 ᄀᆞ슬로 나끄는 우럭허곡 어렝이 그런 것들. 고기들 잘도 할 때라 부난이 고기 낙시로 나까뒌 얼마든지 나까지곡 테왁 아져가근에 어퍼근에 낙시 영 줄 놓민 기자 올라오곡 올라오곡.[55] 볼락 ᄀᆞ튼 거. 복젱이가 그땐 막 맛좋앗어양? 복젱이 이녁냥으로 나깟주게, 줌수들은 테왁 어퍼근에 가근에 나깡. (패싸근에 물릴 땐) 망데기에 미역 ᄒᆞᆫ 징, 그런 거 ᄒᆞᆫ 징 놔근에 ᄌᆞ근ᄌᆞ근 놧다근에. 망데기에 우이 험벅으로 영헤영 부리싸근에 놔두민 ᄑᆞ리도 안 들곡. 우리 어무니넨 경 허는 거 봐난.[56] 보리항에 놔.[57]

고기도 사다가 이렇게 '패싸서'[58] 그땐 냉장고 없을 때니깐 몽땅 '패싸서' 말려서 끈에 해서 이런 '공장'[59]에 모두 걸어서. 그땐 옥돔 별로 안 했어. 우럭, 어렝놀래기 같은 거. 옥돔은 사려고 하면 비싸. 그땐 옥돔 별로 안 햇어. 이렇게 이렇게 배 저으면서 가서 옥돔 요 범섬 아래 가서 낚아오면 세 개 꿰어서 얼마. 그리고 옛날엔 옥돔 잘 안 났어. 조기 하나 꿰어서 (옥돔이랑) 세 개 꿰어서 얼마. 그래도 못 사서. 그저 전갱이

53) 김효원 구술.
54) 권옥열 구술.
55) 김효원 구술.
56) 현월선 구술.
57) 권옥열 구술.
58) '패싸다'는 물고기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말한다.
59) '공장'은 나뭇가지나 못 등 가늘고 뾰족한 것을 벽 같은 데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가 잘 났어요. 이 가을에 낚는 우럭하고 얼렝놀래기 그런 것들. 고기들 잘도 많을 때여 버리니깐 고기 낚시로 낚아둬서 얼마든지 낚을 수 있고 '테왁' 가지고 가서 엎어서 낚시 이렇게 줄 놓으면 그저 올라오고 올라오고. 볼락 같은 거. 복어가 그땐 매우 맛좋았지요? 복어 이녁대로 낚았지. 잠수들은 '테왁' 엎어서 가서 낚아. ('패싸서' 말릴 땐) '망데기'[60]에 미역 한 칭, 그런 거 한 칭 놔서 조근조근 놓았다가. '망데기' 위에 헝겊으로 이렇게 부리 싸서 놔두면 파리도 안 들고. 우리 어머니넨 그렇게 하는 거 봤었어. 보리항에 놔.

• 제수 장만

뒈지고기 동네서 추렴허곡 뒈지 ᄒᆞᆫ ᄆᆞ리에 멧 사름 ᄃᆞᆯ아정[61] ᄆᆞᆫ 갈랑 가주게.[62] ᄒᆞᆫ 이십 명 넘엇어.[63] 이제는 뒈지고기허곡 소고기허곡 미신거 딴 것도 허곡 허주만은 그때는 뒈지고기 하나. 소고긴 그땐양, 우리 먹을 걸로 생각을 안 허연.[64] 소고기는 산제 헐 때만 헤여근에 냉장고 엇이난 소금에 절여놘.[65] 거느리지도 아녀난. 뒈지고기도 요만썩 짝그르겐 안 허연.[66] 몽클락몽클락허게 썰엉[67] 다섯 개썩 꿰엉[68]. 이제는 ᄉᆞ뭇 소고기여 ᄉᆞ뭇 한치여 무신 물꾸럭이여 ᄆᆞᆫ 헴신디.[69] 전북이여 ᄆᆞᆫ 헴주만은.[70]

60)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61) 권옥열 구술.
62) 김효원 구술.
63) 현월선 구술.
64) 김효원 구술.
65) 권옥열 구술.
66) 현월선 구술.
67) 권옥열 구술.
68) 현월선 구술.
69) 김효원 구술.
70) 현월선 구술.

돼지고기 동네서 추렴하고 돼지 한 마리에 몇 사람 매달려서 모두 갈라서 가지. 한 이십 명 넘었어. 이제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무슨 딴 것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돼지고기 하나. 소고기는 그때는요, 우리 먹을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 소고기는 '산제'[71] 할 때만 해서 냉장고 없으니깐 소금에 절여놨어. 건드리지도 않으니깐. 돼지고기도 요만큼씩 '짝그르게'[72]는 안 했어. '몽클락몽클락하게' 썰어서 다섯 개씩 꿰어서. 이제는 사뭇 소고기다 한치다 무슨 문어다 전복이다 모두 하고 있지만은.

• **멩질떡**

옛날 쌀 준비헤근에게 그거 떡헐 거.[73] 그때 방엣간이 엇이난 ᄆᆞᆯᄀᆞ레.[74] 동네마다 ᄆᆞᆯᄀᆞ레에 (쌀가루) ᄀᆞᆯ아근에 그디서 체로 ᄆᆞᆫ 쳐근에.[75] 건 하영헐 때고. ᄯᅳ루 집이서 방에로 찍엉 허곡. 가운딘 돌 영 헤근에 돌혹 놔근에 ᄲᆞᆺ앙. 또 철떡은 낭으로 뒌 철떡 ᄲᆞᆺ는 것이 잇주게. (혹 안 놔근에) 낭도고리라도 뚜겁게 뒌 거. 멧떡도고리 헹 방엣귀로 헤여근에 찰떡도 허고. 절벤도 그것에 ᄲᆞᆺ아근에 도레기 헤여근에 ᄌᆞᆸ으민 절벤 뒈고.[76]

옛날 쌀 준비해서 그거 떡할 거. 그때 방앗간이 없으니깐 연자방앗간. 동네마다 연자방앗간에 (쌀가루) 갈아다가 거기서 체로 몽땅 쳐서. 건 많이 할 때고. 따로 집에서 방아로 찧어서 하고. 가운덴 돌 이렇게 해서 돌확 놔서 빻아. 또 찰떡은 나무로 된 찰떡 빻는 것이 있지. (확 안 놔서) 나무함지박에라도 두껍게 된 거. '멧떡도고리' 해서 방앗공이로 해서 찰떡도 하고. 절편도 그것에 빻아서 '도레기'[77] 해서 집으면 절편 되고.

---

71) '산제'는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72) '짝그르다'는 두 개가 어울려 한 벌을 이루는 것의 짝이 맞지 않다는 말이다.
73) 현월선 구술.
74) 권옥열 구술.
75) 김효원 구술.
76) 현월선 구술.

• **떡 종류**

내일 멩질이여 허민 아침부터게 쏠 크곡 ᄆᆞᆫ 시작을 헤가사 헐 거주게. 정월 멩질 옛날엔 솔벤, 절벤, 중궤, 약궤, 우찍,[78] 시리떡도 헤사주게. 지름떡, 은절미, 송펜 허는 디도 하주게. 솔벤 절벤 허는 딘 드물곡. 그건 막 부제칩이나 똑 큰집이덜.[79] 기름떡은 지름에 지지는 거고. 그 우찍은 제일 우이 놓는 것이 우찍. (우찍은) 흰 쏠. (모양은) 지름떡 ᄀᆞ치. 그거 헤영 제일 우이 놓는 거. 기름떡은 별도로 허는 거. 겐디 저 정월 멩질은 지름떡은 안 헤봣어.[80] 제서 ᄀᆞ튼 때.[81]

내일 명질이다 하면 아침부터 쌀 몽땅 담그고 시작을 해가야 할 거지. 정월 명질 옛날엔 솔편, 절편, '중궤'[82], '약궤'[83], 웃기떡, 시루떡도 해야지. 기름떡, 인절미, 송편 하는 데도 많지. 솔편 절편 하는 덴 드물고. 그건 아주 부잣집이나 꼭 큰집들. 기름떡은 기름에 지지는 거고 그 웃기떡은 제일 위에 놓는 것이 웃기떡. (웃기떡은) 흰 쌀. (모양은) 기름떡 같이. 그거 해서 제일 위에 놓는 거. 기름떡은 별도로 하는 거. 그런데 저 정월 명질은 기름떡 안 해봤어. 제사 같은 때.

• **시리떡**

시리떡은 옛날에 치젠 허민이 쌀가루 놓곡 또 옆에 좁쌀가루. 흰쌀로만

77) '도레기'는 둥근 모양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둥그렇게 만든 떡반죽을 이르는 것 같다.
78) 김효원 구술.
79) 현월선 구술.
80) 김효원 구술.
81) 현월선 구술.
82) '중궤'는 좁쌀가루나 메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한다.
83) '약궤'는 메밀가루나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네모나게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낸 떡을 말한다. 집안에 따라 가운데 구멍을 뚫기도 한다.

허젠 허민 쏠 엇이난. (풋 놓곡) 그추룩 헤낫어. 경허곡 감저, 고구마ᄀᆞ루로 막 헤나고. (나록밧) 잇어도 풀젠 허민게 돈 날 곳이 엇이난 풀아야 돈 나올 거 아니? 쏠 졍 가야 풀아야.[84] (시리 치젠 허민) 시리 고냥 싹 막아야 주. 보릿ᄀᆞ루 물 놔근에 영 주막주막헤근에 싹 막주게. 짐 풍풍허민 똑 막곡.[85] 느젱이ᄀᆞ루나, 보리 까까나민 ᄀᆞ루가 나오주게. 그 보릿가루로 나오민 ᄀᆞ루 놧다근에[86] 나중에는 그 밀가루 이시난 헤도 그때는 그걸로 헷어.[87]

(시리떡 칠 땐) 게민 누게 와가민 오지 말렌 절로 돌앙 오렌 헤여. 누게 와가민 야 저 떡 앚진 딘 오지 말렌 헤라. 절로 돌앙 오렌 허나 이땅 오렌 허나. 게난 부억문 톡 문 더꺼 비어. 그때는이 낭불 허면 불이 골고루 안 허난 ᄒᆞᆫ 착 설곡 헌 거. 이제는 방엣간이 불이 골루. 게난에 떡 ᄒᆞᆫ 착은 멘도롱ᄒᆞᆫ 착은 푸는체로 막앗당.[88] 경허난 불이 와랑와랑 안 허니까 ᄒᆞᆫ 착은 익곡.[89] 경허곡 그때 짇을커도 경 시원치 안허난 불 때문에.[90] 경허난 사름 뎅긴 것에서 선 것이 아니고. 이제 욱앙 생각허난 불 골로로 안 간.[91] ᄆᆞᆫ 하간 디게 고냥들게 시랑시랑시랑.[92]

시루떡은 옛날에 찌려고 하면 쌀가루 넣고 또 옆에 좁쌀가루. 흰쌀로만 하려고 하면 쌀 없으니까. (팥 넣고) 그처럼 했었어. 그러고 감자, 고구마가루로 마구 했었고.

84) 김효원 구술.
85) 현월선 구술.
86) 김효원 구술.
87) 권옥열 구술.
88) 김효원 구술.
89) 권옥열 구술.
90) 김효원 구술.
91) 권옥열 구술.
92) 현월선 구술.

(논) 있어도 팔려고 하면 돈 날 곳이 없으니깐 팔아야 돈 나올 거 아니? 쌀 지고 가야 팔아야. (시루 찌려고 하면) 시루 구멍 싹 막아야지. 보릿가루 물 놔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싹 막지. 김 퐁퐁하면 꼭 막고. 나깨가루나, 보리 깎고 나면 가루가 나오지. 그 보릿가루로 나오면 가루 놨다가 나중에는 그 밀가루 있으니깐 해도 그때는 그걸로 했어.

(시루떡 찔 땐) 그러면 누구 오면 오지 말라고 저리로 돌아서 오라고 해. 누구 오면 야 저 떡 안친 덴 오지 말라고 해라. 저리로 돌아서 오라고 하나 이따가 오라고 하나. 그러니깐 부엌문 톡 문 닫아 버려. 그때는 나뭇불 하면 불이 골고루 안 하니깐 한 쪽 설고 한 거. 이제는 방앗간 불이 골고루. 그러니깐 떡 한 쪽은 따뜻한 쪽은 키로 막았다가. 그러니깐 불이 '와랑와랑'[93] 안 하니까 한 쪽은 익고. 그러고 그때 땔감도 그렇게 시원치 않으니깐 불 때문에. 그니깐 사람 다니는 것에서 선 것이 아니고. 이제 커서 생각하니깐 불 골고루 안 갔어. 몽땅 온갖 데 구멍들 '시랑시랑시랑'.

• 솔벤 · 절벤

재료가 솔벤이영 (절벤) 똑ᄀᆞ튼 거. 그 모냥만 틀리주. (절벤은) ᄊᆞᆯᄀᆞ루로 물반죽 쪼금 경 헤근에 시리에 놔근에 찌주게.[94] 그다음 이추룩 널른 디서게, 안반 닮은 디 비와놔근에 손으로 영영 쫙허게 페와놩[95] 막 달롸놔근에 솔벤은 기대로[96] 본으로 떠근에. 솔벤본은 영 반달짜리 (헤놘 다음에) 바드렝이 놓곡 솔입 ᄒᆞᆫ 징 놓곡 솔입 ᄒᆞᆫ 징 놓곡 허멍 찌는 거주.[97] 솔벤은 시쳥 다 지름에 미쳐근에 차롱에 놓곡.[98] (솔입은) 뽑아근에 시쳐근에[99]

93) '와랑와랑'은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94) 현월선 구술.
95) 김효원 구술.
96) 현월선 구술.
97) 김효원 구술.
98) 권옥열 구술.

쪄근에 ᄆᆞᆯ류왕 놔둬.[100] 그것도이 겨울에 뽑아야 뒈어.[101] 그 보딱이 엇어사 뒈주게. 그 소곱엣 것이 엇어야 깨끗하게 잘 뽑아져. 솔벤은 경 허고.[102]

(절벤은) 큰 솟디서 골호로 쪄근에 뻣아근에 영 누르뜨민 뒌 거고.[103] 절벤만 (멧떡도고리에서) 뻣아. 서이 시민 세 사름 세 방아로 찧고 둘리민 둘리만 헤근에 손 보는 사름 ᄒᆞ나 영 뒈싸놓멍 마께로 잘 뻣아야. 다 뒈어 갈 때[104] 뻣지 아녀민 그거 만들지 못허여. 맛 좋게 허젠. 치지 아녀민 떡이 뽄도 엇곡 떡이 메실메실[105], 푸석푸석헤근에. 그것이 찐득찐득헤야 헐 거난[106] ᄆᆞᆯ아근에 이만이 허민 그다음 떡국처럼 손으로 막 밀어야 뒈어. 잘 뒈민 이거 어울릴 때 벨라지지 아녀.[107] 손으로 그 홈마썩 영[108] 동글락허게 헤여놔근에 끊어근에 요추룩헌 거 두 개 똑 접아근에 부쪄야 절벤이주.[109] (게곡) 딱 누르뜨는 기계 잇저. 요만헌 절벤본 동그락헌 거 잇주게. (그걸로 눌렁) 그대로 더운물 헤근에 솖아근에 미시걸로 거려근에 언물에 확 시쳐근에 츰지름에 훈둘르민 부뜨지 아녕 차롱에 비우민 뒈는 거.[110]

재료가 솔편이랑 (절편) 똑같은 거. 그 모양만 다르지. (절편은) 쌀가루로 물반죽 조금 그렇게 해서 시루에 넣어서 찌지. 그다음 이처럼 넓은 데서, 안반 같은 데 비워놓

99) 현월선 구술.
100) 김효원 구술.
101) 권옥열 구술.
102) 현월선 구술.
103) 권옥열 구술.
104) 현월선 구술.
105) 김효원 구술.
106) 권옥열 구술.
107) 현월선 구술.
108) 권옥열 구술.
109) 김효원 구술.
110) 현월선 구술.

고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하게 펴놓고 마구 '달라놔서'[111] 솔편은 그대로 본으로 떠서. '솔벤본'[112]은 이렇게 반달모양처럼 (해놓고서 다음에) 겅그레 놓고 솔잎 한 층 놓고 솔잎 한 칭 놓고 하면서 찌는 거지. 솔편은 씻어서 다 기름에 무쳐서 채롱에 넣고. (솔잎은) 봅고 씻어서 찌고 말려서 놔둬. 그것도 겨울에 봅아야 돼. 그 '보딱'[113]이 없어야 되지. 그 속의 것이 없어야 깨끗하게 잘 봅혀. 솔편은 그렇게 하고.

(절편은) 큰 솥에서 골고루 쪄서 빻아서 이렇게 '누르뜨면'[114] 된 거고. 절편만 ('멧떡도고리'에서) 빻아. 셋 있으면 세 사람 세 방아로 빻고 둘이면 둘이만 해서 손보는 사람 하나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서 막대기로 잘 빻아야. 다 되어 갈 때 빻지 않으면 그거 만들지 못해. 맛 좋게 하려고. 빻지 않으면 떡이 모양도 없고 떡이 바실바실, 푸석푸석해서. 그것이 찐득찐득해야 할 거니깐 반죽해서 이만큼 하면 그다음 떡국처럼 손으로 마구 밀어야 돼. 잘 되면 이거 어울릴 때 벌어지지 않아. 손으로 그 조금씩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놔서 끊어서 요처럼한 거 두 개 꼭 집어서 붙여야 절편이지. (그리고) 딱 누르는 기계 있어. 요만한 '절벤본'[115] 동그란 거 있지. (그걸로 눌러서) 그대로 더운물 해서 삶아서 무엇으로 떠서 찬물에 확 씻어서 참기름에 두르면 붙지 않아서 채롱에 비우면 되는 거.

• 중궤 · 약궤

중궨 ᄒᆞ꼼 질고 약궤는 네귀방장. (하얀 쌀가루로) 솔벤이영 ᄀᆞ뜨게. (후라이판에) 쪄도 뒈곡 지져도 뒈고.[116] (약궨) 법환인 고망 안 ᄠᆞᆯ라. 어디 ᄠᆞᆯ르는 디도 잇어.[117] 건 부락마다 달라.[118]

---

111) '달루다'는 반죽 등이 되게 잘되도록 이리저리 섞으며 이긴다는 뜻이다.
112) '솔벤본'은 솔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쇠나 나무로 만든 반달 모양의 떡살을 말한다.
113) '보딱'은 솔잎에 붙어 있는 꼭지 따위를 말하는 것 같다.
114) '누르뜨다'는 아주 힘을 주어 누른다는 말이다.
115) '절벤본'은 절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동그란 모양의 떡살을 말한다.
116) 김효원 구술.

'중궤'는 조금 길고 '약궤'는 네모반듯해. (하얀 쌀가루로) 솔편이랑 같게. (후라이판에) 쪄도 되고 지져도 되고. ('약궤'는) 법환동은 구멍 안 뚫어. 어디 뚫는 데도 있어. 그건 마을마다 달라.

• 탕쉬

그다음 떡덜 다 헤 나민게[119] 채소영 묵이영게[120] (콩ᄂᆞ물하고) 고사리허고 옛날엔 탕쉬. 시금치 나중에사, 옛날엔 안 헤나고.[121] (채소는) 먹을 만썩 썰엉 물 삭삭 궤는 물이 좋아. (솖을 땐) 소금에 ᄒᆞ끔 버무렷당 헤사 카지지 아년덴 소금물에 솖앙 소쿠리에 건져. 찬물 (씻어 불민) 쎄어 불어.[122] 그냥 물 빠지민게 소곰 ᄒᆞ꼼 뿌령 꿰ᄀᆞ루 버무리곡 그걸로 끗.[123]

그다음 떡들 다 하고 나면 채소랑 묵이랑 (콩나물하고) 고사리하고 옛날엔 '탕쉬'[124]. 시금치 나중에야, 옛날에는 안 했었고. (채소는) 먹을 만큼씩 썰고 물 삭삭 끓는 물이 좋아. (삶을 땐) 소금에 조금 버무렸다가 해야 타지 않는다고 소금물에 삶아서 소쿠리에 건져. 찬물 (씻어 버리면) 세어 버려. 그냥 물 빠지면 소금 조금 뿌리고 깻가루 버무리고 그걸로 끝.

---

117) 현월선 구술.
118) 김효원 구술.
119) 현월선 구술.
120) 김효원 구술.
121) 현월선 구술.
122) 권옥열 구술.
123) 김효원 구술.
124)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등 갖은 채소를 삶아 참깨나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을 말한다.

• **묵**

옛날에 무사 묵을 헤신고? 꼭 묵을 헤낫주게. 엿날엔 쏠도 엇곡 허난에 딱 묵 ᄒᆞ나 허곡 채소 헤근에 제서를 지내낫젠. 게난 그 묵을 꼭 헤야 뒌덴 허는 거라. 이제 막 먹을 것이 하놓난 벨거 다 헤놓난. 엿날엔 그 먹을 거 엇인 땐 묵만 헹 헤낫젠. 떡도 안 허고 딱 묵만 헤.[125] 모물가루로 헤근에 지지는 것도 잇고 쑤는 것도 잇고. 청묵도 잇곡 세 가지라.[126] 모물썰로 헹 아무거라도 한 가지. 떡 안 헤도 묵은 헤야.[127]

난 멩질 때는이 청묵만 헤연.[128] (청묵 허는 게) 힘들어. 그거 짜젠 허민 맞촤야. 막 (물) 짜사 거 튼물추룩 그걸 뒈게시리.[129] 찰리 헤근에 막 짜야 뒈.[130] 초불 헌 건 영 들르민 영 질겨 풀풀허주.[131] 두 불도 쪼금 경 허여. 세 번 허민 딱 좋아. 세 번 넘어 헤가민 그 묵이 얇아. 경허민 묵이 안 뒈어. 물이 ᄒᆞ꼼 연허다 헤가믄 허지 말아야. 세 번벳긴 난 안 허여.[132] 쑤는 것도 오래 잘 쒀사주. 경 아녀민 게실게실헤비어. (묵 쑬 때) 옛날 밥자게. 엿날엔 남죽이엔 헤근에 긴 거게. (불은) 낭이라도 ᄀᆞᆫ는 거.[133] 낭불 말고 옛날에 솔입으로도 허곡 소낭가젱이 그런 걸로도 허곡. 막 젓어근에 불탁불탁불탁허민 무신 차판 널른 것에 헤영 비웟다근에 떡헌 날 아척 허민 저냑 둣날 아척 멩질 허젠 보민 트랑트랑헤근에 썰어근에. 쑤는 묵은 그냥 팔탁팔탁팔탁 쑤어근에게 그것도 차판 ᄀᆞ튼 디 영 놧당 허민 그거

125) 김효원 구술.
126) 김효원 구술.
127) 현월선 구술.
128) 김효원 구술.
129) 현월선 구술.
130) 김효원 구술.
131) 현월선 구술.
132) 김효원 구술.
133) 현월선 구술.

식으민 칼로 썰엉. 저 반죽 잘 못 허민 실패가 조금 잇어. (게난) 반죽을 딱 맞게 헤야 뒈어. 묵도 다섯 개 꿰어.[134] 그거 꿰엉 엿날에 그거 적고지 무신 고젱이에 꿰엉 궈낫어이.[135] 엿날은 돌로 뒌 거, 화로, 화리에 꿉주게.[136]

(지지는 묵은) 후라이판에게.[137] 모물카루 영 카근에 반죽헤근에 비와근에 요새 부침개 허듯 경 헹 써는 거주게. 춤 모밀묵 아이덜토 영 양념간장 헹 주민 그추룩 맛 좋게 먹는 따문. 딴 묵은 지지나 무시거 헌 묵들은 안 먹어. 청묵 허민 아이덜 다 먹어. 그추룩 헤난 청묵만 막 헤낫저.[138]

옛날에 왜 묵을 했는가? 꼭 묵을 했었지. 옛날엔 쌀도 없고 하니깐 딱 묵 하나 하고 채소 해서 제사를 지냈었다고. 그러니깐 그 묵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제 아주 먹을 것이 많아 놓으니깐 별것 다 해 놓으니깐. 옛날엔 그 먹을 거 없을 땐 묵만 해서 했었다고. 떡도 안 하고 딱 묵만 해. 메밀가루로 해서 지지는 것도 있고 쑤는 것도 있고. '청묵'[139]도 있고 세 가지야. 메밀쌀로 해서 아무거라도 한 가지. 떡 안 해도 묵은 해야.

난 명질 때는이 '청묵'만 했었어. ('청묵' 하는 게) 힘들어. 그거 짜려고 하면 맞춰야. 마구 (물) 짜야 거 뜨물처럼 그걸 되게끔. 자루 해서 마구 짜야 돼. 초벌 한 건 들면 이렇게 질어서 '풀풀하지'[140]. 두 벌도 그렇게 해. 세 번 하면 딱 좋아. 세 번 넘어 해가면 그 묵이 얇아. 그러면 묵이 안 돼. 물이 조금 연하다 해가면 하지 말아야. 세

134) 김효원 구술.
135) 현월선 구술.
136) 김효원 구술.
137) 현월선 구술.
138) 김효원 구술.
139) '청묵'은 메밀쌀을 물에 불린 후 주물러 짠 물을 끓여 만든 묵을 말한다.
140) '풀풀허다'는 음식에 풀기가 있어 국이나 죽 따위가 되고 차지다는 말이다. 달리 '폴폴허다'라고도 한다.

번밖엔 난 안 해. 쑤는 것도 오래 잘 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게실게실'[141] 해 버려. (묵 쑬 때) 옛날 밥주걱. 옛날엔 죽젓개라고 해서 긴 거. (불은) 나무라도 가는 거, '낭불'[142] 말고 옛날에 솔잎으로도 하고 소나뭇가지 그런 걸로도 하고. 마구 저어서 '불탁불탁불탁하면'[143] 무슨 채반 넓은 것에 해서 비웠다가 떡하는 날 아침 하면 저녁 뒷날 아침 명질 하려고 보면 '트랑트랑해서'[144] 썰어서. 쑤는 묵은 그냥 '팔탁팔탁팔탁' 쒀서 그것도 채반 같은 데 이렇게 놨다가 하면 그거 식으면 칼로 썰어서. 저 반죽 잘못하면 실패가 조금 있어. (그러니깐) 반죽을 딱 맞게 해야 돼. 묵도 다섯 개 꿰어. 그거 꿰어서 옛날에 그거 적꼬치 무슨 꼬챙이에 꿰어서 구웠었어. 옛날은 돌로 된 거, 화로, 화로에 굽지.

(지지는 묵은) 프라이팬에. 메밀가루 이렇게 타서 반죽해서 비워서 요새 부침개 하듯 그렇게 해서 써는 거지. 참 메밀묵 아이들도 이렇게 양념간장 해서 주면 그처럼 맛좋게 먹기 때문. 다른 묵은 지지나 무엇 한 묵들은 안 먹어. '청묵' 하면 아이들 다 먹어. 그처럼 했었으니깐 '청묵'만 마구 했었어.

• 감주

보리로 싹 틔와근에 요만씩 싹 트민 그거 ᄆᆞᆯ류와. 경헤근에 ᄀᆞ레에 ᄀᆞᆯ든 뭐헤여근에 또루 히린좁쌀 밥헤근에 골 서꺼근에. 밥 ᄒᆞ꼼 식으민 서꺼근에 놔두민 ᄒᆞ꼼 보골보골보골 ᄒᆞ룻밤 자가민 나와. 경 허민 그거 걸러근에 딸려근에 가민게 감주게. 노리롱허게시리 헤근에 폴폴허게 허민 먹으민 그렇게 ᄃᆞᆯ아. 막 ᄒᆞᆫ 스물네 시간 둣날까지 딸리민 엿 뒈불곡. 그거 중간에 영 맛 보멍 감주 뒈민 그걸로 헤여근에 상에도 올려.[145] 굿헐 때도 허곡.

141) '게실게실'은 끈기가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고 흐트러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42) '낭불'은 나무로 때는 불을 말한다.
143) '불탁불탁불탁허다'는 죽이나 가루를 물에 풀어 끓을 때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144) '트랑트랑허다'는 묵 따위가 잘 굳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큰 미시거 제지낼 땐 똑 헤야, 술, 소주보담[146] 정성으로 만든 거난 감주 우선게. 이젠 감주 대신 허는 거 꼭 환타 안네여. (세배 오민 감주) ᄒᆞᆫ 잔썩 주기도 허고.[147] 감주도 어룬덜이난 그때 줘주, 아이들은 안 줘어. 어류왕 덜 쓸 걸로만 펭에 질어근에.[148]

보리로 싹 틔워서 요만큼씩 싹 틔우면 그거 말려. 그래서 맷돌에 갈든 뭐해서 따로 차좁쌀 밥해서 엿기름 섞어서. 밥 조금 식으면 섞어서 놔두면 조금 보글보글 하룻밤 자면 나와. 그렇게 하면 그거 걸러서 달여서 가면 '감주'[149]. 노랗게끔 해서 '폴폴하게' 하면 먹으면 그렇게 달아. 마구 한 스물네 시간 뒷날까지 달이면 엿 돼 버리고. 그거 중간에 이렇게 맛 보면서 '감주' 되면 그걸로 해서 상에도 올려. 굿할 때도 하고. 큰 무슨 제지낼 땐 꼭 해야, 술, 소주보단 정성으로 만든 거니깐 '감주' 우선. 이젠 '감주' 대신 하는 거 꼭 환타 드려. (세배 오면 '감주') 한 잔씩 주기도 하고. '감주'도 어른들이니깐 그때 줬지, 아이들은 안 줬어. 어려워서들 쓸 것으로만 병에 길어서.

- **식혜**

난 식혜 헤난. 쌀밥으로 허는 거. 식혜도게 골 헤근에, 밥헤근에게 서껑 밥통에 보온으로 놩은에 ᄒᆞᆫ 멧 시간 이시민 ᄉᆞᆯ이 ᄒᆞ나씩 올라와. 쌀 ᄒᆞᆫ 일곱ᄋᆞ답 방울 올라오민 그거 걸러근에 그냥 식혜 헤여근에 잣이나 ᄒᆞ나씩 놓곡 허민 시콤ᄃᆞᆯ콤허주게. 설탕 좀 놔야 뒈. 감주는 딸리는 거고 식혜는 그대로.[150] ᄉᆞᆯ, 밥 ᄒᆞ꼼 들어도 좋아.[151]

---

145) 김효원 구술.
146) 현월선 구술.
147) 김효원 구술.
148) 현월선 구술.
149) '감주'는 엿기름 우린 물에 좁쌀밥을 넣어 만든 음료다. 제주도는 이 '감주'를 만들어 제사, 명절 때 제주로 사용하였다.

난 식혜 했었어. 쌀밥으로 하는 거. 식혜도 엿기름 해서, 밥해서 섞어서 밥통에 보온으로 놔서 한 몇 시간 있으면 쌀이 하나씩 올라와. 쌀 한 일고여덟 방울 올라오면 그거 걸러서 그냥 식혜 해서 잣이나 하나씩 넣고 하면 새콤달콤하지. 설탕 좀 넣어야 돼. '감주'는 달이는 거고 식혜는 그대로. 쌀, 밥 조금 들어도 좋아.

• **멩질옷**

옷토 남저 이신 딘 양복 멘드는 디, 동동네. 우리 어무닌 미리 가을에 미녕 짜근에 검은물 들영 양복칩이 강 메껴근에 (우리 오빠네) 양복 헤도렌 헨. (남자 어룬덜은) 검은 두루막[152], 솜 놩 저고리도 만들곡.[153] 우리 하르방 멩질 때 허민 두루막이곡 바지고 저고리 장만헤영 멩질 돌아와가민 동전을 저구리도 들아야지 두루막도 들아야지 그추룩 허젠 허민이 것도 완전 신경 써져. 겡 나 동전 사레 법환이 엇이민 서귀포 사레 멧 번 가왓어.[154] 영 홉치 멧 개 사당 놔두람서. 그거 열 개도 담아지고 다섯 개도 담아지고.[155]

옷도 남자 있는 데는 양복 만드는 데, 동동네. 우리 어머닌 미리 가을에 무명 짜서 '검은물'[156] 들여서 양복집에 가서 맡겨서 (우리 오빠네) 양복 해달라고 했어. (남자 어른들은) 검은 두루마기, 솜 넣어서 저고리도 만들고. 우리 '하르방'[157] 명절 때 하면 두루마기고 바지고 저고리 장만해서 명절 돌아오면 동정을 저고리도 달아야지 두루마

150) 김효원 구술.
151) 현월선 구술.
152) 현월선 구술.
153) 권옥열 구술.
154) 김효원 구술.
155) 현월선 구술.
156) '검은물'은 검은 빛이 들게 하는 물감을 말한다.
157) '하르방'은 여기서 구술자의 남편을 말한다.

기도 달아야지 그처럼 하려고 하면 것도 완전 신경 쓰여. 그래서 내가 동정 사러 '법환'에 없으면 서귀포 사러 몇 번 갔다왔어. 이렇게 한 번에 몇 개 사다가 놔두고서. 그거 열 개도 담기고 다섯 개도 담기고.

(2) 진설하기

• 상 싱그기

떡허고게[158] 과일허고 적갈 ᄀᆞ튼 거 ᄆᆞᆫ저 올리주게.[159] 옛날도 과일은 사과, 배 헷어게? 기자 미깡이나 올리곡 겅 헷주게. 미깡 엇인 땐이 벤줄도 잇고 댕우지도 잇고 그런 거 올렷주게. 그 집집마다 벤줄, 댕우진 잇어낫주게. (생선) 이 창지 잇는 디로[160] 영 허영 가르쌍. ᄎᆞ례로 채소 놓고 허민 뒐 거.[161] (탕쉬는) 보시에. 엿날엔 (채소 위에 묵) 딱지 조금씩 놔낫주만 이제는 안 놔. 우린 두부로 기자 묵 헤당 놓곡.[162] 묵은 ᄯᅳ로 놔 (묵만 썰엉 ᄒᆞᆫ 보시) 아니 올려. 동더렌 경 헌덴 헨게 이렌 경 안 헤.[163]

떡하고 과일하고 적 같은 거 먼저 올리지. 옛날도 과일은 사과, 배 했어? 그저 귤이나 올리고 그렇게 했지. 귤 없을 땐 병귤도 있고 당유자도 있고 그런 거 올렸지. 그 집마다 병귤, 당유자는 있었었지. (생선) 이 창자 있는 데로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차례로 채소 놓고 하면 될 거. ('탕쉬'는) 보시기에. 옛날엔 (채소 위에 묵) '딱지'[164] 조금씩

158) 김효원 구술.
159) 현월선 구술.
160) 김효원 구술.
161) 현월선 구술.
162) 현월선 구술.
163) 김효원 구술.
164) '딱지'는 묵을 잘게 썰고서 보시기에 넣은 채소 위에 올리는 묵 점을 말한다.

놨었지만 이제는 안 놔. 우린 두부로 그저 묵 해다가 놓고. 묵은 따로 놔. (묵만 썰어서 한 보시기) 안 올려. 동쪽엔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

• 멩질떡 괴기

(시리떡) 빗으로 베주게. 네 빗.[165] 양펜이 요멘씩 헌 것들은 ᄉᆞ뭇 거기서 앚인 사름덜 ᄆᆞᆫ 먹구정 헨 먹곡 헷주게. 옆엣 징이엔 헤근에 기자 깨는깨는 헌 것들게 (베곡).[166] (시리) ᄒᆞᆫ 징, 두 징, 석 징, 넉 징은 뭴 거라. ᄒᆞᆫ 징에 네 개 나와. 칼 맞아 불민 ᄋᆞ답 빗, 열여섯 빗 나오주게. 그축허민 ᄒᆞᆫ 시리 허는 거주게. 그난 양쪽만 짤르민 고웁게 뒈주게.[167] (떡 궬 땐) 시리떡, 그다음은 절벤 놓고 솔벤.[168] 솔벤이 세 개, 양쪽에이.[169] (그 우로) 우찍 놓곡.[170]

(시루떡) '빗'[171]으로 베지. 네 '빗'. 양편에 요만큼씩 한 것들은 사뭇 거기서 앉은 사람들 모두 먹고자 해서 먹고 했지. 옆의 '징'이라고 해서 그저 가늘가늘한 것들게 (베고). (시루)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은 될 거야. 한 층에 네 개 나와. '칼 맞아' 버리면 여덟 '빗', 열여섯 '빗' 나오지. 그처럼 하면 한 시루 하는 거지. 그러니깐 양쪽만 자르면 곱게 되지. (떡 굘 땐) 시루떡 그다음은 절편 놓고 솔편. 솔편이 세 개 양쪽에. (그 위로) 웃기떡 놓고.

---

165) 현월선 구술.
166) 김효원 구술.
167) 현월선 구술.
168) 김효원 구술.
169) 현월선 구술.
170) 김효원 구술.
171)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를 세는 말이다.

• **모세**

고사리 똑 세 겁 (모세 접시에) 놔근에 꼭 올려. 새껍으로 올리는 사름 잇곡 미깡낭썹으로 허는 사름 잇고. 우린 굽 막 노픈 거 고사리 기자 세 겁 놔근에.[172] 씨집이 간 보난 우리 씨어멍 미강낭썹 세 개 헤당 딱 시쳐둬 근에 허곡. 우리 어무닌 엿날에 두린 때 보난 새껍으로 헤라, 놋그릇에.[173]

고사리 꼭 세 겹 (모사 접시에) 놓아서 꼭 올려. '새껍'[174]으로 올리는 사람 있고 귤나뭇잎으로 하는 사람 있고. 우린 굽 아주 높은 거 고사리 그저 세 겹 놔서. 시집에 가서 보니깐 우리 시어머니 귤나뭇잎 세 개 해다가 딱 씻어둬서 하고. 우리 어머닌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깐 '새껍'으로 하더라, 놋그릇에.

(3) 차례

• **차례 지내기**

우리 집만 제일 문저 허난 우리 집이 왕 밥 먹고 딴 딘 밥 안 먹어.[175] 중간이 가민 절만 헤근에 기자 남저 어룬덜은 술이나 혼잔썩 헤영 가곡. 막 끗뎃 집이 강 밥 또 먹곡. 마지막 집인 정심 뒈어. 제지내고 허민.[176] 집이 오민 밥 다 출리젠 허민 복잡헤 이젠 딱 이녁만썩 헤나민 좋아. 영 가지론 우리가 종손칩이주. (종손칩인) 마지막 허는디 (멩질 ᄀᆞ치 먹는 사름덜) 팔촌, 구촌. ᄉᆞ춘 육촌도 엇곡.[177] 엿날엔 권당들 하불민이 마리엔

172) 김효원 구술.
173) 현월선 구술.
174) '새껍'은 띠 줄기나 줄기의 낱개를 일컫는 말이다.
175) 김효원 구술.
176) 현월선 구술.
177) 김효원 구술.

어룬덜 앚곡 마당에 멍석 끌앙 아이덜이영.[178]

우리 집만 제일 먼저 하니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다른 덴 밥 안 먹어. 중간에 가면 절만 해서 그저 남자 어른들은 술이나 한 잔씩 해서 가고. 아주 끝의 집에 가서 밥 또 먹고. 마지막 집은 점심 돼. 제지내고 하면. 집에 오면 밥 다 차리려고 하면 복잡해 이젠 딱 이녁만큼씩 하고 나면 좋아. 옛날엔 권당들 많아 버리면 마루엔 어른들 앚고 마당에 멍석 깔아서 아이들이랑.

• 멩질 반

멩질날 반 문 주주게.[179] 남저 ᄒᆞ끔 젊은 사름덜 기자 제지내 나민 그거 ᄂᆞ류와 오민 다 썰멍 정반에 다 놩 태우주게. 절벤 ᄒᆞ나, 솔벤 ᄒᆞ나, 침떡 꺼껑 놓곡 적갈 ᄒᆞ나,[180] 생선게 요멘썩[181] 끊엉 놓곡. 경허곡 채소도 주곡.[182] 건 먹을 거게, ᄒᆞ썰 먹을 거.[183]

명질날 반기 모두 주지. 남자 조금 젊은 사람들 그저 제지내고 나면 그거 내려와서 오면 썰면서 쟁반에 다 넣어서 나누지. 절편 하나, 솔편 하나, 시루떡 꺾어서 놓고 적 하나, 생선 요만큼씩 끊어서 넣고. 그러고 채소도 주고. 건 먹을 거, 조금 먹을 거.

(4) 세배

178) 현월선 구술.
179) 김효원 구술.
180) 현월선 구술.
181) 김효원 구술.
182) 현월선 구술.
183) 김효원 구술.

옛날 두루막 입곡 아이덜 색동저고리 입어근에 (세배 오곡).[184] (세뱃돈은) 떡 주민 뒈주게. 옛날엔 나 아이덜 세 개난이 동창들 ᄆᆞᆫ 오곡이. 원, 원 영 앚일 틈이 엇어낫어. (먹을 거) 줘사주게, 밤새 낭 식혜 헷다근에 식혜 ᄆᆞᆫ 주곡게. 우리 세대엔 감주벳긴 엇고. 무시거 먹을 거 ᄯᅳ로ᄯᅳ로 헤근에 먹으라, 먹으라 허민이 먹엉 갈 때도 잇곡. 안 먹엉 가는 아이도 잇고.[185] 세배만 헤둰 가는 아이들 잇고. (상식 허는 집은) 멩질 끗나민 그디부떠 절헤야주게. (세밴) ᄉᆞ나이덜만 갓주게. 여자덜은 뎅겨나지 안헷주게. 엿날은 멀엉 웬만허민 걸엉 가는 따문[186] 처가칩이 석 달 후에도 가곡 경 헤낫주게. (이젠) 세배 일절 안 뎅견 네 시 뒈민 부락 사무실에 가근에[187] 어룬덜 모셔근에 모영 홈치. 이젠 사름덜 하지 아녀난.[188] 우리 법환인 매해 헴서.[189]

옛날 두루마기 입고 아이들 색동저고리 입어서 (세배 오고). (세뱃돈은) 떡 주면 되지. 옛날엔 내 아이들 세 개니깐 동창들 모두 오고. 원, 원 이렇게 앉을 틈이 없었었어. (먹을 거) 줘야지, 밤새 내내 식혜 했다가 식혜 모두 주고. 우리 세대엔 '감주'밖엔 없고. 무엇 먹을 거 따로따로 해서 먹어라, 먹어라 하면 먹고서 갈 때도 있고. 안 먹고 가는 아이도 있고. 세배만 해두고서 가는 아이들 있고. (상식 하는 집은) 명질 끝나면 거기부터 절해야지. (세밴) 사나이들만 갔지. 여자들은 다니지도 않았지. 옛날은 멀어서 웬만하면 걸어서 가기 때문 처갓집에 석 달 후에도 가고 그렇게 했었지. (이젠) 세배 일절 안 다녀서 네 시 되면 마을 사무실에 가서 어른들 모셔서 모여서 함께. 이젠 사람

184) 현월선 구술.
185) 김효원 구술.
186) 현월선 구술.
187) 김효원 구술.
188) 현월선 구술.
189) 김효원 구술.

들 많지 않으니깐. 우리 '법환동'은 매해 하고 있어.

2) 당제

당엔 가주게. 일 년에 대개 두 번 아니민 세 번. (일월에 한 번 가고) 칠월에 가곡[190] (음력) 유월에,[191] 구월에 가고. 일뤳날. 칠일, 십칠일, 이십칠일. 대개 그때가 뒈주게. 앞이부터 가고 일뤠, ᄋᆞ드레 가고. 경 헹 세 밧딘 다 심방 앚아낫주게. (이젠 세 개 합쳐근에) 앞이 가민 다 따로 잇주게. ᄒᆞᆫ 이십 년 뒈실 거여.[192]

당엔 가지. 일 년에 대개 두 번 아니면 세 번. (일월에 한 번 가고) 칠월에 가고 (음력) 유월에, 구월에 가고. 이렛날, 칠일, 십칠일, 이십칠일. 대개 그때가 되지. '앞'[193]에부터 가고 '이레'[194], '여드레'[195] 가고. 그렇게 해서 세 곳은 다 심방 앉았었지. (이젠 세 개 합쳐서) '앞'에 가면 다 따로 있지. 한 이십 년 됐을 거야.

- **제물**

밥허곡 고기허곡 과일, 돌레떡 허는 사름은 허여도[196] 이젠 법환인 잘

190) 현월선 구술.
191) 김효원 구술.
192) 현월선 구술.
193) '앞'은 서귀포시 법환동의 본향당으로 '앞당'을 이르는 말이다. 이를 달리 '본향'이라고도 한다.
194) '이레'는 서귀포시 법환동의 당 가운데 하나로 '일뤳당'을 말한다. 이 당은 1월, 음력 6월과 9월 7 · 17 · 27일에 다니는 곳으로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하는 여성신이 좌정해 있다.
195) '여드레'는 서귀포시 법환동의 당 가운데 하나로 '여드렛당'을 말한다. 이 당은 매월 8 · 18 · 28일에 찾아가는 당을 말한다.
196) 김효원 구술.

안 허여. 우리 본향이 뎅길 때도 (이젠 감주 대신) 환타게.[197] 계란도 허여 아이덜 클 때 막 부스럼덜 나근에이. 막 ᄋᆞ름에 뜸띠도 나곡[198] 허물덜 나곡 경헌 사름덜.[199] 그런 거 계란 허영 올려근에 심방 이시민 경 ᄀᆞᆯ으민 빌어주곡.[200]

밥하고 고기하고 과일, 도래떡 하는 사람은 해도 이젠 '법환동'은 잘 안 해. 우리 '본향'에 다닐 때도 (이젠 '감주' 대신) 환타. 계란도 해. 아이들 클 때 마구 부스럼들 나서. 마구 여름에 땀띠도 나고 허물들 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거 계란 해서 올려서 무당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빌어주고.

3) 정월대보름

액막이허는 건 우린 절간으로 강 허주게. (허제비 만들아근에 액막는 거) 엿날에 헤낫어. 나도 막 헤낫어. 점지레 가민 허렌 허민 허주. 옛날엔 점지레도 잘 뎅겻어. 아이 다섯 개 키우젠 허난이 제주도 다 돌멍 점지레 가멍 막 놈들은 굿덜토 허곡 막 허는디이.[201] 사름이 아팡 죽어가곡 허나 미시거 점지엉 굿허렌 허민 허곡게.[202]

액막이하는 건 우린 절에 가서 하지. (허수아비 만들어서 액막는 거) 옛날에 했었어. 나도 마구 했었어. 점치러 가면 하라고 하면 하지. 옛날엔 점치러도 잘 다녔었어. 아이

197) 현월선 구술.
198) 김효원 구술.
199) 현월선 구술.
200) 김효원 구술.
201) 김효원 구술.
202) 현월선 구술.

다섯 개 키우려고 하니깐 제주도 다 돌면서 점치러 가면서 마구 남들은 굿들도 하고 마구 하는데.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고 하니까 무엇 점쳐서 굿하라고 하면 하고.

• **연날리기**

아이덜 엿날에 연날리기 막 헷주게.[203] 정월대보름 ᄀᆞ비에 허는 거주.[204]

아이들 옛날에 연날리기 마구 했지. 정월대보름 즈음에 하는 거지.

4) 포제

포제 일 년에 ᄒᆞᆫ 번 지금도 헤여. (칠십, 팔십년대에) 엇어지지 안헨. 우리가 그 전이부떠 허난 계속이주.[205] 마을제 전통이라.[206] (포젠) 일월달. (제관은) 결혼 두 번 헌 사름 아니고 (부락에서) 다 지정헤여근에. (여자는) 안 가는 거. (제물은) 뒈지대가리, 뒈지 ᄒᆞ나 잡앙 ᄂᆞᆯ차 허지 안헤신가? 다른 것도 ᄂᆞᆯ차.[207]

포제 일 년에 한 번 지금도 해. (칠십, 팔십년대에) 없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그 전에부터 하니깐 계속이지. '마을제'[208] 전통이야. (포제는) 일월. (제관은) 결혼 두 번 한

203) 현월선 구술.
204) 김효원 구술.
205) 김효원 구술.
206) 권옥열 구술.
207) 현월선 구술.
208) '마을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택일하여 지내는 유교식 제의를 말한다. 달리 '포제'라고 한다.

사람 아니고 (마을에서) 다 지정해서. (여자는) 안 가는 거. (제물은) 돼지머리, 돼지 하나 잡아서 날짜 하지 않았는가? 다른 것도 날짜.

• 몸 정성

ᄒᆞᆫ 일주일 살 거난에. 지금은 삼일벳기 안 살암주만은 엿날은 일주일 살앗주게. 제 지내는 디가 아니고 딴 집 빌엉. 경 아녀민 가빠로 짓어근에. 이젠 마을훼관에서 ᄎᆞᆯ려근에 자곡[209] 시간 뒈민 (포젯단) 올라강.[210] (제복도) 마을에서 보관혜근에 그때 뒈민 입곡 헴주게.[211] 거난 ᄒᆞᆫ 번은 나도 정기 지젼에 가곡. 정기떡도 짓곡 솔라니 궈근에 그거 간식으로 보내주게. 솔라니 궈근에 조창 먹게 겅헤야 맛잇주게. (밥은) 허는 사람 솟밋할망이 잇주게. ᄎᆞᆯ리는 사람이 따로 잇주게. 지정허는 사람이 잇어. 메 허는 사름이 잘허난에 기냥 빌엉. (솟밋할망은) 솟밋디서, 부억에서 허는 사름.[212]

한 일주일 살 거니깐. 지금은 삼일밖에 안 살고 있지만 옛날은 일주일 살았지. 제지내는 데가 아니고 다른 집 빌려서. 그렇지 않으면 '가빠'[213]로 지어서. 이젠 마을회관에서 차려서 자고 시간 되면 (포젯단) 올라가서. (제복도) 마을에서 보관해서 그때 되면 입고 하고 있지. 그러니깐 한 번은 나도 '정기'[214] 지져서 가고. '정기떡'도 지지고 옥돔 구워서 그거 간식으로 보내지. 옥돔 구워서 '조차서'[215] 먹게끔 그래야 맛있지.

---

209) 김효원 구술.
210) 현월선 구술.
211) 김효원 구술.
212) 현월선 구술.
213) '가빠'는 비나 바람,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을 말한다.
214) '정기'는 메밀가루를 얇게 지져서 그 안에 삶은 무채를 넣어서 만든 음식을 말한다. 달리 '빙떡', '정기떡'이라고도 한다.
215) '조치다'는 아우르거나 겸하다는 의미로 끼니를 먹을 때 밥과 함께 조치개로 반찬을

(밥은) 하는 사람 '솟밋할망'[216]이 있지. 차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지정하는 사람이 있어. 메 하는 사람이 잘하니깐 그냥 빌려서. ('솟밋할망'은) 솥밑에서, 부엌에서 하는 사람.

• **금기**

제지내는 디 금줄 막 쳐야주. (사름) 못 뎅기게 젯단만.[217] 옛날엔 노인정이서 헤낫젠 허민 노인정 요 올레에 딱 그거 헤낫주게. 정성으로 허는 거난게.[218] 새끼줄로, 찍으로.[219] 웬쪽으로 꼬이곡 또 미깡낭 헤당 문 트멍으로 꽂이곡. 미깡낭썹, 이파리. 촌흑 헤다근에 문 뿌리곡. 영헤근에 찍으로 끌아근에 촌흑 뿌리곡 경 헌덴. 젯단에 그거 문 부정헌 거 물러가렌 부정 타지 말게 허는 거.[220]

제지내는 데 금줄 마구 쳐야지. (사람) 못 다니게 젯단만. 옛날엔 노인정에서 했다고 하면 노인정 요 오래에 딱 그거 했었지. 정성으로 하는 거니깐. 새끼줄로, 짚으로. 왼쪽으로 꼬고 또 귤나무 해다가 몽땅 틈으로 꽂고, 귤나무잎, 이파리. 찰흙 해다가 몽땅 뿌리고. 이렇게 해서 짚으로 깔아서 찰흙 뿌리고 그렇게 하던데. 제단에 그거 몽땅 부정한 거 물러가라고 부정 타지 말게 하는 거.

먹다라는 뜻이다.

216) '솟밋할망'은 포제 등 마을의 큰일 때 제물을 마련하는 등 음식과 관련하여 주관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음식 솜씨가 좋은 여성 주민이 담당한다고 한다.

217) 현월선 구술.

218) 김효원 구술.

219) 현월선 구술.

220) 김효원 구술.

5) 안택

일 년에 한 번은 똑 허주. 정월에 헤영 동네, 권당칩이 영장 나민, 날이 엇이민 이월에도 허곡, 삼월에도 허고. 안택[221] 옛날에 허여낫주게.[222]

일 년에 한 번은 꼭 하지. 정월에 해서 동네, 권당의 집안에 영장 나면, 날이 없으면 이월에도 하고, 삼월에도 하고. '안택'[223] 옛날에 했었지.

• 칠성제

법환인 잘 엇어. (우연에) 주젱이 (씌왕) 이런 디도 잇어낫어. 이 동네 사름도 잇곡 웨방서 온 사름도 잇고.[224]

법환동은 잘 없어. (터앝에) 주저리 (씌워서) 이런 데도 있었었어. 이 동네 사람도 있고 외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 문전제 · 조왕제

문전젠 제사 때마다, 아이덜 클 때게, 시험볼 때,[225] 군인갈 때,[226] 그럴 때에만 헷주. 난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땐이 미깡 타당 왕도 문제서 나냥으로 막 절허멍 빌어낫어.[227] 촛불만 켜근에이. 이녁 쏘곱으로 입담허멍게. 어멍은

221) 현월선 구술.
222) 김효원 구술.
223) '안택'은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무당을 모셔서 집을 지켜주는 신들을 위해 하는 굿을 말한다. 안택 날은 보통 정월 중 좋은 날을 택하였다.
224) 현월선 구술.
225) 김효원 구술.
226) 현월선 구술.
227) 김효원 구술.

ᄆᆞ음 정성으로[228] 문전이서 기자 찬물 떠놔근에 대학시험 보레 갈 아척도 허곡, 저냑에도 허곡. 옛날에 그추룩 시험보젠 허민 부억에 우리 똑 불 싸. 부억에 조왕할망이 잇주게. 경허민 꼭 싸져. 이제도 그런 사름덜 이실 거라.

'문전제'[229]는 제사 때마다, 아이들 클 때, 시험볼 때, 군대갈 때, 그런 때에만 했지. 난 아이들이 대학 갈 땐 귤 따다가 와서도 문전에서 나대로 마구 절하면서 빌었었어. 촛불만 켜서. 이녁 속으로 입담하면서. 어머니는 마음 정성으로 문전에서 그저 찬물 떠놔서 대학시험 보러 갈 아침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옛날에 그처럼 시험 보려고 하면 부엌에 우리 꼭 불 켜. 부엌에 '조왕할망'[230]이 있지. 그러면 꼭 켜. 이제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6) 걸궁

옛날에 걸궁헤낫주게. 그거 궂인 액 막아도렌 헤가멍 집집마다 뎅기멍 ᄉᆞ뭇 막 술 뿌리곡이. 집이 막 펜안허게 헤주렌 허멍 그추룩 헤낫어. (주인집이선) 돈도 주곡 ᄉᆞᆯ로도 주곡 미시거 막걸리도 주고.[231] 어릴 때만 허고 사삼사건 후론 베랑 안 헤실 거라. 해마다 헤신디.[232] 애기 난 때ᄁᆞ진 헷주. 이젠 다 옛날 거 엇어져 비언. 저 어룬덜이 돌아가 분 후젠이.[233]

옛날에 걸립했었지. 그거 궂은 액 막아달라고 해가면서 집마다 다니면서 사뭇 마구

228) 현월선 구술.
229) '문전제'는 제사나 명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230) '조왕할망'은 집안의 부엌을 관장하는 여신을 말한다.
231) 김효원 구술.
232) 현월선 구술.
233) 김효원 구술.

술 뿌리고. 집 아주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처럼 했었어. (주인 집에선) 돈도 주고 쌀로도 주고 무엇 막걸리도 주고. (걸립하는 집은 안 좋은 것이 사라지는 거) 그때 그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었지. 어릴 때만 하고 사삼사건 후론 별로 안 했을 거야. 해마다 했었는데. 아기 낳을 때까진 했지. 이젠 다 옛날 거 없어져 버렸어. 저 어른들이 돌아가 버린 후에는.

7) 입춘

입춘엔 미시거 허는 거 엇어. (문에) 입춘대길 헌 거 절간에 가민[234] 스님덜이 썽 줘.[235] 새철드는날 엿날 놈이 집이 가민 큰일 난덴 헤낫주게. 여전 가민 검질 짓녠. 이디 ᄆᆞᆫ 이 강알에 그 터럭이 ᄆᆞᆫ 검질로 뒌덴. 경헤근에 여저들은 일절 새철드는날 어디 가지 말렌 막 허주게.[236] 남저들은 가민 좋곡 여자덜은 놈이 집이 몰랑 가민 집 주인 부에나곡. 막 ᄉᆞ뭇 큰일 나.[237] 겐디 이젠 그런 거[238] 엇어도 어룬들은 그거 ᄎᆞᆺ아.[239]

입춘에는 무엇 하는 거 없어. (문에) 입춘대길 한 거 절에 가면 스님들이 써서 줘. 입춘날 옛날 남의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했었지. 여잔 가면 김 깃는다고. 여기 몽땅이 샅의 그 털이 몽땅 김으로 된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일절 입춘날 어디 가지 말라고 마구 하지. 남자들은 가면 좋고 여자들은 남의 집에 몰라서 가면 집 주인 보아나고. 아주 사뭇 큰일 나. 그런데 이젠 그런 거 없어도 어른들은 그거 찾아.

234) 김효원 구술.
235) 현월선 구술.
236) 김효원 구술.
237) 현월선 구술.
238) 김효원 구술.
239) 현월선 구술.

□ 2월

1) 영등굿

영등달이엔 헤봐도 벨로 큰일이 엇어낫어. (영등굿) 헤낫주게. 삼월인가 정월인가 이월덜엔 안 헤난 거 닮은데. 해녀들허곡 그 어부들 헤근에[240] 부락 전체가 가주게. 저 바다 옆에 앞당이엔 헤근에 그디 큰 디가 잇주게.[241] 큰굿 헤근에게 대 세와근에 허민 우리도 메도 치곡 막 헤낫주게.[242] 메틀, 혼 일주일 헤낫어. 큰굿 헤여근에 그 말쩨엔 배에 타근에 바당에 강 배 멘들아근에 그거 띄우곡.[243] 그레 문 시꺼근에 보내주.[244] 바당에 큰굿도 허고 막 헤신디 안 헌 지가 잘도 오랫주게.[245] 날 봐근에 개인적으론 헤도 단체론 안 헤. 개인적으로 허고픈 사름 허고 해녀들은 감실 거라 본향에이. 혼두 번사 헤신지 몰라도양. 경 말쩨끄지 헌 기억이 엇수다. 포제만 헤영이.[246]

영등달이라고 해봐도 별로 큰일이 없었었어. (영등굿) 했었지. 삼월인가 정월인가 이월엔 안 했던 거 같은데. 해녀들하고 그 어부들 해서 마을 전체가 가지. 저 바다 옆에 '앞당'이라고 해서 거기 큰 데가 있지. 큰굿 해서 대 세워서 하면 우리도 메도 찌고 마구 했었지. 며칠, 한 일주일 했었어. 큰굿 해서 그 말째엔 배 타고서 바다에

240) 김효원 구술.
241) 현월선 구술.
242) 김효원 구술.
243) 현월선 구술.
244) 권옥열 구술.
245) 김효원 구술.
246) 현월선 구술.

가서 배 만들어서 그거 띄우고. 거기 몽땅 실어서 보내지. 바다에 큰굿도 하고 마구 했었는데 안 한 지가 아주 오랬지. 날 봐서 개인적으론 해도 단체로는 안 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해녀들은 가고 있을 거야, 본향에. 한두 번이야 했는지 몰라도 요. 그렇게 말째까지 한 기억이 없습니다. 포제만 해서.

2) 생업

(1) 보리밭 ᄇᆞᆯ르기

정월에 보리 안 나. (보리 싹) ᄒᆞᆫ 이월덜 나사, 이월 말, 삼월 초에.[247] 땅이 뜨난게. 이 (보리밭) ᄇᆞᆯ르는 사람 잇고 안 ᄇᆞᆯ르는 사람도 잇고게. 딘 잘 안 ᄇᆞᆯ라. 난 ᄇᆞᆯ라보지 안헷저.[248] 논엔 ᄒᆞ꼼 ᄇᆞᆯ라낫주만은 밧딧 건 안 ᄇᆞᆯ라난. 논에 강 여름엔 나록허곡.[249] 나록 헤나민 보리 갈주게. 흐렁논 아닌 밧 논에 (보리) 허젠 벙에 ᄆᆞᆺ젠 허민 에이구 낭 헤근에 요만이 끗겡이 헤근에 곰베.[250] 망치 닮은 거, 동글락헌 거.[251]

정월에 보리 안 나. (보리 싹) 한 이월 나야, 이월 말, 삼월 초에. (보리밭) 밟는 사람 있고 안 밟는 사람도 있고. 땅이 뜨니깐 여긴 잘 안 밟아. 난 밟아보지 않았어. 우린 조금씩 밟았어, 논에 가서 여름엔 벼 하고. 벼 하고 나면 보리 갈지. 논엔 조금 밟았지만 밭의 건 안 밟앗었어. 골답 아닌 밭 논에 (보리) 하려고 볏밥 마려고 하면

247) 김효원 구술.
248) 현월선 구술.
249) 김효원 구술.
250) 현월선 구술.
251) 김효원 구술.

아이고 나무 요만큼 끄트머리 해서 곰방메, 망치 같은 거, 동그란 거.

□ 3월

1) 한식 · 청명

법환인 단오도 안 허고 한식도 안 허고. 우리 어릴 때도 안 헤봔. 우리 법환인양, 구정허곡 팔월 추석벳기 안 허여. 기억이 엇어.[252] 우리 부모님 덜토 그거 허는 말은 헤보질 안헷어이. 들어보질 안헷어.[253] 산에 가는 건 허여. 한식이나 그 청명 때 우린 그때 못 허민 단오에도 강은에 가시낭도 케곡 헤낫주게.[254] 나쁜 거 가시덜 산에, 봉분에 이신[255] 가시낭도 케곡 미시거 올령 절도 허곡.[256] (청명은) 동티도 안 나고 숭도 안 허고[257] 어떵 안 헌덴 옛날부떠 내려온 거주.[258]

법환동은 단오도 안 하고 한식도 안 하고. 우리 어릴 때도 안 해봤어. 우리 법환동은 요, 설날하고 팔월 추석밖에 안 해. 기억이 없어. 우리 부모님들도 그거 하는 말은 해보질 않았어. 들어보질 않았어. 산에 가는 건 해. 한식이나 그 청명 때 우린 그때 못하면 단오에도 가서 가시나무도 캐고 했었지. 나쁜 거 가시들 산에, 봉분에 있는 가시나

252) 김효원 구술.
253) 현월선 구술.
254) 김효원 구술.
255) 현월선 구술.
256) 김효원 구술.
257) 현월선 구술.
258) 김효원 구술.

무도 캐고 무엇 올려서 절도 하고. (청명은) 동티도 안 나고 흉도 안 하고 어떻게 안 한다고 옛날부터 내려온 거지.

2) 묘제

묘제라는 건 어떤 산이 허느냐면은 제사도 다 끗낭 안 허는 것이 묘제라.[259] 음력 삼월에 산에 강[260] (제물은) 멩질 때 허는 거나 똑ᄀᆞ치 다 출령 헤여. (산마다) 하영 들주게. (메허곡 갱) 올려사주. 과일도 올리곡[261] 떡이영 다 젝갈이영 제서 때 허는 거나 특별허게 헌 건 엇어, 똑ᄀᆞ뜨게. 그 어룬덜 다 먹게끔 국도 많이 헹 가곡. 남자 어룬덜 많이 가민게, 그냥 누게랑 저단 허라 누게랑 이사 허라덜 허민게 ᄒᆞᆫ 멧 사름썩게 모여근에게 허민 ᄒᆞᆫ 번에게 ᄒᆞᆫ 사름이 그거 다 돌아가멍 허질 안허여. 여라 팀으로 헤근에게 허주게. 이제 우리 가족공동멘 ᄒᆞᆫ 밧디 다 집 멘들안 큰 비석 기자 세우곡. ᄒᆞᆫ 밧디 젯단이 막 곱게 헤노난에 그디서 다 올려근에 절허곡 다 헤.[262] 엿날 ᄀᆞ치 산마다 허지 안허여. (엿날 산마다 다닐 땐) 그거는게 안네난에 차롱에 들어근에 절헷주게. 여자들도[263] 가근에 준비허곡. 가민 또 식사덜 다 대접허젠 허난 ᄒᆞ루 낭 끗나민 이젠 하영 안 가도 엿날엔 ᄒᆞᆫ 이십 명 경 뒈주게. 경허민 가근에 밥도 놓곡 또 제지내는 디 산마다 허는 따문에 그거 영 준비허민 날라가곡. 어룬덜은 앚앙 그거 준비허민 우린 그거 차판에 아졍 강 가빠들 페왕 다 먹엉 옵니다.[264]

---

259) 권옥열 구술.
260) 현월선 구술.
261) 김효원 구술.
262) 현월선 구술.
263) 김효원 구술.
264) 현월선 구술.

묘제라는 건 어떤 산소에 하냐면 제사도 다 끝나서 안 하는 것이 묘제야. 음력 삼월에 산소에 가서 (제물은) 명질 때 하는 거나 똑같이 다 차려서 해. (산소마다) 많이 들지. (메하고 갱) 올려야지. 과일도 올리고 떡이랑 다 적이랑 제사 때 하는 거나 특별하게 한 건 없어, 똑같이. 그 어른들 다 먹게끔 국도 많이 해서 가고. 남자 어른들 많이 가면, 그냥 누구는 '저단' 해라 누구는 이사 해라들 하면 한 몇 사람씩 모여서 하면 한 번에 한 사람이 그거 다 돌아가면서 하질 않아. 여러 팀으로 해서 하지. 이제 우리 가족공동묘지는 한 곳 다 집 만들어서 큰 비석 그저 세우고. 한 곳 제단 아주 곱게 해놓으니깐 거기서 다 올려서 절하고 다 해. 옛날 같이 산소마다 하지 않아. (옛날 산소마다 다닐 땐) 그거는 드리니깐 채롱에 들어서 절했지. 여자들도 가서 준비하고. 가면 또 식사들 다 대접하려고 하니깐 하루 내내 끝나면 이젠 많이 안 가도 옛날엔 한 이십 명 그렇게 되지. 그러면 가서 밥도 놓고 또 제지내는 데 산소마다 하는 때문에 그거 이렇게 준비하면 나르고. 어른들은 앉아서 그거 준비하면 우린 그거 차반에 가지고 가서 '가빠'[265]들 펴서 다 먹고 옵니다.

3) 생업

(1) 소 ᄀᆞ꾸기

법환인 목장이 엇어.[266] (범섬) 쉔 범섬 임제만 하나 아님 두 개, (법환 사름은) 산에 강 올렷주게. 농사 다 끗나민 올리지 아녑니까? 산에 케옌 헤근에 잇주게.[267] 법환이 지경도 잇어나실 거라.[268] 그 케에 쉐 올리민

265) '가빠'는 비나 바람,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을 말한다.
266) 김효원 구술.
267) 현월선 구술.
268) 김효원 구술.

직허는 사름, 웃드르 사름덜, 책임지는 사람이 이십니다게.[269] 중산간엣 사름 일당 돈으론 안 주고. 돈이 엇이난에게 (산에) 쉐 올리민 영 돌아보는 사름 보리 ᄒᆞᆫ 말썩인가 말가웃썩인가 줘낫어.[270]

소 그냥 올려내불민 매날 강 돌아봄만 허단 팔월 멩질 넘으민 ᄎᆞᆺ아와사. 쉐 먹을 촐도 팔월 멩질 넘으민 그거 시꺼 오곡 헤여낫주.[271] 보리 갈 때 뒈민 가근에 쉐 강 ᄎᆞᆺ앙 왕 걸로 갈 거난에게, 밧을게. 집 하르방은 ᄒᆞᆫ 번 저 붉은오름ᄁᆞ지 가오ᄀᆞ렌 헤여. ᄎᆞᆺ이레 이 앞이서 ᄎᆞᆺ당 버치난 그디ᄁᆞ지 강 보난 잇어렌 허여낫어.[272] 그 케 안네 닷줄 헤불민 시에도 가 불고. 케 넘어가 불민 ᄎᆞᆺ지 못헤근에 막 점지멍들 헤낫어. 어느 지경에 어디 가민 ᄎᆞᆺ아진덴. 쉐 ᄎᆞᆺ이레 점도 지곡, 엿날은 경헤낫주.[273]

그 목장에 그런 사름도 쉐테우리 아닌가? 쉐테우린 집이서 쉐 멕이는 사름 쉐테우리고. 목장 이신 동더렌 (목장에) 불부쪄나민 그 풀이 곱게 나왕 쉐 먹이기가 좋녠 헤라.[274] 묵은 거 ᄆᆞᆫ 카불민.[275]

법환동은 목장이 없어. (범섬) 소는 '범섬'[276] 임자만 하나 아님 두 개, (법환동 사람은) 산에 가서 올렸지. 농사 다 끝나면 올리지 않습니까? 산에 '케'[277]라고 해서 있지. 법환동 지경도 있었을 거야. 그 지경에 소 올리면 지키는 사람, 그 '웃드르'[278] 사람들,

---

269) 현월선 구술.
270) 김효원 구술.
271) 현월선 구술.
272) 김효원 구술.
273) 현월선 구술.
274) 김효원 구술.
275) 현월선 구술.
276) '범섬'은 서귀포시 법환동에 속하는 섬이다. 그 형세가 호랑이 모습이라고 하여 '범섬'이라고 한다.
277) '케'는 일정한 테두리 안의 땅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마을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 공동 농경지를 말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산간의 사람 일당 돈으론 안 주고. 돈이 없으니깐 (산에) 소 올리면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 보리 한 말씩인가 말가웃씩인가 줬었어.

소 그냥 올려 내버리면 맨날 가서 돌아보기만 하다가 팔월 명질 넘으면 찾아와야. 소 먹을 꼴도 팔월 명질 넘으면 그거 실어 오고 했었지. 보리 갈 때 되면 가서 소 찾아 와서 걸로 갈 거니깐, 밭을. 집 '할아버지'[279]는 한 번 저 붉은오름까지 가왔다고 해. 찾으러 이 앞에서 찾다가 부치니깐 거기까지 가서 보니깐 있었다고 했었어. 그 지경 안에 '닷줄'[280] 해버리면 제주시에도 가 버리고. 지경 넘어가 버리면 찾지 못해서 마구 점치면서들 했었어. 어느 지경에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소 찾으러 점도 치고 옛날은 그랬었지.

그 목장에 그런 사람도 '쉐테우리'[281] 아닌가? '쉐테우리'는 집에서 소 먹이는 사람 '쉐테우리'고. 또 목장 있는 동쪽은 (목장에) 불붙이고 나면 그 풀이 곱게 나와서 소 먹이기가 좋다고 하더라. 묵은 거 몽땅 타 버리면.

□ 4월

1) 사월 초파일

법환이 절간 요디 혜광사, 용문사.[282] 우리 용문사가 오당 보민 주거물이엔 헌 디가 잇어. 막 알러레 내려강 올라오곡 허는 것이 힘들어. 게도 이제도 가.[283]

278)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279) '하르방'은 여기서 제보자의 남편을 말한다.
280) '닷줄'은 후릿그물 양쪽에서 여러 사람이 잡고 끌어당기는 굵은 밧줄을 말한다. 여기서 '닷줄'은 목장에서 경계를 구분하는 굵은 밧줄을 말하는 것 같다.
281) '쉐테우리'는 소를 들에 놓아 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82) 현월선 구술.

초파일 절간에 등 ᄃᆞᆯ곡[284] 이젠 다 촛불 안 싸. 똑 불공헐 때만 촛불 싸주만은 등 ᄃᆞ는 거나 무신건 전기로. 옛날 초파일날들 애기들 (머리) 까까사. 여자아이덜토 머리 곱게 난덴 헹 까까낫주게.[285] 머리가 ᄒᆞ꼼 족은 아이덜은 또 더 신경 써근에[286] 그추룩 헤나신디 우리 손지덜은 ᄒᆞᆫ 번토 안 까깡 기냥 키왓어. 애기들은 다 까까신디 손지덜은 ᄒᆞ나토 안 까까도 이제 머리가 ᄉᆞ뭇 아이고 잘도 수정이 하. 아니 까까도 더 고웁곡 더 길고 그거 다이 미신이라낫어.[287]

법환동 절 여기 혜광사, 용문사. 우리 용문사가 오다가 보면 '주거물'[288]이라고 한데가 있어. 아주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오고 하는 것이 힘들어. 그래도 이제도 가.

초파일 절에 등 달고 이젠 다 촛불 안 켜. 꼭 불공할 때만 촛불 켜지만 등 다는 거나 무엇은 전기로. 옛날 초파일날 아기들 (머리카락) 깎아야. 여자아이들도 머리 곱게 난다고 해서 깎았었지. 머리가 조금 적은 아이들은 또 더 신경 써서 그처럼 했었는데 우리 손자들은 한 번도 안 깎아서 그냥 키웠어. 아기들은 다 깎았는데 손자들은 하나도 안 깎아도 이젠 머리가 사뭇 아이고 잘도 수가 많아. 안 깎아도 더 곱고 더 길고 그거 다 미신이었었어.

2) 생업

(1) 볏모 놓기

283) 김효원 구술.
284) 현월선 구술.
285) 김효원 구술.
286) 현월선 구술.
287) 김효원 구술.
288) '주거물'은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물 가운데 하나다.

묘종 놔야. ᄒᆞᆫ ᄉᆞ월, 오월 초에 메 봠실 거라. 나록메 ᄒᆞᆫ 파니[289] ᄉᆞ월 초파일쯤에 놔근에 그거 키와근에 유월절 ᄒᆞᆫ 열흘 전이 그걸 심어야 클 거.[290] 메가 요만이 크믄 큰 깍에서 허고 흐렁논 ᄀᆞ튼 딘 더 인칙 심어. (나록메) 유월절 전이 다 크주게. 퍼렇게 커.[291] 유월절 안에 끗나, 유월절 ᄀᆞ리, 유월절 뒈엉 허믄 농사가 안 뒈.[292]

모종 놔야. 한 사월, 오월 초에 모 놓고 있을 거야. 볏모 한 뙈기 사월 초파일쯤에 놓아서 그거 키워서 '유월절'[293] 한 열흘 전에 그걸 심어야 클 거. 모가 요만큼 크면 큰 끄트머리에서 하고 골답 같은 덴 더 일찍 심어. (볏모) 유월절 전에 다 크지. 파랗게 커. 유월절 안에 끝나, 유월절 즈음, 유월절 돼서 하면 농사가 안 돼.

(2) 고사리 꺾기

삼사월덜에 초파일[294] 전이부떠 시작헹 초파일 ᄀᆞ리에도.[295] 아이고 무사 고사리 경 엇임이라? 이젠 고사리 한디, 고사리 꺼끄레 가믄 고사리가 그렇게 엇엇어.[296]

삼사월에 초파일 전에부터 시작해서 초파일 즈음에도. 아이고 왜 고사리 그렇게 없

289) 현월선 구술.
290) 김효원 구술.
291) 현월선 구술.
292) 김효원 구술.
293) '유월절'은 가장 더울 때로 절기상 소서를 말한다. 주로 이 시기가 되면 거의 모든 봄 농사는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4) 김효원 구술.
295) 현월선 구술.
296) 김효원 구술.

음이야? 이젠 고사리 많은데, 고사리 꺾으러 가면 고사리가 그렇게 없었어.

□ 5월

1) 생업

오월 단오 전이 (보리) 비엇주게.[297] (보리) 밧 갈아근에[298] 고구마 심그고.[299]

오월 단오 전에 (보리) 베었지. (보리) 밭 갈아서 고구마 심고.

□ 6월

1) 독 잡아먹는 날

유월 쓰무날 뒈민 닥 잡아먹는 날이엔 헹 닥 잡아먹엇주게. 저 닥은 집집마다 키우난 육 개월 뒈민 잡아.[300] 키운 거 거자 칠팔 개월 먹을 만이 크주만은 일 년 뒌 것도 잇곡게. 장독도, 수틐도, 암틐도 잇고. 농사지멍 지치난[301] 피로회복제로 먹은 거. (삼복) 엇엇주게.[302] 이젠 초복이여 무시

297) 김효원 구술.
298) 현월선 구술.
299) 김효원 구술.
300) 김효원 구술.

거 허영 삼계탕 먹으레 가게, 어떵 허게 헤도이[303] (옛날은 유월 스무날) 하루뿐.[304]

'유월 쓰무날'[305] 되면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해서 닭 잡아먹었지. 저 닭은 집마다 키우니깐 육 개월 되면 잡아. 키운 거 그저 칠팔 개월 먹을 만큼 크지만 일 년 된 것도 있고. 장닭도, 수탉도, 암탉도 있고. 농사지으면서 지치니깐 피로회복제로 먹은 거. (삼복) 없었지. 이젠 초복이다 무엇 해서 삼계탕 먹으러 가자, 어떻게 하자 해도 (옛날은 유월 스무날) 하루뿐.

- **독세기**

독통에 보민 독세기가 잇어. 그거 ᄒᆞ나 가졍은에 상점에 가근에 크레파스도 상 가곡 도화지도 상 가곡[306] 계랄덜 막 나민 풀아근에 ᄉᆞ뭇 아이덜 연필 사가곡[307] 학습장도 사곡. 영화 구경 오민 그거 풀앙 아졍 가근에 영화 구경도 허곡.[308] 엿날엔이 펜이곡 고무신이고 이시민 ᄆᆞᆫ 아이들 강 엿 사 먹어 불고이.[309]

닭장에 보면 달걀이 있어. 그거 하나 가지고서 상점에 가서 크레파스도 사서 가고 도화자도 사서 가고 계란들 마구 나면 팔아서 사뭇 아이들 연필 사가고 학습장도 사고.

---

301) 현월선 구술.
302) 권옥열 구술.
303) 김효원 구술.
304) 권옥열 구술.
305) '유월 스무날'은 음력 유월 이십일로 제주에서 닭을 잡아먹는 날이다.
306) 권옥열 구술.
307) 김효원 구술.
308) 현월선 구술.
309) 김효원 구술.

영화 구경 오면 그거 팔고 가지고 가서 영화 구경도 하고. 옛날엔 펜이고 고무신이고 있으면 몽땅 아이들 가서 엿 사 먹어 버리고.

2) 생업

(1) 밧 ᄇᆞᆯ리기

ᄆᆞᆫ 산디 갈 때도 그거 ᄇᆞᆯ리곡 조 헐 때도 ᄇᆞᆯ리곡 그추룩 헤낫어. (밧 먼저) 갈아가는 냥 (산디)씨 삐어근에 검질 나민 벌레기 줏어근에 데껴근에 섬비로 끗엉 그다음은 ᄆᆞᆯ로 헤여근에 ᄇᆞᆯ리는 거. ᄆᆞᆯ로, 송아지로 ᄒᆞᆫ 세네 개 헤여근에[310] ᄆᆞᆯ석[311] 잡아근에 ᄆᆞᆯ 돌아나지 아녀게. 이착은 노끗 심곡 이착은 몽뎅이 심엉.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허멍 벵벵 돌아. 얼럴럴러러러러러러 어이고 돌아라, ᄇᆞᆯ르라 ᄇᆞᆯ르라 허멍 막 소리 허여근에 가믄 ᄆᆞᆯ덜이 영 가믄 바로 ᄇᆞᆯ리는 거.[312] ᄆᆞᆯ 엇인 사름은 발로도 ᄇᆞᆯ르곡.[313] 아이고 발로 ᄇᆞᆯ르믄 택도 없어. 섬비로 끗으민 다 거제 묻어지긴 허는디, 그 ᄆᆞᆯ로 무사 ᄇᆞᆯ렴시니 허민 그거 커가민 뿔리가 약헤근에 ᄇᆞ름 불민 그것이 다 메여져불곡 헐 거난 뿔리 ᄃᆞᆫᄃᆞᆫ허게시리 ᄇᆞᆯ리는 거라.[314]

몽땅 밭벼 갈 때도 그거 밟고 조 할 때도 밟고 그처럼 했었어. (밭 먼저) 가는 대로 (밭벼) 씨 뿌려서 김 나면 '벌레기'[315] 주워서 던져서 꽁게로 끌어서 그다음은 말로 해서

310) 김효원 구술.
311) 현월선 구술.
312) 김효원 구술.
313) 현월선 구술.
314) 김효원 구술.
315) '벌레기'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엉클어진 풀포기 따위를 말한다.

밟는 거. 말로, 송아지로 한 서너 개 해서 말고삐 잡아서 말 달아나지 않게. 이쪽은 노 잡고 이쪽은 몽둥이 잡아서. '어러러러러러러러'[316] '어러러러러러' 하면서 뱅뱅 돌아. '얼럴럴러러러러러러' 아이고 돌아라, 밟아라 밟아라 하면서 마구 소리 해서 가면 말들이 이렇게 가면 바로 밟는 거. 말 없는 사람은 발로도 밟고. 아이고 발로 밟으면 턱도 없어. 끙게로 골면 다 거의 묻히긴 하는데, 그 말로 왜 밟고 있느냐 하면 그거 커가면 뿌리가 약해서 바람 불면 그것이 다 매어 버리고 할 거니깐 뿌리 단단하게끔 밟는 거야.

• 섬비

섬비는 그 밧디 가민 막 섬비 헐 낭이 잇어. 영 벌겨진 소나무도 잇곡. 뚜루 상동낭이엔 헤근에 상동낭이 소그락헤근에 이만이 널르주게. 게민 그거 강 끊어당 무꺼근에 요만씩헌 돌멩이 양쪽에 영 놔근에 이 야가지에 걸어근에 끗엇주게. 섬비는 사름이 끗곡.[317]

끙게는 그 밭에 가면 마구 끙게 할 나무가 있어. 이렇게 벌어진 소나무도 있고. 따로 상동나무라고 해서 상동나무가 '소그락해서'[318] 이만큼 넓지. 그러면 그거 가서 끊어다가 묶어서 요만큼씩한 돌멩이 양쪽에 이렇게 놔서 이 모가지에 걸어서 끌었지. 끙게는 사람이 끌고.

(2) 작물 파종

유월절 전이 미시거 다 농사를 헤야주게. 꿰가 제일 먼저. 감저, 조, 유월

316) '어러러러러러러러'는 밭을 말로 밟을 때 말을 모는 소리를 말한다. 달리 '얼럴럴러러러러러러'라고도 한다.
317) 김효원 구술.
318) '소그락하다'는 싹이나 가지 따위가 한데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절 전이 다 헤야 뒈어. 유월절 넘으민 농사가 잘 안 뒌덴 허주게.

'유월절' 전에 무엇 다 농사를 해야지. 깨가 제일 먼저. 고구마, 조, '유월절' 전에 다 해야 돼. '유월절' 넘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지.

□ 7월

1) 칠월 칠석

절에 가. 칠석 불공 (드리레) 다른 건 엇어.[319] 칠석에 옷 내놔근에 미시거 쒜와수게게. 그 견우직년 만나는 날 거 쒜운덴 헤낫어.[320] 비도 잘 오곡.[321]

절에 가. 칠석 불공 (드리러) 다른 건 없어. 칠석에 옷 내놔서 무엇 쐬었습니다. 그 견우직녀 만나는 날 거 쐬었다고 했었어. 비도 잘 오고.

2) 물맞이

칠월 나민 백중[322] (쉐 키우는 사람 고사도 지낸덴) 들어보긴 헤도 직접 헤보진 안헨.[323] 죽을락 살락 밧디 강 막 애씨게 일헤영 백중, 체서 뒈민

319) 김효원 구술.
320) 권옥열 구술.
321) 현월선 구술.
322) 김효원 구술.

아이덜 처년 때난 어머니ᄀᆞ라 양 그때라근에 동글락헌 느젱이떡 멘들아줍서, 나 검질 열심히 메쿠다 허멍. 물맞이레 속골 가젠 잘도 빌어낫어. 속골 가민이 테왁 아졍 강은에 물질헤근에 구제기 잡앙은에 ᄆᆞᆺ앙도 먹곡 경헷주게. 호근이 청년들 와근에 그디도 막 놀곡 헤낫어. 우리 옛날엔 처서 백중 돌아와가민 그디 가젠 허민 막 들떠근에 ᄌᆞᆷ도 못 자곡이. (요즘 같으면) 피서. 집이서 일만, 일만 허당 그거 이틀 노는 거주게. 중산간더렌 (밤 자멍 헤낫덴 우린) 가까운 디난 빨래헐 것도 아졍 강 빨래도 허고 그축 허멍게 졍 와낫어.[324] 느넨 속골 가낫구나? 우린 두문이. 저디 지느물 강 강정 사름, 법환이 사름 막 모영덜, 청년들 씨름허곡 허민 법환이 이기민 막 박수쳥. 지느물은 가믄 노는 운동장추룩 가운디 그디가 이수다. 지느물이엔 헤근에 아끈천 우에 냇물인디 널르곡 물이 좋주게. 그디 잘도 하영 가낫어. 강정 사름덜토 우미도 ᄑᆞᆯ곡 떡도 그디서 ᄑᆞᆯ곡. (갈 땐) 쒜기떡허곡 대죽도, 사당대죽 헹 끊어당 아졍 가곡 ᄆᆞ디마다 맛 좋아.[325] 먹을 것이 그거난. (요즘은) 우리 처서 백중 넘어간 중도 몰랑 월력에 보민 처서 백중이로구나 허여.[326]

칠월 되면 백중[327] (소 키우는 사람 고사도 지낸다고) 들어보긴 해도 직접 해보진 않았어. 죽을 둥 살 둥 밭에 가서 매우 애쓰게 일해서 백중, 처서 되면 아이들, 처녀 때니깐 어머니보고 '양'[328] 그때는 동그란 나깨떡 만들어주십시오, 나 김 열심히 매

323) 현월선 구술.
324) 김효원 구술.
325) 현월선 구술.
326) 김효원 구술.
327) '백중'은 음력 칠월 십사일을 말하며 이날 마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목장이나 들에서 마소의 번성을 기원하는 '백중제'를 지내기도 한다.
328) '양'은 말을 시작할 때나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감탄사이다. 보통 '여보세요, 여봐요' 등의 의미로 쓰이며 여기서는 어머니를 부르는 의미로 쓰였다.

겠습니다 하면서. 물맞으러 '속골'[329] 가려고 잘도 빌었었어. '속골' 가면 테왁 가지고 가서 물질해서 소라 잡아서 마서 먹고 그랬지. '호근이'[330] 청년들 와서 거기도 마구 놀고 했었어. 우리 옛날엔 처서 백중 돌아오면 거기 가려고 하면 아주 들떠서 잠도 못 자고. (요즘 같으면) 피서. 집에서 일만, 일만 하다가 그거 이틀 노는 거지. '중산간'[331]에는 (밤 자면서 했었다고 우린) 가까운 데니깐 빨래할 것도 가지고 가서 빨래도 하고 그처럼 하면서 져서 왔었어. 너넨 '속골' 갔구나? 우린 '두문이'[332] 저기 '지느물'[333] 가서 '강정'[334] 사람, 법환동 사람 마구 모여서들, 청년들 씨름하고 하면 법환동이 이기면 마구 박수쳐서. '지느물'은 가면 노는 운동장처럼 가운데 거기가 있었습니다. '지느물'이라고 해서 '아끈천'[335] 위에 냇물인데 넓고 물이 좋지. 거기 잘도 많이 갔었어. '강정' 사람들도 우뭇가사리도 팔고 떡도 거기서 팔고. (갈 땐) '쉐기떡'[336]하고 수수도, 사탕수수 해서 끊어다가 가지고 가고 마디마다 맛 좋아. 먹을 것이 그거니깐. (요즘은) 우리 처서 백중 넘은 줄도 몰라서 달력에 보면 처서 백중이구나 해.

3) 입추 · 처서

옛날에 백중에 비 오민 백 가지 벵충이 잇나. 처서엔 비 오민 천 가지에 병충이 온다 그런 말은 들어낫어. 병충이엔 헌 거 무시것덜게 병 부뜨는

329) '속골'은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계곡을 말한다.
330) '호근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을 일컫는 말이다.
331) '중산간'은 제주도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 중간 지대를 이르는 말이다.
332) '두문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용천수로, 법환동과 강정동 사이의 경계 짓는 물 가운데 하나이다.
333) '지느물'은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물 중 하나이다.
334) '강정'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을 일컫는 말이다.
335) '아끈천'은 서귀포시 강정동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내 중 하나이다.
336) '쉐기떡'은 밀기울 따위로 주먹같이 둥글게 만든 떡을 말한다.

거. 사름이 아니고 모든 이 밖에 식물에 경 헌덴 막 헤낫어. 우리 클 때 할망네덜 처서에 백중 처서만 넘어가민 풀이 문 오그라진덴 헤낫주게. 백중 처서 넘으민 검질이 울멍 돌아간다 무시거 문 오그라진다. (풀) 안 큰덴 헤여라. 옛날에 우리 검질멜 때 아이고 언제민 백중 처서 돌아왕 이 풀이 오그라지코 그추룩 허멍 검질 박박 메낫어.[337] 백중 체서 넘어가민 검질이 안 나주게. 문여 난 건 메어 불민 다시 안 난덴.[338] 이젠 그 하우스 헹 막 걸름 주민 그런 거 없어.[339] 걸름덜 막 허난 (예전엔 검질이) 울멍 돌아간덴 헤신디 (지금은) 울멍 돌아와.[340]

옛날에 백중에 비 오면 백 가지 병충이 있어. 처서에는 비 오면 천 가지의 병충이 온다 그런 말은 들었었어. 병충이라고 한 거 무엇들 병 붙는 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이 밖에 식물에 그렇게 한다고 마구 했었어. 우리 클 때 할머니네들 처서에 백중 처서만 넘으면 풀이 모두 오그라든다고 했었지. 백중 처서 넘으면 김이 울면서 돌아간다 무엇 모두 오그라든다. (풀) 안 큰다고 하더라. 옛날에 우리 김맬 때 아이고 언제면 백중 처서 돌아와서 이 풀이 오그라들까 그처럼 하면서 김 박박 맸었어. 백중 처서 넘으면 김이 안 나지. 모두 난 건 매어 버리면 다시 안 난다고. 이젠 그 하우스 해서 마구 거름 주면 그런 거 없어. 거름들 마구 하니깐 (예전엔 김이) 울면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울면서 돌아와.

4) 생업

337) 김효원 구술.
338) 현월선 구술.
339) 김효원 구술.
340) 권옥열 구술.

(1) 자리 나끄기

엿날엔 영 헤근에 배 기자 젓엉만 뎅기난에. 요새추룩 통통 발동기가 이시카, 미신 배가 잇어게? 원 엇이난 기자 이거 젓음으로만 뎅기난에 요 범섬 안네서만 자리 거령 오곡. ᄇᆞ름 불어도 (범섬) 못 가고게, 위험허여, 배가 족으난에.[341] 요 범섬 내에서만 고길 잡나.[342] 바닷고기가 자리로 살앗주게.[343]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배 그저 저어만 다니니깐. 요새처럼 통통 발동기가 있을까, 무슨 배가 있어? 원 없으니깐 그저 이거 젓는 것으로만 다니니깐 요 '범섬'[344] 안에서만 자리돔 잡아서 오고. 바람 불어도 ('범섬') 못 가고, 위험해, 배가 작으니깐. 요 '범섬' 내에서만 고길 잡아. 바닷고기가 자리돔으로 살았지.

- **자리 구이**

(먹을 땐) 집이서는 꿰지름에[345] 잘 꾸워져.[346] 꿧낭은 일등. 그땐 적쉐가 이시카. 그대로 들이쳥 부모덜은 익엇저 익어저 허멍. 애기덜은 일고ᄋᆞ답 개들 헤놓민게 다 영 주민 ᄉᆞ뭇 데멩이 먹는 사름, 꼴랑지 먹는 사름.[347] 거 바짝 익지도 안허여. 경헤도 맛잇게 먹엇주.[348]

---

341) 김효원 구술.
342) 현월선 구술.
343) 김효원 구술.
344) '범섬'은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섬 중 하나이다. 그 형세가 호랑이 모습을 하였다고 하여 '범섬'이라고 한다.
345) 권옥열 구술.
346) 김효원 구술.
347) 현월선 구술.
348) 권옥열 구술.

(먹을 땐) 집에서는 참기름에 잘 구워져. 깻나무는 일등. 그땐 석쇠가 있을까. 그대로 들이뜨려서 부모님들은 익었어 익었어 하면서. 아기들은 일고여덟 개들 해놓으면 다 이렇게 주면 사뭇 대가리 먹는 사람, 꼬리 먹는 사람. 거 바짝 익지도 않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 8월

1) 벌초

팔월 안에만 허민 뒈는 거난에. (벌초도) 모둠벌초가 잇고, 개인벌초가 잇고.[349] (벌초허젠 허믄) 차 타근에 한참 뎅겨. 엿날 산덜이 잘도 크주게. 말도 못허게 커. 믄 둘레가 이디 이만이 헐 거라.[350] 부제칩 산은 묘도 크곡 산담도 이렇게 넓게 헤영. 이젠 공동메 다 헤부난 그런 것이 엇어 양.[351] (벌초할 때) 무신거 가졍 가? 호미로만 헷주. 집이서 (호미) 골곡 또 공동메 가근에 헐 수도 이시난에 신돌 우린 아졍 간다. 풀 하도 짓어 노난이 이젠 산 촟지 못헴젠 헤라.[352]

팔월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깐. (벌초도) '모둠벌초'[353]가 있고, '개인벌초'[354]가

349) 현월선 구술.
350) 김효원 구술.
351) 권옥열 구술.
352) 김효원 구술.
353) '모둠벌초'는 문중이 함께 모여 윗대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달리 '공동벌초'라고도 한다. '개인벌초'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354) '개인벌초'는 당고조 이하 후손들이 모여 하는 벌초를 말한다. '모둠벌초'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있고. (벌초하려고 하면) 차 타서 한참 다녀. 옛날 산소들이 잘도 크지. 말도 못하게 커. 몽땅 둘레가 여기 이만큼 할 거야. 부잣집 산소는 묘도 크고 '산담'[355]도 이렇게 넓게 해서. 이젠 공동묘지 다 해버리니깐 그런 것이 없어요. (벌초할 때) 무엇 가지고 가? 낫으로만 했지. 집에서 (낫) 갈고 또 공동묘지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깐 숫돌 우린 가지고 간다. 풀 하도 깃어 놓으니깐 이젠 산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 제지내기

과일게 사과허곡게 무신 빵이나 허곡. 환타나 상 가근에 올리곡 기자 아이덜 왓수다 헤근에 절허는 거.[356]

과일 사과하고 무슨 빵이나 하고. 환타나 사고 가서 올리고 그저 아이들 왔습니다 해서 절하는 거.

2) 팔월 명질

(1) 멩질 준비

• 놋그릇 닦기

제일 문저 난이 그것이 젤 힘들엇어. 팔월 추석 돌아와가민 열흘 전이부터 놋그릇을 다까사. 경허민이 정월 멩질 땐 안 다까도 뒈어, 추석 때 다끄민. 그 놋그릇 다끄젠 허민 (날) 저물앙 다끄곡. 어깨가 진짜 아파낫어. 게곡 그때 약이 잇엇어? 그 재로만, 재도이 불 솜아놔근에 막 오랜 걸로,

355)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쌓은 담을 말한다.
356) 김효원 구술.

화리에 굽엣 거 오래뒈어근에 헤영케이. 재가 사락허지 안헤근에 그 재가 문작 나록찍에 부떠. 경 아녀믄 부뜨질 잘 아녀. 검은 재로 다끄지 못허여. 그거 믄 영 영 오래 불 솜아나민 젤 밑에가 헤영허주게. 게믄 그걸로만 믄 파당 모앗다근에 허곡 또 파당 모앗당 허곡. 또 수세미도 나록찍으로만. (다끌 땐) 물 적지멍게. 물 영 개여근에 반죽헤놩 나록찍으로 영 적져근에 다깟주게.[357] 그 놋그릇도 좋은 건 허곡이 궂인 걸로 못 허여. 모멀낭 솔아근에 그거 허민 재가 문작허주게. 우리 어무니 허는 거 보난 그거 문작허민 그걸로 헨게.[358]

그거 혼 번에 허민 그뭇이 나주게. 재로 다까나믄 시쳐근에 또 다끄곡 혼 세 번은 다까사. 잘 안 허민 물끼 이신 투적을 잘헤여. 잘 모르지 아녕. 경허민 께우살 헤. 거 영 뭐 물끼 이시민 께우살. 사발 앗아냉 보민 께우살 헷저 경허주게. 졸바로 안 다끄민 물 그뭇게 또 씻어야주게.[359] 우리가 그릇 씻을 때 깨끗허지 안허민 밥튀나 그런 거 께우살이엔 허주.[360]

일 년에 혼번은 꼭 다까. 그추룩 해근에 혼 열흘 전이 그거 다 다까낫어. 그 밥사발, 국사발은 다끄기 좋아. 촛대영 잔이영 그런 거 다끄젠 허민. 우린 숟구락 열 개, 밥사발 열 개, 국사발 열 개 그추룩. 놋젯구락, 웃쉬 한 딘 더 하주게.[361] 한 디는 종손칩이난.[362] 웃쉬옌 헌 건 구신. 아이고 옛날에 찻잔이 이시카? 그거 다까근에 이만이 헌 그 차롱 닮은 것이 큰 거 잇어낫어. 그것에 그 놋그릇은 믄 헤나민 다깡 벳디 물류왕 그것에 담아근에 두께 더껑 놧다근에 안팡에 항 우이 강 올려놧단 또 식게 헐 땐 내놓곡 그축 헤낫주.[363]

---

357) 김효원 구술.
358) 현월선 구술.
359) 김효원 구술.
360) 현월선 구술.
361) 현월선 구술.
362) 권옥열 구술.

제일 먼저 난 그것이 제일 힘들었어. 팔월 추석 돌아오면 열흘 전부터 놋그릇을 닦아야. 그러면 정월 명질 땐 안 닦아도 돼, 추석 때 닦으면. 그 놋그릇 닦으려고 하면 (날) 저물어서 닦고. 어깨가 진짜 아팠었어. 그리고 그때 약이 있었어? 그 재로만. 재도 불 때고 나서 아주 오랜 것으로, 화로 밑의 거 오래되어서 하얗게. 재가 '사락하지'[364] 않아서 그 재가 '문작'[365] 볏짚에 붙어. 그렇지 않으면 붙질 잘 않아. 검은 재로 닦지 못해. 그거 몽땅 이렇게 이렇게 오래 불 때고 나면 젤 밑에가 하얗지. 그러면 그걸로만 몽땅 파다가 모았다가 하고 또 파다가 모았다가 하고. 또 수세미도 볏짚으로만. (닦을 땐) 물 적시면서. 물 이렇게 개어서 반죽해 놓아서 볏짚으로 이렇게 적셔서 닦았지. 그 놋그릇도 좋은 건 하고 궂은 걸로 못 해. 메밀대 살라서 그거 하면 재가 '문작'하지.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깐 그거 '문작'하면 그걸로 하더라.

그거 한 번 하면 금이 나지. 재로 닦고 나면 씻어서 또 닦고 한 세 번은 닦아야. 잘 안 하면 물기 있는 '투적'[366]을 잘해. 잘 마르지 않아서. 그러면 '께우살'[367] 해. 거 이렇게 뭐 물기 있으면 '께우살'. 사발 가져서 보면 '께우살' 했다 그랬지. 제대로 안 닦으면 물 금 또 씻어야지. 우리가 그릇 씻을 때 깨끗하지 않으면 밥티나 그런 거 '께우살'이라고 하지.

일 년에 한 번은 꼭 닦아. 그처럼 해서 한 열흘 전에 그거 다 닦았었어. 그 밥사발, 국사발은 닦기 좋아. 촛대랑 잔이랑 그런 거 닦으려고 하면. 우린 숟가락 열 개, 밥사발 열 개, 국사발 열 개 그처럼. 놋젓가락, '웃쉬'[368] 많은 덴 더 많지. 많은 데는 종손집이니깐. '웃쉬'라고 한 건 귀신. 아이고 옛날에 찻잔이 있을까? 그거 닦아서 이만큼 한

363) 김효원 구술.
364) '사락하다'는 물건이 볕에 잘 마른 상태를 이르거나 물건의 표면이 미끄럽지 못하고 좀 거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365) '문작'은 촉감이 부드럽거나 음식 따위가 으깨어질 정도로 부드럽고 연하다는 의미다.
366) '투적'은 어떠한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을 의미하는 듯하다.
367) '께우살'은 그릇을 씻어 말린 후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그릇에 묻어 남은 때 따위를 의미하는 듯하다.
368) '웃쉬'는 윗대 조상 신위의 개수를 말한다.

채롱 같은 것이 큰 거 있었었어. 그것에 그 놋그릇은 모두 하고 나면 닦아서 밖에서 말려서 그것에 담아서 뚜껑 덮어서 놨다가 고방에 항 위에 가서 올려놨다가 또 제사할 땐 내놓고 그처럼 했었지.

• **제숙**

제숙 장만,[369] 뒈지고기,[370] (바닷고긴) 여름부터 나까오민 이거 팔월 멩질 제숙허켄 헤영 미릇에 ᄆᆞᆫ 준비허주.[371] 바닷고긴 막숙에 가근에 사옴도 허곡. 물질헐 때는 테왁에 어퍼져근에 영 낚시 놓민이 그때 고기 한 때난 잘 물어. 우럭, 어렝이도 물곡.[372] 어렝이 맛 좋아. 이녁 자식덜 나까오곡. 우럭 여름엣 거 ᄒᆞ끔 큰 거.[373] 경헹 바싹 ᄆᆞᆯ류와근에 영 공장에 걸엇다근에 헴시녜게. 그때 냉장고 엇이난에.[374]

제수 장만, 돼지고기, (바닷고긴) 여름부터 낚아 오면 이거 팔월 명질 제수 하겠다고 해서 미리 모두 준비하지. 바닷고긴 '막숙'[375]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물질할 때는 테왁에 엎어져서 이렇게 낚시 놓으면 그때 고기 많은 때니깐 잘 물어. 우럭, 어렝놀래기도 물고. 어렝놀래기 맛 좋아. 이녁 자식들 낚아오고. 우럭 여름의 거 조금 큰 거. 그래서 바싹 말려서 이렇게 '공장'[376]에 걸었다가 하고 있어. 그때 냉장고 없으니깐.

---

369) 김효원 구술.
370) 현월선 구술.
371) 권옥열 구술.
372) 김효원 구술.
373) 현월선 구술.
374) 김효원 구술.
375) '막숙'은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포구이다.
376) '공장'은 나뭇가지나 못 등 가늘고 뾰족한 것을 벽 같은 곳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도구이다.

• **멩질떡**

ᄀᆞ루 ᄀᆞᆯ아근에 떡헤사주.[377] 그때 팔월 멩질은 대게 송펜. 솔벤 절벤 잘 안 허영. 송펜허곡 묵허곡 허민 뒈주게.[378] (송펜인) ᄑᆞᆺ쉬도 놓곡 녹뒤쉬도 놓곡. 콩가룬 이제야 놤주. 엿날엔 콩ᄀᆞ루도 엇어낫어.[379] 시리떡을 허나 상웨떡을 허나. 엿날 상웨떡 안 헷저. 보릿ᄀᆞ루로 헤근에, 나록덜 하난[380] 법환인 시리떡. 백시리도 허는 사람도 잇고 쉬 놓는 사름도 잇고.[381] 엿날엔 쉬 하영 놔. 옛날엔 기주떡이 잘 안 허여.[382]

난예 송펜도 그거 헤여근에 솔입 내가 너미 좋앙 거 물에 싯거든, 시찌민 솔벤 끊어진 거 ᄆᆞᆫ 줏엉 먹곡.[383] 이제도 난양 저 송펜 팔월 추석 때 송편 헐 때 ᄒᆞᆫ 이 년 전인 솔입으로 헤영.[384] 경헤사 맛 좋주게, ᄃᆞ락ᄃᆞ락헤곡.[385]

가루 갈아서 떡해야지. 그때 팔월 명질은 대개 송편. 솔편, 절편 잘 안 해서. 송편하고 묵하고 하면 되지. (송편은) 팥소도 넣고 녹두소도 넣고. 콩가루는 이제야 놓고 있지. 옛날엔 콩가루도 없었었어. 시루떡을 하나 상화떡을 하나. 옛날 상화떡 안 했어. 보릿가루로 해서, 벼들 많으니깐. 법환동 시루떡. 백시루떡도 하는 사람도 있고 소 넣는 사람도 있고. 옛날엔 소 많이 넣어. 옛날엔 증편 잘 안 해.

난 송편도 그거 해서 솔잎 내가 너무 좋아서 거 물에 씻거든, 씻으면 솔편 끊어진

377) 김효원 구술.
378) 현월선 구술.
379) 김효원 구술.
380) 현월선 구술.
381) 김효원 구술.
382) 현월선 구술.
383) 권옥열 구술.
384) 김효원 구술.
385) 현월선 구술.

거 몽땅 주워서 먹고. 이제도 난 저 송편 팔월 추석 때 송편 할 때 한 이 년 전엔 솔잎으로 해서. 그래야 맛 좋지, 'ᄃᆞ락ᄃᆞ락'[386]하고.

• **보리묵**

옛날엔 보리묵이라 메밀묵보단.[387] 보리묵 하영 헷어. 보릿ᄀᆞ루 클방에 강 ᄀᆞᆯ아당 기자 영 반죽헤근에 후라이판에 지지민 보리묵.[388] 경 아니민 송펜 접으멍 떡 재료로 허여근에 칼로 썰어근에 ᄀᆞ찌 헤영. 그것도 묵으로도 허고 (떡 재료) 냄겨근에[389] 떡허곡 것도 구워사.[390] 후라이판엘 허나, ᄀᆞ찌 송펜 ᄉᆞᆲ아내어근에 지름 ᄇᆞᆯ랑 그대로도 허곡 (방법은) 여러 가지.[391]

옛날엔 '보리묵'[392]이야, 메밀묵보다는. '보리묵' 많이 했어. 보릿가루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그저 이렇게 반죽해서 프라이팬에 지지면 '보리묵'. 그렇지 않으면 송편 집으면서 떡 재료로 해서 칼로 썰어서 같이 해서. 그것도 묵으로도 하고 (떡 재료) 남겨서 떡하고 것도 구워야. 프라이팬에를 하나, 같이 송편 삶아내어서 기름 발라서 그대로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 **채소**

채소 고사리허고게 양에 이시민. 팔월 멩질에 호박 잘헤여. 호박 딸 때 난.[393] 호박이 동그락헌 거 아니? 게민 숟구락으로 껍데기 ᄆᆞᆫ 벳겨놔사

386) 'ᄃᆞ락ᄃᆞ락'은 잔 것들이 여럿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뜻한다.
387) 권옥열 구술.
388) 김효원 구술.
389) 현월선 구술.
390) 김효원 구술.
391) 현월선 구술.
392) '보리묵'은 보리가루로 만든 묵을 말한다.

그거 영 갈라근에 썰어근에 솖아근에 채수 헷어. 콩ᄂᆞ물 집이서 시리에 놓곡. 물 잘 안 주곡 (팔월은) 더워 부난.[394] 밧디 강 오곡 일허당 보민 팔월 잘못헷다근에 ᄆᆞᆫ 썩어 불곡.[395] 물 두루 주민 ᄌᆞᆫ 발 막 나곡.[396] 막숙에 (콩나물) 씨치레 강 보민 고양 헌 사름, 고웁게 헌 사름.[397]

채소 고사리하고 양하 있으면. 팔월 명질에 호박 잘 했어. 호박 딸 때니깐. 호박이 동그란 거 아니? 그러면 숟가락으로 껍데기 모두 벗겨놔야 그거 이렇게 나눠서 썰고 삶아서 채소 했어. 콩나물 집에서 시루에 넣고. 물 잘 안 주곡 (팔월은) 더워 버리니깐. 밭에 가서 오고 일하다가 보면 팔월 잘못했다가 몽땅 썩어 버리고. 물 덜 주면 잔 발 마구 나고. '막숙'에 (콩나물) 씻으러 가서 보면 고이 한 사람, 곱게 한 사람.

- **멩질옷**

남자 옷게. 저 팔월에 입는 거[398] 모시 두루막에 광목 바지, 적삼에, 쪼께에 헤여근에 허민 그 동전 ᄃᆞᆯ젠 허민 힘들고. 경 헤영 풀로 ᄆᆞᆫ 다리고. 저 밀풀로, 엿날 밀가루 엇어.[399] 쌀로 죽 쒀근에 주머니 헤근에 잘리에 쌍 짜근에[400] 허여야 부드러와. 밀가루는 빨리 바짝바짝 들어불곡. ᄆᆞᆯ류기 전이 손 봐.[401] 다듬이 헷주게. 땅바닥에 놓민 다리질 못허여.[402] 모신

393) 현월선 구술.
394) 김효원 구술.
395) 현월선 구술.
396) 권옥열 구술.
397) 현월선 구술.
398) 현월선 구술.
399) 김효원 구술.
400) 현월선 구술.
401) 권옥열 구술.
402) 김효원 구술.

다듬이 안 허여. 다령, 다리웨 시민 영 잡앙 영 허곡. ᄒᆞᆫ 사름이 영 심으민 그디선 ᄒᆞᆫ 착 심곡 다리미 심어근에 영 영 허곡. 또 이짝에 심곡 이짝에 심곡. 또 ᄉᆞ미 심곡 앞이영 뒤에영 조근조근 심엉 고양케 헤영 놧다근에.[403]

남자 옷 저 팔월에 입는 거 모시 두루마기에 광목 바지, 적삼에, 조끼에 해서 하면 그 동전 달려고 하면 힘들고. 그렇게 해서 풀로 몽땅 다리고. 저 밀풀로, 옛날 밀가루 없어. 쌀로 죽 쒀서 주머니 해서 자루에 싸서 짜서 해야 부드러워. 밀가루는 빨리 바짝 바짝 들어버리고. 마르기 전에 손봐. 다듬이 했지. 땅바닥에 놓으면 다리질 못해. 모시는 다듬이 안 해. 다려서, 다리미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 거기선 한 쪽 잡고 다리미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잡고 이쪽에 잡고. 또 소매 잡고 앞이랑 뒤에랑 조근조근 잡아서 온전하게 해서 놨다가.

(2) 차례 지내기

제서 지낼 거 ᄎᆞ려얄 거.[404] 제지낼 거난[405] (권당들) 조근조근헹 올 거주. 종손이 집은 제일 나중이.[406]

제사 지낼 거 차려야 할 거. 제지낼 거니깐. (권당들) 조근조근해서 올 거지. 종손의 집은 제일 나중에.

403) 현월선 구술.
404) 김효원 구술.
405) 현월선 구술.
406) 권옥열 구술.

(3) 놀이

엿날엔 잘도 놀아낫어. 웃동네로 큰동네ᄁᆞ지 돌아뎅기멍 놀아낫주. (어릴 땐) 다까노도비 허멍이. 다까노도메 헤근에 ᄒᆞᆫ 사람 탁 거쪄근에 저레 ᄃᆞᆯ아갓단 와근에 또 ᄒᆞᆫ 사람 왕 탁 거쪄 가곡. 다까노도비, 다까노도비 허멍 (술래잡기나) 비슷헌 거 그런 거 잘도 헤낫어.[407] (허벅 장단) 그런 건 나이든 어룬덜. 엿날에 우린 학교 ᄌᆞ끗디난양. 학교 운동장에서 베, 고무줄 헤여근에 ᄃᆞᆯ 훤허난.[408] 팔월 멩질날 밤이 ᄃᆞᆯ 좋아 놓난. 경허민 떡이 그런 거 걸어놔둔 것들 ᄆᆞᆫ 앗앙 먹어불곡. 떡들 동골랑차롱에 걸어놔두민 ᄆᆞᆫ 그것들 앗당 먹어 불곡 헤낫어. 벳깃디게 쉬지 말렌 걸어둔 거. (결혼한 후젠) 경 놀아볼 시간이 엇어. 농사지곡 그 애기덜 키우곡 허젠 허민이. 수돗물 엇어 놓난[409] 막숙에 물 져 오곡 밤이 강 빨래헹 오곡. 어느 저르에 ᄌᆞᆷ이라도 실피 자봐시민.[410]

옛날엔 잘도 놀았었어. '웃동네'로 '큰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놀았었지. (어릴 땐) '다까노도비' 하면서. '다까노도메'[411] 해서 한 사람 탁 건드려서 저리로 돌아갔다가 와서 또 한 사람 와서 탁 건드려서 가고. '다까노도비', '다까노도비' 하면서 (술래잡기나) 비슷한 거 그런 거 잘도 했었어. (허벅 장단) 그런 건 나이든 어른들. 옛날에 우리 학교 근처니깐요. 학교 운동장에서 바, 고무줄 해서 달 훤하니깐. 팔월 명질 밤에 달 좋아 놓으니깐. 그러면 떡 그런 거 걸어 놓아둔 것들 몽땅 꺼내서 먹어 버리고. 떡들

407) 김효원 구술.
408) 현월선 구술.
409) 김효원 구술.
410) 현월선 구술.
411) '다까노도메'는 술래잡기와 같은 놀이 종류이다. 달리 '다까노도비'라고 한다.

도시락에 걸어 놔두면 몽땅 그것들 가져다가 먹어 버리고 했었어. 밖에 쉬지 말라고 걸어둔 거. (결혼한 후엔) 그렇게 놀아볼 시간이 없어. 농사짓고 그 아기들 키우고 하려고 하면. 수돗물 없어 놓으니깐 '막숙'에 물 져서 오고 밤에 가서 빨래해서 오고. 어느 겨를에 잠이라도 실컷 자봤으면.

3) 생업

(1) 꼴 장만

촐 비는 게 완전 큰일이주게. (이녁) 촐밧이 다 잇어. 촐 비레도 요 장갑이 이시카? 그냥 이런 손으로 강 촐 비엇주게. 소웽이가시, 탈낭가시, 소왕가시 이신 거 그대로 호미로 심으멍 (촐을) 비어. 사는 건지 마는 건지.[412] 그 가시낭, 솔입 가시, 손도양 아니 아파신ᄀᆞ라 그땐 느나엇이 어룹게도 생각 안 허고 으레 거 헐 걸로 생각허난, 소 키우는 디는 다.[413] 게곡 촐 비민 그거 구루마로 시꺼 오곡 구루만 말쩨곡 쉐로 ᄆᆞᆫ 시꺼왕 그 먼 디서 ᄒᆞ루 세 번 (소 하나에) 두 눌 눌어사.[414]

꼴 베는 게 완전 큰일이지. (이녁) 꼴밭이 다 있어. 꼴 베러도 요 장갑이 있을까? 그냥 이런 손으로 가서 꼴 베었지. 엉겅퀴 가시, 산딸기나무 가시, 호랑가시 있는 거 그대로 낫으로 잡으면서 (꼴을) 베어.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그 가시나무, 솔잎 가시, 손도요 안 아팠는지 그땐 너나없이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으레 거 할 걸로 생각하니깐, 소 키우는 데는 다. 그리고 꼴 베면 그거 달구지로 실어 오고 달구지만 말째고 소로

412) 김효원 구술.
413) 현월선 구술.
414) 김효원 구술.

몽땅 실어와서 그 먼 데서 하루 세 번 (소 하나에) 두 가리 가려야.

• **추억담**

촐 비레도 동고랑착에 밥 넣곡 나무에 걸어놔두면 춤ᄂᆞ물 소들소들.[415] 게곡 뒌장 그거 반찬.[416] 옛날에 범섬에 가민 자리 거령 와근에 사근에 그 자리 아졍 강 고사리 활랄랄랄랄허게 타민 그 고사리 탄 우터레 그거 구웡. 아이고 뒈쌋당 ᄂᆞ다쌋당 헹 불치가 시커멍 영 털어둬근에 먹곡 경헤 낫어.[417] 반도 안 익은 거 이거 때려 넣곡 먹엇어.[418] 경헤도 거 맛 좋아. 이젯 거보단 맛 좋아.[419]

꼴 베러도 '동고랑착'[420]에 밥 넣고 나무에 걸어 놔두면 참나물 '소들소들'. 그리고 된장 그거 반찬. 옛날에 '범섬'에 가면 자리돔 잡아 와서 사서 그 자리돔 가지고 가서 고사리 활랄랄랄랄하게 타면 그 고사리 탄 위에 그거 구워서. 아이고 뒤집었다가 'ᄂᆞ다쌋당'[421] 해서 재가 시꺼매서 이렇게 떨어둬서 먹고 그랬어. 반도 안 익은 거 이거 때려 넣고 먹었어. 그래도 거 맛 좋아. 이제 거보단 맛 좋아.

(2) 창호지 바르기

촐 헤영 끗나민 (창호지) 붤르는 거.[422] 풀덜 허곡 허민 농사허기 전이

415) 권옥열 구술.
416) 현월선 구술.
417) 김효원 구술.
418) 권옥열 구술.
419) 현월선 구술.
420) '동고랑착'은 대오리를 엮어 네모나게 만든 그릇으로 도시락으로 사용한다.
421) 'ᄂᆞ다싸다'는 이미 뒤집은 것을 다시 뒤집어 바로 하다는 뜻이다.
422) 김효원 구술.

ᄒᆞ꼼 기간이 잇주게. 여자들은 그거 다 헤사.[423] 팔월 나거나 하늬ᄇᆞ름 나민 (저승옷) 쎄운덴.[424]

꼴 해서 끝나면 (창호지) 바르는 거. 풀들 하고 하면 농사하기 전에 조금 기간이 있지. 여자들은 그거 다 해야. 팔월 나거나 하늬바람 불면 (저승옷) 쓘다고.

□ 9월

1) 당제

법환이 일뤠당 일 년에 세 번 정도.[425] 정월허곡 유월허곡 구월허곡.[426] (갈 땐) 밥허곡 고기, 과일허고 바닷고기.[427]

'법환동' '일뤠당'[428] 일 년에 세 번 정도. 정월하고 유월하고 구월하고. (갈 땐) 밥하고 고기, 과일하고 바닷고기.

2) 생업

423) 현월선 구술.
424) 김효원 구술.
425) 현월선 구술.
426) 김효원 구술.
427) 현월선 구술.
428) '일뤠당'은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당 가운데 하나로, 마을 수호신인 본향을 모시는 당이다. 이곳은 1월, 6월 9월 이레날 찾아가는 당이다.

(1) 가을걷이

상강 돌아와가민 거제 드릇엣 거, 밧딧 거 거둬들일 때주게. 이 밧딘 뭐 엇어야 뒐 거. 조가 제일 ᄆᆞᆫ저. 그다음 나록, 산디, 고구마가 제일 나중에. 나록은 발로 영영 헤근에 허곡.[429] 그거 발로 험 전이도 그 논 족은 사름들은이[430] 홅엇어, 밧디서 다. (보리클과 나록클) 세와진 거는 보리나 나룩이나 영 허는디. 보리클은 영 벌겨져[431] 넙곡 틀려. 나록이사 ᄀᆞᆫ늘주게. (겡 나록클은) ᄒᆞ꼼 이 구녕이 족주게.[432] 그 여물이 다 영 나오젠 허민 이걸 엉기민 이거 ᄒᆞᆷ치 나와부는 따문에 영 ᄌᆞᆸ아사 이거 홅어지주게.[433] 도께로 때리는 건 콩허곡 모믈허고 막 헷주게.[434]

상강 돌아오면 거즘 들의 거, 밭의 거 거둬들일 때지. 이 밭엔 뭐 없어야 될 거. 조가 제일 먼저. 그다음 벼, 밭벼, 고구마가 제일 나중에. 벼는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거 발로 하기 전에도 그 논 작은 사람들은 훑었어, 밭에서 다. ('보리클'과 그네) 세워진 거는 보리나 벼나 이렇게 하는데, '보리클'[435]은 이렇게 벌어지고 넓고 달라. 벼야 가늘지. (그래서 그네는) 조금 이 구멍이 작지. 그 여물이 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이걸 '엉기민'[436] 이거 함께 나와버리는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이거 훑을 수 있지. 도리깨로 때리는 건 콩하고 메밀하고 마구 했지.

---

429) 김효원 구술.
430) 현월선 구술.
431) 김효원 구술.
432) 현월선 구술.
433) 김효원 구술.
434) 현월선 구술.
435) '보리클'은 보리를 떠는 농기구 중 하나이다. 그네와 다르게 쇠틀이 굵고 그 사이가 벌어져 있다.
436) '엉기다'는 틈이나 구멍이 배지 않다는 말이다.

• **조 걷이**

조는 영 ᄒᆞ나썩 헹 ᄐᆞᆫ아근에 호미로 끊어근에 이 멩텡이에 담앗다근에 ᄆᆞᆯᄀᆞ레에 강 ᄀᆞᆯ앗주게. 대로 그뭇 짤라다근에 집일 오든가 밧딜 허든가 짤랑 허민 ᄯᆞ루 고고리만 또 영영 잡아근에 짤라근에 멩텡이에 담아근에 그거 ᄀᆞ는 거주게.[437] 고고리 ᄒᆞ꼼 ᄆᆞᆯ류와사, 와상와상 널어 앚앙 멍석에 고고리만 ᄐᆞᆫ는 거.[438] (지금은) 조도 기계로 다 헌덴 헨게이.[439]

조는 이렇게 하나씩 해서 뜯어서 낫으로 끊어서 이 망태기에 담았다가 연자매에 가서 갈았지. 대로 금 잘라다가 집에를 오든가 밭에서 하든가 잘라서 하면 따로 이삭만 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잘라서 망탱이에 담아서 그거 가는 거지. 이삭 조금 말려와야, '와상와상' 널고 앉아서 멍석에 이삭만 뜯는 거. (지금은) 조도 기계로 다 한다고 하던데.

(2) 소 물 먹이기

겨울에 난이 쉐 멧다근에 물 멕이레 가젠 허민이 이 쉐가 하늘만큼 막 들락퀴멍 영 심어근에 멕이레 가젠 허민 막 끗엉 가근에 ᄉᆞ뭇 기냥 내불민 막 법환이 천지 돌아뎅기당은에 누게 심어주민 끗엉 오곡 헤낫어.[440] 난양 그 쉐막이 쉐클이엔 헌 것이 ᄆᆞᄉᆞ완게, 찔러부카 부덴. 경허민 나 멕이레 안 강 물 지어당 멕여나수다, ᄆᆞᄉᆞ왕.[441] 겨울 내낭 메어놧다근에양 쉐 메어놓민양 살지 못허여.[442] 쉐석 클르젠 허민 (뿔로 막) 찔레 허곡. 얼먹는

437) 김효원 구술.
438) 현월선 구술.
439) 김효원 구술.
440) 김효원 구술.
441) 권옥열 구술.
442) 김효원 구술.

사름 하.[443]

겨울에 난 소 맸다가 물 먹이러 가려고 하면 이 소가 하늘만큼 마구 날뛰면서 이렇게 잡아서 먹으러 가려고 하면 마구 끌고 가서 사뭇 그냥 내버리면 마구 '법환동' 천지 돌아다니다가 누가 잡아주면 끌어서 오고 했었어. 난 그 외양간에 봇줄이라고 한 것이 무서워서, 찔러 버릴까 봐. 그러면 나 먹이러 안 가고 물 길어다가 먹였었습니다, 무서워서. 겨울 내내 매어놨다가요 소 매어놓으면요 살지 못해. 봇줄 풀려고 하면 (뿔로 마구) '찔레'[444] 하고 얼먹는 사람 많아.

(3) 기타

감저 팜 전이 이불덜 여름에 다 안 더끄난 놧다근에 한이불은 가을 들민 거 다 풀헤여. 이불안 엿날 광목이나 미녕으로덜만 헤나난 그거 옷덜 풀허영 다 들여놓곡 문 허는 거.[445] 이불 안에 영 영 닥닥닥닥[446] 두드려근에 그거 이불 끼왕 놔두는 거. 가을 농서 허기 전이 다 구월달에 헤영 놔둬사 한걸허주.[447]

감자 파기 전에 이불들 여름에 다 안 덮으니깐 놨다가 솜이불은 가을 되면 거 다 풀해. 이불안 옛날 광목이나 무명으로들만 했었어서 그거 옷들 풀해서 다 들여넣고 몽땅 하는 거. 이불 안에 이렇게 이렇게 닥닥닥닥 두드려서 그거 이불 끼워서 놔두는

443) 현월선 구술.
444) '찔레'는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을 말한다.
445) 현월선 구술.
446) 권옥열 구술.
447) 현월선 구술.

거. 가을 농사 하기 전에 다 구월에 해서 놔둬야 한가하지.

□ 10월

1) 생업

옛날에 뻿데기 집이서 먹는 건 별로 아녀고. 기자 폴 걸로만게 뻿데기 헤근에이 감저 파멍 이거 돌려가멍 널어가멍 허여사. ᄒᆞ루라도 빨리 헤여근에 ᄆᆞᆯ르게시리 허젠.[448] (널 땐) 감자 파나민 테역밧딘 더 좋고 흑이 엇이난 조크루에 강 뿌려야 흑 안 부떠.[449] 이거 널 때랑, 이거 ᄆᆞᆯ를 동안 비 오지 말아 줍서, 비 오지 말아 줍서 빌어사. 그추룩 헹 비 안 맞앙 헹은 일등 상품으로 돈을 좀 받곡. 그 비 맞아불민 써거 불곡 노랑헤 불곡 어떵 헤불민 이 그거 막 깝을 안 줘낫주게. 비 왐직허덴 밤중에 아이덜 다 ᄃᆞᆯ아근에 밧디 강 그거 줏어난. 그거 줍는 것이 진짜 힘든 거게.[450]

옛날에 절간고구마 집에서 먹는 건 별로 않고. 그저 팔 걸로만 절간고구마 해서 고구마 파면서 이거 돌려가면서 널어 가면서 해야. 하루라도 빨리 해서 마르게끔 하려고. (널 땐) 고구마 파고 나면 잔디밭은 더 좋고 흙이 없으니깐 '조크루'[451]에 가서 뿌려야 흙 안 붙어. 이거 널 때는, 이거 마를 동안 비 오지 말아 주십시오, 비 오지 말아 주십시오 빌어야. 그처럼 해서 비 안 맞아서 해서 일등 상품으로 돈을 좀 받고.

448) 김효원 구술.
449) 현월선 구술.
450) 김효원 구술.
451) '조크루'는 조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그 비 맞아 버리면 썩어 버리고 노래 버리고 어떻게 해 버리면 그거 아주 값을 안 줬었지. 비 옴직하던데 밤중에 아이들 다 데리고 밭에 가서 그거 주웠었어. 그거 줍는 것이 진짜 힘든 거.

□ 11월

1) 동지

풋죽 헤 먹는 사름은 먹곡 먹도 아년 사름은 아녀고. (새알심) 이제사 놈주, 엿날엔 안 놔낫주게.[452] 애기동지 (풋죽) 안 쒕. 절간에도 안 쒀.[453] 거 방쉬 아닌가? 올레도 뿌리곡. 궂인, 나쁜 벵덜토 오지 말고[454] 일 년 내내 건강허곡 병 부뜨지 말렌. 엿날에 벳깃디도 뿌리곡 막 허여낫저.[455]

팥죽 해 먹는 사람은 먹고 먹지도 않은 사람은 않고. (새알심) 이제야 놓고 있지, 옛날엔 안 넣었었지. '애기동지'[456] (팥죽) 안 쒀서. 절에도 안 쒀. 거 방사 아닌가? 오래도 뿌리고. 궂은, 나쁜 병들도 오지 말고. 일 년 내내 건강하고 병 붙지 말라고. 옛날에 밖에도 뿌리고 마구 했었어.

2) 장 담그기

452) 현월선 구술.
453) 김효원 구술.
454) 현월선 구술.
455) 김효원 구술.
456) '애기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이전에 동지가 드는 날로 팥죽을 쒀 먹지 않는 동지다.

장 담가야주. 메주? 농사 끗나민게. 동짓덜에.[457] 돗걸름밧 끗낭.[458] ᄒᆞᆫ 십일월에 메주 (쒀야) 경헤근에 장은 섣달그믐날 담아[459] ᄎᆞᆫ물 져다근에.[460] 장 ᄃᆞᆷ가둥 멩질 헹 먹곡.[461]

장 담가야지. 메주? 농사 끝나면 동짓달에. '돗걸름밧'[462] 끝나서. 한 십일월에 메주 (쒀야) 그래서 장은 섣달그믐날 담아 찬물 져다가. 장 담가둬서 명질 해서 먹고.

3) 납평날

넵펭날, 엿 허는 날이렌 허여. 동짓날 골 놔근에 (엿 헤). 그땐 좁썰게. 검은좁썰로 헤근에 엿 헷주게. 검은좁썰에 엿 헤여근에 ᄃᆞᆨ ᄉᆞᆲ아근에 찢어근에 그 엿에 ᄀᆞ찌 헤여근에 그거 췌고 보약으로. 췌고 보약이라근에이 영 헹 곱졋다근에 영 무시거 주젠 허당 보믄 애기덜 ᄆᆞᆫ 앗당 먹어불곡 헤낫어.[463] 도세기 엇어나민 그 각 부분엣 거 헤다근에 허곡.[464] 엿 허는 디 놓젠 허민 다리엣 거, 목엣 거, 배따지엣 거. 그런 거 다 ᄒᆞᆫ 점썩 끊어다근에 그 엿헌덴 허는 말. 그추룩 헤야 좋녠. 경허민 도세기 ᄒᆞᆫ ᄆᆞ리 먹은 거.[465]

납평날, 엿 하는 날이라고 해. 동짓날 엿기름 놔서 (엿 해). 그땐 좁쌀. 검은좁쌀로

457) 김효원 구술.
458) 현월선 구술.
459) 김효원 구술.
460) 현월선 구술.
461) 김효원 구술.
462) '돗걸름밧'은 돼지우리에서 파낸 거름을 뿌린 밭을 말한다.
463) 김효원 구술.
464) 권옥열 구술.
465) 김효원 구술.

해서 엿 했지. 검은좁쌀에 엿 해서 닭 삶아서 찢어서 그 엿에 같이 해서 그거 최고 보약으로. 최고 보약이어서 이렇게 해서 숨겼다가 이렇게 무엇 주려고 하다가 보면 아기들 몽땅 갖다가 먹어 버리고 했었어. 돼지 없으면 그 각 부분의 거 해다가 하고. 엿 하는 데 놓으려고 하면 다리의 거, 목의 거, 배의 거. 그런 거 다 한 점씩 끊어다가 그 엿 한다고 하는 말. 그처럼 해야 좋다고. 그러면 돼지 한 마리 먹은 거.

□ 12월

1) 지붕이기

ᄒᆞᆫ 섣덜에게 그거 끗낭 멩질 허곡.[466] 날이 좋지 아녀민 새해 낭도 정월에도 허곡 이월에도 허곡 삼월ᄀᆞ지도 허곡.[467] (법환인 새) 하영 필요허주게. 거난 산에 이녁 밧덜이 잇주게, 새밧. 이녁 밧 엇인 사름은 놈이 거 ᄆᆞᆫ 도독질헹[468] 줄 비곡 지붕 더끌 거 새 강 ᄆᆞᆫ 비엉 오곡. 줄 놓는 거 우리가 다 헤. 남저들은 잘 아녀.[469] 줄 비는 것도양 어울리는 건 (사람) 너이. 호렝이로.[470] 저 양쪽에 영, 영 영 비곡 가운디 영 헤가곡 두에서 또 영 영 감곡. 줄 다 비어놔근에[471] 다 끗나민 집 일 거. 그때 이는 사름도 잘도 힘들어, 빌젠 허민. 돈도 젤 하영 주곡.[472] 집도 잘 일어야주게. 착허

466) 김효원 구술.
467) 현월선 구술.
468) 김효원 구술.
469) 현월선 구술.
470) 김효원 구술.
471) 현월선 구술.
472) 김효원 구술.

게 골고루 헤야 비가 안 샐아.[473]

한 섣달에 그거 끝나서 명질 하고. 날이 좋지 않으면 새해 되어도 정월에도 하고 이월에도 이월에도 하고 삼월까지도 하고. (법환동은 띠)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깐 산에 이녁 밭들이 있지, 띠밭. 이녁 밭 없는 사람은 남의 거 몽땅 도둑질해서 줄 꼬고 지붕 덮을 거 띠 가서 몽땅 베어서 오고. 줄 놓는 거 우리가 다 해. 남자들은 잘 안해. 줄 꼬는 것도요 어울리는 건 (사람) 넷. '호렝이'[474]로. 저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고 가운데 이렇게 해 가고 뒤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감고. 줄 다 꼬아놔서 다 끝나면 집 일 거. 그때 이는 사람도 잘도 힘들어, 빌리려고 하면. 돈도 제일 많이 주고. 집도 잘 이어야지. 착하게 골고루 해야 비가 안 새어.

• **옥겡이집**

법환이 집은 ᄇᆞ름이 쎄난 옥겡이집이 하덴. 집이 야프게 허난[475] 옥겡이집이엔 헤근에 나무 적당헌 거 ᄀᆞᆫ느룽헌[476] 나무로 ᄆᆞᆫ 헤근에 새로 ᄆᆞᆫ 지붕 더꺼놔근에 우리 발로 두 발썩 헌 것도 그 줄에 ᄆᆞᆫ 놔근에 우터레 새로 영 더꺼놔근에 우트레 또 거 더꺼. 그 줄에 꿰멍게.[477] 그걸 헤영 가운디 주젱이 헤여근에 그 쏘곱에 줄덜 헤영 무껑. 지붕 우이서 걸 꿰어. 그 옥겡이집 허는 줄은 ᄒᆞ꼼 느슨허게 헤여. (나무) 뀔 수 잇게시리.[478] (줄을) 뒈게 안 허여근에게 ᄒᆞ썰 엉살 엉살허게.[479] 거난 옥겡이집이 많진

473) 권옥열 구술.
474) '호렝이'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뒤트는 도구를 말한다.
475) 권옥열 구술.
476) 현월선 구술.
477) 김효원 구술.
478) 현월선 구술.
479) 김효원 구술.

안허여. (옥겡이 집) 일 년에 ᄒᆞᆫ 번 (일어). 그런 거 허는 아저씨덜이 잇어. 돈 줘근에 빌어사. 경허민 또 집 아래선 무끄주게. (나무) 꿰어근에 허민양 줄 많이 안 들어. 친정엔 큰집은 그거 허곡. 양펜이 밧거리, 모커리엔 그자 줄로만 허곡. 나무가 옥겡이, 소낭이주게, 춤낭. 과짝헌 거 이만썩 헤여.[480]

법환동 집은 바람이 세니깐 '옥겡이집'[481]이 많다고. 집 얕게 하니깐 '옥겡이집'이라고 해서 나무 적당한 거 가느다란 나무로 몽땅 해서 띠로 모두 지붕 덮어놔서 우리 발로 두 발씩 한 것도 그 '줄'[482]에 모두 놔서 위에 띠로 이렇게 덮어놔서 위에 또 그거 덮어. 그 '줄'에 꿰면서. 그걸 해서 가운데 주저리 해서 그 속에 '줄'들 해서 묶어서. 지붕 위에서 걸 꿰어. 그 '옥겡이집' 하는 '줄'은 조금 느슨하게 해. (나무) 꿸 수 있게끔. ('줄'을) 되게 안 해서 조금 성글 성글하게. 그러니깐 '옥겡이집'이 많진 않아. ('옥겡이집') 일 년에 한 번 (이어). 그런 거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 돈 줘서 빌려야. 그러면 또 집 아래선 묶지. (나무) 꿰어서 하면요 '줄' 많이 안 들어. 친정엔 큰집은 그거 하고 양편 바깥채, 곁채에는 그저 '줄'로만 하고. 나무가 '옥겡이', 소나무지, 참나무. 곧은 거 이만큼씩 해.

2) 신구간

신구간에는게 이사허는 거뿐이주. 솟부떠 (아졍 강)[483] 제일 ᄆᆞᆫ저 밥허곡게. 처움엔 소금허곡 ᄑᆞᆺ허곡[484] 아졍 강 쫙쫙 뿌리주게.[485] 구신ᄀᆞ뜬

480) 현월선 구술.
481) '옥겡이집'은 초가지붕을 얽어맬 때 나뭇가지를 함께 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든 집을 말한다.
482) '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483) 권옥열 구술.
484) 현월선 구술.

거 나가게시리게. 방쉬. 성냥도 아졍 가.[486] 활활 불 ᄀᆞ찌 올라오렌.[487] 경허곡 궂덴 허민 들어갈 때 화리에 불 살롸 그걸 영 넘엉 가곡. 우린 안 해봐도 경 허는 사름이 하낫어. 어디서 날 보레 가민 경 헹 가라 시키주게. 그믄 어느 방향으로 돌앙 가렌 허곡. 막은방 잇곡. 튼방 잇곡 허는 따문에.[488]

'신구간'[489]에는 이사하는 거뿐이지. 솥부터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밥하고. 처음엔 소금하고 팥하고 가지고 가서 쫙쫙 뿌리지. 귀신같은 거 나가게끔. 방사. 성냥도 가지고 가. 활활 불 같이 올라오라고. 그리고 궂다고 하면 들어갈 때 화로에 불 살라서 그걸 이렇게 넘어서 가고. 우린 안 해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었어. 어디서 날 보러 가면 그렇게 해서 가라 시키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 가라고 하고. '막은방'[490] 있고, '튼방'[491] 있고 하는 때문에.

- **집알이**

거꿈 나는 거 그런 거, 비누나.[492]

거품 나는 거 그런 거, 비누나.

---

485) 권옥열 구술.
486) 현월선 구술.
487) 권옥열 구술.
488) 현월선 구술.
489) '신구간'은 제주에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날은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 새로운 신으로 교체되는 시기다. 이날 집을 수리하는 등 일을 하더라도 별 탈이 없다고 믿었다.
490) '막은방'은 해운이 막힌 방향이라는 뜻이다.
491) '튼방'은 해운에 따라 아무 일이나 해도 탈이 없는 방위라는 뜻이다.
492) 권옥열 구술.

3) 생업

(1) 보리 갈기

• 돗걸름 내기

음력 십일월 동짓덜에 보릴 갈주게.[493] 감자 다 파나곡 조 다 헤나민 (양력) 십일월달, 돗걸름밧 보리 갈 때 돗걸름 파내어근에게[494] 영 올레 넙은 디 ᄆᆞᆫ 져다근에 부려근에[495] 보리씨 삐엉 쉐로[496] ᄀᆞᆺ사 밧 ᄇᆞᆯ리듯 ᄇᆞᆯ릴 거주게.[497] 그 씨가 골고루 가게. 거 걸룸도 경헤야 ᄒᆞ꼼 칭기가 잇어. 경헹 끗는 걸로 이레 ᄆᆞᆫ 데미주.[498] 데몃당 아침이 멩텡이 앗다근에 쉐스랑으로 팡팡헤여근에 멩텡이에 담아근에 ᄒᆞ나 담아근에 또 ᄆᆞᆫ ᄇᆞᆯ라야 뒈어. ᄇᆞᆯ르지 아녀믄 다 떨어져 불 거주게.[499] 안 뒈주게, 튼튼허여.[500]

음력 십일월 동짓달에 보릴 갈지. 고구마 다 파고 조 다 하고 나면 (양력) 십일월, '돗걸름밧' 보리 갈 때 소두엄 파내서 이렇게 오래 넓은 데 몽땅 져다가 부려서 보리씨 뿌려서 소로 바로 밭 밟듯 밟을 거지. 그 씨가 골고루 가게. 거 거름도 그래야 조금 진기가 있어. 그래서 끄는 걸로 여기에 몽땅 쌓지. 쌓았다가 아침에 망태기 갖다가 쇠스랑으로 팡팡해서 망태기에 담아서 하나 담아서 또 몽땅 밟아야 돼. 밟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릴 거지. 안 되지, 단단해.

493) 김효원 구술.
494) 현월선 구술.
495) 김효원 구술.
496) 현월선 구술.
497) 김효원 구술.
498) 현월선 구술.
499) 김효원 구술.
500) 현월선 구술.

• **보리씨 삐기**

둣날 아척은 멩텡이에 담앙 구루마에 시끄든 쉐에 시끄든 그거 밧디 강 ᄆᆞᆫ 푸곡.[501] 황당헌 딘, 큰 질레에 퍼근에 밧디 ᄆᆞᆫ 밧 멧 개 헤영 져 날라사 헤.[502] 밧디 강 멩텡이 ᄒᆞᆫ 밧디 비우지 아녕 영 풀멍 영 삐울 만썩 곤데곤데 헤영. 삐우젠 허민 어떤 덴 눈 오민 강 보민 딱 얼려 비엉. 뿌리질 못허여. 경허믄 돌멩이로 막 ᄆᆞᆺ아근에. 이거 장갑도 안 쪙 빈손으로 그추룩 허영 ᄆᆞᆫ 살앗주게. (걸름) ᄆᆞᆺ아근에 영 영 영 풀멍 이거 영 뿌릴 거주게.[503] 너미 굵게 허민 보리 나민 안 좋주게. 적당허게 풀어야 보리가 곱게 나주게.[504] 줌질이 이거 영 풀멍 영영 뿌려 가민 옆으론 갈아갈 거주게.[505] 산파로 헌 건, 감젓그룬 경 뿌리고. 그대로 영 헤여근에 고랑에 끊어 놓는 거 잇곡 조크루 골로만 적당허게시리 영 헤근에 톡톡톡톡 끊어 놓멍 탁탁탁[506] 골로 영 걸어가민 또 톡톡 끊어노민 두에선 ᄒᆞᆫ 사름은 또 영 발로 막주게.[507] 옛날은 그거고 지금은 그냥 밧디 씨로 뿌렴수게, 쫙헹.[508] 겡 말쩨 도세기걸름 엇인 땐 불치로도, 모믈컬름. 그거 방씨 잘 벌여사게. 경헤사 보리 나민양 서포리 안 헤도 뒈.[509]

뒷날 아침은 망태기에 담고서 달구지에 싣든 소에 싣든 그거 밭에 가서 모두 푸고. 황당한 덴, 큰 길에 퍼서 밭에 몽땅 밭 몇 개 해서 지고 날라야 해. 밭에 가서 망태기

501) 김효원 구술.
502) 현월선 구술.
503) 김효원 구술.
504) 현월선 구술.
505) 김효원 구술.
506) 현월선 구술.
507) 김효원 구술.
508) 권옥열 구술.
509) 현월선 구술.

한 밭에 비우지 않아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뿌릴 만큼 군데군데 해서. 뿌리려고 하면 어떤 덴 눈 오면 가서 보면 딱 얼어 버려 뿌리질 못해. 그러면 돌멩이로 마구 마서. 이거 장갑도 안 껴서 빈손으로 그처럼 해서 모두 살았지. (거름) 마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면서 이거 이렇게 뿌릴 거지. 너무 굵게 하면 보리 나면 안 좋지. 적당하게 풀어야 보리가 곱게 나지. 자잘하게 이거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이렇게 뿌려 가면 옆으로 갈아갈 거지. 산파로 한 건, '감젓그루'[510]는 그렇게 뿌리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고랑에 끊어 놓은 거 있고 '조크루' 골로만 적당하게끔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끊어 놓으면 탁탁탁 골로 이렇게 걸어 가면 또 톡톡 끊어 놓으면 뒤에서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발로 막지. 옛날은 그거고 지금은 그냥 밭에 씨로 뿌리고 있습니다, 쫙해서. 그래서 말째 돼지거름 없을 땐 재로도, 메밀 거름. 그거 '방씨'[511] 잘 벌려야. 그래야 보리 나면요 '서포리'[512] 안 해도 돼.

(2) 감젓메 놓기

(감젓메) 미리[513] 헤여근에이 눈 오민이 문딱 써거 불민이 옛날 예춘, 가시리 그디ᄁᆞ지 가근에 옛날에 네귀방장헌 ᄒᆞᆫ 말짜리 잇주게. 이젠 뒛박이 잇주만은 그땐 ᄒᆞᆫ말들이 뒈가 잇어. 경허민 사름이 (씨) 뒛박 ᄒᆞᆫ말들이로 주멍 졸바로 주지도 아녀. 그 ᄆᆞ룩허게 줘야 ᄒᆞᆫ말들인디 그걸로 ᄒᆞ나도 솜빡허게 안 줭 허민 아이고 ᄒᆞ나만 더 줍서, ᄒᆞ나만 더 줍서 허멍 상와근에 그거 졍 왕 그추룩 허멍 살앗어.[514]

---

510) '감젓그루'는 고구마를 수확하고 난 밭을 말한다.
511) '방씨'는 씨 따위를 뿌리거나 곡식을 심을 때 일정한 구역을 정해 벌이는 일을 말한다.
512) '서포리'는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았지만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일찍 수확한 보리를 말한다.
513) 현월선 구술.
514) 김효원 구술.

(고구마 모종) 미리 해서 눈 오면 모두 썩어 버리면 옛날 '예춘'[515], '가시리'[516] 거기까지 가서 옛날에 네귀반듯한 한 말짜리 있지. 이젠 되가 있지만 그땐 'ᄒᆞᆫ말들이'[517] 되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씨) 되 '한말들이'로 주면서 제대로 주지도 않아. 그 수북하게 줘야 '한말들이'인데 그걸로 하나도 가득하게 안 줘서 하면 아이고 하나만 더 주십시오, 하나만 더 주십시오 하면서 사고 와서 그거 지고 와서 그처럼 하면서 살았어.

515) '예춘'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일대의 마을을 가르키는 말이다.
516)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마을을 말한다.
517) 'ᄒᆞᆫ말들이'는 한 말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그릇을 말한다.

3. 서귀포시 하원동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 멩질떡

그 떡은 혼이 이십니까게. 흐끔 사는 집, 살이 좋게 사는 집이덜은 솔벤, 절벤 허곡. 경 아년 딘 기자 집이서 기자 침떡이나 허고 송펜이나 허고. 솔벤, 절벤 허는 딘 흐끔 살이 잇게 허는 디고 간단허게 허젠 허민 기자 송펜이나 줍곡, 침떡이나 허곡 기자. 경허고 솔벤, 절벤 허는 딘, 촘 대종손 칩이덜 가지궨당 좋곡 거시기헌 집이덜은 살이 허는 집인 솔벤, 절벤, 옛날엔 주장허연 헤수다게. 정월 멩질에도 송펜 헙니다게. 간단허게시리 기자 영헌 사름은 기자.[518]

엿날 일제 말엽에 송홧수라 헤 가지고서, 그거는 양력 일월 일일 뒈면은 그거 멩질을 헤연 헷고. 국멩질이엔 헌 건 음력 일월 일일 뒈어. 그게 이제 요새말로 설날, 그게 구멩질이렌 헷수다. 그게예, 밥허고 떡국을 혼디 올리는 게 아니라. 이따근에 그 떡국만 출려근에 밥 아녕 떡국 올리곡 그 떡덜 헤근에 요 뭐 탕쉬덜 헤곡 올리는 집안이 잇고. 경 아녀믄 떡국 허지 실퍼근

518) 강대선 구술.

에 밥헤여근에 그자 떡국 그 거시기로 대신 밥허곡 국허연에 그 떡 ᄀᆞ뜬 거 ᄀᆞ찌 헤 가지고 올리는 집도 잇고. 그 엿날 뭐 제주도 삶이 좀 힘든 때는 어디 떡은 ᄆᆞ음대로 헤져수가? 거시기 요 하원은 목장질에 속허니까. 그 모멀농ᄉᆞ 많이 헙니다. 모멀 허여근에 빙떡이라도 지져근에 그자 ᄒᆞᆫᄉᆞᆯ 올리곡, 묵 ᄀᆞ뜬 건 모멀로 많이 헙니다.[519]

그 떡은 한이 있습니까요. 조금 사는 집, 살이 좋게 사는 집들은 '솔벤'[520], 절편하고. 그렇게 않은 데는 그저 집에서 그저 시루떡이나 하고 송편이나 하고. 솔편 절편하는 덴 조금 '살이'[521] 있게 하는 데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그저 송편이나 집고, 시루떡이나 하고 그저. 그러고 솔편 절편 하는 덴, 참 '대종가'[522]에들 '가지권당'[523] 좋고 거시기한 집에들은 살이 하는 집엔 솔편, 절편, 옛날엔 주장해서 했습니다요. 정월 명질에도 송편 합니다요. 간단하게끔 그저 이런 사람은 그저.

옛날 일제 말엽에 '송홧수'[524]라 해 가지고서, 그거는 양력 일월 일일 되면 그거 명질을 해야 했고. '국멩질'[525]이라고 한 건 음력 일월 일일 되어. 그게 이제 요새말로 설날, 그게 구명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요, 밥하고 떡국을 함께 올리는 게 아니라. 이따금 그 떡국만 차려서 밥 않고 떡국 올리고 그 떡들 해서 요 뭐 '탕쉬'들 하고 올리는 집안이 있고. 그렇게 않으면 떡국 하기 싫어서 밥해서 그저 떡국 그 거시기로 대신

519) 강상흥 구술.
520) '솔벤'은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반달 모양의 떡살로 뜬 다음 삶거나 쪄낸 떡이다. 떡을 찔 때 솔잎을 깔기도 한다.
521) '살이'는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 '살림'의 의미로 쓰였다.
522) '대종손칩'은 표준어 '대종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대종가'는 동성동본의 일가 가운데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가장 큰 종가를 이르는 말인데 반하여 제주에서는 제주 입도조의 제사를 받드는 종가를 이르는 말인 것 같다.
523) '가지권당'은 종파에서 갈라져 나가 이뤄진 지파의 친족을 이르는 말이다.
524) '송홧수'는 정확히 어떤 뜻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525) '국멩질'은 정월 초하루에 차례상을 차리기 전에 조상들을 위해서 칼국수나 떡국을 올리는 제의다.

밥하고 국해서 그 떡 같은 거 같이 해 가지고 올리는 집도 있고. 그 옛날 뭐 제주도 삶이 좀 힘든 때는 어디 떡은 마음대로 해졌습니까? 거시기 요 하원은 '목장질'[526]에 속하니까. 그 메밀농사 많이 합니다. 메밀 해서 '빙떡'[527]이라도 지져서 그저 조금 올리고, 묵 같은 건 메밀로 많이 합니다.

(2) 차례

• 차례상

(차례상) 밥, 메게. 메라고 헙니다. 메, 게영, 국. 다음은 술잔양. 그 앞에다가 이젠 적. 산짐승부떠 젤 이 머리 쪽은 저 우쪽으로 놉니다예. 이게 노루고기 ᄀᆞ뜬 거. 엿날은 소고긴 아주 힘들어수다게. 뒈지고기, 그다음 해어. 아, 그다음은 묵. 묵 올려놔근에 해어는 제일 내중에.[528]

(차례상) 밥, 메. 메라고 합니다. 메, 갱, 국. 다음은 술잔요. 그 앞에다가 이젠 적. 산짐승부터 젤 이 머리 쪽은 저 위쪽으로 놉니다요. 이게 노루고기 같은 거. 옛날은 소고긴 아주 힘들었습니다. 돼지고기, 그다음 해어. 아, 그다음은 묵. 묵 올려놔서 해어는 제일 나중에.

• 해어

(해어가 뭐꽝?) 바르.[529] 바당고기. 바당에 뭐.[530] 셍성 올리주 무시거

526) '목장질'은 '목장+-질' 구성으로, 여기에서 '-질'은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527) '빙떡'은 메밀가루를 묽게 반죽한 후에 번철에서 얇게 지진 후에 무채 등을 넣고 말아서 만든 음식이다. 무채 대신에 팥소나 고구마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528) 강상흥 구술.
529) 강대선 구술.

올립니까.[531] 아, 바당궤기도 여러 가집주게. 여름철 ᄀᆞ뜬 땐 바당에 잘 뎅이는 사름은 나까당 그걸로 뭐 저 궝도 올리곡, 적도 허영 허곡 그 바당궤기도. 대개 솔라니덜이 많이 사용헙주. 솔라니도 조끔 고기가 싸지니까 조기도 사근에 궈근에 올릴 수도 잇고게.[532] 요즘은 보통으로 다 솔라니 썸수다마는 옛날엔 솔라니가 어디 이수가게. 바당이 가근에 ᄀᆞᆺ궤기. 청대로 ᄀᆞᆺ궤기 나까근에. ᄀᆞᆺ으로 나끈 궤기 골멩이마씨. 우럭 ᄀᆞ뜬 거, 어렝이 ᄀᆞ뜬 거, 그런 거 엇입니까? 그런 거 허여다근에 ᄆᆞᆯ류왓다근에 할망데 갈 때도 쓰곡. 솔라니 어려우민 멩질 때영 저 식게 때영 그런 우럭 ᄀᆞ뜬 것도 굽곡 경 헤나수다. 엿날에 솔라니가 경, ᄉᆞ뭇 쉽게 먹어졋수가? 요샌 그자 느나엇이 솔라니 먹엄주마는. 옛날은 ᄀᆞᆺ궤기 나까다근에 ᄆᆞᆯ류왓다근에 냉장고도 엇곡 허민 나룩에도 묻엉 놔두곡, 메역에도 쌍 놔두곡 허엿다근에. 메역에도 쌍 놔둡니다, 궤기. 옛날엔 메역에도 저거 메역 찬 거난양, 메역도 ᄆᆞᆯ류왕 놔두민 짜근에 그 메역에 ᄆᆞᆫ 소금 듭니께, 헤영케 ᄆᆞᆯ령. 냉장고 엇인 때.[533]

(해어가 뭡니까?) '바르'[534]. 바닷고기. 바다에 뭐. 옥돔 올리지 무엇 올립니까. 아, 바닷고기도 여러 가집지요. 여름철 같은 땐 바다에 잘 다니는 사람은 낚아다가 그걸로 뭐 저 구워서도 올리고, 적도 해서 하고 그 바닷고기도. 대개 옥돔들 많이 사용하지요. 옥돔도 조끔 고기가 싸지니까 조기도 사서 궈서 올릴 수도 있고. 요즘은 보통으로 다 옥돔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옥돔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가서 'ᄀᆞᆺ궤기'[535]. 낚싯대

530) 강상흥 구술.
531) 강대선 구술.
532) 강상흥 구술.
533) 강대선 구술.
534) '바르'는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바닷고기'를 이르는 말이다. 달리 '바당고기', '바당궤기'라고도 하였다.

로 ‘ᄀᆞᆺ궤기’ 낚아서. 가에서 낚은 고기 고생놀래기요. 우럭 같은 거, 어렝놀래기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해다가 말렸다가 당에 갈 때도 쓰고. 옥돔 어려우면 명질 때랑 저 제사 때랑 그런 우럭 같은 것도 굽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옥돔이 그렇게, 사뭇 쉽게 먹어졌습니까? 요샌 그저 너나없이 옥돔 먹고 있지만. 옛날은 ‘ᄀᆞᆺ궤기’ 낚아서 말렸다가 냉장고도 없고 하면 벼에도 묻어서 놔두고, 미역에도 싸서 놔두고 했다가. 미역에도 싸서 놔둡니다, 고기. 옛날엔 미역에도 저거 미역 짠 거니까요, 미역도 말려서 놔두면 짜서 그 미역에 몽땅 소금 듭니다, 허옇게 말려서. 냉장고 없을 때.

• 갱

옛날에 게영국은게 ᄀᆞᆺ궤기 나깡도 겡 허곡. ᄒᆞ끔 잘살아지는 집인 솔라니, 기자 귀허여도 솔라니 상 겡 허곡 기추룩 헤나십주게.[536]

옛날에 갱국은 ‘ᄀᆞᆺ궤기’ 낚아서도 갱 하고. 조금 잘살아지는 집엔 옥돔, 그저 귀하여도 옥돔 사서 갱 하고 그처럼 했습죠.

• 탕쉬

탕쉬, 콩ᄂᆞ물허곡 고사리허곡 미나리허곡. 탕쉰 세 가지 허곡. 늙은호박도 탕쉬허는 집인 이제도 헙니다마는. 옛날엔 호박으로 탕쉬허젠 허민 식겟날엔 숟가락으로 거죽 ᄆᆞᆫ 긁곡 허여근에 ᄉᆞ뭇 호박탕쉬 헤낫수다.[537]

‘탕쉬’[538], 콩나물하고 고사리하고 미나리하고. ‘탕쉬’는 세 가지 하고. 청둥호박도

535) ‘ᄀᆞᆺ궤기’는 바닷가 인근에서 낚시로 낚는 고기를 말한다. 어렝놀래기, 고생놀래기, 우럭 따위의 바닷물고기를 이르는 말이다.
536) 강대선 구술.
537) 강대선 구술.

'탕쉬'하는 집엔 이제도 합니다마는. 옛날엔 호박으로 '탕쉬'하려고 하면 제삿날엔 숟가락으로 껍질 몽땅 긁고 해서 사뭇 '호박탕쉬' 했었습니다.

• 묵

모멀묵. 옛날엔 모물 해 주장허영 모멀묵 허영. 여름엔 청묵 허민 재게 쉬어 부는 따문양, 여름엔 기냥 저 지져근에 헤수다. 여름에 지진, 쑨묵보단 양 청묵은 막 빨리 쉬는 따문 저 솟뚜껭이서 옛날 후라이판도 엇엇수다. 솟뚜껭이서 기자 지져근에 저 그거 영 썰어근에 고젱이에 꿰엉 묵허곡. 경 허영 네 개 꿰는 디도 잇곡, 세 개 꿰는 디도 잇곡. 그것도 가문마다 틀립니다. 떡도 세 고지 올리는 디 잇고. 네 개 꿰웁니다, 네 개.[539] 보통 묵이나 적이나 넉 점 꿰는디 이 적은, 묵은 ᄒᆞ쏠 크게 썰민 넉 점이민 고지가 요만이허면은 거기가 차는디. 이 적은 무시거 요만씩허게 젠젠허게 썰엉. 넉 점만 꿰민 너미 바리기가 실르민 다섯 점 꿰는 디 없잖여 이십니다게. 잇는디 보통적으로 넉 점씩 꿰는디. 이 적이나 묵은 보통 다섯 고지 올립니다게. 그 부부간에 이 상에 올리는디. 이 부부간 할망, 하르방 헤근에 올리면은 그 부부간에 ᄒᆞᆫ 상에 올려. 그런 딘 보통 적이나 묵 다섯 고질 올리고. 이 부부간에 다 돌아가지 아녀근에 ᄒᆞᆫ 분만 돌아간 디는 보통 다섯 고지 안 올령 세 고지만도 올려마씀.[540]

메밀묵. 옛날엔 매밀 많이 주장해서 메밀묵 해서. 여름엔 '청묵'[541] 하면 재우 쉬어

538) '탕쉬'는 제사나 명질에 제수로 올리는 채소를 말한다. 고사리, 콩나물, 호박나물, 양하 따위로 만든다.
539) 강대선 구술.
540) 강상흥 구술.
541) '청묵'은 메밀쌀을 불린 후에 주물러 생긴 앙금을 넣어서 쑨 묵을 말한다.

버리는 때문요, 여름엔 그냥 저 지져서 했습니다. 여름에 지진, '쑨묵'보다는요 '청묵'은 아주 빨리 쉬는 때문 저 솥뚜껑에서 옛날 프라이팬도 없었습니다. 솥뚜껑에서 그저 지져서 저 그거 이렇게 썰어서 꼬치에 꿰어서 묵하고. 그렇게 해서 네 개 꿰는 데도 있고, 세 개 꿰는 데도 있고. 그것도 가문마다 다릅니다. 떡도 세 꼬치 올리는 데 있고. 네 개 뀁니다, 네 개. 보통 묵이나 적이나 넉 점 꿰는데 이 적은, 묵은 조금 크게 썰면 넉 점이면 꼬치가 요만큼하면은 거기가 차는데. 이 적은 무엇 요만큼씩하게 자잘하게 썰어서. 넉 점만 꿰면 너무 보기가 싫으면 다섯 점 꿰는 데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으로 넉 점씩 꿰는데. 이 적이나 묵은 보통 다섯 꼬챙이 올립니다. 그 부부간에 이 상에 올리는데. 이 부부간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올리면 그 부부간에 한 상에 올려. 그런 덴 보통 적이나 묵 다섯 꼬챙이 올리고. 이 부부간에 다 돌아가지 않아서 한 분만 돌아간 데는 보통 다섯 꼬챙이 안 올려서 세 꼬챙이만도 올려요.

(3) 세배

그 보통 설 지나민 설날 아침부떠 세배가 들어가는 겁주. 이녁 그 일갓 아이덜이나 이녁 식구덜은 아침부떠 세배가 들어가고. 동네, 그 명질 끗나면은 동네 어른덜 앞이는 우리가 손수 다닙니다. 손수 거 일갓 어룬이나 동네도 아주 나이 먹은 웃어른덜안티는 뎅이는디. 뭐 옛날 ᄒᆞ루에 다 뎅이지 못헹 그 동네 어디 미릇 돌아간 상 신 집이 ᄆᆞᆫ 돌아봐야지. 상 신 집이들토 막 이 부락에 상이 하영 뒈민 열세 밧, 열네 밧, 뭐 열대섯 밧ᄁᆞ지 뒐 때도 잇어마씀. 삼년상이난. 이레 가지고서 허민 세배가 ᄒᆞᆫ 이삼 일 걸릴 때도 잇습니다.[542]

542) 강상흥 구술.

그 보통 설 지나면 설날 아침부터 세배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녁 그 일가 아이들이나 이녁 식구들은 아침부터 세배가 들어가고. 동네, 그 명질 끝나면 동네 어른들 앞에는 우리가 손수 다닙니다. 손수 거 일가 어른이나 동네도 아주 나이 먹은 웃어른들한테는 다니는데. 뭐 옛날 하루에 다 다니지 못해서 그 동네 어디 미리 돌아간 상 있는 집에 몽땅 돌아봐야지. 상 있는 집에들도 막 이 마을에 상이 많이 되면 열세 군데, 열네 군데, 뭐 열다섯 군데까지 될 때도 있어요. 삼년상이니까. 이래 가지고서 하면 세배가 한 이삼 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2)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엔 미신 어디 여자덜은 어디 보름에 어딜 뎅기질 못허게 헙니다. 여자가 경 보름날에 어디 경 가딱가딱 가지 말렌. 경 허여근에 ᄒᆞ끔 주의헹 뎅기렌 경 ᄀᆞᆯ아나수다게. 춤 새철드는날허곡 보름날허곡이라근에 주의헤영 여자라근에 ᄒᆞ끔 뎅기지 말렌. 이젠 아무 디고대고 그자 춤, 그런 거 아니봅니다마는. 옛날엔 새철드는날에도 놈이 집이 못 뎅기게 허고. 춤, 보름날에도 어디 뎅기지 못허게 허고 그추룩허연. 이젠 그런 것이 엇어마씨.[543]

연날리기도 허곡, 술레잡기도 허곡게. 남자덜은 연날리기 허곡, 여자덜은 베뛸락도 허곡 줄다리기도 허고. 정월보름엔, 옛날에는양. 못사는 집이도 보름이민 오늘랑은에 보리밥 허지 말아근에 저 ᄒᆞ끔 곤ᄉᆞᆯ 놔근에 허영, 우린 해벤이난 논 하영 허곡 허난에 춤 그추룩 보름엔 곤밥허영 먹곡 헤여나수다게. 이 목장더렌, 웃드르렌 논 엇인 디난 몰르쿠다마는 우리 두린 땐 보름엔 춤 곤밥허영 먹곡.[544]

543) 강대선 구술.

정월대보름엔 무슨 어디 여자들은 어디 보름에 어딜 다니질 못하게 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보름날에 어디 그렇게 가딱가딱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주의해서 다니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참, 입춘날하고 보름날하고는 주의해서 여자는 조금 다니지 말라고. 이젠 아무 데든지 그저 참 그런 거 아니 봅니다만. 옛날엔 입춘날에도 남의 집에 못 다니게 하고. 참, 보름날에도 어디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처럼해서. 이젠 그런 것이 없어요.

연날리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남자들은 연날리기 하고, 여자들은 줄넘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정월보름엔, 옛날에는요 못사는 집에도 보름이면 오늘은 보리밥 하지 말고 저 조금 흰쌀 놔서 해서, 우린 해변이니까 논 많이 하고 하니까 참, 그처럼 보름엔 흰밥해서 먹고 했었습니다. 이 목장으론, '웃드르'엔 논 없는 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린 땐 보름엔 참 흰밥해서 먹고.

(1) 방쉬

거 보름에 방쉬허는 거 아니우꽈? 옛날엔 방쉬가, 방쉬헌 것도 옛날엔 뎅기다근에 깜짝 뭐허민 그것이 저 업어 써근에 그 사름이 아프나 궂이나 경 헌덴 허멍 멩심허영 그런 거 보지 말젠 헙니다게. 경 허여도 뎅기당 재수 궂이민 그런 거 봐근에 저 얼먹는 사름도 이십니다게. 봐도 심상케 겁나지 말아근에, 금착허지 말아근에 못 본추룩 허영 그자 넘어가 불렌 할망덜 경 ᄀᆞᆯ읍니께.[545]

날랑 그 거시기헌 말 허쿠다. 우리 두린 때 어디 방쉬 ᄀᆞ뜬 거양, 삼도전 거리에 ᄀᆞᆺ다근에 놓아야 표면허여근에 그 뭐 집안 누게 아픈 사름이나

544) 강대선 구술.
545) 강대선 구술.

무신거 허면은 그거 방쉬 ᄀᆞ뜬 거 헤여근에 어디 질레 ᄀᆞ뜬 디 ᄀᆞᆺ당 데껴 불민 뒈어. 그걸 보면은 그대로 헤여근에 봐근에 금착허영 거시기헤여근에 허면은 재수가 엇는다고. 돌로 막 ᄆᆞᆺ아 불렌 허곡게. 우린 방쉬 보민 그 막 돌멩이로 그걸 막 두드령 ᄆᆞᆺ아낫어마씀. 경 허고 또 그 방쉬 안에 보통 돈 ᄀᆞ뜬 것도 ᄒᆞ쏠 놓곡, 이 먹을거 떡 ᄀᆞ뜬 것도 놓곡 그런 걸 채려놓는디 거기에 뭐 돈 ᄀᆞ뜬 거나 헤여근에 봉가다근에 무신 사탕을 사 먹으나 무시거 허면은 그 사름이 그 액을 업어써 가지고서 아주 후제 좋지 못헌 일 셍기니까 그런 거 절대 보지 말렌 헤 가지고서. 그런 거 봐지민 돌로 ᄆᆞᆺ아 불렌만 헹. 웃어른덜안티 말 들어 가지고서 돌멩이로 잡아서 ᄆᆞᆺ음만 헤수다.[546]

거 보름에 '방쉬[547]'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엔 '방쉬'가, '방쉬'한 것도 옛날엔 다니다가 깜짝 뭐하면 그것이 저 업어 써서 그 사람이 아프나 궂으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명심해서 그런 거 보지 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다니다가 재수 궂으면 그런 거 봐서 저 언걸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봐도 심상케 겁내지 말고, 끔쩍하지 말고 못 본 거처럼 해서 그저 지나가 버리라고 할머니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거시기한 말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때 어디 '방쉬' 같은 거요, '삼도전거리[548]'에 갖다가 놓아야 피면해서 그 뭐 집안 누구 아픈 사람이나 무엇 하면 그거 '방쉬' 같은 거 해서 어디 길에 같은 데 갖다가 던져 버리면 되어. 그걸 보면 그대로 해서 봐서 금쩍해서 거시기해서 하면 재수가 없다고. 돌로 막 마아 버리라고 하고. 우린 '방쉬' 보면 그 막 돌멩이로 그걸 막 두들겨서 마았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546) 강상흥 구술.
547) '방쉬'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방법'이라고 한다. 표준어 '비방(祕方)'에 해당하는 말이다.
548) '삼도전거리'는 주로 무가에서 세거리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방쉬' 안에 보통 돈 같은 것도 조금 놓고, 이 먹을거 떡 같은 것도 넣고 그런 걸 차려놓는데 거기에 뭐 돈 같은 거나 해서 주워다가 무슨 사탕을 사 먹으나 무엇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액을 업어써 가지고서 아주 후에 좋지 못한 일 생기니까 그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해 가지고서. 그런 거 보이면 돌로 마아 버리라고만 해서. 웃어른들한테 말 들어 가지고서 돌멩이로 잡아서 마기만 했습니다.

(2) 액막이 · 지드림

액막이 바당으로 강 지드려나수다. 액멕인 종이에 쏠이영 밥이영 허영 무시것덜, 히여뜩헌 것덜 놔근에, 고기 ᄀᆞ뜬 거영 기자 ᄒᆞ끔 ᄀᆞᆺ인 것덜 다 제반 걷듯이 ᄆᆞᆫ딱 걷어근에 거 종이에 싸근에 바당으로 강 지라마씸, 지. 액멕이가 지드리는 거라마씨. 옛날엔 바당에 가근에 지드리렌 경 ᄀᆞᆯ아나수다, 액멕이ᄀᆞ라. 창호지 헤여근에 고웁게시리 헤영 그레 밥헤 놓곡, 무시거 방쉬허듯 그레 ᄒᆞ끔썩ᄒᆞ끔썩허여근에 바당으로 강 ᄒᆞ는 사름 잇곡, ᄒᆞ끔 먼 디 강 ᄒᆞ꼼 돈 하영 들영 ᄒᆞ젠 ᄒᆞ민, 배 만들앙 찍으로 배 만들아근에 그레 하간 물색 험벅덜 막 놓곡. 거기 무시거 짐승, ᄃᆞ이나 아무거라도 산 거 목숨 ᄒᆞ나 바찌는 걸로 허여근에 배 탕 가근에 그거 지 허영 드령. 경 헤영 바당 쎄민 그것도 봉가오민, 그 아이가 그거 벨거 봉그민 그 아이가 업엉, 그거 재수 ᄀᆞᆺ이민 그런 거 봉가근에 ᄒᆞ끔 아프곡 경 허는 거 아니꽈?[549]

액막이 바다로 가서 '지드렸었습니다'[550]. 액막인 종이에 쌀이랑 밥이랑 해서 무엇

549) 강대선 구술.
550) '지드리다'는 해녀들이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하여 백지에 밥 등을 싼 제물을 용왕에게 바치다는 말이다.

들, 잡다한 것들 놔서, 고기 같은 거랑 그저 조금 갖춘 것들 다 제반 걷듯이 몽땅 걷어서 거 종이에 싸서 바다로 가서 '지'[551]예요, '지'. 액막이가 '지드리는' 거예요. 옛날엔 바다에 가서 '지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액막이보고. 창호지 해서 곱게끔 해서 그리로 밥해 놓고, 무엇 '방쉬'하듯, '방쉬하듯' 그리로 조금씩조금씩해서 바다로 가서 하는 사람 있고, 조금 먼 데 가서 조금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면, 배 만들어서 짚으로 배 만들어서 그리로 온갖 물색 헝겊들 막 놓고. 거기 무엇 짐승, 닭이나 아무것이라도 산 거 목숨 하나 바치는 걸로 해서 배 타고 가서 그거 '지' 해서 드려서. 그렇게 해서 바다 세면 그것도 주워오면, 그 아이가 그거 별거 주우면 그 아이가 업어서, 그거 재수 궂으면 그런 거 주워서 조금 아프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3) 포제

포제 허는 거는 봐나도 거시기는 안 헤보고 헤수다마는 포제를 그 부락에 책임자 뒈는 사름이 그 제관을 뽑아서. 마을 내에서, 그거 아멩헌 사름이라도 뽑는 게 아니라 쪼끔 거 학문적으로도 유식험뿐 아니라 복도 잇고 거시기 헌 사름을 이제 천거헤 가지고서 제관 삼 명, 집ᄉᆞ 둘 헤 가지고서. 그 포젤 지내젠 허면은 일주일간 정성을 헤 가지고서 그거 집이 마누라허고도 눅지 말아근에 바로 부락에서 경헌 집 헤 가지고 거기서만 자고 먹고 헤 가지고서 그 제를 지내는데. 그 제지내젠 허민 옛날은 아멩헤도 그 ᄆᆞᆫ 호당, 무신 뭐 돈도 잇는 것도 아니고 그 ᄉᆞᆯ이면 ᄉᆞᆯ, 무신 ᄒᆞᆫ 홉이면 ᄒᆞᆫ 홉 ᄀᆞ튼 걸 메와 가지고서 그걸로 뭐 제물 사고. 그거 ᄎᆞᆷ 묘예(?)허고 떡 허고 헤 가지고서 제물 사곡 헤 가지고서 젤 지내는 모양입니다. 보통 그런 제서는

551) '지'는 해녀들이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하여 용왕에게 바칠 밥 등을 백지에 싼 제물을 말한다.

산제나 포제 ᄀᆞ뜬 데 제숙은 이 바닷고기나 산고기나 굽지 아녕 생채로 올려마씀. 그 밥허고 뭐 국은 다 거시기주마는 채소도 옛날 그 뭐 동네분 돌아가기로서 토신제 ᄀᆞ뜬 거 지낼 때 보면은 그 거시기도 미나리 채소 ᄀᆞ뜬 거 헤여 가지고, 거시기 익이지 아니허여근에 ᄂᆞᆯ 거시기로 헤영 뎅이는 걸 봐낫수다.[552]

포제 하는 거는 봤어도 거시기는 안 해보고 했습니다만 포제를 그 마을에 책임자 되는 사람이 그 제관을 뽑아서. 마을 내에서, 그거 아무런 사람이라도 뽑는 게 아니라 쪼끔 거 학문적으로도 유식함뿐 아니라 복도 있고 거시기한 사람을 이제 천거해 가지고서 제관 삼 명, 집사 둘 해 가지고서. 그 포젤 지내려고 하면 일주일간 정성을 해 가지고서 그거 집의 마누라하고도 자지 말고 바로 마을에서 그런 집 해 가지고 거기서만 자고 먹고 해 가지고서 그 제를 지내는데. 그 제지내려고 하면 옛날은 아무리해도 그 몽땅 호당, 무슨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쌀이면 쌀, 무슨 한 홉이면 한 홉 같은 걸 모아 가지고서 그걸로 뭐 제물 사고. 그거 참 묘예(?)하고 떡하고 해 가지고서 제물 사고 해 가지고서 젤 지내는 모양입니다. 보통 그런 제사는 '산제'나 포제 같은 데 제수는 이 바닷고기나 산고기나 굽지 않고 생채로 올려요. 그 밥하고 뭐 국은 다 거시기주마는 채소도 옛날 그 뭐 동네분 돌아가기로서 토신제 같은 거 지낼 때 보면 그 거시기도 미나리 채소 같은 거 해 가지고, 거시기 익히지 않아서 날 거시기로 해서 다니는 걸 봤었습니다.

• 금줄

제관 어디 ᄒᆞᆫ 칩 안네 거시기헤영 ᄒᆞ면은 그디 금줄 메어 가지고서, 그 집이 ᄯᅳᆫ 사름이 뎅이질 못허게 허주. 웬새끼. 오른새낀 꼬기는 쉬운디

552) 강상흥 구술.

웬새끼 꼬기는 힘듭니다. 오른ᄉᆞ끼는 이렇게 밀려서 잡으면은 뒈는데, 이 웬ᄉᆞ끼는 이걸 ᄃᆞᆼ겨서 잡아서 이렇게 헤야 영 돌아가니까.[553]

제관 어디 한 집 안에 거시기해서 하면 거기 금줄 매어 가지고서, 그 집에 딴 사람이 다니질 못하게 하지. 왼새끼. 오른새낀 꼬기는 쉬운데 왼새끼 꼬기는 힘듭니다. 오른새끼는 이렇게 밀려서 잡으면 되는데, 이 왼새끼는 이걸 당겨서 잡아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돌아가니까.

• 제물

제물, 그건 자세인 몰르겟습니다. 그런데 그 포제 ᄀᆞ뜬 데엔 떡 ᄀᆞ뜬 거는 그게 거시기허진 안헷일 거고.[554] 시리떡 허영 베지 아녕 시리채 톡 비왕 올립니다. 그런 큰제 헐 때 시리만 비왕 기자 둥글락헌 채. 시리채 통채로 올립니다. 시리마게도 떼어 불지 아녀고 기자 시리채 기자 ᄒᆞᆫ 빗 베어 불지도 안 허고, 기자 시리채 올려놔근에 제지내 놔사 그걸 ᄆᆞᆫ 베영덜 갈랑 먹읍니다. 조로도 허곡. 조떡도 허곡 곤떡도 헙니다.[555] 조떡. 메도 저 흰ᄉᆞᆯ로만 허는 게 아니라 좁ᄉᆞᆯ, 나록ᄉᆞᆯ 이 두 가질 칩니다. 조멘디 그게[556] 조메마씨, 조메. 곤썰로 헌 건 그냥 메. 좁썰 허여근에 생감쥐 허곡. 저 곤떡은 시리에 허고, 조멘 저 거시기 시리에 허민 ᄉᆞᆯ이 흐린 거라부난 잘 익질 아녀는 따문에양, 조그마헌 사발에 허여근에 그레 ᄀᆞ루 담아근에 솟부리레 놔근에 쳐마씸. 곤떡은 시리에 허영 그자 시리채 올리곡양. 조메, 조제물, 곤제물.[557]

553) 강상흥 구술.
554) 강상흥 구술.
555) 강대선 구술.
556) 강상흥 구술.

제물,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제 같은 데엔 떡 같은 거는 그게 거시기하진 않았을 거고. 시루떡 해서 베지 않고 시루째 톡 부어서 올립니다. 그런 큰제 할 때 시루만 부어서 그저 둥그런 채. 시루째 통째로 올립니다. 시룻번도 떼어 버리지 않고 그저 시루째 그저 한 '빗'[558] 베어 버리지도 않고, 그저 시루째 올려놔서 제지내 놔야 그걸 몽땅 베어서들 나눠 먹습니다. 조로도 하고. 좁쌀떡도 하고 흰떡도 합니다. 좁쌀떡. 메도 저 흰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좁쌀, 볍쌀 이 두 가질 찝니다. '조메[559]'인데 그게 '조메'예요, '조메'. 흰쌀로 한 건 그냥 메. 좁쌀 해서 '생감주'[560] 하고. 저 흰떡은 시루에 하고, '조메'는 저 거시기 시루에 하면 쌀이 차진 거여서 잘 익질 않는 때문에요, 조그마한 사발에 해서 그리로 가루 담아서 '솟부리'[561]에 놔서 쪄요. 흰떡은 시루에 해서 그저 시루째 올리고요. '조메', '조제물[562]', '곤제물[563]'.

4) 당제

정월 나민 새 곡석 허여근에 새 거 ᄒᆞᆫ 줌썩 ᄒᆞᆫ 줌썩 걷엉 놧다근에 그걸로 메 허여근에 ᄆᆞ른 걸로도 ᄒᆞ끔 창오지에 조금썩 새 거 곡석 ᄒᆞᆫ 보시썩 앗앙 가곡, 메 허곡 허여근에. 새 것덜, 새 것덜은 앗앙 강 당에 앗앙 가근에 기자 골로로 삐곡, 메도 허영 강 올리곡 경 허는 거. 당에 가민 본향에 가는 거. 저 본향에 가는 건 저 일뤳날 갑니다, 일뤳날. 초일뤠, 열일뤠, 스무일뤠 경 허영 초일뤠에 못 간 사름은 열일뤠에 가고, 열일뤠에 못 간

557) 강대선 구술.
558) '빗'은 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말이다.
559) '조메'는 좁쌀로 쪄낸 밥이다.
560) '생감쥐'는 좁쌀로 지은 밥에 엿기름을 넣어 삭힌 후에 짜낸 음료다. 끓이지 않아서 '생감주'라는 이름이 붙었다.
561) '솟부리'는 솥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다.
562) '조제물'은 좁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물을 말한다.
563) '곤제물'은 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물을 말한다.

사름은 스무일뤠도 가고, 보통으로 열일뤠가 하영 갑니다.[564]

정월 되면 새 곡식 해서 새 거 한 줌씩 한 줌씩 걷어서 놨다가 그걸로 메 해서 마른 걸로도 조금 창호지에 조금씩 새 거 곡식 한 보시기씩 갖고 가고, 메 하고 해서. 새 것들, 새 것들은 갖고 가서 당에 갖고 가서 그저 골고루 뿌리고, 메도 해서 가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 당에 가면 본향에 가는 거. 저 본향에 가는 건 저 이렛날 갑니다, 이렛날.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그렇게 해서 초이레에 못 간 사람은 열이레에 가고, 열이레에 못 간 사람은 스무이레도 가고, 보통으로 열이레가 많이 갑니다.

(1) 제물

옛날엔 돌레떡도 허곡. 이 중간엔 돌레떡이 엇언 기냥 사과 ᄀᆞ뜬 거 허곡 기자 곤ᄉᆞᆯ만 허영 메 헤영 가근에 저 바릇고기나 ᄒᆞ나 굽곡. 사발메 두 개 허고 보시메 시 개 허곡 헤영 가근에. 건 가문마다 다 틀림은 헙니다. 사발메 두 개 허고, 보시메 세 개 허여근에 곤ᄉᆞᆯ로만 경허영 강 올려둰에 그 험벅 천 허영 간 것토 낭에 강 ᄃᆞᆯ아메두곡 허여근에. 저 올려근에 절허는 사름은 절도 허곡. 기자 절 아녕 기자 기냥 이녁냥으로 기자 잡식허여근에 그 돌 우이 그디 저 올리는 디 이십니다. 그레 강 올려근에 이녁냥으로 ᄆᆞᆫ 제반들 걷어근에 그 감쥐 못 헌 사름은 환타 허영 가근에 다 식게헐 때 올리듯 기자 ᄆᆞᆫ 올려놔근에 제반 걷어근에 그디 올리는 더레 톡톡허게 기자 서너 밧더레 기자 허여둬근에 사과 ᄀᆞ뜬 것도 ᄒᆞ끔 영 그자 그레 ᄆᆞᆫ 데껴두고. 절허는 사름은 절헙니다마는 기냥 절 안 허는 사름은 그거 잡식만 허영 경 허영 기냥 옵니다.

564) 강대선 구술.

옛날엔 도래떡도 하고. 이 중간엔 도래떡이 없어서 그냥 사과 같은 거 하고 그저 흰쌀만 해서 메 해서 가서 저 바닷고기나 하나 굽고. '사발메[565]' 두 개 하고 '보시메[566]' 세 개 하고 해서 가서. 건 가문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사발메' 두 개 하고, '보시메' 세 개 해서 흰쌀로만 그렇게 해서 가서 올려둬서 그 헝겊 천 해서 간 것도 나무에 가서 매달아 두고 해서. 저 올려서 절하는 사람은 절도 하고. 그저 절 않고 그저 그냥 이녁대로 그저 '잡식'[567]해서 그 돌 위에 거기 저 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올려서 이녁대로 몽땅 제반[568]들 걷어서 그 감주 못 한 사람은 환타 해서 가서 다 제사할 때 올리듯 그저 몽땅 올려놔서 제반 걷어서 거기 올리는 데로 톡톡하게 그저 서너 군데로 그저 해두고 사과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그저 그리로 몽땅 던져두고. 절하는 사람은 절합니다만 그냥 절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잡식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옵니다.

• **돌레떡**

떡은 잘허는 사름은 돌레떡 ᄊᆞᆯ ᄒᆞᆫ 뒈 물 컷다근에 ᄲᅳᆺ아근에 돌레떡 허영 가곡 허여수다마는 기자 보통으론 메만 허영 뎅겨수다. 돌레떡은 모멀ᄀᆞ루 이신 사름은 모멀ᄀᆞ루로도 허곡 곤ᄊᆞᆯ로도 허곡 경 헙니다게. 존 아녑니다.

술은 안 허영 저 거세기 저 환타나 무신거, 환타 앗앙 가고. 과일 앗앙 가고, 환타허고, 상돌 피우고, 제허곡, 제숙허고. 바당궤기도 구워근에양 앗앙 가곡. 상가지 허영 상돌에 허영 불 피왕 네 ᄒᆞ끔 코싱코싱 상돌네 나게시리 허영 네 피왕 영 상돌 들렁 갑니다. 경 그디 강 모셔근에 절허는 사름은 절도 허고 절 아년 사름은 기자 서너 밧디레 그자 영 잡식허영

565) '사발메'는 제물로 올리는 사발에 찐 밥을 말한다.
566) '보시메'는 제물로 올리는 보기기에 찐 밥을 말한다.
567) '잡식'은 제물로 올렸던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주변에 던지는 행위다.
568) '제반'은 제물로 올렸던 음식을 조금씩 떼어낸 것을 말한다.

사과도 ᄒᆞ끔 뜯으멍 올리곡 술 환타도 그자 영 잡식허영 서너 밧디 올리고 케우리고 경 헙니다.[569]

떡은 잘하는 사람 도래떡 쌀 한 되 물 담갔다가 빻아서 도래떡 해서 가고 하였습니다 마는 그저 보통으론 메만 해서 다녔습니다. 도래떡은 메밀가루 있는 사람은 메밀가루로도 하고 흰쌀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는 않습니다.

술은 안 해서 저 거시기 저 환타나 무엇, 환타 갖고 가고. 과일 갖고 가고, 환타하고, 향 피우고, 제하고, 제수하고. 바닷고기도 구워서요 갖고 가고. 향가지 해서 향로석에 해서 불 피워서 내 조끔 코싱코싱 향내 나게끔 해서 내 피워서 이렇게 향로석 들어서 갑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 모셔서 절하는 사람은 절도 하고 절 않는 사람은 그저 서너 군데로 그저 이렇게 '잡식'해서 사과도 조끔 뜯으면서 올리고 술 환타도 그저 이렇게 '잡식'해서 서너 군데 올리고 고수레하고 그렇게 합니다.

- **물색**

열일뤠 허영 가민 것도 물색 험벅, 빨간 험벅, 파란 험벅, 노랑 험벅 세 가지. 세 가지 요 너버기 요만썩 허영 물색 험벅이라고 헙니다, 물색. 경 허영 그거 허영 가근에 당에 가근에 저 ᄃᆞᆯ아메여마씨. 그 험벅덜 경 허영 그거 메영 ᄆᆞᆫ딱 허영 강 험벅덜 ᄃᆞᆯ아메어 둬근에 거 헹 간 것덜 올려 둼.[570]

열이레 해서 가면 것도 물색 헝겊, 빨간 헝겊, 파란 헝겊, 노랑 헝겊 세 가지. 세 가지 요 넓이 요만큼씩 해서 물색 헝겊이라고 합니다, 물색. 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569) 강대선 구술.
570) 강대선 구술.

가서 당에 가서 저 매달아요. 그 헝겊들 그렇게 해서 그거 매달아서 몽땅 해서 가서 헝겊들 매달아 두고 거 하고 간 것들 올려두고.

(2) 제비

동훳본향 간 땐 ᄄᆞ시 그디 심방을 가마씸. 동훼본향은 심방을 가근에 허민 저 심방 허영 ᄎᆞ례로 보젠 허민, 저 사름덜이 하영 간 땐 막 오래어마씸게. 경허민 이녁 집이 식구 한 사름은 식구마다 운수를 보는 따문양 게난 허고. 따시 이 앞당에 갈 땐 심방 안 가는 거난 확확허영 강. 동훼에 갈 땐양 말도 안 ᄀᆞᆯ읍니다. 아명 저 막 친헌 친구들 봐도 말 안 ᄀᆞᆯ앙 그냥 가곡. 저 올 때덜은 ᄒᆞ끔 말 ᄀᆞᆯ아도 갈 땐 말도 안 ᄀᆞᆯ앙 가곡. 심방은 그디 가민 심방은 허영 누겐 궂다 누겐 좋다 허영 운으로 ᄒᆞ끔 봐주곡.

저 동훼 심방 가고 이 뒷동산은 심방 안 갑니다게. 당에 가젠 허민 이 뒷동산이나 저디나 가젠 허민. 저딘 동훳본향이라고 심방 가근에 집안 저 애기덜 ᄆᆞᆫ 저 거시기 운 봐주곡 헙니다게. 어느 애긴 운이 궂다, 좋다 허여근에 운 봐 주곡. ᄉᆞᆯ로 영 제비 보멍 기자 ᄉᆞᆯ로 제비 봥. 좋은 제비 주민 좋덴 허곡, 나쁜 제비 주민 궂덴 허곡 경 허는 거 닮읍니다게. 겨난 나도 젊은 땐 당에 뎅겨나수다마는 이젠 나 영 보면양 가는 사름이 영 엇수다. 여름엔 유월에 가곡양 저슬에 정월에 가곡 경 헙니다.[571] 정월 가지 안허영 동짓ᄃᆞᆯ에 갑주, 동짓ᄃᆞᆯ.[572] 아니, 멩질날도 가는 사름은 갑니다. 기자 당에 가는 사름 닮으민 알아맞촹 말ᄀᆞᆫ도 안헙니다게. 영 상돌 피왕 아졍 가가민 당에 감구나 허여근에 빗겨 사 불엄주게.[573]

571) 강대선 구술.
572) 강상흥 구술.
573) 강대선 구술.

'동훳본향'[574] 간 땐 다시 거기 심방을 가요. '동훼본향'은 심방이 가서 하면 저 심방 해서 차례로 보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많이 간 땐 아주 오래어요. 그러면 이녁 집에 식구 많은 사람은 식구마다 운수를 보는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고. 다시 이 '앞당'에 갈 때는 심방 안 가는 거니까 확확해서 가서. '동훼'에 갈 때는요 말도 안 말합니다. 아무리 저 아주 친한 친구들 봐도 말 안 말해서 그냥 가고. 저 올 때들은 조끔 말 말해도 갈 땐 말도 안 말해서 가고. 심방은 거기 가면 심방은 해서 누군 궂다 누군 좋다 해서 운으로 조끔 봐주고.

저 '동훼'는 심방 가고 이 뒷동산은 심방 안 갑니다. 당에 가려고 하면 이 뒷동산이나 저기나 가려고 하면. 저긴 '동훳본향'이라고 심방 가서 집안 저 아기들 몽땅 저 거시기 운 봐주고 합니다. 어느 아긴 운이 궂다, 좋다 해서 운 봐 주곡. 쌀로 이렇게 제비 보면서 그저 쌀로 제비 봐서. 좋은 제비 주면 좋다고 하고, 나쁜 제비 주면 궂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젊은 땐 당에 다녔었습니다만 이젠 나 이렇게 보면요 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엔 유월에 가고요 겨울에 정월에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정월 가지 않고 동짓달에 갑지요, 동짓달. 아니, 명질날도 가는 사람은 갑니다. 그저 당에 가는 사람 같으면 알아 맞춰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향돌 피워서 갖고 가가면 당에 가는구나 해서 비껴 서 버리고 있지.

5) 안택

우린 칠성눌 엇이난에 그런 건 몰릅니다마는, 칠성눌 이신 사름이 하지 아녑니다, 하원은. 우린 안칠성, 밧칠성 아무거도 위허지 아녀난에.[575] 우린 안칠성 셔근에 그것 저 제ᄉᆞ 때는 고팡에 헤근에 뭐 ᄐᆞ로 ᄒᆞ쏠 올립니다

574) '동훳본향'은 하원동에서 마을 본향을 가리키는 것 같다.
575) 강대선 구술.

게. 이 제사 때에 보통 보면은 문체도 지내는 집안이 잇고 안 지내는 집안이 잇습니다게. 문체 지내는 집안이 보통 많아마씀. 겐디 우리 집은 문체도 안 지냅니다. 안칠성인 올려마씨. 우리 웃대부떠 문체를 지내지 안허연 거시기헤시난, 기자.[576] 우린 헙니다. 전인 옛날 저 문체 거 대문 발라 상 앗앙 와근에게, 옛날도 속에 문전 먹은 봉사가 어디 잇나 허고, 우선 문체부떠 허영 구신이 청허는 거 아니꽈? 경 문체부떠 다 허여 놔근에 제지냅니다.[577]

우린 '칠성눌'[578] 없으니까 그런 건 모릅니다마는, '칠성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원은. 우린 '안칠성'[579], '밧칠성'[580] 아무것도 위하지 않으니까. 우린 '안칠성' 있어서 그것 저 제사 때는 고방에 해서 뭐 따로 조금 올립니다. 이 제사 때에 보통 보면 '문체'[581]도 지내는 집안이 있고 안 지내는 집안이 있습니다. '문체' 지내는 집안이 보통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문체'도 안 지냅니다. '안칠성'엔 올려요. 우리 윗대부터 '문체'를 지내지 않고 거시기했으니까, 그저. 우린 합니다. 전엔 옛날 저 '문체' 거 '대문'[582] 쪽에 상 갖고 와서, 옛날도 속에 문전 먹은 봉사가 어디 있나 하고, 우선 '문체'부터 해서 귀신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체'부터 다 하여 놔서 제지냅니다.

---

576) 강상흥 구술.
577) 강대선 구술.
578) '칠성눌'은 집안의 부귀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칠성을 모시는 가리다.
579) '안칠성'은 집안의 부귀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칠성으로, 고팡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
580) '밧칠성'은 집안의 부귀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칠성으로, 집 뒤쪽 울담 안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 주로 주저리를 엮어서 그 안에 모신다.
581) '문체'는 문전신에게 지내는 제사다. 지역에 따라서 '문우제', '문전제', '문체'라고도 한다.
582) '대문'은 마루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곳에 단 문으로 마루문을 말한다.

• **제반**

거 올린 것덜 ᄆᆞᆫ 저 족은 낭푼이에 그거 제반 걷엉 데끼는 거, 그거 저 거세기허는 집, 안 허는 집 헙니다마는[583]. 거시기 그게 제 ᄆᆞᆫ 지나갈 때 숭눙 올리지 아녑니까? 숭눙 그릇에다가 거 모든 거. 춤, 그자 그 적도 조끔씩 놓곡, 탕쉬도 조금씩 ᄆᆞᆫ딱 과일 ᄀᆞ뜬 것도 ᄐᆞᆯ아놔근에 그 지붕 우트레 올립니다게. 지붕 우터레 올리면 그게 춤 그 돌아가신 분이, 구신에서도 이땅 그 군줄들이나 벗덜이 ᄒᆞᆷ께 오당 떨어졋으면, 요거 먹언 가렌 허는 식으로 거 던진다고 허여마씀게. 경 허민 또 그게 뒷날 지붕 우터레 데껴근에 거시기헤근에 가마귀가 와근에 그걸 잘 먹으면 아이고, 언치냑 식게에 우리 하르방 완 잘 먹엇젠덜 경 ᄀᆞᆫ곡. 가마귀가 뎅이지 안허민 아이고, 애ᄃᆞᆯ아신ᄀᆞ라 원 가마귀도 원 안 뎅견 언치냑은 아니 완.[584] 전부 헤난 다음 제반 걷은 것덜 허여근에 저 무뚱에 강 어디 ᄒᆞ끔 ᄉᆞᆯ짝헌[585] 디 가근에 저 ᄒᆞ끔 배낏디 오라근에 기자 비와 붑니다게. 게민 고넹이도 먹곡, 그자 개도 먹곡.[586]

거 올린 것들 몽땅 저 작은 양푼에 그거 제반 걷고 던지는 거, 그거 저 거시기하는 집, 안 하는 집 합니다마는. 거시기 그게 제 몽땅 지나갈 때 숭늉 올리지 않습니까? 숭늉 그릇에다가 거 모든 거. 참, 그저 그 적도 조끔씩 놓고, '탕쉬'도 조금씩 몽땅 과일 같은 것도 뜯어놔서 그 지붕 위로 올립니다. 지붕 위로 올리면 그게 참 그 돌아가신 분이, 귀신에서도 이땅 그 군졸들이나 벗들이 함께 오다가 떨어졌으면, 요거 먹고 가라고 하는 식으로 거 던진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뒷날 지붕 위로 던져서

583) 강대선 구술.
584) 강상흥 구술.
585) 'ᄉᆞᆯ짝허다'는 남의 눈에 잘 뜨이지 않다는 의미다.
586) 강대선 구술.

거시기해서 까마귀가 와서 그걸 잘 먹으면 아이고, 엊저녁 제사에 우리 할아버지 와서 잘 먹었다고들 그렇게 말하고. 까마귀가 다니지 않으면 아이고, 애달팠는지 원 까마귀도 원 안 다녀서 엊저녁은 아니 왔어. 전부 하고 난 다음 제반 걷은 것들 해서 저 문 앞에 가서 어디 조금 '솔짝한' 데 가서 저 조금 바깥에 와서 그저 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고양이도 먹고, 그저 개도 먹고.

6) 걸궁

걸궁이 문화재 아니꽈게. 걸궁이 옛날 우리 문화재 허연에 저 공주 집 짓으레 가와수다. 공주 간에 우리 이디 하원서 이등 먹언 와수다.[587] 그걸 보고 걸궁이엔 헐 순 엇고. 그건 한라문화제부떠 나간 거고, 걸궁이엔 헌 건 이 부락 청년이나 아주머니들 서로 모여 가지고서 춤추고 북 두드리곡 놀멍 그 거리에 돌아뎅이면서 저 ᄒᆞ쏠 부제칩이 가근에 춤추곡 놀곡 거시기 헤근에 허면은 부제칩이서 그거에 거시기 ᄃᆞ렌 헤근에 돈도 ᄒᆞᆫ 푼 주곡, 무시거 거시기허는 게 그게 걸궁이라수다게. 우리가 욕은 지 후제는 걸궁허는 거 벨로 엇엇고, 그 두린 때에 뭐 조끔 허는 거, 춤 사름덜 허는 거, 뭐 두린 때나 그 ᄌᆞ름에 조차 뎅연. 질레에 저 북 치곡, 장구 치곡, 노래 불르멍 헤영 질 넘어가다근에 부제칩이나 거시기헌 딘 그 부락 안에서, 그 우리 집이 와근에 ᄒᆞ쏠 거시기헤근에 그거 왕 허면은 그 부락에 액막이가 뒌, 집안에 액막이가 뒌다고 헤 가지고서 그걸 허는 모냥인데. ᄒᆞᆫ 해는 그 집이서 춤 돈이라도 뭐 놀레 뎅이면서 거시기헹 술이라도 사 먹으렌 헤근에 ᄒᆞ썰 허고. 우리가 생각허기에는 막 일제시대 끗나갈 ᄀᆞ리에, 그거 아주 어린 때난에 거 조끔 뭐 거시기헨.[588]

587) 강대선 구술.

걸궁게 ᄀᆞ사 ᄀᆞᆫ듯이 뒈나마나 진짜 대가리에덜 무슨 송낙 쓰곡게, 천덜 허영 이디 막 메곡, 꽹과리 두드리곡, 북 치곡, 장구 치곡 허여근에 질레 북 두드리멍 뎅긴 것이 그 걸궁 아니꽈게. 난 허여나진 안헤도. 깡통 들러근에 거지 숭내도 내곡게. 벨거 다 이선게. 총 허여근에 쏘는 사름도 잇곡. 우장 써근에 ᄉᆞᄆᆞᆺ 막 무시거 총바치 허여근에 맞히는 것도 잇고. 다 그것에서 다.[589] 아이, 게난 그게 우장 써근에 꿩짓 헤여근에 뭐 어떵 헤여근에 머리에 꽂앙 그건 사농젱이 흉내 내는 거마씀. 사농젱이 흉내 내고, 이저 어디 놀면서 어디 일허는 흉내도 내곡 허여근에 헙니다게. 걸궁헐 때 대갠 그런 겁주, 무신.[590]

걸립이 문화재 아닙니까요. 걸립이 옛날 우리 문화재 해서 저 공주 집 지으러 다녀왔습니다. 공주 가서 우리 여기 하원서 이등 먹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걸립이라고 할 순 없고. 그건 한라문화제부터 나간 거고, 걸립이라고 한 건 이 마을 청년이나 아주머니들 서로 모여 가지고서 춤추고 북 두드리고 놀면서 그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저 조금 부잣집에 가서 춤추곡 놀고 거시기해서 하면 부잣집에서 그거에 거시기 달라고 해서 돈도 한 푼 주고, 무엇 거시기하는 게 그게 걸립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후에는 걸립하는 거 별로 없었고, 그 어릴 때에 뭐 조끔 하는 거, 참 사람들 하는 거, 뭐 어릴 때나 그 꽁무니에 쫓아 다녔어. 길에 저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면서 해서 길 지나가다 부잣집에나 거시기한 덴 그 마을 안에서, 그 우리 집에 와서 조금 거시기해서 그거 와서 하면 그 마을에 액막이가 된, 집안에 액막이가 된다고 해 가지고서 그걸 하는 모양인데. 한 해는 그 집에서 참 돈이라도 뭐 놀러 다니면서 거시기해서 술이라도 사 먹으라고 해서 조금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일제시대 끝나갈 즈음에, 그거 아주

588) 강상흥 구술.
589) 강대선 구술.
590) 강상흥 구술.

어린 때니까 거 조끔 뭐 거시기해서.

걸립 아까 말하듯이 되나마나 진짜 대가리에들 무슨 고깔 쓰고, 천들 해서 여기 막 메고, 꽹과리 두드리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서 길에 북 두드리면서 다닌 것이 그 걸립 아닙니까요. 난 했었지 않아도. 깡통 들고서 거지 흉내도 내고. 별거 다 있던데. 총 해서 쏘는 사람도 있고. 도롱이 써서 사뭇 막 무엇 사냥꾼 해서 맞히는 것도 있고. 다 그것에서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롱이 써서 '꿩깃'[591]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머리에 꽂아서 그건 사냥꾼 흉내 내는 거예요. 사냥꾼 흉내 내고, 이 저 어디 놀면서 어디 일하는 흉내도 내고 해서 합니다. 걸립할 때 대갠 그런 거지요, 무슨.

7) 입춘

입춘대길 허는 건 그땐 놈이 집이 가지 말라, 입춘대길날은 놈이 집이 가지 말렌 허고.[592] 입춘날, 솔직헌 말로양, 입춘날 그 입춘대길이엔 헤근에 문에 탁허게 썽 부찌민 그 집안에 큰 복 들어온다고 헤 가지고 그걸 대개 썽 부짜곡. 남자덜은 놈이 집에 가도 크게 말을 아이 헷는데, 요 장남이 놈이 집이 와근에 거시기허면은 우리 집이 일헐 사름이 들어온다고 헤 가지고서 환영을 헷는데, 여즈는 놈이 집이 가지 말렌 허는 이유가 머리 탁 허부찌곡 헤근에 가민 검질 짓넨. 여즈 놈이 집이 강 헤영 뎅이면은 이 검은 검질 짓곡 재수 엇넨 헤 가지고서 여즈는 놈이 집이 가는 거 아주 실례 이십주[593].

입춘대길 하는 건 그땐 남의 집에 가지 말라, 입춘대길날은 남의 집에 가지 말라

591) 여기에서 '꿩깃'은 꿩의 꽁지를 말한다.
592) 강대선 구술.
593) 강상흥 구술.

고 하고. 입춘날, 솔직한 말로요, 입춘날 그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문에 탁하게 써서 붙이면 그 집안에 큰 복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걸 대개 써서 붙이고. 남자들은 남의 집에 가도 크게 말을 아니 했는데, 요 장남이 남의 집에 와서 거시기하면 우리 집의 일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서 환영을 했는데, 여자는 남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머리 탁 헝클어뜨리고 해서 가면 김 깃는다고. 여자 남의 집에 가서 다니면 이 검은 김 깃고 재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여자는 남의 집에 가는 거 아주 실례지요.

□ 2월

1) 영등

영등할망 들어올 때가 이월ᄃᆞᆯ에 들어왐실 거우다. 이월ᄃᆞᆯ에 들어왕 저 삼월달에 나감실 거우다. 저 동으로 들어온덴 헙디다. 어디 동 소섬으로 들어와근에 어디 서르레 허영 강 어디 저 마라도 넘어강 어딜로 허영 나간덴 헙디다.[594] 영등할망은 보통 일월러레 들어와가민 영등덜 이월 그 구물어 나가민, 바로 일월에 들어오멍 씨 뿌려근에 이월에 나가지고 그거 막 크면은 삼월ᄃᆞᆯ, 바로 삼월 보름엔 바당에 안 가는 사름은 집안에서 올케 도둑질 허레 바당에 거 ᄀᆞ메기 잡으레 안 갓젠덜 ᄀᆞᆯ읍주. 건디 그 저가 그런 거 거시기헌 것도 아니고 보통 듣기로는 영등ᄃᆞᆯ, 영등ᄃᆞᆯ 허는디 일월ᄃᆞᆯ에 그거 영등할망이 일월ᄃᆞᆯ에 들어와 가지고 이월ᄃᆞᆯ에 나간덴 헤 가지고, 오래 산다고 헤 가지고 영등ᄃᆞᆯ, 이월 영등ᄃᆞᆯ이라고 허는데.[595]

---

594) 강대선 구술.

이월 보름에 들어왕 삼월 보름에 나간덴 옛날 할망덜 경 ᄀᆞᆯ읍디다. 옛날 영등할망이 어떵사 커나신지 나 두린 때 보민 어룬덜 영등할망이 저 할락산은 베개허고 허리는 어디, 허리 중간엔 어디 고근산 허리 허곡, 범섬에 발 걸쳔에 하도 큰 하르방이라 노난 미녕 ᄒᆞᆫ 빌로 속옷을 멘들젠 ᄒᆞ난에 미녕 ᄒᆞᆫ 빌로 저 속옷 처지엔 헌 것이 족안에, 그걸로 속옷을 족지 아녕 그 속옷을 다 만들아져시민 일본 가는 ᄃᆞ릴 놔 주젠 ᄒᆞ난 그 속옷, 미녕 ᄒᆞᆫ 빌로 처지가 족안, 처지 ᄆᆞᆯ르지 못허연 미녕 ᄒᆞᆫ 빌로 속옷을 못 만드난 일본 가는 ᄃᆞ릴 못 놔줫젠 옛날 할망덜 경 ᄀᆞᆯ읍디다.[596]

'영등할망'[597] 들어올 때가 이월에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이월에 들어와서 저 삼월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 동으로 들어온다고 합디다. 어디 동 '소섬'[598]으로 들어와서 어디 서로 해서 가서 어디 저 마라도 넘어가서 어디로 해서 나간다고 합디다. '영등할망'은 보통 일월에 들어오면 '영등달' 이월 그 저물어 나가면, 바로 일월에 들어오면서 씨 뿌려서 이월에 나가지고 그거 막 크면 삼월, 바로 삼월 보름엔 바다에 안 가는 사름은 집안에서 옳게 도둑질 하러 바다에 거 개울타리고둥 잡으러 안 갔다고들 말하지요. 그런데 그 저가 그런 거 거시기한 것도 아니고 보통 듣기로는 '영등달', '영등달' 하는데 일월달에 그거 '영등할망'이 일월에 들어와 가지고 이월에 나간다고 해 가지고, 오래 산다고 해 가지고 '영등달', 이월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이월 보름에 들어와서 삼월 보름에 나간다고 옛날 할머니들 그렇게 말합디다. 옛날 '영등할망'[599]이 어떻게야 컸었는지 나 어릴 때 보면 어른들 '영등할망'이 저 한라산은

595) 강상흥 구술.
596) 강대선 구술.
597) '영등할망'은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영등신을 일컫는 신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 '영등하르방'이라고도 한다.
598) '소섬'은 제주시 우도면의 다른 이름이다.
599) 여기에서 '영등할망'은 제보자가 '설문대할망'을 오해해서 잘못 말한 것 같다. 제보자는

베개하고 허리는 어디, 허리 중간엔 어디 고근산 허리 허고, 범섬에 발 걸쳐서 하도 큰할아버지여 놓으니까 무명 한 필로 속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무명 한 필로 저 속옷 '처지'[600]라고 한 것이 작아서, 그걸로 속옷을 작지 않고 그 속옷을 다 만들어졌으면 일본 가는 다리를 놔 주려고 하니까 그 속옷, 무명 한 필로 '처지'가 작아서, '처지' 마르지 못해서 무명 한 필로 속옷을 못 만드니까 일본 가는 다리를 못 놔줬다고 옛날 할머니들 그렇게 말합디다.

2) 경칩 · 춘분

경칩이 돌아오면은게 그 절기 얘기허는 건디, 경칩부떠 이 모든 벌레가 나기 시작허곡, 개구리도 경칩 뒈면은 나오기 시작헤 가지고 그때부떠 모든 벌레나 모든 동물덜이나 식물덜이 자라기 시작헌다고. 경칩이엔 헌 말이 그 벌 칩 자 아니우꽈? 벌레들이 일어산다는 말뜻, 그런 말 ᄒᆞ는 거 닮읍디다. 춘분, 봄이 이제 와 가지고서 한창 때다, 봄 중간이다.[601]

경칩이 돌아오면 그 절기 얘기하는 것인데, 경칩부터 이 모든 벌레가 나기 시작하고, 개구리도 경칩 되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벌레나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경칩이라고 한 말이 그 벌 칩 자 아닙니까? 벌레들이 일어선다는 말뜻, 그런 말 하는 거 같습디다. 춘분, 봄이 이제 와 가지고서 한창 때다, 봄 중간이다.

또 '할망'과 '하르방'을 혼용해서 말하고 있다.

600) '처지'는 '속옷의 밑'을 말한다.

601) 강상흥 구술.

3) 생업

(1) 보리밭 밟기

보리밧 ᄇᆞᆯ림은 음력 이월쯤 나 가지고서 보리가 ᄉᆞ뭇 자라기 전에 그 앞 겨울이 지나면은 땅이 막 복삭이 ᄀᆞᆺ앙은에 땅이 부푼 따문에 그걸 부풀질 말아야 보리가 잘 ᄋᆞ물아진다고 헤 가지고 뭐 쉐나 무신걸로 ᄇᆞᆯ리지 아녀고 사람으로 ᄇᆞᆯ리는 거우다게. 사름으로 그냥 뎅이멍 ᄇᆞᆯ르는디 이 근방에서 보리밧 ᄇᆞᆯ리레 베랑 안 뎅겨수다. 보리밧 ᄀᆞᆺ앙은에 영 ᄉᆞ왁이 들러졍, 게난 이월달에 보통 많이덜 ᄇᆞᆯ렷수다. 솔직헌 말론양, 이 해변에 좋은 밧 ᄀᆞ진 사름은 저 ᄇᆞᆯ리젠도 셍각도 아니 허고, 조금 위에 목장더레 보리농사 허는 사름이 ᄇᆞᆯ리지 해벤더레 저 좋은 밧 허는 사름덜은 안 ᄇᆞᆯ립니다.[602]

보리밭 밟기는 음력 이월쯤 나 가지고서 보리가 사뭇 자라기 전에 그 앞 겨울이 지나면 땅이 막 푸석이 곱아서 땅이 부푼 때문에 그걸 부풀질 말아야 보리가 잘 여문다고 해 가지고 뭐 소나 무엇으로 밟지 않고 사람으로 밟는 겁니다. 사람으로 그냥 다니면서 밟는데 이 근방에서 보리밭 밟으러 별로 안 다녔습니다. 보리밭 곱아서 이렇게 'ᄉᆞ왁이' 들리어서, 그러니까 이월에 보통 많이들 밟았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이 해변에 좋은 밭 가진 사람은 저 밟으려고도 생각도 아니 하고, 조금 위에 목장으로 보리농사 하는 사람이 밟지 해변으로 저 좋은 밭 하는 사람들은 안 밟습니다.

602) 강상흥 구술.

(2) 줄 놓기, 집 일기

줄 보통 새해 들어근에 이월덜 뒈엉 많이 놉니다. 막 추운 시기는 거의 다 지나근에 봄 나올 때 그 집 일곡. 줄 놓곡 집 일어지민 뭐 금년 농사 다 허고렌.[603] 정월, 이월 헙니다.[604]

줄 보통 새해 들어서 이월 되어서 많이 놉니다. 아주 추운 시기는 거의 다 지나서 봄 나올 때 그 집 이고. 줄 놓고 집 이고 나면 뭐 금년 농사 다 하였노라고. 정월, 이월 합니다.

• 줄 놓기

그게 줄 놓는 게 ᄒᆞ나의 그 거시기라. 상당이 그 손앞으로 오면 조금 저 손재주가 좋지 아년 사름은 그 줄을 골르게 놓지 못허여근에 하영 들어가는 딘 하영 들어가곡 이땅 쪽영 들어가근에 영 끈어져 불 수도 잇곡 허난. 보통 나이 든 어른덜이 줄을 잘 놉니다마는 경헌 사름 빌어다근에.[605]

그게 줄 놓는 게 하나의 그 거시기야. 상당히 그 손앞으로 오면 조금 저 손재주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줄을 고르게 놓지 못하여서 많이 들어가는 덴 많이 들어가고 이따금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보통 나이 든 어른들이 줄을 잘 놉니다마는 그런 사람 빌려다가.

---

603) 강상흥 구술.
604) 강대선 구술.
605) 강상흥 구술.

• **호렝이, 뒤치기**

호렝이. 따시 뒷ᄃᆞ리, 영 합치는 건, 저 뒷ᄃᆞ리는 거, 영 줄.[606]. 호롱이[607]. 어울리는 거. 이 뒤에서 합쳐근에 허민 뒤치기. 앞에서 비멍 물러사멍 비는 거.[608]

'호렝이[609]'. 다시 '뒷ᄃᆞ리', 이렇게 합치는 건, 저 '뒷ᄃᆞ리는' 거, 이렇게 줄. '호롱이'[610]. 어울리는 거. 이 뒤에서 합쳐서 하면 '뒤치기'[611]. 앞에서 꼬면서 물러서면서 꼬는 거.

• **진줄, ᄍᆞ른줄**

진줄 보통 집이 조금 이 폭이 넓은 집은 스물세 거리에서 네 거리, 그렇지 아닌 경우는 ᄒᆞᆫ쏠 족은 집은 ᄒᆞᆫ 스물ᄒᆞ나에서 둘, 그게 그 엿날 집 폭이 큰 차이가 엇엇습니다게. ᄍᆞ른줄은 그 집 길이에 한헤서. 진줄에서 거의 곱 들어갑니다, 숫자가. 곱 들어가는 디도 잇곡 곱 쪼끔 못허게 들어가는 디도 잇고.[612]

'진줄'[613] 보통 집이 조금 이 폭이 넓은 집은 스물세 거리에서 네 거리,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작은 집은 한 스물하나에서 둘, 그게 그 옛날 집 폭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요. 'ᄍᆞ른줄'[614]은 그 집 길이에 한해서. '진줄'에서 거의 곱 들어갑니다,

606) 강대선 구술.
607) 강상흥 구술.
608) 강상흥 구술.
609) '호렝이'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지역에 따라서 '호롱이, 훼롱' 등으로 부른다.
610) '호롱이'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다.
611)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도구다.
612) 강상흥 구술.
613) '진줄'은 초가지붕을 고정할 때 가로로 사용하는 줄이다.

숫자가. 곱 들어가는 데도 있고 곱 쪼끔 못하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 집 일기

집은 보통 이월 그뭄에서 삼월 초 ᄉᆞ시에 잘 입니다. 집 일 때는 집 이는 사람은 지붕 우이 올라간 사름 ᄒᆞᆫ 사름, 아래서 새 올리곡 줄 매는 사름 두 사름이믄 저 세 사람이민 뒈고. 겨곡 줄 놀 때는 필히 네 사름. 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ᄁᆞ지 필요헙니다. 우선 일기가 좋아야, ᄇᆞ름 엇곡 거시기헌 날. 거고 이 옛날은 무신 좋은 날 ᄀᆞ뜬 날, 무신 거시기헌 날은 집 일민 집이 재게 썩는다고 헤 가지고 ᄎᆞᆷ 날도 좋은 날, 미신 개날이나 뭐 토끼날 ᄀᆞ뜬 날, 그런 그 육갑에 ᄒᆞᆫ헤서 그 좋은 동물 거시기헌 날 택헤 가지고서 좋다고 헌 날, 그런 날.[615]

집은 보통 이월 그믐에서 삼월 초 사이에 잘 입니다. 집 일 때는 집 이는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 아래서 띠 올리고 줄 매는 사람 두 사람이면 저 세 사람이면 되고. 그러고 줄 놀 때는 필히 네 사람. 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까지 필요합니다. 우선 날씨가 좋아야, 바람 없고 거시기한 날. 그러고 이 옛날은 무슨 좋은 날 같은 날, 무슨 거시기한 날은 집 이면 집이 재우 썩는다고 해 가지고 참 날도 좋은 날, 무신 개날이나 뭐 토끼날 같은 날, 그런 그 육갑에 한해서 그 좋은 동물 거시기한 날 택해 가지고서 좋다고 한 날, 그런 날.

614) '쯔른줄'은 초가지붕을 고정할 때 세로로 사용하는 줄이다.
615) 강상흥 구술.

□ 3월

1) 청명

청명 때도 대개 산 천리도 허곡, 청명이 거 좋은 날이라고 헤 가지고 천리 ᄀᆞ뜬 것도 허고, 이사도. 보통 신구간드레야 그 이사 ᄀᆞ뜬 건 많이 헙니다마는 청명 때도 이사도 뭐 그런 거시기는 중요한 행사는 옛날 많이 헷어마씀.[616]

청명 때도 대개 묘 이묘도 하고, 청명이 거 좋은 날이라고 해 가지고 이묘 같은 것도 하고, 이사도. 보통 신구간으로 그 이사 같은 건 많이 합니다마는 청명 때도 이사도 뭐 그런 거시기는 중요한 행사는 옛날 많이 했어요.

2) 한식 명질

한식 멩질 말만 들엇지, 안직은 우리 허는 건 몰르고. 옛날 ᄀᆞᆫ는 이얘기로는 한식이라는 게 그 중국에 백이숙제란 그 사람이 막 충신이랏는데 어째서 뭐 모함을 받게 뒈 가지고서 산중으로 쫓겨나 가지고서 허는디 내중에 임금님이 그 사름을 찾을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산중에 곱아서 나오지 아녀니까. 산을 이제 불부찌민 나올 것이다 헤 가지고 산을 불부찌니까 거, 충신이 불탄 죽어 부니까 그걸 기념허기 위헤 가지고서 한식 멩질을 헌다고 허는 말을 많이 들엇는디. 게난 한식에는 밥광 국은 그 더운밥을 허지마는 일절 저 적갈 ᄀᆞ뜬 거나 탕쉬 ᄀᆞ뜬 건 더운 음식을 아니. 미릇 ᄎᆞᆯ려근에 식은

616) 강상흥 구술.

음식으로 출려낫다는 말을 들엇습니다.[617]

한식 명질 말만 들었지, 아직은 우리 하는 건 모르고. 옛날 말하는 이야기로는 한식이라는 게 그 중국에 백이숙제란 그 사람이 아주 충신이었는데 어째서 뭐 모함을 받게 되어 가지고서 산중으로 쫓겨나 가지고서 하는데 나중에 임금님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산중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산을 이제 불붙이면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산을 불붙이니까 거, 충신이 불타서 죽어 버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식 명질을 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식에는 밥과 국은 그 더운밥을 하지마는 일절 저 적 같은 거나 '탕쉬' 같은 건 더운 음식을 아니. 미리 차려서 식은 음식으로 차렸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 묘제

청명날 뒷날이 한식 아니우꽈게. 청명광 한식이 거의. 묘제는 그 집안마다 틀려서예. 묘제란 건 각 집안에 그 웃어른 기일 제ᄉᆞᄒᆞ다가 기일 제ᄉᆞ 치와서 그대로 거시기허다가 이 ᄌᆞ손덜이 많이 번성헤 가지고서 그대로 웃어른 이 거시기헐 수가 엇다 허영 어느 날 정헤 가지고서, 묘제엔 헌 게 이 산 잇는 디 가가지고 제지내는 게 묘제 아닙니까. 게난 그 묘제를 보통 제주 사름덜은 봄에 헤여마씀. 거 육지분네들은 그 팔월 추석에덜 거 집안에서 제지내근에 산에덜 강 제지내는 모냥이우다, 육지도 큰웃댓어른덜은 봄에도 그 묘제를 지내고, 가을에도 묘제 지내는 집안도 없지 않아 잇습니다. 이 집안마다 틀리니까. 삼월 초하루부떠도 뭐 초ᄒᆞ룻날도 뭘 수도 잇고, 삼월 보름ᄁᆞ장도 뭘 수 잇고. 우리 집안에 우리 하원 입도는

617) 강상흥 구술.

삼월 초ᄒᆞ룻날 허고 그 웃대는 초이튿날허고 또 웃대는 열사흗날, 열나흗날, 보름날ᄁᆞ지 헤 가지고서 삼월 나근에 묘제허젠 허믄 ᄒᆞᆫ 댓쉐 바빠집니다.[618]

청명날 뒷날이 한식 아닙니까요. 청명과 한식이 거의. 묘제는 그 집안마다 달랐어요. 묘제란 건 각 집안에 그 웃어른 기일 제사 하다가 기일 제사 치워서 그대로 거시기하다가 이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 가지고서 그대로 웃어른 이 거시기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느 날 정해 가지고서, 묘제라고 한 게 이 묘 있는 데 가가지고 제지내는 게 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묘제를 보통 제주 사람들은 봄에 해요. 거 '육지'분네들은 그 팔월 추석에들 거 집안에서 제지내서 묘소에들 가서 제지내는 모양입니다, 육지도 '큰웃댓어른[619]'들은 봄에도 그 묘제를 지내고, 가을에도 묘제 지내는 집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집안마다 다르니까. 삼월 초하루부터도 뭐 초하룻날도 될 수도 있고, 삼월 보름까지도 될 수 있고. 우리 집안에 우리 하원 입도는 삼월 초하룻날 하고 그 윗대는 초이튿날하고 또 윗대는 열사흗날, 열나흗날, 보름날까지 해 가지고서 삼월 나서 묘제 하려고 하면 한 닷새 바빠집니다.

4) 생업

(1) 메역허채

메역은 삼월덜에마씨. 큰ᄌᆞᆷ수덜은 지픈 디 강 전복도 허고 구젱기도 허곡. 메역이 제일 우이 나는 거우다. 메역이 제일 ᄀᆞᆺ바당이 나는 거난에

618) 강상흥 구술.
619) '큰웃댓어른'은 한 성씨의 입도조 등 윗대 조상을 말한다.

지픈 디 안 가도 메역은 허는 거고. 전복 구젱긴 허젠 허민 ᄒᆞ끔 지픈 디 가곡. 옛날은 돈 날 코가 엇이난 메역을 금허엿다근에 허첼 헙니다. 봄나가민 메역허첼 허민, 저 오널은 어느 바당 헐 거여 허민 그 ᄉᆞ방에 강 막 메역허고. 메역허젠 삼월ᄃᆞᆯ에 헙니다.

어느 바당 헐 거여 허민 그디 강 막 앚앗다근에 ᄉᆞ뭇 호르레기라도 싹허게 불민 바당에 싹 ᄂᆞ려가근에 메역허연에 그 메역을 허여근에 가인으로 ᄑᆞᆯ지 아년 저 거시기 이 부락으로 허여근에 하영 허는 사름은 백 근이 ᄒᆞᆫ 칭입주게. 메역 백 근이 ᄒᆞᆫ 칭이난 상군덜은 멧 칭썩 헙니다. 상군덜은 멧 칭 허고 톨팔이줌수덜은 게나마나 그자 ᄒᆞᆫ 백 근, 그자 백 근 ᄉᆞ시 허곡. 상군덜은 막 여라 칭 허곡. 경 허영 메역허첼 허민 ᄒᆞᆫ 바당, 바당 일름이 ᄒᆞᆫ 서너 가지 뭽주게. 써레여, 망다리여, 앞바르여 무슨 넘은물이여 헤근에 ᄒᆞᆫ 댓쉐에 허채허민, 메역허채허는 날은 ᄉᆞ뭇 짐으로 졍 오지 못허영 하영 허는 사름은 쉐 앗앙 가근에 바리로 시꺼오곡양. ᄯᅳ시 옛날엔 구르마도 엇곡 경운기도 엇곡 허민 메역을 쉐로 바리로 시꺼와수다게. 경허영 톨팔이줌수덜은 게나마나 멧 짐썩 졍 오곡 하영 허는 사름은.

돌팔이줌순 ᄒᆞ끔 줌수질을 잘 못허는 사름은 톨팔이줌수라고 헙니다. 게난 잘허는 사름덜은 상군, 경 아년 ᄒᆞ끔 못허는 사름덜은 돌팔이. 경 허연 삼월ᄃᆞᆯ에 허채허연 그걸 ᄯᅳ시 ᄆᆞᆯ류와근에 그건 가인으로 ᄑᆞᆯ지 아녀근에 ᄯᅳ시 부락으로 막 바쪄근에 그자 공출로 허듯이 기자 그걸 ᄑᆞᆯ아근에 돈도 기자 조합 거시기 그땐 기냥 부락으로 허여근에 누게 멧 근, 누게 멧 근 허여근에 돈도 테우곡 경 헤낫수다. 이젠 기자 ᄆᆞᆫ ᄒᆞ끔 허민 ᄆᆞᆫ 야매로덜만 허여근에 거시기허주마는 옛날에 누게 그런 거 잘 사지 아니허연 그자 ᄒᆞᆯ 수 엇이 법으로덜 기자 부락으로 기자 단체로덜 허영 말자.

메역 금지허여근에 그걸 골로로 허게시리 경 아녕 금지 아니허믄양 허는

사름은 드러 허여 와 불곡 따시 못허는 사름은 거시기 못 허여 오곡 허난 그걸 금지허엿다근에 허채라고 헙니다. ᄒᆞ루에 그자 허채, 어느 바당 허채, 경허민 그땐 기자 톨팔이곡 상군이곡 그자 오꼿 나사근에 골로로 허여 옵니께.[620]

미역은 삼월에요. '큰잠수'들은 깊은 데 가서 전복도 하고 소라도 하고. 미역이 제일 위에 나는 겁니다. 미역이 제일 'ᄀᆞᆺ바당[621]'에 나는 거니까 깊은 데 안 가도 미역은 하는 거고. 전복 소라는 하려고 하면 조끔 깊은 데 가고. 옛날은 돈 날 코가 없으니까 미역을 금하였다가 '허채'[622]를 합니다. 봄 나가면 '미역허채'를 하면, 저 오늘은 어느 바다 할 거야 하면 그 사방에 가서 막 미역하고. '미역허채'는 삼월에 합니다.

어느 바다 할 거야 하면 거기 가서 막 앉았다가 사뭇 호루라기라도 싹하게 불면 바다에 싹 내려가서 미역해서 그 미역을 하여서 개인으로 팔지 않고 저 거시기 이 마을로 하여서 많이 하는 사람은 백 근이 한 칭입지요. 미역 백 근이 한 칭이니까 '상군'들은 몇 칭씩 합니다. '상군'들은 몇 칭 하고 '톨팔이좀수'들은 그러나저러나 그저 한 백 근, 그자 백 근 사이 하고. '상군'들은 아주 여러 칭 하고. 그렇게 해서 '미역허채'를 하면 한 바다, 바다 이름이 한 서너 가지 됩지요. '써레여', '망다리여', '앞바르여' 무슨 '넘은물'이여 해서 한 닷새에 '허채'하면, '미역허채' 하는 날은 사뭇 짐으로 지고 오지 못해서 많이 하는 사람은 소 갖고 가서 바리로 실어오고요. 다시 옛날엔 달구지도 없고 경운기도 없고 하면 미역을 소로 바리로 실어왔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톨팔이좀수'들은 그러나저러나 몇 짐씩 지고 오고 많이 하는 사람은.

'돌팔이좀수'는 조끔 잠수질을 잘 못하는 사람은 '톨팔이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상군', 그렇게 않은 조끔 못하는 사람들은 '돌팔이'. 그렇게 해서

620) 강대선 구술.
621) 'ᄀᆞᆺ바당'은 해안에 가까운 바다를 말한다.
622) '허채'는 바다 해산물을 캐는 것을 승낙하는 일을 말한다.

삼월에 '허채'해서 그걸 다시 말려서 그건 개인으로 팔지 않고 다시 마을로 막 바쳐서 그저 공출로 하듯이 그저 그걸 팔아서 돈도 그저 조합 거시기 그땐 그냥 마을로 하여서 누구 몇 근, 누구 몇 근 하여서 돈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젠 그저 몽땅 조금 하면 몽땅 '야매[623]'로들만 하여서 거시기하지만 옛날에 누구 그런 거 잘 사지 아니해서 그저 할 수 없이 법으로들 그저 마을로 그저 단체로들 하고 말자.

미역 금지하여서 그걸 골고루 하게끔 그렇게 않고 금지 아니하면요 하는 사람은 마구 하여 와 버리고 다시 못하는 사람은 거시기 못 하여 오고 하니까 그걸 금지하였다가 '허채'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저 '허채', 어느 바다 '허채'. 그러면 그땐 그저 '톨팔이'고 '상군'이고 그저 '오꼿[624]' 나서서 골고루 하여 옵니다.

□ 4월

1) 사월 초파일

사월 초파일날은 절간에 가는 날 아니우꽈? 강 등 ᄃᆞᆯ곡. 식구 수정에 등 ᄃᆞᆯ곡 불공이나 허영 오랑 끗나민 막 초파일에 무시걸 헙니까. 옛날 초파일 뒈민, 옛날에 애기덜 이녁 냥으로 ᄀᆞ세로 기냥 머리 까까나수게게. 이젠 경 허는 아기가 엇어도 옛날엔 초파일에 머리 까까주민 큰굿 헤준 것보단 낫넨. 초파일마다 삼 년만 머리 까까주민 애기덜 큰굿 헤준 것보단 낫넨 경 ᄀᆞᆯ아나수다게. 나 절간엔, 젊은 땐 저 바굼지오름 뎅여나수다. 저 단산 보성마씸. 향교 우녁편이. 그 문○이 스님이라고 하원이우다. 우리 하원

623) '야매'는 일본어 '아미[闇, やみ]'에서 온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암거래' 또는 '뒷거래'의 의미다.
624) 여기에서 '오꼿'은 '몽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름이난 그디 하원 사름을 촟안 간에 그디만 뎅견. 이젠 늙으난 절도 못 뎅여. 절간엔 절허레 가는 거 아니우꽈? 절허레 가는 거난 이젠 늙으난 절도 꼬박꼬박허기 실프고 안 뎅겸수다.[625]

사월 초파일날은 절에 가는 날 아닙니까? 가서 등 달고. 식구 숫자에 등 달고 불공이나 하고 와서 끝나면 막 초파일에 무엇을 합니까. 옛날 초파일 되면, 옛날에 아기들 이녁 대로 가위로 그냥 머리 깎았었습니다요. 이젠 그렇게 하는 아기가 없어도 옛날엔 초파일에 머리 깎아주면 큰굿 해준 것보단 낫다고. 초파일마다 삼 년만 머리 깎아주면 아기들 큰굿 해준 것보단 낫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나 절간엔, 젊을 땐 저 '바굼지오름[626]' 다녔었습니다. 저 '단산'[627] '보성'[628]요. 향교 오른편에. 그 문○이 스님이라고 하원입니다. 우리 하원 사람이니까 거기 하원 사람을 찾고 가서 거기만 다녔어. 이젠 늙으니까 절도 못 다녀. 절간엔 절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절하러 가는 거니까 이젠 늙으니까 절도 꼬박꼬박하기 싫고 안 다니고 있습니다.

□ 5월

1) 망종

망종에 옛날엔 망종에 보리ᄀᆞ슬 반ᄀᆞ슬 ᄒᆞᆫ덴 옛날에 ᄀᆞᆯ아나수게. 그건 무신 말로사 경 반ᄀᆞ슬 ᄒᆞᆫ덴 무사 할망덜 ᄀᆞᆯ아나신지. 이젠 보리 안 헤

625) 강대선 구술.
626) '바굼지오름'은 대정읍 인성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달리 '단산'이라고도 한다.
627) '단산'은 대정읍 인성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달리 '바굼지오름'이라고 한다.
628)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가난 망종사 어느 때사 넘엄신지 어떵 허여도 옛날엔 망종에 반ᄀᆞ슬 ᄒᆞ덴 ᄀᆞᆯ아나수다.629)

나가 이야기허쿠다. 망종엔 앞 장마 오월장마 조금 전에 보리ᄀᆞ슬 그 막 보리 비어들일 때마씀게. 그 시기가, 망종 뒈면은 그 보리 비어 뎅임뿐만 아니라 망종 뒈면 이 목장에 산디 ᄀᆞ뜬 거 ᄇᆞᆯ리기도 시작허곡마씀. 경 허민 망종 뒈어근에 농ᄉᆞ일이 막 바쁜 때라마씀. 그 옛날도 이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마는 그 오죽허민 망종 뒈면은 보리 곱곡 삼 거린 때라, 삼이. 옛날은 이 삼베를 제주에서도 많이 헷던 모냥입니다. 그거 헤근에 삼 거리지 말아야 비어서 솖앙 짝허게 치지면은 거죽이 짝허게 잘 벗어질 거 아이우꽈? 경 헹 그걸 ᄆᆞᆫ 실 ᄒᆞ젠 베 멩글젠 허민 그걸 치져근에 거시기헐 때난 삼 거리기 막 때가 그 망종이라고 거 ᄉᆞ뭇 사돈 왕, 사돈 뎅여도 또꼬망으로 절헐 때엔 막 바쁜 시기가 뒙주, 망종에. 게난 보리 곱곡 삼 거릴 땐 망종에는 반ᄀᆞ슬 헤 들인다고. 그게 막 바쁜 때를 얘기헤 가지고서 ᄒᆞ는 말이우다.630)

옛날 보리허고 요새 보리허고양 틀려. 옛날 보리가 늦인 보리라나신ᄀᆞ라 망종에, 이젠 망종에 보리 엇입니다. 보리 다 허여 들영. 경 헌디 옛날엔 보리가 늦인 보리들 갈아나신ᄀᆞ라 저 망종에 보리가 하나수다. 견디 옛날 보리쏠이 맛도 좋앗고, 목 숙은 ᄉᆞᆯ우리로 허여근에 허믄양, 목 숙은 ᄉᆞᆯ우리로 허믄 밥맛이 좋아수다. 이젠 그런 게 엇엇주.631)

옛날도 이게 ᄉᆞᆯ보리양, 그 보리가 피죽이 적은 거가 잇엇고, 두줄보리, 거 두 줄로만 여물이 부뜬 보리가 잇엇고, 목 숙은 ᄉᆞᆯ보리라고 헤 가지고서 익어 가면은 이거 영 고개가 숙여 버려.632) 그것이 맛 좋아나수다.633)

---

629) 강대선 구술.
630) 강상흥 구술.
631) 강대선 구술.

이게 ᄒᆞ끔 늦읍니다. 늦는디, 이 놈으 보린 이거 조끔만 시기를 놓치면은 목 숙인 고고리 글로 막 부서졍 꺼꺼져 버려. 경 허난에 바로 이 보리는 퍼렁헌 때부떠 비라고 허는 겁주. 게난 그때 뒈면은 목 숙은 ᄉᆞᆯ오리는 그거 설어도 무조건 비지 아녀믄. 목 숙은 ᄉᆞᆯ오리가 밥맛은 막 좋아나수다. ᄒᆞ끔 영 비민양, 영 비민 낭에 고고리가 멧 개 엇엇수다. ᄆᆞᆫ 털어져 비엉. 겡낭에 부뜬 것보단 아래 털어진 고고리가 하낫수다. 게난 아래 털어진 고고리가 ᄉᆞ뭇 가멩이로 멧 개. 주넹이보리 이수다.[634]

주넹이보리옌 경도 ᄀᆞᆯ아낫수다. 두줄보리, 맥주보리엔도 허고양. 또 그 보리가 나기 전에 대맥이엔 허여근에 그 좀 보리가 거칠곡 보리낭뎅이는 조끔 커. 걸 대맥, 대맥 허는디. 그게 오죽 헹 어른들이 ᄉᆞ월 남풍에 대맥 허민, ᄉᆞ월에 남풍 불어야 그 큰 보리가 누레진다고 익어가지고, 잘 익는다고 경 헌 말입주.[635]

망종에 옛날엔 망종에 '보리ᄀᆞ슬'[636] '반ᄀᆞ슬[637]' 한다고 옛날에 말했었어요. 그건 무슨 말로야 그렇게 '반ᄀᆞ슬'한다고 왜 할머니들 말했었는지. 이젠 보리 안 해 가니까 망종이야 어느 때야 넘고 있는지 어떻게 하여도 옛날엔 망종에 '반ᄀᆞ슬'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망종엔 앞 장마 오월장마 조금 전에 '보리ᄀᆞ슬' 그 막 보리 베어들일 때에요. 그 시기가, 망종 되면은 그 보리 베어 다니기뿐만 아니라 망종 되면

632) 강상흥 구술.
633) 강대선 구술.
634) 강대선 구술.
635) 강상흥 구술.
636) '보리ᄀᆞ슬'은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말한다. '보리+ᄀᆞ슬' 구성으로, 여기에서 'ᄀᆞ슬'은 보리 따위를 거두어 들이는 일의 의미다.
637) '반ᄀᆞ슬'은 보리를 수확하는 일은 한 해 농사의 반을 했다는 의미다.

이 목장에 산도 같은 거 밟기도 시작하고요. 그러게 하면 망종 되어서 농사일이 아주 바쁜 때에요. 그 옛날도 이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마는 그 오죽하면 망종 되면 보리 곱고 삼 거린 때야, 삼이. 옛날은 이 삼베를 제주에서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해서 삼 거리지 말아야 베어서 삶아서 짝하게 찢으면 거죽이 짝하게 잘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몽땅 실 하려고 베 만들려고 하면 그걸 찢어서 거시기 할 때니까 삼 거리기 막 때가 그 망종이라고 거 사뭇 사돈 와서, 사돈 다녀도 꽁무니로 절할 때라고 아주 바쁜 시기가 되지요, 망종에. 그러니까 보리 곱고 삼 거릴 땐 망종에는 '반ᄀᆞ슬' 해 들인다고. 그게 아주 바쁜 때를 얘기해 가지고서 하는 말입니다.

옛날 보리하고 요새 보리하고요 달라. 옛날 보리가 늦은 보리였는지 망종에, 이젠 망종에 보리 없습니다. 보리 다 하여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옛날엔 보리가 늦은 보리들 갈았었는지 저 망종에 보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보리쌀이 맛도 좋았고, 고개 숙인 쌀보리로 해서 하면요, 고개 숙인 쌀보리고 하면 밥맛이 좋았습니다. 이젠 그런 게 없었지.

옛날도 이게 쌀보리요, 그 보리가 껍데기가 적은 것이 있었고, '두줄보리'[638], 거두 줄로만 여물이 붙은 보리가 있었고, 고개 숙인 쌀보리라고 해 가지고서 익어 가면 이거 이렇게 고개가 숙여 버려. 그것이 맛 좋았었습니다. 이게 조금 늦습니다. 늦는데, 이 놈의 보린 이거 조끔만 시기를 놓치면 고개 숙인 이삭 그리로 막 부서져서 꺾어져 버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 보리는 퍼런 때부터 베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고개 숙인 쌀보리는 그거 설어도 무조건 베지 않으면. 고개 숙인 쌀보리가 밥맛은 아주 좋았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베면요, 이렇게 베면 대에 이삭이 몇 개 없었습니다. 몽땅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대에 붙은 것보단 아래 떨어진 이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떨어진 이삭이 사뭇 가마니로 몇 개. '주넹이보리[639]' 있습니다.

---

638) '두줄보리'는 맥주보리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639) '주넹이보리'는 맥주보리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두줄보리'라고도 한다.

'주넹이보리'라고 그렇게도 말했었습니다. '두줄보리', '맥주보리'라고도 하고요. 또 그 보리가 나기 전에 대맥이라고 해서 그 좀 보리가 거칠고 보릿대는 조끔 커. 걸 대맥, 대맥 하는데. 그게 오죽 해서 어른들이 사월 남풍에 대맥 하면, 사월에 남풍 불어야 그 큰 보리가 누레진다고 익어가지고, 잘 익는다고 그렇게 한 말이지요.

2) 하지

하지는 그 유월절 바로 직전에 시기가 하지라마씀. 그 유월절이, 음력으로 유월 들어오는 그날로부떠 유월이다 헤 가지고 절기를 말허는데, 보통 유월절 들면은 그 장마가 거의가 끗나갑니다. 경헌디 그 하지 고비가 제일 장마철 가운디고. 그 박전 농사는 하지 고비에 헤얍주. 아주 박한 밧, 박한 밧디 이 조나 무신걸 허젠 콩이나 뭐옌 조 ᄀᆞ뜬 거 갈젠 하면은 하지 고비에 헤여야 ᄀᆞ슬 들어근에 여물이 조끔 나아지고. 이 해벤 밧광 ᄀᆞ찌 막 허기로 유월절 들어근에 허영은 조끔 여물 ᄀᆞ뜬 게 낭이 부실허게 자라근에 잘 들지 아년덴 헤가지고. 하지에 박전 농사헌다고 허는디.[640] 장남 엇곡 쉐엇곡 ᄒᆞᆫ 사름은 우리 저 홀어멍덜 기자 일 못헌 사름 그자 유월절 넘어근에 허민 곡석도 잘 안 뒈고 경 헤나수다게. 장남 잇곡, 이녁 쉐 잇곡 헌 사름덜 ᄎᆞ례 출려근에 뒈나마나 기자 하지 전이덜만 농시허젠 경 허는 거주. 쉐엇곡 홀어멍덜은 쉐도 엇곡 장남도 엇곡. 춤, 장남 빌지 못허곡 허여 가민 유월절 넘어 불곡 허여 가민 곡석이 늦어근에양 감전 심거 가민 감저꿀도 죽어 불곡 경허연 허는 거주.[641]

보통 하지 뒈민 막 바쁘게 뒈는 게, 이 박전 농사 목장 ᄀᆞ뜬 디 조 ᄀᆞ뜬

640) 강상흥 구술.
641) 강대선 구술.

건 이 하지 때 ᄇᆞᆯ려야 뒈고. 이 감제도 하지 때 뒈민 심금 시작헤야 뒈고. 나룩도 그 시기에, 막 뭐 콩 ᄀᆞ뜬 것도 그 시기. 이 나룩 ᄀᆞ뜬 거 조끔 묘가 적게 노민 유월절ᄁᆞ지도 심급니다마는. 감저 ᄀᆞ뜬 거 이따근에 그 오월장마가 빨리 끗나 불거나 늦게 칠 때는 유월절에 재기 심그질 못허여. 유월절 넘어근에 비 올 디만 기두령 막 거시기허다근에 유월절 넘엉 감절 심글 비나 오면은 밧이나 갈앙은에 감저 심그면은 감저가 잘 살질 안허여. 어떤 땐 유월절 ᄒᆞ루라도 넘으민 이 땅에, 땅에서 더운짐이 올라와 가지고 감젓줄 ᄀᆞ뜬 거 졸바로 살도 아녀고. 이 조에도 이 돌와리 ᄀᆞ뜬 거, 이 또 검은조, 이 조덜, 그 흐린조덜 잇는디 그런 거는 보통 이 좋은 밧디들 ᄀᆞ진 사름은 유월절 넘어근에. 하여튼 마걷이[마커지] 농사허젠 허믄 잘뒌다고 허는디 막 거길 넘어도 막 넘어도 초복. 마걷이주게. 마가 끗난다는 말. 마걷이 농살헤도 그때도 유월절 넘어도 뭐인가 맞추지 못허면 밧을 못 ᄇᆞᆯ려마씀. 경헌디 초복ᄁᆞ지는 농사를 헤도 뒈고, 초복 넘어서 농사를 허면은 ᄀᆞ을 그 상강 빨리 얼음이 빨리 얼어서 곡식이 여물질 아이 헌다고 헤 가지고 그 ᄆᆞᆫ 얼려져 분덴.[642]

게나마나 농춘엔양 삼월달만 나가민 그자 논에덜은 물긋물긋헌 보리 비어둬근에 나룩메 ᄆᆞᆫ 놓아가민 그때부떠 바빠 갑니다게. 나룩메, 선보리 비어다근에 나룩메 노저, 그 선보리 비어온 거 ᄯᅳ시 영, 퍼렁허게 헹 그게 ᄆᆞᆫ 조졍, ᄒᆞ끔씩 옛날엔 조져근에 그 부릴 손으로 영 ᄐᆞᆯ아낫수다. 호미로 영 ᄐᆞᆯ앙 익엉, 익기 전이 ᄒᆞ여 논 거, 나룩메 놓젠 허민. 게난에 그거 허여근에 그 보릴 허여근에 장만허여근에 그 보릴 ᄯᅳ시 서난에 솟디 놩 ᄉᆞᆷ아마씨. 보벼근에 ᄉᆞᆯ 내왕 보벼근에 허민 그것이 알보리라고 밥허민 막 맛 좋곡 헤낫수다마는. 그거 나룩메 놀 디 그런 거 헤다근에 나룩메 놓젠 허민 폭낭

642) 강상흥 구술.

썹 ᄆᆞᆫ 거시려근에 논에 강 그거 ᄇᆞᆯ라근에 나룩메 놓곡. 저슬살이 강 걷어당 ᄆᆞᆫ 걸름으로. 저슬살이 헤다근에 ᄇᆞᆯ라근에 거세기허곡. 옛날에 비료 엇이 민 경 헤낫수다.643)

또 이른 보리 비엉 거시기헤근에 나룩메 놓는 건 건답이고. 이 흐렁이 신 사름은 또 경도 아이 헙주게. 흐렁이엔 헌 건 그자 아무리 헤도 그 논으로 물 나니까. 거 시기가 보통 나룩 거의가 익어갈 시기라마씀게. 그때 뒈면은 보통 이 흐렝이 신 사름은 ᄎᆞᆷ 이녁 집이 폭낭 신 사름은 폭낭썹 거스려당. 폭낭썹 엇인 사름은 어디 드르에 가근에 저슬살이썹 ᄀᆞ뜬 거, 덧낭썹 ᄀᆞ뜬 거, 비료 엇이니까 그걸 비료 대용으로 헤 가지고서 많이 사용헙니다.644)

하지는 그 유월절 바로 직전에 시기가 하지예요. 그 유월절이, 음력으로 유월 들어오는 그날로부터 유월이다 해가지고 절기를 말하는데, 보통 유월절 들면 그 장마가 거의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지 즈음이 제일 장마철 가운데고. 그 박전 농사는 하지 즈음에 해야지요. 아주 박한 밭, 박한 밭에 이 조나 무엇을 하려고 콩이나 뭐라고 조 같은 거 갈려고 하면은 하지 즈음에 해야 가을 들어서 여물이 조끔 나아지고. 이 해변 밭과 같이 막 하기로 유월절 들어서 해서는 조끔 여물 같은 게 대가 부실하게 자라서 잘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지에 박전 농사한다고 하는데. '장남'645) 없고 소 없고 한 사람은 우리 저 홀어머니들 그저 일 못한 사람 그저 유월절 넘어서 하면 곡식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남' 있고, 이녁 소 있고 한 사람들 차례 차려서 되나 마나 그저 하지 전에들만 농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소 없고 홀어머니들은 소도 없고 '장남'도 없고. 참, '장남' 빌리지 못하고 해 가면 유월절 넘어 버리고 해 가면 곡식이 늦어서요 고구마 심어 가면 고구마줄기도 죽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643) 강대선 구술.
644) 강상흥 구술.
645) '장남'은 일을 하기 위해 빌린 건강한 남자 일꾼을 말한다.

보통 하지 되면 아주 바쁘게 되는 게, 이 박전 농사 목장 같은 데 조 같은 건 이 하지 때 밟아야 되고. 이 고구마도 하지 때 되면 심기 시작해야 되고. 벼도 그 시기에, 막 뭐 콩 같은 것도 그 시기. 이 벼 같은 거 조끔 모가 적게 놓으면 유월절까지도 심습니다마는. 고구마 같은 거 이따금 그 오월장마가 빨리 끝나 버리거나 늦게 질 때는 유월절에 재우 심질 못하여. 유월절 넘어서 비 올 때만 기다려서 막 거시기하다가 유월절 넘어서 고구말 심을 비나 오면 밭이나 갈아서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잘 살질 않아. 어떤 땐 유월절 하루라도 넘으면 이 땅에, 땅에서 단김이 올라와 가지고 고구마줄기 같은 거 제대로 살지도 않고. 이 조에도 이 '돌와리[646]' 같은 거, 이 또 '검은조[647]', 이 조들, 그 차조들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이 좋은 밭들 가진 사람은 유월절 넘어서. 하여튼 '마걷이[648]' 농사하려고 하면 잘된다고 하는데 막 거길 넘어도 막 넘어도 초복. '마걷이'지. 마가 끝난다는 말. '마걷이' 농사를 해도 그때도 유월절 넘어도 뭐인가 맞추지 못하면 밭을 못 밟아요. 그런데 초복까지는 농사를 해도 되고, 초복 넘어서 농사를 하면은 가을 그 상강 빨리 얼음이 빨리 얼어서 곡식이 여물질 아니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몽땅 얼려 버린다고.

그러나저러나 농촌에는요 삼월만 되면 그저 논에들은 물긋물긋한 보리 비어둬서 볏모 몽땅 놓아가면 그때부터 바빠 갑니다. 볏모, 풋보리 베어다가 볏모 놓는다, 그 풋보리 베어온 거 다시 이렇게, 퍼렇게 해서 그게 몽땅 '조져서(?)', 조금씩 옛날엔 '조져서' 그 부릴 손으로 이렇게 뜯었었습니다. 낫으로 이렇게 뜯어서 익어서, 익기 전에 하여 놓은 거, 볏모 놓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 해서 그 보릴 하여서 장만하여서 그 보릴 다시 서니까 솥에 놔서 삶아요. 비벼서 쌀 내워서 비벼서 하면 그것이 '알보리'라고 밥하면 아주 맛 좋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거 볏모 놓을 데 그런 거 해다가 볏모 놓으려고

646) '돌와리'는 조의 한 종류로 차조의 일종이다.
647) '검은조'는 좁쌀알의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으로 차조의 일종이다.
648) '마걷이'는 장마가 끝난 후에 하는 조농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갇이'라고도 한다.

하면 팽나뭇잎 몽땅 거시려서 논에 가서 그거 밟아서 볏모 놓고. 겨우살이 가서 걷어다가 몽땅 거름으로. 겨우살이 해다가 밟아서 거시기하고. 옛날에 비료 없으면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이른 보리 베어서 거시기해서 볏모 놓는 건 건답이고. 이 수렁논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도 아니 합지요. '흐렁이'라고 한 건 그저 아무리 해도 그 논으로 물 나니까. 거 시기가 보통 벼 거의가 익어갈 시기에요. 그때 되면 보통 이 '흐렝이' 있는 사람은 참 이녁 집에 팽나무 있는 사람은 팽나뭇잎 거슬러다가. 팽나뭇잎 없는 사람은 어디들에 가서 겨우살이잎 같은 거, 덧나뭇잎 같은 거, 비료 없으니까 그걸 비료 대용으로 해 가지고서 많이 사용합니다.

□ 6월

1) 유월절

유월절 거의가 하지 넘으민 소섭니다게. 하지 뒈면은 박전 농사라고 거저 얘기헌 바가 잇습니다마는 그 박전 농사 시작헙니다. 이 드르에 아주 박헌 밧덜은 그때부떠 조도 갈고 콩도 허곡 또 이 좋은 밧 거리왓전. 어디 해변에 좋은 굴렁밧 ᄀᆞ뜬 디 그런 디 밧덜은 보통 마걷이라고 헤서 마끗날 때로부떠 시작헤 가지고서. 우선 졸 ᄇᆞᆯ리면은 그게 그 시기가 막 더운 철에 허면은 조 삼 일만이면 납니다. 삼 일째 뒈민 빨리 나곡 빨리 자란다고 헤서. 그 늦엉 막 허기로 허면은 검질이 덜어. 겡 마 끝에 하지 고비에 허민 장마 쉴 트멍에 그 조금씩 비 오당 갠 날 헤여근에 글루후제 비 오면은 검질 날 거 아니우꽈. 경헌 따문에 조금 좋은 밧 ᄀᆞ진 사름은 마걷이 마

끗나는 때로부떠 그거 새로 허영 대개 조 ᄇᆞᆯ립니다.[649]

유월절 거의가 하지 넘으면 소서입니다. 하지 되면 박전 농사라고 거 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박전 농사 시작합니다. 이 들에 아주 박한 밭들은 그때부터 조도 갈고 콩도 하고 또 이 좋은 밭 '거리왓전[650]'. 어디 해변에 좋은 '굴렁밧[651]' 같은데 그런 데 밭들은 보통 '마걷이'라고 해서 마 끝날 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우선 조를 밟으면 그게 그 시기가 아주 더운철에 하면은 조 삼 일만이면 납니다. 삼 일째 되면 빨리 나고 빨리 자란다고 해서. 그 늦어서 막 하기로 하면은 김이 덜어. 그래서 마 끝에 하지 즈음에 하면 장마 쉴 틈에 그 조금씩 비 오다가 갠 날 해서 그 이후에 비 오면 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때문에 조금 좋은 밭 가진 사람은 '마걷이' 마 끝나는 때로부터 그거 새로 해서 대개 조 밟습니다.

2) 둑 잡아먹는 날

옥안 보난 유월 스무날 ᄃᆞᆨ 먹는 날이엔 허난 나도 그건 자세인 몰르쿠다마는 옛날은 기자 이녁 집이서 질룅덜 먹을 때난. 기자 ᄒᆞᆫ 사름이 ᄒᆞ나썩덜 기자, 요새추룩 ᄒᆞ나 사당 ᄆᆞᆫ 먹지 아녕, 옛날엔 이녁 집이 질룬 거난 비에 기덜 그자 ᄒᆞᆫ 사름이 ᄒᆞ나썩 잡앙, 그거 더위 들지 말렌 경 허는 거 아닌가마씸? 비에기 그거 ᄒᆞᆫ 석 ᄃᆞᆯ에서 넉 ᄃᆞᆯ 질롸 가민 기자 아기덜은 먹을 만헙니다. 그 ᄃᆞᆨ이 깨울 ᄒᆞᆫ 뒈어 가민 ᄃᆞᆨ세기 나민 텅에에 앚앙 ᄂᆞ리젠을 안헤근에 앉젠만 헙니다게. 이월달에. ᄃᆞᆨ세기 ᄒᆞ나라도 나민 그디 앚아근에 ᄉᆞ뭇 ᄂᆞ리질 아녕 기자 깨우젠 기자 앉젠만 헙니께. 경허여 가민 ᄃᆞᆨ세기

649) 강상흥 구술.
650) '거리왓전'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을 말한다. 땅의 비옥하다고 한다.
651) '굴렁밧'은 움푹 팬 곳에 있는 밭을 말한다.

여남은 개고 열댓 개고 허여근에 텅에에 놩 내불민 ᄃᆞᆨ이 ᄂᆞ리질 아녀근에 기자 ᄒᆞᆫ 이틀에 ᄒᆞᆫ 번 사흘에 ᄒᆞᆫ 번 ᄂᆞ립니다. 그 ᄒᆞ끔 ᄇᆞ름 쒜우젠. ᄇᆞ름 쒜와 놩 텅에레 어그라 올라마씨. 옛날엔 이녁 집이 질룰 때난에 ᄎᆞᆷ 식구마다 잡안 먹어수다. 요새ᄎᆞ룩 사질 아녈 때난. 요새덜은 사당 먹엄십주게. ᄃᆞᆨ칩이 강은에 삼계탕을 먹으나 ᄃᆞᆨ을 기냥 먹으나.[652]

초복에 그 유월절 넘어서 쳇 경일이 그 초복입니다, 경일. 중복도 경일 넘어서 딱, 경일이엔 허민 그 육십갑자에서 앞엣 자만 이야기허는 거난 십 일에 ᄒᆞᆫ 번 돌아옵니다게. 그 경일에 뭐 경인, 경진, 뭐 경오, 경술 뭐 이렇게 헤 가지고서 십 일에 ᄒᆞᆫ 번 돌아오는데 두 번채 경일이 또 중복이라 마씀. 또 세 번채 말복이 경일은 맞는데 그 말복 뒈기 전이 이 칠월절이 들어 붑니다게. 칠월절 들어 불면은 이제 그 칠월절 넘어서 쳇 경일 뒈어야 ᄒᆞ난에. ᄒᆞᆫ 중복광 말복 새 이십 일 간 사이가 뒙니다.

그리고 엿날은 이 농촌에서 ᄎᆞᆷ 아까 ᄃᆞᆨ 잡아먹는 거시기허연. 경일이라, 저 복날이라고 헤 가지고서 특별한 음식은 엿날은 엇엇고. 그 제주도에는 엇어도 육지에는 복날이라고 헤서 ᄃᆞᆨ을 잡아먹거나 개를 잡아먹거나 허연. 그 몸보신을 허고 거시기헤야 더위를 이길 수 잇다고 헤 가지고서 먹엇는데. 그 ᄃᆞᆨ이 우리 촌에도 조끔 살이가 풍부헌 사름, 또 비야기를 일찍 깨와진 사름은 그 초복에도 ᄃᆞᆨ 잡아먹자 허연 잡아먹엇는디. 그런 집은 멧 집 안 뒈고, ᄒᆞᆫ 부락에서 ᄒᆞᆫ두 집에 불과허고.

보통 이 촌에서 ᄃᆞᆨ 잡아먹는 건, 유월 스무날 ᄃᆞᆨ 잡아먹엇는디. 그 보통 그 이른 ᄃᆞᆨ이라야 일르게 깨운 그 영계 ᄃᆞᆨ이라야 먹을 만허지, 이월 삼월덜 ᄁᆞ지라도 그 비에기를 안 깨우지 아녕 깨웁니다. 겐디 정월ᄃᆞᆯ에 깨운 것은 잡아먹을 만헤도 이월, 삼월덜에 깨운 건 잡아먹게끔 경 크질 못헙니다게.

652) 강대선 구술.

엿날은 무신거 ᄃᆞᆨ이 먹어볼 거라고 헤 가지고서, 참 사람 먹는, ᄎᆞᆷ 조라도 그냥 ᄒᆞ쏠 주곡. 보리라도 ᄒᆞ썰 그 곡식 그거 ᄒᆞ쏠 주지 아녀믄 ᄃᆞᆨ이 먹어 볼 게 엇입주. 어디 ᄎᆞᆷ 눌왓디 가근에 발로 근어근에 이녁 냥으로 게우리, 굼벙이 줏어 먹지 못헌덴 허연, 베랑 먹어 볼 게 엇이니까 촌에서 ᄃᆞᆨ 질루는 것도 그렇게 뭐 쉽지마는 안헌 일입니다.

또 ᄃᆞᆨ을 질룬덴 헤도 엿날은 소로기가 어떻게, 똥소로기 거 어떻게 많앗는지. 아이 그거 헤여근에 어른덜 너 오늘 어디 가지 말아근에 저 비에기 잘 보라이, 경 아녀믄 소로기 물어가 분다 헹. ᄎᆞᆷ ᄃᆞᆨ을 영 비에기 깨운 거 영 놔근에 질루당 영 허영 허민, ᄒᆞ쏠 독헌 ᄃᆞᆨ은 소레기가 ᄂᆞᆯ아오민 소로기신더레 대들젠 허당 보민 어느 틈에 소로기 ᄲᅡᆨ른 짐승이 뒈엇는가 확허게 물엉 ᄃᆞᆯ아 불어. 발로 채와근에. 경허곡 그 ᄃᆞᆨ이 조끔 어진 ᄃᆞᆨ이 그 새끼 지킴을 잘헌덴 허는디. 그 소로기나 무시거 와가민 영 훌러근에 확허게 ᄆᆞᆫ 새끼덜을 ᄂᆞᆯ개 트멍에 ᄆᆞᆫ 품어 버려. 경허민 소로기도 ᄃᆞᆨ은 뭐 싸우면 이길 수가 잇지마는. 발로 차서 ᄂᆞᆯ 수가 엇이니까, 그 힘이 약한 것이 비야기만 차가지 큰 ᄃᆞᆨ은 안 차갑니다게. 경헤서 그 질루는 데 애로가 엇지 아녀고. 옛날은 또 고양이는 벨로 엇지만 식, 족제비 이런 게 많아 가지고서 저 어디 ᄃᆞᆨ텅에나 이 보통 굴묵 우에 그 ᄃᆞᆨ 올려놓는 디 장 멩글아 근에 놩 놔두민 식이나 고양이, 저 족제비 ᄀᆞ뜬 건 그거 자꾸 들어서 물엉 가믄 싸움헐 때도 잇고. 이 촌에서는 그 삼복을 지세허지 아이허고 그 유월 스무날이엔 허민 ᄒᆞᆫ 중복 ᄉᆞ시에서 안팟 ᄉᆞ시 뒙니다게. 게곡 ᄃᆞᆨ이 그때 뒈어야 그 어린 병아리덜 먹을 만이 크고 그러니까 그 제주 풍속이 유월 스무날 ᄃᆞᆨ 잡아먹는 거를.[653]

653) 강상흥 구술.

커서 보니까 유월 스무날 닭 먹는 날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은 그저 이녁 집에서 길러서들 먹을 때니까. 그저 한 사람이 하나씩들 그저, 요새처럼 하나 사다가 몽땅 먹지 않고, 옛날엔 이녁 집에 기른 거니까 병아리들 그저 한 사람에 하나씩 잡아서, 그거 더위 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병아리 그거 한 석 달에서 넉 달 길러 가면 그저 아기들은 먹을 만합니다. 그 닭이 깔 한 되어 가면 달걀 낳으면 둥우리에 앉아서 내리려고를 안 해서 앉으려고만 합니다요. 이월에. 달걀 하나라도 낳으면 거기 앉아서 사뭇 내려질 않고 그저 까려고 그저 앉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하여 가면 달걀 여남은 개고 열댓 개고 해서 둥우리에 놔서 내버리면 닭이 내리질 않아서 그저 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내립니다. 그 바람 쏘이려고. 바람 쏘여 놔서 둥우리로 '어그라[654]' 올라요. 옛날엔 이녁 집에 기를 때니까 참 식구마다 잡아서 먹었습니다. 요새처럼 사질 않을 때니까. 요새들은 사다가 먹고 있습지요. '둑칩[655]'이 가서 삼계탕을 먹으나 닭을 그냥 먹으나.

초복에 그 유월절 넘어서 첫 경일이 그 초복입니다, 경일. 중복도 경일 넘어서 딱, 경일이라고 하면 그 육십갑자에서 앞의 자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십 일에 한 번 돌아옵니다요. 그 경일에 뭐 경인, 경진, 뭐 경오, 경술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십 일에 한 번 돌아오는데 두 번째 경일이 또 중복이에요. 또 세 번짼 말복이 경일은 맞는데 그 말복 되기 전에 이 '칠월절'[656]이 들어 버립니다요. '칠월절' 들어 버리면 이제 그 '칠월절' 넘어서 첫 경일 되어야 하니까. 한 중복과 말복 새 이십 일 간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은 이 농촌에서 참 아까 닭 잡아먹는 거시기해서. 경일이야, 저 복날이라고 헤 가지고서 특별한 음식은 옛날은 없었고. 그 제주도에는 없어도 육지에는 복날이라고 해서 닭을 잡아먹가나 개를 잡아먹거나 했어. 그 몸보신을 하고 거시기해야 더위

654) '어그라'는 '미루지 않고 곧'이라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어가라, 어ᄀᆞ라'라고도 한다.
655) '둑칩'은 닭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656) '칠월절'은 음력 칠월에 드는 절기인 입추를 말한다.

를 이길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먹었는데. 그 닭이 우리 촌에도 조끔 삶이 풍부한 사람, 또 병아리를 일찍 깬 사람은 그 초복에도 닭 잡아먹자 해서 잡아먹었는데. 그런 집은 몇 집 안 되고, 한 마을에서 한두 집에 불과하고.

보통 이 촌에서 닭 잡아먹는 건,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었는데. 그 보통 그 이른 닭이어야 이르게 깐 그 영계 닭이어야 먹을 만하지, 이월 삼월까지라도 그 병아리를 안 까지 않고 깝니다. 그런데 정월달에 깐 것은 잡아먹을 만해도 이월, 삼월에 깐 건 잡아먹게끔 그렇게 크질 못합니다요. 옛날은 무슨 닭이 먹어볼 거라고 해 가지고서, 참 사람 먹는, 참 조라도 그냥 조금 주고. 보리라도 조금 그 곡식 그거 조금 주지 않으면 닭이 먹어 볼 게 없습죠. 어디 참 '눌왓[657]'에 가서 발로 긁어서 이녁대로 지렁이, 굼벵이 주워 먹지 못한다고 해서, 별로 먹어 볼 게 없으니까 촌에서 닭 기르는 것도 그렇게 뭐 쉽지마는 않은 일입니다.

또 닭을 기른다고 해도 옛날은 솔개가 어떻게, 솔개 거 어떻게 많았는지. 아니 그거 해서 어른들 너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저 병아리 잘 봐라, 그렇게 않으면 솔개 물어가 버린다 해서. 참 닭을 이렇게 병아리 깐 거 이렇게 놔서 기르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독한 닭은 솔개가 날아오면 솔개한테 대들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틈에 솔개 빠른 짐승이 되었는가 확하게 물어서 달려 버려. 발로 채서. 그러고 그 닭이 조끔 어진 닭이 그 새끼 지키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 솔개나 무엇 와가면 이렇게 후려서 확하게 몽땅 새끼들을 날개 틈에 몽땅 품어 버려. 그러면 솔개도 닭은 뭐 싸우면 이길 수가 있지마는. 발로 채서 날 수가 없으니까, 그 힘이 약한 것이 병아리만 채 가지 큰 닭은 안 채 갑니다요. 그래서 그 기르는 데 애로가 없지 않았고. 옛날은 또 고양이는 별로 없지만 삵, 족제비 이런 게 많아 가지고서 저 어디 닭둥우리에나 이 보통 '굴묵[658]' 위에 그 닭 올려놓는데 장 만들어서 놔서 놔두면 삵이나 고양이, 저 족제비 같은 건 그거 자꾸 들어서 물고

657) '눌왓'은 꼴이나 곡식 따위를 가리어 놓는 곳을 말한다.
658)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가면 싸움할 때도 있고. 이 촌에서는 그 삼복을 지세하지 않고 그 유월 스무날이라고 하면 한 중복 사이에서 안팎 사이 됩니다요. 그러고 닭이 그때 되어야 그 어린 병아리들 먹을 만큼 크고 그러니까 그 제주 풍속이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거를.

3) 생업

(1) 조 불리기

조, 오월 보름에서 유월 보름 사이에, 유월들에 불르는 거. 유월절 전이만 불립니다. 씨 뿌려놩마씨. 섬비질헤영 내붑니다.[659] 조는 씨가 젠젠헌 거라서 이 밧을 갈아놩 씨 삐영 그냥 불립니다. 밧 갈아난 다음에 씨 뿌려근에 섬비질. 고지 헤여근에 ᄒᆞ끔 노픈 디도 잇고, 야픈 디도 잇는디 섬비질허면은 쪼끔 펜펜헤지고, 그 우이 두둘두둘헌 벙뎅이는 풀어질 거 아이우꽈? 섬비질로 더러 묻어지기도 허곡. 경 헹 섬비질허민 조금 골라지다시피 뒈고. 그다음엔 밧을 불립주. 밧을 불리는데 그게 큰 쉐들은 거의가 밧 갈레나와 불면은 뭐 암소덜이나 송아지덜 ᄀᆞ뜬 거 여러 개 잇는 사름은 쉽습니다마는. 그 송아지, 소, ᄆᆞᆯ 이런 걸 이용헤서 불르는디, 보통 두 개 세 개 연메여근에 그대로 불리는디, 경 헹 불르는디. 난 이 어릴 때 ᄒᆞᆫ 열ᄋᆞ덥 넘으니까 이 상산에 고지 소 놓기 시작허니까 그 소떼가, 경 테가 ᄒᆞᆫ 십여 마리, ᄒᆞᆫ 이십 마리 뒙니다게. ᄒᆞᆫ 그룹이 그걸 그렇게 몰아와 가지고서 그 경허민 그룹 안네 든 쉐들이 뭐 주인이 ᄒᆞᆫ 서너 사름 뒙니다. 서너 사름 뒈면은 그 서너 사름이 ᄆᆞᆫ 어울어서 어느 날은 누구네 밧, 어느 날은 누구네 밧 헤가지고서 놔서 불립니다게. 거 ᄒᆞᆫ 이십여 ᄆᆞ리 뒌 걸 전부 연멜 수도

659) 강대선 구술.

엇곡 놩 ᄇᆞᆯ리는 디도 그건 원처 사름이 거시기허지 아이허면은 그 ᄉᆞ방으로 영 놩 이꺼도 영 돌아오면 일로 도망가는 쉐 잇지 안허우꽈? 거난에 영 이끄면은 영 몰단 사름이 뒤에서 몰단 사름이 앞으로 와근에 영 막아. 경 허영 하면서 이 돌렷는디. 그걸 선쉐 이끄는 사름도 그 조끔 머리가 잇는 사름이라야 선쉘 이끄지, 아무나 이끄지 못허는 거고. ᄆᆞᆯ은 뭐 어릴 때 저의 집엔 엇엇고, 저으 당숙님은 ᄆᆞᆯ도 질루고 당숙님이 이 근방 산 앞에서는 거의 뭐 췌고가는 쉐테우리랏는디. 당숙님은 ᄆᆞᆯ도 길루고 타곡 ᄀᆞ르치곡 그렇게 헷습니다마는. 그 당숙 저가 욱아서 거시기헐 때는 ᄉᆞ삼사건 이후라서 당숙님 그땐 ᄆᆞᆯ ᄒᆞᆫ 필벳긴 메지 못헷습니다.[660]

조, 오월 보름에서 유월 보름 사이에, 유월에 밟는 거. 유월절 전에만 밟습니다. 씨 뿌려놔서요. 끙게질해서 내버립니다. 조는 씨가 자잘한 거여서, 이 밭을 갈아놔서 씨 뿌려서 그냥 밟습니다. 밭 갈았던 다음에 씨 뿌려서 끙게질. 이랑 해서 조금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는데 끙게질하면서 쪼끔 편평해지고, 그 위에 두둘두둘한 덩어리는 풀어질 거 아닙니까? 끙게질로 더러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끙게질하면 조금 골라지다시피 되고. 그다음엔 밭을 밟지요. 밭을 밟는데 그게 큰 소들은 거의가 밭 갈러 나와 버리면 뭐 암소들이나 송아지들 같은 거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쉽습니다마는. 그 송아지, 소, 말 이런 걸 이용해서 밟는데, 보통 두 개 세 개 '연매어서' 그대로 밟는데, 그렇게 해서 밟는데. 난 이 어릴 때 한 열여덟 넘으니까 이 '상산'[661]에 숲에 소 놓기 시작하니까 그 소떼가, 그렇게 떼가 한 십여 마리, 한 이십 마리 됩니다. 한 그룹이 그걸 그렇게 몰아와 가지고서 그 그러면 그룹 안에 든 소들이 뭐 주인이 한 서너 사람 됩니다. 서너 사람 되면 그 서너 사람이 몽땅 어울러서 어느 날은 누구네 밭, 어느

660) 강상흥 구술.
661) '상산'은 하원동에서 한라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날은 누구네 밭 해가지고서 놔서 밟습니다요. 거 한 이십여 마리 된 걸 전부 '연맬' 수도 없고 놔서 밟는 데도 그건 원체 사람이 거시기하지 아니하면 그 사방으로 이렇게 놔서 이끌어도 이렇게 돌아오면 이리로 도망가는 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몰던 사람이 뒤에서 몰던 사람이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막아.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 돌렸는데. 그걸 '선쉐[662]' 이끄는 사람도 그 조끔 머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선쉐'를 이끌지, 아무나 이끌지 못하는 거고. 말은 뭐 어릴 때 저의 집엔 없었고, 저의 당숙님은 말도 기르고 당숙님이 이 근방 산 앞에서는 거의 뭐 최고 가는 소목동이었는데. 당숙님은 말도 기르고 타고 길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당숙 저가 커서 거시기할 때는 사삼사건 이후여서 당숙님 그땐 말 한 필밖엔 매지 못했습니다.

• 좁씨 삐기

그 씨망테, 멜망테라고 헨에 그 망테 ᄌᆞᆯ아근에 좁씰 그레 놔근에 거기에서 그 찰리 놓는 사름은 찰리 소곱에 씰 담읍니다게. 좁씨는 ᄌᆞᆷ진 거니까 그 구덕이나 무신거 허믄 세어 불어. 안 뒈니까 그 망테 속에도 자루나 헤서 담아서 영 메어서 그걸 영 헤영 손더레 말앙 뿌리는데 이게 췌고 열두 번 데끼는 사름이 췌고 잘 데끼는 사람이라. 보믄 잘 데끼는 사름은 요걸 요요 손으로 영 헤영 딱 젭아근에 영 손트멍으로만 나가게. 요 트멍으로 영 영 널리 데껴야 허곡. 그거 이거 손을 크게 탁 터 불면은 ᄒᆞᆫ번에 많이 나와 불민 멧 번 아녀근에 두세 번 뿌려 불민 손에 줸 게 없어. 겨난에 요게 손으로 조정허면서, 이거 손이 ᄒᆞ끔씩만 헤야 여라 번 뿌려질 거 아이우꽈. 경 헤야 골로로 가고. (그 다음에) 섬비질헤영 ᄇᆞᆯ령.[663]

662) '선쉐'는 조를 밟을 때 앞장서는 소를 말한다.
663) 강상흥 구술.

그 '씨망테[664], '멜망테[665]'라고 해서 그 망태기 결어서 좁씰 그리로 놔서 거기에서 그 자루 놓는 사람은 자루 속에 씰 담습니다요. 좁씨는 잔 거니까 그 바구니나 무엇 하면 새어 버려. 안 되니까 그 망태기 속에도 자루나 해서 담아서 이렇게 매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말고 뿌리는데 이게 최고 열두 번 던지는 사람이 최고 잘 던지는 사람이야. 보면 잘 던지는 사람은 요걸 요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손샅으로만 나가게. 요 틈으로 이렇게 이렇게 널리 던져야 하고. 그거 이거 손을 크게 탁 터 버리면 한번에 많이 나와 버리면 몇 번 않고 두세 번 뿌려 버리면 손에 쥔 게 없어. 그러니까 요게 손으로 조정하면서, 이거 손이 조금씩만 해야 여러 번 뿌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골고루 가고. (그 다음에) 끙게질해서 밟아서.

• 밧 ᄇᆞᆯ리는 소리

밧 ᄇᆞᆯ리는 소리가 그냥 쉐 모는 소리 비슷헤도 ᄒᆞ끔 차이가 잇습니다. 어려어려어 어러러러러러 어러러러어어 어러어러어러러러 이 쉐 저 쉐 닮은 쉐, 어드레 돌아감이니 이이이이 뱅뱅 졸바로 돌아가사 ᄒᆞᆯ 거 아니냐. 어러러러러러러러러 어러허어허. ᄆᆞᆯ이나 쉐나 ᄇᆞᆯ리는 소린 ᄀᆞ뜹니다. 나 그거 전문가 아니우꽈?[666]

밭 밟는 소리가 그냥 소 모는 소리 비슷해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어려어 어러러러러러 어러러러어어 어러어러어러러러 이 소 저 소 닮은 소,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이이이 뱅뱅 제대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 어러러러러러러러러 어러허어허. 말이나 소나 밟는 소린 같습니다. 나 그거 전문가 아닙니까?

664) '씨망테'는 씨앗을 넣는 망태기를 말한다.
665) '멜망테'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망태기를 말한다.
666) 강상흥 구술.

□ 7월

1) 칠월 칠석

칠월 칠석에 저 칠석 뒈민 기자 절간에나 강 거세기허고, 칠석엔 집이서 기자 ᄒᆞ끔 기도나 허곡. 북두칠성이라고 기자 집이서 북두칠성이엔 벨 보곡, 절간에 강 기자 기도허곡 그 정도로벳긴 아니 헤봣수다.[667]

칠석이라는 그 절간에, 춤 절에 그 불교를 믿는 사름덜은 칠석을 상당이 크게 생각헤 가지고 그 불공도 드리곡 거시기허는데. 우리가 옛날부떠 그 전헤온 말은 칠석 때에는 견우직녀가 그 은하수 동쪽, 서쪽에서 잇다가 건너간다고. 은하술 물을 건너젠 허믄 ᄃᆞ리가 안 노면은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 서로 사랑허는 여인찌리 그 어떻게 옥황상제가 노헷던지 서로 갈라놔 버리니까. 그걸 그 사름덜을 만나기 위헤 가지고서 견우나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헤 가지고서 뭐 칠석날 저녁에 가마귀덜이 하늘로 올라가서 서로서로 머리를 물고 ᄃᆞ리를 놔서 이 견우직녀가 서로 만낫다고 허는데. 뭐 그거는 어느 전설에 불과하고. 어쨋든 칠석이 넘으면은 가마귀 뒷다망이 머리가 벗어지는 건 ᄉᆞ실이라마씀. 게난 이건 뭐 그 거시기헌 디 기회적으로 이 동물덜이 털갈이헐 시기가 뒈어 가지고서 털이 벗는 거지, 거는.[668]

칠월 칠석에 저 칠석 되면 그저 절에나 가서 거시기하고, 칠석엔 집에서 그저 조금 기도나 하고. 북두칠성이라고 그저 집에서 북두칠성이라고 별 보고, 절에 가서 그저

667) 강대선 구술.
668) 강상흥 구술.

기도하고 그 정도로밖엔 아니 해봤습니다.

칠석이라는 그 절간에, 참 절에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칠석을 상당히 크게 생각해 가지고 그 불공도 드리고 거시기하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 전해온 말은 칠석 때에는 견우직녀가 그 은하수 동쪽, 서쪽에서 있다가 건너간다고. 은하술 물을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안 놓으면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여인끼리 그 어떻게 옥황상제가 노했던지 서로 갈라놔 버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서 견우나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해 가지고서 뭐 칠석날 저녁에 까마귀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서로 서로 머리를 물고 다리를 놔서 이 견우직녀가 서로 만났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어느 전설에 불과하고. 어쨌든 칠석이 넘으면 까마귀 뒷대가리 머리가 벗겨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거시기하는 데 기회적으로 이 동물들이 털갈이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서 털이 벗는 거지, 거는.

2) 백중제

백중제는 이 밑에 논덜 얼마니 ᄀᆞ진 분덜, 이 밧도 이 좋은 밧덜 ᄀᆞ진 분덜, 지금 말허믄 부잡주. 부자덜은 이 논에 가가지고서 ᄂᆞ릇 ᄎᆞᆷ ᄇᆞ름 불지 말곡 잠깐 쉬게 헤 달라고 헤영, 그 저 곡식 잘 여물아주곡 하라고 백중제, 뭐 벨다르게 미신 ᄎᆞᆯ리는 거 엇곡. 고기나 굽곡 그자 밥허영 가근에 논에 강 그자 케우리곡, 거시기헤영. 또 저는 뭐 해벤 사름 아이난 잘 몰르겟습다마는 어민덜은 또 배에 가서 헌다고도 헙디다. 나는 이 쉐테우리난 젊은 때에 상산에 뭐 저 한라산 끗ᄁᆡ지 가서 놓는 쉐테우리 백중제라 헤가지고서 그 같이 뎅이는 그룹덜끼리 그날은 뭐 ᄎᆞᆷ, 쉐 보레 백중날 그거 정이나. 그날 올라갈 때 ᄊᆞᆯ, 백미, 흰ᄊᆞᆯ ᄀᆞ꾸곡 뭐 저 해어나 바당고기나 좀 허곡. 어디 뎅이다가 노루나 심어지민 거 노루 포육으로 헤가지고서

강 산에 가서 제를, 큰돌이나 뭐 큰나무 밑에 가서 올려서 그 제 그자 올렷다근에. 뭐 향가지도 ᄀᆞ정 가근에 피우는 사름도 잇고, 것도 못 피웡은에 그 한라산 굽헨 줄상나무라고 향나무도 꿰 잇습니다. 거기에 저 죽은 가지 멧 개 꺼꺼다근에 불살롸 그거 허영 피우는 사름도 없지 아녕 잇곡. 헤서 올렷다가 거 ᄂᆞ리와근에 그자 그 고기도 굽곡, 밥도 먹곡 헹. 테우리코ᄉᆞ옌 헤여근에 허는 건, 거 올리는 날 허는 거고. 이건 백중제로.669)

백중제는 이 밑에 논들 얼마만큼 가진 분들, 이 밭도 이 좋은 밭들 가진 분들, 지금 말하면 부잡지요. 부자들은 이 논에 가가지고서 'ᄂᆞ릇' 참 바람 불지 말고 잠깐 쉬게 해 달라고 해서, 그 저 곡식 잘 여물게 해주고 하라고 백중제 뭐 별다르게 무슨 차리는 거 없고. 고기나 굽고 그저 밥해서 가서 논에 가서 그저 고수레하고, 거시기해서. 또 저는 뭐 해변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은 또 배에 가서 한다고도 합디다. 나는 이 '쉐테우리'니까 젊은 때에 '상산'에 뭐 저 한라산 끝까지 가서 놓는 '쉐테우리 백중제'670)라 해서 그 같이 다니는 그룹들끼리 그날은 뭐 참, 소 보러 백중날 그거 져서. 그날 올라갈 때 쌀, 백미, 흰쌀 준비하고 뭐 저 해어나 바닷고기나 좀 하곡. 어디 다니다가 노루나 잡히면 거 노루 포육으로 해가지고서 가서 산에 가서 제를, 큰 돌이나 뭐 큰 나무 밑에 가서 올려서 그 제 그저 올렸다가. 뭐 향도 갖고 가서 피우는 사람도 있고, 것도 못 피워서 그 한라산 밑에서 누운향나무라고 향나무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 저 죽은 가지 몇 개 꺾어다가 불살라서 그거 해서 피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올렸다가 거 내려서 그저 그 고기도 굽고, 밥도 먹고 해서. '테우리코ᄉᆞ'671)라고 해서 하는 건, 거 올리는 날 하는 거고. 이건 백중제로.

669) 강상흥 구술.
670) '쉐테우리 백중제'는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소를 돌보는, '쉐테우리'들이 소의 건강과 번식 등을 기원하면서 지내는 제의를 말한다.
671) '테우리코ᄉᆞ'는 하원동에서 소를 한라산에 올릴 때 지내는 제의를 말한다.

• **테우리코사**

테우리코ᄉᆞ는 쉐 올리기 전에, 저가 거시기헤 보니까 그 쉐 올리기 전에 약 ᄉᆞ월달 정도 뒈야 그 쉘 올려난디. 음력 사월예. 삼월 그물어 가민 어느 날 지정헤 가지고서, 인일이나 신일, 그 날 택헤 가지고서 낙인을 지집니다. 자기 소 낙인 지지고 이표허곡. 그날에 그자 낙인 지지고 이표허는 날, 거 테우리코사라 헤 가지고. 이표는 이제ᄎᆞ룩 그 뭐 번호를 찍는 게 아니고, 귀 뭐 그냥 끈어 불기도 허곡, 영 파지게끔 알우트레 채기도 허곡. 옆으로 영영 자기만씩 그 표시를 허는 거라마씀.[672]

'테우리코ᄉᆞ'는 소 올리기 전에, 저가 거시기해 보니까 그 소 올리기 전에 약 사월 정도 돼야 그 솔 올렸었는데. 음력 사월요. 삼월 저물어 가면 어느 날 지정해 가지고서, 인일이나 신일, 그 날 택해 가지고서 낙인을 지집니다. 자기 소 낙인 지지고 이표하고. 그날에 그저 낙인 지지고 이표하는 날, 거 '테우리코사'라 해 가지고. 이표는 이제처럼 그 뭐 번호를 찍는 게 아니고, 귀 뭐 그냥 끊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파지게끔 아래위로 째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만큼씩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 **낙인**

겨곡 낙인은 그게 매 집에 없는 거고. 그 우리 부락에도 낙인 주로 거시기 헤근에 그 집안마다 쪼끔 쉐를 많이 질루는 집안은 낙인, 개인에게 찾아가근에. 저가 같이 갈 때는 저의 오춘 당숙님의 낙인 점 복 제. 영 딱 긋어 가지고 점 딱 찍은 거게, 점 복 자고. 이 경주 김칩에는 새 을 자, 이 하원도 원 씨가 잇습니다. 그 으뜸 원 자. 또 이 김해 김씨, 아니 김해 김씨가 아니고 광산 김씨 그들은 베염 사 자, 이제 다 그 집에 낙인덜 그렇게 지지

672) 강상흥 구술.

고. 또 낙인이 그 집안마다 없어가지고서 동넷분덜 와근에 어디 쉐 상산에 ᄀᆞ찌 놓구젠 허면은 와근에 그 낙인 찍을 때 쉐 ᄀᆞ찌 눌뜸도 허곡 심음도 허고게. 낙인 집이 없으면게 거기 ᄯᅳᆫ 분이 왕 낙인 질를 때는 오른쪽 잠지에 안 지져 불고 웬쪽 잠지에 지집니다. 그 ᄀᆞ뜬 낙인 ᄀᆞ뜬 짝에 찍혀 불민 그게 거시기헹 그레 비슷헌 때는 싸울 여지가 잇어마씀. 그래서 ᄯᅳᆫ 짝에 지져주고. 귀도 ᄀᆞ뜬 낙인을 찍어서도 우리 삼춘 조케도 영 헤근에 ᄒᆞᆫ 짝은 영 파지게 허곡 ᄒᆞᆫ 짝은 영 가운딜로 쨋는디. 우리 오춘은 정가운딜로 ᄒᆞᄉᆞᆯ째곡, 나는 조끔 밋틀로 째고게. ᄀᆞ뜬 표시라도 조금 그게 서로 그 거시기 ᄃᆞ툼으 여지가 없이 거시기 표시허기 위헤서 그런 겁니다.[673]

그러고 낙인은 그게 매 집에 없는 거고. 그 우리 마을에도 낙인 주로 거시기해서 그 집안마다 쪼끔 소를 많이 기르는 집안은 낙인, 개인에게 찾아가서. 저가 같이 갈 때는 저의 오촌 당숙님의 낙인 점 복 자. 이렇게 딱 그어 가지고 점 딱 찍은 거, 점 복 자고. 이 경주 김씨 댁에는 새 을 자, 이 하원도 원 씨가 있습니다. 그 으뜸 원 자. 또 이 김해 김씨, 아니 김해 김씨가 아니고 광산 김씨 그들은 뱀 사 자, 이제 다 그 집에 낙인들 그렇게 지지고. 또 낙인이 그 집안마다 없어가지고서 동넷분들 와서 어디 소 상산에 같이 놓으려고 하면 와서 그 낙인 찍을 때 소 같이 누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낙인 집에 없으면 거기 딴 분이 와서 낙인 지를 때는 오른쪽 궁둥이에 안 지져 버리고 왼쪽 궁둥이에 지집니다. 그 같은 낙인 같은 짝에 찍혀 버리면 그게 거시기해서 그리로 비슷한 때는 싸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딴 쪽에 지져주고. 귀도 같은 낙인을 찍어서도 우리 삼촌 조카도 이렇게 해서 한 쪽은 이렇게 파이게 하고 한 쪽은 이렇게 가운데로 쨌는데. 우리 오촌은 정가운데로 조금 째고, 나는 조끔 밑으로 째고. 같은 표시라도 조금 그게 서로 그 거시기 다툼의 여지가 없이 거시기 표시하기

673) 강상흥 구술.

위해서 그런 겁니다.

3) 물맞이

게나마나 백중에 물맞는 겁주게. 칠월덜 나민 백중 뒈민 물맞는 거난. 저 물맞는 덴 헤도 ᄒᆞᆫ엇이 크게 주장허영 경 하영덜 이젠 안 감수다마는. 옛날엔 우리 아이 땐 ᄎᆞᆷ 물맞는 날 어느 때민 기자 물맞는 날 오겐 허여근에 기다려근에 물맞으레 강 ᄉᆞ뭇 저물앙 물맞앙은에. 물맞으레 가젠 ᄒᆞ민 ᄉᆞ뭇 모를ᄀᆞ루 허영 모믈돌레떡 멘들아 놓곡 사당대죽 비어 놓곡 허여근에 막 백중날을 기다령 물맞으레 뎅겨나십주게. 경허민 물맞으렌 털어지는 데 강은에 앚이민 ᄎᆞᆷ, 저 머리도 물맞곡 허민 머리 아픈 것도 좋곡 어떵 헌덴 허멍 그자 털어지는 물맞곡 헤낫수다마는. 이젠, 이젠 물맞으레 뎅기는 사름이 엇어마씸. 옛날은 물맞는 날 어느 때민 돌아오겐 허영 막 뎅겻수다.[674]

백중날허고 처서날, 그 일 년에 두 번은 그 물맞는 날이엔 헷는디. 백중이엔 헌 건 칠월 열나흘날. 음력예. 그건 딱 정헤진 날이고 처서는 들쑥날쑥헙니다게. 절기 칠월중 아닙니까게, 처서가. 이 아주머니 ᄀᆞᆫ다시피 우리 부락은 물맞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 ᄉᆞ방에 물은 하도 떨어지는 그 폭포가 없으니까. 폭포 없지 아녕 잇긴 잇습니다마는 마을에 저 오리수라고 목장에 뭐 이디서 ᄒᆞᆫ 이 키로 이상 올라가야 잇는디. 거기들은 먼 디 가지 실퍼근에 어디 그자 냇가에 가근에 그 시원헌 물 이신디 영 몸이나 ᄀᆞᆷ곡 허는 거시긴데. 이 보통 또 ᄂᆞᆷ이 부락 허는 디라도 아이덜 역불 ᄎᆞᆯ려근에, ᄎᆞᆷ 밥이라도 거 뭐 그 여름철 보리밥이 아이라 ᄎᆞᆷ 흰ᄊᆞᆯ로 밥이라도 헤영 싸주곡 그런 데는 없지 아녕 잇습니다.[675]

---

674) 강대선 구술.

물맞이민 더위도 간덴 허곡 허물도 아니 난덴 허영 강 막 물 털어지는 디 가근에 저 옷 앗앙 강 대가리에 써근에. 기냥은 너미 실려와마씨. 경허난 우터레 옷 더꺼근에, 털어지는 물 맞이민 아프고 경허난 그자 우터레 옷 쓰곡 허여근에 강 저물앙, 아침이 강 어둡도록 물맞아나수다게.[676]

그러나저러나 백중에 물맞는 겁지요. 칠월 되면 백중 되면 물맞는 거니까. 저 물맞는 덴 해도 그다지 크게 주장해서 그렇게 많이들 이젠 안 갑니다마는. 옛날엔 우리 아이 땐 참 물맞는 날 어느 때면 그저 물맞는 날 올까 해서 기다려서 물맞으러 가서 사뭇 저물어서 물맞아서. 물맞으러 가려고 하면 사뭇 메밀가루 해서 메밀도래떡 만들어 놓고 사탕수수 베어 놓고 해서 마구 백중날을 기다려서 물맞으러 다녔었지요. 그러면 물맞으러는 떨어지는 데 가서 앉으면 참, 저 머리도 물맞고 하면 머리 아픈 것도 좋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저 떨어지는 물맞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젠, 이젠 물맞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은 물맞는 날 어느 때면 돌아올까 해서 막 다녔었습니다.

백중날하고 처서날, 그 일 년에 두 번은 그 물맞는 날이라고 했는데. 백중이라고 한 건 칠월 열나흗날. 음력요. 그건 딱 정해진 날이고 처서는 들쑥날쑥합니다요. 절기 칠월 중 아닙니까요, 처서가. 이 아주머니 말하다시피 우리 마을은 물맞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 사방에 물은 많아도 떨어지는 그 폭포가 없으니까. 폭포 없지 않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저 '오리수'[677]라고 목장에 뭐 여기서 한 이 키로 이상 올라가야 있는데. 거기들은 먼 데 가기 싫어서 어디 그저 냇가에 가서 그 시원한 물 있는데 이렇게 몸이나 감고 하는 거시긴데. 이 보통 또 남의 마을 하는 데라도 아이들 일부러 차려서, 참 밥이라도 거 뭐 그 여름철 보리밥이 아니라 참 흰쌀로 밥이라도 해서 싸주고 그런 데는 없지 않고 있습니다.

675) 강상흥 구술.
676) 강대선 구술.
677) '오리수'는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물 이름이다.

물 맞으면 더위도 간다고 하고 부스럼도 아니 난다고 해서 가서 막 물 떨어지는데 가서 저 옷 갖고 가서 대가리에 써서. 그냥은 너무 시려요. 그렇게 하니까 위로 옷 덮어서, 떨어지는 물 맞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저 위로 옷 쓰고 해서 가서 저물도록, 아침에 가서 어둡도록 물 맞았었습니다.

4) 입추 · 처서

입추엔 허민 ᄀᆞ을이 온다는 말 아이우꽈게게. 입추란 게 칠월절을 얘기허는 건디, 그 입추에 대헤 가지고 절기채라 헤 가지고 크게 거시기헌 건 엇고 그 ᄉᆞ시 뒈민 그저 이 농촌에서 보리개역이나 헤영 그자 한걸히 어디 드릇 뎅길 때 개역이나 쌍 강 먹곡. 그런 형편벳긴 안 뒈수다. 처서는 아까 얘기허지 안헙디가? 처서날, 그 유월쯤 더위가 간다고, 물러간다고 헤영 처서라고 얘기허는데 그날 그자 그날 물맞는 날, 그날 물맞이곡 거시기허면은 더위가 가곡, 저 우리 이 산에 쉐 보레 많이 뎅기는 사름, 처서 고리에는 한라산에 시르미가 잘 익습니다게. 처서 고비 뒈면은 이따근에 쉐 안 질루는 사름도 역불 시르미 타렌 가마씀. 겡 시르미 타당 먹으민 여ᄌᆞ덜 뭐 냉병 좋곡, 더위가 가시게 허곡 좋다고 헤 가지고서 거 역불 시르미 타레도 갑니다.[678]

입추라고 하면 가을이 온다는 말 아닙니까요. 입추란 게 칠월절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입추에 대해 가지고 절기채(?)라 해 가지고 크게 거시기한 건 없고 그 즈음 되면 그저 이 농촌에서 보리미숫가루나 해서 그저 한가히 어디 들에 다닐 때 미숫가루나 싸고 가서 먹고. 그런 형편밖엔 안 됐습니다. 처서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서

678) 강상흥 구술.

날, 그 유월쯤 더위가 간다고, 물러간다고 해서 처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그저 물맞는 날, 그날 물맞고 거시기하면 더위가 가고, 저 우리 이 산에 소 보러 많이 다니는 사람, 처서 즈음에는 한라산에 시로미가 잘 익습니다. 처서 즈음 되면 이따금 소 안 기르는 사람도 부러 시로미 따러는 가요. 그래서 시로미 따다가 먹으면 여자들 뭐 냉병 좋고, 더위가 가시게 하고 좋다고 해 가지고서 거 부러 시로미 따러도 갑니다.

5) 생업

(1) 모멀팟

우리 부락에는 좀 중산간 부락이 뒈니까 모밀농사를 많이 헙니다. 모밀농사를 많이 허는디 시기는 언제냐, 보통 그 모멀 갈 때는 하여튼 처서 일주일 전 시기에 모멀을 노면은 처서에 굽 벌어지민 좋다. 모멀을 게민, 그 전에 유월절 끗나면 직시 그 조 ᄇᆞᆯ리는 농사가 끗나근에 헤지면은 우선 모멀팟을 강 번허는 거라마씀. 또 그렇잖여근에 새밧 직허는 사름은 봄이부떠 헙니다 마는. 겡 갈아근에 그걸 따시 그 모멀로 기곙이에 풀이나 뭣을 헤 가면은 그 모멀로 허면은 어지럽곡 풀젼에 잘 안 뒈니까 두 번, 두 번채 그 모멀팟을 가는데, 그 모멀 놓을 때나 그 모멀팟을 번헐 때는 췌고 더운 시기가 뒈어서 그 뭐 ᄎᆞᆷ ᄃᆞᆯ밤이도 밧 갈앗다고 허는데, 전 ᄃᆞᆯ밤이ᄁᆞ지는 안 가도. 모멀은 상강 후에 빕니다. 이 바로 걸름밧 허기 직전에 모믈 빕니다. 상강에 한창 엽니다. 게난 경 헤 가지고서 밧 가는 디도 상당히 그 더운 시기라. 것이 모멀 놓을 때도 그게 엿날은 비료가 엇엇이니까 집이 불치영.[679]

679) 강상흥 구술.

우리 마을에는 좀 중산간 마을이 되니까 메밀농사를 많이 합니다. 메밀농사를 많이 하는데 시기는 언제냐, 보통 그 메밀 갈 때는 하여튼 처서 일주일 전 시기에 메밀을 놓으면 처서에 굽 벌어지면 좋다. 메밀을 그러면, 그 전에 유월절 끝나면 즉시 그 조밟는 농사가 끝나서 하고 나면 우선 메밀밭을 가서 애벌갈이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서 띠밭 지키는 사람은 봄에부터 합니다마는. 그렇게 갈아서 그걸 다시 그 메밀로 기계에 풀이나 뭣을 해 가면 그 메밀로 하면은 어지럽고 '풀져서[680]' 잘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째 그 메밀밭을 가는데, 그 메밀 놓을 때나 그 메밀밭을 애벌갈이할 때는 최고 더운 시기가 되어서 그 뭐 참 달밤에도 밭 갈았다고 하는데, 전 달밤에까지는 안 가도. 메밀은 상강 후에 벱니다. 이 바로 '걸름밧' 하기 직전에 메밀 벱니다. 상강에 한창 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서 밭 가는 데도 상당히 그 더운 시기야. 것이 메밀 놓을 때도 그게 옛날은 비료가 없었으니까 집에 재랑.

□ 8월

1) 벌초

벌초 집안마다 다 틀립니다. 이 식구덜이 많은 디는 벌초허기도 아주 수월헷습니다마는 저희는 저 고조 이하에 뭐 저희 어린 때는 전 ᄉᆞ춘도 엇고 제일 ᄇᆞ딘 일가라고 허여도 오촌 당숙이 제일 ᄇᆞ뎟고. 육촌허고 저희 형님 잇엇습니다마는 거 군대 가버리고 허니까 벌초허기를 상당이 힘이 들엇습니다게. 벌초도 산이 ᄇᆞ딘 디 잇는 거는 궨찮습니다만 저 여기서 색달리 분이라고 허니까 돈오름 서쪽 그 내 고랑 지낭 멍골, 멍골허는디

680) '풀지다'는 잡초가 많이 나고 무성하다는 의미다.

그 곁이 우리 산이 잇엇습니다게. 이도밋오름이라고. 겡 거기 벌초 가젠 허민 삼춘 조케만 ᄒᆞ루 종일 역버리는 거라마씨게. 아침부떠 ᄉᆞ뭇 일찍이나 출림이나 헤지민 허주마는 경도 아녀곡. 뭐 ᄒᆞ쏠 늦게나 출리면은 그디 벌초허레 막 들어가면은 거의 ᄒᆞᆫ 열ᄒᆞᆫ 시는 넘어야 들어가. 거기서 벌초허영 오다근에 어디서 냇고랑챙에서 첨 정심밥 ᄒᆞᆫ 적 쌍 가근에 그자 그거 삼춘 조케가 갈라 먹어근에 와가민 거의가 뭐 해질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겡 산 쓰곡 저희 그 증조부님 거기 모셧는디 멍골. 거기 참수로 네 참이라고 이야기허고. 하원서 영실도 네 참이라고 헙니다. 그게 옛날 어룬덜 걸어보는 그 참수가 골르질 못헤여. 약 이 키로 정도가 ᄒᆞᆫ 참이라고 허는디. ᄒᆞᆫ 참 그걸 허면은 실질적으로 키로수를 재면은 영실 오 키로가 넘습니다. 이제 십 키로가 넘습니다.[681]

벌초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이 식구들이 많은 데는 벌초하기도 아주 수월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 고조 이하에 뭐 저희 어릴 때는 전 사촌도 없고 제일 가까운 일가라고 하여도 오촌 당숙이 제일 가까웠고. 육촌하고 저희 형님 있었습니다마는 거 군대 가버리고 하니까 벌초하기를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요. 벌초도 산이 가까운 데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저 여기서 '색달리' 분이라고 하니까 '돈오름' 서쪽 그 내 골짜기 지나서 '멍골'[682], '멍골'하는데 그 곁이 우리 산소가 있었습니다. '이도밋오름'이라고. 그래서 거기 벌초 가려고 하면 삼촌 조카만 하루종일 '역버리는'[683] 거예요. 아침부터 사뭇 일찍이나 차리기가 해지면 하지마는 그렇게도 않고. 뭐 조금 늦게나 차리면 거기 벌초하러 막 들어가면 거의 한 열한 시는 넘어야 들어가. 거기서 벌초해서 오다가 어디서 냇골짜기에서 참 점심밥 한 술 싸고 가서 그저 그거 삼촌 조카가 나눠 먹어서 와가면

681) 강상흥 구술.
682) '멍골'은 서귀포시 하원동의 지경 이름이다.
683) '역버리다'는 얼마 동안의 노동력을 허비하다는 의미다.

거의가 뭐 해질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그래서 산소 쓰고 저희 그 증조부님 거기 모셨는데 '멍골'. 거기 참수로 네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원서 '영실'도 네 참이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 어른들 걸어보는 그 참수가 고르질 못하여. 약 이 킬로 정도가 한 참이라고 하는데. 한 참 그걸 하면은 실질적으로 킬로수를 재면은 영실 오 킬로가 넘습니다. 이제 십 킬로가 넘습니다.

• 가족벌초, 모둠벌초

가족벌초는 우린 고조 이하에만 허고. 그 웃대에는 우리 일가가 많습니다. 오대, ᄉᆞ대. 그 우리 오대엔 거기는 숫자가 말헐 수 엇이 많습니다게. 모둠벌초엔 헌 건 우리 오대부떠 시작허영 협주. 오대부떠 허고. 오대 이상에 감산리 육대조가 모셔 있습니다마는 거기ᄁᆞ지만 허고. 그 웃대는 그 웃대 ᄌᆞ손덜이 ᄆᆞᆫ 가까이 사는 디서 벌초들을. 옛날은 전부 벌초허레 나뎅엿다고 헙니다마는 벌초허렌 안 뎅이고. 벌초헐 때에는 산담 어디 널어진 거 닿기나 허지. 뭐 벌초헐 때라고 그디 산담 저 거시기헤다근에 쌓지 안헙니다.

가족벌초는 우린 고조 이하에만 하고. 그 윗대에는 우리 일가가 많습니다. 오대, 사대. 그 우리 오대엔 거기는 숫자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요. '모둠벌초[684]'라고 한 건 우리 오대부터 시작해서 하지요. 오대부터 하고. 오대 이상에 감산리 육대조가 모셔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윗대는 그 윗대 자손들이 몽땅 가까이 사는 데서 벌초들을. 옛날은 전부 벌초하러 나다녔다고 합니다마는 벌초하러는 안 다니고. 벌초할 때에는 '산담'[685] 어디 무너진 거 쌓기나 하지. 뭐 벌초할 때라고 거기 '산담' 저 거시기 해다가 쌓지 않습니다.

684) '모둠벌초'는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벌초를 말한다.
685)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2) 팔월 멩질

옛날엔 벨다르게 경 곤란허곡 살기 궂인 때난에 경 ᄉᆞ뭇 문친떡이여 솔벤, 절벤이여 안 헨 기자 집이서 어느 정도 기자 간단허게시리 허엿주마는 요새덜은 살기 조난에 하간 침떡도 허고 솔벤, 절벤도 허곡. 요즘은 솔벤, 절벤 아녕 간단허게덜 허영, 기자 송펜 정도 허영 기자 거세기허고. 기자 침떡은 다 헙니다, 게나마나.[686]

옛날엔 별다르게 그렇게 곤란하고 살기 궂을 때니까 그렇게 사뭇 '문친떡'[687]이다 솔편, 절편이다 안 해서 그저 집에서 어느 정도 그저 간단하게끔 하였지만 요새들은 살기 좋으니까 온갖 시루떡도 하고 솔편, 절편도 하고. 요즘은 솔편, 절편 않고 간단하게들 하여서, 그저 송편 정도 하여서 그저 거시기하고. 그저 시루떡은 다 합니다, 그러나저러나.

• 문친떡

문친떡은 시리, 옛날엔 저 ᄀᆞ루 뽓아근에 이젠 클방 나난 헷주마는 옛날엔 집이서 허젠 허민 저 ᄀᆞ루 뽓아다근에 시리에 놔근에 반죽허영 시리에 놔근에 거시기허민 사름 들어오지도 못허게 허곡. 어디서 내 넘엉 들어오민 떡 선덴 허멍 저 부억 안터레 들어오도 못허게 허곡 허여근에 헷수다마는 이젠 기곗방에 강 허는 따문 대부분 그냥 떡 서는 여비가 엇입니다. 게난 옛날은 집이서만 허난에 떡이양, 시리에 허민 ᄒᆞᆫ착은 설곡 ᄒᆞᆫ착은 익엉. 저 ᄒᆞᆫ착은 시리가 서늘헤영 익질 안헙니다. 어떵 영 숭을 보민양 경허곡.

686) 강대선 구술.
687) '문친떡'은 쌀가루에 팥이나 고구마 등을 넣고 시루에 쪄낸 떡을 말한다.

경허민 시리 서늘헌 더레 푸는체도 허영 영 세우곡. 불이 골로로 아니 감산디 어떠난산디. 게난 이젠 기곙이에 남사루 떡 선 디가 엇어마씨. 기곙이에 덜 놩 허여 부난양. 옛날엔 솟디서 불 솜아근에 솟 우터레 시리 앚져근에 허여근에. 그 놈으 떡이 설젠 허민양, 시리마게 막은 것이 피식피식허멍 막 터지젠만 허멍양.[688]

나가 그거 ᄒᆞ쏠 ᄀᆞᆯ으쿠다. 옛날 잘사는 사름은 그 떡을 하영 허젠 허면은 그 쏠을 물 컷다근에 그거 물 빠주와근에 막 ᄆᆞᆯᄀᆞ레 가근에 그걸 둘러야 ᄀᆞ루가 뒙니다예. 경헌디 그 하영 허지 못허는 사름은 그걸 물 컷다근에 그걸 물 빠주와근에 전부 남뎅이로 이거 뎅일 져야 그걸 뿟아사 ᄀᆞ루가 뒈지 안헙니까. 겐 그 떡을 허는디 그 솟에다가 밑엔 물 놓곡 그 우이 시릴 앚져근에 그 시리 밑에 고망이 뽀롱뽀롱허영 그 짐으로 떡을 익게 허는데, 그 짐이 아래서 물 궤면은 그 열기가 ᄉᆞ방으로 ᄯᅳᆫ 딜로 가지 못허게 헤가믄 그 시리 둘레를 ᄆᆞᆫ 거시기 헤근에 그 불 속은 ᄆᆞᆫ 떡ᄀᆞ루로 딱 절롸서마씀. 절롸근에 그 불 솜앙 시리떡을 허는디, 그게 그거 뭐 어디 떡 칠 때 ᄯᅳᆫ 딧 사름 들어오믄 떡이 선다 어떵허는 이거는 거시기고 아메도, 게난에 이게 그 불이 쭉 골르게 올라가도 아니고 거시기가 허여 가지고 ᄒᆞᆫ짝더러 어디 그 열기만 쏠려 가지고 ᄒᆞᆫ착 설곡 ᄒᆞᆫ착 익는 거우다.[689] 옛날 할망덜은양 어디서 물 넘엉 온 사름 들어오질 못허게 헤수다. 불 솜녠 허멍.[690]

'문친떡'은 시루, 옛날엔 저 가루 빻아서 이젠 방앗간 나니까 했지만 옛날엔 집에서 하려고 하면 저 가루 빻아다가 시루에 놔서 반죽해서 시루에 놔야 거시기하면 사람 들어

688) 강대선 구술.
689) 강상흥 구술.
690) 강대선 구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서 내 넘고 들어오면 떡 선다고 하면서 저 부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여서 했습니다마는 이젠 방앗간에 가서 하는 때문 대부분 그냥 떡 서는 여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집에서만 하니까 떡이요, 시루에 하면 한쪽은 설고 한쪽은 익어서. 저 한쪽은 시루가 서늘해서 익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흉을 보면요 그러하고. 그러면 시루 서늘한 데로 키도 해서 이렇게 세우고. 불이 골고루 아니 가고 있는지 어때서인지. 그러니까 이젠 기계가 나기로 떡 선 데가 없습니다. 기계에들 놔서 해 버리니까요. 옛날엔 솥에서 불 때서 솥 위로 시루 안쳐서 하여서. 그 놈의 떡이 설려고 하면요, '시룻번' 막은 것이 피식피식하면서 막 터지려고만 하면서요.

내가 그거 조금 말하겠습니다. 옛날 잘사는 사람은 그 떡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 쌀을 물 담갔다가 그거 물 빼서 막 연자매 가서 그걸 둘러야 가루가 됩니다요. 그런데 그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물 담갔다가 그걸 물 빼서 전부 '남뎅이'[691]로 이거 덩어릴 찧어야 그걸 빻아야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떡을 하는데 그 솥에다가 밑엔 물 놓고 그 위에 시루를 안쳐서 그 시루 밑에 구멍이 뽀롱뽀롱해서 그 김으로 떡을 익게 하는데, 그 김이 아래서 물 끓으면 그 열기가 사방으로 딴 델로 가지 못하게 해가면 그 시루 둘레를 몽땅 거시기해서 그 불 속은 몽땅 떡가루로 딱 결렸어요. 결려서 그 불 때서 시루떡을 하는데, 그게 그거 뭐 어디 떡 찔 때 딴 데 사람 들어오면 떡이 선다 어떡하는 이거는 거시기고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그 불이 쭉 고르게 올라가지도 않고 거시기가 하여 가지고 한쪽으로 어디 그 열기만 쏠려 가지고 한쪽 설고 한쪽 익는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은요 어디서 물 넘고 온 사람 들어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불 땐다고 하면서.

- **멩질떡**

침떡 허영 올리고 잘 츨리는 사름은 솔벤, 절벤 허곡. 중궤, 약궤 허영

691) '남뎅이'는 나무의 대를 말한다. 제보자는 '방앗공이'를 '남뎅이'로 표현하였다.

인절미 허고.[692] 솔벤 절벤만 허고 은절미ᄀᆞᆫ장 허고 중궤, 약궤는 이 대소상 때나, 이 그런 때는 중궤, 약궤 헙니다.[693] 제사 때는 중궤, 약궤 아녀고 인절미 헙니다.[694]

시루떡 하여서 올리고 잘 차리는 사람은 솔편, 절편 하고. 중계, 약과 해서 '인절미'[695] 하고. 솔편, 절편만 하고 인절미까지 하고 중계, 약과는 이 대소상 때나, 이 그런 때는 중계, 약과 합니다. 제사 때는 중계, 약과 않고 인절미 합니다.

• 차례상

메. 국, 그 앞에 저 잔. 다시 그 앞쪽에는 적. 뭐 산적으로부떠 시작헤 가지고 해어ᄀᆞᆫ장. 묵ᄀᆞᆫ장 그디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는 저 탕수. 또 그 양옆으로 과일. 경 올려근에 그 앞에 향불 놓곡 헤근에.[696]

메. 국, 그 앞에 저 잔. 다시 그 앞쪽에는 적. 뭐 산적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어까지. 묵까지 거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는 저 '탕수'[697]. 또 그 양옆으로 과일. 그렇게 올려서 그 앞에 향불 놓고 해서.

• 달구경

팔월 멩질날 옛날 우리 아이 땐 달구경 헤낫수다. 보름달, 보름 뒈민.[698]

692) 강대선 구술.
693) 강상흥 구술.
694) 강대선 구술.
695) '인절미'는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찌거나 삶아서 만든 떡을 말한다. 달리 지역에 따라서는 '은절미'라고도 한다.
696) 강상흥 구술.
697) '탕수'는 제사상 등에 올리는 채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탕쉬', '메물' 등으로 부른다.

팔월 명질날 옛날 우리 아이 땐 달구경 했었습니다. 보름달, 보름 되면.

3) 백로

백로는, 팔월절이 백로 아니꽈게. 팔월절이 백로난 백로에 무신 기자 덕담이라도, 백로가 넘어가민 이젠 더위 한더위도 다 물러갓구나 허영 기자 팔월절이 넘으민 서늘헌 날이 하가는 거난 그자 그 정도만 아는 거주.[699]

백로는, '팔월절'[700]이 백로 아닙니까. '팔월절'이 백로니까 백로에 무슨 그저 덕담이라도, 백로가 넘어가면 이젠 더위 한더위도 다 물러갔구나 해서 그저 '팔월절'이 넘으면 서늘한 날이 많아가는 거니까 그저 그 정도만 아는 거지.

□ 9월

1) 상강

상강은 이 ᄀᆞ을 들어근에 ᄀᆞ을농사가 한창 여물어 갈 때를 얘기허는 건데 그때부떠 산에 그 얼음이 얼기 시작허고 거시기 추위가 온다고 헤 가지고 상강. 그 얼음이 언다고 허는 말인데. 그 엿날 조나 무신 게 조끔 뜨게 뒈어서 조끔 거시기헤근에 여름에 그 햇빗을 충분허게 맞지 못헤 가지고서 그 빨리 익게 뒈어 가면은 상강 ᄂᆞ려근에 여물이 안 뒌다 그런 말이

698) 강상흥 구술.
699) 강대선 구술.
700) '팔월절'은 음력 8월의 절기인 백로를 말한다.

잇엇고. 이 상강이엔 헌 게 보통 이 농ᄉᆞ가 헤 가지고서 막 여물 익어갈 그 시기를 얘기허는 겁니다. 콩이나 ᄑᆞᆺ, 이 녹두 ᄀᆞ뜬 게 그때 뒈어야 막 여물 시깁주게. 겡 그때 그 조끔 시기를 놓쳐서 조끔 뜨게 농사를 져 버리면은 상강 ᄂᆞ려 가지고서 헤변엔 그런 해가 없습니다마는 목장 농사는 필히 그 상강에 빨리 서리를 ᄂᆞ려 불면은 피해를 봐마씀. 그래서 상강 주로 거시기허고.[701]

상강은 이 가을 들어서 가을농사가 한창 여물어 갈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부터 산에 그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거시기 추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상강. 그 얼음이 언다고 하는 말인데. 그 옛날 조나 무엇이 조끔 뜨게 되어서 조끔 거시기해서 여름에 그 햇볕을 충분하게 맞지 못해 가지고서 그 빨리 익게 되어 가면은 상강 내려서 여물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고. 이 상강이라고 한 게 보통 이 농사가 해 가지고서 마구 여물 익어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콩이나 팥, 이 녹두 같은 게 그때 되어야 막 여물 시깁지요. 그래서 그때 그 조끔 시기를 놓쳐서 조끔 뜨게 농사를 지어 버리면 상강 내려 가지고서 해변엔 그런 해가 없습니다마는 목장 농사는 필히 그 상강에 빨리 서리를 내려 버리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상강 주로 거시기하고.

□ 10월

1) 입동 · 소설

입동이민 겨울 온덴 헌 말. 입동 뒈민 보리ᄀᆞ슬 거시기가 거의 헤 들이는

701) 강상흥 구술.

시기가 뒐 거우다. 소설 그 눈이 조끔 오기 시작헌다고 허는 것이. 그때 뒈면은 소설 뒈 가면은 걸름밧덜 시작허기 쉬울 거우다. 보리 갈 시기.[702]

입동이면 겨울 온다고 한 말. 입동 되면 보리 수확 거시기가 거의 해 들이는 시기가 될 겁니다. 소설 그 눈이 조끔 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되면 소설 돼 가면은 '걸름밧'[703]들 시작하기 쉬울 겁니다. 보리 갈 시기.

2) 생업

(1) 장 담그기

장 담그는 거, 게나마나 장 ᄃᆞᆷ는 건 시월에서 동짓ᄃᆞᆯ 사이에 담읍니다. 시월에 일 ᄎᆞᆯ리는 사름은 시월덜에 담아근에.[704]

장 담그는 거, 그러나저러나 장 담그는 건 시월에서 동짓달 사이에 담급니다. 시월에 일 차리는 사람은 시월에 담가서.

- **메주**

메주 집이 콩 엇이민 콩 사다근에 오늘 강 콩 사오민 이젠양 물 ᄃᆞᆼ갓다근에 내일 ᄉᆞᆲ을 거민 그것도 저 ᄉᆞᆷ는 날 영 ᄒᆞ끔 날 봐근에 짝수 맞은 날

---

702) 강상흥 구술.
703) '걸름밧'은 거름을 깔아서 농사를 짓는 밭을 말한다. 예전에 비료가 없을 때 보리를 갈 때면 돼지거름에 보리씨를 섞어서 갈았다. 그래서 보리농사를 하는 밭을 '걸름밧'이라고 하는 것이다.
704) 강대선 구술.

허여근에, 저 내일 ᄉᆞᆷ젠 허민 이 지냑 물 컷다근에 ᄉᆞᆲ아근에 옛날엔 클방에 도 간 거시기헤수다마는 이젠 저 마다리에 담아근에 기냥 발로 ᄇᆞᆯ라도 콩만 잘 ᄉᆞᆲ으민 발로 ᄇᆞᆯ라도 뒙니다. 버선 신엉 기자 고웁게, 고운 신 신어근에 발로 마다리 헤영 무시거 더꺼근에 문짝허게 ᄇᆞᆯ라근에 그걸 저 보리쏠이라도 영 고삭 ᄒᆞ끔 놓곡 허여근에 ᄇᆞᆯ라근에 재기 쒜어근에 ᄯᅳ시 그거 메주 만들아근에 ᄒᆞᆫ ᄃᆞᆯ 만이 ᄯᅳ시 메주가 터근에 ᄆᆞᆯ르민.

장 ᄉᆞᆷ는 날은 ᄒᆞ끔 저, 메주 만들아근에 ᄒᆞ끔 ᄃᆞᆺ은 디, 너미 ᄯᅳᆺ은 디 놔 두민 지르터 불곡양. 옛날엔 저 미깡 하꼬에 놔근에 무신 콩남뎅이고 조남뎅이고 허영, 영 ᄒᆞᆫ 줄 놔놩은에 영 물 ᄲᆞᆯ아먹으렌 검질 ᄒᆞ끔 놩 새 헤여근에 난 메줄 틔왓수다. 경 허주마는 이젠 그런 검질도 엇곡 허난 그자 ᄒᆞ끔 ᄯᅳ뚯헌 디, 너미 추운 디 말앙 방에 영 마다리 허여근에 기냥 영 널엉 내 비어도 트민 뒈고게. 아니민 찍으로 영 여꺼근에 영 영 ᄒᆞᆫ 줄씩 영 영 놔근에 새새 부뜨지 말렌 영 찍 두어 개 놩 ᄯᅳ시 새에 찍 ᄒᆞ끔 뱅뱅허영 영 놓곡 걷엉 틔와근에 허곡. 옛날엔 찍 신 땐 경 해수다마는 이젠 찍 엇이난양, 기냥 아래서 틔와도 뒙니다. 메주 틔우는 것이 ᄒᆞᆫ 덜 경 허여근에.[705]

메주 집에 콩 없으면 콩 사다가 오늘 가서 콩 사오면 이젠요 물 담갔다가 내일 삶을 거면 그것도 저 삶는 날 이렇게 조끔 날 봐서 짝수 맞은 날 해서, 저 내일 삶으려고 하면 이 저녁 물 담갔다가 삶아서 옛날엔 방앗간에도 가서 거시기했습니다만 이젠 저 마대에 담아서 그냥 발로 밟아도 콩만 잘 삶으면 발로 밟아도 됩니다. 버선 신고 그저 곱게, 고운 신 신어서 발로 마대 해서 무엇 덮어서 푹하게 밟아서 그걸 저 보리쌀이라도 이렇게 '고삭(?)' 조끔 놓고 하여서 밟아서 재우 쥐어서 다시 그거 메주 만들어서 한 달 만에 다시 메주가 떠서 마르면.

705) 강대선 구술.

장 삶는 날은 조끔 저, 메주 만들어서 조끔 다순 데, 너무 다순 데 놔 두면 '지르터'[706] 버리고요. 옛날엔 저 귤 상자에 놔서 무슨 콩대고 조짚이고 해서, 이렇게 한 줄 놔서 이렇게 물 빨아먹으라고 검불 조금 놔서 띠 해서 난 메줄 띄웠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젠 그런 검불도 없고 하니까 그저 조끔 따뜻한 데, 너무 추운 데 말고 방에 이렇게 마대 해서 그냥 이렇게 널어서 내 버려도 뜨면 되고. 아니면 짚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이렇게 놔서 새새 붙지 말라고 이렇게 짚 두어 개 놔서 다시 띠에 짚 조끔 뱅뱅하여서 이렇게 놓고 걷어서 띄워서 하고. 옛날엔 짚 있을 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젠 짚 없으니까요, 그냥 아래서 띄워도 됩니다. 메주 띄우는 것이 한 달 그렇게 하여서.

• 장 담기

콩 ᄒᆞᆫ 말 ᄉᆞᆷ으민, 물은 옛날은 허벅으로 물 질 때난 두 허벅쯤 놧수다. 두 허벅쯤 놔근에 저 허민 소금은 ᄯᅳ시 저 ᄒᆞᆫ 허벅이민 두 뒈. 날 봐근에 저 이녁 헤치 엇곡, 이녁 본명일 아니고, 거시기헌 날로, 좋은 날로 담아근에 허민. 소금은 물 ᄒᆞᆫ 허벅이민 옛날엔 저 두 뒈 놔수다, 두 뒈. 저 물 ᄒᆞᆫ 허벅이민양 두 뒈 놔근에 허여근에 허민, 영 허영 노민 저 먹어봐도 알아지곡 계란을 틔우민양 계란이 백 원짜리 동전만이 영 허여근에 트민 장이 ᄒᆞ끔 ᄀᆞᆫ 맞아마씨. 싱거우민 ᄀᆞᆯ라앚아 불곡, 저 차민 트는 거난에 영 백 원짜리 동전만이 것이 영 ᄒᆞ민 이거 ᄀᆞᆫ 맞앗구나 허여근에 그자 계랄 틔와 봐도 알고. 따시 매해에 허는 사름은 짐작허민 어느 정도 다 알아집니다게.

옛날엔 장 ᄃᆞᆷ젠 허민 그 장에 반치지도 허여 놓곡 ᄂᆞᆷ삐지도, ᄂᆞᆷ삐도 놓곡, ᄆᆞᆯ망도 허여근에 장에 허민 그걸 반찬 엇인 땐 반치지도 먹곡, ᄆᆞᆷ치도 먹곡, ᄂᆞᆷ삐도 먹곡 허주마는 그런 거 하영 지 허여가민 장이 맛엇넨 허멍

706) '지르트다'는 메주 따위가 너무 많이 뜨다는 말이다.

이젠 아무 것도 안 놩 장만 헙니다. 경헤사 장이 맛 좋넨 허멍. 장 ᄃᆞᆷ아근에 그 장을 ᄒᆞᆫ ᄃᆞᆯ 살아가민, 장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경허민 장 ᄃᆞᆷ앙 ᄃᆞᆯ 뒈엉 그 ᄒᆞᆫ ᄃᆞᆯ 담근 날 ᄃᆞᆯ 뒈어가민, 장이 가망케 익으민 ᄯᅳ시 그 장을 장은 장, 장물은 장물대로 거리곡 뒌장은 뒌장대로 여기 영 놧당, 뒌장은 뒌장쿡, ᄂᆞᄆᆞᆯ쿡 허영 끓영 먹곡, 장물은 궤기 봐진 때 궤기국 끓영 먹고.[707]

콩 한 말 삶으면, 물은 옛날은 허벅으로 물 길 때니까 두 허벅쯤 놨습니다. 두 허벅쯤 놔서 저 하면 소금은 다시 저 한 허벅이면 두 되. 날 봐서 저 이녁 띠 없고, 이녁 '본명일' 아니고, 거시기한 날로, 좋은 날로 담가서 하면. 소금은 물 한 허벅이면 옛날엔 저 두 되 놨었습니다, 두 되. 저 물 한 허벅이면요 두 되 놔서 하여서 하면, 이렇게 해서 넣으면 저 먹어봐도 알 수 있고 계란을 띄우면요 계란이 백 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하여서 뜨면 장이 조끔 간 맞아요. 싱거우면 가라앉아 버리고, 저 짜면 뜨는 거니까 이렇게 백 원짜리 동전만큼 것이 이렇게 하면 이거 간 맞았구나 하여서 그저 계란 띄워 봐도 알고. 다시 매해에 하는 사람은 짐작하면 어느 정도 다 알아집니다요.

옛날엔 장 담그려고 하면 그 장에 파초장아찌도 하여 놓고 무장아찌도, 무도 놓고, 모자반도 하여서 장에 하면 그걸 반찬 없을 땐 파초장아찌도 먹고, 모자반장아찌치도 먹고, 무도 먹곡 하지만 그런 거 많이 장아찌 해가면 장이 맛없다고 하면서 이젠 아무 것도 안 놔서 장만 합니다. 그래야 장이 맛 좋다고 하면서. 장 담가서 그 장을 한 달 살아가면, 장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장 담가서 달 되어서 그 한 달 담근 날 달 되어 가면, 장이 가맣게 익으면 다시 그 장을 장은 장, 간장은 간장대로 뜨고 된장은 된장대로 여기 이렇게 놨다가, 된장은 된장국, 배춧국 하여서 끓여서 먹고, 간장은 고기 보일 때 고깃국 끓여서 먹고.

707) 강대선 구술.

□ 11월

1) 동지

• 풋죽

동짓날은 옛날부떠 풋죽을 쒕 먹으렌. 절간에도 가민 동짓날은 풋죽을 쒕 먹곡. 집이서도 ᄒᆞ끔 살이 허영 살아지는 사름은 이녁 집이 풋도 허곡 거시기헐 때난에 그자 풋죽이 어렵지 아녀신디 요즘덜 답지 아년 옛날엔 풋덜을 집이서 허난양. 경 허주마는 요즘은 풋죽이 옛날만이 저 쑤질 아니 허여마씨. 풋덜을 아니 먹으난.

게난 장에나 강 춤 수입 들어오는 풋 사근에 먹으민 허여도 이젠 풋이 어려와근에 풋죽을 못 쒀 먹어마씸. 게난 옛날은 집이서 동지날은 풋죽 쒀근에 그 해에 감기 오지 말렌 풋죽 쒀근에 올레레도 케우리곡 허여근에 저 먹어낫수다마는. 그 동짓날은 풋죽 쒕 먹는 건 그자 저슬 무사히 감기 허지 말앙 기자 무사히 지내 ᄃᆞ렌 동짓날에 풋죽을 쒀 먹는 거 닮읍디다.[708]

동짓날은 옛날부터 팥죽을 쒀서 먹으라고. 절에도 가면 동짓날은 팥죽을 쒀서 먹고. 집에서도 조끔 '살이' 해서 살아지는 사람은 이녁 집에 팥도 하고 거시기할 때니까 그저 팥죽이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들 같지 않아서 옛날엔 팥들을 집에서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팥죽이 옛날만큼 저 쑤질 않아요. 팥들을 아니 먹으니까.

그러니까 장에나 가서 참 수입 들어오는 팥 사서 먹으면 하여도 이젠 팥이 어려워서 팥죽을 못 쒀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집에서 동짓날은 팥죽 쒀서 그 해에 감기 오지

708) 강대선 구술.

말라고 팥죽 쒀서 오래에도 고수레하고 하여서 저 먹었었습니다마는. 그 동짓날은 팥죽 쒀서 먹는 건 그저 겨울 무사히 감기 하지 말고 그저 무사히 지내 달라고 동짓날에 팥죽을 쒀 먹는 거 같습디다.

2) 생업

(1) 새 비기

• 새 헤치, 케파장

이 걸름밧 거의가 끗나면은 샐 비어 와사 헐 거 아이우꽈? 그 새 헤치라고 헤 가지고서 그 부락에서 날을 정헙니다. 새 헤치 허기 전이 아무 때라도 비기 시작허면은 사름 일헤지는양 그디 그자 놈이 밧이고 아무 디라도 강 비어 불 수 잇으니까 딱 그 케파장이라고 헤 가지고서 촐 비기 전부떠 그 촐 놈이 쉐 왕 멕이지 못허도록, 비어 가지 말렌, 새 ᄀᆞ뜬 거 허영 단도리허는 사름이 잇엇습니다게. 겡 그거 저 켓보리 무신 어느 밧디, 어느 목장엔 뭐 촐왓이 멧 ᄒᆞᆫ 천 평이민 멧 천 평. 보리가 무신 닷 뒈여, 뭐 ᄒᆞᆫ 뒈, 큰 밧은 ᄒᆞᆫ 뒈도 뒐 수 잇고예. 또 뭐 막 거시기헌 밧은 뭐 ᄒᆞᆫ 말도 뒐 수 잇고, 그건 정허면서 그해 나근에 정허면서 그거 헤낫습니다. 각단 새광 ᄀᆞ찌 빕니다. 그 새는 조끔 길이가 건 거. 그 집 이는 디 페울 수 잇는 그게 새로 조끔 ᄌᆞᆯ라근에 집 이는 디 조끔 거시기 헴직헌 게 그게 각단입니다게.[709]

이 '걸름밧' 거의가 끝나면 띠를 베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띠 '허채'라고 해 가지고서 그 마을에서 날을 정합니다. 띠 '허채' 하기 전에 아무 때라도 베기

709) 강상흥 구술.

시작하면은 사람 일해지는 대로요 거기 그저 남의 밭이고 아무 데라도 가서 베어 버릴 수 있으니까 딱 그 '케파장'[710]이라고 해 가지고서 꼴 베기 전부터 그 꼴 남의 소 와서 먹이지 못하도록, 베어 가지 말라고, 띠 같은 거 하여서 잡도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그거 저 '켓보리'[711] 무슨 어느 밭에, 어느 목장엔 뭐 꼴밭이 몇 한 천 평이면 몇 천 평. 보리가 무슨 닷 되다, 뭐 한 되, 큰 밭은 한 되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막 거시기한 밭은 뭐 한 말도 될 수 있고, 그건 정하면서 그해 나서 정하면서 그거 했었습니다. '각단'[712] 띠와 같이 벱니다. 그 띠는 조끔 길이가 긴 거. 그 집 이는 데 펼 수 있는 그게 띠로 조끔 짧아서 집 이는 데 조끔 거시기함직한 게 그게 '각단'입니다요.

□ 12월

1) 납평날

엿 헹 먹는 날에, 동지에 골을 놉니다. 동지에 골 놔근에 골 내와근에 집이서 엿 허영. 엿 허는 날은 날 아니 보곡 골 노는 날은 동지에 놉니다. 엿 허는 날이 우린 무신 날사 몰르곡 골 놓는 날을, 게나마나 동지에 골 놧다근에 옛날엔 골감주도 허영 식게허고. 듹엿도 허곡. 듹도 이녁 집이서 질루다근에 저 골 하영 놧다근에 듹엿도 허영 먹곡, 기자 살아지는 사름은 기자 엿 자꾸 헹 먹엇수다게.[713]

---

710) '케파장'은 목장에 올린 소를 책임져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711) '켓보리'는 '케파장'에게 삯으로 주는 보리를 말하는 것이다.
712) '각단'은 짧은 띠를 말한다. 주로 지붕을 동여매는 집줄을 만들 때 쓴다.
713) 강대선 구술.

엿 해서 먹는 날에, 동지에 엿기름을 놉니다. 동지에 엿기름 놔서 엿기름 내서 집에서 엿 해서. 엿 하는 날은 날 아니 보고 엿기름 놓는 날은 동지에 놉니다. 엿 하는 날이 우린 무슨 날이야 모르고 엿기름 놓는 날을, 그러나저러나 동지에 엿기름 놨다가 옛날엔 '골감주'[714]도 해서 제사하고. 닭엿도 하고. 닭도 이녁 집에서 길르다가 저 엿기름 많이 놨다가 닭엿도 하여서 먹고, 그저 살아지는 사람은 그저 엿 자꾸 해서 먹었습니다요.

2) 신구간

신구간은 그 새 신은 들어오곡 묵은 신은 나가는 그 사이를 얘기허는 건데, 그 사이에 보통적으로 옛날에 이서덜을 많이 헤 가지고서, 이서. 또 신구간에 집에 무신 큰 나무나 무신거 베어 불곡, 큰 거 시면은 베어 불민 동티가 안 난다고. 그 옛날 신광 새 신 들어오기 그 중간이니까 집에 무신게 궂인 게 싯다근에 엇이 비어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허곡, 그 신구간에 보통 천리 ᄀᆞ뜬 것도 많이 헷고. 또 집에 뭐, 무신 히여뜩헌 거, 나쁜 거 치와 불고, 어디 막살이라도 잇다근에 치왕 ᄯᅳᆫ 걸 멘들고 경허민 그런 거를 대개 많이 헷습니다. 이 통시 ᄀᆞ뜬 것도 고치고, 이 마당 ᄀᆞ뜬 것도 밍구젠 허민.[715]

신구간은 대한 넘어서 그 일뤠 입춘 전 삼일ᄁᆞ지 그 중간에 어간을 신구간이라고 헙니다게. 게 일뤠에 삼일 떨어 불곡 일뤠 떨어 불민 닷새벳긴 안 남읍니다, ᄒᆞᆫ 절기채가. 보름에 ᄒᆞᆫ 번씩 ᄒᆞᆫ 절기채가 바뀌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신구간이엔 허민 닷새벳긴 그 거시기가 안 남는디 보통 요새는 그자 대한 넘으민 입춘 전ᄁᆞ지 신구간이엔 헤근에 ᄒᆞᆫ 보름간 그 무신

714) '골감주'는 조밥에 엿기름을 넣어서 발효시킨 후에 그 물을 짜서 만든 음료다.
715) 강상흥 구술.

격차 안 출려근에. 신구간엔 아무 디 문직아도 숭이 엇다 허영. 구신이 문 우터레 올라간다고 신구간을 거시기허는 거우다게. 숭이 엇다.[716]

'신구간'[717]은 그 새 신은 들어오고 묵은 신은 나가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이에 보통으로 옛날에 이사들을 많이 해 가지고서, 이사. 또 신구간에 집에 무슨 큰 나무나 무엇 베어 버리고, 큰 거 있으면 베어 버리면 동티가 안 난다고. 그 옛날 신과 새 신 들어오기 그 중간이니까 집에 무엇 궂은 게 있다가 없애 버려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신구간에 보통 이묘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또 집에 뭐, 무슨 '히여뜩헌'[718] 거, 나쁜 거 치워 버리고, 어디 막살이라도 있다가 치워서 다른 걸 만들고 그러면 그런 거를 대개 많이 했습니다. 이 돼지우리 같은 것도 고치고, 이 마당 같은 것도 메우려고 하면.

'신구간'은 대한 넘어서 그 이레 입춘 전 삼일까지 그 중간에 어간을 신구간이라고 합니다요. 글쎄 이레에 삼일 떨어 버리고 이레 떨어 버리면 닷새밖엔 안 남습니다, 한 절기가. 보름에 한 번씩 한 절기가 바뀌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신구간이라고 하면 닷새밖엔 그 거시기가 안 남는데 보통 요새는 그저 대한 넘으면 입춘 전까지 신구간이라고 해서 한 보름간 그 무슨 격식 안 차려서. 신구간에는. 아무 데 만져도 흉이 없다 하여서. 귀신이 몽땅 위로 올라간다고 신구간을 거시기하는 겁니다요. 흉이 없다.

• 이사

나도 이 신구간에 들언에 엿날 살단 디서 이제 사는 디 신구간에 이사헨

716) 강대선 구술.

717) '신구간'은 대한 후 오일부터 입춘 전 삼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는 신이 하늘로 올라가 어떤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하여 제주에서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이사도 하고 집도 고쳤다.

718) '히여뜩허다'는 문맥상으로 보아 '쓸모없다', '허드레하다', '너더분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와수다. 처음엔 솟단지 ᄀᆞ졍 가근에 그날 앚져근에 밥헤 먹으민 그게 그 식이고. 강 그레 좀자리 ᄎᆞᆯ려근에 그디 강 밥헤 먹곡 좀자민 그게 이삽주게.[719]

(이사 가민) 소금허곡 풋허곡 콩허곡 허여근에 삐여근에 가는 겁주게. 기자 잘허는 사름은 이사허고렌 허멍 동넷분도 ᄒᆞ끔 청허곡.[720] 그게 이사헐 때에 그게 나 어드레 이사 가난 동넷 어룬덜 와근에 그저 왕 술이라도 ᄒᆞᆫ 잔 먹읍센 헤근에 청헙니다. 청허면은 요새추룩 뭐 부주나 헤근에 간 것도 아니고 그자 동네 얻어먹으레 이사칩이 가근에, 아침 보통 가근에. 가젠 허면은 옛날은 곽, 그 성냥 큰 거, 큰 통으로 ᄒᆞ나. 경 아녀민 ᄒᆞᆯ 셍각헌 사름은 초 ᄒᆞᆫ 봉지 그 정도 헹 ᄀᆞ졍 가근에 밥 ᄒᆞᆫ 끼 얻어먹고, 요즘은 그거 그런 것도 엇이 그 저 이사허민 부주 받젠 이사덜을 헤근에 막 ᄎᆞᆯ려근에 나 어느 날 이ᄉᆞ헴고렌 그 얘기헙니다마는 엿날은 그런 식이 엇어수다.[721]

나도 이 신구간에 들어서 옛날 살던 데서 이제 사는 데 신구간에 이사해서 왔습니다. 처음엔 솥단지 갖고 가서 그날 안쳐서 밥해 먹으면 그게 그 식이고. 가서 그리로 잠자리 차려서 거기 가서 밥해 먹고 잠자면 그게 이삽지요.

(이사 가면) 소금하고 팥하고 콩하고 하여서 뿌려서 가는 겁지요. 그저 잘하는 사람은 이사했다고 하면서 동네 분도 조끔 청하고. 그게 이사할 때에 그게 나 어디로 이사 가니까 동네 어른들 와서 그저 와서 술이라도 한 잔 드십사고 해서 청합니다. 청하면 요새처럼 뭐 부조나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동네 얻어먹으러 '이사칩'[722] 가서,

719) 강상흥 구술.
720) 강대선 구술.
721) 강상흥 구술.
722) '이사칩'은 이사해서 간 집을 말한다.

아침 보통 가서. 가려고 하면 옛날은 성냥, 그 성냥 큰 거, 큰 통으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생각한 사람은 초 한 봉지 그 정도 해서 갖고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요즘은 그거 그런 것도 없이 그 저 이사하면 부조 받으려고 이사들을 해서 막 차려서 나 어느 날 이사하고 있노라고 그 얘기합니다마는 옛날은 그런 식이 없었습니다.

3) 소한 · 대한

동지 넘어근에 소한이고 대한인디. 동지ᄁᆞ지 거의가 그 가을농사나 새헐 농사도 거의 끗납니다. 동지 뒈면은 보리왓도 건즘 끗나고. 게민 소한, 대한이민 쵀고 추운 땐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헤 가지고서 그자 집이서 무신거 농촌 사름덜 ᄒᆞᆯ 게 이수가게. 맥문석이나 ᄌᆞᆺ곡. 또 옛날 아주머니덜은 우리 두린 때 보믄 우리 어머니덜이 그자 집이서 멘네나 헤근에 조끔헌 사름은 그 멘네나 허영 그거 물레 ᄌᆞᆺ앙 미녕, 미녕씰이나 뽑곡 그런 일을 헤수다게. 그것도 어디 마루방에서 허는 것도 아니고 정제에 봉덕이라고 헹 불살라근에 그디 불살라 놩 그 옆뎅이에 앚아근에 그자 멍석 ᄌᆞᆺ곡, 옆이서 미녕 ᄌᆞᆺ곡. 대한에 나간 사름은 제일 언 때라노난 대한에 나간 사름은 저 ᄎᆞᆺ아보지도 말렌, 옛날 할망덜 경 ᄀᆞᆯ아나수다. 대한이 제일 언 때 아니우꽈.[723]

동지 넘어서 소한이고 대한인데. 동지까지 거의가 그 가을 농사나 띠 할 농사도 거의 끝납니다. 동지 되면은 보리밭도 건의 끝나고. 그러면 소한, 대한이면 최고 추울 땐데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서 그저 집에서 무엇 농촌 사람들 할 게 있습니까. 백문석이나 겯고. 또 옛날 아주머니들은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저 집에

723) 강대선 구술.

서 면화나 해서 조끔 한 사람은 그 면화나 하여서 그거 물레 자아서 무명, 무명실이나 뽑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 마루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엌에 '봉덕'이라고 해서 불살라서 거기 불살라 놔서 그 옆에 앉아서 그저 멍석 겯고, 옆에서 무명 겯고. 대한에 나간 사람은 제일 언 때라 놓으니 대한에 나간 사람은 저 찾아보지도 말라고, 옛날 할머니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한이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4) 섣달그믐

섣ᄃᆞᆯ그뭄, 섣ᄃᆞᆯ그뭄날. 옛날엔 그자 밤도 질곡 허민 그자 앚아근에 섣ᄃᆞᆯ그뭄날 ᄌᆞᆷ자민 눈썹 흰덴 할망덜 경 ᄀᆞᆯ아나십주게. 웨냐면 섣ᄃᆞᆯ그뭄날은 밤 질곡 허믄 기자 앚앙 놀곡, 떡도 허곡. 섣ᄃᆞᆯ그뭄날엔 멩질도 ᄎᆞᆯ리곡 바쁘난에 ᄌᆞᆷ자민 경사 ᄀᆞᆯ아나신디 그건 확실히 모르쿠다. 바쁜 걸로 알안 헹 난 경 헴시카부덴마씨. 멩질도 ᄎᆞᆯ리곡게.[724] 뒷날 먹을 거 셍각허여근에 ᄌᆞᆷ 못 잔다고, 멩질.[725]

섣달그믐, 섣달그믐날. 옛날엔 그저 밤도 길고 하면 그저 앉아서 섣달그믐날 잠자면 눈썹 흰다고 할머니들 그렇게 말했었습지요. 왜냐하면 섣달그믐날은 밤 길고 하면 그저 앉아서 놀고, 떡도 하고. 섣달그믐날엔 명질도 차리고 바쁘니까 잠자면 그렇게야 말했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바쁜 걸로 알아서 해서 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보다. 명질도 차리고요. 뒷날 먹을 거 생각하여서 잠 못 잔다고, 명질.

724) 강대선 구술.
725) 강상흥 구술.

4. 서귀포시 대포동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 쏠ᄀᆞ루 준비

웨정시댄 전인 정월 초ᄒᆞ룻날 헤낫주. 음력으로. 아무 때도 ᄒᆞᆫ 삼 일 전에부떠. 그때는 방잇간이 엇이니깐이 쏠ᄀᆞ루를 연자방에에 졍, 궨당이 한 집인 연자방에. 남방에엔 ᄒᆞᆫ 건 ᄒᆞ끄만 떡, ᄒᆞᆫ 말 아녀는 사름. 궨당, 친척 한 집인, 쏠을 닷 말 컹 ᄒᆞ민, 거 방잇간에 강, ᄆᆞᆯ벵이. ᄒᆞᆫ 읏일곱 사름이 서의 밀곡 뚱기곡. 또 비질허는 사름 시민 체로 쳥 그걸 집이 왕 떡을 허영. 그땐 막 하영 헤사 친척들이영 갈라먹을 거 따문. ᄆᆞᆯ벵이.[726]

왜정시댄 전엔 정월 초하룻날 했었지. 음력으로. 아무 때도 한 삼 일 전에부터. 그때는 방앗간이 없으니까는 쌀가루를 연자방아에 찧어서, 권당이 많은 집엔 연자방아. '남방에'라고 한 건 조그마한 떡, 한 말 않는 사람. 권당, 친척 많은 집엔, 쌀을 닷 말 담가서 하면, 거 방앗간에 가서, 연자매. 한 예닐곱 사람이 셋이 밀고 당기고. 또 비질하는 사람 있으면 체로 쳐서 그걸 집에 와서 떡을 하여서. 그땐 아주 많이 해야 친척들이

726) 임정월 구술.

랑 나눠먹을 거 때문. 연자매.

• 청주, 탁베기, 고시리술

그 다끄는 술은 가을 들민 누룩, 보리쏠 놩 누룩 만들앗당, 그 누룩 ᄆᆞᆯ르민 조오메기. 청주 ᄒᆞᆯ 땐, 오메기떡 ᄒᆞᆯ 땐 흐린좁쏠이라사. 그걸 또 방에에 강 ᄀᆞ루 뿟앙 걸 오메기떡 멩글아근에 막 달롱, 누룩 삐졍 놔 두민 것이 청주 뒈민 잔치ᄒᆞᆯ 때나 제사 때도, 그거 청주 뽑으민 막 고급으로 청주 쓰곡. 그 탁베긴 ᄒᆞ끔, 탁베기로 헤여근에 권당덜 오민 공기로 ᄒᆞ나썩 다. 가문잔칫날도 그걸로 멕이곡. 제사 때도 그거 쓰곡. 술 따끄는 건 아무걸로라도. 기자 보리고 고구마고 허영 그 술 헤 놧당. 건 또 고시레 따까야. 고시레 따끄는 건 그땐 감저로도 ᄒᆞ곡, 보리로도 ᄒᆞ곡. 곤쏠론 아녕. 게민 그거를 술을 막 안네 술 비와근에 따끄는디. 고시리 우이 영 허여근에 그 밀ᄀᆞ루로 영 막앙 허민 그 고시리가 영 술 나오는 걸로 빠곡. 우인 고시리 우이 장테에 물을 놓주게. 물 놩, 거 막 뜨거우민 그 물 데껴뒁 새 물 놩, 세 번 뜨거우민 그 고시리술, 똑 요만이 ᄒᆞᆫ 걸, 막 독ᄒᆞ주게. 그걸로 빠근에 소준 헤난 거 알아지곡. 청준 좁쏠로만 헤근에.[727]

그 고는 술은 가을 들면 누룩, 보리쌀 놔서 누룩 만들었다가, 그 누룩 마르면 '조오메기[728]'. 청주 할 땐, '오메기떡[729]' 할 땐 차좁쌀이어야. 그걸 또 방아에 가서 가루 빻아서 걸 '오메기떡' 만들어서 막 다뤄서, 누룩 빻아서 놔 두면 것이 청주 되면 잔치할

727) 임정월 구술.
728) '조오메기'는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한 후에 둥글납작하게 만들거나 가운데 구멍을 뚫어 도넛 모양으로 만든 후에 삶아낸 떡을 말한다. 달리 '오메기떡'이라고 한다.
729) '오메기떡'은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한 후에 둥글납작하게 만들거나 가운데 구멍을 뚫어 도넛 모양으로 만든 후에 삶아낸 떡을 말한다.

때나 제사 때도, 그거 청주 봅으면 아주 고급으로 청주 쓰고. 그 탁주는 조끔, 탁주로 하여서 권당들 오면 공기로 하나씩 다. '가문잔칫날'[730]도 그걸로 먹이고. 제사 때도 그거 쓰고. 술 고는 건 아무거로라도. 그저 보리고 고구마고 하여서 그 술 해 놨다가. 건 또 소줏고리에 고아야. 소줏고리에 고는 건 그땐 고구마로도 하고, 보리로도 하고. 흰쌀론 않고. 그러면 그거를 술을 아주 안에 술 부어서 고는데. 소줏고리 위에 이렇게 하여서 그 밀가루로 이렇게 막고 하면 그 소줏고리가 이렇게 술 나오는 걸로 봅고. 위엔 소줏고리 위에 장태에 물을 놓지. 물 놔서, 거 아주 뜨거우면 그 물 던져두고 새 물 놔서, 세 번 뜨거우면 그 '고시리술'[731], 똑 요만이 한 걸, 아주 독하지. 그걸로 봅아서 소준 했던 거 알고. 청준 좁쌀로만 해서.

• **콩질름**

채소는 그때도 콩ᄂᆞ물 고사리 미나리 세 가지. 콩질름 집이서 꼭 시리에 키와사. 그건 여름엔 막 힘들어. 정월 멩질엔 ᄒᆞᆫ 보름 넘어 키우주. 정월 멩질엔 방에서 키우곡. 여름엔 막 밖이 놩 물 ᄒᆞ루 열 번. 막 썩어 불어, 더웡. 콩ᄂᆞ물 키울 때가 젤 힘들주게. 이젠 모든 채소 하도 그땐 미네기벳기 엇어. 콩ᄂᆞ물ᄒᆞ곡 미나리. 그땐 논에 막 쌓여 분 때. 이 논이 하주게, 대포는. 막 논 한. 강정ᄒᆞ곡 대포벳기 논 신 디가 엇주게. 이 곰으로는 다 대포 논.[732]

채소는 그때도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세 가지. 콩나물 집에서 꼭 시루에 키워야. 그건 여름엔 아주 힘들어. 정월 명질엔 한 보름 넘게 키우지. 정월 명질엔 방에서 키우고. 여름엔 막 밖에 놔서 물 하루 열 번. 막 썩어 버려, 더워서. 콩나물 키울 때가

730) '가문잔칫날'은 잔치 전에 가문끼리 모여서 하는 잔칫날을 말한다.
731) '고시리술'은 소줏고리로 증류해 만든 술이다. 지역에 따라서 '고소리술'이라고도 한다.
732) 임정월 구술.

젤 힘들지. 이젠 모든 채소 많아도 그땐 미나리밖에 없어. 콩나물하고 미나리. 그땐 논에 막 쌓여 버린 때. 이 논이 많지, 대포는. 아주 논 많아. 강정하고 대포밖에 논 있는 데가 없지. 이 금으로는 다 대포 논.

• **적갈**

적도, 그땐 적갈은 ᄒᆞᆫ 열 사름 모영.[733] 적은 그 동네 사람들 모여서, 즉 말하면 추렴. 뒈지 ᄀᆞ뜬 거 추렴헤서 갈라다가. 그거 허여근에 적갈 헤영. 적에 꿰여근에 그거 돌화리에 헤근에 적갈로 꿰여근에 그디서 구곡. 지름 남은 걸로 ᄇᆞᆯ르멍 구고 헤근에 적갈을 헤엿주.[734] 물고긴 바당궤기. 이제난 솔라니주, 그땐 막 조기 주로 써.[735] 솔라니나 조기나 또 우럭.[736]

적도, 그땐 적은 한 열 사람 모여서. 적은 그 동네 사람들 모여서, 즉 말하면 추렴. 돼지 같은 거 추렴해서 나눠다가. 그거 하여서 적 해서. 적에 꿰어서 그거 돌화로에 해서 적으로 꿰어서 거기서 굽고. 기름 남은 걸로 바르면서 굽고 해서 적을 하였지. 물고긴 바닷고기. 이제니까 옥돔이지, 그땐 막 조기 주로 써. 옥돔이나 조기나 또 우럭.

• **과일**

그때 산물. 대포 산물 신 집이 두 집이 이서낫어. 산물낭도 그때 막 아무 집이나 엇어. 댕유지 잇어난. 산물 이신 집이영 댕우지 이신 집.[737] 조꼼 뭐 조꼼 잘헷저 ᄒᆞᆫ 집인 유지 그거 ᄒᆞ주, 아무 집이나 아녀서.[738]

---

733) 임정월 구술.
734) 강부택 구술.
735) 임정월 구술.
736) 강부택 구술.
737) 임정월 구술.
738) 강부택 구술.

그때 진귤. 대포 진귤 있는 집이 두 집이 있었어. 진귤나무도 그때 막 아무 집에나 없어. 당유자 있었었어. 진귤 있는 집이랑 당유자 있는 집. 조끔 뭐 조끔 잘했다 한 집엔 유자 그거 하지, 아무 집에나 않았어.

• 떡허는 날

멩질 전날 떡을 여유 잇게 헷당 그거 좀 그 상에 올릴 거 ᄯᅳ로 떼 놧다근에.[739] 제수ᄒᆞᆯ 거 다 차롱착에 헤뒁 궨당덜 젱반에 다 놩 ᄯᅳ로ᄯᅳ로 차롱착에 반으로 주주게. 젱반에 놩 줘. 그 무적떡 조떡이나 무시거 고구마떡 ᄒᆞᆫ 빗ᄒᆞ곡, 절벤 놓곡 솔벤 놓곡 헹. 아시날 떡ᄒᆞᆫ 깝으로 반 주곡. 그날 정심은 보통 우리 기자 식솔이 먹는 거. 그날 집이 경.[740]

명질 전날 떡을 여유 있게 했다가 그거 좀 그 상에 올릴 거 따로 떼 놨다가. 제수할 거 다 채롱짝에 해두고 권당들 접시에 다 놔서 따로따로 채롱짝에 반기로 주지. 접시에 놔서 줘. 그 '무적떡'[741] '조떡'[742]이나 무엇 고구마떡 한 '빗'하고, 절편 놓고 솔편 놓고 해서. 전날 떡한 값으로 반기 주고. 그날 점심은 보통 우리 그저 식솔이 먹는 거. 그날 집에 그렇게.

(2) 차례

ᄎᆞ가지에 강은 젤 앞이 ᄒᆞ거든게. 멩질을. 경 헤서 그 집일 강 젤 앞이 강 멩질 ᄒᆞ멍. 젤 말젠 종손칩일 가 가지고 멩질 끗나민 뭐 일가에서 뭐

739) 강부택 구술.
740) 임정월 구술.
741) '무적떡'은 쌀가루에 고구마나 무 등을 넣어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742) '조떡'은 좁쌀가루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족보도 앗앙 보곡. 좀 의논ᄒᆞᆯ 것도 ᄒᆞ곡. 또 그거 그해에 또 산에 ᄀᆞ튼 디 뭐 다 의논 그때 ᄒᆞ주게. ᄆᆞᆫ딱 앚앙 모영 권당.[743] 시제 ᄀᆞ뜬 거 ᄆᆞᆫ 의논ᄒᆞ고. 시제 봄에 딱 박아진 날에. 우리 집안에는 음력 삼월 초닷샛날 헤낫어. 겐 이제는 다 직장에 다녀 놓고 헤 놓니까 일요일. 삼월 초 일요일날.[744]

'ᄎᆞ가지'[745]에 가서는 젤 앞에 하거든. 명질을. 그렇게 해서 그 집엘 가서 젤 앞에 가서 명질 하면서. 젤 말째는 종손집엘 가 가지고 명질 끝나면 뭐 일가에서 뭐 족보도 가져다 보고. 좀 의논할 것도 하고. 또 그거 그해에 또 산소에 같은 데 뭐 다 의논 그때 하지. 몽땅 앉아서 모여서 권당. 시제 같은 거 몽땅 의논하고. 시제 봄에 딱 박힌 날에. 우리 집안에는 음력 삼월 초닷샛날 했었어. 그래서 이제는 다 직장에 다녀 놓고 해 놓으니까 일요일. 삼월 초 일요일날.

• 멩질상

멩질상에 처음에야 궵시ᄒᆞᆯ 때 떡부터 쫙 올리고. 또 적갈 올리고 채소 올리곡. 거 헹 잔 걸곡. 다음엔 메, 게영 경 ᄒᆞ주.[746].

'명질상'[747]에 처음에야 '궵시'[748]할 때 떡부터 쫙 올리고. 또 적 올리고 채소 올리고. 거 해서 잔 걸고. 다음엔 메, 갱 그렇게 하지.

---

743) 강부택 구술.
744) 강부택 구술.
745) 'ᄎᆞ가지'는 종손의 의미인 '웃가지'에 대비하여 차손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746) 강부택 구술.
747) '멩질상'은 명질 때 제물을 올리는 차례상을 말한다.
748) '궵시'는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는 것을 말한다.

• **과세**

옛날은 오래 헤서양. 보름ᄁᆞ지 이딘 헤서양.[749] 세배 보통은게 엿날 어른덜은 도실낭꼿 질 때ᄁᆞ지 뎅겻젠 ᄒᆞ는디, 경 아녀민 아메도 ᄒᆞᆫ 보름 이상은 뎅겻주. 과세 오민 보통으로 저 감주, 감주도 ᄒᆞᆫ 잔 주는 집도 잇고게, 술 자시는 어른은 술도 ᄒᆞᆫ 잔 주곡 뭐 경 헷주게.[750] 이제 커피도, 술도 ᄒᆞᆫ 잔 주고, 감주도 주고.[751]

옛날은 오래 했어요. 보름까지 여긴 했지요. 세배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복숭아꽃 질 때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않으면 아마도 한 보름 이상은 다녔지. 과세 오면 보통으로 저 감주, 감주도 한 잔 주는 집도 있고, 술 자시는 어른은 술도 한 잔 주고 뭐 그렇게 했지. 이제 커피도, 술도 한 잔 주고, 감주도 주고.

(3) 멩질옷

옛날은 어려우난 남저들은 광목에 ᄇᆞᆯ아근에 여름엔 그걸로 중의적삼 헤근에 또 광목창옷 입지곡. 겨울엔 ᄯᅳ시 그 광목으로 바지저구리를, 검은 창옷. 그땐 그추룩벳기 안 ᄒᆞᆯ 때난. 오바 ᄀᆞ뜬 것도 엇일 때난. 바지저구리엔 솜 놔낫어. 멘네로 솜 놔난. 그 우이 입는 건 것ᄀᆞ라 검은 창옷이엔. 창옷은 꼭 검은 걸로 허여.

여자들은 기자 치메 입곡 저구리 입곡. 그때 기자 우리 미녕으로 ᄯᆞᆷ바데 추룩 이 ᄒᆞ꼼 가슴. 해녀덜은 속곳 입으난 몰른디. 헤녀 아닌 사름은 가슴을 못ᄒᆞ민 미녕 석 자 헤근에 영 영 ᄯᆞᆷ바데추룩 가슴만 싸는 거 헤난 중 알아지

749) 임정월 구술.
750) 강부택 구술.
751) 임정월 구술.

주게. 경 허영 어께만 ᄃᆞᆯ앙, ᄃᆞᆯ마기 ᄃᆞᆯ앙, ᄃᆞᆯ마기 이디 네 개 ᄃᆞᆯ민 ᄇᆞ짝ᄒᆞ민 여저덜은 그거 입엉 감촹 살곡. ᄯᅳᆷ바데 멘글앙 ᄃᆞᆯ마기 험벅으로 막 ᄌᆞᆷ질이 허영 그 ᄃᆞᆯ마기 ᄆᆞᆺ앙. 것도 아무나 못허여. 바눙질ᄒᆞ는 사름이라사 ᄃᆞᆯ마기 ᄆᆞᆺ앙. 속곳도 해녀 속곳도 것에 ᄋᆞ슷 개 ᄃᆞᆯ아. 여름엔 베몸뻬, 우의 베적삼. 뭐 잘 ᄎᆞᆯ리는 사름은 모시적삼 모시치메 그거 입어근에 나들이 가곡.[752] 여저덜은 보통 뭐 이제 ᄀᆞ트면 팬티 아이라? 팬틴디 엿날은 거 속곳으로 헤서. ᄒᆞᆫ 밧디로만 허영 입어근에 ᄃᆞᆯ마기 메어.[753]

옛날은 어려우니까 남자들은 광목에 빨아서 여름엔 그걸로 중의적삼 해서 또 광목창옷 입히고. 겨울엔 다시 그 광목으로 바지저고리를, 검은 창옷. 그땐 그처럼밖에 안 할 때니까. 오버 같은 것도 없을 때니까. 바지저고리엔 솜 놨었어. 면화로 솜 놨었어. 그 위에 입는 건 것보고 검은 창옷이라고. 창옷은 꼭 검은 걸로 하여.

여자들은 그저 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그때 그저 우리 무명으로 땀받이처럼 이 조끔 가슴. 해녀들은 '속곳'[754] 입으니까 모르는데. 해녀 아닌 사람은 '가슴'[755]을 못하면 무명 석 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땀받이처럼 가슴만 싸는 거 했던 줄 알아지지. 그렇게 해서 어깨만 달아서, 매듭단추 달아서, 매듭단추 여기 네 개 달면 밭으면 여자들은 그거 입어서 감춰서 살고. 땀받이 만들어서 매듭단추 헝겊으로 아주 자잘하게 하여서 그 매듭단추 맺어서. 것도 아무나 못 해. 바느질하는 사람이어야 매듭단추 맺어서. '속곳'도 해녀 '속곳'도 것에 여섯 개 달아. 여름엔 '베몸뻬'[756], 위에 베적삼. 뭐 잘 차리는 사람은 모시적삼 모시치마 그거 입어서 나들이 가곡. 여자들은 보통 뭐 이제

752) 임정월 구술.
753) 강부택 구술.
754)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755) 여기에서 '가슴'은 가슴을 가릴 수 있게 만든 물건을 말한다.
756) '베몸뻬'는 베로 만든 일바지를 말한다.

같으면 팬티 아닌가? 팬틴데 옛날은 거 속곳으로 해서. 한 군데로만 하여서 입어서 매듭단추 매어.

2) 정월대보름

(1) 연올리기

연올리주게, 연올려. 얼레도.[757] 연 일름 가오리ᄒᆞ곡. 네모난 것ᄀᆞ라 얼레엔 허자녑니까? 이것도 얼레주만은 그 네모난 것도 얼레. 가오리연, 두 가지벳기 읏어. 게난 그 동물개동산 연올리레 가고, 갯동산 연올리레 가고.[758] 가오리연 가오리 모냥으로 멩근 연. 네모난 것ᄀᆞ라 얼레. 얼레연. 영 ᄒᆞᆫ 건 가오리연에 총지 ᄃᆞᆯ고. 그것ᄀᆞ라 가오리연.[759]

연날리지, 연날려. '얼레'[760]도. 연 이름 가오리하고. 네모난 것보고 '얼레'라고 하잖습니까? 이것도 '얼레'지만 그 네모난 것도 '얼레'. 가오리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동물개동산'[761] 연날리러 가고, '갯동산'[762] 연날리러 가고.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든 연. 네모난 것보고 '얼레'. 방패연. 이렇게 한 건 가오리연에 꼬리 달고. 그것보고 가오리연.

---

757) 강부택 구술.
758) 임정월 구술.
759) 강부택 구술.
760) '얼레'는 제보자가 방패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761) '동물개동산'은 서귀포시 대포동의 지경 이름이다.
762) '갯동산'은 서귀포시 대포동의 지경 이름이다.

(2) 밥헹 먹을락

이 처녀들 ᄒᆞᆫ 다섯이 모영 그 곤ᄊᆞᆯ ᄒᆞᆫ 박세기 아졍 왕 밥헹 먹을락. 밤이, ᄇᆞᆰ아 가민 어멍 몰르로 ᄊᆞᆯ 도적질헹 왕. 삼춘네 집, 백○이네 살 때양, 그 집이 완 우리 벗덜이영 하○이네영, 그 친구네 집이 강 밥헹 먹을락 ᄒᆞ주게. 그때 곤밥에 장물에만도 경 맛 좋아. 간장에만도.[763]

이 처녀들 한 다섯이 모여서 그 흰쌀 한 바가지 갖고 와서 밥해서 먹기. 밤에, 밝아 가면 어머니 모르게 쌀 도둑질하고 와서. 삼촌네 집, 백○이네 살 때요, 그 집에 와서 우리 벗들이랑 하○이네랑,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밥해 먹기'하지. 그때 흰밥에 간장에만도 그렇게 맛 좋아. 간장에만도.

- **등대**

삼춘은 나보다 앎이렌 헤도 그거 일분놈들 멩글앗수다. 그 폭낭 아래 그 일분놈 등대엔 ᄒᆞᆫ 거. 저 옛날 웨정시대에 그 코지도 잇고, 등대. 코진 막 높아. 그 어디 적덜 와가민 그 등대에 헤여근에 불 하나 들르민 제주도 다 들러낫젠. 어디 배로 일본놈덜 적 올 때 닮아. 것ᄀᆞ라 등대엔 ᄒᆞ주게.

삼촌은 나보다 앎이라고 해도 그거 일본놈들 만들었습니다. 그 팽나무 아래 그 일본놈 등대라고 한 거. 저 옛날 왜정시대에 그 '코지'에도 있고, 등대. '코진' 아주 높아. 그 어디 적들 와가면 그 등대에 해서 불 하나 들면 제주도 다 들었었다고. 어디 배로 일본놈들 적 올 때 같아. 것보고 등대라고 하지.

763) 임정월 구술.

3) 포제

포제 준비는 그 각 반에. 제관은 각성바지. 각 반에 성바지덜 다 제원 모시고. 우리도 그땐 어린 때난에 쫄병으로 가낫주게.[764] 그 회장 집서 출리는 따문 그냥, 그냥 영 모영 가는 사름덜은 그디 첵임진, 이제 ᄀᆞ뜨민 사장이 ᄆᆞᆫ딱 그 젤 첵임자가 출령 가 부는 따문. 그냥 막 하영 모이주. 각 성은 다 가난. 포제ᄒᆞ는 건 간섭ᄒᆞ젠 ᄒᆞ난.[765]

포제 준비는 그 각 반에. 제관은 각성바지. 각 반에 성바지들 다 제원 모시고. 우리도 그땐 어릴 때니까 졸병으로 갔었지. 그 회장 집에서 차리는 때문 그냥,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가는 사람들은 거기 책임진, 이제 같으면 사장이 몽땅 그 젤 책임자가 차려서 가 버리는 때문. 그냥 아주 많이 모이지. 각 성은 다 가니까. 포제하는 건 간섭하려고 하니까.

(1) 제물 준비

준비ᄒᆞ는 것은 잘 모르큰게. 도야지머리 통채, 통채 ᄒᆞᆫ 머리 잡아서. 뒈지도 ᄒᆞᆫ ᄆᆞ리 기냥.[766] 뒈야지머리 우선 뒈야지머리 그거 올렷주게. 소궤기 막 어려운 때, 소궤기도 쌩채 익이지 아녕. 그 바껫디 제지나는 건 통채 ᄒᆞᆫ덴 허주게. 익이지 아녕. 메 헤여나곡, 떡은 헤영ᄒᆞᆫ 백시리 통채. 고기도 저 굽지 아녕 ᄂᆞᆯ거. 비닐도 안 거실려서양? 토신제 ᄒᆞᆯ 때도 비닐 안 거시려, 우리. 가정집인 토신제 헷주게.[767]

---

764) 강부택 구술.
765) 임정월 구술.
766) 강부택 구술.

(포제헐 때) 최대한 한 일주일 정도는 딱 통행금지 시경. 노인훼관에 딱 집결헤근에 ᄒᆞᆫ 일주일 동안은 딱 통행금지 시겨. 금줄 딱 메어. 그자 그 웬ᄉᆞ끼 꼬아근에 딱 메여근에 통헹금지. 원 놀레 간 사름도 부정 아년 사름은 놀레 가곡, 경 아녀민 가도 못ᄒᆞ곡.[768] 정성 ᄆᆞᆫ딱게 잘히여낫주.[769]

준비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 돼지머리 통째, 통째 한 마리 잡아서. 돼지도 한 마리 그냥. 돼지머리 우선 돼지머리 그거 올렸지. 소고기 아주 어려운 때, 소고기도 생짜 익히지 않고. 그 바깥에 제지내는 건 통째 한다고 하지. 익히지 않고. 메 하였었고, 떡은 허연 백시루 통째. 고기도 저 굽지 않고 날것. 비늘도 안 '거실려서양'[770]? '토신제' 할 때도 비닐 안 '거시려', 우리. 가정집엔 '토신제' 했지.

(포제할 때) 최대한 한 일주일 정도는 딱 통행금지 시켜서. 노인회관에 딱 집결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딱 통행금지 시켜. 금줄 딱 매어. 그저 그 왼새끼 꼬아서 딱 매어서 통행금지. 원 놀러 간 사람도 부정 않은 사람은 놀러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 정성 몽땅 잘했었지.

4) 당제

건 가인으로 집마다. 그 본향당 콧뎅이ᄆᆞ루 그디도 당이 세 곤데라예. 게민 상단에 젤 우이 갈 땐 돌레떡 굿ᄒᆞ는 떡 그거 열네 개 놓곡, 밥 세 개. 손메 두 갠 요왕 멩이 두 개곡. 상메 두 개는 하난 하인 직세ᄒᆞ곡, 하난 심방 직세ᄒᆞ곡. 또 중상에 갈 땐 떡을 쑤물네 개나 히여, 쑤물네 개나.

767) 임정월 구술.
768) 강부택 구술.
769) 임정월 구술.
770) '거시리다'는 칼 등으로 생선 따위의 비닐을 긁어 제거하다는 의미다.

막 그 사름덜 음복ᄒᆞᆫ덴 그거. 그때 부락 일 보는 사름이 그디 그걸 갈라주젠, 그걸 받으레 가주게. 이제 ᄀᆞ트민 정○택이 어멍네 경 가민. 삼춘은 남자라 부난 몰라도 그디 꼭 그날은 가. 쑤물네 개, 중상에. 아랜 아니여. 아랜 그자 무신 뭐여. 세 번째 건 ᄋᆞ드레엔 ᄒᆞ주게. 우린 ᄋᆞ드렌 안 뎅기난 그딘 아이 보난 몰르는디 ᄋᆞ드렛당. 아랜 세 번챈 ᄋᆞ드레. ᄋᆞ드렛당.[771]

건 개인으로 집마다. 그 본향당 '콧뎅이ᄆᆞ루[772]' 거디도 당이 세 군데예요. 그러면 상단에 젤 위에 갈 땐 도래떡 굿하는 떡 그거 열네 개 놓고, 밥 세 개. '손메(?)' 두 갠 용왕 명의 두 개고. '상메' 두 개는 하난 하인 몫하고, 하난 무당 몫하고. 또 중상에 갈 땐 떡을 스물네 개나 하여, 스물네 개나. 막 그 사람들 음복한다고 그거. 그때 마을 일 보는 사람이 거기 그걸 나눠주려고, 그걸 받으러 가지. 이제 같으면 정○택이 어머니네 그렇게 가면. 삼촌은 남자라 버리니 몰라도 거기 꼭 그날은 가. 스물네 개, 중상에. 아랜 아니야. 아래는 그저 무슨 뭐야. 세 번째 건 '여드레'라고 하지. 우린 여드렌 안 다니니까 거긴 아니 보니까 모르는데 'ᄋᆞ드렛당'[773]. 아래 세 번짼 여드레. 'ᄋᆞ드렛당'.

5) 토신제, 문전제, 안넷제

토신제는 집이서 ᄒᆞ는 거주.[774] 일 년에 ᄒᆞᆫ 번 뒤엣제 ᄒᆞ민, 토신제 ᄒᆞ민 또 일 년은 아녓당 그 토신젠 뒤에서 ᄒᆞ곡. 문전제나 안넷제 ᄒᆞᆯ 땐 집이 심방 왕 굿ᄒᆞᆯ 때. 그때 안넷제 칠성젠 그 농사 잘 헹 먹으렌 ᄒᆞ는 거엔 칠성은 그거고. 문전은 남선비본 풀젠이 ᄒᆞ곡.

771) 임정월 구술.
772) '콧뎅이ᄆᆞ루'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지경 이름이다.
773) 'ᄋᆞ드렛당'은 제일이 매달 8일, 18일, 28일인 당을 말한다.
774) 강부택 구술.

이젠 우리가 역안 보난 그거 자꾸 문화재도 나오주만 남선비본 푸는 거 그것이 문전제엔. 문전본이라게. 엿날에 남선비본 들으레 가민 우리 막 귀경 뎅겨낫주게. 남선비본풀이.

그때도 안네 놓는 건, 고기에 밥에 떡에 놓는디 안네 건 놈 안 줘. 궨당도 안 줘. 이녁 식술만 먹곡. 이 문전에 ᄒᆞᆫ 건 구경 온 사름덜 ᄆᆞᆫ딱 갈라줘. 문전 헤난 건. 요왕이 이건 남선빈 아방이고, 어멍은 조왕할망이난. 이디 헤난 건 조왕에 강 ᄒᆞ주게.

올렛본풀인 질 말제사 허여근에 무시거산디 허영 ᄆᆞᆫ딱 ᄃᆞᆨ도 써나민 데강이 차 올레 묻어 불어. 심방이 허여 나민. 그걸 뜻을 몰라, 어떵사 히엄신디. ᄃᆞᆨ 던지민이 것도 베와사. 그놈의 ᄃᆞᆨ을 던지민 그 ᄃᆞᆨ이 고개가 베깃디 나가민 좋곡, 안트레 돌아오민 궂곡. 숟구락에 무시것산디 막 무시거엔 ᄀᆞᆯ아근에 숟구락에 물에 칼에 영 데끼민 칼ᄂᆞᆯ이영 숟구락이영 나가민 좋곡. 심방덜 ᄀᆞᆯ으는디 ᄂᆞᆯ이영 숟구락썹이영 올리레 나가민 좋곡 이레 돌아오민 궂넨.

경 헨 우리 막 굿은 하영 헷주게. 이 요왕굿도 허고 ᄌᆞᆷ녀굿도 ᄒᆞ곡. 요왕굿도 집이서도 경. 우리도 굿 ᄋᆞ라 번 ᄒᆞ난 그 심방덜 ᄒᆞ는 거 우리가 영 앚앙 보민, 그런 거 보민 아, 영 ᄒᆞ민 경 ᄒᆞ민 따시 막 ᄒᆞ주게. 궂덴 ᄒᆞ민 막 전상ᄒᆞ영 또 데끼곡 또 데끼곡 경 ᄒᆞ는 거. 궂는 거 좋는 거 심방덜 허는 거 봐낫주게. 점보는 거주게. 심방덜 점. 심방도 잘 맞촤. 문○봉이 잘 맞추와. 오민 기자 딱 눈으로 본 듯이 ᄎᆞᆺ아내주게.[775]

'토신제'는 집에서 하는 거지. 일 년에 한 번 '뒤엣제'[776] 하면, '토신제' 하면 또 일 년은 않았다가 그 '토신젠' 뒤에서 하고. '문전제'[777]나 '안넷제'[778] 할 땐 집에

775) 임정월 구술.
776) '뒤엣제'는 집 뒤에서 하는 제를 말한다. 집 뒤에서 지내는 토신제를 달리 표현한 말이다.

심방 와서 굿할 때. 그때 '안녯제' '칠성제'[779]는 그 농사 잘 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 칠성은 그거고. 문전은 '남선비본' 풀려고 하고.

이젠 우리가 커서 보니까 그거 자꾸 문화재도 나오지만 '남선비본' 푸는 거 그것이 '문전제'라고. '문전본'이야. 옛날에 '남선비본' 들으러 가면 우리 막 구경 다녔었지. '남선비본풀이'.

그때도 '안네'[780] 놓는 건, 고기에 밥에 떡에 놓는데 '안네' 건 남 안 줘. 권당도 안 줘. 이녁 식솔만 먹고. 이 문전에 한 건 구경 온 사람들 몽땅 나눠줘. 문전 했던 건. 용왕에 이건 '남선빈' 아버지고, 어머니는 '조왕할머니'니까. 여기 했던 건 '조왕'에 가서 하지.

'올렛본풀이'는 젤 말째야 하여서 무엇인지 하여서 몽땅 닭도 쓰고 나면 머리째 오래 묻어 버려. 심방이 하고 나면. 그걸 뜻을 몰라, 어떻게야 하고 있는지. 닭 던지면 것도 배워야. 그놈의 닭을 던지면 그 닭이 고개가 바깥에 나가면 좋고, 안으로 돌아오민 궂고. 숟가락에 무엇인지 막 무엇이라고 말해서 숟가락에 물에 칼에 이렇게 던지면 칼날이랑 숟가락이랑 나가면 좋고. 심방들 말하는데 날이랑 '숟구락썹'[781]이랑 오래로 나가면 좋고 이리로 돌아오면 궂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주 굿은 많이 했지. 이 '요왕굿'[782]도 하고 '잠녀굿'도 하고. '요왕굿'도 집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굿 여러 번 하니까 그 심방들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 그런 거 보면 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다시 막 하지. 궂다고 하면 막 전상해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 궂은 거 좋은 거 심방들 하는

---

777) '문전제'는 문전신을 위한 제를 말한다.
778) '안녯제'는 집안의 안녕과 부귀를 기원하기 위해 하는 제의다. 보통 고팡신을 위해 치르는 제의다.
779) '칠성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북두칠원성군에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다.
780) '안네'는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고팡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781) '숟구락썹'은 '숟구락ᄌᆞ룩'에 대비하여 밥을 뜨는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782) '요왕굿'은 바다의 신인 요왕을 맞아들여 축원하는 굿을 말한다.

거 봤었지. 점보는 거지. 심방들 점. 심방도 잘 맞춰. 문○봉이 잘 맞춰. 오면 그저 딱 눈으로 본 듯이 찾아내지.

6) 걸궁

걸궁헤낫주게. 대포서 걸궁헤낫주게. 걸궁 그 경연대회 제주시에 가근에.[783] 하영 헤낫수다. 막 여라 번 헷수다. 부락 운동으로 헤난 거 닮아양? 그전에 걸궁헤낫수다, 우리. 해방 지난 우리 살림 산 후제 걸궁ᄒᆞᆫ디예,[784] 그때 재○이 막 동녕바치 출령 헤난 거. 그때 시절에도 대포 사름덜 영 희사나 좋음직ᄒᆞᆫ 딘 가곡, 못사는 집인 안 들어간 막 여론 나낫수다. 영○이 어멍 책임져난 때 얼마나 여론 나낫수과? 그때. 그디 가민양, 그땟 돈 오십 원 주는 집도 싯곡. 하영 주민 만 원 주곡, 오천 원 주는 집도. 돈으로 경 ᄒᆞ꼼 헤난 거 닮읍디다. 해방뒌 막 넘은 후제. 사삼도 넘은 후제.[785]

걸립했었지. 대포서 걸립했었지. 걸립 그 경연대회 제주시에 가서.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마을 운동으로 했던 거 같지요? 그전에 걸립했었습니다, 우리. 해방 지나서 우리 살림 산 후에 걸립했는데요, 그때 재○이 막 동냥아치 차려서 했던 거. 그때 시절에도 대포 사람들 이렇게 희사나 좋음직한 덴 가고, 못사는 집엔 안 들어가서 아주 여론 났었습니다. 영○이 어머니 책임졌던 때 얼마나 여론 났었습니까? 그때. 거기 가면요, 그때 돈 오십 원 주는 집도 있고. 많이 주면 만 원 주고, 오천 원 주는 집도. 돈으로 그렇게 조금 했던 거 같습디다. 해방된 막 넘은 후에. 사삼도 넘은 후에.

783) 강부택 구술.
784) 강부택 구술.
785) 임정월 구술.

7) 입춘

입춘엔 농사짓는 거 엇엇주.[786] 그때는 무시거 안 날 때난게. 입춘 나민 게 거 여저들 어디 방 베끗디 나가지 말렌 ᄒᆞ고. 입춘이민 새철드는날 아니꽈? 자는 놈의 집이 가지 말라. 검질 짓넨. 여자는 조심ᄒᆞ영 놈의 집이 가지 말라.[787]

입춘엔 농사짓는 거 없었지. 그때는 무엇 안 날 때니까. 입춘 되면 거 여자들 어디 방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입춘이면 '새철드는날' 아닙니까? 자는 남의 집에 가지 말라. 김 짓는다고. 여자는 조심해서 남의 집에 가지 말라.

8) 생업

(1) 보리밟기

보리 붋는 거 헤낫수다. 막 옛날. 보리 막 ᄇᆞᆯ라야 거린덴, 막 거린덴.[788]. 옛날에 보리가 커근에 ᄒᆞᆫ 이월쯤 나민 싹이 날 게 아이라게. 겨민 ᄇᆞᆯ라야 보리 건강ᄒᆞ여.[789]

보리 밟는 거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 보리 막 밟아야 '거린덴'[790], 아주 '거린덴'.

786) 강부택 구술.
787) 임정월 구술.
788) 임정월 구술.
789) 강부택 구술.
790) '거리다'는 나뭇가지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간다는 뜻이다.

옛날에 보리가 커서 한 이월쯤 되면 싹이 날 게 아닌가. 그러면 밟아야 보리 건강해.

(2) 방에

진두기 거세한다고 ᄒᆞ영 방에 부찌곡, 또 듯해 촐이 무성헌다고 헤서 방에 부찌곡. 경 헤서 그 방에 경계선. 그 미리 강은에 경계선. 불 못 올라가게 헤 놩 경계선게. 방화선이주게, 방화선. 경 헤근에 불 넘어가지 못ᄒᆞ게 막 헤낫주게. 이제나 방에 안 부찌주. 그때는 일 년에 ᄒᆞᆫ 번 꼭 부쩌. ᄆᆞ을별로. 경 헨 전부 나가근에 불 부쩌근에 불 끄곡. 경 헹 듯해에 촐도 잘 나곡. 아, 방에 경계선을 아마 그때 가서는 담 닿거나 파진 안 헷어. 불 못 넘어가게. 방화선. 방에선이주, 방에선.[791] 그날은 삼춘, 제주도적으로 부쪄난 거 닮아양. 그 웨정 시대 때도 부쪗어. 이만이 널러. 땅 파근에 저레 산드레 불 못 올라가게. 그걸 헤영 땅 파민 저레 불 넘어가지 못ᄒᆞ게. 그디 성담도 다 닿주게. 게민 진드기도 죽곡, 촐도 잘 나곡. 우리 대포 목장은 원래가 일본놈 목장이엔 ᄒᆞ주게. 백만 원차리가. 일분놈 건디 해방뒈난 일분 사름이 딱 손 털언 가 부난 대포 지경이난 대포 사름 땅이 뒛주. 저거 대포 땅 뒌디, 멧 십 년 전에 누게가 저걸 사젠 와낫어. 이 삼춘 ᄒᆞ꼼 알 거라. 사젠 오난에 그 대포 사름이 그 흥성 부찌젠 ᄒᆞ난, 이 ○○ 처남 동장안티, 대포 사름덜 알안 난리가 나낫수다. 저거 ᄑᆞᆯ아 먹젠마씀. 대포 백만 원짜리 케를. 저것ᄀᆞ라 백만 원짜리 케렌 ᄀᆞᆯ아.[792]

진드기 거세한다고 하여서 방화 붙이고, 또 뒷해 꼴이 무성하다고 해서 방화 붙이고.

791) 강부택 구술.
792) 임정월 구술.

그렇게 해서 그 방화 경계선. 그 미리 가서 경계선. 불 못 올라가게 해 놓고 경계선. 방화선이지, 방화선. 그렇게 해서 불 넘어가지 못하게 막 했었지. 이제나 방화 안 붙이지. 그때는 일 년에 한 번 꼭 붙여. 마을별로. 그렇게 해서 전부 나가서 불 붙여서 불 끄고. 그렇게 해서 뒷해에 꼴도 잘 나고. 아, 방화 경계선을 아마 그때 가서는 담 쌓거나 파진 안 했어. 불 못 넘어가게. 방화선. 방화선이지, 방화선. 그날은 삼촌, 제주도적으로 붙였던 거 같지요. 그 왜정 시대 때도 붙였어. 이만큼 넓어. 땅 파서 저리로 산으로 불 못 올라가게. 그걸 해서 땅 파면 저리로 불 넘어가지 못하게. 거기 '성담'도 다 쌓았지. 그러면 진드기도 죽고, 꼴도 잘 나고. 우리 대포 목장은 원래가 일본놈 목장이라고 하지. 백만 원짜리가. 일본놈 건데 해방되니까 일본 사람이 딱 손 털어서 가 버리니 대포 지경이니까 대포 사람 땅이 됐지. 저거 대포 땅 되었는데, 몇 십 년 전에 누가 저걸 사려고 왔었어. 이 삼촌 조금 알 거야. 사려고 오니깐 그 대포 사람이 그 흥정 붙이려고 하니까, 이 ○○ 처남 동장한테, 대포 사람들 알아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거 팔아 먹으려고요. 대포 '백만 원짜리 케'[793]를. 저것보고 '백만 원짜리 케'라고 말해.

(3) 바닷일

바당에 거 일월ᄃᆞᆯ에부떠도 구제기도 잡고. 그때도 헤ᄉᆞᆷ도 일월ᄃᆞᆯᄁᆞ진 동지 넘으민 헤ᄉᆞᆷ 나주게. 동지 넘으민 헤ᄉᆞᆷ 나민 삼월ᄁᆞ진 헤ᄉᆞᆷ 나곡. 오분제기, 구제기 그거ᄒᆞ곡, 전복ᄒᆞ곡, 문어 잡곡. 이월 나도 마찬가지. 여름 내낭.[794]

바다에 거 일월에부터도 소라도 잡고. 그때도 해삼도 일월까진 동지 넘으면 해삼

793) '백만 원짜리 케'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지경 이름이다.
794) 임정월 구술.

나지. 동지 넘으면 해삼 나면 삼월까진 해삼 나고. 오분자기, 소라 그거하고, 전복하고, 문어 잡고. 이월 되어도 마찬가지. 여름 내내.

□ 2월

1) 영등굿

이제 영등에 이디 초원엔 영등굿도 아녀고.[795] 전이 헤낫주마는 이젠 아녀주. 영등굿 헤낫수게게. 바당에 ᄌᆞᆷ녀굿도 딱 이 년에 ᄒᆞᆫ 번썩, 삼 년에 상○이 이디 왕 ᄒᆞ곡. 태○이도 ᄒᆞ곡. ○○어멍 산 때도 헤나곡. ○○이 각시 회장 쓴 때 헤나고, ○식이 어멍 회장 쓴 때 헤나고. 그 옛날 묵은곳간에서부떠 막 헤낫수다. ○○이 아방도 막 헤나고.[796] 저 우리 집 할망 회장 때도 그 큰굿 헤나믄 헤수다.[797] 그때 삼춘 회장 쓸 때가 젤 말제. 그루후젠 굿 아녀 봣수다. 영등굿 허젠 허민 그땐 천 시렁목 ᄀᆞ뜬 거. 그땐 시렁목 ᄒᆞ기 전인 미영 ᄒᆞ곡. 큰 산, 것ᄀᆞ라 무신 대엔. 큰대 세왕, 그기 막 대꼭지에 벨거 ᄆᆞᆫ ᄃᆞᆯ아메영 그거. 두 일뤠 열나흘이엔 ᄀᆞᆯ읍니다. ᄌᆞᆷ녀덜 그디 강 살아. 두 일뤠. 겨난 열나흘이엔 ᄒᆞ는 거주, 열나흘.[798] 두 일뤠난. 일뤠가. 두 일뤠 열나흘.[799] 게민양, 쳑임진 사름. 이월에도 그 택일헤 보멍, 삼월에도 ᄒᆞ곡 막 여라, 그 택일 나는 냥게. 심방도 한글ᄒᆞ곡. 그땐 쳑임진

795) 강부택 구술.
796) 임정월 구술.
797) 강부택 구술.
798) 임정월 구술.
799) 강부택 구술.

사름덜 집이 못 옵니다. 그디덜 ᄆᆞᆫ 이불덜 졍 강 눠 자멍 헤낫수다.[800]

이제 영등에 여기 촌엔 영등굿도 않고. 전에 했었지만 이젠 않지. 영등굿 했었습니다. 바다에 '잠녀굿'도 딱 이 년에 한 번씩, 삼 년에 상○이 여기 와서 하고. 태○이도 하고. ○○어머니 산 때도 했었고. ○○이 각시 회장 쓴 때 했었고, ○식이 어머니 회장 쓴 때 했었고, 그 옛날 '묵은곳간'[801]에서부터 막 했었습니다. ○○이 아버지도 마구 했었고. 저 우리 집 할머니 회장 때도 그 큰굿 하고 나면 했습니다. 그때 삼촌 회장 쓸 때가 젤 말째. 그 이후엔 굿 안 해 봤습니다. '영등굿' 하려고 하면 그땐 천 '시렁목'[802] 같은 거. 그땐 '시렁목' 하기 전엔 무명 하고. 큰 산, 것보고 무슨 대라고. 큰대 세워서, 거기 마구 대끄트머리에 별거 몽땅 매달아서 그거. 두 이레 열나흘이라고 말합니다. 잠녀들 거기 가서 살아. 두 이레. 그러니까 열나흘이라고 하는 거지, 열나흘. 두 이레니까. 이레가. 두 이레 열나흘. 그러면요, 책임진 사람. 이월에도 그 택일해 보면서, 삼월에도 하고 아주 여러, 그 택일 나는 대로. 심방도 한가하고. 그땐 책임진 사람들 집에 못 옵니다. 거기들 몽땅 이불들 지고 가서 누워 자면서 했었습니다.

2) 생업

(1) 검질메기

보리왓디 검질은 아메도 이월 중순 뒈사 메엿주게.[803] ᄒᆞᆫ 번벳기 아이 멥니다. 그 이 잡초 아무거라도 메곡, ᄒᆞ꼼 캐어 가민 그 대우리엔 ᄒᆞᆫ 거

800) 임정월 구술.
801) '묵은곳간'은 서귀포시 대포동 지명 이름이다.
802) '시렁목'은 이불의 안감이나 기저귓감 따위로 쓰는 천인 '소창'을 말한다.
803) 강부택 구술.

그거 메레. 캔 후젠 대우리 멥니다. 보리왓딘 진풀.[804] 좀 부지런헌 사름은 두 불 메여. 대우리 메곡. 그 검질메여.[805]

보리밭의 김은 아마도 이월 중순 되어야 맸지. 한 번밖에 아니 맵니다. 그 이 잡초 아무거라도 매고, 조금 패 가면 그 메귀리라고 한 거 그거 매러. 팬 후에는 메귀리 맵니다. 보리밭엔 별꽃. 좀 부지런한 사람은 두 벌 매어. 메귀리 매고. 그 김매.

(2) 감젓메 놓기

감젓메는 요새는 뭐 정월에도 놓곡 ᄒᆞ주만은. 그때야 이월 중순 뒈믄 놓주게. 메 놓는 건 이월 나사. 그땐 엿날엔 이월 중순 뒈사. 이제는 비니루 더끄곡 다 헴주만은, 그땐 비니루가 엇어. 바당에 강 ᄆᆞᆷ 헤다근에, 이제 대폰 해각이난. 감젓메 놀 디 ᄆᆞᆫ ᄆᆞᆯ망을 꼴아. 막 경 헹 꼴앙 놧당 그걸 갈앙 그 소곱에 감절 묻어. 메종 경 헹 그에 놓면은 그 ᄆᆞᆷ이 썩어 가민 거름이 뒝 감젓메가 잘 나. 경 헹 키와근엥 그걸로 헤여근에 저 그걸로 메종헷주게. 보통 유월 전이 다 싱거야 뒈여. 유월절 전이 다 농사는 끗나야 뒈여. 아무 농사도. 조고 뭐고 다 끗나야 뒈여. 모ᄆᆞᆯ만 칠월 백중 저기에 모ᄆᆞᆯ 놓는 거난게.[806] 하지광 유월절 새에 농서 다 끗나는 거.[807] 끗나민 물맞이레 가곡게.[808]

804) 임정월 구술.
805) 강부택 구술.
806) 강부택 구술.
807) 임정월 구술.
808) 강부택 구술.

고구마모종은 요새는 뭐 정월에도 놓고 하지만. 그때야 이월 중순 되면 놓지. 모종 놓는 건 이월 되어야. 그땐 옛날엔 이월 중순 되어야. 이제는 비닐 덮고 다 하고 있지만, 그땐 비닐이 없어. 바다에 가서 모자반 해다가, 이제 대폰 해변이니까. 고구마모종 놓을 데 몽땅 모자반을 깔아. 막 그렇게 해서 깔아서 놨다가 그걸 갈아서 그 속에 고구말 묻어. 모종 그렇게 해서 그에 놓으면 그 모자반 썩어 가면 거름이 되어서 고구마모종이 잘 나. 그렇게 해서 키워서 그걸로 하여서 저 그걸로 모종했지. 보통 유월 전에 다 심어야 되어. 유월절 전에 다 농사는 끝나야 되어. 아무 농사도. 조고 뭐고 다 끝나야 되어. 메밀만 칠월 백중 저기에 메밀 놓는 거니까. 하지와 유월절 새에 농사 다 끝나는 거. 끝나면 물맞으러 가고.

(3) 톳 헤치

(이월) 톳 주루. 톳 헤치. 톳은 어촌계에서 관리ᄒᆞ민 어촌계 계원들이 조합원들이 톳 헤치를 헤영 수협에 ᄆᆞᆫ딱 ᄑᆞᆯ주게. 톳 수협에서 사 가는 거. 톳 헤치엔 ᄒᆞ주. 헤치ᄒᆞ는 거. 조합원덜 다 나왕.[809] 톳 허채ᄒᆞ기 전인 가을에부떠 금ᄒᆞ민 이월 삼월ᄁᆞ지 헤치헤나민 그르후젠 두 불 ᄑᆞᆯ지 못ᄒᆞ민 아무라도 기냥 먹곡.[810]

(이월) 톳 주로. 톳 '헤치'[811]. 톳은 어촌계에서 관리하면 어촌계 계원들이 조합원들이 톳 '헤치'를 해서 수협에 몽땅 팔지. 톳 수협에서 사 가는 거. 톳 '헤치'라고 하지. '헤치'하는 거. 조합원들 다 나와서. 톳 '허채'하기 전엔 가을에부터 금하면 이월 삼월까지 '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엔 두 벌 팔지 못하면 아무라도 그냥 먹고.

809) 임정월 구술.
810) 강부택 구술.
811) '톳 헤치'는 톳 채취를 허가하는 일을 말한다.

□ 3월

1) 청명

청명에는 보통으로 풀이 나면은 ᄆᆞᆯ은 ᄒᆞᆫ 말 뜯고 쉐는 닷 뒈 튿넨 ᄒᆞ여, 풀이. ᄆᆞᆯ은 ᄒᆞᆫ 말 뜯고 쉐는 닷 뒈 튿넨 히여. 옛 어른 말로. 경헌디 쉔, 그때는 첨 보통으로 어린 때고 ᄒᆞ민게 아기나 ᄃᆞᆯ곡 쉐나 멕이레 뎅겻주게. 경ᄒᆞ민게 쉐 몰앙 나강 그자 경 ᄒᆞ주게. 청명에, 그 청명날은.[812] 농사짓젠 ᄒᆞ민 쉐 안 질루는 집이 엇어 부난게.[813] 저 보통으로 시제도 ᄒᆞ곡, 산에 손볼 거, 산담 ᄀᆞ튼 것도 손보곡. 청명에 무덤도 손보곡 경 ᄒᆞ주게, 쳉명 때.[814] 건 아무 때나 못ᄒᆞ는 셍이라양? 담 튿어져도.[815]

청명에는 보통으로 풀이 나면은 말은 한 말 뜯고 소는 닷 되 뜯는다고 하여, 풀이. 말은 한 말 뜯고 쇠는 닷 되 뜯는다고 하여. 옛 어른 말로. 그런데 소는, 그때는 참 보통으로 어릴 때고 하면 아기나 보살피고 소나 먹이러 다녔지. 그러면 소 몰아서 나가서 그저 그렇게 하는 하지. 청명에, 그 청명날은. 농사지으려고 하면 소 안 기르는 집이 없어 버리니까. 저 보통으로 시제도 하고, 산소에 손볼 거, '산담[816]' 같은 것도 손보고. 청명에 무덤도 손보고 그렇게 하지, 청명 때. 건 아무 때나 못하는 모양이네요? 담 허물어져도.

812) 강부택 구술.
813) 임정월 구술.
814) 강부택 구술.
815) 임정월 구술.
816)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2) 시제

옛날엔 삼월 초닷샛날 헤근에 시제엔 헷주게. 시제에 가 가지고, 공동묘지 그 제단에 딱 올려근에 그때 ᄒᆞᆫ 번 제지내여. ᄒᆞᆫ 열 시광 열ᄒᆞᆫ 시. 경 형 친척덜 다 올 시간, 막 모영 앚이는 시간이 열 시광 ᄒᆞᆫ 열ᄒᆞᆫ 시 사이민 다 모여. 게민 기자 점심 겸 그디서 제지내근에.[817]

옛날엔 삼월 초닷샛날 해서 시제라고 했지. 시제에 가 가지고, 공동묘지 그 제단에 딱 올려서 그때 한 번 제지내어. 한 열 시와 열한 시. 그렇게 해서 친척들 다 올 시간, 막 모여서 앉는 시간이 열 시와 한 열한 시 사이면 다 모여. 그러면 그저 점심 겸 거기서 제지내서.

□ 4월

1) 초파일

초파일에 절간에 강 부처님안티 그자 불전 올릴 거 돈 아졍 상단에 올리곡. 우리 할망, 이 삼춘 어멍이 절간에 막 상단골이난, 이 삼춘 아긴 때 구덕에 놩 지곡 난 아기업게로 가민. 이 삼춘네 어머니가 우리 할망이주게. 우리 웨할망 오라방 아덜이 이 삼춘이라양. 경 ᄒᆞ민, 이 삼춘 어멍이 언마사 머리빡 좋은디, 아기구덕 졍 가도 절간에 할망이 ᄆᆞᆫ딱 알앙, 가민 허영 갈 게 무시거 엇어. 기자 ᄉᆞᆯ을 졍 가는디, 석○ 어멍ᄀᆞ라, 그 조케ᄀᆞ라

817) 강부택 구술.

ᄒᆞ는 말이 상단에 쓸 걸랑, 그레 보선 ᄀᆞ뜬 걸랑 ᄯᅮ루 아졍 ᄯᅮ루 쌍 강, ᄒᆞᆫ디 아졍 가지 말앙 그 ᄉᆞᆯ 졍 가는 구덕에 놓지 말라. 그런 걸 시기는 거 나가 그때 ᄒᆞ꼼 알아집니다게. 보선은 쓸 ᄉᆞᆯ에 놓지 말라. ᄉᆞᆯ구덕에 놓지 말라. 건 아랫 건 아메도 ᄇᆞᆯ라 부는 건ᄀᆞ라게. 경 헤근에 우리 할망이 우리 삼춘 그 씨누이 ᄯᆞᆯ 될 거주. 그 어른ᄀᆞ라. 그 어른도 나이 막 하도 경 막 시겨. 우리 할망이. 이 삼춘 어멍이 경 ᄒᆞ멍 그 경 절간에, 그땐 광대코지엔 ᄒᆞᆫ 디 가낫수다게. 그 광대코지가 이젠 ᄆᆞᆫ 짓언 엇주마는. 초파일에 머리 가까낫어. 머리 가끄당 요만인 할망머리. ᄆᆞᆫ 까끄지 아년덴. 할망머리 요만은 표적으로 놔 둬. 삼승할망게. ᄆᆞᆫ딱 까끄당양 그날은 똑 까끄주게, 머리덜. 까끄당 ᄒᆞ꼼 넹겨, 꼭데기에.[818]

초파일에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그저 불전 올릴 거 돈 가져서 상단에 올리고. 우리 할머니, 이 삼촌 어머니가 절간에 아주 '상단골'[819]이니까, 이 삼촌 아긴 때 요람에 놔서 지고 난 업저지로 가면. 이 삼촌네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지. 우리 외할머니 오라버니 아들이 이 삼촌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삼촌 어머니 얼마나 머리빡 좋은지, 아기구덕 지고 가도 절간에 할머니가 몽땅 알아서, 가면 하여서 갈 게 무엇 없어. 그저 쌀을 져서 가는데, 석○ 어머니보고, 그 조카보고 하는 말이 상단에 쓸 거는, 그리로 버선 같은 거는 따로 가져서 따로 싸고 가서, 함께 갖고 가지 말고 그 쌀 져서 가는 바구니에 놓지 마라. 그런 걸 시키는 거 내가 그때 조금 압니다. 버선은 쓸 쌀에 놓지 마라. 쌀바구니에 놓지 마라. 건 아랫 건 아마도 밟아 버리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삼촌 그 시누이 딸 될 거지. 그 어른보고. 그 어른도 나이 아주 많아도 그렇게 막 시켜. 우리 할머니가. 이 삼촌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그 그렇게 절간에,

818) 임정월 구술.
819) '상단골'은 굿이나 절에서 늘 정하여 놓고 쓰는 일순위의 사람을 말한다.

그땐 '광대코지'[820]라고 하는 데 갔었습니다. 그 '광대코지'가 이젠 몽땅 지어서 없지만. 초파일에 머리 깎았었어. 머리 깎다가 요만큼 '할망머리'[821]. 몽땅 깎지 않는다고. '할망머리' 요만큼 표적으로 놔 두고. 삼승할머니. 몽땅 깎다가요 그날은 꼭 깎지, 머리들. 깎다가 조금 남겨, 꼭대기에.

2) 생업

(1) 나룩메

ᄉᆞ월에 그때부떠 나룩메 메종 놔서양? 씨 집이서 놩 모 놓젠 허민 집이서 키와야주.[822] 겡 헨에 나룩에 저 논에 강 멧자리에 논 달롸근에 씨 뿌려근에 그디서 저 묘종을 놔. 묘종 나룩메.[823] 그 집이서 다라에서 ᄆᆞ딱 싹을 내왕. 이 삼춘이 쉐 아졍 논에 달롸근에 걸 골로로 뿌리민 것이 막 왕성헤영 이만이ᄒᆞ민 나룩 그걸 뽑아근에 싱그는 거, 이중헤여.[824]

논 달루는 건 밧갈이로 갈아서 이제 그 나룩메 이중허젠 ᄒᆞ민 논 달롸야주게. 서으레로 이렇게 헤근에 달롸게. 헹 갓다왓다 갓다왓다. 그 벙뎅이지. 즉 말하면 벙뎅이를 ᄆᆞᆫ 풀류와. 경허민 물에 문작ᄒᆞ게 풀리면은 묫자리 거 뽑아다근에 그레 싱것어. 묘를 심그민 경 ᄒᆞ민 나룩.[825] 이 삼춘은 소리도 잘ᄒᆞ고 그것도 잘허여. 서으레질.[826] 서으레질헤난 다음에는 밀레질ᄒᆞ곡.

820) '광대코지'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바다 이름이다.
821) '할망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있던 머리를 말한다.
822) 임정월 구술.
823) 강부택 구술.
824) 임정월 구술.
825) 강부택 구술.
826) 임정월 구술.

밀레질 그 즉 말허자민 그 펄을 잘 골르지, 반득ᄒᆞ게. 이거 모냥으로 반득허게. 서으레는 쉐로 메왕 끗고, 끗어난 다음에 밀레질은 사름의 힘으로.[827] 넙작ᄒᆞᆫ 걸로 영 굴리는 거.[828] 반득ᄒᆞ게 골라, 이추룩. 이거 모냥으로 반득ᄒᆞ게 골라근에. 엿날에는 그 묘를 산파로 싱것어.[829] 줄 아녕게.[830] 산파엔 ᄒᆞᆫ 말은 일로일로 ᄆᆞ음대로 심건디, 이제는 글루후제는 조파로 그 줄 심어서 그 줄에 꼿 ᄃᆞᆯ앙 꼿에 하나썩 딱딱 싱것는디 마지막엔 엿날에는 산파로. 이디 싱그민 이디 싱그곡. 요디 싱그민 요디 싱그곡 그레저레 기냥 손 노리는 냥 ᄒᆞ곡, 트멍나는 냥. 트멍난 디만. 게민 그걸 산파. 마음대로 싱그는 건 산파. 또 조파엔 헌 건 줄 감아가지고 꼿 ᄃᆞᆯ아. 이추룩 꼿 ᄃᆞᆯ아. 여기 싱그고 이런 디 싱그고 줄 맞촹 쫙. 게민 그때는 이추룩헌 거 기계로 검질을 멧주게. 기계로 영 영ᄒᆞ멍. 옛날은 손으로 검질을 메고 굽어 가지고.[831]

사월에 그때부터 볏모 모종 놨지요? 씨 집에서 놔서 모 놓으려고 하면 집에서 키워야지. 그렇게 해서 벼에 저 논에 가서 못자리에 논 다뤄서 씨 뿌려서 거기서 저 모종을 놔. 모종 볏모. 그 집에서 대야에서 몽땅 싹을 내워서. 이 삼촌이 소 가져서 논에 다뤄서 걸 골고루 뿌리면 것이 아주 왕성해서 이만큼하면 벼 그걸 봅아서 심는 거, 이종해.

논 다루는 건 밭갈이로 갈아서 이제 그 볏모 이종하려고 하면 논 다뤄야지. 써레로 이렇게 해서 다뤄. 해서 갔다왔다 갔다왔다. 그 덩어리지. 즉 말하면 덩어리를 몽땅 풀어. 그러면 물에 '문작ᄒᆞ게[832]' 풀리면 못자리 거 봅아다가 그리로 심었어. 모를 심으면 그렇게 하면 벼. 이 삼촌은 소리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 써레질. 써레질한 다음

827) 강부택 구술.
828) 임정월 구술.
829) 강부택 구술.
830) 임정월 구술.
831) 강부택 구술.
832) '문작ᄒᆞ다'는 논의 흙덩이를 덩어리가 없게 잘 풀린 상태이다.

에는 '밀레질'하고. '밀레질' 그 즉 말하자면 그 펄을 잘 고르지, 반듯하게. 이거 모양으로 반듯하게. 써레는 소로 메워서 끌고, 끌고 난 다음에 '밀레질'은 사람의 힘으로. 넙적한 걸로 이렇게 굴리는 거. 반듯하게 골라, 이처럼. 이거 모양으로 반듯하게 골라서. 옛날에는 그 모를 산파로 심었어. 줄 않고. 산파라고 한 말은 일로일로 마음대로 심는 건데, 이제는 그 이후에는 '조파'로 그 줄 잡아서 그 줄에 꽃 달아서 꽃에 하나씩 딱딱 심었는데 마지막엔 옛날에는 산파로. 여기 심으면 여기 심고. 여기 심으면 여기 심고 그리로저리로 그냥 손 놀리는 대로 하고, 틈나는 대로. 틈난 데만. 그러면 그걸 산파. 마음대로 심는 건 산파. 또 '조파'라고 한 건 줄 감고 꽃 달아. 이처럼 꽃 달아. 여기 심고 이런 데 심고 줄 맞춰서 쫙. 그러면 그때는 이 처럼한 거 기계로 김을 맸지. 기계로 이렇게 이러면서. 옛날은 손으로 김을 매고 굽어 가지고.

□ 5월

1) 단오

그 옛날엔 단오 멩질 조금 헤난 거 알아집니다. 상 엇이 우리 씨어멍네도 ᄒᆞ꼼 헤낫수다. 아침이 이녁 식솔만. 그자 저 상도 안 ᄎᆞ리곡, 평풍도 아녕 것ᄀᆞ라 함박지엔 헨게. 경 형 구신 쓰렌 낭푼이에 밥 ᄒᆞᆫ 숟구락 구신 쓰렌 꼽아근에 문전 내놔근에 경 형 절도 아녀곡, 그자 ᄒᆞ꼼 케우려도근에 조반에. 것ᄀᆞ라 단오 멩질이엔 경헨디, 아무 집이 아녕, 우리 집만 ᄒᆞ꼼 허여나고. 상○네 집인 단오 멩질 막 크게 헤난 거 닮아. 단오 멩질이주. 막, 우리 안 난 땐 헤난 셍입디다게. 경 ᄒᆞᆫ덴. 우리 씨어머니 아이덜 군인 간 죽으난 셍각헨 헤난 거 닮아. 나 셍각엔. 돈도 나오곡 ᄒᆞ난.[833] 우린 단오 멩질

헌 기억이 안 나. 별로 단오 멩질은 아녀낫어.[834]

그 옛날엔 단오 명질 조금 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상 없이 우리 시어머니네도 조끔 했었습니다. 아침에 이녁 식솔만. 그저 저 상도 안 차리고, 병풍도 않고 것보고 함지박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귀신 쓰라고 양푼에 밥 한 숟가락 귀신 쓰라고 꽂아서 문전 내놔서 그렇게 해서 절도 않고, 그저 조금 고수레해 두고 조반에. 것보고 단오 명질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집에 않고, 우리 집만 조금 했었고. 상○네 집엔 단오 명질 아주 크게 했던 거 같아. 단오 명질이지. 아주, 우리 안 난 땐 했던 모양입디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시어머니 아이들 군대 가서 죽으니까 생각해서 했던 거 같아. 내 생각엔. 돈도 나오고 하니까. 우린 단오 명질 한 기억이 안 나. 별로 단오 명질은 않았었어.

2) 망종

오월 망종엔 보릴 다 헌다는 거주게. 오월 망종에는 보릴 다 헤여. 경ᄒᆞ민 그때민 보릿그르를 갈아. 다음 농서ᄒᆞᆯ 준비를. 이제 번헹 놧다근에 감저도 심그곡 조도 갈곡 산디도 갈곡 콩도 갈곡 다. 그때 보릿그를에 다 허는 거라.[835]

오월 망종엔 보릴 다 한다는 거지. 오월 망종에는 보릴 다 해. 그렇게 하면 그때면 '보릿그루'[836]를 갈아. 다음 농사할 준비를. 이제 애벌갈이 해서 놨다가 고구마도 심고 조도 갈고 밭벼도 갈고 콩도 갈고 다. 그때 '보릿그루'에 다 하는 거야.

833) 임정월 구술.
834) 강부택 구술.
835) 강부택 구술.
836) '보릿그루'는 보리를 갈고 난 밭 또는 그 터를 말한다.

3) 생업

(1) 감저 싱그기

감저 심그는 디만 번헙니다. 고구마 싱그는 디.[837] ᄒᆞᆫ 십오 일 이십 일경쯤에 시작ᄒᆞ주게. 감저 심그기 시작. 고구마 심고. 양벳띠기. 이베가 잦히곡, 일로 가멍 일로 잦히곡 헤서 고지 멩글곡. 그건 번헹 놧당 ᄒᆞᆯ 때는 양벳띠기로 이레 영 어프곡, 일로 가멍 영 어펑 고지 멩글아. 또 번ᄒᆞ지 아년 밧은 저 안 갈아진 디 엇이 갈젠 ᄒᆞ면은 ᄒᆞᆫ 세 벳, 네 벳 뎅겨사. 게사 ᄒᆞᆫ 고지 멩글곡. 경 헤사 멘들곡. 번헹 놔둔 딘 양베로 갈아근에 ᄒᆞ면은 고지 ᄒᆞᆫ 고지에 감절 ᄒᆞᆫ 고지 심그곡. 경 헤연. 감젓메 놔근에 순 나근에 그거 짤라다근에 그걸로.[838] 구감 말아 순 난 거, 순 난 거.[839]

고구마 심는 데만 애벌갈이합니다. 고구마 심는 데. 한 십오 일 이십 일경쯤에 시작하지. 고구마 심기 시작. 고구마 심고. '양벳띠기'[840]. '이베'가 젖히고, 이리로 가면서 이리로 젖히고 해서 이랑 만들고. 그건 애벌갈이해서 놨다가 할 때는 '양벳띠기'로 이리로 이렇게 엎고, 이리로 가면서 이렇게 엎어서 이랑 만들어. 또 애벌갈이하지 않은 밭은 저 안 갈아진 데 없이 갈려고 하면 한 세 벗, 네 벗 다녀야. 그래야 한 이랑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만들고. 애벌갈이해서 놔둔 덴 '양베'로 갈아서 하면 이랑 한 이랑에 고구말 한 이랑 심고. 그렇게 했어. 고구마모종 놔서 순 나서 그거 잘라다가 그걸로. '구감[841] 말고 순 난 거, 순 난 거.

837) 임정월 구술.
838) 강부택 구술.
839) 임정월 구술.
840) '양벳띠기'는 두 개의 고랑으로 한 이랑을 이루는 밭갈이를 말한다.

□ 6월

1) 유월 쑤무날

유월 쑤무날. ᄃᆞᆨ 질롸야 뒈어. 집집마다 다 ᄃᆞᆨ 잇어낫어. ᄃᆞᆨ.[842] 그땐이 우리 집 ᄀᆞ뜨민 ᄃᆞᆨ 세 자릴 질롸. 정월부떠 헤여근에 ᄑᆞᆯ곡. ᄑᆞᆯ다근에 ᄃᆞᆨ세기가 세 자리 난덴. 세 번 난덴. 멘 다 천지주게.[843] 정월부떠 헤여근에 ᄃᆞᆨ세기 나곡, ᄃᆞᆨ세기 나오민 독독 메왕 놧다근에 그자 앚어근에 그게. 경 헹 집이서 다 헤근엥.[844] 경 헹 아무 디 강 못 나게 어디라도 그 ᄃᆞᆨ세길 깨우주게. 열ᄋᆞ슷 개 앉앙 놔두민 하나씩만 다 남기곡 다 비에기 깨우주게. 겨난 ᄆᆞᆫ 질루진 못ᄒᆞ주게. 것도 죽어 붐도 ᄒᆞ곡, 어떵 ᄃᆞᆨ도 말 안 듣는 식으로 이녁 애기 좃아 붐도 ᄒᆞ곡.[845]

유월 스무날. 닭 길러야 되어. 집마다 다 닭 있었었어. 닭. 그땐 우리 집 같으면 닭 세 자릴 길러. 정월부터 하여서 팔고. 팔다가 달걀이 세 자리 난다고. 세 번 난다고. 맨 다 천지지. 정월부터 해서 달걀 나고, 달걀 나오면 '독독' 메워서 놨다가 그저 앉아서 그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 데 가서 못 나게 어디라도 그 달걀을 까지. 열여섯 개 앉아서 놔두면 하나씩만 다 남기고 다 병아리 까지. 그러니까 몽땅 기르진 못하지. 것도 죽어 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닭도 말 안 듣는 식으로 이녁 아기 쪼아 버리기도 하고.

---

841) '구감'은 고구마 모종을 위해 심었던 해묵은 고구마를 말한다.
842) 강부택 구술.
843) 임정월 구술.
844) 강부택 구술.
845) 임정월 구술.

• **돜 잡아먹는 날**

식솔 보통으론 그땐 일고ᄋᆞ답씩 살앗주게. 하나 두 개쯤 그거 솖아근에 우리 집인 또 도야지고기 다 못 먹는 집이난에 돜 세 개 솖앙 ᄋᆞ답 식귀 막 갈라 먹어난 거 닮아. 열 식구가 사난게. 아기덜 하영 날 때난.[846] 보통으로 ᄒᆞᆫ 식솔이 보통으로 ᄋᆞ숫 식구 열 식구가 보통입주게, 엿날엔. 이거 이상헌 말 ᄀᆞ뜨지마는 나가 ᄆᆞᆫ이로 나 놓으니깐 식솔은 하지 매날 아기라. ᄒᆞᆨ교 못 가. 아기 ᄃᆞᆯ아야지. 새쉐 멕이레 가야지. 게니까 ᄒᆞᆨ교 갈 시간이 없어. 공부ᄒᆞᆯ 시간이 없어. 게민 잘 가민 깍방이라. 베와야 ᄒᆞᆯ 거 아니라. 연도 못 올려봣어. 연도 못 올려 봣어. 식솔이 하 놓니까. 아기만 매날 업엉 놀레 가곡. 아기만 ᄃᆞᆯ곡.[847] 이 집이 아방은 국민ᄒᆞᆨ교 마당에도 아이 가왓수다. 우리 집 아방은. 이 삼춘은 큰아덜로 나난게 셈이 좋게 애기 ᄃᆞᆯ단 보난게 아무것도 못 ᄒᆞ연게.[848]

식솔 보통으론 그땐 일고여덟씩 살았지. 하나 두 개쯤 그거 삶아서 우리 집은 또 돼지고기 다 못 먹는 집이니까 닭 세 개 삶아서 여덟 식구 막 나눠 먹었던 거 같아. 열 식구가 사니까. 아기들 많이 낳을 때니까. 보통으로 한 식솔이 보통으로 여섯 식구 열 식구가 보통입지요, 옛날엔. 이거 이상한 말 같지마는 내가 맏이로 태어나 놓으니깐 식솔은 많지 맨날 아기야. 학교 못 가. 아기 돌봐야지. '새쉐'[849] 먹이러 가야지.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잘 가면 '깍방'이야. 배워야 할 거 아닌가. 연도 못 날려 봤어. 연도 못 날려 봤어. 식솔이 많아 놓으니까. 아기만 맨날 업어서 놀러 가고. 아기만 돌보고. 이 집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마당에도 아니 갔었습니

846) 임정월 구술.
847) 강부택 구술.
848) 임정월 구술.
849) '새쉐'는 '길들이지 않는 어린 소'를 말한다.

다. 우리 집 아버지는. 이 삼촌은 큰아들로 나니까 셈이 좋게 아기 돌보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 했어.

2) 대서

대서에 헌 거 베랑 뭐헌 거 엇어. 검질메메. 감저밧딘 주로 ᄒᆞᆫ불 메여. 줄 더꺼져 가민.[850] 두 번 메사주.[851] 조밧딘 그디도 두 번 메어.[852] 잘 메는 사름은 세불 메곡게. 아녀민 두불. 콩밧디도 마찬가지.[853]

대서에 한 거 별로 뭐한 거 없어. 김매어. 고구마밭엔 주로 초벌 매어. 줄 덮어져 가면. 두 번 매야지. 조밭엔 거기도 두 번 매. 잘 매는 사람은 세벌 매고. 않으면 두벌. 콩밭에도 마찬가지.

3) 생업

(1) 조 ᄇᆞᆯ리기

조 ᄇᆞᆯ릴 때게 밧 갈앙 좁씨 삐영. ᄆᆞᆯᄆᆞ쉬 서너 개, 할수록 좋아. 겐디 하영 ᄒᆞ질 못ᄒᆞ여.[854] 젤 큰 거 앞이 ᄃᆞᆯ아메영.[855] 연메엉 ᄆᆞᆫ딱 ᄃᆞᆯ아메여. 경 헤근에 ᄒᆞᆫ 사름이 ᄆᆞᆯ놉도, 집이 식솔이 한 사름 남으민 그걸 조름에서

850) 임정월 구술.
851) 강부택 구술.
852) 임정월 구술.
853) 강부택 구술.
854) 강부택 구술.
855) 임정월 구술.

몰아. 소리ᄒᆞ멍. 경 헤근에 ᄇᆞᆯ렷주게.[856]

조 밟을 때 밭 갈아서 좁씨 뿌려서. 마소 서너 개, 많을수록 좋아. 그런데 많이 하질 못해. 젤 큰 거 앞에 매달아서. '연메엉'[857] 몽땅 매달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ᄆᆞᆯ놉'[858]도, 집에 식솔이 많은 사람 남으면 그걸 꽁무니에서 몰아. 소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밟았지.

(2) 자리젓 담기

칠월부터 먹읍니다. 칠월부터 막 좋아. 유월 자리가 췌고라. 전이 담으민 너미 ᄉᆞᆯ경 못 먹는 따문. 딱 유월달에 젯 담아사주. 삼월에, 오월에서부떠 담앗자 ᄉᆞ월 담은 건 ᄒᆞ꼼 조락진덴. 견디 우리 순○, 저 동뜨레 삼촌, 자리젯 우리 그때 백 말썩 담아낫주게. 우리 큰년이 장서ᄒᆞ는 따문. 게민 우리 삼춘네 자리 쑤무 말 담으민 동○네 배 거, 성○네 배 거 쑤무 말, 딱 벡 말 담아지민, 나가 더 안 담주게. 경 ᄒᆞ민 그때 놈덜은 저울에 올린덴 헤도 난 경 아녀. 기자 다라에 비왕 버무령 그걸 딱 놔두민 둣날 아칙이 그 물을 헤우멍. 소금이 원 엇이민 통에 담앙 ᄒᆞ꼼 뿌리곡. ᄒᆞ꼼 시민 아슬아슬 시민 기냥 놔두민 백 프로 맞아. 자리를 일주일 동안은 자꾸 봐야. ᄒᆞ꼼 흐랑흐랑ᄒᆞ민 싱겁곡 고들고들ᄒᆞ민, 우리 순○ 어멍안티 거 베왓수다. 그날 버무령 담지 아녕. 다라에 놔 불민 낼 아칙 담을 땐 영 보민 자리가 흘랑흘랑ᄒᆞ민 소금을 더 놓곡 고들고들헤민 그 물에 헹, 막 담아난 그 물이 잇주게. 그 물은 놓지 말앙, 자리에 소금이랑 놓지 말앙 그 소금 ᄒᆞ꼼 신

856) 강부택 구술.
857) '연매다'는 말을 앞뒤로 연이어서 매다는 의미다.
858) 'ᄆᆞᆯ놉'은 조밭을 밟기 위해서 빌려온 말을 말한다.

것들에 놔두민 그 물 문 놓민 막 넘주게. 궤어 가민 자리만 건져 놔도 글로 물이 나. 게민 그 소금 흐랑흐랑ᄒᆞᆫ 땐 소금 폭 더껑 놔 두민 그자 그 소금 녹아가멍 물이 낭 딱 ᄀᆞᆫ 맞주게. 자리젯 백 말, 나 막 멧 해 헤연. 소금 더꺼근에 멘헝겊 꽉ᄒᆞ게 꼴아근에. 바당돌 헤다근에 ᄌᆞ근ᄌᆞ근 지둘랑 우리 하영. 난 통에 고무 드는 따문, ᄒᆞ당 버치난 이젠 널착을 ᄌᆞᆫᄌᆞᆫᄒᆞ게 톱으로 싸근에 맞게 헤영 돌 항에 널착 지둘랑 돌 두 개만 지둘민 딱 맞주게. 경ᄒᆞ민 문 익으민 우리 큰뚤, 우리 족은아덜 차로 드러 시꺼당 풀단, 이제 무사 아념딘 ᄒᆞ난, 한림서 자리젓 담는 사름 싯젠. 그 해산물 ᄒᆞ는 디게. ᄒᆞ난 그디서 문 양념ᄒᆞ곡 문딱 헹 아져다준덴.[859]

칠월부터 먹습니다. 칠월부터 아주 좋아. 유월 자리돔이 최고야. 전에 담그면 너무 살쪄서 못 먹는 때문. 딱 유월달에 젓 담가야지. 삼월에, 오월에서부터 담가도 사월 담근 건 조금 떫다고. 그런데 우리 순○, 저 '동뜨레'[860] 삼촌, 자리젓 우리 그때 백 말씩 담갔었지. 우리 큰딸이 장사하는 때문. 그러면 우리 삼촌네 자리돔 스무 말 담그면 동○네 배 거, 성○네 배 거 스무 말, 딱 백 말 담그면, 내가 더 안 담그지. 그렇게 하면 그때 남들은 저울에 올린다고 해도 난 그렇게 않아. 그저 대야에 부어서 버무려서 그걸 딱 놔두면 뒷날 아침에 그 물을 헹구면서. 소금이 전혀 없으면 통에 담아서 조금 뿌리고. 조금 있으면 아슬아슬 있으면 그냥 놔두면 백 프로 맞아. 자리돔을 일주일 동안은 자꾸 봐야. 조금 '흐랑흐랑'하면 싱겁고 '고들고들'하면, 우리 순○ 어머니한테 거 배웠습니다. 그날 버무려서 담지 않고. 대야에 놔 버리면 낼 아침 담글 땐 이렇게 보면 자리돔이 '흘랑흘랑'하면 소금을 더 놓고 '고들고들'하면 그 물에 해서, 막 담갔던 그 물이 있지. 그 물은 놓지 말고, 자리돔에 소금이랑 놓지 말고 그 소금 조금 있는 것들에 놔두면

859) 임정월 구술.
860) '동뜨레'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지명 이름이다.

그 물 몽땅 놓으면 막 넘지. 괴어 가면 자리돔만 건져 놔도 그리로 물이 나. 그러면 그 소금 '흐랑흐랑한' 땐 소금 폭 덮어서 놔 두면 그저 그 소금 녹아 가면서 물이 나서 딱 간 맞지. 자리젓 백 말, 나 아주 몇 해 했어. 소금 덮어서 면 헝겊 꽉하게 깔아서. 바닷돌 해다가 차근차근 지질러서 우리 많이. 난 통에 고무 드는 때문, 하다가 부치니까 이젠 널판을 자잘하게 톱으로 켜서 맞게 해서 돌 항에 널판 지질러서 돌 두 개만 지지르면 딱 맞지. 그렇게 하면 몽땅 익으면 우리 큰딸, 우리 작은아들 차로 마구 실어다가 팔다가. 이제 왜 않느냐고 하니까, 한림서 자리젓 담그는 사람 있다고. 그 해산물 하는 데. 하니까 거기서 몽땅 양념하고 몽땅 해서 가져다 준다고.

□ 7월

1) 요왕제

칠석엔 절간에 가민 절간에서 막 촛불 불공ᄒᆞ영 바당에 강 요왕제로 지넵니다게. 칠석제는 요왕, 하도 들어도 잊어 벳져. 절간에 가믄 마지막은 바당으로 강 마무리헙니다게. 스님이 강. 우리 신도들도 ᄆᆞᆫ딱 가곡. 우린 이제 늙으난 헴주. 전인 막 대포 사름이영 월평 사름, 약천사에 ᄆᆞᆫ딱 헤영 갑니다. 이 삼춘넨 만디섬 가오랏주. 아무라도 절간에 갈 땐 만디섬에 가. 중문이 광명사. 엿날엔 만디섬, 만디섬. 그 도량 일름이 만디섬이주게.[861] 도량 일름이. 겐디 그 절 이름은 광명사.[862] 불공 드리곡 강 지 드리곡.[863] 자손덜 기원ᄒᆞ주게. 잘 뒈게 헤ᄃᆞ렌.[864]

---

861) 임정월 구술.
862) 강부택 구술.
863) 임정월 구술.

칠석엔 절간에 가면 절간에서 막 촛불 불공해서 바다에 가서 용왕제로 지냅니다. 칠석제는 용왕, 하도 들어도 잊어 버렸다. 절간에 가면 마지막은 바다로 가서 마무리합니다요. 스님이 가서. 우리 신도들도 몽땅 가고. 우린 이제 늙으니까 하고 있지. 전엔 아주 대포 사람이랑 월평 사람, 약천사에 몽땅 해서 갑니다. 이 삼촌넨 '만디섬'[865] 다녀왔지. 아무라도 절간에 갈 땐 '만디섬'에 가. 중문동 광명사. 옛날엔 '만디섬', '만디섬'. 그 도량 이름이 '만디섬'이지. 도량 이름이. 그런데 그 절 이름은 '광명사'. 불공 드리고 가서 지 드리고. 자손들 기원하지. 잘 되게 해달라고.

2) 백중

엿날에사 재우 ᄒᆞᆫ 집이 ᄒᆞᆫ나 ᄒᆞ민 사당대죽 그거 갈앙 나뒁, 그거 비영 이만썩 ᄆᆞ디로 그차근에 그거 뚤어메근에 경 헤근에 구시물이라고 저 약천사 옘에 그디 내가 잇어. 그디 강 물맞곡 경 헤여. 바당에 많이 가곡. 바당에도 가주만은 ᄌᆞᆷ녀 아닌 사름 보통 그디 갑니다.[866] 곤밥ᄒᆞ곡 갈치 굽곡 구시물에 놀레 가. 바당에 구시물. 것ᄀᆞ라 구시물이엔 ᄒᆞᆸ니다. 그디양, 대포 사름 다 오곡. 막 그 물 좋읍니다. 가인으로 제지넵니다. 큰개물, 개당. 해녀덜 다 갑니다. 건강ᄒᆞ곡, 고기도 잘 잡곡. 물건 잘 잡으렌 백중제.[867]

엿날에야 겨우 한 집에 하나 하면 사탕수수 그거 갈아서 나두고서, 그거 베어서 이만큼씩 마디로 잘라서 그거 둘러매어서 그렇게 해서 '구시물'이라고 저 약천사 근처

---

864) 강부택 구술.
865) '만디섭'은 서귀포시 대포동의 지경 이름이다.
866) 강부택 구술.
867) 임정월 구술.

에 거기 내가 있어. 거기 가서 물맞고 그렇게 해. 바다에 많이 가고. 바다에도 가지만 잠녀 아닌 사람 보통 거기 갑니다. 흰밥하고 갈치 굽고 '구시물'에 놀러 가. 바다에 '구시물'. 것보고 '구시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요, 대포 사람 다 오고. 아주 그 물 좋습니다. 개인으로 제지냅니다. '큰개물', '개당'. 해녀들 다 갑니다. 건강하고, 고기도 잘 잡고. 물건 잘 잡으라고 백중제.

3) 물맞이

물맞이레게, 선귓내라고 줌녀 아닌 사름덜은 ᄆᆞᆫ딱 그디 갑니다.[868] 그땐 여름 내낭 일헤나민 백중날 물맞이레 갑니다. 곤밥ᄒᆞ곡, 갈치 굽곡, 궤기 그차 놓곡. 줌녀덜은 바다에 강 물질ᄒᆞ곡.[869]

물맞으러, '선귓내'[870]라고 해녀 아닌 사람들은 몽땅 거기 갑니다. 그땐 여름 내내 일하고 나면 백중날 물맞으러 갑니다. 흰밥하고, 갈치 굽고, 고기 잘라 놓고. 잠녀덜은 바다에 가서 물질하고.

4) 입추 · 처서

농사는 그때 주로 이 나룩 헤영. 보통으로 그때는 분무기가 엇엇주게. 약ᄒᆞ는 기계가 엇이니까 클방에 나는 지름, 방에공장 나는 기름이나 아졍 강 그 논에 ᄒᆞ끔 헤여근에 손으로 헤우멍 그런 약을 헷주. 그 뭐 지는 기계가 엇곡, 농약이 엇은 때라 놓니까, 그런 거벳기 안 헤봣어.[871] 체서 돌아와

868) 강부택 구술.
869) 임정월 구술.
870) '선귓내'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내 이름이다.

가민 검질이 울멍 돌아간덴 ᄒᆞᆸ디다. 체서 돌아와 가민 여름이 다 뒛다는 뜻이주게.[872] 날 검질도 안 난덴 ᄒᆞ여. 엿날 속담.[873]

체서 뒈가민 검질도 울멍 돌아간덴. 나지 못헹. 우리 검질메멍 겡 ᄀᆞᆯ아낫어. 사지 불르렌 ᄒᆞ민 할망덜 백중 체서 돌아와 가민 검질도 울멍 돌아감젠 ᄒᆞ멍 막 옛날 할망덜 사지 불러낫어. 검질메멍.[874]

농사는 그때 주로 이 벼 해서. 보통으로 그때는 분무기가 없었지. 약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정미소에 나는 기름, 방앗간에 나는 기름이나 갖고 가서 그 논에 조끔 하여서 손으로 헹구면서 그런 약을 했지. 그 뭐 지는 기계가 없고, 농약이 없을 때라 놓으니까, 그런 거밖에 안 해봤어. 처서 돌아와 가면 김이 울면서 돌아간다고 합디다. 처서 돌아와 가면 여름이 다 끝났다는 뜻이지. 날 김도 안 난다고 하여. 옛날 속담.

처서 돼가면 김도 울면서 돌아간다고. 나지 못해서. 우리 김매면서 그렇게 말했었어. '사지'[875] 부르라고 하면 할머니들 백중 처서 돌아와 가면 김도 울면서 돌아간다고 하면서 아주 옛날 할머니들 '사지' 불렀었어. 김매면서.

□ 8월

1) 벌초

871) 강부택 구술.
872) 임정월 구술.
873) 강부택 구술.
874) 임정월 구술.
875) '사지'는 '김매는 소리'를 대포동에서 하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사대'라고 한다.

팔월절만 들민게 팔월 초ᄒᆞ룻날은 벌초ᄒᆞ주게. 집안마다 ᄯᅳ나. 이 ᄎᆞ가지에부떠 소분헤도근에 마지막엔 종손으로 헤근에 ᄆᆞᆫ딱 모다졍 큰산에 가 가지고, 젤 큰산 하르방산에 ᄌᆞ손덜이 ᄆᆞᆫ 모앙 합동으로 그 소분ᄒᆞ고. 모둠벌초는 우린 권당이 ᄒᆞᆫ엇이 오래뒌 권당도 아니고 추당도 아니난에 먼디서부터 ᄎᆞᄎᆞᄎᆞᄎᆞ ᄒᆞ영 ᄂᆞ려와근에 이 마지막엔 젤 가까운 디 헤근에, 경 뭐 큰산에 ᄒᆞᆫ번에 모영 ᄒᆞ거나 ᄒᆞ여 보진 아녀고. 산 하. 우리 이번 ᄒᆞᆫ번이 이장헤 보젠 ᄒᆞᆫ 산이 수정 세 보니까 오십 멧 자리엔 ᄒᆞ던가. 거 다 이장을 ᄒᆞ자 영 헷는디 그것도 ᄆᆞ음과 뜻대로 안 뒌. 반대ᄒᆞ는 쪽도 잇고, 찬성ᄒᆞ는 쪽도 이서 놓난. 게난에 찬성ᄒᆞ는 디 잇고 반대ᄒᆞ는 디 잇는디 기자 그 밧주인이 요구ᄒᆞ는 산만 ᄒᆞ기로 헨에 이제 ᄒᆞ는 중이주게이. 이제 이번 오월 십삼일날도 두 자리 ᄒᆞ는 셍이란게. 이젠 나이가 늙어 놓난 참석은 못ᄒᆞ는디 그 우리 큰조케영 완 이번 십삼일 헴수덴 ᄒᆞ난에, 가족묘지에. 겐디 총계로는 ᄒᆞᆫ 육십 자리가 이신 거 닮아.[876]

'팔월절'만 들면 팔월 초하룻날은 벌초하지. 집안마다 달라. 이 'ᄎᆞ가지'에부터 소분해두고 마지막엔 종손으로 해서 몽땅 모여서 '큰산'[877]에 가서, 젤 '큰산' 할아버지 산소에 자손들이 몽땅 모여서 합동으로 그 소분하고. '모둠벌초[878]'는 우린 권당이 한없이 오래된 권당도 아니고 추당(?)도 아니니까 먼 데서부터 차차차차 해서 내려와서 이 마지막엔 젤 가까운 데 해서, 그렇게 뭐 '큰산'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거나 하여 보진 않고. 산소 많아. 우리 이번 한번 이장해 보려고 한 묘가 이 숫자 세어 보니까 오십 몇 기라고 하던가. 거 다 이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음과 뜻대로 안 되었어.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찬성하는 데 있고 반대하

876) 강부택 구술.
877) '큰산'은 윗대의 산소라는 의미다.
878) '모둠벌초'는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벌초를 말한다.

는 데 있는데 그저 그 밭주인이 요구하는 산소만 하기로 해서 이제 하는 중이지. 이제 이번 오월 십삼일도 두 기 하는 모양이던데. 이젠 나이가 늙어 놓으니까 참석은 못하는데 그 우리 큰조카랑 와서 이번 십삼일 하고 있습니다고 하니까, 가족묘지에. 그런데 총계로는 한 육십 기가 있는 거 같아.

2) 팔월 멩질

엿날에는 우리가 영 셍각헤 보면은 보통으로 못살아십주게. 못사니까 잘사는 집이 서배 가서 떡 얻어먹으레. 우리 아은 때 경 형 무신 떡을 얻어먹느냐면 출떡. 그 곤떡으로 멩근 출떡 잇어. 그걸 얻어먹으레 가젠 ᄒᆞ민, 그건 또 아무 집이나 아녀. 부젯칩이라야. 게난 그디 강 역불로 서배 가 가지고 그거 떡 얻어먹으레 경 형 간 적이 잇는디. 이제는 촘 다 잘사는 사름이나 못사는 사름이나 다 펭등이 살아 놓난, 똑ᄀᆞ찌 출려 놘. 아, 그런 것도 엇어.[879] 삼춘네만 경 헷어? 집안마다 경 헷어, 그때. 상웨떡은 옛날은 토종밀로 ᄀᆞ레에 ᄀᆞ레 골앙 헤낫인디. 이 웨밀ᄀᆞ루 나온 후젠 막 상웨떡 헤근에 건 쓰진 아녀. 궨당덜 갈라 먹젠. 추석 때. (정월엔) 그땐 좁쏠ᄀᆞ루로 쉬 놔근에 떡 치민 좁쏠ᄀᆞ루에 고구마 썰어 놓곡 호박 썰어 놩 침떡을 치민 경 맛 좋아. 곤침떡은 상에 올리곡. 무적떡은 궨당덜 하민 것ᄀᆞ라 저 갈라 먹는 떡으로 쟁반에 놓멍 거 궨당덜 반 놩 주는 따문. 감자도 썰어 놓곡 놈삐도 썰어 놓곡 호박 썰어 놩 그거 조떡 ᄀᆞ튼 거 치민 경 맛 좋주게. 것ᄀᆞ라 무적떡. 무 짤라 놩 먹넨 무적떡. 정월 멩질에, 제서 때 ᄀᆞ튼 디. 팔월도 그거 ᄒᆞ주만은 그 제서에 쓰는 건 백시리. 상웨떡은 갈라 먹젠 ᄒᆞ는 거. 대포 팔월 추석날 노래자랑ᄒᆞ주게. 부락에서.[880]

879) 강부택 구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으로 못살았습죠. 못사니까 잘사는 집에 세배 가서 떡 얻어먹으러. 우리 아인 때 그렇게 해서 무슨 떡을 얻어먹느냐면 찰떡. 그 흰떡으로 만든 찰떡 있어. 그걸 얻어먹으러 가려고 하면, 그건 또 아무 집에나 안 해. 부잣집이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부러 세배 가 가지고 그거 떡 얻어먹으러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제는 참 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살아 놓으니까, 똑같이 차려 놔서. 아, 그런 것도 없어. 삼촌네만 그렇게 했어? 집안마다 그렇게 했어, 그때. 상화떡은 옛날은 토종밀로 맷돌에 맷돌 갈아서 했었는데. 이 왜밀가루 나온 후엔 막 상화떡 해서 건 쓰진 않아. 권당들 나눠 먹으려고. 추석 때. (정월엔) 그땐 좁쌀가루로 소 놔서 떡 찌면 좁쌀가루에 고구마 썰어 놓고 호박 썰어 놔서 시루떡을 찌면 그렇게 맛 좋아. '곤침떡'[881]은 상에 올리고. '무적떡'은 권당들 많으면 것보고 저 나눠 먹는 떡으로 접시에 놓으면서 거 권당들 반기 놔서 주는 때문. 고구마도 썰어 놓고 무도 썰어 놓고 호박 썰어 놔서 그거 '조떡' 같은 거 찌면 그렇게 맛 좋지. 것보고 '무적떡'. 무 잘라 놔서 먹는다고 '무적떡'. 정월 명질에, 제사 때 같은데. 팔월도 그거 하지만 그 제사에 쓰는 건 '백시리'[882]. 상화떡은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대포 팔월 추석날 노래자랑하지. 마을에서.

3) 생업

(1) 촐 비기

멩질 끗나면은 이제 촐 빌 정도게. 집집마다 쉐 질롸 놓니까. 말이나 쉘 다 질롸 놓니까 거 준빌 헤여. 새 메당 께 털엉 그 촐 무끌 때. 새 메당

880) 임정월 구술.
881) '곤침떡'은 흰쌀로만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달리 '백시리'라고 하였다.
882) '백시리'는 흰쌀로만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달리 '곤침떡'이라고 하였다.

그 께 털어근에 준빌 헤여. (멧 뭇) 어짯든 서른 마은 바리, 하민 쉰 바리게, 아녀민 서른 바리. (ᄒᆞᆫ 바리) 서른 뭇 ᄒᆞ는 디도 잇고 마은 뭇 ᄒᆞ는 디도 잇고. 게난 서른 뭇 헤영 시껑 오주게. (눌) ᄒᆞᆫ 도리 눌젠 ᄒᆞ민 아메도 서너 바린 아져야 뒐 거라. ᄒᆞᆫ 번 영 돌앙 소 메우곡 헤가민 아은 뭇 정도는 들 거라. 촐눌 하나게. 크게 눌어근에.[883] 막 쉐 장시도 헤여나고 새끼도 질롸나고. 눌 막 크게. 촐 봐근에 그 집 부젯칩이엔 헷젠 ᄒᆞᆸ니다게, 엿날에. 촐은 오래 ᄒᆞᆸ니다. 멩질 그 둣날부터.[884] 촐 헤야 뒈여. 잘ᄒᆞ민 우리도 ᄒᆞᆫ ᄃᆞᆯ은 헤사 ᄒᆞ여.[885]

명질 끝나면 이제 꼴 벨 정도. 집집마다 소 길러 놓으니까. 말이나 솔 다 길러 놓으니까 거 준빌 해. 띠 매다가 매끼 꼬아서 그 꼴 묶을 때. 띠 매다가 그 매끼 꼬아서 준빌 해. (몇 뭇) 어쨌든 서른 마흔 바리, 많으면 쉰 바리, 않으면 서른 바리. (한 바리) 서른 뭇 하는 데도 있고 마흔 뭇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서른 뭇 해서 실어 오지. (가리) 한 도리 가리려고 하면 아마도 서너 바린 가져야 될 거야. 한 번 이렇게 돌아서 소 메우고 해가면 아흔 뭇 정도는 들 거야. 꼴가리 하나. 크게 가려서. 막 소 장사도 했었고 새끼도 길렀었고. 가리 아주 크게. 꼴 봐서 그 집 부잣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꼴은 오래 합니다. 명질 그 뒷날부터. 꼴 해야 돼. 잘하면 우리도 한 달은 해야 해.

883) 강부택 구술.
884) 임정월 구술.
885) 강부택 구술.

□ 9월

1) 상강

상강엔 곡식 다 헤야 뒈. 상강에는 다 ᄒᆞ는디. 상강 ᄉᆞ시에 논나룩 헷당 상강 ᄉᆞ시에 물 뿔어. 물을 뿔어야 나룩을 빌 게 아니라게. 논에 묘를 계속 심어야 계속 물을 댈 거 아니라게. 물을 대면, 게민 상강에 그 물을 뿔어야 뒈. 온 데로 강, 천제연으로 가가지고 물을 못 ᄂᆞ려오게 딱 막아 불어. 뺀다는 말. 딱 물 뿔려사 사람이 들어강 작업ᄒᆞᆯ 게 아니라게.[886] 물을 뿔어야 온 데로 강 논에 물을 뿔롸사. 물을 잦혀 불주게, 논드레 못 오게.[887] 경허민 한 칠일이나 팔일쯤에 ᄆᆞᆯ를 거 아니라, 땅이. 게민 나룩을 비여. 엿날엔 난 그런 거 안 헤봣주만은. 뭐 홀탓젠 헤여. 대로 홀탓젠 영 영 헷젠 ᄒᆞ는디 그건 아녀 봣어. 대 두 개 영 헤여근에 영 영. 우린 그걸 아녀 봣어. 저 그 클 영 영 훌트는 거 그거로 헷는디.[888] 삼촌 나룩 홀트는 거 안 헤봔? 대 두 개 헤근에 젭져근에 그거를 훌트고. ᄒᆞ나씩 ᄒᆞ나씩. 게영 홀탓젠 ᄒᆞ는디. ᄆᆞᆫ딱 ᄒᆞ나씩. 삼춘네, 쎄게 훌트는 거. 말쩬 탈곡기가 나왓주.[889] 우린 논이 엇언에 조합 논. 저이, 그 부제 사름이 또 많이 산에 그걸 벌언에 헷는디이 어떻든 그 우리 대에는 그 나룩클 영 홀트는 거, 그걸로 헷어. 어떻든 상강 ᄉᆞ시에 헤야주. 어떻든 콩이나 모든 곡식이 상강에 기준으로 다 헤야 뒈.[890] 구월 나민 나룩 곳으는 거.[891]

---

886) 강부택 구술.
887) 임정월 구술.
888) 강부택 구술.
889) 임정월 구술.
890) 강부택 구술.
891) 임정월 구술.

상강엔 곡식 다 해야 돼. 상강에는 다 하는데. 상강 근방에 논벼 했다가 상강 근방에 물 삐어. 물을 삐어야 벼를 벨 게 아닌가. 논에 모를 계속 심어야 계속 물을 댈 거 아닌가. 물을 대면, 그러면 상강에 그 물을 삐어야 되어. 온 데로 가서, 천제연으로 가가지고 물을 못 내려오게 딱 막아 버려. 뺀다는 말. 딱 물 삐어야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게 아닌가. 물을 삐어야 온 데로 가서 논에 물을 삐어야. 물을 잦혀 버리지, 논에 못 오게. 그러면 한 칠일이나 팔일쯤에 마를 거 아닌가, 땅이. 그러면 벼를 베어. 옛날엔 난 그런 거 안 해봤지만. 뭐 훑았다고 해. 대로 훑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건 안 해봤어. 대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린 그걸 안 해봤어. 저 그 기계 이렇게 이렇게 훑는 거 그거로 했는데. 삼촌 벼 훑는 거 안 해봤어요? 대 두 개 해서 끼워서 그거를 훑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훑았다고 하는데. 몽땅 하나씩. 삼촌네, 세게 훑는 거. 말짼 탈곡기가 나왔지. 우린 논이 없어서 조합 논. 저이, 그 부자 사람이 또 많이 사서 그걸 벌어서 했는데 어떻든 그 우리 대에는 그 그네 이렇게 훑는 거, 그걸로 했어. 어떻든 상강 근방에 해야지. 어떻든 콩이나 모든 곡식이 상강에 기준으로 다 해야 돼. 구월 나면 벼 곱는 거.

□ 10월

1) 생업

(1) 보리 갈기

보통 보리 갈아. 게민 돗걸름 내사 ᄒᆞᆯ 거 아니라. 돗걸름 헤서 돗통에서 걸름 낼 거 아니라. 이녁냥으로 못ᄒᆞ민 장남을 빌어사 ᄒᆞᆯ 거 아니라게,

놉을. 놉을 빌면은 날르는 사름 ᄒᆞᆫ 사름, 떠 놓는 사름 ᄒᆞᆫ 사름 헤서 ᄀᆞᆯ체 옆둥이에 꿰근에 마당에 강 비왕 ᄆᆞ땅 내치민 그레 강 보리씨를 삐어. 기형 쉐스랑으로 그걸 젓엉 이제 쉐 두 개 세 개 헤영 그걸 ᄇᆞᆯ려. 잘 ᄇᆞᆯ려근에 이젠 그걸 쉐스랑으로 또 엎어. 엎어근에 또 ᄇᆞᆯ려.[892] ᄇᆞᆯ려근에 ᄆᆞᆫ ᄇᆞᆯ려지믄 그걸 이제 마당에 눌어. 밧디 시꺼 갈 때ᄁᆞ지.[893] 그거 헤여근에 그걸 어떠냐면 대포리는 경 우마가 많이 아녀. 그때는 뭐 구루마도 엇고 아무것도 엇잖여. 쉐로 ᄒᆞᆫ 바리 시끄고, ᄒᆞᆫ 짐 지고. 경 ᄒᆞ면은 아메도 보리씨 닷 말지기쯤 갈젠 ᄒᆞ면은 ᄒᆞᆫ 쑤물다섯 바리 아니믄 ᄒᆞᆫ 서른 바리쯤 가야 뒈여.[894] 돗거름테기 이만이 ᄒᆞ주게. 망텡이가.[895]

저 엿날은 열다슷 바리 갈젠 ᄒᆞ면 ᄒᆞᆫ 칠벡오십 평 닷 말지기. 경 ᄒᆞ면은 그걸 이젠 엿날은 산파로 헤여. 그걸 여저 어른이 뿌려. 밭에 ᄆᆞᆫ딱 ᄌᆞ근ᄌᆞ근 ᄆᆞᆫ딱 뿌려. 그 이제 ᄀᆞᆯ체 영 옆둥이 ᄒᆞ영 ᄆᆞᆫ딱 뿌리면은 그 밧 가는 장남 그걸 쉐로 갈앙 ᄆᆞᆫ딱 엎어. 경 ᄒᆞ고 ᄒᆞ단에 글루후제는 조파 갈아 왓어. 고랑 ᄌᆞᆯ게 ᄒᆞ여근에 글로 걸름 놔근에 저 궹이로 막아근에 그 말짜에 경 헹 키왓는디. 경 헤근에 ᄒᆞ곡. 또 여기는 밧도 밧이주만 논이 잇어 놓니까 이제 보리ᄒᆞ기 전이, 논은 그 나룩헤 나민 번ᄒᆞᆯ 거 아니라. 보리 갈기 전이 논을 갈아. 논을 갈민 그 번을 두드려야 뒈여. 벙뎅이가 쎄여. 저 곰베로 ᄆᆞᆺ아야. 벙에가 이만씩헤 놓민. 게민 그 여저 어른이나 남저 어른이나 그 곰벨 들렁 그걸 ᄆᆞᆺ아야 뒈여. 게민 메칠을 ᄆᆞᆺ아야 그걸 ᄆᆞᆫ딱 풀어근에. 곰베엔 헤영 그 벙에 두드리는 그 마께가 곰베. 곰베렌 헤영 그거 두드려근에 그거 ᄆᆞᆫ 풀롸. 게민 손이 북물고 경 헤근에 그거 헤영 ᄆᆞᆫ 풀려지민

892) 강부택 구술.
893) 임정월 구술.
894) 강부택 구술.
895) 임정월 구술.

섬비질. 섬비를 끗어, 쉐로 끗어근에 문딱 벙에 풀어지민 그디 골 긋어근에 재걸름으로 보리씨에 불치. 재 서꺼근에 톡톡톡 여저 어른이 젭아 놓민, 남저 어른은 궹이로 막아근에 ᄒᆞ민 보리가 좋아. 논에는 돗걸름을 놓질 아녀. 재걸름 헤. 재걸름에 보리씨 서껑근헹 톡톡톡톡 좁아 놔. 여저 어른이 톡톡 좁아 놓민, 남자 어른이 그 고랑을 막아. 궹이로 헤영 막아근에 ᄒᆞ면은 논에 보린 좋아. 논에 재걸름으로 ᄒᆞ고. 나룩헤난 디. 밧딘 돗걸름으로 ᄒᆞ고.[896] 구덕에 여저덜이 좁아 놔. 대폰 논이 하주게. 나룩도 좋고.[897]

경 ᄒᆞ난 대포는 보통 ᄉᆞᆯ오리만 헤여. 이 맥주보리나 것보리는 벨로 아녀. 이 면적이 좁은 디난 이녁 양식만 허젠. 경 ᄒᆞ곡 뭐 큰 부제도 엇고. 경 ᄒᆞ난 그자 이녁 먹을 만씩.[898] 게난 대폰 논 하난 논 엇인 집인 베랑 엇주게. 이삼벡 펭, ᄉᆞ벡 펭, 오벡 펭, 막 하지도 아녀곡.[899] 게난 이 관광단지 들어와 부난 펀찍이주게.[900]

보통 보리 갈아. 그러면 돼지거름 내어야 할 거 아닌가. 돼지거름 해서 돼지우리에서 거름 낼 거 아닌가. 이녁대로 못하면 '장남'[901]을 빌려야 할 거 아닌가, 놉을. 놉을 빌리면 나르는 사람 한 사람, 떠 놓는 사람 한 사람 해서 삼태기 옆댕이에 뀌어서 마당에 가서 부어서 몽땅 내치면 그리 가서 보리씨를 뿌려. 그래서 쇠스랑으로 그걸 저어서 이제 쇠 두 개 세 개 해서 그걸 밟아. 잘 밟아서 이젠 그걸 쇠스랑으로 또 엎어. 엎어서 또 밟아. 밟아서 몽땅 밟아지면 그걸 이제 마당에 가리어. 밭에 실어 갈 때까지. 그거 해서 그걸 어떠냐면 대포리는 그렇게 우마가 많이 않아. 그때는 뭐 달구지도 없고 아무

896) 강부택 구술.
897) 임정월 구술.
898) 강부택 구술.
899) 임정월 구술.
900) 강부택 구술.
901) '장남'은 일을 하기 위해 빌린 건강한 남자 일꾼을 말한다.

것도 없잖아. 소로 한 바리 싣고, 한 짐 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도 보리씨 닷 마지기쯤 갈려고 하면 한 스물다섯 바리 아니면 한 서른 바리쯤 가야 되어. '돗거름테기[902]' 이만큼 하지. 망태기가.[903]

저 옛날은 열다섯 바리 갈려고 하면 한 칠백오십 평 닷 마지기.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젠 옛날은 산파로 해. 그걸 여자 어른이 뿌려. 밭에 몽땅 차근차근 몽땅 뿌려. 그 이제 삼태기 이렇게 옆댕이 해서 몽땅 뿌리면 그 밭 가는 '장남' 그걸 소로 갈아서 몽땅 엎어.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조파 갈아 왔어. 고랑 잘게 하여서 그리로 거름 놔서 저 괭이로 막아서 그 말째에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여기는 밭도 밭이지만 논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보리하기 전에, 논은 그 벼해 나면 애벌갈이할 거 아닌가. 보리 갈기 전에 논을 갈아. 논을 갈면 그 '번'을 두들겨야 되어. 흙덩어리가 세어. 저 곰방메로 마아야. 흙덩어리가 이만큼씩해 놓으면. 그러면 여자 어른이나 남자 어른이나 그 곰방멜 들어서 그걸 마아야 되어. 그러면 며칠을 마아야 그걸 몽땅 풀어서. 곰방메엔 해서 그 흙덩이 두드리는 그 방망이가 곰방메. 곰방메라고 해서 그거 두들겨서 그거 몽땅 풀어서. 그러면 손이 부르트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몽땅 풀어지면 끙게질. 끙게를 끌어, 소로 끌어서 몽땅 흙덩이 풀어지면 거기 골 그어서 '재거름'으로 보리씨에 재. 재 섞어서 톡톡톡 여자 어른이 집어 놓으면, 남자 어른은 괭이로 막아서 하면 보리가 좋아. 논에는 돼지거름을 놓질 않아. '재거름' 해. 재거름에 보리씨 섞어서 톡톡톡톡 집어 놔. 여자 어른이 톡톡 집어 놓으면, 남자 어른이 그 고랑을 막아. 괭이로 해서 막아서 하면 논에 보린 좋아. 논에 재거름으로 하고. 벼했던 데. 밭엔 돼지거름으로 하고. 바구니에 여자들이 집어 놔. 대폰 논이 많지. 벼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대포는 보통 쌀보리로만 해. 이 맥주보리나 겉보리는 별로 않아. 이 면적이 좁은 데니까 이녁 양식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뭐 큰 부자도 없고. 그렇게 하니

902) '돗거름테기'는 돼지거름을 나를 때 쓰는 멱서리를 말한다.
903) 임정월 구술.

까 그저 이녁 먹을 만큼씩. 그러니까 대폰 논 많으니까 논 없는 집은 별로 없지. 이삼백 평, 사백 평, 오백 평, 아주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관광단지 들어와 버리니까 '펀찍[904]'이지.

□ 11월

1) 동지

• 풋죽

소금벳기 안 놔. 수제비 헹 놓곡. 곤쏠ᄀᆞ루 헤여근에. 쏠ᄀᆞ루 ᄌᆞᆫᄌᆞᆫᄒᆞ게 헤근에 풋죽 쒀근에.[905]

소금밖에 안 놔. 수제비 해서 놓고. 흰쌀가루 해서. 쌀가루 자잘하게 해서 팥죽 쒀서.

2) 생업

(1) 메주 숧기

콩은 동짓ᄃᆞᆯ에 주로 숧아야주. 음력 동짓ᄃᆞᆯ에. 섣ᄃᆞᆯ 낭 메주 ᄒᆞ민 섣ᄃᆞᆯ그믐이 장 담으민 메주 안 ᄆᆞᆯ랑 궂는 따문 동짓ᄃᆞᆯ이 주로 숧아야.[906]

---

904) '펀찍'은 아무 것도 없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905) 임정월 구술.
906) 임정월 구술.

콩은 동짓달에 주로 삶아야지. 음력 동짓달에. 섣달 나서 메주 하면 섣달그믐에 장 담그면 메주 안 말라서 궂기 때문 동짓달에 주로 삶아야.

(2) 새 비기

십일월 젤 놀 때난에 새 비어당 집 일어야 뒐 거 아니라게. 집을 일젠 ᄒᆞ민, 새 강 헤 오곡. 거믄 뭐 구루마가 시카? 차가 시카? 쉐로 몰앙 강 ᄒᆞᆫ ᄆᆞ리 시끄곡 ᄒᆞᆫ 짐 지곡 헹 왕. 보통 삼간집 ᄒᆞᆫ 거리는 새가 백 뭇 든덴 헤여. 백 뭇, 백 뭇. 새는 ᄒᆞᆫ 바리가 쑤무 뭇. 뭇 크주게. 저 촐은 마은 뭇 ᄒᆞ는 디도 잇곡, 서른 뭇 ᄒᆞ는 디고 잇곡 ᄒᆞ주만은 새는 쑤무 뭇 경 헤여근에 삼간, 삼칸 ᄒᆞ젠 ᄒᆞ민 보통 팔십에서 백 뭇은 이서사주게.[907]

십일월 젤 놀 때니까 띠 베어다가 집 이어야 될 거 아닌가. 집을 이려고 하면, 띠 가서 해서 오고. 그러면 뭐 달구지가 있을까? 차가 있을까? 쇠로 몰아서 가서 한 마리 싣고 한 짐 지고 해서 와서. 보통 삼간집 한 채는 띠가 백 뭇 든다고 해. 백 뭇, 백 뭇. 띠는 한 바리가 스무 뭇. 뭇 크지. 저 꼴은 마흔 뭇 하는 데도 있고, 서른 뭇 하는 데고 있고 하지만 띠는 스무 뭇 그렇게 해서 삼간, 삼간 하려고 하면 보통 팔십에서 백 뭇은 있어야지.

- **각단**

각단은 헤다가 줄 놔야 뒐 게 아니라? 각단도 아메도 서너 바리 헤사 줄 놔근에 ᄒᆞ곡. 또 알 질를 거. 집 알 질를 거. 둬 바리 헤 오곡 ᄒᆞ여근에

907) 강부택 구술.

헤영 동짓ᄃᆞᆯ ᄆᆞᆫ 마치민 십이월ᄃᆞᆯ엔 낭고지.[908]

'각단'[909]은 해다가 줄 놔야 될 게 아닌가? '각단'도 아마도 서너 바리 해야 줄 놔서 하고. 또 아래 찌를 거. 집 아래 찌를 거. 둬 바리 해 오고 하여서 해서 동짓달 몽땅 마치면 십이월엔 '낭고지'[910].

(3) 장 담기

동짓ᄃᆞᆯ에 주로. 그땐 막 날 봔 담아게. 이녁 헤치 엇인 날만. 이녁 식구덜 헤치 엇인 날만. 만약 이녁 식솔이 수정 한 집인 헤치 들주게. 게민 헤치 엇인 날만 담젠 ᄒᆞ멍 경 아무 때나 못 담아. 이젠 경 장 안 담안에 상 먹엄주만은 그땐 집마다 닷 말, 자리젯도 닷 말, 장도 닷 말. 다 집마다 닷 말. 그것가 젤 큰 반찬이난게. 뒌장 담을 때도 ᄂᆞᆷ삐 반은 지둘라.[911] 경 ᄒᆞ난 이 제주도도 이 대포부락은 옛날에이 젤 반찬ᄒᆞ는 건 바다에서 나는 자리젯. 자리젯 경 ᄒᆞ고 장, 뒌장 그거에 밥반찬이라. 옛날은 그 자리젓 헤근에 보통은 헤근에 젯 담앗다근에 그걸 주로.[912]

동짓달에 주로. 그땐 막 날 봐서 담그던데. 이녁 띠 없는 날만. 이녁 식구들 띠 없는 날만. 만약 이녁 식솔이 숫자 많은 집엔 띠 들지. 그러면 띠 없는 날만 담그려고 하면 그렇게 아무 때나 못 담가. 이젠 그렇게 장 안 담가서 사서 먹고 있지만 그땐 집마다

908) 강부택 구술.
909) '각단'은 짧은 띠를 말한다. 주로 지붕을 동여매는 집줄을 만들 때 쓴다.
910) '낭고지'는 나무하러 '고지' 즉, 숲에 가는 것을 말한다.
911) 임정월 구술.
912) 강부택 구술.

닷 말, 자리젓도 닷 말, 장도 닷 말. 다 집마다 닷 말. 그것이 젤 큰 반찬이니까. 된장 담글 때도 무 반은 지질러. 그렇게 하니까 이 제주도도 이 대포 마을은 옛날에 젤 반찬 하는 건 바다에서 나는 자리젓. 자리젓 그렇게 하고 장, 된장 그거에 밥반찬이야. 옛날은 그 자리젓 해서 보통은 해서 젓 담갔다가 그걸 주로.

□ 12월

1) 신구간

아버지가 저 집을 산 보니까 나 일름에 삿어. 그 매매ᄒᆞᆯ 때 나 일름에 삿는디, 아버지가 돌아가션 보니까 이전 등기할려고 보니까 나 일름에 삿어. 게서 나가 ᄒᆞᆫ 오십 년. 초가집으로 오십 년 살앗일 거라. 그 자리에서 아덜 둘, ᄯᅳᆯ 둘 다 ᄑᆞᆯ고. 겡 헤다가 팔십팔년도에 이데 웃동네서 젤 나가 젤 앞이 짓엇어. 집을 젤 앞이 짓엇는디. 게 가지고 이제 아메도 짓은 디가 ᄒᆞᆫ 삼십삼 년. 아, 그 집 튿언에 서녁 집 막살이 빌언에 살앗주게. 집은 다 완성헤서 날 봐야 뭘 게 아이라? 이제 ᄀᆞ뜨민 아무 때라도 들어오주마는 그때는 어디 가민 좋은 날, 겐 할망이 어디 강 봉 완에 이서헤야 뒌덴 헨에 이사헨. 처음엔 밥솟 헤단에 밥헤 놘 궨당덜이영 동세덜이영 옵센 헤연에 밥부터 헤 먹어야 뒌다 ᄒᆞ난에 뭐.[913]

아버지가 저 집을 사서 보니까 내 이름에 샀어. 그 매매할 때 내 이름에 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니까 이전 등기하려고 보니까 내 이름에 샀어. 그래서 내가

913) 강부택 구술.

한 오십 년. 초가집으로 오십 년 살았을 거야. 그 자리에서 아들 둘, 딸 둘 다 팔고. 그렇게 하다가 팔십팔년도에 여기 '웃동네'[914]서 젤 내가 젤 앞에 지었어. 집을 젤 앞에 지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마도 지은 지가 한 삼십삼 년. 아, 그 집 뜯어서 서녘 집 막살이 빌려서 살았지. 집은 다 완성해서 날 봐야 될 게 아닌가? 이제 같으면 아무 때라도 들어오지만 그때는 어디 가면 좋은 날,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가서 보고 와서 이사해야 된다고 해서 이사했어. 처음엔 밥솥 해다가 밥해 놔서 권당들이랑 동서들이랑 오십사고 해서 밥부터 해 먹어야 된다 하니까 뭐.

• 집들이

무시걸 아졍 와. 불 싸는 곽이나 초나. 엿날엔 그거벳기 엇어.[915] 엿날엔 나가 어린 때 열아옵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열여답에 집이 사름 구헤돈에, 우리 집사름 열리 사름이라. 하예리. 열리 사름 구헤돈에 팔월 쑤무이튼 날에 아부지가 돌아가셔서. 잔치는 그 동짓둘 열ᄒᆞ룻날 내가 잔칠 ᄒᆞ게 뒛는디. 그때는 아부지가 돌아가셔서 조문객이 올 때 아이라. 오면은 돈 봉투 다 없어. 만서 잇잖아. 크게 헤근에 글 써근에 만서라고. 창오지에 글 써근에. 만서 그거 조문을 와. 돈은 없어. 게 아녀민 초, 양초. 양초 ᄒᆞᆫ 봉이나 경 헨에 나 잊어 불질 아녀저. 경 헨에 아부지가 돌아가션에 이제 소상허젠. 그땐 대소상 삭망 다 ᄒᆞ지 아녀시냐게. 겡 헤엿는데 이 안끄레 구들구석에 술을 앚졋어. 술통개에. 그 소상에 쓰젠 술 헷어. 소상에 쓰젠 ᄒᆞᆫ 술통 엠에 만선 ᄆᆞ딱 걸엇어. 그 부주헨 만선. 게 헨 술 조살 나왓어. 그땐 젤 ᄆᆞ순 게 술 조사라. 술 조사고 낭 조사. 산에 강 낭 베엉 걸리거나 술 헹 걸리거나 ᄒᆞ민 이건 벌금이라.

914) '웃동네'는 위쪽에 있는 동네를 말한다.
915) 임정월 구술.

경 ᄒᆞ난 술 조사허레 집이 술 조사 와수덴 헨에 잇덴 헨, 술 헨 잇거든게. 겐 문 열안 완 봣거든. 만서도 걸고 헨 이시니까 그 술 조사가 봐줫어. 이건 상 앚은 집이니까 이랫구나 헤근에 다시랑 ᄒᆞ지 맙센 헤니까. 그런 기억이 나. 나 저 ᄒᆞᆫ 열ᄋᆞ답 설이난 이거 뭐, 나 이제 팔십넷이난에 이거 멧이니게. 오랫저게. (집들이엔) 곽이나 초나.[916]

무엇을 갖고 와. 불 켜는 성냥이라 초나. 옛날엔 그거밖에 없어. 옛날엔 내가 어릴 때 열아홉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열여덟에 집의 사람 구해두고, 우리 집사람 '열리[917]' 사람이야. '하예리'[918]. '열리' 사람 구해두고 팔월 스무이튿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잔치는 그 동짓달 열하룻날 내가 잔칠 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객이 올 때 아닌가. 오면 돈 봉투 다 없어. 만사 있잖아. 크게 해서 글 써서 만사라고. 창호지에 글 써서. 만사 그거 조문을 와. 돈은 없어. 그렇게 않으면 초, 양초. 양초 한 봉지나 그렇게 해서 나 잊어 버리질 않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소상하려고. 그땐 대소상 삭망 다 하지 않았니. 그렇게 하였는데 이 안채 방구석에 술을 안쳤어. '술통개'에. 그 소상에 쓰려고 술 했어. 소상에 쓰려고 한 술통 곁에 만사는 몽땅 걸었어. 그 부조해서 만사는. 그렇게 해서 술 조살 나왔어. 그땐 젤 무서운 게 술 조사야. 술 조사고 나무 조사.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걸리거나 술 해서 걸리거나 하면 이것은 벌금이야.

그렇게 하니까 술 조사하러 집에 술 조사 왔습니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술 해서 있거든. 그래서 문 열어서 와서 봤거든. 만사도 걸고 해서 있으니까 그 술 조사가 봐줬어. 이건 상 앉은 집이니까 이랬구나 해서 다시는 하지 마십사고 하니까. 그런 기억이 나. 나 저 한 열여덟 살이니까 이거 뭐, 나 이제 팔십넷이니까 이거 몇이니. 오랬다.

916) 강부택 구술.
917) '열리'는 서귀포시 예래동을 말한다.
918) '하예리'는 서귀포시 하예동을 말한다.

(집들이엔) 성냥이나 초나.

2) 소한 · 대한

소한에 나간 사름 촞아보지 말렌. 대한에 나간 사름 촞아보지 말렌 ᄒᆞ는가? 그런 속담만 ᄀᆞᆯ앗어.[919] ᄀᆞᆺ사 여자 삼춘네 고향이 열린디 열리 논에 그 왕골초석을 많이 ᄒᆞ주게. 많이 ᄒᆞ민, 그 초석을 짜근에 그땐 이제 시에ᄀᆞ라 성내, 모관. 그 너븐팡이 그 북군광 남군이 경계엔 ᄒᆞ주게. 그 너븐팡이 그 언마 큰밧산디, 이제 저 운전멘네증 ᄒᆞ는 ᄉᆞ방 닮아. 그 너븐팡이엔 ᄒᆞ주게. 모관 가당도 그디 쉬곡 오당도 쉬는디 그 열리 사름이 왕골초석 열두 개 짓엉 가단 그 너븐팡 밧디 가난 눈이 팡팡 와도 얼마사 커신디. 그 눈 와도 가지주 헨에 가난 오꼿 그 눈에 ᄁᆞᆯ안 묻언, 그 열두 개 진 냥. 묻으난에, 우린 그 옛날부떠 이 말 들엇주게. 삼월 나사 신체 촞앗젠 헤여. 눈 녹아사. 여깃 사름 경 헨 죽엇젠 ᄒᆞ주게.

이제난 사름이 펜안ᄒᆞ게 살암주. 옛날엔이 마차가 엇고 뭐 경운기도 엇고 차도 엇인 때난. 더퍼놓고 쉐 ᄒᆞᆫ 바리 시끄민 ᄒᆞᆫ 짐 져야 뒈여. 경 아녀민 산에 가근에 촐 ᄒᆞᆫ 바리 시끄곡 ᄒᆞᆫ 짐 져. ᄒᆞᆫ 짐 지민 ᄒᆞᆫ 보통으로 쎈 사름은 열닷 뭇 져. 경 ᄒᆞ민 오죽 멀 거 아니라게. 집이 ᄂᆞ려오믄. 경 ᄒᆞ멍 살아시녜, 이제ᄁᆞ장. 요샛 사름덜 우리 손주 ᄀᆞᆯ아. 옛날 배고프멍 살앗덴. 무사 그때 라면 엇입데가? 우리 집이 경 ᄀᆞᆯ아.[920] 그때 우동도 막 어려운 때우다. 라면이랑 마랑, 으이구.[921]

---

919) 임정월 구술.
920) 강부택 구술.
921) 임정월 구술.

소한에 나간 사람 찾아보지 말라고. 대한에 나간 사람 찾아보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 속담만 말했어. 아까 여자 삼촌네 고향이 '열리'인데 '열리' 논에 그 왕골초석을 많이 하지. 많이 하면, 그 초석을 짜서 그땐 이제 제주시보고 '성내'[922], '모관'[923]. 그 '너븐팡'[924]이 그 북군과 남군의 경계라고 하지. 그 '너븐팡'이 그 얼마나 큰 밭인지, 이제 저 운전면허증 하는 근처 같아. 그 '너븐팡'이라고 하지. '모관' 가다가도 거기 쉬고 오다가도 쉬는데 그 '열리' 사람이 '왕골ᄎᆞ석' 열두 개 지어서 가다가 그 '너븐팡' 밭에 가니까 눈이 팡팡 와도 얼마야 컸는지. 그 눈 와도 가지지 해서 가니까 그만 그 눈에 깔아서 묻혀서, 그 열두 개 진 대로. 묻으니까, 우린 그 옛날부터 이 말 들었지. 삼월 되어야 시체 찾았다고 해. 눈 녹아야. 여기 사람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지.

이제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옛날엔 마차가 없고 뭐 경운기도 없고 차도 없을 때니까. 덮어놓고 소 한 바리 실으면 한 짐 져야 되어.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꼴 한 바리 싣고 한 짐 져. 한 짐 지면 한 보통으로 센 사람은 열다섯 뭇 져. 그렇게 하면 오죽 멀 거 아니냐. 집에 내려오면.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니, 이제까지. 요새 사람들 우리 손주 말해. 옛날 배고프면서 살았다고. 왜 그때 라면 없습디까? 우리 집에 그렇게 말해. 그때 우동도 막 어려운 땝니다. 라면이랑 마랑, 아이고.

3) 생업

(1) 낭고지

나무ᄒᆞ레 산에. 그땐 아무것도 엇일 때난 나무헤다가. 보통으로 큰일ᄒᆞ

922) '성내'는 제주시를 말한다. 예전에 성 안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923) '모관'은 '목 안' 즉, 제주목이 있었던 곳을 말한다. 제주성이 있었던 제주시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924) '너븐팡'은 예전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경계가 되었던 지경 이름이다.

젠 ᄒᆞ민, 잔치ᄒᆞ젠 허민 낭을 들여야 뒈주게. 잔치ᄒᆞ젠 ᄒᆞ민 낭고지 기자 헹 강, 보통으로 이 계 헤여근에 낭계헤여근에 ᄒᆞ민 ᄒᆞᆫ 줄레썩 메왓다근에 그 잔치 헤나젠 ᄒᆞ민 그 옛날도. ᄒᆞᆫ 줄레믄 ᄒᆞᆫ 발 헹 두 뿜이엇던가? ᄒᆞᆫ 발 헹 두 뿜 헤근에 그 ᄉᆞᆺ기 안에 들언에 그거 ᄒᆞᆫ 줄레 경 헤. ᄒᆞᆫ 발 두 뿜 헤던가 헤근에 그 안네 낭 놩 딱ᄒᆞ민 ᄒᆞᆫ 줄레. 섣ᄃᆞᆯ 뒈민 그쯤은 나무허레. 낭고지.925)

나무하러 산에. 그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나무해다가. 보통으로 큰일하려고 하면, 잔치하려고 하면 나무를 들여야 되지. 잔치하려고 하면 '낭고지' 그저 해서 가서, 보통으로 이 계 해서 나무계해서 하면 한 짐씩 매웠다가 그 잔치 하려고 하면 그 옛날도. 한 짐이면 한 발 해서 두 뼘이었던가? 한 발 해서 두 뼘 해서 그 새끼 안에 들어서 그거 한 짐 그렇게 해. 한 발 두 뼘 하던가 해서 그 안에 나무 놔서 딱하면 한 짐. 섣달 되면 그쯤은 나무하러. '낭고지'.

925) 강부택 구술.

5. 안덕면 감산리

□ 1월

1) 정월 멩질

구멩질은 음력으로 정월 초ᄒᆞ루. 또 신멩질은 양력으로 정월 초ᄒᆞ루. 두 번 헤낫수다. 경헌 거 답수다, 구멩질이엔 허난. 국? 국이민. 건 집안마다 틀려, 집안마다 틀려. 밥허곡 ᄒᆞᆷ치 올리는 거.926)

구명질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또 신명질은 양력으로 정월 초하루.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구명질이라고 하니까. 국? 국이면. 건 집안마다 달라, 집안마다 달라. 밥하고 한꺼번에 같이 올리는 거.

침떡, 솔벤, 젤벤 또로 은절미. 은절미엔 헌 거는 네모난 거 허여근에 거 그레 올립니다. 우찍이엔 허여근에 우찍도 허고, 우찍. 제일 우에 올리는 것ᄀᆞ라. 적갈은 옛날엔양 뒈지고기만 헤십주게. 경 허곡 이젠 하근 거 소고기여, 무신 하근 문어여 뭐 허여도 옛날은 뒈지고기 적갈허곡 ᄯᅳ로 ᄆᆞ멀ᄀᆞ루 허여근에 묵 쒀근에 그건 묵적으로. 게난 건 ᄆᆞ멀ᄀᆞ루로. 청묵, 것도 쒀사. 청묵은 ᄆᆞ멀ᄊᆞᆯ로, ᄊᆞᆯ로 주멩기 멘들앙 그레 헹 물 컷당, ᄒᆞ꼼 물 우르민 막 짜근에 그 짠 물로 쒀 가민 묵이 뒈고, 또로 ᄆᆞ멀ᄊᆞᆯ 방앗간에

926) 진문자 구술.

강 ᄀᆞᆯ아다근에 ᄀᆞ루로 쑨 묵은 그냥 ᄒᆞ꼼 색깔도 뭐 허고 틉틉허곡 허여근에 그추룩 두 가지로 헤낫수다.

시루떡, '솔벤'[927], 절편 다시 '은절미'[928]. 은절미라고 한 거는 네모난 거 해서 거 그리 올립니다. 웃기떡이라고 해서 웃기떡도 하고, 웃기떡. 제일 위에 올리는 것보고. 적은 옛날에는 돼지고기만 했습지요. 그리고 이젠 여러 가지 소고기여, 무슨 여러 가지 문어다 뭐 해도 옛날은 돼지고기적하고 따로 메밀가루 해서 묵 쒀서 그건 묵적으로. 그러니까 건 메밀가루로. 청묵, 것도 쒀야. '청묵'[929]은 메밀쌀로 주머니 만들어서 그리 해서 물 담가 두었다가, 조금 물에 불면 마구 짜서 그 짠 물로 쒀 가면 묵이 되고, 다시 메밀쌀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가루로 쑨 묵은 그냥 조금 색깔도 뭐하고 톱톱하고 해서 그처럼 두 가지로 했었습니다.

고사리, 미네기, 콩ᄂᆞ물 그자 거 세 가지. 미네기나 뭐 저 엇인 때엔 호박도 허고, 세 가지 ᄆᆞᆫ ᄎᆞᆯ려지민 호박은 아니 헹 넘음도 허고. 족은집부떠, 큰집으로 오라근에 다 헙니께. 아침에 족은집인 이녁만도 허영 먹는 족은집이 십주게, 혼자만. 큰집으로 다 모여 오라근에.[930] 큰집은 젤 내중에 헤사 ᄌᆞ손덜 이녁만씩 허영 멩질허여 먹엉 큰집더레 다 먹으레 와마씨.[931]

고사리, 미나리, 콩나물 그저 거 세 가지. 미나리나 뭐 저 없을 때에는 호박도 하고,

927) '솔벤'은 반월형의 떡살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이다.
928) '은절미'는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이다.
929) '청묵'은 메밀쌀을 물에 불린 후 주물러 짠 물을 끓여 만든 묵이다.
930) 진문자 구술.
931) 고만부 구술.

세 가지 모두 차려지면 호박은 아니 해서 넘기도 하고. 작은집부터, 큰집으로 와서 다 합니다. 아침에 작은집에는 이녁만도 해서 먹는 작은집이 있지요, 혼자만. 큰집으로 다 모여와서. 큰집은 젤 나중에 해야 자손들 이녁만큼씩 해서 명질 해서 먹고 큰집으로 다 먹으러 와요.

2) 정월대보름

• 액막이

나가 허여나난, 허여난 거난 ᄀᆞᆫ주. 정월대보름은양 일 년에 살멍 모든 집안이나 아기나 모든 게 펜안허게 해줍센 헤영 옛날에 심방 빌어근에 뭐 정월에 ᄆᆞᆫ 굿헙니다게. 경 허영 빌젠 허민 정월 보름, 보름 ᄉᆞ시에 영 허여근에 허곡, 지금은 심방 빌엉 아니헹 그자 절간으로 가근에 정월 보름 대보름에 액멕이로, 액멕이라 허여근에 헌디 엿날에는 액멕이를 심방 빌어당 집이서 헤나십주게.[932]

내가 했으니까, 했던 거니까 말하지. 정월대보름은 일 년에 살면서 모든 집안이나 아기나 모든 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옛날에 무당 빌어서 뭐 정월에 모두 굿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고 하면 정월 보름, 보름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은 무당 빌어서 아니해서 그저 절에 가서 정월 보름 대보름에 '액막이'[933]로, 액막이라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무당 빌어다가 집에서 했었습지요.

난 연은 아이 ᄂᆞᆯ려 봣수다. 농사 잘 뒈고 안 뒈는 거 점은 치레 아이

932) 진문자 구술.
933) '액막이'는 액을 막아 행운이 오기를 기원하는 행위를 이른다.

뎅겨봣수다. 방사, 방사가 뭔고? 아, 방쉬. 모든 이 허는 거 정월에만 헙주게. 허여보진 안 헤수다마는 봐 나긴 헷수다. 경허난 집안에양 ᄒᆞ꼼 좇기나 무시거 허민양 그때 심방덜 우리 시키는 양 헤근에 허민 고량착에 ᄆᆞᆫ 밥 놓곡, 떡 놓곡, 과일 놓곡, 고기 놓곡 고량착 하나 허여근에 그레 무신 백지로 허여근에 무시거 영 사름 형태 ᄀᆞ뜬 거 멘들앙 그레 세우곡 허여근에 어디 저 밧디 ᄒᆞ꼼 이 집광 떨어진 밧디. 밧디 어디 강 구석에 가근에 놔불렝 헙디다게. 경 허민 우리 어릴 때도 뎅기당 보민 그런 게 밧디 봐져마씸. 경허민 아이고 겁낭 막 그거 허민 액이 이녁신드레 와분뎅 허멍 그 궂인 액 그거 헐 때는 집이서 그거 ᄆᆞᆫ 허영 밧디 ᄋᆞ져갈 때는 집이 액은 ᄂᆞᆷ신디레 옮겨 불렌 허영 그거 허는 셍입디다게. 경 허난 우리 아이덜 때 그거 가근에 봐지민 겁낭 도망가멍 헤낫수다.[934]

난 연은 아니 날려 봤습니다. 농사 잘 되고 안 되는 거 점은 치러 안 다녀봤습니다. 방사[935], 방사가 뭐인가? 아, 방쉬. 모든 이 하는 거 정월에만 하지요. 해보진 안 했습니다만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조금 쫓기거나 무엇 하면요 그때 무당들 우리 시키는 대로 해서 하면 '고량착'[936]에 모두 밥 넣고, 떡 넣고, 과일 넣고, 고기 넣고 '고량착' 하나 해서 그리 무슨 백지로 해서 무엇 이렇게 사람 형태 같은 거 만들어서 그리 세우고 해서 어디 저 밭에 조금 이 집과 떨어진 밭에. 밭에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놓아 버리라고 합디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릴 때도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게 밭에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겁나서 마구 그거 하면 액이 자기에게 와 버린다고 하면서 그 궂은 액 그거 할 때는 집에서 그거 모두 해서 밭에 가져갈 때는 집에 액은 남에게로 옮겨 버리라고 해서 그거 하는 모양입디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 때 그거 가서

934) 진문자 구술.
935) '방사'는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936) '고량착'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은 그릇으로 들일을 갈 때 도시락으로 사용한다.

보면 겁나서 도망가면서 했었습니다.

경허난 액멕인 그냥 집이서만 허곡, 그거영 비슷헤여마씨. 경허난 심방. 액멕이도 옛날엔 집이서 헷수게. 경허난 그것광 비슷은 허는디 심방에 ᄒᆞ꼼 틀려마씸. 집이서만 그냥 허영 허는 사름이 싯곡, 그런 거 허영 경 바깟디 ᄋᆞ져가는 사름이 잇고, 심방에 따라. 그냥 집이서만은 헤 봣어마씨, 빌어당 그자. 심방 빌어당, 굿 두드리멍, 저 장귀 두드리곡, 북 두드리멍게 그 심방이 막 비념헙니께게. 이 집안이 펜안허게 헤 줍센게. 게 무사 아이 ᄎᆞᆯ립니깡게, 떡이영 ᄀᆞᆺ사 말작아니라도 당에 가젠 허믄 그 돌레떡, 그런 거 심방덜은 양, 그런 돌레떡만 멘들렌 헙니다. 그냥 제사 때에 올리는 떡은 아니여. 돌레떡 멘들렌 허영 돌레떡 멘들곡, ᄒᆞ민 떡 올리곡, 밥 올리곡, 고기 올리곡, 과일 올리곡, ᄯᅳ로 ᄊᆞᆯ, 생ᄊᆞᆯ, 쌀, 생ᄊᆞᆯ도 이제 ᄒᆞᆫ 사발 허영 올리민 그걸로 막 제비 뽑곡 헙니께. 경허민 이걸로 좋겐 헴저, 무신 아이고 요 아긴 궂이켄 헴저 허멍 드러 심방 입으로 ᄀᆞᆯ읍니께게.[937]

그러니까 '액막이'는 그냥 집에서만 하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당. 액막이도 옛날에는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은 한데 무당에 조금 달라요. 집에서만 그냥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바깥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심방에 따라. 그냥 집에서만 해 봤어요, 빌어다가 그저. 무당 빌어다가, 굿 두드리면서, 저 장구 두드리고, 북 두드리면서 그 무당이 마구 기원합니다. 이 집안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게 왜 안 차립니까. 떡이랑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당에 가려고 하면 그 도래떡[938], 그런 거 무당들은요, 그런 도래떡만 만들라고 합니다. 그냥 제사

937) 진문자 구술.
938)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으로 표준어로는 도래떡이다.

때에 올리는 떡은 아니야. 도래떡 만들라고 해서 도래떡 만들고, 하면 떡 올리고, 밥 올리고, 고기 올리고, 과일 올리고, 따로 쌀, 생쌀, 쌀, 생쌀도 이제 한 사발 해서 올리면 그걸로 마구 제비 봅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좋겠다고 하고 있어, 무슨 아이고 요 아긴 궂겠다고 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 무당 입으로 말합니다.

3) 포제

금줄은 메지 안 허고. 그 날짜만. 것도 다. 정월달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말헷주마는 부락에서 다 제사, 제관이라든지 전부 다 선정을 헤. 그렇게 헤서 그 포젯단에 삼일인가, 이렇게 그 가서 모다들엉, 부정 타지 말게, 밤에 자면서 이렇게 헤서 그날 뒈면은 그 날짜 뒈면은 젯단에 가서 다 찰리고 또 시간 뒈면은 밤 그때에 그냥 열두 시 넘엉, 주시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 게믄게 우리덜은 그래서 어릴 때, 거 조라우멍도 그걸 먹젠 그때꼉지 기다리는 거라. 정월이 뒈민 그때도 밤이 길이가 막 길 때 아니라게. 밤이 길어, 낮이 보다, 게민 그때도 그렇게 허면서 거 못 젼디멍 헹 강 그거 끗나면 그 밥 혼 적씩 얻어 먹젱 이렇게 허면서 헷지.[939]

금줄은 매지 않고. 그 날짜만. 것도 다. 정월달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말했지만 부락에서 다 제사 제관이라든지 전부 다 선정을 해. 그렇게 해서 그 포제단에 삼일인가, 이렇게 그 가서 모여들어서 부정 타지 않게, 밤에 자면서 이렇게 해서 그날 되면은 그 날짜 되면은 제단에 가서 다 차리고 또 시간 되면은 밤 그때 그냥 열두 시 넘어서, 자시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서 어릴 때 거 졸리면서도 그걸 먹으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정월이 되면 그때도 방이 길이가 아주 길 때 아니야.

939) 고만부 구술.

밤이 길어, 낮보다,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하면서 거 못 견디면서 해서 가서 그거 끝나면 그 밥 한 술씩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

붉은 흑은 내가 알기론 그런 거 뿌리는 건 못 봤어. 토신제는 뿌려. 토신제는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제 지내기 전에 이렇게 뒈서 금줄 멧든 거 다 풀고. 헹 이렇게 올레로 이렇게 그 흑을 뿌렷는데, 토신제는. 부락에서 문딱 거. 총회에서 다 정허여. 이장을 헤낫거나, 하여간 부락에서 좀 유지 뒌다 허는 이런 분들, 좀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지. 아니, 그냥 우리 제관덜허고 우리 어린 애덜, 그자 어린 애덜, 초등학생. 얻어먹젠. 그때꼬지도 그거 첨 밥 혼 적 먹젠, 얻어먹젠 허민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일 년 헤도 뭐 그 당시는 제삿날이나 영장날이나 뭐 잔칫날도 보리밥벳긴 더 헤서게. 그거 쌀밥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랏어.[940]

붉은 흙은 내가 알기론 그런 거 뿌리는 건 못 봤어. 토신제는 뿌려. 토신제는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제 지내기 전에 이렇게 돼서 금줄 매었던 거 다 풀고. 해서 이렇게 올레로 이렇게 그 흙을 뿌렸는데, 토신제는. 동네에서 모두 거. 총회에서 다 정하여. 이장을 했었거나, 하여간 동네에서 좀 유지 된다 하는 이런 분들, 좀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지. 아니, 그냥 우리 제관들하고 우리 어린 애들, 그저 어린 애들, 초등학생. 얻어먹으려고. 그때까지도 그거 참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일 년 해도 뭐 그 당시는 제삿날이나 장삿날이나 뭐 잔칫날도 보리밥밖에는 더 했어? 그거 쌀밥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

제물은 밥만 이렇게 허는 걸로 아는디, 무슨 떡이나 이런 거는 우리 얻어

940) 고만부 구술.

먹은 적이 없어. 제단에 것도 우리 어릴 때니까, 그딘 가믄 멀리서 그냥 구경을 이렇게 헌 거거든. 그러니까는 제물은 뭐 그 밥허고 이런 거 이외에는 뭐 올리는 거 없는 거 닮은데. 도세기, 도세긴 건 생채 헤서 그냥 잡아서 올리고. 숢은 건 없어, 하여간. 생채로 이렇게 올렷고. 밥 올린 걸로 알고 잇는데, 내가 그 우리 초등학교 때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헤서. 우린, 감산린 안 허여. 우린 안 헴서. 아마 이디서 허는 디가 화순리 농포제라고 헤서 헴실 거라, 아마. 이 화순도 허여. 겐디 우리 감산리는 안 헤.[941]

제물은 밥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무슨 떡이나 이런 거는 우리 얻어먹은 적이 없어. 제단의 것도 우리 어릴 때니까, 거기 가면 멀리서 그냥 구경을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제물은 뭐 그 밥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뭐 올리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돼지, 돼지는 건 생째 해서 그냥 잡아서 올리고. 삶은 건 없어, 하여간. 생째로 이렇게 올렸고. 밥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우리 초등학교 때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우린, '감산리'[942]는 안 해. 우린 안 하고 있어. 아마 여기서 하는 데가 '화순리'[943] '농포제'[944]라고 해서 하고 있을 거야. 이 '화순'도 해. 그런데 우리 '감산리'는 안 해.

4) 당제

통물당. 일렛당은 일레에만 허고. 정월 초일레, 열일레, 경 허영 마을에 저 부정을 타나 허민, 못 가민 스무일레에도 가고. 일레에만, 일레에만.

941) 고만부 구술.
942) '감산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이다.
943) '화순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이다.
944) '농포제'는 제주도에서 음력 7월에 지내는 마을제로 그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이다.

칠일. 마찬가진디 우리는 나가 헌디 우린 출린 짐에 그냥 그디도 가고 저디도 갑니다게. 일레에도 가곡 ᄋᆞ드레에도 가곡, 출린 짐에 그자 요디 일레에 강 오랑은에, 우선 일레가 큰당이엔 허여근에 일레에 당을 ᄆᆞᆫ여 가. 경 허여근에 그디 일레에 강 오랑 또 그거 부려뒁 다른 거 또 출령 놧당 그거 져근에 또로 ᄋᆞ드레당에 가곡. 물통은 우리 아이 뎅기난에 저 중동네 사름덜만, 통물.[945]

'통물당'[946]. '일렛당'은 이레에만 하고. 정월 초이레, 열이레, 그렇게 해서 마을에 저 부정을 타나 하면, 못 가면 스무이레에도 가고. 이레에만, 이레에만. 칠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내가 하는데 우린 차린 김에 그냥 거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이레에도 가고 여드레에도 가고, 차린 짐에 그저 요기 이레에 가서 와서 또 그거 부려둬서 다른 거 또 차려서 놨다가 그거 져서 다시 'ᄋᆞ드레당'에 가고, 물통은 우리 안 다니니까 저 중동네 사람들만, '통물'.

돌레떡. ᄆᆞ멀ᄀᆞ루나 ᄉᆞᆯᄀᆞ루나. 소금도 아이 놓곡, 집이서. ᄆᆞ멀떡은 허젠 허민 ᄆᆞ멀ᄀᆞ룬 물을 꿰와사 반죽은 허고 곤떡은 물 그냥 꿰우지 안허영 생, 그냥 물로 생수로 그냥 허영 반죽허영 멘들아근에 삶앙 건지민 그게 떡이주. 솟디, 솟디 놔근에 물 놓곡 허영 허당 물 팔팔 끌이민 끌이민 그다음은 드리쳥 그 떡이 영 봐근에 그자 이젠 시계나 잇저, 시계도 엇아난에 영 봥 익은 거 닮으민 건져 내어근에 식혀근에 널엉 ᄒᆞ끔 보질보질. 차롱착에, 차롱착에 놔근에 경 식은 것 닮으민 영 헤근에 ᄎᆞ그ᄎᆞ근 당에 갈 걸 정리허여. 경 허영 놧다근에 아시날 저녁에 만들앙 놧당 뒷날 아침이. 아,

945) 진문자 구술.
946) '통물당'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당 이름이다.

샌 아이 놓고. 차롱착에 영 허여근에, ᄒᆞ나, ᄒᆞ나로 영 헹 널어. 널어, 차롱착 넓은 것에. 게난 떡을 많이 안 허는 거난게. 한 열네 개라신가.[947]

도래떡. 메밀가루나 쌀가루나. 소금도 안 넣고, 집에서. 메밀떡은 하려고 하면 메밀가루는 물을 끓여야 반죽은 하고 흰떡은 물 그냥 끓이지 않아서 생, 그냥 물로 생수로 그냥 해서 반죽해서 만들어서 삶아서 뜨면 그게 떡이지. 솥에, 솥에 넣어서 물 넣고 해서 하다가 물 팔팔 끓이면 그다음은 들이뜨려서 그 떡이 이렇게 봐서 그저 이젠 시계나 있지, 시계도 없으니까 이렇게 봐서 익은 거 같으면 떠내어서 식혀서 널어서 조금 '보질보질'[948]. 채롱짝에 채롱짝에 놔서 그렇게 식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당에 갈 걸 정리해. 그렇게 해서 놨다가 전날 저녁에 만들어서 놨다가 뒷날 아침에. 아, 띠는 안 놓고. 채롱짝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로 이렇게 해서 널어. 널어, 채롱짝 넓은 것에. 그러니까 떡을 많이 안 하는 거니까. 한 열네 개였는가.

게난 사발 하나에, 그 보시에 떡은 하나 올리고 떡 하나 궤기 하나 허영 보시 우터레 올리고. ᄯᅳ로 그 상단이엔 허여근에 상단에 건 그냥 옆이 상지착에 올리곡 허여근에 그건 ᄒᆞᆫ 네 개나 다섯 개 헤여근에 상단더레. 보시헌 건 그 옆에 하단더레 허여근에 올리고 그디 가민 막 합니다게. 저 올릴 디가, 보시에 밥이 ᄋᆞ라 개 헹 가사여. 겐디 집마다 틀려근에 우리 집인 토산당이 엇이난 그레 가도 그 일레에 당에, 토산당이엔 허여근에 옆이 모시는 디가 잇수다. 경 허민 우린 토산당은 안 허난에 그렌 그디 직센 안 헹 갑주게. 겐디 그디 위허는 사름은 또로 토산당이엔 헌 디도 ᄆᆞ딱 올려근에 허곡 경 헙니다. 밥, 떡. 곤밥으로. 안 허여, 곤밥으로, 곤밥으로.

947) 진문자 구술.
948) '보질보질'은 돌레떡을 삶은 후 떠내어서 어느 정도 식힌 상태를 말한다.

솔라니 굽곡. 돗궤긴 안 허고 셍성만. 술허고.[949]

그러니까 사발 하나에, 그 보시에 떡은 하나 올리고 떡 하나 고기 하나 해서 보시 위에 올리고. 따로 그 상단이라고 해서 상단에 건 그냥 옆이 채롱짝에 올리고 해서 그건 한 네 개나 다섯 개 해서 상단으로. 보시 한 건 그 옆에 하단으로 해서 올리고 거기 가면 아주 많습니다. 저 올릴 데가, 보시에 밥이 여러 개 해서 가야해. 그런데 집마다 달라서 우리 집에는 '토산당'[950]이 없으니까 그리로 가도 그 이레에 당에, '토산당'이라고 해서 옆에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토산당'은 안 하니까 그리로는 거기 몫은 않고 가지요. 그런데 거기 위하는 사람은 따로 '토산당'이라고 하는 데도 모두 올려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밥, 떡. 흰밥으로. 안 해, 흰밥으로, 흰밥으로. 옥돔 굽고. 돼지고기는 하지 않고 생선만. 술하고.

백지로 허여근에 소지. 아니, 백지, 백지. 창오진 문 ᄇᆞᆯ르는 것ᄀᆞ라 창오지엔 허고. 그 심방 오랑 ᄉᆞ는 것ᄀᆞ란 소지엔 헙니다. 첨 백지엔 헙니다, 백지. 경 헌디 우린 ᄯᅳ로 저 백지 영 헹 ᄇᆞᆯ아근에 영 태울 땐 소지, 소지엥 헙니다, 소지. 허여근에 영 허영 그자 펜안허게 헤줍센.[951]

백지로 해서 '소지'[952]. 아니, 백지, 백지. 창호지는 문 바르는 것더러 창호지라고 하고. 그 무당 와서 사르는 것더러 '소지'라고 합니다. 참 백지라고 합니다, 백지. 그런데 우린 따로 저 백지 이렇게 해서 말아서 이렇게 태울 땐 '소지', '소지'라고 합니다,

949) 진문자 구술.
950) '토산당'은 칠성이라고 불리는 뱀신과 육아와 치병을 맡은 신을 모신 곳이다.
951) 진문자 구술.
952) '소지'는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저 편안하게 해달라고.

코시, 게메 거 다 헤나민, 절 헤나민, 코시게, 다 숟구락으로 제사 때엔 보시로 헴발씩 허주마는, 우린 가민 그냥 숟구락 하나 아졍가근에, 그냥 우로 ᄒᆞᆫ 숟구락 떠근에 저레 그레 훅 데낍니께. 그 올려난 드레 헤영. 그런 첨, 데끼는 게 아이고 그 올려난 옆이 영 허영 돌이니까 ᄒᆞ꼼 영 엉장이 십니다, 구멍이. 경허민 그레 고기도 ᄐᆞᆫ앙 놓곡 떡도 ᄐᆞᆫ앙 놓곡 밥도 ᄒᆞᆫ 숟구락 그레 놓고.[953]

고사, 글쎄 거 다 하고 나면, 절 하고 나면, 고사, 다 숟가락으로 제사 때엔 보시로 조금씩 하지만, 우린 가면 그냥 숟가락 하나 가져가서, 그냥 위로 한 숟가락 떠서 저리로 그리로 훅 던집니다. 그 올렸던 곳으로 해서. 그런 참,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올렸던 옆에 이렇게 해서 돌이니까 조금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구멍이. 그러면 그리로 고기도 뜯어서 놓고 떡도 뜯어서 놓고 밥도 한 숟가락 그리로 놓고.

돈은 안 올려. 그 심방 앚일 때에는 심방 가민 심방 그 영 ᄉᆞᆯ 제비엔 헙주게. ᄉᆞᆯ ᄌᆞᆸ는 것ᄀᆞ라 제비 ᄌᆞᆸ젠 허민 우리 영 헌 아이, 우리 아덜 봐줍서. 조크냐, 금년 조크냐 허영 봐 줍서 허젠 허민 돈 올련에 헤낫수다. 경헌디 심방 엇은 때엔 돈은 안 올려마씨. 아, 그디 경 헐 거우다. 심방 허는 딘. 심방 허는 딘 돈 들곡 말곡. 심방 허는 딘 돈 아졍 갓수다게. 게난 심방 그거 그 일당, 경 허영 버으는 거 아니꽈.[954]

953) 진문자 구술.
954) 진문자 구술.

돈은 안 올려. 그 무당 앉을 때에는 무당 가면 무당 그 이렇게 쌀 제비라고 하지요. 쌀 집는 것더러 제비 집으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한 아이, 우리 아들 봐주십시오. 좋겠느냐, 금년 좋겠느냐 해서 봐 주십시오 하려고 하면 돈 올려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당 없을 때에는 돈은 안 올려요. 아, 거기 그렇게 할 겁니다. 무당 하는 덴. 무당 하는 덴 돈 들고 말고. 무당 하는 데 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그거 일당, 그렇게 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당은 엇어. 이젠 그런 것에 신경 썸수강게. 그디 가젠 허민 일도 아이 가곡, 어디 무시거 구진 거 봐지카부덴 ᄉᆞᄆᆞᆺ 집이 살멍 ᄒᆞ영 ᄒᆞᆫ 사흘은 정성 허여근에 그 당에도 가낫수다. 그자 영 헌 ᄒᆞ꼼 절벽인디, 절벽인디 요런 디 영 허영 큰 넙작헌 돌이 잇수다게, 경허난 엿날에도 그거. 자연석. 경 헨 그디 당을 멘든 것 닮아, 나 셍각에. 낭은 더런, 아이고 그 말도 ᄀᆞᆯ아살로구나. 엿날, 엿날이 아니고 요 중간에 그 면사무소에서 당 없애렌 허멍 허난에 면사무소에서 오란 낭 짤라 불엇수게. 큰 낭 잇어낫수다게, 그 일레당에. 경 헨 낭 짤라 불멍 허연 허난에 경 막, ᄋᆞ드레당은 큰 낭이실 거라. 견디 일레당은 큰 낭 엇수다. 잡낭덜 막 이제 난. 일레당은 감산리 사름, 예수교 아이 믿는 사름은 첨 믿는 사름은 아이 가도 예수교 아이 믿은 사름은 일레당은 다 가마씨. ᄋᆞ드레당은 가는 사름만 가고, 아이 가는 사름은 아이 갑니다.

당은 없어. 이젠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거기 가려고 하면 일도 아니 가고, 어디 무엇 궂은 거 볼까 싶어서 사뭇 집에 살면서 해서 한 사흘은 정성해서 그 당에도 갔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 조금 절벽인데, 절벽인데, 요런 데 이렇게 해서 큰 넓적한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거. 자연석. 그렇게 해서 거기 당을 만든 것 같아,

나 생각에. 나무는 더러는, 아이고 그 말도 말해야겠구나. 옛날, 옛날이 아니고 요 중간에 그 면사무소에서 당 없애라고 하면서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와서 나무 잘라버렸습니다. 큰 나무 있었습니다, 그 '일레당'[955]에. 그렇게 해서 나무 잘라버리면서 해서 하니까 그렇게 마구, '우드레당'[956]은 큰 나무 있을 거야. 그런데 '일레당'은 큰 나무 없습니다. 잡나무들 마구 이제 나서. '일레당'은 감산리 사람, 예수교 안 믿는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은 안 가도 예수교 안 믿는 사람은 '일레당'은 다 가요. '우드레당'은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아니 갑니다.

5) 칠성제

칠성제, 난 친정 이신 땐 몰라수다마는 그런 거 우리 친정에 엇이난. 이딘 오난에 칠성제 잇젠 허연에 그걸 헤십주게. 경허민 정월 나민 그 액멕이엔 허여근에 그것광 칠성광 그저 겹허영 심방을 빌어근에 집이서 막 굿헙니다게.[957] 우리 바깟칠성 허여낫수다.[958] 경 허연에 안칠성이엔 허는 거는 제사ᄒᆞᆯ 때 그 제반 걷어근에, 옛날엔 궷방 이서나지 안헤수광게. 고팡더레 가근에 허연게마씀. 경헌디 우리는 밧칠성이 이시난에, 그냥 제사 때는 아니 헤도 그레 일 년에 ᄒᆞᆫ 번 심방 빌엉 헐 땐 글로도 가근에. 정월ᄃᆞᆯ에, 허여낫수다. 심방 빌엉. 온 짐에 글로 강 ᄒᆞᆫ디 허여.[959]

'칠성제'[960], 난 친정 있을 땐 몰랐습니다만 그런 거 우리 친정에 없으니까. 여기는

955) '일레당'은 7·17·27일에 다니는 신당. 이 당에 모신 신 일뤠할망은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한다.
956) '우드레당'은 매달 여드레에 찾아가는 당이다.
957) 진문자 구술.
958) 고만부 구술.
959) 진문자 구술.

오니까 '칠성제' 있다고 해서 그걸 했습지요. 그러면 정월 나면 그 '액멕이'[961]이라고 해서 그것과 '칠성'[962]과 그저 겹 해서 무당을 빌어다가 집에서 마구 굿합니다. 우리 '바깥칠성'[963]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칠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할 때 그 제반 걷어서, 옛날에는 고방 있었지 않습니까. 고방으로 가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밧칠성'이 있으니까, 그냥 제사 때는 아니 해도 그리로 일 년에 한 번 무당 빌어서 할 때는 그리로도 가서. 정월에 했었습니다. 무당 빌어서. 온 김에 거기로 가서 같이 해.

ᄂᆞ람지게. 밧칠성이엔 헌 건 그 베염이엔 헙디다, 베염. ᄂᆞ람지, ᄂᆞ람지가 아니고 주젱이. 주젱이 입형 그 일 년에 ᄒᆞᆫ 번 그 심방 빌엉 헐 때엔 그 주젱이 가근에 묵은 건 앗앙 옆더레 영 놔둬근에 새거 멘들앙 강 집을 씌웁니께. 갈암수다, 매년 갈아. 예게. 이디서 그 심방 빌엉 헐 때 허여난 거, 밥 ᄒᆞᆫ 사발 허곡게 고기영, 과일이영, 떡이영 허영 ᄀᆞᆺ사ᄀᆞ찌. 셍성게. 고랑착에 놔근에 들렁 강 글로 강 올령 심방도 댕댕헙주게. 날짜 봐근에 좋은 날에.[964]

이엉. '밧칠성'이라고 한 것은 그 뱀이라고 합디다, 뱀. 이엉, 이엉이 아니고 주저리. 주저리 입혀서 그 일 년에 한 번 그 무당 빌어서 할 때엔 그 주저리 가서 묵은 건 가져서 옆으로 이렇게 놔둬서 새거 만들어서 가서 집을 씌웁니다. 갈고 있습니다, 매년 갈아. 예게. 여기서 그 무당 빌어서 할 때 했었던 거, 밥 한 사발 하고 고기랑, 과일이랑, 떡이랑 해서 아까같이. 생선. 채롱짝에 놔서 들어서 가서 거기로 가서 올려서 무당도 댕댕하지. 날짜 봐서 좋은 날에.

---

960) '칠성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에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다.
961) '액멕이'는 액을 막아 행운이 오기를 기원하는 재차(祭次) 이름이다.
962)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함.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963) '바깥칠성'은 뒤칠성, 뒷할망이라고도 하는데 집 뒤에 모시는 뱀 신을 일컫는 말이다.
964) 진문자 구술.

6) 문전제

우린 문전제 안 헙니다. 것도양 집안마다 다 틀려마씨. 허는 집 잇곡, 안 허는 집 잇곡. 이 동네도양 허는 집인 허곡, 안 허는 집인 안 헙니다. 겐디 ᄒᆞᆫ 궨당도 ᄒᆞ는 집인 허곡, 안 허는 집인 안 헤마씨. 아, 그거 제반 걷은 거 저레 가근에 헙니다. 저 제반 걷은 것 강 비우는 거. 제반 걷어, 제반 걷어 허는 게. 걷은 거 저 올레 어귀에 가근에. 보시에 헌 거는, 우린 이디서 허는 거 보난에 그 물박 숭눙이엔 헌 건 숭눙으로 사발에 허고 보시에 허는 건, 그냥 밥 먹어난 숭눙이엔 허영 올려근에 ᄆᆞᆫ딱 그거 올려난 거 ᄒᆞᆫ발씩 ᄐᆞᆯ아놔근에 그레 ᄆᆞᆫ딱 경 허영 강 빕는 거 닮안게마씨. 아, 엿날엔 경 헤낫수다. 지붕에 엿날에덜은 올렷주게. 가마귀덜 오라근에 먹넨 허멍.[965] 마찬가지주, 우리도 초가집, 요즘은 이런 집이니까 안 허는데 옛날은 그 초가집 지붕 우에 올렷어. 물박 숭눙이엔 헤서 아까 말한 건 사발에 헌 거는 올레 어귀에 가근에. 우린 여기서 물박 숭눙, 물박 숭눙 헷어. 물박 숭눙이엔 헷어, 그때는. 우리 같은 일가도 허는 디 잇고, 우리는 안 헷고.[966]

우린 '문전제'[967]는 안 합니다. 그것도 집안마다 다 달라요.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 있고. 이 동네도 하는 집에는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한 친척도 하는 집에는 하고, 안 하는 집에는 안 해요. 아, 그거 제반 걷은 거 저리로 가서 합니다. 거 제반 걷은 것 가서 붓는 거. 제반 걷어, 제반 걷어서 하는 게. 걷은 거 저리 올레 어귀에 가서. 보시에 한 거는, 우린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그 물바가지 숭늉이라고

965) 진문자 구술.
966) 고만부 구술.
967) '문전제'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한 건 숭늉으로 사발에 하고 보시에 하는 건, 그냥 밥 먹었던 숭늉이라고 해서 올려서 모두 그거 올렸던 거 조금씩 뜯어놔서 그리로 모두 그렇게 해서 가서 붓는 거 같아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붕에 옛날에는 올렸지. 까마귀들 와서 먹는다고 하면서. 마찬가지지, 우리도 초가집, 요즘은 이런 집이니까 안 하는데 옛날은 그 초가집 지붕 위에 올렸어. 물바가지 숭늉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건 사발에 한 거는 올레 어귀에 가서. 우린 여기서 물바가지 숭늉, 물바가지 숭늉 했어. 물바가지 숭늉이라고 했어, 그때는. 우리 같은 일가도 하는 데 있고, 우리는 안 했고.

7) 보리밭 밟기

보리밧 아이 ᄇᆞᆯ라봣수다.[968] 나는 그 좀 ᄇᆞᆲ아봣어. 우리 웃드르는 정월 낭 곳을, 땅이 막 부그락허게 곳아. 게민 땅이 그디 얼음덜도 영 나오민 그거를 강 잘 밟아줘사, ᄇᆞᆯ려사 그냥 좋넨 허영 사름 우리 가근에 좀 나는 ᄇᆞᆯ려낫어, 우리 웃드르 가서 이렇게. 아니 우리 식구들 강. 우리 발로, 발로. 무슨 뭐 이런 ᄆᆞᆯ이나 쉐 ᄆᆞᆯ앙 강 허는 게 아니고, 발로 강 고지 ᄎᆞ례로 강 이렇게 ᄌᆞ그ᄌᆞ근 허영 또 돌아오멍 이렇게. 수눌진 안 허고 이녁 것만 가서 이렇게 헤낫어. 웃드르. 저쪽 우리 헤벤더렌 안 허고.[969]

보리밭 안 밟아 봤습니다. 나는 그 좀 밟아 봤어. 우리 '웃드르'[970]는 정월 나서 얼, 땅이 마구 부풀게 곱아. 그러면 땅이 거기 얼음들도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가서 잘 밟아줘야, 밟아서 그냥 좋다고 해서 사람 우리 가서 좀 나는 밟았었어, 우리 '웃드르' 가서 이렇게. 아니 우리 식구들 가서. 우리 발로, 발로. 무슨 뭐 이런 말이나 소 몰아서

968) 진문자 구술.
969) 고만부 구술.
970)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위쪽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가서 이랑 차례로 가서 이렇게 자근자근해서 또 돌아오면서 이렇게. 품앗이하진 않고 자기 것만 가서 이렇게 했었어. '웃드르'. 저쪽 우리 해변으로는 안 하고.

8) 걸궁

걸궁은 우리가 첨. 것도 어떤 면에서는 와서 걸궁을 이제 정월달 뒈면 부락에서 저 걸궁 헐 사름 패를 만들어, 누군 무슨, 무슨 역할을 다 허거든, 역할을, 그 당시에는 사냥꾼도 털옷 같은 거 입어근에 허고. 쉐가죽 ᄀᆞ뜬, 닮은 걸로. 그 명칭은 그건 뭐 특별헌 명칭은 모르큰게. 그런 걸 우리 어릴 때 보면, 것도 우리 큰 후에는 없어졋고, 어릴 때 보면은 그 털 감티 영헹 쓰고 털 아마 뭐 노리 가죽이나 무신 이런 걸 거라.[971]

걸립은 우리가 참.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와서 걸립을 이제 정월 되면 동네에서 저 걸립 할 사람 패를 만들어, 누군 무슨, 무슨 역할을 다 하거든, 역할을, 그 당시에는 사냥꾼도 털옷 같은 거 입어서 하고. 소가죽 같은, 같은 걸로. 그 명칭은 그건 뭐 특별한 명칭은 모르겠어. 그런 걸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것도 우리 큰 후에는 없어졌고, 어릴 때 보면 그 털 감투 이렇게 해서 쓰고 털 아마 노루 가죽이나 무슨 이런 걸 거야.

총도 들고, 낭으로 총도, 칼도. 그런 사름은 사냥허는 사람이라, 경 허고 거디서 뭐 ᄃᆞ 북치는 사람, 뭐 장귀 치는 사람, 뭐 이렇게 헤서 매 집마다 가서 한참 동안 막 놀아, 그거 막 거기서 막 놀면은 또 우리는 그것이 재미잇어 가지고 드러 조름에 좇앙 다니멍 구경허고, 한동안 그렇게 놀아나면

971) 고만부 구술.

주인이 첨 뒈약세기, 그 당시 뭐 쏠이엔 헌 건, 곤쏠은 건 좀 어렵고 그냥 그자 보리쏠 허여서 조끔 보답허고 뭐 그런 식으로 헤서 허면은 그게 액막이가 뒈는 거라, 그게. 그렇게 헤나야 그 집안에 아이덜이라든가 저 어디 뎅기당 다치지도 않고 넋 나지도 안허곡 헌덴 헹 헷어, 그렇게. 게고 또 어떤 디는 막 일부러 초청헤. 우리 집이 왕 막 헤ᄃᆞ렌. 우리 집이 와근에 걸궁 막 헤ᄃᆞ렌 헹 초청허민 그디도 가고, 경 아녀민 거의 대부분은 그자 이렇게 올레마다 거의 들어가서 허고 아까 말처럼 초청헌 디는 조끔 길게 헤주고, 경 아녕 올레마다 헐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려근에 한바탕 푸다시 헹 허는 거주. 걸궁 놀이 허영 나강 다른 집이 강 허곡 영 헷주.[972]

총도 들고, 나무로 총도, 칼도. 그런 사람은 사냥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또 북 치는 사람, 뭐 장구 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매 집마다 가서 한참 동안 마구 놀아, 그거 마구 거기서 마구 놀면은 또 우리는 그것이 재미있어 가지고 계속 꽁무니에 쫓아 다니면서 구경하고, 한동안 그렇게 놀고 나면 주인이 참 식되, 그 당시 뭐 쌀이라고 한 건, 흰쌀은 건 좀 어렵고 그냥 그저 보리쌀 해서 조금 보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게 액막이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고 나야 그 집안에 아이들이라든가 저 어디 다니다가 다치지도 않고 넋 나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했어,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마구 일부러 초청해. 우리 집에 와서 막 해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걸립 막 해달라고 해서 초청하면 거기도 가고, 그렇게 아니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저 이렇게 올레마다 거의 들어가서 하고 아까 말처럼 초청한 데는 조금 길게 해주고, 그렇게 아니해서 올레마다 할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려서 한바탕 '푸다시'[973] 해서 하는 거지. 걸립 놀이 해서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했지.

---

972) 고만부 구술.
973) '푸다시'는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부정이나 살 따위를 푸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 감티는 영 보민 꽂 이런 거 뭐냐 모자가 잇어, 걸궁허는 디 큰 꽂 종이로 뭐 아까 말로는 창오지, 옛날은 그때는 그걸로 멘들아 가지고 그냥 거 쓰고, 옷은 역할마다 좀 달라진 거 같은데, 아까 사냥수허고 그냥 또 가면 써근에 허는 사람, 뭐 이런 거, 헌디 대부분 그냥 우리 조선 옷인데, 조선 우리 바지저고리. 게난 양반이 좀 희뚜룩헌 미녕 입고, 경 아년 디는 갈중이 ᄀᆞ뜬 거 좀 허수룩허게 입고, 그 맡은 역할에 따랑 좀 다르게 입엇어. 갈중의, 미녕옷이 주로, 저 사냥꾼허고 그거 특이허게, 나머지는 그자 비슷허게 입엇어.[974]

그러면 그 감투는 이렇게 보면 꽃 이런 거 뭐냐 모자가 있어, 걸립하는 데 큰 꽃 종이로 뭐 아까 말로는 창호지, 옛날은 그때는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 쓰고, 옷은 역할마다 좀 달라진 거 같은데, 아까 사냥꾼하고 그냥 또 가면 써서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하는데 대부분 그냥 우리 조선 옷인데, 조선 우리 바지저고리. 그러니까 양반이 좀 희읍스름한 무명 입고, 그렇게 아니한 데는 '갈중의'[975] 같은 거 좀 허름하게 입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입었어. '갈중의', 무명옷이 주로, 저 사냥꾼하고 그거 특이하게, 나머지는 그저 비슷하게 입었어.

9) 입춘

입춘, 입춘엔 그냥 우리 촌에서는 그 아까 정월ᄃᆞᆯ 나민 액멕이여 무시거여 허듯이 비슷허여마씨. 그자 입춘에 공들이는 사름도 잇고, 심방 빌어당 굴루이, 굴루이 그냥 입춘에 심방 이녁냥으론 못 허고 그냥 심방 빌어다근

974) 고만부 구술.
975)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로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다.

에 그 입춘에 그 집안도 펜안허곡 아으덜토 펜안허게 헤 줍센 허여근에 거 심방 빌어다근에 허여난 거 답수다. 우리 허기론 여자덜 그 입춘 시간 넘으민 가도 넘기 전이 가면은 원 닮아붸진 안 헌디 검질 짓넨, 밧디 검질 짓넨 허멍, 겨곡 그헤에 여자가 들어가민 재수엇넨, 남자 들어온 건 재주가 좋고, 여자 들어가민 검질도 짓곡 그 해에 그 집안이 재수가 엇넹 허멍. 경 허멍 ᄀᆞᆯ은 말 들엇수다게. 이제덜은 그추룩 아니헤도.[976] 아까 새엣절은, 첨 새엣절이엔 허며는 드는 날은 시간 전에는 특히나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질 안 헷거든, 아까 ᄀᆞᆺ세 ᄀᆞᆯ아신게 저 검질 많이 짓넨 허고, 샛절드는날부떠 왓젠 허멍 그냥 재수 없넹 허고. 또 돈 안 쓰곡 말이여 그때 뒈근에, 새엣절날부떠 돈 쓰면 돈 하영 쓴덴 허멍 그런 것도 잇엇고. 그런데 우수에 대헌 거는 뭐 어떤 특별허게 뭐 들은 얘기나 들은 말은 엇어.[977]

입춘, 입춘이라고 그냥 우리 촌에서는 그 아까 정월 나면 액막이다 무엇이다 하듯이 비슷해요. 그저 입춘에 공들이는 사람도 있고, 무당 빌어다가 별도로, 별도로 그냥 입춘에 무당 자기대론 못 하고 그냥 무당 빌어다가 그 입춘에 그 집안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거 무당 빌어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기론 여자들 그 입춘 시간 넘으면 가도 넘기 전에 가면은 원 닮아 뵈진 않은데 김 짓는다고, 밭에 김 짓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해에 여자가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고, 남자 들어온 건 재수가 좋고, 여자 들어가면 김도 짓고 그해에 그 집안에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말 들었습니다. 이제들은 그처럼 아니해도. 아까 입춘은, 참 입춘이라고 하면 드는 날은 시간 전에는 특히나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질 안 했거든, 아까 아까 말했는데 저 김 많이 짓는다고 하고, 입춘 드는 날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냥 재수 없다고

976) 진문자 구술.
977) 고만부 구술.

하고. 또 돈 안 쓰고 말이야 그때 돼서, 입춘부터 돈 쓰면 돈 많이 쓴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우수에 대한 거는 뭐 어떤 특별하게 뭐 들은 얘기나 들은 말은 없어.

10) 방에 부찌기

방에, 우리 할아버지벌들이나 하르방벌이나 헷주. 우린 방에는 그런 거는 구경은 헷지, 어릴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 방에 부찐 거는 주로 초등학교 때주게, 경 허면은 이 봄 나가면 부치는데 저디ᄀᆞ라 ᄀᆞ는오름이엔 헤여. 우리 ᄀᆞ는오름드레 요 우리 여디선 ᄆᆞᆯ마농물더레 그레 방에를 부찌는데 웨 부찌느냐 허면은 그 당시는 ᄆᆞᆯ이나 쉐나 ᄆᆞᆫ딱 들에 그냥 놩 멕엿거든, 놩 멕엿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가두어서 질루는 게 아니라 놩 멕이면은 진독, 진드기라 허여 요즘은, 진독 없애기 위헤서, 부구리, 부구리를. 게 진독이 크면 부구리가 뒌다고 헤서 허는데 그런 걸 없애젠 방에를 일부러 놧주게. 그거는 안 가봣어, 우리는 어릴 때니까 방에 끄렌 가보지 못허고 그냥 구경만 헷지. 불 저기 부트는 것만. 방에 끄레는 안 가보고. 그거 재현헌 거엔 허는디, 우리는 그런 건 그때에 방에를 노니까 고사리 잇잖아, 고사리, 고사리가 무정허게 잘 낫주게. 그때는 방에 부쪄 부니까는 첨. 게난 주로 우리가 알기로 진드기, 부구리, 진드기 번식 없애젠 경 헹 허는 거라.[978]

방화, 우리 할아버지벌들이나 할아버지벌이나 했지. 우린 방화는 그런 거는 구경은 했지, 어릴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 방화 붙인 거는 주로 초등학교 때지요, 그렇게

978) 고만부 구술.

하면은 이 봄 나가면 붙이는데 저기보고 'ᄀᆞ는오름'[979]이라고 해. 우리 말하는 'ᄀᆞ는오름'으로 요 우리 여기서는 'ᄆᆞᆯ마농물'[980]로 그리로 방화를 붙이는데 왜 붙이느냐 하면은 그 당시는 말이나 소나 모두 들에 그냥 놔서 먹이거든, 놔서 먹였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가두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놔서 먹이면은 진드기, 진드기라고 해 요즘은, 진드기 없애기 위해서, '부구리'[981], '부구리'를. 그렇게 진드기가 크면 '부구리'가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런 걸 없애려고 방화를 일부러 놨지. 그거는 안 가봤어, 우리는 어릴 때니까 방화 끄려고 가보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지. 불 저기 붙는 것만. 방화 끄러는 안 가보고. 그거 재현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그때 방화를 놓으니까 고사리 있잖아, 고사리, 고사리가 무정하게 잘 났지. 그때는 방화 붙여버리니까 참.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알기로 진드기, '부구리', 진드기 번식 없애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 2월

1) 영등

어디 바닷가 근처에 잇인 사름이나 잘 알주, 우린 영등굿 봐 보질 안 헷수다. 저 이제사 테레비엔 봐도. 이월 초ᄒᆞ루에 들어와근에 보름에 나간덴 허주. 영등할망, 어디 모르쿠다, 바당, 바당에서 그 영등할망 들어오민 양, 그 들어온덴 허민 그 조개덜이 ᄆᆞᆫ 빈 조개가 잇넨 헙니다게, 그 말은 나도 들언. 거 오꼿 영등할망 들어오멍 ᄆᆞᆫ 그거 까먹어근에 이레 들어오랑. 경 허여근에 보름 살다근에 영등할망이 우장, 우장이엔 허주, 입성 좋은

979) 'ᄀᆞ는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980) 'ᄆᆞᆯ마농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981) '부구리'는 진드기가 성장하여 된 벌레를 말한다.

할망 들어오민 저 비만 오고, 날씬허게 출령 오민 날이 좋곡, 경 헌덴 말은 들엇수다. 게난 조개 까먹고. 우도, 바당으로 왐시카부덴. 몰라, 어디산디. 그자 그런 말만 들어나난.[982] 바다로 영등할망 들어왓젠 허난 첨 어딜로 왕 어딜로 나간덴 말을 못 들엇단 말이여. 견디 우린 그자 영등할망 들어왓저, 영등할망 들어왓저, 이런 말만 들엇거든.[983]

어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잘 알지, 우린 '영등굿'[984] 봐 보질 안 했습니다. 저 이제야 텔레비전에는 봐도. 이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보름에 나간다고 하지. 영등신, 어디 모르겠습니다, 바다, 바다에서 그 영등신 들어오면, 그 들어온다고 하면 그 조개들 아 모두 빈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도 들었어. 그것 그만 영등신 들어오면서 모두 그거 까먹어서 이리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보름 살다가 영등신이 도롱이, 도롱이라고 하지, 입성 좋은 할머니 들어오면 저 비만 오고, 날씬하게 차려서 오면 날이 좋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 까먹고. 우도, 바다로 오고 있을까 싶어서. 몰라, 어디인지. 그저 그런 말만 들었으니까. 바다로 영등신 들어왔다고 하니까 참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간다는 말을 못 들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린 그저 영등신 들어왔다, 영등신 들어왔다, 이런 말만 들었거든.

2) 경칩

우수 경칩에 대헤서 특별허게 허는 행사가 엇어, 겨난 전연 모르크라. 그거에 대헤서 그날 무슨 특별이 허는 게 이시믄 알 건디 그런 건 엇어. 뭐, 경칩이라고 헤서 오늘은 뭘 헌다 이렇게 허질 안 헤.[985]

982) 진문자 구술.
983) 고만부 구술.
984) '영등굿'은 영등신을 맞이하여 치르는 당굿을 말한다.

우수 경칩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행사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 그날 무슨 특별히 하는 게 있으면 알 것인데 그런 건 없어. 뭐 경칩이라고 해서 오늘은 뭘 한다 이렇게 하지 안 해.

□ 3월

1) 한식 · 청명

(1) 한식

한식, 한식 멩질이엔 헨 들어나긴 헷수다마는, 쑥떡 허여근에 먹곡 헤도 (멩질) 허여나지 아니허난에.[986]

한식, 한식 명질이라고 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쑥떡 해서 먹고 해도 (명질) 하지 않으니까.

(2) 청명

우리는 여기서는 그 청명, 청명은 그자 숭이 없덴 헤근에 뭐 산담도 보수허고 무슨 테역도 좀 헌 디 강 잘 또 새로 고쳐 놓고, 이런 건 잇엇지마는 특히나 뭐 한식 청명 그런 걸 헷주, 주로. 하여간 뭐라 그럴까, 동티, 동티가

985) 고만부 구술.
986) 진문자 구술.

아니고 하여간 흉 봐근에 나에게 어떤 재앙이 돌아올 것이 없다고 헤서 그날은, 그자 ᄆᆞ음 놩 헌다고 헤서, 그런 거주. 그런 건 잇엇어. 게서 청명날에는 보통 이 산에서 보수, 이렇게 강 고찌는 거, 산담 헐어진 거 고쪄다는 건 헷주게.[987]

우리는 여기서는 그 청명, 청명은 그저 흉이 없다고 해서 뭐 '산담'[988]도 보수하고 무슨 떼도 좀 없는 데 가서 잘 또 새로 고쳐 놓고, 이런 건 있었지만 특히 뭐 한식 청명 그런 걸 했지, 주로. 하여간 뭐라 그럴까, 동티, 동티가 아니고 하여간 흉 봐서 나에게 어떤 재앙이 돌아올 것이 없다고 해서 그날은, 그저 마음 놔서 한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있었어. 그래서 청명에는 이 묘에서 보수, 이렇게 가서 고치는 거, '산담' 무너진 거 고쳐서 쌓는 건 했지.

(3) 묘제

묘제사 헴주. 청명 때 우리는 그렇주게. 게난 묘제가 예를 들면 제일 웃대 하르방, 파조 하르방이 잇고, 또 그때 ᄂᆞ려오면서 알드레 내려올수록 영 서로 가지로 갈라지는 거 아니, 큰아들에서. 내가 죽으면은 나 이하의 ᄌᆞ손들은 허곡, 또 그다음 우리 아덜 대는 성제난 거기서 또 후에 ᄌᆞ손덜이 나민 또 갈라지고, 이렇게 허거든 그래서 웃대, 알대 이렇게 헤서 헹허는 것이 잇고, 또 자기 제일 밋트레 가면은 또 자기네 근친, 근친만 모여서는 이렇게 허는 묘제가 잇고.[989]

---

987) 고만부 구술.
988)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이다.
989) 고만부 구술.

묘제야 하고 있지. 청명 때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묘제가 예를 들면 제일 윗대 할아버지 파 조상 할아버지가 있고, 또 그때 내려오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가지로 갈라지는 거 아니, 큰아들에서. 내가 죽으면 나 이하의 자손들은 하고, 또 그다음 우리 아들 대는 형제니까 거기서 또 후에 자손들이 나면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윗대, 알대 이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 제일 밑으로 가면은 또 자기네 근친, 근친만 모여서는 이렇게 하는 묘제가 있고.

□ 4월

1) 사월 초파일

우린 그자 절간에 가근에게 스님 ᄀᆞᆫ는 대로 등 ᄃᆞᆯ민 일 년 그 등에서 펜안허곡, 등 ᄃᆞᆯ아주민 불 싸근에 펜안헌덴 허곡 허는디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이제 등에 이름이 잇다근에 거 초로 관계산디 어떵은 몰라도 불이 안 고를 때가 십니다. 펄럭펄럭펄럭, 펄럭펄럭헐 때, 그런 때에는 영 헹 그디 절간에 보살이나 스님이나 봉 아이고 저딘 불이 안 좋아근에 저거 펜안허지 안 허쿠다 허멍 경 ᄀᆞᆫ는 말은 들어서마씨. 게메, 그날은게 이발소에 강, 첨 미장원엘 가나 집이설 허나 허여근에 머리덜 가끄는 사름은 가까도 이제 무신 새 사름덜은 그거덜 헴서? 우리 헐 때는, 옛날엔 다 허엿주. 다 헷주, 옛날엔. 경 헤사 머리가 잘 난덴 허여근에 그날 가깟수다.[990]

우린 그저 절에 가서 스님 말하는 대로 등 달면 일 년 그 등에서 편안하고, 등 달아주

990) 진문자 구술.

면 불 켜서 편안하다고 하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이제 등에 이름이 있다가 그것 초로 관계인지 어떤지 몰라도 불이 안 고를 때가 있습니다. 펄럭펄럭펄럭, 펄럭펄럭할 때, 그런 때는 이렇게 해서 거기 절에 보살이나 스님이나 봐서 아이고 거기는 불이 안 좋아서 저거 편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말은 들었어요. 글쎄, 그날은 이발소에 가서, 참 미장원엘 가나 집에서 하나 해서 머리 깎는 사람은 깎아도 이제 무슨 새 사람들은 그것들 하고 있어? 우리 할 때는, 옛날엔 다 하였지. 다 했지, 옛날엔. 그렇게 해야 머리가 잘 난다고 해서 그날 깎았습니다.

□ 5월

1) 단오

단오 명질 헷어. 우리 이디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말로 단오는 무슨 아침이여, 우리 사람 ᄀᆞ뜨민 하루, 하루를 비교허민 아침이고, 뭐 추석날은 점심이여, 뭐 정월은, 아, 정월은 아침 조반이여, 오월 단오는 점심이여, 팔월 추석날은 저녁이여, 이렇게 우리가 헷고. 여기는 오월 단오라고 허면은 이제 보면 막 바쁜 때라, 그때. 우리 동네는 논 말도 헷주마는 논일 한창일 때라, 논일. 논일 한창이엔 허면은 그저 집안마다 단오 명질 다 먹엉, 다른 멩질허고 다 똑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허면은 바로 논일 나가나 일터로 그냥 주로 나가고, 이렇게 아니면 보리, 그때도 보리 비어, 그때. 보릴 비레 가거나 좀 막 바쁜 때주.[991]

991) 고만부 구술.

단오 명질 했어. 우리 여기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말로 단오는 무슨 아침이여, 우리 사람 같으면 하루, 하루를 비교하면 아침이고, 뭐 추석날은 점심이여, 뭐 정월은, 아, 정월은 아침 조반이여, 오월 단오는 점심이여, 팔월 추석날은 저녁이여, 이렇게 우리가 했고. 여기는 오월 단오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 아주 바쁜 때야, 그때. 우리 동네는 논말도 했지만 논일 한창일 때야, 논일. 논일 한창이라고 하면은 그저 집안마다 단오 명질 다 지내서, 다른 명질하고 다 똑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하면은 바로 논일 나가나 일터로 그냥 주로 나가고, 이렇게 아니하면 보리, 그때도 보리 베어, 그때. 보릴 베러 가거나 좀 아주 바쁜 때지.

놀이는, 단오날에 놀이는 엇어. 일허레만 갈 셍각헷지, 무슨 단오날에 뭐 육지선 강릉 단오 축제니, 이디는 그런 게 우리는 엇어, 일허레만 오직 기자 눈이 벌겅케, ᄒᆞᆫ저 어떤 면에선 첨 멩질 지내는 둥 마는 둥 헹 기자 일터에만 가젠 막 헷주.[992]

놀이는, 단오에 놀이는 없어. 일하러만 갈 생각했지, 무슨 단오에 뭐 육지선 강릉 단오 축제니, 여기는 그런 게 우리는 없어, 일하러만 오직 그저 눈이 벌겋게, 빨리 어떤 면에선 참 명질 지내는 둥 마는 둥 해서 그저 일터에만 가려고 마구 했지.

나가 중학교 때ᄁᆞ지도 잇고, 고등학교, 하여간 햇수로 천구백 ᄒᆞᆫ 육십년대 중반까지는 헌 거 같애. 육십삼 년, 육십오. 그때까지도 헌 거 같애. 하여간 어떠튼 간에 그때까지고, 그루후제는 그자 어찌어찌 이제 식으로 풍속이 엇어져 불엇어. 특별이 무신 국가에서 뭐 허지 말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월 단오 멩질이 엇어져 불엇주게.[993]

992) 고만부 구술.

내가 중학교 때까지도 있고, 고등학교, 하여간 햇수로 천구백 혼 육십년대 중반까지는 한 거 같아. 육십삼 년, 육십오. 그때까지도 한 거 같아.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때까지고, 그 후에는 그저 어찌어찌 이제 식으로 풍속이 없어져 버렸어. 특별히 무슨 국가에서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월 단오 명질이 없어져 버렸어.

2) 망종

망종에 뭐 씨를 잘 그 밧데 가서 조, 조씨, 조 뭐라고 헤야뒈나 조씨, 조씨, 그 좁씨를 뿌린단 말이여. 그렇게 헤서 망종에 날씨에 관계된 거 뭐 잇엇나. 뭐 허민은 풍년이 들고. 보리 다 비주게, 망종에. 겡 그때는 조 막 갈 때주, 조, 조. 그르에. 좁씨엔 헷어, 좁씨. 좁씨 강 막 그 뿌려근에, ᄆᆞᆯ 허영 막 다리고 또 소나 ᄆᆞᆯ로 헹 막 다리곡 헹 그것을 안 허면은 우리 저쪽엔 몰라도 이쪽엔 그냥 이 바람이 세면 그거, 웨 그걸 다리느냐 허면은, ᄆᆞᆯ허고 소로 다리, 꽉꽉 허게 다려지지 안허믄 흑이 다 날려서 그 씨가 아마 싹 트는 게 잘 안 뒈서 아마 이렇게 발르곡 이렇게 헷는데, 뭐 망종이라고 헤서는 뭐 그런 정도로. 다 보리는 끗나서 새로.[994] 그때 뒈민 보리, 망종 넘으민 보리가 엇넨 헙니께. 망종 전이 다 보리, 늦은 보리도 다 비어.[995]

망종에 뭐 씨를 잘 그 밭에 가서 조, 조, 좁씨, 조 뭐라고 해야 되나 좁씨, 좁씨, 그 좁씨를 뿌린다는 말이여. 그렇게 해서 망종에 날씨에 관계된 거 뭐 있었나. 뭐 하면은 풍년이 들고. 보리 다 베지, 망종에. 그래서 그때는 조 막 갈 때지, 조, 조. 그루터기

993) 고만부 구술.
994) 고만부 구술.
995) 진문자 구술.

에. 좁씨라고 했어, 좁씨. 좁씨 가서 마구 뿌려서, 말 해서 마구 다지고 또 소나 말로 해서 마구 다지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은 우리 저쪽엔 몰라도 이쪽엔 그냥 이 바람이 세면 그거, 왜 그걸 다지느냐 하면은, 말하고 소로 다리, 꽉꽉 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흙이 다 날려서 그 씨가 아마 싹 트는 게 잘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밟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망종이라고 해서는 뭐 그런 정도로. 다 보리는 끝나서 새로. 그때 되면 보리, 망종 넘으면 보리가 없다고 합니다. 망종 전에 다 보리, 늦은 보리도 다 베어.

□ 6월

1) 둑 잡아먹는 날

유월 스무날. 비에기 ᄒᆞᆫ 이월, 삼월 나민 ᄃᆞᆨ 허여근에 ᄃᆞᆨ세기 앚졍, 안졋당 그거 새끼 께왕 경 허영 그거 좁쌀 주멍 키왕, 곡석 주고 밤엔 더끄곡 망으로 허영 더끄곡, 낮엔 내불민 우녕에 강 베렝이도 줏어 먹곡 허멍 살곡 허다근에 그것이 커근에 ᄒᆞᆫ 중ᄃᆞᆨ 뒌 때가 좋넨 헙니다게, 막 큰 거 보단. ᄃᆞᆨ이 막 큰 ᄃᆞᆨ 안 뒈엉 중비에기. 중비애기가 어린아이덜에 몸엔 막 좋덴 허여근에 그때에 아기덜 엿날엔 보리밥 멕영 살 때민 아기덜이 막 힘 엇엉 준준허곡 허민 그거 잡앙 멕이민 아기가 성 올라마씨. 경 허영은에도 허곡 ᄯᅳ로 ᄒᆞ꼼 커근에 허영 유월 스무날 뒈도록 키운 닥은 그땐 어룬도 막 ᄒᆞᆷ치 잡아근에, ᄋᆞ라 ᄆᆞ리 잡아근에 어른도 먹곡 아이도 주고. 경 허멍 ᄃᆞᆨ세기 나민 ᄃᆞᆨ세기도 풀곡, 오일장에.[996]

996) 진문자 구술.

유월 스무날. 병아리 한 이월, 삼월 나면 닭 해서 달걀 앉혀서, 앉혔다가 그거 새끼 깨워서 그렇게 해서 그거 좁쌀 주면서 키워서, 곡식 주고 밤엔 덮고 망으로 해서 덮고, 낮엔 내버리면 텃밭에 가서 벌레도 주워 먹고 하면서 살고 하다가 그것이 커서 한 중닭 된 때가 좋다고 합니다, 아주 큰 거 보다는. 닭이 아주 큰 닭 안 돼서 중병아리. 중병아리가 어린아이들 몸엔 아주 좋다고 해서 그때 아기들 옛날엔 보리밥 먹여서 살 때면 아기들이 아주 힘 없어서 홀쭉하고 하면 그거 잡아서 먹이면 아기가 성 올라요. 그렇게 해서도 하고 다시 조금 커서 해서 유월 스무날 되도록 키운 닭은 그땐 어른도 마구 한꺼번에 잡아서, 여러 마리 잡아서 어른도 먹고 아이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달걀 나면 달걀도 팔고, 오일장에.

것도 나도 모른디 유월 스무날은 ᄃᆞᆨ 잡아먹는 날, ᄃᆞᆨ 잡아먹는 날 허멍 허영, 게난 그 ᄃᆞᆨ이 유월 스무날 뒈민 막 기운이 차난에 그때에 잡아먹지 안 헤신가, 나 셍각에 경 알고 잇는데예.[997] 그때 우리 농촌에서는 유월 스무날 허민 사람들이 보리영 뭐영 농사로 가장, 제일 그때 몸이 약헤질 때라, 그때가, 유월 스무날이. 그래서 그 첨 아까 ᄀᆞᆯ앗주만은 정월ᄃᆞᆯ은 이제 ᄃᆞᆨ세기에서 암ᄐᆞᆨ이 그걸 품엉 께운단 말이여, 정월 비에기가 유월 스무날 뒈민 가장 좋덴 헷주게. 아까ᄀᆞ치 아기덜토 그냥 기름 놩 솟에 놩 막 졸라근에, ᄊᆞᆯ 조끔 보끄듯 헹 놩 죽 쒀근에 멕이고 어른도 먹고. 경 헤서 그 힘을 보충하기 위헤서 허지 안 헤신가, 그렇게 얘기들을 헷어, 어른덜이. 젤 유월 스무날 뒈민 사름이 몸이 약허다. 겡 그때 먹는 것이다고. 비에기 먹주. 작은 때, 막 작은 때, 곧 께운 때. 그건 ᄒᆞ꼼 역아도 물어 가곡. 막 젠젠헌 땐 가마귀도.[998]

997) 진문자 구술.
998) 진문자 구술.

그것도 나도 모르는데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먹는 날, 닭 잡아먹는 날 하면서 해서, 그러니까 그 닭이 유월 스무날 되면 아주 기운이 차니까 그때 잡아먹지 안 했는가, 나 생각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농촌에서는 유월 스무날 하면 사람들이 보리랑 뭐랑 농사로 가장, 제일 그때 몸이 약해질 때야. 그때가, 유월 스무날이. 그래서 그 참 아까 말했지만 정월은 이제 달걀에서 암탉이 그걸 품어서 깨운다는 말이여, 정월 병아리가 유월 스무날 되면 가장 좋다고 했지. 아까처럼 아기들도 그냥 기름 놔서 솥에 마구 조려서, 쌀 조금 볶듯 해서 넣어서 죽 쒀서 먹이고 어른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 어른들이. 젤 유월 스무날 되면 사람이 몸이 약하다. 그래서 그때 먹는 것이다라고. 병아리 먹지. 작은 때, 아주 작은 때, 곧 깨어난 때. 그건 조금 자라도 물어 가고. 아주 자잘할 땐 까마귀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허면은 그 빙에기 직험으로 난리가 낫주. 그때는 가마귀덜이영 똥소로기덜 왕 오꼿 빙에기를 차가 불엇어. 경 헹 마당에는 그때 비에기, 빙에기 차가지 못허게 뭐 소나무 가지 솔입덜 헤당 막 가시ᄎᆞ록 마당에 헤 놓고, 대로 허여근에 그거. 더끄는 거 잇어, 걸 이름은 모르크라, 하여간 영 ᄃᆞᆨ이영 병아리영 들엉, 소로기영 가마귀, 가마귀가 제일 많앗고. 나 어떤 줄 알암서? 그때 이 집이 아니라 저 안네 집인데 가면서 그냥 ᄃᆞᆨ 잘 직허렌, 빙에기 직허라 허멍 기자 검질 메레 갓어. 아 영, 마리에 앚안 보니까 가마귀가 낭 우이 앚아선게 가마귀 ᄒᆞ나 ᄂᆞᆯ아완게 하나 찬 ᄃᆞᆫ는 거 아니. 게난 나 이 바로 이 길이주게. 이 길로 뛰어간 저 도고섬에 간에, 그디까지 간에 저 낭 위이 앚안 좃아 먹젠 허는 거 그때 돌로 그레 막 던지난 가마귀가 겁난에 오꼿 경 허연 내분 거 아니라, 이젠 그거 줏어단에 아까징기 ᄇᆞᆯ르멍,

상처난 디. 경 헨 그거 진짜 살련에 키왓단 나중에 잡아먹음도 헷어. 그땐 병아리 하나 나가민 부모안티, 어멍 아방안티 욕을, 그걸 잘못헹 막 욕허고, 상당이 귀허게 그냥 헐 때라 노니까 ᄃᆞᆨ새기 하나라도 까지민 ᄉᆞᄆᆞᆺ 욕 듣고 뭐 헐 때주게. 비싸곡, 그걸로 살앗주게, 용돈을. 소풍날벳긴 못 먹엇주게.[999]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하면은 그 병아리 지킴으로 난리가 났지. 그때는 까마귀들이랑 솔개들 와서 그만 병아리를 채어 가 버렸어. 그렇게 해서 마당에는 그때 병아리, 병아리 채 가지 못하게 소나무 가지 솔잎들 해다가 마구 가시처럼 마당에 해 놓고, 대로 해서 그거. 덮는 거 있어, 걸 이름은 모르겠어, 하여간 이렇게 닭이랑 병아리랑 들어서, 솔개랑 까마귀, 까마귀가 제일 많았고. 나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때 이 집이 아니라 저 안에 집인데 가면서 그냥 닭 잘 지키라고, 병아리 지키라고 하면서 그저 김매러 갔어. 아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보니까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았던데 까마귀 하나 날아와서 하나 채서 닫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나 이 바로 이 길이지. 이 길로 뛰어가서 저 '도고섬'[1000]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저 나무 위에 앉아서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 그때 돌로 그리로 마구 던지니까 까마귀가 겁나서 그만 그렇게 해서 내버린 거 아니냐, 이젠 그거 주워다가 '아까징기' 바르면서, 상처난 데. 그렇게 해서 그거 진짜 살려서 키웠다가 나중에 잡아먹기도 했어. 그땐 병아리 하나 나가면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을, 그걸 잘못해서 마구 욕하고, 상당히 귀하게 그냥 할 때라 놓으니까 달걀 하나라도 깨지면 사뭇 욕 듣고 뭐 할 때지. 비싸고, 그걸로 살았지, 용돈을. 소풍날밖에는 못 먹었지.

---

999) 고만부 구술.
1000) '도고섬'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지경 이름이다.

2) 삼복

삼복, 초복, 말복, 중복 삼복을 허는디, 초복을 그때도 닥을 허는디, 주로 초복, 말복, 삼복을 하여간 세 복 중에 어느 하나라, 한 복이라도 요즘 말로 허민 몸에 ᄉᆞᆯ이 뒘직헌 거, 영양가 잇는 거, 좀 우리는 옛날엔 계속 잡아먹엇주게. 그걸 헤서 그냥 동네서 잡아먹고. ᄃᆞᆨ도 잡아먹곡, 그때도 가장 우리 몸이 약헐 때, 그래서 몸보신으로 헤서 삼복날은 잡아먹엇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몸보신이라. 게난 초복, 삼복, 중복 제일 더울 때게.[1001]

삼복, 초복, 말복, 중복 삼복을 하는데, 초복을 그때도 닭을 하는데, 주로 초복, 말복, 삼복을 하여간 세 복 중에 어느 하나라, 한 복이라도 요즘 말로 하면 몸에 살이 될 것 같은 거, 영양가 있는 거, 좀 우리는 옛날엔 계속 잡아먹었지. 그걸 해서 그냥 동네서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그때도 가장 우리 몸이 약할 때, 그래서 몸보신으로 해서 삼복날은 잡아먹었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몸보신이라. 그러니까 초복, 삼복, 중복 제일 더울 때야.

말복, 초복, 중복, 말복 허믄 가장 더워근에 젤 중복 초복에가 많이 그런 거 헹 먹엇주. ᄃᆞᆨ ᄀᆞ튼 거 뭐, 좀 몸에 보약 될 거 그런 걸로 헹 먹엇주. 일 년에 ᄃᆞᆨ ᄒᆞᆫ ᄆᆞ리 잡아먹음도 저 삼복날이든 유월 스무날이든 잡아먹을 때는 어떤 덴 여러 성제일 때는 ᄒᆞᆫ 마리씩도 못 줫어. 반쪽씩 헤근에 그냥 허곡, 아방이나 ᄒᆞᆫ ᄆᆞ리 주고, 아이덜은 그자 좀 ᄒᆞᆫ ᄆᆞ리 헹 둘이가 나눵도 먹고. ᄒᆞᆫ 집이 ᄒᆞᆫ 대여섯 오누이씩게 잇어노난게. ᄃᆞᆨ은 또 비싸고.[1002]

1001) 고만부 구술.

사발 벌러분덴 허여. ᄂᆞᆯ개, 옛날엔 ᄂᆞᆯ개 먹으민 아으덜은 먹으민 그릇 시칠 때에 사발 벌러 분다, ᄂᆞᆯ개 아으덜랑 주지 말라, 주지 말라, 경. 아니 그때에 우린, 나도 들은 말이 셔네. 저 ᄂᆞᆯ개 먹으민 사발 벌러 분덴 허멍 그건 안 줭. 우리 아은 때. 그릇 하나 까주우민 ᄉᆞᄆᆞᆺ 욕 듣고.[1003] 그땐 우리가 첨 ᄆᆞᆫ딱 사기, 사기 사발 아니라게. 그거 ᄒᆞ날 까주와 노민. 모든 게 귀헐 때라 노니까. 그걸 방지험에 ᄂᆞᆯ게기 먹지 말라. ᄃᆞᆨ ᄂᆞᆯ게기 먹지 말라 혯주. 제일 좋은 건 아메도 ᄃᆞᆨ이, ᄃᆞᆨ 다리 그것이 맛 좋고, 가슴은 좀 모여, 먹젠 허믄 가슴ᄉᆞᆯ은.[1004]

말복, 초복, 중복, 말복 하면 가장 더워서 젤 중복 초복에 많이 그런 거 해서 먹었지. 닭 같은 거 뭐, 좀 몸에 보약 될 거 그런 걸로 해서 먹었지. 일 년에 닭 한 마리 잡아먹음도 저 삼복날이든 유월 스무날이든 잡아먹을 때는 어떤 덴 여러 형제일 때는 한 마리씩 못 줬어. 반쪽씩 해서 그냥 하고, 아버지나 한 마리 주고, 아이들은 그저 좀 한 마리 해서 둘이 나눠도 먹고. 한 집에 한 대여섯 오누이씩 있어 놓으니까. 닭은 또 비싸고. 사발 깨버린다고 해. 날개. 어, 옛날엔 날개 먹으면 아이들은 먹으면 그릇 씻을 때 사발 깨버린다, 날개 아이들이랑 주지 말라, 주지 말라, 그렇게, 아니 그때 우린, 나도 들은 말이 있어서. 저 날개 먹으면 사발 깨 버린다고 하면서 그건 안 줘. 우리 아인 때. 그릇 하나 깨면 사뭇 욕 듣고. 그땐 우리가 참 모두 사기, 사기 사발 아니라. 그거 하날 깨 놓으면. 모든 게 귀할 때라 놓으니까. 그걸 방지함에 날개 먹지 말라. 닭 날개 먹지 말라 했지.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닭이, 닭 다리 그것이 맛있고, 가슴은 좀 메져, 먹으려고 하면 가슴살은.

1002) 고만부 구술.
1003) 진문자 구술.
1004) 고만부 구술.

3) 조 불리기

ᄆᆞ쉬로 헹 불렷주, ᄆᆞ쉬, ᄆᆞᆯ이나 쉐 헹 불르곡, ᄆᆞᆯ 여기는 어떤 집인 ᄆᆞᆯ이, 한 여러 마리씩, 뭐 대여섯, 열 ᄆᆞ리도 이렇게 헤근에 잇어. 게민 그거를 빌엉 우리 밧 불려줍서 허면은 조팟 언제 허크메 불려줍서 헤근에 서로 수눌엉 불려주곡, 또 다른 집이도 강 허곡, 겐 ᄒᆞᆫ 낮전은 불려사 허여, 보리씨 ᄒᆞᆫ 닷 말지기 허젠 허면은 낮전은 불려사. ᄒᆞᆫ 말은 그 당시 이백 펭이엔 헷는데, ᄒᆞᆫ 말지기. 경 헤서 불리고 또 그추룩 못 헐 때는 우리는 ᄂᆞᆷ의 ᄆᆞᆯ 빌령 잘 헤보질 안 헤신디. 이제 이 집터도, 여기 안진 이 집터도 그때 조를 갈아나신디 우리 어린 때에, 그때 밧갈쉐 ᄒᆞ나 그걸로 그자 쏙 심엉 기자 빙빙 밧 돌멍 ᄒᆞ루 해원 기자 불렷주게. 거 몽뎅이로 영 찔러 보멍. 떼깍허냐 안 허냐 헤근에 땅이 막 굳엉 떼깍헤사 헐 거라. 그럴 정도로 붋앗어.[1005]

우마로 해서 밟았지, 우마, 말이나 소 해서 밟고, 말 여기는 어떤 집에는 말이, 한 여러 마리씩, 뭐 대여섯, 열 마리도 이렇게 해서 있어. 그러면 그거를 빌려서 우리 밭 밟아주십시오 하면은 조밭 언제 하겠으니 밟아주십시오 해서 서로 품앗이해서 밟아주고, 또 다른 집에도 가서 하고, 그래서 한 낮전은 밟아야 해, 보리씨 한 다섯 마지기 하려고 하면은 낮전은 밟아야. 한 말은 그 당시 이백 평이라고 했는데, 한 마지기. 그렇게 해서 밟고 또 그처럼 못 할 때는 우리는 남의 말 빌려서 잘 해 보질 않았는데, 이제 이 집터도, 여기 앉은 이 집터도 그때 조를 갈았었는데 우리 어릴 때, 그때 '밧갈쉐'[1006] 하나 그걸로 그저 쏙 잡아서 빙빙 밭 돌면서 하루 종일 그저 밟았지. 그거

1005) 고만부 구술.
1006) '밧갈쉐'는 밭을 가는데 부리는 소이다.

몽둥이로 이렇게 찔러 보면서. 딴딴하냐 안 하냐 해서 땅이 아주 굳어서 딴딴해야 할 거야. 그럴 정도로 밟았어.

겨난 앞에 거 암소라든지 제일 앞에, 머리 우두머리 솔 그냥 헹 석 헤근에 이끄민, 뿔에, 뿔에 헤근에 영 허민 이끄민 나머지도 이제 좀 부랑헌 놈들은 ᄀᆞ찌 메야 뒈고 경 안 헌 새끼덜이나 뭐는. ᄆᆞᆯ덜은 하나 선장을 영 메면은 ᄯᅡ라와 다. 녹대, 녹대에. 앞에 선장 ᄆᆞᆯ이 제일 좀 나이 많고 ᄉᆞ주헌 말로 허면은 나머진 다. ᄉᆞ주, ᄉᆞ주, 좀 나이 좀 지긋허덴 헌 말이주, 우리 여기서, 좀 ᄉᆞ주 들엇젱, 들엇젱 허메, ᄉᆞ주 들엇젱. 지긋허게 나이든 거를, 겐 그걸 메면은 뒤에 따라오면서 다, ᄀᆞ찌 허고 뒤에서 어러러러러 허멍 ᄆᆞᆯ아가면은. 쉐는 그냥 이씩이씩 허멍 이런 정도고 쉐는. ᄆᆞᆯ은 어러 어러 어어러러러러러 허멍 이렇게 헹 몬다 말이여. 게 가민 그때는 ᄆᆞ쉬가 다 그런 일에 익숙헤 노니까 다 알아들엉 다 따라강 허게 뒈 잇어.[1007]

그러니까 앞에 거 암소라든지 제일 앞에, 머리 우두머리 소를 그냥 해서 고삐 해서 이끌면, 뿔에, 뿔에 해서 이렇게 하면 이끌면 나머지도 이제 좀 불량한 놈들은 같이 매야 되고 그렇게 안 한 새끼들이나 뭐는, 말들은 하나 선장을 이렇게 매면 따라와 다. 굴레. 굴레에. 앞에 선장 말이 제일 좀 나이 많고 '스주'한 말로 하면은 나머진 다. '스주', '스주', 좀 나이 좀 지긋하다고 한 말이지, 우리 여기서, 좀 '스주' 들었다고, 들었다고 해, '스주' 들었다고. 지긋하게 나이든 거를, 그래서 그걸 매면은 뒤에 따라오면서 다, 같이 하고 뒤에서 어러러러러 하면서 몰아가면은. 소는 그냥 이씩이씩 하면서 이런 정도고 소는. 말은 어러 어러 어어러러러러러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몬다 말이여. 그렇게 가면 그때는 우마가 다 그런 일에 익숙해 놓으니까 다 알아들어서 다 따라가서

1007) 고만부 구술.

하게 돼 있어.

짐 시껑 뎅길 때에, 가을에. 소나 영 허영 오꼿 다 먹어버린 때문에 그땐 망울 씌왓주게. ᄆᆞᆯ. ᄆᆞᆯ도 씌우고 소, 쉐도 망울 씌왓어. 어디 길에 몰앙 갈 때도 씌왓어. 웨 그러냐 허면은 ᄂᆞᆷ의, 고개 내밀엉, 영 내밀엉 ᄂᆞᆷ의 조 ᄐᆞᆫ아 먹어불카부덴. 야겸 ᄐᆞᆫ아먹어 불어. 야겸허는 쉐가 참 미운 쉐가 잇어. 어떻게나 밉는지 진짜 첨. 그거는 우리는 구경은 헷는디 여기서, 영 돌아가는. 저렌 헷는디 이디는 그게 없어. 건 나는, 이 저 동드렌 땅이 막 식어. 뜬 땅이라고 헤서 그냥 그렇게 헷고 이디는 그렇게 경 막 안 ᄇᆞᆯ려도 여기는 궨찬으게 땅이 토질이 좀, 땅이 강헤근에 잘 ᄇᆞᆯ려지는 거.[1008]

짐 실어서 다닐 때에, 가을에. 소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땐 망울 씌웠지. 말. 말도 씌우고 소, 소도 망울 씌웠어. 어디 길에 몰아서 갈 때도 씌웠어.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의, 고개 내밀어서, 이렇게 내밀어서 남의 조 뜯어 먹어버릴까 싶어서. '야겸'[1009] 뜯어먹어 버려. '야겸'하는 소가 참 미운 소가 있어. 어떻게 미운지 진짜 참. 그거는 우리는 구경은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저리로는 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건 나는, 이 저 동으로는 땅이 막 헤식어. 뜬 땅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고 여기는 그렇게 그렇게 마구 안 밟아도 여기는 괜찮아 토질이 좀, 땅이 강해서 잘 밟아지는 거.

무사 안 허여게, 섬비질. 섬비질 헤 낭, 겡 ᄇᆞᆯ리주. 여기서는 보통 그 제일 좋은 거는 ᄑᆞᆺ볼레낭, ᄑᆞᆺ볼레낭이 잇어. 곶자왈에 가면은. 볼레, 콩처럼

1008) 고만부 구술.
1009) '야겸'은 '야긔엽'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물 같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자꾸 배도는 것을 말한다.

준준헌 거 ᄑᆞᆺ볼레엔 헌 게, 그것이 제일 섬비 허기가 좋아. 에 그런 걸로 헤서. 개꽝낭 그거 최고고. 개꽝낭 헤근에 영 여깡 이만이 넙게 헤근에. 경 헹 우트레. 이만이 거 눌러, 눌러지렌게. 지둘롸지렌 돌 놔근에 그냥. 아니 처음에는 쉐덜 헷는디 쉐 엇인 집이는 사름으로, 나도 끗어봣어. 많지 널지 않은 데는. 고렇주게. 그냥 뭐 다른 거, 꿰 ᄀᆞ뜬 건 영 섬비질로 끗이고, 안 ᄇᆞᆯ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ᄇᆞ름에 불린뎅 허영, 어른덜이 그때 허면은. 겐에 이제 땅속에 막 깊어지난 기냥 삐거든. 게민 거 우에 허민 그걸 잘 ᄇᆞᆯ라사 것이 씨가 흑 바깟디 나앚지 안 헤근에 그 뿌리를 나도 단단허게 기냥 헤지라고. 그 뿌리.[1010]

왜 안 해, 끙게질. 끙게질 하고 나서, 그래서 밟지. 여기서는 보통 그 제일 좋은 거는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가 있어. 곶자왈에 가면은. 보리수나무의 열매, 콩처럼 자잘한 거 'ᄑᆞᆺ볼레'[1011]라고 한 게, 그것이 제일 끙게 하기가 좋아. 에 그런 걸로 해서. 쥐똥나무 그거 최고고. 쥐똥나무 해서 이렇게 엮어서 이만큼 넓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위로. 이만큼 거 눌러, 눌리라고. 지지르라고 돌 놓아서 그냥. 아니 처음에는 소들 했는데 소 없는 집에는 사람으로, 나도 끌어봤어. 많지 넓지 않은 데는. 그렇지. 그냥 뭐 다른 거, 참깨 같은 건 이렇게 끙게질로 끌고, 안 밟는 거니까. 여기서는 바람에 불린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땅속에 아주 깊어지니까 그냥 뿌리거든. 그러면 거 위에 하면 그걸 잘 밟아야 그것이 씨가 흙 바깥에 나앉지 안 해서 그 뿌리가 나도 단단하게 그냥 해지라고. 그 뿌리.

좁씨 게난 그걸 씨 뿌리는 게 어려운 거. 거 잘 뿌리는 거를 정씨로 뿌린뎅

1010) 고만부 구술.
1011) 'ᄑᆞᆺ볼레'는 팥알만큼 작은 보리수나무의 열매이다.

허주게. 정, 정씨로 그냥 헌데 걸 힘도 좋곡 헤야. 영 영 허는 건 진짜 기자 하영 뿌리는 거. 어, 그냥 허는 거고. 잘 뿌리젠 허믄 손을 일어상 이렇게 헤서 이렇게 뿌려야 뒈어, 힘 줘근에, 경 헹 그것이 벌려졍 나가. ᄒᆞᆫ 번 ᄒᆞᆫ ᄋᆞ서일곱 번은 뿌려야주. 옛날은 그 멜망텡이엔 헤근에 이서. 이 저 좁씨 뿌리는 망텡이가 요만허게 헌디, 요즘 ᄀᆞ뜨민 저 강오, 강오 닮은 거. 모든 씨를 다, ᄑᆞᆺ씨든, 콩씨든, 뭐 나록씨던 다 그렇게, 산디씨던 다 그런 거 뿌렷주.[1012]

좁씨 그러니까 그걸 씨 뿌리는 게 어려운 거. 거 잘 뿌리는 거를 '정씨'[1013]로 뿌린다고 하지. 정, 정씨로 그냥 한다 걸 힘도 좋고 해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그저 많이 뿌리는 거. 어, 그냥 하는 거고. 잘 뿌리려고 하면 손을 일어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야 돼, 힘 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벌려져서 나가. 한 번 한 예닐곱 번은 뿌려야지. 옛날은 그 '멜망텡이'[1014]라고 해서 있어. 이 저 좁씨 뿌리는 망태기가 요만큼 하는데, 요즘 같으면 저 바구니, 바구니 같은 거. 모든 씨를 다, 팥씨든, 콩씨든, 뭐 볍씨든 다 그렇게, 밭벼씨든 다 그런 거 뿌렸지.

우리 여기 ᄀᆞ트면 감산리 허면 이 신작로, 일주도로, 옛날, 신작로 밋테는 땅이 좀 강허고 특히나 저 안덕천 밋테는 강헤서 허면은 좁씨를 진짜 정씨로 그냥 뿌려야지 작게 뿌리질 안 헤. 겡 드물어도 상당이 조가 좋아. 겐디 웃드르에 일로 우터레 가민 막 하영 뿌려근에 그디 쉐똥 싼 디는 좀 조가 잘 나와. 산디도 마찬가지. 거난 일정허질 안 헤여. ᄀᆞ뜽허질 못 헤근에,

1012) 고만부 구술.
1013) '정씨'는 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 뿌리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영등굿 요왕맞이굿에서 씨뿌림 제차에서 '정씨'라고 하면서 뿌린다.
1014) '멜망텡이'는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두서 말들이의 망태기이다.

게민 그디 나쁜 거는 하영 뿌령 좀 유숭헌 걸로 놔둬근에 ᄉᆞᄁᆞ주게. 산디 검질, 우리 세 불 네 불 메어근에 감산린 우리 감산린 검질 고단이엔 막 허멍, 시집 오젠 안 허주, 감산리에.[1015]

우리 여기 같으면 감산리 하면 이 신작로, 일주도로, 옛날, 신작로 밑에는 땅이 좀 강하고 특히나 저 '안덕천'[1016] 밑에는 강해서 하면은 좁씨를 진짜 '정씨'로 그냥 뿌려야지 적게 뿌리질 안 해. 그렇게 드물어도 상당히 조가 좋아. 그런데 '웃드르'[1017]에 일로 위로 가면 아주 많이 뿌려서 거기 소똥 싼 데는 좀 조가 잘 나와. 밭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정하질 않아. 가지런하질 못 해서, 그러면 거기 나쁜 거는 많이 뿌려서 좀 윤진 걸로 놔두고 솎지. 밭벼 김, 우리 세 벌 네 벌 매어서 감산린 우리 감산린 김 고장이라고 마구 하면서, 시집 오려고 안 하지, 감산리에.

4) 유월절

유월절에 무시거 심는 거. 감저던지 뭐 허는 거, 유월절 전이 농살 ᄆᆞᆫ, 여름 농사는 허렌 허주게. 소서. 게난 그 유월절 전에 농사 이 씨 뿌리는 건. 전에 뿌리곡, 또로 이 저 거리왓이엔 허여근에 이 집 근처에 밧은 밧이 농토가 좋으난에 그런 밧덜은 유월절 넘엉 마걷이, 마걷이로 조도 갈곡 허긴 허는디 이 ᄒᆞ꼼 이 벤두리레는. 거리왓은 이 땅이 조난에, 저 웃드르렌 땅이 나빠 노난 이 자라는 것도 크는 것도 빨리 크질 못 허여. 경 허영 이 거리왓은 마걷이조 허연 마걷이조 허영 경 허영 ᄀᆞᆯ아낫수다.[1018] 마

1015) 고만부 구술.
1016) '안덕천'은 서귀포시 안덕면을 가로지르는 천이다.
1017)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위쪽의 들로 중산간을 이른다.
1018) 고만부 구술.

걷엉 씨 뿌리는 거. 마걷이조, 마걷이조 허여낫수다. 게난 좋은 밧, 이런 우녕, 우녕 요런 집 근처에 토질이 좋은 밧, 그런 밧은 마걷이로 좁씨 뿌려근에 허여도 저 웃드르레 막 빨리 헌 것광 ᄀᆞ치 뒈어, 농사가.[1019]

유월절에 무엇 심는 거. 고구마든지 뭐 하는 거, 유월절 전에 농사를 모두, 여름 농사는 하라고 하지. 소서.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전에 이 씨 뿌리는 건. 전에 뿌리고, 다시 이 저 거리왓[1020]이라고 해서 이 집 근처에 밭은 밭이 농토가 좋으니까 그런 밭들은 유월절 넘어서 마걷이[1021], 마걷이로 조도 갈고 하긴 하는데 이 조금 이 변두리에는. '거리왓'은 이 땅이 좋으니까, 저 '웃드르'로는 땅이 나쁘니까 이 자라는 것도 크는 것도 빨리 크질 못 해. 그렇게 해서 이 '거리왓'은 '마걷이조' 해서 '마걷이조' 해서 그렇게 해서 말했었습니다. 마 걷어서 씨 뿌리는 거. '마걷이조', '마걷이조'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이런 텃밭, 텃밭 요런 집 근처에 토질이 좋은 밭, 그런 밭은 '마걷이'로 좁씨 뿌려서 해도 저 '웃드르'로 아주 빨리 한 것과 같이 돼, 농사가.

경 허당 못헌 사름은 유월절 전이도 헌덴 허주마는 보통으로 그 유월절 전이 뒐 수 이시면 유월절 전이 농살 허라, 씨 뿌리는 거 허라 허여근에, 게난 감저도 싱그젠 허민 유월절 전이 싱근 감전, 감저가 잘 들곡, 좋곡, 유월절 넘엉 심으민 이 벳살이 너미 뒈어놓곡 허민 감저도 죽어불곡 허멍 잘 들지도 아녀고. 경 헤낫주. 게난 못 허는 사름은 유월절도 허긴 허고. 장마 걷어 갈 땝주, 유월절이. 골앙 죽어 불어, 너미 유월절 넘으민.[1022]

1019) 진문자 구술.
1020) '거리왓'은 마을 안에 있는 토질이 좋은 밭이다.
1021) '마걷이'는 장마가 걷힌다는 뜻으로 씨를 파종하고 나서 얼마 동안 비가 그쳐서 씨가 잘 발아하게 되는 것을 이른다.
1022) 진문자 구술.

장마, 장마 걷을 때ᄀᆞ라 마걷이엔. 겐 이제 장마, 빈 아니 오곡 안개만 싹 져근에 헐 때민, 그 넘으민 고구마, 감저 심어도 ᄆᆞᆫ 골아근에 죽어불고. 땅이 막 뜨겁주게, 뜨거와. 막 멘도롱헤 놓는 때문에이.[1023]

그렇게 하다가 못한 사람은 유월절 전에도 한다고 하지만 보통으로 그 유월절 전에 될 수 있으면 유월절 전에 농살 하라, 씨 뿌리는 거 하라 해서, 그러니까 고구마도 심으려고 하면 유월절 전에 심은 고구마는, 고구마가 잘 들고, 좋고, 유월절 넘어서 심으면 이 볕살이 너무 세고 하면 고구마도 죽어버리고 하면서 잘 들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못 하는 사람은 유월절도 하긴 하고. 장마 걷어 갈 때지, 유월절이. 곯아서 죽어 버려, 너무 유월절 넘으면. 장마, 장마 걷을 때보고 '마걷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마, 비는 아니 오고 안개만 싹 껴서 할 때면, 그 넘으면 고구마, 고구마 심어도 모두 곯아서 죽어버리고. 땅이 아주 뜨겁지요, 뜨거워. 아주 '멘도롱'[1024]하기 때문에.

□ 7월

1) 칠석

그건 특별이 뭐 헌 게 엇어 노난 그자 말로만 무신 칠월 칠석에 견우직녀 만난뎅 허멍 우리 ᄀᆞ뜨민 절간에나 가곡 그추룩만 헤나신디. 칠월 칠석엔 절간에 가고. 경만 헤나신디 이디서 살멍 마을에 영 무스거 허는 건 특별헌 건 엇고. 날이 잇주게. 초파일, 칠월 칠석, 무신 동지 불공, 무신 정월 보름

1023) 고만부 구술.
1024) '멘도롱허다'는 물이나 방바닥 따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다는 말이다.

불공, 입춘 불공 절간엔 그런 불공, 날이 지정 뒈어.[1025] 절기, 절기마다 불공 허레 절간에 가진 안 헤신디. 칠월 칠석 불공.[1026]

그건 특별히 뭐 한 게 없어 놓으니까 그저 말로만 무슨 칠월 칠석에 견우직녀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절에나 가고 그처럼 했었는데. 칠월 칠석에는 절에 가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여기서 살면서 마을에 이렇게 무엇 하는 건 특별한 건 없고. 날이 있지. 초파일, 칠월 칠석, 무슨 동지 불공, 무슨 정월 보름 불공, 입춘 불공 절엔 그런 불공, 날이 지정돼. 절기, 절기마다 불공 하러 절에 가진 안 했는데. 칠월 칠석 불공.

2) 백중

백중 불공도 허는디. 백중은 엿날엔 아이덜 막 머리에 허물 막 나근에. 막 부스럼지가 많이 나. 경허민 매날 검질 밧디 가곡 허당도 그추룩 허민 아이덜 ᄃᆞᆯ앙 어디 물 맞으레, 물 영 떨어지는 디 경 허영 그디 못 간 사름은 또로 그냥 나는 물에라도 가근에 물에 커 앚아근에 아이덜도 막 그 저 부스럼지 나민 막 그걸로 영 영 박세기로 영 거령 아으덜신디 영 영 비와주곡 허멍 그추룩만 허여나난에 다른 건 특별이 헌 건. 바당이 가는 사름은 바당이 가곡 그냥 민물에 어디 폭포추룩 털어지는 디. 이딘 폭폰 엇고, 그냥 나는 물은 이서도, 폭폰 엇어.[1027] 안덕소엔 헤근에 안덕계곡에 그 물이, 떨어지는 물이 잇엇어, 그냥 이렇게 멘들아 가지고 겡 거기.[1028] 아니 그건 폭포가 아니주. 그냥 막 쏫아져 나오는 디주게.[1029] 것도 폭포라

1025) 진문자 구술.
1026) 고만부 구술.
1027) 진문자 구술.
1028) 고만부 구술.

고 허지, 하여간. 게난 우이서 떨어지는 거니까 폭포라고 헐 수 잇는디 겡 거기 강 물 맞는 거주게. 겨면은 아마 허멀 난 거영 뭐 베말도 나고 헤서 허민은.[1030]

백중 불공도 하는데. 백중은 옛날엔 아이들 마구 머리에 허물 마구 나서. 막 부스럼이 많이 나. 그러면 맨날 김 밭에 가고 하다가도 그처럼 하면 아이들 데려서 어디 물 맞으러, 물 이렇게 떨어지는 데 그렇게 해서 거기 못 간 사람은 따로 그냥 나는 물에라도 가서 물에 담가 앉아서 아이들도 마구 그 저 부스럼 나면 마구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고 하면서 그처럼만 하였었으니까 다른 건 특별히 한 건. 바다에 가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그냥 민물에 어디 폭포처럼 떨어지는 데. 여기는 폭포는 없고, 그냥 나는 물은 있어도, 폭포는 없어. 안덕소라고 해서 안덕계곡에 그 물이, 떨어지는 물이 있었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아니 그건 폭포가 아니지.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오는 데지. 그것도 폭포라고 하지, 하여간.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폭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물 맞는 거지. 그러면 아마 허물 난 거랑 뭐 '베말'도 나고 해서 하면은.

3) 모살찜

학교 뎅길 때 그 화순해수욕장 그때는 저렇게 안 헐 때, 기냥 죽 허게 산방산 저꼬지 이 한전 허는 이 서쪽에서부떠 잇을 때면은 그디 강 여름에 가근에 모래 팡 이레 더꺼, 모래 속에, 나는 누며는 다른 또 친군, 벗은

1029) 진문자 구술.
1030) 고만부 구술.

와근에 이레 씨와주곡 서로 겨멍 헨 모살찜 헤여근에 또 물에 들어강 확 시정 왓당 또 ᄒᆞᆫ 이삼십 분 또 영 헷당 허곡, 겨곡 막 더운 날은 못 헤여. 너무 이디 뜨거와근에, 견디. 허는 이유는 뭔지 모르는디 하간 뭐 그렇게 헷어, 뭔진 모르크라. 하여간 허니까 그냥 모살찜 기자 허엿주. 아마 뭐 그런 건 이실 테주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저런 걸 모르고 그냥, 그자 헌다고 헤서 모살뜸허고, 그쪽에 가믄 그 저 백합, 금나라 어금나라 영 영 부벼 가민 그 조개, 조개덜 막 나오주게. 겐 그런 것도 케서 먹으면서 헤낫주, 모살찜 우린 헤낫어, 어릴 때 안덕 화순에서.[1031]

학교 다닐 때 그 화순해수욕장 그때는 저렇게 안 할 때, 그냥 쭉 하게 산방산 저까지 이 한국전력 하는 이 서쪽에서부터 있을 때면은 거기 가서 여름에 가서 모래 파서 이리로 덮어, 모래 속에, 나는 누우면 다른 또 친군, 벗은 와서 이리로 씌워주고 서로 그러면서 해서 모래찜 해서 또 물에 들어가서 확 씻어서 왔다가 또 한 이삼십 분 또 이렇게 했다가 하고, 그리고 아주 더운 날은 못 해. 너무 여기 뜨거워서,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했어, 뭔진 모르겠어. 하여간 하니까 그냥 모래찜 그저 하였지. 아마 뭐 그런 건 있을 테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저런 걸 모르고 그냥, 그저 한다고 해서 모래찜하고, 그쪽에 가면 그 저 백합, '금나라 어금나라' 이렇게 이렇게 비벼 가면 그 조개, 조개들 마구 나오지. 그래서 그런 것도 캐서 먹으면서 했었지, 모래찜 우린 했었어, 어릴 때 안덕 화순에서.

4) 물맞기

아까 말허는 물 맞는 게 그거주게. 산물, 우리 여기서는 여기 대평 가면

1031) 고만부 구술.

박수엔 헌 디 또 잇어, 거기 물 나와. 박수기정에 가면은, 그 엉덕 아래 이렇게 엉덕 아래 잇고. 거 여름엔 그땐 백중엔 다 일도 안 허고 그때는 다 그건디 물 맞으면은 그런 부스럼에 좋다고 헤서 그냥 맞앗어, 가서 물을 막. 특히나 허물 ᄀᆞ뜬 거. 부스럼지, 아까 말헌 거, 머리에든지, 옛날에 그런 것을. 허물, 허물게. 부스럼지들 허물을 통틀엉 부스럼지 나근에 좋덴 헹 강 맞앗주게. 게난 그 부스럼지도 그디도 그거 맞으면 진짜 써늘허거든, 요즘에 냉장고 물보단 더 시원허주게, 하여간, 추워, 처음에 콱 들어가면.[1032]

아까 말하는 물 맞는 게 그거지. 산물, 우리 여기서는 여기 '대평'[1033] 가면 '박수'[1034]라고 하는 데 또 있어, 거기 물 나와. 박수기정에 가면은, 그 절벽 아래 이렇게 절벽 아래 있고. 거 여름엔 그땐 백중엔 다 일도 않고 그때는 다 그건데 물 맞으면은 그런 부스럼에 좋다고 해서 그냥 맞았어, 가서 물을 마구. 특히나 허물 같은 거. 부스럼, 아까 말한 거, 머리에든지, 옛날에 그런 것을. 허물, 허물. 부스럼들 허물을 통틀어서 부스럼 나서 좋다고 해서 가서 맞았지. 그러니까 그 부스럼도 거기도 그거 맞으면 진짜 서늘하거든, 요즘에 냉장고 물보단 더 시원하지, 하여간, 추워, 처음에 콱 들어가면.

5) 처서

입추나 처서, 아까도 우린 그 특별이 절기에 대헤서 뭐 허는 거는 뭐 그런 단오라든지 청명, 한식, 아까 말한 칠월 뭐 절긴 아니주마는 그런 거, 초복, 삼복에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뭐 허는디 처서에 대헤서 뭐 특별이

1032) 고만부 구술.
1033) '대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이다.
1034) '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안가에 있는 절벽이다. '박수덕이', '박수기정'이라고도 한다.

허는 거, 그때 넘으면은 좀 시원허다고 헹 무슨 모기도. 모기도 안 물엉.[1035] 처서, 처서 지나민 검질덜이 오다근에 울멍 돌아가 분덴 허멍, 경 허민 그거 나지 못헌덴 헌 말로. 처서 넘으민 검질 아이 메어도 뒈어. 저 나질 안 허여, 못 나. 울멍 돌아가 불어. 경 허멍 헌 말은 들어낫수다. 게난 풀이 자라질 안 헌덴 허여근에, 그추룩. 그 말 들언, 처서, 처서 전이만 검질 나주, 처서 넘으민 검질 아이 난덴 헤도. 이제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검질 드러 나난.[1036] 그때는 모기장 없을 때고 허면은, 모기가 처서 넘으민 입 오그라져근에 물지 못헨덴 허주게, 처서 넘으면. 입 오그라졍 데와졍 물지 못헌덴 헷어.[1037]

입추나 처서, 아까도 우린 그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뭐 그런 단오라든지 청명, 한식, 아까 말한 칠월 뭐 절긴 아니지만 그런 거, 초복, 삼복에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뭐 하는디 처서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는 거, 그때 넘으면은 좀 시원하다고 해서 무슨 모기도. 모기도 안 물어. 처서, 처서 지나면 김들이 오다가 울면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나지 못한다고 한 말로. 처서 넘으면 김 아니 매어도 돼. 저 나질 않아, 못 나. 울면서 돌아가 버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라질 않는다고 해서, 그처럼. 그 말 들었어, 처서, 처서 전에만 김 나지, 처서 넘으면 김 아니 난다고 해도. 이제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김 계속 나니까. 그때는 모기장 없을 때고 하면은, 모기가 처서 넘으면 입 오그라져서 물지 못한다고 하지, 처서 넘으면. 입 오그라져서 '데와져서'[1038] 물지 못한다고 했어.

1035) 고만부 구술.
1036) 진문자 구술.
1037) 고만부 구술.
1038) '데와지다'는 비틀어지거나 돌려져 비비 꼬이다는 말이다.

□ 8월

1) 벌초

모둠 벌초 잇는데 게난 가족 벌초를 우선 먼저 헌단 말이여. 각 가족마다 자기 우선 할아버지 조부까지 증조까지는 그냥 그 가족들이, 증조까지는 옛날엔 제사도 같이 봣으니까, 경 헹 그 가족들이 제사 먹는 가족들이 모다 졍 허고, 그 웃대레 가면은 이제는 갈라진 다른 가족도 헤서, 웃대 벌초라고 헤서 그때 가서 웃대 벌초를 허고. 그래서 그때에 어쩌다가 벌초를 못 가면 욕 들어 가지고, 그때는 ᄆᆞᄉᆞ왕 꼭 가야 뒈어. 하여간 요즘처럼 그런 게 아니 그때는 너 이 ᄌᆞ식 조상도 몰랑 벌초도 안 왓덴 허멍 그냥 어른덜 욕질허민 뭐옌 대답도 못 허고, 그래서 멩심해근에 하여간 벌초를 철저이 잘헷주게, 그때는.[1039]

모둠 벌초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 벌초를 우선 먼저 한다는 말이야. 각 가족마다 자기 우선 할아버지 조부까지 증조까지는 그냥 그 가족들이, 증조까지는 옛날엔 제사도 같이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제사 먹는 가족들이 모여져서 하고, 그 윗대로 가면은 이제는 갈라진 다른 가족도 했어, 윗대 벌초라고 해서 그때 가서 윗대 벌초를 하고. 그래서 그때에 어쩌다가 벌초를 못 가면 욕 들어 가지고, 그때는 무서워서 꼭 가야 돼. 하여간 요즘처럼 그런 게 아니 그때는 너 이 자식 조상도 몰라서 벌초도 안 왔다고 하면서 그냥 어른들 욕질하면 뭐라고 대답도 못 하고, 그래서 명심해서 하여간 벌초를 철저히 잘했지, 그때는.

1039) 고만부 구술.

산담은 그 보통 청명 때에. 에, 그때, 아무 숭이 엇덴 헤근에 청명 때 허는 거. 그때는 단지 그냥 벌초만. 함부로 그냥 뭐 떼를 다시 뭐 허거나 담을, 산담을 허는 걸 함부로 날 안 봐서는 아무 날 못 헷거든, 안 헷어, 그때는. 우선 강 벌초만 허고 경 허당 담 헐어진 거 이시민 그거 좀 올려놓는 정도로 그렇게 잘허고 제라허게 잘허젠 허면은 택일을 헹 날짜를 보거나, 경 못허면 사월 청명 때 ᄀᆞ뜬 때 강 허고 헷주게, 벌초를.[1040]

'산담'[1041]은 그 보통 청명 때에. 에, 그때, 아무 흉이 없다고 해서 청명 때 하는 거. 그때는 단지 그냥 벌초만. 함부로 그냥 뭐 떼를 다시 뭐 하거나 담을, 산담을 하는 걸 함부로 날 안 봐서는 아무 날 못 했거든, 안 했어, 그때는. 우선 가서 벌초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담 무너진 거 있으면 그거 좀 올려놓는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온전하게 잘하려고 하면은 택일해서 날짜를 보거나, 그렇게 못하면 사월 청명 때 같은 때 가서 하고 했지, 벌초를.

벌초헐 때도 그때도, 우리는 따로 헷지. 그냥 벌초헐 땐 안 헷어, 우리는. 견디 이제 세상 나난 우린 이제 벌초허는 날 묘제도 허는디 내가 알기는 내가 스무남은 ᄉᆞᆯ 때는 안 헷어, 우리. 벌초만 헷주. 이제는 뭐 우리도 허고 잇거든. 벌초에 묘제까지. 겐디 전에는 안 헷어, 따로.[1042]

벌초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따로 했지. 그냥 벌초할 땐 안 했어, 우리는. 그런데 이제 세상 나니까 우린 이제 벌초하는 날 묘제도 하는데 내가 알기는 내가 스무남은 살 때는 안 했어, 우리. 벌초만 했지. 이제는 뭐 우리도 하고 있거든. 벌초에 묘제까지.

1040) 고만부 구술.
1041)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
1042) 고만부 구술.

그런데 전에는 안 했어, 따로.

우리는 뭐 팔월달에, 우리 파조는 저 항파두리에 잇는디, 팔월 음력 첫째 일요일 날, 첫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허고. 또 이제는, 그때는 호미 ᄀᆞ정만 헷주마는 이제는 예초기여 뭐 잇으니까 빨리 헐 수 잇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엔 다 ᄒᆞ루에 우리 그냥 거 산이나. 아침 일곱 시부떠 나강 허민 뒈주게. 전엔 우리도 이틀 허다가 이젠 ᄒᆞ루에, 아침 일곱 시에 가믄 헤여. 젊은 아이덜 와랑와랑 허믄 바로. 게난 우리는 겨고 선산 밋테다 기냥 이장을 헤 노니까 뭐 다 차 잇곡 허며는 기동력 좋아 노난 하루에 충분 뒈어.[1043]

우리는 뭐 팔월에, 우리 파조는 저 '항파두리'[1044]에 있는데, 팔월 음력 첫째 일요일 날, 첫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하고. 또 이제는, 그때는 낫 가져서만 했지만 이제는 예초기다 뭐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엔 다 하루에 우리 그냥 거 묘나. 아침 일곱 시부터 나가서 하면 되지. 전엔 우리도 이틀 하다가 이젠 하루에, 아침 일곱 시에 가면 해. 젊은 아이들 '와랑와랑'[1045] 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선산 밑에다가 그냥 이장을 해 놓으니까 뭐 다 차 있고 하면 기동력 좋아 놓으니까 하루에 충분 돼.

2) 팔월 멩질

송편. 침떡허고. 침떡은 기본이난에게, 떡이엔 헌 건 송편 멘들고 침떡 허여근에 그 침떡 우터레 송편 올령. 비슷허주. 차례상은 비슷허여. 올리는

1043) 고만부 구술.
1044) '항파두리'는 제주시 애월읍의 항몽유적지 주변을 이른다.
1045) '와랑와랑'은 여기서 사람이 힘차게 행동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거 다 비슷허난. 당에 아이 가, 당엔 일 년에 ᄒᆞᆫ 번, 정월에. 달구경도 아이 가고.[1046] 뭐 집이서 매날 좋은 날은 마당에 누민 드러 ᄃᆞᆯ 봐레지는디, ᄃᆞᆯ 트면은.[1047]

송편. 시루떡하고. 시루떡은 기본이니까, 떡이라고 한 건 송편 만들고 시루떡 해서 그 시루떡 위로 송편 올려서. 비슷하지. 차례상은 비슷해. 올리는 거 다 비슷하니까. 당에 아니 가, 당엔 일 년에 한 번, 정월에. 달구경도 아니 가고. 뭐 집에서 맨날 좋은 날은 마당에 누면 계속 달 볼 수 있는데, 달 뜨면은.

떡 허는 것ᄀᆞ라 제물이엔 허주게. 제물. 떡ᄀᆞ라 제물도 허여사. 제물도 허여사 허여. 엿날엔 아니 헷주마는 이제는 전도 허곡, 셍성 굽곡, 뒈지고기 허곡, 소고기 허곡 그자.[1048] 메, 겡, 국은 겡. 탕쉬. 바릇궤기 헤근에 바릇궤기 올리고, 올리는 게, 탕쉬허고. 그건 가장 기본이거든. 겐 거기서 더 헌다면은 뭐, 과일. 겐디 옛날엔 과일이 없엇거든, 그때는 그냥 첨 어려와. 겐디 팔월에 경 익질 안 허니까 잘 못 먹엇어.[1049] 메 거리라 헹. 겡 거리라 허고. 정월에나 팔월이나 똑ᄀᆞ따.[1050]

떡 하는 것더러 제물이라고 하지. 제물. 떡더러 제물도 해야. 제물도 해야 해. 옛날엔 안 했지만 이제는 전도 하고, 생선 굽고, 돼지고기 하고, 소고기 하고 그저. 메, 갱, 국은 갱. '탕쉬'[1051]. 바닷고기 해서 바닷고기 올리고, 올리는 게, '탕쉬'하고. 그건

1046) 진문자 구술.
1047) 고만부 구술.
1048) 진문자 구술.
1049) 고만부 구술.
1050) 진문자 구술.
1051)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가장 기본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더 한다면은 뭐, 과일. 그런데 옛날엔 과일이 없었거든, 그때는 그냥 참 어려워. 그런데 팔월에 그렇게 익질 않으니까 잘 못 먹었어. 메 떠라 해서. 갱 떠라 하고. 정월이나 팔월이나 똑같아.

□ 9월

1) 상강

상강이 뒈민, 그 서리가 내리민 그때부떠 추워진다고, 기온이 내려강 추워진다고 허는 건데. 감저 ᄀᆞ뜬 것도 상강 전에 들고 그 웨에는 감저가 더 들질 아녀. 든다는 건, 거 흙어, 크질 아녀, 감저가. 게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눈물 맞기 전에 파렝도 허곡 옛날에 상강을 헤서, 상강 뒈민 실지로 서리가 내려서 그 전에 수확헐 수 잇는 곡식은 다 헤 들이고 이렇게 허라고 허는 거.[1052]

상강이 되면, 그 서리가 내리면 그때부터 추워진다고,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진다고 하는 건데. 고구마 같은 것도 상강 전에 들고 그 외에는 고구마가 더 들질 않아. 든다는 건, 그거 굵어, 크질 않아, 고구마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눈 맞기 전에 파라고도 하고 옛날에 상강을 해서, 상강 되면 실지로 서리가 내려서 그 전에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은 다 해 들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나물 따위를 말한다.

1052) 고만부 구술.

□ 11월

1) 동지

풋죽사 쒄 먹어봣주. 풋게 솖아근에, 푹허게 잘 솖아지민 허영은에 국자로 솟디서 막 데겨근에 그걸 막 허영 ᄒᆞ꼼 그거 푹 데겨근에 문 뭉게지면 그레 물 놓곡 쏠 놓곡 허여근에 죽을 쑤는 거주게. 새알도 놓는 사름은 놉니다마는 난 놔보지 안 허연 그자 풋죽만 쒄 먹어낫어. (풋은) 껍데기채. 요즘도 그냥 옛날추룩 쒕 먹는 사름도 잇어. 나도 경 허여근에 그냥 옛날식으로 쑤는디 경 허영 어디 첨 미깡이나 탈 때에 간식으로 죽 쒕 가젠 허민 풋을 믹서기에 ᄀᆞᆯ아, 문짝허게 ᄀᆞᆯ아근에 죽도 쒕 가민, 그거 걸르는 거나 마찬가지. 게주마는 난 국자로 영 데경 쒀사 맛 좋아.[1053]

팥죽이야 쒀서 먹어봤지. 팥 삶아서, 푹하게 잘 삶아지면 해서 국자로 솥에서 마구 으깨서 그걸 마구 해서 조금 그거 푹 으깨서 모두 뭉개지면 그리로 물 넣고 쌀 넣고 해서 죽을 쑤는 거지. 새알도 넣는 사람은 놉니다마는 난 넣어 보지 안 해서 그저 팥죽만 쒀서 먹었었어. (팥은) 껍데기째. 요즘도 그냥 옛날처럼 쒀서 먹는 사람도 있어. 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옛날식으로 쑤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 참 귤이나 딸 때 간식으로 죽 쒀서 가려고 하면 팥을 믹서기에 갈아서, 반드럽게 갈아서 죽도 쒀서 가면, 그거 거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난 국자로 이렇게 으깨어서 쒀야 맛 좋아.

부정 가시렌, 부정. 난 경 허여보지 안 헷구나마는 어떤 사름은 방지로 이 집 네 귀에 그 죽 쒕 먹으멍 죽을 네 귀에 가근에 방법을 헌덴 허주.

1053) 진문자 구술.

난 그추룩은 안 헤봣주마는. 그자 쒀근에 먹음만 허여.[1054] 풋죽도 우리 어머닌 풋죽 끌영 우리덜 ᄆᆞᆫ 줘둬근에 그 남자에 헌 거 거려 먹으면 걸로 끝이라. 남죽이엔 헌 거. 쏠이 경 곤쏠이 경 쉽지 안헐 때라, 요즘엔 뭐 이렇게 허주마는 우리 어릴 때는 곤쏠도 어렵고, 거기 풋도 경 풍당허게 경 쑤질 못허여. ᄇᆞ듯이 쒕 기자 ᄒᆞ꼼씩 먹을 만이만 쒕 허면은 어머니는 그자 맨날 못 먹으민 남자, 요즘 거 국자 닮은 나무로 만든 거 잇어, 옛날.[1055]

부정 가시라고, 부정. 난 그렇게 하여보지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은 '방지'[1056]로 이 집 네 귀퉁이에 그 죽 쒀서 먹으면서 죽을 네 귀퉁이에 가서 '방법'을 한다고 하지. 난 그처럼은 안 해봤지만. 그저 쒀서 먹기만 해. 팥죽도 우리 어머닌 팥죽 끓여서 우리들 모두 줘둬서 그 국자 한 거 떠 먹으면 걸로 끝이야. 죽젓개라고 한 거. 쌀이 그렇게 흰쌀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라, 요즘엔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흰쌀도 어렵고, 거기 팥도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쑤질 못해. 바듯이 쒀서 그저 조금씩 먹을 만큼만 쒀서 하면은 어머니는 그저 맨날 못 먹으면 국자, 요즘 거 국자 같은 나무로 만든 거 있어, 옛날.

남자 헤근에 그것에 부뜬 거, 헤 나민 자연이, 그거 긁어 먹고. 또 뭐 무슨 베수기엔 헤근에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또 젓는 게 잇어. 뭐 그런 것도 밥헹 젓어나민, 그것도 어머니 기자 숟가락으로 헹 먹는 걸 봣고, 게난 기자 건 우리 어릴 땐 당연이 경 허는 건 중 알아신디 이젠 컨 보난

1054) 진문자 구술.
1055) 고만부 구술.
1056) '방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방쉬, 방법, 방세'라고도 한다.

그게 아니고 당신은 못 먹으멍 우리덜안티 다 준 거, 이젠 알암주, 기자 그땐 어멍이난 당연이 저걸 먹는구나, 경만 셍각헷어.[1057]

국자 해서 그것에 붙은 거, 하고 나면 자연히, 그거 긁어 먹고. 또 뭐 무슨 죽젓개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또 젓는 게 있어. 뭐 그런 것도 밥해서 젓고 나면, 그것도 어머니 그저 숟가락으로 해서 먹는 걸 봤고, 그러니까 그저 건 우리 어릴 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젠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은 못 먹으면서 우리들한테 다 준 거, 이젠 알고 있지, 그저 그땐 어머니니까 당연히 저걸 먹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여기는 그 모멀, 모멀 고단이거든. 이 웃드린 모멀이 잘 뒈어, 여기는. 겨믄 겨울 때 이제, 동지 전에 모멀을 두드령 장만헤 오는디, 겨믄 옛날 동네에서 영장 나지 안허여게. 영장 나민 가서 상주로 헹 가면은 그 당시엔 점심이 뭐냐, 돌레떡이엔 ᄆᆞ멀ᄀᆞ루로 헹 좀 크게 이만큼씩 헹 한두 개 이렇게 준다 말이여. 겨믄 주민 우리 아버진 얼마나 먹고 싶어시랴마는 거 ᄀᆞ져오랑 주민 우리는 또 먹고. 또 받앙 올 디 기다리곡 헤낫어, 그때.[1058]

여기는 그 메밀, 메밀 고장이거든. 이 '웃드리'[1059]는 메밀이 잘 돼, 여기는. 그러면 겨울 때 이제, 동지 전에 메밀을 두드려서 장만해 오는데, 그러면 옛날 동네에서 초상나잖아. 초상 나면 가서 상주로 해서 가면은 그 당시엔 점심이 뭐냐, '도래떡'[1060]이라고 메밀가루로 해서 좀 크게 이만큼씩 해서 한두 개 이렇게 준다 말이여. 그러면 주면

1057) 고만부 구술.
1058) 고만부 구술.
1059)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위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1060)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우리 아버진 얼마나 먹고 싶었으랴만 그거 가져와서 주면 우리는 또 먹고. 또 받아서 올 데 기다리고 했었어, 그때.

게메 똑 사돈이 죽을 쒀 가는 이유는 모르고, 그 풋죽은 영장 나민 부정 가시렌 거 풋죽을 똑 쒀산덴. 사돈 아이 쒀 가도 이녁 집이서라도 죽을 쒀근에 그 온 분덜안티 ᄆᆞᆫ 죽덜 ᄒᆞᆫ 사발씩이라도 멕여근에 헤사 그 부정을 가신덴 허여근에 그 풋죽을 쒓젠 허멍 들어신디.[1061]

글쎄 꼭 사돈이 죽을 쒀 가는 이유는 모르고, 그 팥죽은 초상 나면 부정 가시라고 거 팥죽을 꼭 쑤어야 한다고. 사돈 안 쑤어 가도 자기 집에서라도 죽을 쒀서 그 온 분들한테 모두 죽들 한 사발씩이라도 먹여야 그 부정을 가신다고 해서 그 팥죽을 쒔다고 하면서 들었는데.

동짓날 풋죽이나 그거나 비슷, 게난 이 풋은 부정 가시는 건ᄀᆞ라 어디 뭐 집을 짓으나, 이사갈 때에 뭐허민 풋허곡 소금허곡 영 서꺼근에 막 이 구신을 내쫓으는 거라 셍각허는 거 닮아뵈어마씨.[1062] 옛날 굿 헤나면 콩으로 방안에 막 심방덜 뿌리지 안허여, 그건 뭔 따문인고?[1063]

동짓날 팥죽이나 그거나 비슷, 그러니까 이 팥은 부정 가시는 것인지 어디 뭐 집을 짓거나. 이사 갈 때 뭐 하면 팥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섞어서 마구 이 귀신을 내쫓는 거라 생각하는 거 같아 보여요. 옛날 굿하고 나면 콩으로 방안에 막 무당들 뿌리지 않아, 그건 무슨 때문인가?

1061) 진문자 구술.
1062) 진문자 구술.
1063) 고만부 구술.

2) 띠 준비

옛날에 모든 농사 다 끗나고 이제는 음력으로 십일월달이 뒈면은 샐비레 가. 겐디 좀 부젯집인 새를 길르는 밧을 헤근에 새왓이 잇고 경 안헌 디는 새 줏으레 간다, 새는 긴 것을 말허거든, 긴 거. 게서 우에 지붕을 덮고 또 그걸 줄 메지 안허여게, 줄. 이렇게 동아줄ᄀᆞ치 큰, 그거 허는 걸 각단. 짧은, 길이가 짧은 거. 겡 이제 각단 비어다근에 눌엉 놧당 그 줄 노는 것도 동네에서 기술자가 이서, 그때 잘 노는 사람이, 겐 그 사람 빌어당.[1064]

옛날에 모든 농사 다 끝나고 이제는 음력으로 십이월 되면은 띠를 베러 가. 그런데 좀 부잣집에는 띠를 기르는 밭을 해서 띠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띠 주우러 간다, 띠는 긴 것을 말하거든, 긴 거. 그래서 위에 지붕을 덮고 또 그걸 줄 매잖아, 줄. 이렇게 동아줄같이 큰, 그거 하는 걸 '각단'[1065]. 짧은, 길이가 짧은 거. 그래서 이제 '각단' 베어다가 쌓아서 놨다가 그 줄 만드는 것도 동네에서 기술자가 있어, 그때 잘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빌려다가.

□ 12월

1) 장 담그기

1064) 고만부 구술.
1065)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이다.

콩 허영 아시날 다라에 물 컷다근에 뒷날 아침 그 콩 솜젠 허민 이녁 집이 저 헤치 엇인 날. 그 만약에 나가 토끼띠민 토날엔 아이 솖아. 엇인 헤치 엇인 날을 봉가근에 허고 헤치 엇인 날이라도 베염날도 아니 솜고, 용날에도 아이 솜곡, 원숭이날에도 아이 솜곡 헌던 헤실 거라. ᄆᆞ날, ᄃᆞᆨ날, 개날, 저 토날, 경 그런 날만 솖아근에, 콩도 날 봉, 담을 때도 경 허곡.[1066]

콩 해서 전날 대야에 물 담갔다가 뒷날 아침 그 콩 삶으려고 하면 이녁 집에 저 띠 없는 날. 그 만약에 내가 토끼띠면 토끼날에는 아니 삶아. 없는 띠 없는 날을 택해서 하고 띠 없는 날이라도 뱀날도 아니 삶고, 용날에도 아니 삶고, 원숭이날에도 아니 삶고 한다고 했을 거야. 말날, 닭날, 개날, 저 토끼날 그렇게 그런 날만 삶아서, 콩도 날 봐서, 담을 때도 그렇게 하고.

경 헤영 솖아근에 첨 그걸 막 다 솖아지민 다라에 ᄯᅳ로 소쿠리에 건졍 물 빠주와근에 다라에 비와놩 그 엿날엔 덩드렁마께로 그 콩을 뿟앗주게. 경 허여근에 덩드렁마께로도 허연에 그걸 허젠 허민 첨 둑지가 아프게 그거 뿟아근에 이제 다 뿟아지민 그디서 이 저 메주 덩어릴 만들아, 손으로. 경허민 그 콩을 뿟으민 그것이 첨 반죽헌 거 모냥으로 끈닥끈닥허여근에 허민게 영켜지민 손으로 그 덩어릴 멘들앙 그걸 저 엿날에 나룩 헐 때는, 나 헐 때는 저 나룩찍, 찍 허여근에 허영 영 허영 무껑근에 그레 톡톡 놔근에 두 개씩 놔근에 졸라메엉 어디 공장에 엿날엔 저런 창고에, 이제추룩 허민 창고에 놔도 뒈주마는 창고에 노민 ᄆᆞᆫ딱 쥉이 먹어불엉은에 엇이난. 나 허여난 말 ᄀᆞᆯ암신디 눅는 방에, 방에 공장에 오라근에 ᄆᆞᆫ딱 ᄃᆞᆯ아메어. 경허민 그거 터 가민 ᄉᆞᄆᆞᆺ 구들에 냄새도 나곡 허민, 쥉이 놈덜은 오랑 창문에

1066) 진문자 구술.

왕 ᄇᆞᆯ그랑ᄇᆞᆯ그랑, 그 냄새 나곡 허민, 그거 먹젠 ᄉᆞᄆᆞᆺ ᄆᆞᆫ 창살도 ᄆᆞᆫ 긁어불곡 허멍 허영 첨 그거 허영 거의 ᄆᆞᆯ라. 곰펭이 피멍 다 ᄆᆞᆯ르주게.[1067]

그렇게 해서 삶아서 참 그걸 마구 다 삶아지면 대야에 따로 소쿠리에 건져서 물 빼서 대야에 부어놔서 그 옛날엔 '덩드렁마께'[1068]로 그 콩을 빻았지. 그렇게 해서 '덩드렁마께'로도 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참 어깨가 아프게 그거 빻아서 이제 다 빻아지면 거기서 이 저 메주 덩어릴 만들어, 손으로. 그러면 그 콩을 빻으면 그것이 참 반죽한 거 모양으로 끈적끈적해서 하면 엉켜지면 손으로 그 덩어릴 만들어서 그걸 저 옛날에 벼 할 때는, 나 할 때는 저 볏짚, 짚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리로 톡톡 놔서 두 개씩 놔서 졸라매어서 어디 '공장'[1069]에 옛날엔 저런 창고에, 이제처럼 하면 창고에 놔도 되지만 창고에 놓으면 모두 쥐 먹어버려서 없으니까. 나 했던 말 하고 있는데 눕는 방에, 방에 '공장'에 와서 모두 달아매어. 그러면 그거 터 가면 사뭇 방에 냄새도 나고 하면, 쥐들은 와서 창문에 와서 '불그랑불그랑'[1070], 그 냄새 나고 하면, 그거 먹으려고 사뭇 모두 창살도 모두 긁어버리고 하면서 해서 참 그거 해서 거의 말라. 곰팡이 피면서 다 마르지.

ᄆᆞᆯ르민 그땐 그때도 ᄯᅳ로 장 담그는 날도 날을 봐근에. 그 이녁 집안에 헤치 엇인 날. 섣ᄃᆞᆯ에, 정월, 정월은 안 담아, 장. 육진 정월에 담넨 허주마는, 이 제주도는 섣ᄃᆞᆯ에, 섣ᄃᆞᆯ 전이만 동짓ᄃᆞᆯ이고, 섣ᄃᆞᆯ이고. 그자 허영 헤치 엇인 날 담아. 이녁 헤치 신 날은 저 소금에 절여 분덴 허멍. 아니

1067) 진문자 구술.
1068)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1069)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방 안의 벽 같은 데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걸이의 한 가지이다.
1070) '불그랑불그랑'은 쥐가 문 따위를 긁는 소리나 그 모양을 말한다.

육지는 테레비 보민 일월달에도 담읍디다게. 경헌디 이디는 일월달에는 안 담아. 그믐날도 담아 봣수다. 못 담으민 일 허멍 이 미깡철엔 막 미깡 타당 보민 오꼿 그 콩을 빨리 못 ᄉᆞᆷ앙 ᄆᆞᆯ르지 안 허민 그것도 ᄆᆞᆯ라사 장 담는 거라부난.[1071]

마르면 그땐 그때도 다시 장 담그는 날도 날을 봐서. 그 이녁 집안에 띠 없는 날. 섣달에, 정월, 정월은 안 담가, 장. 육진 정월에 담근다고 하지만, 이 제주도는 섣달에, 섣달 전에만 동짓달이고, 섣달이고. 그저 해서 띠 없는 날 담가. 이녁 띠 있는 날은 저 소금에 절여 버린다고 하면서. 아니 육지는 텔레비전 보면 일월에도 담급디다. 그런데 여기는 일월에는 안 담가. 그믐날도 담가 봤습니다. 못 담그면 일하면서 이 귤철엔 마구 귤 따다가 보면 그만 그 콩을 빨리 못 삶아서 마르지 않으면 그것도 말라야 장 담그는 거니까.

메주 시쳐근에 ᄒᆞ꼼 벳디 놔근에 ᄆᆞᆯ리우고. 그땐게 나는 물 이시난에 강 허벅으로 져다근에 허민 그 장 담그젠 허민 아시날쯤에 소금물을 ᄀᆞᆯ아. ᄀᆞᆯ아 허는 건 소금물을 이 저 엿날 소금, 이제 소금덜은 소금이 영 허여도 곱닥허는디 엿날 소금은 그 소금물 허여근에 그 밑에 가라앚은 게, 막 거멍헌 것덜 잇주게, 경 허민. 벨에서 헌 거라 노난. 거멍헌 거 이시민 소금물을 우리 물 ᄀᆞᆯ아, 물 ᄀᆞᆯ아 허주게, 물을. 어, 물 ᄀᆞᆯ앙 놔둬사 낼은 장담으컬. 경 허여근에 허난에 그추룩 아시날은 그 물을, 소금물을 만들아근에 놔뒀당 가라앚으민 그 가라앚인 물을 통더레 그 메주 시쳣단 거 통더레 톡톡 놧다근에. 메주부떠.[1072]

1071) 진문자 구술.
1072) 진문자 구술.

메주 씻어서 조금 볕에 놔서 말리고. 그땐 나는 물 있으니까 가서 '허벅'[1073]으로 져다가 하면 그 장 담그려고 하면 전날쯤에 소금물을 갈아. 갈아 하는 건 소금물을 이저 옛날 소금, 이제 소금들은 소금이 이렇게 해도 고운데 옛날 소금은 그 소금물 해서 그 밑에 가라앉은 게, 아주 거먼 것들 있지, 그렇게 하면. 벌에서 한 것이니까. 거먼 거 있으면 소금물을 우리 물 갈아, 물 갈아 하지, 물을. 어, 물 갈아서 놔둬야 내일은 장 담글걸.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처럼 전날은 그 물을, 소금물을 만들어서 놔뒀다가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은 물을 통으로 그 메주 씻은 거 통으로 톡톡 놨다가. 메주부터.

메주부떠 ᄌᆞ근ᄌᆞ근 통더레 ᄆᆞᆫ 놔놔근에 그 소금물을 ᄀᆞᆫ 걸 박세기로 거려근에 그자 그 놀 만이. 콩 ᄒᆞᆫ 말 ᄉᆞᆲ으민 소금 두 뒈. 게, 반. 경 허여근에 허민 맞넨 허여근에 그 짐작허영 그자, 엿날에는 짐착치기로 헷주, 무신. 경 허영 허고 그자 메주 덩어리 올라오카부덴 대나 그차당 영 통개레 메주 덩어리 막 우트레 올라오지 못 허게. 엿날엔 메주 덩어리 올라오민 쉬ᄑᆞ리들이 뎅기멍 그 메주에. 똥 싸불민 그 베렝이 일엉게. 게난 메주 덩어리 올라오지 못 허게 딱허게 대로 ᄒᆞ꼼 눌러근에 물이 우트레 올라와야, 소금물 노민 메주 덩어리 우트레 터불어, 경 허여근에 헤낫수다게.[1074]

메주부터 자근자근 통으로 모두 넣어서 그 소금물을 간 걸 바가지로 떠서 그저 그 넣을 만큼. 콩 한 말 삶으면 소금 두 되. 그렇게, 반. 그렇게 해서 하면 맞는다고 해서 그 짐작해서 그저, 옛날에는 짐작으로 했지, 무슨. 그렇게 해서 하고 그저 메줏덩이 올라올까 싶어서 대나 끊어다가 이렇게 항아리로 메줏덩이 마구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옛날엔 메줏덩이 올라오면 쉬파리들이 다니면서 그 메주에. 똥 싸버리면 그 벌레 일어

1073)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다.
1074) 진문자 구술.

서. 그러니까 메줏덩이 올라오지 못하게 딱하게 대로 조금 눌러서 물이 위로 올라와야, 소금물 넣으면 메줏덩이 위로 떠버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삼 개월만 뒈민 장은 익넨 허주게. 경 허여근에 허민 삼 개월 넘엉도 거리곡, 빨리 허는 사름, 엿날엔 뒌장이 반찬이 뒌장이 주식으로 먹어나난 뒌장이 떨어진 사람은 빨리 거리지 그르왕 석 ᄃᆞᆯ만 뒈민 그 뒌장을 먹엇주. 게곡 ᄯᅳ로 여유 신 사름은 넉 ᄃᆞᆯ만이도 거리곡. 거리젱 허민 그 메주 덩어리, 메주 덩어리 톡톡 허영 다라레 ᄆᆞᆫ 허여 놩 ᄯᅳ로 간장을 먹을 만큼 ᄯᅳ로 작은 통드레, 작은 망데기주, 망데기레 간장을 ᄆᆞᆫ딱허게 거려뒁 그 밑에 간장 ᄒᆞ꼼 그 메주 덩어리 그디 부서진 것도 잇곡 허민 그 간장, 메주 덩어리 영 이신 거 거려놔근에 그 메주 덩어리로 허영 막 손으로 문데경. 경 허영 막 손으로 막 쪄근에 그자 뒌죽만이 뒈게 쑨 죽만인 간장 놔근에 허여지민 그때엔 ᄯᅳ로 통드레 담앙 영 허영 놔근에, 놧다근에 직접 먹어도 뒈고, ᄒᆞ꼼 놧당 먹어사 맛은, 뒌장 맛은 좋넨 헙니다. 저 직접보다는. 경 허영 놧당 먹는 사름은 놧당 먹곡, 또 엇인 사름은 빨리 먹는 사름은 그자 거리멍 싸라도 먹고 경 허연.[1075]

삼 개월만 되면 장은 익는다고 하지. 그렇게 해서 하면 삼 개월 넘어도 뜨고, 빨리하는 사람, 옛날엔 된장이 반찬이 된장이 주식으로 먹었으니까 된장이 떨어진 사람은 빨리 뜨고 싶어서 석 달만 되면 그 된장을 먹었지. 그리고 다시 여유 있는 사람은 넉 달만에도 뜨고. 뜨려고 하면 그 메줏덩이, 메줏덩이 톡톡 해서 대야로 모두 해서 놔서 다시 간장을 먹을 만큼 다시 작은 통으로, 작은 '망데기'[1076]지, '망데기'에 간장을

1075) 진문자 구술.
1076)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이다.

모두 떠 두고 그 밑에 간장 조금 그 메줏덩이 거기 부서진 것도 있고 하면 그 간장, 메줏덩이랑 있는 거 떠넣어서 그 메줏덩이로 해서 막 손으로 문질러서. 그렇게 해서 막 손으로 막 찧어서 그저 된죽만큼 되게 쑨 죽만큼 간장 놔서 하면 그때엔 따로 통에 담아서 이렇게 해 놓아서, 놨다가 직접 먹어도 되고, 조금 두었다가 먹어야 맛은, 된장 맛은 좋다고 합니다. 저 직접보다는. 그렇게 해서 놨다가 먹는 사람은 놨다가 먹고, 또 없는 사람은 빨리 먹는 사람은 그저 뜨면서라도 먹고 그렇게 했어.

2) 지붕이기

호렝이, 호렝이.[1077] 호르렝이산디, 호렝이산디.[1078] 뒤치기. 것도 이젠 아이고 잊어불켜, 거 첨. 안 ᄀᆞᆯ아나난이. 그거 헹 허민 저 안네서 영 영 허는. 줄 영 헹 두 사름이 걸 어울리는 거렌 허주, 줄 어울리레, 게면은 거 자굴 ᄀᆞ뜬 거 서꺼지면 이디 뭐 카지진 안헤도 손이 이디 ᄆᆞᆫ딱 벳겨져. 겐디 워낙 일 하영 허는 사름 이디 막 멍쿠젱이 진 사람은 손 안 벳겨졍, 그냥 줄 어울려근에 이제 뒈면은.[1079]

'호렝이'[1080], '호렝이'. '호르렝이'인지, '호렝이'인지. 뒤치기[1081]. 그것도 이젠 아이고 잊어버리겠어, 그거 참. 안 말했었으니까. 그거 해서 하면 저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줄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걸 어울리는 것이라고 하지, 줄 어울리러, 그러면 그거 자귀풀 같은 거 섞이면 여기 뭐 파이진 않아도 손이 여기 모두 벗겨져. 그런데

1077) 고만부 구술.
1078) 진문자 구술.
1079) 고만부 구술.
1080) '호렝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기구다.
1081)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다.

워낙 일 많이 하는 사람 여기 아주 못 진 사람은 손 안 벗겨져서, 그냥 줄 어울려서 이제 되면은.

줄 놀 땐 수누는디, 줄 놓는 요 기술자는 쿰을 줘야 뒈어. 왕 ᄒᆞ루민 ᄒᆞ루 일 강 헤 준다든지. 요거는, 요거는 멕이는 거, 요거 영 돌리는 건 집이 식구들이 헌다 말이여. 어멍이 허든, 아이덜이 허든, 영 돌리멍 허곡. 게서 와서 어울리는 거는 동네 청년들이 와근에 서로 기자 확 모다들엉 헤 줫어. 게민 또 다음 디 가민 또 강 놀암시민 그자 으례 강 헐 걸로 허고. 야 니 왕 우리 줄 어울려 ᄃᆞ라 허민 강 허곡, 이렇게 헷거든.[1082]

줄 놀 땐 품앗이하는데, 줄 놓는 요 기술자는 품삯을 줘야 돼. 와서 하루면 하루 일 가서 해 준다든지. 요거는, 요거는 먹이는 거, 요거 이렇게 돌리는 건 집의 식구들이 한다 말이야. 어머니가 하든, 아이들이 하든,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그래서 와서 어울리는 거는 동네 청년들이 와서 서로 그저 확 모여들어서 해 줬어. 그러면 또 다음 하는데 가면 또 가서 놀고 있으면 그저 으레 가서 할 걸로 하고. 야 너 와서 우리 줄 어울려 달라 하면 가서 하고, 이렇게 했거든.

집이 초가삼간이면 보통 길쭉허잖아, 허면은 긴 거는 진 줄, 또 이렇게 ᄀᆞ로 메는 거는 ᄌᆞ른 줄, 경헌디 아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진 줄이 열여덜 갠가 나 기억으로 헷엇고, ᄌᆞ른 줄이 ᄒᆞᆫ 서른 멧 개라 하여간, 경 허여. 곱 뒈주게, 이건 길인 얼마 안 뒈니까. 요거 지붕 ᄀᆞ뜨민 요렇게 헤서 진 줄, 요건 요렇게 세우고.[1083] 곱빼기 뒈주게.[1084]

1082) 고만부 구술.
1083) 고만부 구술.
1084) 진문자 구술.

집이 초가삼간이면 보통 길쭉하잖아, 하면은 긴 거는 긴 줄, 또 이렇게 가로 매는 거는 짧은 줄, 그런데 아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긴 줄이 열여덟 개인가 나 기억으로 했었고, 짧은 줄이 한 서른 몇 개라 하여간, 그렇게 해. 곱 되지, 이건 길인 얼마 안 되니까. 요거 지붕 같으면 요렇게 해서 긴 줄, 요건 요렇게 세우고. 곱빼기 되지.

그거는 정월달에 ᄇᆞᆫ 날. ᄇᆞᆫ 날 바람 엇이 그냥 잔잔헌, 웨 그러냐 허면 게 아녀민 새가 다 불려 불거든게. 덮어노면, 게민 그 정이월 뒈면은 ᄇᆞᆫ 날이 잇어, 날씨가 영 허다 보면, 또 그때는 어른들은 또 알아. 절기상으로 오늘은 날이 ᄇᆞᆯ암직허다 헤근에 집 일기 좋은 날이엔 헤근에 빌엉 일곡, 그렇게 헷주.[1085]

그거는 정월달에 '본 날'[1086]. '본 날' 바람 없이 그냥 잔잔한,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띠가 다 불려 버리거든. 덮어 놓으면, 그러면 그 정이월 되면 'ᄇᆞᆫ 날'이 있어, 날씨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때는 어른들은 또 알아. 절기상으로 오늘은 날이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할 것 같다 해서 집 이기 좋은 날이라고 해서 빌려서 이고, 그렇게 했지.

집 일 때는. 지붕 우인 ᄒᆞᆫ 사람. 기술자, 새 더프는 사람이 거 잘 더퍼야 비가 안 새게 헌단 말이여. 새 올리는 사람, 또 줄도 올리는 사람 잇는데, 내중에. 줄 메는 사람은 둘. 양쪽으로, ᄌᆞ른 줄이던 진 줄이던. 남자 둘 헤서 이렇게 메고, 우에서 줄을 영 던져주면 것에 간격 영 적당이 맞춰서 이제 줄 메고. 경 헹 메엇당 초불 메엇당 한 열흘, 보름 뒈면 새로 그걸

1085) 고만부 구술.
1086) 'ᄇᆞᆫ날'은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한 날을 말한다.

또 땡기면서 기냥 조여 메어, 줄을 그렇게 허고.[1087]

지붕 일 때는. 지붕 위에는 한 사람. 기술자, 띠 덮는 사람이 그거 잘 덮어야 비가 안 새게 한단 말이야. 띠 올리는 사람, 또 줄도 올리는 사람 있는데, 나중에. 줄 매는 사람은 둘. 양쪽으로, 짧은 줄이든 긴 줄이든. 남자 둘 해서 이렇게 매고, 위에서 줄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것에 간격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이제 줄 매고. 그렇게 해서 매었다가 초벌 매었다가 한 열흘, 보름 되면 새로 그걸 또 당기면서 그냥 조여 매어, 줄을 그렇게 하고.

(집줄 남은) 그거는 짇을커 헷주게. 짇을커 그거는 줄 끝에 그거 헹 허면은, 묵은 줄도, 묵은 줄도 짇을커. 그땐 짇을커 때는 것이 경 어려운 때니까 묵은 줄도 다. 집 일 때, 우에 허고 밑에 둘, 우리는 둘, 셋, 경밖에 안 헷어. 우에 이는 분허고 건 ᄒᆞᆫ 사름이 헤지니까. 경 허고 이제 멜 때가, 게 아니민 둘도 허는디 올리곡 허는디, 줄 메젱 허민 ᄒᆞᆫ 사름씩 양쪽에. 양쪽에 잇어야 뒈니까 세 사름 헤야 뒈어. 나도 뭐 우리 집은 비교적 큰 집이엇는데 뭐 어릴 땐 아버지가 허는 거 봐근에 허고, 나가 크니까 나가 거의 올리곡, 줄 메곡, ᄇᆞ따 메곡, 두 번 메는 거. ᄇᆞ따 멘덴 ᄀᆞᆯ앗저. 줄 첫날, 집 이는 날 줄 멜 거 아니라, 게믄 이제 시일이 지나믄 영 ᄒᆞ끔 눅어지거든, 늘어나. 겡 그걸 헌 거 다시 강 뗑겨 메는 것ᄀᆞ라 ᄇᆞ따 멧젱 ᄀᆞᆯ앗어, ᄇᆞ따 멧젱. 안 허민 그거 막 느슨헤져 불엉게, 흘탁헤 불어, 줄이. 그날 안 뒈어, 좀 메칠 잇으면은 줄이 좀 늘어나. 게민 그걸 ᄇᆞ따 메야주.[1088]

1087) 고만부 구술.
1088) 고만부 구술.

(집줄 남은) 그거는 땔감 했지. 땔감 그거는 줄 끝에 그거 해서 하면은, 묵은 줄도, 묵은 줄도 땔감. 그땐 땔감 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때니까 묵은 줄도 다. 지붕 일 때, 위에 하고 밑에 둘, 우리는 둘, 셋, 그렇게밖에 안 했어. 위에 이는 분하고 그건 한 사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맬 때가, 그렇게 아니하면 둘도 하는데 올리고 하는데, 줄 매려고 하면 한 사람씩 양쪽에.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세 사람 해야 돼. 나도 뭐 우리 집은 비교적 큰 집이었는데 뭐 어릴 땐 아버지가 하는 거 봐서 하고, 내가 크니까 내가 거의 올리고, 줄 매고, 바투 매고, 두 번 매는 거. 바투 맨다고 말했어. 줄 첫날, 집 이는 날 줄 맬 거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시일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가라앉거든, 늘어나. 그래서 그걸 한 거 다시 가서 매는 것더러 바투 맨다고 말했어, 바투 맨다고. 안 하면 그거 막 느슨해져 버려서, 늘어져 버려, 줄이. 그날 안 돼, 좀 며칠 있으면은 줄이 좀 늘어나. 그러면 그걸 바투 매야지.

3) 소한 · 대한

소한, 건 일 년 중 가장 추울 때를 말하는 건디 그 소한에 나간 사름은 대한에 보지 말라고 이렇게 헷거든. 워낙 춥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요즘처럼 무슨 그렇게 의복이 따뜻허게 헤진 것도 옛날은 갈중의허곡 어쩌면 소게에 바지 헤근에 솜 놩 기자 겹쳐 입는 것이 최고로 난방용 ᄃᆞᆺ뜻허게 입는 옷 이주게. 겡 어디 나가며는 옛날에는 뭐 이런 대한, 소한 굽에 어디 ᄆᆞ슬캉 나가젠 헌다고 어디 웨방을 가도 걸어서만 다닐 때니까 눈 많이 오곡. 겡 눈이 묻으면은 오다가 어디 옛날은 술 먹은 어른덜쯤은 그냥 얼음에, 눈 온 디 그냥 박아져근에 생명이 위독헹 죽는 경우도 잇고, 그래서 그 소한 대한은 나상 어디 가지 말렌 허는 이런 말도 잇고. 다른 뭐 우리네가 겪은 것이 큰 다른 뭣은 모르고, 그런 정도로. 제일 춥다, 이렇게 헌 것만 알아.

파싹 얼어근에.[1089]

소한, 건 일 년 중 가장 추울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소한에 나간 사람은 대한에 보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 워낙 춥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요즘처럼 무슨 그렇게 의복이 따뜻하게 된 것도 옛날은 '갈중의'[1090]하고 어쩌면 솜에 바지 해서 솜 놓아서 그저 겹쳐 입는 것이 최고로 난방용 따뜻하게 입는 옷이지. 그래서 어디 나가면 옛날에는 뭐 이런 대한, 소한 즈음에 어디 마을 가서 나가려고 한다고 어디 외방을 가도 걸어서만 다닐 때니까 눈 많이 오고. 그래서 눈이 묻으면은 오다가 어디 옛날은 술 먹은 어른들쯤은 그냥 얼음에, 눈 온 데 그냥 넘어져서 생명이 위독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소한 대한은 나서서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고. 다른 뭐 우리가 겪은 것이 큰 다른 뭣은 모르고, 그런 정도로. 제일 춥다, 이렇게 한 것만 알아. 바싹 추워서.

4) 신구간

우린 신구간이란 건 우리 제주도 풍속인데 신구간이 어떤 경우냐면은 그때는 신이, 귀신덜이 전부 다 하늘 옥황더레 올라가 분다고 헤. 겐 그땐 아무런 일을 헤도 어떤 흉보는 게 없다 허여. 귀신이 엇어노난, 귀신이 잇어사 뭐 잘못뒈민 잘못뒌 것도 좀 해를 입곡 허는디 귀신 엇어근에 올라분 덴 허영 그때 입춘 대한 후 오 일, 입춘 전 삼 일 헤서, 그 기간에 모든 걸 뭐, 이사 같은 거.[1091]

우린 신구간이란 건 우리 제주도 풍속인데 신구간이 어떤 경우냐면은 그때는 신이,

1089) 고만부 구술.
1090)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다.
1091) 고만부 구술.

귀신들이 전부 다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해. 그래서 그땐 아무런 일을 해도 어떤 흉보는 게 없다 해.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있어야 뭐 잘못되면 잘못된 것도 좀 해를 입고 하는데 귀신 없어서 올라버린다고 해서 그때 입춘 대한 후 오 일, 입춘 전 삼 일 해서, 그 기간에 모든 걸 뭐, 이사 같은 거.

무슨 손볼 디 이시며는 특히나 돗통 같은 거는 옛날에 동티 난덴 허니까 그 돗통 같은 거 돗통에 그 담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헷어, 옛날에는 동티 난덴 헤근에, 제일 어떵 허연 그 칙간을 거기를 그렇게 무섭게 셍각헷는지 몰라. 그런 데도 손볼 때가 신구간. 집 어디 손보는 것도 신구간, 또 어디 남의 집더레 그냥 이사 가는 것도 신구간에. 게서 그때 허는 이유는 아까도 말헷지마는 신이 없는 날이다, 무슨 일을 헤도 신으로부떠 숭보질 안 헌다. 그래서 그때에 모든 일을 행헌 거주, 그때. 전부 다 하늘 옥황더레 신이 올라가분 때난 그래서 새해와 신, 구년, 그러니까 묵은해허고 새해 사이, 이거는 신이 없다는 거여, 올라가 불어. 그래서 무슨 일을 헤도 신으로부떠 숭을 안 본다. 그래서 그런 유래로 헤서 신구간 행사들을 허는 거.[1092]

무슨 손볼 데 있으면 특히나 돼지우리 같은 거는 옛날에 동티 난다고 하니까 그 돼지우리 같은 거 돼지우리에 그 담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 옛날에는 동티 난다고 해서, 제일 어떻게 해서 그 돼지우리를 거기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 데도 손볼 때가 신구간. 집 어디 손보는 것도 신구간, 또 어디 남의 집으로 그냥 이사 가는 것도 신구간에. 그래서 그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이 없는 날이다, 무슨 일을 해도 신이 흉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에 모든 일을 행한 거지, 그때. 전부 다 하늘 옥황으로 신이 올라가 버린 때니까 그래서 새해와 신, 구년, 그러니까 묵은해하

1092) 고만부 구술.

고 새해 사이, 이거는 신이 없다는 거야, 올라가 버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신으로부터 흉을 안 본다. 그래서 그런 유래로 해서 신구간 행사들 하는 거.

이사, 이제사 부동산이 시난 헴주마는 옛날엔 게 어디 소문 들엉 누게네 집 비엇젱 허민 가근에 그 집주인안티 들어봥 빌립셍 허영 빌려주켄 허민 빌리곡, 또 안 빌리켄 허민 못 빌곡, 경 허멍 허연 집 빌어낫주.[1093]

이사, 이제야 부동산이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옛날엔 게 어디 소문 들어서 누구네 집 비었다고 하면 가서 그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빌리십시오 해서 빌려주겠다고 하면 빌리고, 또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못 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집 빌렸었지.

그때 이사엔 허민 이삿짐이 경 무신 이서게. 이불이 중요헌 거고, 나머지 그자 솟, 그자 두 개. 그때는 알미늄 솟 두 개 정도나 허고.[1094] 아이고, 짐으로 경 가주게. 등짐으로 져 아졍 갓주. 이불, 제우 이불이주.[1095] 게고 뭐 솟허고 그런 정도는 뭐 이사헐 때 헐 게 엇어. 이런 집이서 이사헐 때는 좀 여러 가지 첨 이삿밥도 헤근에 헹 먹곡. 제일 처음에, 솟, 솟. 우리 여기서 헐 때 솟부떠. 그다음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덜을 다 운반헤 가는 거지. 경 헹 다헌 다음에는 이삿집, 이삿밥이엔 헤근에 밥헤영 식구덜 나눠 주기도 동네에 이렇게 헤근에 이삿밥이엔 건 꼭 헤 먹엇어, 옛날엔.[1096] 솟단지. 솟단질 우선 ᄋᆞ경 간뎬.[1097]

1093) 진문자 구술.
1094) 고만부 구술.
1095) 진문자 구술.
1096) 고만부 구술.
1097) 진문자 구술.

그때 이사라고 하면 이삿짐이 그렇게 무슨 있어. 이불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 그저 솥, 그저 두 개. 그때는 알루미늄 솥 두 개 정도나 하고. 아이고, 짐으로 져서 가지. 등짐으로 져 가지고 갔지. 이불, 겨우 이불이지. 그리고 뭐 솥하고 그런 정도는 뭐 이사할 때 할 게 없어. 이런 집에서 이사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참 이삿밥도 해서 먹고. 제일 처음에, 솥, 솥. 우리 여기서 할 때 솥부터. 그다음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운반해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한 다음에는 이삿집, '이삿밥'이라고 해서 밥해서 식구들 나눠 주기도 동네에 이렇게 해서 '이삿밥'이라고 건 꼭 해 먹었어, 옛날엔. 솥단지. 솥단질 우선 가져서 간다고.

옛날엔 게 경 들렁 가는 게 엇어신디. 곽 ᄒᆞᆫ 봉지. 이만 헌 거. 경을 허나, 초나, 그거 두 개벳긴 엇엇어. 경 헨 그것도 매 사름이 ᄋᆞ경 가지 안 허주, ᄋᆞ경 가는 사름은 뭐 ᄒᆞ끔 셍각헌 사름은 ᄋᆞ졍 가고. 옛날에 원 ᄋᆞ경 갈 게 엇어. 곽허곡 초 아젼. 곽허곡게 불 ᄉᆞᆷ을 때난 곽, 겨곡 그건 이제도 그런 건 촛불, 생일도 촛불 헴주마는 그 곽은 불이 일어나는 거옌 허여근에 거 성공허렌 허는 식으로 그 곽을 ᄋᆞ경 강 줫젱 그때 경 준덴.[1098] 우리 그 동네 어른덜 환갑잔치 먹을 땐 술 ᄒᆞᆫ 뒈 ᄀᆞ경 가곡 헹 강 큰절허고 이렇게 헷는디, 이사허는 딘 나 거 모르크라.[1099]

옛날엔 게 그렇게 들어서 가는 게 없었는데. 성냥 한 봉지. 이만큼 한 거. 그렇게 하나, 초, 초나, 그거 두 개밖에는 없었어.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매 사람이 가져서 가지 안 하지, 가져서 가는 사람은 뭐 조금 생각한 사람은 가져서 가고. 옛날에 원 가져서 갈 게 없어. 성냥하고 초 가져서. 성냥하고 불 땔 때니까 성냥, 그리고 그건 이제도

1098) 진문자 구술.
1099) 고만부 구술.

그런 건 촛불, 생일도 촛불 하고 있지만 그 성냥은 불이 일어나는 거라고 해서 거 성공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 성냥을 가져서 가서 줬다고 그때 그렇게 준다고. 그렇게 했어. 우리 그 동네 어른들 환갑잔치 먹을 땐 술 한 되 가져서 가고 해서 가서 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사하는 데는 나 그거 모르겠어.

5) 섣달그믐

구뭄밥. 구뭄밥은 유다른 밥이주게. 보리밥 먹든 시절에게 곤밥 허여근에 구뭄밥 허영 이 집 주위에 잇는 아기도 따로 사는 아기도 오라, 가까운 친촉도 오라 허여근에 모여 앚아근에 구뭄밥 허영 먹어낫주게. 국이나 궤기 사당은에 이젠 흔허영 뒈지고기 흔헷주마는 엿날엔 추렴 안 허면 뒈지고기도 어려와근에 허민, 바닷고긴 ᄒᆞ꼼 잘 사지난 그자 바닷고기 사다근에 국 끌리곡 무신 반찬은 헤서, 그자 김치나 허여지민 그자 김치 헤근에 경 헹 그게 구뭄밥. 겡 못 왕 늙은 어른이나 이시민 또로 낭푼이에 밥 ᄒᆞ꼼 허여근에 갖다 드리고, 씨할머니나 씨부모덜 오지 못 허민 옵센 허영 오지 못 허민 경 헹 그게 구뭄밥.[1100]

그믐밥. 그믐밥은 유다른 밥이지. 보리밥 먹던 시절에 흰밥 해서 그믐밥 해서 이 집 주위에 있는 아기도 따로 사는 아기도 오라, 가까운 친척도 오라 해서 모여 앉아서 그믐밥 해서 먹었었지. 국이나 고기 사다가 이젠 흔해서 돼지고기 흔하지만 옛날엔 추렴 안 하면 돼지고기도 어려워서 하면, 바닷고긴 조금 잘 살 수 있으니까 그저 바닷고기 사다가 국 끓이고 무슨 반찬은 해서, 그저 김치나 할 수 있으면 그저 김치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그믐밥. 그래서 못 와서 늙은 어른이나 있으면 따로 양푼에 밥 조금

1100) 진문자 구술.

해서 갖다 드리고, 시할머니나 시부모들 오지 못하면 오십시오 해서 오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그게 그믐밥.

게난 옛날은 해가 첨 구뭄, 금년 다 가는 날 아니라게. 겐 그런 데서 이제 서로 친족 간에 그날을, 또 그런 말 헤, 구뭄날 좀자민 오꼿 눈썹 희여분덴 허영 좀도 아이 자고, 섣둘구뭄날은 좀 안 잣어, 우리도, 진짜 그땐 데비 ᄀᆞ뜬 거 막 손으로 짠, 우리 어릴 때 신엇주게. 그 미녕씰로 헤근에 이만이 허게 짜민, 그거 짜멍 붉도록 눈썹 흰덴 허멍 좀도 아니 자고 허멍 헷어. 그래서 구뭄밥은 망년, 요즘 같으면 무슨거, 망년회덜 헤서 서로 허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허는 것이라 그게. 이 해를 다 보내서 새해를 맞는다 헤서 친족덜끼리 모여 앉아서 밥을 경 헹 먹엇주. 그걸 구뭄밥, 구뭄밥.[1101]

그러니까 옛날은 해가 참 그믐, 금년 다 가는 날 아니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서로 친족 간에 그날을, 또 그런 말 해, 그믐날 잠자면 그만 눈썹 희어 버린다고 해서 잠도 아니 자고, 섣달그믐날은 잠 안 잤어, 우리도, 진짜 그땐 양말 같은 거 마구 손으로 짰어, 우리 어릴 때 신었지. 그 무명실로 해서 이만큼 하게 짜면, 그거 짜면서 밝도록 눈썹 희게 된다고 하면서 잠도 안 자고 하면서 했어. 그래서 그믐밥은 망년, 요즘 같으면 무엇, 망년회들 해서 서로 하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 그게. 이 해를 다 보내서 새해를 맞는다 해서 친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을 그렇게 해서 먹었지. 그걸 그믐밥, 그믐밥.

1101) 고만부 구술.

6. 안덕면 서광서리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적갈ᄒᆞ곡게 이 셍성 말린 거 ᄒᆞ곡. 배, 사과, 그 세 가지는 무쭈건 ᄒᆞ고. 고사리ᄒᆞ곡 콩ᄂᆞᄆᆞᆯ, 그런 거 하이튼. 그것도 세 가지는 헤야고.[1102]

적하고 이 옥돔 말린 거 하고. 배, 사과, 그 세 가지는 무조건 하고. 고사리하고 콩나물, 그런 거 하여튼. 그것도 세 가지는 해야 하고.

• 떡 준비

그때 초담에사 전에는 방앗간 나기 전에는 가정집에서 전부 헤십주게. 방앗간 난 후제, 그디 강은에 만들아 왓주. 옛날은 전부 가정집이서 이녁만씩 제물을 뭐 좋으나 궂이나 허영은에 옛날 이제ᄀᆞ찌 뭐 풍부ᄒᆞ지 아년 때니까. 옛날은 침떡 만들곡 ᄌᆞᆫ떡이엔 헤 가지고 모ᄆᆞᆯ떡, 중게, 얍게, 곤떡 헤 가지고 절변, 솔변 헤 가지고 그렇게 헤영은에 헤여나십주게. 허여나단 ᄎᆞᄎᆞ 이제 그것도 벤경이 뒈여 가지고, 해벤에서 방앗간 셍견에. 떡집덜이

1102) 임태순 구술.

셍기난 간편ᄒᆞ게 ᄒᆞ게끔 헤가지고. 농촌에 바빵 ᄒᆞ면은 방엣간에덜 강 허여옴 시작, ᄒᆞᆫ두 사름 허여 가난 다 본 보멍 이제 또 달라 간 헤십주게. 이제 옛날ᄎᆞ록 경 집이서 시루떡ᄒᆞ곡 곤떡, 모ᄆᆞᆯ떡 그런 걸 귀ᄀᆞᆺ추지 아녕. 대부분 영 보면은 침떡이엔 허영, 옛날 침떡ᄀᆞ찌 영 만들긴 ᄒᆞ곡. 또 저 송편ᄒᆞ곡. 주루 요즘은 저 시루떡ᄒᆞ곡 송편. 경 헨에 만들앙 ᄒᆞ는 거.

그때 처음에야 전에는 방앗간 나기 전에는 가정집에서 전부 했습지요. 방앗간 난 후에, 거기 가서 만들어 왔지. 옛날은 전부 가정집에서 자기만큼씩 제물을 뭐 좋으나 궂으나 해서 옛날 이제까지 뭐 풍부하지 않은 때니까. 옛날은 시루떡 만들고 'ᄌᆞᆫ떡'[1103]이라고 해 가지고 메밀떡, '중게'[1104], '얍게'[1105], 흰떡 해 가지고 절편, '솔변'[1106]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했습지요. 하다가 차차 그것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해변에서 방앗간 생겨서. 떡집들이 생기니까 이제 간편하게 하게끔 가지고. 농촌에 바빠서 하며는 방앗간에 가서 해오기 시작, 한두 사람 해 가니까 다 본 보면서 이제 또 달라져서 했습지요. 이제 옛날추룩 그렇게 집에서 시루떡하고 흰떡, 메밀떡 그런 걸 구색 갖추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시루떡이라고 해서, 옛날 시루떡같이 이렇게 만들긴 하고. 또 저 송편하고. 주로 요즘은 저 시루떡하고 송편. 그렇게 해서 만들고 하는 거.

게메 옛날 것은 아까 나 ᄀᆞᆫ듯이. 집에서 시루떡이엔 허영. 침떡이 시루떡

1103) 'ᄌᆞᆫ떡'은 시루떡보다 작은 송편 따위의 자잘한 떡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솔편, 절편, 인절미 등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1104) '중게'는 좁쌀 가루나 메밀 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한다.

1105) '얍게'는 메밀가루나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네모나게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 낸 떡. 가운데 구멍을 뚫기도 한다.

1106) '솔변'은 멥쌀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찍어 낸 뒤, 시루에 솔잎을 깔아 찐 떡을 말하다.

이 시루에서 쳐 가지고 만든 것을 시루떡이엔 허여. 시루떡 허영은에 ᄒᆞ곡,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대부분 이디는 또 모ᄆᆞᆯ농살 ᄒᆞ니까. 모ᄆᆞᆯ허영은에 ᄒᆞ민 또 모물떡 허영은에 저, 중게, 얍게 허영 두 가지로 허영. 니귀반득ᄒᆞ게 ᄒᆞ곡, 요추룩 좀 소랑ᄒᆞ게 ᄒᆞ영 두 가지 만들고. 경 허영 ᄒᆞ곡, 또 곤떡도 달 모냥으로 ᄒᆞᆫ 거 만들곡. 그걸 절변, 솔변이엔 허영은에 저 동글락ᄒᆞ게 헤영은에, 그건 동글락ᄒᆞᆫ 건 해. 또 반달 모냥으로 ᄒᆞᆫ 건 또, 게여근에 두 가지. 게메, 떡이 이 모ᄆᆞᆯ떡은 중게, 얍게. 이제 경 거 간식 먹는 식으로 그런 거 엇고 기자 그 제물떡 ᄒᆞ당은에 찌께기 남으민 그런 거나 ᄂᆞ놔 먹주.[1107]

그러게 옛날 것은 아까 나 말하듯이. 집에서 시루떡이라고 해서. '침떡'이 시루떡. 시루에서 쪄 가지고 만든 것을 시루떡이라고 해. 시루떡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대부분 여기는 또 메밀농살 하니까. 메밀해서 하면 또 메밀떡 해서 저, '중게', '얍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네모반듯하게 하고, 이처럼 좀 길쭉하게 해서 두 가지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흰떡도 달 모양으로 한 거 만들고. 그걸 절편, '솔변'이라고 해서 저 동그랗게 해서, 그건 동그란 건 해. 또 반달 모양으로 한 건 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글쎄, 떡이 이 메밀떡은 '중게', '얍게'. 이제 경 거 간식 먹는 식으로 그런 거 없고 그저 그 제물떡 하다가 찌꺼기 남으면 그런 거나 나눠 먹지.

• 술 준비

추석 때 담지 아녕은에 정월ᄃᆞᆯ이니까. 아주 옛날은 탁주, 이 농주 멘들앙은에게. 막걸리ᄎᆞ럼 허영은에 거기서 또 청주엔 허영 제사에 올리는 건, 막걸리에서 영 오래뒈민 청주가 ᄀᆞᆯ라지민 청주가 셍깁주게. 그거 허영은에

1107) 고수남 구술.

제사 때 사용ᄒᆞ곡, 또 멩심ᄒᆞᆫ 사름은 또 소주도 준비헤당은에 ᄀᆞ찌 ᄒᆞ곡. 고소리술, 이디선 옛날 뭐 어디 쌀이 시카, 좁쌀 주장게. 모힌 걸론 잘 안 뒈여. 흐린 걸로 주장 ᄒᆞ주. 오래, ᄒᆞᆫ 열흘 이상 허여야. 고소린, 고소리 아무나 못ᄒᆞ주게. 겨고 그 고소리도 준비ᄒᆞ젠 ᄒᆞ민 깝이 하영 가는 따문에 아무나 못ᄒᆞ고. ᄒᆞ는 사름이나 ᄒᆞ주. 매다 못허여. 게민 그런 디 소문 들엉 사당은에.[1108]

추석 때 담그지 않고 정월달이니까. 아주 옛날은 탁주, 이 농주 만들어서. 막걸리처럼 해서 거기서 또 청주라고 해서 제사에 올리는 건, 막걸리에서 이렇게 오래되면 청주가 가라앉으면 청주가 생깁지요. 그거 해서 제사 때 사용하고, 또 명심하는 사람은 또 소주도 준비해다가 같이 하고. '고소리술'[1109], 여기서는 옛날 뭐 어디 쌀이 있을까, 좁쌀 주로 해. 메진 걸론 잘 안 돼. 차진 걸로 주로 하지. 오래, 한 열흘 이상 해야. 소줏고리, 소줏고리는 아무나 못하지. 그리고 그 소줏고리도 준비하려고 하면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고. 하는 사람이나 하지. 모두 못해. 그러면 그런 데 소문 듣고 사다가.

고소리에 다깡. 고소리, 옛날은 술ᄒᆞ영 놧당, 고소리엔 ᄒᆞᆫ 게 우엔 둥굴락ᄒᆞ곡 중간엔 또 쪼레들엉 요렇게 ᄒᆞ곡, 요렇게 주전지 모냥으로 그 귀야지가 요렇게 나왓수다. 글로 줄줄 눈물만썩 똑똑똑똑 흘치게. 옛날엔 고소리술. 술은게 옛날 모냥으로 좁쌀 그거는 오래 헤영 풀젠이나 ᄒᆞ곡, 집마다 그거 ᄒᆞ영 제서에 올리젠 ᄒᆞ지 못헷수다. 고소리 술이엔 ᄒᆞᆫ 거는 아무나 못ᄒᆞ는 거. 아무 집이나 엇고 건 나라에서 몰르게 헤서, 정부에서 모르게

1108) 고수남 구술.
1109) '고소리술'은 소줏고리로 내린 제주의 전통 술을 말한다. 술밥을 솥에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술을 뽑아낸다.

헤낫주게. 고소리술이엔 ᄒᆞᆫ 건. 모르게 헤연에 집마다는 엇는 거우다. 건, 한 마을에 멧 밧디벳기 엇이.[1110]

소줏고리에 고아서. 소줏고리, 옛날은 술 해서 놓았다가, 소줏고리라고 한 게 위엔 둥그렇고 중간엔 또 줄어들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주전자 모양으로 그 귀때기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로 줄줄 눈물만큼씩 똑똑똑똑 흘리게. 옛날엔 고소리술. 술은 옛날 모양으로 좁쌀 그거는 오래 해서 팔려고나 하고, 집마다 그거 해서 제사에 올리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리술'이라고 한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무 집이나 없고 건 나라에서 모르게 해서, 정부에서 모르게 했었지. '고소리술'이라고 한 건. 모르게 해서 집집마다는 없는 겁니다. 건, 한 마을에 몇 군데밖에 없어.

(2) 과세

옛날은 세밴 오래 끌러 뎅겻어. 옛날은 이틀이나, 뭐 삼 일 메칠ᄁᆞ지도 못 ᄒᆞᆫ 사름은 어디 다니당 보민. 지금보단 못살아도 세배는 첨, 보름 전ᄁᆞ지 뎅겻젠 말은 ᄒᆞᆸ주게. 감주, 술, 떡 ᄒᆞᄉᆞᆯ게 준비헷당 놩 ᄒᆞ고. 겨곡게 겨을철이니까 얼른게 변ᄒᆞ든 아녑주게. 게난 세밴 처가칩인 보름 전ᄁᆞ지 춪아간 덴 ᄒᆞ는 거주게.[1111]

옛날은 세밴 오래 끌어 다녔어. 옛날은 이틀이나, 뭐 삼 일 며칠까지도 못 한 사람은 어디 다니다가 보면. 지금보단 못살아도 세배는 참, 보름 전까지 다녔다고 말은 합지요. '감주'[1112], 술, 떡 조금 준비했다가 놓아서 하고. 그리고 겨울철이니까 얼른 변하지

1110) 임태순 구술.
1111) 고수남 구술.
1112) '감주'는 엿기름 우린 물에 좁쌀밥을 넣어 만든 음료를 말한다.

않지요 그러니 세밴 처가칩은 보름 전까지 찾아간다고 하는 거지.

상 아니 논 디도. 하르방 신 디 이추룩 나이 든 어른 신 디. 그런 딘 젊은 사름덜 절ᄒᆞ민 뭐, 그디 음식 무시거 출련 줘실 거우다게. 난 안 가보난 모르쿠다마는. 상 논 디 ᄒᆞ곡 나이 든 어른 음식을 대접헷주. 돈이엔 ᄒᆞᆫ 건 잇을 수가 엇고. 세배도 경 기차락 오래 뎅기곡. 우린 어려 부난 그 정도는 몰라. ᄒᆞᆫ 이삼일이민 뒛주.[1113]

상 아니 놓은 데도. 할아버지 있는 데 이처럼 나이 든 어른 있는 데. 그런 덴 젊은 사름들 절하면 뭐, 거기 음식 무엇 차려서 줬을 겁니다. 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 놓은 데 하고 나이 든 어른 음식을 대접했지. 돈이라고 한 건 있을 수가 없고. 세배도 그렇게 그처럼 오래 다니고. 우린 어려서 그 정도는 몰라. 한 이삼일이면 됐지.

(3) 운세 보기

• 보리점

(보리싹) 그거 빵은에 그 싹이 멧 개 나민 금년 농사가 어떵 뒈곡. ᄒᆞ는 사름덜은 ᄒᆞ여낫덴 ᄒᆞᆸ주게.[1114]

(보리싹) 그거 뽑아서 그 싹이 몇 개 나면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되고. 하는 사람들은 했었다고 합지요.

1113) 임태순 구술.
1114) 고수남 구술.

• **토정비결과 점 보기**

그것도 미신이엔 허영 ᄒᆞ는 사름은 ᄒᆞ고, 나도 봐보긴 봐난. 살렴 살앙 애덜 막 아팡은에 빌빌 헤 가난 점도 지레 뎅겨 보곡, 토정비결도 봐 보곡. 뭐 이런 저런 거 허여 봣주만은 사름마다 것도 아녀고. 사름이 좇기민 소송 간다고 허여 가지고. 좇겨 가지민, 막 사름이 아팡은에 ᄎᆞᆷ 이디 저디. 이제 모냥으로 빙원덜이 좋지 아녕 ᄒᆞ난게. 어디 치료ᄒᆞ러 갈 디도 읏고 ᄒᆞ난게. 그자 ᄎᆞᆷ 아는 거엔 ᄒᆞᆫ 건 어디 점졍은에 저, 비념ᄒᆞ는 할망 빌엉은에 비념ᄒᆞ곡. 다른 건 뭐 별, 겨난게 나도 아덜 ᄒᆞ나, 그때 요즘 ᄀᆞ뜨민 아무치도 아녕 살 거주만은게. 드러 업엉 뎅기멍 침주레 뎅기곡, 또 할망 빌엉 비념ᄒᆞ곡 ᄒᆞ단 보난 오꼿 죽어 불언. 돌 때, 알로 두 번체.[1115]

그것도 미신이라고 해서 하는 사름은 하고, 나도 봐보긴 봐봤어. 살림 살아서 애들 막 아파서 빌빌 해 가니까 점도 보러 다녀 보고, 뭐 토정비결도 봐 보고. 뭐 이런 저런 거 해 봤지만 사람마다 그것도 않고. 사람이 쫓기면 소송 간다고 해 가지고. 쫓겨 가면, 막 사람이 아파서 참 여기 저기. 이제 모양으로 병원들이 좋지 않아서. 어디 치료하러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저 참 아는 거라곤 한 건 어디 점쳐서 저, '비념'[1116]하는 할머니 빌려서 '비념'하고. 다른 건 뭐 별, 그러니까 나도 아들 하나, 그때 요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살 거지만. 계속 업고 다니면서 침 맞히러 다니고, 또 할머니 (무당) 빌려서 '비념'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 죽어 버렸어. 돌 때, 아래로 두 번째.

2) 정월대보름

1115) 고수남 구술.
1116) '비념'은 소원을 비는 작은 규모의 굿 혹은 비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1) 연날리기

아주 옛날엔 연덜 하영 허여, 어린아이덜. 나 기자 ᄒᆞ는 체만 쪼꼼 허여낫일 거라. 대부분 이디선 가오리연, 달연허고 두 가지. 족대엔 헹은에 창오지 흔전이사 아년 거주마는 귀허여도. 게난 그 연이 질긴 거 아니민, 다른 뭐 신문지 그런 종인 찢어져 불언에게. 경 ᄒᆞᆫ 따문 창오지 대부분. 초 허영 그 연줄, 그 씰에 막 멕여야 질경은에 잘 떨어지질 아녑주게. 겨난 그 초 멕영. 여기선 어디 쪼꼼 저 큰 동네덜 요 도시 ᄀᆞ뜬 딘 ᄒᆞ주마는 이 농촌엔 뭐 그런 거 ᄀᆞ뜬 거. 옛날인 장난감도 엇고 ᄒᆞ난, 기자 연날리긴 주로 헤도 기자, 그런 거구나.[1117]

아주 옛날엔 연들 많이 해, 어린아이들. 나는 그저 하는 체만 쪼끔 했었을 거야. 대부분 여기선 가오리연, 쟁연하고 두 가지. 이대라고 해서 창호지 흔하지는 않은 거지마는 귀해도. 그러니까 그 연이 질긴 거 아니면, 다른 뭐 신문지 그런 종인 찢어져 버려서. 그렇게 하는 때문 창호지 대부분. 초 해서 그 연줄, 그 실에 마구 먹여야 질겨서 잘 떨어지질 않습지요. 그러니까 그 초 먹여. 여기선 어디 쪼끔 저 큰 동네들 요 도시 같은 덴 하지마는 이 농촌엔 뭐 그런 거 같은 거. 옛날엔 장난감도 없고 하니까, 그저 연날리긴 주로 해도 그저, 그런 거구나,

(2) 여자 아이 놀이

우린 여자난 그런 디 관심도 엇곡게. 여자덜은 공기, 돌멩이 요만썩 허게 헹 공기ᄒᆞ곡, 오자미ᄒᆞ곡. 저 동글락ᄒᆞ게 만들아근에. 새끼줄 헤영 줄뛰기.

1117) 고수남 구술.

아, 것도 헤낫주게. 한다리 인다리 개천개, 준여 온여 버문개, 고로 고로도 무시거 어떠고 헤나신디, 잊어 불언. 게난, 그추룩 헤여근에 끗나 불어신디 잘 그거 셍각이 안 나. 그런 거. 그냥 한다리 인다리 개천개, 번여 온여 뭐 그거 기자 멧 가지벳기 몰르큰게.[1118]

우린 여자니까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여자들은 공기, 돌멩이 요만씩 하게 해서 공기놀이하고, 오자미하고. 저 동그랗게 만들어서. 새끼줄 해서 줄넘기놀이. 아, 것도 했었지. '한다리 인다리 개천개, 준여 온여 버문개, 고로 고로'[1119]도 무엇 어떻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처럼 해서 끝나 버렸는데 잘 그거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그냥 '한다리 인다리 개천개, 번여 온여' 뭐 그거 그저 몇 가지밖에 모르겠어.

(3) 불공

불공은게 ᄉᆞ월 초파일, 동지 불공. 정월대보름 그때 ᄒᆞ곡 절간에 우리 뎅입니다. 뭘 위헤서? 우리 가족을 펜안ᄒᆞ게 헤서 가근에 부처님안티 절ᄒᆞ곡. 칠성단에 절ᄒᆞ곡. 고혼 단, 고혼 앚지난, 우리 주인덜, 돌아간 어른덜 고혼 앚지난, 거기 강 절ᄒᆞ곡. 불전 올리곡, 이렇게 ᄒᆞ는 거주게.[1120]

불공은 사월 초파일, 동지 불공. 정월대보름 그때 하고 절간에 우리 다닙니다. 뭘 위해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해서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칠성단에 절하고. 고혼단, 고혼 모시니까, 우리 주인들, 돌아간 어른들 고혼 모시니까, 거기 가서 절하고.

1118) 임태순 구술.
1119) '한다리인다리....'는 아이들이 하는 다리를 세며 노는 놀이에서 불리는 노래를 말한다. 지역마다 노래 가사가 달라 즉흥적으로 가사를 꾸미며 불렀다.
1120) 임태순 구술.

불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3) 포제

(1) 포젯단

넙게오름이엔 ᄒᆞᆫ 디 여자도 안 갑니다. 남저들만 가서 밥헤 먹고. 삼 일 전에 가근에 몸 정성ᄒᆞ곡. 몸 비리민 안 뒈. 계속 삼ᄉᆞ 일은 몸 정성을, 춤, 영장 난 디도 안 가곡 깨끗ᄒᆞ게 강, 그디 강. 우리나라 잘 저기 펜안ᄒᆞ게 헤줍서, 헤근에 그거 기도ᄒᆞ는 겁주게. 나도 어린 때난 그 말 들언. 그디 여자들은 아이 가지도 못ᄒᆞ곡, 남저들만 가근에 메틀 전에, ᄒᆞᆫ 이삼 일 전에 가근에 제 ᄒᆞᆫ덴 말만 들엇수다.[1121]

'넙게오름'이라고 한 데 여자도 안 갑니다. 남자들만 가서 밥해 먹고. 삼 일 전에 가서 몸 정성하고. 몸 비리면 안 돼. 계속 삼사 일은 몸 정성을, 참, 초상 난 데도 안 가고 깨끗하게 가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잘 저기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거 기도하는 겁지요. 나도 어릴 때난 그 말 들었어. 거기 여자들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남자들만 가서 며칠 전에, 한 이삼 일 전에 가서 제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2) 제물

제관 강은에 밤이 붉아 갈 때 대부분 ᄒᆞᆫ덴 ᄒᆞᆸ주게. 경 요즘 ᄀᆞ뜨민 뭐 전등이나 시민 ᄯᆞ라가곡 구경이나 ᄒᆞ주마는. 왁왁ᄒᆞᆫ 디 겁낭 가도 못ᄒᆞ주.

1121) 임태순 구술.

제물이야 뭐 도세기 크나 족으나 옛날엔게 가정에서 질루민 도세기 얼마 크도 아녯주게. 막상 커봐야 ᄒᆞᆫ ᄒᆞᆫ 칭 헹 ᄒᆞ면 ᄒᆞᆫ 육십 키로 그게 젤 큰 거주게. 겨난 그 정도 허영은에 온체 허영 강은에 제물로 올렷덴 ᄒᆞᆸ주게. 마을에 가정집에서 질루는 거 허영은에, 상. 뭐 잡으는 것사 뭐 그디 제관 헤영 끗나민게 그 제 끗나민 완전이 이젠 분배ᄒᆞᆸ주게. 잡을 땐게 그디서 누게 준비ᄒᆞ는 제관이 ᄯᅳ로 십주게. 이디선 이 나무 시난, 나무 허영 줄 헤영 모가지 ᄃᆞᆯ아메영게. 저추룩 큰 나무 ᄀᆞ뜬 디 대부분 우리 뒤에 저런 나무 잇는 디 ᄀᆞ뜬 디. 뭐, 족은 나무에도 영 허영 ᄒᆞ곡. 게난 대부분은 저 ᄃᆞᆯ아메영 ᄒᆞ민 목 쫄마메졍은에 죽어 부는 거난게. 저 도살ᄒᆞ는 디서 닮지 아녕.[1122] 미나리도 생걸로. 시루떡도 빗으로 영 짤르지 말고 그냥 영. 도세긴 사근에 기자 헤실 테주. 멧 사름이 ᄃᆞᆯ아멘 헤실 거우다. 큰 나무에 모가지 ᄃᆞᆯ아메영게.[1123]

제관이 가서 밤이 밝아 갈 때 대부분 한다고 합지요. 그렇게 요즘 같으면 뭐 전등이나 있으면 따라가고 구경이나 하지만. 캄캄한 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지. 제물이야 뭐 돼지 크나 작으나 옛날엔 가정에서 기르면 돼지 얼마 크지도 않았지. 막상 커봐야 한 한 칭 해서 하면 한 육십 킬로 그게 젤 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통째 해서 가서는 제물로 올렸다고 합지요. 마을에 가정집에서 기르는 거 해서, 사서. 뭐 잡는 거야 뭐 거기 제관 해서 끝나면 그 제 끝나면 완전히 이젠 분배합지요. 잡을 땐 거기서 누가 준비하는 제관이 따로 있습지요. 여기선 이 나무 있으니까, 나무 해서 줄 해서 모가지 달아매서. 저처럼 큰 나무 같은 데 대부분 우리 뒤에 저런 나무 있는 데 같은 데. 뭐, 작은 나무에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 달아매서 하면 목 졸려

1122) 고수남 구술.
1123) 임태순 구술.

서 죽어 버리는 거니까. 저 도살하는 데 같지 않아서. 미나리도 생것으로. 시루떡은 '빗'으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돼지는 사서 그저 했을 테지. 몇 사람이 달아매서 했을 겁니다. 큰 나무에 모가지 달아매서.

음식이야 그때도 뭐 쌀이 시나 엇으나 쌀밥ᄒᆞ곡. 좁쌀 두 가지 ᄒᆞ곡 국은 아년덴 ᄒᆞᆸ주게. 벨제나 토신제 ᄀᆞ튼 거, 산제나 그런 딘 국은 아녀. 그 내력은 확실히 모른디 메, 좁쏠제 ᄒᆞ곡, 저 쌀밥제, 저 쌀밥ᄒᆞ곡 허영은에 두 가지. 그것도 세 개썩 허영은에 올리곡. 경 ᄒᆞ곡 또 셍선도. 그 셍선은 생걸로 ᄒᆞ곡, 도야지도 생거 올리곡. 경 ᄒᆞ곡 소고기도 떠당은에 미리 준비헷당 쪼꼼 시들령. 쪼꼼 저 반 시들령은에 것도 생걸로 올리고. 경 다 생걸로 협주게. 게난 저 익은 거엔 ᄒᆞᆫ 거는 밥뿐. 저 밥ᄒᆞ곡 저 떡. 떡도 시루떡으로 허영 올리고. 시루떡이엔 헷자, 큰 시루가 아니고 조그마ᄒᆞᆫ 그런 용으로 나온 게 이슨 모냥이라. 온채 이렇게 온채 그냥 톡 ᄒᆞ게시리 올령. 그걸 시루 영 들르민 영 나오민.[1124]

음식이야 그때도 뭐 쌀이 있으나 없으나 쌀밥하고. 좁쌀 두 가지 하고 국은 안 한다고 합지요. 별제나 토신제 같은 거, 산제나 그런 덴 국은 안 해. 그 내력은 확실히 모르는데 메, 좁쌀제 하고, 저 쌀밥제, 저 쌀밥하고 해서 두 가지. 그것도 세 개씩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또 옥돔도. 그 옥돔은 생것으로 하고, 돼지도 생것 올리고. 그렇게 하고 소고기도 떠다가 미리 준비했다가 조금 시들어뜨려서. 쪼끔 저 반 시들어뜨려서 그것도 생것으로 올리고. 그렇게 다 생것으로 합지요. 그러니까 저 익은 거라고 한 거는 밥뿐. 저 밥하고 저 떡. 떡도 시루떡으로 해서 올리고. 시루떡이라고 해도, 큰 시루가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용으로 나온 게 있는 모양이야. 통째 이렇게 통째 그냥

1124) 고수남 구술.

톡 하게끔 올려서. 그걸 시루 이렇게 들면 이렇게 나오면.

4) 금줄

가정 제서에, 정월ᄃᆞᆯ에 나면 우리도 엿날에 주인. 우리 집이 주인 살 때도 임제냥으로 헤낫수다. 돌아가 부난 이젠 아예, 그냥 무시헤 부는디. 정월달엔 ᄒᆞᆸ니께. 가정마다, 들어오는 정문, 비린 사름 오지 말렌.[1125]

가정 제사에, 정월 나면 우리도 옛날에 주인. 우리 집의 주인 살 때도 자기대로 했었습니다. 돌아가 버려서 이젠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는데. 정월엔 합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정문, 비린 사람 오지 말라고.

무사, 금줄. 가정집에 그 정월ᄃᆞᆯ엔 그 대부분 이 가정마다 이 정월제 허여십주게. 올레예. 대문 잇는 디 금줄을 멥주게. 그건 웨냐하믄 사람이 조끔 어디 ᄎᆞᆷ 장서 난 디 다니나, 어디 안 좋은 디 뎅겨난 사름은 오지 못헹 방지ᄒᆞ게끔 허영은에, 그 금줄 메낫주게. 가인 집집마다, 이 촌엔. 금줄에 경 ᄒᆞ는 사람도 이수다. 저 금줄 영 메민 고추 ᄃᆞᆯ아메곡, 무슨 저 숫, 숫 그런 거 허영은에 ᄃᆞᆯ아메곡.[1126]

왜, 금줄. 가정집에 그 정월엔 그 대부분 이 가정마다 이 정월제 했습지요. 오래에. 대문 있는 데 금줄을 맵지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어디 참 상 난 데 다니거나, 어디 안 좋은 데 다녔던 사람은 오지 못해서 방지하게끔 해서, 그 금줄 맸었지. 개인

1125) 임태순 구술.
1126) 고수남 구술.

집집마다, 이 촌엔. 금줄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금줄 이렇게 매면 고추 달아매고, 무슨 저 숯, 숯 그런 것 해서 달아매고.

5) 당제

당제 ᄒᆞᆯ 땐 어머니덜 혼자만 강 ᄒᆞ주게. 글지후젠 당들을 다 없애 부난. 그 사삼사건 나난 이디 순경덜 오란 살게 뒈난 순경들이 저런 거 쓸데기읏이 뭐 헴젠 허연, 총 쏘아 가지고 그 당에 돌아뎅이멍 총을 쏘아 가지고 다 없애 불엇주게.[1127]

당제 할 땐 어머니들 혼자만 가서 하지. 그 이후 당들을 다 없애 버리니까. 그 사삼사건 나니까 여기 순경들 와서 살게 되니까 순경들이 저런 거 쓸데없이 뭐 한다고 하면서, 총 쏘아 가지고 그 당에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아 가지고 다 없애 버렸지.

당 ᄒᆞᆯ 때는 어머니가 가난 어디사 가신지 뭐 어릴 때난, ᄎᆞᆯ리는 거만 봣주 원. 당제 ᄒᆞᆯ 땐 어머니덜 혼자만 강 ᄒᆞ주게. 혼자만 강은에 나는 어리난 안 가. 씨집 온 다음엔 아예 그런 거 엇어. 아, 맞아 그때 첨, 순경덜이 헤불엇구나. 당을 없애 불언. ᄆᆞ딱 없애 불엇주게.[1128]

당을 할 때는 어머니가 가니까 어디에야 갔는지 뭐 어릴 때니까, 차리는 거만 봤지 원. 당제 할 땐 어머니들 혼자만 가서 하지. 혼자만 가서 나는 어리니까 안 가. 시집 온 다음엔 아예 그런 거 없어. 아, 맞아 그때 참, 순경들이 해버렸구나. 당을 없애 버렸

1127) 고수남 구술.
1128) 임태순 구술

어. 전부 없애 버렸지.

6) 안택

• 올레코시

올레코시엔 ᄒᆞᆫ 건, 저 올레에 걸멩이엔 ᄒᆞ주게. 제사에 ᄒᆞᆯ 때. 그건 제사 때 제사 지나민 걸멩이엔 헤 가지고 알기 쉽게 뭐 말하자면, 이제 어디 지나가단 사름 제사나 큰일 ᄒᆞ는 디 들어 온 사름 영 대접ᄒᆞ는 식으로, 제사 지나 나민 이제 올레 강 영 술ᄒᆞ곡 먹어난 음식 영 케우려 불주게. 그거나 비슷ᄒᆞᆸ주게. 문전제에 것도 케우리곡, 조상제 ᄒᆞᆫ 것도 케우리고, 대부분 문전제를 ᄆᆞᆫ저 ᄒᆞ주게.[1129]

'올레코시'[1130]라고 한 건, 저 올레에 고수레라고 하지. 제사에 할 때. 그건 제사 때 제사 지나면 고수레라고 해 가지고 알기 쉽게 뭐 말하자면, 이제 어디 지나가던 사람 제사나 큰일 하는 데 들어 온 사람 이렇게 대접하는 식으로,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오래 가서 이렇게 술하고 먹었던 음식 이렇게 고수레해 버리지. 그거나 비슷합지요. '문전제'[1131]에 것도 고수레하고, 조상제 한 것도 고수레하고, 대부분 '문전제'를 먼저 하지.

• 문전제

문전제 ᄆᆞᆫ여.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만약에 이디 ᄀᆞ트민 여기서 따로 출려. 가정에 그 돌아간 사름보단 그 문전제를 ᄆᆞᆫ여 체려. ᄆᆞᆫ처 과일이고

1129) 고수남 구술.
1130) '올레코시'는 정월에 집안에 탈이 없도록 무당을 불러 지내는 고사를 말한다.
1131) '문전제'는 제사나 명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이다.

뭣이고, 떡이고 ᄆᆞᆫ처 올려난 다음에, 큰 상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머니나 ᄒᆞ민, 그레 말제 ᄒᆞ곡. 문전은 미릇 우리 지금 옛날 ᄒᆞ듯 우리 아덜덜토 딱 그대로 ᄒᆞᆸ니다.[1132]

'문전제' 먼저. 문 앞에서, 큰 문 앞에서. 만약에 여기 같으면 여기서 따로 차려. 가정에 그 돌아간 사람보다는 그 '문전제'를 먼저 차려. 먼저 과일이고 뭣이고, 떡이고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큰 상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머니나 하면, 거기에 말째 하고. '문전'은 미리 우리 지금 옛날 하듯 우리 아들들도 딱 그대로 합니다.

• 조왕제

조왕제도. 겐디 조왕제엔 헷자 그디 영 강은에 그 옛날은, 이제 저 싱크대 모냥으로 ᄒᆞ질 아녠게, 부엌에 솟 영 앚졍은에 ᄒᆞ민 그디 솟 우이. 솟뚜껭이, 영 가리쳐근에 그 넙작ᄒᆞᆫ 디 그레 제물 올령은에 ᄒᆞ엿당 영 그냥 또 잡식허영 케우려 불고.[1133]

조왕제도. 그런데 조왕제라고 했자 거기 이렇게 가서 그 옛날은, 이제 저 싱크대 모양으로 하질 않고, 부엌에 솥 이렇게 안치고 하면 거기 솥 위에. 솥뚜껑, 이렇게 뒤집어서 그 넓적한 데 그리 제물 올려서 했다가 이렇게 그냥 또 제반해서 고수레해 버리고.

• 칠성제

옛날엔 헤낫주만은, 이젠 절간에 뎅이난양, 절간에 강. 다 우린 절간에 뎅이난. 칠성, 우리 아덜은 칠성 잘 위ᄒᆞ렌 허여.[1134]

1132) 임태순 구술.
1133) 고수남 구술.
1134) 임태순 구술.

옛날엔 했었지만, 이젠 절간에 다니니까요, 절에 가서. 다 우린 절에 다니니까 칠성, 우리 아들은 칠성 잘 위하라고 해.

• 토신제

날짜, 그건 집집마다 쪼끔 차이가 뒙주게. 기영 허영은에게 정월, 정월 그 멩질 넘으민 ᄒᆞ는 집 잇곡, 입춘 뒈영은에 ᄒᆞᆯ 수도 잇고. 게난 가정에 식귀도 건강ᄒᆞ게 일 년 동안 잘ᄒᆞ게 헤주곡. 또 우마도 뭐 탈 엇이 잘 키우게 허여 줍센 ᄒᆞ곡. 농사허는 것도 잘 뒈게 헤 줍센 허곡. 경 헤영은에 토신젤 ᄒᆞ여.[1135]

날짜, 그건 집집마다 쪼끔 차이가 있습지요. 그렇게 해서 정월, 정월 그 명질 넘으면 하는 집 있고, 입춘 돼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 식구도 건강하게 일 년 동안 잘하게 해주고. 또 우마도 뭐 탈 없이 잘 키우게 해 주십사 하고. 농사하는 것도 잘 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해서 토신제를 해.

7) 걸궁

걸궁,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사삼사건 전이 걸궁 헤난. 청년덜 부락에서 젊은 사름덜 모영은에. 촘, 북장단 두드리멍. 옛날은 겨고, 북이 여기 ᄒᆞᆫ웃이 싯도 아녀고. 어떵 북 하나 어디 강 구헤당. 것도 아메도 어디 간 상은에 와실 테주. 허영은에 그자 그 송낙, 저 뭐냐 저 창오지로 허영 송낙 만들엉 썽은에. 그런 것들 허영 많이 멘들아. 돈 들엉은에 ᄒᆞᆯ 거 따문게 돈이 엇어 노난. 이런저런 거 경 하영 어디 강 구헤 오덜 못 헤십주게. 그 봉오지에

1135) 고수남 구술.

꼿방울 허영 ᄃᆞᆯ아메영은에 영 흔들리곡, 창옷 입곡덜 허영. 창옷 입는 사름도 그냥 한복 중의적삼 입는 사름 허곡. 여라 질로. 두루메기, 저 여름에 입는 건 창옷이고 겨울 때 입는 건 두루메기, 뚜꺼운 건 두루메기.[1136]

걸립,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사삼사건 전에 걸립 했었어. 청년들 부락에서 젊은 사람들 모여서. 참, 북장단 두드리면서. 옛날은 그리고, 북이 여기 한없이 있지도 않고. 어떻게 북 하나 어디 가서 구해다가. 그것도 아무래도 어디 가서 사서 왔을 테지. 해서 그저 그 '송낙'[1137], 저 뭐냐 저 창호지로 해서 '송낙' 만들어서 써서.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 돈 들여서 할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 놓으니까. 이런저런 거 그렇게 많이 어디 가서 구해 오질 못 했습지요. 그 봉우리에 꽃방울 해서 달아매서 이렇게 흔들리고, 창옷 입고 해서. 창옷 입는 사람도 그냥 한복 고의적삼 입는 사람 하고. 여러 종류로. 두루마기, 저 여름에 입는 건 창옷이고 겨울에 입는 건 두루마기, 두꺼운 건 두루마기.

8) 입춘

• 금기

입춘 뒈민 거 거세기 정성ᄒᆞ는 사름은 집이서 무슨 빗자루질도 ᄒᆞ지 말곡, 무슨 쓸데엇은 뭐 이런 저런 거 좋지 아년 건 ᄒᆞ지 말렌 ᄒᆞ주, 입춘 뒈민. 그거 상ᄃᆞᆯ이렌 헤 가지고, 일 년에 상ᄃᆞᆯ, 처음 들어오는 ᄃᆞᆯ이엔 헤 가지고. 경 허영 좋지 아년 건 ᄒᆞ지 말렌 ᄒᆞ곡, 집안에 정성ᄒᆞ는 사름도 빗자루 ᄒᆞ민 재수가 엇넨 허영은에 그영 빗자루질도 아녀고. 그냥 걸레질 허영. 비차락질을 ᄒᆞ지 말고 또 좋지 아년 그 행동을 ᄒᆞ지 말곡. 일 년에

1136) 고수남 구술.
1137) '송낙'은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백지로 만든 고깔을 말한다.

젤 그 상ᄃᆞᆯ이곡 처음 들어오는 그 ᄃᆞᆯ입주게, 입춘이. 입춘이민 정월 첨저 정월에 들어오주게. 게난 상ᄃᆞᆯ이곡 ᄒᆞ난에 정성은 ᄒᆞ주, 정성은. 모든 거 비차락질 ᄒᆞ민 내좇아분덴 허영덜 그 어떤 할망덜은 멩심허영은에 그런 말 ᄒᆞᆸ디다게.[1138]

입춘 되면 거시기 정성하는 사람은 집에서 무슨 빗자루질도 하지 말고, 무슨 쓸데없는 뭐 이런 저런 거 좋지 않은 건 하지 말라고 하지, 입춘 되면. 그거 상달이라고 해 가지고, 일 년에 상달, 처음 들어오는 달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집안에 정성하는 사람도 빗자루(질) 하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빗자루질도 않고. 그냥 걸레질 해서. 빗자루질을 하지 말고 또 좋지 않은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일 년에 제일 그 상달이고 처음 들어오는 그 달입지요, 입춘이. 입춘이면 정월 참, 저 정월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상달이고 하니까 정성은 하지, 정성은. 모든 거 빗자루질 하면 내쫓아 버린다고 해서들 그 어떤 할머니들은 명심해서 그런 말 합디다.

9) 방에 부찌기

방에 부찌젠 ᄒᆞ민, 그때는 이제 목장에 진드기가 막 잇는 따문 방에 부찌민. 소에 그 진드기가 올랑은에 막 뜯어먹어 부는 따문 ᄉᆞᆯ이 오르질 못허여. 경 ᄒᆞᆫ 따믄 꼭 그 날짜를 정ᄒᆞᆸ주게. 날짜 정허영 마을이 전부 동원허영은에. 마을 전부 동원헤영 이제 동원ᄒᆞ민,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 강 부찌곡,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 강 부찌곡 허영은에 목장 일대를 ᄒᆞ루에 부찌주게. 경 ᄒᆞᆫ 따믄 이제 마을이 전부 동원ᄒᆞ민, 이제 반으로 일 개 반씩. 따로 따로 이제 배치시경 ᄒᆞ민. 이제 이 마루 정도민 주위로만 ᄒᆞ며는 ᄎᆞᄎᆞᄎᆞᄎᆞ

1138) 고수남 구술.

이젠 ᄒᆞᆫ쪽으로 부찌곡, 저쪽으로 부찌민 전부 이젠 부찌민 가운딜로만 이제 불이 갈 거 아이꽈게. 겨민 이제 부쪄동 이제 두이로 이제 어드레 그 불기가 날아나는 걸 뒤에선 ᄉᆞᆯ핍주게. 경 허영은에 ᄒᆞ영 불부찌젠 ᄒᆞ민 그 훼엔 허영 훼 만들앙은에. 훼엔 ᄒᆞᆫ 건 뭐냐믄 억새꼿, 옛날에 억새꼿 피민 그거 준비허영. 어욱꼿 그것도 ᄒᆞ곡. 또 새, 그거 비엉은에 영 질게 ᄌᆞᆯ마메영 질게 만들앙은에 다니멍 불부찌곡. 우린 목장이 어느 정도 그 덩굴덜 잇곡, 가시덜 잇곡 ᄒᆞ민 이 트멍 트멍 ᄒᆞᆫ 디가 만ᄒᆞᆸ주게. ᄒᆞ난에 선이엔 헷자 옛날엔 그 잔 나무덜 잇는 딘 좀 들어강 불부쪄도 그냥 내불어. 방에 부찌레. 오름에 ᄀᆞ뜨민 뭐 어디 선 둘렁은에 ᄒᆞ곡 ᄒᆞ주만은, 우리 목장에는 선 둘르멍 ᄒᆞ진 아녀주게. 경 자왈에 나무 잇는 디 들어강 불 드러 부떠도 그냥 내부려. ᄒᆞ꼼 부뜨당 그냥 밤 뒈민 중단 뒈 불고. 해년마다 겨고 부찌니까 해년마다 부뜨난 밑에 쓰레기가 ᄒᆞᆫ읏이 엇주게. 해년마다 부쪄 부는 따문.[1139]

방화 붙이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목장에 진드기가 막 있기 때문 방화 붙이면. 소에 그 진드기가 올라서 막 뜯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살이 오르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날짜를 정합지요. 날짜 정해서 마을이 전부 동원해서. 마을 전부 동원해서 이제 동원하면,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 가서 붙이고,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 가서 붙이고 해서 목장 일대를 하루에 붙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마을이 전부 동원하면, 이제 반으로 일 개 반씩. 따로 따로 이제 배치시켜서 하면. 이제 이 마루 정도면 주위로만 하면 차차차차 이젠 한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면 전부 이젠 붙이면 가운데로만 이제 불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붙여두고 이제 뒤로 이제 어디에 그 불기가 날아가는 걸 뒤에선 살피지요. 그렇게 하고 해서 불붙이려고 하면 그 홰라고 해서 홰

1139) 고수남 구술.

만들어서. 홰라고 한 건 뭐냐면 억새꽃, 옛날에 억새꽃 피면 그거 준비해서. 억새꽃 그것도 하고. 또 띠, 그거 베서 이렇게 길게 졸라매서 길게 만들고 다니면서 불붙이고. 우린 목장이 어느 정도 그 덩굴들 있고, 가시들 있고 하면 이 틈과 틈이 있는 데가 많습지요. 하니까 선이라고 해도 옛날엔 그 잔 나무들 있는 덴 좀 들어가서 불붙여도 그냥 내버려. 방화 붙이러. 오름에 같으면 뭐 어디 선 둘러서 하고 하지만, 우리 목장에는 선 두르면서 하진 않지. 그렇게 덤불에 나무 있는 데 들어가서 불 계속 붙어도 그냥 내버려. 조금 붙다가 그냥 밤 되면 중단 돼 버리고. 해해연년마다 그러고 붙이니까 해해연년마다 붙으니까 밑에 쓰레기가 한없이 없지. 해해연년마다 붙여 버리기 때문.

□ 2월

1) 영등굿

• 금기

영등은 ᄒᆞᆫ웃이 신경 씁니까게. 영등ᄃᆞᆯ 들민 뭐 좀 인다, 뭐 ᄒᆞᆫ다, 옛어른덜 보민 빨래 아무 날이나 ᄒᆞ지 아녀사 ᄒᆞᆫ덴 그런 말덜은 헤어낫어. 아무 날이나 그거 ᄒᆞ면은 좀 인덴 허영은에. 좀. 옛날엔 대부분 저 이 세탁기 엇으난 그 부인덜이 다듬이질을 허엿주게. 그 흰옷 헹은에 빨앙은에 막 다듬이질허영 풀허영 ᄇᆞᆯ르곡. 게난 그 이월ᄃᆞᆯ에 영등ᄃᆞᆯ엔 그 다듬이질을 ᄒᆞ지 말렌 경 ᄒᆞᆸ디다게. 두드리는 거, 안반. 그 이만큼 큰큰허영, 큰 나무. 저런 상ᄎᆞ록 ᄒᆞᆫ 거. 질드륵ᄒᆞ게 허영 그걸 안반이엔 허여, 안반. 안반 허영은에 그 우이서 홍짓대, 그거 ᄒᆞ지 말라.

영등은 한없이 신경 씁니까. 영등달 들면 뭐 좀 인다, 뭐 한다, 옛 어른들 보면 빨래 아무 날이나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런 말들은 했었어. 아무 날이나 그거 하면은 좀 인다고 해서는, 좀. 옛날엔 대부분 저 이 세탁기 없으니까 그 부인들이 다듬이질을 했지. 그 흰옷 해서 빨고 막 다듬이질해서 풀해서 바르고. 그러니까 그 이월에 영등달에는 그 다듬이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디다. 두드리는 거, 안반. 그 이만큼 커서, 크디큰 나무. 저런 상처럼 한 거. 기다랗게 해서 그걸 안반이라고 해, 안반. 안반 해서 그 위에서 홍두깨, 그거 하지 말라.

좀 보다도 버렝이가 안에 막 들어와. 하양ᄒᆞᆫ 옷 그랑그랑 널민, 그 이상케 기어 뎅기당 쪼끄락ᄒᆞ게, 그 어느 트멍으로 우리 집이도 잘 들어와. 멩심헤연에 올린 빨래를 하얀 빨래를 안 헤서. 조심헤연에. 그난 빨래도 ᄒᆞ면 그 벌거지 들어오곡, 영등ᄃᆞᆯ엔 하지 말라고, 호박도 그난 영등 넘어가 불어사 호박도, 호박메도 놓라, ᄒᆞᆫ 옛날에 말을 들어난. 흰 빨래 널면 벌거지가 안네 막. 하이튼 요만썩 질 처음엔 발이 막 핫다근에 또글락이 오그라들어 불어. 그 버렝이가 어느 트멍으로 잘 들어와.

안반 그 우이서 또 뭐 감아. 감아근에 이만이 ᄒᆞᆫ 홍짓댄가 무시걸로 헹 감아근에. 옛날은 이불안 ᄀᆞ뜬 거영 막 둘이가 앚앙 두둘이민 우린 안 헤봐신디 옛날에. 다듬이렌 ᄀᆞᆯ아. 다른 말은 엇어. 쭐랑ᄒᆞᆫ 거, 뭐 감아근에. 옛날엔 이불안도 다 광목으로 ᄒᆞ니까, 풀 허영. 빨래도 하얀 빨래 널지 말라 헨. 올리도 ᄒᆞᆫ 삼사 일 조심헨 안 헨.

어느 트멍에 들어와근에 구들에. 구들 구석에도 들어오곡. 어쩌다 보민 그놈으 벌거지가 들어와. 아이구 징그러와. 쪼끌락ᄒᆞᆫ 건디. 영 냄살도 나곡게. 밧디 잘 걸립니다. 그것이 발도 막 하고 ᄒᆞᆫ디 냄살 나. 요만이 헤근에 꺼멍ᄒᆞᆫ 건디. 발은 주넹이 모냥으로 막 하곡 ᄒᆞᆫ 거. 쥐며누리도 잘 들어와.

어떵 헹 트멍으로.[1140]

좀 보다도 벌레가 안에 막 들어오지. 하얀 옷 주렁주렁 널면, 그 이상케 기어다니다가 조그맣게, 그 어느 틈으로 우리 집에도 잘 들어와. 명심해서 올해는 빨래를 하얀 빨래를 안 했어. 조심해서. 그러니까 빨래도 하면 그 벌레가 들어오고, 영등달에는 하지 말라고, 호박도 그니까 영등 넘어가 버려야 호박도, 호박모종도 놓아라, 하는 옛날에 말을 들었어. 흰 빨래 널면 벌레가 안에 마구. 하여튼 요만씩 젤 처음엔 발이 매우 많았다가 똥그랗게 오그라들어 버려. 그 벌레가 어느 틈으로 잘 들어와.

안반 그 위에서 또 뭐 감아. 감아서 이만큼 한 홍두깬가 무엇으로 해서 감아서. 옛날은 이불안 같은 거랑 막 둘이서 앉아서 두드리면 우린 안 해봤는데 옛날에. 다듬이라고 말해. 다른 말은 없어. 길쭉한 거, 뭐 감아서. 옛날엔 이불안도 다 광목으로 하니까, 풀 해서. 빨래도 하얀 빨래 널지 말라고 해서. 올해도 한 삼사 일 조심해서 안 했어.

어느 틈에 들어와서 구들에. 구들 구석에도 들어오고. 어쩌다 보면 그놈의 벌레가 들어와. 아이고, 징그러워. 쪼끄만 건데. 이렇게 냄새도 나고. 밭에 잘 걸립니다. 그것이 발도 아주 많고 한데 냄새 나. 요만큼 해서 까만 건데. 발은 지네 모양으로 아주 많고 한 거. 쥐며느리도 잘 들어와. 어떻게 해서 틈으로.

2) 지붕이기

각단 비어 오곡, 새 비어 오곡. 곳세 골아구나마는 그 새밧이 잇는 사름은 춤 인력이 두루 들엉은에 허여 오주마는 없는 사름은 저 목장에 쉐 아이 먹는 자왈 트멍에 강 일일이 그거 드러 그거 문 메칠 봉가당 ᄒᆞ다 보면 ᄒᆞᆫ 열흘도 걸리곡 ᄒᆞᆫ 보름도 걸리곡 허영 그걸 허여 놩은에 이제 준비혯당.

1140) 임태순 구술.

이젠 정월 멩질 끗나민 지붕을 이는 겁주. 줄 놩은에 이제 지붕 일젠 ᄒᆞ민 ᄒᆞᆫ두 사름으로 못ᄒᆞᆯ 거난. 것도 아무 날이나 못허영 좀 안 이는 날로, 바람 엇은 날ᄒᆞ곡. 바람 시민 지붕을 못 더프주게. ᄒᆞ난에 경 허여도게 어떵 허영은에게 멧 사름, 서너닛썩 빌엉은에 수눌엉 허여, 수눌엉. 경 허영 농촌에선 지붕 다 일엉 허영 나사민 초온에서 ᄒᆞᆯ 일 다 허엿젠 ᄒᆞ주. 게민 이제 그거 끗나민 새해 나민 새해부떠 또 농사 시작ᄒᆞ곡.[1141]

'각단'[1142] 베서 오고, 띠 베서 오고. 아까 말했구나마는 그 띠밭이 있는 사람은 참 인력이 덜 들어서 해 오지마는 없는 사람은 저 목장에 소 안 먹는 덤불 틈에 가서 일일이 그거 계속 모두 며칠 주워다가 하다 보면 한 열흘도 걸리고 한 보름도 걸리고 해서 그걸 해 놓고 이제 준비했다가. 이젠 정월 명질 끝나면 지붕을 이는 겁죠. 줄 놓고 이제 지붕 이려고 하면 한두 사람으로 못할 거니까. 것도 아무 날이나 못해서 좀 안 이는 날로, 바람 없는 날하고. 바람 있으면 지붕을 못 덮지. 하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서 몇 사람, 세넷씩 빌려서 품앗이 해, 품앗이해서. 그렇게 해서 농촌에선 지붕 다 일고 해서 나서면 촌에서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면 새해 나면 새해부터 또 농사 시작하고.

3) 생업

(1) 보리밟기

그건 옛날에 왜정 때 주로 헤십주게. 왜정 때. 왜정 때 학셍덜 어린 학셍덜

1141) 고수남 구술.
1142)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학교에서 모영은에 보리 ᄇᆞᆯ르렌 ᄒᆞ영 선셍이 ᄃᆞᆯ앙 가고. 보리 이제 정이월에 ᄇᆞᆯ라십주게. 그건 웨 ᄇᆞᆯ르냐 ᄒᆞ믄, 이 서리 내려근에 땅이 부풀믄 그 땅이 부꺼 불민, 보리 싹이 ᄆᆞᆫ ᄆᆞᆯ라 죽어 부는 따믄. 기영 ᄇᆞᆱ지 아녀민 그게 제대로 ᄋᆞ물지 못허영 부실허영은에 ᄒᆞ는 따믄에. ᄎᆞᆷ 그 어려운 학셍덜 잘 입도 못허영 벌벌 떠는 것덜 ᄃᆞᆯ앙.[1143]

그건 옛날에 왜정 때 주로 했습지요. 왜정 때. 왜정 때 학생들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모여서 보리 밟으라고 해서 선생이 데려서 가고. 보리 이제 정이월에 밟았습지요. 그건 왜 밟느냐 하면, 이 서리 내려서 땅이 부풀면 그 땅이 부풀어 버리면, 보리 싹이 모두 말라 죽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밟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여물지 못해서 부실해서 하는 때문에. 참 그 어려운 학생들 잘 입지도 못해서 벌벌 떠는 것들 데리고.

□ 3월

1) 청명

(무덤 손질) 그건 청명에 ᄒᆞᆷ이주. 청명에 산에 강 잡풀 비곡, 고사리 비곡. 묘에 강 잡풀 비는 거, 잡풀. 까시도 강 케곡. 강 잡풀덜 비는 겁주게. 차례엔 허영 ᄒᆞ는 사름도 잇곡, 아녀는 사름도 잇곡 간단히 그자. 저 셍선 하나ᄒᆞ곡 무슨 요 빵이나 그런 거. 떡 ᄒᆞᆫ 가지ᄒᆞ곡 과일 간단히 ᄒᆞ곡. 멩심ᄒᆞ는 사름은 그런 거 엇은 때엔. 저, 뭐냐 적 ᄒᆞᆫ 고지ᄒᆞ곡 묵적. 묵적이엔 허여가지고 묵적. 묵적ᄒᆞ곡 고기적ᄒᆞ곡. 그런 거 간단히. 그런 거만 헹 술이나 ᄒᆞᆫ 잔ᄒᆞ

1143) 고수남 구술.

곡.[1144]

(무덤 손질) 그건 청명에 함이지. 청명에 산에 가서 잡풀 베고, 고사리 베고. 묘에 강 잡풀 베는 거, 잡풀. 가시도 가서 캐고. 가서 잡풀들 베는 겁지요. 차례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간단히 그저. 저 옥돔 하나하고 무슨 요 빵이나 그런 거. 떡 한 가지하고 과일 간단히 하고. 명심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을 때엔 저, 뭐냐 적 한 꼬지하고 묵적. 묵적이라고 해 가지고 묵적. 묵적하고 고기적하고. 그런 거 간단히. 그런 거만 해서 술이나 한 잔하고.

청명에 ᄒᆞ민 부정이 엇다 헤근에 청명날 그건 ᄒᆞ는 거. 산에 강 잡풀 비곡, 고사리도 비곡 ᄒᆞ민 청명에 가면은 저 손해가 엇다. 산에는 아무 날이나 그냥 강 손보는 게 아니주게. 그런 식으로 엿날은 그렇게 주의를 시켜. 묘에 강 아무 날이나 허지 말라. 청명에 강 ᄒᆞ민 손해가 엇다.[1145]

청명에 하면 부정이 없다 해서 청명에 그건 하는 것. 산에 가서 잡풀 베고, 고사리도 베고 하면 청명에 가면 저 손해가 없다. 산에는 아무 날이나 그냥 가서 손보는 게 아니지. 그런 식으로 옛날은 그렇게 주의를 시켜. 묘에 가서 아무 날이나 하지 마라. 청명에 가서 하면 손해가 없다.

2) 생업

• 감젓메 놓기

1144) 고수남 구술.
1145) 임태순 구술.

이젠 자꾸 영 검사헤 봉 썩는 건 또 줏어 내쳐 불곡 허영은에 헷당 감저 묘종 날 때, 놀 때 그 청명 뒈어 가민 놀 때 뒈면은. 이젠 더러 묘종 놀 거 쩍시 놔두곡 남는 건 또 이녁 자가용으로 먹곡 허영은에 메, 감젓메. 경 허영은에 옛날은 비니루 아이 나온 때엔 비니루 엇이 그냥 허여나신디, 비니루 나옴 시작ᄒᆞ난 이제. 게메 전에는 비니루 안 더펑게. (싹이) 나온젠 ᄒᆞ민 ᄉᆞ월절 뒈어야. 오래 걸려게.[1146]

이젠 자꾸 이렇게 검사해 보고 썩는 건 또 주어 내쳐 버리고 해서 했다가 고구마 모종 날 때, 놓을 때 그 청명 되어 가면 놓을 때 되면. 이젠 더러 모종 놓을 거 몫 놔두고 남는 건 또 이녁 자가용으로 먹고 해서 모, 고구마모종. 그렇게 해서 옛날은 비닐 안 나온 때엔 비닐 없이 그냥 했었는데, 비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글쎄 전에는 비닐 안 덮었어. (싹이) 나오려고 하면 'ᄉᆞ월절'[1147] 되어야. 오래 걸렸어.

• 고사리 꺾기

고사리장마. 난 ᄒᆞ단에 다리 아프난 ᄒᆞ루도 안 간. 메누리ᄒᆞ고 아덜이 간 꺼꺼 완. 꺼꺼단 우리 집이 놔두난에. ᄒᆞ꼼 크게 꺼꺼시난 나가 두불 꺼꺼둰에 솖안, 말리완 놔뒀단 주고. 난 다리 아판에, 동무립 아판 주사 맞이레 드러 뎅기멍. 게난 고사리 거끄레 ᄒᆞ루도 안 가완.[1148]

고사리장마. 난 하다가 다리 아프니까 하루도 안 갔어. 며느리하고 아들이 가서 꺾어 왔어. 꺾어다가 우리 집에 놔두니까. 조금 크게 꺾었으니까 내가 두벌 꺾어두고 삶고, 말려서 놔뒀다가 주고. 난 다리 아파서, 무릎 아파서 주사 맞으러 계속 다니면서. 그러

1146) 고수남 구술.
1147) 'ᄉᆞ월절'은 24절기인 입하 전후인 사월 절기를 말한다.
1148) 임태순 구술.

니까 고사리 꺾으러 하루도 안 갔다 왔어.

□ 4월

1) 사월 초파일

절에 강 절ᄒᆞ곡. 옛날에는 쌀이나 아졍가실 거우다게. 돈이 하도 귀허니까 쏠이나. 이젠 등 하나에 우리 절간엔 ᄒᆞᆫ 사름이 삼만 원. 등 ᄒᆞ나, ᄒᆞᆫ 사름 이름으로. 우린 아덜덜 올리고, 족은아덜넨 시에서 ᄒᆞ난 ᄒᆞ고. 남저 어른은 절에 안 갑니다. 견디 남저들은 우리 절간에도. 잘 안 갑니다. 가는 사름 가끔. 절에 뎅이는 건 이녁이 앞으로 아이덜이라도 건강허라, 헤근에 모르지 안허꽈.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깐 미릇에 좋게 헤줍서 허영. 하이튼 절간에 가민 돈 듭니다게. 돈 많이 듭니다. 절간마다. 거민 경 헹 가는 거주.

어린 때. 그 멩 질게 무정ᄒᆞ렌 헤영, 어릴 땐 다 머리. 요즘은 경 안 헴실 걸 무정ᄒᆞ게. 난 머리 함 보단도 그 무정 좀. 아이가 건강허게 크라 헨에 그 말 나 들어낫어. 건강허게 아프지 말고 건강허게 살라 헨에 머리를 다 가까 불엉 어릴 때. 겐디 이제는 경 안 헴실 거우다.[1149]

절에 가서 절하고. 옛날에는 쌀이나 가져갔을 겁니다. 돈이 하도 귀하니까 쌀이나. 이젠 등 하나에 우리 절엔 한 사람이 삼만 원. 등 하나, 한 사람 이름으로. 우린 아들들 올리고, 작은아들네는 시에서 하니까 하고. 남자 어른은 절에 안 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우리 절에도. 잘 안 갑니다. 가는 사람 가끔. 절에 다니는 건 자기가 앞으로 아이들이

1149) 임태순 구술.

라도 건강하라, 해서 모르잖습니까.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깐 미리 좋게 해주십사 해서. 하여튼 절에 가면 돈 듭니다. 돈 많이 듭니다. 절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어린 때. 그 명 길게 '무정ᄒᆞ렌'[1150] 해서, 어릴 땐 다 머리.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걸 '무정ᄒᆞ게'. 난 머리 많은 것보다도 그 '무정' 좀. 아이가 건강하게 크라 해서 그 말 나 들었어.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 해서 머리를 다 깎아 버리고 어릴 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을 겁니다.

쏠 엇은 디사 아멩 엇어도 아무 디 강 동녕질을 허여도 쏠은 싯고. 아니, 곤쏠 아니고 저 잡곡도. 옛날에사 경 곤쏠은 쉬와게? 그거 웨냐믄 그거 가져가는 거, 그 상에 올리지 아녀 가지고. 그디 (절) 비용 용으로 가져가는 거주게. 그디 ᄀᆞ져강 모영 비용 용으로. 그 제단에 올리는 것사 뭐 쌀로. 아명 귀헤도 쌀로 헴주마는. 우리도 집이 사름 아프지 아년 ᄒᆞᆯ 땐 헷주만은 게 우리게 나, 아이 가보난 뭣사 헤신디. 등 ᄃᆞ누렌 ᄒᆞ난 ᄃᆞᆯ암신가 ᄒᆞᆷ 뿐이주, 뭐. 우리 집이사름이 다니난. ᄀᆞ치 안 가. 잘 아이 뎅겨. 갈 ᄌᆞ르도 엇고. 아이덜 보글보글 허영 키우젠 ᄒᆞ민 어느 저르에.[1151]

쌀 없는 데야 아무리 없어도 아무 데 가서 동냥질을 해도 쌀은 있고. 아니, 흰쌀 아니고 저 잡곡도. 옛날에야 그렇게 흰쌀은 쉬워? 그거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는 거, 그 상에 올리지 않아 가지고. 거기 (절) 비용 용으로 가져가는 거지. 거기 가져가서 모여서 비용 용으로. 그 제단에 올리는 거야 뭐 쌀로. 아무리 귀해도 쌀로 하지마는. 우리도 집사람 아프지 않아서 할 땐 했지만 우리 내가, 안 가보니까 뭐야 했는지. 등 단다고 하니까 다는가 할 뿐이지, 뭐. 우리 집사람이 다니니까. 같이 안 가. 잘 안 다녀.

1150) '무정ᄒᆞ다'는 별 탈이 없거나 병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1151) 고수남 구술.

갈 겨를도 없고. 아이들 바글바글 해서 키우려고 하면 어느 겨를에.

2) 생업

• 소만

검질은 다 끗낫주게. 그때 뒈민은 저 이디서 그 벼 모냥으로 산두. 그 산디, 그거 농사ᄒᆞ는 사름은 그거 농사허여. ᄒᆞ곡 꿰, 꿰. 이른 꿰 ᄀᆞ뜬 거. (보리밧디) 검질은 뭐 잡검질 이것 저것. 게난 진풀도 나곡. 맞아, 메마가 그게 나팔꼿 닮은 거주게. 메마쿨, 것도 옛날 검질멜 땐 잊어불지 아녀구나 게마는 검질메레 헤나곤 데도 오래 부난 다 잊어 불언.[1152]

김은 다 끝났지. 그때 되면 저 여기서 그 벼 모양으로 밭벼. 그 밭벼, 그거 농사하는 사람은 그거 농사해. 하고 참깨, 참깨. 이른 깨 같은 거. (보리밭에) 김은 뭐 잡초 이것 저것. 그러니까 별꽃도 나고. 맞아, 메꽃이 그게 나팔꽃 닮은 거지. 메꽃, 것도 옛날 김맬 땐 잊어버리지 않더라마는 김매고 했던 적도 오래 버리니까 다 잊어 버렸어.

꿰 자기 뒈는 건 ᄉᆞ월 초파일 넘으민 바람이 잔잔ᄒᆞ민 올리 궨찬으것다, 헤영 ᄉᆞ월 초파일 봅니다. 이월 ᄎᆞᄒᆞ루ᄒᆞ곡, ᄉᆞ월 초파일 그때 뿌릴 거. 보리는 지금 노랑케 다 익어가난. 콩은 이제 아직 오래 이서야. 검질은 뭐 잡검질. 속도 나곡게. 뭐 대우리도 나곡. 대우리는 보리 모냥으로 크민 건 큰 후예. 대우리엔 ᄒᆞ영 보리가 아니주 나쁜 잡초주. 그거 막 큰 다음에 대우리 헹 메영. 그 불케우지 아녀면 작박 더레 놓민 ᄆᆞᆫ 또 새로 불러들엉 나곡 ᄒᆞ난. 불 ᄆᆞᆫ 케와 불곡. 대우리엔 ᄒᆞᆫ 건. 검질은 잡초는 이것저것

1152) 고수남 구술.

뭐. 속도 나곡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나. 속도 나곡. ᄯᅳ시 천상쿨도 나곡. 올리, 보리 닮은 거. 옛날엔 가끔. 보리밧딘 그런 거 잘 엇어난. 나팔꼿추룩 그것도. 게난 그 풀은 잘 모르큰게. 무신 풀산디. 꼿피곡 ᄒᆞ는 거. 하늘색깔 모냥으로 메마풀? 메마쿨? 잘 죽지도 아녀는 거. 아이고 나 거 우리 밧디 시난에 메연 막 번지고 아이고 지독ᄒᆞᆫ 거, 거.[1153]

깨 빨리 되는 건 사월 초파일 넘으면 바람이 잔잔하면 올해 괜찮겠다, 해서 사월 초파일 봅니다. 이월 초하루하고, 사월 초파일 그때 뿌릴 거. 보리는 지금 노랗게 다 익어가니까. 콩은 이제 아직 오래 있어야. 김은 뭐 잡초. 쑥도 나고. 뭐 귀리도 나고. 귀리는 보리 모양으로 크면 건 큰 후에. 귀리라고 해서 보리가 아니지 나쁜 잡초지. 그거 막 큰 다음에 귀리 해서 매. 그 불태우지 않으면 '작박'[1154]에 놓으면 모두 또 새로 불러 들어서 나고 하니까. 불 모두 태워 버리고. 귀리라고 한 건. 김은 잡초는 이것저것 뭐. 쑥도 나고 뭐, 이것저것 마구 많이 나. 쑥도 나고. 또 망초도 나고. 사초, 보리 닮은 거. 옛날엔 가끔. 보리밭엔 그런 거 잘 없었어. 나팔꽃처럼 그것도. 그러니까 그 풀은 잘 모르겠어. 무슨 풀인지. 꽃피고 하는 거. 하늘 색깔 모양으로 '메마풀'? 메꽃? 잘 죽지도 않는 거. 아이고 나 거 우리 밭에 있으니까 맸지만 마구 번지고 아이고 지독한 거, 그거.

□ 5월

1) 단오

1153) 임태순 구술.
1154) '작박'은 자갈을 쌓아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를 말한다.

단오, 이칩이 ᄒᆞ고 조칩이 헤낫어. 우리가 결혼헤연 ᄒᆞᆫ, 나 ᄒᆞᆫ 이십오 세 정도ᄁᆞ지 헷어. 뭐 ᄀᆞ뜬 식으로 허엿주기게. ᄀᆞ뜬 식으로 허영은에 ᄒᆞ곡. 또 단오 땐 뭐 오곡술도 뭐 허영 먹나 또 어떵 ᄒᆞᆫ다 그런 말. 단오는, 정월은 이 생 사름 ᄀᆞ뜨민 아침이고, 단오는 정심이고 추석은 저녁이엔 ᄒᆞᆸ주게. 집안끼리 돌아뎅이주. 경 ᄒᆞ단 것도 한 여름에 뒈어 노니까. 농사철 바빠노니, ᄒᆞ단. 이젠 다른 집도 안 허여가난 자기네도 이제 지제허여 불어십주.[1155]

단오, 이씨 집안에 하고 조씨 집안이 했었어. 우리가 결혼해서 한, 나 한 이십오 세 정도까지 했어. 뭐 같은 식으로 했지. 같은 식으로 해서 하고. 또 단오 땐 뭐 오곡술도 뭐 해서 먹는다 또 어떻게 한다 그런 말. 단오는, 정월은 이 생 사름 같으면 아침이고, 단오는 점심이고 추석은 저녁이라고 하지요. 집안끼리 돌아다니지.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한 여름에 되어 놓으니까. 농사철 바빠노니, 하다가. 이젠 다른 집도 안 해 가니까 자기네도 이제 지제해 버렸습죠.

2) 생업

(1) 망종

• 보리 수확

망종에, 망종 뒈민, 보리가 못 빌 보리가 엇넨 ᄒᆞᆸ주게. 망종 뒈며는 보리가 푸렷당도 빨리 익어. 그 절기상으로. 경 허영은에 망종 뒈민은 못 빌 보리가 엇덴 허영, ᄒᆞ꼼만 저 노리룽허영은에 날이 우쳠직 ᄒᆞ민 ᄒᆞ끔 선 것 닮아도 일 ᄎᆞᆯ리는 사름은 비곡. 경 아녕 잘 익엉은에, 날씨가 좋민 잘

1155) 고수남 구술.

익엉은에 비곡 ᄒᆞ다 봐도 장마 때가 심ᄒᆞ민 오꼿 비 막 오랑은에 쎅영은에 내불 때도 하낫주게. 뒤집어야지 뒤집엉 또 ᄆᆞᆯ리민 또 ᄒᆞ꼼 ᄆᆞᆯ리민 또 비와 불민 또 비 맞곡 ᄒᆞ는 거주. 삶이 삶이 아니주. 기영 그 아주 옛날엔 마가 워낙 장마렝이로 오래 오라 놓니까. 보리 계속 기영 비오는 트멍에 ᄒᆞ곰 해 베쭉ᄒᆞ민, 강은에 데쓰민 뒷날 또 비오곡. 기영 일곱 번 데쓴 사름은 ᄒᆞ다 보난 이 역만 버리고 오꼿 못 헹 먹곡. 아홉 번 데쓴 사름은 ᄒᆞ꼼 허여 먹엇젠 ᄒᆞᆸ주. 아홉 번. 그거 뭐 사름 살기가.[1156]

망종에, 망종 되면, 보리가 못 빌 보리가 없다고 합지요. 망종 되면 보리가 퍼랬다가도 빨리 익어. 그 절기상으로. 그렇게 해서 망종 되며는 못 빌 보리가 없다고 해서, 조금만 저 노르스름해서 날이 '우첨직'[1157] 하면 조금 선 것 같아도 일 차리는 사람은 베고. 그렇지 알고 잘 익어서, 날씨가 좋으면 잘 익어서 베고 하다 봐도 장마 때가 심하면 그만 비 마구 오면 썩어서 내버릴 때도 많았지. 뒤집어야지. 뒤집어서 또 말리면 또 조금 말리면 또 비와 버리면 또 비 맞고 하는 거지. 삶이 삶이 아니지. 그렇게 그 아주 옛날엔 장마가 워낙 '장마렝이'로 오래 와 놓으니까. 보리 계속 그렇게 비오는 틈에 조금 해 삐죽하면, 가서 뒤집으면 뒷날 또 비오고. 그렇게 일곱 번 뒤집은 사람은 하다 보니까 이 애만 쓰고 그만 못 해서 먹고. 아홉 번 뒤집은 사람은 조금 해서 먹었다고 합지요. 아홉 번. 그거 뭐 사람 살기가.

절기상으로 경 ᄒᆞ난 옛날은 막 마가 오래 쳐서 한 달썩, 쑤무 날썩 쳐 놓민 보리가 널엉 말르젠 ᄒᆞ민 또 비와 불곡 ᄒᆞ멍 나 불주게 싹이. 게난, 저 우리 옛날에 모실포 걸엉 뎅이는디 눌언 놔 둔 보리가 기냥 다 싹 나

1156) 고수남 구술.
1157) '우치다'는 일기가 흐리고 비 따위가 내리다는 말이다.

불언. 눌엉은에 거꿀로 ᄒᆞᆯ앙 ᄂᆞ라미 엇이니까 보리를 덩케기는 우트레 영 헤영 ᄒᆞ민 그 물 발렌 ᄒᆞ난 보리가 퍼렁케 나 불언. 비 와 불고 게난 옛날 살기가 어려와서, 진짜.[1158]

절기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옛날은 막 장마가 오래 져서 한 달씩, 스무 날씩 져 놓으면 보리가 널고 말리려고 하면 또 비와 버리고 하면서 나 버리지 싹이. 그러니까, 저 우리 옛날에 모슬포 걸어서 다니는데 가려서 놓아 둔 보리가 그냥 다 싹 나 버렸어. 가려서 거꾸로 열어 이엉 없으니까 보리를 둥치는 위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물 '발렌' 하니까 보리가 파랗게 나 버렸어. 비 와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 살기가 어려웠어, 진짜.

• 유채 수확

그 전이 그 망종에 보리 ᄀᆞᆯ아졈저. 보리허곡 이딘 유채도 또 하영 ᄒᆞᆸ주게, 유채. 보리, 보리 ᄒᆞᆫ 때. 그 수확은 망종 때 뭡주게. 늦게 뒈영. 보리도게 저 십이월ᄃᆞᆯ에. 그때 갈앙은에 ᄒᆞ민 이제 뒷해 봄 망종에 뒈영은에 ᄀᆞ찌 들엉. 유월절 전이 보리ᄒᆞ곡 유채ᄒᆞ곡 ᄀᆞ찌. 경 ᄒᆞ민, 이디 농사ᄒᆞ는 사름은 날 존 날은 보리 강 비곡, 비 온 날은 우비 입곡 허영은에 유채 비곡. 그건 웨 하냐며는 유채는 비 맞이멍 비어도 궨차녀. 웨 궨찮냐면 그게 유채 각물, 그 꼿 야물아진 게 영 그 ᄋᆞ물이 터지지 아녠 거난. 영 비영 놔두민 날이 좋민 그게 말라 가민 터집주게. 경 ᄒᆞ는 거난에 비 온 날은 강 유채 비곡 날 존 날은 보리 비곡.[1159]

그 전에 그 망종에 보리 말해지네. 보리하고 여긴 유채도 또 많이 합죠, 유채. 보리,

1158) 임태순 구술.
1159) 고수남 구술.

보리 한 때. 그 수확은 망종 때 됩죠. 늦게 돼서. 보리도 저 십이월에. 그때 갈아서 하면 이제 다음해 봄 망종에 돼서 같이 들어서. 유월절 전에 보리하고 유채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여기 농사하는 사람은 날 좋은 날은 보리 가서 베고, 비 온 날은 우비 입고 해서 유채 비고. 그건 왜 하냐면 유채는 비 맞으면서 베도 괜찮아. 왜 괜찮으냐면 그게 유채 꼬투리, 그 꽃 여물어진 게 이렇게 그 여물이 터지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베서 놓아두면 날이 좋으면 그게 말라 가면 터집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비 온 날은 가서 유채 베고 날 좋은 날은 보리 베고.

• 감저꿀 놓기

감전 저 거세기 유월절 전이. 망종은 이제 보리, 보리 익엉은에 홀 때는 ᄒᆞ곡, 보리 끗낭은에게 보리 비어 불어사 그디.[1160] 보릿그르에 싱거. 보릿그르에 싱그민 감저 영 들러졍 보릿그르로 영 들러졍 잘 산덴 ᄒᆞ는. 잘 든덴, 보릿그르에 감저 싱그민 경헹 그때.[1161]

고구마는 저 거시기 유월절 전에. 망종은 이제 보리, 보리 익어서 할 때는 하고, 보리 끝나고 보리 베어 버려야 거기. '보릿그르에'[1162] 심어. '보릿그르'에 심으면 고구마 이렇게 들어져서 '보릿그르'로 이렇게 들려서 잘 산다고 하는. 잘 든다고, '보릿그르'에 고구마 심으면 그렇게 해서 그때.

□ 6월

1160) 고수남 구술.
1161) 임태순 구술.
1162) '보릿그르'는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이다.

1) 듹 잡아먹는 날

유월 쑤무날. 일 년에 똑 ᄒᆞᆫ 번. 쑤무날이엔 허영. (병아리) 내불민 버렝이, 버렝이도 줏어 먹곡 뭐 잡초, 풀도 줏어 먹곡 ᄒᆞ민 재기 크질 못혀. 으이구, 옛날엔 ᄒᆞ나 허영 식귀가 다 먹엇주. 이제추룩 돈이 하사 것도 식귀 수정ᄒᆞ나썩 먹주. 아이구, 멧 ᄆᆞ리 무신 멧 ᄆᆞ리게. 옛날엔 하나 헤근에 우리 식귀가 다 먹엇주. 아이구, 경 헤도 옛날엔 듹세기도 나민 계란도 ᄒᆞ민 풀앙 돈, 용돈 쓰젠 ᄒᆞ곡. 마음대로 이제추룩 먹지 못헤수다. 옛날에도 시장에도 강 풀곡. 나 어린 때는 모실포. 낭도 강 졍 강 풀고. 아이고, 옛날엔 진짜 등어리로 졍 강 낭도 강 시장에 강 풀안. 나 어린 때. 아이구, 난 나도 너무 고셍허난. 이젠 대통령 삶. 이제 대통령 영 잘 못ᄒᆞ는 거 닮아도 이제는 나라에서 그래도 돈도 주곡 ᄒᆞ니까. 아이고, 엿날엔 단돈 십 원 어디 나올 디가 이서야주. 감저뻿떼기나 헤사 돈허곡 콩이나 헹 풀곡 보리 풀곡. 그런 때나벳기 돈 나올 디가 하나도 엇어. 남의 일 홀 디도 엇곡 엿날은 딱 쑤무날에 헷주, 셍각도 안 헨. 돈이 어디 셔. 옛날엔 돈이 엇어 놓난 절약으로 어떵 헤연 ᄎᆞᆷ 쑤무날, 유월 쑤무날 듹 잡아먹는 날 헨 헷주.[1163]

유월 스무날. 일 년에 꼭 한 번. 스무날이라고 해서. (병아리) 풀어 놓고 벌레, 벌레도 주워 먹고 뭐 잡초, 풀도 주워 먹고 하면 빨리 크질 못해. 아이고, 옛날엔 하나 해서 식구가 다 먹었지. 이제처럼 돈이 하야 것도 식구 수 하나씩 먹지. 아이고, 몇 마리 무슨 몇 마리야. 옛날엔 하나 해서 우리 식구가 다 먹었지. 아이고, 그렇게 해도 옛날엔 계란도 나면 계란도 하면 팔아서 돈, 용돈 쓰려고 하고. 마음대로 이제처럼 먹지 못했습

1163) 임태순 구술.

니다. 옛날에도 시장에도 가서 팔고. 나 어린 때는 모슬포에 나무도 가서 지고 가서 팔고. 아이고, 옛날엔 진짜 등으로 지고 가서 나무도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았어. 내가 어린 때. 아이고, 난 나도 너무 고생하니까. 이젠 대통령 삶. 이제 대통령 이렇게 잘 못하는 거 같아도 이제는 나라에서 그래도 돈도 주곡 하니까. 아이고, 옛날엔 단돈 십 원 어디 나올 데가 있어야지. 절간고구마나 해서 팔고 보리 팔고. 그런 때밖에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 남의 일 할 데도 없고 옛날은 딱 스무날에 했지, 생각도 안 했어. 돈이 어디 있어. 옛날엔 돈이 없어 놓으니까 절약으로 어떻게 해서 참 스무날,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 해서 했지.

유월 ᄃᆞᆨ 잡아먹는 거? 정이월부떠 ᄃᆞᆨ세기 나민 그 빙아리 께우게끔 허영은에 정이월부떠 낭은에 큼 시작허여야 유월 쑤무날 뒈영은에 잡아먹주. 이제 ᄀᆞ뜨민 뭐 사류가 좋앙 영양가 이신 거허영은에 주민 재게 크주마는. 옛날사 경 재게 크지 아녕 ᄒᆞᆫ 서너넉 덜 키와사. 먹을 건 뭐, 사름 먹을 것도 엇인디 ᄃᆞᆨ 줄 게 어디 셔게. 식귀 하민 둬 ᄆᆞ리 ᄒᆞ고. 요즘은게 첨 보민 그 초복, 중복에 ᄃᆞᆨ 잡아먹는디, 제주도에선 여기선 쑤무날은 쑤무날에 ᄃᆞᆨ 잡아먹넨 헤낫주. 초복, 중복엔 ᄃᆞᆨ 잡아 먹을 거 셍각도 아녀고.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민 초복, 중복, 말복ᄁᆞ지 ᄉᆞ못 ᄃᆞᆨ 잡아먹녠 ᄒᆞ는디.[1164]

유월 닭 잡아먹는 거? 정이월부터 계란 나면 그 병아리 깨우게 해서 정이월부터 낳아서 크기 시작해야 유월 스무날 되면 잡아먹지. 이제 같으면 뭐 사료가 좋아서 영양가 있는 거해서 주면 빨리 크지만. 옛날에야 그렇게 빨리 크지 않고 한 서너 달 키워야. 먹을 건 뭐,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닭 줄 게 어디 있어. 식구 많으면 둬 마리 하고.

1164) 고수남 구술.

요즘은 참 보면 그 초복, 중복에 닭 잡아먹는데, 제주도에선 여기선 스무날은 스무날에 닭 잡아먹는다고 했었지. 초복, 중복엔 닭 잡아먹을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초복, 중복, 말복까지 사뭇 닭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2) 유월절

• 조 불리기

조, 저 거세기 유월절 들엉은에 소서 뒈민 소서 전후허영은에 조 갈곡, 콩 갈곡. 소서 전후로 허영 날씨 보멍. 음력 유월절. 빨리 드는 해엔 유월절이 오월에, 오월 구물어갈 때도 들고. 에, 유월 초. 옛날에 ᄆᆞᆯ 잇는 사름은 (조) 갈앙은에 말로 ᄇᆞᆯ리고. 말 읏인 사람은 소 그자 하나 두 개 허영 ᄇᆞᆯ리고, 또 정 읏인 사름은 말 잇는 거 빌령도 ᄒᆞ곡. 그건 웨 ᄇᆞᆯ리냐면, 발르지 않으면 날씨가 계속 좋앙, 날씨가 좋아 불민 (싹이) 나당은에 저 녹아 불어, 녹아 불어. 녹아 분덴 말이 그게 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당은에 녹아 불어. 이제는 저 비료덜이 나오니까 비료로 농사를 허여 먹는 때니까. 비료 주민 그 씨 뿌령은에 ᄒᆞ민 싹 나민 빨리 큽주게. 빨리 커 불민 그 녹질 아녀. 옛날은 클 사이가 엇이 ᄒᆞ다 보민 오꼿 녹아 불엉 농살 그르쳐. 콩도 그때 갈아.[1165]

조, 저 거시기 유월절 들어 소서 되면 소서 전후해서 조 갈고, 콩 갈고. 소서 전후로 해서 날씨 보멍. 음력 '유월절'[1166]. 빨리 드는 해엔 유월절이 오월에, 오월 그물어갈 때도 들고. 에, 유월 초. 옛날에 말 있는 사람은 (조) 갈아서 말로 밟고. 말 없는 사람은

1165) 고수남 구술.
1166)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소 그저 하나 두 개 해서 밟고, 또 정 없는 사람은 말 있는 거 빌려서도 하고. 그건 왜 밟느냐면, 밟지 않으면 날씨가 계속 좋아서, 날씨가 좋아 버리면 (싹이) 나다가 저 녹아 버려, 녹아 버려. 녹아 버린다는 말이 그게 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다가 녹아 버려. 이제는 저 비료들이 나오니까 비료로 농사를 해 먹는 때니까. 비료 주면 그 씨 뿌려서 하면 싹 나면 빨리 큽지요. 빨리 커 버리면 그 녹질 않아. 옛날은 클 사이가 없이 하다 보민 그만 녹아 버려서 농살 그르쳤어. 콩도 그때 갈아.

3) 생업

(1) 김매기

세 불ᄁᆞ지 메여서. 어떻게 뒌다믄 네 번ᄁᆞ지도 옛날에 메었어. 산디 검질. 산디밧 ᄒᆞᆫ 사름은. 절롸니가 젤 하, 절롸니가. 절롸니ᄒᆞ고 ᄀᆞᆺ세 ᄀᆞᆯ은 쑥ᄀᆞ뜬 거 무신 빈네 검질. 빈네 검질이엔 ᄒᆞᆫ 영 복기 기자 땅에만 부떵은에 번지는 그런 검질. 그런 것가 종잘 많이 죽여 불어. 종잘 크지 못ᄒᆞ게. 뿔리로만 영 ᄒᆞ는 따문. 미깡낭밧디. 쒜비늠이 그렇게 건강허여근에 썹은 죽엇당 뎅구린 살아나고. 아이고, 저놈으 거 쒜비늠 지독ᄒᆞᆫ 거. 빈네 검질, 뭐 쑥. 그건 뭐 여라 가지난 뭐, 다 알아지크라? 농사 끗나자마자게 돌아상 검질메야주게.[1167]

세 벌까지 맸어. 어떻게 된다면 네 번까지도 옛날에 맸어. 밭벼 김. 밭벼 한 사람은. 바랭이가 젤 많아, 바랭이가. 바랭이하고 아까 말한 쑥 같은 거 무슨 아욱메풀 김. 아욱메풀 김이라고 한 이렇게 '복기' 그저 땅에만 붙어서 번지는 그런 김. 그런 것이 종잘 많이

1167) 고수남 구술.

죽여 버려. 종잘 크지 못하게. 뿌리로만 이렇게 하는 때문. 귤밭에. 쇠비름이 그렇게 건강해서 잎은 죽었다가 줄긴 살아나고. 아이고, 저놈의 거 쇠비름 지독한 거. 아욱메풀 김, 뭐 쑥. 그건 뭐 여러 가지니까 뭐, 다 알겠어? 농사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김매야지.

절롸니, 천상쿨 모두 그때도 다 나. 쒜비늠이엔 ᄒᆞᆫ 것도 생전 죽지도 아녀. 우리 밧은양, 이제 미깡낭밧디 쒜비늠으로 막 크민 어러 부떵 이만쭉이 벋엉. 게난 일 년에 멧 번사 헤지는지 몰라, 제초제. 쒜비늠이엔 ᄒᆞᆫ 거, 거 지독ᄒᆞᆫ 거, 그거. 절롸니도 또 막 줄 벋으멍 잘도 지독ᄒᆞᆫ 거고.[1168]

바랭이, 망초 모두 그때도 다 나. 쇠비름이라고 한 것도 생전 죽지도 않아. 우리 밭은요, 이제 귤밭에 쇠비름으로 마구 크면 어울러 붙어서 이만큼 벋고. 그러니까 일 년에 몇 번이야 하는지 몰라, 제초제. 쇠비름이라고 한 거, 거 지독한 거, 그거. 바랭이도 또 마구 줄 뻗으면서 아주 지독한 거고.

□ 7월

1) 칠석

칠석엔 검질멤벳기 다른 건.[1169]

칠석엔 김매기밖에 다른 건.

1168) 임태순 구술.
1169) 고수남 구술.

• **물맞이**

칠석 뒈민 그땐 검질메당 무슨 뭐 물, 저 어디 물 나는 디 흐르는 디 강은에 그 물 맞이레 간덴 헤영. 칠월 칠석도 가곡, 백중날도. 안덕이 그디가 이 안덕면 관례선 물이 젤 큽주게. 저 화순 이디서 안덕 바닷가에. 모살찜은 안 ᄒᆞ고.[1170] 우린 그디도 가보지 아녀고. (모살찜) 안 해봔. 것도 한걸헤사 그디도 가곡 허는 거주.[1171]

칠석 되면 그땐 김매다가 무슨 뭐 물, 저 어디 물 나는 데 흐르는 데 가서 그 물 맞이러 간다고 하고. 칠월 칠석도 가고, 백중날도. 안덕이 거기가 이 안덕면 관례선 물이 젤 큽죠. 저 화순 여기서 안덕 바닷가에. 모래찜은 안 하고. 우린 거기도 가보지 않았고. (모살찜) 안 해봤어. 그것도 한가해야 거기도 가고 하는 거지.

2) 생업

• **모ᄆᆞᆯ 갈기**

입추에 뭣 ᄒᆞ지 아녀. 처서 뒈민 이디선 모ᄆᆞᆯ 가는 딘 모ᄆᆞᆯ을 간덴 ᄒᆞᆸ주게. 처서 고비에 저, 모ᄆᆞᆯ 간덴 허영 ᄋᆞ름엔 ᄎᆞᆷ, 비가 잘 아니 왕 ᄀᆞ뭄이 합주게. ᄒᆞ당도 막 하영 ᄀᆞ물당도 처섯날은 비가 ᄎᆞᆷ 멧 방울이라도 온덴 ᄒᆞ민, 처서 막 기다령 허영은에 비 쪼끔만 오민 모ᄆᆞᆯ을 놉주게. 처서, 그것도 처서 전후 허영 그 전이 비 좀 오민 모ᄆᆞᆯ 놓곡. 비 아녀 오민 이제 ᄒᆞ꼼 늦촹은에 처선 물 올 때 기다령은에 허엿당 모ᄆᆞᆯ 놓곡. 아니, 모ᄆᆞᆯ밧딘 검질 아이 메영. 검질이 아이 메는 원인이, 모ᄆᆞᆯ은 이제 소로 밧을 갑주게.

1170) 고수남 구술.
1171) 임태순 구술.

밧을 갈앙은에 ᄒᆞ민 여름에 막 벳이 잦으민 그 밧 간 게 좀 타. 탕은에 ᄒᆞ당 그냥 농사 아년 밧이난에 검질이 조금 셔도 또 검질 좀 시민 또 갈곡 또 갈곡, 영 세 번을 갑주게. 세 번을. 모ᄆᆞᆯ 갈기 전에 풀 크기 전에 영 세 번을 갈앙은에. 또 죽이곡 허영은에, 헷당 이제 검질이 그추룩 죽으민 칠월 뒈영 모ᄆᆞᆯ 놓게 뒈면은 모ᄆᆞᆯ, 이제 그때는 막 더우면은 밧디 강 뭐ᄒᆞᆫ 밧디는 그디 강, 밧디 강 자. 자당은에 새벡이 이젠 ᄃᆞᆯ 잇는 땐 새벡ᄃᆞᆯ 떠올라 오라 가민 어스렁ᄒᆞᆫ디 일어낭은에 밧 갈곡.[1172]

입추에 뭣 하지 않아. 처서 되면 여기선 메밀 가는 덴 메밀을 간다고 합죠. 처서 즈음에 저, 메밀 간다고 해서 여름엔 참, 비가 잘 안 와서 가뭄이 많죠. 하다가도 매우 많이 가물다가도 처서엔 비가 참 몇 방울이라도 온다고 하면, 처서 막 기다리고 해서 비 쪼끔만 오면 메밀을 놓지요. 처서, 그것도 처서 전후 해서 그 전에 비 좀 오면 메밀 놓고. 비 안 오면 이제 조금 늦춰서 처선 물 올 때 기다리고 했다가 메밀 놓고. 아니, 메밀밭엔 김 안 매. 김을 안 매는 원인이, 메밀은 이제 소로 밭을 갑지요. 밭을 갈고 하면 여름에 막 볕이 잦으면 그 밭 간 게 좀 타. 타서 하다가 그냥 농사 안 한 밭이니까 김이 조금 있어도 또 김 좀 있으면 또 갈고 또 갈고, 이렇게 세 번을 갑지요. 세 번을. 메밀 갈기 전에 풀 크기 전에 이렇게 세 번을 갈아서. 또 죽이고 해서, 했다가 이제 김이 그처럼 죽으면 칠월 돼서 메밀 놓게 되면 메밀, 이제 그때는 막 더우면 밭에 가서 뭐 한 밭에는 거기 가서, 밭에 가서 자. 자다가 새벽에 이젠 달 있는 땐 새벽달 떠올라 와 가면 어스름한데 일어나서 밭 갈고.

1172) 고수남 구술.

□ 8월

1) 벌초

모둠벌초 ᄒᆞ곡, 개인벌초 ᄒᆞ곡. ᄒᆞ루에 다 못허여. (제 지내는 거)ᄒᆞ는 사름덜 싯긴 ᄒᆞᆫ디 우린 아녑니다. 거 시작하민 그것도 계속 헤야 할 따문. 정성이 들곡. 우린 시작을 아녀. 모둠벌초 합니다. ᄒᆞᆫ 짐작으로 ᄒᆞᆫ ᄉᆞ십. 여기 서광서 시작ᄒᆞ민. 서광서 시작ᄒᆞ민 동광 동쪽에 잇곡. 동광 서쪽에 잇곡. 또 동광 저 우쪽에도 잇곡.[1173]

모둠벌초 하고, 개인벌초 하고. 하루에 다 못해. (제 지내는 거)하는 사람들 있긴 한데 우린 안 합니다. 거 시작하면 그것도 계속 해야 할 때문. 정성이 들고. 우린 시작을 안 해. 모둠벌초 합니다. 한 짐작으로 한 사십. 여기 서광서 시작하면 서광서 시작하면 동광 동쪽에 있고. 동광 서쪽에 있고. 또 동광 저 위쪽에도 있고.

2) 추석

추석이나 정월이나 비슷ᄒᆞ주. 이젠 잘 헹 뭐 옛날 떡 어려운 때 ᄎᆞᆷ 저 그 떡집이 엇은 때는, 가정집이서 ᄒᆞᆯ 때, (상웨떡은) 그런 그 쉰다리 허영은에 만들앙. 쉰다리 허여사 쌀 띄와 가지고.[1174] 다른 거 엇입네다. 막걸리로 헨, 막걸리로. 난, 막걸리 사단 집이서 제서 때 만들아수다. 멩질 땐 아녀보고, 제서 때만 상웨떡 동글락ᄒᆞᆫ 것도 헤나고 소랑ᄒᆞᆫ 침떡 닮은 것도 헤나고.

1173) 고수남 구술.
1174) 고수남 구술.

(상에) 올려도 뒈주게.[1175]

추석이나 정월이나 비슷하지. 이젠 잘 해서 뭐 옛날 떡 어려운 때 참 저 그 떡집이 없을 때는, 가정집에서 할 때, (상화떡은) 그런 그 '쉰다리'[1176] 해서 만들었어. '쉰다리' 해야 쌀 띄워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막걸리로 하고, 막걸리로. 난, 막걸리 사다가 집에서 제사 때 만들었습니다. 명질 땐 안 해보고, 제사 때만 '상웨떡' 동그란 것도 했었고 길쭉한 시루떡 닮은 것도 했었고. (상에) 올려도 되지.

3) 생업

(1) 꼴 장만하기

이딘 바쁜 디난, 추석도 허여 먹기가 막 바쁩주게. 웨냐믄 그때 뒈민 촐 비메. 소촐. 목장에 강은에 소 먹이 그 풀 비젱 허민 추석 전이부떠 그 계절이 빠를 때는 추석 전이부떠 시작을 ᄒᆞ주게. 벌초 끗나민 촐 비기 시작허민 추석 홈, 허여 먹음도 막 바쁘게 허영은에 추석 제 끗나민. 추석날도 가는 사름도 강은에. 마은 단이 ᄒᆞᆫ 바리. 게민 많이 ᄒᆞᆯ 때 육십 바리도 ᄒᆞ곡. 육십 바리 ᄒᆞᆫ 눌에. 그게 그 촐이 막 그 띠 모냥으로 길지 아녕 요만썩 벳기 아녀난게 부피가 ᄒᆞᆫ웃이 하질 아녀. 그 소 촐ᄒᆞ곡 또 여기 농사헤난, 그 농사헤난 그 대덜. 그 조민 조대 ᄀᆞ뜬 거. 뭐 콩이민 콩대 ᄀᆞ뜬 거, 그것도 모엿당 소 멕이곡. 감젓줄이야 뭐 그거 곤밥이주.[1177]

1175) 임태순 구술.
1176)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한다.
1177) 고수남 구술.

여긴 바쁜 데니까, 추석도 해 먹기가 아주 바쁩지요. 왜냐면 그때 되면 꿀 베. 소꼴. 목장에 가서 소 먹이 그 풀 베려고 하면 추석 전에부터 그 계절이 빠를 때는 추석 전에부터 시작을 하지. 벌초 끝나면 꼴 베기 시작하면 추석 하기, 해 먹기도 아주 바쁘게 해서 추석 제 끝나면. 추석날도 가는 사람도 가서. 마흔 단이 한 바리. 그러면 많이 할 때 육십 바리도 하고. 육십 바리 한 가리에. 그게 그 꼴이 아주 그 띠 모양으로 길지 않아서 요만큼씩밖에 않으니까 부피가 한없이 많지 않아. 그 소꼴하고 또 여기 농사했던, 그 농사했던 그 줄기들. 그 조면 조 줄기 같은 거. 뭐 콩이면 콩 줄기 같은 거, 그것도 모였다가 소 먹이고. 고구마줄기야 뭐 그거 흰쌀밥이지.

(2) 추수

거둘 때난에. 콩, 콩도 거두고, 조도 거두고. 뭐 산디 ᄒᆞᆫ 사름은 산디도 거두고. 이젠 그건게 그 농사 그 익어가는 ᄎᆞ례로. ᄎᆞ례로 익는 냥. 콩 먼저 익으민 콩 먼저 ᄒᆞ곡. 조 먼저 익으민 조 먼저 ᄒᆞ곡. 또 감자 ᄒᆞᆯ 땐 또 조, 감자 빨리 허여동 감자 또 파 가지고 그거 뻿데기 멘들곡. 모밀 ᄀᆞ뜬 거. 모밀은 젤 내중에 그거 내중에 그건 상강 끗나야 수확.[1178]

거둘 때니까. 콩, 콩도 거두고, 조도 거두고. 뭐 밭벼 한 사람은 밭벼도 거두고. 이젠 그건 그 농사 그 익어가는 차례로. 차례로 익는 대로. 콩 먼저 익으면 콩 먼저 하고. 조 먼저 익으면 조 먼저 하고. 또 고구마 할 땐 또 조, 고구마 빨리 해두고 고구마 또 파 가지고 그거 절간고구마 만들고. 메밀 같은 거. 메밀은 젤 나중에 그거 나중에 그건 상강 끝나야 수확.

1178) 고수남 구술.

□ 9월

1) 당제

당에 제사 지내는 건 그건 개인벨로 시간 나는 대로도 ᄒᆞ곡. 보민, 그 개인 별로 그 정헤진 날에 가는디. 그건 그자 간단허게 ᄒᆞᆫ 시간 정도 강은에 일찍이 강은에 구월에 뎅이는 디 잇곡, 보며는 봄에 뎅이는 디도 잇곡.[1179] 아칙이 새벡이 사름 안 뎅길 때.[1180]

당에 제사 지내는 건 그건 개인별로 시간 나는 대로도 하고. 보면, 그 개인 별로 그 정해진 날에 가는데. 그건 그저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가서 일찍이 가서 구월에 다니는 데 있고, 보면 봄에 다니는 데도 있고. 아침에 새벽에 사람 안 다닐 때.

□ 10월

1) 생업

(1) 보리 갈기

• 돗걸름 내기

여름 농서 그때ᄁᆞ지 갑니다, 늦인 건. 입동ᄁᆞ지 가는디 그거 늦은 건

1179) 고수남 구술.
1180) 임태순 구술.

이젠 다 이제 수확 못하민 덤쳥 나둬. 덤쳥 놔둬동 이제 또 보리 갈아야주, 보리. 유채하고 보리. 게난 연달아 기자.[1181] 옛날엔 막 바쁘우다. 연달아 놀 시간이 엇어서, 옛날엔.[1182]

여름 농사 그때까지 갑니다, 늦은 건. 입동까지 가는데 그거 늦은 건 이젠 다 이제 수확 못하면 덮쌓아 놔둬. 덮쌓아 놔두고 이제 또 보리 갈아야지, 보리. 유채하고 보리. 그러니까 연달아 그저. 옛날엔 매우 바쁩니다. 연달아 놀 시간이 없었어, 옛날엔.

돗걸름 내젠 허민 ᄀᆞᆯ체옌 허영. 그 대로 만들아진 이 ᄀᆞᆯ체, ᄀᆞᆯ체옌 허영은에 그걸로 일일이 그 통시. 통시 안네 강 그걸로 떠 놩. 이제 그것도 돗걸름도 그냥 돗걸름이 아이고 소 멕여나민 소똥 걸름을 통시에 담아 놩. 담아 놔야 이젠, 그 도야지가 이젠 다니멍. 도야지도 이젠 똥 싸곡, 오줌 싸곡 허영은에 그게 걸름, 이제 더 좋은 걸름이 뒈민 그걸 이젠 보리 갈젠 ᄒᆞ민 그걸 이젠 ᄀᆞᆯ체로 일일이 하나 두 개썩 전부. (마당에) 떠다 놩. 이젠 떠다 놓민, 이제 씨 뿌령. 이제 씨 뿌리민, 소ᄒᆞ곡 사름ᄒᆞ곡 허영 막 ᄇᆞᆯ려. 막 그 씨를 혼합 뒈게, 걸름ᄒᆞ곡 혼합 뒈게.[1183]

돼지거름 내려고 하면 삼태기라고 해서. 그 대로 만들어진 이 삼태기, 삼태기라고 해서 그걸로 일일이 그 뒷간. 뒷간 안에 가서 그걸로 떠 놓고. 이제 그것도 돼지거름도 그냥 돼지거름이 아니고 소 먹여나면 소똥 거름을 뒷간에 담아 놔. 담아 놔야 이젠, 그 돼지가 이젠 다니면서. 돼지도 이젠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그게 거름, 이제 더 좋은 거름이 되면 그걸 이젠 보리 갈려고 하면 그걸 이젠 삼태기로 일일이 하나 두

1181) 고수남 구술.
1182) 임태순 구술.
1183) 고수남 구술.

개씩 전부. (마당에) 떠다 놓고. 이젠 떠다 놓으면, 이제 씨 뿌리고. 이제 씨 뿌리면, 소하고 사름하고 해서 막 밟아. 막 그 씨를 혼합 되게, 거름하고 혼합 되게.

• 보리 갈기

(보리씨가) 떨어져 불지 못허게 허영, 허여 놓민 이젠 만들아 놩은에 이젠 뒷날부떤 그 이젠 밧드레 이제 소에 시끄곡 이 가차운 디 소 읏인 사름은 사름 등어리도 져 가곡. 허영은에 ᄒᆞ민 겨을 내내 이젠 보리를 갑주게. 갈당 보민 이 옛날엔 또 눈이 빨리 오랑 얼어 불어. 얼어 불민 그걸 다 못ᄒᆞ민 오꼿 거름이 얼려 불어. 얼려 불민 뒷날 강은에 걸름 놓젠 허민 여자 어른덜 돌로, 앚앙 드러 ᄆᆞ앙은에, 경 ᄒᆞ민게. 멧 날 메틀입주게. 뭐 ᄒᆞᆫ 열흘썩. 오래 ᄒᆞ는 사름은 ᄒᆞᆫ 보름썩 허여야주.[1184]

(보리씨가)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해 놓으면 이젠 만들어 놓고 이젠 뒷날부턴 그 이젠 밭으로 이제 소에 싣고 이 가까운 데 소 없는 사람은 사람 등에도 져 가고. 해서 하면 겨울 내내 이젠 보리를 갈지요. 갈다가 보면 이 옛날엔 또 눈이 빨리 와서 얼어 버려. 얼어 버리면 그걸 다 못하면 그만 거름이 얼려 버려. 얼려 버리면 뒷날 가서 거름 놓으려고 하면 여자 어른들 돌로, 앉아서 계속 무수고, 그렇게 하면. 몇 날 며칠입지요. 뭐 한 열흘씩. 오래 하는 사람은 한 보름씩 해야지.

(돗걸름 낸 거) 얼려 불민. 막 얼려 불민 손으로 막 부벼도 안 떨어져. 이젠 걸름 안 헤도 비료 시난 잘만 뒈는디. 아이고, 옛날은양 비료 엇어 놓난 옛날엔 살기가 그렇게 못 젼뎌.[1185]

1184) 고수남 구술.
1185) 임태순 구술

(돼지거름 낸 거) 얼어 버리면. 막 얼어 버리면 손으로 막 비벼도 안 떨어져. 이젠 거름 안 해도 비료 있으니까 잘만 되는데. 아이고, 옛날은요 비료 없어 놓으니까 옛날엔 살기가 그렇게 못 견뎌.

□ 11월

1) 대설

• 새 장만하기

대설 때, 남자 어른들은 이제 겨울에 겨울 들엉 눈 오민 밧딧일 농사 못ᄒᆞ민, 이제 그거 ᄒᆞ기 전이 그때는 또 이 지붕 개량 아년 때난 이 지붕 더프젠 ᄒᆞ민 새, 띠 비어당은에 집 올려. 농사 그 보리 전부 파종 허여동 끗낭은에 새 비여당은에. (새밧) 신 사름도 잇곡 엇인 사름이 하.[1186]

대설 때, 남자 어른들은 이제 겨울에 겨울 들어서 눈 오면 밭의 일 농사 못하면, 이제 그거하기 전에 그때는 또 이 지붕 개량 않은 때니까 이 지붕 덮으려고 하면 띠, 띠 베다가 지붕 이어. 농사 그 보리 전부 파종해 놓고 끝나서 띠 베다가. (띠밭)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많아.

일 엇은 때 샐 비여 줄 놔근에. 그거 것도 날 봐근에 좀날 아니. 좋은 날로 ᄇᆞ름 자곡 좋은 날로 허영. 그 집 이는 사람도 아무나 못 허여. 골고루 약속시경 ᄒᆞ는 따문에. (새) 엇인 디 강 고망에 강 영 어염에도 강 봉가오곡,

1186) 고수남 구술.

어렵게. 그 하튼 이 년에 ᄒᆞᆫ 번은 일어야 ᄒᆞ는 따믄. 거 아녀민 바람에 불려 부는 따문.[1187]

일 없을 때 띠 베서 줄 놓아서. 그거 것도 날 봐서 쥐날 아니. 좋은 날로 바람 자고 좋은 날로 해서. 그 집 이는 사람도 아무나 못 해. 골고루 약속해서 하는 때문에. (띠) 없는 데 가서 구멍에 가서 이렇게 가장자리에도 가서 주어오고, 어렵게. 그 하여튼 이 년에 한 번은 이어야 하는 때믄.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

2) 동지

• 팥죽

ᄑᆞᆺ은게 대부분 갈긴, 가는 사름도 잇곡. 아이 갈아도, 여름에 아이 갈아도 조팟디 저 골에 영 놔. 고량에 영 ᄑᆞᆺ씨 영 조끔씩 노민. 많인 아이 뒈도 이녁 먹을 만큼 나오주게. 기영 죽 쒕 먹언. 골농서, 골농서. 고량이니까 골, 골. 건 굴루이 ᄒᆞ는 거난. 고량ᄑᆞᆺ, 고량ᄑᆞᆺ. 고량에 놓는 거난. 고량ᄑᆞᆺ. ᄊᆞᆯ도 귀ᄒᆞ민 좁ᄊᆞᆯ도 ᄀᆞ찌 서껑도 ᄒᆞ곡.[1188]

팥은 대부분 갈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갈아도, 여름에 안 갈아도 조밭에 저 골에 이렇게 놔. 고랑에 이렇게 팥씨 이렇게 조끔씩 놓으면. 많이는 안 되어도 자기 먹을 만큼 나오지. 그렇게 죽 쒀서 먹었어. 골 농사, 골 농사. 고랑이니까 골, 골. 건 '굴루이'[1189] 하는 거니까. '고량풋'[1190], 고랑 팥. 고랑에 놓는 거니까. 고랑 팥. 쌀도 귀하

1187) 임춘생 구술.
1188) 고수남 구술.
1189) '굴루이'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를 뜻하는 말이다.
1190) '고량ᄑᆞᆺ'은 조를 파종한 밭의 고랑에 드문드문 심는 팥을 말한다.

면 좁쌀도 같이 섞어서도 하고.

(풋은) 가는 사름도 싯고 아이 간 사름은 사당이라도. 고량이엔 헌 디 ᄒᆞ나썩 ᄒᆞ나썩. ᄒᆞᆫ 뽐 새, ᄒᆞ나썩. 죽 쒕 먹을 만은 ᄒᆞᆫ 두 말이나 서 말이나 됌주게. 고량에 풋 노민 고량에 풋 논 거엔 ᄒᆞ주. 골농서엔도 안 헌디 어떵 산디. 굴루이 허는 거. 고량에 풋 노라, 영 헹은에. 옛날엔 풋에 그냥 풋죽만 쒄 먹엇주.[1191]

(풋은)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은 사다가라도. 고랑이라고 하는 데 하나씩 하나씩. 한 뼘 사이, 하나씩. 죽 쒀서 먹을 만큼 한 두 말이나 서 말이나 되지. 고랑에 팥 놓으면 고랑에 팥 놓은 거라고 하지. 고랑 농사라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굴루이' 하는 거야. 고랑에 팥 놓아라, 이렇게 했어. 옛날엔 팥에 그냥 팥죽만 쒀서 먹었지.

□ 12월

1) 소한

그때는 농사 끗낭은에 ᄒᆞ민 막 추웡. 옛날은 눈 하영 오곡 ᄒᆞ민. 남자덜은 집이 앚앙 저 찝으로 멍석 만들고. 망텡이엔 허영 그 농사허여 논 그릇. 이제 ᄀᆞ뜨민 마다리 포대 ᄀᆞ뜬 거 이용ᄒᆞ주만은 옛날은 그런 거 없으니까 망텡이 만들앙은에 그런 것에 그 곡석 담아 놓곡. 경 허젠 그걸 멘들곡.

1191) 임태순 구술.

여저들은 또 이 옷 ᄀᆞ뜬 거 ᄒᆞ는 사름은 옷 만들고.

소한에 나간 사름은 대한 사름이. 대한 사름이 소한에 갓단 돌아오지 못ᄒᆞ고, 소한, 소한이 더 추웟던 모냥인구라. 대한 사름이 소한에 갓단 돌아오지 못허연 헷덴 ᄒᆞ곡, 소한 사름은 대한에 갓단 돌아왓덴 ᄒᆞ곡. 경 헷덴 그런 말이 시난.

이 산업도로도 옛날 이 좁은 질이라나십주게. 왜정 때에 저 왜정 사름덜이 저거 만들아 논 질인디. 글로 헤 가지고 그 시에 볼일 보레 강은에, 아침 새벡이 나강 허영은에 어디 강 무슨거 해 ᄆᆞᆫ ᄌᆞ물아 가민 베고프고 ᄒᆞ민 무슨거 술 ᄒᆞᆫ 잔이나 뭐 먹을 거 조끔 먹엉 이젠 오다 보면 오꼿 ᄌᆞ물앙은에 ᄒᆞ민. 예를 들러 술 취ᄒᆞᆫ 사름은 오당 오꼿 술 취헹 중간에 질레에 눠당 죽엇젱도 ᄒᆞ곡. 겡 허영은에 옛날은 노정복사엔 허영 질레에서 죽엇젠 허영 노정복사가 핫젠 ᄒᆞᆸ주게. 제주시에 가젠 ᄒᆞ민 ᄒᆞ루 종일. 우리 알기도 소문 듣기로 두 사름이나 시에 간 오단 중간에서 죽언.[1192]

그때는 농사 끝나서 하면 막 추워서. 옛날은 눈 많이 오고 하면. 남자들은 집에 앉아서 저 짚으로 멍석 만들고. 멱서리라고 해서 그 농사 해 놓은 그릇. 이제 같으면 마대 포대 같은 거 이용하지만 옛날은 그런 거 없으니까 멱서리 만들어서 그런 것에 그 곡식 담아 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걸 만들고. 여자들은 또 이 옷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옷 만들고.

소한에 나간 사람은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이 소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소한, 소한이 더 추웠던 모양이야. 대한 사람이 소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고, 소한 사람은 대한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 산업도로도 옛날 이 좁은 길이었습죠. 왜정 때에 저 왜정 사람들이 저거 만들어

1192) 고수남 구술.

놓은 길인데. 거기로 해 가지고 그 시에 볼일 보려고 가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하면 어디 가서 무엇 해 모두 저물어 가면 배고프고 하면 무슨 술 한 잔이나 뭐 먹을 거 조끔 먹고 이젠 오다 보면 그만 저물어서 하면.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은 오다가 그만 술 취해서 중간에 길에 누웠다가 죽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옛날은 노정복사라고 해서 길에서 죽었다고 해서 노정복사가 많았다고 합지요. 제주시에 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우리 알기로도 소문 듣기로 두 사람이나 시에 가서 오다가 중간에서 죽었어.

2) 신구간

• 이사

푸는체ᄒᆞ곡 저 뭣고, 체. 또 저 솟단지 솟. 그거 ᄆᆞᆫ저 가져 온덴 ᄒᆞᆸ주게. 허영 가져오랑은에.[1193] 그거 잘 아녕 그자 이녁 식귀덜은 그자 놈의 집이 이사ᄒᆞᆯ 땐 잘 아녀고, 이녁 집 ᄒᆞᆯ 땐 ᄀᆞᆺ세 ᄀᆞᆯ은 거게. 체, 푸는체ᄒᆞ곡. 여기 사름덜 잘 아이 뎅겨. 옛날은 저 성냥 ᄀᆞ져 간덴 ᄒᆞᆸ디다. 성냥 ᄀᆞ정간덴, 성냥이나 초.[1194] 성냥 헤근에 불 ᄒᆞ난 가져, 저 무시거 불어나렌 헨, 불이난.[1195]

키하고 저 뭐고, 체. 또 저 솥단지 솥. 그거 먼저 가져 온다고 합지요. 해서 가져와서. 그거 잘 않고 그저 자기 식구들은 그저 남의 집에 이사할 땐 잘 안 하고, 이녁 집 할 땐 아까 말한 거야. 체, 키하고. 여기 사람들 잘 안 다녀. 옛날은 저 성냥 가져간다고 합디다. 성냥 가져간다고, 성냥이나 초. 성냥 해서 불 하니까 가져, 저 무엇 불어나라고 해서, 불이니까.

1193) 고수남 구술.
1194) 고수남 구술.
1195) 임태순 구술.

7. 대정읍 상모1리

□ 1월

1) 정월 멩질

정월 초ᄒᆞ루가 정월 멩질이주기게.[1196] 정월 멩질은 다 종손만 허는 거지. 종손칩만 그 아래 동생덜은 관심 안 가져. 우리 형제민 큰형님이 종손으로서 큰형님만 준비허고 다 허는 거지. 아래 동생들은 강 먹음만. 종손칩이만 허여. 옛날 우리 어린 때는 ᄒᆞᆫ 칠팔촌ᄁᆞ지도 막 ᄀᆞ치 먹다가 세월에서 모든 것이 간소화되니까. 게고 증손ᄁᆞ지 그 ᄌᆞ손덜ᄁᆞ지 ᄀᆞ찌 식게 멩질허다가 증손이 죽으민 고조, 고손부터는 안 해. 고손은 제제헤 불주게. 증손이 고손 뒈민 또 갈라져. 종손만 고셍헷지.[1197]

정월 초하루가 정월 명질이지. 정월 명질은 다 종손만 하는 거지. 종갓집만 그 아래 동생들은 관심 안 가져. 우리 형제면 큰형님이 종손으로서 큰형님만 준비하고 다 하는 거지. 아래 동생들은 가서 먹기만. 종갓집에만 하여.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한 칠팔촌까지도 막 같이 먹다가 세월에서 모든 것이 간소화되니까. 그러고 증손까지 그 자손들까지 같이 제사 명질하다가 증손이 죽으면 고조, 고손부터는 안 해. 고손은 '제제해'[1198] 버리지. 증손이 고손이 되면 또 나눠져. 종손만 고생했지.

1196) 강경찬 구술.
1197) 강창유 구술.
1198) '제제하다'는 '제사를 그만 두다'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지제하다'라고도 한다.

(1) 멩질 준비

준비 과정은 그 부인덜 따랑 헤이. 정성들영 허는 사름은, 나 ᄀᆞ튼 경우는 삼일 정도. 뭐 사근에 준비허는 거는 미리부터. 마른 고기 ᄀᆞ튼 거는 한 달 전에 나가 준비허거든. 고기 같은 거 사젠 허민은 아시날부터 다 준비허고. 그 옛날에는 나 ᄀᆞ튼 경우에는 밀ᄀᆞ루 ᄒᆞᆫ 포 사다근에 떡 쪄근에 멘들아서 따뜻헌 방에다 노면은 기주 노면은 부꺼. 부꺼근에 허면은 그걸 쳐근에 허면은 그 당시는 권당덜신디 다 ᄒᆞ꼼씩 나눠 주거든. 제사 때에는. 멩질엔 자기만씩 허영 먹으니까.

준비 과정은 그 부인들 따라서 해. 정성들여서 하는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삼일 정도. 뭐 사서 준비하는 거는 미리부터. 마른 고기 같은 거는 한 달 전에 내가 준비하거든. 고기 같은 거 사려고 하면 전날부터 다 준비하고. 그 옛날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한 포 사다가 떡 반죽해서 만들어서 따뜻한 방에다 놓으면 기주 놓으면 부풀어. 부풀어서 하면은 그걸 쪄서 하면 그 당시는 권당들한테 다 조끔씩 나눠 주거든. 제사 때에는. 명질엔 자기만큼씩 하여서 먹으니까.

• 몸 정성

아주 멩심헤야지. 이 제사 때나 멩질 때 피 ᄀᆞ뜬 거 보거나 내우지 말고. 칼로 상처 입지 말아야. 정성을 해야지. 또 더러운 송장이나 뭐 뱀도 어떵어떵 보지 말아야 되고. 그 허는 걸 본 걸 비린다. 멩심헤서 놀레도 잘 안 뎅겨야지. ᄒᆞᆫ 이틀 동안은 집이서 영 다른 일만 허면서. ᄎᆞ손보다도 종손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1199]

1199) 강창유 구술.

아주 명심해야지. 이 제사 때나 명질 때 피 같은 거 보거나 내우지 말고. 칼로 상처 입히지 말아야. 정성을 해야지. 또 더러운 송장이나 뭐 뱀도 어떻게어떻게 보지 말아야 되고. 그 하는 걸 본 걸 비리다. 명심해서 놀러도 잘 안 다녀야지. 한 이틀 동안은 집에서 이렇게 다른 일만 하면서. 차손보다도 종손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 돼지 추렴

제숙 준비 나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는 정초가 다가온다 헤가면은 다소 계꾼 비슷허게 만든 거라. 추렴이라고. 한 이십일, 십오일 전에 돼질 잡으면은 걸로 이제 다섯 근 ᄋᆞᆺ 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서 나눠서.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그 먹을 수 엇는 존재가 잇으니까 그걸 미리 추렴헤서 그 내장꺼지도 전부 갈라서 먹고 헷는데. 예를 들어서 ᄒᆞᆫ 칠팔 명이 추렴을 허게 뒈면은 껌은도세기 헤 갖고 추렴을 허는 거라. 언마헤서 이제 사면은 나무 같은 데, 폭낭 아래 ᄃᆞᆯ아메영.[1200] 떨 뽑고.[1201] 이 떨이 털. 그것이 검은도세기가 이렇게 허민 엄청 많은 거라, 털이. 그걸 뽑으면은 그 사름덜이 수입이 높은 거라. 그러니까 하인 비슷헌 사름이 마트지. 즉 말하면은 마을에 서기 보곡 종질허는 사름, 그런 사름덜이 돼지를 많이 잡거든. 잡으면은 그걸로 헤서 그 사름 쿰으로 허영 그거허고 또 배설 그 막창 닮은 거 가져가고. 가장 재미잇는 것이 아까 얘기허듯이 이제 그 털 막 뽑앙 그 사름 아져가고.[1202] 그 엿장수 ᄀᆞ튼 사름덜이 사가예.[1203] 그 엿장시 아니 그 머리꺼럭 도세기털 사는 사름. 나 어린 때라도 그거 나 눈 여겨봣주게. 나 어린 땐디 뻰치로 헤영 칙 뽑고 뻰치로 허영

1200) 우명창 구술.
1201) 박순자 구술.
1202) 우명창 구술.
1203) 강경찬 구술.

칙허게 뽑는 건, 도세기 경허면은 도세기털 뽑아 놓면은.[1204] 내장도 다 ᄉᆞᆷ곡. 그 당시 뭐냐 허면 술이라면 작은 술도 아니고 큰 뒛벵. 뒛술 큰 걸로 해서 미리 제 헤영 준비허면은 그걸 또 갈라가는 거라. 그 이수벵 허느냐, 한 뒈짜리는 아주 비싸. 그 당시에는 환갑이나 뒈민은 잔치헌다민 그거 하나 들렁 가. 술이 귀헤낫거든. 술도 허면 바레깃잔이라도 이만이 큰 잔 잇어. 그러면 그 잔으로 이제 다 따라 주는데 것도 한 번 두 번 먹으면 세 번 짼 안 줘. 다 먹어 불민 안 뒈니까.[1205]

(돼지 잡을 때) 보리낭으로 그시렁. 보릴 많이 가니까 그걸로 대개. 그 땔감도 허고. 유채남으로도 땔감.[1206] (바레깃잔) 잔이 큰 거라. 하야면서 큰 건디 바레깃잔, 바레깃잔 허는데 한 번에 마셔 부는 거라.[1207] 큰 거 주면은 아이고 바레깃잔으로 주는 거 보라.[1208] 바레깃잔으로 주는 것은 막 그 노동을 많이 허는디 바레기 바레기 허는디 그런 잔으로 이제 표시헌 거라. 바레깃잔으로 헤서 그거로 그냥 마셔 불어야 씨원헌 사름 뒈는 거. 술 먹는 사름덜 욕을 안 먹거든.[1209] 요즘 사름덜은 술을 먹는 것이 절약하고 먹지 말자고만 허는데 그 당시에 큰일할 때는 질레 술 먹어서 쓰러지고 놈의 담 ᄆᆞᆯ아 부는 것이 보통 예랏는데 요즘은 그런 사름 보이질 않아. 그 어디 장사칩이나 혼사칩이 가서 술 취헤서 어디 길레 영 허끄는 사름 없거든.[1210] 그 당시는 그 큰일허면은 술 너무나 많이 먹은 거라. 그래서 동네 사름 싸움도 많이 부뜨고 뭐 그자 쓰러지곡 ᄎᆞᆷ 이런 사름들이 많았는데.[1211]

1204) 박순자 구술.
1205) 우명창 구술.
1206) 우명창 구술.
1207) 우명창 구술.
1208) 박순자 구술.
1209) 우명창 구술.
1210) 강경찬 구술.
1211) 우명창 구술.

제수 준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는 정초가 다가온다 해가면 다소 계원 비슷하게 만든 거야. 추렴이라고. 한 이십일, 십오일 전에 돼질 잡으면 걸로 이제 다섯 근 여섯 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그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추렴해서 그 내장까지도 전부 나눠서 먹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칠팔 명이 추렴을 하게 되면 검정돼지 해 갖고 추렴을 하는 거야. 얼마 해서 이제 사면은 나무 같은 데, 팽나무 아래 매달아서. 털 봅고. 이 '떨'이 털. 그것이 검정돼지가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은 거야, 털이. 그걸 봅으면 그 사람들이 수입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하인 비슷한 사람이 맡지. 즉 말하면 마을에 서기 보고 종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잡거든. 잡으면 그걸로 해서 그 사람 품으로 해서 그거하고 또 창자 그 막창 같은 거 가져가고. 가장 재미있는 것이 아까 얘기하듯이 이제 그 털막 봅아서 그 사람 가져가고. 그 엿장수 같은 사람들이 사가요. 그 엿장수 아니 그 머리털 돼지털 사는 사람. 나 어린 때라도 그거 나 눈 여겨봤지. 나 어린 땐데 펜치로 해서 칙 봅고 펜치로 해서 칙하게 봅는 건, 돼지 그러면 돼지털 봅아 놓으면. 내장도 다 삶고. 그 당시 뭐냐 하면 술이라면 작은 술도 아니고 큰 됫병. 됫술 큰 걸로 해서 미리 제 해서 준비하면은 그걸 또 나눠가는 거야. 그 이수병 하느냐, 한 되짜리는 아주 비싸. 그 당시에는 환갑이나 되면 잔치한다면 그거 하나 들고 가. 술이 귀했었거든. 술도 하면 '바레깃잔'[1212]이라도 이만큼 큰 잔 있어. 그러면 그 잔으로 이제 다 따라 주는데 것도 한 번 두 번 먹으면 세 번짼 안 줘. 다 먹어 버리면 안 되니까.

(돼지 잡을 때) 보릿대로 그을려서. 보릴 많이 가니까 그걸로 대개. 그 땔감도 하고. '유채남'[1213]으로도 땔감. (바레깃잔) 잔이 큰 거야. 하야면서 큰 건데 '바레깃잔', '바레깃잔' 하는데 한 번에 마셔 버리는 거야. 큰 거 주면은 아이고 '바레깃잔'으로 주는 거 봐라. '바레깃잔'으로 주는 것은 막 그 노동을 많이 하는데 '바레기' '바레기' 하는데

1212) '바레깃잔'은 상모리에서 큰 술잔을 말하고 있다.
1213) '유채남'은 유채를 수확한 후의 대를 말한다.

그런 잔으로 이제 표시한 거야. '바레깃잔'으로 해서 그거로 그냥 마셔 버려야 시원한 사람 되는 거. 술 먹는 사람들 욕을 안 먹거든. 요즘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것이 절약하고 먹지 말자고만 하는데 그 당시에 큰일할 때는 길에 술 먹어서 쓰러지고 남의 담 허물어 버리는 것이 보통 예였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보이질 않아. 그 어디 '장사칩'이나 '혼사칩'[1214]에 가서 술 취해서 어디 길에 이렇게 허대는 사람 없거든. 그 당시는 그 큰일하면은 술 너무나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 싸움도 많이 붙고 뭐 그저 쓰러지고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2) 상차림

가만히 보믄 집안마다 전부 그 옛날 하던 선조덜이 허던 데로 따라가. 가문가례로 따라가예. 가문가례로 따라 가는데 향교에서 유교 하는 것은 어동육서 동두서미. 이렇금 헤서 그 얘길허는데, 지금에 향교에 다니던 그. 아, 홍동백서 동두서미 그치룩헤서 그 얘길 우리가 허는데, 교회 다니단 분들, 그 유교에 다니단 분도 우리 아버지나 할아부지나 이치룩헷으니까 이런 걸 춤 무시하고 그대롬 지내고 잇는데. 집안마다 틀려.[1215] 홍동백서는 동쪽 허면은. 여기서 동쪽을 가리킬 때, 상이 나가이 앚인 자리에서 동쪽을 헤서 북쪽도 동쪽이 될 수 잇어. 우리 제사 관계는 항상 우쪽으로 이제 동쪽을 표시헤서 제사 웃머리를 올리는 거라. 경 아녈 때는 욜로 동쪽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사를 봣을 때는 갈리는 거.[1216]

(병풍, 신위) 우리가 봄만 허민 밥을 놓죠.[1217] 메하고 국허고.[1218] 국

1214) '혼사칩'은 혼사를 치르는 집을 말한다.
1215) 강경찬 구술.
1216) 우명창 구술.
1217) 강경찬 구술.

게영인데. 우리가 산 때보다는 반대로 올려예.[1219] 산사름 반대.[1220] 수저 잇잖습니까예? 우리가 시향 보레 가도 우리 같은 씨족 안네서도 틀려예. 틀려 노니까 요걸 놔서 이것이 맞다 무슨거허다. 우리 마을에는 씨족덜이 대부분 같아.[1221] 아까 홍동백서라고 허는데 우에 과일을 이쪽에. 여기서 이 기준을 딱 봣을 때. 그다음에는 제물이라 헤서 크게 집안에서 그 떡 솔변, 절변 이렇게 헤서 차려 놓고. 우리는 우리가 바로 앉은 웬쪽으로는 묵, 적, 바닷고기. 묵은 처음엔 먼저 땅에 거. 적 땅에 뒈지고기 같은, 쉐고기 같은 적. 그다음에 바다. 묵, 적, 바닷고기. 전면에는 고사리 탕쉬 묵 놓고. 첫째 고사리 탕쉬 이제 묵 놓곡. 마찬가지 이것도 머리가 이제 오른쪽이니까. 수저 그다음 예를 들어서 술잔.[1222]

가만히 보면 집안마다 전부 그 옛날 하던 선조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 가가례로 따라가요. 가가례로 따라 가는데 향교에서 유교 하는 것은 어동육서 동두서미. 이렇게 해서 그 얘길하는데, 지금에 향교에 다니던 그. 아, 홍동백서 동두서미 그처럼 해서 그 얘길 우리가 하는데, 교회 다니던 분들, 그 유교에 다니던 분도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처럼 했으니까 이런 걸 참 무시하고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집안마다 달라. 홍동백서는 동쪽 하면은. 여기서 동쪽을 가리킬 때, 상이 내가 앉은 자리에서 동쪽을 해서 북쪽도 동쪽이 될 수 있어. 우리 제사 관계는 항상 위쪽으로 이제 동쪽을 표시해서 제사 '웃머리'를 올리는 거야. 그렇게 않을 때는 요리로 동쪽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사를 봤을 때는 갈리는 거.

1218) 김웅철 구술.
1219) 강경찬 구술.
1220) 우명창 구술.
1221) 강경찬 구술.
1222) 우명창 구술.

(병풍, 신위) 우리가 보기만 하면 밥을 놓죠. 메하고 국하고. 국 '게영'인데. 우리가 산 때보다는 반대로 올려요. 산 사람 반대. 수저 있잖습니까요? 우리가 시향 보러 가도 우리 같은 씨족 안에서도 달라요. 달라 놓으니까 요걸 놔서 이것이 맞다 무엇하다. 우리 마을에는 씨족들이 대부분 같아. 아까 홍동백서라고 하는데 위에 과일을 이쪽에. 여기서 이 기준을 딱 봤을 때. 그다음에는 제물이라 해서 크게 집안에서 그 떡 솔편, 절편 이렇게 해서 차려 놓고. 우리는 우리가 바로 앉은 왼쪽으로는 묵, 적, 바닷고기. 묵은 처음엔 먼저 땅에 거. 적 땅에 돼지고기 같은 소고기 같은, 적. 그다음에 바다. 묵, 적, 바닷고기. 전면에는 고사리 '탕쉬' 묵 놓고. 첫째 고사리 '탕쉬'[1223] 이제 묵 놓고. 마찬가지 이것도 머리가 이제 오른쪽이니까. 수저 그다음 예를 들어서 술잔.

• 안방상, 문전상

올리는 사름덜은 안방상이라고 헤낫어. 안방에 그 안방상이라고 허여낫는디 이디는 그런 상을 허다가 이제는 안 헤. 옛날에는 쪼끔씩 안방상 헤낫어. 그자 안방에 거를 주로 해근에 헷어. 옛날 그 곡식 놓는 디 보고 안방상엔 헷주게. 그디 강 잘 헤낫어. 그레 안방상. 문전상도 허는디 허는 집이 잇고 아녀는 디 잇어.[1224] 안방상 허는 디보다는 문전상 허는 디가 많앗어예. 안방상 허는 거보단도 많은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인디 젊은 사름덜 뭐 이것저것. 우린 본래부터 안 헷으니까. 문전상 이거를 놓고 잘헌다 못헌다 통허질 안헤예.[1225] 이젠 안 헤. 문전상도 안 헤. 이젠 젊은 사름덜이 시대가 시대만이 허니까. 이젠 집에서보단도 산으로. 나도 산으로 허는 건디.[1226]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은 아까 조왕

1223) '탕쉬'는 제사나 명질에 제수로 올리는 채소를 말한다. 고사리, 콩나물, 호박나물, 양하 따위로 만든다.
1224) 박순자 구술.
1225) 강경찬 구술.

문전 장팡뒤 그디도 보면은 헷어. 크게 허진 못헤도 불 피와 놓고 물 한 잔 올리고 그거는 쭉 이어지다가. 이제 츰 칠십 년대 초중반 뒈 가니까.[1227] 칠십 년대 더 뒛주.[1228]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헷어. 이런 뭐 문전상이나 무슨 뭐 전혀 없고 본상만.[1229]

집안마다 틀리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 육십 년대나 오십 년대 보면은 그 동쪽에서 오는 그 살림을. 거기서는 토산 같은 데 잇지? 토산, 베염 거기서 좇아온덴. 거 어떤 때 풍습이 경 뒈게 뒛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당에 보면 저쪽 자기 집이 잇으면은 이 우영팟디에 거기 주젱이 비슷허게 만들어서 그렇게 헤서 그기 케우리고. 가서 뭐 영 뭐엔도 곧고.[1230] 주젱일 비슷허게가 아니고 주젱일 메야주게.[1231] 그런 그 시절이 여기도 멧 군데 잇엇어, 이 동네도. 이 덕수 분덜이 그걸 많이 헷어.[1232] 덕수에 오는 거는 도체비.[1233] 도체비 불미 헤영은에 그것도 오십 년대 육십 년도 그런 게 많앗어.[1234] 송칩이가 그런 불미왕을 많이 헷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그 저 두불 온 어른은 이디 허여낫어. 우리도 허여나신디.[1235] 그거 우리 집안 보면은 도체비 믿엇단. 겐데 도체비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할머니가 어른이라. 우리가 딱 보면은 그 큰남 잇지. 저쪽에 보면 폭남, 아, 그디 가 보면은 나가 어린 때 제사 끗나면은 그디 음식 헌 것도 갖다 놓고.

1226) 박순자 구술.
1227) 우명창 구술.
1228) 박순자 구술.
1229) 강경찬 구술.
1230) 우명창 구술.
1231) 박순자 구술.
1232) 우명창 구술.
1233) 박순자 구술.
1234) 우명창 구술.
1235) 박순자 구술.

뭣이 잇어서 갖다 논 게 아니고 그디 갖다 놩 이렇게 절허고 술 ᄒᆞᆫ 잔허고. 제사가 끗나면은. 도체비 믿엇던 이런 말이 나오지. 그 당시도. 아무 것도 아닌데.[1236] 나도 완 헷주게. 게난 뭘 잇언 그디 강 헴수가? 난 경 헷주게. 아무 것도 엇어. 낭만 큰 폭낭만 이신 디라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부난 나가 안 헤 불언. 그때부떠 나가 설러 불엇주게.[1237] 아무 것도 엇인디도 옛날 십관이라. 즉 말하자면 사람이란 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마찬가지라.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구 할 것 없이. 집안에 자식이나 우환이 생기지 못허게 헤여 줍서. 그 정성에 정말 그 물 한 잔 더 거려 놔근에.[1238]

토산이란 것이 우리가 어릴 제 보나 이치룩헐 때는 그 주젱이를 영 헤서 하나 놓고 보면 토산 그 헐 때 정월달만 남만 허민 그 심방 빌어다근에 그디 뭐헤예. 건데 난 저걸 몰랏어. 이장 알다시피 누구네 밧 사지 안헷어? 그디도 그 이짝 구석에 저 주젱이 하나 놓곡 영 허영 뭐 헤남만 허민 와근에 퇴물 왕 부어서 헐 때 난 그 셍각도 안 헷는데 그 밧 사서 다 정리를 허니까 그 멧 년 후에 보니까 강 회장은 다른 사름 겁난 안 사는 밧도 ᄆᆞᆫ딱 사서 정리헤서 지금ᄁᆞ지 벌엄덴. 앞이 그 말을 들어야 것을 느꼇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덜이 좀 잇엇는데. 보니까 이것저것을 우리는 그 가리질 않고 이치룩허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졋어예. 토산이 주로 그 동쪽으로 거기서 많이 남토산 북토산 허는데 그쪽에도 가봄만 허민 뱀이 영 봄만 허민 우리가 옛날 속담에 살레이 그기도 올라가곡 이치록허는 걸 보고라고. 주인이 뭣엔 ᄀᆞᆯ은만 허민 다른 데 간다 허는데 우린 거기 갓는데 못 봣어.[1239]

1236) 우명창 구술.
1237) 박순자 구술.
1238) 우명창 구술.
1239) 강경찬 구술.

아, 실지 많아. 여기 씨집오면은 어떻게 가족같이 오는 모양이야. 경헤근에 어떻게 가정 오는지 몰라도 따라 오면은 뭐 촘 자식도 촘 잘 나고, 번성허고. 아마 그쪽에선 그걸 위헹 삼아겟지. 씨집이 와서 그걸 번성시키는 거라. 그 당시에는예, 차도 얼마 엇고 저 가로등도 없고 이 어두침침허엿거든게. 모실포 뎅길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 도체비여 무시거여 헤도 사람이 젤 무서운 거주게. 지금도 사름이 무서와. 게민 그 당시에는 차도 얼마 엇고 포크레인도 엇고 뭐 전깃불도 없고 뭐 허니까 무서운 기가 많이 나거든. 게난 지금은예, 귀신이 나올라고 헌덴 헤도 나올 수가 엇어. 차들이 와랑자랑허지. 맥을 못 춰.[1240]

올리는 사람들은 '안방상'[1241]이라고 했었어. 고방에 그 '안방상'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상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해. 옛날에는 쪼끔씩 '안방상' 했었어. 그저 고방에 거를 주로 해서 했어. 옛날 그 곡식 놓는 데 보고 '안방상'이라고 했지. 거기 가서 잘 했었어. 그리로 '안방상'. '문전상'[1242]도 하는데 하는 집이 있고 않는 데 있어. '안방상' 하는 데보다는 '문전상' 하는 데가 많았어요. '안방상' 하는 거보다도 많은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인데 젊은 사람들 뭐 이것저것. 우린 본래부터 안 했으니까. '문전상' 이거를 놓고 잘한다 못한다 통하질 않아요. 이젠 안 해. 문전상도 안 해. 이젠 젊은 사람들이 시대가 시대만큼 하니까. 이젠 집에서보다도 산소로. 나도 산소로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 아까 조왕 문전 장독대 거기도 보면 했어. 크게 하진 못해도 불 피워 놓고 물 한 잔 올리고 그거는 쭉 이어지다가. 이제 참 칠십 년대 초중반 돼 가니까. 칠십 년대 더 됐지.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했어. 이런 뭐 '문전상'이나 무슨 뭐 전혀 없고 본상만.

1240) 박순자 구술.
1241) '안방상'은 제사를 지낼 때 고팡에 차리는 상을 말한다.
1242) '문전상'은 제사를 지낼 때 문전에 차리는 상을 말한다.

집안마다 다른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 육십 년대나 오십 년대 보면 그 동쪽에서 오는 그 살림을. 거기서는 토산 같은 데 있지? 토산, 뱀 거기서 쫓아온다고. 거 어떤 때 풍습이 그렇게 되게 됐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당에 보면 저쪽 자기 집이 있으면 이 텃밭에 거기 주저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 고수레하고. 가서 뭐 이렇게 뭐라고도 말하고. 주저릴 비슷하게가 아니고 주저리를 매어야지. 그런 그 시절이 여기도 몇 군데 있었어, 이 동네도. 이 덕수 분들이 그걸 많이 했어. 덕수에 오는 거는 도깨비. 도깨비 풀무 해서 그것도 오십 년대 육십 년도 그런 게 많았어. 송씨 댁이 그런 대장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그 저 두벌 온 어른은 여기 하였었어. 우리도 하였었는데. 그거 우리 집안 보면 도깨비 믿었다가. 그런데 도깨비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할머니가 어른이야. 우리가 딱 보면 그 큰 나무 있지. 저쪽에 보면 팽나무, 아, 거기 가 보면 내가 어린 때 제사 끝나면 거기 음식 한 것도 갖다 놓고. 뭣이 있어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거기 갖다 놔서 이렇게 절하고 술 한 잔하고. 제사가 끝나면. 도깨비 믿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 그 당시도. 아무 것도 아닌데. 나도 와서 했지. 그러니까 뭘 있어서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까? 난 그렇게 했지. 아무 것도 없어. 나무만 큰 팽나무만 있는 데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니까 내가 안 해 버렸어. 그때부터 내가 그만둬 버렸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옛날 습관이야. 즉 말하자면 사람이란 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마찬가지야.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구 할 것 없이. 집안에 자식이나 우환이 생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정성에 정말 그 물 한 잔 더 떠 놔서.

토산이란 것이 우리가 어릴 때 보나 이처럼할 때는 그 주저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 놓고 보면 토산 그 할 때 정월만 되기만 하면 그 심방 빌려다가 거기 뭐해요. 그런데 난 저걸 몰랐어. 이장 알다시피 누구네 밭 사지 않았어? 거기도 그 이쪽 구석에 저 주저리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뭐 하기만 하면 와서 퇴물 와서 부어서 할 때 난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밭 사서 다 정리를 하니까 그 몇 년 후에 보니까 강 회장은 다른 사람 겁나서 안 사는 밭도 몽땅 사서 정리해서 지금까지 벌고 있다고. 앞의 그 말을

들어야 것을 느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이것저것을 우리는 그 가리질 않고 이처럼하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토산이 주로 그 동쪽으로 거기서 많이 '남토산'[1243] '북토산'[1244] 하는데 그쪽에도 가보기만 하면 뱀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 찬장 거기도 올라가고 이처럼하는 걸 보고라고.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다른 데 간다 하는데 우린 거기 갔는데 못 봤어.

아, 실지 많아. 여기 시집오면 어떻게 가족같이 오는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갖고 오는지 몰라도 따라 오면 뭐 참 자식도 참 잘 나고, 번성하고. 아마 그쪽에선 그걸 위해서 삼았겠지. 시집에 와서 그걸 번성시키는 거야. 그 당시에는요, 차도 얼마 없고 저 가로등도 없고 이 어두침침하였거든. 모슬포 다닐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야. 도깨비다 무엇이다 해도 사람이 젤 무서운 거지. 지금도 사람이 무서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차도 얼마 없고 굴삭기도 없고 뭐 전깃불도 없고 뭐 하니까 무서운 기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요, 귀신이 나오려고 한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 차들이 '와랑자랑'[1245]하지. 맥을 못 춰.

(3) 제물

• 제수

돼지고기 적갈허고 ᄆᆞ른고기허고, 묵. 묵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뒈는 거. 그때 밀ᄀᆞ르묵도 허고.[1246] 모멀묵을 영 싹 쒀 노면. 큰 다라 헹은에

1243) '남토산'은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리의 남쪽 마을이다. 즉 토산2리, 즉 '알토산'의 다른 이름이다.
1244) '북토산'은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리의 북쪽 마을이다. 즉 토산1리, 즉 '웃토산'의 다른 이름이다.
1245) '와랑자랑'은 지나가는 차들이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246) 박순자 구술.

탁탁탁, 예를 들어서 쪼갱은에.[1247] 거보고 이장 청묵이라고 헤, 청묵.[1248] 게난 청묵이라고 헤서 이제 고젱이 끼는 거라이. 대 멘들앙이 그거 묵을 줘. 이 바다에 고길 나까서 어렝이나 이런 거 나깡인에 그 뭐냐, 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파는 사름덜이 이제 시내 가면은 이제 그 어선에서덜 그거 풀기도 허고 나끄는 사름도 잇는데 생선 궝은에 그것도 허고. 냉장고 엇일 적에는 어딜 보관헷냐면 보리 속에 담앙 놔두면은 그것이 멩질 때 꺼내보면 노리롱허여 불어. 나는 경 헤보지 안헷는데.[1249] 또 요 중간에 지지미가. 지지미도 안 헷어. 걸로 헤서 올려 가지고 멩질허고. 또 어수엔 허민 바닷고기. 어수 물린 거. 국은 어수 게영국 허영은에. 소고기나, 쉐고기는 안 써근에 바닷고기로. 지금도 바닷고기허고 미역 놓고. 소고기 안 허고 바닷고기로 미역 놓고. 또 돼지고기 소고기 적갈해서 올리고 것뿐이지, 뭐. 지금ᄀᆞ치 사과 뭐 이런 거 안 헷어. 귤이 중간에. 여기는 중간에지. 유지 엇어, 대정에. 이 중간에 다 들어온 거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안 올렷어. 초등학교 뎅길 때는 엇엇어.[1250]

돼지고기 산적하고 마른고기하고, 묵. 묵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때 밀가루묵도 하고. 메밀묵을 이렇게 싹 쒀 놓으면. 큰 대야 해서 탁탁탁, 예를 들어서 쪼개서. 거보고 이장 '청묵'[1251]이라고 해, '청묵'. 그러니까 '청묵'이라고 해서 이제 꼬챙이 꿰는 거야. 대 만들어서 그거 묵을 줘. 이 바다에 고길 낚아서 어랭놀래기나 이런 거 낚아서 그 뭐냐, 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파는 사람들이 이제 시내 가면 이제 그 어선에

1247) 우명창 구술.
1248) 강경찬 구술.
1249) 박순자 구술.
1250) 강창유 구술.
1251) '청묵'은 메밀쌀을 불린 후에 주물러 생긴 앙금을 넣어서 쑨 묵을 말한다.

서들 그거 팔기도 하고 낚는 사람도 있는데 생선 구워서 그것도 하고. 냉장고 없을 적에는 어딜 보관했냐면 보리 속에 담아서 놔두면 그것이 명질 때 꺼내보면 노르스름해 버려.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또 요 중간에 지지미가. 지지미도 안 했어. 걸로 해서 올려 가지고 명질하고. 또 어수라고 하면 바닷고기. 어수 말린 거. 국은 어수 갱해서. 소고기나, 쇠고기는 안 써서 바닷고기로. 지금도 바닷고기하고 미역 놓고. 소고기 안 하고 바닷고기로 미역 놓고. 또 돼지고기 소고기 산적해서 올리고 것뿐이지, 뭐. 지금같이 사과 뭐 이런 거 안 했어. 귤이 중간에. 여기는 중간에지. 유자 없어, 대정에. 이 중간에 다 들어온 거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안 올렸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

• **떡**

옛날에는예, 조상상에 올리는 거는 엇어도 침떡 ᄀᆞ튼 거는 그 상에는 좀 뭐허게 올렷수다게. 정성으로. 침떡 올리고 절변, 솔변.[1252] 정월 멩질에 대개 보면은 참 밀가루 같은 게 제대로 없어. 그래서 고구마뻿데기를 갈앙 그 고구마떡이라 헤서, 감저떡이라 헤서 거멍허여, 치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거멍헌 거라. 그거를 큰 그 솟에 헤서 그걸로 나눠 먹엇어. 정월 멩질에도 그거 헤서 같은 친촉덜 나눠 먹고. 게난 임시 먹는 거. 제사상에는 안 올리고.[1253] 아주 옛날은 빙떡 잘 헷주게, 빙떡.[1254]

옛날에는요, 조상상에 올리는 거는 없어도 시루떡 같은 거는 그 상에는 좀 뭐하게 올렸습니다요. 정성으로. 시루떡 올리고 절편, 솔편. 정월 명질에 대개 보면 참 밀가루 같은 게 제대로 없어. 그래서 절간고구마를 갈아서 그 '고구마떡'이라 해서, '감저떡'[1255]이라 해서 거메, 찌면. 이렇게 만들면 거먼 거야. 그거를 큰 그 솥에 해서 그걸

1252) 박순자 구술.
1253) 우명창 구술.
1254) 박순자 구술.

로 나눠 먹었어. 정월 명질에도 그거 해서 같은 친족들 나눠 먹고. 그러니까 임시 먹는 거. 제사상에는 안 올리고. 아주 옛날은 '빙떡' 잘 했지, 빙떡.

• 탕쉬

이 탕쉬는 이 호박 ᄀᆞ뜬 거, ᄂᆞᆷ삐, 고사리도 쪼금 놓고. 콩나물도 놓고 헤영 탕쉬. 옛날에도 콩나물도 집이서 멘들앗어. 보시로 이렇게 통에 물 빠지게 콩 놔근에 물 자꾸 줭 크면은 걸 콩ᄂᆞ물로 사용헷지. 자기만씩. 제사 때 쓸려고. 그 겨울에 추우니까 방안에 저 항아리에 물 놔서 다 보이게 헹은에.[1256] (탕쉬) 시금치도 허고, 또 뭐허는 사름덜은 미나리도 허고게, 세 가지. 저 묵 썰어근에 영 무신. 지금은 아녀는디 옛날에는 묵탕쉬 허영은에 묵탕쉬도 썰어놓고. 지금은 먹기 좋게 헤근에 잡채도 올리고.[1257] 특이헌 건 팔월 들민 그 양엣근. 이거 아주 우리 ᄎᆞᆷ 젊을 때 그걸 ᄎᆞᆷ 잘허는 사름덜이 잇어낫어. 성○이 어멍이 우리 동네 친족인데 그 사름은 그걸 특이허게 요릴 잘헤. 게난 호박 이만은 그 왜호박이라고 그거허고 아까 세 개만 합허민 그게 그렇게 맛잇어. 탕쉬는.[1258] 호박탕쉬도 허고.[1259] 큰 거를 왜호박. 옛날 집이 보면은 제사 때 쓰젠 허민은 이 눌이라고 쉐촐 이렇게 헌 디 멧 개 올령 놔두면은 이만이 커. 그걸 놧다가 호박탕쉬 멘들라고 그걸 많이 사용헷어.[1260]

이 '탕쉬'는 이 호박 같은 거, 무, 고사리도 쪼금 놓고. 콩나물도 놓고 해서 '탕쉬'.

1255) '감저떡'은 절간고구마가루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1256) 강창유 구술.
1257) 박순자 구술.
1258) 우명창 구술.
1259) 박순자 구술.
1260) 우명창 구술.

옛날에도 콩나물도 집에서 만들었어. 보시기로 이렇게 통에 물 빠지게 콩 놔서 물 자꾸 줘서 크면 걸 콩나물로 사용했지. 자기만큼씩. 제사 때 쓰려고. 그 겨울에 추우니까 방안에 저 항아리에 물 놔서 다 보이게 해서. (탕쉬) 시금치도 하고, 또 뭐하는 사람들은 미나리도 하고, 세 가지. 저 묵 썰어서 이렇게 무슨. 지금은 않는데 옛날에는 '묵탕쉬'[1261] 해서 '묵탕쉬'도 썰어놓고. 지금은 먹기 좋게 해서 잡채도 올리고. 특이한 건 팔월 들면 그 '양엣근'[1262]. 이거 아주 우리 참 젊을 때 그걸 참 잘허는 사람들이 있었었어. 성○이 어머니가 우리 동네 친족인데 그 사람은 그걸 특이하게 요릴 잘해. 그러니까 호박 이만큼 그 '왜호박'이라고 그거하고 아까 세 개만 합하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탕쉬'는. '호박탕쉬'[1263]도 하고. 큰 거를 '왜호박'. 옛날 집에 보면 제사 때 쓰려고 하면 이 가리라고 소꼴 이렇게 한 데 몇 개 올려서 놔두면 이만큼 커. 그걸 놨다가 '호박탕쉬' 만들려고 그걸 많이 사용했어.

• **술**

술은 이제 그 소님 많은 집에는 청줄 헷어. 우리 어머니도 그 청주를 헤근에 고구마술도 허지마는 청주를 허면은 여러 가지지마는 것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 정초 허여근에 소님덜이 딱 오면 술 내놔야 뒈고. 게난 그 청주 먹으레 하이튼 그 동네 사름덜은. 그 당시에는 술이 부족허고 청주라면 막걸리 비슷허지마는 노리롱허여. 멧 잔 먹으민 취허곡 허는데, 그 맛이이.[1264] 그 정초에 대헤서는 가장 우리가 흔 설 더 먹은 기분도 잇지만 어릴 때 보면은 제사허는 집이가 아 일고으답 군데가 뒈. 건 뭐냐, 예를

1261) '묵탕쉬'는 제사나 명질 때 채소로 올리는 묵을 말한다. 묵을 몇 가닥으로 썰어서 올린다.
1262) '양엣근'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1263) '호박탕쉬'는 제사나 명질에 제수로 올리는 호박으로 만든 채소 요리를 말한다.
1264) 우명창 구술.

들어서 우리 집 끗나면은 또 우리 누구네 집. 한 일고여답 집이 가는 거라. 이제 여덥 사름까지 끗낭 종손칩이. 젤 나중에 허는 게 이제도 그런 풍습이 잇지만 그거를 다 먹엇어. 국도 다 먹고. 고기도 주는 건 다 먹는 거야. 집집마다 다 먹어. 햐, 게니까 그 당시는 배가 고파난 사름덜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엇는 거라.[1265] 밥도 영 보면은 뭐 그릇에 이빠인 안 주잖아. 삼분의 일 정도지만 거 다 먹어.[1266] 밥 거리는 게 둬 숟갈 정도.[1267]

술은 이제 그 손님 많은 집에는 청줄 했어. 우리 어머니도 그 청주를 해서 고구마술도 하지만 청주를 하면은 여러 가지지만 것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 정초 해서 손님들이 딱 오면 술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청주 먹으러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술이 부족하고 청주라면 막걸리 비슷하지만 노르스름해. 몇 잔 먹으면 취하고 하는데, 그 맛이. 그 정초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한 살 더 먹은 기분도 있지만 어릴 때 보면 제사하는 집이 아 일고여덟 군데가 돼.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끝나면 또 우리 누구네 집. 한 일고여덟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여덟 사람까지 끝나서 종갓집에. 젤 나중에 하는 게 이제도 그런 풍습이 있지만 그거를 다 먹었어. 국도 다 먹고. 고기도 주는 건 다 먹는 거야. 집집마다 다 먹어. 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밥도 이렇게 보면 뭐 그릇에 가득 안 주잖아. 삼분의 일 정도지만 거 다 먹어. 밥 뜨는 게 둬 숟갈 정도.

(4) 반

아이덜은 멩질 때 가면은 어떻게 헷냐면 반 주면은 그때는 귀헐 때니까

1265) 우명창 구술.
1266) 강경찬 구술.
1267) 박순자 구술.

젝고지에 끼웡, 떡 받앙. 다 젝고지에 끼엉덜 들렁덜 와. 자랑으로.[1268]

아이들은 명질 때 가면은 어떻게 했냐면 반기 주면은 그때는 귀할 때니까 적꼬치에 끼워서, 떡 받아서. 다 적꼬치에 끼워서들 들고들 와. 자랑으로.

• 우 족족 알 골로로

아까 얘기허듯이 떡은 ᄆᆞᆫ딱 뀌여. 솔벤, 절벤 ᄆᆞᆫ딱 다 자랑이라, 우리는. 젊은 때 어린 때니까 야, 이 떡 헤서 어머니안티 ᄀᆞ져가민 아, 메칠 먹는 거라.[1269] ᄆᆞ른궤기, 나 이디 완 막 놀랫어. 난 친정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적갈도 이만씩 생선도 이만씩 허영 헤신디.[1270] 에, 그 말은 우리가 생각허면은 하영, 예를 들어 권당이 족은 데는 겅 허주마는 백 명 이상 뒈면은 사과도 이만씩 짤라. 또 바다고기도 요거.[1271] 나가 완 보난 우리가 식구 엇인 디 고기나 백 명 넘는 고기나 똑ᄀᆞ따. 더 못 허게 허더라고. 백 명 넘은 멩질이면은 고기가 ᄒᆞ꼼 낫게 사야 뒐 건디. 만약에 식구 엇어도 우리는, 우리 어머니 성질이 ᄒᆞ끔 통이 큽니다게. 게면 우리 어머니는 뒈지고기 사도 이만은 사고 이딘 완 보난 뒈지고기가 요만썩헌 거여. 경허난 나가 막 우스완. 아이고. 이걸로 어떵 멩질을 허영 먹어? 아니, 놓는 거 보난 요멘씩 헌 거라. 경허난 생선도 우리 어머니는 이만씩 큰 거 헹 놧는디 여기 오난 요멘씩헌 거 노난 영 쪼개곡 쪼개곡.[1272]

그러니까게 옛날 말도 잇잖아. 우 족족 알 골로로. 그 말이 지금도 우리가

1268) 박순자 구술.
1269) 우명창 구술.
1270) 박순자 구술.
1271) 우명창 구술.
1272) 박순자 구술.

종손덜이 영 나이 앚임만 허민 우에 사름 우 족족 알 골로로. 그러니까 우에부떠 족게 놓고 헤도 골로로 다 주라 이거라.[1273] 그리고 여기 쭉허게 앚이면 그 당시는 제사 때나 영 그 멍석 쫙 페와. 멍석 아래도 멍석 바깟디도 멍석이라. 딱 페우게 뒈면 그게 사실상 영 보면은 상이 없거든. 젤 높은, 그 집안에 예를 들엉 그때 뭐 환갑이 넘은 하르방덜. 그 하르방덜 만큼은에 이제도 뭐, 뭔 세상이 정말 그 뭔가 그 경로사상으로 헤서 웃주는 그런 사상이 계속 이어졋잖아이. 그래서 그 밑에는 전부 뭐 땅에. 멍석 우이 앚앙인에 영 식사허고. 또 예를 들면 정반이라고 영 허영은에 주는 거라. 아까 나도 지금 고기 요만이. 어 정말 그건 뭐 어짜피 헐 수 없는 세대엿지. 게도 자꾸 나눠 먹는 식이 그런 차이가 많지.[1274] 나는 궨당이 엇거든. 궨당이 엇언 허니까 궨당 많은 디 씨집을 완 보난 궤기적갈을 허는 거나 무신거나 깜짝 놀라는 거라. 이녁 집이서 보단 거 허고 이디 오난 이걸로 백 명을 먹어져, 백 명을 먹어져 허는디. 허는 거 보난 요멘씩.[1275] 이 종손집일수록 더 허여. 웨냐 허면은 집안이 다 모인다 말여. 우리 종손 아닌데, 또, 우린 형제지간이 많아 노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뭐 어짜피 사름덜이 안 오지도 못허지. 막 와 노민 뭐 어떨 거여.[1276]

아까 얘기하듯이 떡은 몽땅 꿰어. 솔편, 절편 몽땅 다 자랑이야, 우리는. 젊은 때 어린 때니까 야, 이 떡 해서 어머니한테 가져가면 아, 며칠 먹는 거야. 마른고기, 나 여기 와서 아주 놀랐어. 난 친정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산적도 이만큼씩 생선도 이만큼씩 해서 했는데. 에,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이, 예를 들어 권당이 적은 데는

1273) 강경찬 구술.
1274) 우명창 구술.
1275) 박순자 구술.
1276) 우명창 구술.

그렇게 하지만 백 명 이상 되면 사과도 이만큼씩 잘라. 또 바닷고기도 요거.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식구 없는 데 고기나 백 명 넘는 고기나 똑같아. 더 못 하게 하더라고. 백 명 넘은 명질이면은 고기가 조금 낫게 사야 될 건데. 만약에 식구 없어도 우리는, 우리 어머니 성질이 조끔 통이 큽니다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돼지고기 사도 이만큼 사고. 여긴 와서 보니까 돼지고기가 요만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서. 아이고, 이걸로 어떻게 명질을 하여서 먹어? 아니, 놓는 거 보니까 요만큼씩 한 거야. 그러니까 생선도 우리 어머니는 이만큼씩 큰 거 해서 놨는데 여기 오니까 요만큼한 거 놓으니까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그러니까 옛날 말도 있잖아. '우 족족 알 골로로'[1277]. 그 말이 지금도 우리가 종손들이 이렇게 나 앉기만 하면 위에 사람 '우 족족 알 골로로'. 그러니까 위에부터 적게 놓고 해도 골고루 다 주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 쭉하게 앉으면 그 당시는 제사 때나 이렇게 그 멍석 짝 펴. 멍석 아래도 멍석 바깥에도 멍석이야. 딱 펴게 되면 그게 사실상 이렇게 보면 상이 없거든. 젤 높은,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환갑이 넘은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 만큼은 에 이제도 뭐, 뭔 세상이 정말 그 뭔가 그 경로사상으로 해서 위하는 그런 사상이 계속 이어졌잖아. 그래서 그 밑에는 전부 뭐 땅에. 멍석 위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또 예를 들면 '정반'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아까 나도 지금 고기 요만큼. 어 정말 그건 뭐 어차피 할 수 없는 세대였지. 그래도 자꾸 나눠 먹는 식이 그런 차이가 많지. 나는 권당이 없거든. 권당이 없어서 하니까 권당 많은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고기산적을 하는 거나 무엇이나 깜짝 놀라는 거야. 이녁 집에서 보던 거 하고 여기 오니까 이걸로 백 명을 먹어져, 백 명을 먹어져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요만큼씩. 이 종갓집일수록 더 해. 왜냐 하면은 집안이 다 모인다 말이야. 우리 종손 아닌데, 또 우린 형제지간이 많아 놓으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사람들이

1277) '우 족족 알 골로로'는 제사 따위가 있을 때 반기를 나눠 줄 때, '위는 작게 아래는 골고루'의 의미다. 즉 위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나눠 줘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표현이다.

안 오지도 못하지. 막 와 놓으면 뭐 어떨 거야.

(5) 멩질옷

아이고, 우리 어렷을 댁에는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에 속바지 긴 거. 이레 영 다리 무릎 ᄃᆞ리(?) 놔근에 영 무릎 아레 오게게. 우리 아이덜토 색동저고린 아녀도 그치룩헨 입저낫어. 옛날에는 속바지를 이 무릎 알러레 내려와사 그것이 최고라낫어. 치마가 ᄍᆞᆯ르고.[1278] 우리는 여기서 컷고 훈련소가 여기 잇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예를 들어 국민학교 다닐 때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부 군복덜을 제조헨. 게난에 군복도 사지라고 헤서 궹장히 질겨. 미국에서 온 그 군복 사지. 그걸 물들여 갖고 학생복도 만들고. 그걸 전부 학생덜 그 복장덜 맞추는 디가 잇어. 또 신발도 마찬가지. 요즘 뭐 운동화 뭐 허주마는 그 당시 워카 같은 거나 모든 거 보면은 군대로 헨에 우리는 입언 다녓어. 우리 동네만큼. 또 탄피는 우리 저 가방. 요렇게 헤서 만든 건데 보면 딱 두러메영 뎅기민 똑 좋아. 그거 상당히 많이 사용헷주. 오십 년대나 아, 육십 년대 초중반까지만 허드레도 여기 있는 군인들의 군복으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앗어. 딴 디는 멩지옷, 무명옷을 입고 막 뎅겻주만 우리는 사지옷이야. 아주 질기고. 하나 허면 졸업헐 때까지 입지.[1279]

아이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에 속바지 긴 거. 이리로 이렇게 다리 무릎 ‘ᄃᆞ리(?)’ 놔서 이렇게 무릎 아래 오게. 우리 아이들도 색동저고린 않아도

1278) 박순자 구술.
1279) 우명창 구술.

그처럼해서 입혔었어. 옛날에는 속바지를 이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그것이 최고였었어. 치마가 짧고. 우리는 여기서 컸고 훈련소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부 군복들을 제조해서. 그러니까 군복도 '사지'[1280]라고 해서 굉장히 질겨. 미국에서 온 그 군복 서지. 그걸 물들여 갖고 학생복도 만들고. 그걸 전부 학생들 그 복장들 맞추는 데가 있어. 또 신발도 마찬가지. 요즘 뭐 운동화 뭐 하지만 그 당시 워커 같은 거나 모든 거 보면 군대로 해서 우리는 입고서 다녔어. 우리 동네만큼. 또 탄피는 우리 저 가방. 요렇게 해서 만든 건데 보면 딱 둘러매서 다니면 똑 좋아. 그거 상당히 많이 사용했지. 오십 년대나 아, 육십 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군인들의 군복으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 딴 데는 명주옷, 무명옷을 입고 막 다녔지만 우리는 서지옷이야. 아주 질기고. 하나 하면 졸업할 때까지 입지.

(6) 제복

제복은 우리가 봄만 허민 제사 때 창옷 입어나근에 도복 입지 않습니까? 도복 입엉 거는 나이 많은 분들은 한 번 헤서 것을 빨아서 다림질헷다가 풀헤서 입는 거고. 우리가 옷을 입는 학생덜이나 이런 아이덜은 멩질이 지남만 허민 새 옷을 입는 것이 목적이엇지게.[1281] 곤밥 먹고.[1282] 그것뿐이엇어. 제복 준비라는 것이 매해 못헤예. 한번 헤. 우리가 결혼헐 때 그만허민 바지저고리하고 뭐냐 두루막하고 이런 그 도복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280) '사지'는 '서지(serge)'를 말한다. 무늬가 씨실에 대하여 45도로 된 모직물. 본래는 견모 교직(絹毛交織)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근래에는 주로 소모사(梳毛絲)로써 능직으로 짠 옷감을 이른다. 바탕이 올차고 내구성이 있어 학생복 따위에 사용된다.
1281) 강경찬 구술.
1282) 박순자 구술.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그 도복은 입잖습니까?[1283] 도복 제사 때 입는 거. 그 웨에 두루마기 이제 멩질 때 입는 거. 그거는 보통 우리가 한 번 만들면은 오래 입엇지.[1284]

(제사 때) 우리는 나이가 들고 하니까 도복을 입는데 이제는 팔십이 넘고 이젠 구십 세가 뒈니까 제사 ᄀᆞ뜬 것도 아이덜안티 인계허여. 아이들은 도복 입어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디가 칠십년이 뒈는데, 그 향교에 다닐 적에 그 띠. 도복띠가 지금도 잇어예. 도복도양, 도복은 그 뭐냐면 아버지가 그 도복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 그것을 죽음에서 그 도복은 입고서 가고, 띠는 그래도 남아 잇어예. 도복 같은 거 헤도 돌아갈 때 수의로 입을라고 다 끗ᄁᆡ지 놔둬예.[1285] 옛날 어른덜, 요즘 사름덜 허지 안 허거든. 나도 우리 집 아방 거 ᄒᆞᆫ 불 허엿단 화재 나멍 허여 불고. 그다음에는 또 베가 좋덴 헨 베로 헨 놔뒀어. 이제사 건.[1286]

제복은 우리가 보기만 하면 제사 때 창옷 입고나서 도포 입지 않습니까? 도포 입어서 거는 나이 많은 분들은 한 번 해서 것을 빨아서 다림질했다가 풀해서 입는 거고. 우리가 옷을 입는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명질이 지나기만 하면 새 옷을 입는 것이 목적이었지. 흰밥 먹고. 그것뿐이었어. 제복 준비라는 것이 매해 못해요. 한번 해. 우리가 결혼할 때 그만하면 바지저고리하고 뭐냐 두루마기하고 이런 그 도포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그 도포는 입잖습니까? 도포 제사 때 입는 거. 그 외에 두루마기 이제 명질 때 입는 거. 그거는 보통 우리가 한 번 만들면 오래 입었지.

(제사 때) 우리는 나이가 들고 하니까 도포를 입는데 이제는 팔십이 넘고 이젠 구십

1283) 강경찬 구술.
1284) 우명창 구술.
1285) 강경찬 구술.
1286) 박순자 구술.

세가 되니까 제사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인계해. 아이들은 도포 입어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지가 칠십년이 되는데, 그 향교에 다닐 적에 그 띠. 도포띠가 지금도 있어요. 도포도요, 도포는 그 뭐냐면 아버지가 그 도포는 아버지가 돌아갈 때 그것을 죽음에서 그 도포는 입고서 가고. 띠는 그래도 남아 있어요. 도포 같은 거 해도 돌아갈 때 수의로 입으려고 다 끝까지 놔둬요. 옛날 어른들, 요즘 사람들 하지 않거든. 나도 우리 집 아버지 거 한 벌 하였다가 화재 나면서 하여 버리고. 그다음에는 또 베가 좋다고 해서 베로 해서 놔뒀어. 이제야 건.

(7) 과세

세배 가면은 제일 큰 왕할망 왕하르방안티 허곡 그다음 부모안티 허고. 우선은 젤 왕하르방 왕할망안테 헌 다음에 부모님 그다음 형님 순서로 그렇게 헤서 허고. 츰, 복잡허긴 복잡허지. 뚤덜토 오고 누님덜토 허고. 멩질 뒷날 오지. 뒷날 와서 세배허고. 게난 옛날에는 이 세뱃돈이 없엇어, 일절. 이 중간이지, 세뱃돈도. 먹엉 살젠. 세배 ᄌᆞ손덜 세배 왕 헤도 뭐 아이 착허다 헹 거로 끗나 불지. 돈이 어딧어. 안 헷지. 아, 상에 세배허레 뎅겻어. 이 상 잇는 데 동네 ᄋᆞ섯 반디민 ᄋᆞ섯 반디 다 강 절허영은에. 게영 보민 뭐 술 ᄒᆞᆫ 잔 먹으라 헤도 그냥 나와 부는 예가 많아. 또 그 사름도 피곤허지. 동네 사름 다 모여드니까. 어떻게 ᄎᆞ릴 거라게. 알아 맞춰 아무 것도 먹지 아녕 나와 부는 예가, 거의 다 절만 헤뒁. 그것이 풍속이지 풍습. 배려허는 거주. 그러다가 이 중간에 딱 끊어 버렷어. 하이튼 내가 셍각헐 땐 삼사십년 뒈는가? 딱 끊어 분지. 이거 아니다. 허나 마나 아무 필요 없는 거 뎅기지 말자, 초상난 디 세배 치우자. 쓸데기없는 짓거리다, 딱 치와 볏지.[1287]

1287) 강창유 구술.

세배 가면은 제일 큰 '왕할망'[1288] '왕하르방'[1289]한테 하고 그다음 부모한테 하고. 우선은 젤 '왕하르방' '왕할망'한테 한 다음에 부모님 그다음 형님 순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참, 복잡하긴 복잡하지. 딸들도 오고 누님들도 허고. 명질 뒷날 오지. 뒷날 와서 세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세뱃돈이 없었어, 일절. 이 중간이지, 세뱃돈도. 먹고 살려고. 세배 자손들 세배 와서 해도 뭐 아이 착하다 해서 거로 끝나 버리지. 돈이 어딨어. 안 했지. 아, 상에 세배하러 다녔어. 이 상 있는 데 동네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다 가서 절하여서. 그래서 보면뭐 술 한 잔 먹어라 해도 그냥 나와 버리는 예가 많아. 또 그 사람도 피곤하지. 동네 사람 다 모여드니까. 어떻게 차릴 거야. 알아 맞혀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나와 버리는 예가, 거의 다 절만 해두고. 그것이 풍속이지 풍습. 배려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중간에 딱 끊어 버렸어.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땐 삼사십년 되는가? 딱 끊어 버린지. 이거 아니다. 하나 마나 아무 필요 없는 거 다니지 말자, 초상난 데 세배 치우자. 쓸데없는 짓거리다, 딱 치워 버렸지.

(8) 요즘 멩질

(요즘 멩질과 옛날 멩질) 차이가 크지. 상에 ᄎᆞᆯ려 놓는 자체가. 옛날에는 아주 간소허게 헷지. 없으니까. 밥이나 허고 국이나 허고. 침떡이나 ᄒᆞ꼼 놓곡 절변, 솔변 뭐 ᄒᆞ꼼 영 허영 헌디 지금은 뭐 무신 포도니 사과니 무신 배니 뭐 막 그런 것 엇어, 옛날엔 아무 것도 안 놧지. 상이 ᄎᆞ리는 물자가 천지지간이지. 상 차리는 게. 너나 나나 잘살아 노니까 달라졋지.[1290]

삼년상 헷다가 복잡허다, 소상 대상ᄁᆞ지 허당. 영장 끗나민 소상. 소상 허던 거 아이 이것도 복잡허다. 게 지금은 저 삭제만 쪼금 허다가, 에 삭제

1288) '왕할망'은 증조할머니를 말한다.
1289) '왕하르방'은 증조할아버지를 말한다.
1290) 강창유 구술,

제 다 영장밧디서 다 제허여근에 아무것도 없어. 걸로 끗. 당일 영장밧디서 축 고헤 불어야. 다음은 제사고 뭐 삭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 올려근에 그해 돌아오민 제사만 헷지. 사십구재는 절간에 강 허는 거지. 절간에 가서 사십구재허고 허지. 장지 모실봉이지. 집에서 안 헤. 가족공동묘지 엇이민 모실봉에 강 헴지. 모실봉에 공동묘지.[1291]

요즘 멩질덜, 에 집안마다 뭐 허는디 우리가 세 번째라이. 나가 얘기허는 건, 우리 큰집이 허단 나가 허단 에 우리 큰집이로 이젠 허난 ᄒᆞᆫ 오년 허난 우리 동세도 나이가 많으니까 육지 아덜신디레 보낸 분 거라게. 나가 ᄒᆞᆫ 이십 년 허단 아버지 제사를 이제 우리 동세신디레 나가 이천삼년도에 이제 메꼇는디 그때에 못허연 나 이천사년도에 메꼇주게. 이천사년도에 메끼난 허다가 나이가 드난 아덜이 육지서 오란 자기가 허켄 헤 가난, 게민 허여도 나 ᄆᆞ음은 또 그게 아니라이. 그러믄 좋다. 육지서 헤도 나는 산으로 강 허겠다. 경 헤서 그때부터는 나가 산소에 가서 헤. 정월 멩질에도 팔월 멩질에도 산에 가서 허자. 우에 그 조상덜 잇는 디 가서 먼저 제단에 제 올려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산에 가근에 허고, 그디 웃산에 강 술 ᄒᆞᆫ 잔썩 허고. 마음 편안헤, 것이. 직접 산으로 강 헌 것이. 강 보면은 산에 뎅기는 사름 많아. 점점 많아. 산으로 가서 허는 사름덜.[1292] 그런데 지금 집이서 제 이런 문화는 가정마다 다 틀려이.[1293]

(요즘 명질과 옛날 명질) 차이가 크지. 상에 차려 놓는 자체가. 옛날에는 아주 간소하게 했지. 없으니까. 밥이나 하고 국이나 하고. 시루떡이나 조금 놓고 절편, 솔편 뭐 조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뭐 무슨 포도니 사과니 무슨 배니 뭐 막 그런 것

1291) 강창유 구술.
1292) 박순자 구술.
1293) 강경찬 구술.

없어, 옛날엔 아무 것도 안 놨지. 상에 차리는 물자가 천지지간이지. 상 차리는 게. 너나 나나 잘살아 놓으니까 달라졌지.

삼년상 했다가 복잡하다, 소상 대상까지 하다가. 영장 끝나면 소상. 소상 하던 거 아니 이것도 복잡하다. 글쎄 지금은 저 삭제만 쪼금 하다가 에 삭제 제 다 장지에서 다 제해서 아무것도 없어. 걸로 끗. 당일 장지에서 축 고해 버려야. 다음은 제사고 뭐 삭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 올려서 그해 돌아오면 제사만 했지. 사십구재는 절간에 가서 하는 거지. 절간에 가서 사십구재하고 하지. 장지 모슬봉이지. 집에서 안 해. 가족공동묘지 없으면 모슬봉에 가서 하고 있지. 모슬봉에 공동묘지.

요즘 명질들, 에 집안마다 뭐 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야.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큰집에 하다가 내가 하다가 에 우리 큰집으로 이젠 하니까 한 오년 하니까 우리 동서도 나이가 많으니까 육지 아들한테로 보낸 버린 거야. 내가 한 이십 년 하다가 아버지 제사를 이제 우리 동서한테로 내가 이천삼년도에 이제 맡겼는데 그때에 못해서 나 이천사년도에 맡겼지. 이천사년도에 맡끼니까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들이 육지서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가니까, 그러면 하여도 내 마음은 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좋다. 육지서 해도 나는 산소로 가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산소에 가서 해. 정월 명질에도 팔월 명질에도 산소에 가서 하자. 위에 그 조상들 있는 데 가서 먼저 제단에 제 올려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하고, 거기 선묘에 가서 술 한 잔씩 허고. 마음 편안해, 것이. 직접 산소로 가서 하는 것이. 가서 보면 산소에 다니는 사람 많아. 점점 많아. 산소로 가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제 이런 문화는 가정마다 다 달라.

(9) 지월제 · 재산 분배

게난 종손은 지월제라고 헤 가지고 토지를 정해, 부모덜이. 나 죽으면은

이거 지월제다, 제사 멩질헐 때 큰아덜이 사용헤라. 지월제를 벨도로 주는 거지. 공짜로. 자기가 희생헤서 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안은 물론이고 종손안티덜 특별히 그 밧을 내줘. 종손 식게 멩질 지월제라고 헤 가지고. 지월제를 딱 떼 놓고 이 정도민 식게 멩질을 헐 수 잇다. 그다음에는 똑ᄀᆞ뜨게. 사 형제민 사 형제가 똑ᄀᆞ뜨게. 밧이 멧 개민 반 갈라서 어느 아들 어느 아들. 밧이 엇이민 서너 니 개 갈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갈라서 고지헹은에 선 놔서 다 하나씩 가져라. 게영 딱 ᄀᆞ뜨게 받앗지. 나도 받앗지. 크겐 안 받아도 조금 받앗지. 게서 똑ᄀᆞ뜨게 줘. 지월제만 ᄯᅳ로 떼어 놓고. 그다음에 똑ᄀᆞ뜨게 분배해.[1294]

그러니까 종손은 '지월제'[1295]라고 해 가지고 토지를 정해, 부모들이. 나 죽으면 이거 '지월제'다, 제사 명질할 때 큰아들이 사용해라. '지월제'를 별도로 주는 거지. 공짜로. 자기가 희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안은 물론이고 종손한테들 특별히 그 밭을 내줘. 종손 제사 명질 '지월제'라고 해 가지고. '지월제'를 딱 떼 놓고 이 정도면 제사 명질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똑같게. 사 형제면 사 형제가 똑같게. 밭이 몇 개면 반 갈라서 어느 아들 어느 아들. 밭이 없으면 서너 네 개 나눠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이랑해서 선 놔서 다 하나씩 가져라. 그래서 딱 같게 받았지. 나도 받았지. 크겐 안 받아도 조금 받았지. 그래서 똑같게 줘. '지월제'만 따로 떼어 놓고. 그다음에 똑같게 분배해.

2) 정월대보름

1294) 강창유 구술.
1295) '지월제'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설정한 묘위토를 말한다. 즉 표준어 '제전'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소분밧, 제월전, 제월조, 좌전' 등으로 쓰인다.

(1) 연날리기 · 돌싸움 · 칼싸움

연날리기 헷주게.[1296] 연날리기 많이 헷어. 거 재미잇잖아게. 나도 연에 그 유리 막 뿟아근에 그거 영 칠허민 연타발헤긴에. 유리ᄀᆞ르 멕이는 거주게.[1297] 보리밧디서 연날령 아이덜. 우리 아이덜도 헤낫어. 보리밧디 강 보리 불리젠 허멍.[1298] 대개 정월달에 많이 헷어. 그 놀이허고, 예를 들엉 그 당시는 뭐냐믄, 에, 대개 보면 그 돌싸움이라고 헤서 기마 비슷허게 헤근에 그 놀이덜, 건 많이 헷주, 뭐. 칼싸움. 그 당시는 일본 놈덜이 그 칼 잘 쓰잖아게. 그걸 모방헌 것이 여기서 칼 나온 거고. 토막이라고 헤서 야구. 야굴 토막. 공 이만헌 거 딱 치면 이것도 거세기 치지 아녕 손으로.[1299] 우리 씨아방 그 당시에 보난 남총. 남총 허여논 거 우리 여기 우리 씨아방 집이랏주게. 게난 그 당시에 그 검은 도당집이라 노니까 이제 튿언 보니까 안네 내부 수리허멍 튿엉 영 보난 남총.[1300] 저 그거는 왜 그렇게 민병대라고 헤서 사삼사건 에 전후로 헤서 그 민병대를 조직헌 거라. 어떻게 민병대냐 허면은 이제 그 당시 전쟁이 나면은 노인들이 직접 전선에 나성 전투를 안 허는 거고. 물자 이송. 실탄, 식량, 요런 사름을 양성허기 위헤서 대정국민학교서 이 그대로 만든 총 목총으로 헤서 훈련받앗어. 게난 난 한밤에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그, 나가 새벽이 깨어나젼. 우리 어머니가 딱 허는 말이, 아, 춤, 아버지안티 얘기라. 명○이 아버지 언치냑 꿈 이상헙디다. 어, 뭐고? 물 저디 저 시냇물 실르레 갓는데 이게 뜨는 물이 저 바가수

1296) 우명창 구술.
1297) 우명창 구술.
1298) 박순자 구술.
1299) 우명창 구술.
1300) 박순자 구술.

가 똑 ᄀᆞᆯ아집디다, 자꾸. 경 헨에 ᄒᆞᆫ 삼사일 시니까 민병대로 징집이 뒈분 거라. 게난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조그만이 걱정헷어. 가민 죽으니까. 그때는 경헨 걱정허여. 훈련받안에 끗난 한 이십 일 만에 헤지 뒈대.[1301]

연날리기 했지. 연날리기 많이 했어. 거 재미있잖아. 나도 연에 그 유리 막 빻아서 그거 이렇게 칠하면 연싸움해서. 유릿가루 먹이는 거지. 보리밭에서 연날려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했었어. 보리밭에 가서 보리 밟자고 하면서. 대개 정월에 많이 했어. 그 놀이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뭐냐하면, 에, 대개 보면 그 말싸움이라고 해서 기마 비슷하게 해서 그 놀이들, 건 많이 했지, 뭐. 칼싸움. 그 당시는 일본 놈들이 그 칼 잘 쓰잖아. 그걸 모방한 것이 여기서 칼 나온 거고. '토막'이라고 해서 야구. 야굴 토막. 공 이만한 거 딱 치면 이것도 거세기 치지 않고 손으로. 우리 시아버지 그 당시에 보니까 나무총. 나무총 해 놓은 거 우리 여기 우리 시아버지 집이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검은 함석집이어 놓으니까 이제 뜯어서 보니까 안에 내부 수리하면서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총. 저 그거는 왜 그렇게 민병대라고 해서 사삼사건 에 전후로 해서 그 민병대를 조직한 거야. 어떻게 민병대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전쟁이 나면은 노인들이 직접 전선에 나서서 전투를 안 하는 거고. 물자 이송. 실탄, 식량, 요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정국민학교서 이 그대로 만든 총 목총으로 해서 훈련받았어. 그러니까 난 한밤에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그, 내가 새벽에 깼어. 우리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아, 참, 아버지한테 얘기야. 명○의 아버지 엊저녁 꿈 이상합디다. 어, 뭐고? 물 저기 저 시냇물 실으러 갔는데 이게 뜨는 물이 저 양동이가 똑 가라앉습디다, 자꾸. 그렇게 해서 한 삼사일 있으니까 민병대로 징집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적잖이 걱정했어. 가면 죽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걱정해. 훈련받아서 끝나서 한 이십 일 만에 해제 되대.

1301) 우명창 구술.

(2) ᄃᆞᆯ구경

정월대보름에 그런 거 없는디 떡허영 먹엇어. 그리고 ᄃᆞᆯ구경 가고. 저 높은 동산에 가까운 디 높은 동산에 올라강 ᄃᆞᆯ 뜨는 거 보민 뒈지. 좀 헌 사름은 송악산도 갓주마는 경 멀리 안 가. 이제는 젊은 아이덜 뭐 차 타곡 허니까. 걸엉 뎅길 때니까. 또 그 높은 동산에서 이렇게 ᄃᆞᆯ구경 가주게.[1302]

정월대보름에 그런 거 없는데 떡해서 먹었어. 그리고 달구경 가고. 저 높은 동산에 가까운 데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달 뜨는 거 보면 되지. 좀 하는 사람은 송악산도 갔지만 그렇게 멀리 안 가. 이제는 젊은 아이들 뭐 차 타고 하니까. 걸어서 다닐 때니까. 또 그 높은 동산에서 이렇게 달구경 가지.

3) 걸궁

정월달이 되면은 그 여자 분덜이 걸궁을 허여. 걸궁허여근에 막 놀멍 집기 헤당 것도 궨찮게 사는 집이 강 내놔 달렌 비는 거. 그거는 나가 결혼헤 가지고 내가 그거는 많이 보고. 결혼헤 가지고 이 마을에 헤서 당당당당 두드리면서. 이제 그거 뭐허면 지금 같으면 걸궁이지게. 지금 같으면 걸궁인디 그때는 일월달 뒈면은 집집마다 헤영 뎅기멍 그 괜찮게 사는 집이 가근에 좀 마당에 빙빙빙빙 돌면서 절허여 가면서 뭐 어떻게 ᄒᆞᆫ 푼 보태달렌 허는 거주. 그런 식은 정월 보름날. 그때는 저 꽹과리도 치고 또 징도 치고. 그 옷은 바지저고리 입는 사름이 잇고, 이제 머리띠 허여근에 영 허여근에 허민은. 그 동네마다 돌면서 그 마귀 나가라고 허면서 그 뭐를

1302) 강창유 구술.

허는 거란게. 게난 우리 집이 좋게 헤 달렌 헤근에 아무 집이나 안 갓어, 그때는. 돈 나옴직헌 디 막 돌면서. 나도 막 노는 거 좋아허난. 애기 ᄃᆞᆯ아 부난 그 어른덜이영은 부뜨질 못헷어. 부뜨지를 못헤도 보면은 우리 집 ᄀᆞ뜬 디는 오지도 안허고 강 이장네 집인 갓일 거라. 빙빙빙빙 돌멍 헤근에 강 뎅기멍 저 춤추고 뭐 허단.[1303] 우리는 골목 셔 놓고 뭐 줸 것이 엇어 놓니까. 그 당시에는 것도 허주마는 장밧디 간만 허면 영 봄만 허민 저 사름이 우리 동네에서는 경제가 좀 낫고, 장 끗낭 간만 허민 뒈지도 ᄒᆞᆫ 머리 잡앙근에 또 술 ᄒᆞᆫ 잔이라도 먹고 놀 수 잇지 안허냐 헐 때, 영 헤근에 그때 확 심어근에 상에 만들아근에 그디 테와근에 동네 한 번썩 돌앗어이. 이거 재미잇는 부분이라.[1304] 사름이 돌아간 다음에 영장 다 끗나고 헌 다음에는 상뒤꾼덜이 그 당시는 전부 사름이 허기 때문에, 뭐 삽으로 땅 파긴에 허는 것도 노동으로, 다 사름으로 허거든. 그러면 젤 중요헌 거는 요거를 사름 한 사름을 모셔야 뒈여. 모시기 위헤서는 우리 부락 전체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제일 잘사는 것이. 돈이 여유가 잇다든지 쉐 장시를 많이 헤서 돈이 많은 이런 분덜, 이런 분덜 모시기 위해서는 든든헌 장정들이 잇어야 뒈. 꼼짝 못허게 하는. 그래서 짜는 거라. 예를 들어서 그 소낭 비어서 딱 짜놓고 ᄒᆞᆫ 서너 명을 딱 심어놩 그 우티 테완 게연 딱 모시는 거라. 모시는데 기가 멕히지. 모시는 과정에 보면은 그냥 시커멍 그자 숫거 먹허고. 사또 모자 막 씌우고 허연에 동네가 완전 난리 나 불어.[1305] 경헤영 도세기 잡고.[1306] 그 당시 상점마다 막 돌민 돈 줘야 뒈. 안 주민 난리 나는 거라. 멧 군데 돌고. 돈 잇는 사름은 좀 희사도 비슷허게 내고.

1303) 박순자 구술.
1304) 강경찬 구술.
1305) 우명창 구술.
1306) 박순자 구술.

경 헤서 정말 동네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주 큰 잔치 벌어져. 영장 끗난 날.[1307] 쉬염허고 헌 하르방. 그 하르방 헤양헌 옷 입엉은에 모셔와난 거 기억이 나져게. 그 영장밧디 갓단 그 하르방 허연 갓단 소낭 얽언 허연 톡 테완 허난 이 흥 허멍 그자 그 하르방 어느 하르방인지 몰르커라.[1308] 그때 그 놀이는 그 우리가 그 장사 끝나서는 누구 모셧다는 것이. 그 마을에서 경제가 좀 윤택한 분을 우리가 그 마을에서 모셧다 이런 거벳기. 딴 건.[1309] 그 당시는 다 끗나서 장사 끗나게 뒈면은 오늘은 하나의 그 습관 비슷허게 그 관행 비슷하게 그 당시엔 그 큰 잔치지.[1310] 이 뭐냐면 털모자 쓰고 헤근에 거지ᄀᆞ치 ᄒᆞ여근에 ᄒᆞᆫ쪽에 손 끊어서 영만 봄만 허민, 진짜 그 어느 산도깨비가.[1311] 기가 멕히지. 게난 사름마다 거 그 솟 아래 보면은 그시럭 닮은 걸로 막 미쳐 놓믄 사름 안 닮아. 우이 그자 주젱이 비슷헌 거 썽 사또 비슷허게 이제. 우리 아버지 그 모션에 막 헐 때도게 그 사또상에 보면은 그 주젱이 쓴 거 사또 일로 이제. 장사를 끗난 다음에 바로 그거주. 미풍양속을 ᄂᆞ려온 거. 전해 내려오는 전설.[1312] 이번이랑 저 사름 허여근에 불러근에 헤보자 헤여근에, 남몰래 헤여근에 소낭 딱 끈엉덜 다 멘들아 놩은에 저 사름 테우라 허민 큰큰헌 장남덜 허연 딱 심언 헨. 경○는 ᄂᆞ시 못 심엇어, 경○는 거 ᄃᆞᆯ안 터젼 ᄃᆞᆯ아나 불언. 에고 거 몸부리치고.[1313] 겐디 여자덜이 난리 나 불어. 가민 소소헌 도세기 ᄀᆞ튼 거 잡아먹어 불건든, ᄆᆞᆫ딱. 바깟디 장ᄃᆞᆨ 암ᄐᆞᆨ ᄒᆞᆯ 거 엇이 막 ᄀᆞ려 노니까. 집에 각시가

1307) 우명창 구술.
1308) 박순자 구술.
1309) 강경찬 구술.
1310) 우명창 구술.
1311) 강경찬 구술.
1312) 우명창 구술.
1313) 박순자 구술.

ᄀᆞ만이 셔게. 우리 재산 다 먹엄젠 허멍. 재밋엇어. 한 칠십년도 중반ᄀᆞ지 헤실 거라.[1314]

정월이 되면 그 여자 분들이 걸립을 하여. 걸립하여서 막 놀면서 집기 해다가 것도 괜찮게 사는 집에 가서 내놔 달라고 비는 거. 그거는 내가 결혼해 가지고 내가 그거는 많이 보고. 결혼해 가지고 이 마을에 해서 당당당당 두드리면서. 이제 그거 뭐하면 지금 같으면 걸립이지. 지금 같으면 '걸궁'인데 그때는 일월 되면은 집집마다 해서 다니면서 그 괜찮게 사는 집에 가서 좀 마당에 빙빙빙빙 돌면서 절하여 가면서 뭐 어떻게 한 푼 보태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식은 정월 보름날. 그때는 저 꽹과리도 치고 또 징도 치고. 그 옷은 바지저고리 입는 사람이 있고, 이제 머리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동네마다 돌면서 그 마귀 나가라고 하면서 그 뭐를 하는 거던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좋게 해 달라고 해서 아무 집에나 안 갔어, 그때는. 돈 나옴직한 데 막 돌면서. 나도 막 노는 거 좋아하니까. 아기 데려 버리니까 그 어른들이랑 붙질 못했어. 붙지를 못해도 보면 우리 집 같은 데는 오지도 않고 강 이장네 집엔 갔을 거야. 빙빙빙빙 돌면서 해서 가서 다니면서 저 춤추고 뭐 하다가. 우리는 골목 있어 놓고 뭐 쥔 것이 없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것도 하지만 장지에 가기만 하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는 경제가 좀 낫고, 장 끝나서 가기만 하면 돼지도 한 마리 잡아서 또 술 한 잔이라도 먹고 놀 수 있지 않냐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때 확 잡아서 상여 만들어서 거기 태워서 동네 한 번씩 돌았어. 이거 재미있는 부분이야.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영장 다 끝나고 한 다음에는 상두꾼들이 그 당시는 전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삽으로 땅 파서 하는 것도 노동으로, 다 사람으로 하거든. 그러면 젤 중요한 거는 요거를 사람 한 사름을 모셔야 되어.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 전체가 가만히 보면 여기서 제일 잘사는 것이. 돈이 여유가 있다든지 소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은 이런 분들, 이런

1314) 우명창 구술.

분들 모시기 위해서는 든든한 장정들이 있어야 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소나무 베어서 딱 짜놓고 한 서너 명을 딱 잡아놔서 그 위에 태워서 그래서 딱 모시는 거야. 모시는데 기가 막히지. 모시는 과정에 보면 그냥 시커먼 그저 숯검정하고. 사또 모자 막 씌우고 해서 동네가 완전 난리 나 버려. 그렇게 해서 돼지 잡고. 그 당시 상점마다 막 돌면 돈 줘야 돼. 안 주면 난리 나는 거야. 몇 군데 돌고. 돈 있는 사람은 좀 희사도 비슷하게 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동네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주 큰 잔치 벌어져. 영장 끝난 날. 수염하고 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하얀 옷 입어서 모셔왔던 거 기억이 나져. 그 장지 갔다가 그 할아버지 해서 갔다가 소나무 얽어서 해서 톡 태워서 하니까 이 흥 하면서 그저 그 할아버지 어느 할아버진지 모르겠어. 그때 그 놀이는 그 우리가 그 장사 끝나서는 누구 모셨다는 것이. 그 마을에서 경제가 좀 윤택한 분을 우리가 그 마을에서 모셨다 이런 거밖에. 딴 건. 그 당시는 다 끝나서 장사 끝나게 되면 오늘은 하나의 그 습관 비슷하게 그 관행 비슷하게 그 당시엔 그 큰 잔치지. 이 뭐냐면 털모자 쓰고 해서 거지같이 하여서 한쪽에 손 끊어서 이렇게만 보기만 하면, 진짜 그 어느 산도깨비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거 그 솥 아래 보면 그으름 같은 걸로 막 묻혀 놓으면 사람 안 같아. 위에 그저 주저리 비슷한 거 써서 사또 비슷하게 이제. 우리 아버지 그 모셔서 막 할 때도 그 사또 상에 보면 그 주저리 쓴 거 사또 일로 이제. 장사를 끝난 다음에 바로 그거지. 미풍양속을 내려온 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이번에랑 저 사람 하여서 불러서 해보자 하여서, 남몰래 하여서 소나무 딱 잘라서들 다 만들어 놔서 저 사람 태워라 하면 크나큰 장남들 하여서 딱 잡아서 했어. 경○는 도무지 못 잡았어, 경○는 거 달려서 터져서 달아나 버렸어. 에고 거 몸부림치고. 그런데 여자들이 난리 나 버려. 가면 소소한 돼지 같은 거 잡아먹어 버리거는, 몽땅. 바깥에 수탉 암탉 할 거 없이 막 깔겨 놓으니까. 집의 각시가 가만히 있어. 우리 재산 다 먹고 있다고 해서. 재밌었어. 한 칠십년도 중반까지 했을 거야.

4) 조왕제 · 토신제 · 마을제

그 절에 다니는 사름은 조왕제 같은 거이, 토신제 같은 데이 이치룩허니까. 우리도 허다가 나이 들고 허니까 안 헤이. 이제는 점점 다 이것이 우리가 허더라도 또 우리 아덜덜이 안 헤이. 허니까 이쪽에서 이 대정 이 상모 지역은이 대부분 허는 디가 잘 없어. 이 당 같은 것도 잘 없고.[1315] 그런 거는 어디가 잘 허느냐 허면은예 저 토산데레 가면은 그레는이 일등이라. 완전히.[1316] 동쪽더레가 미신을 많이 믿주, 동쪽에는. 저기 영락리.[1317] 영락리가 더 허여. 다른 마을에서는 일 년에 한 번 마을제를 지내지 안헙니까? 여긴 없어. 우리가 그 어릴 때부떠 보더래도 아버지가 마을 책임자를 헷으니까 마을제 헌다 말이라도 ᄒᆞᆫ 번 들엇을 건데 없어.[1318]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조왕제 같은 거, 토신제 같은 데 이처럼하니까. 우리도 하다가 나이 들고 하니까 안 해. 이제는 점점 다 이것이 우리가 하더라도 또 우리 아들들이 안 해. 하니까 이쪽에서 이 대정 이 상모 지역은 대부분 하는 데가 잘 없어. 이 당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런 거는 어디가 잘 하느냐 하면은요 저 토산으로 가면 그리는 일등이야. 완전히. 동쪽으로가 미신을 많이 믿지, 동쪽에는. 저기 영락리. 영락리가 더 하여. 다른 마을에서는 일 년에 한 번 마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긴 없어.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보더라도 아버지가 마을 책임자를 했으니까 마을제 한다 말이라도 한 번 들었을 건데 없어.

1315) 강경찬 구술.
1316) 박순자 구술.
1317) 우명창 구술.
1318) 강경찬 구술.

5) 당제

• 할망당

당 잇엇지게. 할망당. 게니까 정월달에 집집마다 씰, 곤쏠, 또 센꼬 그 가졍강은에 쏠은 그 심방이 강 이거 허멍 굿허여. 게민 심방안티 주면은 그 쏠 올령근에 굿허영은에 쏠은 다 심방이 ᄋᆞ져가 불지. 정월들이라. 정월, 좋은 날 택헤 가지고. 지금은 안 헤. 당, 지금 거의 없어지고 형치만 실거라, 몰라도. 지금 이 상모리에선 운진항. 하모일리, 저 멜캐엔 헌 디. 우리 집사름도 그디 뎅겨난디. 또 하모 저 서쪽에 가면 또 당 잇고.[1319]

당 있었지. '할망당'[1320]. 그러니까 정월에 집집마다 실, 흰쌀, 또 향 그 가져가서 쌀은 그 심방이 가서 이거 하면서 굿해. 그러면 심방한테 주면은 그 쌀 올려서 굿하여서 쌀은 다 심방이 가져가 버리지. 정월이야. 정월, 좋은 날 택해 가지고. 지금은 안 해. 당, 지금 거의 없어지고 형체만 있을 거야, 몰라도. 지금 이 상모리에선 운진항. 하모일리, 저 '멜캐'[1321]라고 한 데. 우리 집사람도 거기 다녔었는데. 또 하모 저 서쪽에 가면 또 당 있고.

6) 입춘

샛절은. 젤 많이 헌 게 샛절 들어가면은 동네 사름덜이 윳놀이를 가장 중요헌 것이 샛절. 대개 관상 비슷허게 보는 것도 샛절에 이뤄졋고.[1322]

1319) 강창유 구술.
1320) '할망당'은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여신인 '할망'을 모시는 당이다.
1321) '멜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1리의 바다 밭 이름이다.
1322) 우명창 구술.

놈이 집이 가지 말렌 허여. 샛절드는날.[1323] 그건 맞고. 여기 잇는 분덜은 좀 아까 얘기허듯이 동네서들 윳놀이 많이 헤.[1324] 입춘은 자기만씩. 뭐 앚앙은에 서로 춤 조심허는 거지. 이제 뭐 싸웁지도 말아야 뒈고 욕도 놈안티 허지 말아야 뒈고. 그날은 좋게 지나야 일 년 동안 행복을 돌아온다 헤서. 멩심헌 날이엔, 입춘. 돈도 쓰지 아녀고. 입춘날은 돈 쓰면은 입춘 첫해 시작허는 날이니까 돈이 줄줄 나가 분덴 경 헤영. 이젠 뭐 입춘에 술도 먹고 담베도 먹곡 뭐 사기도 허고 사주기도 허곡. 일절 돈 안 썻지, 옛날에. 아주 멩심헷지. 딱 ᄒᆞ루. 입춘날 여자 놈이 집 가지 말라 허여. 입춘날 조용허고. 여자 가면 월경이나 오민 비린덴 허는 거주게. 그거 때문에 여자덜은 놈이 집이 가지 말라. 여자는 월경이 오면은 어떡헐 거라. 건 눈으로 봐지는 거라? 게니까 월경 와도 가 불민 안 된다 헤서. 조심허라, 여자덜은 놈이 집이 저녁 ᄀᆞ뜬 땐 몰라도 아침 새벡인 뎅기지 말라, 입춘날은.[1325]

입춘은. 젤 많이 한 게 입춘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윷놀이를 가장 중요한 것이 입춘. 대개 관상 비슷하게 보는 것도 입춘에 이뤘졌고. 남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하여. 입춘날. 그건 맞고.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아까 얘기하듯이 동네에서들 윷놀이 많이 해. 입춘은 자기만큼씩. 뭐 앉아서 서로 참 조심하는 거지. 이제 뭐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욕도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날은 좋게 지내야 일 년 동안 행복을 돌아온다 해서. 명심한 날이라고, 입춘. 돈도 쓰지 않고. 입춘날은 돈 쓰면 입춘 첫해 시작하는 날이니까 돈이 줄줄 나가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젠 뭐 입춘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사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일절 돈 안 썼지, 옛날에. 아주 명심했지. 딱 하루.

1323) 박순자 구술.
1324) 강경찬 구술.
1325) 강창유 구술.

입춘날 여자 남의 집 가지 말라 해. 입춘날 조용하고. 여자 가면 월경이나 오면 비린다고 하는 거지. 그거 때문에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지 말라. 여자는 월경이 오면 어떡할 거야. 건 눈으로 봐지는 거야? 그러니까 월경 와도 가 버리면 안 된다 해서. 조심해라, 여자들은 남의 집에 저녁 같은 땐 몰라도 아침 새벽엔 다니지 말라, 입춘날은.

7) 보리 밟기

보린 잘 안 ᄇᆞᆯ리고. ᄇᆞᆯ린 사름은 ᄇᆞᆯ렷어.[1326]

보린 잘 안 밟고. 밟은 사람은 밟았어.

□ 2월

1) 영등

영등할망 들어온덴 허주게. 이월 초ᄒᆞᆯ날 영등할망 들어온덴 허는 거지. 제주도는 전부 남자 신은 없고 전부 여신이라, 여신들. 설문대할망, 조왕할망. 조왕하르방엔은 안 헤. 다 여신덜이여, 여신덜. 옛날에 그런 것도 잇어이. 영등할망 들어올 때 빨래허지 말라, 그날만 빨래허지 말렌 헌 말 잇긴 잇엇어. 그 후에는 뭐 자유롭게 했고.[1327] 영등 때만 나민 뭐 허지 말라, 흰옷 ᄲᆞᆯ지 말라 뭐 허연. 흰옷 ᄲᆞᆯ앙 널민 구데기 많이 난다. 냄새 나는

1326) 강창유 구술.
1327) 강창유 구술.

거 많이 난다. 그거 얘기헤도, 에 흔 번 나 허여 보주. 허여 봣어. 구데기랑 마랑 마데기도 안 일어.[1328]

영등할머니 들어온다고 하지. 이월 초하룻날 영등할머니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 제주도는 전부 남자 신은 없고 전부 여신이야, 여신들. '설문대할망', '조왕할망'. '조왕하르방'이라고는 안 해. 다 여신들이야, 여신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 영등할망 들어올 때 빨래하지 말라, 그날만 빨래하지 말라고 한 말 있긴 있었어. 그 후에는 뭐 자유롭게 했고. 영등 때만 되면 뭐 하지 말라, 흰옷 빨지 말라 뭐 해서. 흰옷 빨아서 널면 구더기 많이 난다. 냄새 나는 거 많이 난다. 그거 얘기해도, 에 한 번 나 하여 보지. 하여 봤어. 구더기랑 마랑 '마데기'[1329]도 안 일어.

□ 3월

1) 쳉명

쳉명에 산소 간에 풀도 캐고 손 보고. 산담 ᄀᆞ튼 거 이상 이시민 보수허고, 또 신구간 때 와근에 이 집에나 그런 디 손질허고. 신구간 신이 없다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 부니까 그때 허고. 집에 우영담이나 올레든가 집구석헌 디는 신구간에 손 좀 봐. 청명에는 집엣 일은 안 헤. 신구간은 집에 일 허고.[1330] 청명은 모든 것이 이런 그 잡귀가 없이 한다고 헤서 산소에 가서 떼도 입히고 돌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이치룩허는 거는 우리가 헤.

1328) 박순자 구술.
1329) '마데기'는 '구데기'에 빗대어서 제보자가 지어낸 말인 것 같다.
1330) 강창유 구술.

지금도 이것은 뭐 예가 아니고 아 이거는 으레 청명 뭰만 허니까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그날 가서 잘허고.[1331] 벌초도 허고 제도 지내고.[1332] 더 붙여 말허자면 청명날은 날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날은 공통적으로 뭣 일을 헤도 화를 안 입는다. 그래서 청명날은 산담도 그냥 허고 뭐 무지기로 다 허여. 그래서 청명날은 그 위시허는 건 맞아. 이 지역 사름덜은 그 청명은 아주 존중해.[1333] 청명날 못허면은 오월 단오날.[1334] 청명날은 한가허고 오월 단오에는 좀 바빠.[1335]

청명에 산소 가서 풀도 캐고 손 보고. 산담 같은 거 이상 있으면 보수하고, 또 신구간 때 와서 이 집에나 그런 데 손질하고. 신구간 신이 없다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하고. 집에 '우영담'[1336]이나 오래든가 집구석 헌 데는 신구간에 손 좀 봐. 청명에는 집엣 일은 안 해. 신구간은 집에 일 하고. 청명은 모든 것이 이런 그 잡귀가 없이 한다고 해서 산소에 가서 잔디도 입히고 돌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이처럼하는 거는 우리가 해. 지금도 이것은 뭐 예가 아니고 아 이거는 으레 청명이 되기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그날 가서 잘하고. 벌초도 하고 제도 지내고. 더 붙여 말하자면 청명날은 날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날은 공통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화를 안 입는다. 그래서 청명날은 '산담'[1337]도 그냥 하고 뭐 무지기로 다 해. 그래서 청명날은 그 위시하는 건 맞아.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청명은 아주 존중해. 청명날 못하면 오월 단옷날. 청명날은 한가하고 오월 단오에는 좀 바빠.

1331) 강경찬 구술.
1332) 박순자 구술.
1333) 우명창 구술.
1334) 박순자 구술.
1335) 우명창 구술.
1336) '우영담'은 '우영' 즉 터밭을 두른 돌담이다.
1337)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2) 한식

우리도 그 한식을 부모님덜앞이 들엇는데이 여기는 그때 일정 때 못허게 막앗다, 통제한다고. 좋앗으면 받아들엿을 건데 그 안 헷어[1338].

우리도 그 한식을 부모님들에게 들었는데 여기는 그때 일정 때 못하게 막았다, 통제한다고. 좋았으면 받아들였을 건데 그 안 했어.

3) 시제

시제. 지금도 헴주게. 시제나 묘제나 마찬가지. 높은 하르방 묘에 강은에 제지내는 거.[1339]

시제. 지금도 하고 있지. 시제나 묘제나 마찬가지. 높은 할아버지 묘에 가서 제지내는 거.

4) 소 올리기

소를 올릴 적에 멧 년도냐 허면 팔십 년도 칠십구 년도이 이 정도랏어. 여기서 일이 끗남만 허민 산간으로. 그 광평은 파리가 적고 여기는 파리가 많아서 그쪽으로 올리고 이축해서 헷는데 저것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기계화되니까 소를 없어졋어.[1340]

1338) 강경찬 구술.
1339) 강창유 구술.
1340) 강경창 구술.

근본적으로 이제 부룽이 술통쉐라. 고깃소를 부룽이라 그러는데 이 상모 쪽에가 저 부룽이, 비육소를 계속 매는 거라. 그래서 봄에 대개 입출을 허고. 그 전에는 비육소 계속허다가 이게 단계적으로 없어진 거는 팔십년대 초중반 뒈가니까 그다음부턴 암소로 헌 거라. 그 당시는 개량종이 많이 나타난 거라. 등에 혹 달린 브라마 같은 것덜. 그 당시덜은 여기서 애용헌 거는 소 새끼가 부룽이를 나면, 수커를 나면은 대개 오십 만 원 이상. 그 시대가 비육소가 좋앗기 때문에. 비육 단가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목장에도 올리긴 헷주마는 시원헌 광평 쪽으로 올리는 거라. 그때는 왜 그렇게 올리냐 허면 봄에 쪼금 가서 여름에 가면 파리 많지, 덥고 헤 가면 그쪽 올려서 늦가을까지 뒈어 가면은 그것이 쉐 새끼 하나 나거든. 쉐 두 개 올리면 두 개 새끼가 나와. 광평을 많이 올려.[1341] 보름 뒈어 가 면은 올렷다근에 보름이나 이십일 뒈민 부구리약 허레. 진드기약. 진드기 가민 이만씩 잇어.[1342] 진드기가 소털 하나에 하나씩 잇는 거 같은데.[1343] 데작데작. 물 담아 강 험벅에 부구리약 탕 그레 다 씰어.[1344]

소를 올릴 적에 몇 년도냐 하면 팔십 년도 칠십구 년도 이 정도였어. 여기서 일이 끝나기만 하면 산간으로. 그 '광평'[1345]은 파리가 적고 여기는 파리가 많아서 그쪽으로 올리고 이처럼해서 했는데 저것도 시간이 가다보니까 기계화되니까 소가 없어졌어.

근본적으로 이제 부룩소 '술통쉐'[1346]야. 고깃소를 부룩소라 그러는데 이 상모 쪽에 저 부룩소, 비육소를 계속 매는 거야. 그래서 봄에 대개 입출을 하고. 그 전에는 비육소

1341) 우명창 구술.
1342) 박순자 구술.
1343) 강경찬 구술.
1344) 박순자 구술.
1345) '광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를 말한다.
1346) '술통쉐'는 비육을 목적으로 키우는 소를 말한다.

계속하다가 이게 단계적으로 없어진 거는 팔십 년대 초중반 되어 가니까 그다음부턴 암소로 한 거야. 그 당시는 개량종이 많이 나타난 거야. 등에 혹 달린 브라마 같은 것들. 그 당시들은 여기서 애용한 거는 소 새끼가 부룩소를 나면, 수컷을 나면은 대개 오십 만 원 이상. 그 시대가 비육소가 좋았기 때문에. 비육 단가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목장에도 올리긴 했지마는 시원한 '광평' 쪽으로 올리는 거야. 그때는 왜 그렇게 올리느냐 하면 봄에 쪼금 가서 여름에 가면 파리 많지, 덥고 해 가면 그쪽 올려서 늦가을까지 되어 가면 그것이 소 새끼 하나 나거든. 소 두 개 올리면 두 개 새끼가 나와. '광평'을 많이 올려. 보름 되어 가면 올렸다가 보름이나 이십일 되면 '부구리약'[1347] 하러. 진드기약. 진드기 가면 이만큼씩 있어. 진드기가 소털 하나에 하나씩 있는 거 같은데. 다닥다닥. 물 담고 가서 헝겊에 '부구리약' 타서 그리로 다 쓸어.

• **번쉐**

우리 한 열일곱 열ᄋᆞ답 ᄉᆞᆯ 때 그 당시는 번쉐를 헷어. 동네 전부 밧갈기 위헤서 부릉이덜 질루게 뒈민 전부 어디 끌고 나와라 허영 나오민은 이 알드르 천지에 보릴 안 가니까 다 놀앗거든. 게니까 다 끗어서 석 헤영 클러 놓민 그냥 몰고 가는 거라. 게민 말도 잘 들어. 도망가지 안헤. 다벗 헤영. 오민 쉐 몰아왓습니다 쒜울리민 자기 쉐만씩 걸령은에 집이 들어가고. 거 허다가 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후에 자기만씩 헤서 여름 내낭 쉐 혼자 끌고 다니면서 멕엿어. 밧광 밧 새에 두둑이라고 헤 가지고 영 손심어 가지고 벳 콰랑콰랑 나는 디 페렝이 쓰곡 헤영 영 허영 이 곡식 먹젠 허민 탁 ᄃᆞᆼ기고. 이 ᄃᆞᆯ레코 헤영. 풀만 먹엉 쉐가 욕심 헤영 곡식 먹어 보젠. 얼마나 맛 좋아게. 곡식 먹젠 허민 탁 ᄃᆞᆼ기고. ᄒᆞ루 종일 배가 둥둥헤야지. 배부르지 아녕 집이 와시민 혼낫지, 부모안티. 이 자식 순 놀앗

1347) '부구리약'은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한 약이다.

구나, 농땡이쳣구나, 다음 오민 몽둥이 잡앙 궁둥이 패사켄. 잘 멕이겟습니다, 잘 멕이겟습니다, 쉐 코 끼여근에. ᄃᆞᆯ레코 아주 질긴 나무 그런 코 꿰는 나무가 셔. 거 허다가 나중에는 구리로 헤엿는디 처음에 나무로 헷주, 나무. 게서 밧 갈 때도 그 ᄃᆞᆯ레코 대야 밧 갈지. 경 안 허면 말 안 들엉 밧 못 갈아.

개인적으로 낮에는 동산에 말뚝 박아근에 놧당 ᄌᆞ물아 가민 또 쉐 멕영 집이 들어오곡. 송악산은 촐왓이 아니고 저 암쉐덜 목장 헤낫지. 부룽인 아니고 암쉐덜. 중간엔 암쉐로 농사짓고 막 헤낫주게. 암쉐덜 새끼 낭덜 ᄑᆞᆯ젠. 쉔 더 순허여. 부룽이보다 암쉐가 말 잘 듣고. 게니까 새끼 나민 돈 벌거든. 계속 잘 나민 ᄒᆞᆫ 해에 새끼 하나씩 나민 돈이 얼마여? 거. 게연 돈 벌젠 암쉐. 나중엔 집마다 암쉐라. 처음엔 부룽이만 다 허당 개종 뒈어 가지고. 여기는 ᄀᆞ물아도 밧 갈고 비가 왕 쪼금만 허민 밧 갈고 저디허고 틀려. 이 신도 쪽디레, 영락리 쪽디레 그긴 ᄆᆞᆯ르민 밧 못 갈아. 떼깍허영. 질면 질엉 밧 못 갈고. 여기는 참 농사짓기 ᄎᆞᆷ 좋은 디라. 쪼끄만 허민 다 밧 갈고 검질메고. 저긴 검질도 못 메고. ᄀᆞᆯ겡이 안 들엉. 게니까 농사도 잘 뒈고. 토지 비옥헤영. 누구 쉐 멕이레 안 가젠? ᄀᆞ치 가자 허영. 게영 가면은 베고프다 말여이. 베고프민 놈의 고구마밧 강 파당은에 쉐똥 ᄆᆞᆯ똥 ᄆᆞᆯ른 거 동산에 모여 놔근에 거 놩 궈. 그 임제가 멀리서 봥, 연기 나민 안다 말여. 알민 ᄃᆞᆯ려왕은에 몽둥이로 후려쳥. 그거 내불어 둰 아무나 도망치고. ᄎᆞᆷ, 얼마나 베고파게, 이게.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허는디. 놈이 감저 파당은에 궝은에, 상당히 맛 좋앗지. 굶엉 베가 등에 ᄃᆞᆯ아지는디 뭐, 밧 임제 오지 안헐 때는 ᄎᆞᆷ 기분 좋앙 잘 먹엇저. 밧 임제 걸리민 먹지도 못허곡. 막 딱 소리 허민 다울려 불어. 몽뎅이덜 잡앙 ᄯᅳ령. 우리 어릴 때라도 밧 임제 못 심어. 잘 ᄃᆞᆯ려근에. ᄆᆞᆯ도 하나씩 잇엇어. 많진 않아도 하나씩.

이 중간에 ᄆᆞᆯ로 밧 갈안. ᄆᆞᆯ이 쉐보다 더 잘 갈려. 여름에 ᄑᆞ리 안 타고. 여름에 ᄑᆞ리로 밧 갈기 쉐는 힘들어. ᄑᆞ리가 ᄆᆞᆯ엔 안 앚는디 쉐에만 더 앚아. 피 ᄲᆞᆯ아 먹는 거라. 준준헌 ᄑᆞ리가 침으로 헤여근에 가죽 뚤렁 피 ᄲᆞᆯ아 먹어. 하영 먹은 건 그 ᄑᆞ리 베가 벌겅헌다 말여, 벌겅. 게연 착 두드리민 벌겅케 피가. 게니까 쉐가 얼마나 못 전뎌. 막 ᄑᆞ리질허고, 꼴렝이로 막 치고. 쉐 더 해, 더 해. 게난 여름에 밧 갈 때는 힘들지. 그거 ᄑᆞ리 때문에 도망가젠 막. ᄆᆞᆯ은 벨로라, ᄑᆞ리가. 거 어떻게 뒌지 모르겟어. ᄆᆞᆯ은 꽁지가 크난 것산디 ᄆᆞᆯ에는 별로 ᄑᆞ리가 없어. ᄆᆞᆯ에는 ᄑᆞ리가 벨로 엇인디 쉐는 ᄑᆞ리로 여름에 밧 갈젠 허민 춤 멩심 안 허민 갈기가 힘들어.[1348]

우리 한 열일곱 열여덟 살 때 그 당시는 '번쉐'를 했어. 동네 전부 밭 갈기 위해서 부룩소들 기르게 되면 전부 어디 끌고 나와라 해서 나오면 이 '알드르' 천지에 보릴 안 가니까 다 놀았거든. 그러니까 다 끌어서 고삐 해서 끌러 놓으면 그냥 몰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말도 잘 들어. 도망가지 않아. 다 벗 해서. 오면 쇠 몰고 왔습니다 외면 자기 소만씩 걸려서 집에 들어가고. 거 하다가 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후에 자기만큼씩 해서 여름 내내 쇠 혼자 끌고 다니면서 먹였어. 밭과 밭 새에 두둑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손잡아 가지고 볕 '콰랑콰랑' 나는 데 패랭이 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곡식 먹으려고 하면 탁 당기고. 이 코뚜레 해서. 풀만 먹어서 소가 욕심 해서 곡식 먹어 보려고. 얼마나 맛 좋아. 곡식 먹으려고 하면 탁 당기고. 하루 종일 배가 둥둥해야지. 배부르지 않고 집에 왔으면 혼났지, 부모한테. 이 자식 순 놀았구나, 농땡이쳤구나, 다음 오면 몽둥이 잡고 궁둥이 패야겠다고. 잘 먹이겠습니다, 잘 먹이겠습니다, 소 코 꿰어서. 코뚜레 아주 질긴 나무 그런 코 꿰는 나무가 있어. 거 하다가 나중에는 구리로 하였는데 처음에 나무로 했지, 나무. 그래서 밭 갈 때도 그 코뚜레 대야 밭 갈지. 그렇게

1348) 강창유 구술.

안 하면 말 안 들어서 밭 못 갈아.

개인적으로 낮에는 동산에 말뚝 박아서 놨다가 저물어 가면 또 소 먹여서 집에 들어오고. 송악산은 꼴밭이 아니고 저 암소들 목장 했었지. 부룩손 아니고 암소들. 중간엔 암소로 농사짓고 막 했었지. 암소들 새끼 나서들 팔려고. 손 더 순해. 부룩소보다 암소가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새끼 나면 돈 벌거든. 계속 잘 나면 한 해에 새끼 하나씩 나면 돈이 얼마야? 거. 그래서 돈 벌려고 암소. 나중엔 집마다 암소야. 처음엔 부룩소만 다 하다가 개종 되어 가지고. 여기는 가물어도 밭 갈고 비가 와서 쪼금만 하면 밭 갈고 저기하고 달라. 이 신도 쪽으로, 영락리 쪽으로 거긴 마르면 밭 못 갈아. 단단해서. 질면 질어서 밭 못 갈고. 여기는 참 농사짓기 참 좋은 데야. 쪼끄만 하면 다 밭 갈고 김매고. 저긴 김도 못 매고. 호미 안 들어서.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토지 비옥해서. 누구 소 먹이러 안 가려고? 같이 가자 해서. 그래서 가면은 배고프다 말이야. 배고프면 남의 고구마밭 가서 파다가 소똥 말똥 마른 거 동산에 모여 놔서 거 놔서 구워. 그 임자가 멀리서 봐서, 연기 나면 안다 말이야. 알면 달려와서 몽둥이로 후려쳐서. 그거 내버려 두고 아무나 도망치고. 참, 얼마나 배고파, 이게.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남의 고구마 파다가 구워서, 상당히 맛 좋았지. 굶어서 배가 등에 매달리는데 뭐, 밭 임자 오지 않을 때는 참 기분 좋아서 잘 먹었지. 밭 임자 걸리면 먹지도 못하고. 막 딱 소리 하면 내쫓아 버려. 몽둥이들 잡고서 때려. 우리 어릴 때라도 밭 임자 못 잡아. 잘 달려서. 말도 하나씩 있었어. 많진 않아도 하나씩. 이 중간에 말로 밭 갈았어. 말이 소보다 더 잘 갈려. 여름에 파리 안 타고. 여름에 파리로 밭 갈기 소는 힘들어. 파리가 말엔 안 앉는데 소에만 더 앉아. 피 빨아 먹는 거야. 자잘한 파리가 침으로 해서 가죽 뚫어서 피 빨아 먹어. 많이 먹은 건 그 파리 배가 벌겋다 말이야, 벌게. 그래서 착 두드리면 벌겋게 피가.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못 견뎌. 막 '파리질'하고, 꼬리로 막 치고. 소 더 해, 더 해. 그러니까 여름에 밭 갈 때는 힘들지. 그거 파리 때문에 도망가려고 막. 말은 별로야, 파리가. 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말은 꼬리가 크니까 것인지

말에는 별로 파리가 없어. 말에는 파리가 별로 없는데 소는 파리로 여름에 밭 갈려고 하면 참 명심 안 하면 갈기가 힘들어.

□ 4월

1) 초파일

초파일은 석가 탄생헌 날이주게. 게니까 그때가 큰 행사를 허는 거주게. 이 불공을. 석가 탄신일날은 신자들은 거의 다 가. 막 강 앉을 틈이 없어. 게영 배낏디ᄁᆞ지 막 사. 게니까 석가 탄생날은 일 년 내내 최고로 신자들이 모이는 날이주. 절간에 뎅겨낫주게. 웨 뎅기느냐 허믄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뎅기니까 뒤따라갓어. 뒤따라가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또 집사람이 또 절간에 뎅겻어. 질 처음엔 단산 절에 뎅기다가. 이제는 저 섯산이물. 하모 저 서쪽 바닷가에. 저 산이물. 산이물이 아니고 거기 산이물엔 헌 거 잘못 쓴 거주게. 동산이물엔 써야주게. 저 산이수동에 잇는 걸 동산이물, 저걸 섯산이물로 헤야 뒈는데 기냥 산이물로 썻어, 이 돌에. 거 산이물로 잘못 쓴 거. 섯산이물 써야지. 이디도 산이물 그디도 산이물이니까 구분헤얄 거 아니? 보니까 돌에 산이물엔 썻다 말여. 이거 잘못 기록헷다, 나가. 섯산이물이라고 써야 뒈는데. 산이수동에 산이물 잇주게. 산이물. 땅으로 물 나는 디 잇주게. 이제는 수도 잇으니까 사용허지만. 옛날은 거기 ᄂᆞ리는 물 저장헷다가 목장에 물, 소덜 왕, ᄆᆞᆯ덜 멕이고, 여자덜 빨래도 허곡. 겐디 이젠 뭐 산이물, 산이물. 저기도 산이물엔 썻는데. 돌에 보니까. 저디 섯산이물은 하모리. 게난 저건 섯산이물엔 쓰고 이딘 동산이물엔 써야

하는디 산이물엔만 썻다고 돌에 보니까. 잘못 썻지. 섯산이물, 섯산이물 헷주게. 옛날 사름덜토 다.[1349]

초파일에 날 조면은 이제 꿰가 좋다고. 이월 초열흘, 이월 쓰무날허고. ᄇᆞ름 안 불면은 뭐허고. 사월 초파일날 날 좋면은 꿰가 좋다 허는 얘기. 이월 쓰무날 ᄇᆞ름 안 불면은 꿰 좋다. ᄉᆞ월 초파일날 날 좋면은 꿰 좋다. 또 남방 막은 헤에 꿰 좋다. 남쪽에 막앗젠 허주게.[1350] 그것도 다 잊어불언에 ᄀᆞᆫ는 사름 엇어. 남방 막은 헤에 꼿 피는 것은 안 뒌다고 허주게. 꼿 피는 그 식물이. 그 해는 남방 막은 핸 안 뒌다고 헤.[1351] 우리가 그 옛날 그 분들이 그 경험으로 얘기허는 걸 무시 못헤.[1352]

농사에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사는 없다고 얘기허는 것이 가만이 보면은 것이 맞아가. 아무렇게 봄에 지상에 뭐 헌다 헤도 어떤 때 이렇게 뒌다 이런 것이 엇비슷허게 맞아가고. 옛날 그 분덜이 한 해 한 해 그 경험에 의해서 얘기허거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경험도 무시 못헤.[1353]

초파일은 석가 탄생한 날이지. 그러니까 그때가 큰 행사를 하는 거지. 이 불공을. 석가 탄신일날은 신자들은 거의 다 가. 막 가서 앉을 틈이 없어. 그래서 바깥에까지 막 서. 그러니까 석가 탄생날은 일 년 내내 최고로 신자들이 모이는 날이지. 절에 다녔었지. 왜 다니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니까 뒤따라갔어. 뒤따라가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또 집사람이 또 절에 다녔어. 젤 처음엔 단산 절에 다니다가. 이제는 저 '섯산이물'[1354]. 하모 저 서쪽 바닷가에. 저 '산이물'. '산이물'이

1349) 강창유 구술.
1350) 박순자 구술.
1351) 강경찬 구술.
1352) 우명창 구술.
1353) 강경찬 구술.
1354) '섯산이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산이물을 말한다.

아니고 거기 '산이물'이라고 한 거 잘못 쓴 거지. '동산이물'이라고 써야지. 저 산이수동에 있는 걸 '동산이물', 저걸 '섯산이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산이물'로 썼어, 이 돌에. 거 '산이물'로 잘못 쓴 거. '섯산이물' 써야지. 여기도 '산이물' 거기도 '산이물'이니까 구분해야 할 거 아니? 보니까 돌에 '산이물'이라고 썼다 말이야. 이거 잘못 기록했다, 내가. '섯산이물'이라고 써야 되는데. 산이수동에 '산이물' 있지. '산이물'. 땅으로 물 나는 데 있지. 이제는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지만. 옛날은 거기 내리는 물 저장했다가 목장에 물, 소들 와서, 말들 먹이고, 여자들 빨래도 하고. 그런데 이젠 뭐 '산이물', '산이물'. 저기도 '산이물'이라고 썼는데. 돌에 보니까. 저기 '섯산이물'은 하모리. 그러니까 저건 '섯산이물'이라고 쓰고 여긴 '동산이물'이라고 써야 하는데 '산이물'이라고만 썼다고 돌에 보니까. 잘못 썼지. '섯산이물', '섯산이물' 했지. 옛날 사람들도 다.

초파일에 날 좋으면 이제 참깨가 좋다고. 이월 초열흘, 이월 스무날하고. 바람 안 불면은 뭐하고. 사월 초파일날 날 좋으면 참깨가 좋다 하는 얘기. 이월 스무날 바람 안 불면은 참깨가 좋다. 사월 초파일날 날 좋으면 참깨 좋다. 또 남방 막은 해에 참깨 좋다. 남쪽에 막았다고 하지. 그것도 다 잊어버려서 말하는 사람 없어. 남방 막은 해에 꽃 피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 꽃 피는 그 식물이. 그 해는 남방 막은 핸 안 된다고 해. 우리가 그 옛날 그 분들이 그 경험으로 얘기하는 걸 무시 못해.

농사에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사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것이 맞아가고. 아무렇게 봄에 지상에 뭐 한다 해도 어떤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 엇비슷하게 맞아가고. 옛날 그 분들이 한 해 한 해 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거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경험도 무시 못해.

• 머리 깎기

난 그런 거 엇인디 다른 집에서는 가위로라도 막 ᄉᆞ월 초파일날 머리 까끄는 디가 많앗어. 복 받으렌. 부처님 나온 날이니까. 게난 복 많으라고.

부처님 복 받아. 게난 어린아이덜 새 머리 나서 복 받으라고 헤서 막 가위로 ᄌᆞᆯ르고. 게고 이 기계 엇은 때는 거의 다 가위로 ᄌᆞᆯ랏주게. 여자들은 그냥 내불엇는디 남자덜은 부모덜이 가위로 다 ᄌᆞᆯ란. 또 질어가민 또 영 허영 가위로. 게민 보기 형편없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가위로. 데작헤도 거 느나엇이 다 허니까 욕구 불만이 엇어. 그런가 허지, 뭐.[1355]

난 그런 거 없는데 다른 집에서는 가위로라도 막 사월 초파일날 머리 깎는 데가 많았어. 복 받으라고. 부처님 나온 날이니까. 그러니까 복 많으라고. 부처님 복 받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새 머리 나서 복 받으라고 해서 막 가위로 자르고. 그러고 이 기계 없을 때는 거의 다 가위로 짤랐지. 여자들은 그냥 내버렸는데 남자들은 부모들이 가위로 다 짤랐어. 또 길어가면 또 이렇게 해서 가위로. 그러면 보기 형편없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가위로. 이리해도 거 너나없이 다 하니까 욕구 불만이 없어. 그런가 하지, 뭐.

2) 산디 · 지슬 · 꿰 농사

산디도 헤 봣지게. 산디도 잘 ᄇᆞᆯ리지 안허민 안 뒈여. 조나 마찬가지. 것도 잘 ᄇᆞᆯ리고. 조보다 검질메기가 페로와, 산디가. 어떤 판인지 산디가 조검질보다 더 페라와. 검질이 더 짓어. 산디 ᄀᆞ뜬 게. 조는이, 조 잘 나불면은 다른 풀은 나질 못헌덴 허여. 조만 소끄민 뒈여. 산디는 아에 검질 짓어근에. 똑ᄀᆞ뜬 밧인디.

지슬은 거의 다 허엿지. 지슬 연작허민은 곰보 뒈 불어. 게니까 일 년 놀령 또 지슬허고. ᄂᆞᆷ삐 ᄀᆞ뜬 거 갈앗당. 꿰 갈아나면은 지슬이 곰보 잘

1355) 강창유 구술.

안 뒈어. 게난 저기 꿰 간 것이 꿰 헹 먹엇당. 작년엔 꿰 이만인 헌 걸 기냥 경운기로 두드련 뭐. 아, 사름덜이 날 욕허대. ᄒᆞ꼬만 허민 꿰 생산헤영 먹엉은에 지슬 ᄒᆞ꼼 늦어도 이 좋은 꿰를. 아, 필요 엇언에 잡아 때렷젠. 게난 올히는 쪼금 꿰 파종을 쫌 빨리 헷지. 그때 오월ᄃᆞᆯ 난 파종허난 그렇게 뒌 거지만 이제 파종헷이니까. 생산헤 놩 감저 싱그젠. 그 그루에. 빨리 싱것지, 파종. 요 메칠 전에 헷덴 허난. 기지게 송악산 일대 ᄒᆞᆫ 바퀴 돌안 완 꿰 ᄒᆞᆫ 이삼백 평 갈고 놈의 거 ᄒᆞᆫ 이백 평 갈고. 그거 헌 다음에 거기 검은콩이라도 갈앗당 먹젠. 검은콩도 허민은 사다 먹지 안헹은에 집이서 보깡도 먹고, 밥에도 놓고. 자기대로 허영 자기가 먹는 거. 사지 안헹.[1356]

밭벼도 해 봤지. 밭벼도 잘 밟지 않으면 안 되어. 조나 마찬가지. 것도 잘 밟고. 조보다 김매기가 폐로워, 밭벼가. 어떤 판인지 밭벼가 '조김'보다 더 폐로워. 김이 더 깃어. 밭벼 같은 게. 조는, 조 잘 나버리면 다른 풀은 나질 못한다고 해. 조만 솎으면 되어. 밭벼는 아예 김 깃어서. 똑같은 밭인데.

감자는 거의 다 했지. 감자 연작하면 곰보 되어 버려. 그러니까 일 년 놀려서 또 감자하고. 무 같은 거 갈았다가. 참깨 갈아나면 감자가 곰보 잘 안 되어. 그러니까 저기 참깨 간 것이 참깨 해서 먹었다가. 작년엔 참깨 이만큼 한 걸 그냥 경운기로 두들겨서 뭐. 아, 사람들이 날 욕하대. 조금만 하면 참깨 생산해서 먹어서 감자 조끔 늦어도 이 좋은 참깨를. 아, 필요 없어서 잡아 때렸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쪼금 참깨 파종을 쫌 빨리 했지. 그때 오월달 난 파종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이제 파종했으니까. 생산해 놔서 감자 심으려고. 그 그루에. 빨리 심었지, 파종. 요 며칠 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저께 송악산 일대 한 바퀴 돌고 와서 참깨 한 이삼백 평 갈고 남의 거 한 이백 평 갈고. 그거 한 다음에 거기 검은콩이라도 갈았다가 먹으려고. 검은콩도 하면 사다 먹지 않아

1356) 강창유 구술.

서 집에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도 놓고. 자기대로 해서 자기가 먹는 거. 사지 않고.

□ 5월

1) 단오

단오 멩질은 안 헤난 거 닮수다.[1357] 우리가 가만히 봐도이, 오월 단오 멩질을 우리 아버지네 있을 때는 헷주마는 우리가 볼 때는 안 헷어. 게니까 우리 두에 사름덜은 모를 거고. 우리 앞에, 오월 단오도 그 당시에 그 말을 헷는데 일정 때 저것을 단오 허젠 허니까 막아 불엇주. 그런데 제주도 안에서도 저 동쪽더레 헷어. 영 돌아다녀 봄만 허면 저 위미리 남원리 그쪽디렌 헷다고 얘기허더구만. 그쪽 사름덜 허고 같이 접촉만 허민 일정 때 곱아서 헌 것이 해방됴니까 쫌 멧 년 간은 이어갓다고 허더만.[1358]

단오 명질은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봐도, 오월 단오 명질을 우리 아버지네 있을 때는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뒤에 사람들은 모를 거고. 우리 앞에, 오월 단오도 그 당시에 그 말을 했는데 일정 때 저것을 단오 하려고 하니까 막아 버렸지. 그런데 제주도 안에서도 저 동쪽으로 했어.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만 하면 저 위미리 남원리 그쪽으론 했다고 얘기하더구먼. 그쪽 사람들 하고 같이 접촉만 하면 일정 때 숨어서 한 것이 해방되니까 쫌 몇 년 간은 이어갔다고 하더구먼.

1357) 박순자 구술.
1358) 강경찬 구술.

2) 망종

오월 단오 끗나서 망종. 옛날에 그 어르신덜이 얘기허는데 망종이 지남만 허민 못 빌 보리가 엇고 비여야 뒌다. 그다음에는 장마가 온다고 허면서 그 망종을 헷는데. 그런 말 우리 들엇어. 게난 망종이란 뜻이 모든 것이 보리를 수확허는 계절이 이제 지나간다 이 말이지. 그때 뒈어가민 모든 걸 수확은 끗마치고 그러면은 이제 모두 농촌 사름덜이 망종 시기를 가장 중요헌 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안 헤 버리민 아까 얘기허듯이 장마가 닥치지.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아주 좀 열심히 모든 걸 끗마쳐야 뒈.[1359] 망종 지나면은 보리 ᄀᆞ튼 것도 눈 ᄀᆞᆷ앙 비라고 허엿주게. 장마가 닥칠 수가 잇으니까.[1360] 하지에 고구마 싱거. 망종 끗나가면은 장마철 뒈가민 고구마 싱거.[1361] 이 시기가 봄 농사는 그런 대로 마무리가 되고.[1362]

오월 단오 끝나서 망종.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망종이 지나기만 하면 못 벨 보리가 없고 베어야 된다. 그다음에는 장마가 온다고 하면서 그 망종을 했는데. 그런 말 우리 들었어. 그러니까 망종이란 뜻이 모든 것이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이제 지나간다 이 말이지. 그때 되어가면 모든 걸 수확은 끝마치고 그러면은 이제 모두 농촌 사람들이 망종 시기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안 해 버리면 아까 얘기하듯이 장마가 닥치지.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아주 좀 열심히 모든 걸 끝마쳐야 돼. 망종 지나면 보리 같은 것도 눈 감아서 베라고 하였지. 장마가 닥칠 수가 있으니까. 하지에 고구마 심어. 망종 끝나가면 장마철 돼가면 고구마 심어. 이 시기가 봄 농사는 그런

1359) 우명창 구술.
1360) 강경찬 구술.
1361) 박순자 구술.
1362) 우명창 구술.

대로 마무리가 되고.

3) 감저 싱그기

이 고구마보고 감저엔 허주. 감저도 마찬가지 조 헐 때에 감제. 이제 감젯메 놘에 막 컷주. 겐디 오월 말 뒈민 감저 싱그기 시작허여. 양력 유월 십오일 뒈민 감저 심기 시작허여. 이십오일 넘으민 기안 넘엉 잘 안 들어. 십오일에서 이십일 사이가 적기라. 이제까지 헤완. 양력 유월 십오일에서 이십오일ᄁᆞ지. 삼십일 넘어가민 감저 안 들어. 열흘 안에 가장 적기.[1363]

이 고구마보고 '감저'라고 하지. 고구마도 마찬가지 조 할 때에 고구마. 이제 '감젯메' 놔서 아주 컸지. 그런데 오월 말 되면 고구마 심기 시작해. 양력 유월 십오일 되면 고구마 심기 시작해. 이십오일 넘으면 기한 넘어서 잘 안 들어. 십오일에서 이십일 사이가 적기야. 이제까지 해왔어. 양력 유월 십오일에서 이십오일까지. 삼십일 넘어가면 고구마 안 들어. 열흘 안에 가장 적기.

□ 6월

1) 유월 쓰무날

유월 쓰무날은 ᄃᆞᆨ 잡아먹지. 집집마다. 건 웨 경 헷냐면 검질메고 막 사람이 지쳣지게. 게난 보약 먹는 거, 보약. 몸 건강허렌. 그거 하나뿐이주,

1363) 강창유 구술.

뭐 별 거 잇어? 그날은 다덜 집집마다 안 잡아먹는 사름 없어.[1364]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먹지. 집집마다. 건 왜 그렇게 했냐면 김매고 막 사람이 지쳤지. 그러니까 보약 먹는 거, 보약. 몸 건강하라고. 그거 하나뿐이지, 뭐 별 거 있어? 그날은 다들 집집마다 안 잡아먹는 사람 없어.

• 빙에기 깨우기, 키우기

빙에기 집에서 ᄃᆞᆨ세기 깨와근에 그 앚지는 거라. 게민 알 깨와근에 그것이 커근에 허면은 유월 쓰무날 뒈어 가면은 그걸로 이제 아기덜신디레, 우리 어머님들이 몸보신 시킬라고. 유월 쓰무날 뭐 그때는 인삼도 엇고 그대로 닭 맛잇엇어. 그때는 자연으로 놔뒀단 키우니까 진짜 맛잇엇어. 그걸로 해서 이제 ᄃᆞᆨ 잡아근에 줘근에 죽 쑤민 맛 좋앙.[1365] 그땐 집이서 다 ᄃᆞᆨ 질롯주게. 병아리 깡은에. 집이서 다 ᄃᆞᆨ텅에 헹은에 이십 메칠 걸려라 마는. ᄃᆞᆨ 벵아리 까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아녀. 게근에 ᄃᆞᆨ이 막 나당은에 새끼 깨우젠 허민 새끼 안 나고 깩깩 소리 허멍 나가지도 안허여. ᄃᆞᆨ세기엔 허주, 계란엔 안 허영. ᄃᆞᆨ세기 그레 헐 만이 놩 허민 둥그려, 발로. 영 앚앙 막 허당은에 곡식 먹으레 나와근에 ᄒᆞᆫ 바퀴 돌고, 곡식 먹으민 또 들어가. 게영 새끼 낭 거 ᄃᆞᆯ앙 뎅기곡. 가마귀가 거 확, 뎅겸시민. 그땐 가마귀 상당히 많앗어. 병아리 봐지민 확 ᄃᆞᆯ려들어근에. 에민 확 ᄃᆞᆯ려들어도 왈왈 확 하나 물엉 잡앙 먹엉 메기라. 그다음에 똥소레기가 또 멀리서 그렇게 ᄂᆞᆯ아왕은에 차가곡. 게고 그 옛날에는 이제 셍각나는 것이 고양이, 족제비 ᄃᆞᆨ 잡아먹어. ᄃᆞᆨ 모가지 심엉 물엉 잡아. 옛날에는 ᄃᆞᆨ을 이제는 텅에 헤영

1364) 강창유 구술.
1365) 박순자 구술.

영 허주마는 이 굴묵 허는 디. 그 우이 낭가지 영 영허영 사드레허영 그 우이 앚졋주게. 게민 ᄃᆞᆨ이 그냥 들어가. 게영 그디 앚아시민 밤에 족제비나 고양이나. 들고넹이주게. 팍허게 모가지 물엉 허민 껙껙허영 우리 어릴 때는 이불 팍 써. 겁낭. 겐디 어릴 때도 우리 아부지 우리 어머니가 이놈 족제비냐 고양이냐 허멍 화닥탁허민 내불어 뒁 도망가 불어. 게민 ᄃᆞᆨ이 반 죽어 불어. 게민 잡아먹음벳기 벨 수 엇지. 그런 예가 우리 멧 번이지. 겁나근에 이불 팍 써근에. ᄃᆞᆨ이 막 울어, 꿱꿱. 모가지 물어근에 잡앙. 게난 족제비는 작으난 헌디 목, 저 모가지 물어근에 ᄃᆞᆨ 등 위 탕 ᄃᆞᆯ린덴 허대. ᄃᆞᆨ ᄃᆞᆯ리는 데로. ᄃᆞᆨ힘으로 가는 거라. 자기가 끌고. ᄃᆞᆨ 우이 올라탕 막 들엉 숙대겨 가면은 ᄃᆞᆨ은 겁먹고 아프니까 막 ᄃᆞᆫ고 허주. 게민 밧구석이나 대왓디 ᄀᆞ튼 디 강 박아지민 튿어 먹어 불어. 영악헤. 족제비 족으니까 그렇게. 고양이는 그냥 물엉 끗엉 ᄃᆞᆫ고. 사드레게, ᄃᆞᆨ 영 노는 디. 이 낭 이만씩헌 낭 ᄌᆞᆫᄌᆞᆫ헌 거 놩 여껑은에 영 놔근에 그 우이 ᄃᆞᆨ 앚지민. 옛날사 무신 뭐 구물이 어디 잇어. 이제 ᄀᆞ뜨민 구물 영 허영은에 밤에 쳇당 내려 불민 뭘 건디 구물이 어딧어? 거 베로 쭉허게 무꺼근에, 쭉허게 넙게 허영 놩. 우이 놓는 거. 공간 난 디 그디 ᄃᆞᆨ 올리는 거, 사드레.[1366]

병아리 집에서 달걀 까서 그 앉히는 거야. 그러면 알 까서 그것이 커서 하면은 유월 스무날 되어 가면은 그걸로 이제 아기들한테로, 우리 어머님들이 몸보신 시키려고. 유월 스무날 뭐 그때는 인삼도 없고 그대로 닭 맛있었어. 그때는 자연으로 놔뒀다가 키우니까 진짜 맛있었어. 그걸로 해서 이제 닭 잡아서 줘서 죽 쑤면 맛 좋아서. 그땐 집에서 다 닭 길렀지. 병아리 까서. 집에서 다 닭둥우리 해서 이십 며칠 걸리더라만. 닭 병아리 까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닭이 막 낳다가 새끼 까려고 하면 새끼 안 나고

1366) 강창유 구술.

깩깩 소리 하면서 나가지도 않아. '둑세기'라고 하지, 계란이라고 안 해서. 달걀 그리로 할 만큼 놔서 하면 굴려, 발로. 이렇게 앉아서 막 하다가 곡식 먹으러 나와서 한 바퀴 돌고, 곡식 먹으면 또 들어가. 그래서 새끼 나서 거 데려서 다니고. 까마귀가 거 확, 다니고 있으면. 그땐 까마귀 상당히 많았어. 병아리 보이면 확 달려들어서. 어민 확 달려들어도 왈왈 확 하나 물어서 잡고 먹어서 '매기'[1367]야. 그다음에 솔개. 솔개가 또 멀리서 그렇게 날아와서 차가고. 그러고 그 옛날에는 이제 생각나는 것이 고양이, 족제비 닭 잡아먹어. 닭 모가지 잡고서 물어서 잡아. 옛날에는 닭을 이제는 둥우리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굴묵' 하는 데. 그 위에 나뭇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드레'[1368]해서 그 위에 앉혔지. 그러면 닭이 그냥 들어가. 그래서 거기 앉았으면 밤에 족제비나 고양이나. 들고양이지. 팍하게 모가지 물어서 하면 껙껙해서 우리 어릴 때는 이불 팍 써. 겁나서. 그런데 어릴 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놈 족제비냐 고양이냐 하면서 화닥탁하면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닭이 반 죽어 버려. 그러면 잡아먹기밖에 별 수 없지. 그런 예가 우리 몇 번이지. 겁나서 이불 팍 써서. 닭이 막 울어, 꿱꿱. 모가지 물어서 잡고서. 그러니까 족제비는 작으니까 하는데 목, 저 모가지 물어서 닭 등 위 타서 달린다고 하대. 닭 달리는 데로. 닭힘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끌고. 닭 위에 올라타서 막 들어서 쑤셔 가면 닭은 겁먹고 아프니까 막 닫고 하지. 그러면 밭구석이나 대밭에 같은 데 가서 박히면 뜯어 먹어 버려. 영악해. 족제비 작으니까 그렇게. 고양이는 그냥 물어서 끌고서 닫고. '사드레'게, 닭 이렇게 놓는 데. 이 나무 이만큼씩한 나무 자잘한 거 놔서 엮어서 이렇게 놔서 그 위에 닭 앉히면. 옛날에야 무슨 뭐 그물이 어디 있어. 이제 같으면 그물 이렇게 해서 밤에 쳤다가 내려 버리면 될 건데 그물이 어딨어? 거 바로 쭉하게 묶어서, 쭉하게 넓게 해 놔서. 위에 놓는 거. 공간 난 데 거기 닭 올리는 거, '사드레'.

1367) '매기'는 '물건이 다 되어 없음'이라는 의미의 단어다.
1368) '사드레'는 주로 사다리를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병아리 따위를 가두는 물건인 '어리'를 말하는 것 같다.

• **독 잡아먹는 날**

우리 시대에는 쪼금 틀린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토종닭만 잇엇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만히 보면 그 당시 나안테 시켜서 어느 집에 토종닭, 그것도 토종닭 중에서도 큰 것덜이 잇어. 알도 잘 낳고. 그 씨앗을 헤서 구헤 오는 거라. 나한테 ᄀᆞᆯ아서. 어느 집이 가민 이만저만헤서 ᄃᆞᆨ세기 멧 개 사오라. 그렇게 헤서 어머니 명령을 받들어근에 그 ᄃᆞᆨ세기 사와긴에 닭을 두 머리가 그 품어 갖고 헤서 잘 나면 ᄒᆞᆫ 열 개, 열두 개 난다고. 그거를 어머니덜이 그 이제 뭐냐? 터렁 그거를 바당에 보면 그 숨부기 그거를 헤서 준다고. 걸 크게 만들어서 돌을 딱 지둘라야 뒈. 그러지 않고는 매 잇잖아. 매가 딱 우이 잇다가 아무도 엇일 때는 그냥 내갈려. ᄒᆞᆷ치 그냥. 게난 에미 믿고 ᄃᆞᆯ아나. 오민 죽으나사나 공격허여. ᄎᆞᆷ, 모성애라는 게 동물도 강헌 거데. 도망을 절대 안 가. 죽어도 같이 죽어. 그냥 막 달려들엉. 그래서 그거 우에 텅에 닮은 거를 갖당 돌로 지둘르고 헤야지 돌 안 지둘리민 난리나. 걸 이제는 부모님이나 헤서 잘 키와근에 두 군데 허면은. 예를 들어서 유월 쓰무날 초복이나 중복 가까워 가민게 닭이 중닭 이상이 뒈는 거. 그때 뒈 가민은 아주 그 몸보신용으로 이게 자라서 맛도 좋거든. 게난 큰 닭은 예를 들어 장ᄃᆞᆨ ᄀᆞ튼 거 멧 개 헤근에 그때 ᄎᆞᆷ 나이가 형뻘 뒈는 사름 큰 거 주고, 한 머리씩 ᄎᆞᆷ 닭을 끌려 주는 거라, 어머님이. 겐디 이것도 어떤 면에 봐선 닭이 육성이 잘 뒈니까 끌려주는 거지 경 안 허민 뭐 반착도 못 먹어. 게난 거 ᄉᆞᆷ으렌 허영 우리는 나는 동셍이 저기 하나 잇주마는 누님네 ᄎᆞᆷ, 나가 이제 그 어머니 따라 같이 허는 거라. 같이 헤서 어머니 잘 보라 헹 가 불면은 젤 맛 존 것이 그 내장이라. 내장을 이제 그 안네 ᄃᆞᆨ세기 나는 거 영허영 무껑은에 ᄃᆞᆯ아메거든. 그걸 젤 ᄆᆞᆫ저 먹어. 그거허고 ᄆᆞᆯ테가리허고 내장허곡 그것이 젤 셍각나.[1369] ᄆᆞᆯ테가리엔 허는 거는 우리

사름으로 말허민 내장, 내장.[1370]

ᄃᆞᆨ ᄒᆞᆫ ᄆᆞ리 ᄀᆞ지면은 남자 어른덜은 영 허영 장ᄃᆞᆨ이라도 잡으민 막 허는디, 여자들은 죽이나 허여근에 쒀근에 뭐 고기 ᄒᆞᆫ 점 먹은 둥 만 둥 여자들은 경 허고. 남자 어른덜만 다 고긴 줫어. 죽만 먹언. 나가 커 와도 경. 남자 어른덜은 그자 영 먹다가 느네덜은 먹으나 안 먹으나 남자 어른덜이, 어멍 아방허고 아덜만 챙기젠 헷주. ᄯᆞᆯ덜신디는 챙기젠을 아녓어. 느네는 저 죽만 먹으라, 죽만 먹으라.[1371] ᄒᆞᆫ 머리 먹는다는 게 거 쉬운 일이 아니주게.[1372] 유월 쓰무날 ᄃᆞᆨ 잡은 것이 큰 ᄃᆞᆨ이 아니고 병아리덜이주게. 중병아리덜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참 못살고 허니까 주로 살아가는 것이 집에 가장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고기라근에 ᄂᆞ놩 먹곡 죽이라근엥 헤근에 같이 먹으멍 헷지. 누구 다 주지 않고 ᄂᆞ놔 먹엇어.[1373] 아멩헤도 아들허고 아방이주. ᄒᆞᆫ 머리씩 줫덴 헌 거는 내가 저 결혼헌 후에 그거. 겐디 그 옛날에는 어디 ᄒᆞᆫ 머리씩. 우리 어렷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네는 닭 하나 잡으면은 온 식구가 허영 남자덜, 아덜덜만 생각허주 ᄯᆞᆯ덜은 느넨 죽만 먹어도 좋다, 죽만 먹어도 좋다 허멍 궤기 헤영 준 건 앞가슴, 젤 맛엇인 거나 허여근에 튿어근에 ᄒᆞᆫ 점 영 허영 주지. 어느 저를에 ᄒᆞᆫ 머리랑 마랑.[1374] 나가 이제 어머니영 그 옛날 ᄃᆞᆨ을 준비헨에 ᄀᆞ치 헤봣는데 그 시절은 어떤 의미 봐서는 우리 형제간은 반착씩 먹은 거 닮아. 경 안 허민 아까 ᄀᆞᆫ듯이.[1375]

1369) 우명창 구술.
1370) 박순자 구술.
1371) 박순자 구술.
1372) 우명창 구술.
1373) 강경찬 구술.
1374) 박순자 구술.
1375) 우명창 구술.

우리 시대에는 쪼금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토종닭만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만히 보면 그 당시 나한테 시켜서 어느 집에 토종닭, 그것도 토종닭 중에서도 큰 것들이 있어. 알도 잘 낳고. 그 씨앗을 해서 구해 오는 거야. 나한테 말해서. 어느 집에 가면 이만저만해서 달걀 몇 개 사오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 명령을 받들어서 그 달걀 사와서 닭을 두 마리가 그 품어 갖고 해서 잘 나면 한 열 개, 열두 개 난다고. 그거를 어머니들이 그 이제 뭐냐? 둥우리 그거를 바다에 보면 그 순비기 그거를 해서 겯는다고. 걸 크게 만들어서 돌을 딱 지질러야 돼. 그러지 않고는 매 있잖아. 매가 딱 위에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내갈려. 한꺼번에 그냥. 그러니까 어미 믿고 달아나. 오면 죽으나사나 공격해. 참, 모성애라는 게 동물도 강한 거데. 도망을 절대 안 가. 죽어도 같이 죽어.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래서 그거 위에 둥우리 같은 거를 갖다가 돌로 지지르고 해야지 돌 안 지지르면 난리나. 걸 이제는 부모님이나 해서 잘 키워서 두 군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월 스무날 초복이나 중복 가까워 가면 닭이 중닭 이상이 되는 거. 그때 되어 가면은 아주 그 몸보신용으로 이게 자라서 맛도 좋거든. 그러니까 큰 닭은 예를 들어 장닭 같은 거 몇 개 해서 그때 참 나이가 형벌 되는 사람 큰 거 주고, 한 마리씩 참 닭을 끓여 주는 거야, 어머님이.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면에 봐선 닭이 육성이 잘 되니까 끓여주는 거지 그렇게 아니 하면 뭐 반쪽도 못 먹어. 그러니까 거 삶으라고 해서 우리는 나는 동생이 저기 하나 있지만 누님네 참, 내가 이제 그 어머니 따라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해서 어머니 잘 보라 해서 가 버리면 젤 맛 좋은 것이 그 내장이야. 내장을 이제 그 안에 달걀 나는 거 이렇게 해서 묶어서 매달거든. 그걸 젤 먼저 먹어. 그거하고 멀떠구니하고 내장하고 그것이 젤 생각나. 멀떠구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내장, 내장.

닭 한 마리 가지면 남자 어른들은 이렇게 해서 장닭이라도 잡으면 막 하는데, 여자들은 죽이나 해서 쒀서 뭐 고기 한 점 먹은 둥 만 둥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남자 어른들만 다 고긴 줬어. 죽만 먹었어. 내가 커 와도 그렇게. 남자 어른들은 그저 이렇게 먹다가

너희들은 먹으나 안 먹으나 남자 어른들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들만 챙기려고 했지. 딸들한테는 챙기려고를 않았어. 너희는 저 죽만 먹어라, 죽만 먹어라. 한 마리 먹는다는 게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유월 스무날 닭 잡은 것이 큰 닭이 아니고 병아리들이지. 중병아리들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참 못살고 하니까 주로 살아가는 것이 집에 가장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고기는 나눠서 먹고 죽은 해서 같이 먹으면서 했지. 누구 다 주지 않고 나눠 먹었어. 아무래도 아들하고 아버지지. 한 마리씩 줬다고 한 거는 내가 저 결혼한 후에 그거.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디 한 마리씩.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네는 닭 하나 잡으면 온 식구가 해서 남자들, 아들들만 생각하지 딸들은 너흰 죽만 먹어도 좋다, 죽만 먹어도 좋다 하면서 고기 해서 준 건 앞가슴, 젤 맛없는 거나 해서 뜯어서 한 점 이렇게 해서 주지. 어느 겨를에 한 마리는 커녕. 내가 이제 어머니랑 그 옛날 닭을 준비해서 같이 해봤는데 그 시절은 어떤 의미 봐서는 우리 형제간은 반쪽씩 먹은 거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말하듯이.

• 삼복더위

삼복더위 질 덥넨 말이주. 삼복더위.[1376] 초중말복 헤서. 그러면은 집집마다 그 어머니덜이 이제 그 자식덜이나 그 하르방을 위헤서 보신용으로 빙아기 새끼덜을 두 자리 세 자리씩 헤서 그때 보신을 시켜주는 거라. 초복 중복 말복까지.[1377] 건강을 보충을 헤주는 게 닥덜이라.[1378]

겐디 요즘은 삼복더위이, 뭐니 그것이 세월이 가당 보니까 다 지워지고이 흔적이 남아가질 안헤. 요즘 다 잘 먹고 잘 허니까. 오늘날 가민 삼계탕 상 먹고 이치룩허니까이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아님만 허민 그 고기 맛을 볼 기회가 엇거든게. 그때는 유월 쓰무날 이런 때 아님만 허민 닭고기 먹을

1376) 강창유 구술.
1377) 우명창 구술.
1378) 강경찬 구술.

기회가 없는데 요즘은 모든 음식 문화가 정말 풍부헤 놓니까이 그 어느 계절 이것을 다 지워졋어.[1379]

삼복더위 젤 덥다는 말이지. 삼복더위. 초중말복 헤서. 그러면은 집집마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 자식들이나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보신용으로 병아리 새끼들을 두 자리 세 자리씩 해서 그때 보신을 시켜주는 거야. 초복 중복 말복까지. 건강을 보충을 해주는 게 닭들이야.

그런데 요즘은 삼복더위, 뭐니 그것이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다 지워지고 흔적이 남아가질 않아. 요즘 다 잘 먹고 잘 하니까. 오늘날 가면 삼계탕 사서 먹고 이처럼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아니기만 하면 그 고기 맛을 볼 기회가 없거든. 그때는 유월 스무날 이런 때 아니기만 하면 닭고기 먹을 기회가 없는데 요즘은 모든 음식 문화가 정말 풍부해 놓으니까 그 어느 계절 이것을 다 지워졌어.

• 개역

개역 간식용으로. 그때도 어려운 시대라 노니까 그 나도 알아지는데 장마철 뒈 가야. 그 날 더울 때는 보리낭으로 보끌라고 허면은 너미 더우니까 비 올 때에 헤서 보리 보깡은에 개역을 허여. 개역을 허민 지금은 설탕이라도 논다, 그때는 사까린 놔 가지고 저 개역을 헷주. 그때는 솟뚜껑 헤근에 알로 보리낭불 때영 보리낭 그 젓는 걸 보리낭주제기 멘들앙 그걸로 영영 젓어.[138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봄만 허면 그 정미소가 그 당시에 ᄀᆞ를을 그 안 나왓어. 안 나오니까 그 돌ᄀᆞ레로 하던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오십 년대. 그때 이것을 갈아서 헷는데, 미숫가루 자체가

1379) 강경찬 구술.
1380) 박순자 구술.

거칠엇지. 기계로 헌 것보단 아주 거칠어도 우리가 못 먹는 시절이니까 그것도 맛잇게, 아주 맛잇게 먹엇어. 그다음에는 기계로 저것을 빠서 헷는데 식생활도 많이 개선이 뒈기 때문에 그 맛 좋던 것도 다 버리고게 더 좋은 것이 잇으니까. 말이 개역이엇지 뭐 너미 거칠어이.[1381] 요새 못 전디게덜 안 허여. 돈 만 원만 주면. 나도 이디 와서 결혼해 와서 그렇게 헷지. 개역 보리 보까근에. 우리 어머님네 헐 적에는 ᄀᆞ레로 ᄀᆞᆯ아근에 거칠게는 헷주마는 그때도 체가 ᄋᆞᆺ라 개 허니까, 가루 나오는 체가 잇엇어. 그거 쳐 가지고 젤 아래 걸로 멘작헌 ᄀᆞ레 ᄀᆞ르로 헤영 그걸로 헤영 먹고. 우이 거는 대충 ᄀᆞᆯ아서 또 그렇게 먹고.[1382]

겐디 개역도 여러 가지로 먹는 방법이 잇엇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보리밥에 쪼끔 식은밥 보리밥으로 헤서 비병 먹는 사름 잇는가 하면 그대로 헤서 ᄌᆞ베기 비슷허게 요렇게 헹 먹는 사름도 잇고. 그렇지 않으면 문닥허게 물로 들이싸 부는 사름 세 가지.[1383] 이제 그 보리밥에 서텅 먹는 거는 반찬이 없으니까 그 개역을 놓면은 부비면은 보릿방울이 그자 속속속 오실오실허거든. 게면은 그걸 먹으면은 반찬 엇어도 그냥 먹기 좋으니까 그렇게 헨 먹엇지. 요즘 사름덜 그렇게 헤서 안 먹어. 요즘 사름덜은 개역을 먹젠 허면은 물로 얍찌랑허게 저 아이스커피ᄀᆞ치록 그렇게 헤서 먹어. 옛날식으로 그렇게 헹 먹진 안헤.[1384]

미숫가루 간식용으로. 그때도 어려운 시대라 놓으니까 그 나도 아는데 장마철 되어가야. 그 날 더울 때는 보릿짚으로 볶으려고 하면은 너무 더우니까 비 올 때에 해서

1381) 강경찬 구술.
1382) 박순자 구술.
1383) 우명창 구술.
1384) 박순자 구술.

보리 볶아서 미숫가루를 해. 미숫가루를 하면 지금은 설탕이라도 놓는다, 그때는 사카린 놔 가지고 저 미숫가루를 했지. 그때는 솥뚜껑 해서 아래로 보리짚불 때어서 보릿짚 그 젓는 걸 '보리낭주제기'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보기만 하면 그 정미소가 그 당시에 가루를 그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그 연자매로 하던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오십 년대. 그때 이것을 갈아서 했는데, 미숫가루 자체가 거칠었지. 기계로 한 것보단 아주 거칠어도 우리가 못 먹는 시절이니까 그것도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다음에는 기계로 저것을 빻아서 했는데 식생활도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맛 좋던 것도 다 버리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말이 미숫가루였지 뭐 너무 거칠어. 요새 못 견디게들 안 해. 돈 만 원만 주면. 나도 여기 와서 결혼해 와서 그렇게 했지. 미숫가루 보리 볶아서. 우리 어머님네 할 적에는 맷돌로 갈아서 거칠게는 했지만 그때도 체가 여러 개 하니까, 가루 나오는 체가 있었어. 그거 쳐 가지고 젤 아래 걸로 '멘작헌' 맷돌 가루로 해서 그걸로 해서 먹고. 위에 거는 대충 갈아서 또 그렇게 먹고.

그런데 미숫가루도 여러 가지로 먹는 방법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제 그 보리밥에 쪼끔 찬밥 보리밥으로 해서 비벼서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대로 해서 수제비 비슷하게 요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닥하게' 물로 들이켜 버리는 사람 세 가지. 이제 그 보리밥에 섞어서 먹는 거는 반찬이 없으니까 그 미숫가루를 놓으면은 비비면 보리알이 그저 속속속 '오실오실'하거든.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반찬 없어도 그냥 먹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지.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안 먹어. 요즘 사람들은 미숫가루를 먹으려고 하면 물로 얇게 저 아이스커피처럼 그렇게 해서 먹어.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서 먹진 않아.

- **지세황**

날이 막 더워 가지고 뜸이 많을 때는 씨원헌 물 허여근에 그때는 물

헷자 냉장고가 없으니까 지세황, 검은지세황에 놔두면은 물이 좀 시원헤지주게. 지새황에. 지세황 허면 육지 사름덜 몰라. 지세황, 검은지세황 그것에 물 헤영 놔두면은 것이 시원헤 가지고 것에 헤근에 더우면은 저 요즘 ᄀᆞ트면 갈증난다고 헤서 갈증 해소 물에 타 가지고 얍지롱헤서 조금썩.[1385]

뭐냐, 말허믄 아까 얘기헌 것이 우리 옹기그릇이 빨간 거 허곡 껌은 거. 차이가 껌은 것에 논 것이 물이 시원헤이. 그래서 개역을 먹는 물은 지세황. 우리 그때 지세황이라 허더구만. 그 까만 통개에 놧단 물로서 타서 먹엇지.[1386] 그 옛날에는 우리 그쪽더레는 그 지세황 멘드는 어른이 잇고 굴도 따로 잇엇어. 요즘 ᄀᆞ뜨면은 그 우리 진짜 시세가 난 완전 문화재로 뒐 건디. 게면은 그거 굽는 거는 장작이 아니라 이런 섬비낭 같은 거, 이런 허드렁헌 거 이제 쉽게 말허면 밥을 허영 먹젠 허면은 낭불 헌 밥이 맛좋고 보리낭불 헌 거는 아메도 맛이 없는 듯이 보리낭불 때듯이 허는 거. 지세황은 허드런 길거리에 잇는 거 가시낭덜 ᄀᆞ뜬 거 허드렁헌 거 그걸 때면에 것이 까망헌 지세가 뒈는 거고. 장작불로 완전 녹이는 거는 그거는 빨강헌. 그건 불도 틀려. 그래 가지고 그 물로 집집마다. 검은지세황 나도 잇어.[1387]

날이 아주 더워 가지고 땀이 많을 때는 시원한 물 해서 그때는 물 했자 냉장고가 없으니까 '지세황'[1388], '검은지세황'[1389]에 놔두면 물이 좀 시원해지지. '지새황'에. '지세황' 하면 육지 사람들 몰라. '지세황', '검은지세황' 그것에 물 해서 놔두면 것이

1385) 박순자 구술.
1386) 강경찬 구술.
1387) 박순자 구술.
1388) '지세황'은 기와 색이 나는 항아리로, '검은굴'에서 굽는다. '지세'는 기와, '황'은 항아리를 말한다.
1389) '검은지세황'은 '검은굴'에서 구워낸, 검은색을 띠는 항아리를 말한다.

시원해 가지고 것에 해서 더우면 저 요즘 같으면 갈증난다고 해서 갈증 해소 물에 타 가지고 얇아서 조금씩.

뭐냐,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 옹기그릇이 빨간 거 하고 껌은 거. 차이가 껌은 것에 놓은 것이 물이 시원해. 그래서 미숫가루를 먹는 물은 '지세황'. 우리 그때 '지세황'이라 하더구먼. 그 까만 '통개'[1390]에 놓았던 물로서 타서 먹었지. 그 옛날에는 우리 그쪽으로는 그 '지세황' 만드는 어른이 있고 가마도 따로 있었어. 요즘 같으면 그 우리 진짜 시세가 나서 완전 문화재로 될 건데. 그러면 그거 굽는 거는 장작이 아니라 이런 '섬비낭'[1391] 같은 거, 이런 허드레한 거 이제 쉽게 말하면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면 '낭불'[1392] 한 밥이 맛 좋고 보리짚불 한 거는 아마도 맛이 없는 듯이 보리짚불 때듯이 하는 거. '지세황'은 허드레한 길거리에 있는 거 가시나무들 같은 거 허드레한 거 그걸 때면 것이 까만 지세가 되는 거고. 장작불로 완전 녹이는 거는 그거는 빨간. 그건 불도 달라. 그래 가지고 그 물로 집집마다. '검은지세황' 나도 있어.

2) 조 ᄇᆞᆯ리기

그 조를 ᄇᆞᆯ리는 계절 잇잖습니까예? 빨리 하는 사름 잇고 늦게 하는 사름 잇는데 농사는 그 우리가 그 유월절이라고 헤서 칠월 칠일 중심을 하고 농사를 지엇습니다. 그 칠월 칠일 중심으로 헤서 장마가 어떻게 걷느냐 허니까 마걷이란 것이 잇습니다, 마걷이. 씨를 뿌려서 비를 안 맞게끔 허는 것이 마걷인데, 마걷이를 ᄒᆞᆫ 농사는 검질도 안 메고 농사가 빨리 자라예. 비 맞아서 허민 설판(?)뒈고 막 ᄇᆞᆯ려 노니까 잘 안 뒈는데 그것이 칠월

1390) '통개'는 항아리의 일종이다.
1391) '섬비낭'은 '섬비', 즉 끙게를 만들 때 쓰는 나무를 말한다. '끙게'를 만들 때는 쥐똥나무 등 허드레 나무를 이용한다.
1392) '낭불'은 나무로 때는 불이다.

칠일 중심헤서 저 우리가 유월절. 그걸로써 우리 전 삼 일을 대강헤서 우리 농사를 지엇습니다.[1393] 마걷이조가 좋아.[1394] 그 마걷이라는 거를 요즘 사름덜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장마가 꽉 끼엉인에 이 마가 베락 천둥으로 헤 갖고 가져가 부는 거라. 그것이 마걷이라.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름덜 대부분 이제 마걷이가 뒛으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조나 산디나 ᄆᆞ음대로 갈 수 잇다. 게서 그때부떠 농사를 시작허는 거주. 그러니까 삼복더위 아까 얘기헷듯 그렇게 영양 보충도 허고 헤서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1395] 조 잘 안 ᄇᆞᆯ리민 안 뒈는 거라. 조 ᄇᆞᆯ리는 건 쉐 하나나 두 개 세 개나 ᄆᆞᆼ생이 ᄆᆞᆯ도 뒘은 헌디 모가지에 다 졸라매여긴에. 모가지 영 헹은에 몽뎅이 조그마헌 몽뎅이 진 거 하나 헹은에 소릴 허지. 이러 이러러러러러 빨리 ᄃᆞᆯ아야 조밧 잘뒐 거 아니냐. 빨리 ᄃᆞᆯ아라. 이러 이러 러러러 이러 이러 어어어 이러러러러러러 휘휘 ᄇᆞᆯ르민 와랑와랑와랑 ᄃᆞᆯ으민은 잘 ᄇᆞᆯ려지거든. 쉐 두 개 정도. ᄆᆞᆯ테도. ᄆᆞᆯ 이신 사름은 ᄒᆞᆫ번에 다 ᄇᆞᆯ려. 쭉 것도 다 졸라매영. 모가지 다 졸아메영 어러러 허민 와랑와랑허민 확허게 ᄇᆞᆯ리민 다른 밧디. 업으로 허는 사름 잇고. 우리 ᄀᆞ튼 사름은 쉐 두 개 정도 메영은에 ᄒᆞ루 종일. 두 개로 ᄉᆞᆯᄉᆞᆯ. 안 ᄇᆞᆯ리민 조가 안 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연메영. 모가지 졸라매영. 이 석을 다른 이 큰 쉐 모가지에 석을 졸라매는 거라. 다 도망가지 못허게. 앞뒤로. 아게, 앞뒤로 갈 수밖에. 모가지에 석을 졸라매면은 쉐 끗이민 모가지 뒤에 가는 거 아니라. 자동적으로 허게 뒌 거지. 앞이 뿔에. 모가지에 졸라매는 거. 모가지 졸라매믄 큰 쉐 ᄌᆞᆸ아뎅겨 불민 안 오젠 헤도 가지. 질 큰 쉐 질 앞이, 그 다음 그 다음 허면서. 쉐 하나로 허는 사름도 잇고. 거의 다 쉐주게. ᄆᆞᆯ도 마찬가지. 큰 ᄆᆞᆯ 족은

1393) 강경찬 구술.
1394) 박순자 구술.
1395) 우명창 구술.

ᄆᆞᆯ 헤영 쫙. 순서대로 앞이 ᄆᆞᆯ이 끗어 불민 자기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 ᄆᆞᆯ은 별로 엇고. ᄆᆞᆯ은 잇당 하나씩. ᄆᆞᆯ석, 쉐석으로 전부 모가지 졸라매영. 이 메단 간격 헤여근에 쫙 졸라매민 힘쎈 놈이 촥 앞에 끗으민 자기가 ᄯᅳ라가지. 쉐는 안 ᄯᅳ라가. ᄆᆞᆯ은 ᄯᅳ라가더라고. 여긴 거의 다 쉐로.[1396]

조도 ᄇᆞᆯ리고 산디라도 그 당시도 남테로 헤서. 소로 끌고 말로 끄는 거 헤서 멧 평 멧 시간 허면은 에 보리를 잘 ᄇᆞᆯ려주겟다. 계약을 헹 놧당. 그 사름덜이 굉장히 수입이 좋은 거라.[1397] 덕수 그 분들네 집안이 말이 백 두를 키왓어이. 그러니까 이 거시림조팟이란만 허민 유월 아까, 그 칠월 칠일 그 중심에서 마걷일 허자면 미리 맞춰서 그분덜이 와서 막 ᄇᆞᆯ리곡 이치룩헷는데. 그 말덜이 전업적으로 거기서덜 많이 키왓어, 백 두.[1398] 여긴 쉐로. 사람 쉐 ᄌᆞ름에 사름이 따라다니멍, 쉐도 세네 마리로 헨 ᄇᆞᆯ렷어.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는 말, 남테. 남테 그 전부터 허긴 헷지마는.[1399] 남테는이 하모리 사람덜이 거를 좀 허고.[1400]

이딘 진흙이 아니고. 사질토라고 허주. 발르지 안허민 모래라, 이런 ᄇᆞ름에 다 날려가.[1401] 쉽게 말허면은 저 신평더레는 뜬땅이라고 허지마는 여기는 우리가 쉽게 말허민 불치왓 닮은 디라, 불체 닮은 디라, 땅이. ᄀᆞ물면은 바람에 살살살 날라가.[1402] 검은질왓이라.[1403] 일허면은 얼굴이 바로 시커멍허영 콧구멍이 시커멍허는 거라. 아까 산디검질 시 불 멤저, 니 불

1396) 강창유 구술.
1397) 우명창 구술.
1398) 강경찬 구술.
1399) 우명창 구술.
1400) 강경찬 구술.
1401) 우명찬 구술.
1402) 박순자 구술.
1403) 강경찬 구술.

멤저 허는디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거든. 맨 나오는 게 검질이야.[1404]

그 조를 밟는 계절 있잖습니까요? 빨리 하는 사람 있고 늦게 하는 사람 있는데 농사는 그 우리가 그 유월절이라고 해서 칠월 칠일 중심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칠월 칠일 중심으로 해서 장마가 어떻게 걷느냐 하니까 '마걷이'[1405]란 것이 있습니다, '마걷이'. 씨를 뿌려서 비를 안 맞게끔 하는 것이 '마걷이'인데, '마걷이'를 한 농사는 김도 안 매고 농사가 빨리 자라요. 비 맞아서 하면 설판되고 막 밟아 놓으니까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칠월 칠일 중심해서 저 우리가 유월절. 그것으로써 우리 전 삼 일을 대강해서 우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걷이조'가 좋아. 그 '마걷이'라는 거를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장마가 꽉 끼어서 이 마가 벼락 천둥으로 해 갖고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것이 '마걷이'야.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마걷이'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조나 밭벼나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거주. 그러니까 삼복더위 아까 얘기했듯 그렇게 영양 보충도 하고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조 잘 안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조 밟는 건 소 하나나 두 개 세 개나 망아지 말도 되기는 하는데 모가지에 다 졸라매서. 모가지 이렇게 해서 몽둥이 조그마한 몽둥이 긴 거 하나 해서 소릴 하지. 이러 이러러러러러 빨리 달려야 조밭 잘될 거 아니냐. 빨리 달려라. 이러 이러 러러러 이러 이러 어어어 이러러러러러러 휘휘 밟으면 와랑와랑와랑 달리면 잘 밟아지거든. 소 두 개 정도. 말떼도. 말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다 밟아. 쭉 것도 다 졸라매어서. 모가지 다 졸라매어서 어러러 하면 와랑와랑하면 확하게 밟으면 다른 밭에. 업으로 하는 사람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소 두 개 정도 매서 하루 종일. 두 개로 살살. 안 밟으면 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연매어서. 모가지 졸라매어서. 이 고삐를 다른 이 큰 소 모가지에 고삐를 졸라매는

1404) 박순자 구술.
1405) '마걷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농사 따위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마갇이'라고도 한다.

거야. 다 도망가지 못하게. 앞뒤로. 아게, 앞뒤로 갈 수밖에. 모가지에 고삐를 졸라매면 소 끌면 모가지 뒤에 가는 거 아닌가. 자동적으로 하게 된 거지. 앞에 뿔에. 모가지에 졸라매는 거. 모가지 졸라매면 큰 소 잡아당겨 버리면 안 오려고 해도 가지. 젤 큰 소 젤 앞에, 그다음 그다음 하면서. 소 하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소지. 말도 마찬가지. 큰 말 작은 말 해서 쫙. 순서대로 앞의 말이 끌어 버리면 자기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 말은 별로 없고. 말은 이따금 하나씩. 말고삐, 소고삐로 전부 모가지 졸라매어서. 이 매단 간격 해서 쫙 졸라매면 힘센 놈이 촥 앞에 끌면 자기가 따라가지. 소는 안 따라가. 말은 따라가더라고. 여긴 거의 다 소로.

조도 밟고 밭벼라도 그 당시도 '남테'로 해서. 소로 끌고 말로 끄는 거 해서 몇 평 몇 시간 하면은 에 '보리'[1406]를 잘 밟아주겠다. 계약을 해서 놨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입이 좋은 거야. 덕수 그 분들네 집안이 말이 백 두를 키웠어. 그러니까 이 '거시림조팟'[1407]이라고만 하면 유월 아까, 그 칠월 칠일 그 중심에서 마걷이를 하자면 미리 맞춰서 그분들이 와서 막 밟고 이처럼했는데. 그 말들이 전업으로 거기서들 많이 키웠어, 백 두. 여긴 소로. 사람 소 꽁무니에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소도 서너 마리로 해서 밟았어.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는 말, '남테'. '남테'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남테'는 하모리 사람들이 거를 좀 하고.

여긴 진흙이 아니고. 사질토라고 하지. 밟지 않으면 모래야, 이런 바람에 다 날려가. 쉽게 말하면 저 신평으로는 '뜬땅'[1408]이라고 하지마는 여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치왓'[1409] 같은 데야, 재 같은 데야, 땅이. 가물면 바람에 살살살 날아가. '검은질왓'[1410]이야. 일하면 얼굴이 바로 시커메서 콧구멍이 시커메하는 거야. 아까 밭벼김

1406) 제보자는 '조'를 '보리'로 착각해서 구술한 것 같다.
1407) '거시림조팟'은 애벌갈이했다가 조를 간 밭을 말한다.
1408) '뜬땅'은 차지거나 끈끈한 기가 없는 푸석한 땅을 말한다.
1409) '불치왓'은 흙이 재처럼 부드러운 밭을 말한다.
1410) '검은질왓'은 돌이 없이 검은 색의 흙만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세벌 매고 있다, 네벌 매고 있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거든. 맨 나오는 게 김이야.

3) ᄑᆞᆺ농사 · 콩농사

여름에는 조, 팟, 콩도 허고. 조는 여름 한여름에 갈아근에 가을 뒈민은 수확허여근에. ᄑᆞᆺ도 마찬가지, 조나. ᄑᆞᆺ은 하영 안 갈주게. ᄑᆞᆺ은 어떵 허냐 허민 조 헌 욮이 하나씩 톡톡 방울로 헤근에 쪼꼼 헹은에 먹는 체헷지. 고량ᄑᆞᆺ엔 허주. 가에. 가운딘 안 허고. 멍에 잇는 가에만 톡 놩은에 먹는 체헷지. 이제치록 밧에 갈앙은에 경작허는 사름이 없엇어? 뭐 ᄑᆞᆺ 이제치룩 밧디 막 갈앙은에. 콩은 밧도 갈앗어. 걸름콩도.[1411]

여름에는 조, 팥, 콩도 하고. 조는 여름 한여름에 갈아서 가을 되면 수확해서. 팥도 마찬가지, 조나. 팥은 많이 안 갈지. 팥은 어떻게 하냐 하면 조 한 옆에 하나씩 톡톡 알로 해서 쪼끔 해서 먹는 체했지. '고량ᄑᆞᆺ'[1412]이라고 하지. 가에. 가운덴 안 하고. 밭머리 있는 가에만 톡 놔서 먹는 체했지. 이제처럼 밭에 갈아서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어? 뭐 팥 이제처럼 밭에 막 갈아서. 콩은 밭도 갈았어. '걸름콩'[1413]도.

• 장콩, 걸름콩

장콩 허젠 허민 콩은 갈앗지. 하영 안 갈아도 ᄒᆞᆫ 말지기 정도 갈앙은게 장콩허고. 밧이 박헌 디는 콩 막 갈아근에 때려근에 걸름. 밧 걸름. 콩 열매 열기 전에 막 무성허게 클 때 그때. 그 걸름으로 보리가 잘뒈지.[1414]

1411) 강창유 구술.
1412) '고량ᄑᆞᆺ'은 조를 간 밭의 고랑에 듬성듬성 간 팥을 말한다.
1413) '걸름콩'은 밭의 거름을 목적으로 간 콩을 말한다.

장콩 하려고 하면 콩은 갈았지. 많이 안 갈아도 한 마지기 정도 갈아서 장콩하고. 밭이 박한 데는 콩 막 갈아서 때려서 거름. 밭 거름. 콩 열매 열기 전에 아주 무성하게 클 때 그때. 그 거름으로 보리가 잘되지.

4) 장마 · 속담

산디는 봄갈이. 일찍 허는 것이 잇습니다예. 봄갈이라고 헐 때는 음력 사월달에 봄갈이를 일찍 허고. 또 땅이 없는 사람은 보리를 비어 나서 그 후작으로 험만 허민, 거는 ᄒᆞᆫ 늦어예. ᄒᆞᆫ 유월달 뒈서도 허는 분은 허는데.[1415] 유월중에 허주게.[1416] 그 당시에 이런 기상 여건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그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으로 헤서 얘기를 하고 잇는데, 우리가 그 어릴 적에 보믄 벡합꼿. 벡합꼿이 마지막ᄁᆞ지 다 피엇느냐 헐 때는 장마가 걷고예, 중간 핌만 허민 아직 장마가 남앗다 허는 것이. 것도 나이 많은 분덜이 경험에 의해서 금년 해 보고 내년 해 보면서 그치룩을 헷는데. 지금에 가만히 봄만 허민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헤예. 이 남풍이 불어서 장마가 올를 때는 순조롭게 올려서 장마가 올라가고, 마 카운데 하늬ᄇᆞ름이 불만 허민 마가 장찬다. 그런 그 말이 일리가 잇어요. 바람이 우티레 갓다가 또 장마가 바람 불어서 내려와서 그만 제주도까지 내려오지 안헙니까. 왓다갓다허면서 장마가 장찬다. 이 말을 헌 것이 그 나이 많은 분덜이 아무것도 없지마는 경험이고.

그분들이 얘기허는 것도 지금도 하나 이해뒈는 것이 농사에는 저 박사가 없어. 해우년으로 가. 이것이 우리가 경험을 해우년으로 봐예. 금년 같은

1414) 강창유 구술.
1415) 강경찬 구술.
1416) 우명창 구술.

해 또 봄만 허면 봄농사가 전부 안 됐어요. 전부 안 된 것이 금년 이것도 해우년으로 간다는 것이 나이 많은 분덜 얘기헌 것이 마찬가지라.

또 호박줄 잇지 않습니까예? 호박줄이 직선으로 이러콤이러콤 고개 들러서 흠만 허민 금년은 바람이 불어. 가면서 이러쿰 꼬부라지믄 바람이 안 분다 헌 것이. 나도 이것도 흔 번 그 기상센터에 한 번 만낭 얘기할라고 하는데, 저걸 유심히 봐예. 봄만 허민 큰ᄇᆞ름이 없어. 영 꼬부라진 해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에게 듣고 이런 것이 지금 와서도 이런 건데, 우리 후에 젊은 사름덜이 이런 거 들을 사름도 엇고. 그 사름덜이 박사덜이니까 허는데 우리는 어른들에게 들어서.[1417]

벡합이 마지막 고장 피민 장마가 걷는다.[1418] 나리. 여기 흰 벡합은 엇엇수다. 나리주.[1419] 벡합이 근래 와서 나리라 헷어게. 벡합이엔 헷어. 벡합이, 벡합이 허여, 할망덜.[1420] 지금도 나 메칠 전에 보니까 다 안 피엇던데이, 끗겡이 멧 개 잇어.[1421] 오 단ᄀᆞ지 피면은 장마 끗나. 오 단으로 허면은 것이 장마 끗나는 거.[1422]

밭벼는 봄갈이. 일찍 하는 것이 있습니다요. 봄갈이라고 할 때는 음력 사월달에 봄갈이를 일찍 하고. 또 땅이 없는 사람은 보리를 베고 나서 그 후작으로 하기만 하면, 거는 한 늦어요. 한 유월 되어서도 하는 분은 하는데. 유월 중에 하지. 그 당시에 이런 기상 여건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그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릴 적에 보면 '벡합꽃'[1423]. '벡합꽃'이 마지막까지

1417) 강경찬 구술.
1418) 강경찬 구술.
1419) 김웅철 구술.
1420) 우명창 구술.
1421) 박순자 구술.
1422) 박순자 구술.

다 피었느냐 할 때는 장마가 걷고요, 중간 피기만 하면 아직 장마가 남았다 하는 것이. 것도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금년 해 보고 내년 해 보면서 그처럼을 했는데. 지금에 가만히 보기만 하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해요. 이 남풍이 불어서 장마가 오를 때는 순조롭게 올려서 장마가 올라가고, 마 가운데 하늬바람이 불기만 하면 마가 장찬다. 그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바람이 위로 갔다가 또 장마가 바람 불어서 내려와서 그만 제주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장마가 장찬다. 이 말을 한 것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없지마는 경험이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도 하나 이해되는 것이 농사에는 저 박사가 없어. 해운으로 가. 이것이 우리가 경험을 해운으로 봐요. 금년 같은 해 또 보기만 하면 봄농사가 전부 안 됐어요. 전부 안 된 것이 금년 이것도 해운으로 간다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 얘기한 것이 마찬가지야.

또 호박줄 있지 않습니까요? 호박줄이 직선으로 '이러콤이러콤' 고개 들어서 하기만 하면 금년은 바람이 불어. 가면서 이렇게 꼬부라지면 바람이 안 분다 한 것이. 나도 이것도 한 번 그 기상센터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걸 유심히 봐요. 보기만 하면 큰바람이 없어. 이렇게 꼬부라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에게 듣고 이런 것이 지금 와서도 이런 건데, 우리 후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들을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니까 하는데 우리는 어른들에게 들어서.

나리 마지막 꽃 피면 장마가 걷는다. 나리. 여기 흰 백합은 없었습니다. 나리지. '벡합이' 근래 와서 나리라 했어. '벡합이'라고 했어. '벡합이', '벡합이' 해, 할머니들. 지금도 나 며칠 전에 보니까 다 안 피었던데, 끄트머리 몇 개 있어. 오 단까지 피면은 장마 끝나. 오 단으로 하면 것이 장마 끝나는 거.

1423) 여기에서 '벡합꽃'은 나리꽃을 가리키는 말이다.

5) 검질매기

• 조컴질, 산디검질, 콩검질

유월절 ᄀᆞ뜬 건 그런 거 들어보긴 들어봣지. 유월절. 겐디 이 조는 잘 안 ᄇᆞᆯ리민 뒈지도 아녀곡 검질을 여름 내낭 메야 뒈. 조컴질 웨 메느냐? 조가 너무 많이 나 부니까. 또 소끄지 안허민 안 뒈주. 풀도 메곡 것도 소끄고. 두불ᄁᆞ지만 메민. 세불ᄁᆞ지 메는 사름도 잇는데 두불ᄁᆞ지만 메믄 되어. 세불 메는 사름도 잇어. 처음에 젤 힘들어, 거 메젠 허면. 두 번째는 쉬어. 절반 정도벳기 안 뒈여. 조는 안 소끄고 풀만 메니까. 이따가 하나씩 부뜬 거 메고. 처음엔 바짝 헤 놓민 거 소꽈야주기. 처음 검질메는 게 힘들고 두 번째 쉽고 세 번짼 아주 쉽고. 건들건들 뭐 세 불째는. 여름 내낭 메야주게. 게난 우리 어린 때 학교 가지 말앙 검질메레 글라, 검질메레 글라.[1424]

그때 당시 그 보면은 조컴질, 산디검질 그렇게 허고. 고구마, 콩검질. 그런 식으로 나가. 게민 지금에는 장갑이 잇주마는 그땐 장갑도 엇고 아무것도 엇어. 검질메당 보민 손콥이 ᄆᆞᆫ딱 다 체어져. 손콥이 다 체어지고 손이 다 시커멍허여. 손콥이 흑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딱 하나 남는 거는 뭐냐 허민 자리젓. 그거 하나민 시커멍헌 손으로 그걸 허영 먹고. 그래도 맛 좋앗어.[1425]

조컴질 허게 허민 멧 불 메는지 모르지? 일반적으로 조컴질 허게 뒈면, 이제 좁씨를 삐엉 놔두면은 그냥은 바람 불어서 그대로 잘 안 뒛어. 밧이 그래서 이쪽에는 말보다는 소가 많은 디라. 각자 집에 한 마리씩은 분명히 잇어. 나중에는 뭐 암소도 메고 ᄆᆞᆯ도 막 허고 혯주만 그 당시 우리 헐 때는

1424) 강창유 구술.
1425) 박순자 구술.

쉐 ᄒᆞᆫ ᄆᆞ리로, 이제 ᄎᆞᆷ 일허는 소니까 듬직헌 소. 거 발 ᄒᆞᆫ 번만 ᄇᆞᆯ르게 뒈면 ᄇᆞ름 불어도 끄닥없는 거라. 그건 뭐 ᄇᆞᆯ려 놧다가 복삭허니까 초불검질을 메야 뒈. 초불을 소까야 뒈. 엄청 힘들어, 거. 하나씩 소끄젠 허민 이제 어느 시절에 영 허영 부모님덜은 이게 숙달뒈니까 잘허지마는 우리야 뭐 허리 오그라졍 아주 죽어대지. 어떵 어떵 멩은에 이제 ᄒᆞᆫ 보름이나 셔 가민 두 번, 어떤 땐 세 번도 메여. 산디검질은 다섯 번 매야. 알다시피 나록밧은 알드른 엇어. 그래서 밧농사는 산디농사로 헤서 것도 마찬가지 ᄇᆞᆯ려 줘야 뒈. 산디검질도 초불 두불 서너불 메는디 밧이 좋은 밧이 되는 거지, 나쁜 밧은 산디 뭘 수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적정허게 비도 와줫주만 근래 와서는 비가 안 오민 안 뒈는데 이 산디는 이 좋은 밧으로 허민 좋주.[1426] 산디라는 것이 이 모래 잇잖읍니까? 모래가 서터진 밧은 그 처음엔 나긴 나는데 노랗게 헤서 다 녹아 불어예. 너무 강한 땅은 비가 안 옴만 허민 안 뒈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아이가 나서 처녀로 커서 결혼헐 때까지 ᄊᆞᆯ 서 말을 못 먹어서 결혼헌덴 말이 바로 이거라. 서 말도 대두 서 말이 아니고 넉 뒈 서 말을 못 먹언. 그만큼 제주도가 이런 먹는 문화나 모든 것이 너무 약허엿지. 곤ᄊᆞᆯ 서 말을 먹지 못헤서 결혼혯다는 그런 말도 농담 겸. 아무 땅이나 안 되고 우리가 가만히 봄만 허민 우리 때도 그것을 많이 봣는데 결혼헐 적에 밑에는 보리밥 놓고 우에는 쌀밥을 놔서 이것을 우리가 허고. 그 결혼식 헐 때 대반 앚은 분이 ᄃᆞᆨ세기 계란. 신부상은 그만허민 그거 앚아서 멧 개썩 주고. 걸 우리가 ᄎᆞᆷ ᄒᆞ꼼이라도 얻어먹을라고 그 틈으로 사서 손 내밀고 이치룩헌 시절이엇거든.[1427]

1426) 우명창 구술.
1427) 강경찬 구술.

유월절 같은 건 그런 거 들어보긴 들어봤지. 유월절. 그런데 이 조는 잘 안 밟으면 되지도 않고 김을 여름 내내 매야 돼. 조김 왜 매느냐? 조가 너무 많이 나 버리니까. 또 솎지 않으면 안 되지. 풀도 매고 것도 솎고. 두벌까지만 매면. 세벌까지 매는 사람도 있는데 두벌까지만 매면 되어. 세벌 매는 사람도 있어. 처음에 젤 힘들어, 거 매려고 하면. 두 번째는 쉬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조는 안 솎고 풀만 매니까. 이따가 하나씩 붙은 거 매고. 처음엔 바짝 해 놓으면 거 솎아야지. 처음 김매는 게 힘들고 두 번째 쉽고 세 번짼 아주 쉽고. 건들건들 뭐 세벌째는. 여름 내내 매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가지 말고 김매러 가자, 김매러 가자.

그때 당시 그 보면 조김, 밭벼김 그렇게 하고. 고구마, 콩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 지금에는 장갑이 있지만 그땐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김매다가 보면 손톱이 몽땅 다 째어져. 손톱이 다 째어지고 손이 다 시커메. 손톱에 흙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딱 하나 남는 거는 뭐냐 하면 자리젓. 그거 하나면 시커먼 손으로 그걸 해서 먹고. 그래도 맛 좋았어.

조김 하게 하면 몇 벌 매는지 모르지? 일반적으로 조김 하게 되면, 이제 좁씨를 뿌려서 놔두면 그냥은 바람 불어서 그대로 잘 안 됐어. 밭이 그래서 이쪽에는 말보다는 소가 많은 데야. 각자 집에 한 마리씩은 분명히 있어. 나중에는 뭐 암소도 매고 말도 마구 하고 했지만 그 당시 우리 할 때는 소 한 마리로, 이제 참 일하는 소니까 듬직한 소. 거 발 한 번만 밟게 되면 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거야. 그건 뭐 밟아 놨다가 복삭하니까 애벌김을 매야 돼. 애벌을 솎아야 돼. 엄청 힘들어, 거. 하나씩 솎으려고 하면 이제 어느 시절에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은 이게 숙달되니까 잘하지만 우리야 뭐 허리 오그라지고 아주 죽어대지. 어떻게 어떻게 매서 이제 한 보름이나 있어 가면 두 번, 어떤 땐 세 번도 매어. 밭벼김은 다섯 번 매야. 알다시피 밭벼밭은 '알드르'[1428]는 없어.

1428) '알드르'는 한라산 쪽의 들판인 '웃드르'에 상대하여 바다 쪽에 펼쳐진 들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밭농사는 밭벼농사로 해서 것도 마찬가지 밟아 줘야 돼. 밭벼김도 초벌 두벌 서너벌 매는데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지, 나쁜 밭은 밭벼 될 수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적정하게 비도 와줬지만 근래 와서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데 이 밭벼는 이 좋은 밭으로 하면 좋지. 밭벼라는 것이 이 모래 있잖습니까? 모래가 섞인 밭은 그 처음엔 나긴 나는데 노랗게 해서 다 녹아 버려요. 너무 강한 땅은 비가 안 오기만 하면 안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아이가 나서 처녀로 커서 결혼할 때까지 쌀 서 말을 못 먹고 결혼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야. 서 말도 대두 서 말이 아니고 넉 되 서 말을 못 먹었어. 그만큼 제주도가 이런 먹는 문화나 모든 것이 너무 약하였지. 흰쌀 서 말을 먹지 못해서 결혼했다는 그런 말도 농담 겸. 아무 땅이나 안 되고 우리가 가만히 보기만 하면 우리 때도 그것을 많이 봤는데 결혼할 적에 밑에는 보리밥 놓고 위에는 쌀밥을 놔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그 결혼식 할 때 '대반' 앉은 분이 달걀 계란. 신부상은 그만하면 그거 앉아서 몇 개씩 주고. 걸 우리가 참 조끔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틈으로 서서 손 내밀고 이처럼한 시절이었거든.

• 검질매는소리

검질매는소리도 헷주게. 어어어 요 검질, 느영나영 아니 메면 어느 누게 메어주리. 샛ᄇᆞ름아 재개재개 불어와서 내 얼굴에 땀방울을 싯어 ᄃᆞ라. 어어어 요 검질. 재개재개 메어근에 ᄒᆞᆫ 시름 엇어 불게. 어어어 요 검질 허멍, 이치룩허멍 요거 메여 가겐, 두갓이고 세 사름이고. 식구덜 막 모영.[1429]

김매는소리도 했지. 어어어 요 김, 너랑나랑 아니 매면 어느 누가 매어주리. 샛바람아 재우재우 불어와서 내 얼굴에 땀방울을 씻어 다오. 어어어 요 김. 재우재우 매어서

1429) 강창유 구술.

한 시름 없애 버리자. 어어어 요 김 하면서, 이처럼하면서 요거 매어 가자고. 부부이고 세 사람이고. 식구들 막 모여서.

□ 7월

1) 칠석

칠석 불공을 하면서. 대개 이 대정에, 절간에 분포를 보면은 해안가 쪽을 상당히 선호헷어. 그래서 허다 보면은 해안가 곳곳에 조그만한 당덜이 잇엇다고. 거기서, 가근에 헙니다.[1430] 칠월 칠석날이 저 백조일손 학살헌 날이라. 음력으론 팔월 이십날이고. 칠월 칠석이난 그디 위령제를 양력으로도 허고. 칠석 음력으로만 헤영은에. 양력으로 팔월 이십날인데 위령제 허는데. 매해 칠월 칠석.[1431]

칠석 불공을 하면서. 대개 이 대정에, 절의 분포를 보면 해안가 쪽을 상당히 선호했어. 그래서 하다 보면 해안가 곳곳에 조그마한 당들이 있었다고. 거기서, 가서 합니다. 칠월 칠석날이 저 백조일손 학살한 날이야. 음력으론 팔월 이십날이고. 칠월 칠석이니까 거기 위령제를 양력으로도 하고. 칠석 음력으로만 해서. 양력으로 팔월 이십날인데 위령제 하는데 매해 칠월 칠석.

1430) 김웅철 구술.
1431) 강창유 구술.

2) 백종

백중날 들어봣주게. 물맞는 날 아니라. 여기서는 물맞이레 서림도 가고 ᄒᆞᆫ 번 중문이도 가낫주. 일 년 동안 피부가 건강허여근에. 병 안 걸련 건강허렌 허는 거주. 몸 건강허렌. 중문이 천제연, 그디, 거기 가오고. 서림도 가오고. 신영물은 안 가왓어. 먹을 것도 ᄒᆞ꼼 ᄀᆞ지곡 허연.[1432] 여기는 막 더운 때는 저 서림 가서 물맞으레 많이 갓주. 백종날 택헤서. 하여튼 그 물을 강 어떻든 맞기 위해서는. 부모님 같이 가서, 아, 개역허고, 물도 거기 가서 맞고 물을 언마나 거 시원헌 물이라.[1433] 백종날을 기준헐 적에 그 전에는 그 백종날 사이에 검질을 ᄆᆞᆫ딱 메곡 저 일을 많이 헷거든게, 쪼꼼 그 백종을 기준헤서 그날 간만 허민이 그날이 아님만 허민 쉴 날도 없고. 그 우리가 그 백종날을 헐 때 비가 옴만 허민, 백종날 비가 오민 농사 백 가지에 흠이 난다 이 말도 헷는데. 거는 어느 말을 하는 분이 얘기헌 거고 허니까, 그 농사 기간이 그때 백종날 가서 모욕하고 쉴 기간이 그 타임이 맞앗어.[1434]

우리 신평은 아까 백중날 얘기를 허긴 헷는디 모욕허레 가는데, 일허다 보면은 땀띠가 너미 많이 나 가지고 그걸 맞이러 가는 거라, 백중물 맞으러. 그 땀띠를 들일라고 가면은, 서림 가면은 물이 차겁거든. 진짜 몸이 들어갈 수 엇는 막 차거워. 그 물맞으러 일허다 가면은 백중날은 땀띠 들일라고 경허고. 또 빨래 그날 가서 물에 하루 종일 거기서 헤서 이불안 ᄀᆞ뜬 거, 거기 가서 광목이라든가, 거기 가서 우리는 그렇게 헷고. 여기에 남자 어른덜은 어떻게 헷는지 몰라도 신평은 그렇게 헷어. 빨래허레 가고 하루 종일

1432) 강창유 구술.
1433) 우명창 구술.
1434) 강경찬 구술.

물맞이면은 그 땀띠가 다 들어가. 빨래 거기서 다 허곡. 바다에 그 담 우에다 빨래 널어. 거기서 말리고. 하루 종일 살앙 와. 구덕에 빨레짐 지고. 오늘랑 가근에 빨래도 허고 그렇게 헤. 그렇게 땀띠 일허다 보민 온몸에 땀띠가 나거든. 식구가 가근에 빨래허면은 하루 종일 살거든. 서림물이 차가워 가지고예 얼음덩어리라.[1435] 갈 땐 선 무화까지 타근에 그거 먹어가멍 달래면은 아이 안 가커라, 안 가커라 헤도 글라, 글라 헤영 데령 간다 말여. 서림물이 저 일제강점기에는 저게 완전히 군용수.[1436] 서림물이 뭐헤서 물이 나빴냐 허민 중산간에서 지하수를 개발허고 그쪽에 주로 양돈장. 침전 뒈 부니까 그러니까 물을 뽑으니까 흐린 물이 나왓어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수로는 적합치 않다고 헤서. 우리 그 물을 거 서림서 올려서 모슬봉까지 올렷거든. 헤서 우리가 다 먹엇는데. 한 해는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다 해서 못 먹엇엇어. 서림물은 일정 때 그래도 최고라고 허는 물이지.[1437]

백중날 들어봤지. 물 맞는 날 아닌가. 여기서는 물 맞으러 '서림'[1438]도 가고 한 번 중문도 갔었지. 일 년 동안 피부가 건강해서, 병 안 걸려서 건강하라고 하는 거지. 몸 건강하라고. 중문 천제연, 거기, 거기 다녀오고. 서림도 다녀오고. '신영물'[1439]은 안 다녀왔어. 먹을 것도 조끔 가지고 해서. 여기는 아주 더운 때는 저 서림 가서 물맞으러 많이 갔지. 백중날 택해서. 하여튼 그 물을 가서 어떻든 맞기 위해서는. 부모님 같이 가서, 아, 미숫가루하고, 물도 거기 가서 맞고 물을 얼마나 거 시원한 물이야. 백중날을 기준할 적에 그 전에는 그 백중날 사이에 김을 몽땅 매고 저 일을 많이 했거든, 쪼끔

1435) 박순자 구술.
1436) 김웅철 구술.
1437) 강경찬 구술.
1438) '서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 또는 일과2리에 있는 '서림물'을 말한다.
1439) '신영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그 백중을 기준해서 그날 가기만 하면 그날이 아니기만 하면 쉴 날도 없고. 그 우리가 그 백중날을 할 때 비가 오기만 하면, 백중날 비가 오면 농사 백 가지에 흠이 난다 이 말도 했는데. 거는 어느 말을 하는 분이 얘기한 거고 하니까, 그 농사 기간이 그때 백중날 가서 목욕하고 쉴 기간이 그 타임이 맞았어.

우리 '신평'은 아까 백중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목욕하러 가는데, 일하다 보면 땀띠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걸 맞으러 가는 거야, '백중물'[1440] 맞으러. 그 땀띠를 들이려고 가면, '서림' 가면은 물이 차갑거든. 진짜 몸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차가워. 그 물맞으러 일하다 가면은 백중날은 땀띠 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또 빨래 그날 가서 물에 하루 종일 거기서 해서 이불안 같은 거, 거기 가서 광목이라든가, 거기 가서 우리는 그렇게 했고. 여기에 남자 어른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신평'은 그렇게 했어. 빨래하러 가고 하루 종일 물맞으면 그 땀띠가 다 들어가. 빨래 거기서 다 하고. 바다에 그 담 위에다 빨래 널어. 거기서 말리고. 하루 종일 살고 와. 바구니에 빨래짐 지고. 오늘은 가서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땀띠 일하다 보면 온몸에 땀띠가 나거든. 식구가 가서 빨래하면은 하루 종일 살거든. '서림물'이 차가워 가지고요 얼음덩어리야. 갈 땐 선 무화과까지 따서 그거 먹어가면서 달래면 아이 안 가겠어, 안 가겠어 해도 가자, 가자 해서 데리고 간다 말이야. '서림물'[1441]이 저 일제강점기에는 저게 완전히 군용수. '서림물'이 뭐해서 물이 나빴느냐 하면 중산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쪽에 주로 양돈장. 침전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봅으니까 흐린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수로는 적합지 않다고 해서. 우리 그 물을 거 '서림'에서 올려서 모슬봉까지 올렸거든. 해서 우리가 다 먹었는데. 한 해는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다 해서 못 먹었었어. '서림물'은 일정 때 그래도 최고라고 하는 물이지.

1440) '백중물'은 백중에 맞는 물맞이를 말한다.
1441) '서림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백종사리**

백종날 아까 얘기헷주마는 물맞고 그다음 저녁에는 바다에 가는 거라, 백중에. 바다에 불을 훳불 닮은 거 가져가면은 보멀이니 뭐니 막 나와. 백종사리헤서. 그걸 젊은 사름덜이 그 당시는, 나이 많은 사름들도 갓지만. 하여튼 궹장히 많이 갓어. 가면은 보멀도 큰 바구니로, 소소헌 구제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백중, 백중 허는 거라.[1442]

백중날 아까 얘기했지만 물맞고 그다음 저녁에는 바다에 가는 거야, 백중에. 바다에 불을 횃불 같은 거 가져가면 고둥이니 뭐니 막 나와. 백중사리해서. 그걸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갔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갔어. 가면은 고둥도 큰 바구니로, 소소한 소라도 막 나오고. 그래서 백중, 백중 하는 거야.

3) 모살뜸

모살뜸. 검은모래.[1443] 알드르.[1444] 꺼무룽헌 모래덜이 쫙 깔려 잇엇어. 아주 이 알드르비헹장 알더레. 그래서 해수욕 가면은 그걸로 찜질헷고. 외에는 저 ᄀᆞᆺ디라고 지금 우리 하모일리 쪽에 것도 해수욕장에 백사 모래라. 수영 끗나면은 찜질허레. 백중 때 자주 허고, 여름에도 자주 허고. 가을에도 허고. 바당허고 이 저기 공유수면 자리지. 그쪽에도 모래덜 꽉 차니까.[1445]

겐디 요것이 왜 없어졋느냐? 요거 히한헌 거라. 우리는 그 당시 그 징병해

1442) 우명창 구술.
1443) 박순자 구술.
1444) 김웅철 구술.
1445) 우명창 구술.

서. 어 훈련소로 이제 가는 운전자가 제주시에서 징병으로 헤서 일로 화순 쪽으로 걸 실러 온다고. 대신 그러면 거기에 차덜이 가져갈 것이 없는 거라. 게 모슬포 오면 모래가 유명허니까 그 검은 모래를 한 차씩 실르고 가면은 그게 벌이가 되는 거라. 시에 가면. 그래서 이 모래를 거의 다 실러 먹엇거든. 그 산더미같이. 아까 얘기허듯이 징병덜 실렁, 가져갈 거 없으면 모래를 시껑 제주시 쪽으로 문딱 건설업자로 나강.[1446] 우리가 그 모래를 그 싣고 나갈 적에 육지에서도 안 들어오니까 저 모래 아님만 허민 그 모래가 없거든. 근데 짠물이 서터져서 저것이 안 뒌다고 자꾸 그 말이 나왓어. 집을 지엇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것을 느껴예. 이 이러쿰헤서 철근 ᄀᆞ니까, 철근이 짠물에서 부패가 되니까 다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생각헐 적에 그 당시는 모래를 못 시꺼가게 위헤서 그 말을 헌 건가 헷더니 아니. 현실 보니까 그거 아니더만. 집이 보니까 그 전에 저 짠물 헤 논 건 다 떨어져.[1447] 개다리구석이라고 헌 데가 사구가 여러 개가 잇엇어. 그걸 다 파헤치다 보니까 이젠 뭐 완전히 공유수면 뒈 버렷는데, 그 모래가 아니었으면 제주시에 읍 시절부터 제주시의 오늘이 없어. 그걸 그래서 어디 맨땅에 놔도 오래 잇으면은 짠물이 다 빠진다 말여.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엇어. 집에 다 들어가 불엇지.[1448] 모살뜸헌 거 아 거긴 간 헷지. 이제는 그런 식 없어.[1449]

모살찜 난 안 헤본디 여름에 허는 사름 잇어. 하나씩. 모래 강 드러눠 멧이 강 자기 혼잔 못허여. 눈만 영 내영 문딱 모래 허민 이 혈액이 나중엔 잘 돈덴 허데, 건. 나 허는 건 구경은 헷지. 백모래밧디 강. 산이수동은

1446) 우명창 구술.
1447) 강경찬 구술.
1448) 김웅철 구술.
1449) 우명창 구술.

엇어. 저디 멜캐, 하모리. 나도 젊을 때 멜 거리레 거기 막 뎅겨낫주게. 조그마헌 사둘 하나 ᄀᆞ졍. 멜이 잘 들어. 밤 그디 강 자멍. 사둘로 멜 거리주게. 어른덜은 큰 사둘 우리 학생은 곧 중고등학교 학생이난 이만이헌 사둘 조그만 거 ᄀᆞ졍 혼자 허영. 어른덜은 두갓이 큰 사둘허민 허영 확 거리민 박세기에 탁 데껑 탁 놓고. 큰 사둘이. 게민 재미진 일이라고. ᄒᆞᆫ 사름은 막 멜을 몰아와야 올 거 아니? 막 몰앙 막 허당 보민 중간에서 다른 사름이 확허게 거령 놔 불민 죽일 놈 잡을 놈 허멍. 나중엔 두갓이 뒈 불언. 멜 거리레 갓단 싸완. 소문난. 그 우리 오춘 여자 어른이 검질메레 ᄀᆞ찌. 아이고, 우리 남편 그 멜 거리레 강 우리 영 거리젠 허민 그 덩치가 크주게. 아, 중간에서 사둘 확 거령 도망가 불민 이 개쌍놈 저 놈 죽여 불켄 허멍 막. 겐디 오꼿 두갓이 뒈 볏젠 허멍.[1450]

모래찜. 검은모래. '알드르'. 꺼무스레한 모래들이 쫙 깔려 있었어. 아주 이 '알드르비행장'[1451] 아래로. 그래서 해수욕 가면은 그걸로 찜질했고. 외에는 저 'ᄀᆞᆽ디'[1452]라고 지금 우리 하모일리 쪽에 것도 해수욕장에 백사 모래야. 수영 끝나면 찜질하러. 백중 때 자주 하고, 여름에도 자주 허고. 가을에도 하고. 바다하고 이 저기 공유수면 자리지. 그쪽에도 모래들 쫙 차니까.

그런데 요것이 왜 없어졌느냐? 요거 희한한 거야. 우리는 그 당시 그 징병해서. 어 훈련소로 이제 가는 운전자가 제주시에서 징병으로 해서 이리로 화순 쪽으로 걸 실어

1450) 강창유 구술.

1451) '알드르비행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자리하던 옛 비행장이다. 일본 해군이 193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초기 폭격기지로 사용하였다. 1945년 일본 본토결전 작전준비 비행장으로 이용한 이곳에는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전투기 격납고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국가등록유산이다.

1452) 'ᄀᆞᆽ디'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지경 이름이다.

온다고. 대신 그러면 거기에 차들이 가져갈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슬포 오면 모래가 유명하니까 그 검은 모래를 한 차씩 싣고 가면은 그게 벌이가 되는 거야. 시에 가면. 그래서 이 모래를 거의 다 실어 먹었거든. 그 산더미같이. 아까 얘기하듯이 징병들 실어서, 가져갈 거 없으면 모래를 실어서 제주시 쪽으로 몽땅 건설업자로 나가서. 우리가 그 모래를 그 싣고 나갈 적에 육지에서도 안 들어오니까 저 모래 아니기만 하면 그 모래가 없거든. 근데 짠물이 섞어져서 저것이 안 된다고 자꾸 그 말이 나왔어. 집을 지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것을 느껴요. 이 이렇게해서 철근 까니까, 철근이 짠물에서 부패가 되니까 다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생각할 적에 그 당시는 모래를 못 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건가 했더니 아니. 현실 보니까 그거 아니더구먼. 집에 보니까 그 전에 저 짠물 해 논 건 다 떨어져. '개다리구석'[1453]이라고 하는 데가 사구가 여러 개가 있었어. 그걸 다 파헤치다 보니까 이젠 뭐 완전히 공유수면 뒈 버렸는데, 그 모래가 아니었으면 제주시에 읍 시절부터 제주시의 오늘이 없어. 그걸 그래서 어디 맨땅에 놔도 오래 있으면 짠물이 다 빠진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어. 집에 다 들어가 버렸지. 모래찜한 거 아 거긴 가서 했지. 이제는 그런 식 없어.

모래찜 난 안 해봤는데 여름에 하는 사람 있어. 하나씩. 모래에 가서 드러눠서 몇이 가서 자기 혼잔 못해. 눈만 이렇게 내어서 몽땅 모래 하면 이 혈액이 나중엔 잘 돈다고 하데, 건. 나 하는 건 구경은 했지. 백모래밭에 가서. 산이수동은 없어. 저기 '멜캐'[1454], 하모리. 나도 젊을 때 멸치 뜨러 거기 막 다녔었지. 조그마한 사둘 하나 가져서. 멸치가 잘 들어. 밤 거기 가서 자면서. 사둘로 멸치 뜨지. 어른들은 큰 사둘 우리 학생은 곧 중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이만큼한 사둘 조그만 거 가져서 혼자 해서. 어른들은 부부가 큰 사둘하면 해서 확 뜨면 바가지에 탁 던져서 탁 놓고. 큰 사둘이.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라고. 한 사람은 막 멸치를 몰아와야 올 거 아니? 막 몰아서 막 하다가 보면 중간에

1453) '개다리구석'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의 송악산 절벽 아래의 지경 이름이다.
1454) '멜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바닷가 지경 이름이다.

서 다른 사름이 확하게 떠 놔 버리면 죽일 놈 잡을 놈 하면서. 나중엔 부부가 되어 버렸어. 멸치 뜨러 갔다가 싸워서. 소문났어. 그 우리 오촌 여자 어른이 김매러 같이. 아이고, 우리 남편 그 멸치 뜨러 가서 우리 이렇게 뜨려고 하면 그 덩치가 크지. 아, 중간에서 사둘 확 떠서 도망가 버리면 이 개쌍놈 저 놈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그런데 그만 부부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4) 입추 · 처서

처서가 지남만 허면 검질 안 난다. 검질도 처서가 지나면 울멍 돌아산단 말이 우리가 옛날 그 어머니네도 듣고. 검질메레 가근에 다시 저 멜 것광? 허니까 아이, 처서 지남만 허민 검질이 안 나 이치록허고. 처서가 지남만 허민 검질도 울멍 돌아간다. 이 말을 우리 들엇는데. 거는 우리가 어릴 적에 들은 말이고, 글로 우리 검질 안 메보니까 말만 들은 거라.[1455]

처서가 지나기만 하면 김 안 난다. 김도 처서가 지나면 울면서 돌아선다는 말이 우리가 옛날 그 어머니네도 듣고. 김매러 가서 다시 저 맬 겁니까? 하니까 아니, 처서 지나기만 하면 김이 안 나 이처럼하고. 처서가 지나기만 하면 김도 울면서 돌아간다. 이 말을 우리 들었는데. 거는 우리가 어릴 적에 들은 말이고, 그리로 우리 김 안 매보니까 말만 들은 거야.

□ 8월

1455) 강경찬 구술.

1) 벌초

팔월 나민은 벌초가 큰일이주. 벌초는 우리는 저 안덕, 중문 지경에 잇는디, 선묘덜이. 우리 하르버지가 그디 양제 들언에 거기 선묘덜이 이제도 잇어. 이제도 일 년에 ᄒᆞᆫ 번씩 그디 강은에 벌초헹 와야 뒈. ᄒᆞ루 종일 걸려. 준비헐 게 무신 음식이나 ᄒᆞ꼼 허고 호미나 ᄀᆞᆯ민 뒈주. 이젠 벌초기 생기니까 벌초기 ᄀᆞ졍 강 허고 호미 ᄀᆞ튼 건 이 ᄉᆞ방에 벌초기 못허는디 그걸로 허곡 헨에. 옛날엔 걸엉. 차가 안 오민 걸엉. 중문 저 군산오름ᄁᆞ지 올라강, 걸어근에. 게면은 아침 새벡이 동트민 나갓어. 호미 ᄀᆞ뜬 것도 전부 ᄀᆞᆯ앗다근에 동트민 나가서 그디 가면은 해가 둥둥 위로 올라와. 아, 겐디 우리 작은형님만 버스 탄 온 거라. 우리 형님넨 돈 에껴근에 버스 안 헤근에 강 보민 우리 작은형님이 앞이 강 앚앙 잇어. 아, 이거 이상허다. 우리가 형님, 우리도 버스 타고 ᄀᆞ찌 갑시다. 버스 타니까 그렇게 편헌걸. 중문 창천리 옆이 ᄂᆞ려근에 걸어근에 알러레. 아랜 그때 버스 엇어주게. 걸어근에 그레 가민 가깝주게. 창천리 가근에 감산리 가근에 아 군산 올라가는 거 가깝지 안헤. 보채난 경 좋은 것을 갖다가 막 고생허연. ᄒᆞᆫ번은 아, 걸엉 갈 땐디 산방산 목다리가 얼마나 ᄇᆞ름 쎈지 혼자는 걸어갈 수 엇어. 게난 ᄌᆞᆫ둥이 전부 일렬로 산에 ᄌᆞᆫ둥이 전부 안앙. 뒤로 밀령 넘어가멍 헐 때도 잇어. 서로 전부 ᄌᆞᆫ둥이 안앙 가멍. 일렬로 쭉 산 뒤로 밀리멍 헨 그디 넘으니까 또 씨원헌 디. 게난 황오치, 황오치 거기 상당히 ᄇᆞ름 쎄데. 이젠 넓게 그 바닷가로 새로 길 빠 부니까 뭐. 옛날길 다 안 쓰잖아. 아, ᄇᆞ름코지.[1456]

벌초를 허게 뒈면은 대개 팔월 초ᄒᆞ루. 그 기간을 택헤서 여기는 뭐 팔월

1456) 강창유 구술.

저 모두 얼로 나오라, 그렇게 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멧 대 산 어디서 나오라. 그디 가서 벌초 다 헐 거 아니? 대개, 게면은 우리도 보면은 권당덜이 웃하르방덜이 딱 나온 거 보면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름들이 먼저 와. 벌초를. 이제하고는 완전 정반대라. 딱 와서 앚아 잇고. 뭐 그 사름이 벌초 위헤서 앚는 게 아니라 위엄을 표시헤 주고 조상덜의 그 정말 이런 그 벌초 관계로 어 잘 보라 허는 듯이 배움을 적시헤주게.[1457] 소분새를 졍 뎅길 때부터 시작헤서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허니까 그 다음부떠는 이동허기를 제주도말로 간세허기 시작헷다 말이여. 양광시럽게 요새는 어디 협동조합에 가근에 아니믄 무슨 어디 저 장의사 ᄀᆞ튼 디서 벌초 대행헌다 말여, 이게, 참.[1458]

게난 그때 벌초헐 때는 우리 시절은 쉐 멕이는 거. 경 안 허민 벌초 ᄌᆞ근ᄌᆞ근 비어갈 건데 하 이거 아는 사름덜은 쉐 먹음직헐 거로만 헤서 딱딱 무껏다가 아 정말 그 ᄒᆞᆫ 이삼일 벌초 끗나민 걸 다 멕이주게. 그 욕심이 궹장헷어. 그 당시는, 촐 허젠. 벌초 기계 예초기.[1459] 호미 헹 갈 때는 호미 두 개 헤영은에 천 감든지 새로 감든지.[1460] 대개 보면은 벌초허당 보면은게 벌이 하나 두 개. 왕벌. 요거 자세히 강 보면은 어느새 확, 우리는 그 사전에 파악을 허는 거라. 야, 어디 어디 벌집 시난 너네덜 그 당시 확 불 헤동은에 가 불주게. 게난 이제 기름 비슷헌 거 헤당 팍 집어낭 팍 허는 거라. 경허민 해마다 거 생겨, 벌이. 거 상당이 위험헌 거. 벌 쏘인 거.[1461] 제초에 방법이 여기허고 구좌허고는 아주 틀려. 구좌 쪽에는 이

1457) 우명창 구술.
1458) 김웅철 구술.
1459) 우명창 구술.
1460) 박순자 구술.
1461) 우명창 구술.

질어. 게근에 사근에 빈다 말여. 겐디 글겡이를 동원헐 정도로 풀이 많은 디가 바로 구좌라. ᄃᆞ리 손당.[1462] 낫쟁이. 거보고 낫이렌 허여.[1463]

팔월 되면 벌초가 큰일이지. 벌초는 우리는 저 '안덕', '중문' 지경에 있는데, 선묘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양자 들어서 거기 선묘들이 이제도 있어. 이제도 일 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벌초하고 와야 돼. 하루 종일 걸려. 준비할 게 무슨 음식이나 조끔 하고 낫이나 갈면 되지. 이젠 벌초기 생기니까 벌초기 갖고 가서 하고 낫 같은 건 이 사방에 벌초기 못하는 데 그걸로 하고 해서. 옛날엔 걸어서. 차가 안 오면 걸어서. 중문 저 '군산오름'[1464]까지 올라가서 걸어서. 그러면 아침 새벽에 동트면 나갔어. 낫 같은 것도 전부 갈았다가 동트면 나가서 거기, 가면은 해가 둥둥 위로 올라와. 아, 그런데 우리 작은형님만 버스 타서 온 거야. 우리 형님넨 돈 아껴서 버스 안 해서 가서 보면 우리 작은형님이 앞에 가서 앉아 있어. 아,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형님, 우리도 버스 타고 같이 갑시다. 버스 타니까 그렇게 편한걸. 중문 창천리 옆에 내려서 걸어서 아래로. 아랜 그때 버스 없었지. 걸어서 그리로 가면 가깝지. 창천리 가서 감산리 가서 아 '군산' 올라가는 거 가깝지 않아. 보채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아주 고생했어. 한번은 아, 걸어서 갈 땐데 산방산 목이 얼마나 바람 센지 혼자는 걸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잔등 전부 일렬로 서서 잔등 전부 안아서. 뒤로 밀려서 넘어가면서 할 때도 있어. 서로 전부 잔등 안고서 가면서. 일렬로 쭉 서서 뒤로 밀리면서 해서 거기 넘으니까 또 시원한 데. 그러니까 '황오치'[1465], '황오치' 거기 상당히 바람 세데. 이젠 넓게 그 바닷가로 새로 길 봅아 버리니까 뭐. 옛날길 다 안 쓰잖아. 아, 바람받이.

1462) 김웅철 구술.
1463) 강경찬 구술.
1464) '군산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오름이다.
1465) '황오치'는 서귀포시 안덕변 사계리 해안의 지경 이름이다. 달리 '황우치'라고도 한다.

벌초를 하게 되면 대개 팔월 초하루. 그 기간을 택해서 여기는 뭐 팔월 저 모두 어디로 나와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대 산 어디서 나와라. 거기 가서 벌초 다 할 거 아니? 대개, 그러면 우리도 보면 권당들이 '웃하르방'[1466]들이 딱 나온 거 보면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벌초를. 이제하고는 완전 정반대야. 딱 와서 앉아 있고. 뭐 그 사람이 벌초 위해서 앉는 게 아니라 위엄을 표시해 주고 조상들의 그 정말 이런 그 벌초 관계로 어 잘 봐라 하는 듯이 배움을 적시하지. '소분새'[1467]를 지고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동하기를 제주도말로 '간세하기' 시작했다 말이야. 양광스럽게 요새는 어디 협동조합에 가서 아니면 무슨 어디 저 장의사 같은 데서 벌초 대행한다 말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그때 벌초할 때는 우리 시절은 소 먹이는 거. 그렇게 안 하면 벌초 차근차근 베어갈 건데 하 이거 아는 사람들은 소 먹음직할 거로만 해서 딱딱 묶었다가 아 정말 그 한 이삼일 벌초 끝나면 걸 다 먹이지. 그 욕심이 굉장했어. 그 당시는, 꼴 하려고. 벌초 기계 예초기. 낫 해서 갈 때는 낫 두 개 해서 천 감든지 띠로 감든지. 대개 보면 벌초하다가 보면 벌이 하나 두 개. 왕벌. 요거 자세히 가서 보면 어느새 확, 우리는 그 사전에 파악을 하는 거야. 야, 어디 어디 벌집 있으니까 너희들 그 당시 확 불 해두고 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기름 비슷한 거 해다가 팍 집어놔서 팍 하는 거야. 그러면 해마다 거 생겨, 벌이. 거 상당히 위험한 거. 벌 쏘인 거. 제초의 방법이 여기하고 '구좌'하고는 아주 달라. '구좌' 쪽에는 이 길어. 그래서 서서 벤다 말이야. 그런데 갈퀴를 동원할 정도로 풀이 많은 데가 바로 '구좌'야. '교래 송당'. '낫쟁이'[1468]. 거보고 벌낫이라고 해.

1466) '웃하르방'은 윗대의 할아버지라는 의미다.
1467) '소분새'는 벌초할 때 무덤에서 베어낸 띠를 말한다.
1468) '낫쟁이'는 벌낫을 잘 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 모둠벌초, 개인벌초

모둠벌초엔 헌 건 웃대 조상. 그걸 ᄌᆞ순덜이 전부 웃대벌초. 당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묘는 개인벌초 허주게. 모둠벌초는 그 웃대 증조 멧 대, 칠 대, 팔 대 큰벌초지. 그 ᄌᆞ손덜이 전부 모여근에 와글와글허지. 떼로 모여 강은에 산 하나라도 쫙. 거보고 모둠벌초. 게고 종손이엔 헌 사름은 떡이영 허고 술이영 허영 강 주긴 줘. 그 토지를 벌고 잇으니까. 경허주만 근래에는 그런 집도 드물어. 요즘도 허긴 허는 디 잇고 안 허는 집도 잇고. 종손은 허염저 안 헤염저 헐 수도 엇고. 이장도 많이 헷주. 저 서쪽 어디 길 남젠 허여근에 이장헷고. 이제도 예산이 엇언 거기 이장을 헤 와야는디 벌초 관계로 멀엉. ᄒᆞ루 종일 이디 오민 ᄒᆞᆫ 시간이 뭘 거. 차 시니까 차 탕 강은에. 겐디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헤서 못허고 잇지. 젤 걱정이지.[1469]

나도 우리 문중에서 우리 집안에선 최고 어른. 우리 조카가 나보다 ᄒᆞᆫ 설 밑인디 종손이지마는. 내가 최고 어른이지. 삼춘 조케. 게난 내가 선두에 사야지. 다른 사름 ᄀᆞ트민 믿고 안 가주만 내가 선두에 산. 우리 조카보다 더 선두에 사근에. 조카덜토 칠십 팔십 다 낫주게. 빨리덜 허라. 자기도 열심히 허면서 시켜야지 자긴 안 허멍 시기민 삼춘 무사 비릉이 산 베렴수가? 이제 팔십다섯 낫주마는 에, 자기도 ᄯᅠᆷ 흘리멍 허곡. 빨리 허라, 영 헤천 보지 말앙 재게 해야 갈 거 아냐? 말 잘 들어. 자기가 잘허여야 시기는 거지. 자기 못허면서 시기지 못 허여. 것이 사회 법칙.[1470]

'모둠벌초'[1471]라고 한 건 윗대 조상. 그걸 자손들이 전부 윗대벌초. 당한 자기 아버

1469) 강창유 구술.
1470) 강창유 구술.
1471) '모둠벌초'는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벌초를 말한다.

지 할아버지 묘는 '개인벌초'[1472] 하지. '모둠벌초'는 그 윗대 증조 몇 대, 칠 대, 팔 대 '큰벌초'지. 그 자손들이 전부 모여서 와글와글하지. 떼로 모여 가서 묘소 하나라도 쫙. 거보고 '모둠벌초'. 그러고 종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떡이랑 하고 술이랑 하여서 가서 주긴 줘. 그 토지를 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근래에는 그런 집도 드물어. 요즘도 하긴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종손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이장도 많이 했지. 저 서쪽 어디 길 난다고 해서 이장했고. 이제도 예산이 없어서 거기 이장을 해 와야 하는데 벌초 관계로 멀어서. 하루 종일 여기 오면 한 시간이 될 거. 차 있으니까 차 타고 가서.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젤 걱정이지.

나도 우리 문중에서 우리 집안에선 최고 어른. 우리 조카가 나보다 한 살 밑인데 종손이지마는. 내가 최고 어른이지. 삼촌 조카. 그러니까 내가 선두에 서야지. 다른 사람 같으면 믿고 안 가지만 내가 선두에 서서. 우리 조카보다 더 선두에 서서. 조카들도 칠십 팔십 다 났지. 빨리들 하라. 자기도 열심히 하면서 시켜야지 자긴 안 하면서 시키면 삼촌 왜 빤히 서서 봅니까? 이제 팔십다섯 되었지만 에, 자기도 땀 흘리면서 하고. 빨리 해라, 이렇게 '헤천' 보지 말고 재우 해야 갈 거 아냐? 말 잘 들어. 자기가 잘해야 시키는 거지. 자기 못하면서 시키지 못해. 것이 사회 법칙.

(2) 벌초방학

벌초방학 ᄒᆞ루 정도 헤실 거라. 벌초방학 학교 뎅길 때. 소분날이 벌초렌 말이지. 소분 음력 팔월 일일. 양력이 아니고 음력 팔월 일일 모둠벌초.[1473]

'벌초방학' 하루 정도 했을 거야. '벌초방학' 학교 다닐 때. 소분날이 벌초라는 말이

1472) '개인벌초'는 개인이 하는 벌초라는 의미다. 친족들이 모여서 하는 '모둠벌초'에 대응해서 붙인 이름이다. 보통 나의 4대까지 선산의 벌초를 의미한다.
1473) 강창유 구술.

지. 소분 음력 팔월 일일. 양력이 아니고 음력 팔월 일일 '모둠벌초'.

2) 팔월 멩질

팔월 멩질은게, 팔월 십오일날 아냐, 음력 팔월 십오일. 거 똑ᄀᆞ치 정월 멩질이나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거주. 정월 멩질이나 팔월 멩질이나 출리는 건 똑ᄀᆞ뜨게. 멩질 때가 더 출리지. 식게는 간단허게 허는데. 멩질에는 과일 하나라도 더 올려. 모든 조상덜. 웃대 조상덜. 제사허고 멩질허고 차이점이 잇지. 이 떡덜토 많이 허여근에 정반엔 허지. 정반에 무룩허게 놩은에, 멩질엔. 제사 때는 간단허게 영 놩은에 간단허게. 그런 차이점이 잇어. 게난 종손칩이서 다 출려. 우리 강 먹음만 허지. 절이나 허곡.[1474]

아이고, 난 그 씨집오라서. 우리 그전에 나가 어머니 본을 많이 따란 살앗거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조상상에 출리젠 허면은 자기는 못 먹어도 생선도 요멘인 헷당 큰일나. 이만씩허게 헤야 뒈. 적갈도 이만씩 길어야 뒈. 우리 친정어머니. 겐 나가 그걸 똑허게 봣어. 그랫는디 나가 결혼을 헷는디 이디 완 보난 우리 그 일가친척덜이 많아. 적갈허는 거 보난 요멘씩 허니까. 백 사름을 먹젠 허니까 그걸 다 허고 ᄆᆞ른고기도 이만씩. 혼 벡 명이 허영은에. 저 우리 친정에는.[1475] 사과 하나를 허면은 이거면은 쓰무 사름을 썰어 줘야 뒈.[1476] 그러니까 그 말이 그 크게 이얘기 험만 하면, 우 족족 알 골로로. 우 족족 알 골로로. 우에도 적게를 주고 아래도 골로로 주라, 이 말이. 우 족족 알 골로로 헐 때 요만씩헌 것을 먹을 때도 언마나 맛잇는지 몰라예. 우리 나 헌 거.[1477] 그거뿐만 아니라 세시풍속 중에서

1474) 강창유 구술.
1475) 박순자 구술.
1476) 우명창 구술.

그런 게 잇는데 반 받아주는 거 잇어. 할아버지들이 저놈은 저거 펭소에 자파리가 심헌 놈인디 느 이레 오라 허당 보민 유독 그 놈덜안테는 반이 많이 들어가. 걸 빼 먹엇던 꼬마들도 잇엇고. 아무리 궨당이지마는 먹는 거 앞에서 일단 자기가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잇엇고. 우 족족 알 골르게 그 말도 모든 사름이 다 골고루 공정허게 먹자. 윗사람들은 좀 적어도 우찬 헌덴 헤근에 좀 많이 가는데 그치룩헐 필요가 엇다.[1478] 그러면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나이가 많은 하르방. 쉽게 얘기허면 하르방 되는 사름덜 ᄒᆞᆫ두 사름 잇거든. 그 사름덜 위헤서 우대허는 상을 쪼그만 상 개인상은 두 개 정도는 놔. 그 밑에 다 땅 아래. 그래서 ᄎᆞᆷ 아까 얘기헷던 페락시 닮은 것덜 하도 졸라 가민 그거 하르방이 부르는 거라. 후닥탁 ᄀᆞ졍 튀는 거라.[1479]

상을 나가 제삿상을 이제 허는디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 한 달 전에 그런 걸 ᄀᆞ뜬 거는 다 미리 준비헷거든. 게면 나도 그 본을 따라. 씨집와도 나는 허게 뒈면은 우리 어머니 닮아서 손이 커. 손이 커근에 허민. 게민 우리 씨아버지는 나안테 안 메껴. 나 허게 뒈면은 하영 들어감젠 허고 우리 성님. 우에 동세신디 주면은 돈을 넹기고. 나는 허면은 모자리거든. 모자리민 허는 거 보민 나는 무신거라 소곱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영. 그렇게만 나 셍각. 나도 에 그런 조상상에 허는 거는 나도 정성을 헷다고. 나도 그자 이런 마른고기 ᄀᆞ뜬 거 뭐 헐 때는 지금은 당장이라도 돈 가지민 살 수 잇지마는 미리미리 준비허고. 한 삼 일 전에부떠 그런 정성을 헤.[1480] 그 하나만 더 붙이겟는데 바당이 약간씩은 지금 울렁거리기 시작헌다 말이에

1477) 강경찬 구술.
1478) 김웅철 구술.
1479) 우명창 구술.
1480) 박순자 구술.

요. 이때 뒈면은. 우리 형님네는 촘대, 낙시대 들렁 준 것덜이고 누구 다 끗어 강 이걸 허는 거라. 그러면 거기서 훍은 거 딱 헤지면은 그걸로 이제 갱국. 그거 ᄀᆞ슴으로 헤근에 다. 어떤 뭐 이제 종친덜안티도 나눠 드리기도 허고, 거 준 것덜은 헤근에 보깡들 먹고. 이제 우럭 ᄀᆞ뜬 거는, 우럭이 상당히 고급 어종인데 그거 헤근엥에 ᄆᆞᆯ리왕 그런 것을 우리 형수님네는 씨집에서 허게 뒈믄 오늘은 어느 바당에 강 누게 강 그거 헤영 얼마 가져왓저. 다 나눠 먹엇어. 나눠 먹으면서도 제숙거리로 서로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헌 거는 이제 술, 제주. 요게 애로 사항이 좀 잇엇어. 그거 이외에는 뭐. 때때옷 입어.[1481] 그 술이야, 사실상 그 고수리.[1482]

팔월 명질은, 팔월 십오일날 아냐, 음력 팔월 십오일. 거 똑같이 정월 명질이나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거지. 정월 명질이나 팔월 명질이나 차리는 건 똑같게. 명질 때가 더 차리지. 제사는 간단하게 하는데. 명질에는 과일 하나라도 더 올려. 모든 조상들. 윗대 조상들. 제사하고 명질하고 차이점이 있지. 이 떡들도 많이 해서 '정반'[1483]이라고 하지. '정반'에 수북하게 놔서, 명질엔. 제사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놔서 간단하게.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다 차려. 우리 가서 먹기만 하지. 절이나 하고.

아이고, 난 그 시집와서. 우리 그전에 내가 어머니 본을 많이 따라서 살았거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조상상'[1484]에 차리려고 하면 자기는 못 먹어도 생선도 요만큼 했다가는 큰일나. 이만큼씩하게 해야 돼. 적도 이만씩 길어야 뒈. 우리 친정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걸 똑하게 봤어. 그랬는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1481) 김웅철 구술.
1482) 우명창 구술.
1483) '정반'은 제사 음식을 나눌 때 반기를 넣는 접시를 말한다.
1484) '조상상'은 제사나 명질 때 조상을 위해 차리는 제상을 말한다.

그 일가친척들이 많아. 적하는 거 보니까 요만큼씩 하니까. 백 사람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다 하고 '마른고기'[1485]도 이만큼씩. 한 백 명이 해서. 저 우리 친정에는. 사과 하나를 하면은 이거면 스무 사람을 썰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크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위 족족 아래 골고루. 위 족족 아래 골고루. 위에도 적게를 주고 아래도 골고루 줘라, 이 말이. 위 족족 아래 골고루 할 때 요만큼씩한 것을 먹을 때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나 한 거. 그거뿐만 아니라 세시풍속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반기 받아주는 거 있어. 할아버지들이 저놈은 저거 평소에 장난이 심한 놈인데 너 이리 오라 하다가 보면 유독 그 놈들한테는 반기가 많이 들어가. 걸 빼 먹었던 꼬마들도 있었고. 아무리 권당이지마는 먹는 거 앞에서 일단 자기가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위 족족 아래 고르게 그 말도 모든 사름이 다 골고루 공정하게 먹자. 윗사람들은 좀 적어도 '우찬'[1486] 한다고 해서 좀 많이 가는데 그처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되는 사람들 한두 사람 있거든. 그 사람들 위해서 우대하는 상을 쪼그만 상 개인상은 두 개 정도는 놔. 그 밑에 다 땅 아래. 그래서 참 아까 얘기했던 찰짜 닮은 것들 하도 졸라 가면 그거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야. 후다닥 가져서 뛰는 거야.

상을 내가 제사상을 이제 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 한 달 전에 그런 걸 같은 거는 다 미리 준비했거든. 그러면 나도 그 본을 따라. 시집와도 나는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같아서 손이 커. 손이 커서 하면.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는 나한테 안 맡겨. 나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 형님. 위에 동서한테 주면은 돈을 남기고. 나는 하면은 모자라거든. 모자라면 하는 거 보면 나는 무엇이야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만 나 생각. 나도 에 그런 '조상상'에 하는 거는 나도 정성을 했다고. 나도 그저 이런 '마른고기' 같은 거 뭐 할 때는 지금은 당장이라도 돈 가지면

1485) 여기에서 '마른고기'는 제수로 쓰는 말린 바닷고기를 말한다.
1486) '우찬'은 상찬의 의미다. 여기에서는 제사나 명절 때 반기를 넣을 때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에게 더 많이 넣은 것을 말한다.

살 수 있지마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한 삼 일 전에부터 그런 정성을 해. 그 하나만 더 붙이겠는데 바다가 약간씩은 지금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이때 되면. 우리 형님네는 '촘대', 낚싯대 들고서 잔 것들이고 누구 다 끌고 가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굵은 거 딱 해지면 그걸로 이제 갱. 그거 감으로 해서 다. 어떤 뭐 이제 종친들한테도 나눠 드리기도 하고, 거 잔 것들은 해서 볶아서들 먹고. 이제 우럭 같은 거는, 우럭이 상당히 고급 어종인데 그거 해서 말려서 그런 것을 우리 형수님네는 시집에서 하게 되면 오늘은 어느 바다에 가서 누구 가서 그거 해서 얼마 가져왔다. 다 나눠 먹었어. 나눠 먹으면서도 제수거리로 서로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술, 제주. 요게 애로 사항이 좀 있었어. 그거 이외에는 뭐. 때때옷 입어. 그 술이야, 사실상 그 소줏고리.

(1) 멩질 음식

- **떡**

그 전에는 우리가 말허면 우리 절변 솔변허고 하고 요걸 헷는데 이제는 그 문화도 싹 바꽈져 불엇어예. 떡칩이 가서 메껴서 헐 때는 그 뭣고, 그 이 동글락헌 거 뭔 떡이라? 떡집이 메껴서 허니까 편하긴 편허지. 헌데 나도 독자고 집사름 혼자만 멩질 출리젠 뭐 허저 헤도 막 그 애처로왓는데 것도 다 시간이란 게 해결뒈더구만. 이제는 메누리덜이 딱허게 와서 허고, 내가 얘기헌 거는 그 떡헌 어디고 적갈허고 허는 디 가질 말라 이거라. 가근에 한마디 한마디 허민 잔소리 같으고 잘허는디 뭐허레 가느냐. 헐 때 보민 큰메누리는 적갈 담당허고, ᄯᅳ로ᄯᅳ로 다 담당허여. 잘허영 내놔. 이러니까이 말헐 필요가 없고 고마운 말만 어딘 봄만 허민 이거 헌다 저거 헌다 이치룩허지만 잘허기 때문에 더 이상은.[1487]

메누리가 ᄋᆞ라이 이시난 거우다. 나는 씨집와 가지고 우리 궨당덜이 너미 많으니까 그 옛날에 밀ᄀᆞ르 ᄒᆞᆫ 포 사. ᄒᆞᆫ 포 사근에 걸 쪙 놔두면은 빵ᄀᆞ치 부꺼이. 그걸 ᄒᆞᆫ 포 허젠 허민은 지름뜸이 나. 게면은 그거 헤놔근에 또 식게에 허면은 다 집집마다 다 나가 배달허여. 그렇게 헤서 집집마다 우선 배달헤 놓고[1488]. 차롱착에, 질구덕에 져근에.[1489] 겐디 요즘은, 요즘은 나가 제사를 허젠 허민 삼일 전에부터.[1490] 감저떡 헷주, 감저떡. 밀ᄀᆞ르떡은 근래에. 감저떡. 씨커멍헌 거.[1491] 고기 사다가 다 아시날 다 양념 다 헤 놔. 헤 놓민 나 놉 빌엉도 안 허고 나 혼자. 적갈허고 묵 짖고. 떡은 팔월 멩질에는 뭐 씨아버지 제사헐 때는 뭐 절변 솔변 다 허엿주마는 요즘은 간단허게 그자 나 떡 ᄒᆞᆫ 뒈 ᄀᆞᆯ아다근에 집이서 송편 멘들앙은에 헤. 먹기 좋은 걸로만 그대로. 요즘은 게서 산에 가서 허고, 또 지물 ᄀᆞ튼 거는 뭐 카스테라 ᄀᆞ뜬 거 사당.[1492] 이 할망 자랑은 아닌데 그 전날부터 ᄆᆞᆫ딱 만들엉 놔둬. 바닷고기 뒈지고기나 헐 것 엇이 모든 걸 하루 전에 다 만들어. 감저떡 밀가루 같은 거도 엇일 때고.[1493] 건 막 못살 때고.[1494] 엇일 때 힘든 삶 세월이. 알다시피 고구마라 헌 것이 정말 그 나타난 거라. 아주 구황식물로 나타난 거라. 이 저 대정 구역이. 그래서 그 고구마로 헤서 양식이 바로 된 거지. 정말 힘든 그 구황식물이거든. 그래서 전분공장이 이디도 뭐 공장 사장이주마는 전분공장이 대정에서 막 번성헐 때주. 게서 집집마다 그 고구마가 왕성허게 헤서 뻿데기 이렇게 그 왕성허니까 그걸

1487) 강경찬 구술.
1488) 박순자 구술.
1489) 고춘열 구술.
1490) 박순자 구술.
1491) 우명찬 구술.
1492) 박순자 구술.
1493) 우명창 구술.
1494) 강경찬 구술.

가루로 헤서 아까 얘기헷듯이 이제 그 저 멩질 전날덜 그걸 만든 거라. 시리에 잘 헤서 이거 쳐 내면 맛잇고. 동네 궨당덜신디레 밀가루가 없으니까.[1495] 감자시리떡. 뻿데기시리. 상엔 안 올려.[1496] 아, 상에도 올릴 수가 잇어이. 거는이 어느 집안마다 틀려이. 한번 그 멩질을 지내나 제사 지낼라 헤도 그 당시 힘들엇주게. 참말로, 잘 그 세대는 우리가 얘기허는 거는 저, 저 분덜이 뭐냐 얘기허지마는 우리 세대는 그러큼 힘들고. 우리 앞이 세대도 힘들엇어이. 그것을 없는 걸 어떠냐? 게서 부모 자식으로서 정성인데 이거는 뭐.[1497] 이런 뻿데기를 저 집집마다 그 이런 통. 통도 아무나 구허질 못헷어. 그 당시에. 그거를 ᄒᆞᆫ 댓 개 구헷다가 바싹 ᄆᆞ른 절간고구마 갖당 부엉 놔두는 거라. 그걸로, 겨울에도 그걸로 양식허고. 쭉 그걸로 간식도 그걸로.[1498]

그 전에는 우리가 말하면 우리 절편 솔편하고 하고 요걸 했는데 이제는 그 문화도 싹 바뀌어 버렸어요. 떡집에 가서 맡겨서 할 때는 그 뭣이니, 그 이 동그란 거 뭔 떡이야? 떡집에 맡겨서 하니까 편하긴 편하지. 그런데 나도 독자고 집사람 혼자만 명질 차리려고 뭐 하자 해도 아주 그 애처로웠는데 것도 다 시간이란 게 해결되더구먼. 이제는 며느리들이 딱하게 와서 하고, 내가 얘기한 거는 그 떡하는 어디고 적하고 하는데 가질 말라 이거야. 가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잔소리 같고 잘하는데 뭐하러 가느냐. 할 때 보면 큰며느리는 적 담당하고, 따로따로 다 담당해. 잘해서 내놔. 이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고마운 말만 어딘 보기만 하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처럼하지만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1495) 우명찬 구술.
1496) 박순자 구술.
1497) 강경찬 구술.
1498) 우명찬 구술.

며느리가 여럿 있으니까 겁니다. 나는 시집와 가지고 우리 권당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옛날에 밀가루 한 포 사. 한 포 사서 걸 반죽해서 놔두면 빵같이 부풀어. 그걸 한 포 하려고 하면 기름땀이 나. 그러면 그거 해놔서 또 제사에 하면은 다 집집마다 다 내가 배달해.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우선 배달해 놓고. 채롱짝에, '질구덕'에 져서. 그런데 요즘은, 요즘은 내가 제사를 하려고 하면 삼일 전에부터. 고구마떡 했지, 고구마떡. 밀가루떡은 근래에. 고구마떡. 시커먼 거. 고기 사다가 다 전날 다 양념 다 해 놔. 해 놓으면 나 놉 빌어서도 안 하고 나 혼자. 적하고 묵 지지고. 떡은 팔월 명질에는 뭐 시아버지 제사할 때는 뭐 절편 솔편 다 하였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그저 나 떡 한 되 갈아다가 집에서 송편 만들어서 해. 먹기 좋은 걸로만 그대로. 요즘은 그래서 산소에 가서 하고, 또 제물 같은 거는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사다가. 이 할머니 자랑은 아닌데 그 전날부터 몽땅 만들어서 놔둬. 바닷고기 돼지고기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하루 전에 다 만들어. 고구마떡 밀가루 같은 거도 없을 때고. 건 아주 못살 때고. 없을 때 힘든 삶 세월이. 알다시피 고구마라 한 것이 정말 그 나타난 거야. 아주 구황식물로 나타난 거야. 이 저 대정 구역이. 그래서 그 고구마로 해서 양식이 바로 된 거지. 정말 힘든 그 구황식물이거든. 그래서 전분공장이 여기도 뭐 공장 사장이지만 전분공장이 대정에서 아주 번성할 때지. 그래서 집집마다 그 고구마가 왕성하게 해서 절간고구마 이렇게 그 왕성하니까 그걸 가루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저 명질 전날들 그걸 만든 거야. 시루에 잘 해서 이거 쪄 내면 맛있고. 동네 권당들한테로 밀가루가 없으니까. 고구마시루떡. 절간고구마시루. 상엔 안 올려. 아, 상에도 올릴 수가 있어. 거는 어느 집안마다 달라. 한번 그 명질을 지내나 제사 지내려고 해도 그 당시 힘들었지. 참말로, 잘 그 세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저, 저 분들이 뭐냐 얘기하지마는 우리 세대는 그렇게 힘들고. 우리 앞의 세대도 힘들었어. 그것을 없는 걸 어떠냐?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서 정성인데 이거는 뭐. 이런 절간고구마를 저 집집마다 그 이런 통. 통도 아무나 구하질 못했어. 그 당시에. 그거를 한 댓 개 구했다가 바싹 마른 절간고구마 가져다가

부어서 놔두는 거야. 그걸로, 겨울에도 그걸로 양식하고. 쭉 그걸로 간식도 그걸로.

• **게영국**

게영국. 저 바닷고기.[1499] 우리가 그 지금에 예로 봐서 이 비늘 엇은 고기이, 것을 그 제사에 안 쓰메. 뭣 말 허민 갈치 ᄀᆞ튼 것도 그때 해당이 안 뒈고예. 그러니까 그 비늘 잇는 고기, 비늘 잇는 고기로 게도 ᄒᆞ루 전에나 이틀 전에 집에 사서, 나까서 그 게영국을 헷어예. 그런 거뿐이지. 바닷고기가 없어서 바당 씨면은 육고기를 하는데 우선은 바닷고기를 중심으로 게영국을 헷어. 그러니까 시민 붉바리가 좋은디 엇엇을 거 아니라. 엇으니까. 우럭은 좀 가시가 아주 많으니까 허고. 벤자리 ᄀᆞ튼 거. 좌우간에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뒈.[1500] 바닷고기로 대개. 바닷고기. 첫 순위가 바닷고기.[1501] 고기는 경 안 허면은 그 생선 못 살 때쯤은 보면은 조기 같은 거라도 허고. 제사 때 허게 뒈면은 미리 그 옛날에는 미리 고기 쌀 때 그걸 헤영 놔둬. 게영거리를. 냉동시켜 놧당 그렇게 허고. 이 지금은 뭐 못 사면은 뭐 육고기라도, 소고기라고 사다가 경헷지, 그 당시에는.[1502] 지금은 ᄆᆞᆫ딱 만들어 논 거 사단 헴주.[1503]

갱. 저 바닷고기. 우리가 그 지금에 예로 봐서 이 비늘 없는 고기, 것을 그 제사에 안 써. 뭣 말 하면 갈치 같은 것도 그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비늘 있는 고기, 비늘 있는 고기로 그래도 하루 전에나 이틀 전에 집에 사서, 낚아서 그 갱을

1499) 박순자 구술.
1500) 강경찬 구술.
1501) 우명창 구술.
1502) 박순자 구술.
1503) 우명창 구술.

했어요. 그런 거뿐이지. 바닷고기가 없어서 바다 세면 육고기를 하는데 우선은 바닷고기를 중심으로 갱을 했어. 그러니까 있으면 붉바리가 좋은데 없었을 거 아닌가. 없으니까. 우럭은 좀 가시가 아주 많으니까 하고. 벤자리 같은 거. 좌우간에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돼. 바닷고기로 대개. 바닷고기. 첫 순위가 바닷고기. 고기는 그렇게 안 하면 그 생선 못 살 때쯤은 보면 조기 같은 거라도 하고. 제사 때 하게 되면 미리 그 옛날에는 미리 고기 쌀 때 그걸 해서 놔둬. 갱거리를. 냉동시켜 놨다가 그렇게 하고. 이 지금은 뭐 못 사면은 뭐 육고기라도, 소고기라도 사다가 그렇게 했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몽땅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하고 있지.

• **제숙**

우럭 같은 게 많지. 그 말린 우럭 같은 거 그런 고기를 써. 볼락. 우럭.[1504] 전에는 나가 여기 왓을 때는 각제기를 올리더라고, 각제기. 우리 시어머니가 각제기 보리 속, 보리에 ᄆᆞᆯ랴. 냉장고 엇이니까 보리 속에 묻어. 경허면은 그걸 싯으젠 허민 나는 그거를 나가 못마땅헤.[1505] 그 시절은 준비가 잘 안 뒐 때는. 사전에 할망덜이.[1506] 냉장고 없을 적에는 보리. 그 당시는 우리 그때는 보리는 많이 헷거든. 게면은 보리 속에 묻어. 나완 보니까 보리 속에 묻어서. 저 내가 제사를 맡앙 허게 뒈니까 그거는 안 헤보고.[1507] 이 근방, 잘사는 집은 상모리도 마찬가지고 하모리도 마찬가지고 잘사는 집에서는 옥돔 많이 썻어.[1508] 그자 저 옥돔. 우리 친정어머니가 절대 조상상에는 그렇게 해서 올령은 아니 뒌다. 자꾸 나가 그거 배우

1504) 강경찬 구술.
1505) 박순자 구술.
1506) 우명창 구술.
1507) 박순자 구술.
1508) 김웅철 구술.

고 느끼고 그걸 나가 봐왓기 때문에 그 제사 때에 쓰는 거는 나가 ᄒᆞ꼼 신경을 많이 쓰지. 육고기는 돼지고기.[1509]

우럭 같은 게 많지. 그 말린 우럭 같은 거 그런 고기를 써. 볼락. 우럭. 전에는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전갱이를 올리더라고, 전갱이. 우리 시어머니가 전갱이 보리 속, 보리에 말려. 냉장고 없으니까 보리 속에 묻어. 그러면 그걸 씻으려고 하면 나는 그거를 내가 못마땅해. 그 시절은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사전에 할머니들이. 냉장고 없을 적에는 보리. 그 당시는 우리 그때는 보리는 많이 했거든. 그러면 보리 속에 묻어. 나 와서 보니까 보리 속에 묻어서. 저 내가 제사를 맡아서 하게 되니까 그거는 안 해보고. 이 근방, 잘사는 집은 상모리도 마찬가지고 '하모리'도 마찬가지고 잘사는 집에서는 옥돔 많이 썼어. 그저 저 옥돔. 우리 친정어머니가 절대 '조상상'에는 그렇게 해서 올려서는 아니 된다. 자꾸 내가 그거 배우고 느끼고 그걸 내가 봐왔기 때문에 그 제사 때에 쓰는 거는 내가 조끔 신경을 많이 쓰지. 육고기는 돼지고기.

• **적**

뒈지고기 중심으로 허고. 소고기 이시민 소고기 올리고 헐 거라. 원 돼지고기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허는 바로 건 돼지고기 중심으로 허고, 잇으면 소고기 올리는 거 딱 그게 맞는 거. 적갈 다섯 가지. 우리 집안에는 짝그르게 올려. 짝그르게 그러니까. 고기 적갈이 고지로 꿰지 안헙니까예? 짝그르게. 그 당시는 한 가지.[1510] 묵적 밀ᄀᆞ르로 헤영은에 그거는 네 개 꽂아근에. 뒈지고기는 다섯 고지나 일곱 고지는 올리는디. 나가 올릴 때는 이제 세 개 아니면은 다섯 개 올리고 그렇게 헷거든. 우리도 그 과일도 마찬가지.

1509) 박순자 구술.
1510) 강경찬 구술.

세 개 아니면 다섯 개.[1511]

상어적. 상어도 올리긴 올려낫주마는 쉽게 올리진 못허지.[1512] 저립이 저 하모 쪽에서는 저립을 많이 먹고. 상하모에 그 재정적인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낫다 말여. 하모는 그때도 보믄 저립이라든지 상어 말고도 다른 그 어적들을 많이 썻는데, 상모는 아무래도 농부안덜만 많이 살아 놓니까 바다에 가는 거는 아무래도 하모안테 떨어져.[1513] 그 아까 적갈이나 모든 것도 우리가 니발탄 거 먹지 않는 분 잇잖아이? 그러니까 적갈도 니발탄 거 먹지 않은 조상은 잇잖아이, 그 저 적갈을 그 저 뭐냐 허민 바닷고기 잇잖아이. 바닷고기로 적갈헤서 상에 올렷어이. 것을 알아서 그 저 제를 지내고 헐 때 니발탄 거 안 먹는 그 조상은 딱허게 뒈지고기 적갈만 올리지 않고. 그 바닷고기. 할머니는 니발탄 거를 안 먹고 할아버지는 먹으니까 두 가지를 섞으면서 올렷어. 것이 뭐 글, 책으로 써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제를 지내면서 다음 자손이.[1514]

돼지고기 중심으로 하고.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 올리고 할 거야. 원 돼지고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바로 건 돼지고기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소고기 올리는 거 딱 그게 맞는 거. 적 다섯 가지. 우리 집안에는 '짝그르게'[1515] 올려. '짝그르게' 그러니까. 고기 적이 꼬치로 꿰지 않습니까요? '짝그르게'. 그 당시는 한 가지. 묵적 밀가루로 해서 그거는 네 개 꽂아서. 돼지고기는 다섯 꼬치나 일곱 꼬치는 올리는데. 내가 올릴 때는 이제 세 개 아니면 다섯 개 올리고 그렇게 했거든. 우리도 그 과일도 마찬가지.

1511) 박순자 구술.
1512) 우명창 구술.
1513) 김웅철 구술.
1514) 강경찬 구술.
1515) '짝그르다'는 짝이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홀수의 의미로 쓰였다.

세 개 아니면 다섯 개.

'상어적'. 상어도 올리긴 올렸었지만 쉽게 올리진 못하지. 재방어가 저 하모 쪽에서는 재방어 많이 먹고. '상하모'에 그 재정적인 능력에 차이가 많이 났다 말이야. 하모는 그때도 보면 재방어라든지 상어 말고도 다른 그 어적들을 많이 썼는데, 상모는 아무래도 농부한들만 많이 살아 놓으니까 바다에 가는 거는 아무래도 하모한테 떨어져. 그 아까 적이나 모든 것도 우리가 '니발탄'[1516] 거 먹지 않는 분 있잖아? 그러니까 적도 '니발탄' 거 먹지 않은 조상은 있잖아, 그 저 적을 그 저 뭐냐 하면 바닷고기 있잖아. 바닷고기로 적해서 상에 올렸어. 것을 알아서 그 저 제를 지내고 할 때 '니발탄' 거 안 먹는 그 조상은 딱하게 돼지고기 적만 올리지 않고 그 바닷고기. 할머니는 '니발탄' 거를 안 먹고 할아버지는 먹으니까 두 가지를 섞으면서 올렸어. 것이 뭐 글, 책으로 써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제를 지내면서 다음 자손이.

• 탕쉬

탕쉬 양엣근허고 고사리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1517] 탕쉬허면 양엣근이주. 여기 양엣근이 제일 에이급으로. 옛날 조선호박 잇잖아? 큰 호박. 그거허고 양엣근허고 아마.[1518] 콩ᄂᆞ물. 콩ᄂᆞ물 시루에 놔근에.[1519] 질롸. 다 길루와근에 식게 때에 먹젠 허면은.[1520] 집집마다 하영 길롸주.[1521]

묵탕쉬. 묵탕쉬는 묵 지져놩은에 허민은 영 썰어. 이 정도 썬 거 멧 개.

1516) '니발타다'는 돼지고기 따위의 네 발이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난다는 의미다. '네발타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1517) 박순자 구술.
1518) 우명창 구술.
1519) 고춘열 구술.
1520) 박순자 구술.
1521) 우명창 구술.

우린 따로.[1522] 가문가례에 따라서.[1523] 그 올리는 사름은 고사리 우이다가 묵 석 점 놓는 사름 잇어. 고사리 우이다가 썬 거를 세 개. 묵탕쉬.[1524] 아까도 골앗주만 우리는 묵, 적, 바닷고기 놓주게. 보면은 왼쪽으로 시작에서 묵을 땅에 거, 적 바다 적. 바다에 거, 고기. 묵, 적, 바닷고기 이렇게. 적은 여기 저기 돼지고기로 헌 거 그래서 출렷는데. 근래 어떤 집안덜은 보면은 묵을 젤 밑에 놓고 그다음은 바닷고기 그다음은. 이제 아니 뒈지고기 하나에 놓는 사름 많은데 우리 집안은 이거 뜨로뜨로.[1525] 것이 가만히 봄만 허면 유교, 이 예식이 유교에서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유교에 당헤서 장의 훈장허는 집안도 가문가례. 옛날 하르버지가 영 험만 허민 그것을 지금 아래꾸지 내려오고 잇지예. 이건 어동육서 동두서미. 그거 알면서도 옛날 내려오는 그대로 허는 것이 그 대부분이라.[1526]

'탕쉬'[1527] '양엣근'[1528]하고 고사리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탕쉬'하면 '양엣근'이지. 여기 '양엣근'이 제일 에이급으로. 옛날 조선호박 있잖아? 큰 호박. 그거하고 '양엣근'하고 아마. 콩나물. 콩나물 시루에 놔서. 길러. 다 길러서 제사 때에 먹으려고 하면. 집집마다 많이 길렀지.

'묵탕쉬'[1529]. '묵탕쉬'는 묵 지져놔서 하면 이렇게 썰어. 이 정도 썬 거 몇 개. 우린 따로. 가가례에 따라서. 그 올리는 사람은 고사리 위에다가 묵 석 점 놓는 사람 있어.

1522) 박순자 구술.
1523) 고춘열 구술.
1524) 박순자 구술.
1525) 우명창 구술.
1526) 강경찬 구술.
1527) '탕쉬'는 제사나 명질에 제수로 올리는 채소를 말한다. 고사리, 콩나물, 호박나물, 양하 따위로 만든다.
1528) '양엣근'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 이삭을 말한다.
1529) '묵탕쉬'는 채소로 올리는 묵 반찬을 말한다.

고사리 위에다가 썬 거를 세 개. '묵탕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묵, 적, 바닷고기 놓지. 보면 왼쪽으로 시작에서 묵을 땅에 거, 적 바다 적. 바다에 거, 고기. 묵, 적, 바닷고기 이렇게. 적은 여기 저기 돼지고기로 한 거 그래서 차렸는데. 근래 어떤 집안들은 보면 묵을 젤 밑에 놓고 그다음은 바닷고기 그다음은. 이제 아니 돼지고기 하나에 놓는 사람 많은데 우리 집안은 이거 따로따로. 것이 가만히 보기만 하면 유교, 이 예식이 유교에서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유교에 당해서 장의 훈장하는 집안도 가가례. 옛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것을 지금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지요. 이건 어동육서 동두서미. 그거 알면서도 옛날 내려오는 그대로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야.

• **감자술**

술 그 당시 하지 않앗주게. 조그만 허민 감저술 이 고구마이. 고구마술 ᄀᆞ튼 거 이치룩허고.[1530] 감자술. 그 당시 고시리. 부모님덜이 고구마 같은 걸로 발효 시킨 거라. 그래서 고시리 앚져 갖고 똑똑 떨어지는 거 받아근에 그 당시에는 아주 거 오래뒌 역사지. 우리 시절은 고시리술로. 술이 없으니까.[1531] 감주도 대개 허여. 에, 술을 자시지 않는다고 헤서이 감주를 헤서 우리도 그 상에 올리고 이랫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에는 저 늙은이덜 저 쓸데없는 말 헴저 그치록 뭐 허는 거라.[1532]

술 그 당시 많지 않았지. 조금만 하면 '감저술' 이 고구마이. 고구마술 같은 거 이처럼하고. 고구마술. 그 당시 소줏고리. 부모님들이 고구마 같은 걸로 발효 시킨 거야. 그래서 소줏고리 안쳐 갖고 똑똑 떨어지는 거 받아서 그 당시에는 아주 거 오래된 역사지. 우리 시절은 '고시리술[1533]'로. 술이 없으니까. 감주도 대개 해. 에, 술을 자시지

1530) 강경찬 구술.
1531) 우명창 구술.
1532) 강경찬 구술.

않는다고 해서 감주를 해서 우리도 그 상에 올리고 이랬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에는 저 늙은이들 저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 그처럼 뭐 하는 거야.

(2) 신풍속

(팔월 멩질) 산에 강 허여. 산에. 코로나 따문에 이런 문화가 완전 뒤바꽈졋어. 우리 자체 이 동네서도. 우리도 육지서 허니까 나는 너미 섭섭허다 그래 가지고 산에 가서 허면은 산에 가서 조상덜 잇는 데 앞이서 제단에 딱허게 절 우선 헤여 놓고. 그다음에는 우리 씨아버지 그디 가서 또. 겐디 제단에는 다 모든 그게 궨당덜은 가서 일차적으로 헤놔근에 또 마음에 섭섭아녀도 뭴 거라도 게도 씨부모 잇는 디 가서 또 새로 절허여. 절허여근에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허거든.[1534] 멧 대 조상이 딱 잇으니까 제단에 가서 그냥 딱 허니까 아주 펜안허더라고. 앞으로 이런 문화가 커질 거 닮아.[1535] 우리는이, 저 나 이치록헤 베도 메누리들이 다 성장헤서이. 보니까 내가 제사 날짜에나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벳기 없거든. 그 제사 날짜를 해가 지남만 허민 다 오민 달력으로 영 다 그뭇 쳐이. 우리 메누리가 더 잘허여. 나가 잘 몰르고 나가 시기도 안헤도 그 나에게 아버지. 게니까 하르버지 뭴 처례지이? 그 멩질 다 끗낭 우리 방상 멩질 끗나근에 산소에 들려. 시기지 안헤도 자이덜 어디 감신고 허당 봄만 허민 산소에 들러.[1536] 아까 그 메누리가 잘한다 허듯이 시기지 아녀도 메누리가 그런 궁퉁이 나니까

1533) '고시리술'은 소줏고리에서 고아낸 소주다. 좁쌀가루나 고구마 따위를 누룩에 발효시킨 후에 고소리에 넣어서 증류해서 만든다.
1534) 박순자 구술.
1535) 우명창 구술.
1536) 강경찬 구술.

허는 거지, 이 남자 어른덜은양 그런 궁튱이 얼른 안 납니다.[1537] 이 저 가까운 디니까이 마을 안으로 ᄒᆞᆫ 십오 명이 걸어근에 그 산소에 가는 거 보민 난 깜짝 놀라. 얘기 안 헤도 자기들이 생각나니까.[1538]

(팔월 명질) 산소에 가서 해. 산소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화가 완전 뒤바꿔졌어. 우리 자체 이 동네서도. 우리도 육지서 하니까 나는 너무 섭섭하다 그래 가지고 산소에 가서 하면 산소에 가서 조상들 있는 데 앞에서 제단에 딱하게 절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는 우리 시아버지 거기 가서 또. 그런데 제단에는 다 모든 그게 권당들은 가서 일차적으로 해놔서 또 마음에 섭섭 않아도 될 거라도 그래도 시부모 있는 데 가서 또 새로 절해. 절해서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거든. 몇 대 조상이 딱 있으니까 제단에 가서 그냥 딱 하니까 아주 편안하더라고. 앞으로 이런 문화가 커질 거 같아. 우리는, 저 나 이처럼해 보여도 며느리들이 다 성장해서. 보니까 내가 제사 날짜에나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거든. 그 제사 날짜를 해가 지나기만 하면 다 오면 달력으로 이렇게 다 금 그어.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해.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나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될 차례지? 그 명질 다 끝나서 우리 '방상'[1539] 명질 끝나서 산소에 들러. 시키지 않아도 쟤들 어디 가고 있는가 하다가 보기만 하면 산소에 들러. 아까 그 며느리가 잘한다 하듯이 시키지 않아도 며느리가 그런 궁리 나니까 하는 거지, 이 남자 어른들은요 그런 궁리 얼른 안 납니다. 이 저 가까운 데니까 마을 안으로 한 십오 명이 걸어서 그 산소에 가는 거 보면 난 깜짝 놀라.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생각나니까.

1537) 박순자 구술.
1538) 강경찬 구술.
1539) '방상'은 일가붙이의 집안을 일컫는 말이다.

(3) 노래자랑

그 당시에는 그 마을마다 노래자랑 헷어이. 콩쿨대회라고 헤서.[1540] 씨름. 그 당시는 우리 여기는 그 당시 우리 세대에는 일본 문화가 상당히 그 우릴 흡수를 많이 헷다는 거. 토막. 야군데 토막이라이. 아주 재미 잇어.[1541] 토막이라고 손야구, 손야구[1542]. 그 요꼬마이라고 토막, 토막허고 뭐 자치기 같은 거는 이런 거 그 당시 그 일본 문화의 그 시절이엇주.[1543]

그 당시에는 그 마을마다 노래자랑 했어. 콩쿠르라고 해서. 씨름. 그 당시는 우리 여기는 그 당시 우리 세대에는 일본 문화가 상당히 그 우릴 흡수를 많이 했다는 거. 토막. 야군데 토막이야. 아주 재미 있어. 토막이라고 손야구, 손야구. 그 '요꼬마이(?)'라고 토막, 토막하고 뭐 자치기 같은 거는 이런 거 그 당시 그 일본 문화의 그 시절이었지.

3) 촐 비기

촐은 자기만씩. 우리도 저 머리여진오름ᄁᆞ지 간 촐 헤난. 또 저 원이 그디ᄁᆞ지 간. 이 우리 조케 살앗주마는 강○○이허고 나허고 둘이가 밤이 살멍. 초가집 하나 잇더구만. 초가집 잇는디. 돈 줜 허는 것이 아니라 기냥 공짜로 비어 오는 거라. 임제 셔도 말 안 헤. 그 내 부니까. 인력 엇엉 비지도 못허고. ᄒᆞᆫ 둘이가 ᄒᆞᆫ 차. ᄒᆞᆫ 일주일 살아졋일 거라. 가을 들엉근에 팔월 추석 ᄀᆞ리여. 팔월 추석. 이제 생각나는 게 머리여진오름에ᄁᆞ지도

1540) 강경찬 구술.
1541) 우명창 구술.
1542) 김웅철 구술.
1543) 우명창 구술.

촐 허레 가낫고. 이 저 단산도 그 향교로 우로 올라간 디. 그디가 ᄒᆞᆫ 이백 미터 더 아래ᄁᆞ지 ᄂᆞ려오고 집에서 그 거리를 등 젼에 올라갓단 내려왓단 허영. ᄒᆞᆫ 구루마 헤영은에 그냥 막 헹 놧당은에 그디도 촐값 안 받아. 내 불어. 막 헤영 ᄆᆞᆯ려근에 무껑 ᄒᆞ루 종일 어둑도록 아침이 강 내쳥은에 ᄒᆞᆫ 구루마 시껑은에 집이 쉐 멕이젠. 겨울에 쉐 멕이젠. 촐왓 신 사름은, 이런 평지에 이신 사름은 간단히 비엉 허주마는 엇인 사름은 고셍 많이 헷지. 쉔 멕여야 사난. 우린 촐왓이 하나도 엇언. 거기도 공짜, 공짜. 원에도 가곡. 애월. 살멍 그디 초가집 하나 잇데. 공짜 촐왓. 막 널른디 임제가 엇어. 임제 셔도 내 불어. 게난 ᄒᆞᆫ 번은 우리 삼춘 조케가 촐 비는디 목둥이 지펀 어떤 남자가 오고 잇어. 영 훈들르멍. 게난 우리 조칸 겁난 아이고 큰일 나수다, 큰일 나수다. 삼춘 큰일 난. 아니여, 큰일 나지 아년다. 나가 다 책임지켜. 딱 무사 놈이 촐왓 비엄수가? 아, 이거 우리 모실폰덴 아 이거 내 분 줄 알안에 몰란 비어수다. 이거 어떵헙니까? 허난 알아수다. 비엉 갑서.[1544]

꼴은 자기만큼씩. 우리도 저 '머리여진오름'[1545]까지 가서 꼴 했었어. 또 저 원이 거기까지 가서. 이 우리 조카 살았지만 강○○이하고 나하고 둘이 밤에 살면서. 초가집 하나 있더구먼. 초가집 있는데.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베어 오는 거야. 임자 있어도 말 안 해. 그 내 버리니까. 인력 없어서 베지도 못하고. 한 둘이 한 차. 한 일주일 살아졌을 거야. 가을 들어서 팔월 추석 즈음이야. 팔월 추석. 이제 생각나는 게 '머리여진오름'에까지도 꼴 하러 갔었고. 이 저 단산도 그 향교로 위로 올라간 데. 거기가 한 이백 미터 더 아래까지 내려오고 집에서 그 거리를 등 져서 올라갔다가 내려

1544) 강창유 구술.
1545) '머리여진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달리 '북ᄃᆞᆯ아진오름'이라고도 한다.

왔다가 해서. 한 달구지 해서 그냥 막 해서 놨다가 거기도 꼴값 안 받아. 내 버려. 마구 해서 말려서 묶어서 하루 종일 어둡도록 아침에 가서 내쳐서 한 달구지 실어서 집의 소 먹이려고. 겨울에 소 먹이려고. 꼴밭 있는 사람은, 이런 평지에 있는 사람은 간단히 베어서 하지만 없는 사람은 고생 많이 했지. 소는 먹여야 사니까. 우린 꼴밭이 하나도 없었어. 거기도 공짜, 공짜. 원에도 가고. '애월'. 살면서 거기 초가집 하나 있데. 공짜 꼴밭. 아주 너른데 임자가 없어. 임자 있어도 내 버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삼촌 조카가 꼴 베는데 막대 짚어서 어떤 남자가 오고 있어.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칸 겁나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 아니야, 큰일 나지 않는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딱 왜 남의 꼴밭 베고 있습니까? 아, 이거 우리 '모슬폰'덴 아 이거 내 버린 줄 알고 몰라서 베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니까 알았습니다. 베고 가십시오.

- **촐고지**

촐고지 올라가는 거.[1546] 왜 그러냐 허면은 우리 소를 두 개 키우는 사름 하나 키우는 사름이이, 그래도 겨울 먹을 양식이라이. 양식인데 여기는 산에 가서 그 촐을 허는데 그 농사짓는 그 고구마줄이나 이 대부분 그렇게 헤서 어디 갓냐 허민 지금 어디고? 영어교육도시 올라가민 그 어데라고, 그레 주로 도너리오름을 다녓는데 감만 허민 ᄒᆞᆫ 일주일 살앗어이. 물 실르고 가서 모욕도 않고 그 많은 고생을 헷는데, 게도 고생한 보람은 잇어예. 왜 그러냐 허면 거기서 그 촐을 비어당은에 멕영은에이 그 소를 다음해 봄에 팔만 허면 돈이 나올 게 거벳기 없엇어. 그래서 헤 봄만 허민 그렇콤, 그렇게 비엇고.[1547] 남송이오름.

1546) 김웅철 구술.
1547) 강경찬 구술.

그 당시 여기는 뭐를 대개 헷냐 허면 여기 대정에는 소를 비육을 잘 시킨 거라. 아까 얘기허듯이 촐을 아까, 그때 팔월 그 당시에 촐을 헹 놔뒀다가 봄까지. 그 쉐가 엄청 ᄉᆞᆯ질 거 아니라게? 비육으로. 그러민 이거를 다 ᄑᆞ는 것도 아니고 은가를 받는 거라. 없는 시절이라 놓니까. ᄒᆞᆫ 머리 축산으로 헤서 이제 이렇게 헤서 그 당시 아 삼ᄉᆞ만 원에 그 은가를 받아갖고 축사, 축사. 즉 말허자면 그 이것으로 좋은 놈으로 완전히 만들엇으니까 축산으로 은가를 받앗고 그다음은 축산으로 교환. 그 당시 그 문화가 그 후제는 뭐 두 머리 세 머리 헤서 막 비육시켯지마는 쉐 하나씩 비육 시킨 거라.[1548]

(도너리오름 촐) 아, 촐왓을 사갖고, 촐만 사고 땅은 산 게 아니고.[1549] 여기 존 게 뭐냐 허면 자리. 자리젓을 참 에이급으로 허거든. 자리젓만 헤서 좋게 담앙인에 하나만 주민 그 당시 촐을 얻을 수 잇어. 이제 그 요만은 단지 하나 주면은 크게 여겨서 촐사 한글히. 그 당시만 헤도.[1550] 물물교환이주. (어느 동네하고) 서광 서부락 광청이.[1551] 그디가 대정 이쪽이 가깝주게. 자리젓이나 돈.[1552] 이 분 얘기허는 그 한담으로 들어야지 그 당시는 대부분 돈을 중심으로 헷지. 나가 우리 가정에서 나 헌 거 하나 놓고 얘기허민 안 뒈거든. 대부분 돈으로 주고 우리도 삿어. 그 많은 자리젓을 만들어근에.[1553] 그거는 그 후제이 처음엔 경 헷잖아, 처음엔.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잇엇어게? 보리나 자리젓으로 촐 헤낫주. 나중에.[1554] 처음엔 물물교환이

1548) 우명창 구술.
1549) 강경찬 구술.
1550) 우명창 구술.
1551) 강경찬 구술.
1552) 우명창 구술.
1553) 강경찬 구술.
1554) 우명창 구술.

야.[1555]

(촐은) 쓰무 바리 서른 바리쯤 뒈지.[1556] 건 소 숫자에 따라서 아무렇게 헤도 소 하나를 키울라고 허민 열다섯 바리를 헤야 뒈이. ᄒᆞᆫ 바리 마흔뭇. 그러니까 열 바리 열다섯 바릴 허는데 그 많이 하는 사름은 차로 한 멧 차씩 이렇게 헷는데.[1557] 나중엔 차로 만딱 강 실러왓주게. 근래에 와서.[1558]

'촐고지'[1559] 올라가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를 두 개 키우는 사람 하나 키우는 사람이, 그래도 겨울 먹을 양식이야. 양식인데 여기는 산에 가서 그 꼴을 하는데 그 농사짓는 그 고구마줄기나 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어디 갔냐 하면 지금 어디고? 영어교육도시 올라가면 그 어디라고, 그리로 주로 '도너리오름'[1560]을 다녔는데 가기만 하면 한 일주일 살았어. 물 싣고 가서 목욕도 않고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그 꼴을 베어다가 먹여서 그 소를 이듬해 봄에 팔기만 하면 돈이 나올 게 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해 보기만 하면 그렇게, 그렇게 베었고. '남송이오름'[1561].

그 당시 여기는 뭐를 대개 했느냐 하면 여기 대정에는 소를 비육을 잘 시킨 거야. 아까 얘기하듯이 꼴을 아까, 그때 팔월 그 당시에 꼴을 해서 놔뒀다가 봄까지. 그 소가 엄청 살질 거 아닌가? 비육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인가를 받는 거야. 없는 시절이어 놓으니까. 한 마리 축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아 삼사

1555) 김웅철 구술.
1556) 우명창 구술.
1557) 강경찬 구술.
1558) 우명창 구술.
1559) '촐고지'는 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1560) '도너리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경계에 있는 오름이다.
1561) '남송이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만 원에 그 인가를 받아갖고 축사, 축사. 즉 말하자면 그 이것으로 좋은 놈으로 완전히 만들었으니까 축산으로 인가를 받았고 그다음은 축산으로 교환. 그 당시 그 문화가 그 후에는 뭐 두 마리 세 마리 해서 아주 비육시켰지만 소 하나씩 비육시킨 거야.

(도너리오름 꼴) 아, 꼴밭을 사갖고, 꼴만 사고 땅은 산 게 아니고. 여기 좋은 게 뭐냐 하면 자리돔. 자리젓을 참 에이급으로 하거든. 자리젓만 해서 좋게 담가서 하나만 주면 그 당시 꼴을 얻을 수 있어. 이제 그 요만한 단지 하나 주면 크게 여겨서 꼴이야 한가히. 그 당시만 해도. 물물교환이지. (어느 동네하고) 서광 서부락 '광청이'. 거기가 대정 이쪽이 가깝지. 자리젓이나 돈. 이 분 얘기하는 그 한담으로 들어야지 그 당시는 대부분 돈을 중심으로 했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 한 거 하나 놓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대부분 돈으로 주고 우리도 샀어. 그 많은 자리젓을 만들어서. 그거는 그 후에 처음엔 그렇게 했잖아, 처음엔.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었어? 보리나 자리젓으로 꼴 했었지. 나중에. 처음엔 물물교환이야.

(꼴은) 스무 바리 서른 바리쯤 되지. 건 소 숫자에 따라서 아무렇게 해도 소 하나를 키우려고 하면 열다섯 바리를 해야 돼. 한 바리 마흔뭇. 그러니까 열 바리 열다섯 바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사람은 차로 한 몇 차씩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차로 몽땅 가서 실어왔지. 근래에 와서.

□ 9월

1) 가을걷이

고구마. 산디도 해야 뒈고. 콩. 구월에 조.[1562] 조 호미로 비어서 사람으로

1562) 우명창 구술.

고고리를 짤랑 도께로 마당에서 도리깨로 두드리지.[1563] 비어 놩은에 튿아. 물이나 쉐로 돌리고. 물방에. 우리 집이 하나 잇어낫어. 요 구석에 하나 잇어낫어.[1564] 같은 계꾼이라고 헤서 그것이 멧 사름이 만듦만 허민 그 사름만 필요헌 때 사용허고, 이 사름이 써난 다음에 다른 분이 그 사용을 헷기 때문에 우선 권한은 그 권한은 만든 사름이 권한이 잇고, 또 쉴 때는 같은 집 이웃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허고.[1565] 그거 하나 만들랴면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허지. 우리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덜이 그 역사를 얘기헤 준 거. 엄창나게 힘들어.[1566] 나 친정에서는 그 공동으로 그 마을에 전체에 썻어.[1567] 나의 증조하르방 같은 분덜이 내려와 갖고 이제 여기서. 게난 우리 어릴 때 우리 잇엇지마는 우리 외에는 딴 사름. 농사엔 조 같은 거 허젠 허면 엄청 많거든. 걸뭐 밤에도 계속 돌려야 뒈.[1568] 콩은 이거 두드리고.[1569]

고구마. 밭벼도 해야 되고. 콩. 구월에 조. 조 낫으로 베어서 사람으로 이삭을 잘라서 도리깨로 마당에서 도리깨로 두들기지. 베어 놔서 따. 말이나 소로 돌리고. 연자매. 우리 집에 하나 있었었어. 요 구석에 하나 있었었어. 같은 계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몇 사람이 만들기만 하면 그 사람만 필요한 때 사용하고, 이 사람이 쓴 다음에 다른 분이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 권한은 그 권한은 만든 사름이 권한이 있고, 또 쉴 때는 같은 집 이웃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그거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지. 우리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그 역사를 얘기해 준 거. 엄청나게 힘들어.

1563) 강경찬 구술.
1564) 박순자 구술.
1565) 강경찬 구술.
1566) 우명창 구술.
1567) 박순자 구술.
1568) 우명창 구술.
1569) 강경찬 구술.

나 친정에서는 그 공동으로 그 마을에 전체에 썼어. 나의 증조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내려와 갖고 이제 여기서. 게난 우리 어릴 때 우리 있었지만 우리 외에는 딴 사람. 농사엔 조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엄청 많거든. 걸 뭐 밤에도 계속 돌려야 돼. 콩은 이거 두들기고.

□ 10월

1) 모멀 수확

모멀은 십일월달에 막 추워근에 헤영, 나도 모멀 갈아낫는디 막 젤 칠월달에 모멀 갈거든. 저 산디 허영 허면은 모멀이라고 갈앙 내 불주. 허민이 십일월달엔 안 허고 십이월 초승에. 이르게 헌 거는 시월달에도 헌덴 허주마는. 이 농사지다근에 그르치면은 에, 헐 거 없으면 에 모멀이라도 갈앙 내 불주. 아, 모멀이 이중허여, 이중.[1570] 모멀이이 지금은 모멀, 모멀 허는데 자식 농사 잇잖우꽈? 늦게 결혼헤서 늦둥이로 하나 남만 허민 모멀농사 헷저. 이 말을 우리가 들엇어. 그 사람에 헐 때 나 지금에야 아이덜이 모멀농사헷어, 자식. 늦게 하는 곡식이 제일 모멀로 봣거든게.[1571]

메밀은 십일월에 아주 추워서 해서, 나도 메밀 갈았었는데 아주 젤 칠월에 메밀 갈거든. 저 밭벼 해서 하면 메밀이라고 갈아서 내 버리지. 하면 십일월엔 안 하고 십이월 초승에. 이르게 한 거는 시월에도 한다고 하지만. 이 농사짓다가 그르치면 에, 할

1570) 박순자 구술.
1571) 강경찬 구술.

거 없으면 에 메밀이라도 갈아서 내 버리지. 아, 메밀이 이중해, 이중. 메밀이 지금은 메밀, 메밀 하는데 자식 농사 있잖습니까? 늦게 결혼해서 늦둥이로 하나 낳기만 하면 메밀농사했다.[1572] 이 말을 우리가 들었어. 그 사람에 할 때 나 지금에야 아이들이 메밀농사했어, 자식. 늦게 하는 곡식이 제일 메밀로 봤거든.

□ 11월

1) 동지 풋죽

십이월 뭐 섣ᄃᆞᆯ 뭐허는 것이 뭐 엇어. 벨로 엇어. 동지죽 쒄 먹엇지. 동지죽 옛날부떠 쒓지. 우리 아주 어린 때부떠. 그거 몸 건강이지, 첫째는. 풋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게. 이젠 흔허게 밧디 가난. 옛날은 궹장히 귀헷지, 풋이. 게난 풋 숢앙 풋죽 먹어지카 부덴 일반 살아갈 때에. 동지날에나 먹지. 겨곡 옛날에는 고기이 곤밥 거 먹고 싶어서. 식게 멩질 가까워 가민 닐모리 동당 닐모리 동당 어린 때. 닐모리 동당, 닐모리 동당. 거 무슨 말이냐? 닐모리 동당. 재게 오라는 거지. 닐모리 동동, 닐모리 동동. 곤밥 먹젠. 그 당시에는 조밥도 엇엉 못 먹을 시긴디. 멩질 때나 제사 때에 곤밥이 나오니까. 궤기 먹고 곤밥 먹젠 그거 기다령. 닐모리 동당 닐모리 동당 막 웃으멍덜. 풋이 어려왓지. 먹어보기 힘들엇지. 떡이나 쏙에 놈뿐이니. 어디 일반 풋죽, 당추. 집 안네 뭣을 멘들려고 헐 때는 소금허고 풋 헤연 방쉬로 막 삐여. 집안에 안티 마당에나 뭐 파근에 뭐 허젠 허민, 방쉬로 소금 풋영 서껑 싹 삐어. 일본도 간 보난 경 허염데.[1573]

1572) 여기에서 '메밀농사하다'는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다'는 의미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동지 뒈 가면은 풋죽 헤가민 놈삐 잇잖아. 놈삐 그걸 파근에, 놈삐 팡 양펜에 똑허영은에 들아메면 물 놓면은 거기다 끗다리 나와 갖고. 게믄 그걸로 영. 그때 우리 저 동지에 허민 동짓날에 놈삐 벌러근에 그 알 파근에 그레 물 담앙 놔두민 알로 순 나와. 게믄 양편으로 이제 코걸이 걸엉 들아메 영 놔두면은 저거 동짓날 허여근에 헌 거 저 놈삐 쭉쭉 영 올라가. 영 아레 내려오지 안허영 영 허영 영 올라간덴 허난. 게난 알로 꺼꿀로 메달민 그 순이 우로 올라간다니까. 재미로, 동짓날에.[1574] 우리 그때 그 말은 들엇어. 나이 많은 어른덜. 그 동지풋죽을 쒕 먹음만 허면, 그 감기란 말도 못허고 고뿔, 고뿔도 안 온다 이 말을 우리가 들엇는데. 거는 어느 분이 말장수가 얘기헷는지 뭐헷는지 모르주만 그런 말은 좀 잠깐 들엇어.[1575] 고뿔이라 헌 거는 감기. 동지풋죽 그런 원리가 맞아. 그 당시 풋죽을 이렇게 자주 쒀 먹엇냐 허면 일년 그 저 마지막 헤가 끗나가니까. 이것저것 사전에 이걸 없애는 기운에서 동지팥죽이 이제 먹으면은 모든 게 순순히 잘 물러간다, 잡귀가 엇어져 간다, 방법을 이용헌 거지. 일년이 마지막 뒈 가니까.[1576] 액을 막아준다.[1577] 팥죽이, 우리가 그 장사가 날 때도 팥죽을 쒄 먹지 않았어이? 쒀 먹엇는데 건 다른 건 잡귀가 뭐한다고 헌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장사 나민 다른 음식도 아니고 팥죽을 쒀서 먹잖아.[1578] 사둔칩이서 쒕 오는 말도 헙서게.[1579]

1573) 강창유 구술.
1574) 박순자 구술
1575) 강경찬 구술.
1576) 우명창 구술.
1577) 박순자 구술.
1578) 강경찬 구술.
1579) 김웅철 구술.

십이월 뭐 섣달 뭐하는 것이 뭐 없어. 별로 없어. '동지죽' 쒀서 먹었지. '동지죽' 옛날부터 쒔지.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 몸 건강이지, 첫째는. 팥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젠 흔하게 밭에 가니까. 옛날은 굉장히 귀했지, 팥이. 그러니까 팥 삶아서 팥죽 먹을 수 있을까 봐 일반 살아갈 때에. 동짓날에나 먹지. 그러고 옛날에는 고기 흰밥 거 먹고 싶어서. 제사 명질 가까워 가면 낼모레 동당 낼모레 동당 어릴 때. 낼모레 동당, 낼모레 동당. 거 무슨 말이냐? 낼모레 동당. 재우 오라는 거지. 낼모레 동동, 낼모레 동동. 흰밥 먹으려고. 그 당시에는 조밥도 없어서 못 먹을 시긴데. 명질 때나 제사 때에 흰밥이 나오니까. 고기 먹고 흰밥 먹으려고 그거 기다려서. 낼모레 동당 낼모레 동당 막 웃으면서들. 팥이 어려웠지. 먹어보기 힘들었지. 떡이나 속에 놓기뿐이니. 어디 일반 팥죽, 당최. 집 안에 뭣을 만들려고 할 때는 소금하고 팥 해서 '방쉬'로 막 뿌려. 집안에 안에 마당에나 뭐 파서 뭐 하려고 하면, '방쉬'로 소금 팥이랑 섞어서 싹 뿌려. 일본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데.

동지 돼 가면 팥죽 해가면 무 있잖아. 무 그걸 파서, 무 파서 양편에 똑해서 매달면 물 놓으면 거기에다 끄트머리 나와 갖고.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그때 우리 저 동지에 하면 동짓날에 무 쪼개서 그 아래 파서 그리로 물 담아서 놔두면 아래로 순 나와. 그러면 양편으로 이제 고리 걸어서 매달아서 놔두면 저거 동짓날 해서 한 거 저 무 쭉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아래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거꾸로 매달면 그 순이 위로 올라간다니까. 재미로, 동짓날에. 우리 그때 그 말은 들었어. 나이 많은 어른들. 그 동지팥죽을 쒀서 먹기만 하면, 그 감기란 말도 못하고 고뿔, 고뿔도 안 온다 이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거는 어느 분의 말장수가 얘기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은 좀 잠깐 들었어. 고뿔이라 한 거는 감기. 동지팥죽 그런 원리가 맞아. 그 당시 팥죽을 이렇게 자주 쒀 먹었느냐 하면 일 년 그 저 마지막 해가 끝나가니까. 이것저것 사전에 이걸 없애는 기운에서 동지팥죽이 이제 먹으면 모든 게 순순히 잘 물러간다, 잡귀가 없어져 간다, 방법을 이용한 거지. 일년이

마지막 되어 가니까. 액을 막아준다. 팥죽이, 우리가 그 장사가 날 때도 팥죽을 쒀서 먹지 않았어? 쒀 먹었는데 건 다른 건 잡귀가 뭐한다고 한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장사 나면 다른 음식도 아니고 팥죽을 쒀서 먹잖아. 사돈집에서 쒀서 오는 말도 하세요.

2) 새 헤치

새 헤치 대정읍 전부. 각 ᄆᆞ을에 하나씩. 큰 새왓. 이녁 밧이 잇주게. 이녁 토지가. 경계선 이만이라도 넘으민 큰일 나. 경계선 쫙 놔근에. 경계선부터 이만씩헌 돌덜 놓주게이. 다 경계선 헤근에. (그 새왓이) 그때 ᄒᆞᆫ 백오십 평 정도 산 거지. 집 일젠. 십이월 이십 날 허는 걸로 보는디. 양력으로. 그 후에는 아무 새 비어도 일 없어. 그 전인 비어당은에 껄리민 혼나. (새헤치 허는 날은) 지키는 사름이 통지 다 헤여. (지키는 사름한테) 일 년에 ᄒᆞᆫ 번 줘. 밧 ᄒᆞᆫ 사름당 언마? 만약에 누게가 새를 비어갓다, 지키는 사름이 물어야 뒈. 게난 책임이 중헌 거지. 다 초집이주. 어디 뭐 기와집이 ᄆᆞ을에 하나두 개 시나마나. 모실봉 두에 큰 새왓이지. 한굴새왓. 나가 보기에는 대정에서는 한굴새왓이 최고고. 모실봉 저 어디 가시오름 뒤에도 실 거라. 새왓들이. 개인 새왓들도 종종 잇엇주. 이녁 사레 뎅기기 실프민 개인으로 밧디 새 들영은에. 게난 우리도 쓰레트집을 허게 뒈니까 새가 필요 엇으니까 밧을 풀아 분 거. 그 밧을 풀아 부니까 다른 사름이 사서 토지로 경작허고 잇지. 강 보민 새왓 하나도 엇어.[1580]

십이월 이십일 경에 저디 새 허치 헐 거라. 모슬봉 뒤에 한굴새왓. 그디 지키는 사름안티 삭 주곡 헹은에 헤당 그 후에는 각단 허레 다 뎅겨. 송악산

1580) 강창유 구술.

ᄀᆞ뜬 디 강 보민은 새덜이 잇거든. 호미 ᄋᆞ경 강 막 비여당은에 막 무껑 시꺼당은에 놧당 어느 날씨 좋은 날 택헤근에 줄 놔근에. 게민 줄 영 또 데명 놧당 일기 좋은 날을 택헤근에 집 이는 거지. 집은 아무 날도 일어. 날만 좋으면. 게곡 집 우이 더끄는 사름이 기술자라 뒈여. 기술자 아니면 새 잘 못 더꺼. 잘못허민 비 새 불거든. 킂등허게 헤근에 나중에게 줄 논 걸 올리기 좋게 무꺼. 이렇게 무꺼근에 픽 데끼민 우이서 심어근에 저레 눌르고 이레 욮에 시민 영 풀어 놓민 양펜이 강 영 무끄민 또 헤 가곡 또 헤 가곡. 게영 그거 허민 또 동네 사름들 일헤 주니까 술도 주곡 밥도 헤영 멕이곡. 쏠밥이 엇어. 이디 다 보리밥이지. 수눌엉. 돌아가멍. 나 낼 집 일 거난 헤 주라 허민, 예, 허영. 서로 연락허멍. 전화 엇이니까 그 집이 강 ᄀᆞᆯ암주게.[1581]

새는 우리가 십일월. 나가 걸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저디 한굴새왓이라고 헤여근에 대정읍에서 날을 정해줘예? 새 허치 허는 날. 그래야 새 그거를 다 비영 헐 때 십일월 일일로 비엿어요, 양력.[1582] 한굴새왓이라고. 막 큰 새왓이 잇엇거든. 새가 나면은 아주 좋앗주게. 품종도 좋고 농사 작황이 좋았다는. 이제 그 새를 잘 뒈니까 일단은 십이월에 저거를 작업을 헤서 에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 삼월달에 쪼금 거 새 기분도 나고 그때가 보면은 집을 잘 일어.[1583] 그 새, 띠밧이 집단화가 뒈기 때문에 이러쿰 할 때 돌 하나씩 톡톡 놔두는 정도라. ᄒᆞᆫ번에 날짜를 정헤서 안 빔만 허민 이거 놈의 것도 허니까, 딱허게 그 날짜 정헤서 가서 빔만 허민 비어 가당도 이것, 이레 놓곡 이러쿰 헷어. (한굴새왓은) 하모리 사람덜이 많이 가졋대. 하모리 하고 동일리. 그러니까 이교동에서도 주로 하모리가 많이 갖고, 동일리가

1581) 강창유 구술.
1582) 강경찬 구술.
1583) 우명창 구술.

많이 갖고. 우리 부락에는 세 사름인가벳기 엇엇어예. 왜 그러냐 허민 아무렇게 헤도 경제 여건이 이 하모리가 그때도 나앗거든.[1584]

(새밧 없으면) 새 비레 가야지. 도둑질도 허곡게 놈이게 사당도 허고.[1585] 그건 나도 허여낫는디, 에 주인덜이 비당 거 놔둔 거 짤른 것덜 ᄀᆞ뜬 거는 각단이라고 헤. 각단 비어근에 그거는 저 줄 노는 거 허고 새 ᄒᆞᆫ 줌 ᄀᆞ뜬 거 구석 ᄀᆞ튼 거 안 비엉 내 분 거 이시민 집 일고. 모두왕은에. 나 봉그레 뎅겨낫주게.[1586]

띠 허채 대정읍 전부. 각 마을에 하나씩. 큰 띠밭. 이녁 밭이 있지. 이녁 토지가. 경계선 이만큼이라도 넘으면 큰일 나. 경계선 쫙 놔서. 경계선부터 이만큼씩한 돌들 놓지. 다 경계선 해서. (그 띠밭이) 그때 한 백오십 평 정도 산 거지. 집 이려고. 십이월 이십 날 하는 걸로 보는데. 양력으로. 그 후에는 아무 띠 베어도 일 없어. 그 전엔 베어다가 걸리면 혼나. (띠 허채 하는 날은) 지키는 사람이 통지 다 해. (지키는 사람한테) 일 년에 한 번 줘. 밭 한 사람당 얼마? 만약에 누가 띠를 베어갔다, 지키는 사람이 물어야 돼. 그러니까 책임이 중한 거지. 다 초집이지. 어디 뭐 기와집이 마을에 하나두 개 있으나마나. 모슬봉 뒤에 큰 띠밭이지. '한굴새왓'[1587]. 내가 보기에는 대정에서는 '한굴새왓'이 최고고. 모슬봉 저 어디 '가시오름'[1588] 뒤에도 있을 거야. 띠밭들이. 개인 띠밭들도 종종 있었지. 이녁 사러 다니기 싫으면 개인으로 밭에 띠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도 슬레이트집을 하게 되니까 띠가 필요 없으니까 밭을 팔아 버린 거. 그 밭을

1584) 강경찬 구술.
1585) 우명창 구술.
1586) 박순자 구술.
1587) '한굴새왓'은 대정읍의 한 지경 이름이다. 예전에 이곳에 '새' 즉 띠밭을 조성하여 대정읍 지역 마을의 띠를 생산하였다. 띠를 베는 날을 정하여 대정읍 전체 마을이 띠 베기를 하였다. 띠를 베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새 허치'라고 하였다.
1588) '가시오름'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팔아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사서 토지로 경작하고 있지. 가서 보면 띠밭 하나도 없어.

십이월 이십 일경에 저기 띠 '허채' 할 거야. 모슬봉 뒤에 '한굴새왓'. 거기 지키는 사람한테 삯 주고 해서 해다가 그 후에는 '각단' 하러 다 다녀. 송악산 같은 데 가서 보면 띠들이 있거든. 낫 갖고 가서 막 베어다가 막 묶어서 실어다가 놨다가 어느 날씨 좋은 날 택해서 줄 놔서. 그러면 줄 이렇게 또 쌓아 놨다가 일기 좋은 날을 택해서 집이는 거지. 집은 아무 날도 일어. 날만 좋으면. 그러고 집 위에 덮는 사람이 기술자라 되어. 기술자 아니면 띠 잘 못 덮어. 잘못하면 비 새어 버리거든. 나란하게 해서 나중에 줄 놓은 걸 올리기 좋게 묶어. 이렇게 묶어서 픽 던지면 위에서 잡아서 저리로 누르고 이리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풀어 놓으면 양편에 가서 이렇게 묶으면 또 해 가고 또 해 가고. 그래서 그거 하면 또 동네 사람들 일해 주니까 술도 주고 밥도 해서 먹이고. 쌀밥이 없어. 여기 다 보리밥이지. 품앗이하면서. 돌아가면서. 나 낼 집 일 거니까 해 줘라 하면, 예, 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전화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말하지.

띠는 우리가 십일월. 내가 걸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저기 '한굴새왓'이라고 해서 대정읍에서 날을 정해줘요? 새 '허채' 하는 날. 그래야 띠 그거를 다 베어서 할 때 십일월 일일로 베었어요, 양력. '한굴새왓'이라고. 아주 큰 띠밭이 있었거든. 띠가 나면은 아주 좋았지. 품종도 좋고 농사 작황이 좋았다는. 이제 그 띠를 잘 되니까 일단은 십이월에 저거를 작업을 해서 에 우리가 대개 보면 이 삼월에 쪼금 거 새 기분도 나고 그때가 보면 집을 잘 이어. 그 띠, 띠밭이 집단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돌 하나씩 톡톡 놔두는 정도야. 한 번에 날짜를 정해서 안 베기만 하면 이거 남의 것도 하니까, 딱하게 그 날짜 정해서 가서 베기만 하면 베어 가다가도 이것, 이리 놓고 이렇게 했어. ('한굴새왓'은) 하모리 사람들이 많이 가졌대. 하모리하고 동일리. 그러니까 '이교동'에서도 주로 하모리가 많이 갖고, 동일리가 많이 갖고. 우리 마을에는 세 사람인가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렇게 해도 경제 여건이 이 하모리가 그때도 나았거든.

(띠밭 없으면) 띠 베러 가야지. 도둑질도 하고 남의 사다가도 하고. 그건 나도 했었는

데, 에 주인들 베다가 거 놔둔 거 짧은 것들 같은 거는 '각단'이라고 해. '각단' 베어서 그거는 저 줄 놓는 거 하고 띠 한 줌 같은 거 구석 같은 거 안 베어서 내 버린 거 있으면 집 이고. 모아서. 나 주우러 다녔었지.

3) 지붕이기

• 집 일기

집은 이 년에 ᄒᆞᆫ 번씩 일엇지. 이 년에 ᄒᆞᆫ 번. 우리는 새 걱정은 안 헷지. 저 한굴새왓이 잇으니까. 사 형제가 잇는데 형제 둘씩 딱 집 두 개 일어. 나눠서. 게니까 ᄒᆞᆫ 해 형제가 허민 또 ᄒᆞᆫ 해 형제가 헤서 그디 강 시꺼당 새 걱정 안 허곡.[1589] 그 사람마다 묵은해 이는 사름 잇고 새해 낭 이는 사람이 잇는데 것이 만 일 년, 이 년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집을 대부분 일엇어예. 이 년에 ᄒᆞᆫ 번 일엇어예. 그러니까 묵은해 인 집은 또 묵은해 일고, 새해 나서 인 집은 또 새해 나서 일엇지게. 이러니까 날짜, 날 보지 안 헷어.[1590]

집은 이 년에 한 번씩 이었지. 이 년에 한 번. 우리는 띠 걱정은 안 했지. 저 '한굴새왓'이 있으니까. 사 형제가 있는데 형제 둘씩 딱 집 두 개 이어. 나눠서. 그러니까 한 해 형제가 하면 또 한 해 형제가 해서 거기 가서 실어다가 띠 걱정 안 하고. 그 사람마다 묵은해 이는 사람 있고 새해 되어서 이는 사람이 있는데 것이 만 일 년, 이 년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집을 대부분 이었어요. 이 년에 한 번 이었어요. 그러니까 묵은해 인 집은 또 묵은해 이고, 새해 되어서 인 집은 또 새해 되어서 이었지. 이러니까 날짜,

1589) 강창유 구술.
1590) 강경찬 구술.

날 보지 안 했어.

• **줄 놓기**

나 이 집줄도 놔낫지. 그다음 각단이라고 헤서 줄 허는 거. 새 쫄른 거 이만씩 헌 거. 건 이녁냥으로 저 산판에 강 이녁냥으로 베어당 무꺼당 놧당 줄 놔근에. 게민은 네 사름이. 두 사름은 이거 허고 ᄒᆞᆫ 사름은 두치기 가서 이거 허고. 두 사름은 멀리서 이거 훈들리민 ᄒᆞᆫ 사름은 여꺼가고. 네 사름이 필요헤. 거 줄 노는 거. 겐디 나 줄 노는 거 헤낫지, 나도. 거 손 빨르지 안허민 못헤. 경허민 장갑 찌곡 헤근에. 줄 힘들어. 줄 안 허민 두꺼운 디 얄룬 디 고르지 안헤. 게니까 익숙헌 사름이 줄이 처음 나온 거 끗데ᄁᆞ지 쭉 놔야 잘 노는 거야. 겐디 우리 형님만이 못 놔. (집 일기) 봄에.[1591]

나 이 '집줄'[1592]도 놨었지. 그다음 '각단'이라고 해서 줄 하는 거. 띠 짧은 거 이만큼씩 한 거. 건 이녁대로 저 산판에 가서 이녁대로 베어다가 묶어다가 놨다가 줄 놔서. 그러면 네 사람이. 두 사람은 이거 하고 한 사람은 '두치기' 가서 이거 하고. 두 사람은 멀리서 이거 두르면 한 사람은 엮어가고. 네 사람이 필요해. 거 줄 놓는 거. 그런데 나 줄 놓는 거 했었지, 나도. 거 손 빠르지 않으면 못해. 그러면 장갑 끼고 해서. 줄 힘들어. 줄 안 하면 두꺼운 데 가는 데 고르지 않아.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이 줄이 처음 나온 거 끝에까지 쭉 놔야 잘 놓는 거야. 그런데 우리 형님만큼 못 놔. (집 이기) 봄에.

1591) 강창유 구술.

1592)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띠를 바둑판처럼 엮을 때 사용하는 줄이다. 주로 짧은 띠인 '각단'을 이용해 만든다.

• **줄 어울리기**

이거 영 허여근에 손가락 영 허멍.[1593] 저 여러 가지라. 이 사이사이 끼엉은에 영. 대개 이걸 잘 허주.[1594] 으세껴.[1595] 어울리다는 거보다는 여기서는 어울린다면은 잘 몰라. 으세낀다.[1596]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1597] 대정말이 틀려이. 어울리는 거 맞고 줄 노는 것도 맞고 이치록허니까 그거는 뭐 되는 대로 써도 뭘 거. 줄 어울리다고.[1598] 옛날에는 뭣을 헷냐면은 순다리를 헤여근에 그 봄에 때는 멕이주마는.[1599]

이거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저 여러 가지야. 이 사이사이 끼워서 이렇게. 대개 이걸 잘 하지. '으세껴'[1600]. '어울리다'는 거보다는 여기서는 '어울린다'면 잘 몰라. '으세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정말'[1601]이 달라. '어울리는' 거 맞고 줄 놓는 것도 맞고 이처럼하니까 그거는 뭐 되는 대로 써도 될 거. '줄 어울리다'[1602] 고. 옛날에는 뭣을 했느냐면 '순다리'를 해서 그 봄에 때는 먹이지만.

• **줄호렝이**

호렝이 긴 거 썻어, 이러큼 발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뚜렷한 이름이

1593) 박순자 구술.
1594) 우명창 구술.
1595) 강경찬 구술.
1596) 김웅철 구술.
1597) 우명창 구술.
1598) 강경찬 구술.
1599) 박순자 구술.
1600) '으세끼다'는 '두 개의 집줄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꼬다'라는 의미다. 달리 '줄 어울리다'라고 한다.
1601) '대정말'은 대정 지역에서 쓰는 말이다.
1602) '줄 어울린다'는 '두 개의 집줄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꼬다'라는 의미다. 달리 '줄 으세끼다'라고 하였다.

엇이 호렝이라고 불럿지.[1603] 호렝이 빌려 ᄃᆞ라. 아무나 안 빌려줘. 줄호렝이 허주.[1604] 줄 돌리는 거 ᄀᆞ졍 오라 영 헤낫어. 줄 비는 거 가졍 오라. 나 각단 비레 뎅기단 주인안티 걸련 매 맞아낫저.[1605] 그 동쪽에는 일 년엔 한 번 일엇지. 팔월달 남만 허면 헤도 집안에 도비라고 헤서 어디 헐떨어진 거 영 헤서 수리허고 창문 잇잖읍니까? 창문도 ᄇᆞᆯ라서 좀 깨끗허게 허고. 주로 팔월 추석에. 십이월달에 봄만 허면 어떤 분들은 내년도 집을 일라고만 허면 그 각단 모여근에 놔둠만 허민 것도 가냥허기도 힘들고 헤서 이 십이월달에 줄 ᄀᆞ뜬 것도 놔근에 어디 잘 놧다근에 또 내년 남만 허면 일월달에, 이월달에 집을 일어. 십이월달에 대개 그 줄 놔.[1606]

'호렝이' 긴 거 썼어, 이렇게 발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뚜렷한 이름이 없이 '호렝이'라고 불렀지. '호렝이' 빌려 다오. 아무나 안 빌려줘. '줄호렝이' 하지. 줄 돌리는 거 갖고 와라 이렇게 했었어. 줄 꼬는 거 갖고 와라. 나 '각단' 베러 다니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매 맞았었다. 그 동쪽에는 일 년엔 한 번 이었지. 팔월 되기만 하면 해도 집안에 도배라고 해서 어디 '헐떨어진'[1607] 거 이렇게 해서 수리하고 창문 있잖습니까? 창문도 발라서 좀 깨끗하게 하고. 주로 팔월 추석에. 십이월에 보기만 하면 어떤 분들은 내년도 집을 이려고만 하면 그 '각단' 모여서 놔두기만 하면 것도 간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십이월에 줄 같은 것도 놔서 어디 잘 놨다가 또 내년 되기만 하면 일월에, 이월에 집을 이어. 십이월에 대개 그 줄 놔.

1603) 강경찬 구술.
1604) 우명창 구술.
1605) 박순자 구술.
1606) 강경찬 구술.
1607) '헐떨어지다'는 벽의 도배지나 창문의 창호지 따위가 헐어서 떨어지다는 의미다.

• ᄂᆞ람지

우리는 어떵 헷나 각단 모영 허민 그 ᄂᆞ람지 일어. ᄂᆞ람지 헤여근에 잘 더퍼근에 초불 더펑 영 허영 더퍼 놔근에 그걸 저 비 안 맞게시리 걸 이렇게 내려오게. 내려오게 이중으로 헤영 더껑은에 놔둬. 어떵 안 헤. ᄂᆞ람지 일어근에 이제 그 집 일게 뒈면은 그걸 뭐 사람 빌어근에 걸.[1608]

우리는 어떻게 했나 '각단' 모여서 하면. 그 이엉 이어. 이엉 해서 잘 덮어서 초벌 덮어서 이렇게 해서 덮어 놔서 그걸 저 비 안 맞게끔 걸 이렇게 내려오게. 내려오게 이중으로 해서 덮어서 놔둬. 어떻게 안 해. 이엉 이어서 이제 그 집 이게 되면 그걸 뭐 사람 빌려서 걸.

4) 보리 갈기

십일월 뒈민 쉐걸름 돗걸름 내어근에 보리 갈고 것뿐이주. 십일월 말에. 게서 오월 말 뒈민 비영 장만허주게. 오월 말 뒈면 그거주.[1609]

십일월 되면 소두엄 돼지거름 내어서 보리 갈고 것뿐이지. 십일월 말에. 그래서 오월 말 되면 베어서 장만하지. 오월 말 되면 그거지.

□ 12월

1608) 박순자 구술.
1609) 강창유 구술.

1) 납평날

남평날에 엿을 헤서 놧다가 그 설사가, 그 어린애덜 나도 소주에 그것을 개어서이 멕이면 약이 뒌다. 이축 헤서 그 엿을 허믄 오죽 맛잇어게. 그래서 그건데 남평날 그 날짜를 메칠날로 봐?[1610]

남평날 엿허여서 잘 어디 곱졍 놔두면은 난 도둑질헹 먹을 여산만 허고. 그거 헤근에이 저 ᄒᆞᆫ 스픈 떠 놓고 소주 잇지 아녀? 놔근에 데왕 열 설사날 때 그 약이 없기 때문에이 게도 먹어서 괜찮으니까이 그렇게 헷어. 나 얘기헌 것이 약이라.[1611]

'납평날'[1612]에 엿을 해서 놨다가 그 설사가, 그 어린애들 나도 소주에 그것을 개어서 먹이면 약이 된다. 이처럼 해서 그 엿을 하면 오죽 맛있어. 그래서 그건데 '납평날' 그 날짜를 며칠날로 봐?

납평날 엿해서 잘 어디 숨겨서 놔두면 난 도둑질해서 먹을 예산만 하고. 그거 해서 저 한 스푼 떠 놓고 소주 있지 않아? 놔서 데워서 설사날 때 그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먹어서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어. 나 얘기한 것이 약이야.

• 감주, 엿

감주는 보리골하고 좁썰 헤근에 밥을 헤서 골허고 뭐 쪄서 뭐 가만히 뜨거운 디 놔두면 보골보골 궤어예. 헐 때 그 푸대 놩 짜근에 아래 엿기름 내린 것을 불 때어서 그걸 졸라서 엿을.[1613] 첫째 골이 좋아야 뒈어.[1614]

1610) 강경찬 구술.
1611) 강경찬 구술.
1612) '남평날'은 동지 뒤의 세 번째 미일(未日)을 말한다.
1613) 강경찬 구술.

맥주보리에 물 헤여당 그 맥주보리골 놔근에 물 컷당 조끔 따뜻허게 허영은에 뽀족뽀족뽀족헤근에 골 헤영. 뿌리만 나민 맛이 엇어. 이 파릇파릇허게 요 손 지레기만이 나올 때에 헤근에 널엉. 역불로 경 널어근에 ᄀᆞᆯ아당은에 경허여근에 허면은 조팝헤여근에 그거 서껑 허면은 아까 강 이장님 말짜간에도 허여근에 짜근에 나오면은 그걸 딸려근에.[1615] 잘 젓어야 뒈어. 눌엉은 안 뒈어.[1616] 여기 젓는디 불을 초불 파르르허게 궤면은 불을 은근히 허여. 것이 이제 계속헤 가민 게민 ᄃᆞᆨ엿도 허고. ᄃᆞᆨ엿. 돼지고기엿도 허고. 꿩코 놩 꿩 잡아오면 꿩엿도 허고. 이 근래에 와서 마늘엿 허고. 나 ᄀᆞ튼 경우에는 이 아방이 꿩코 놔근에 허면은 꿩 잡아오면은 그거 허여근에 꿩엿 허면 아주 좋거든. 맛이 좋고. ᄃᆞᆨ엿허고. 위에 좋은 거는 마늘. 마늘엿허면은 위가 좋고. 벳줄이 엿 먹어 가민 쫄아져. 사름 벳줄이 쫄아져. 밥이 덜 먹어.[1617]

감주는 보리엿기름하고 좁쌀 해서 밥을 해서 엿기름하고 뭐 쪄서 뭐 가만히 뜨거운데 놔두면 보골보골 괴어요. 할 때 그 부대 놔서 짜서 아래 엿기름 내린 것을 불 때어서 그걸 졸여서 엿을. 첫째 엿기름이 좋아야 되어. 맥주보리에 물 해다가 그 맥주보리엿기름 놔서 물 담갔다가 조끔 따뜻하게 해서 뽀족뽀족뽀족해서 엿기름 해서. 뿌리만 나면 맛이 없어. 이 파릇파릇하게 요 손 길이만큼 나올 때에 해서 널어서. 부러 그렇게 널어서 갈아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 조밥해서 그거 섞어서 하면 아까 강 이장님 말마따나 해서 짜서 나오면 그걸 달여서. 잘 저어야 되어. 눌어서는 안 되어. 여기 젓는데 불을 초벌 파르르하게 괴면 불을 은근히 해. 것이 이제 계속해 가면 그러면 닭엿도 하고.

1614) 우명창 구술.
1615) 박순자 구술.
1616) 강경찬 구술.
1617) 박순자 구술.

닭엿. 돼지고기엿도 하고. '꿩코' 놔서 꿩 잡아오면 꿩엿도 하고. 이 근래에 와서 마늘엿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꿩코' 놔서 하면 꿩 잡아오면 그거 해서 꿩엿 하면 아주 좋거든. 맛이 좋고. 닭엿하고. 위에 좋은 거는 마늘. 마늘엿하면 위가 좋고. '뱃줄'[1618]이 엿 먹어 가면 졸아져. 사람 '뱃줄'이 졸아져. 밥이 덜 먹어.

2) 소한 · 대한

소대한에 밖이 원행허는 사름덜은 기다리지 말렌 헤수다.[1619] 아, 정이월 가는 암쉐 검은암쉐 아니고. 걸어가는 암쉐 뿔 오그라진다 헌 말이. 어떤 사름덜 뭐 얘기헐 때 검은암쉐가 아니고 가는 암쉐.[1620] 거는 암쉐 검은암쉐가 아니고.[1621] 걸어갈 적에 찬바람만 맞음만 허민 뿔 오그라진, 그만큼 춥다는 것을. 검은암쉐 잘못 생각허는 거. 가는 암쉐. 그만큼 춥다는 것을.

그 말이 나오게 뒈는 게 이제는. 바람도 이런 얘기가 모동장 시절부터 나왓어. 모동장 알아져? 모동장에서 일파가 바로 가파도에 들어가서 흑우가 키웟다 말여. 그게 걸어가다 보니까 검은소들 중에서 암소도 끼엇다 말여이. 흑우가 이동 중에도 뿔이 휠 정도다 허니까. 대개 보믄 소들이 그 쉐왕에 들어가지 안허여게. 그런 거는 궨찮을 정돈데 어디 밖에 나온, 움직이면은 휜다는 정도로 춥다는 거.[1622]

1618) '뱃줄'은 창자를 말하는 것 같다.
1619) 김웅철 구술.
1620) 강경찬 구술.
1621) 우명창 구술.
1622) 김웅철 구술.

'소대한'에 밖에 원행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정이월 가는 암소 검은암소 아니고. 걸어가는 암소 볼 오그라든다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 뭐 얘기할 때 검은암소가 아니고 가는 암소. 걷는 암소 검은암소가 아니고. 걸어갈 적에 찬바람만 맞기만 하면 볼 오그라진, 그만큼 춥다는 것을. 검은암소 잘못 생각하는 거. 가는 암소. 그만큼 춥다는 것을.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는. 바람도 이런 얘기가 '모동장'[1623] 시절부터 나왔어. '모동장' 알아? '모동장'에서 일파가 바로 가파도에 들어가서 흑우를 키웠다 말이야. 그게 걸어가다 보니까 검은소들 중에서 암소도 끼었다 말이야. 흑우가 이동 중에도 볼이 휠 정도다 하니까. 대개 보면 소들이 그 외양간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거는 괜찮을 정돈데 어디 밖에 나온, 움직이면 휜다는 정도로 춥다는 거.

3) 신구간

신구간이 입춘 전 삼일. 경헌데 귀신이 그땐 다니질 안헌덴 헨이. 그 기간을 헤서 집도 이사헐 사름은 이사도 가고. 집에 무슨 그 손볼 거 잇으면 같이 손보곡. 보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이사를 신구간에 주로 그것을 하고 잇는데, 이제도 젊은 사름덜이 뒈니까 달라젼.[1624] 동티가 안 나[1625]. 이사 갈 때 솟단지 ᄀᆞ찌 ᄀᆞ졍 가근에 솟단지 헤근에 불 ᄉᆞᆷ앙 밥부떠 헤근에 서로 ᄂᆞ놔 먹어야 것이 이사 간 게 뒈어.[1626] 사람들이 집을 이사헤서 맨 처음에 솟단질 들고 가고, 손을 보더레도 조왕 쪽에 먼저 간다 말여.

1623) '모동장'은 1705년(숙종 31)에 대정읍 신도리·무릉리·영락리 일대에 설치된 우목장을 말한다.
1624) 강경찬 구술.
1625) 박순자 구술.
1626) 강경찬 구술.

의식주가 잇으니까. 그런데 여기 신구간이 빨리 대정 지역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주민. 피난민들 막 들어와 부니까게 신구간이고 어디.[1627]

신구간은 이 손보는 날이주게. 집 안네. 솟덕이라든가 뭐 잘못뒌 거 이시민 그날 고치는 거주. 이 신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 부니까 아무것도 없다. 신구간 탈날 일이 없다. 고찌는 날이지. 사소헌 것덜. 신구간에 이사도 허주게. 신이 없으니까 이사도 가고 뭐 고치기도 허고. 신구간 음력 입춘 전 삼일. 대한 후 일주일 후 입춘 전 삼일이엔 말이 잇는데 뭐 더 넘엉 헤도 일없어. 신구간 허민 멩칭이 경 뒌. 그날 못허민 더 연장허영도 허고. 사름 마음가짐뿐이지. 이사 가 봣주게. 일정 때. 일본 와서 여기 폭격헌다. ᄆᆞ을 다 나가야 뒈어. 게 서광, 우리 ᄉᆞ춘, 우리 고모님이 서광 간 살앗어. 게난 서광 다 올라갓주게. 아, 서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신 빠지게. 서광 간 살앙 무신거. 집이 ᄀᆞ만, 죽는 사름인 집이 앚아도 죽곡. 게난 폭격이 오질 안허고.[1628]

신구간이 입춘 전 삼일. 그런데 귀신이 그땐 다니질 않는다고 해서. 그 기간을 해서 집도 이사할 사람은 이사도 가고. 집에 무슨 그 손볼 거 있으면 같이 손보고. 보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이사를 신구간에 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도 젊은 사람들이 되니까 달라졌어. 동티가 안 나. 이사 갈 때 솥단지 같이 갖고 가서 솥단지 해서 불 때서 밥부터 해서 서로 나눠 먹어야 것이 이사 간 게 되어. 사람들이 집을 이사해서 맨 처음에 솥단질 들고 가고, 손을 보더라도 '조왕' 쪽에 먼저 간다 말이야. 의식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신구간이 빨리 대정 지역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주민. 피난민들 막 들어와 버리니까 신구간이고 어디.

1627) 김웅철 구술.
1628) 강창유 구술.

신구간은 이 손보는 날이지. 집 안에. 봇돌이라든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날 고치는 거지. 이 신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신구간 탈날 일이 없다. 고치는 날이지. 사소한 것들. 신구간에 이사도 하지. 신이 없으니까 이사도 가고 뭐 고치기도 하고. 신구간 음력 입춘 전 삼일. 대한 후 일주일 후 입춘 전 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더 넘어서 해도 일없어. 신구간 하면 명칭이 그렇게 됐어. 그날 못하면 더 연장해서도 하고. 사람 마음가짐뿐이지. 이사 가 봤지. 일정 때. 일본 와서 여기 폭격한다. 마을 다 나가야 되어. 글쎄 '서광'[1629], 우리 사촌, 우리 고모님이 '서광'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서광' 다 올라갔지. 아, '서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신 빠지게. '서광' 가서 살아서 무엇. 집에 가만, 죽는 사람은 집에 앉아도 죽고. 그러니까 폭격이 오질 않고.

4) 장 담기

옛날 어른덜이 이제 십일월달, 십이월달에 ᄉᆞᆷ는데 나는 장만헤지면은 바로 ᄉᆞᆷ앙 놔둬. 경 허민 섣ᄃᆞᆯ그믐날 이제 장을 담아근에 혯다근에 삼월달이나 이월 말일쯤에 거령. 거려근에 막 그 된장을 뿌셔근에 마늘을. 마늘을 많이 놓으민 놓을수록 좋아. 메주 헤영 ᄆᆞᆫ딱 시쳥 놔뒀당은에 소금물 갈앙 놔뒀당 허면은 ᄃᆞᆨ세기가 띄우면은 동전 하나만이 허민 이제 장이 뒈는 거라이. 메주 항아리 소곱에 놧당 물만 비우민 뒈는 거. 나는 장을 하영 담아. 나 읏 말도 담고. 작년에 두 말가웃 ᄉᆞᆷ은 것이 모자련. 뒌장 잘 먹기 때문에. 겐디 올히도 두 말가웃 ᄉᆞᆷ앗어. ᄉᆞᆷ안, 이제 헤연 놔뒀어. 이제 새해 ᄒᆞᆫ 해만 ᄉᆞᆷ앙 말젠. 이젠 버치고[1630] 겐디 이 사름이 장 아까도 얘기혯주마

1629)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리 서광리를 말한다.
1630) 박순자 구술.

는 우리 두 할망 하르방 얼마나 먹어게. 손지에 이제 뚤에 손지고 아덜에고 허니까 김치나 모든 거 허민 그것덜 다 가졍 가. 이제랑 저 사름 그만허라, 경 ᄀᆞᆯ앗자 안 들어.[1631] 부모란 게 아기덜신디 ᄒᆞ꼼 시간 날 때 이걸 멘들앙 놧뒀당 줘야지 허는 그 ᄆᆞ음밖에 안 나져. 남자들은 모르거든.[1632] 아, 장 담는 거 남자도 ᄀᆞ찌 협력해야 뒈. 메주 멘들젠 허민. 거 솖을 때도 ᄀᆞ찌 불 때어 줘야 뒈곡, 메주 뽔아근에 메주 멩글 때. 이거 뽔아 줘야주게. 나 계속헷주게. 농사 끗나근에. 메주 멩글아근에 저 찍으로 싸근에 ᄃᆞᆯ아맨 사름도 잇고 쭉허게 넌 사름도 잇고. 막 텅 곰팡이 일면은 거 싯어근에. 장 담앙 헷주게. 겐디 이 뽔을 때 힘들어. 게난 나가 거의 다 뽔앗주게.[1633]

옛날 어른들이 이제 십일월, 십이월에 삶는데 나는 장만해지면 바로 삶아서 놔둬. 그렇게 하면 섣달그믐날 이제 장을 담가서 했다가 삼월이나 이월 말일쯤에 떠서. 떠서 막 그 된장을 부숴서 마늘을. 마늘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좋아. 메주 해서 몽땅 씻어서 놔뒀다가 소금물 갈아서 놔뒀다가 하면 계란이 띄우면 동전 하나만큼 하면 이제 장이 되는 거야. 메주 항아리 속에 놨다가 물만 부우면 되는 거. 나는 장을 많이 담가. 나 엿 말도 담그고. 작년에 두 말가웃 삶은 것이 모자라서. 된장 잘 먹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두 말가웃 삶았어. 삶아서, 이제 해서 놔뒀어. 이제 새해 한 해만 삶아서 말려고. 이젠 부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두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먹어. 손자에 이제 딸의 손주고 아들에고 하니까 김치나 모든 거 하면 그것들 다 갖고 가. 이제랑 저 사람 그만하라, 그렇게 말했어도 안 들어. 부모란 게 아기들한테 조끔 시간 날 때 이걸 만들어서 놔뒀다가 줘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안 나. 남자들은 모르거든. 아, 장 담그는 거 남자도 같이 협력해야 돼. 메주 만들려고 하면. 거 삶을 때도

1631) 우명창 구술.
1632) 박순자 구술.
1633) 강창유 구술.

같이 불 때어 줘야 되고, 메주 빻아서 메주 만들 때. 이거 빻아 줘야지. 나 계속했지. 농사 끝나서. 메주 만들어서 저 짚으로 싸서 매단 사람도 있고 쭉하게 넌 사람도 있고. 막 떠서 곰팡이 일면은 거 씻어서. 장 담가서 했지. 그런데 이 빻을 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빻았지.

• 마늘된장

나는 지금도 마늘뒌장 헤 먹거든. 그거는 이 된장을 담아. 이제 거릴 때에나 마늘 하영 놓고 헤서 쪙 놔둬. 계속헤근에 쪙 허민 싱거와도 괜차녀. 싱거우면은 그 마늘된장이 부각이 부꺼 오거든. 그럴 때는 소금 놔근에 쪙 놔두면은. 우리 하르방이 어디 가도 우리 된장만이 맛 좋은 거 엇뎬. 마농뒌장 담고. 놀마농을 말고 마농을 삶아서. 어머니 된장이, 우리 된장만이 맛 존 거 엇수다. 나가 항아리서 이번에도 두 뒈치 담앙 놔뒀거든.[1634]

나는 지금도 마늘된장 해 먹거든. 그거는 이 된장을 담가. 이제 뜰 때에나 마늘 많이 놓고 해서 찧어서 놔둬. 계속해서 찧어서 하면 싱거워도 괜찮아. 싱거우면 그 마늘된장이 부각이 부풀어 오거든. 그럴 때는 소금 놔서 찧어서 놔두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가도 우리 된장만큼 맛 좋은 거 없다고. 마늘된장 담그고. 날마늘을 말고 마늘을 삶아서. 어머니 된장이, 우리 된장만큼 맛 좋은 거 없습니다. 내가 항아리서 이번에도 두 되어치 담가서 놔뒀거든.

1634) 박순자 구술.

8. 대정읍 보성리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이제 답지 아녕 옛날엔 집이서만 다 헷주게. 집이서 떡도 허곡 뒈지도 잡아서 고기도 집이서 허고. 소고기도 집이서 다 쉐덜 추렴헤당 집이서 허고 사 오는 게 엇어. 떡도 허고 두부[뚜부]허고.[1635] 떡게, 침떡허고 솔변, 절변허고.[1636] 그래서게 멩질 집이서. 그게 집마다 틀려. 우리는 이거. 친정에선 완전 크게 헷지. 그 절변 솔변 알아져? 둘반착떡이 동글락허게. 시리떡은 그 친떡 그거 ᄒᆞ곡게. 그때는 쉐고기가 이제 답지 아녕 집잇 거 토종쉐들이 이시니까 흔헤서. 노랑헌 쉐게. 저 옛날에 질루던 쉐덜. 검은쉐. 기자 토종쉐니까 아무 쉐라도 다 토종이니까. 아무거라도 잡지. 여라 사름이 어우려근에 갈라근에 거 잡아근에 거 갈라. 이녁만썩 가져가민게.[1637]

이제 같지 않고 옛날엔 집에서만 다 했지. 집에서 떡도 하고 돼지도 잡아서 고기도 집에서 하고. 소고기도 집에서 다 소들 추렴해다가 집에서 하고 사 오는 게 없어. 떡도

1635) 고정자 구술.
1636) 황창자 구술.
1637) 고정자 구술.

하고 두부하고. 떡, 시루떡하고 솔편, 절편하고. 그래서 명질 집에서. 그게 집마다 달라. 우리는 이거. 친정에선 완전 크게 했지. 그 절편 솔편 알아져? '돌반착떡[1638]'이 동그랗게. 시루떡은 그 '친떡' 그거 하고. 그때는 소고기가 이제 같지 않고 집의 거 토종소들이 있으니까 흔해서. 노란 소. 저 옛날에 기르던 소들. 검은소. 그저 토종소니까 아무 소라도 다 토종이니까. 아무거라도 잡지.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나눠서 거 잡아서 거 갈라. 이녁만큼씩 가져가면.

• **콩질름**

콩질름 집이서 다게. 콩을 키우는 거니까 콩질름. 여름에는 빨리 크고 겨울에는 막 ᄯᅳ시게 헤사 ᄒᆞᆫ 일주일.[1639]

콩나물 집에서 다. 콩을 키우는 거니까 콩나물. 여름에는 빨리 크고 겨울에는 아주 따습게 해야 한 일주일.

• **차례**

우리 멩질은 젤 마지막. 마지막이난 해 떨어져. 멩질허젠 허면. 여러 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방상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배고픔이랑 마랑 남아돌아가. 게난 말쩨 ᄒᆞ는 집은 안 먹어.[1640]

우리 명질은 젤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해 떨어져. 명질하려고 하면. 여러 집에 다

1638) '돌반착떡'은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반달 모양의 떡살로 뜬 다음 삶거나 쪄낸 떡이다. 떡을 찔 때 솔잎을 넣어서 함께 찌기도 한다. 떡 모양이 반달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으로, '솔편'의 다른 이름이다.
1639) 고정자 구술.
1640) 고정자 구술.

돌아다니면서 방상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배고픔이랑 마랑 남아돌아가. 그러니까 말째 하는 집은 안 먹어.

• **구뭄밥**

그때는 옛날이니까 방상에도 떡국 ᄋᆞ졍 뎅기는 데는 엇어. 그 아시날은 구뭄밥이라고 해. 그무니까 구뭄밥이라고 헤영 부모 조상덜 모셔근에 밥헤 멕이는 거. (멧 시에?) 아침 조반으로. 조반을 먹으나 저녁을 먹으나 섣ᄃᆞᆯ구뭄날. 그게 구뭄밥이라고 그 해가 다 그무니까, 이젠 어른덜 청헤다가 헤영 멕이는 거. 그자 밥허믄 고기 허여근에 뭐 떡국도 헐 수도 잇고. 밥헤근에 그냥 고기국 끌려근에 허영 그자 우리 먹는 식으로 ᄎᆞᆯ려근에. 이디 와서 더 헷지, 이젠. 어른덜이 잇어 놓니까. 어른덜 그리 안 모시민 욕헤. 옛날엔 못 살아. 겨곡 또 선물 사가곡. 뭐 아무거라도게. 족엇던 크던게 거 아무거라도게. 뭐 목도리 가뜬 거나 무시거게 쮀끄만ᄒᆞᆫ 거게. 표시. 뭐 보선도 사가곡, 엿날. 보선 옛날 어룬덜은 엄청 허여.[1641]

그때는 옛날이니까 '방상'에도 떡국 갖고 다니는 데는 없어. 그 전날은 '그믐밥'[1642]이라고 해. 저무니까 '그믐밥'이라고 해서 부모 조상들 모셔서 밥해 먹이는 거. (몇 시에?) 아침 조반으로. 조반을 먹으나 저녁을 먹으나 섣달그믐날. 그게 '그믐밥'이라고 그 해가 다 저무니까, 이젠 어른을 청해다가 해서 먹이는 거. 그저 밥하면 고기 해서 뭐 떡국도 할 수도 있고. 밥해서 그냥 고깃국 끓여서 해서 그저 우리 먹는 식으로 차려서. 여기 와서 더 했지, 이젠. 어른들이 있어 놓으니까. 어른들 그리 안 모시면 욕해. 옛날엔 못 살아. 그러고 또 선물 사가고. 뭐 아무거라도. 작았든 크든 거 아무거라도.

1641) 고정자 구술.
1642) '그믐밥'은 섣달그믐날에 해 먹는 밥이다.

뭐 목도리 같은 거나 무엇 자그마한 거. 표시. 뭐 버선도 사 가고, 옛날. 버선 옛날 어른들은 엄청 해.

• 차례 멩질

우리 욱기 전에는 멩질 아침이도 그 차례 멩질이라고 그것도 떡국으로 헤근에 아침 새벡이 차례 멩질도 헤나곡 헷주마는 우리 욱은 후제는 그런 거 안 헷어.[1643]

우리 크기 전에는 명질 아침에도 그 차례 명질이라고 그것도 떡국으로 해서 아침 새벽에 차례 명질도 했었고 했지만 우리 큰 후에는 그런 거 안 했어.

• 과세

멩질날은 그 권당덜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이 ᄒᆞ니까. 그 고칩이 너르니까. ᄒᆞᆫ ᄋᆞ답 집, 아옵 집 뒈지. ᄒᆞᆫ 동네 도루도루 사니까, 이제는 다 삐어져 불엇주만은 옛날에는 ᄀᆞ찌 돌아다니곡 ᄀᆞ찌 막 먹고. 그러니까 만딱 헤동 우리 집이 마지막에 오니까 막 집안 안에 사름이 꽉 차지.[1644]

명질날은 그 권당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하니까. 그 고씨 댁은 너르니까. 한 여덟 집, 아홉 집 되지. 한 동네 두루두루 사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지만 옛날에는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막 먹고. 그러니까 몽땅 해두고 우리 집에 마지막에 오니까 아주 집안 안에 사람이 꽉 차지.

1643) 고정자 구술.
1644) 고정자 구술.

• **술**

술 옛날엔 집이서도 담가근에 그 청주 잇잖아. 청주 담앙, 그걸로 그 고수리술 흐여근에. 소주도 저 한일주로만 썻지. 집이서 만들아근에 그 술 다깡 경 ᄒᆞ곡. 우린 ᄎᆞᆷ 친정에서 ᄒᆞ꼼 산다 ᄒᆞ는 칩이니까 청주도 허젠 그 나룩으로, 나룩쏠로 술을 담그민 청주가 그냥 잘도 ᄎᆞᆷ 짓노랑ᄒᆞ게. 우리 어무니 소상 때는 그런 거 헨에 우리 딸려근에 청주로 흐여근에 소상도 술 그걸로 써낫지. 우리 친정에선 논밧이 하니까. 그 농사지어근에 그ᄎᆞ룩. 이딘 오니까 논이 뭐 ᄒᆞᆫ 파니벳긴 엇어도, 단산 뒤에. 하이튼 산물 가는 쪽은 논이 다 잇엇주게.[1645]

술 옛날엔 집에서도 담가서 그 청주 있잖아. 청주 담가서, 그걸로 그 '고수리술'[1646] 해서. 소주도 저 한일주로만 썼지. 집에서 만들어서 그 술 고아서 그렇게 하고. 우린 참 친정에서조금 산다 하는 집이니까 청주도 하려고 그 벼로, 볍쌀로 술을 담그면 청주가 그냥 잘도 참 샛노랗게. 우리 어머니 소상 때는 그런 거 해서 우리 달여서 청주로 하여서 소상도 술 그걸로 썼었지. 우리 친정에선 논밭이 많으니까. 그 농사지어서 그처럼. 여긴 오니까 논이 뭐 한 판밖엔 없어도, 단산 뒤에. 하여튼 '산물[1647]' 가는 쪽은 논이 다 있었지.

2) 토신제 · 코시

정월, 그건 액막이. 오칩이서. 그때는 뭐 문전으로 헤근에 뭐허는 게

1645) 고정자 구술.
1646) '고수리술'은 솥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불을 때서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주를 말한다.
1647) '산물'은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많주게. 토신제도 ᄒᆞ곡. 토신제는 뒷제고 집 안에서 ᄒᆞ는 건 코시. (심방) 불렁 헷주게. 건 날 봐근에 좋은 날로 봐근에. 생기 맞인 날로. 집안 식구 생기 맞인 날. 그건 일 년 운수, 일 년간 그자 편안허게 헤주라 ᄒᆞᆫ 그 집안 굿이주. 토신제는 그건 뒷제니까 혼자 정성헹 ᄒᆞ는 거고. 그 제관이 ᄒᆞ는 거난.[1648] 남저 제관이 허는 거.[1649] 코시, 저 그 심방 ᄃᆞᆯ앙 ᄒᆞ는 것은 마지막에 액맥이라도 거 다 드렷어. (ᄃᆞᆨ) 그냥 잡지 아녕 그냥게, 산채. 그자 허영 허다근에 그자 휙 덴지민 그자 죽게끔 뒈여. 경 헤난 심방이 그런 거 가졍 가 불주게.[1650] 코시헐 때는 ᄃᆞᆨ ᄀᆞ뜬 거 안 들어신디. 큰심방 빌엉 ᄒᆞᆯ 때 마당굿 ᄒᆞᆯ 때 ᄀᆞ튼 때나 드령. ᄃᆞᆨ 저 희성헤근에 그건 뭣 헷주.[1651] 아니, 마당굿 아녈 때도 듭니다게. 올리지도 아녀고 그건 마지막에 써낭 심방이 가졍 가 불어. 우리 안 줘.[1652]

정월, 그건 액막이. 오씨 댁에서. 그때는 뭐 문전으로 해서 뭐하는 게 많지. '토신제'도 하고. '토신제'는 '뒷제'[1653]고 집 안에서 하는 건 고사. (심방) 불러서 했지. 건 날 봐서 좋은 날로 봐서. 생기 맞은 날로. 집안 식구 생기 맞은 날. 그건 일 년 운수, 일 년간 그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한 그 집안 굿이지. '토신제'는 그건 '뒷제'니까 혼자 정성해서 하는 거고. 그 제관이 하는 거니까. 남자 제관이 하는 거. 고사, 저 그 심방 데려서 하는 것은 마지막에 액막이라도 거 다 드렸어. (닭) 그냥 잡지 않고 그냥, 생짜. 그대로 해서 하다가 그저 휙 던지면 그저 죽게끔 되어. 그렇게 한 후. 심방이 그런 거 갖고 가 버리지. 고사할 때는 닭 같은 거 안 들었는데. 큰심방 빌려서 할 때 마당굿

1648) 고정자 구술.
1649) 강정자 구술.
1650) 고정자 구술.
1651) 강정자 구술.
1652) 고정자 구술.
1653) '뒷제'는 토신제의 다른 이름이다. 집 뒤에서 치르는 제여서 붙은 이름인 것 같다.

할 때 같은 때나 드려서. 닭 저 희생해서 그건 뭣 했지. 아니, 마당굿 않을 때도 듭니다. 올리지도 않고 그건 마지막에 쓴 후 심방이 갖고 가 버려. 우리 안 줘.

• **칠성제**

옛날에사 다 하영 모셧지. 다 허당덜 다 치와 불언.[1654] 코시가 칠성 아니?[1655] 무사 아니라게. 이렌 무신 큰 칠성은 엇주게. 그냥.[1656]

옛날에야 다 많이 모셨지. 다 하다가들 다 치워 버렸어. 고사가 칠성 아니? 왜 아닌가. 이리론 무슨 큰 칠성은 없지. 그냥.

• **코시떡**

코시헐 때도 저 네 가지 떡을 허는디 동글락헌 떡 허곡 이렇게 소랑헌 떡 허고. 그때 떡, 나 그 일름을 모르키여. 저 모ᄆᆞᆯ떡은 ᄯᅳ시 두 가지이. 모ᄆᆞᆯ로 헤근에 다 모ᄆᆞᆯ떡이라사 허여. 모ᄆᆞᆯ 허여근에 두 가지 영 어귓나게 그차이. 영 길게 기차 놔근에 어귓나게 영 그창 허곡. 또 동글락헌 거 헤근에 밀어근에 딱딱허게 저 판으로 뜨민 동글락헌 것이 뒈주게. 경 허영 네 가지. 흰 거, 흰떡으로 두 가지. 경 소랑ᄒᆞᆫ 것에, 동글락헌 것에, 모ᄆᆞᆯ떡 따시 영 귀나게 ᄒᆞᆫ 것에 두 가지. 영 네 가지. 겨곡 시리떡ᄒᆞ고. 소랑소랑ᄒᆞ게 헌 것도 일름을 몰르큰게. (네모) 코지나게.[1657] 소랑ᄒᆞᆫ 떡은 요 손으로 딱 접어근에 소랑허게.[1658] 영 영 영 헤근에 일로 딱 누르뜰민 떡이 소랑헌

1654) 고정자 구술.
1655) 신순배 구술.
1656) 고정자 구술.
1657) 고정자 구술.
1658) 신순배 구술.

떡이, 흰떡은 그렇게 뭬곡게. 동글락헌 떡은 그냥 손으로 영 영 헹 동글락허게 만들곡. 모ᄆᆞᆯ떡은 그냥 밀어근에 질게 영 헤 놩은에 어슥어슥 끈으민 귀떡이 뭬곡. 동글락헌 거는 사발로 톡톡 뜨면 보시로 트면은 동글락떡이 뭬곡. 이름을 몰라. 그거 이제 흐여난 사름덜 다 죽어 불곡. 어떵 헹 일름을 알아. 그거 허민 동네 다 테우곡. 겅 헤신디도 떡 이름은 몰라. 뭣산디. 경 귀나게 떡을 끈기 때문에 코시떡이라고 허는 거지.[1659]

고사할 때도 저 네 가지 떡을 하는데 동그란 떡 하고 이렇게 기름한 떡 하고. 그때 떡, 나 그 이름을 모르겠어. 저 메밀떡은 다시 두 가지. 메밀로 해서 다 메밀떡이어야 하여. 메밀 해서 두 가지 이렇게 어긋나게 끊어. 이렇게 길게 끊어 놔서 어긋나게 이렇게 끊어서 하고. 또 동그란 거 해서 밀어서 딱딱하게 저 판으로 뜨면 동그란 것이 되지.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흰 거, 흰떡으로 두 가지. 그렇게 기름한 것에, 동그란 것에, 메밀떡 다시 이렇게 귀나게 한 것에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 그러고 시루떡하고. 기름 기름하게 한 것도 이름을 모르겠네. (네모) '코지나게'[1660]. 기름한 떡은 요 손으로 딱 집어서 기름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리로 딱 누르면 떡이 기름한 떡이, 흰떡은 그렇게 되고. 동그란 떡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메밀떡은 그냥 밀어서 길게 이렇게 해 놔서 어슷어슷 자르면 '귀떡'[1661]이 되고. 동그란 거는 사발로 톡톡 뜨면 보시기로 뜨면 '동그란떡'이 되고. 이름을 몰라. 그거 이제 하였던 사람들 다 죽어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름을 알아. 그거 하면 동네 다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도 떡 이름은 몰라. 무엇인지. 그렇게 귀나게 떡을 끊기 때문에 고사떡이라고 하는 거지.

1659) 고정자 구술.
1660) '코지나다'는 끝이 뾰족하여 모가 난 듯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661) '귀떡'은 떡 모양이 마름모형태여서 양옆의 뾰족한 부분을 귀로 인식해 붙은 이름이 아닌가 한다.

3) 당제

(당에 갈 때) 동글락떡ᄒᆞ곡 메 무시거. 술허곡. 옛날에는 사당 먹는 술이 아니고 집이서 다 헤 먹은 술이우다. ᄀᆞᆯ으믄 떡 일름을 ᄀᆞᆯ으믄 알 게 무시거라? 그게 저 옛날엔 모ᄆᆞᆯ이 흔하니까, 모ᄆᆞᆯ떡 헤근에 동글락허게 만들앙. 그건 아무 뽄도 엇이 그자 동글락허게 만들아. 종이, 벡지, 향하고.[1662] 할망당에 밥ᄒᆞ곡, 고기 굽곡 저 오렌지주스 거뿐. 밥ᄒᆞ곡 셍성 굽곡. 술, 오렌진가 술인가 ᄒᆞ곡. 술 가졍 갓구나. 떡은 뭐 제서나 헤나민 헤도 경 아녈 땐 떡 아녀.[1663]

(당에 갈 때) '동글락떡'[1664]하고 메 무엇. 술하고. 옛날에는 사다가 먹는 술이 아니고 집에서 다 해 먹은 술입니다. 말하면 떡 이름을 말하면 알 게 무엇이야? 그게 저 옛날엔 메밀이 흔하니까, 메밀떡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건 아무 모양도 없이 그저 동그랗게 만들어. 종이, 백지, 향하고. '할망당'[1665]에 밥하고, 고기 굽고 저 오렌지주스 거뿐. 밥하고 옥돔 굽고. 술, 오렌진가 술인가 하고. 술 갖고 갔구나. 떡은 뭐 제사나 하고 나면 해도 그렇게 않을 땐 떡 않아.

4) 새철드는날

- **푸는체점**

1662) 고정자 구술.
1663) 황창자 구술.
1664) '동글락떡'은 떡 모양이 동그래서 붙은 이름이다. 제보자는 '돌레떡(도래떡)'의 모양이 동그래서 '동글락떡'이라고 한 것 같다.
1665) '할망당'은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여신인 '할망'을 모시는 당이다.

거 새철드는날 보는 거지. 그해에 농사가 뒐까 안 뒐까 시절이 좋을 건지 새철드는날 그 첫째 드는 시간에 보는 거. 입춘날. 옛날엔 우리는 그 불 때어근에 밥헹 먹잖아. 솟디. 조왕에 깨끗이 청소헤 놓고 푸는쳴 어퍼. 푸는쳴 어펑 놔두민 그디 그 농사짓는 것에 씨앗이라고 들어오는 게 잇어. 그 씨 하나 아무거라도 그 농사지는 씨가 들어오면은 그해 그 시절에 그거는 좋다. 이런 거, 옛날에 우리 두린 때 그런. 그 옛날에게 불채도 영 내치곡 솟 검은솟 헤근에. 불 때영 먹을 때. 그 솟강알이 아니고 이레 땅바닥 깨끗이 청소헤 두곡 푸는체를 어퍼. 어펑 놔두민 그 뒷날 아칙이 보면은 그걸 영 들렁 보면 아무 곡식이라도 시절이 좋젠 허믄. 체가 들어오던 으문 게 들어오던 들어와. 경 허믄 아, 이거는 올린 좋키여, 영 헤근에 그걸로.[1666]

거 입춘날 보는 거지. 그해에 농사가 될까 안 될까 시절이 좋을 건지 입춘날 그 첫째 드는 시간에 보는 거. 입춘날. 옛날엔 우리는 그 불 때어서 밥해서 먹잖아. 솥에. '조왕'에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키를 엎어. 키를 엎어서 놔두면 거기 그 농사짓는 것에 씨앗이라고 들어오는 게 있어. 그 씨 하나 아무거라도 그 농사짓는 씨가 들어오면 그해 그 시절에 그거는 좋다.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그 옛날에 재도 이렇게 내치고 솥 검정솥해서. 불때어서 먹을 때. 그 솥밑이 아니고 이리로 땅바닥 깨끗이 청소해 두고 키를 엎어. 엎어서 놔두면 그 뒷날 아침에 보면 그걸 이렇게 들어서 보면 아무 곡식이라도 시절이 좋으려고 하면. 겨가 들어오든 여문 게 들어오든 들어와. 그렇게 하면 아, 이거는 올해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 **보리뿌리점**

우리 신 디는 경 아녀근에 새철드는날 아침이 시간 딱 봐근에 멧 시에

1666) 고정자 구술.

든다 허민, 드는 시간 봐근에 영 밧디 가서 그 보릴 메여. 메면은, 발 세 개 나오면은 막 많이 나고. 두 개 나오면은 딱 좋고. 하나 나오면은 너무 ᄇᆞ뜨곡 경 헤낫젠 허메. 경 우리도 메영 그걸 봐. 어릴 때 입춘허는 날, 입춘날. 밤이 날 안 들민 낮이 헐 땐 우리 냥으로 강 메여다근에 우리 어린 때라도 강 메여당 하르버지신디 이거 영 베우멍 우린 그런 거. 그 시간이 밤이 들 때 잇곡 아침에 들 때 잇곡 낮이 들 때 잇곡 ᄒᆞ는 따믄. 그 시간에만 강 메면은 새 발 나와. 뾰쪽ᄒᆞ게 세 발 나와.[1667] 것도 헌덴 허여. 경도 허메. 말은 잇어. 우린 그런 거 안 헤봔. 보리 메영 본덴은 헤여. 발 본덴 헤여. 잘 크는 거보단도 보리가 시절이 ᄋᆞ물이 좋나 이거지게.[1668] 두 개민 ᄋᆞ물주게. 게난 푸는체 어펑 뭐 허진 아녀. 새철드는날 일월에 들 때 잇곡, 저 십이월ᄃᆞᆯ에 들곡 경 ᄒᆞ는 거. 음력으로 십이월ᄃᆞᆯ 마지막 ᄃᆞᆯ에.[1669]

우리 있는 데는 그렇게 않아서 입춘날 아침에 시간 딱 봐서 몇 시에 든다 하면, 드는 시간 봐서 이렇게 밭에 가서 그 보릴 매어. 매면, 뿌리 세 개 나오면 아주 많이 나고. 두 개 나오면 딱 좋고. 하나 나오면 너무 밭고 그렇게 했었다고 해. 그렇게 우리도 매어서 그걸 봐. 어릴 때 입춘하는 날, 입춘날. 밤에 날 안 들면 낮에 할 땐 우리로 가서 매어다가 우리 어릴 때라도 가서 매어다가 할아버지한테 이거 이렇게 보이면서 우린 그런 거. 그 시간이 밤에 들 때 있고 아침에 들 때 있고 낮에 들 때 있고 하는 때문. 그 시간에만 가서 매면 새 뿌리 나와. 뾰쪽하게 새 뿌리 나와. 것도 한다고 해. 그렇게도 해. 말은 있어. 우린 그런 거 안 해봤어. 보리 매어서 본다고는 해. 뿌리 본다고 해. 잘 크는 거보단도 보리가 시절이 여물이 좋다 이거지. 두 개면 여물지. 그러니까 키 엎어서 뭐하진 않아. 입춘날 일월에 들 때 있고, 저 십이월에 들고 그렇게 하는

1667) 강정자 구술.
1668) 고정자 구술.
1669) 강정자 구술.

거. 음력으로 십이월 마지막 달에.

• **입춘첩**

(입춘대길) 거 부치주게. 절에서 나오민 그거나 부찌주. 누게가 집이서.[1670]

(입춘대길) 거 붙이지. 절에서 나오면 그거나 붙이지. 누가 집에서.

5) 걸궁

옛날에 헤낫지. 기억은 나도 우리는 아녀 보니까, 뭐. 어른덜이, 우리 우엣 할망 하르방덜이 헷주.[1671] 걸궁해낫주게.[1672] 엿날 밧디 가근에 조컴질 메당 와근에 하르방덜 저런 마을 가운디 거 쉬는팡덜 잇잖여이? 그 팡에 앚앙 밤인 초저냑에 담배통 물어근에. 앚앙 마을 말ᄒᆞ는 걸 우린 옆이서 영 들은 건디. 정월에 마을제옌 헌 건 그때 당시에 ᄀᆞᆫ는 거 보민, 금년은 누게네 집이 ᄒᆞᆫ 번 저 젊은 사름덜이 들어가근에 저 걸궁ᄒᆞ곡 경 ᄒᆞ면은 이 좀 나오는 게 좀 많을 것이다. 앚앙덜 그런 거 말헤근에 경 헨 뎅기곡. 그 젊은 사람도 ᄆᆞ음대로 못허여. 늙은 노인들이 앚앙 시겨. 경덜 허멍 허는 걸 우리가 봣고. 겨고 그 하르방덜이 앚아근에 그 엿날은 뭐 헐 일도 엇고 경 허면은 그자 담배통 물어근에 앚앙 그자 그런 말 저런 말 허는 거 우린 옆이서 들음뿐이고.[1673]

1670) 고정자 구술.
1671) 고정자 구술.
1672) 강정자 구술.
1673) 송길춘 구술.

옛날에 했었지. 기억은 나도 우리는 안 해 보니까, 뭐. 어른들이, 우리 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지. 걸립했었지. 옛날 밭에 가서 조김 매다가 와서 할아버지들 저런 마을 가운데에 '쉬는팡'들 있잖은가? 그 대에 앉아서 밤엔 초저녁에 담뱃대 물어서. 앉아서 마을 말하는 걸 우린 옆에서 이렇게 들은 건데. 정월에 마을제라고 한 건 그때 당시에 말하는 거 보면, 금년은 누구네 집에 한 번 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 걸립하고 그렇게 하면 이 좀 나오는 게 좀 많을 것이다. 앉아서들 그런 거 말해서 그렇게 해서 다니고. 그 젊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여. 늙은 노인들이 앉아서 시켜. 그렇게들 하면서 하는 걸 우리가 봤고. 그러고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그 옛날은 뭐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면 그저 담뱃대 물어서 앉아서 그저 그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우린 옆에서 듣기뿐이고.

• 산태걸이

엿날에이 그 우리 어린 때 보민 그 사삼사건 나기 전이니까. 어린 때, 우리 대여섯 살에 보면은 젊은 청년덜 헤여근에 그 동네 젤 잘사는 사름 뭐 산태 멘들아근에 그디 앚졍 두루메영덜 돌아뎅기곡, 동네이. 게민 그 집이, 잘사는 사름 그 집이 올레 들어갓당 나오민 그 집이선 돈이라도 ᄒᆞᆫ 멧 푼 줘야지. 웨 그런고 ᄒᆞ니까, 그런 유복ᄒᆞᆫ 사름이 으, 연초에 우리 집이 왓당 나가면은 그 집에 ᄎᆞᆷ 그 해는 모두 행운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믿는 그 신이지. 신의 정신이 잇엇어. 그때 경 헤근에 젊은 청년들이 그걸 돈 받아 ᄀᆞ져근에 청년훼에서 뭐 사용도 ᄒᆞ고, 뭐ᄒᆞ곡 ᄒᆞ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봄뿐이지이. 나이가 어려 놓니까 뭐 ᄀᆞ찌 뎅겨 보지도 못ᄒᆞ고. 우리 셋아바지네 집 ᄀᆞ뜬 디이. ○○ 아방네.[1674] 그거 영 산태 놩 올라가는 거 모셔가는 거. 영 모셔갓주게, 영. 나는 말만 들언. 우리 여자덜

1674) 송길춘 구술.

은. 남자덜만 장밧디 강 올 때 모션 가난에.[1675] 아, 모상 가는 거. 산태걸이 엔도 ᄒᆞ고.[1676]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사삼사건 나기 전이니까. 어릴 때, 우리 대여섯 살에 보면 젊은 청년들 해서 그 동네 젤 잘사는 사람 뭐 '산태' 만들어서 거기 앉혀서 둘러매서들 돌아다니고, 동네. 그러면 그 집에, 잘사는 사람 그 집에 오래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집에선 돈이라도 한 몇 푼 줘야지.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유복한 사람이으, 연초에 우리 집에 왔다가 나가면 그 집에 참 그 해는 모두 행운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믿는 그 신이지. 신의 정신이 있었어. 그때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걸 돈 받아 갖고 청년회에서 뭐 사용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봄뿐이지. 나이가 어려 놓으니까 뭐 같이 다녀 보지도 못하고. 우리 둘째아버지네 집 같은데. ○○ 아버지네. 그거 이렇게 '산태' 놔서 올라가는 거 모셔가는 거. 이렇게 모셔갔지, 이렇게. 나는 말만 들었어.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만 장지에 가서 올 때 모셔서 가니까. 아, 모셔서 가는 거 '산태걸이'라고도 하고.

6) 생업

(1) 보리밟기

옛날에 일제시대부떠 그거 ᄇᆞᆯ라낫어. 이 보리ᄇᆞᆲ는 거는 보리가 거리렌. 영 ᄇᆞᆯ라지민 읖으로 보리가 ᄋᆞ라 가달 나오렌 헤영 ᄇᆞᆯ라 주는 거. 영 ᄇᆞᆯ라 주면은 그게 읖으로 새순 나면서 ᄋᆞ라 가달로 보리 거령 퍼기로 나오렌

1675) 황창자 구술.
1676) 송길춘 구술.

경 헹 ᄇᆞᆯ라 주는 거.[1677] 검은냇밧이난 ᄒᆞ주, 우리 신 딘 안 ᄇᆞᆯ릅니다. 모슬포레도 ᄇᆞᆯ른덴 ᄒᆞᆸ디다.[1678] 이렌 ᄇᆞᆯ른덴 헨게. 우린 안 ᄇᆞᆯ라.[1679] 서르렌 뒌땅이난게. 우리 동카름에서 경 ᄇᆞᆯ르렌 헤낫어.[1680]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그거 밟았었어. 이 보리 밟는 거는 보리가 거리라고. 이렇게 밟아지면 옆으로 보리가 여러 가닥 나오라고 해서 밟아 주는 거. 이렇게 밟아 주면은 그게 옆으로 새순 나면서 여러 가닥으로 보리 '거려서' 포기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밟아 주는 거. '검은냇밧'이니까 하지, 우리 있는 덴 안 밟습니다. 모슬포로도 밟는다고 합디다. 이리론 밟는다고 하던데. 우린 안 밟아. 서로는 '된땅'이니까. 우리 '동카름'[1681]에서 그렇게 밟으라고 했었어.

□ 2월

1) 영등

빨래허지 말렌.[1682] 흰 빨래. 저 잿물 빨래허지 말렌. 저 잿물 놩 그 솖아서 빨래, 흰 빨래 솖아근에 그 빨래헹 널지 말렌 허주게. 세답허영 널지 말라. 구데기 인데 허영.[1683] 벌거지 인덴. 영등할망 들어오고 나갈

1677) 고정자 구술.
1678) 강정자 구술.
1679) 신순배 구술.
1680) 고정자 구술.
1681) '동카름'은 마을의 동쪽에 있는 동네를 말한다.
1682) 강정자 구술.
1683) 고정자 구술.

때ᄁᆞ장은. 삼사 일은 빨래 못ᄒᆞ게 허여.[1684] 옛날 초집이난 초집에 구데기 일민 더럽주게. 하간 디 막 집안 안네영 바깟디 막 기어 뎅기민. 무사 엿날에 일주일은 못허게 헤수다게.[1685]

빨래하지 말라고. 흰 빨래. 저 잿물 빨래하지 말라고. 저 잿물 놔서 그 삶아서 빨래, 흰 빨래 삶아서 그 빨래해서 널지 말라고 하지. 세답해서 널지 말라. 구더기 인다고 해서. 벌레 인다고. 영등할머니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는. 삼사 일은 빨래 못하게 해. 옛날 초집이니까 초집에 구더기 일면 더럽지. 온갖 데 막 집안 안이랑 바깥에 막 기어 다니면. 왜 옛날에 일주일은 못하게 했습니다.

2) 경칩·춘분

그 날짜가 우수 경칩. 만물 즘승이 다 나온덴 허자니여? 하이튼 그 우수만 넘으면은 다 나온덴 허주게.[1686]

그 날짜가 우수 경칩. 만물 짐승이 다 나온다고 하잖아? 하여튼 그 우수만 넘으면 다 나온다고 하지.

3) 생업

(1) 두불콩 심기

1684) 강정자 구술.
1685) 고정자 구술.
1686) 고정자 구술.

두불콩은 그냥 밥에나 놔 먹주. 콩ᄂᆞ물도 안 뒈고. 이제 우리 밥에 놩 먹는 게 두불콩이지게. 무신 빨간 것도 잇곡, 어룩어룩헌 것도 잇고. 허난 그거는 그냥 밥에 놩 먹는 거고. 이월에 심그민 이제 막 낫어. 나는 우연에.[1687] 그 담 올르는 건 돔비주게.[1688]

강낭콩은 그냥 밥에나 놔 먹지. 콩나물도 안 되고. 이제 우리 밥에 놔서 먹는 게 강낭콩이지. 무슨 빨간 것도 있고, 얼룩얼룩한 것도 있고. 하니 그거는 그냥 밥에 놔서 먹는 거고. 이월에 심으면 이제 막 났어. 나는 터앝에. 그 담 오르는 건 동부지.

□ 3월

1) 한식 멩질

한식 멩질 옛날엔 헤낫젠 허메. 우리 큰 후젠 안 헤봔. 우리 시댄 안 헤연.[1689] 우리 두린 때. 우리 크기 전이. 우리 욱기 전에는 멩질 아침이도 그 차례 멩질이라고 그것도 떡국으로 해근에 아침 새벡이 차례 멩질도 헤나곡 헷주마는 우리 욱은 후제는 그런 거 안 헷어. 한식 멩질 헤낫젠 헤도 우리 욱은 후젠 한식ᄒᆞ는 것도 본 디 엇고.[1690]

한식 명질 옛날엔 했었다고 해. 우리 큰 후엔 안 해봤어. 우리 시댄 안 했어. 우리

1687) 고정자 구술.
1688) 신순배 구술.
1689) 강정자 구술.
1690) 고정자 구술.

어린 때. 우리 크기 전에. 우리 크기 전에는 명질 아침에도 그 차례 명질이라고 그것도 떡국으로 해서 아침 새벽이 차례 명질도 했었고 했지만 우리 큰 후에는 그런 거 안 했어. 한식 명질 했었다고 해도 우리 큰 후엔 한식하는 것도 본 데 없고.

2) 청명

무신 검질 뽑을 사름은 검질도 강 뽑곡 ᄒᆞ지게.[1691] 청명은 거 옛날 그 사삼사건 때 ᄆᆞᆫ 불테와 불곡 뭐 ᄒᆞ곡 ᄒᆞ난에. 낭 싱거난에 어린 때 우리 부락으로 낭 싱그레 뎅겨낫구나마는 청명에도 뭐 ᄒᆞᆫ 거 엇어. 산담 고찌곡 ᄒᆞ는 거 청명에 무사게. 그런 거 저 집도 고찌곡 아무 날이나 손 못 보주게. 산담도 강 저 고찌곡 경덜 헤엿어.[1692] 산에 가근에게 산에, 묘에 가근에 풀도 메곡게.[1693]

무슨 김 뽑을 사람은 김도 가서 뽑고 하지. 청명은 거 옛날 그 사삼사건 때 몽땅 불태워 버리고 뭐 하고 하니까. 나무 심으니까 어릴 때 우리 마을로 나무 심으러 다녔었구나마는 청명에도 뭐 한 거 없어. '산담'[1694] 고치고 하는 거 청명에 왜. 그런 거 저 집도 고치고 아무 날에나 손 못 보지. '산담'도 가서 저 고치고 그렇게들 했어. 산소에 가서 산소에, 묘에 가서 풀도 매고.

3) 생업

1691) 고정자 구술.
1692) 송길춘 구술.
1693) 황창자 구술.
1694)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1) 쉐 올리기

청명 넘어사 저 목장에.[1695] 아, 저 풀 멕일 거. 청명 뒈믄 풀이 막 성장헐 거 아니? 게난 그때 화전에 올릴 사름덜은 올렷주게. 집이서 헤 아져 뎅엿주마는 산에 올릴 사름덜은 올리주게.[1696] 쉐 봄에 올려. 쉐는 이제 안 질롸. 오래 부난 뭐. ᄒᆞᆫ 십 년도 넘엇주게. 쉐 질롸난 지가 십 년 넘엇일 거라.[1697] 저 목장에 올릴 때. 날 아이 보고. 부락에서 보성이민 보성 목장, 인성이민 인성 목장 다 따로 시난에. 부락에서 영 향회 ᄒᆞ멍 메칠날 보성 목장에 담 다곡, 널어진 장담 다곡, 쉐덜 강 올립시다 헤근에 부락에서 결정헤영 헌 거난에.[1698]

청명 넘어야 저 목장에. 아, 저 풀 먹일 거. 청명 되면 풀이 막 성장할 거 아니? 그러니까 그때 화전에 올릴 사람들은 올렸지. 집에서 해 가지고 다녔지만 산에 올릴 사람들은 올리지. 소 봄에 올려. 소는 이제 안 길러. 오래 버리니까 뭐. 한 십 년도 넘었지. 소 길렀던 지가 십 년 넘었을 거야. 저 목장에 올릴 때. 날 아니 보고. 마을에서 '보성'이면 '보성 목장', '인성'이면 '인성 목장' 다 따로 있으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향회 하면서 며칠날 보성 목장에 담 쌓고, 허물어진 '장담'[1699] 쌓고, 소들 가서 올립시다 해서 마을에서 결정해서 한 거니까.

1695) 강정자 구술.
1696) 고정자 구술.
1697) 황창자 구술.
1698) 송길춘 구술.
1699) '장담'은 목장의 경계를 이루는 기다란 담을 말하는 것 같다.

(2) 보리 검질

보린 ᄒᆞᆫ 번 메주, ᄒᆞᆫ 번.[1700] 보리밧디도 검질은 여러 가지 나. 진풀.[1701] ᄆᆞᆷ쿨.[1702] ᄆᆞᆷ쿨도 ᄒᆞ고 진풀도 ᄒᆞ고. ᄆᆞᆷ쿨 바당에 ᄆᆞᆷ 닮은 거. 이제 이 가릿가릿헤영 막 번지는 거. ᄆᆞᆷ 서늉이주게. 땅에 부트지도 아녀. 우트레 막 곡석광 ᄀᆞ찌 올라오젠 ᄒᆞ지게. 메긴 쉬운 거주만은 그건 그치진 못허여. 막 나. 이파리는 젠젠허여도 경 크게 승장ᄒᆞ여. ᄆᆞᆷ쿨은 꼿 안 피와. 여름두 그자 사락사락 그 젠젠허게 젠젠ᄒᆞᆫ 좁쏠방울 ᄀᆞ뜬 것덜 사락사락ᄒᆞᆫ 여름이라. 막 많아, 씨가. 우린 기자 ᄆᆞᆷ 닮은 거난 ᄆᆞᆷ쿨이엔 ᄒᆞ주게, 그걸.[1703] 막 번졍 ᄆᆞᆫ 보리에 얽어지는. 메긴 쉬워도 아메도 많이 나.[1704] 또 저 진풀 ᄒᆞ고 저 잊어불엇저. 그거 무신 검질이여마는. 막 그런 거 하주게. ᄆᆞᆷ쿨ᄒᆞ고 진풀이 막 하, 봄검질은. 보리밧디도 많이 나. 쒜비눔은 여름에 많이 나곡. 봄, 마늘밧디 ᄀᆞ뜬 딘 진풀ᄒᆞ고 ᄆᆞᆷ쿨 검질만 많이 나고.[1705]

보린 한 번 매지, 한 번. 보리밭에도 김은 여러 가지 나. 별꽃. ‘ᄆᆞᆷ쿨’[1706]. ‘ᄆᆞᆷ쿨’도 하고 별꽃도 하고. ‘ᄆᆞᆷ쿨’ 바다에 모자반 같은 거. 이제 이 ‘가릿가릿헤영’[1707] 막 번지는 거. 모자반 모양이지. 땅에 붙지도 않아. 위로 막 곡식과 같이 올라오려고 하지. 매긴 쉬운 거지만 그건 끊진 못해. 막 나. 이파리는 자잘하여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여. ‘ᄆᆞᆷ쿨’은 꽃 안 피워. 열매도 그저 ‘사락사락’ 그 자잘하게 자잘한 좁쌀알 같은 것들

1700) 고정자 구술.
1701) 신순배 구술.
1702) 강정자 구술.
1703) 고정자 구술.
1704) 신순배 구술.
1705) 황창자 구술.
1706) ‘ᄆᆞᆷ쿨’은 봄에 나는 풀의 일종이다. 모양이 모자반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1707) ‘가릿가릿허다’는 잎 따위가 손가락처럼 여러 갈래로 벌어진 모양을 하다는 의미다.

'사락사락ᄒᆞᆫ' 열매야. 아주 많아, 씨가. 우린 그저 모자반 같은 거니까 'ᄆᆞᆷ쿨'이라고 하지, 그걸. 막 번져서 몽땅 보리에 얽어지는. 매긴 쉬워도 아마도 많이 나. 또 저 별꽃하고 저 잊어버렸다. 그거 무슨 김이다만. 아주 그런 거 많지. 'ᄆᆞᆷ쿨'하고 별꽃이 아주 많아, '봄검질'[1708]은. 보리밭에도 많이 나. 쇠비름은 여름에 많이 나고. 봄, 마늘밭에 같은 덴 별꽃하고 'ᄆᆞᆷ쿨' 김만 많이 나고.

□ 4월

1) 사월 초파일

절에 가는 사름도 싯고 안 가는 사름도 잇고. 수 하영 나렌 까까수다게. 수 하영 나렌.[1709] 우리 뎅기는 사름은 가야주게. 옛날에 ᄉᆞᆯ ᄋᆞ경 가고 양초ᄒᆞ곡 그런 거 잇엇어. 그 어린아이덜 머리 다 가끄는디 우린 막 가끄지 말렌. 어른덜 심엉 머리 가끄젠 허민 막 도망치멍 헤낫어. 가끄민 뽄 엇으난 안 가끄젠 허지. 지집아이덜이니까. 수 하영 나렌 가끈 거.[1710] 사월 초파일날 머리, 저 돌 안 지난 아이덜. 어린애기덜.[1711] 욱아도 까까수다.[1712] 머리 하영 나라고 헤근에 그 사월 초파일날 꼭 돌 전이. 돌 돌아오민, 그 돌 전에 험으로 어린아이덜도 초파일날 머리 까끄곡 욱은 아이덜토 까끄곡 경 헤낫수게.[1713] 욱은 후제도 막 가깟주게. ᄆᆞᆫ딱 가끄는 건 초파일날덜,

1708) '봄검질'은 봄철에 많이 나는 김을 말한다.
1709) 신순배 구술.
1710) 고정자 구술.
1711) 강정자 구술.
1712) 신순배 구술.
1713) 강정자 구술.

어린아기덜 가까.[1714] 어린아기덜 부처님 날이난 머리 까끄민 좋덴 헤근에 그 머릴 까까수게. 돌 지나기 전에. 할망덜 겅 헹 가끄고. 옛날엔 겅 헹 까까 불엇주게.[1715]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숱 많이 나라고 깎았습니다요. 숱 많이 나라고. 우리 다니는 사람은 가야지. 옛날에 쌀 가져서 가고 양초하고 그런 거 있었어. 그 어린아이들 머리 다 깎는데 우린 막 깎지 말라고. 어른들 잡아서 머리 깎으려고 하면 막 도망치면서 했었어. 깎으면 모양 없으니까 안 깎으려고 하지. 계집아이들이니까. 숱 많이 나라고 깎는 거. 사월 초파일날 머리, 저 돌 안 지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커도 깎았습니다. 머리 많이 나라고 해서 그 사월 초파일날 꼭 돌 전에. 돌 돌아오면, 그 돌 전에 하기로 어린아이들도 초파일날 머리 깎고 큰 아이들도 깎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큰 후에도 막 깎았지. 몽땅 깎는 건 초파일날들, 어린아이들 깎아. 어린아이들 부처님 날이니까 머리 깎으면 좋다고 해서 그 머릴 깎았습니다. 돌 지나기 전에. 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깎고. 옛날엔 그렇게 해서 깎아 버렸지.

2) 생업

(1) 마농 수확

고구마 심곡 보리허고, 콩허곡 그거, 엿날에. 우린 농사 안 헌 지가 ᄒᆞᆫ 삼ᄉᆞ년 뒈언. 나이 많아 부니까. 마농도 막 헤낫주. 귤ᄒᆞ고 마늘 헤나신디. 마늘 저 음력으로, 양력으로 ᄒᆞᆫ 팔월달에 심어. 양력으로 오월달에 멜 거.

1714) 고정자 구술.
1715) 강정자 구술.

이제 ᄒᆞᆫ 이십일 지나믄 멜 거라.[1716] 게난 마늘 ᄀᆞ뜬 거 특이작물 허니까 이디도 살기가 좋앗지이. 내 이제 아덜 두 개, ᄯᆞᆯ 두 개 이 지방 대학이라도 ᄆᆞᆫ딱 내가 시겻는디.[1717]

고구마 심고 보리하고, 콩하고 그거, 옛날에. 우린 농사 안 한 지가 한 삼사년 되었어. 나이 많아 버리니까. 마늘도 막 했었지. 귤하고 마늘 했었는데. 마늘 저 음력으로, 양력으로 한 팔월에 심어. 양력으로 오월에 맬 거. 이제 한 이십일 지나면 맬 거야.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거 특용작물 하니까 여기도 살기가 좋았지. 내 이제 아들 두 개, 딸 두 개 이 지방 대학이라도 몽땅 내가 시켰는데.

□ 5월

1) 단오

오월 단온 육진 막 저 드러 헴서마는 이디는 오월 단오도 옛날엔 헤낫젠 할망덜 ᄀᆞᆫ는디 우리 ᄋᆞᆨ은 후엔 안 헤봔.[1718]

오월 단온 육진 막 저 마구 하고 있다만 여기는 오월 단오도 옛날엔 했었다고 할머니들 말하는데 우리 큰 후엔 안 해봤어.

1716) 황창자 구술.
1717) 송길춘 구술.
1718) 강정자 구술.

2) 망종

망종엔 보리 비엇주게. 보리 다 익어. 보릿그르 갈 때 ᄒᆞᆫ두 번 갈앗주. ᄒᆞᆫ 번은 번헷다근에, ᄒᆞᆫ 번은 씨부쪄.[1719] 농사짓는 디선 망종 후에는 씨를 안 부쪗어. 망종 전에는 조도 이 씨 밧데 삐곡. 뭐 다른 농사도 콩 ᄀᆞ뜬 것도 ᄒᆞ곡 ᄒᆞ는데. 망종 넘어 불면은 아니 뒈어.[1720]

망종엔 보리 베었지. 보리 다 익어. '보릿그루' 갈 때 한두 번 갈았지. 한 번은 애벌갈이했다가, 한 번은 파종해. 농사짓는 데선 망종 후에는 씨를 안 붙였어. 망종 전에는 조도 이 씨 밭에 뿌리고. 뭐 다른 농사도 콩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망종 넘어 버리면 아니 됐어.

3) 생업

(1) 보리 베기

보리는 절기가 이르구 늦음에, ᄉᆞ월에 빌 때도 잇곡 오월에 빌 때도 잇곡. 절기 이르면 ᄉᆞ월 기자 초열흘에 ᄒᆞ곡. 또 늦이면 그때 하이튼 오월 이십 경에. 망종 중심 허여근에. 망종 넘어가민 보리가 막 곱아 불어. 그난 다 헤 부는 따문에 망종 전이 비어.

그다음에 여름농사허젠 허민 뭐 감자도 심으고, 조도 하고. 감자, 콩, 조, 나룩. 나룩은 미리 메 놧다근에 그때 ᄆᆞᆫ 묘종덜 ᄆᆞᆫ 이식허곡. 모ᄆᆞᆯ은

1719) 황창자 구술.
1720) 송길춘 구술.

막 늦인 농서난 건 여름은 저 칠월 나사 허는 거곡.[1721] 거 산디 가는 사름도 싯고게. 논 엇인 사름덜은 산디 갈고.[1722]

보리는 절기가 이르고 늦음에, 사월에 벨 때도 있고 오월에 벨 때도 있고. 절기 이르면 사월 그저 초열흘에 하고. 또 늦으면 그때 하여튼 오월 이십 경에. 망종 중심 하여서. 망종 넘어가면 보리가 막 '곱아' 버려. 그러니까 다 해 버리는 때문에 망종 전에 베어.

그다음에 여름농사하려고 하면 뭐 고구마도 심고, 조도 하고. 고구마, 콩, 조, 벼. 벼는 미리 모종 놨다가 그때 몽땅 모종들 몽땅 이식하고. 메밀은 아주 늦은 농사니까 건 여름은 저 칠월 되어야 하는 거고. 거 밭벼 가는 사람도 있고. 논 없는 사람들은 밭벼 갈고.

□ 6월

1) 듹 잡아먹는 날

유월 쑤무날 듹 잡아먹엇주게. 그때 집이서 듹을 흔허게 질루난. 아이구, 병아리 앉이민 쑤무날이 뒈어야 병아리 멘들앙 나오주게, 봄에. 사월. 겐디 저 보통 삼ᄉᆞ월에 집이서 깨왕게. 게난 ᄒᆞ꼼 일찍 키우는 건 유월 쑤무날 먹을 수 잇고. 늦인 건 못 먹곡 경 헷주게. 식구 하민 두어 머리.[1723] 죽이나 쒕 먹주. 이르게 허민 정월들에도 ᄒᆞ곡.[1724] 정월엔 질루질 못허여. 추워

1721) 고정자 구술.
1722) 강정자 구술.
1723) 고정자 구술.
1724) 강정자 구술.

부난.[1725]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었지. 그때 집에서 닭을 흔하게 기르니까. 아이고, 병아리 앉으면 스무날이 되어야 병아리 만들어서 나오지, 봄에. 사월. 그런데 저 보통 삼사월에 집에서 까서. 그러니까 조금 일찍 키우는 건 유월 스무날 먹을 수 있고. 늦은 건 못 먹고 그렇게 했지. 식구 많으면 두어 마리. 죽이나 쒀서 먹지. 이르게 하면 정월에도 하고. 정월엔 기르질 못하여. 추워 버리니까.

2) 삼복

옛날엔 그런 거 엇엇어. 이제난 뭐 중복이여 초복이여 말복이여. 그거 세 번덜 다 잡아먹는 거 닮은디.[1726] 이젠 하도 살기가 좋아 노난 그런 거 다 ᄎᆞᆺ암주.[1727]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 이제니까 뭐 중복이여 초복이여 말복이여. 그거 세 번들 다 잡아먹는 거 같은데. 이젠 하도 살기가 좋아 놓으니까 그런 거 다 찾고 있지.

3) 생업

(1) 조 ᄇᆞᆯ리기

송아지 헤근에 막 기냥. 여러 마리 ᄆᆞᆯ로 ᄇᆞᆯ라도, 쉐로도 ᄒᆞ곡. 여러 마리

1725) 고정자 구술.
1726) 강정자 구술.
1727) 고정자 구술.

디물아근에 뱅뱅 돌멍 ᄇᆞᆯ르는 거주게. 갈아 놩 우트레 씨 뿌려근에 ᄇᆞᆯ려근에. 경헤사 지미 안 진덴. 병. 조에다가 병 안 부뜬덴. 지미 진덴 ᄒᆞ는 건 조가 ᄋᆞ물 때라. 고고리 피영 ᄋᆞ물 때라 가민 병 부떵 복삭 내려앚아 불주게. 거 보고 지미라고 ᄒᆞ주게.[1728]

송아지 해서 막 그냥. 여러 마리 말로 밟아도, 소로도 하고. 여러 마리 집어넣어서 뱅뱅 돌면서 밟는 거지. 갈아 놔서 위로 씨 뿌려서 밟아서. 그렇게 해야 '지미'[1729] 안 진다고. 병. 조에다가 병 안 붙는다고. '지미' 진다고 하는 건 조가 여물 때야. 이삭 패어서 여물 때라 가면 병 붙어서 폭삭 내려앉아 버리지. 거 보고 '지미'라고 하지.

• 지석사발

지석사발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영 영 가만 거. 겐디 그것이 ᄋᆞ물이 ᄒᆞ꼼 많이 시민 시절이 좋곡. 그것이 또 ᄋᆞ물이 밑에 많이 읏이민 시절이 안 뒌덴 허지. 것ᄀᆞ라 지석사발이엔 ᄒᆞ는 거주. 지석사발이렌 헷주.[1730] 땅에 나는 거난 지석사발이엔 ᄒᆞ는 거주. 거 똑 사발ᄀᆞ찌 요만씩 나오주게.[1731] 하영 나. 이젠 안 나. 이젠 약 뿌리는 따문에.[1732] 하도 그 약덜 써 부난.[1733]

'지석사발'[1734]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만 거. 그런데 그것이 여물이 조금 많이 있으면 시절이 좋고. 그것이 또 여물이 밑에 많이 없으면 시절이 안 된다고

1728) 고정자 구술.
1729) '지미'는 조 따위의 식물의 대와 잎이 기미를 쓴 것처럼 색이 변한 것을 말한다.
1730) 고정자 구술.
1731) 강정자 구술.
1732) 고정자 구술.
1733) 강정자 구술.
1734) '지석사발'은 '좀주름찻잔버섯'을 말한다. 버섯의 모양이 사발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하지. 것보고 좀주름찻잔버섯이라고 하는 거지. 좀주름찻잔버섯이라고 했지. 땅에 나는 거니까 좀주름찻잔버섯이라고 하는 거지. 거 꼭 사발같이 요만큼씩 나오지. 많이 나. 이젠 안 나. 이젠 약 뿌리는 때문에. 하도 그 약들 써 버리니까.

• 조 김매기

조 검질 두불 메야. 초불 소끄곡 두불 소끄곡 헤사.[1735] 세불꺼진 메여. 잘허는 사름은 세불이주.[1736] (조밧디) 쒜비눔, 절완이 주로 그거. 쉐터럭 그 저 줌질줌질 올라오는 거.[1737] 물상고지. 그냥 웨로 나오곡 거리지도 안ᄒᆞ곡 쭉허게 요만큼. 안 빠졍 그건 올리.[1738] 올린 알멩이가 이수게. 뿔리, 동글락허게.[1739] 쉐터럭은 알멩이가 엇이 그냥 독독 메지곡.[1740] 올리 그추룩 막 나진 아녀고 똑 요만씩 저 뿌리가 이시민 그것이 번으멍 딴 데 강 나곡 그거지. 그 줄덜이. 이제 앞으로 날 거. 지금 잇주.[1741] 이제 올리 난 밧들이 셔? 하도 약헤 부난.[1742] 올리 난 밧 엇수다, 이제.[1743] 농장이고 어디고 다 공고리헤 부난 그거 올리가 어렵지. 그 올리씨가 근삼이 뿌리면 그 뿌리가 다 죽는 거니까. 경 헹 삭아져 부는 거. 약으로 다 죽여 불언. 이젠 올리 나는 밧은 잘 엇어.[1744] 조밧딘 쒜비눔 ᄀᆞ뜬 거, 희어지렁헌 검질덜 막 나. 콩밧디도 막 그런 거게, 그런 검질 많이 나.

1735) 고정자 구술.
1736) 강정자 구술.
1737) 고정자 구술.
1738) 강정자 구술.
1739) 강정자 구술.
1740) 고정자 구술.
1741) 강정자 구술.
1742) 고정자 구술.
1743) 신순배 구술.
1744) 고정자 구술.

쒜비름ᄒᆞ고 이상헌 검질들. 콩밧딘 저 쒜비눔ᄒᆞ고 잊어불엇저. 여름검질은. 이제 농사 아년 지 한 오 년 뒈 부니까 잊어불어신게.[1745] 나팔꼿 피는 거, 머마. 이렇게 줄 영 헤영 올라가는 거. 건 제초제 헹 죽지도 아녀. 근삼이나 허여야 죽주.[1746] 그 뿔리로 막 지탱헤 부는 따문[1747].

조 김 두벌 매야. 애벌 솎고 두벌 솎고 해야. 세벌까진 매어. 잘하는 사람은 세벌이지. (조밭에) 쇠비름, 바랭이 주로 그거. 김의털 그 저 가는가는 올라오는 거. '물상고지'[1748] 그냥 외로 나오고 거리지도 않고 쭉하게 요만큼. 안 빠져서 그건 '올리'[1749]. '올리'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뿌리, 동그랗게. 김의털은 알맹이가 없이 그냥 독독 매지고. '올리' 그처럼 막 나진 않고 똑 요만씩 저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벋으면서 딴 데 가서 나고 그거지. 그 줄들이. 이제 앞으로 날 거. 지금 있지. 이제 '올리' 난 밭들이 있어? 하도 약해 버리니까. '올리' 난 밭 없습니다, 이제. 농장이고 어디고 다 콘크리트 해 버리니까 그거 '올리'가 어렵지. 그 '올리씨'가 '근삼이' 뿌리면 그 뿌리가 다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삭아져 버리는 거. 약으로 다 죽여 버렸어. 이젠 '올리' 나는 밭은 잘 없어. 조밭엔 쇠비름 같은 거, 허접한 김들 막 나. 콩밭에도 막 그런 거, 그런 김 많이 나. 쇠비름하고 이상한 김들. 콩밭엔 저 쇠비름하고 잊어버렸다. 여름김은. 이제 농사 않은 지 한 오 년 되어 버리니까 잊어버렸네. 나팔꽃 피는 거 메꽃. 이렇게 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건 제초제 해서 죽지도 않아. '근삼이'나 하여야 죽지. 그 뿌리로 막 지탱해 버리는 때문.

1745) 황창자 구술.
1746) 송길춘 구술.
1747) 황장자 구술.
1748) '물상고지'는 사초의 일종이다. 구술로 보면, '물상고지'는 대가 하나로 위로 쑥 올라가며 크고, '올리'는 뿌리를 땅 밑으로 뻗으면서 난다고 한다. 뿌리 모양이 둥글다고 한다.
1749) '올리'는 사초의 일종이다.

□ 7월

1) 칠월 칠석

칠석 절에 가는 사름이나 칠석. 절에 가는 건 그거. ᄀᆞ졍 뎅기는 거 ᄊᆞᆯ기자 주로. 빈차론 못 가고 돈 거 불전이나 좀 ᄋᆞ졍 가고.[1750] ᄊᆞᆯ도 웃봉으로 이제 놔서.[1751] 칠석엔 아무것도 안 헤여. 법당에나 가주. 법당에 칠성이 난 불공 드리레 갓주게. 갈 때 초ᄒᆞ곡, 센꼬, 향. 쌀도 가져가. 한 뒛박.[1752]

칠석 절에 가는 사람이나 칠석. 절에 가는 건 그거. 갖고 다니는 거 쌀 그저 주로. 빈차론 못 가고 돈 거 불전이나 좀 갖고 가고. 쌀도 '웃봉[1753]'으로 이제 놔서. 칠석엔 아무것도 안 해. 법당에나 가지. 법당에 칠성이니까 불공 드리러 갔지. 갈 때 초하고, '센꼬'[1754], 향. 쌀도 가져가. 한 되.

2) 백중

절에서는 백중제 헴주게. 이제 백중 불공이고, 저 뭐고, 저 돌아가신 분덜 백중 불공 올리고. 그런 것이 우리 개인으로 강 허고. 저, 일름 ᄃᆞᆯ멍 다 허주게.[1755] 영가 불공. 사름 돌아간 영혼덜 불공이주게, 백중엔.[1756]

1750) 고정자 구술.
1751) 강정자 구술.
1752) 황창자 구술.
1753) '웃봉'은 가장 먼저 생산한 것, 또는 품질이 좋은 것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754) '센꼬'는 선향(線香)의 일본어 'せんこう'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향나무를 잘게 쪼갠 것을 '센꼬'라고 한다.
1755) 강정자 구술.
1756) 고정자 구술.

절에서는 백중제 하고 있지. 이제 백중 불공이고, 저 뭐고, 저 돌아가신 분들 백중 불공 올리고. 그런 것이 우리 개인으로 가서 하고. 저, 이름 달면서 하지. 영가 불공. 사람 돌아간 영혼들 불공이지, 백중엔.

• 물맞이

옛날에덜은 막 준비헹 가는 사람은 갓주. 그 저게 그 산물 나는 디게. 서림게. 이제는 그 서림 물도 안 나는디, 하도 지하수 파가난 안 남주마는 옛날엔 하간 디 물이 찰찰 나는 디가 만헷주게. 겐디 옛날 나던 물이 이젠 다 막아져 불엇어, 물줄기가. 게난 나는물 보곤 무조건 산물.[1757]

옛날에들은 막 준비해서 가는 사람은 갔지. 그 저게 그 '산물'[1758] 나는 데. '서림'[1759]. 이제는 그 '서림' 물도 안 나는데, 하도 지하수 파가니깐 안 나고 있지만 옛날엔 온갖 데 물이 찰찰 나는 데가 많았지. 그런데 옛날 나던 물이 이젠 다 막혀 버렸어, 물줄기가. 그러니까 나는물 보곤 무조건 '산물'.

3) 입추 · 처서

백중 지나믄 처서. 처서는게 가을에 들엇다 허는 그 절기. 백중 넘어근에 이 처서만 넘으믄 이제 가을.[1760] 입추민 가을 드는 날이로구나. 입추 거 절기 이름들이주. 입추는 아직 저녁 사늘ᄒᆞᆫ ᄇᆞ름 분다 헤근에 저 엿날은 저 메밀 갈앗어, 메밀. 모ᄆᆞᆯ 그때 갈아낫어.[1761]

1757) 고정자 구술.
1758) '산물'은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1759) '서림'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를 말한다.
1760) 고정자 구술.

백중 지나면 처서. 처서는 가을에 들었다 하는 그 절기. 백중 넘어서 이 처서만 넘으면 이제 가을. 입추면 가을 드는 날이로구나. 입추 거 절기 이름들이지. 입추는 아직 저녁 서늘한 바람 분다 해서 저 옛날은 저 메밀 갈았어, 메밀. 메밀 그때 갈았었어.

□ 8월

1) 벌초

팔월 엿날엔 정헤진 거라. 팔월 초ᄒᆞ룻날 무조건. 음력으로 팔월 초ᄒᆞ룻날은 ᄎᆞᆷ, 옛날 ᄆᆞᆫ딱 그날 허여낫인디 이젠 뭐. 모둠벌추 그 집안의 큰 벌초는 팔월 초ᄒᆞ룻날 정헤사 다른 디 먼디 사름덜토 오곡 겅 헤니까 정헤낫주게. 개인벌초는게 이녁 그자.[1762] 그냥 부쪄 놩 그자 그날 다 헤 부는 거.[1763] 큰벌추 ᄆᆞᆫ딱 헤동 그다음엔 개인벌추 그냥 이녁만썩 허는 거.[1764] 벌초는 음력으로 팔월 초에 모둠벌초. 우린 송칩이 사름 다 ᄒᆞ주게. 산 많아. ᄒᆞᆫ 쑤무 ᄋᆞ라 개 뒐 거라. 모둠벌초난. 한 쑤무 개. 우리 거 말고. 벌초 이제 ᄒᆞᆫ 지, 이젠 하르방 늙엉 안 나가난 아덜 성제난 아덜이 나가.[1765]

팔월 옛날엔 정해진 거야. 팔월 초하룻날 무조건. 음력으로 팔월 초하룻날은 참,

1761) 송길춘 구술.
1762) 고정자 구술.
1763) 강정자 구술.
1764) 고정자 구술.
1765) 황창자 구술.

옛날 몽땅 그날 하였었는데 이젠 뭐. '모둠벌추'[1766] 그 집안의 큰 벌초는 팔월 초하룻날 정해야 다른 데 먼 데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정했었지. '개인벌초'[1767]는 이녁 그저. 그냥 붙여 놔서 그저 그날 다 해 버리는 거. '큰벌추'[1768] 몽땅 해두고 그다음엔 '개인벌추'[1769] 그냥 이녁만큼씩 하는 거. 벌초는 음력으로 팔월 초에 '모둠벌초'. 우린 송씨 댁의 사람 다 하지. 산소 많아. 한 스무 여러 개 될 거야. '모둠벌초'니까. 한 스무 개. 우리 거 말고. 벌초 이제 한 지, 이젠 할아버지 늙어서 안 나가니까 아들 형제니까 아들이 나가.

2) 팔월 멩질

정월에 준비허듯이 팔월에 무시거 특별히 출릴 것이 잇어? 팔월이나 정월이나 꼭ᄀᆞ뜨주. 팔월엔게 빨리 쉬지 안헨에 거 무신 떡 헷어? 옛날엔 빵이 엇엇주게, 옛날엔. 상웨떡 밀ᄀᆞ루 헤당 집이서 만들앙. 옛날엔 밀ᄀᆞ루 떡 상에 올리지도 못허게 헤낫저.[1770] 올리지 안헷젠 헨게양?[1771] 밀ᄀᆞ루 떡 올리지 말렌 헤영. 게난 중간에사 그 카스트라도 멧 번 올려나신디 것도 못 올리게 헷어. 옛날 어른덜. (상웨떡) 게난 먹을 걸론 ᄒᆞ주게. 먹을 걸로 허영 집안에 다, 방상에 갈라 먹으니까. 집안에 먹을 건 ᄒᆞ는디 제왕에 쓸 거는 그런 건 아녀주게. 이제는 뒈는 대로 올렴주마는 엿날엔 아니 올리

1766) '모둠벌추'는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벌초를 말한다.
1767) '개인벌초'는 개인이 하는 벌초라는 의미다. 친족들이 모여서 하는 '모둠벌초'에 대응해서 붙인 이름이다. 보통 나의 4대까지 선산의 벌초를 의미한다.
1768) '큰벌추'는 성씨별 입도조 등 5대조 이상의 선묘의 풀을 베어내는 일을 말한다. '큰벌추'를 할 때는 친족들이 모두 모여서 한다. '모둠벌초'의 다른 이름이다.
1769) '개인벌추'는 개인이 하는 벌초라는 의미다. 친족들이 모여서 하는 '모둠벌초'에 대응해서 붙인 이름이다. 보통 나의 4대까지 선산의 벌초를 의미한다.
1770) 고정자 구술.
1771) 신순배 구술.

는 것이 핫어.[1772] 이젠 뭐 보리빵덜토 다 올렴주. 옛날엔 보리빵도 허영 앉아서 갈라 먹는 거. 상엔 안 올리고.[1773] 조상 울엉 ᄒᆞ는 것이 아니고 나 입에 울어서 ᄒᆞ는 거라. 음식 출리는 게. 이젠 그 음식 만드는디 요새 요리덜, 요리ᄒᆞ는 사름덜 게난 제왕에 안 쓰는 거 다 썸주.[1774]

정월에 준비하듯이 팔월에 무엇 특별히 차릴 것이 있어? 팔월이나 정월이나 똑같지. 팔월엔 빨리 쉬지 않아서 거 무슨 떡 했어? 옛날엔 빵이 없었지, 옛날엔. 상화떡 밀가루 해다가 집에서 만들어서. 옛날엔 밀가루떡 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었다. 올리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밀가루떡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간에야 그 카스테라도 몇 번 올렸었는데 것도 못 올리게 했어. 옛날 어른들. (상화떡) 그러니까 먹을 걸론 하지. 먹을 걸로 해서 집안에 다, '방상'에 나눠 먹으니까. 집안에 먹을 건 하는데 '제왕'[1775]에 쓸 거는 그런 건 않지. 이제는 되는 대로 올리고 있지만 옛날엔 아니 올리는 것이 많았어. 이젠 뭐 보리빵들도 다 올리고 있지. 옛날엔 보리빵도 해서 앉아서 나눠 먹는 거. 상엔 안 올리고. 조상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위해서 하는 거야. 음식 차리는 게. 이젠 그 음식 만드는데 요새 요리들, 요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왕'에 안 쓰는 거 다 쓰고 있지.

• 놀이

노래 불르곡, 막 춤, 막 그때는 놀메. 뭣덜 구경거리가 엇이난.[1776] ᄒᆞᆫ다리 인다리 개천개 지나오자 보믄개 오오장작 그나극낙 아롱다옹 꼿, 아이고

1772) 고정자 구술.
1773) 강정자 구술.
1774) 고정자 구술.
1775) '제왕'은 제+왕 구성으로, 제사를 하는 방의 의미다. 여기에서는 제사할 때 쓰는 제물의 의미로 쓴 것 같다.
1776) 고정자 구술.

끗일 모르켜. 아옹다옹 무신거. 웨웡 나둡센. 그거.[1777] 오자미, 영 영 ᄒᆞ는 거. 공기 돌게, 아무거라도 동글락ᄒᆞ게 ᄆᆞᆺ앙게. 돌로게 영 젠젠. 그때는 뻥꾸리가 엇이니까. 뻥꾸리 대신 그 돌로 그자 동글락동글락허게 멘들아근에 그걸로.[1778] 뻥꾸리게 그 다마게 유리다마.[1779] 동글락허게 유리로 뒌 거게. 그거 이제는, 그때는 그런 것이 엇이니까 돌로 동글락동글락허게 멘들아근에 공기 기자, 드르팟디 가도 ᄒᆞ곡. 아이덜 방뒤가 엇주게. 경허난 그런 거.[1780] 이제야 아이덜은 저 공기 사근에 그거 ᄒᆞ주마는 우린 그 돌멩이덜 막 ᄆᆞᆺ아근에 곱게 ᄒᆞᆫ들로근엥 막 하영 헤근에 막 따곡 막 헤낫주게. 공기 올리멍. 다섯 개로 ᄒᆞ는 공기가 잇고 막 하영 헤다 놩, 이제 세 개썩 네 개썩 따는 공기ᄒᆞ곡.[1781] 방칠락ᄒᆞ고.[1782] 삥이치기게. 삥이 나민게 게난 그거 뽑아다근에 방뒤가 엿날은 엇으니까 그걸로 영 영 집 짓어 놔근에, 그디 영 삥이 얼마 뒈여근에 가네 거찌지 못허게, 아무것도 못 거찌게 ᄒᆞ영 그거민 삥이따먹을락.[1783] 삥이가 영 확 영 돌리면은 그디 그 공간이 여러 개민 공간이 영 이시민 그 삥이로 영 땅 영 따먹곡 경.[1784] 아무것도 안 거쪄근에 찍으민 그것이 이겻다근에 삥이를 또 따먹는 거라. 그거 헤낫주.[1785]

노래 부르고, 막 춤, 막 그때는 놀아. 뭣들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한다리 인다리

1777) 신순배 구술.
1778) 고정자 구술.
1779) 신순배 구술.
1780) 고정자 구술.
1781) 강정자 구술.
1782) 신순배 구술.
1783) 고정자 구술.
1784) 강정자 구술.
1785) 고정자 구술.

개천개 지나오자 보믄개 오오장작 그나극낙 아롱다옹 꽃', 아이고, 끝을 모르겠다. 아옹다옹 무엇. 외워서 놔두시라고. 그거. '오자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공깃돌, 아무거라도 동그랗게 마아서. 돌로 이렇게 '젠젠'. 그때는 '뻥꾸리'가 없으니까. '뻥꾸리' 대신 그 돌로 그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뻥꾸리' 그 '다마'[1786] 유리구슬. 동그랗게 유리로 된 거. 그거 이제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돌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공기 그저, 들녘에 가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이 없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이제야 아이들은 저 공기 사서 그거 하지만 우린 그 돌멩이들 막 마아서 곱게 'ᄒᆞᆫ들로근엥(?)' 아주 많이 해서 막 따고 막 했었지. 공기 올리면서. 다섯 개로 하는 공기가 있고 아주 많이 해다 놔서, 이제 세 개씩 네 개씩 따는 공기하고. 사방치기하고. 삘기치기. 삘기 나면 그러니까 그거 뽑아다가 장난감이 옛날은 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집 지어 놔서, 거기 이렇게 삘기 얼마 되어서 걔네 건들지 못하게, 아무것도 못 건들게 해서 그거면 '삥이따먹을락'. 삘기가 이렇게 확 이렇게 돌리면 거기 그 공간이 여러 개면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삘기로 이렇게 땅 이렇게 따먹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건드려서 찍으면 그것이 이겼다가 삘기를 또 따먹는 거야. 그거 했었지.

3) 생업

(1) 촐 비기

촐은게 팔월그믐게. 구월덜에.[1787] 팔월 구물어 가민, 멩질만 넘으면은 촐 비기 시작헤근에게 구월 뒐 때 ᄀᆞᆨ장도 비염주. 그건 쉐에 따라. 촐이 하면 하영 하곡게. 족은 집인 조금 족게 비곡.[1788] 쉐가 하나면은 ᄒᆞᆫ 쑤무

1786) '다마(たま)'는 구슬의 일본어다.
1787) 강정자 구술.
1788) 고정자 구술.

바리, 열다섯 바리.[1789] 게난 그 겨울 양석이니까, 소 양석이니까. 그믄 저 화전에들 올라. 읏인 사름은 저 웃드르 강 촐밧 사근에 그 촐을 비어 오주게. 이녁 촐밧덜이 잇어. 게민 이녁 촐밧딧 거 헤당 멕이주게. 저 해변서는 뒈나마나 저 웃드르 강 사다근엥 헹 멕엿주마는.[1790]

꼴은 팔월그믐. 구월에. 팔월 저물어 가면, 명질만 넘으면 꼴 베기 시작해서 구월될 때까지도 베고 있지. 그건 소에 따라. 꼴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은 집엔 조금 적게 베고. 소가 하나면 한 스무 바리, 열다섯 바리. 그러니까 그 겨울 양식이니까, 소 양식이니까. 그러면 저 화전에들 올라. 없는 사람은 저 '웃드르' 가서 꼴밭 사서 그 꼴을 베어 오지. 이녁 꼴밭들이 있어. 그러면 이녁 꼴밭에 거 해다가 먹이지. 저 해변서는 되나마나 저 '웃드르' 가서 사다가 해서 먹였지마는.

□ 9월

1) 상강

감자 ᄀᆞ뜬 건 상강 전이 헤야주게. ᄒᆞ당 보믄 상강이 넘어. 조는 상강 넘어도 뒈고. 감자도 상강 넘어도 뒈어. 상강 고비가 많이 큰덴 ᄒᆞ주게. 게난 가을걷이가 상강 넘언 헴실 거라. 모ᄆᆞᆯ은 질 나중에 갈곡 나중에 헤들여.[1791]

1789) 강정자 구술.
1790) 고정자 구술.
1791) 고정자 구술.

고구마 같은 건 상강 전에 해야지. 하다가 보면 상강이 넘어. 조는 상강 넘어도 되고. 고구마도 상강 넘어도 되어. 상강 즈음이 많이 큰다고 하지. 그러니까 가을걷이가 상강 넘어서 하고 있을 거야. 메밀은 젤 나중에 갈고 나중에 해 들여.

2) 생업

(1) 가을걷이

가을 수확게, 여름에 뿌린 거 거돠들여사주게. 조, 모ᄆᆞᆯ, 나룩, 산디, 감자 그것이 여름에 뿌린 거니까 그거 거돠들여야지. 고구마 감저라고 ᄒᆞ주게. 이딘 감저라고 허주게. 뻿데기헤영 ᄑᆞᆯ앗주. 뻿데기허기 전에는 주정공장에도 가곡게.[1792] 궹장히 어려왓어. 그때 당시는이 보리, 조, 고구마 헤놓민 그 절간이. 썰어근에 절간ᄒᆞ곡이.[1793] 그거 ᄒᆞ젠 ᄒᆞ면은 아이덜 시에 강 살멍 공부시기멍, 공일날은, 토요일날은 오렌 헤근에 그거 절간 삐여놔근에 ᄆᆞᆯ류는 거, 앚앙 밤새낭 줍곡. 경 ᄒᆞ멍 공부시겻는디. 글지후에 에, 미깡이, 그 감귤원 ᄒᆞ기 시작헨에 내가 감귤을 많이 헤낫어. 많이 헨에 이젠 촘 아으덜토 씨집 장게보내고. 경 ᄒᆞ난 ᄒᆞ주. 참말로 어렵게 살앗어. 우리 아으덜이 도시락을 쌍 가면은, 어머니 어떠난 우리 도시락은 쌀방울이 ᄌᆞᆫᄌᆞᆫ허우꽈? ᄒᆞᆫ단 말이여. 안량미 ᄊᆞᆯ이거든. 이디선 보리밥만 먹는디 경헤도 시에 아으덜 공부ᄒᆞ는 아으덜신딘 정심 싸가곡 ᄒᆞ는 따문에 그 곤ᄊᆞᆯ이엔 허지. 그거게 안량미 ᄊᆞᆯ을 사당 주거든. 그 헐헌 거이. 겨민 밥을 ᄒᆞ민 방울이 ᄌᆞᆫ단 말이어이. 게민 와근에 아이구 우리 점심 도시락은 방울이

1792) 고정자 구술.
1793) 황창자 구술.

젠젠ᄒᆞ곡, 시엣 아이덜은 밥방울이 홁수덴 ᄒᆞ멍 그 말을 ᄀᆞᆯ아.[1794]

이녁 먹을 거는 경 땅 파근에 묻엉 놔두곡. 또 엿날엔 그 온돌방 굴묵 짇엉 살잖아. 게민 그 사름 사는 방에 저 벡장에 헹 놔두믄 안 썩어, 그거는. 사름 사는 온도만 뒈믄 안 썩주게. 게난 이디서 난 감제도 사름 이제 사는 방에만 튼튼ᄒᆞ게 싸근에 놔두민 안 썩어. 그 비루 져난 비루푸대 잇잖아. 밧디서 오면서 담앙 그 탁허영 사름 사는 방에 어디 가냥, 보기 싫지 아녀게 놩 놔둬 봐. 봄 나도록 놔둬도 안 썩어.[1795]

가을 수확, 여름에 뿌린 거 거둬들여야지. 조, 메밀, 벼, 밭벼, 고구마 그것이 여름에 뿌린 거니까 그거 거둬들여야지. 고구마 '감저'라고 하지. 여긴 '감저'라고 하지. 절간해서 팔았지. 절간 하기 전에는 주정공장에도 가고. 굉장히 어려웠어. 그때 당시는 보리, 조, 고구마 해 놓으면 그 절간이. 썰어서 절간하고. 그거 하려고 하면 아이들 제주시에 가서 살면서 공부시키면서, 공일날은, 토요일날은 오라고 해서 그거 절간 뿌려놔서 말리는 거, 앉아서 밤새도록 줍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시켰는데. 그 이후에 에, 귤이, 그 감귤원 하기 시작해서 내가 감귤을 많이 했었어. 많이 해서 이젠 참 아이들도 시집 장가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지. 참말로 어렵게 살았어. 우리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고 가면, 어머니 어떠하니 우리 도시락은 쌀알이 자잘합니까? 한단 말이야. 안남미 쌀이거든. 여기선 보리밥만 먹는데 그렇게 해도 제주시에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점심 싸가고 하는 때문에 그 '곤쏠'[1796]이라고 하지. 그거 안남미 쌀을 사다가 주거든. 그 헐한 거. 그러면 밥을 하면 알이 잘단 말이야. 그러면 와서 아이고 우리 점심 도시락은 알이 자잘하고, 제주시의 아이들은 밥알이 굵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말해.

이녁 먹을 거는 그렇게 땅 파서 묻고 놔두고. 또 옛날엔 그 온돌방 '굴묵' 때어서

1794) 송길춘 구술.
1795) 고정자 구술.
1796) '곤쏠'은 흰쌀을 말한다.

살잖아. 그러면 그 사람 사는 방에 저 벽장에 해서 놔두면 안 썩어, 그거는. 사람 사는 온도만 되면 안 썩지. 그러니까 여기서 난 고구마도 사람 이제 사는 방에만 단단하게 싸서 놔두면 안 썩어. 그 비료 졌던 비료부대 있잖아. 밭에서 오면서 담고서 그 탁해서 사람 사는 방에 어디 간직, 보기 싫지 않게 놔서 놔둬 봐. 봄 나도록 놔둬도 안 썩어.

□ 10월

1) 생업

(1) 보기 갈기

엿날 돗걸름 내근에 보리씨 뿌려근에 보리 갈앗주게. 음력 시월일 거라.[1797]

옛날 돼지거름 내어서 보리씨 뿌려서 보리 갈았지. 음력 시월일 거야.

• 돗걸름보리

돗걸름 내어. 그거 이제 마당에 저 걸름 내다 놩, 보리씰 그레 삐엉 소로 막 ᄇᆞᆯ령. 경 ᄒᆞ면 그 걸름을 ᄯᅳ시 ᄇᆞᆯ르다가, 그 소로 ᄇᆞᆯ르다근에 그 소스랑으로 다 뒤집엉 또 ᄇᆞᆯ르곡. 골로로 서꺼지렌. 경 허민 그걸 이젠 또 담으면서 쉐로 시꺼다가 밧드레 시꺼다 놔근에 또 그 손으로 다 뿌려서 이젠 갈면은 그 보리, 돗걸름보리가 뒈는 거. 그때는 비로가 엇인 때는 그냥 그 돗걸름

1797) 황창자 구술.

의지로 헨에 보릴 헤보젠. 비료 난 후젠 뭐 걸름이 필요가 엇곡. 시월에 보리 가니까. 근디 늦인 사름은 보리 갈면서도 모ᄆᆞᆯ 빌 수도 잇어.[1798]

돼지거름 내어. 그거 이제 마당에 저 거름 내다 놔서, 보리씰 그리로 뿌려서 소로 막 밟아서. 그렇게 하면 그 거름을 다시 밟다가, 그 소로 밟다가 그 쇠스랑으로 다 뒤집어서 또 밟고. 골고루 섞어지라고.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젠 또 담으면서 소로 실어다가 밭으로 실어다 놔서 또 그 손으로 다 뿌려서 이젠 갈면 그 보리, '돗걸름보리'[1799]가 되는 거. 그때는 비료가 없을 때는 그냥 그 돼지거름 의지로 해서 보릴 해보려고. 비료 난 후엔 뭐 거름이 필요가 없고. 시월에 보리 가니까. 근데 늦은 사름은 보리 갈면서도 메밀 벨 수도 있어.

□ 11월

1) 동지

• ᄑᆞᆺ죽

동지에 어떵헤여게. 그냥 ᄑᆞᆺ죽 쒕 먹주. 이제난 하간 거 놈주마는 옛날에사 경 산디쏠로 죽ᄒᆞ민 카르륵헤여. 나룩쏠광 산디쏠 맛이 하늘광 땅이라. 나룩쏠 엇인 사름은 산디로 쒕 먹엇주게.[1800] 옛날에는 산디쏠을 하영 먹엇주게. 산딜 가난. 논 엇인 사름덜은.[1801] 나룩 건 흐리곡 산디쏠 ᄆᆞ른

1798) 고정자 구술.
1799) '돗걸름보리'는 돼지거름에 보리씨를 섞어서 간 보리를 말한다. 예전에 비료가 없을 때는 돼지거름에 보리씨를 섞어서 뿌려서 보리농사를 지었다.
1800) 고정자 구술.

밧디 나는 거니까. 조 ᄀᆞ뜨민 모인좁쏠추룩 맛도 엇곡게. 옛날은 뭐 옛날 조보다 그 말째라 가난 그 육지조엔 헤근에 그 검은좁쏠. 것이 젤 흐리는 거. ᄒᆞ긴 옛날 조는 그 돌와리, 뭐 동데기. 돌와리 영ᄒᆞᆫ 것도 ᄒᆞ꼼 흐리고 또 동데기옌 ᄒᆞᆫ 것도 흐리고. 거 무신 조가 막 모여낫어. 엿날도 모인조가 잇어낫주게.[1802]

동지에 어떡해. 그냥 팥죽 쒀서 먹지. 이제니까 온갖 거 놓고 있지만 옛날에야 그렇게 밭벼쌀로 죽하면 '카르륵헤여'[1803]. 볍쌀과 밭벼쌀 맛이 하늘과 땅이야. 볍쌀 없는 사람은 밭벼로 쒀서 먹었지. 옛날에는 밭벼쌀을 많이 먹었지. 밭벼를 가니까. 논 없는 사람들은. 벼 건 차지고 밭벼쌀 'ᄆᆞ른밧'[1804]에 나는 거니까. 조 같으면 메좁쌀처럼 맛도 없고. 옛날은 뭐 옛날 조보다 그 말째라 가니까 그 '육지조'[1805]라고 해서 그 '검은좁쌀'[1806]. 것이 젤 차지는 거. 하긴 옛날 조는 그 '돌와리'[1807], 뭐 '동데기'[1808]. '돌와리' 이런 것도 조금 차지고 또 '동데기'라고 한 것도 차지고. 거 무슨 조가 아주 메졌어. 옛날도 메조가 있었었지.

2) 생업

(1) 메주 쑤기

1801) 강정자 구술.
1802) 고정자 구술.
1803) '카르륵허다'는 풀기가 없어 풀풀하지 않다는 의미다.
1804) 'ᄆᆞ른밧'은 마른 밭의 의미로 땅이 젖어있는 논에 대비하여 쓰는 표현이다.
1805) '육지조'는 육지에서 들여온 조의 품종을 말한다.
1806) '검은좁쏠'은 차조의 일종이다. 색깔이 거무스름하여서 붙은 이름이다.
1807) '돌와리'는 차조의 일종이다.
1808) '동데기'는 차조의 일종이다.

콩도 드르팟디 거 다 들여오면 ᄒᆞ꼼 이젠 잠잠ᄒᆞ게 이젠 일이 족아질 거 아니? 경 헹 이제 집이서 살게 뒈면은 그자 동짓ᄃᆞᆯ ᄒᆞᆫ 초승에쯤, 십일월 달 초에 콩 ᄉᆞᆲ아근에. 이제 묵은해만 담으민 뒌다 헤근에.[1809] 한 시월ᄃᆞᆯ 나가도. 십일월ᄃᆞᆯ에. 육지는 정월ᄃᆞᆯ에 담넨 허드라고.[1810] 그렇지, 동짓날 ᄁᆞ장은 ᄉᆞᆲ아. 집이서 틔우고 ᄆᆞᆯ리고. 일단 집이서. ᄃᆞᆨ날 ᄀᆞᄠᆞᆫ 날. 이 쥐날 ᄀᆞᄠᆞᆫ 건 나쁜 날이엔 ᄒᆞ멍. ᄃᆞᆨ날에 잘 담넨 ᄒᆞ여. 개날도 좋고. 경 헹 못 담으면은 섣ᄃᆞᆯ구뭄날은 날 안 봐근에. 섣ᄃᆞᆯ구뭄날도 그자 해 져갈 때 메주 들이쳥 내불어.[1811] 주로 개날, ᄃᆞᆨ날, ᄆᆞ날.[1812]

콩도 들밭에 거 다 들여오면 조금 이젠 잠잠하게 이젠 일이 적어질 거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살게 되면 그저 동짓달 한 초승에쯤, 십일월 초에 콩 삶아서. 이제 묵은해만 담그면 된다 해서. 한 시월 나가도. 십일월에. 육지는 정월에 담근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동짓날까지는 삶아. 집에서 띄우고 말리고. 일단 집에서. 닭날 같은 날. 이 쥐날 같은 건 나쁜 날이라고 하면서. 닭날에 잘 담근다고 하여. 개날도 좋고. 그렇게 해서 못 담그면 섣달그믐날은 날 안 봐서. 섣달그믐날도 그저 해 져갈 때 메주 들이뜨려서 내버리지. 주로 개날, 닭날, 말날.

□ 12월

1) 남평날

1809) 고정자 구술.
1810) 강정자 구술.
1811) 고정자 구술.
1812) 강정자 구술.

엿날에 엿 잘헷주게.[1813] 남평날 먹젠 남평날 엿 ᄒᆞᆫ 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허물 나면은 그걸로, 약으로 쓰젠 남평날 저. 약제로 ᄒᆞ젠 남평날 쑤는 거. 경 안 헹 먹젠 ᄒᆞ는 거는 아무 날이나 ᄒᆞ고.[1814] 약제로 ᄒᆞ젠 ᄒᆞ민 남평날 허여근에 딸령 놔두는 거. 일 년 내낭 놔뒀다근에 그거 부스럼이 나면 부찌민 좋아. 이젠 고약이엔 뭐여 약이 시난 ᄒᆞ주. 옛날엔 그런 걸로 떼어민 좋아. 허물이 좋아.[1815]

(엿은) 좁ᄊᆞᆯ로게. 골허고 보리 저 풀 내왕.[1816] 경 헌디 그 남평날보단도 골, 그 엿 만들젠 허민 골은 이제 동지날 골을 놔둔 것이 약이 뒈곡. 물 클 때 동짓날 그 보리를 물 커근에 내우젠 허민게. 보리골을 그날 허영 놔둔 그 골로 엿을 만들면은 남평날 만들면은 약이 뒌다. 겐디 보약으로 먹는 사름덜은.[1817] 납평날은 저 거세기 십이월ᄃᆞᆯ이 뒐 거라. 음력 십이월ᄃᆞᆯ에. 하이튼 그때가 제일 사름덜이 집이서 놀곡 헐 때니까 한글헌 때 그날이라도 ᄎᆞᆺ아근에 허는 거. 그 옛날에는 석 ᄃᆞᆯ 동안 놀거든, 겨울.[1818]

옛날에 엿 잘했지. '남평날' 먹으려고 '남평날' 엿 한 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헌데 나면은 그걸로, 약으로 쓰려고 '남평날' 저. 약제로 하려고 '남평날' 쑤는 거. 그렇게 안 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무 날이나 하고. 약제로 하려고 하면 '남평날' 해서 달여서 놔두는 거. 일 년 내내 놔뒀다가 그거 부스럼이 나면 붙이면 좋아. 이젠 고약이라고 뭐다 약이 있으니까 하지. 옛날엔 그런 걸로 때우면 좋아. 허물이 좋아.

(엿은) 좁쌀로. 엿기름하고 보리 저 풀 내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남평날'보다도

1813) 고정자 구술.
1814) 강정자 구술.
1815) 고정자 구술.
1816) 강정자 구술.
1817) 고정자 구술.
1818) 강정자 구술.

엿기름, 그 엿 만들려고 하면 엿기름은 이제 동짓날 엿기름을 놔둔 것이 약이 되고. 물 담글 때 동짓날 그 보리를 물 담갔다가 내려고 하면. 보리엿기름을 그날 해서 놔둔 그 엿기름으로 엿을 만들면 '남평날' 만들면 약이 된다. 그런데 보약으로 먹는 사람들은. '납평날'은 저 거시기 십이월이 될 거야. 음력 십이월에. 하여튼 그때가 제일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할 때니까 한가한 때 그날이라도 찾아서 하는 거. 그 옛날에는 석 달 동안 놀거든, 겨울.

2) 생업

(1) 멘네 불르기, 누에 키우기

옛날에 저 그 목화 잇잖아? 멘네. 그거 여름에 헷다근에 그 멘네 다듬곡 저슬에도 물질은 안 허여. 미녕 줏고, 그거 허영 멘네 불라근에 기계에 강 테와당 미녕 영 씰 뽑젠 ᄒᆞ민 줏앙. 그거 문 감앙. 이젠 저슬 내낭 그거 줏곡 감곡. 문 허영 봄 나가민 그걸 놀곡 메곡 헤근에 차곡 헹 그걸로 입을 걸 만들앗지. 입을 게 이제ᄀᆞ찌 경 사당 ᄒᆞ는 게 아니고 만들주게. 멩지도 다 만들곡 다 차보기도 ᄒᆞ고. 메어 보기도 ᄒᆞ고 차 보기도 ᄒᆞ고 멩지나 그 미녕이나 다. 누에는 봄에 ᄒᆞᆫ 번 키우곡 가을에 ᄒᆞᆫ 번 키우고 허여 봔. 그 불르는물레. 멘네 불르는, 멘네 불르는물레. 그 씨를 빼젠 ᄒᆞ민 그것에 ᄒᆞ끔썩 영 영 둘러 가멍 ᄒᆞ끔썩 멕이민 문질문질문질헹 씨가 다 나와. 멘네 불르는 기계 경 허여근에 그걸 ᄯᅳ시 기계가 그 멘네를 테와근에 이젠 영 영 정 저 질게 만들앙. 영 영 밀어다근에 그거 이젠 영 기계로 이젠 씰을 뽑아. 그런 거 이젯 사름덜은 알지도 못허지.[1819]

1819) 고정자 구술.

옛날에 저 그 목화 있잖아? 면화. 그거 여름에 했다가 그 면화 다듬고 겨울에도 물질은 안 해. 무명 잣고, 그거 해서 면화 발라서 기계에 가서 타다가 무명 이렇게 실 봅으려고 하면 자아서. 그거 몽땅 감아서. 이젠 겨울 내내 그거 잣고 감고. 몽땅 해서 봄 나가면 그걸 날고 매고 해서 짜고 해서 그걸로 입을 걸 만들었지. 입을 게 이제같이 그렇게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만들지. 명주도 다 만들고 다 짜보기도 하고. 매어 보기도 하고 짜 보기도 하고 명주나 그 무명이나 다. 누에는 봄에 한 번 키우고 가을에 한 번 키우고 해 봤어. 그 씨아. 면화 바르는, 면화 씨아. 그 씨를 빼려고 하면 그것에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서 조금씩 먹이면 만질만질만질해서 씨가 다 나와. 면화 바르는 기계 그렇게 하여서 그걸 다시 기계가 그 면화를 타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꼬리 저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다가 그거 이젠 이렇게 기계로 이젠 실을 봅아.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

(2) 새 헤치

새 비어당 지붕 더끄는 건 새고, 줄 영 영 비는 건 각단. 새는 동짓ᄃᆞᆯ 초ᄒᆞ룻날 헤체ᄒᆞ는 날이라. 제로 보는 새왓이 잇주게. 여랏이 어우러졍 보는 그 새왓이 동짓ᄃᆞᆯ 초ᄒᆞ룻날 헤치라. 경 ᄒᆞ민 그때가 새 빌 때. 지붕 일 때는 원 겨울에 그자 뜸나는 냥. 정월에도 뒈곡 이월에도 뒈곡 뭐.[1820] 삼월에도 뒈곡.[1821] 집은 매해 이는 게 아니라. ᄒᆞᆫ 해 걸렁 일곡 ᄒᆞᆫ 해 걸렁 새로 ᄒᆞ곡 ᄒᆞ는 거난. ᄒᆞᆫ 해 ᄒᆞ면은 ᄒᆞᆫ 해는 아녀곡, 또 다음 해엔 또 새로 씌우곡.

동짓ᄃᆞᆯ에 게믄 새가 푸른 디가 다 죽어 불주게. 하얗게. 경 ᄒᆞ믄 그때

1820) 고정자 구술.
1821) 강정자 구술.

비는 거. 질 마지막에 비는 건 그거 각단. 줄 비는 거. 그건 게난 놀아지민, 건 틈나는 냥 하르방덜이 그건 줄 놓아근에게 사려근에 무껑 데명 놔뒀당은 에게 봄 나가민 이는 거주게.[1822]

띠 베어다가 지붕 덮는 건 띠고, 줄 이렇게 이렇게 꼬는 건 '각단'[1823]. 띠는 동짓달 초하룻날 허채하는 날이야. 계로 보는 띠밭이 있지. 여럿이 어우러져서 보는 그 띠밭이 동짓달 초하룻날 허채야. 그렇게 하면 그때가 띠 벨 때. 지붕 일 때는 원 겨울에 그저 틈나는 대로. 정월에도 되고 이월에도 되고 뭐. 삼월에도 되고. 집은 매해 이는 게 아니야. 한 해 걸러서 이고 한 해 걸러서 새로 하고 하는 거니까. 한 해 하면 한 해는 않고, 또 다음 해엔 또 새로 씌우고.

동짓달에 그러면 띠가 푸른 데가 다 죽어 버리지. 하얗게. 그렇게 하면 그때 베는 거. 젤 마지막에 베는 건 그거 '각단'. 줄 꼬는 거. 그건 그러니까 놀아지면, 건 틈나는 대로 할아버지들이 그건 줄 놓아서 사려서 묶어서 쌓아 놔뒀다가 봄 나가면 이는 거지.

□ 12월

1) 소한 · 대한

소한 대한에 나간 사름 뭐 저 집이 들어오지 말라. 나가민, 그때는 눈도 많이 오고게. 우리 어린 때주게, 어린 때.[1824] 소한에 나간 사름 춪지 말라. 소한 대한에 나간 사름 춪지 말라. 그건 하도 옛날에 춥곡 입은 거 황당ᄒᆞ니

1822) 고정자 구술.
1823) '각단'은 짧은 띠를 말한다. 주로 지붕을 동여매는 집줄을 만들 때 쓴다.
1824) 강정자 구술.

까. 나강 들어오지 아년 사름은. 이젠 입을 커 좋곡 먹을 거 조난 그런 염련 엇주마는 엿날엔 그추룩헷주게. 엿날 어느 저 내복도 제대로 엇곡 신발도 황당ᄒᆞ곡게. 나가민 얼어 죽넨 말로 그 말이주. 경 헨 죽은 사름은 엇구나마는.[1825]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 뭐 저 집에 들어오지 말라. 나가면, 그때는 눈도 많이 오고. 우리 어릴 때지, 어릴 때. 소한에 나간 사람 찾지 말라.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 찾지 말라. 그건 하도 옛날에 춥고 입은 거 황당하니까.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젠 입을 것 좋고 먹을 거 좋으니까 그런 염련 없지마는 옛날엔 그처럼했지. 옛날 어느 저 내복도 제대로 없고 신발도 황당하고. 나가면 얼어 죽는다는 말로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없구나마는.

2) 신구간

• 이사

신구간은 십이월에. 이사ᄒᆞᆯ 사름은 이사ᄒᆞ곡게. 우린 신구간 ᄎᆞᆺ앙 헤 보진 아녓구나마는. 처음 들어갈 때 성냥허고이, 옛날 체, 푸는체 쓰잖아? 그거 들르고 솟 들르고. 근디이 화리에 불살랑 들르고. 경 ᄒᆞ는 모냥이란게. 우린 경 헹 뎅겨보진 아녓구나마는.[1826]

신구간은 십이월에. 이사할 사람은 이사하고. 우린 신구간 찾아서 해 보진 않았구나마는. 처음 들어갈 때 성냥하고, 옛날 체, 키 쓰잖아? 그거 들고 솥 들고. 그런데 화로에

1825) 고정자 구술.
1826) 고정자 구술.

불살라서 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우린 그렇게 해서 다녀보진 않았구나마는.

• **상량**

상량은 허여도 집들이ᄒᆞ는 건 안 봣저. 엿날에 저 상량ᄒᆞ는 날은. 그건 집을 이제 ᄆᆞᆫ딱 헤근에 가실 짜 놓민 상ᄆᆞ르 세우는 날이 상향날이라. 거 상량날은게 ᄃᆞᆨ도 들곡 그 저 무신 자치도 들곡. 건 목시가 ᄒᆞ는 거니까 건 목시잔치. ᄃᆞᆨ도 게난 목시가 솖앙 먹는 거고. 상량ᄒᆞᆯ 때 떡은 아녓어. 동네 사름덜 모돠지민게 점심이야 집 주인이 헹 멕이는 거고.[1827] 이사가 집들이지, 이사가.[1828]

상량은 하여도 집들이하는 건 안 봤다. 옛날에 저 상량하는 날은. 그건 집을 이제 몽땅 해서 가실 짜 놓으면 용마루 세우는 날이 상량날이야. 거 상량날은 닭도 들고 그 저 무슨 '자치'[1829]도 들고. 건 목수가 하는 거니까 건 목수잔치. 닭도 그러니까 목수가 삶아서 먹는 거고. 상량할 때 떡은 않았어. 동네 사람들 모여지면 점심이야 집 주인이 해서 먹이는 거고. 이사가 집들이지, 이사가.

1827) 고정자 구술.
1828) 강정자 구술.
1829) '자치'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상량문을 쓴 도리를 용마루에 올릴 때 쓰는 광목 따위의 천을 말하는 것 같다.

9. 대정읍 신평리

□ 1월

1) 정월 멩질

(1) 멩질 준비

• 멩질떡

동쪽하고 여기는 풍속이 틀려. 그 떡도 명질떡허고 초상떡허고 틀리주게. 빈떡도 허곡 기름떡도 허곡 그자 아이덜 좋아허는 거. 송펜도 어떤 땐 허곡.[1830] 시루떡을 헤사 솔벤, 절벤을 올리는 거라 부난, 시리떡 안 허민 솔벤, 절벤을 못 올려. 게메 침떡이 시루떡인디. 우린 빈떡 허민 빈떡 우인 그걸 못 올림 따문에. 저 시루떡 헐 때는 솔벤, 절벤을 당연히 헤야주.[1831] 게난 못 올려 허는 말이 중요헙주게. 사름이 돌아가민 시루떡 헤근에 그 위에 절벤, 솔벤, 중궤, 약궤 올리면, 시루떡 우에 올린 게 우주를 상징허거든. 거니깐 신이엔 헌 건 모신다는 거 아니우꽈? 거니깐 신이 모시젠 허민 그렇게 시루떡 우에 다 올려 가지고 조상님이 살던 세계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허지만, 제사 때는 시루떡을 안 올리니까 그걸 다 못 허는 거라.[1832]

1830) 김여권 구술.
1831) 이순자 구술.
1832) 김여권 구술.

'동쪽'[1833]하고 여기는 풍속이 달라. 그 떡도 명질떡하고 '초상떡'[1834]하고 다르지. '빈떡'[1835]도 하고 기름떡도 하고 그저 아이들 좋아하는 거. 송편도 어떤 때는 하고. 시루떡을 해야 솔편, 절편을 올리는 거여 버리니까, 시루떡 안 하면 솔편, 절편을 못 올려. 그러니까 '침떡'이 시루떡인데. 우린 '빈떡' 하면 '빈떡' 위에는 그걸 못 올리기 때문에. 저 시루떡 할 때는 솔편, 절편을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못 올려 하는 말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돌아가면 시루떡 해서 그 위에 절편, 솔편, '중궤'[1836], '약궤'[1837] 올리면, 시루떡 위에 올린 게 우주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는 신이라고 한 건 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신을 모시려고 하면 그렇게 시루떡 위에 다 올려 가지고 조상님이 살던 세계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제사 때는 시루떡을 안 올리니까 그걸 다 못 하는 거야.

• **적**

소고기적도, 뒈지고기적도 허곡, 문어 시민 문어적도 허고, 방어 날 땐 방어적도 허고.[1838] 이젠 가다리허고 모도리 안 나니까.[1839] 옛날은 대끊어당 적고지, 고젱이 멘들아신디 이젠 ᄑᆞ는 것이 막 나왐수게. 게난 쉽게 그거 사당.[1840]

1833) '동쪽'은 서귀포시 동쪽 지역을 말한다.
1834) '초상떡'은 초상 때 마련하는 떡을 말한다.
1835) '빈떡'은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1836) '중궤'는 좁쌀 가루나 메밀가루로 가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한다.
1837) '약궤'는 좁쌀 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1838) 이순자 구술.
1839) 김여권 구술.
1840) 이순자 구술.

소고기적도, 돼지고기적도 하고, 문어 있으면 '문어적'도 하고, 방어 날 땐 '방어적'도 하고. 이젠 재방어하고 돌묵상어 안 나니까. 옛날은 대 끊어다가 적꼬치, 꼬챙이 만들었는데 이젠 파는 것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거 사다가.

(2) 차례

• 차례상

탕쉬게 세 가지. 탕쉬에 고사리허고, 콩나물허고, 또 잡채 ᄀᆞ뜬 거 올립니다. 게영국, 메, 게영 올리고. 그다음은 떡도, 적갈도, 생선도, 과일도 올리고 그자 ᄒᆞ끔씩 따로.[1841]

'탕쉬'[1842] 세 가지. '탕쉬'에 고사리하고, 콩나물하고, 또 잡채 같은 거 올립니다. 갱, 메, 갱 올리고. 그다음은 떡도, '적갈'[1843]도, 생선도, 과일도 올리고 그저 조금씩 따로.

• 차례 지내기

제일 막내부터 먼저 다녀근에 마지막은 종손집이. 큰하르버지가 그디 모셔 잇으니까 큰하르버지신디 마즈막에 다 모이는 거주.[1844]

제일 막내부터 먼저 다녀서 마지막은 종손집에. 큰할아버지가 거기 모셔 있으니까 큰할아버지한테 마지막에 다 모이는 거지.

1841) 이순자 구술.
1842)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을 말한다.
1843) '적갈'은 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844) 김여권 구술.

(3) 세배

멩질 때 끗난 다음엔 먼 친척덜이나 오고 멩질날 멩질 ᄀᆞ찌 먹는 궨당덜은 멩질 허기 전이덜 헙니다게. 우린 서귀포 멩질 먹으레 가젠 허민 우리 아덜 뚤덜 왕 아침이 다 서배허여둬근에 서뱃돈덜 타민 서귀포 강 멩질 먹으민 그디선 그디서 대로 허고. 또 이디 멩질덜 끗나민 동넷 어른이라도, 다정ᄒᆞᆫ 어른덜은 와근에 세배덜 허고 경 헙니다.[1845]

명질 때 끝난 다음엔 먼 친척들이나 오고 명질날 명질 같이 먹는 권당들은 명질 하기 전에들 합니다. 우린 서귀포 명질 먹으러 가려고 하면 우리 아들 딸들 와서 아침에 다 세배해둬서 세뱃돈들 타면 서귀포 가서 명질 먹으면 거기선 거기서 대로 하고. 또 여기 명질들 끝나면 동네 어른이라도, 다정한 어른들은 와서 세배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2) 포제

포제는 가뭄이 와야. 가물어근에 비가 안 왕 허면은 포젯단에 가근에 기우제. 우리 농사지으난 기우제, 그게 마을제주게. 마을에서 제일 큰제가 포제주게. 마을 안녕을 비는 거난에. 농사 풍년 오게 헤줍서 허는 게 포제주게. 포제는 아침부떠 허면은 대낮이 허는 거난에.[1846]

포제는 가뭄이 와야. 가물어서 비가 안 오고 하면 포젯단에 가서 기우제. 우리 농사

1845) 이순자 구술.
1846) 김여권 구술.

지으니깐 기우제, 그게 '마을제'[1847]지. 마을에서 제일 큰 제가 포제지. 마을 안녕을 비는 거니깐. 농사 풍년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포제지. 포제는 아침부터 하면 대낮에 하는 거니깐.

• 제관

제관은 마을 유지덜이 알앙 허는 거난에 제관이 다 잇는 게 아니고. 헌관 허젠 허민 게도 제지내난 사름덜, 향교에 다니는 사름덜 허주 그 웨에는 그디 들어가질 못허여. 일주일 동안 거 제관덜은 밖에도 나가지 못허게 헤근에 향사에서 살곡, 밥도 전부 들이곡 헤근에. 몸조심 허렌. 당추 여자는 얼러뎅이지 못허게 허여.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셔 부난 일절 못 오게 헙니다.[1848]

제관은 마을 유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관이 다 있는 게 아니고. 헌관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제지냈던 사람들,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 하지. 그 외에는 거기 들어가질 못해. 일주일 동안 거 제관들은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향사에 살고, 밥도 전부 들이고 해서. 몸조심 하라고. 당최 여자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있어 버리니까 일절 못 오게 합니다.

• 금줄

(포젠) 줄 안 쳐근에. 금줄은 집안에 뭐 굿이나 허게 뒈면 집에 무신 일을 출리젠 허민 비린 거 보지 말고, 본 사름이랑 오지 말렌 금줄 메는 거난. 영장 ᄀᆞ튼 거 본 사름이랑 오지 말렌 허영 금줄을 메는 거주.[1849]

1847) '마을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의를 말한다. 달리 '포제'라고도 한다.
1848) 김여권 구술.

우리 토신제 헐 땐 금줄 멥니다.[1850]

(포젠) 줄 안 쳐서. 금줄은 집안에 뭐 굿이나 하게 되면 집에 무슨 일을 차리려고 하면 '비린'[1851] 거 보지 말고, 본 사람은 오지 말라고 금줄 매는 거니깐. 영장 같은 거 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서 금줄을 매는 거지. 우리 '토신제'[1852] 할 땐 금줄 맵니다.

• 제물

아침 세벡이 전부 출려근에 다 생채로. 이장이 책임졍 허면은 도세기 생채, 간도 올리곡, 내장도 전부 올려근에 허는디. 우린 제물 올린덴 헌 게 쌀, 조, 보리. 그게 익형은 안 뒈주게. 생채 다 올리는 거주게.[1853]

아침 새벽에 전부 차려서 다 생짜로. 이장이 책임져서 하면 돼지 생짜, 간도 올리고, 내장도 전부 올려서 하는데. 우린 제물 올린다고 한 게 쌀, 조, 보리 그게 익혀서는 안 되지. 생짜 다 올리는 거지.

3) 당제

1849) 김여권 구술.
1850) 이순자 구술.
1851)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동물 등 죽은 것을 봐서 몸이 부정하다는 뜻이다.
1852) '토신제'는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주로 집안에서 한 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거나 무덤을 만들 땅에서 제를 지낸다.
1853) 김여권 구술.

(1) 할망당

할망당, 일뤳당은 우리 마을 전체가 (다니고).[1854] 일뤠, 열일뤠, 스무일뤠. 일 년에 ᄒᆞᆫ 번인디 정월 초일뤠날 가고, 열일뤠날 가고. 게난 할망이 초일렛날은 앚앙 기다리곡, 요것덜이 오젠 헴신가 말젠 헴신가 기다리당 안 오민 열일렛날은 영 일어상 기다리고, 스무일렛날은 오거나 말거나 헹 눵 기다린덴 헙니다. 겐 ᄉᆞ못 뭘 수 이시민 일렛날 가삽주게. 할망안티 칭찬받젠 허믄. 게난 그 할망이 우리 아기덜을 다 키우는 거라. 가는 사름은 감수다. 우린 제대헷주만은 늙어 부난. 심방은 동네 심방, 동네이라신디양 ᄒᆞ단에 저 동촌으로 이사 가부난 우리냥으로 강 할망신디 말을 ᄀᆞᆯ읍주게. 우리 집이 이 어른네 이름덜 거느리고 펜안허게 헤줍센, 농사도 잘 뒈게 헤줍센 허고. 이녁 심방이 이시민 식구 나이 다 ᄀᆞ정 가민 심방이 그거 보멍 입담허는디 심방 엇건 디가 막 오래연. 겐 우리냥으로 심방질을 헤야 뒈어. 게믄 (제물) 다 케우리곡. 겐 요번에 간 ᄀᆞᆯ아십주게. 나 어린 때부떠 이제도록 뎅겸시난 할마니 난 이젠 늙언 무릅 수술허연 걷지 못헐 거난에 이젠 안 오커메 기다리지 맙서 헨에 마주막으로 간 ᄀᆞᆯ앗수다. 젊은 사람덜은 안 뎅입니다. 우습게 봐근에양. 우리 씨어머님이 ᄃᆞᆯ앙 가근에 영 저영 허라 허연에 우리신더레 전수시깁디다게. 경허난 그때부떤 우리가 계속 뎅겨신디 요새 젊은 사람덜 일절 안 뎅깁니다.[1855]

'할망당'[1856], '일뤳당'[1857]은 우리 마을 전체가 (다니고). 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1854) 김여권 구술.
1855) 이순자 구술.
1856) '할망당'은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모시는 당이다. 마을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부귀, 건강, 출세 등을 관장하는 신이 좌정했다고 본다. 일정한 날짜에 맞춰

일 년에 한 번인데 정월 초이렛날 가고, 열이렛날 가고. 그러니깐 '할망'[1858]이 초이렛날은 앉아서 기다리고, 요것들이 오려고 하고 있는가 말려고 하고 있는가 기다리다가 안 오면 열이렛날은 이렇게 일어서서 기다리고, 스무이렛날은 오거나 말거나 해서 누워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뭇 될 수 있으면 이렛날 가얍지요. '할망'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할망'이 우리 아기들을 다 키우는 거야. 가는 사람은 가고 있습니다. 우린 제대했지만 늙어 버리니깐. 심방은 동네 심방. 동네이었는데요 하다가 저 '동촌'으로 이사 가버리니깐 우리대로 가서 '할망'한테 말을 말합지요. 우리 집에 이 어른네 이름들 거느리고 편안하게 해주십사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십사고 하고. 이녁 심방이 있으면 식구 나이 다 가지고 가면 심방이 그거 보면서 입담하는데 심방 없은 지가 아주 오랬어. 그래서 우리대로 '심방질'[1859]을 해야 돼. 그러면 (제물) 다 고수레하고. 그래서 요번에 가서 말했습지요. 나 어릴 때부터 이제도록 다니고 있으니깐 '할머니' 난 이젠 늙어서 무릎 수술해서 걷지 못할 거니깐 이젠 안 오겠으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해서 마지막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다닙니다. 우습게 봐서요. 우리 시어머님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서 우리한테 전수시킵디다. 그러니깐 그때부떤 우리가 계속 다녔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일절 안 다닙니다.

- **칠성할망**

칠성할망이라. 제 올리는 것도 북두칠성 향허영 올리는 거주. 저 서르레 올리는 것이 북두칠성 향허는 거라. 우리 ᄀᆞ뜨민 북두칠성 향허여. 칠성님이엔 허주, 그걸 보고.[1860]

그 신을 위한 제를 드리기도 한다.

1857) '일뤳당'은 매달 7일, 17일, 27일에 다니는 당을 말한다. 이 당에 좌정한 여성신은 '일뤠할망'으로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한다.

1858) '할망'은 '할망당'에 좌정한 신을 말하며 아기의 생육을 관장하는 '삼승할망'을 일컫는다. 이를 달리 '할마님', '할머니' 등으로 불린다.

1859) '심방질'은 심방을 대신해서 심방 노릇을 하는 일을 말한다.

'칠성할망'[1861]이야. 제 올리는 것도 북두칠성 향해서 올리는 거지. 저 서쪽으로 올리는 것이 북두칠성 향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북두칠성 향해. '칠성님'이라고 하지, 그걸 보고.

• 제물

돌레떡 동그락헌 거. 모멀쏠로도 허고. 모멀쏠 엇이민 쌀 갈아당 허고. 떡 아니 허민 못 갑니다. 돌레떡 시 정반허고. 접시 하나에 세 개씩 아홉 개,[1862] 세 군데 올리는 거난.[1863] 적갈 헤가는 사름은 적갈도 허영 세 밧디레 올립니다. 셍선은 꼭 헷수다. 셍성 세 개 굽고. 메 세 개, 큰메, 중메, 소메 허여근에 큰 사발, 중 사발, 족은 사발 헤근에 세 개 거리고. 쏠 ᄒᆞᆫ 사발에 돈 오천 원 놓곡. 소지 올리곡. 소지 올린 건 거 창오지 닮은 거난 요만씩헌 것이, 지전 닮은 거라도 할망당에 갈 때 쓰는 거 잇수다. 그거 석 장씩 아홉 장 ᄀᆞ지고. 씰 멩씰 올리고.[1864] 실인디 그거 자손이 오래 살아 줍센 허는 거. 멩 질게 살아줍센 허영. 또 술 ᄒᆞᆫ 펭허고 쏠 ᄒᆞᆫ 사발 허영 돈 놓곡, 밥 상메, 중메, 소메 세 개 거리고. 과일도 ᄀᆞ졍 가는 사름은 ᄀᆞ졍 갑니다. 미깡 가뜬 거 그때 ᄀᆞ졍 가낫수다. 과일도 우선으로 저 떼영 놔둬, 영 이녁이 수확허게 뒈면 거기 갈 과일은 ᄆᆞᆫ저 떼엉 놔두곡 쏠도 방아 져 오면 젤 먼저 웃굽으로 걷엉 놔두고.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 제사가 저 내일쯤 제사가 된다 허민 오늘은 제사헐 떡 허멍 떼영 놧당 낼쯤 당에 갈 땐 그 떡으로 쪙 가는 사름도 잇고. 이녁 ᄆᆞ음만씩, 정성만씩.

1860) 김여권 구술.
1861) '칠성할망'은 집안의 부귀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신을 말한다.
1862) 이순자 구술.
1863) 김여권 구술.
1864) 이순자 구술.

우린 잘도 멩심허연. 우린 할망당에 가는 구덕 다 ᄐᆞ로 헹 놧다근에 그날 일 년에 ᄒᆞᆫ 번 쓰는 거라, ᄀᆞᆫ대구덕에. 그때 떡허영 잘못 놧당 딴 사름덜 떡 잊어 불엉 강 또 두불 ᄀᆞ지레 오고 거 난리칩니다.[1865]

도래떡 동그란 거. 메밀쌀로도 하고. 메밀쌀 없으면 쌀 갈아다가 하고. 떡 안 하면 못 갑니다. 도래떡 세 쟁반하고. 접시 하나에 세 개씩 아홉 개, 세 군데 올리는 거니깐. 적하고 가는 사람은 적도 해서 세 군데 올립니다. 메 세 개, '큰메'[1866], '중메'[1867], '소메'[1868] 해서 큰 사발, 중 사발, 작은 사발 해서 세 개 뜨고. 쌀 한 사발에 돈 오천 원 놓고, '소지' 올리고 '소지' 올린 건 거 창호지 같은 거니깐 요만큼씩한 것이, 지전 같은 거라도 '할망당'에 갈 때 쓰는 거 있습니다. 그거 석 장씩 아홉 장 가지고. 실, 명실 올리고. 실인데 그거 자손이 오래 살아주십사고 하는 거. 명 길게 살아주십사고 해서. 또 술 한 병하고 쌀 한 사발 해서 돈 놓고, 밥 '상메', '중메', '소메' 세 개 뜨고. 과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지고 갑니다. 귤 같은 거 그때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렇게 이녁이 수확하게 되면 거기 갈 과일은 먼저 떼어서 놔두고 쌀도 방아 찧어서 오면 제일 '웃굽'[1869]으로 걷어서 놔두고.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 제사가 저 내일쯤 제사가 된다 하면 오늘은 제사할 떡 하면서 떼서 놨다가 내일쯤 당에 갈 땐 그 떡으로 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녁 마음만큼씩, 정성만큼씩. 우린 잘도 명심하였어. 우린 '할망당'에 가는 바구니 다 따로 해서 놨다가 그날 일 년에 한 번 쓰는 거야, 'ᄀᆞᆫ대구덕'[1870]에. 그때 떡해서 잘못 놓았다가 다른 사람들 떡 잊어 버리고 가서 또 두벌 가지러 오고 거 난리칩니다.

1865) 이순자 구술.
1866) '큰메'는 당에 가서 큰 사발에 담아 올린 메를 말한다. 달리 '상메'라고도 한다. 이 '큰메'는 집안사람 외의 사람과 나눠 먹지 않는다.
1867) '중메'는 당에 가서 중간 사발에 담아 올린 메를 말한다.
1868) '소메'는 당에 가서 제일 작은 사발에 담아 올린 메를 말한다.
1869) '웃굽'은 손대기 전에 맨 처음 뜨거나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달리 '웃봉'이라고도 한다.
1870) 'ᄀᆞᆫ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 **돌레떡**

돌레떡 모멀로도 멘들곡, 흰쏠로도 멘들고. ᄒᆞᆫ 사름이 두 가진 안 허고. 곤쏠로 ᄀᆞᆯ아다근에 미리 쏠 방아 찌민 웃봉으로 ᄒᆞᆫ 뒈 거령 놧당 물 ᄃᆞᆼ강 방앗간에 강 ᄀᆞᆯ아당 헴수게. 옛날은 ᄲᅳᆺ앙 허엿수다. 방아 찌는 걸로 방엣혹이 잇수다게. 초불 ᄲᅳᆺ앙 체로 쳥 ᄀᆞ루 빼어뒁 또 덜헌 건 놩 또 ᄲᅳᆺ곡 멧 번 ᄲᅳᆺ앙 ᄀᆞ룰 내어. 다 뒈도록 ᄲᅳᆺ앙 ᄀᆞ루 체로 쳥은에 허고. ᄀᆞ레로도 전이 헤낫수다. ᄀᆞ레로 허민 막 거칠어. 옛날엔 ᄀᆞ레로덜 헷수다. 돌레떡은게 물 끌영 ᄀᆞ를에 놩 반죽을 막 허는 거라. 물 팔팔 끌여근에 이젠 ᄀᆞ를 다라이에 놔근에 그레 물 비와근에 막 영 쪄 가민 ᄒᆞᆫ 덩어리가 뒙주게. 경허민 그걸 쪼끔씩 떼멍 돌레떡을 만들아. 손으로 영 허영 동글동글허게 허멍 영 영 헤가민 동글락허여마씨. 경 헹은에 그걸 찌는 거. 우리 이제도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해집니다. 두 손으로 요만썩 떼어근에 영 영 허민 납작허게 오모록허게 만들면 물에 놩 ᄉᆞᆷ든지, 찜통에 놩 치나. 물에 놩 ᄉᆞᆷ아근에 들이치민 ᄀᆞᆯ라앚앗당 익으민 뜨는 거라. 경허민 영 도레기로 건졍 식혀근에. 치는 거는 찜통에 놩 깔판 놔근에 ᄃᆞᆼ그지 아니허영. 솔입 ᄀᆞ뜬 건 안 놉니다. 게곡 무사산디 (돌레떡에) 소금 안 놉디다.[1871]

도래떡 메밀로도 만들고, 흰쌀로도 만들고. 한 사람이 두 가진 안 하고. 흰쌀로 갈아다가 미리 쌀 방아 찧으면 '웃봉'으로 한 되 떠 놨다가 물 담가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빻아서 했습니다. 방아 찧는 것으로 방아확이 있습니다. 초벌 빻아서 체로 쳐서 가루 빼어 두고 또 덜한 건 넣어서 또 빻고 몇 번 빻아서 가루를 내어. 다 되도록 빻아서 가루 체로 쳐서 하고. 맷돌로도 전에 했었습니다. 맷돌로 하면 아주 거칠어. 옛날엔 맷돌로들 했습니다. 도래떡은 물 끓여서 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1871) 이순자 구술.

마구 하는 거야. 물 팔팔 끓여서 이젠 가루를 대야에 넣어서 거기에 물 부어서 마구 이렇게 반죽해 가면 한 덩어리가 됩지요. 그러면 그걸 조금씩 떼면서 도래떡을 만들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동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찌는 거. 우리 이제도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두 손으로 요만큼씩 떼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납작하게 오목하게 만들면 물에 넣어서 삶던지, 찜통에 넣어서 찌던지. 물에 넣어서 삶아서 들이뜨리면 가라앉았다가 익으면 뜨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도레기'[1872]로 건져서 식혀서. 찌는 거는 찜통에 넣어서 깔판 놔서 담그지 않고. 솔잎 같은 건 안 놓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도래떡에) 소금 안 놓습니다.

• 메

메가 세 개 올려? 처음 들엄서, 메 사발 세 개에 올린덴 말, 큰 사발, 중 사발, 족은 사발 헤근에. 밥사발도 꼭ᄀᆞ트카 부덴 헷주게.[1873] 여자들만 가난 이 사름넨 몰르주게. 우리 아시날부떠 정성헤근에. ᄉᆞ뭇 치마 출리곡 헤근에 큰사발은 상메엔 허여근에양.[1874] 제일 먼저 올린 게 큰메라.[1875] 큰멘 큰사발에 거려야 뒈어. 큰 사발, 상메는 심방 쓰지도 아녀, 주지 안허메. 집이 가졍 와 먹어야 뒈어. 족은메로 족은 사발에 헌 거. 셍성 하나씩 부찌곡, 떡 부찌곡 헹 심방안티 다 줘 불어. 경 헹 나머진 우리 ᄀᆞ졍 왕 이디서 먹고. 국은 안 올립니다.[1876]

메 세 개 올려? 처음 듣고 있어, 메 사발 세 개에 올린다는 말, 큰 사발, 중 사발,

1872) '도레기'는 물건 따위를 뜨는 데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도구를 말한다.
1873) 김여권 구술.
1874) 이순자 구술.
1875) 김여권 구술.
1876) 이순자 구술.

작은 사발 해서. 밥사발도 똑같을까 봐 했지. 여자들만 가니깐 이 사람네는 모르지. 우리 전날부터 정성해서. 사뭇 치마 차리고 해서 큰 사발은 '상메'라고 해서요. 제일 먼저 올리는 게 '큰메'[1877]야. 큰메는 큰 사발에 떠야 돼. 큰 사발, '상메'는 심방 쓰지도 않아, 주지 않아. 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야 돼. '족은메'로 작은 사발에 한 거. 생선 하나씩 붙이고, 떡 붙이고 해서 심방한테 다 줘 버려. 그렇게 해서 나머진 우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고. 국은 안 올립니다.

• **잡식**

절허곡 말곡. 식게헐 때 허는 식으로. (제물) 다 올려근에 이녁만씩 다 절헙니다. 향 피우곡. (제단이) 영 헨 쭈런히 동글락허게 밋밋허게 잇수다게. 경헹 다 제지내나민 새 헤다근에 하실 만들앙 메마다 찔러마씨. 세 개씩 허영, 네 개씩 허는 사름도 싯고. (당에) 가근에 거기 새 허여근에 메마다 다 찔럿당 잡식헐 땐 그 새채 손으로 (제물을) 똑똑 떠근에 놓는 디가 이수다. 경헹 잡식헐 땐 그거 다 그레 빼 놓는 거라, 돌고망더레. 돌은 다 궬 ᄋᆞᆯ앙 놔둡니다.[1878] (당에) 고망이 셔. 잡식허는 고망이.[1879] 불만 와랑와랑 살롱. 처음으로 가근에 궤를 연 사름은 복 받넨 헤도 그거 아니. 어떤 사름은양 돌고망더레 밥 거려놧젠 허멍 ᄒᆞᆫ 번 가완 다시 안 가는 사름도 잇수다. 경헤도 잘살암서. 게곡 제일 마지막엔 바깟데 손님덜 대접허영 술잔 하나에 잡식허영 그레 다 뿌리고. 심방 이신 땐 ᄊᆞᆯ도 줘 불곡, 돈도, 떡도, 셍성도, 밥도 주곡 다 헤낫수다. 나가 헹 간 거를 거기서 제지내나면 심방신디 더러 줘 불어. 상멘 안 줘. 큰사발 메는 안 줘근에 우리가 ᄀᆞ졍 왕 이디서 먹고. 심방 주는 거는 돈이영 ᄊᆞᆯ이영.[1880]

1877) '큰메'는 당에 가서 큰 사발에 담아 올린 메를 말한다. 달리 '상메'라고도 한다.
1878) 이순자 구술.
1879) 김여권 구술.

절하고 말고. 제사할 때 하는 식으로. (제물) 다 올려서 이녁만큼씩 다 절합니다. 향 피우고. (제단이)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동그랗게 밋밋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제지내고 나면 띠 해다가 젓가락을 만들어서 메마다 찔러요. 세 개씩 해서, 네 개씩 하는 사람도 있고. (당에) 가서 거기 띠 해서 메마다 다 찔렀다가 '잡식'[1881]할 땐 그 띠채 손으로 (제물을) 똑똑 떠서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식'할 땐 그거 다 거기에 빼서 놓는 거야, 돌구멍에. 돌은 다 '궤'[1882]를 열어서 놔둡니다. (당에) 구멍이 있어. '잡식'하는 구멍이 불만 '와랑와랑'[1883] 살라서. 처음으로 가서 '궤'를 연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해도 그거 아니. 어떤 사람은요 돌구멍에 밥 떠놨다고 하면서 한 번 다녀와서 다시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살고 있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깥에 손님들 대접하고 술잔 하나에 잡식해서 거기에 다 뿌리고. 심방 있을 땐 쌀도 줘 버리고, 돈도, 떡도, 생선도, 밥도 주고 다 했었습니다. 내가 해서 간 거를 거기서 제지내고 나면 심방한테 더러 줘 버려. '상메'는 안 줘. 큰사발 메는 안 줘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고. 심방 주는 거는 돈이랑 쌀이랑.

• 정성

(할망당) 가젠 허민 치마 출리곡 향덜 문 피왕 손에 들르곡 오는 사람신디도 인사 안 허곡, 가는 사름신디도 인사 안 허고. 경 헤영 구덕에 놔근에 경, 근심을 경 강 올 땐 근심을 내려놔 뒁 온덴 헤근에 경 오지 안허영 똑 영 옆으로 들렁 와야 뒈어.[1884]

1880) 이순자 구술.

1881) '잡식'은 제를 지내고 난 후에 진설했던 제수들을 술잔에 조금씩 뜯어 놓고 그것을 바깥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 신평리 '할망당'에서는 제물들을 조금씩 뜯어낸 것을 모아 따로 마련된 구멍에 뿌린다고 한다.

1882) '궤'는 신평리 '할망당'에서 제지내고 난 다음 진설한 온갖 제수를 한 줌씩 뜯어서 모아 넣는 돌구멍을 말한다.

1883) '와랑와랑'은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이다.

1884) 이순자 구술.

('할망당') 가려고 하면 치마 차리고 향들 모두 피워서 손에 들고 오는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구덕에 놔서 지고, 근심을 지고 가서 올 땐 근심을 내려놔 두고 온다고 해서 지고 오지 않고 꼭 이렇게 옆으로 들고 와야 돼.

• **금기**

비린다는 거, 비림 때문에 초일뤠, 두 번째 날은 열일뤠, 세 번째 그다음은 스무일뤠 영 허는디 비림 따문에 만약에 이 동네가 장사가 나거나 허믄 초일뤠날 가지 안허여. 다 열일뤠날 가야 뒈는디 열일뤳날도 장사일이 나 버리면 또 못 가고.[1885] 바싹 추운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야 뒈어마씨. 동네만 깨끗허민. 게고 집안이나 좇기곡 어려운 일이 이시민 열사흘날도 갑니다.[1886]

'비린다'[1887]는 거, '비리기' 때문에 초이레, 두 번째 날은 열이레, 세 번째 그다음은 스무이레 이렇게 하는데 '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네가 초상이 나거나 하면 초이렛날 가지 않아. 다 열이렛날 가야 되는데 열이렛날도 영장이 나 버리면 또 못 가고. 바싹 추울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야 돼요. 동네만 깨끗하면. 그리고 집안이나 쫓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열사흗날도 갑니다.

• **말명**

저 천리 앚앙 천리만리 보는 할머님, 우리 집안에 저 김○○이 사는 집안에 나 각시난 각시가 영 할머님 보레 와시난 우리 집안에 펜안허게 헤주고,

---

1885) 김여권 구술.
1886) 이순자 구술.
1887) '비리다'는 짐승 따위가 죽은 것을 보거나 안 좋은 일로 몸이 더럽혀진다는 말이다.

뎅기는 일 모두 다 뭐 엇이 사고 없이 펜안허게 헤 주고, 우리 큰아덜, 똘 일름, 족은아덜 멧 솔 헹 다 거느령 다 온 집안이 그자 펜안허게 헤줍서, 할머님으로 못 허게 헐 일이 어디 시쿠가? 사 만리 앚앙 천리 다 보는 할머니 집안일 다 좋게 헤줍서.[1888]

저 천리 앉아서 천리만리 보는 '할머님', 우리 집안에 저 김○○이 사는 집안의 나 각시니깐 각시가 이렇게 '할머님' 보러 왔으니깐 우리 집안에 편안하게 해주고, 다니는 일 모두 다 뭐 없이, 사고 없이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큰아들, 딸 이름, 작은아들 몇 살 해서 다 들먹여서 다 온 집안이 그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할머님'으로 못 하게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 만리 앉아서 천리 다 보는 '할머니' 집안일 다 좋게 해주십시오.

(2) 조씨당

조씨당은 가면 지금도 돌로 동자석 만들엇는디, 그 동자할망당이 무슨 일을 헷는고 허단 보난 자손이 건강하게 허고 자손을 내려주십시오 헤서 비는 디라. 자손, 자식 내리게 헤주십시오 헤 가지고.[1889]

'조씨당'[1890]은 가면 지금도 돌로 동자석 만들었는데, 그 '동자할망당'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다가 보니깐 자손이 건강하게 하고 자손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비는 데야. 자손, 자식 내리게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1888) 이순자 구술.
1889) 김여권 구술.
1890) '조씨당'은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당으로 함안 조씨 집안과 자손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신이 좌정했다고 한다. 그곳 제단 위에는 두 개의 동자가 놓여 있다. 이곳은 달리 '조씨할망당', '동자할망당'이라고도 한다.

4) 안택

(1) 칠성제

안칠성 모시는 집인 고팡이도 강 올리고.[1891] 대정골 친정엔 강 보민 그거 ᄐᆞ로 ᄆᆞᆫ딱 출령 상을 안방에 올려. 안택이엔 허멍 상 하나 더 출리는 적시우다게. 조케네 집이 가민 꼭 그걸 허여. 요 섣ᄃᆞᆯ 초여드렛날 간 보난 헴서. 나 속으로 옛날 저거 내려오는 거난 허염저. 겐디 이딘 오난 그런 걸 안 헴수다.[1892]

'안칠성'[1893] 모시는 집은 고방에도 가서 올리고. '대정골'[1894] 친정엔 가서 보면 그거 따로 몽땅 차려서 상을 안방에 올려. '안택'[1895]이라고 하면서 상 하나 더 차리는 몫입니다. 조카네 집에 가면 꼭 그걸 해. 요 섣달 초여드렛날 가서 보니깐 하고 있어. 내 속으로 옛날 저거 내려오는 거니깐 하고 있네. 그런데 여긴 오니깐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2) 문전제

문에상에 허는 거는 문전제라고. 문전제는 당연히 제사허기 전에 밖에

1891) 김여권 구술.
1892) 이순자 구술.
1893) '안칠성'은 제주도에서 고방(庫房)에 좌정한 신으로 집안의 재물과 부를 관장한다. 한편 '밧칠성'은 주로 집 뒤쪽 한구석에 주저리를 씌워 모시는 신이다. 이 두 신을 아울러 '칠성신'이라고 한다.
1894) '대정골'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일대를 일컫는다.
1895) '안택'은 집안에 탈이 없도록 심방이나 스님을 불러 가신들을 위로하는 일을 말한다.

문 올앙게 손님덜, 그 자손 엇은 귀신덜이 이시니까 걸 먼저 대접허는 게 문전제거든. 겐 걸 대접을 먼저 허영 보내두곡. 잡식이엔 헌 거 다 한꺼번에 올린다는 말이주게. 한 번 허민 그만. 문전제 헐 때는 (잡식헐 거) 올레에 가근에 걸 뿌리거든. 올레에 양 귀야지, 들어오는 문 양 귀에. 인제 자손 엇은 귀신덜 그자 대접헙니다 헹 보내두고. 경 헹 조상님 모신덴 허는 거주. 조상님 모셧단 게 지붕 우에 올리고, 거 문전제는 문전이니까 올레코시주.[1896]

'문에상'[1897]에 하는 거는 '문전제'[1898]라고. '문전제'는 당연히 제사하기 전에 밖에 문 열어서 손님들, 그 자손 없는 귀신들이 있으니까 걸 먼저 대접하는 게 '문전제'거든. 그래서 걸 대접을 먼저 해서 보내두고. 그렇게 해서 조상님에게 조용히 제지낸다고 해서. '잡식'이라고 한 거 다 한꺼번에 올린다는 말이지. 한 번 하면 그만. '문전제' 할 때는 ('잡식'할 거) 오래에 가서 걸 뿌리거든. 오래에 양 귀, 들어오는 문 양 귀에. 이제 자손 없는 귀신들 그저 대접합니다 해서 보내두고. 그렇게 해서 조상님 모신다고 하는 거지. 조상님 모셨던 게 지붕 위에 올리고, '문전제'는 문전이니까 '올레코시'[1899]지.

5) 정월대보름

이딘 정월대보름에는 무시거 놀 일 헤 보질 안헷는데. 옛날은 무신거 사삼 이전에는 모영 허벅 장단 두드리멍 노는 거벳기 그 외에는 헤본 게

1896) 김여권 구술.
1897) '문에상'은 '문전제'를 지내기 위하여 차린 상을 말한다.
1898) '문전제'는 제사나 명질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1899) '올레코시'는 본래 정월에 집안에 탈이 없도록 심방을 불러 지내는 고사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올레(오래)'와 '코시(고사)'가 합쳐진 말로 제보자가 '올레'에서 '문전제'를 지낸 다음 잡신을 위하여 고수레하는 행위를 아울러 말하는 듯하다.

엇어. 대보름 적에 물 떠 놓곡 헤근에.[1900] 보름ᄃᆞᆯ 뜨민 절은 헙니다마는 집안에 온 식구가 펜안허게 헤도렌, 차 몰앙 뎅이는 디도 펜안허게 헤줍서. 나 이디 오난 시작헌 게 이제도록 헴수다, 올리도 헷수다. 보름날 저냑은 잊어 불어지지 안허여. 게민 요디서 (상) 페와근에 동더레 돌아상, ᄃᆞᆯ 신디로 향헤근에 ᄎᆞ례로 하르방 일름 불르곡 건강헤줍센. 차 몰앙 뎅기는 큰아덜, 그다음은 족은아덜, ᄯᆞᆯ덜, 사위덜 다 이름 거느령 절헙니다. 그거 하나벳기 허는 거 엇수다게. ᄆᆞᆫ 난 잊어불지 아니허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 헤사.[1901]

여기는 정월대보름에는 무엇 노는 일 해 보질 않았데. 옛날은 무엇 사삼 이전에는 모여서 그 '허벅'[1902] 장단 두드리면서 노는 것밖에 그 외에는 해본 게 없어. 대보름 적에 물 떠 놓고 해서 보름달 뜨면 절은 합니다만 집안에 온 식구가 편안하게 해 달라고, 차 몰아서 다니는 데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나 여기 오니까[1903] 시작한 게 이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보름날 저녁은 잊어 버리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상) 펴서 동으로 돌아서서 달 있는 데로 향해서 차례로 '남편'[1904] 이름 부르고 건강해 달라고. 차 몰아서 다니는 큰아들, 그다음은 작은아들, 딸들, 사위들 다 이름 말하면서 절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하는 거 없습니다. 모두 난 잊어버리지 않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 해야.

1900) 김여권 구술.
1901) 이순자 구술.
1902)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말한다.
1903) 제보자 이순자 씨는 1960년도에 대정읍 신평리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1904)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의미한다.

• **액막이**

심방 ᄃᆞᆯ아당 굿헙니다게. 나쁜 일 엇게, 집안 펜안허게 헤 ᄃᆞ렌 허멍 액막이허는 집은 헙디다.[1905] 액막이헤난 다음에 방쉬허는 거주. 떡이다 음식이다 올려난 거, 굿허여난 거 떼어놔근에.[1906] ᄆᆞᆫ딱 잡식헤근에 배 멘들앙양. 밴 저 바당이 띄우는 거고. 배 멘들지 안허민 어떤 사름덜은 차롱착에 허여 놩 ᄆᆞᆫ딱 그레 놩양, 소낭밧 강알러레 강 놔 불어마씸게. 우리 저 보성선 놓는 디가 신디, 그 항굴러레 가는 디, 멀지 안허난 그것 간 드러 줏어먹엇수게. 우리 어린 땐 몰란. 게도 아무칙도 안 헷수다게. 돈덜토 싯곡, 돈 봉가근에 넉동베기 허는 디 강 부침작도 허고. 이제 그거 봉가 먹어난 디 그 어염에 가가민 생각나.[1907]

무당 데려다가 굿합니다. 나쁜 일 없게, 집안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액막이하는 집은 합디다. 액막이한 다음에 '방쉬'[1908]하는 거지. 떡이다 음식이다 올렸던 거, 굿하고 난 거 떼어놓아서 몽땅 '잡식'[1909]해서 배 만들어서요. 배는 저 바다에 띄우는 거고. 배 만들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차롱착'[1910]에 해 놔서 몽땅 그리에 놔서요, 소나무 밭 아래에 가서 놓아 버려요. 우리 저 '보성'[1911]에서는 놓는 데가 있는데, 그 '항굴'[1912]로 가는 데, 멀지 않으니까 그것 가서 들이 주워먹었습니다. 우리 어릴 땐 몰랐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돈들도 있고, 돈 거저주워서 넉동내기 하는 데 가서

1905) 이순자 구술.
1906) 김여권 구술.
1907) 이순자 구술.
1908) '방쉬'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1909) '잡식'은 제를 지내고 난 후에 진설되었던 제수들을 술잔에 조금씩 뜬어 놓고 그것을 바깥에 뿌리는 일을 말한다.
1910) '차롱착'은 채롱의 한 짝을 말한다.
1911)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1912) '항굴'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지명 이름이다.

붙임도 하고. 이제 그거 거저주워 먹었던 데 그 옆에 가면 생각나.

6) 걸궁

난 어리난에 우리 형님네 걸궁 허는 소리만 들엇주. 그거 무신 서너 술 뒌 때난게 봐보지는 못허고게. 걸궁 험으로 저 우에부떠 시작허영 집집마다 다니멍 잘사는 집인 강 걸궁 허면은 쏠 막 내주면 그 쏠로덜 청년덜은 잔치덜 허고 경 헤낫주. 북, 장구 두드리면서 송낙 쓰곡 헤근에 그냥 막 춤추멍 허는 거. 정월 허면 청년덜 놀이. 겐디 우리가 그걸 웨 못 보느냐 허면 사삼사건 난에 동네가 판나불언 그런 거 헐 정도가 안 뒛주게. 지금은 걸궁 헐 사람이 없어 다 죽어 부난. 우리가 인계받을 땐 국민학생이난 어떵허여게. 그거 뭐 도저이 알 수가 엇는 거. 우리 선배덜은 다 죽어 불고. 난 사삼사건 (소까이) 내려갈 때는 펭풍 하나 젼 내려갓는디 그것이 딱 몸에 맞으니까, 펭풍벳기 더 질게 엇주게. 다른 건 무거왕 못 지주게.[1913]

난 어리니까 우리 형님네 걸립 하는 소리만 들었지. 그거 무슨 서너 살 된 때니깐 봐보지는 못하고. 걸립 하기로 저 위에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잘사는 집에는 가서 걸립 하면 쌀 마구 내주면 그 쌀로들 청년들은 잔치들 하고 그렇게 했었지. 북, 장구 두드리면서 '송낙'[1914] 쓰고 해서 그냥 마구 춤추면서 하는 거. 정월 하면 청년들 놀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보느냐 하면 사삼사건 나서 동네가 판나버려서 그런 거 할 정도가 안 됐지. 지금은 걸립 할 사람이 없어 다 죽어 버리니깐. 우리가 인계받을

1913) 김여권 구술.
1914) '송낙'은 심방들이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백지로 만든 고깔 모양의 모자를 말한다.

땐 초등학생이니깐 어떻게해. 그거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 우리 선배들은 다 죽어버리고. 난 사삼사건 (소개) 내려갈 때는 병풍 하나 져서 내려갔는데 그것이 딱 몸에 맞으니까, 병풍밖에 더 길게 없지. 다른 건 무거워서 못 지지.

7) 입춘

새해 든다는 뜻이지주만 우린 뭐 입춘대길이여 뭐여 부쪄보지 안헤서 양?[1915] 샛절드는날이난게. 놈의 집이 안 간덴 허멍 집이 나가지 못허게 허주게.[1916] 놈의 집 가민 그 집이 재수가 벗어진덴 허주게. 겐디 정처 엇이 가는 사름이 잇어. (샛절) 그것도 시가 잇젠 헙디다, 드는 시가. 그날 ᄒᆞ루 멩심헤삽주게. 남잔 궨찮여도 여잔 안 뒈어. 재수가 욕 듣주게, 막. 놈의 집일 가지 말아사주게. (입춘굿은) 옛날엔 헤나실 거우다마는 이젠 심방 빌젠 헤도 막 어려와마씨. 이 사름이영 동갑짜리 막 잘허는 심방 죽어부난 엇어. 구황풀이 허젠 헤도 심방이 엇엉 못 헴서. 게난 절간에 시님 빌어당 허고.[1917]

새해 든다는 뜻이지만 우린 뭐 입춘대길이다 뭐다 붙여보지 않았지요? 입춘 드는 날이니깐. 남의 집에 안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재수가 벗겨진다고 하지. 그런데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 (입춘) 그것도 시가 있다고 합디다, 드는 시가. 그날 하루 명심해얍지요. 남자는 괜찮아도 여잔 안 돼. 재수가 욕 듣지, 마구. 남의 집엘 가지 말아야지. (입춘굿은) 옛날엔 했었을 겁니다마는 이젠 무당 빌리려고 해도 아주 어려워요. 이 사람이랑 동갑짜리 아주 잘하는 무당 죽어

1915) 이순자 구술.
1916) 김여권 구술.
1917) 이순자 구술.

버리니까 없어. '구황풀이'[1918] 하려고 해도 무당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에 스님 빌려다가 하고.

8) 생업

(1) 보리밟기

저 검은 헉이 더 부풀주게. 보리밧 붋는 거 영 겨울 뒈민 땅이 곳아근에 부푸난 그 땅을 내려앚게 만들젠 밧을 붇른덴 허는디 우린 붇라보지 안허고.[1919] 그때는 보난에 땅이 얼어근에 올라와. 추위가 경 뒛어. 저 동더레는 계속허영 땅이 부꺼근에 허는디 이디는 촌흑이라도, 찰흑이라도 땅이 얼어근에 영 우터레 올라오면은 걸 붇라근에. 난 (보리밧) 붇라봔. 유치원 다니멍 선생님이 지네 밧디 가근에 학생덜 열 지어근에 선생이 보리밧 붇르렌 허민, 기러기는 열 지어근에 저레 밋밋 일본더레 내려가고.[1920]

저 검은 흙이 더 부풀지. 보리밭 밟는 거 이렇게 겨울 되면 땅이 얼어서 부푸니까 그 땅을 내려앉게 만들려고 밭을 밟는다고 하는데 우린 밟아보지 않고. 그때는 보니까 땅이 얼어서 올라와. 추위가 그렇게 됐어. 저 동쪽에는 계속해서 땅이 부풀어서 하는데 여기는 그 찰흙이라도, 찰흙이라도 땅이 얼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걸 밟아서. 난 (보리밭) 밟아봤어. 유치원 다니면서 선생님이 자기네 밭에 가서 학생들 열 지어서 보리밭 밟으라고 하면, 기러기는 열 지어서 저리로 전부 일본으로 내려가고.

1918) '구황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굿을 말한다.
1919) 이순자 구술.
1920) 김여권 구술.

(2) 방에부찜

불부찌는 거?[1921] 목장에? 방에도 마음대로 못 부찌게 허는 건디. 방에 부찌젠 허믄 곱아근에 부쪄뒁 도망오주게. 동더레 오름은 방에 부찔 만허주마는 (이딘) 방에 부찌젠 헤도 부찔 디가 엇어. 자왈이난. 문짝 돌팟인디게. 그 목장 헐 때야 요 마당만이나 불부찌카. 게고 이제 춤나무는 불이 부뜨겔 뒈지 안허엿어. 밑에도 파랑케 다 살아 이시난.[1922]

불붙이는 거? 목장에? 방화도 마음대로 못 붙이게 하는 것인데. 방화 붙이려고 하면 숨어서 붙여 두고서 도망오지. 동쪽에 오름은 방화 붙일 만하지마는 (여긴) 방화 붙이려고 해도 붙일 데가 없어. 덤불이니까. 모두 돌밭인데. 그 목장 할 때야 요 마당만큼이나 불붙일까. 그리고 이제 참나무는 불이 붙게를 되지 않았어. 밑에도 파랗게 다 살아 있으니까.

• 마소 기르기

물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헷주게. 그거 웨에는 헐 일이 엇이난게.[1923] 잘헷자 혼 세 개. 쉐도 이녁 쉐 시민 두 무리나 멜까, 아니면 거 새끼덜이나 뒤에 조치곡 영 허주. 물은 물대로 쉔 쉐대로 헤야 뒈주. 종자덜이 틀린 거라 노난. 이 물이 쉐를 피허고 쉐는 무딘 거라 노난 찔러불젠 허고. 물은 찔르지 못허주게. 게난 ᄀᆞ치 못 다녀. 뚜로뚜로 다녀야주. 혼 밧디 잇어도 뚜로뚜로 자기만씩.[1924]

1921) 이순자 구술.
1922) 김여권 구술.
1923) 이순자 구술.
1924) 김여권 구술.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했지.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깐. 잘했어도 한 세 개. 소도 이녁 소 있으면 두 마리나 맬까, 아니면 거 새끼들이나 뒤에 쫓고 이렇게 하지.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해야 되지. 종자들이 다른 거여 놓으니깐. 이 말이 소를 피하고 소는 무딘 거라 놓으니까 찔러 버리려고 하고. 말은 찌르지 못하지. 그러니깐 같이 못 다녀. 따로따로 다녀야지. 한 곳에 있어도 따로따로 자기만큼씩.

□ 2월

1) 영등

영등ᄃᆞᆯ이엔 헌 게 추위 온덴 허는 말이주. 영등ᄃᆞᆯ, 영등ᄃᆞᆯ ᄒᆞ주게. 영등ᄃᆞᆯ이엔 허는 거는 추운 바람이주게. 하늬ᄇᆞ름인디, 그게 저 동북으로 들어오는 바람이고. (영등할망) 이월 보름 뒈민 들어온덴 헤실 거라. 영등은 정의서 들어와근에 한림 비양도로 나간덴 허나? 우도로 와근에 비양도로 나간덴.[1925] 영등할망이 들어와근에 모든 씨 뿌려뒁 가곡 ᄒᆞᆫ덴 드러 ᄀᆞᆯ읍니다. 영등할망 들어왕 씨 뿌려뒁 가민 밧디 요만썩헌 보시 닮은 것이 복작허게 나근에, 거기 보시 속에 든 것이 쪼금만 들민 숭년 든다, ᄀᆞ득으민 풍년 든다 그추룩 막 헤낫수다게. 보름인가 언제 배 탕 들어온덴 영등굿도 막 헌덴 헙디다.[1926] 겡 영등할망 가불민 ᄃᆞ셔진덴 허영.[1927]

'영등달'이라고 한 게 추위 온다고 하는 말이지. '영등달', '영등달' 하지. '영등달'이

1925) 김여권 구술.
1926) 이순자 구술.
1927) 김여권 구술.

라고 하는 거는 추운 바람이지. 하늬바람인데, 그게 저 동북으로 들어오는 바람이고. (‘영등할망’) 이월 보름 되면 들어온다고 했을 거야. ‘영등’[1928]은 ‘정의’[1929]에서 들어와서 한림 비양도로 나간다고 하나? 우도로 와서 비양도로 나간다고. ‘영등할망’[1930]이 들어와서 모든 씨 뿌려두고 가고 한다고 들이 말합니다. ‘영등할망’ 들어와서 씨 뿌려두고 가면 밭에 요만큼씩한 보시기 같은 것에 ‘복작하게’[1931] 나서, 거기 보시기 속에 든 것이 조금만 들면 흉년 든다, 가득하면 풍년 든다 그처럼 마구 했었습니다. 보름인가 언제 배 타고 들어온다고 ‘영등굿’[1932]도 마구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영등할망’ 가버리면 다습해진다고 해.

• 금기

영등 들젠 허민양, 빨래도 안 넙니다. 집안에 구데기 인덴 헤근에 영등할망 들어오민 그 사이엔 구데기 인덴 허영 못 널게 허고 서답덜 안 헙니다. 이제덜도 지키는 사름은 잘 지키어. 영등할망 온 때 서답헹 널민 구데기 인덴 헤근에 못허게 허주게. 겐 저 드르팟디 강 널어.[1933]

영등 들려고 하면요, 빨래도 안 넙니다. 집안에 구더기 인다고 해서 ‘영등할망’ 들어오면 그 사이에 구더기 인다고 해서 못 널게 하고 빨래들 안 합니다. 이제들도 지키는

1928) ‘영등’은 바다를 관장하는 영등신을 부르는 말이다. 이를 달리 ‘영등할망’이라고도 한다.
1929) ‘정의’는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던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행정구역 단위인 ‘정의현’을 말한다.
1930) ‘영등할망’은 바다의 안전을 관장하고, 해녀와 어부들의 안녕을 가져다주는 여자 신을 말한다. 이를 상대하여 남자 신은 ‘영등하르방’이라고 한다. 이를 달리 ‘영등신’이라고 한다.
1931) ‘복작하다’는 모종 따위가 빽빽이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932) ‘영등굿’은 어부와 해녀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를 말한다.
1933) 이순자 구술.

사람은 잘 지켜. '영등할망' 온 때 빨래해서 널면 구더기 인다고 해서 못하게 하지. 그래서 저 들밭에 가서 널어.

2) 경칩

개구리 나오는 날? 멩꽁이 나오는 거. 경칩 뒈민 다 나오잖아.[1934] 얼음 풀린다는 말이 경칩이.[1935]

개구리 나오는 날? 맹꽁이 나오는 거. 경칩 되면 다 나오잖아. 얼음 풀린다는 말이 경칩이.

□ 3월

1) 한식

한식 명질도 헌덴 허는디 여긴 안 헤봔. 한식이엔 허민 어디 담이나 헐어졋는가 헤근에[1936] 산에 강 손보고. 음식 출령 산으로덜 강 제지내는 사름도 잘 갑니다게.[1937]

한식 명질도 한다고 하는데 여긴 안 해봤어. 한식이라고 하면 어디 '담'[1938]이나

1934) 이순자 구술.
1935) 김여권 구술.
1936) 김여권 구술.
1937) 이순자 구술.

허물어졌는가 해서 산에 가서 손보고. 음식 차려서 산으로들 가서 제지내는 사람도 잘 갑니다.

• **묘제**

요번에 우리도 큰 묘제덜 헷수다. 이십삼일날 묘제덜 헷주게.[1939] (묘제는) 봄에도 허곡 가을에도 허는 집이 잇고 경 헙니다게. 우리 제주도는 봄에 헤도 큰 시제는 가을에 허느녜.[1940] 요번이 시제 때 종손네 물꾸럭 헤십디다. ᄀᆞ져온 것이 보난 물꾸럭적. 작년도 시제 때에 물꾸럭적에, 소고기적에, 뒈지고기적 세 가지 헤십디다게. 건 잘 ᄎᆞᆯ린 거라. 이 사름네도 육지 강 (묘제렌) 김해 수로왕 제사에 가는 거고.[1941]

요번에 우리도 큰 묘제들 했습니다. 이십삼일 묘제들 했지. (묘제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는 집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봄에 해도 큰 시제는 가을에 해. 요번에 시제 때 종손네 문어 했습디다. 가져온 것이 보니깐 문어적. 작년도 시제 때에 문어적에, 소고기적에, 돼지고기적 세 가지 했습디다. 건 잘 차린 거야. 이 사람네도 육지 가서 (묘제라고) 김해 수로왕 제사에 가는 거고.

2) 청명

한식 청명 오일날일 거우다. 청명 때도 산에 강 손볼 사름은 손보고.[1942]

1938) '담'은 여기서 '산담'을 이르며 무덤 주위로 네모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1939) 이순자 구술.
1940) 김여권 구술.
1941) 이순자 구술.
1942) 이순자 구술.

한식이나 청명은 거의 ᄀᆞ찌.[1943]

한식 청명 오일일 것입니다. 청명 때도 산에 가서 손볼 사람은 손보고. 한식이나 청명은 거의 같이.

□ 4월

1) 사월 초파일

사월 초파일날은 절간에 가는 날, 절간에덜 다 갑니다. 우린 절간엔 안 뎅겸수다게. 씨어멍도 완 보난 절간에 안 뎅겸고, 친정에서도 안 뎅겻고. 그자 할망당 한 가지. 우린 ᄆᆞ음으로 절간을 믿엄수다게. (그날은) 어린아이 머리 가끄믄[1944] 까맣게 머리 잘 난덴 허영 어린아기 머리 가끄곡.[1945]

사월 초파일은 절에 가는 날, 절에들 다 갑니다. 우린 절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와서 보니깐 절에 안 다니고 있고, 친정에서도 안 다녔고. 그저 '할망당'[1946] 한 가지. 우린 마음으로 절을 믿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린아이 머리 깎으면 까맣게 머리 잘 난다고 해서 어린아이 머리 깎고.

2) 입하

1943) 김여권 구술.
1944) 이순자 구술.
1945) 김여권 구술.
1946) '할망당'은 아기의 생육을 관장하는 '삼승할망'을 모시는 당을 말한다.

건 여름이엔 허는 말이주게. 여름 들어온덴 허는 말.[1947]

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이지. 여름 들어온다고 하는 말.

□ 5월

1) 단오

옛날엔 단오 명질 헌덴 헤도 이젠 그런 행사헤 보지 못허여. 집이서도 헤보도 못허고, 생활이 넉넉헤사 허주게, 살기가 바쁜디. 이 동네는 그런 거 헌덴 헤도 생활이 넉넉허질 못헤 노니까. 일곱 술ᄀᆞᆯ지 옷도 안 입언 살고렌 허난게.[1948] 우리 헤 보도 안허고 말만 들엇주. 오월 단오 때 쑥 비어다근에 ᄆᆞᆯ령 놔두민 무슨 일이 생기민 그 쑥 솖아근에 걸로 ᄇᆞᆯ르곡 모욕허곡 허민 그게 큰 약이엔 헙디다게.[1949]

옛날엔 단오 명질 한다고 해도 이젠 그런 행사해 보지 못해. 집에서도 해 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넉넉해야 하지, 살기가 바쁜데. 이 동네는 그런 거 한다고 해도 생활이 넉넉하질 못해 놓으니까. 일곱 살까지 옷도 안 입고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 해 보지도 않고 말만 들었지. 오월 단오 때 쑥 베어다가 말려서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쑥 삶아서 걸로 바르고 목욕하고 하면 그게 큰 약이라고 합디다.

1947) 김여권 구술.
1948) 김여권 구술.
1949) 이순자 구술.

2) 망종

망종 뒈민 보리 다 익엉 보리 비는 거. 망종 넘으민 보리가 다 꼬부져근에 비지 못허여. 망종 전에 비어야 뒈어. 마농도 꼭ᄀᆞ따. 망종 전에 그걸 메야 뒈고, 수확도 헤야 뒈고. 망종 넘엉은 개판이주게, 비질 못허주게. 문 짜부라져 불고. 옛날부떠 보리 허는 사름덜은 (망종) 기준 잡아근에 아무 때 비어 불어사 헐로구나 허영. 망종 뒈민 보리가 익지 안허난 비어 불라. 게난 보리나 마농은 시기가 꼭ᄀᆞ뜨난에 보리, 마농 수확 같은 거는 같이덜 허영 망종 전에 헤삽니다. 망종 넘으믄 안 뒈어. 콩, 감자, 감제 심으나.[1950]

망종 되면 보리 다 익어서 보리 베는 거. 망종 넘으면 보리가 다 꼬부라져서 베지 못해. 망종 전에 베야 돼. 마늘도 똑같아. 망종 전에 매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망종 넘어서는 개판이지, 베질 못하지. 몽땅 짜부라져 버리고. 옛날부터 보리 하는 사람들은 (망종) 기준 잡아서 아무 때 베 버려야 하겠구나 해. 망종 되면 보리가 익지 않으니깐 베어 버려라. 그러니깐 보리나 마늘은 시기가 똑같으니까 보리, 마농 수확 같은 거는 같이들 해서 망종 전에 해야 합니다. 망종 넘으면 안 돼. 콩, 감자, 고구마 심거나.

3) 하지

하지엔 허믄 여름이주게, 여름이 온 거난에.[1951]

하지라고 하면 여름이지, 여름이 온 거니까.

1950) 이순자 구술.
1951) 김여권 구술.

4) 생업

(1) 고구마 농사

감전 오월 장마에 싱그고. 이젠 고구마 아무 때라도 심는디, 전이 하영 헐 땐 해 장마에 싱급디다게. 보리 끗낭 보리그르에 싱그는 거난.[1952] 그 절기에 따랑 보리가 끗나면은 고구마 바로 들어가야.[1953] 이만큼씩 큽니다게. 게민 (줄거리) 세 개도 끈곡 두 개도 끈곡 허영. 혼 삼십 센치 뒈어도 뒈고. 영 이 줄거리 삼십 센치씩 싱그지 안헙니까? 그 마디마디 순이 잇수다. 마디마디에서 감자 뿌리가 생경 들어.[1954] 게난 그 뿌리도 잇고 마디에 열매도 만들어지고, 미깡낭 열매 열 듯이 그 입마다.[1955]

고구마는 오월 장마에 심고. 이젠 고구마 아무 때라도 심는데, 전에 많이 할 때는 많이 장마에 심습디다. 보리 끝나서 '보리그르'[1956]에 심는 거니깐. 그 절기에 따라서 보리가 끝나면은 고구마 바로 들어가야 이만큼씩 큽니다. 그러면 (줄거리) 세 개도 끊고 두 개도 끊고 해서. 한 삼십 센티 되어도 되고. 이렇게 이 줄거리 삼십 센티씩 심지 않습니까? 그 마디마디 순이 있습니다. 마디마디에서 고구마 뿌리가 생겨서 들어. 그러니까 그 뿌리도 있고 마디에 열매도 만들어지고, 귤나무 열매 열 듯이 그 잎마다.

1952) 이순자 구술.
1953) 김여권 구술.
1954) 이순자 구술.
1955) 김여권 구술.
1956) '보리그르'는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⑵ 콩 농사

오월 장마 넘어가민 콩 갈고, 오월 장마에도양, 일기 보멍양, 콩덜은 막 갈아낫어.[1957]

오월 장마 지나가면 콩 갈고, 오월 장마에도요, 일기 보면서요, 콩들은 마구 갈았었어.

□ 6월

1) ᄃᆞᆨ 잡아먹는 날

일 년 내내 유월 스무날 전에 우리가 막 힘들게 밧디 강 농살 지엄수게. 조 나민 검질 다 메곡 허민 막 힘들엉. 게난 이녁냥으로 ᄃᆞᆨ 질롸, ᄃᆞᆨ이 눌 트멍에서 ᄃᆞᆨ세길 나민 정월이나 이월이나 새낄 까민[1958] 정월 비에기가 뒈긴 뒈는디.[1959] 게민 유월 스무날 뒈도록 키우민양, 충분 먹게 큽니다게. 장ᄃᆞᆨ이영 암ᄐᆞᆨ이영 다 골로로. 유월 스무날은 일, 농사 거의 헌 때라. ᄃᆞᆨ덜 잡앙 먹어근에 보기허는 겁주게. ᄒᆞᆫ ᄆᆞ리씩만 먹게만 뒈민 (좋고) 빙아리 꿰왕 놀암시민[1960] 똥소로기나 ᄒᆞ나씩 차갈 땐 차가. 경 안허민양 자연으로 두 자리도 키우고, 세 자리도 키우민양, 눌 트멍에 가민 ᄆᆞᆫ딱 ᄃᆞᆨ세기라.

1957) 이순자 구술.
1958) 이순자 구술.
1959) 김여권 구술.
1960) 김여권 구술.

문직아져. 눌 트멍에서 경 납디다게. 쉐 질루난에 쉐촐, 눌마다 멧 눌을 눕니다게, 눌왓디양. 아이고 비에기 친정에서도 막 하영 키와낫수다. 우리 친정이 살 땐 그 독덜 눈에 박아졈서. 막 하영덜 자연으로 풀어놩 키왕덜양. 유월 스무날 뒈민 무조건 잡앙 먹을락이라. 그전에는 이녁만씩 잡안 먹엇주게. 이젠 푸는 독이 나오난 집이서덜 사당덜 먹고. 우린 회관에서덜, 노인회에서 독들 잡앙 전부덜 모영 먹읍니다게. 신평회관에서 독덜 잡앙 죽덜 쑤고. 아침이덜 강 숢곡, 촐리곡 헤근에, 죽 쒀근에 경로당이서도 먹곡 경헌디 우리 회관에서 먹건 진 오래뒈언.[1961)]

일 년 내내 유월 스무날 전에 우리가 아주 힘들게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 나면 김 다 매고 하면 아주 힘들어서. 그러니깐 이녁대로 닭 길러서, 닭이 가리 틈에서 달걀을 낳으면 정월이나 이월이나 새낄 까면 정월 병아리가 되긴 되는데. 그러면 유월 스무날 되도록 키우면요, 충분 먹게 큽니다. 장닭이랑 암탉이랑 다 골고루. 유월 스무날은 일, 농사 거의 한 때야. 닭들 잡아먹어서 보신하는 겁지요. 한 마리씩만 먹게만 되면 (좋고) 병아리 깨워서 놀고 있으면 솔개나 하나씩 채갈 땐 채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으로 두 자리도 키우고, 세 자리도 키우면요, 가리 틈에 가면 몽땅 달걀이야. 만질 수 있어. 가리 틈에서 그렇게 낳습디다. 소 기르니깐 소꼴, 가리마다 몇 가리를 가립니다, 촐밭에요. 아이고 병아리 친정에서도 아주 많이 키웠었습니다. 우리 친정에 살 땐 그 닭들 눈에 박혀. 아주 많이들 자연으로 풀어놓아서 키워서들요. 유월 스무날 되면 무조건 잡아서 먹기야. 그전에는 이녁만큼씩 잡아서 먹었지. 이젠 파는 닭이 나오니깐 집에서들 사다서들 먹고. 우린 회관에서들, 노인회에서 닭들 잡아서 전부들 모여서 먹습니다. '신평회관'에서 닭들 잡아서 죽들 쑤고. 아침에들 가서 삶고, 차리고 해서, 죽 쒀서 경로당에서도 먹고 그런데 우리 회관에서 먹은 지는 오래되었어.

1961) 이순자 구술.

• **몸보신**

삼복더위? 여름에? 그때덜토양 ᄃᆞᆨ덜 잡안 먹엇수다. 막 더울 때주게.[1962] 더워도 그거 첨 그 맛이 (좋아) 이제 ᄃᆞᆨ이 영 맛엇주게. 이제 거는 사료 멕여 부니까 맛이 옛날 거만이 엇어.[1963] 그때 ᄃᆞᆨ덜은 자연으로 키우난 (ᄃᆞᆨ이) 굼벵이여 주넹이여 벌레도 잡아먹곡 풀이고 뭐고 다 먹으니까 (ᄃᆞᆨ이) 맛이 더 좋고. 그거 다 보약이주게. 게난 우리 ᄃᆞᆨ 키우당 우리 사위 왓젠 허멍 ᄃᆞᆨ 죽이지 못허면 돌 지둘룅 죽영 잡안 멕이고 헙디다게. 게곡 그때도 먹을 것은 엇은 때난 그땐 ᄎᆞᆷ ᄃᆞᆨ을양 하영 질루난 계속 ᄃᆞᆨ은 잡안 먹언. 맛도 좋고, 보기로. 그땐 보기헐 게 아무것도 엇엇주게. ᄃᆞᆨ 사는 디도 엇곡, 뒈지고기 사는 디도 싯수가게? 집이서 키완에 먹고, 도새긴 동네서 가끔 가다근에 추렴덜 허고. 삼복더위에 해 ᄃᆞᆨ 잡안 먹엇수다게.[1964]

삼복더위? 여름에? 그때들도요 닭들 잡아서 먹었습니다. 아주 더울 때지. 더워도 그거 참 그 맛이 (좋아) 이제 닭이 영 맛없지. 이제 거는 사료 먹여 버리니까 맛이 옛날 거만큼 없어. 그때 닭들은 자연으로 키우니깐 (닭이) 굼벵이다 지렁이다 벌레도 잡아먹고 풀이고 뭐고 다 먹으니까 (닭이) 맛이 더 좋고. 그거 다 보약이지. 그러니까 우리 닭 키우다가 우리 사위 왔다고 하면서 닭 죽이지 못하면 돌 지질러서 죽여서 잡아서 먹이고 합디다. 그리고 그때도 먹을 것은 없을 때니깐 그땐 참 닭을요 많이 기르니깐 계속 닭은 잡아서 먹었어. 맛도 좋고, 보신으로. 그땐 보신할 게 아무것도 없었지. 닭 사는 데도 없고, 돼지고기 사는 데도 있습니까? 집에서 키워서 먹고, 돼진 동네서 가끔 가다가 추렴들 하고. 삼복더위에 많이 닭 잡아서 먹었습니다.

1962) 이순자 구술.
1963) 김여권 구술.
1964) 이순자 구술.

• **닭 기르기**

옛날은 (ᄃᆞᆨ장) 안 헷수다. 겐디 우리 집은 굴묵 짇는 우에 선반 메어근에 ᄃᆞᆨ 어두와 가민 그레 쫙 올라와. 재 놓고, ᄃᆞᆨ똥 싸민 서꺼근에 거름허고. ᄃᆞᆨ 질뢍은에 ᄌᆞᆷ잘 때 굴묵에덜 선반 메엉 그레 올령 놔두민 그 도독놈덜이 왕, 우리 어멍은 홀어멍이엔양, 구들에 눕곡 굴묵은 이디라도 우리 어멍 나무령 ᄃᆞᆨ 심엉 강. 우리 어멍은 나 ᄃᆞᆨ ᄃᆞ라, 나 ᄃᆞᆨ ᄃᆞ라 허멍 천리만장ᄁᆞ지 좇아가. 아는 사름입주게. 동네 청년덜 것덜 헤당 잡앙 먹고.[1965]

옛날은 (닭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굴묵'[1966] 때는 위에 선반 매어서 닭 어두워 가면 그리로 쫙 올라와. 재 놓고, 닭똥 싸면 섞어서 거름하고. 닭 길러서 잠잘 때 '굴묵'에들 선반 매서 거기에 올려서 놔두면 그 도둑놈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는 홀어머니라고요, 구들에 눕고 '굴묵'은 여기라도 우리 어머니 얕봐서 닭 잡아서 가. 우리 어머니는 내 닭 다오, 내 닭 다오 하면서 천리만리까지 쫓아가. 아는 사람입지요. 동네 청년들 그것들 해다가 잡아서 먹고.

2) 유월절

오월 장마 끗나사 유월절이주. 유월절 들민 ᄆᆞᆫ 농사도[1967] 안 뒈어. 더워근에 씨 뿌리고 헐 수가 엇어.[1968] 유월절 절기 들기 전에 농산 다 끗납주게. 콩을 가나 아무걸 헤도 유월절 들기 전에. 유월절 들어나민 막 더워. 그때에 검질은 멧수게. 검질멜 거 이시민 밧디 강 감제, 조컴질도 메고

1965) 이순자 구술.
196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967) 이순자 구술.
1968) 김여권 구술.

콩검질도 메고. 유월절에 더워도 트멍 보멍 메엇수다. 제초제여 뭐여 헤도 양 옛날은 다 손으로 멧수게. 동네 사름덜 수눌엉도 메고 이녁만도 메고.

오월 장마 끝나야 '유월절'[1969]이지. '유월절' 들면 모든 농사도 안 돼. 더워서 씨 뿌리고 할 수가 없어. '유월절' 절기 들기 전에 농산 다 끝납지요. 콩을 갈거나 아무거를 해도 '유월절' 들기 전에. '유월절' 들고 나면 아주 더워. 그때 김을 맸습니다. 김맬 거 있으면 밭에 가서 고구마, 조김도 매고, 콩김도 매고. 유월절에 더워도 틈 보면서 맸습니다. 제초제다 뭐다 해도요 옛날은 다 손으로 맸습니다. 동네 사람들 품앗이해서도 매고 이녁만도 매고.

3) 생업

(1) 조 ᄇᆞᆯ리기

섬비로 끗어난 다음에 다지는 거난게. 섬비로 끗어난 거는 고르게 씨 잘 묻어지렌 그거 허는 건디. 그땐 첨 조팟은 다 ᄇᆞᆯ렷어게. ᄆᆞᆯ로도 허고, 소로도 허고. 말 시민 말 ᄯᅳ로ᄯᅳ로 허여근에 제일 늙은 ᄆᆞᆯ, 에미만 몰앙 가민 조름에 다 좇아오주. ᄆᆞᆯ 헐 때는 어러러러러 허곡. 어러러러러 돌돌돌돌 허민 졸졸졸졸 (에미) 좇아갑니다. 소리만 어러러러러 헤가민 좇아. 쉐는 이녁만씩 다녀 부난 무꺼근에 열 지어근에 다니곡.[1970] 쉐는 쉬 으씩 으씩 무시께 무시께 영 허주게. 조 ᄇᆞᆯ릴 땐 동네 쉐덜[1971] 수눌엉도 허고, 욮집이

1969) '유월절'은 이십사절기 중 소서 전후로 몹시 더울 때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봄 농사를 마무리한다.
1970) 김여권 구술.
1971) 이순자 구술.

쉐덜 빌엉도 허고, 조팟 허젠 허믄 소도 셔야 뒈고 ᄆᆞᆯ도 ᄇᆞᆯ라야 뒈니까. 그거 여름엔 뜨거왕 밧이 재게 ᄆᆞᆯ라 불지 아녀? 밧 갈아근에 바싹 ᄆᆞᆯ라 불민 그 뿌리를 내리질 못허여. 게니까 땅을 다지면 씨가 흑 속에 들어가지만 경 아녀민 두께에 잇는 거 ᄆᆞᆯ라 버리민 씨가 나오질 못허여. 게난 ᄇᆞᆯ르민 습기가 항상 촉촉이 남아잇고, 겐디 안 ᄇᆞᆯ라 불민 ᄆᆞᆯ라 부니까 씨가 내리질 못허주게. 더위 때문에 흑 불리는 거는 거 어디고? 검은 흑 땅이니깐 그레 불려 불카 부덴 ᄇᆞᆯ리기도 허주마는 이디는 ᄆᆞᆯ라 불카 부덴, ᄆᆞᆯ라 불민 흑뎅이 뒈어 부니까 (조) 재게재게 나라고 (ᄇᆞᆯ르민) 메칠 엇이민 다 나. 흑에 따랑 틀리주. 저 이제 비행장 알드르 쪽에는 뭐 곡식 갈민 헤 먹질 못 헙주게. 우리 클 때는 그딘 곡식 뒈지도 안허고. 낫자 요멘이 나근에. 게난 비료 나난 첨 그디 농사지언 지금 헴주마는.[1972]

끙게로 끌고 난 다음에 다지는 거니깐. 끙게로 끌었던 거는 고르게 씨 잘 묻히라고 그거 하는 건데. 그땐 참 조밭은 다 밟았어. 말로도 하고, 소로도 하고. 말 있으면 말 따로따로 해서 제일 늙은 말, 어미만 몰아서 가면 꽁무니에 다 쫓아오지. 말 할 때는 '어러러러러'[1973] 하고. '어러러러러' '돌돌돌돌' 하면 졸졸졸졸 (어미) 쫓아갑니다. 소리만 '어러러러러' 하면 쫓아. 소는 이녁만큼씩 다녀 버리니깐 묶어서 열 지어서 다니고. 소는 쉬 '으씩' '으씩' '무시께' '무시께' 이렇게 하지. 조 밟을 땐 동네 소들 품앗이 하면서도 하고, 옆집의 소들 빌려서도 하고. 조밭 하려고 하면 소도 있어야 되고 말도 밟아야 되니까. 그거 여름엔 뜨거워서 밭이 재우 말라 버리지 않아? 밭 갈아서 바싹 말라 버리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땅을 다지면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뚜껑'[1974]에 있는 거 말라 버리면 씨가 나오질 못해. 그러니깐 밟으면

1972) 김여권 구술.
1973) '어러러러러'는 말을 몰 때 내는 소리이다. 이 외에도 '돌돌돌돌' 등이 있다.
1974) '두께'는 원래 뚜껑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겉흙의 의미로 쓰였다.

습기가 항상 촉촉히 남아있고, 그런데 안 밟아 버리면 말라 버리니까 씨가 내리지 못하지. 더위 때문에 흙 불리는 거는 거 어딘고? 검은 흙 땅이니깐 그리로 불려 버릴까 봐 밟기도 하지만 여기는 말라 버릴까 봐, 말라 버리면 흙덩이 돼 버리니까 (조) 재우재우 나라고 (밟으면) 며칠 없으면 다 나. 흙에 따라서 다르지. 저 비행장 '알드르'[1975] 쪽에는 뭐 곡식 갈면 해 먹질 못했습지요. 우리 클 때는 거긴 곡식 되지도 않고. 나봤자 요만큼 나서. 그러니깐 비료 나니깐 처음 거기 농사지어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2) 조 김매기

두불 시 불 멥니다게. 소까줘야 허주게.[1976] 초불 멧다근에 두불은 쉽고, 세 불은 더 쉽고. (조가) 아멩 좋아도 흔 줌씩, 손 들어가게끔 ᄉᆞ깡 뽑아불어야. (조 안 난 디) 싱거줌도 허고.[1977] 경허믄 다리 좋앙 잘 살주게.[1978]

두벌 세 벌 맵니다. 솎아줘야 하지. 애벌 맸다가 두벌은 쉽고, 세벌은 더 쉽고. (조가) 아무리 좋아도 한 줌씩, 손에 들어가게끔 솎아서 뽑아버려야. (조 안 난 데) 심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뿌리 좋아서 잘 살지.

□ 7월

1975) '알드르'는 대정읍 상모리 지명이다. 보통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1976) 이순자 구술.
1977) 김여권 구술.
1978) 이순자 구술.

1) 칠월 칠석

칠월 칠석은 아무것도 엇어. 절간에 가는 사름 (가고). 견우직녀 만난덴 허믄 그날 저녁은 하늘이나 베려 보주.[1979]

칠월 칠석은 아무것도 없어. 절간에 가는 사람 (가고). 견우직녀 만난다고 하면 그날 저녁은 하늘이나 봐 보지.

2) 모살찜

그추룩 놀 정도는 안 뒈어. 것도 한걸헤사 모살찜을 허지. 이딘 모살찜 헐 만헌 디도 엇고.[1980] 바당에 가사 허는 거주.[1981] 바당에 가도 모살찜 헐 디 저 알뜨리 비행장이나 가민 모르카. 사계 그디는 (바당이) 셔도 모래찜 헐 정도가 아니라. (모살) 훍은 거라. 저 비엥장에는 검은 모래가 지금도 남아 잇는디, 송악산 부쪄근에 새마을사업 허멍 다 긁단 써부난 뭐 셔게?[1982]

그처럼 놀 정도는 안 돼. 것도 한가해야 모래찜을 하지. 여긴 모래찜 할 만한 데도 없고. 바다에 가야 하는 거지. 바다에 가도 모래찜 할 데 저 '알드르 비행장'[1983]이나 가면 모를까. '사계'[1984] 거기는 (바다가) 있어도 모래찜 할 정도가 아니야. (모래) 굵은

1979) 이순자 구술.
1980) 김여권 구술.
1981) 이순자 구술.
1982) 김여권 구술.
1983) '알드르 비행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일본강점기에 쓰던 비행장으로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는 그 일대인 대정읍 상모리를 말하는 것 같다.

거야. 저 '비행장'에는 검은 모래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송악산'[1985] 붙여서 새마을사업 하면서 다 갖다가 써버리니까 뭐 있어?

3) 백중

백중이엔 허면은 바다에 놀레 가는 거벳기 더 셔게? 제가 잇젠 허믄 바다가 잇어야 백중도 허고 물도 맞곡 허주.[1986] 몸이 ᄀᆞ려운 것도 엇어지고, 부스럼지도 안 나고 (몸에) 막 좋덴 헤근에 백중날은 물맞으레덜 감수게. 우린 산간이난에 검질 부지런이 메여뒁 백중에 바당에 가야 뒈어. 백중날 가젠 ᄉᆞ못 일을 ᄎᆞᆯ렴수가게? 게민 우린 바당이 강 모욕허곡.[1987] 그날은 다 놀아. 헤벤 사름도 농사짓는 사름은 검질메고 이것저것 허당 보믄 (매날) 갈 수 엇엉 백중날이라야 다 놀주.[1988] 백중날은 물도 쌀 때, 백중날은 열나흘날 아니꽈게. 이디선 보름 여섯, 그믐 여섯 헙니다게. 경허민 열나흘날이 제일 물이 잘 싸는 날. 물이 싹 내려가 불민 바르에 구제기덜토 돌트멍에 손 영 드밀민 거 ᄆᆞᆫ직아져. 구제기고 바르고 잡는 것도 많아. 어두와가민, 물이 들어와가민 와불주. 그전인 오지 못헙니다게. 바당이서만 살아야 뒈어. (물이) ᄒᆞᆫ엇이 높으지 아니허여. 우리 서림 갑니다게.[1989] 무사 서림 가느냐 허면 거 원담이 잇어근에 바다 가까이 사는 사름덜은 멜 거리기 좋게 원담을 만들엉[1990] 멜 들민 멜 거려당 먹엇주게.[1991] 그디 안에는

1984) '사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1985) '송악산'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남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1986) 김여권 구술.
1987) 이순자 구술.
1988) 김여권 구술.
1989) 이순자 구술.
1990) 김여권 구술.
1991) 이순자 구술.

보말도 하곡 구제기도 하곡 전복도 하곡 허니까 (백중 때) 서림으로 주로 가주게. 그 원이, 원담이 상당이 여러 개라. 대정에서도 서림만 원담이 잇주게, 다른 딘 없어.[1992]

'백중'[1993]이라고 하면은 바다에 놀러 가는 것밖에 더 있어? 제가 있으려고 하면 바다가 있어야 '백중'도 하고 물도 맞고 하지. 몸이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부스럼도 안 나고 (몸에) 아주 좋다고 해서 '백중날'은 물맞으러들 가고 있습니다. 우린 산간이니깐 김 부지런히 매어두고서 '백중'에 바다에 가야 돼. '백중날' 가려고 사뭇 일을 차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바다에 가서 목욕하고. 그날은 다 놀아. 해변 사람도 농사짓는 사람은 김매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맨날) 갈 수 없어서 '백중날'이어야 다 놀지. '백중날'은 물도 썰 때, '백중날'은 열나흗날 아닙니까. 여기선 보름 여섯, 그믐 여섯 합니다. 그러면 열나흗날이 제일 물이 잘 써는 날. 물이 싹 내려가 버리면 바다에 소라들도 돌틈에 손 이렇게 들이밀면 거 만질 수 있어. 소라고 떡조개고 잡는 것도 많아. 어두워지면, 물이 밀어오면 와버리지. 그전엔 오지 못합니다. 바다에서만 살아야 돼. (물이) 한없이 높지 않아. 우리 '서림'[1994] 갑니다. 왜 '서림' 가느냐 하면 거 '원담'[1995]이 있어서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멸치 뜨기 좋게 '원담'을 만들어서 멸치 떠다가 먹었지. 거기 안에는 고둥도 많고 소라도 많고 전복도 많고 하니까 (백중 때) '서림'으로 주로 가지. 그 '원'이, '원담'이 상당히 여러 개야. 대정에서도 '서림'만 '원담'이 있지, 다른 덴 없어.

1992) 김여권 구술.

1993) '백중'은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마소의 번성을 위하여 지내는 '백중제'를 달리 표현한 말이거나 그 날을 말한다. '백중날'은 음력 7월 14일이며, 제는 당일 자정에 깨끗한 동산이나 제단에서 치러진다.

1994) '서림'은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리를 말한다.

1995)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4) 처서

백중 처서 끗나민 풀이 다 꼬부라졍 나오당도 들어가 분덴 허여근에 검질멜 것도 엇어. 크질 못허여. 놀락이주게. 계절이 백중 전에는 잘 크고. 처서 뒈어 가민 아메도 추워가난에 크지도 못허고 나지도 안허고.[1996] 얼어근에 풀이 나질 아니헌덴 말이주게.[1997]

백중 처서 끝나면 풀이 다 꼬부라져서 나오다가도 들어가버린다고 해서 김맬 것도 없어. 크질 못하지. 놀기지. 계절이 백중 전에는 잘 크고. 처서 돼 가면 아무래도 추워가니깐 크지도 못하고 나지도 않고. 얼어서 풀이 나질 않는다는 말이지.

□ 8월

1) 벌초

처서 지나민 벌초헐 때주.[1998] 각 파별로 모둠벌초가 잇고. 우리 선묘는 입도 이대 조, 삼대 조까지는 모여서 제도 지내고. 모둠벌초는 제일 먼저 허기가 선산, 입도조 하르버지부떠 시작헤 가지고 산담도 허고 손볼 거 이시민 다 손보고.[1999] 작년에도 모이난에 올리덜 벌초허고 잔디 심고 총회도 거기서덜 허고.[2000] 우리 입도조는 백 명도 모이고 전부 모영 벌초

1996) 이순자 구술.
1997) 김여권 구술.
1998) 이순자 구술.
1999) 김여권 구술.

끗나민 개인벌초 나가고. 우리 집이나 다른 집이나 마찬가지.[2001] 개인벌초는게 이녁 가족만 허는 거난. 자기만씩 허는 거난 (산이) 모이지 안허영. 자기만씩 책임질 벌초는 (8촌 이상) 자손이 없는 거주게. 가족벌초는 가족만 잇는 벌초니까.[2002]

처서 지나면 벌초할 때지. 각 파별로 '모둠벌초'[2003]가 있고. 우리 선묘는 입도 이대조, 삼대 조까지는 모여서 제도 지내고. '모둠벌초'는 제일 먼저 하기가 이 선산, '입도조'[2004]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담'[2005] 하고 손볼 거 있으면 다 손보고. 작년에도 모이니깐 올해들 벌초하고 잔디 심고 총회도 거기서들 하고. 우리 '입도조'는 백 명도 모이고 전부 모여서 벌초 끝나면 '개인벌초'[2006] 나가고. 우리 집이나 다른 집이나 마찬가지. '개인벌초'는 이녁 가족만 하는 거니깐. 자기만큼씩 하는 거니깐 (묘가) 모이지 않아서. 자기만큼씩 책임질 벌초는 (8촌 이상) 자손이 없는 거지. '가족벌초'는 가족만 있는 벌초니까.

2) 팔월 멩질

팔월 멩질은게 여름 내낭 우리 고생허영 곡식 거두와근에 조상님덜안티 고맙덴 그 곡식으로 떡허곡 메허곡 헤근에 멩질 허는 거 아니꽈게.[2007]

2000) 이순자 구술.
2001) 김여권 구술.
2002) 김여권 구술.
2003) '모둠벌초'는 문중의 집안사람이 모두 모여 행하는 벌초를 말한다.
2004) '입도조'는 제주의 본관 외에 제주도에 정착한 시조를 일컫는 말이다. 제주의 본관은 고(高)·양(梁)·부(夫) 삼성(三姓)이며 이 외 타 성씨가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2005) '산담'은 산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그렇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2006) '개인벌초'는 8촌 이내의 당 가족이 모여 행하는 벌초를 말한다. 달리 '가족벌초'라고 한다.

팔월 명질은 여름 내내 우리 고생해서 곡식 거둬서 조상님들한테 고맙다고 그 곡식으로 떡하고 메하고 해서 명질 하는 거 아닙니까.

• 멩질떡과 묵

팔월 멩질엔 쉬 놔근에 송편 즙고.[2008] 멩질허고 제사에는 생일이나 축하헐 때는 쉬를 놔서 허고. (사람) 돌아간 때는 쉬 안 노는 거고.[2009] 성복헐 때영. 겐디 요새 그거 다 지켜졈수가게. (멩질)떡은 송펜, 세미떡. 반죽 하나로 세미 멘들던지 동글락허게 송펜을 멘들던지 쉬 놔도 뒈고 안 놔도 뒈고. 빙떡은 정월 멩질에, 팔월엔 안 헙니다. 모멀묵도 허고 청묵도 허고 밀가루묵도 허고. 마음대로 이녁 허기 좋은 대로. 우린 두부도 사당헤 봣다가 (청묵은) 멧 번 막 실패허여근에 잘 안 뒈엉. 물을 못 맞추암신고라 모멀ᄀᆞ루도 좋은 걸로 사당 작년, 재작년에도 욮집이 사름 빌어단 헤도 실패헨에.[2010]

팔월 명질엔 소 넣어서 송편 접고. 명질하고 제사에는 생일이나 축하할 때는 소를 넣어서 하고. (사람) 돌아갔을 때는 소 안 넣는 거고. 성복할 때랑. 그런데 요새 그거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명질)떡은 송편, '세미떡'[2011]. 반죽 하나로 '세미' 만들든지 동그랗게 송편을 만들든지 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빙떡'[2012]은 정월 명질에, 팔월에 안 합니다. 메밀묵도 하고 '청묵'[2013]도 하고 '밀가루묵'[2014]도 하고. 마음대로

2007) 이순자 구술.
2008) 이순자 구술.
2009) 김여권 구술.
2010) 이순자 구술.
2011)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달리 '세미'라고 한다.
2012)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넓적하게 지지고는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을 말한다.

이녁 하기 좋은 대로. 우린 두부도 사다가 해 봤다가 (‘청묵’은) 몇 번 마구 실패해서 잘 안 돼서. 물을 못 맞추고 있는지 메밀가루도 좋은 걸로 사다가 작년, 재작년에도 옆집 사람 빌어다가 해도 실패했어.

• **적**

적은게 돗궤기적, 소고기적 허곡게. 새끼 전복 우리도 그거 허여낫수다. 요새 양식이라 노난 원 아무 맛덜토 엇언에.[2015] 상어도 적허여. 이디는 고래, 물꾸럭이 잘 안 나난 그런 건 별로 안 허고. 옛날이사 바닷궤기 모도리 고기도 적허곡 허영. 모도리엔 헌 고기는 아주 이만이 큰 고기거든. 거죽은 사락사락허여근에 벳기믄 그걸로 적갈도 허고. 겐디 이디 이제는 안 나. 우리 어린 때만 허더라도 가다리ᄁᆞ지 다 낫는데 안 남수다. 가파돈 가면 가다리도 잡아근에 고기 얼마나 맛 좋다고. 가다리엔 헌 고기, 이제는 씨 끈어져분 거 닮안게.[2016]

적은 돼지적, 소고기적 하고. 새끼 전복 우리도 그거 했었습니다. 요새 양식이라 놓으니깐 원 아무 맛들도 없어서. 상어도 적해. 여기는 고래, 문어가 잘 안 나니깐 그런 건 별로 안 하고. 옛날이야 바닷고기 돌묵상어 고기도 적하고 해서. 돌묵상어라고 한 고기는 아주 이만큼 큰 고기거든. 거죽은 ‘사락사락해서’[2017] 벗기면 그걸로 적도 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는 안 나.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재방어까지 다 났는데 안 나고 있습니다. 가파도는 가면 재방어도 잡아서 고기 얼마나 맛 좋다고. 재방어라고

2013) ‘청묵’은 메밀쌀을 물에 불린 후 주물러 짠 물을 끓여 만든 묵을 말한다.
2014) ‘밀가루묵’은 밀가루를 물에 불린 후 프라이판에 지져서 만든 묵을 말한다.
2015) 이순자 구술.
2016) 김여권 구술.
2017) ‘사락사락하다’는 물건의 겉이 미끄럽지 않고 좀 거칠다는 말이다.

한 고기, 이제는 씨 끊어져 버린 거 같아.

□ 9월

1) 상강

상강은 다 농사 끗낭 감제, 절간 헐 때도 상강 들민 감제 이파리가 다 죽어 불어. 경허민 감제 파근에 절간 허는 거라. 상강이 내리민 감제 팔 때주게. 상강이 얼음이라, 서리. 게난 감젯줄이양, 상강이 내리민 이파리가 거물거물헹 죽어 불민양. 감젯줄을 우리가 손으로 걷엇수게. 이 사름이영 나영 세 고지썩 잡앙 그 이파리가 거물거물 죽어불민 ᄒᆞ끔 가벼와. 경허민 양 감젓줄 허영 담 우터레 다 지쳥 쉐출 허고. 그땐 절간덜을 헷주게. 음력 구월 스무사흘날 한참 절간 헐 때. 우리는 농사도 하영 헤나고 감제도 하영 싱건 뻿데기 허멍 풀앗수다. 박정희 때에 뻿데기 헤근에 잘 풀아졍 그 후젠 못 풀단.[2018] 칠십삼 년도도 쌩고구마 주정공장이 강 풀앗저.[2019] 그 시절에도 좋은 때주. 뻿데기 허영 풀곡, 맥주보리 허영 풀아근에 밧도 사곡, 집도 사곡 헷수다. 이젠 어느 저를에 밧 삼이랑말앙, 돈 하영 벌엄젠 헤도 못 사, 아무것도.[2020]

상강은 다 농사 끝나서 고구마, 절간고구마 할 때도 상강 들면 고구마 이파리가 다 죽어 버려. 그러면 고구마 파서 절간고구마 하는 거야. 상강이 내리면 고구마 팔

2018) 이순자 구술.
2019) 김여권 구술.
2020) 이순자 구술.

때지. 상강이 얼음이야, 서리. 그러니까 고구마덩굴이요, 상강이 내리면 이파리가 거물거물해서 죽어 버리면요. 고구마덩굴을 우리가 손으로 걷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나랑 세 이랑씩 잡아서 그 이파리가 거물거물 죽어버리면 조금 가벼워. 그러면요 고구마덩굴 해서 담 위로 다 끼얹어서 소꼴 하고. 그땐 절간고구마들을 했지. 음력 구월 스무사흗날 한참 절간고구마 할 때. 우리는 농사도 많이 했었고 고구마도 많이 심어서 절간고구마 하면서 팔았습니다. 박정희 때에 절간고구마 해서 잘 팔고서 그 후엔 못 팔다가. 칠십삼 년도도 생고구마 주정공장에 가서 팔았지. 그 시절에도 좋은 때지. 절간고구마 해서 팔고, 맥주보리 해서 팔아서 밭도 사고, 집도 사고 했습니다. 이젠 어느 겨를에 밭 사기는커녕, 돈 많이 벌고 있다고 해도 못 사, 아무것도.

• 콩 수확

콩 갈기 시작허연 콩도 잘 풀안 허단 그 후젠 그 콩을 못 팔안. 이젠 콩이 잘 안 뒘수다게. 계절이 바꽈졈신지양? 여름 농사가 잘 안 뒈어. 요새에도 무신거 사당 싱그난 다 죽엄수다. 옛날엔양 거 콩 잘뒐 땐 아이고 그때는 수확도 하영 나고.

콩 갈기 시작해서 콩도 잘 팔아서 하다가 그 후에는 그 콩을 못 팔았어. 이젠 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지요? 여름 농사가 잘 안 돼. 요새에도 무엇 사다가 심으니깐 다 죽고 있습니다. 옛날엔요, 거 콩 잘될 땐 아이고 그때는 수확도 많이 나고.

□ 10월

1) 입동 · 소설

그건 겨울이엔 말 아니우꽈? 겨울 들엄젠 말이라.

그건 겨울이라는 말 아닙니까? 겨울 들고 있다는 말이야.

□ 11월

1) 동지

동짓날은게 밤이 진 날 아니냐게.[2021] 동지 전이는 막 해가 ᄌᆞᆯ르당 동지만 넘으민 바늘질와치, 옷 멘드는 와치가 실을 ᄒᆞᆫ 재씩 늘어난덴. 동지 전인 밤이 막 ᄌᆞᆯ르주게. 동지 넘어사 바늘질와치 (씰이) 조금씩 조금씩 진덴 말이주게. 게곡 동짓날은 ᄑᆞᆺ죽 쒕 먹는 날인디, 어떠난산디 그날은 꼭 ᄑᆞᆺ죽을 쒄 먹언게. 옛날은양, 비림 가시곡 헌덴 먹고[2022]

동짓날은 밤이 긴 날 아니니. 동지 전에는 아주 해가 짧다가 동지만 넘으면 바느질꾼, 옷 만드는 꾼이 실을 한 자씩 늘어난다고. 동지 전에는 밤이 아주 짧지. 동지 넘어야 바느질꾼 (실이) 조금씩 조금씩 길다는 말이지. 그리고 동짓날은 팥죽 쒀서 먹는 날인데, 왜인지 그날은 꼭 팥죽을 쒀서 먹었어. 옛날은요, '비림'[2023] 가시고 한다고 먹고.

2021) 김여권 구술.
2022) 이순자 구술.
2023) '비리다'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죽은 동물을 봐서 부정하다는 뜻이다.

• **동지 풋죽**

풋 솖앙 막 영 는대주게, 다 깨어지게. 풋 솖앙 밥우금 ᄀᆞ뜬 걸로 막 으깨어근에 쏠 놔근에 죽을 쒕 먹는디. 옛날엔 믹서기도 엇인 때난 납작헌 우금으로게 영 영 헤가민 다 으깨어질 거 아니우꽈? 이젠 믹서기로도 ᄀᆞᆫ덴 헙디다게. (풋 껍데기) 걸렁 먹는 사름은 경 으깨어 놔근에 걸르는 거라. 소쿠리에 놔근에 헤면은 알멩이만 빠지고. 걸르지 안헤도 맛 좋아마씨. 죽 쒕게. 소금 놔사주. 옛날엔 것도 별미로 먹어실 거라.[2024]

팥 삶아서 마구 이렇게 젓지, 다 깨어지게. 팥 삶아서 밥주걱 같은 걸로 마구 으깨어서 쌀 넣어서 죽을 쒀서 먹는데. 옛날엔 믹서기도 없을 때니까 납작한 밥주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으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젠 믹서기로도 간다고 합디다. (팥 껍데기) 걸러서 먹는 사람은 그렇게 으깨어 놔서 거르는 거야. 소쿠리에 놔서 하면 알맹이만 빠지고. 거르지 않아도 맛 좋아요. 죽 쒀서 소금 넣어야지. 옛날엔 것도 별미로 먹었을 거야.

2) 새 장만

집 일젠 허믄[2025] 새왓이 잇주게. 자기만씩 새왓. 거 관리헤야 뒈주게. 겐디 우리 대정에는 ᄋᆞ라 군데라. 본래 새만 키우는 디가 잇주게. 모슬봉 뒤에는 다섯 곤덴가 뒈어. 이디 보믄 새가 광대왓 새왓이고, 또 요디 알동네 가믄 큰 새왓이 잇고 거 얼마나 넙은지.[2026]

2024) 이순자 구술.
2025) 이순자 구술.
2026) 김여권 구술.

집 이려고 하면 띠밭이 있지. 자기만큼씩 띠밭. 거 관리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 '대정'[2027]에는 여러 군데야. 본래 띠만 키우는 데가 있지. '모슬봉'[2028] 뒤에는 다섯 군데가 돼. 여기 보면 띠가 '광대왓'[2029] 띠밭이고, 또 요기 '알동네' 가면 큰 띠밭이 있고 거 얼마나 넓은지.

• 집줄 장만

줄 새로, 각단으로 줄호롱이 놔근에. 짧은 새를 각단이엔 허고 긴 건 지붕 우에 올라가고. 줄 노는 사람이 앚앙 돌리고. 호롱이 헤근에 뱅뱅뱅뱅 돌려 가면은 앚은 사름은 새 헤근에 그자 맞암직이 굵기가 맞게 영 멕이는 거주. (줄은) 집에 맞추앙예.[2030] 질게 ᄋᆞ라 개 헤사주. 진줄, ᄌᆞ른줄 영 메곡 영 메곡.[2031] 간격 허면은 한 삼십, 이십 전 간격으로 허야 뒈나? 삼십 전은 (집 넓이보다) ᄒᆞ끔 넘고, ᄒᆞᆫ 이십 전 간격이나.[2032]

'줄'[2033] 띠로, '각단'[2034]으로 '줄호롱이'[2035] 놔서. 짧은 띠를 '각단'이라고 하고 긴 건 지붕 위에 올라가고. 줄 놓는 사람이 앉아서 돌리고. '호롱이' 해서 뱅뱅뱅뱅 돌려 가면 앉은 사람은 띠 해서 그저 맞게끔 굵기가 맞게 이렇게 드리는 거지. ('줄'은) 집에 맞춰서요. 길게 여러 개 해야지. '진줄'[2036], 'ᄌᆞ른줄'[2037] 이렇게 매고 이렇게

2027)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을 일컫는 말이다.
2028) '모슬봉'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2029) '광대왓'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지명을 말한다.
2030) 김여권 구술.
2031) 이순자 구술.
2032) 김여권 구술.
2033) '줄'은 초가지붕을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2034)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2035) '줄호롱이'는 초가지붕을 이는 새끼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달리 '호롱이'라고도 한다.
2036) '진줄'은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기다란 줄을 말한다.

매고. 간격 하면은 한 삼십, 이십 '전'[2038] 간격으로 해야 되나? 삼십 센티미터는 (집 넓이보다) 조금 넘고, 한 이십 센티미터 간격이나.

• 지붕이기

가을에 새 비어다근에 눌엇다근에 오월 장마 오기 전에, 봄에 일주게. 봄에는 좀 한걸헌 때거든. 그때는 곡식도 씨만 뿌리고 영 허니까. 이월, 이삼월, 집 이는 날은 ᄇᆞ름 잔 날 허고. 집 일 때는 지붕 우이 두 사름 올라가고 밑에도 두 사름 허고 허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은 필요허여. 줄 메는 사람은게 남쪽에 한 사람, 북쪽에 한 사람 헤서 땡겨줘야 뒈고, 우에 올라간 사름은 긴 거는 또 놔 주고. ᄒᆞᆫ 사람은 그자 여유잇게 이것저것 ᄀᆞᆺ다주는 사람으로, 심부름허는 사람 셔야주. 줄 메는 사름이 새 올리는 거난 다섯 사람은 셔사게. 아니민 네 사름이 허는 거주마는 두 사름은 못 허여.[2039]

가을에 띠 베어다가 가리었다가 오월 장마 오기 전에, 봄에 이지. 봄에는 좀 한가할 때거든. 그때는 곡식도 씨만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월, 이삼월, 집 이는 날은 바람 잔 날 하고. 집 일 때는 지붕 위에 두 사람 올라가고 밑에도 두 사람 하고 하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은 필요해. 줄 매는 사람은 남쪽에 한 사람, 북쪽에 한 사람 해서 당겨줘야 되고, 위에 올라간 사람은 긴 거는 또 놓아 주고. 한 사람은 그저 여유있게 이것저것 갖다주는 사람으로, 심부름하는 사람 있어야지. 줄 매는 사람이 띠 올리는 거니깐 다섯 사람은 있어야. 아니면 네 사람이 하는 거지마는 두 사람은 못 해.

2037) 'ᄌᆞ른줄'은 각단으로 만들어서 초가지붕을 얽어매는 짧은 줄을 말한다.
2038) '전'은 일본식 길이 단위로 센티미터(cm)를 뜻하는 건축 용어이다. 여기서 '이십 전'은 이십 센티미터를 말한다.
2039) 김여권 구술.

□ 12월

1) 장 담기

장이사 우리 매년 장 담감수게. 이녁낭으로 콩 갈아근에 가을 뒈민 (콩) 비어당 장만허영.[2040] 하늬ᄇᆞ름 불어근에 추운 때,[2041] 시월엔 솖으민 더웡 버렝이 일어 불어. 겨울에, 동짓ᄃᆞᆯ에 그 콩으로 솟디 놩 푹 솖앙. 영 먹어 보민 멜싹멜싹허민 소쿠리 받앙 건졍 그거를 방엣혹에 놩 뿟든지, 요새엔 비니루에 담앙 발로 ᄇᆞᆯ랑 허는디, 신식 영 영 믹서기가 시난 콩방울 엇게 믹서기로 ᄀᆞᆯ앙 메주 만들앙. 메주가 자기 ᄆᆞ음대로 족영 멘들민 수정이 하고, 흙으게 멘들민 (족고). 난 열 개 멘들고. 짝글르게 멘들민 안 뒈어. 짝을 맞추앙 ᄋᆞ답 개, ᄋᆞ섯 개, 네 개, 열 개 경 헤사주. 다섯 개나 세 개, 아홉 개 그추룩 안 헙니다게. 경 허영 멘들앙 창고에 영 ᄒᆞ끔 노프게 허영은에 페왕 그디 ᄆᆞᆫ딱 놔근에 찍 우이 더꺼근에 헌 옷을 살짝 더껑 놔두민 ᄒᆞᆫ 열흘 시민 하얀 솜털이 올라옵니다게. ᄒᆞ끔 더 잇다근에 하얀 솜털이 길게 올라오민 그것을 딱 우인 걷어 불어야 뒈어. 경 아니헹 내불민 시커멍헤 불어. 게난 싹 걷어 불민 ᄎᆞᄎᆞᄎᆞᄎᆞ 흰 솜털이 엇어져 가멍 메주가 ᄆᆞᆯ라. ᄒᆞᆫ ᄃᆞᆯ 넘게 그걸 그 자리서 ᄆᆞᆯ립니다. (흰 곰팡이) 걷엉 내불민 ᄆᆞᆯ라 가멍 터 가멍 소곱까지 트민 섣ᄃᆞᆯ그뭄, 섣ᄃᆞᆯ ᄒᆞᆫ 스무날 뒈 가민. 그것이 바짝 ᄆᆞᆯ르민 이젠 깨끗허게 싯어근에 물 빠주왓당 콩이 한 말이민 소금이 석 뒈 이제 장 담아. 육지 사름덜은 상ᄃᆞᆯ에 담아, 정월에. 겐디 우리 제주돈 섣ᄃᆞᆯ그믐 넘질 안허주. 섣ᄃᆞᆯ그믐 전에 ᄆᆞᆯ날 봉강 담아. ᄆᆞᆯ날이

2040) 이순자 구술.
2041) 김여권 구술.

제일 존 날이엔. 그 날 봐근에 담암수게. 메준 메주대로 꺼내어근에 뒌장을 만들고, 간장은 간장대로 끌여근에 간장 멘들고 경 헹 먹엄수게. 콩 ᄒᆞᆫ 말이민 소금 석 뒈. 경 허민 장물이 ᄒᆞ끔 짬직허민 소금을 ᄒᆞ끔 덜 놔근에. 난 ᄒᆞᆫ 두 뒈 반쯤 놤실 거우다. 소금 ᄒᆞᆫ 말에 바가쓰로 물 두 개 멘들아져. 두 개 멘들아근에 딱 항아리에 맞추아근에 담앙 놔두민, 거기 파리롱헌 초기가 뜨민 장이 맛존 거라. 초기가 안 떵 희뚜룩허민 장이 변허는 거라. 경허민 소금이 족암구나 헹 험벅에 소금 쌍 강 그레 톡 허게 들이치민 (좋아).[2042]

장이야 우리 매년 장 담그고 있습니다. 이녁대로 콩 갈아서 가을 되면 (콩) 베어다가 장만해서. 하늬바람 불어서 추울 때, 시월엔 삶으면 더워서 벌레 일어 버려. 겨울에, 동짓달에 그 콩으로 솥에 넣고 푹 삶아서. 이렇게 먹어 보면 물렁물렁하면 소쿠리 받아서 떠서 그거를 방아확에 넣어서 빻든지, 요새엔 비닐에 담아서 발로 밟아서 하는데, 신식 이렇게 이렇게 믹서기가 있으니까 콩알 없게 믹서기로 갈아서 메주 만들어서. 메주가 자기 마음대로 작게 만들면 수가 많고, 굵게 만들면 (적고). 난 열 개 만들고. '짝글르게'[2043] 만들면 안 돼. 짝을 맞춰서 여덟 개, 여섯 개, 네 개, 열 개 그렇게 해야지. 다섯 개나 세 개, 아홉 개 그처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창고에 이렇게 조금 높게 해서 펴서 거기 몽땅 놓아서 짚 위에 덮어서 헌 옷을 살짝 덮어 놔두면 한 열흘 있으면 하얀 솜털이 올라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얀 솜털이 길게 올라오면 그것을 딱 위엔 걷어 버려야 돼. 그렇지 않아서 내 버리면 시커메 버려. 그러니깐 싹 걷어 버리면 차차차차 흰 솜털이 없어져 가면서 메주가 말라. 한 달 넘게 그걸 그 자리에서 말립니다. (흰 곰팡이) 걷어서 내 버리면 말라 가면서 떠 가면서 속까지

2042) 이순자 구술.
2043) '짝글르다'는 물건의 개수가 짝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짝수의 의미로 쓰였다.

뜨면 섣달그믐, 섣달 한 스무날 돼 가면. 그것이 바짝 마르면 이젠 깨끗하게 씻어서 물 빼줬다가 콩이 한 말이면 소금이 석 되 이제 장 담가. 육지 사람들은 '상둘'[2044]에 담가, 정월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섣달그믐 넘질 않지. 섣달그믐 전에 말날 선택해서 담가. 말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그날 봐서 담고 있습니다. 메주는 메주대로 꺼내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은 간장대로 끓여서 간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콩 한 말이면 소금 석 되. 그렇게 하면 장물이 조금 짤 것 같으면 소금을 조금 덜 넣어서. 난 한 두 되 반쯤 놓고 있을 겁니다. 소금 한 말에 바가지로 물 두 개 만들 수 있어. 두 개 만들어서 딱 항아리에 맞춰서 담가 놔두면, 거기 파란 버섯이 뜨면 장이 맛좋은 거야. 버섯이 안 떠서 희읍스름하면 장이 변한 거야. 그러면 소금이 적었구나 해서 헝겊에 소금 싸고 가서 거기에 톡하게 들이뜨리면 (좋아).

• 장 분리

분리? 섣둘그믐에 장 담으민 이월, 난 삼월에 거련. (뒌장 간장) 홈치. 뒌장은 뒌장대로 막 주물러근에 항아리에 담고. 뒌장 건졍 내불민 장물이 나올 거 아니우꽈? 게민 장물은 큰 솟 가졍 강 뚜로 놔근에 끌여. 끌이지 안허민 변헤 붑니다게. 솥에 놩 끌여야. 이젠 간장대로 허영 놩 가스불에 끌여. 난 이제 끌영은에 음료수병으로 으답 병 놔둠서 먹엄수게. 게민 변허질 안허여.[2045]

분리? 섣달그믐에 장 담그면 이월, 난 삼월에 떴어. (된장 간장) 함께. 된장은 된장대로 마구 주물러서 항아리에 담고. 된장 건져서 내버리면 간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장은 큰 솥 가지고 가서 따로 넣어서 끓여. 끓이지 않으면 변해 버립니다.

2044) '상둘'은 음력 1월을 말한다. 신에게 새로난 곡식을 드리는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1월이 가장 으뜸이 되는 달이라고 하여 '상둘'이라고 한다.
2045) 이순자 구술.

솥에 넣어서 끓여야. 이젠 간장대로 해서 넣어서 가스불에 끓여. 난 이제 끓여서 음료수 병으로 여덟 병 놔두고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질 않아.

2) 신구간

신구간은 멩질 전에 대한 후 일뤠, 그다음은 샛절 들어.[2046] 입춘 전 삼일 정도.[2047] 신구간엔양, 귀신이 다 하늘나라에 가 불언. 가분 때난 집안에 일덜은 그 사이에 일렛 동안 집수리도 허고 낭도 끈곡 돌담도 닿곡 경 헴수게. 이 집안에 엿날덜은양, ᄆᆞ음대로 손덜 못 봐수게. 집 고치젠 허민 딴 땐 동티 나난. 사름이 막 아프고.[2048] 갑자기 사람이 쓰러졍 죽는 게 동티렌 허주.[2049] 모든 것이 담이나 낭이나 끊게 뒈어도 ᄆᆞ음대로 못 끈어나수게. 돗통은 아무 때나 손 못 봣주. 천리도, 이장도 허고 신구간에 ᄆᆞᆫ딱 일 ᄎᆞᆯ려수게. 게난 이사도 허고, 이제도 이사허는 건 잇수게. 옛날엔 동티 난덴 허멍양 경 헙디다게. 우린 올리도 저 은행낭 끈엇수다.[2050]

신구간은 명질 전에 대한 후 이레, 그다음은 입춘 들어. 입춘 전 삼일 정도. 신구간에는요, 귀신이 다 하늘나라에 가 버려. 가 버린 때니깐 집안의 일들은 그 사이에 이레 동안 집수리도 하고 나무도 끊고 돌담도 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옛날들은요, 마음대로 손들 못 봤습니다. 집 고치려고 하면 딴 땐 동티 나니깐. 사람이 마구 아프고 갑자기 사람이 쓰려져서 죽는 게 동티라고 하지. 모든 것이 담이나 나무나 자르

2046) 이순자 구술.
2047) 김여권 구술.
2048) 이순자 구술.
2049) 김여권 구술.
2050) 이순자 구술.

게 되어도 마음대로 못 잘랐습니다. 돼지우리는 아무 때나 손 못 봤지. 천리도, 이장도 신구간에 몽땅 일 차렸습니다. 이사도 하고, 이제도 이사하는 건 있습니다. 옛날엔 동티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합디다. 우린 올해도 저 은행나무 잘랐습니다.

• 본풀이

옛날도 심방 말이 구황풀이 헐 때 들은 것이, 돗통이 씨앗이엔 헙디다게. 씨앗이라 부난 거 몽닐 부령 그땐 무신 궂은일만 난덴 그런 말이 셔나수다.[2051] 옛날 각시를 두 개 헤신디 각시 씨앗이 돗통에 간 죽어 불엇젠. 족은각시가 경 헤 부난 돗통에 간 목을 ᄃᆞᆯ아젠 함부러 건드령은 그게 동티가 난덴 허영. 게난 시앗이 심술부린덴 허는 말이구나게.[2052]

옛날도 심방 말이 '구황풀이'[2053] 할 때 들은 것이, 돼지우리가 시앗이라고 합디다. 시앗이라 버리니깐 거 몽닐 부려서 그땐 무슨 궂은일만 난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 각시를 두 개 했는데 각시 시앗이 돼지우리에 가서 죽어버렸다고. 소실이 그렇게 해 버리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목을 매달아 버렸다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그게 동티가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앗이 심술부린다고 하는 말이구나.

• 이사

집 이사 저 이디만 웃동네서 와신디. (아이들은) 시에 간에 (집) 빌엇수게게. 큰아덜 살리젠 허난 그땐 방 하나짜리난 주고. 말째 족은아덜, ᄯᆞᆯ덜 가가난에 또 방 시 개짜리 빌언 살리고. 이삿짐은양 안 ᄀᆞ져가수다게. 시에서 ᄆᆞᆫ 다 산, 이불이고 뭐고. 나 거 아덜 살리젠 허난 세간살이, 이불자리

2051) 이순자 구술.
2052) 김여권 구술.
2053) '구황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굿을 말한다.

문짝 출련 줜 놔두난 그때 어디사 간 누게안티 줘불어신지. (이사 갈 땐) 소금 뿌령. 풋은 귀신 놀리는 거옌 풋이영 소금이영 서껑 뿌려근에 뒷날은 그거 쓸어뒁. 저디 살당 이디 올 때 (제일 먼저) 밥솟게. 이불도게 자연이 ᄀᆞ졍 와사 더껑 눌 거 아니? 밥솟 제일 중요헌 거우다게. 밥을 먹어사 헐 거난. 처음으로 밥헹 먹는 게 이사우다게.[2054]

집 이사 저 여기만 '웃동네'서 왔는데. (아이들은) '시'[2055]에 가서 (집) 빌었습니다. 큰아들 살리려고 하니까 그땐 방 하나짜리니까 주고. 말째 작은아들, 딸들 가니까 또 방 세 개짜리 빌려서 살리고. 이삿짐은요 안 가지고 갔습니다. '시'에서 몽땅 다 샀어, 이불이고 뭐고. 나 거 아들 살리려고 하니까 세간살이, 이부자리 모두 차려서 주고 놔두니까 그때 어디야 가서 누구한테 줘버렸는지. (이사 갈 땐) 소금 뿌려서. 팥은 귀신 날리는 거라고 팥이랑 소금이랑 섞어서 뿌려서 뒷날은 그거 쓸어둬서. 저기 살다가 여기 올 때 (제일 먼저) 밥솥. 이불도 자연히 가지고 와야 덮어서 누울 거 아니? 밥솥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밥을 먹어야 할 거니깐. 처음으로 밥해서 먹는 게 이사입니다.

- **집알이**

선물사 셔낫수가게.[2056] 성냥을 주로 상 가는디 곽 허여근에. 초허고 진짜 옛날 헤난 일이여. 새집이 강 이사헹 들어갈 땐 거 상 들어가주게.[2057]

선물이야 있었습니까. 성냥을 주로 사서 가는데 갑 해서. 초하고 진짜 옛날 했던 일이야. 새집에 가서 이사해서 들어갈 땐 거 사서 들어가지.

2054) 이순자 구술.
2055) '시'는 여기서 제주도 제주시를 일컫는다.
2056) 이순자 구술.
2057) 김여권 구술.

3) 소한 · 대한

소한 대한에 나간 사름은 춪아보지 말렌 헙니께. 죽어 분덴, 막 얼어 부난. 제일 추운 때 겨울치고 제일 추울 때. 것벳기 몰라. 옷덜토 시원찮여고.[2058] 베옷 입엉 돌아뎅이곡 허는디, 옛날허고 지금허고 온도도 틀리고 옛날은 추웠어.[2059]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은 찾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죽어 버린다고, 아주 추워 버리니까. 제일 추울 때 겨울치고 제일 추울 때. 것밖에 몰라. 옷들도 시원찮고. 베옷 입고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온도도 다르고 옛날은 추웠어.

4) 섣달그믐

섣ᄃᆞᆯ그믐인 장이나 가곡 첨, 멩질 ᄎᆞᆯ려야주게. 초ᄒᆞ룻날 멩질이난 멩질 ᄎᆞᆯ려야 허여. 요새 ᄀᆞ뜬민 우린 시장 보레 뎅기곡, 떡ᄀᆞ루 ᄀᆞᆯ아오곡 부지런이 ᄎᆞᆯ려사.[2060]

섣달그믐엔 시장에나 가고 참, 명질 차려야지. 초하룻날 명질이니까 명질 차려야 해. 요새 같으면 우린 시장 보러 다니고, 떡가루 갈아오고 부지런히 차려야.

2058) 이순자 구술.
2059) 김여권 구술.
2060) 이순자 구술.

Ⅲ

마을별 · 월별로 살피는 세시풍속

서귀포시 상효동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정월 멩질'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현재까지도 지켜지는 대표적인 세시풍속이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조상신께 제를 지내고 친척들께 세배를 드린다. 이 날은 평소에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을 준비한다.

(3) 멩질 준비

• **방아 찧기**: 명질떡을 만들기 위해 우선 가루를 빻아야 한다. 물에 불린 쌀을 나무방아 가운데 있는 돌확에 넣고 찧어서 가루를 만든다. 방아를 찧을 때는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콜방에 새 글럼서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가사 중에 '진ᄀᆞ루 서사 낭웨여, ᄃᆞᆫ장 서사 칼국이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운 가루가 있어야 긴 상화떡을 만들고 단 장이 있어야 칼국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 **음식 준비**: 명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고사리다. 지난해 봄에 꺾어서 말려둔 고사리를 삶아서 준비한다.

(4) 차례

• **떡국 멩질**: 서귀포시 상효동에서는 '떡국 멩질'을 하는 집도 있기는 했으나 제보자 집은 지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진설**: '탕쉬'부터 올리고 손님들이 와서 절하고 나서 마지막에 밥과 국을 올린다. '탕쉬'는 콩나물, 호박, 무채 등을 한 그릇에 넣어서 올리며 '묵메물'은 따로 올린다. 소고기 혹은 바닷고기를 넣고 끓인 국과 산적, 과일 등을 올린다.

• **차례 지내기**: 차례를 지내야 할 조상이 많아서 저녁때까지 지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제를 지내는데 제일 마지막에 종손집에서 차례를 지낸다.

• **제반**: 상효동 오씨 집안은 양반이라서 그런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수레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 **문전**: 상효동 오씨 집안은 문전제를 지내지 않고 본상 하나만 차린다.

• **고팡제**: 칠성이라고 해서 집안에 따라 고방에 상을 차린다. 이때 돼지고기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5) 절식

• **멩질떡**: 명질을 위한 떡은 오편을 하는데 '침떡, 솔벤, 절벤, 인절미, 우찍'이 그것이다. '침떡(시루떡)'은 밭이고, '인절미'도 밭, '절벤'은 해, '솔벤'은 달, 웃기떡은 별이라고 한다.

• **메물**: 차례상에 올리는 채소를 '메물'이라고 한다. 고사리, 콩나물, 무채, '묵메물'을 올렸다. '묵메물'은 묵을 손가락 길이 만큼씩 썰어 따로 올리는 것으로 별도의 그릇에 묵을 썰어 올린다.

• **과일**: 사과, 배, 밀감을 주로 올렸다.

• **적**: 묵적과 고기적은 네 개씩 꿴다. 제사 명질을 사 대 동안 하겠다는 의미로 네 개씩 꿴다고 한다.

• **갱**: 갱은 소고기나 바닷고기를 넣어 끓이는데 미역이나 무를 함께 넣었다.

⑹ 세배 나이 든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세배는 남자들만 갔는데 어른들에게는 술이나 감주를 주었다. 제보자는 세뱃돈을 받은 기억이 없고,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다닐 때는 세뱃돈을 조금씩 주었다.

⑺ 속담·금기

• 섣ᄃᆞᆯ그믐날 ᄌᆞᆷ자민 눈썹 흰다.(섣달그믐날 잠자면 눈썹 하얗게 된다.)

2) 새철드는날

⑴ 날짜 양력 2월 4일.

⑵ 풍속 '새철'은 24절기의 시작인 입춘을 말하는 것이다. '새철드는날'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⑶ 속담·금기

• 입춘에 남의 집 가지 말라.

3) 포제

⑴ 날짜 정월 첫 정일 또는 해일.

⑵ 풍속 포제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 지내는 남성 위주의 유교식 제의다. 상효동에서는 동상효와 서상효로 나누어 한 번씩 맡아서 포제를 지낸다고 한다. 칠오름 포제단에서 제를 지냈는데 제를 지내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음복했었다.

⑶ 제물

• **산메**: 밥은 흰쌀 하나, 찹쌀 하나, 좁쌀 두 개 해서 네 개를 준비한다. 사발에 쌀을 넣어서 쪄서 만든다. 솥에 물을 넣고 겅그레 위에 쌀을 넣은 그릇을 놓고 불을 땐다. 이때 밥은 다 되었는지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솥뚜껑을 자주 열어 보면 안 된다. 물을 솥뚜껑 위로 뿌렸을 때 '파시시하고

나 죽노라'하면 다 된 것이라고 한다.

• **뒌술**: 포제를 위한 제주는 차좁쌀로 밥을 해서 누룩을 섞어만든 술이다. 위의 고운 술은 청주이고 아래 가라앉은 것은 '뒌술'이라고 하는데 이 술을 제주로 사용한다.

• **채소**: 포제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채소는 삶거나 볶지 않고 생으로 올린다. 고사리, 무 등을 올린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예전에는 한 마리 전체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잘라서 열두 개로 잘라서 올린다.

(4) 정성

• **제관 선정**: 포제를 지내는 제관은 다치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며칠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

• **삼일 정성**: 예전에는 초헌관을 맡은 집에서 삼 일 동안 제관들이 지냈다. 요즘은 동상효와 서상효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초헌관을 맡아서 제를 지낸다고 한다. 따로 금줄을 치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아무나 제관들이 묵는 곳에 가지 않는다. 특히 여자는 절대 안 들어간다.

4) 안택

(1) 날짜 음력 1월 중 택일.

(2) 풍속 안택은 정월에 집안을 돌보아주는 여러 신들에게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문전대우', '올레코시'라고도 한다.

• **음식**: 초석에 메를 일곱 개 올리고, 조왕, 칠성, 문전에 올리려면 열 개 정도 준비해야 한다. 국은 생선이나 소고기를 넣어 끓이고 고사리, 콩나물, 무채, 도래떡을 준비한다.

• **금기**: 안택을 하려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제물로 올려서도 안 된다.

• **제비점**: 쌀을 던져서 잡았을 때 쌀알이 세 방울, 여덟 방울, 열두 방울은 좋은 것이라고 한다. 짝수로 나와야 좋다고 하며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 **신발 단속**: 굿이 끝날 때 쯤에 '신발 단속헙서'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귀신을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5)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상효동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따로 하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연날리기는 특별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동산에서 날렸었다.

6) 걸궁

(1) 날짜 음력 1월 중 택일.

(2) 풍속 '걸궁'은 풍물을 치면서 집안의 잡귀와 액운을 몰아내는 풍습이다. 상효동에서는 제보자가 어렸을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큰 후에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7) 방에산 놓기

(1) 날짜 음력 1월 중 택일.

(2) 풍속 '방에산'은 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먼저 방화선을 만드는 것이다. 상효동에서는 한라산을 막은 '굽은담' 아래로만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이 번지지 않도록 먼저 불을 붙여서 방화선을 만든다. 그래야 한라산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방에산 노레 간다'고 하고 마을 사람

모두 참여해야 한다. 소를 기르기 위해 진드기 등 해충을 태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것이다.

• **진드기**: 진드기는 성장 정도에 따라서 '서미역, 부구리, 진둑' 순으로 이름이 다르다. 진드기류는 똥구멍이 막힌 거라서 피를 어느 정도 빨아먹으면 배설할 수 없어서 소에서 저절로 떨어진다고 한다.

8) 생업

• **보리밭 밟기**: 눈이 와서 땅이 얼면 땅이 들리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밟아주어야 한다. 주로 사람이 밟는데 아이들은 발이 작아서 잘 못한다고 한다.

□ 2월

1) 영등

(1) 날짜 음력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 풍속 상효동은 바다가 없다. 옛날 상효동 사람들이 시체가 떠내려오면 그것을 묻기 싫어서 보목동에 바다를 줘 버렸다고 한다.

(3) 속담

• 영등할망 들어오민 비 오곡 나가 불민 날이 좋곡 헌다.: 영등할머니 들어오면 비 오고 나가 버리면 날이 좋고 한다.

• 영등할망이 잘 출령 오면 날이 좋고 허술허게 출령 오민 비 온덴 헌다.: 영등할머니 잘 차려서 오면 날이 좋고 허술하게 차려서 오면 비가 온다고 한다.

• 영등할망 까먹엉 가부난 바당에 겁더기만 이서.: 영등할망이 까먹어서 가버리니까 바다에 껍데기만 있다.

□ 3월

1)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청명에는 산소에 가서 가시를 캐고 산담을 둘러본다. 제보자는 예전에는 청명에 봄벌초를 했었는데 공동묘지로 이장해 버려서 청명에는 하지 않고 오월 단오에 벌초를 한다.

2) 한식

(1) 날짜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한식은 4대 명질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식부터 없어지고 오월명질인 단오도 점차 하지 않게 되었다. 한식과 단오를 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3) 소 올리기

(1) 날짜 음력 3월.

(2) 풍속 새 풀이 나면 청명 즈음에 소를 산으로 올렸다. 상효동에는 목장이 아니라 한라산인 상산에 올렸다고 한다. 집에 꼴이 부족해서 산에 올렸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온다.

• **방목**: 소를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를 한라산에

올려 두면 가을이 되면 차차 마을로 내려온다.

• **소 찾기**: 소를 찾으러 가서 어떤 소를 봤냐고 하면 말해주기도 하고 동네의 소는 누구네 집 소인지 다 알았다. 소가 제법 똑똑해서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한번은 우리 소가 아니라고 몰아내어도 제보자의 꼴밭에 가서 있었다고 한다.

• **도름쉐**: 몇 집의 소를 모아서 순번을 정해 풀과 물을 먹이러 다니는 것을 상효동에서는 '도름쉐'라고 한다. 아침에는 '쉐 내몹서'라고 하고 저녁에는 '쉐 멥서, 쉐 들이멤서'라고 말하며 소를 몰고 갔다가 돌려주곤 한다. 한 번에 두 사람씩 같이 가는데 이때 소는 스무 마리가 넘는다. 제보자는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 당번이 되면 아기를 업고 도시락을 싸서 소를 'ᄀᆞ꾸러' 다녔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은 갔었다고 했다.

4) 묘제

(1) 날짜 음력 3월.

(2) 풍속 제보자인 오씨 집안은 동쪽에 성산읍 수산리에 묘제 보러 간다. 오씨 종손집은 중문에서 상효까지 남의 땅을 안 밟고 왔다고 할 만큼 땅이 많았다고 한다. 종손집은 '눌'을 가리는 밭이 따로 있었는데 보리를 두드리는 것도 집이 아니라 '눌터'인 밭에서 했었다고 한다.

5) 생업

(1) 논농사

• **논 달루기**: 논에 물을 받아서 땅을 갈고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나무로 만들어서 발을 박은 도구인 써레를 소에 매어 몰면 굴러가면서 논바닥이 고르게 된다. 논을 골라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사월 초파일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절에 가서 가족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위해 등을 켠다. 제보자는 상효동에 있는 관음도량 구룡사에 다녔었는데 서귀포 시내 신사동산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가 그 절에 다닌다.

• **머리 깎기**: 어렸을 때 머리를 세 번 깎아주면 좋다고 여자아이들도 머리를 깎았다.

2) 생업

(1) 벼농사

• **모내기**: 논에 물을 받고 바닥을 고르고 나면 줄을 맞춰서 모를 심는다.

• **메살룸**: 모내기를 하고 나서 조금 크면 흙을 끈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 **김매기**: 물을 잘 대지 못하면 김이 많이 나는데 주로 돌피가 많이 난다.

(2) 깨농사

• 사월 초파일 쯤에 날이 좋으면 깨가 좋고, 비가 오면 깨가 잘 안 된다.

(3) 고구마농사

씨고구마에서 싹이 난 줄기를 베어서 고구마 모종으로 심는다. 이때 줄기를 베고 난 고구마를 구감이라고 하는데 맛이 없지만 먹을 게 없어서 먹기도 했다. 고구마 파종을 유월절까지는 마쳐야 한다.

(4) 귤농사

• **전정**: 귤나무의 가지를 잘라 주어야 한다. 예전에는 귤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농약을 많이 뿌려야 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다.

□ 5월

1) 단오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단오는 4대 명질 중 하나이나 음력 5월이 보리 수확 등으로 바쁜 농번기라서 언제부터인가 단오 명질을 지내지 않게 되었다.

2) 생업

(1) 보리 농사

• **보리 수확**: 보리 이삭이 노랗게 되어 가면 거둬들여야 한다. 거둬들인 보리는 훑고 도리깨로 두드린다.

• **보리 종류**: 겉보리, 두줄보리, 쌀보리.

• **보리 거피하기**: 수확한 보리는 연자방아에서 거피하고 맷돌로 갈아서 먹는다.

• **보리 서먹기**: 상효동에서는 채 익지 않은 보리를 끓는 물에 넣었다가 말려서 먹었는데 이것을 '서먹는다'고 한다.

(2) 누에 기르기

봄이 나면 누에씨를 받아다가 뽕잎을 따다 주면서 누에를 기른다. 누에는 잠을 네 번 자면 고치가 되는데 장마철쯤에 누에고치에서 실을 뺀다.

□ 6월

1) 유월절

(1) 날짜 양력 7월 7일 무렵, 절기상으로 소서 무렵.

(2) 풍속 유월절까지는 모든 농사를 끝내야 한다. 유월절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밭도 씨가 발아되지 않는다.

2) 닭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제주에서는 삼복 대신에 음력 6월 20일 하루를 정해 몸보신을 위해 닭을 먹는다. 닭고기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문어죽을 먹기도 한다.

3) 당제

(1) 날짜 음력 6월 7일, 8일.

(2) 풍습 7일 '제베낭알당'에 가고 8일에는 바다에 있는 당에 간다. '제베낭알당'에는 커다란 구슬잣밤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을 길을 만들어서 당이 없어져 버렸다.

4) 생업

(1) 조 농사

• **조 파종**: 보리를 수확하고 난 자리에 조를 파종한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파종을 끝내야 한다.

• **두불밧**: 밭을 한 번 갈아서 농사를 한번 지을 수 있는 밭은 '초불밧', 두 번 갈아서 일년에 두 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은 '두불밧'이라고 한다. 산에

있는 밭은 '초불밧'이고 마을 가까이에 있는 밭이 '두불밧'이다.

• **조 볼리기**: 처음에는 소로 밭을 밟다가 나중에는 '섬비'로 끌기만 했다. 조를 파종하고 나서 밟는 것은 좁씨를 잘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그래야 조가 잘 크고 이삭도 잘 팬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상효동에서는 칠월 칠석에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 유월 더위 더위라고 마라, 정칠월 더위가 한더위다.

2) 백중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백중에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마소의 번성을 위해 제를 지낸다. 상효동에서는 굴이 있는 곳에 가서 제를 지냈었다고 한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간 제물을 올리는데 반합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서 제를 지냈었다.

• **제물**: 밥, 국, 옥돔, 술.

3) 처서

(1) 날짜 양력 8월 22일.

(2) 속담

• 백중 처서 넘으면 김이 울면서 간다.

• 처서 넘으면 모기도 맥을 못 춘다.

• 해바라기쿨은 굽으로 메지 안허영 우만 꺼껑 놔두민 너네 서이뚤은 망해우켜 흔다. '해바라기쿨'이라는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쉽게 죽지 않는다. 세 모녀가 김을 매도 '해바라기쿨'을 위만 꺾어서 두면 '해바라기쿨'이 세 모녀를 망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친다는 말이다.

4) 더위 깨기

(1) 날짜 음력 7월.

(2) 풍속

• **물 맞이**: 백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을 맞으러 가기도 했는데 상효동 사람들은 주로 공천포나 돈내코 '나는물도'에 갔다. 쌀을 가져가서 밥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잠을 자고 오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다칠 염려가 있어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

• **모래찜질**: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은 모래찜질을 하러 가기도 했다. 상효동에서는 공천포나 쇠소깍에 가서 모래찜질을 하는데 밀가루로 상화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고 한다.

5) 자리젓 담그기

(1) 날짜 음력 7월.

(2) 풍속 상효동에서는 자리돔를 사러 보목동 포구에 간다. 자리를 잡고 온 배에 바구니를 던져서 얼마 어치를 넣어 달라고 해서 사고 온다. 자리돔은 내장을 빼고 소금에 절여 자리젓을 만든다.

• 자리젓은 자리와 소금을 사대일 비율로 넣어서 만든다.

• 자리젓을 담글 때는 자리돔의 배를 꼭꼭 눌러서 내장을 빼야 한다.
• 환삼덩굴을 자리젓 항아리에 덮어두면 파리나 벌레가 일지 않는다.

6) 생업

(1) 조밭 김매기

• **벌레기 둘름**: 조밭에 본격적으로 김이 나기 전에 묵은 김이 나는데 이것을 매는 것을 '벌레기 침', 혹은 '벌레기 둘름'이라고 한다.

• **김매기**: 조밭의 김매기는 세 번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솎고 두 번째는 씨를 잘 세우고 세 번 김을 매야 이삭이 잘 팬다.

• **가라지**: 조밭에 잘 자라는 잡초인 가라지는 조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예전에는 음력 8월 1일에 맞췄지만 지금은 공휴일 중에서 하루를 잡아서 벌초를 한다.

• **가지소분**: 제보자는 남편이 군대 가고 없을 때 혼자 열네 자리를 벌초했었다고 한다.

• **모둠벌초**: 종손집에서 상화떡을 준비해 온다.

• **공동묘지**: 종손집에서 돈을 내놓고 열여덟 자리의 묘지를 옮겨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 **제물**: 떡, 과일, 술.

2) 추석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추석을 '팔월 멩질'이라고도 한다. 햇곡식을 올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낸다.

(3) 멩질 준비

• **생선 준비**: 옥돔을 미리 사다가 말려둔다.

• **옷 준비**: 추석에 남자들은 모시두루마기, 고의적삼을 입는다. 추석이 돌아오면 남편과 결혼한 아들들이 입을 옷을 풀하고 다림질해서 준비했었다. 풀은 밀풀 삶은 것으로 하는데 생밀풀로 하면 좀이 일어 안 된다고 한다. 풀을 하고 채 마르기 전에 다려야 잘 다려진다.

(4) 차례상

• **밥**: 명질날은 흰쌀을 준비했다가 밥을 해서 차례상에 올렸다.

• **적**: 돼지고기를 주로 했는데 나중에 소고기도 했다.

• **국**: 옥돔생선국.

• **메물**: 고사리, 콩나물, 묵메물.

• **떡**: 절벤, 솔벤, 침떡(시루떡), 인절미, 우찍(웃기떡). 인절미는 네모반듯한 밭, 절편은 해, 솔편은 달 반쪽을 의미하는데 떡을 올리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한다.

• **시루떡 눈**: 백설기를 상에 올리기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으로 두 군데 눈을 붙인다.

• **솔벤 · 절벤**: '솔벤'은 솔잎을 넣고 찌고, '절벤'은 반죽을 잘 삶은 후 동그랗게 두 개 만들어 붙여서 떡살로 눌러 만든다.

• **우찍과 보따리**: '우찍'은 '솔벤'할 때 반죽을 조금 남겨서 모양을 만들고 '솔벤'처럼 찐다. 계란을 풀어 고사리를 놓고 전을 만드는데 귀신이 음식을

여기에 싸가지고 간다고 해서 보따리라고 한다.

• **진설하기**: 돌아가신 조상 중에 부부는 보통 한 상에 차리는데 삼 부처인 경우도 한 상에 차린다. 밥과 국은 따로 올리지만 그 외는 같이 먹는 것으로 쳐서 하나만 올린다.

(5) 달구경 상효동에서 달구경은 바다에서 한다. '드라미' 혹은 월라산이라고 부르는 오름이 있으나 거기서 달구경을 하지는 않는다. 제보자는 형제섬으로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간 적이 있다고 했다.

□ 10월

1) 수확하기

(1) 날짜 음력 10월.

(2) 풍속 곡식이 익으면 밭벼, 조 순서로 수확을 한다.

2) 띠 베기

(1) 날짜 음력 10월.

(2) 풍속 지붕을 이기 위한 띠를 베어 장만하고 집줄을 만들 각단도 베어 준비한다.

3) 메주 만들기

(1) 날짜 음력 10월.

(2) 풍속

• **좋은 날**: 콩을 삶기에 좋은 날은 닭날이나 개날, 돼지날이라고 한다.

소날은 콩을 안 삶는다.

• **메주 만들기**: '남방아'를 이용해서 으깨는 사람도 있지만 제보자는 삶은 콩을 자루에 담아서 발로 밟아서 으깬 후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다.

• **매달기**: 메주를 그냥 쌓아두면 곰팡이가 골고루 피지 않고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볏짚을 이용해 매달아둔다.

4) 무명 짜기

(1) **날짜** 음력 10월 이후.

(2) **풍속**

• **목화솜에서 실 빼기**: 목화솜을 수확하면 잘 말렸다가 '불르는 물레'로 씨를 빼고 고치를 만들어 '줏는물레'를 이용해서 실을 만든다.

• **무명 짜기**: 무명실을 날고 매어서 잉아에 걸고 짠다. 제보자는 할머니가 베짜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베틀에 앉아서 흉내를 내곤 했다고 한다.

□ 11월

1) 당제

(1) **날짜** 음력 11월 7일, 17일.

(2) **풍속** 상효동에서는 주로 '제베낭알당'에 다녔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3) **제물**

• **제물**: 도래떡, 옥돔, 채소 등을 가지고 가는데 무조건 짝수로 준비해야 한다. 귀신이 둘이라서 채롱을 두 개 준비한다고 했다.

• **선씨 일월**: 현씨 조상신은 일반 제물에 삶은 계란을 두 개 추가로 준비해서 가져간다.

• **준비물**: 커다란 바구니에 채롱 세 개를 넣고 제비쌀로 사용할 쌀 세 사발을 준비한다.

2)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1일 무렵.

(2) 풍속 며느리가 절에서 가지고 와서 동지팥죽을 먹기는 하는데 제보자가 직접 집에서 팥죽을 쑤지는 않는다고 한다.

• **동지팥죽**: 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면 귀신이 달아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 **애기동지**: 팥죽을 쑤어 먹지 않는 동지를 말한다.

3) 생업

• **삼 삼기**: 여름에 베어서 삶고 말려 장만한 삼 껍질을 쪼개서 무릎에서 삼는다. 삼실을 잡아당기면 엉키므로 삼실이 있는 채롱에 콩이나 팥을 놓았다고 한다.

□ 12월

1) 납평날

(1) 날짜 음력 12월 무렵.

(2) 풍속 엿을 만드는 것을 특별히 날을 보면서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엉겅퀴 뿌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엿을 만든 적이 있는데 너무 써서 먹지 못했다고 한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제주에서 신구간은 지상의 모든 신이 천상에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 시기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지상에 신이 없으므로 이사 등 평소에 금기되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믿는다.

• **이사하기**: 이사할 때는 키와 체를 가장 먼저 가져간다고 한다.

• **집알이**: 예전에는 성냥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세제나 화장지를 가지고 간다. 제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성냥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손님에게는 주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 성주 안 낸 디 귀양 못 낸다. 집을 짓고 성주풀이를 해야 사람이 죽으면 귀양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 지붕이기

(1) **날짜** 음력 12월 무렵.

(2) **풍속** 일 년에 한 번 초가지붕을 새롭게 인다. 띠는 가을에 베어서 잘 말려서 준비해 두었다가 주로 십이월에 초가지붕을 이었다.

4) 섣달그믐날

(1) **날짜** 음력 12월 마지막 날.

(2) **풍속**

• **장 담그기**: 장 담그는 날로는 닭날이나 개날이 좋다고 한다. 소금물에

계란을 놓아서 백 원짜리 동전만큼 물 위로 뜨면 간이 맞은 것이라고 한다. 장을 담는 것은 늦어도 섣달그믐까지 마쳐야 한다.

□ 윤달

(1) 날짜 4년에 한 번 윤년에 드는 달.

(2) 풍속 음력이 양력보다 짧으므로 약 4년에 한 번 음력으로 한 달을 더해 윤달을 둔다. 윤달에는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짓는 풍습이 전해진다. 제보자는 수의를 만들어 두기는 했지만 윤달에 맞춰서 만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귀포시 법환동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우리나라 명질의 하나인 설날을 제주에서 '정월 멩질'이라고 한다. 이날을 위하여 친족들이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족과 이웃 웃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또 가족과 친족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 동안 무탈하도록 기원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기도 한다.

(3) 멩질 준비

• **콩나물 준비**: 차례상에 올릴 콩나물은 명질 15일 전부터 시루에서 길렀다. 시루 밑에 메밀짚을 깔아두고 그 위에서 콩나물을 길렀다고 한다.

• **바닷고기 준비**: 바닷고기는 옥돔, 어렝놀래기 등을 직접 잡아서 사용하였다. 미리 장만한 물고기는 물고기의 배 가운데를 갈라 소금을 뿌려 천장에 매달아 말리고, 미역과 바닷고기를 겹겹이 쌓아 놓은 '망데기'에 담아두었다고 한다. 혹은 보리가 담긴 항에 바닷고기를 넣어두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 **제수 장만**: 동네 주민들이 모여 추렴한 돼지를 나눠 제수로 사용하였다. 돼지고기적은 돼지고기를 두툼하게 썰고 다섯 점씩 꼬챙이에 꿰어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소고기, 한치, 문어, 전복 등을 제수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명질이나 제사에 올리기에 어려웠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

적은 '산제'에만 제물로 올렸다고 한다.

• **멩질떡 준비**: 미리 떡가루를 갈아다가 '멩질떡'을 만들 준비를 한다. 예전에는 연자방앗간이나 연자매에서 쌀가루를 곱게 갈아다가 방아로 찧어 절편, 솔편, '중궤', '약궤', '인절미' 등을 만들었다. '시루떡'도 주로 쌀가루로 만들었지만, 쌀가루가 부족하던 때에는 좁쌀가루나 고구마가루 등을 섞기도 하였다.

• **탕쉬**: 나물로는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등 3종을 준비하여 올린다. 갖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 번 데치고 소금으로만 양념하여 제상에 올린다고 한다.

• **묵**: 어려웠던 시절 차례상에는 떡 대신 묵과 '탕쉬'를 올렸다고 한다. 메밀묵은 '지지는 묵'이나 '청묵'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꼬챙이에 끼운 채 화로에 구워서 올렸다고 한다.

• **감주**: 차좁쌀로 지은 밥에 엿기름을 섞어서 발효시킨 다음 체로 걸러 달여서 먹는 음료다. 명질에는 차례상에 올리거나 세배하러 온 친척들에게 나눠주었다. 지금은 '감주' 대신 오랜지맛 탄산음료를 올리기도 한다.

• **식혜**: 엿기름을 우린 웃물에 쌀밥을 넣어 삭혀 만든 음료로, 제지낼 때 '감주' 대신 제상에 올리기도 한다.

• **멩질옷**: 명질이 다가오면 입던 옷을 손보는데, 저고리에 솜을 넣거나 저고리나 두루마기에 동전을 달아 깨끗하게 마련해 두었다. 아이들에게는 미리 마련한 천으로 새 옷을 장만해 주었다. 남자 어른들은 두루마기를 주로 입었다.

(4) 진설하기

• **차례상**: 메, 갱, 떡(시루떡, 절편, 솔편, 웃기떡), 과일(사과, 배, 귤), 바닷고기 구운 것, 적(돼지고기적, 소고기적), 묵 또는 두부, 채소(콩나물,

고사리) 등을 올린다. 과일은 예전에 병귤, 당유자 등을 올렸다면 지금은 사과, 배, 귤 3종을 올리고 있다. '탕쉬'도 보시기에 담고 그 위에 손톱 크기로 자른 '묵딱지'를 올렸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 **멩질떡**: 설날에 올리는 떡은 시루떡, 절편, 솔편, 웃기떡 순서로 괸다. 시루떡 두 '빗', 절편, 솔편, 웃기떡은 양쪽에 세 개씩 쌓아 올린다.

• **모사**: 집안에 따라 고사리, '새껍', 귤나무 이파리 등을 올리는데 세 개씩 뜯어 접시에 올린다.

(5) 차례

• **차례 지내기**: 친척 집을 돌아다니며 차례를 지내는데 종손집에서 가장 마지막 제를 지낸 후 음복한다.

• **멩질 반**: 차례를 지낸 후 그 몫으로 '정반'에 절편, 솔편, 적, 시루떡, 바닷고기 구운 것 등 먹을 만큼씩 담아 나눠주곤 하였다.

(6) 세배

설날 차례가 끝나면 마을의 어르신께 세배드리러 다녔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상중에 있는 집을 먼저 찾아 인사드린 후 가까운 어르신을 찾아뵈었다. 남자 어른을 따라나선 아이들은 세뱃돈 대신 떡을 받았고 세배하러 온 아이들에게 식혜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한다. 지금은 매해 법환동 사무실에서 합동 세배를 치른다고 한다.

2) 당제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새해를 맞이하여 심방을 모시고 본향당 신에게 문안을 드리며 한 해 동안 가정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다. 본래 진머흘 '일렛당'과 서호동 '여드렛당'을 순서로 제를 지냈지만 20년 전부터 '앞당'에

새로이 제단을 만들어 세 신을 한데 모셨다고 한다.

• **제물**: 과일, 고기, 도래떡, '감주' 또는 오렌지맛 탄산음료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렸다. 부스럼이나 땀띠, 허물이 나는 경우 달걀을 올리기도 한다.

3)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음력 정월 보름날 법환동에서 행해지는 별다른 풍속은 없다. 집안에 운수가 나쁘다는 점괘가 나오면 궂은일을 막기 위하여 액막이했다고 한다. 집안에 따라 절간에 가거나 큰 굿을 치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연날리기**: 정월대보름 무렵에 아이들은 연을 만들어 연날리기했다고 한다.

4) 포제

(1) 날짜 음력 1월 택일.

(2) 풍속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지내는 유교식 의례로, 달리 '마을제'라고 한다. 제관은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남자로 정한다. 모든 제물은 생채로 올리며 희생으로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린다고 한다. 이러한 제물은 '솟밋할망'이 준비한다고 한다.

• **몸 정성**: 제관들은 포제를 지내기 전 제청에 3~7일 정도 머무르며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였다.

• **금기**: 부정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단이나 마을회관 주변으로 금줄을 쳤다고 한다. 금줄은 짚을 왼쪽으로 꼬아 만들었고 중간에 귤나뭇잎을

꽂았다고 한다. 제청과 제단 주변에는 '새'를 깔고 그 위로 찰흙을 뿌려 부정을 방지했다고 한다.

5) 안택

(1) 날짜 음력 1월 택일.

(2) 풍속 한 해 동안 가정에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심방을 모시거나 개인이 입담으로 집안을 지켜주는 신을 위로하는 제의다. 일 년에 한 번 치러지며 정월에 좋은 날을 택한다.

• **문전제**: 문 앞에서 지내는 제의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촛불을 켜거나 물을 떠놓고서 가신에게 빈다고 한다.

• **조왕제**: 집안의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할망'에게 비는 제의다.

6) 걸궁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마을 주민들이 모여 패를 짜고 풍물을 치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신을 위로하는 민속놀이다. 궂은 액을 막고 잡귀를 몰아낸다는 속설이 있다. 걸립한 집주인은 걸립패에게 돈, 쌀, 막걸리를 내어줬다고 한다. 이 풍습도 제주4·3사건 이후부터 법환동에서 행해지지 않았다.

7)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 가운데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로 제주에서 '새철드는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하는 날로 여겨 문에 '입춘대길' 글자를 써서 붙이기도 하였

다. 여자들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입춘이 드는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가지 않는다. 만약 여자가 찾아오면 그 집안 밭에 김이 깃는다고 생각하여 멀리하였다고 한다.

□ 2월

1) 영등굿

(1) 날짜 음력 2월 1일부터 15일.

(2) 풍속 해녀와 어부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바다를 관장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의다. 이날은 마을 주민이 모두 '앞당'에 모여 큰굿을 치렀다고 한다. 단골들은 흰 메와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굿이 끝난 다음 단골이 함께 짚으로 만든 배에 제물을 담아 띄워 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좋은 날을 택일하여 해녀나 어부가 개인적으로 '앞당'에 찾아가 기원한다고 한다.

2) 생업

(1) 보리밭 불르기 보리밭 밟기는 겨울철 들뜬 땅을 밟아 보리 뿌리가 땅에 잘 내리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대부분 법환동 보리밭은 밟지 않았다. 다만 보리를 심은 논은 밟았다고 한다.

□ 3월

1) 한식 ·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2) 풍속 법환동에서는 한식을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아 명질처럼 지내는 일은 없다. 반면,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드는 절기로 조상의 산소에 난 가시나무나 덩굴을 손보거나 간단하게 제물을 올려 절을 올리는 등 일을 하였다. 이날은 동티나지 않는 깨끗한 날로 여겨 산소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2) 묘제

(1) 날짜 음력 3월.

(2) 풍속 제사를 지내지 않는 조상의 묘에 지내는 제의를 말한다. 예전에는 친족들이 모여 산소마다 다니며 제를 지내고 함께 음복했다고 한다.

- **제물**: 메, 갱, 과일, 떡, 적 등 명질이나 제사 때 올리는 것과 같다.

3) 생업

(1) 소 ᄀᆞ꾸기 여름철 동안 소를 목장에 올려 돌보는 일을 말한다. 법환동은 마을공동목장이 없어 가까운 '케(지경)'에 올려 가을까지 머무르게 하였다.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쉐테우리'라고 하며 일당으로 보리 한 말을 주었다고 한다. 한편 소를 올리기 전에 새 풀이 잘 돋도록 '케'에 불을 붙여 묵은 풀을 없애는 등 주변을 정리하였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석가모니 탄생일이다. 이날은 가까운 '혜광사', '용문사' 등 절간을 찾아 등을 달거나 촛불을 켜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다. 예전에는 이날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깎으면 곱게 난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 풍습이 없어졌다고 한다.

2) 생업

(1) 볏모 놓기 음력 4월에서 5월 초에 '나록메(볏모)'를 놓고서 '유월절'까지 키운다고 한다.

(2) 고사리 꺾기 음력 삼사월부터 고사리 채취를 시작한다.

□ 5월

1) 생업

(1) 보리 베기 음력 5월 초까지 보리를 베고 밭을 갈아 그 자리에 고구마 모종을 심는다.

□ 6월

1) 닭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음력 유월 스무날에는 집에서 키운 닭을 잡아먹었다. 농사일로 지친 몸을 보하기 위하여 닭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지금은 초복, 중복, 말복처럼 삼복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유월 스무날 하루뿐이었다고 한다.

2) 생업

(1) 밧 ᄇᆞᆯ리기 제주에서 밭벼나 조의 씨를 뿌리고 뿌리가 땅에 잘 묻히게끔 밭을 가는 것을 '밧 ᄇᆞᆯ리기'라고 한다. '밧 ᄇᆞᆯ리기'를 하기에 앞서 밭에 있는 돌멩이나 엉클어진 풀포기 등을 골라내고 끙게로 땅을 고르게 한 다음 말로 밭을 밟게 한다. 그러면 뿌리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 **섬비**: 길쭉하게 벌어진 소나무나 상동나무 가지를 엮어서 부채 모양으로 만든 도구다. '섬비질'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섬비' 위에 돌을 올리고서 사람이 직접 끌어 밭에 뿌린 씨가 땅에 묻히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 파종 깨, 고구마, 조 등 작물 파종은 '유월절' 전에 해야 한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음력 칠월 초이렛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날 절을 찾아 칠석 불공을 드린다고 한다. 이날 중요한 옷을 꺼내어 바람을 쐬는 집도 있다고 한다.

2) 물맞이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서귀포 해안 마을인 법환, 강정 사람들은 가까운 '속골', '두문이물', '지느물' 등에 놀러 가서 물맞이하였다. 곳곳에서 놀러온 청년들은 씨름하거나 소라 잡기, 빨래하기 등을 하고, 우뭇가사리, '쥐기떡', 사탕수수 등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냈다고 한다.

3) 입추 · 처서

(1) 날짜 양력 8월 8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 중 하나로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다. 대부분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김매기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3) 속담

• 백중에 비 오민 백 가지 벵충이 잇곡 처서엔 비 오민 천 가지 벵충이 온다.

• 백중 처서만 넘으민 검질이 울멍 돌아간다.

• 백중 처서만 넘으민 풀이 ᄆᆞᆫ 오그라진덴.

4) 생업

(1) 자리 나끄기 '범섬' 주변에서 잡히는 자리돔을 낚아 참기름에 구워 먹는 것이 주요 먹거리였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음력 팔월 초하루는 일가친척들이 모여 조상의 산소에 난 풀을 베거나 '산담'을 손보는 등 정비하는 일을 한다. 풀은 미리 준비한 낫으로 베었다. 벌초는 '모둠벌초'를 끝내고 '가지벌초' 순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문중 집안사람이 모여 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당 가족만 모여 행하는 벌초다. 벌초가 끝나면 자손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제를 지낸다. 제물은 과일, 빵, 오렌지맛 탄산음료 등을 간단하게 준비하여 올린다고 한다.

2) 팔월 명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음력 팔월 보름은 우리나라 명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다. 이날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마을 사람끼리 모여 달구경을 하는 등 놀이를 즐겼다.

(3) 명질 준비

• **놋그릇 닦기**: 열흘 전부터 미리 제기로 사용하는 놋그릇, 놋수저 등을 닦았다. 제기를 닦을 때는 오래된 재를 볏짚으로 만든 수세미에 묻혀 '께우살'을 닦아내었다고 한다.

• **제숙 장만**: 돼지고기나 우럭, 어렝놀래기 등 바닷고기는 미리 준비해둔다. 바닷고기는 직접 낚거나 시장에서 사온 후 '공장'에 걸어 잘 말려두었다.

• **멩질떡**: 가루를 갈아다가 시루떡, 송편, 상화떡 등을 만들었다. 떡에는 팥소, 녹두소 등을 주로 넣었다.

• **묵**: 보리를 갈아 프라이팬에 지져 만든 '보리묵'이나 송편을 만들다 남은 재료를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 굽거나 삶은 다음 기름을 묻혀 만든 것을 묵 대신 올린다.

• **채소**: 콩나물, 고사리, 양하, 호박 등을 올린다.

• **멩질옷 준비**: 모시 두루마기, 광목 바지, 적삼, 조끼 등 남자옷은 동전을 새로 달고 풀을 먹인 다음 다듬이질을 하거나 다림질을 하여 곱게 손봤다고 한다.

(4) 차례 지내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조상에게 올려 제사를 지낸다. 한 집안의 지손부터 종손집 순서로 차례를 지낸다.

(5) 놀이 어린아이들은 밝은 달을 불빛으로 삼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떡 훔쳐먹기, 달구경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3) 생업

(1) 창호지 바르기 농사일로 바빠지기 전 문이나 창의 창호지를 깨끗하게 바르는 일을 했다고 한다.

(2) 꼴 장만 소를 길렀던 집은 추석이 끝나고 나면 겨우내 먹일 꼴을 '촐밧'에서 베고 '촐눌'을 가리었다고 한다.

□ 9월

1) 당제

(1) 날짜 음력 9월 7 · 17 · 27일.

(2) 풍속 법환동 단골은 음력 정월 · 6월 · 9월 7일에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이레당'에 다녔다고 한다. 제물로는 메, 바닷고기 구운 것, 과일 등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2) 생업

(1) 가을걷이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드는 상강을 기점으로 조, 벼, 고구마 등 밭작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보리와 벼는 그네로 훑어내고 콩이나 메밀 등은 도리깨질하여 장만하였다. 한편, 조는 이삭만 뜯어다가 연자매에서 찧은 후 불림질하여 먹을 만큼 장만했다고 한다.

(2) 소 물 먹이기 집 안의 일꾼인 소를 끌어다가 마을 물통에서 물을 먹이는 일도 중요한 일거리 중 하나였다.

(3) 기타 가을걷이가 시작되기 전 여름철 이불과 옷은 다듬어 보관하고 겨울철 덮을 이불에 솜을 넣어 겨울을 준비했다고 한다.

□ 10월

1) 생업

(1) 절간고구마 고구마는 '삣데기' 기계로 얇게 썰어 '보리크루'에 널어 볕에 말린 다음 절간고구마로 팔았다고 한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말리는 동안 비를 맞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 11월

1)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1일 무렵.

(2) 풍속 동지는 이십사절기 중 하나로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드는 날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이날은 팥죽을 쒀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제주에서 동짓날 쑤는 팥죽을 '동지 풋죽'이라고 한다. 이날 팥죽을 쒀서 집 주변을 돌며 뿌리면서 궂은 병이나 귀신을 방사하기도 한다.

• **애기동지**: 팥죽을 쒀 먹지 않는 동지로 음력 11월 10일 이전에 드는 날을 말한다.

2) 장 담그기

동지날에 장 담글 준비를 하였다. '돗걸름밧'을 끝내고 장만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든다. 그리고 그 메주로 섣달그믐날 장을 담근다고 한다.

3) 납평날

(1) 날짜 동지 뒤 세 번째 미일.

(2) 풍습 납평날은 엿을 고는 날로, 제주에서 엿 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엿은 동짓날에 만든 엿기름에 검은좁쌀밥을 삭혀 만든다. 엿에는 삶은 닭이나 돼지고기 등을 넣기도 한다. 법환동에서는 닭고기엿과 돼지고기엿은 몸 보신용으로 많이 고았다고 한다.

□ 12월

1) 지붕이기

(1) 날짜 음력 12월.

(2) 풍속 제주의 전통 가옥은 초집이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겨울이면 '새(띠)'를 장만하는 일도 큰일이었다. 법환동에서는 '새'를 미리 베어 지붕을 동여맬 '줄'을 꼬아서 마련해 두었다. 법환동은 보통 일 년에 한 번 정월 명질 전에 지붕을 새로 이었다고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1~3월 사이 날이 좋은 날 사람을 빌려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 **옥겡이집**: 법환동은 제주에서 바람이 가장 센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초집을 일 때 '줄' 사이에 나뭇가지를 덧대어 단단하게 만든 '옥겡이집'으로 했다고 한다. '옥겡이집'은 지붕을 이고 '줄'을 맬 때 사이사이에 참나무나 소나무 가지를 꿰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은 제주에서 지상에 내려왔던 가신들이 일주일 간 천상에 올라가 새로운 신들과 교대하여 내려오는 날이다. 이날은 이사하거나 집안을 수리해도 탈이 없다고 여겼다. 이사하는 날은 소금과 팥을 가지고 가서 뿌려 잡귀를 없애고 이사 갈 때는 불을 제일 먼저 가지고 갔다. 한편 이사 갈 때는 그해의 운에 따라 '막은방'과 '튼방'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액운을 막기 위해 화로에 불을 살라 그 불 사이로 건너가게 하는 등 방사하였다.

• **집알이**: 거품이 잘 나는 비누 등을 이사 선물로 가지고 갔다.

3) 생업

(1) 보리 갈기 보리농사는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일 중 하나다. 보리씨를 뿌리기 위해서 '돗걸름'을 내어야 했다. '돗걸름'은 돼지우리의 거름으로 집안 마당에 내어서 그 위에 보리씨를 뿌린 후 소로 밟아주었다. 그래야 씨가 골고루 흩어지기도 하고 '칭기'가 생겨 보리씨를 뿌릴 때 좋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것을 망태기에 담아 소나 달구지에 실어 하나씩 밭으로 날랐다. 씨를 뿌릴 위치 중간중간에 '돗걸름'을 내려 놓은 후 손으로 조금씩 뜯어내어 고랑에 뿌렸다. 꽁무니에 쫓아오는 사람이 발로 고랑의 흙을 덮어주면 보리씨가 묻힌다.

(2) 감젓메 묻기 눈이 오기 전 고구마 모종을 미리 구덩이에 묻어둔다. 제보자는 그 시기를 놓쳐서 표선면까지 씨고구마를 사러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서귀포시 하원동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정월 멩질'은 우리나라 4대 명질 중의 하나다. 이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도 지내고 세배를 한다. 떡과 과일, 채소, 고기 등 맛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를 설계하는 날이기도 한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지가 모여 크게 명질을 지냈는데 요즘은 가까운 친족끼리 간소하게 치른다.

• **차례상**: 차례상에는 메, 갱, 술, 적 등을 올린다. 적은 산짐승부터 돼지고기, 묵, 바닷고기 등을 올린다. 산짐승은 노루고기를 주로 올리는데 머리쪽은 위쪽으로 가게 한다. 예전에는 소고기가 힘들어 잘 올리지 않았다. 바닷고기는 묵을 올린 후에 제일 나중에 올린다. 바닷고기는 주로 옥돔을 올리는데 조기도 구워서 올리기도 하였다. 묵은 메밀묵을 올렸다. 주로 '청묵'을 올리는데 여름 제사에는 '청묵'을 하면 빨리 쉬기 때문에 메밀가루로 지져서 올렸다고 한다. '탕쉬'는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세 가지를 올렸다. 늙은 호박을 '탕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떡 종류**: 떡은 '솔벤', 절편, 시루떡, 송편을 하였다.

• **세배**: 세배는 설날 차례를 지낸 후에 한다. 예전에는 명질이 끝나면 일가 어른이나, 동네 나이 드신 웃어른들한테 세배를 다녔다. 상을 모신 집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동네에 상이 많을 때는 열세 곳, 열네 곳,

열다섯 곳까지 있어서 세배하는 날짜가 이삼일 걸릴 때도 있었다고 한다.

2)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정월대보름엔 남자들은 연날리기도 하고, 여자들은 줄넘기와 줄다리기도 했다. 하원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에 삶이 여유롭지 않은 집에서도 보리밥 대신에 흰밥을 해서 먹었다고 하였다.

• **액막이**: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액막이는 주로 정월대보름에 한다. 옛날엔 길을 가다 '방쉬'한 것을 보면 업어써서 그 사람이 아프나 궂으나 한다고 하면서 명심해서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한다. 재수 궂으면 그런 거 봐서 얼먹는 사람도 있다. '액막이'를 위해 하원 마을에서는 바다에 가서 '지'를 드린다고 한다. '액막이'를 위해 백지에 쌀이랑 밥이랑 제반 걷듯이 모두 걷어서 종이에 싸는 것을 '지'라고 하고, 이를 용왕한테 드려 미리 액을 막는다. 짚으로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색 헝겊을 놓고, 닭이나 제물 등을 넣어서 바다에 띄우기도 한다. 아이가 그것을 주워오면 그 아이가 업어서 재수 궂으면 아프기도 한다.

3) 포제

(1) 날짜 마을에서 택일을 해서 정함.

(2) 풍속 제관은 동네 책임자가 선정한다. 마을 내에서 학문적으로도 유식하고 복이 있는 사람을 천거해서 제관 세 명, 집사 둘을 뽑는다. 포제를 지내려고 하면 일주일간 정성을 한다. 동네에서 정한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며 머물다 포제를 지낸다.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집 앞에 왼새끼를 꼬아서 금줄을 맨다.

포제는 마을 주민들이 돈과 쌀 등을 모아 지냈다. 주민들에게 걷은 돈으로 제물을 사고 메와 떡을 해서 제를 지냈다. 포제 때 '제숙'은 바닷고기나 육고기나 굽지 않고 생채로 올린다. 시루떡은 베지 않고 통째로 올렸다가 제를 지낸 후에는 베어서 나눠 먹었다. 떡은 조떡도 하고 흰떡도 한다. 흰떡은 시루에서 쪄서 하고, 조떡은 시루에서 하면 잘 익질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발에 가루를 담아서 솥에서 쪄냈다. 제보자는 마을에서 포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4) 당제

(1) 날짜 매달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2) 풍속 정월이 되어서 '본향'에 갈 때는 새 곡식으로 메를 해서 올리고, 창호지에 새 곡식 한 보시기씩 싸고 가서 골고루 뿌리기도 한다. '본향'에는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등 이레날에 간다. 초이레에 못 간 사람은 열이레에 가고, 열이레에 못 간 사람은 스무이레도 간다. 보통으로 열이레에 많이 간다고 한다. 당에 갈 때는 빨간 헝겊, 파란 헝겊, 노랑 헝겊 세 가지 물색을 갖고 가서 신목에 매단다.

제물로는 '돌레떡'과 흰 메, 바닷고기, 과일을 갖고 간다. '돌레떡'은 쌀을 한 되 물에 담갔다가 빻아서 만들어서 갔다. 메밀가루로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 여유가 없으면 메만 해서 가기도 한다. 메는 사발메 두 그릇과 보시기메 세 그릇을 해서 간다. 술은 감주를 갖고 간다. 감주를 못하면 오렌지맛 탄산음료를 올리는 사람도 있다. 당에 갈 때는 향로를 들고 가서 향불을 피운다. 하원동에는 동회와 뒷동산에 당이 있다. '동횃본향'엔 심방이 가서 제비를 봐주기도 한다. 요즘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5) 걸궁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제보자는 하원동에서도 '걸궁'을 했었다고 한다. '걸궁'은 동네 청년이나 부인들이 모여서 마을과 집집마다 돌면서 춤추고 북 두드리며 하는 놀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춤추고 놀아주면 그 집에서 돈을 내준다. 그 기금을 모아 마을 일에 썼다고 한다. 제보자가 성장한 후에는 '걸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집안에 액막이가 된다고 해서 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걸궁을 할 때에는 머리에 '송낙(꼬깔)'을 쓰고, 천으로 어깨에 두르고, 꽹과리를 두드리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서 난장을 벌인다. 깡통을 들고 거지 흉내도 낸다. 총 쏘는 사람, 도롱이 써서 꿩깃 해서 머리에 꽂아서 사냥꾼 흉내를 내기도 하고, 일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해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6)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입춘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든다.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입춘 때는 남의 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입춘대길(立春大吉)을 대문에 붙이면 그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남자들은 남의 집에 가도 크게 말을 안 한다. 남자가 방문하면 우리 집에 일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했다. 여자가 남의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자가 가면 김 깃는다고 하고, 재수가 없다고 인식하여 금기시하였다.

□ 2월

1) 방에 부찜

(1) 날짜 2~3월 무렵.

(2) 풍습 목장의 가시덤불 등을 태우면 꼴과 띠가 잘 자란다고 하였다. 또한 '방에'를 붙이면 목장에 사는 진드기 등의 병충해가 덜어져 소가 잘 자란다고 하였다.

2) 생업

(1) 보리밟기 보리밭은 음력 2월경에 보리가 사뭇 자라지 않을 때 밟아준다. 겨울이 지나면 땅이 부풀기 때문에 보리 뿌리가 들리어, 보리가 좋지 않다. 보리 뿌리가 잘 내려야 보리가 잘 여문다고 하여서 보리밭 밟기를 하였다.

□ 3월

1) 한식 명절

(1) 날짜 양력 4월 5일이나 6일 무렵.

(2) 풍속 한식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의 하나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제보자는 말만 들었지 직접 한식을 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옛날이야기로는 중국의 백이숙제라는 충신이 불타서 죽어 버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 한식 명절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한식에는 더운밥과 국은 하지만 적 같은 거나 '탕쉬' 같은 건 미리

차려서 식은 음식으로 차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하였다.

2)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청명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다.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든다. 하원동에서는 청명과 한식에 묘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청명에는 묘소 정리를 하고, 청명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3) 테우리코사

'테우리코사'는 목장에 소를 올리기 전에 '인일(寅日)'이나 '신일(申日)'을 택해서 낙인을 찍고 이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낙인을 찍을 때는 간단하게 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를 '테우리코사'라고 한다. 낙인은 집안마다 글자를 다르게 하여 소를 구별하기 쉽게 하였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날 절에 가서 식구 숫자대로 등도 달고 불공을 드린다. 예전에는 초파일에 아기들 머리를 깎아주었다고 하였다. 하원동에서는 초파일에 머리를 깎아주는 것이 큰굿을 해준 것보단 낫다는 말도 전한다. 요즘은 그렇게 머리를 깎아주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 5월

1) 망종

(1) 날짜 양력 6월 6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다. 소만과 하지 사이에 든다. 하원동에서는 예전에 망종에 '반가을'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망종이면 작년 가을에 파종한 농사를 추수를 하여 1년 농사의 반은 추수를 마치기 때문이다. 망종에는 보리를 베어들일 때다. 목장밭에는 밭벼를 갈아 밟는다. 농사일이 아주 바쁜 때다. 망종에는 보리 곱고 삼 거릴 때라고 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망종 전에 보리가 다 끝난다고 한다.

(3) 속담

• 망종에 보리 곱고 삼 거린다.

2) 하지

(1) 날짜 양력 6월 21일경.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유월절 바로 직전 절기가 하지다. 유월절 들면 장마가 거의 끝나간다. 하원동에서는 하지 쯤에 '박전'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박전'은 아주 척박한 땅으로, '박전'에 조를 갈려면 하지 쯤에 해야 가을 들어서 여물이 조금 나아진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하지는 아주 바쁜 시기다. '박전' 농사로 목장 같은 데 파종한 조는 하지 때 밟아야 되고, 고구마도 하지가 되면 심기 시작하였다. 벼와 콩 같은 것도 그 시기에 파종을 해야 한다.

□ 6월

1) 유월절

(1) 날짜 양력 7월 7일이나 8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유월절인 소서를 하루라도 넘기면 땅에서 더운 김이 올라와서 고구마덩굴이 잘 자라지를 않는다고 하였다. 좋은 밭 가진 사람은 유월절 넘어서 조를 파종하는 사람도 있었다. 척박한 밭들은 유월절에 조도 갈고 콩도 간다고 하였다. 좋은 밭인 '거리왓전'이나 해변에 좋은 '굴렁밭'에는 '마걷이'라고 해서 장마가 끝날 때 조를 파종하면 조가 좋다고 한다. 조는 파종 후 삼 일이면 싹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2) 둑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음력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먹는 날이다. 옛날은 집에서 직접 닭을 길러 유월 스무날에 닭을 잡아먹었다. 닭이 많은 집에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잡아서 주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을 보기하고, 더위 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병아리를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기르면 먹을 만하다고 하였다. 요즘에는 초복과 중복, 말복 등 삼복에 보신을 위해 닭고기를 먹는다.

3) 생업

(1) 조 불리기 조는 오월 보름에서 유월 보름 사이에 간다. 유월절 전후

삼일에 한다고 한다. 좁씨는 자잘해서 밭을 갈아놔서 씨를 뿌린 후에 밟는다. 하원동에서는 조를 '볼릴' 때 주로 소를 이용하는데 보통 두 마리나 세 마리를 연매어서 밟는다. 좁씨를 뿌릴 때는 망태기나 자루에 담아서 손으로 뿌린다. 씨를 잘 뿌리는 사람은 좁씨를 쥐어서 열두 번 던지는 사람이라고 한다. 좁씨가 골고루 가게 잘 뿌려야 김매기도 수월하고 수확도 좋다고 한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칠석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예전부터 전해온 칠석에 대한 이야기는 견우직녀가 은하수 동쪽과 서쪽에 있다가 건너간다는 것이다. 은하수에 다리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으니 이날 저녁에 까마귀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리를 놔서 견우직녀가 서로 만났다는 전설이 있다.

2) 백중제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하원동에서 백중제는 논이나 바다에 가서 풍년과 만선을 기원하면 지내는 제의다. 하원동 사람들은 백중에 고기를 굽고 밥을 해서 논에 가서 고수레하고, 어민들은 배에 가서 고수레하였다고 한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쉐테우리 백중제'라 해서 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갈 때, 쌀하고 바닷고기, 노루 포육이 있으면 갖고 가서 큰 돌이나 큰 나무 밑에 가서 제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 **물맞이**: 제보자는 어렸을 때 어느 때면 물 맞는 날이 올 것인가 기다렸다고 한다. 물 맞으러 갈 때는 메밀가루로 '돌레떡'를 만들고 사탕수수를 갖고 갔다. 일종의 피서인 셈이다. 물이 떨어지는 데 가서 물을 맞으면 머리 아픈 것도 낫고 신경통에도 좋다고 하였다. 요즘은 물 맞으러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제보자는 일년에 두 번 물을 맞았다고 하였다. 백중날과 처서에 물을 맞으면 더위도 가고 허물에도 좋다고 하여 아침부터 어둡도록 물을 맞았었다고 하였다.

3) 입추 · 처서

(1) 날짜 양력 8월 8일 또는 9일, 8월 23일 무렵.

(2) 풍속 입추는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대서와 처서 사이에 드는데 이때부터 가을이 시작된다고 한다. 하원에서는 입추 칠월절에 보리를 볶아서 미숫가루를 만들어 들에 다닐 때 미숫가루를 싸고 가서 먹었다고 하였다.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의 절기로 이때를 고비로 더위가 가신다고 한다. 하원동에서는 백중과 함께 이날에 물을 맞으면 좋다고 한다. 처서 쯤에는 한라산에서 자라는 시로미가 익는다. 시로미는 여자들 냉병에도 좋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고 해서 하원동 사람들은 이때 일부러 시로미를 따러 다녔다고 한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음력 8월 1일은 벌초하는 날이다. 벌초는 집안마다 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지만 대개는 이날을 기해서 한다. 벌초를 할 때 '산담'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손보기도 하였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팔월 멩질'은 추석을 말한다. 이날은 설날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지가 모여 차례를 지낸다. 햇곡식과 햇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낸다. 이날은 달이 밝아 달구경을 하기도 하였다.

(3) 명질 준비

• **떡 준비**: 예전에는 추석 때 '문친떡'을 주로 하였다. 요즘은 살기 좋으니까 여러 가지 시루떡도 하고 '솔벤'과 절편도 하고 송편도 한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추석 때 집에서 직접 떡을 쪘는데 특히 시루떡을 찔 때는 함부로 사람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이 들어오면 떡이 잘 익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즘은 떡집에서서 떡을 하는데 덜 익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 9월

1) 상강

(1) 날짜 양력 10월 23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때부터 산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추위가 온다. 조가 여름에 햇볕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익게 되면 서리가 내려서 여물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콩이나 팥, 녹두 등은 상강 즈음에 여문다. 목장 밭의 농사는 상강에 빨리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10월

1) 입동 · 소설

(1) 날짜 양력 11월 8일. 11월 22일 또는 23일.

(2) 풍속 입동은 겨울이 오는 시기이고, 소설은 눈이 조금 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입동은 보리를 가는 시기다.

2) 메주 쑤기

(1) 날짜 메주는 시월에서 동짓달 사이에 삶는다. 메주는 짝수 맞은 날을 택해서 삶았다.

(2) 풍속

• **메주 만들기**: 콩 삶은 것을 마대에 담아서 발로 밟아서 으깬 후에 메주를 만들어 귤 상자에 놔서 콩짚이나 조짚을 넣어서 띄웠다. 메주는 너무 추운 데는 안 되고 따뜻한 방에서 띄웠다. 그냥 널어서 띄우기도 하고, 짚으로 엮어서 한 줄씩 매달아서 띄우기도 하였다. 메주 띄우기는 한 달

정도 하였다.

• **장 담그기**: 콩을 한 말 삶으면 물은 두 '허벅'쯤 들어간다. 소금은 물 한 허벅이면 두 되 정도 넣는다. 가족의 본명일이 아닌 날에 담근다. 간을 맞출 때는 달걀을 띄워 달걀이 백 원짜리 동전만큼 보이게 뜨면 간이 맞다고 한다. 싱거우면 달걀이 가라앉고, 짜면 위로 둥둥 뜬다. 장은 보통 섣달그믐에 담근다.

• **장아찌 만들기**: 장을 담글 때 하원동에서는 '반치(파초)'와 무, 모자반을 함께 넣어서 하기도 한다. 그렇게 담근 장아찌는 '반치지(파초장아찌)', 'ᄂᆞᆷ삐지(무장아찌)', 'ᄆᆞᆷ치(모자반장아찌)'다. 반찬이 없을 때 장아찌는 귀한 반찬이었다. 장아찌를 많이 하면 장이 맛이 없다고 하여 요즘은 장아찌를 같이 하지 않는다.

• **장 가르기**: 장을 담근 후 한 달 정도 있으면 장이 빨갛게 익는다. 그러면 간장은 간장대로 뜨고, 된장은 된장대로 분리한다.

□ 11월

1)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2일 또는 23일.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를 말한다. 이날은 동짓날이라 하여 예전부터 팥죽을 쒀서 먹었다. 예전에는 직접 팥을 갈아서 동지에 팥죽을 쒀서 먹었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많이 쒀서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팥죽을 쒀서 '올레'에 뿌리기도

하였다.

2) 띠 베기와 지붕이기

(1) 날짜 음력 11월.

(2) 풍속

• **띠 베기**: 가을 농사가 끝나면 띠를 벤다. 띠 베기를 허락하는 것을 '새 헤치'라고 하여 동네에서 날을 정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띠를 베었다. 하원동에서는 '케파장'이라고 해서 꼴이나 띠 같은 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었다.

• **각단 베기**: '각단'은 띠와 같이 벤다. 띠는 '각단'보다 길이가 좀 더 긴 것이고, '각단'은 길이가 짧은 띠를 말한다.

• **집줄 놓기**: 집줄은 '각단'을 이용해서 만든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집줄을 놓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줄을 놓으면 고르게 놓지 못해서 '각단'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한다. 고르지 못한 줄은 지붕을 엮을 때 쓸 수가 없다. 집줄을 놓을 때는 '호렝이'와 '뒤치기'가 있어야 한다. '집줄'은 '짧은줄'과 '긴줄'이 소용되는데, '짧은줄'이 '긴줄'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였다.

• **지붕이기**: 지붕을 일 때는 적어도 셋이 필요하다. 지붕 위에서 집 이는 사람 한 사람, 아래에서 띠 올리고 줄 매는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하다. 심부름하는 사람까지 하면 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까지 필요하다. 집을 일 때는 우선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바람 없고 따뜻한 날이어야 한다. 옛날은 좋은 날을 택해 지붕을 이지 않으면 띠가 빨리 썩는다고 해서 개날이나 토끼날 같은 날을 택해서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 12월

1) 납평날

(1) 날짜 동지 뒤 셋째 미일.

(2) 풍속 납평날은 엿을 고는 날이다. 하원동에서는 납평날에 엿을 하기 위해 동지에 엿기름을 놓았다고 한다. 엿기름은 '골'이라고 하는데, 동지에 '골'을 놓아야 약이 된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엿기름으로 감주도 만들고, 납평날에 엿도 고아 먹었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은 새 신은 들어오고 묵은 신은 나가는 그 사이를 말한다.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이사를 많이 했다. 요즘도 예년만은 못하지만 신구간을 찾아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신구간에는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집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 버려도 동티가 나지 않고, 집에 궂은 것을 없애 버려도 신이 모른다고 행각한다. 돼지우리도 고치고, 마당이 파인 곳도 신구간을 이용하여 메웠다. 신구간은 아무 데 만져도 흉이 없다고 하는 시기다.

• **이사**: 이사를 할 때는 솥단지부터 갖고 간다. 이삿짐을 옮기기 전에 소금과 팥, 콩을 뿌려서 나쁜 액을 막는다. 예전에는 잘사는 집에서는 이사하면 동네 사람들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사한 집에 갈 때는 성냥 한 통, 초 한 봉지 정도를 갖고 갔다고 한다.

3) 소한 · 대한

(1) 날짜 양력 1월 6일이나 7일, 양력 1월 20일 무렵.

(2) 풍속 소한과 대한은 아주 추운 때이다.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 하원 마을에서는 부엌 '봉덕'에 불을 살라놓고 그 옆에 앉아서 멍석도 짜고, 무명도 짰다. 대한에 나간 사람은 찾아보지도 말라는 말이 전한다.

(3) 속담

• 대한에 나간 사람은 찾아보지도 말라.

4) 섣달그믐

(1) 날짜 음력 12월 마지막 날.

(2) 풍속 섣달그믐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설 명질을 준비하였다. 또한 이날에는 동짓날에 쒀서 띄워 두었던 메주를 갖고 장을 담갔다. 이렇듯 섣달그믐은 명질 준비와 장 담그기 등 여성들이 해야할 일이 많았다. 그래서 섣달그믐날에 잠자면 눈썹이 흰다는 속담도 전한다.

(3) 속담

• 섣달그믐날 잠자면 눈썹 흰다.

서귀포시 대포동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아녀자들은 명질 떡을 빚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으로 술을 빚었다. 설을 맞아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설빔도 준비하였다. 제수를 위해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생선을 마련하였다. 이 모든 일들을 마을 모두가 서로 도우며 나누어 하였다. 대포마을은 명질 전날 '그믐반'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 '그믐반'은 명질 준비를 하느라 수고한 사람들에게 '무적떡', '조떡'이나 '고구마떡', '절편'과 '솔변'을 나누어 주었다. 떡을 만들며 수고한 고마움을 '그믐반'에 담아낸 것이다.

(3) 멩질 준비

• **떡 준비**: 명질 삼 일 전부터 떡가루를 준비한다. 방앗간이 없을 때는 연자방아에 쌀을 지고 가서 찧었다. 친척이 많은 집은 쌀을 닷 말 정도 갈아왔는데, 쌀가루를 갈 때도 예닐곱 명이 든다. 그렇게 갈아온 떡가루를 이용하여 떡을 빚었다.

• **술 준비**: 설을 지내기 위해서 소줏고리에서 소주를 빚었다. 소주는 차좁쌀가루로 '오메기떡'을 만들고 누룩과 물을 넣어 발효시킨 후 소줏고리에서 고아서 만들었다.

• **옷 준비**: 남자들은 주로 광목 바지저고리와 검은창옷을 입는다. 바지저

고리는 목화솜을 넣어 만들었다. 여자들은 주로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 **채소 준비**: 채소는 콩나물과 미나리 등을 준비하였다. 콩나물은 시루에서 직접 길렀는데 보름 정도 기르면 채소로 쓸 수 있었다고 한다. 대포는 논이 있어 미나리가 많이 자라, 그 미나리를 캐어다 채소로 사용하였다.

• **적과 제수**: 설날 돼지고기적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계를 만들고 돼지를 추렴하였다. 돼지고기적은 적꼬치에 꿰서 돌화로에서 구웠다. 바닷고기 제수는 구워서 올린다. 바닷고기 제수는 옥돔이나 조기를 이용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말려 사용한다. 제수 준비는 남자들의 일이었다.

• **과일 준비**: 과일이 귀할 때 대포에서는 차례상에 '산물(진귤)'과 '댕유지(당유자)'를 주로 올렸다고 한다. 대포 마을에는 '산물'이 있는 집이 두 집, '댕유지' 있는 집이 두 집 있었는데 그 집에서 얻어다 썼다고 한다.

(4) 그믐반 정월 명질에 쓸 떡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날이 필요하다. 특히 친족이 많은 집은 그만큼 많은 떡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려면 일손 역시 여럿이 필요하다. 아무리 쌀이 풍부지만 차례상에 올릴 떡을 나눠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준비한 게 '무적떡'이다. 쌀가루에 고구마, 호박, 무 따위를 넣고 쪄낸 '무적떡'을 별도로 쪄서 설을 함께 준비한 친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눠 주었다. 설날 차례상을 준비하는 섣달 그믐에 이렇게 나눠주는 떡을 대포동에서는 '그믐반'이라고 하였다.

(5) 차례 '궵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차례상은 떡부터 올리고, 적과 채소를 올린 후 잔을 올리고 메와 갱 순서로 진설하였다.

(6) 과세 친족과 이웃 어른에게 하는 세배를 말한다. 과세는 복숭아꽃이 질 때까지 다닌다고 한다.

2) 지붕이기

대포동에서는 정월에 지붕을 이었다. 지붕을 일 때는 좀이 없는 날과 바람 없는 날을 택해서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하였다. 지붕이기를 마치면 남자들이 할 일이 끝냈다고 한시름을 놓았다고 한다.

3)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정월대보름날 아이들은 연날리기와 공기놀이를 하며 놀았다. 연날리기는 주로 남자아이들의 놀이이고,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를 하였다. 처녀들은 모여서 쌀밥을 해 먹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대포동에서는 '밥헹 먹을락'이라고 하였다.

• **연날리기**: 동물개동산, 갯동산에서 연을 날렸다. 대포 마을에선 '연날리다'를 '연 올리다'라고 하였다. 주로 '가오리연'이나 '얼레연'을 만들어 올렸다.

• **공기놀이**: 남자아이들이 연을 날렸다면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를 했다.

• **밥헹 먹을락**: 처녀들은 정월대보름날 한 집을 정해 모여서 벗들과 '곤밥(흰밥)'을 해서 먹었다. 집에서 몰래 갖고 온 흰쌀을 모아서 '밥헹 먹을락'을 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곤밥'에 간장만 있어도 맛이 좋았다고 회상하였다.

4) 포제

(1) 날짜 음력 첫 해일.

(2) 풍속 대포 마을은 바닷가 마을이면서 벼농사를 지었던 마을이다.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비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였고, 아주 진중하게 치렀다.

(3) 제관 제관은 대포 마을의 각성바지 중에서 뽑았다. 제관들은 최대 일주일 정도는 포제를 지내는 집에서 정성을 하였다. 제관이 모이는 집에는 왼새끼로 꼰 금줄을 메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4) 제물

- **희생**: 희생으로 통돼지를 올렸다.
- **생선**: 비늘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날것을 통째 올렸다.
- **떡**: 백설기를 온전하게 썰지 않고 올렸다.
- **채소**: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세 가지를 올렸다.

5) 당제

(1) 날짜 음력 1월 7일(2월, 6월, 동짓달 매 7일).

(2) 풍속 당제는 여성 중심으로 올리는 무속 제의다.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대포 마을의 '콧뎅이ᄆᆞ루'에 당이 세 개 있는데 '콧뎅이ᄆᆞ루당'은 '본향당', 그 아래로 '토산당', 맨 아래쪽에 'ᄋᆞ드렛본향'으로 이루어졌다. 세 개의 당에는 제물 역시 따로 올렸다.

(3) 음식 제물로는 흰 메와 '돌레떡(도래떡)'을 올렸다. '본향당'에서는 도래떡 열네 개, 메 세 그릇을 올렸고, '토산당'에는 도래떡 스물네 개를 올렸다고 한다. 'ᄋᆞ드렛당'엔 사발메 한 그릇, 보시메 두 그릇을 올렸다.

6) 안택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가정의 안녕을 위해 비는 제사로 '칠성제'와 '올레코시'가 있다.

- **칠성제**: 뱀신인 칠성에게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의다. 제물로

고기와 밥과 떡을 하는데 칠성제 음식은 친족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집안 식구끼리만 먹는다고 한다.

• **올레코시**: 무당이 제의 막바지에 닭과 칼과 숟가락을 올레 밖으로 던지는 의식이다. 닭의 머리가 밖을 향하고 칼의 날과 숟가락 잎이 올레 밖을 향해야 그 집안이 편안하다고 믿었다.

7) 걸궁

'걸궁'은 걸립을 말한다. 대포 마을에서는 해방과 사삼 후 잠시 '걸궁'이 행해졌다고 한다. 걸립패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만 돌아서 여론이 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몇 회 못하고 걸궁은 이 마을에서 사라졌다.

8)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새철드는날'이라고 해서 여자들에게 남의 집의 출입을 금했다.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의 밭에 김이 무성해지니 외출을 삼갔다.

9) 방에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농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소를 먹이고 마소의 겨울 양식을 위해선 '촐(꼴)'을 수확해야 하였다. 꼴밭의 잡풀을 제거하고 마소의 천적인 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방에(방화)'를 놓았다. 대포동에서는 해마다 정월이면 바람이 없는 날을 골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목장이나 띠밭에 불을 놓았다.

10) 생업

(1) 보리밟기: 보리는 잘 밟아 줘야 싹이 튼튼하고 걸어 보리농사가 잘 된다고 하여 보리밟기를 했다.

11) 금기 · 속담

- 입춘날 여저들 방 베끗디 나기지 말라, 검질 짓나.
- 입춘날 저들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검질 짓나.

□ 2월

1) 영등굿

(1) 날짜 음력 2월 1일, 2월 15일(두 일뤠 열나흘).

(2) 풍속 대포의 옛 이름은 '큰갯마을'이다.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를 끼고 있어 해녀들의 삶은 마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인지 영등굿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다. 무명이나 소창을 커다란 대에 깃발로 달고 큰굿을 했다. 책임진 '줌녀'들은 이불까지 들고 가 며칠씩 자면서 굿 준비를 했다고 한다.

2) 생업

(1) 보리밭 김매기 보리밭의 애벌김을 맨다. 이때 보리밭의 김은 '진풀(별꽃)'이 주로 난다.

(2) 감젓메 놓기 대포 마을은 바닷가 마을이라서 모자반이라는 풍요로운 거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장마철이나 바람이 많은 여름 바닷가에 모자반이

파도에 떠밀려오면 걷어다 마당 한 구석, 또는 밭 한 모퉁이에 가려놓는다. 가을, 겨울을 지난 모자반은 2월에 고구마를 파종할 때 아주 좋은 거름으로 쓰였다.

(3) 톳 · 미역 · 모자반 채취

• **톳 허채**: 어촌계 관리 하에 허채를 한 후에 공동 채취하며 수협에서 톳을 일괄 수매한다.

• **미역 허채**: 미역도 허채한다. 톳과 달리 미역은 개인이 채취한 후 어촌계를 통해 판매한다.

• **모자반**: 농사용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유롭게 걷을 수 있다.

□ 3월

1)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봄이 되고 풀이 나기 시작하면 마소를 들판에 방목하거나 공동목장에 맡긴다. 마소의 방목은 청명을 기해서 이루어진다. 말은 풀을 한 말이나 뜯고 소는 닷 되를 뜯는다는 속담이 있다. 또한 이날은 추석 이후 돌아보지 못한 조상의 묘소에 난 잡초를 뽑고 무너진 '산담' 등을 손질하고 보수했다.

2) 시제

(1) 날짜 음력 3월.

(2) 풍속 제보자는 삼월 초닷새 조상의 묘에 가서 시제를 올리고

묘와 묘를 둘러싼 돌담을 손질했다. 일가 친족이 오전 10시와 11시 사이 모두 모여서 공동묘지 제단에 제물을 올려 제사를 지냈다. 시제를 지내는 날과 지내는 형식은 집안마다 가가례다.

3) 속담

• 말은 풀을 한 말 뜯고 소는 닷 되 뜯는다.

□ 4월

1)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제보자는 예전에 대포 마을 '광대코지'에 있는 절에 다녔었다. 사월 초파일에 불자들은 쌀과 불전을 준비하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 **머리 깎기**: 이날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가 곱게 자란다고 한다. 머리를 깎을 때는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조금만 남기고 'ᄆᆞᆫ들레기' 깎았다. 정수리에 남긴 머리카락은 삼승할머니 몫이라 하여 표적으로 남겨 두었다.

(3) 금기 · 속담

• 부처님 상단에 올릴 ᄉᆞᆯ구덕에 버선 놓지 말라.

2) 생업

(1) 벼 모종 놓기 음력 4월에는 벼 모종을 놓는다. 벼 모종은 집에서 큰 대야에서 싹을 틔운다. 모종을 심을 때는 덩어리진 흙을 일일이 손으로

푼 다음 소를 이용해 논바닥을 써레질로 골랐다.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산파로 모를 심다가 김매는 기계가 들어오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심는, 조파로 모심기가 바뀌었다.

□ 5월

1) 단오 명질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아침에 가족만 모여서 간단하게 제를 지냈다. 상도 안 차리고, 병풍도 치지 않는다. 귀신 먹으라고 함지박에 밥을 떠서 숟가락 꽂고 문전에 내놓은 다음 절도 하지 않고, 고수레하고 제를 마쳤다.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2) 생업

(1) 보리 수확 망종에 보리 수확을 마쳤다. 망종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소만과 하지 사이에 드는데 6월 6일 무렵이다.

(2) 여름 농사 준비 보리를 베고 난 밭의 보리 밑동을 갈아엎어 조, 콩, 고구마 등을 심을 수 있게 준비하였다.

(3) 고구마 순 심기 고구마는 보리 밑동을 갈아엎은 밭을 '네벳띠기'로 이랑을 깊게 판 후에 심었다. 이랑을 '네벳띠기'로 만들어야 고구마가 굵고 장마나 태풍에 쓸려가지 않아 수확이 좋았다고 한다.

(4) 옥돔 잡이 망종 무렵에 뱃동서(어부) 넷이 짝을 이뤄 먼바다인 마라도 해상까지 옥돔 잡이를 다녔다. 여러 날을 배 위에서 살며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풍선을 이용했다. 옥돔이 아주 많았을 때는 바다장어인 붕장어가 낚여도 바다에 그냥 버렸다고 한다.

3) 하지 · 소서

(1) 날짜 양력 6월 21일, 7월 6일 무렵.

(2) 농사 메밀을 제외한 밭농사 파종을 마친다.

□ 6월

1) 당제

(1) 날짜 음력 6월 7일, 17일, 27일.

(2) 풍속 '콧뎅이ᄆᆞ르'에 있는 본향당에 가서 당제를 올렸다.

2) 둑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음력 유월 스무날은 여름 농사가 거의 끝날 즈음이다. 이날이 되면 정월부터 기른 닭을 잡아서 온 집안 식구가 나눠 먹었다. 또 닭을 삶았던 육수에 쌀을 풀어 죽을 끓여 먹었다.

3) 생업

(1) 조 ᄇᆞᆯ리기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밭을 간 후 좁씨를 뿌렸다. 좁씨를 뿌린 밭 위를 마소 서너 마리를 '연매어' 골고루 밟아주는 작업을 했다. 이때 마소를 부리는 사람과 마소 꽁무니에서 모는 사람이 '밧 ᄇᆞᆯ리는 소리'

를 구성지게 부르며 밭을 밟는 작업을 했다.

(2) 김매기 장마와 더운 여름은 잡초를 순식간에 자라게 하였다. 그래서 제초제가 나오기 전에 농촌 지역에서는 불더위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김매기를 해야 했다. 고구마밭은 애벌, 조밭은 두벌, 콩밭은 세 벌까지 김매기가 이루어졌다.

4) 자리젯 담기

• 자리젓은 6월 자리로 담는 게 최고다. 5월 자리는 너무 기름지고 4월 자리는 떫다고 한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대포 마을은 바닷가 마을이라 칠석제를 용왕제로 올린다. 절에 가서 먼저 불공을 드린 후 '만디섬'에 있는 광명사 도량에 가서 제를 올리거나 대포마을 바닷가에서 월평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공을 드린다. 자손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원제다.

2) 백중제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대포 마을 포구인 '큰개물'에서 해녀들이 전부 모여 지내는 제의다. 해녀와 어부들의 건강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제의다.

3) 더위 깨기

• **물맞이**: 백중에 물맞이를 하면 더위가 깬다고 한다. 대포마을에서는 이날 약천사 옆 '선귓내'에 가서 물을 맞았다. 물맞이를 갈 때는 간식으로 사탕수수를 마디마디로 잘라서 갔다. 점심으로 쌀밥과 갈치구이 등을 싸고 가서 먹으면서 물맞이를 했다고 한다.

4) 생업

(1) 벼의 벌레 잡기 농약이 생산 되지 않았던 시절엔 방앗간에 가서 기계에 치는 기름을 얻어다가 손으로 논물에 헹구어 벼에 붙는 벌레들을 퇴치하였다.

5) 금기 · 속담

• 처서 돌아와 가면 검질도 울멍 돌아간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 **모둠벌초(문중벌초)**: 팔월 초하룻날은 벌초를 한다. 집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보자 집안은 종손이 주도 하에 선산인 윗대 할아버지 산소에 문중들이 모두 모여 합동으로 벌초를 하였다.

• **가지벌초**: '가지벌초'는 종손에가 갈리어 나온 지파들의 벌초다. '가지

벌초'는 문중이 함께 하는 '모둠벌초'를 한 후에 4대까지의 묘소의 벌초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정월 명질과 음식 준비는 별반 다르지 않다. 정월 명질에 '무적떡'을 하여 명질 준비에 수고하거나 동네 사람끼리 나눠 먹었다면 추석에는 '무적떡'에 '상웨떡'을 추가로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다.

3) 생업

(1) 꼴 장만 팔월 명질을 시작으로 가을걷이하기 전 거의 한 달은 겨울에 소에게 먹일 꼴을 베러 다녔다. 마소가 여러 마리 있는 집은 많게는 아흔 뭇 한 도리의 꼴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2) 멸치잡이 밀물에 들어왔다 썰물에 나가지 못한 멸치들이 '원담'에 몰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멸치를 떠오는 경우가 있다. 멸치잡이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발동선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멸치잡이는 8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그물을 치고 걷기 위한 인원이 열두 명은 돼야 했다. 주로 모슬포항에서 젓갈용으로 판매되었다.

□ 9월

1) 생업

(1) 벼 추수 벼 추수는 상강 전에 한다. 벼 추수를 위해서는 먼저 천제연

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서 논의 물을 말려야 한다. 탈곡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일이 '홀테(그네)'로 이삭을 훑으며 벼를 장만했다고 한다.

⑵ 조·콩·고구마 등 수확 여름 농사의 가을걷이는 상강 전에 이루어진다. 특히 고구마는 캐는 과정에 찬바람을 맞으면 '감젓메(고구마 파종)'를 놓는 3월까지 보관이 어렵다고 한다.

□ 10월

1) 생업

⑴ 보리 파종

• **돗걸름 내기**: 가을걷이를 끝낸 밭에 보리를 갈았다. 보리를 갈기 위해 밑거름인 돼지거름을 이용하여 보리파종을 했다.

• **논밭 갈기**: 벼농사를 했던 마른 논은 '돗걸름'을 이용하지 않고 보리씨에 재를 섞어서 갈았다. 보리를 갈기 전에는 벼의 밑동을 갈아엎은 후 곰방메로 일일이 밑동에 뭉친 흙덩이를 푸는 작업을 한다. 그 후에 재에 보리씨앗을 섞어 파종한다. 논밭에는 주로 쌀보리를 심었다.

□ 11월

1) 동지

⑴ 날짜 양력 12월 21일 무렵.

⑵ 풍속

• **팥죽**: 동지에는 팥죽을 쒀서 먹었다. 쌀가루에 소금 간을 해서 익반죽한 후 수제비를 만들어 팥죽에 함께 넣어서 먹었다.

2) 초가집 지붕 준비

대포 마을에서는 초가지붕을 이어야 한 해의 일을 다 마쳤다고 여겼다. 지붕을 이어야 새해 새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 지붕을 이기 위해 필요한 띠 베기와 집줄 놓기는 한 해 삶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 **띠 베기**: 띠는 삼간집 한 채를 이기 위해 팔십 뭇에서 백 뭇이 필요하다. 두 해에 한 번꼴로 지붕을 인다.

• **각단 베기**: '각단'은 '집줄'을 놓기 위해 필요한 짧은 띠를 말한다. '집줄'은 지붕을 동여매는 줄이다. 한 번 집을 이을 때 집줄을 만들 '각단'은 서너 바리가 필요하다. 대포 마을에서 '각단' 한 바리는 스무 뭇이다. '각단'을 해 온 후에 틈나는 대로 줄을 놓고 사려놓았다가 지붕을 일 때 사용하였다.

3) 생업

(1) 해산물 채취 동지 넘으면 해삼, 오분자기, 소라,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한다.

□ 12월

1) 땔감 준비

• **땔감 준비**: 해안마을인 대포 마을은 땔감 준비도 큰일 가운데 하나였다. 곡식을 장만한 다음의 모든 짚과 대는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마소의 먹이나 불을 때는 데 사용했다. 겨우내 방을 덥힐 '굴묵'을 때야 하고 혹여 있을 잔치나 큰일에 쓸 땔감도 눈이 오기 전에 충분히 해다가 쌓아 놓아야 하였다. 해안마을이라 땔나무를 함께하는 '낭계'를 만들고 나무가 우거진 '낭고지'에까지 가서 땔감을 해왔다. 땔감 한 묶음을 '혼 줄레'라고 하였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은 신들의 인사이동을 하는 기간이다. 이때는 모든 신들이 천상에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는 기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기간에 이사나 집수리, 금기하는 모든 일들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해서 이 기간엔 이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 **이사**: 먼저 밥솥을 들인 후에 친족들을 초대해 이삿밥을 해서 나눠 먹었다.

• **집알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사한 짐에 초나 성냥을 갖고 가서 집안의 번창을 기원하였다.

3) 소한 · 대한

(1) 날짜 양력 1월 5일과 1월 20일 무렵.

• **소한 이야기**: 대포마을에서는 초석을 만들어 파는 초석 장수가 있었다. 이 초석 장수는 제주시 성안에 초석을 팔러 가다 얼어 죽었는데 다음해 3월이 돼서야 그 시신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4) 장 담그기

(1) 날짜 섣달그믐 전.

(2) 풍속 대표 마을에서는 섣달그믐 전에 장을 담근다고 한다. 장을 담글 때는 가족의 띠가 없는 날을 골라서 하였다. 독특한 건 이 마을에서 된장을 담글 때 된장의 반을 무를 함께 넣었다고 한다. 일종의 무장아찌인 셈이다.

5) 금기 · 속담

- 소한에 나간 사람 찾아보지 말라.
- 장 담글 땐 식구 띠가 없는 날 골라서 명심해서 담아야 한다.

안덕면 감산리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정월 멩질은 음력 1월 1일에 한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명질이다. 감산리에서는 작은집부터 먼저 제를 지내고 종갓집은 맨 나중에 제를 지낸다.

(3) 절식

- **떡**: 시루떡, '솔벤', 절편, '은절미', '웃기떡'을 올린다.
- **적**: 돼지고기적, 소고기적, 문어적, 묵적 등을 한다.
- **묵**: 메밀쌀을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가루로 쑨 묵과 청묵을 한다.
- **탕쉬**: 고사리, 미나리, 콩나물 세 가지를 만들고, 호박도 가끔 한다.

2)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정월대보름에 특별한 풍속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액막이를 위해 굿을 하기도 한다.

- **액막이**: 정월대보름에 집안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굿을 한다. '액막이' 혹은 '방쉬'를 한다. 채롱에 밥, 떡, 과일, 고기를 놓고, 백지로 사람 형태를 만들고 세워서 밭 구석에 둔다.

3) 포제

(1) 날짜 음력 1월 중 택일.

(2) 풍속 감산리에서는 제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서 구경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 후로는 지내지 않는다. 마을에서 날을 정해서 하고 제는 자시(子時)에 행한다. 옆 마을인 안덕면 화순리는 농포제라는 이름으로 제를 지낸다.

• **제관**: 제관은 해마다 마을에서 선정하는데 부정 타지 않게 삼 일간 포제청에서 잔다.

• **제물**: 밥 올리는 것은 확실히 기억하지만, 떡을 먹었던 기억은 없다고 한다. 돼지는 잡아서 생채 올린다.

4) 당제

(1) 날짜 음력 1월 7일, 17일, 27일.

(2) 풍속 감산리에는 '일렛당'과 '여드렛당'이 있었다. '통물당'은 정월 초이레와 열이레에 가는 '이렛당'으로, 주로 중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부정을 타거나 해서 못 가면 스무이레에도 간다. 제보자는 '여드렛당'인 토산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는 토산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 **제물떡**: 메밀가루나 쌀가루로 도래떡을 만드는데 당에 가는 떡에는 소금을 안 넣는다. 주로 전날 저녁에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채롱에 넣어 가져간다.

• **제물**: 옥돔, 밥, 술, 도래떡 네다섯 개.

• **금기**: 돼지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백지를 사른다.

• **고수레**: 당에 가서 올렸던 밥을 위로 한 숟가락 뜨고, 생선과 떡을 조금 뜯어서 돌구멍이나 절벽 틈에 놓는다.

• **제비점**: 무당이 쌀을 높이 던졌다가 잡아서 집안 식구들의 그해 운수를 본다.

5) 칠성제

(1) 날짜 음력 1월 무렵.

(2) 풍속 감산리에서는 정월에 '칠성제'라고 해서 무당을 빌려서 굿을 하는데 이는 '밧칠성'을 위한 것이다. '안칠성'을 위해서는 제사할 때 제반 걷어서 고방에 올린다.

• **주저리 교체**: 제보자는 '밧칠성'을 모셨는데 일 년에 한 번 무당을 빌려 고사를 지내고 새 주저리로 교체했다.

• **제물**: 밥 한 사발, 고기, 과일, 떡, 생선.

6) 문전제

(1) 날짜 연중.

(2) 풍속 문전제는 같은 가문에서도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다.

• **제반**: 보시에 음식을 조금씩 뜯어 놓는 것을 제반 걷는다고 하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면서 지붕에 올렸다.

• **물박 숭늉**: 사발에 숭늉과 상에 올렸던 음식을 조금씩 뜯어서 올레 어귀에 가서 붓는다.

7) 보리밭 밟기

(1) **날짜** 음력 1월 중.

(2) **풍속** 보리를 파종하고 나서 얼었던 땅이 부풀어 오르면 밟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보리가 잘 발아한다. 해변에 있는 밭은 밟지 않아도 되지만 '웃드르'에 밭이 있는 경우는 식구들이 가서 직접 보리밭을 밟았다. 소로 밟지는 않는다고 한다.

8) 걸궁

(1) **날짜** 음력 1월 중.

(2) **풍속** 동네에서 정월이 되면 걸궁패를 만들고 역할을 정한다. 사냥꾼, 북 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등을 정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참 동안 놀아준다. 걸궁을 하면 액막이가 되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넋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큰다고 한다.

• **복장**: 사냥꾼은 털옷을 입고, 털감투를 쓰고, 총과 칼도 든다. 사냥꾼을 제외하고는 갈중의, 무명옷을 주로 입었다.

• **대가**: 흰쌀은 힘들고 보리쌀 '뒈약세기' 정도 준다.

9)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입춘에 공들이는 사람도 있고, 무당 빌려다가 집안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해 달라고 굿을 하기도 했다.

(3) **금기**

• 여자들 입춘 시간 넘기 전에 남이 집이 가면 검질 짓나.

• 남자가 들어온 건 재수 좋고 여자가 들어가민 그 집안에 재수 엇다.

10) 방에 부찌기

(1) 날짜 음력 1월 무렵.

(2) 풍속 감산리에서는 'ᄀᆞ는오름'이나 'ᄆᆞᆯ마농물' 쪽에 봄이 되기 전에 불을 붙였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때 본 적은 있는데 불을 끄러 가보지 않고 구경은 많이 했다고 한다.

• **진드기**: 오름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은 소나 말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진드기가 크면 '부구리'가 된다.

• **고사리**: 오름이나 들에 불을 붙이고 나면 고사리가 잘 자란다.

□ 2월

1) 영등

(1) 날짜 음력 2월.

(2) 풍속 보통 '영등신'은 이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보름에 나간다고 한다. 감산리는 바닷가 마을이 아니라서 바다로 '영등신'이 들어왔다고 하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또한 영등굿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영등할망 들어오면 조개들을 모두 까먹어서 빈 조개가 된다.

• 우장 쓰곡 입성 좋은 할머니 들어오면 비만 오고, 날씬하게 차려서 오면 날이 좋다.

2) 경칩

(1) 날짜 양력 3월 5일 무렵.

(2) **풍속** 감산리에서 경칩에 특별하게 하는 행사는 없다.

□ 3월

1) 한식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질의 하나이다. 감산리에서는 한식 명질을 하지 않는다. 그 즈음에 쑥떡 해서 먹은 기억은 있다고 한다.

2) 청명

(1) **날짜** 양력 4월 4일 무렵.

(2) **풍속** 청명에는 동티가 나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허물어진 '산담'을 다시 쌓는 등 조상 묘를 돌본다.

3) 묘제

(1) **날짜** 음력 3월.

(2) **풍속** 감산리에서는 청명 즈음에 묘제를 지낸다. 근친만 모여서 하는 묘제가 있고 윗대 조상 제를 지내는 묘제가 따로 있다고 한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사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등을 달고 불을 켠다.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머리카락이 잘 난다고 해서 머리를 깎았었다.

□ 5월

1) 단오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감산리에서는 육십년대 초반까지 단오 명질을 했다. 오월 단오 때는 농촌에서 아주 바쁜 때다. 감산리에는 논이 많아서 논일이 한창일 때이고 보리를 베기도 했다. 명질을 지내는 둥 마는 둥 하고 일하러 갔다고 한다.

• 정월 명질은 아침 조반이고, 오월 단오는 점심이고, 팔월 추석날은 저녁이다.

2) 망종

(1) 날짜 양력 6월 6일 무렵.

(2) 풍속 망종이란 벼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 시기는 보리 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이때 조를 가는 사람도 있다.

• 망종 전이 늦은 보리도 다 벤다.

□ 6월

1) 독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감산리에서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먹는 날이다. 농촌에서는 유월 스무날 즈음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몸이 약해질 때다. 그래서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닭을 잡아먹었다.

• **병아리 키우기**: 이월이나 삼월에 병아리를 깨워서 좁쌀을 주면서 키운다. 밤엔 망으로 덮고, 낮에 텃밭에 가서 벌레도 주워 먹게 하며 중닭 정도 크기로 키운다.

• **병아리 지키기**: 까마귀나 솔개가 병아리를 채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밭에 갈 때 아이들은 집에서 병아리를 지켜야 한다.

2) 삼복

(1) **날짜**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2) **풍속** 삼복은 가장 더운 때다. 감산리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에 몸보신이 될 만한 영양가 있는 닭을 잡아먹는다.

• 아으덜 ᄃᆞᆨᄂᆞᆯ개 먹으민 그릇 시칠 때에 사발 벌러 분다, ᄂᆞᆯ개 아으덜랑 주지 말라.

3) 조 ᄇᆞᆯ리기

(1) **날짜** 음력 6월.

(2) **풍속** 감산리에서는 좁씨를 뿌린 후 밭을 밟았다. 소나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해서 밟는다. 안덕천 밑쪽은 땅이 강해서

좁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 뿌려야 한다.

• **섬비질**: 보리수나무나 쥐똥나무를 엮어서 넓게 만들어 돌을 올려 놓고 끌면 좁씨를 뿌린 위로 흙이 덮인다.

• **정씨**: 좁씨는 크기가 작아서 잘 뿌려야 한다. 특히 일정한 간격으로 잘 뿌리는 것을 '정씨'로 뿌린다고 한다.

• **검질 고단**: 감산리는 다른 지역보다 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검질 고단'으로 불린다. 그래서 다른 지역 처녀들이 감산리로 시집오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3) 속담

• 소는 뿔을 연매어서 우두머리 소를 고삐로 끌면 다른 소들은 따라온다.

• 말들은 나이가 지긋이 든 말을 선장으로 해서 이끌면 다 따라온다.

4) 유월절

(1) 날짜 양력 7월 7일 무렵.

(2) 풍속 유월절은 소서 전후로, 유월절 전에 여름 농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 **조 파종**: 농토가 좋은 밭은 유월절 넘어서 '마걷이'로 조를 갈기도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유월절 전에 농사를 마쳐야 한다.

• **고구마 파종**: 고구마도 유월절 전에 심은 고구마는 잘 들어서 좋고, 유월절 넘어서 심으면 볕살이 너무 심해서 죽어버리고 잘 들지도 않는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무렵.

(2) 풍속 칠월 칠석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감산리에서는 칠석에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2) 백중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감산리에서는 백중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또한 백중에 물을 맞으면 부스럼이 없어진다고 해서 물이 떨어지는 곳에 물맞으러 간다.

3) 모살찜

(1) 날짜 음력 7월.

(2) 풍속 감산리에서는 화순해수욕장에 모래찜을 하러 갔다. 모래를 파서 그 안에 누우면 모래를 덮어준다. 더워서 오래 누워 있지 못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모래찜을 하곤 했다. 어릴 때는 모래찜의 효과나 이유를 모르고 재미 삼아 했었다. 모래찜질하다가 '금나라 어금나라'하면서 발로 모래를 비비면 백합 조개들이 나왔다고 한다.

4) 물맞기

(1) 날짜 음력 7월.

(2) 풍속 감산리에서는 대평리 '박수기정'에 가서 물을 맞았다고 한다. 물을 맞으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부스럼에 좋다고 한다.

5) 처서

(1) 날짜 양력 8월 23일 무렵.

(2) 풍속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다. 모기도 활동을 못하고 밭에도 김이 더는 자라지 않아 매지 않았다.

- 처서 지나면 모기가 입 오그라져서 물지 못한다.
- 처서 지나면 '검질'이 오다가 울면서 돌아가 버린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혹은 8월 첫 번째 일요일.

(2) 풍속

• **가족 벌초**: 가족 벌초를 먼저 한다. 제사를 같이 먹는 가족들이 하는 벌초다. 벌초만 하고 담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올려놓는 정도 한다.

• **모둠 벌초**: 모둠 벌초를 윗대 벌초라고도 한다. 모둠 벌초는 꼭 참석해야 한다. 조상도 몰라서 벌초 안 왔다고 하면서 욕 듣는다. 벌초 때 묘제하는 집안도 있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팔월 명질은 추석을 이르는 것으로 설날인 정월 명질과 더불어 대표적인 명질이다. 추석에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설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3) 절식 송편과 시루떡을 만들고, 차례상에 올릴 때는 시루떡 위에 송편을 올려놓는다. 전, 돼지고기적, 소고기적, 바닷고기, 과일, 메, 갱, '탕쉬'를 올린다.

□ 9월

1) 상강

(1) 날짜 양력 10월 23일 무렵.

(2) 풍속 상강 돼서 서리가 내리면 그때부터 추워진다. 고구마 같은 것도 상강 전에 자라고 그 후에는 고구마가 더 여물지 않는다.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곡식을 수확해야 한다.

□ 11월

1)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1일 무렵.

(2) 풍속 동지에는 팥죽을 쒀서 먹는다.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의 네 귀퉁이에 팥죽으로 방법을 한다.

• **팥죽**: 상이 나면 사돈이 팥죽을 쒀 간다. 동지 팥죽이나 의미는 비슷하다. 요즘은 귤 딸 때 간식으로 팥죽을 쒀서 먹기도 한다.

2) 띠 준비

(1) 날짜 음력 11월.

(2) 풍속 모든 농사가 다 끝나는 음력 십이월이 되면 띠를 베러 간다. 부잣집에는 띠를 기르는 띠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판의 띠를 베어오기도 한다. 집줄을 만들 '각단'도 따로 준비한다.

□ 12월

1) 장 담그기

(1) 날짜 음력 12월.

(2) 풍속

• **콩 삶기**: 콩을 전날 물에 담갔다가 뒷날 아침부터 콩을 삶는다. 자기 집 식구의 띠가 없는 날, 만약에 내가 토끼띠면 토끼날에는 안 삶는다. 띠 없는 날이라도 뱀날, 용날, 원숭이날은 콩을 안 삶는다. 말날, 닭날, 개날, 토끼날, 소날이 콩을 삶기에 좋다고 한다.

• **메주 만들기**: 콩을 삶으면 소쿠리에 건져서 물을 빼고 '덩드렁마께'로 콩을 빻는다. 다 빻으면 메줏덩이를 만든다. 메주를 볏짚에 두 개씩 놓고 졸라매어서 '공장'에 달아맨다. 곰팡이가 피고 마르면 장을 담근다.

• **장 담그기**: 동짓달이나 섣달에 가족 중에 띠 없는 날을 골라 장을 담근다. 메주를 씻어서 조금 볕에 말리고, 전날 소금물을 만들어 둔다. 장을 담글 때는 항아리에 메주부터 차근차근 넣고 소금물을 바가지로 떠서 넣는다. 콩 한 말 삶으면 소금은 두 되 정도 넣는다. 옛날에는 짐작으로 했다. 메주가 떠오르지 않게 대나무를 걸쳐 둔다.

• **장 분리**: 장을 담그고 삼 개월 정도 되면 익는다. 다른 항아리에 간장을

모두 떠 두고 메주를 꺼내서 손으로 문질러 담갔다 익으면 된장이 된다.

2) 지붕이기

(1) 날짜 음력 12월.

(2) 풍속

• **집줄 놓기**: 집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렝이'와 '뒤치기'가 있어야 한다. 집줄을 만들 땐 품앗이를 한다. 동네 청년들이 와서 집줄을 '어울려' 준다. 집이 삼간이면 긴 줄이 열여덟 개, 짧은 줄이 서른 개 이상 필요하다. 보통 짧은 줄은 긴 줄의 곱빼기를 준비한다.

• **지붕이기**: 정월달 '본 날' 바람 없이 잔잔한 날 지붕을 인다. 지붕 위에는 띠 덮는 사람이 '새'를 잘 덮어야 비가 안 샌다. 줄 매는 사람은 둘, 양쪽으로, 짧은 줄이든 긴 줄이든 남자 둘 해서 맨다. 초벌 매었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새로 그걸 또 당기면서 조여 맨다.

3) 소한 · 대한

(1) 날짜 양력 1월 5일, 20일 무렵.

(2) 풍속 소한은 일 년 중 가장 추울 때다. 따뜻한 옷도 부족하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한 · 대한 즈음에는 멀리 나가지 말라고 말한다.

• 소한에 나간 사람은 대한에 보지 말라.

4)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은 제주의 특이한 풍속으로 이 기간에는 신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흉보는 게 없다고 한다. 돼지우리 같은 것는 동티난다고 해서 담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신구간에는 손을 볼 수 있다. 집을 손보는 것도 주로 신구간에 한다.

• **이사**: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풍습이 있다. 감산리에서는 이사 갈 때는 솥부터 먼저 가져간다.

• **집알이**: 이사를 하면 친척 어른이나 동네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사한 집에 갈 때는 성냥이나 초를 가져간다. 성냥은 불이 일어나는 거라서 성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5) 섣달그믐

(1) 날짜 음력 12월 마지막 날.

(2) 풍속 감산리에서는 섣달그믐날 '그믐밥'으로 흰쌀밥을 해서 먹었다. 따로 사는 자식이나 가까운 친족도 오라고 해서 모여 앉아서 '그믐밥'을 먹는다. 섣달그믐날은 잠을 자지 않고 양말 같은 것을 짜면서 밤을 보냈다고 한다.

• 섣달그믐날 잠자면 눈썹 희어 버린다.

안덕면 서광서리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정월 명질은 모두의 명질이긴 하지만 특히 아녀자들에게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런 명질이기도 하다.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직접 불을 때며 무엇을 장만한다는 건 많은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월 명질은 추운 계절이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이 변할 우려가 적어 그나마 아녀자들에게 위안이 됐다. 특히 서광리는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마을이라 주 농사였던 메밀이나 좁쌀을 이용한 '중게', '얍게'를 넉넉하게 만들었다. 과세는 정월 보름까지도 다녔다고 한다.

(3) 멩질 준비

• **술 준비**: 탁주와 청주를 빚었다. 특히 청주는 좁쌀을 활용한 술로 정부의 단속 대상인데도 모르게 쉬쉬하며 빚었다고 한다. 소줏고리를 이용해 눈물만큼이나 조금씩 떨어지는 소주를 빚어 조상에게 바치는 차례상에 올렸다.

• **떡 준비**: 이녁만씩 좋든 궂든 많든 적든 떡을 준비했다. 떡은 시루떡과 '준떡'인 '중게, 얍게, 절변, 솔변'을 준비했다. 특히 서광리는 메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라서 메밀로 만든 '중게'와 '얍게'를 넉넉하게 만들었다. 차례상에 올리기 전에는 떡을 자르다 남은 찌꺼기를 먹었다. 온전한 것은 먼저 조상에게 올린 다음 나눠 먹었다.

(4) 과세 세배를 이삼 일에 다 못한 사람은 보름까지도 다녔다. 삶은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해도 친인척, 돌아가신 분의 상이 놓인 집,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등 정이 넘쳤다. 특히 겨울이라 음식이 쉬 변질되지 않아서 보름까지 세배를 다녀도 감주와 술, 떡은 세배 오는 모든 이에게 조금씩이나마 대접할 수 있었다. 특히 사돈댁은 며칠이 걸려서라도 꼭 서로 세배를 하러 다녔다. 그러다 보니 보름이 걸렸다고 한다.

(5) 운세 보기

• **보리점**: 보리의 싹을 뽑아서 그 싹이 몇 개 나면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했다.

• **토정비결**: 일 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기도 한다.

• **점 보러 가기**: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꼭 그해 길흉화복을 확인한다. 채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앓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절에는 미리 점치는 건 일종의 민간 신앙이었다. 점을 보는 건 점쟁이거나 무당들이었는데 운수가 좋지 못하면 무당을 빌려 비념을 하곤 했다.

(6) 속담

• 사람이 쫓기면 소송 간다.

2)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정월대보름에는 절을 찾아 불공을 드렸다. 가족의 안녕과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롭게 거둘 수 있게 칠성단에 절을 하며 빌었고, 돌아가신 어른들의 고혼에 후손의 안녕을 빌었다. 부처님 앞에 불전을 올리고 감사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

(3) 놀이

•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주로 남자아이들의 놀이였다. 연은 가오리연과 달연이 있다.

• **공기놀이와 오자미**: 여자아이들은 주로 공기나 오자미와 같은 놀이를 했다. 공기는 직접 돌멩이를 자그맣게 다듬고 깎아서 공기를 만들었다. 오자미는 자투리 헝겊을 이용해 속에 모레나 쌀을 넣고 만들었다.

• **줄넘기와 한다리인다리**: 줄넘기와 '한다리인다리'는 여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다. 줄넘기는 새끼줄을 이용하여 여럿이 함께했다. '한다리인다리' 역시 여러 아이들이 다리를 길게 벋어 마주 앉아 다리를 세며 노는 놀이다.

3) 포제

(1) 날짜 음력 1월 중 첫 해(亥)일.

(2) 풍속 서광리 넙게오름 포젯단에서 지내는 마을 전체 제의다.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올리는 제사로, 남자들로만 제관을 선출해 3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제를 올렸다.

(3) 제물

• **희생**: 마을에서 제일 큰 돼지를 잡고 내장만 제거한 후 온전한 상태로 제단 맨 앞에 올린다.

• **메**: 흰쌀밥과 조밥을 각각 세 그릇씩 올리고 '갱'은 없다.

• **생선**: 옥돔을 비늘도 벗기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올린다.

• **쇠고기**: 근으로 떠다가 날 것 그대로 올린다.

• **떡**: 작은 시루에서 쪄낸 시루떡을 자르지 않고 통째 올린다.

(4) 금기

• 제관이 머무는 곳이나 포제에 여성들의 출입을 일절 금한다.

4) 금줄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정월 한 달은 과세가 끝나고 대부분의 집의 오래 입구에 금줄을 맸다. '올레코시'와 '문전제', '조왕제' 등 제를 지내는데 비리거나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미리 막았다.

5) 당제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서광리에서는 4·3에 군인, 경찰이 당을 없애 버리기 전까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정성을 드리러 다녔다.

6) 안택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개인이 올리는 제사로 '올레코시', '칠성제', '토신제' 등이 있다. 집안에 탈이 없도록 비는 제사로 무당을 빌려 굿을 올리기도 하고 제만 지내기도 한다.

• **올레코시**: 굿이나 제사를 지내기 전에 지내는 문전제가 끝나면 문전제에 올렸던 음식을 오래에 나가서 고수레를 하며 마치는 제사를 말한다.

• **칠성제**: 민간 신앙이 당에서 절로 옮겨지면서 지금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 **토신제**: 집집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월 명질이 지나거나 입춘을 넘기면서 개인으로 지내는 제사다. 가족의 건강과 풍요로운 농사,

우마의 무탈을 기원하는 제사다.

7) 걸궁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걸궁', 즉 걸립은 사삼 이전에 마을 청년들이 모여 북을 치며 마을을 돌며 놀았던 것을 말한다. 머리엔 창호지로 만든 고깔을 만들어 쓰고 창옷이나 중의적삼, 두루마기를 입고 소리하며 마을을 돌았으나 사삼을 겪으며 없어졌다고 한다.

8) 새철드는날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입춘은 새해 들어 24절기 중 첫 절기인 '새철드는날'을 말한다. 새해 처음 맞는 달이라 상달이면서 봄을 들이는 첫날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명심해야 하는 날로 하루를 조심스레 보냈다.

(3) 금기 · 속담

- 빗자루질을 하지 말라. 빗자루질하면 재수가 없다.
- 빗자루질하면 모든 복을 내쫓는다.

9) 방에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우마에 진드기가 많이 붙어 살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매해 음력 1월 중에 하루를 정해 방화를 했다. 마을 전체가 동원돼 참여하는 일로 반별로 위치를 정해 불을 붙이는 선발대와 그 불길이 잘못 흐르는 걸 살피는 후발대가 있었다. 억새로 홰를 만들어 마을목장 전체에 불을

붙였던 아주 큰 행사였다.

□ 2월

1) 영등굿

(1) 날짜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2) 풍속 영등굿은 바다의 풍요와 바닷일의 안전을 기원하며 영등신에게 올리는 제사다. 서광리는 중산간 마을이라 영등굿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등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금기하는 것이 있다. 흰 빨래를 금한다든지, 호박 모종을 심지 말라고 한다는 등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한다.

(3) 금기

- 영등에는 아무 날이나 빨래하지 마라, 좀 인다.
- 하얀 빨래 널면 집안에 벌레 들어온다.
- 영등ᄃᆞᆯ에 다듬이질 ᄒᆞ지 말라.
- 안반 우이서 홍짓대 ᄒᆞ지 말라.
- 호박메도 영등 넘어사 놓라.

2) 지붕이기

(1) 날짜 음력 2월.

(2) 풍속 지난해 대설에 준비한 띠와 집줄로 초가지붕을 인다. 쥐날은 안 되고, 바람 없는 날을 정해서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지붕을 이었다. 서광리에서는 이 년에 한 번 지붕을 새로 인다고 한다.

3) 생업

• **보리밟기**: 겨울을 나는 동안 땅에 서리가 내리면 흙이 부풀어 보리가 말라 죽어버린다. 이것을 막기 위해 보리밟기를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이월이면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보리밟기를 하였다. 잘 입지도 못했던 시절 추위에 벌벌 떨며 보리밟기를 했다고 한다.

□ 3월

1)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겨울에서 벗어나 세상이 푸른 새싹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날이다. 먼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새로 솟는 잡초를 뽑고 무너진 돌담이 있으면 보완해서 쌓기도 한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사리장마가 오기는 하지만 우마는 마른풀에서 새로 나는 풀을 먹이기 위하여 들로 내보내고 봄 농사를 준비한다.

(3) 묘제

• **음식**: 고기적과 묵적, 술을 준비하고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4) 금기 · 속담

• 청명에 무덤 손질하면 손해가 없다.

• 묘에 가서 아무 날이나 손보지 마라.

2) 생업

• **감젓메 놓기**: 구덩이에 넣어 둔 고구마를 이용하여 청명 즈음에 고구마

모를 심는다.

• **보리밭 김매기**: 보리가 자라며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지만 사이사이 별꽃, 메꽃 등 잡초들을 뽑았다.

• **고사리 채취**: 집에 제사나 명질을 하는 집이면 누구나 고사리를 꺾으러 들로 나선다. 특히 음력 3월의 주말 제주 들녘은 고사리를 꺾는 사람으로 넘친다. 서광리는 중산간 마을이라 봄볕에 고사리를 말리느라 마당마다 고사리가 가득하다. 제보자는 다리가 아파서 고사리 꺾으러 다니지 못한다고 했으나 아들과 며느리가 꺾어 오면 장만해서 주곤 한다고 했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쏠은 아멩 읏어도 어디강 동녕질을 헤도 부처님 제단에 올리는 건 쏠을 허엿주.'라고 제보자는 말한다. 돈이 귀한 시절에는 쌀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또한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삭발했다. 지금은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도 드물고 쌀 대신 돈을 절에 기부해 가족 수대로 등을 달고 그 등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 부처님께 바치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절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 공양을 함으로써 부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축제의 날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절도 있다. 서광리 사찰로는 '광화사'가 있다.

2) 생업

• **참깨 파종**: 사월 초파일 바람이 잔잔하면 깨가 잘 되겠다고 판단하고 이른 참깨씨앗을 파종했다.

• **김매기**: 사초, 쑥, 귀리, 메꽃, 망초 등 다양한 잡초들이 무성해 지는 시기다.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밭에 가서 김을 맸다.

□ 5월

1) 단오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1960년 초까지는 설이나 추석처럼 크게 하지는 않았으나 오곡술을 빚어서 명질을 지내는 집도 있었다. 서광리에서는 이씨 집안과 조씨 집안에서 단오를 지냈다고 한다.

2) 생업

• **보리 수확**: 망종까지는 보리 수확을 마쳐야 한다.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 보리를 베고 말리는 과정에서 비가 와버리면 싹이 나버리거나 썩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곱 번 뒤집은 사람은 못 먹고 아홉 번 뒤집으며 말린 사람은 보리를 해 먹었다는 말이 있다.

• **유채 수확**: 보리와 같은 시기에 유채를 수확했는데 보리와 달라서 유채는 비를 맞아도 큰 피해가 없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보리를 수확하고 흐리거나 비가 오면 유채를 수확했다.

• **감저꿀 놓기**: 보리를 베고 난 자리에 고구마순을 심어야 잘 된다고

한다. 보리밑동을 뒤집어 놓고 소서 전후 이랑을 높게 만들어 고구마순을 심었다.

□ 6월

1) 유월절

(1) 날짜 양력 7월 7일 소서 무렵.

(2) 풍속 메밀을 제외하고 가을에 추수할 조, 콩, 고구마 등 곡식의 파종을 끝낸다.

2) 듹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무더운 여름철은 농사일이 많은 계절이다. 정이월에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자라 유월이 되면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 자란다. '듹 잡아먹는 날'까지 온 가족이 기다리며 노동에 온 힘을 다했다. 자연에서 지렁이와 애벌레를 먹고, 풀을 쪼며 자란 닭들은 지금처럼 크고 살이 부드럽진 않았지만 깊은 맛을 주었다.

3) 생업

• **조 볼리기**: 보리나 유채를 수확한 밭을 갈아엎고 좁씨를 뿌렸다. 좁씨는 비가 오면 흘러내려 버리거나 날씨가 뜨겁고 건조하면 싹이 나다가 타서 녹아 버렸다. 그래서 소나 말을 이용해 밭 전체를 골고루 밟아 좁씨가 땅에 단단히 박히게 했다. 여러 사람이 마소를 서로 '수눌어'가며 밭을 밟기도

하고 '테우리'가 마소를 이끌어 '밧ᄇᆞᆯ리는 소리'를 부르며 밭 밟기를 했다.

• **콩 갈기**: 조와 같은 시기에 콩씨를 밭에 파종하는데 흙 위로 콩이 드러나면 새들이 쪼아 먹어 버려서 한 알 한 알 흙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래도 많은 양이 새들의 먹이가 돼 버려서 주로 밭이랑 사이사이에 '고량콩'으로 파종하기도 했다.

• **김매기**: 잡초를 세 벌까지 매기도 했다. 바랭이, 망초, 좀씀바귀, 아욱메풀 등 여름 잡초는 그때그때 뽑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성해 매일 밭에 가서 김을 매야 했다. 특히 쇠비름은 뽑고 난 뒤에도 잎만 죽었다가 쌓인 잡초 속에서도 다시 뿌리를 뻗어 농부를 힘들게 했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서광리 사람들은 칠석에도 오직 밭에 김을 매러 갔다. 그러다가 너무 더우면 화순리 바닷가에 물맞이를 갔다고 한다.

2) 백중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한참 김을 매는 시기라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너무 더워 일이 힘들면 화순 마을에 물맞이를 다녀오곤 했다.

3) 처서

(1) **날짜** 양력 8월 22일.

(2) **풍속** 처서엔 메밀을 갈았다. 몹시 더울 때여서 새벽달이 떠오르면 밭을 갈았다고 한다.

4) 더위 깨기

• **물맞이**: 폭포도 흐르는 냇물도 없는 서광리 사람들은 칠석이나 백중에 밭에서 김을 매다 더위를 참을 수 없으면 용천수가 있는 화순리 바닷가에 물을 맞으러 다녀오곤 했다.

5) 생업

• **모물 갈기**: 처서 전후로 메밀 파종할 밭을 세 번을 갈고 엎었다. 더운 여름이라 밤에 밭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달이 뜨면 밭을 갈았다. 밭을 갈면 뜨거운 여름 볕에 잡초가 다 말라 죽었다. 그래서 매밀 밭엔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됐다. 약간의 비가 내리면 바로 메밀을 파종했다.

• **김매기**: 콩밭과 조밭, 밭벼밭에 반복해서 잡초를 뽑았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 **문중소분**: 음력 8월 1일은 친족들이 모여 개인 소분을 제외한 문중 조상의 묘들을 함께 벌초를 했다. 지금은 8월 1일 모이는 게 쉽지 않아

8월 1일이 낀 주말에 벌초를 하고 있다.

• **가지소분**: 개인으로 증조부모와 당 가족 묘에 소분을 하는데 가족공동묘지인 경우 모여서 하루에 벌초를 하고 있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팔월 멩질'은 음력 팔월 보름인 한가위를 말한다. 아직 추수하기는 이르나 햇곡식,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는 축제의 날이다.

(3) 명질 준비 정월 명질과 다른 게 있다면 '쉰다리'를 이용하여 '상웨떡'을 만들어 먹었다. '상웨떡'을 둥글게 또는 시루떡같이 길쭉하게 만들었다.

3) 생업

• **꼴 장만**: 벌초를 마치고 난 뒤부터 추석을 쇠기 바쁘게 꼴을 베었다. 겨울 동안 마소를 먹이기 위해 꼴을 준비하는데 많게는 60바리 이상 베고 와서 가리를 가렸다.

• **추수**: 추분을 지나 상강 전 메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거둬들였다. 익어가는 차례로 콩, 조, 고구마를 수확했다. 특히 고구마는 절간고구마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겨울 식량으로 준비했다. 메밀은 상강이 지나고 수확해도 별문제가 없었지만 고구마는 조금이라도 한기가 들면 봄 '감젓메'를 놓는 데 지장이 컸다고 한다.

□ 9월

1) 당제

(1) 날짜 음력 9월.

(2) 풍속 서광리에서는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당을 찾곤 했다. 음력 9월이나 봄에 개인별로 새벽에 당에 다녀왔다고 한다.

2) 생업

가을걷이를 마치고 경작했던 밭을 갈아 보리 파종을 준비했다. 가을걷이를 다 마치지 못하면 유채 등 수확한 농산물을 쌓아 두고 보리 파종을 준비했다.

□ 10월

1) 보리 파종

(1) 날짜 음력 10월.

(2) 풍속

• **돗걸름 내기**: 돼지우리에 여러 가지 검불이나 짚 등을 던져 놓는다. 그러면 1년여 동안 돼지 똥오줌을 싸고 뒹굴며 다져 놓으면 거름이 된다. 그 거름을 전부 마당에 퍼내고 씨앗용 보리와 섞어 소와 사람이 밟아 놓는다.

• **보리씨 뿌리기**: 보리씨와 돼지거름을 섞어 놓은 것을 일일이 손으로 떼어 내며 밭에 파종한다. 이때 거름이 얼어서 떼어 내지 못하면 돌로 무수면서 보리씨를 뿌렸다고 한다.

□ 11월

1) 대설

(1) 날짜 양력 12월 7일 무렵.

(2) 풍속

• **새 장만하기**: 보리 파종이 끝나고 대설이 되면 바로 초가지붕 이을 띠를 장만했다. '각단'을 따로 준비하고 일 없는 날에 동네 사람들과 집줄을 놓고 지붕 일 준비를 마쳤다.

2)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1일 무렵.

(2) 풍속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팥죽을 쑤어 먹었다. 서광리에서는 팥을 따로 재배하지 않고 조밭이나 다른 곡식을 심은 이랑과 이랑 사이에 팥을 심었다. 이런 팥을 '고랑팟'이라고 했다.

□ 12월

1) 소한

(1) 날짜 양력 1월 5일 무렵.

(2) 풍속 소한에는 주로 남자들은 집에 앉아서 망태기를 겯고 여자들은 옷을 만들었다. 소한에 제주 성안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둘이나 얼어 죽었다고 한다.

• 대한이 소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소한은 대한에 갔다가 돌아왔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은 신관과 구관이 교대하는 기간으로 지상의 모든 신이 천상에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 공백기라고 알려져 있다. 이 기간에는 아무 탈이 없다고 하여 이사나 집수리, 평소에 금기했던 일들을 했다.

- **이사하기**: 키와 체, 솥을 먼저 이사할 집에 옮겨 놓는다.
- **이사 선물**: 성냥과 초를 들고 갔다.
- **집알이**: 특별하게 누구를 초대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고 한다.

대정읍 상모1리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정월 멩질'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낸 후 세배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해를 설계하는 설날을 말한다. 상모1리에서는 '정월 멩질'은 종손집에서 한다고 한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는 칠팔촌까지도 명질을 같이 지냈는데 요즘은 가까운 친족끼리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증손까지 그 자손들이 같이 제사와 명질을 지내다가 증손이 돌아가게 되면 고손부터는 지제를 한다고 하였다. 명질 음식도 예전에는 간소하게 차렸지만 요즘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다. 집에서 지내던 차례를 산소에 가서 지내는 집안도 있다.

(3) 멩질 준비 설이 가까워지면 삼일 전부터 차례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제수로 쓰는 마른고기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도 하였다. 돼지고기는 마을 사람끼리 추렴해서 장만하였고, 술이 귀할 때는 됫술을 사서 이웃과 나눠서 제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몸 정성**: 설날이 가까워지면 몸에 상처를 입지 않게 조심하였다. 송장이나 뱀 같이 비린 것도 보지 말아야 해서 명질 전 한 이틀은 집밖으로 나다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몸 정성은 다른 자손보다 명질을 차리는 종손은 더 하였다고 한다.

• **돼지 추렴**: 정초가 가까워지면 동네에서 제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돼지 추렴을 하였다. 십오일이나 이십일 전에 돼지추렴을 하면 제수로 쓸 분량만큼씩 나눠서 온다. 보통 검정돼지를 추렴하였다. 추렴을 하게 되면 돼지를 잡은 사람이 돼지털을 뽑아서 품으로 가져갔다고 하였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 직접 돼지털을 펜치로 하나씩 뽑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렇게 뽑은 돼지털은 엿장수들이 사갔다고 하였다.

(4) 상차림 설날 상차림은 가가례다. 집안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풍습을 따른다. 병풍을 치고, 신위를 모신 다음에 메와 갱을 올린다. 살아있을 때와는 반대로 올린다. 떡은 '솔변'과 '절변'을 올리고, 신위가 앉은 왼쪽으로 묵, 적, 바닷고기 순서로 올린다. 전면에는 고사리 탕쉬와 묵을 놓는다.

• **안방상 · 문전상**: 집안에 따라서 '안방상'과 '문전상'을 올리기도 한다. '안방상'은 고방신을 위한 차례상이고, '문전상'은 문전신을 위한 상차림이다. '안방'은 상모1리에서 고방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은 '안방상'과 '문전상'을 차리지 않는 집안이 많다고 한다.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산으로 가서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960년대 이전에는 집안에 따라서는 집 뒤에 '도체비신'을 모시거나 칠성을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5) 제물

• **제수**: 제수로는 돼지고기적, 마른고기, 묵이 들어간다. 묵은 밀가루묵도 하고 메밀묵도 하였다. 메밀묵은 '청묵'으로 쒀서 꼬챙이에 꿰어서 올렸다. 마른고기는 생선 마른 것을 말한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바다에서 '어렝이' 즉, 어렝놀래기를 낚아다가 말려두었다가 구워서 올렸다. 마른고기는 달리 '어수'라고도 하였다. 냉장고가 없을 때에는 보리 속에 마른고기를 담아서 보관했었다고 한다. 갱은 주로 바닷고기를 이용해서 미역 따위를 넣고 끓였다. 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하였고,

과일은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요즘은 귤, 사과 등 각종 과일을 올렸지만 제보자가 초등학교 때는 과일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 **떡**: 떡은 시루떡과 절편과 솔편을 올렸다. '고구마뺏데기' 즉 절간고구마를 갈아서 시루에서 쪄낸 '감저떡'을 만들어 친족들과 나눠 먹었다. '감저떡'은 찌면 색깔이 거멓다고 하였다. 차례상에는 올리지 않았다. 오래 전에는 '빙떡'도 해서 올렸다고 하였다.

• **탕쉬**: '탕쉬'는 제사나 명질 때 올리는 채소다. '탕쉬'는 호박이나 무,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등을 이용했다. 보통 세 가지를 해서 올린다. 잡채를 채소로 올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묵탕쉬'라고 해서 묵을 몇 가닥으로 썰어 올리기도 하였다. 요즘은 다 사서 하지만 예전에는 콩나물도 직접 집에서 길러서 사용하였다. '호박탕쉬'를 많이 한다. 팔월 추석에는 '양엣근탕쉬'도 하였다.

• **술**: 술은 청주나 고구마술을 이용하였다. 친족이 많은 집안에서는 청주를 직접 담갔다. 청주는 정초에 세배를 온 손님들을 위한 대접용이기도 하였다.

• **반**: '반'은 명질 차례를 지낸 후에 차례상에 올린 음식을 골고루 나눠 담은 각각의 몫을 말한다. 표준어 '반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명질이 끝나면 '반' 받은 떡을 모두 꼬챙이에 끼워서 집으로 갖고 왔다. 상모1리에서는 '우 족족 알 골로로'라는 말이 전한다. 이 말은 반을 나눌 때는 위로부터 조금씩 나눠 아래까지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말이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평등하게 명질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른들은 '반'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였다.

⑹ 명질옷 제보자 박순자는 어렸을 때 설빔으로 색동저고리와 빨간치마

를 입었었다고 하였다. 치마 안에는 속바지를 길게 해서 무릎 아래로 내려오게 입었다고 하였다. 박순자는 아이들도 설날에는 한복을 해서 입혔다고 하였다. 제보자 우명창은 상모1리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서지군복을 개조해서 만든 학생복을 설빔으로 입었다고 하였다. 다른 마을에서는 명주옷과 무명옷을 입을 때 상모1리 아이들은 '사지옷(서지옷)'을 입었다. 학생복 하나를 맞추면 졸업할 때까지 입었다고 하였다.

• **제복**: 제복은 차례를 지낼 때 입는 옷을 말한다. 보통 창옷을 입은 다음에 '도복(도포)'를 입는다. 제복은 보통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복'은 수의로도 이용하였다. 제보자 강경찬은 아버지가 향교에 다닐 때 입었던 '도복'의 띠를 보관하고 있었다. '도복'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의로 사용했다고 하였다.

(7) 과세 과세는 설 때 집안 어른들과 이웃 어른께 드리는 새해 인사를 말한다. 즉 세배의 다른 말이다. 세배는 웃어른부터 차례로 올린다. 예전에는 세뱃돈도 없었다. '세배'를 하면 '아, 착허다'라고 덕담을 건네는 게 전부였다. 삼년상이 지나지 않아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집안에도 찾아 가서 세배를 드렸다. 요즘은 설 때 상중인 곳을 찾아 돌아가신 분께 세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2)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정월대보름에 상모1리에서는 연날리기와 달구경을 했다고 한다. 연날리기는 정월대보름은 물론 정월에 많이 하였는데 주로 보리밭에서 날렸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겨울철 밭이 얼어서 보리뿌리가 솟아 오른 것을 단단히 다져주는 효과도 있었다. 아이들은 칼싸움과 'ᄆᆞᆯ싸움', '토막

(야구)' 등의 놀이도 많이 했다. 제보자는 정월대보름에 떡을 해서 나눠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3) 걸궁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정월달에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걸궁(걸립)'을 했다고 한다. 제보자가 걸궁 경험을 한 것은 결혼 이후의 일이라고 하였다.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풍물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꽹과리도 치고 징도 치고 하였다. 걸궁을 하면 궂은 액을 물리쳐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걸궁패가 찾은 집안에서는 일정액의 돈을 기부하고, 그 돈은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걸궁패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않고 돈을 내놓을 만한 집안을 찾아가서 한바탕 놀아주면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는 것이다.

4) 조왕제, 토신제, 마을제

• **조왕제**: 조왕신을 위해 지내는 제다. 예전에는 하다가 지금은 거의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

• **토신제**: 집의 토신을 위한 제다. 예전에는 지내다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 **마을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다. 상모1리에서는 마을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보자 강경찬은 아버지가 마을 책임자를 지냈지만 아버지로부터 마을제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에 '포족동산(포제동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제인 '포제'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5) 당제

(1) 날짜 음력 1월 중 택일.

(2) 풍속 상모1리에는 당이 없다. 상모1리 사람들은 정월에 좋은 날을 골라 하모리 운진항 '멜캐'에 있는 할망당에 다녔다. 당에 갈 때는 실, 흰쌀, 향 등을 갖고 간다. 그날은 심방이 굿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당이 거의 없어지고, 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없다고 한다.

6)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상모1리에서는 입춘을 '샛절'이라고 하였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이므로 여자들은 이날 특히 몸을 삼갔다. 입춘에는 싸우지고 말고, 남한테 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춘날 좋게 지내야 일 년 동안 행복하다고 해서 명심하였다. 입춘날은 돈도 쓰지 않았다. 이날 돈을 쓰면 일 년 동안 돈이 줄줄 나간다고 하였다. 여자들은 특히 입춘날 아침에 남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렸다. 상모리에서는 입춘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를 많이 하였다. '샛절'에 한 해 운수를 보기도 하였다.

(3) 금기어 · 속담

• 샛절드는날 여자 놈의 집이 가지 말라.(입춘날 여자 남의 집에 가지 마라.)

• 입춘날 돈 쓰민 돈이 줄줄 나가 분다.(입춘날 돈 쓰면 돈이 줄줄 나가 버린다.)

7) 생업

(1) 보리밟기 집안에 따라 밟는 사람도 있고 밟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보리밟기는 정월대보름날 아이들이 연을 날리면서도 이루어졌다.

□ 2월

1) 영등

(1) 날짜 음력 2월 1일, 2월 15일.

(2) 풍속 영등은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왔다가 보름날 나가는 외래신이다. 달리 '영등할망'이라고 한다. '영등할망'은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여겨 해안마을에서는 영등굿을 하는 등 제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모1리에서는 영등굿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신 '영등할망'이 들어올 때는 집안에서 빨래를 하지 않는 등 허드렛일을 삼갔다고 하였다. 영등에 흰옷을 빨면 냄새가 나는 구데기가 인다는 속설이 전한다.

(3) 속담

- 영등할망 들어올 때 빨래허지 말라.
- 영등에 흰옷 뺄앙 널민 구데기 많이 난다. 냄새 나는 거 많이 난다.
- 정이월 가는 암쉐 뿔 오그라진다.(정이월 가는 암소 뿔 오그라진다.)

□ 3월

1)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상모1리에서는 청명을 '쳉명'이라고 하였다. 청명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의 사이에 든다. 이때는 산소에 가서 풀도 캐고 허물어진 산담도 손질을 한다. 12월에 드는 신구간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신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해도 화를 입지 않는다 믿었다. 신구간에 집안의 일을 손본다면 청명에는 산소에 가서 파인 곳에 떼도 입히고 산담도 정리한다. 상모1리에서는 요즘도 청명 때가 되면 으레 산소에 가서 벌초도 하는 등 청명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청명에 봄벌초를 못하면 오월 단오에라도 꼭 한다고 하였다.

2) 한식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한식은 우리나라 명질의 하나로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상모1리에서는 예전에 한식을 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제보자들은 쇠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한식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였다.

3) 시제

(1) 날짜 음력 3월.

(2) 풍속 집안에 따라서는 3월에 시제를 지내기도 한다. 시제는 달리 묘제라고 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은 윗대 조상들의 묘에 가서 지내는 제의다. 제보자는 요즘도 시제는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 4월

1)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사월 초파일은 석가 탄신일이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날 절에 가서 등도 켜도 불공을 드리며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였다. 상모1리에서는 초파일에 날이 좋으면 참깨가 좋다고 한다. 또 이월 스무날에 바람이 안 불어도 참깨가 좋다고 하였다. 남방 막은 해에는 꽃피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참깨는 좋다고 하였다.

(3) 금기·속담

• 초파일에 날이 좋으면 깨가 잘 된다.

2) 생업

• 밭벼·참깨·감자 농사: 상모1리에서는 음력 4월에 밭벼와 참깨, 감자 농사를 지었다. '밭벼'를 상모리에서는 '산디'라고 하고, 참깨는 '꿰', 감자는 '지슬'이라고 하였다.

□ 5월

1) 단오 명절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상모1리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라진 것 같다고 한다. 제보자의 아버지 시절에는 단오를 했다고 한다.

2) 망종

(1) 날짜 양력 6월 6일 무렵.

(2) 풍속 망종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소만과 하지 사이에 든다. 오월단오가 끝나면 망종이 찾아온다. 농촌에서는 이때를 전후한 시기가 아주 바쁘다. 망종이 지나면 못 벨 보리가 없다고 한다. 망종 후에 장마가 닥치니 장마 전에 봄 농사를 끝내야 한다. 망종 지나면 보리 같은 것은 눈 감아서 베라고 할 정도다. 망종이 끝나면 장마철이기 때문이다. 하지 장마철에는 고구마줄기를 심는다.

(3) 속담

• 망종 지나면 보리 ᄀᆞ튼 것도 눈 ᄀᆞᆷ앙 비라.(망종 지나면 보리 같은 것도 눈 감아서 베라.)

3) 생업

• **보리 수확**: 망종 전에 보리 수확을 끝내야 한다. 망종 지나면 보리는 눈 감아서 베라고 한다. 장마철이 닥치기 때문이다.

• **감저 싱그기**: 상모1리에서는 고구마를 '감저'라고 한다. '감저 싱그기'는 하지가 적당하다. 하지는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든다. 양력 6월 21일경으로,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상모1리에서는 음력 5월말, 즉 양력 6월 15일 경부터 고구마줄기를 심어 열흘 안에 끝낸다. 6월 25일 이후에 심은 고구마줄기는 열매가 잘 들지 않는다고 한다.

□ 6월

1) 유월 스무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유월 스무날'은 'ᄃᆞᆨ 잡아먹는 날'이다. 이날은 김매기와 보리 수확 등 여름철 농사일로 지친 몸을 보기하기 위해 보약으로 닭을 잡아먹었다. 이날을 위해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정이월에 병아리를 까게 해서 기르거나 병아리를 사다가 키웠다. 그렇게 키운 닭을 삶고, 죽을 쒀서 가족끼리 나눠 먹었다. 식구가 많은 집은 남자나 아들들은 고기 맛을 봤지만 딸이나 여자들은 닭죽을 겨우 먹었다고 하였다.

• **빙에기 깨우기, 키우기**: 상모1리에서는 병아리를 '빙에기', 달걀을 'ᄃᆞᆨ세기'라고 한다. 유월 스무날 잡아먹는 닭은 다 겨울에 집에서 닭이 병아리를 까서 봄 동안 키운 것이다.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는 실한 'ᄃᆞᆨ세기'를 'ᄃᆞᆨ텅에(닭둥우리)'에 넣어서 닭이 품게 한다. 닭이 달걀을 굴리면서 품어 이십여 일이면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온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병아리를 키우는 일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양계장에서 닭을 부화시키고 키워 들짐승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사일이 주였던 60~70년대만 해도 집 주변에 병아리를 좋아하는 까마귀와 '똥소레기(솔개)', '족제비', 고양이 등의 들짐승이 많아 이들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다.

2) 삼복더위

(1) 날짜 음력 6월에서 7월.

(2) 풍속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때는 가장 무더운 시기로, 삼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름철에 닭으로 보신을 하였다. 또한 보리미숫가루를 만들어 여름철에 시원한 물에 타먹기도 하였다.

•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보리를 볶은 후 갈아서 만든 음식이다. 미숫가루를 제주에서는 '개역'이라고 한다. 미숫가루는 보통 장마철에 만든다. 예전에는 무쇠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아래로 보릿대로 불을 때면서 볶았다. 보릿대를 이용해 만든 '보릿낭주제기'로 보리를 저어주면서 볶았다. 제보자의 어머니 시절 이야기다. 그렇게 볶은 보리는 'ᄀᆞ레(맷돌)'에서 갈아서 체로 쳐서 가는 가루가 나올 때까지 갈았다. '개역'은 물에 타서 먹거나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수제비 비슷하게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식은 보리밥에 미숫가루를 넣어서 비벼 먹기도 하고, 미숫가루 자체를 즐기기도 하였다. 요즘은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기도 한다. 냉장고가 없을 때는 '검은지세황'에 물을 넣어두면 물이 시원하고 달다. 그 물에 '개역'을 타서 먹으면 더위를 달래는 별미로 그만이었다.

3) 생업

(1) 조 ᄇᆞᆯ리기 상모1리에서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조를 파종했다. 유월절은 7월 7일 소서를 말한다. 그즈음에는 장마가 끝나 '마걷이'를 한다. '마걷이'는 조씨를 뿌려서 날이 좋아 비를 맞지 않으면 조가 잘 발아하여 수확이 잘 난다고 하였다. 유월절 전 삼일 후 삼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를 'ᄇᆞᆯ렷다'. '마걷이'는 장마가 걷힌다는 의미다. 마가 걷히니 그때부터 여름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는 소나 말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밟아 주어야 한다. 특히 상모1리 땅은 푸석푸석한 모래땅이어서 좁씨를 뿌려서 밟아 주어야 한다. 'ᄇᆞᆯ릴' 때는 쉐 하나나 두세 마리를 연매어서 소리를 하면서 밟았다. "이러 이러러러러러 빨리 ᄃᆞᆯ아야 조밧 잘뒐 거 아니냐. 빨리 ᄃᆞᆯ아라. 이러 이러러러러 이러 이러 어어어 이러러러러러러" 휘휘 밟으며 소나 말이 '와랑와랑' 달리면 잘 밟아진다. 많이 하는 사람은 말떼를 빌려서 밟기

도 한다. 제보자는 소 두 개를 연매어서 하루 종일 조밭을 밟았다고 한다. 밭벼도 씨를 뿌려 밟아주어야 한다.

(2) 팟농사, 콩농사 이 시기에는 콩과 팥농사도 한다. 팥은 많이 갈지 않고 조밭의 밭머리에 하나씩 심어 갈았다. 이렇게 간 팥을 '고량팟'이라고 하였다. 장콩을 주로 갈았다. 그 콩으로 된장도 만들고 겨울에 갈아서 콩국도 끓여 먹었다. 밭이 박한 데는 거름으로 콩을 갈았다. 콩 열매가 열리기 전 무성하게 클 때 갈아엎는다. 그렇게 간 콩을 '걸름콩'이라고 한다. '걸름콩'을 갈았던 밭은 보리가 잘 되었다고 한다.

(3) 검질메기

• **조컴질, 산디검질, 콩검질**: 음력 유월은 김매기가 끊이지 않는다. 조가 빽빽한 데는 솎아줘야 하고, 김매기도 두벌, 세벌까지 한다. 밭벼밭에도 김이 많이 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산디검질 시불 멤저, 니불 멤저 허는디 그 당시에는 맨 나오는 게 검질(밭벼김 세벌 매고 있다, 네벌 매고 있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맨 나오는 게 김"이었다고 한다.

• **조컴질**: 조는 잘 안 밟으면 안 된다. 또한 여름 내내 김을 매야 수확이 된다. 조가 너무 많이 나면 솎아주어야 한다. 여름철은 김이 시시때때로 나기 때문에 매어 줘야 한다. 처음에는 빽빽한 조를 솎아주는데 이를 '초불검질'이라고 한다. 두벌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벌까지 매기도 한다. 처음 조를 솎을 때가 어렵지 두벌과 세벌을 맬 때는 김매기가 수월하다고 한다.

• **산디검질**: 여름 내내 김매기를 하다 보면 몸이 지친다. '산디' 즉 밭벼밭은 많으면 다섯 벌까지 매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는 자리젓이 큰 반찬이어서 점심을 먹을 때는 김매던 시커먼 손으로 자리젓을 들어서 먹었다고 한다.

• **검질매는소리**: 김을 맬 때는 '검질매는소리'도 했다. "어어어 요 검질,

느영나영 아니 메면 어느 누게 메어주리. 샛ᄇᆞ름아 재개재개 불어와서 내 얼굴에 땀방울을 싯어 ᄃᆞ라. 어어어 요 검질. 재개재개 메어근에 ᄒᆞᆫ 시름 엇어 불게. 어어어 요 검질."(어어어 요 김, 너랑나랑 아니 매면 어느 누가 매어주리. 샛바람아 재우재우 불어와서 내 얼굴에 땀방울을 씻어 다오. 어어어 요 김. 재우재우 매어서 한 시름 없애 버리게. 어어어 요 김.)이라 소리한다. 김매기는 가족들만 하기도 하였지만 이웃과 품앗이하면서 하였다. 김을 맬 때 소리를 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의 능률도 좋았다고 한다.

4) 속담

- 마 카운디 하늬ᄇᆞ름이 불민 마가 장찬다.
- 호박줄 직선으로 고개 들러서 가면 바람 불고 꼬부라져서 가면 바람이 안 분다.
- 벡합이 마지막 고장 피민 장마가 걷는다.
- 벡합이 오 단끙지 피면은 장마 끗난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칠월 칠석은 음력 7월 7일을 이르는 말이다. 이날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이다. 이날 상모1리에서는 당에 가거나 절에 가서 칠석 불공을 드린다. 특히 상모1리는 이날 4·3 광풍 때 희생된 백조일손의 위령제가 열리기도 한다.

2) 백중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상모1리에서 '백중'는 '물맞는 날'이다. '백종'이라고도 하였다. 이날은 여름철 농사일로 지친 몸을 시원한 물에 가서 물맞이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더위를 식힌다. 여름철에는 농사일에 땀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날 물을 맞으면 땀띠가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백중에 물맞으면 일 년 동안 피부가 건강해서 병에 안 걸린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날에 가족이 함께 중문 천제연, 일과리 서림물에 물맞으러 다녔다. 물을 맞으러 갈 때는 미숫가루도 해서 가고, 사탕수수, 무화과 등의 맛난 먹을거리도 갖고 가서 물도 맞고 쉬기도 하였다. 이날은 또한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면서 더위를 이겨냈다. 한편 상모1리에서는 이날 비가 오면 100가지 농사에 해가 있다는 속설도 전한다.

• **백종 사리**: 백중날에 조수(潮水)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를 말한다. 이날은 물이 많이 써서 백중날 저녁에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한다. 백중날 낮에 시원한 물을 맞은 사람들이 저녁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가서 '보말(고둥)'과 '구제기(소라)' 등 해산물을 잡았다. '백종 사리'에는 밤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 소라와 고둥 등 해산물을 한 바구니씩 잡고 왔다고 한다.

3) 속담

• 백종날 비가 오민 농사 백 가지에 흠이 난다.
• 처서가 지남만 허민 검질도 울멍 돌아간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벌초'는 조상 무덤의 풀을 깨끗이 베고 단장하는 일을 말한다. 농촌에서는 음력 8월이 굉장히 바쁜 시기다. '벌초'는 8월 행사 중 큰일 가운데 하나다. 예전에는 산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도구도 변변치 않아 벌초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조상 산소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경우가 많다. 또한 예초기가 일반화되면서 벌초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벌초할 때 나오는 '소분새'를 지고 와서 소에게 먹였던 일, 벌초 가서 벌에 쏘였던 일 등 벌초와 관련한 추억거리도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 시대여서 벌초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 벌초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기도 하다. 상모1리에서는 벌초를 '모둠벌초'와 '개인벌초'로 나눠서 한다.

• **모둠벌초**: '모둠벌초'는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벌초를 말한다. 보통 음력 8월 1일 문중이 함께 모여 하는 벌초로, 문중의 종손 주도로 이루어진다. 종손에게는 조상전이 주어진다. 그래서 벌초를 하는 날은 종손이 떡이랑 술이랑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가서 대접하기도 한다.

• **개인벌초**: 개인이 하는 벌초라는 의미다. 친족들이 모여서 하는 '모둠벌초'에 대응해서 붙인 이름이다. 보통 4대까지 선산의 벌초를 의미한다.

• **소분새**: '소분새'는 벌초할 때 산소에서 베어낸 띠를 말한다. 요즘은 다 버려지는 이 '소분새'가 집집마다 농사를 위해 소를 기를 때는 여름철의 좋은 소 먹이였다. 그래서 벌초를 가면 소가 먹음직한 띠부터 먼저 베어두고 벌초를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 우명창은 벌초 때에 '소분새'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대단하였다고 하였다.

• **벌초방학**: 음력 8월 1일은 '소분하는 날'이라고 하여서 학교에서 '벌초방학'을 하였다. 이날은 보통 문중이 함께하는 '모둠벌초'를 하게 된다. 예전에는 주로 벌초를 8월 1일을 기해서 하였는데, 요즘은 집안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한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팔월 멩질'은 상모1리에서 추석을 이르는 말이다. 음식은 정월 명질과 비슷하게 차린다. 명질에는 제사 때보다 음식을 더 많이 차렸다. 명질이 끝나면 '반(반기)'이라고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나눠 먹었다. 이를 두고 상모1리에서는 '우 족족 알 골로로'라는 관용구도 생겨났다. 이 말은 반기를 나눌 때는 위로부터 적게 분배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음식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 19 이후에 팔월 명질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집에서 치르던 차례도 산소로 가서 지내거나 명질을 지내지 않는 집안도 있다고 한다. 명질 제물이나 지내는 방법도 가가례다.

• **제수 준비**: 예전에 상모1리에서는 추석이 가까워오면 남자들이 낚싯대를 들고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다. 낚시로 잡아온 고기 가운데 굵은 것은 추석날 갱거리 등 제수로 썼고, 자잘한 것들은 나눠서 먹었다. 우럭은 고급 어종으로 쳐서 주로 제수거리로 썼다. 옥돔과 조기 등도 이용하였다. '갱'을 상모1리에서는 '게영국'이라고 하였다. '게영국'은 주로 바닷고기를 이용한다. 비늘 없는 고기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붉바리, 벤자리 등으로 '게영국'을 많이 끓였다. 바다가 세어서 바닷고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육고기를 사용

하였다.

• **떡**: 예전에는 집에서 '절변', '솔변' 등을 하다가 요즘은 떡집에서 사다 쓴다. 제보자 박순자는 명질에 밀가루떡을 했었다고 하였다. 그 이전에 시어머니가 명질을 할 때는 절간고구마를 간 가루로 만든 '감저시리떡'도 많이 했다고 한다. 제보자 우명창은 '감저시리떡'을 달리 '뻿데기시리'라고도 하였다. 요즘에는 송편을 하거나, 빵집에서 카스테라 등을 사다가 올리기도 한다. 집에서 하던 명질을 산소에 가서 하거나, 안 하는 집안도 있다고 한다.

• **적**: 돼지고기 따위를 길쭉길쭉하게 썰어 갖은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을 말한다. '적갈(적)'은 돼지고기, 소고기, 상어 따위를 이용하여 만든다. 메밀이 없으면 밀가루를 지져서 '묵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적은 세 개 또는 다섯 개를 올린다. '짝그르게' 해서 홀수로 올린다. 고기는 꼬치 하나에 다섯 개 또는 일곱 개를 꿰어서 만들고 '묵적'은 네 개를 꽂는다. 조상이 '니 발 탄(네 발 단)' 거 먹지 않으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네 발 짐승의 고기 대신에 바닷고기로 적을 해서 차례상에 올린다고 하였다, 제보자 강경찬은 "할머니가 니 발 탄 거를 안 먹고 할아버지는 먹으니까 두 가지를 섞으면서 올렸었다"고 하였다.

• **탕쉬**: '탕쉬'는 제상이나 차례상에 올리는 채소를 말한다. 팔월 명질에는 '양엣근', 고사리, 호박을 이용해서 채소를 만들어 올렸다. '양엣근'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꽃 이삭을 말한다. '양엣근' 탕쉬는 팔월 명질의 절식인 셈이다. 예전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채소로 쓰기도 하였다. 묵은 메밀가루나 메밀쌀을 이용해 쑤거나 지져서 네모나게 썰어서 올린다. 이를 '묵탕쉬'라고 하여 메밀묵을 잘게 썰어 고사리 위에 세 개를 올린다.

• **술**: 술은 주로 '고시리술'이나 감주를 이용했다. '고시리술'은 고구마를 발효시켜 소줏고리에서 고아낸 소주를 말하는데, 이를 상모1리에서는 '감저술'이라고 하였다. '감주'는 좁쌀밥이나 좁쌀죽에 엿기름을 넣어 발효시킨 후에 그 물을 끓여서 만든 음료다.

3) 생업

(1) 촐고지 상모1리는 해안마을이어서 겨우내 소에게 먹일 '촐(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꼴밭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상모1리에서는 '촐고지'라고 한다. '촐고지'는 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땔감을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모1리에서는 '낭고지'라고 하였다.

꼴은 보통 팔월 명질 즈음에 하늬바람이 터지면 베기 시작한다. 상모1리에서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꼴을 장만해야 해서 꼴밭에서 밤잠을 자면서 꼴을 마련했다고 한다. 제보자 강창유는 '머리여진오름'과 '단산'까지 가서 꼴을 해왔다. 제보자 강경찬은 '도너리오름'과 '남송이오름'까지 가서 꼴밭을 사서 꼴을 장만했다고 하였다. 소 한 마리를 겨우내 먹이기 위해서는 열다섯 바리 정도의 꼴이 필요하다고 한다. 상모1리에서 꼴 한 바리는 마흔 뭇이다.

□ 9월

1) 생업

(1) 가을걷이 음력 9월은 가을걷이하는 시기다. 이때는 여름에 심은

고구마와 밭벼, 콩, 조 등을 수확한다. 예를 들어 탈곡기가 없을 때 조는 낫으로 베어낸 후 '고고리(이삭)'만 잘라서 집으로 갖고 와서 '도께(도리깨)'로 두들겨서 장만을 하였다. 좁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방에(연자매)'에 가서 찧어 와야 한다. 콩은 도리깨로 두들기면 된다.

□ 10월

1) 생업

(1) 모멀 수확 '모멀'은 상모1리에서 메밀을 가리키는 말이다. 메밀은 음력 7월에 갈아서 10월에 장만하였다고 한다. 다른 여름 농사를 망쳤을 때 그 자리에 심을 수 있는 곡식이 메밀이다. 메밀은 가장 늦게 심고 제일 늦게 수확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상모1리에서는 늦게 결혼해서 느지막하게 자식을 하나 얻으면 '모멀농사헷저'라고 하여 자식을 얻은 것을 '모멀농사'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였다.

□ 11월

1)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1일 무렵.

(2) 풍속 동지는 24절기 중 대한과 소한 사이에 드는 절기다. 이날은 팥을 넣어서 쑨 '동지죽'을 먹었다. 동짓날에 '동지ᄑᆞᆺ죽'을 쒀서 먹으면 고뿔이 안 온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이날은 'ᄂᆞᆷ삐(무)' 속을 파서 그 안에

물을 넣고 양쪽으로 끈을 해서 거꾸로 매달아두면 무순이 위로 쭉쭉 올라온다고 하였다.

(3) 속담

• 동짓날 풋죽 쒀서 먹으민 고뿔이 안 온다.

2) 새 헤치

(1) 날짜 음력 11월 1일 무렵.

(2) 풍속 '새 헤치'는 띠 베는 것을 허락하는 날이다. 대정읍 지역에는 관내 마을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한굴새왓'이 있었다. 이 '새왓(띠밭)'은 대정읍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띠 베는 날을 정하여 띠 베기를 한다. '한굴새왓'의 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띠밭을 사야 한다. 개인 소유의 띠밭이 있어도 함부로 베지 못하고 '새 헤치'를 해야만 띠를 베어올 수 있었다. 대정읍에서의 '새 헤치'는 음력 11월 1일 경에 하였다. 제보자들은 양력으로 12월 20일경에 '새 헤치'를 했다고 하는데 동지 즈음이다. 이 띠를 이용하여 초가지붕을 이는데, 대정읍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 지붕을 이었다.

지붕을 이기 위해서는 먼저 '줄 놓기'를 하였다. 줄은 지붕을 인 띠를 동여매는 것인데, 짧은 띠인 '각단'을 이용한다. 줄을 놓으면 두 가닥의 줄을 하나로 합치는 '줄 어울리기'를 하는데, 이를 상모1리에서는 '으세낀다'고 하였다. 줄을 놓아 주면 '줄호렝이'를 이용하며 줄을 꼰다. 줄 꼬는 것을 '줄 비다'라고 한다. 대정읍 지역에서 사용하는 '줄호렝이'는 기다란 막대가 있어 줄을 놓아주는 대로 발로 밀리면서 줄을 꼰다. 제보자 강경찬은 12월경에 '집줄'을 꼬아두고, 새해가 나면 지붕을 이었다고 하였다.

3) 생업

(1) 보리 갈기 음력 11월은 보리를 가는 시기다. 비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돼지거름과 소두엄에 보리씨를 섞어서 밭에 뿌린 후에 갈았다.

□ 12월

1) 납평날

(1) 날짜 동지 뒤 세 번째 미일.

(2) 풍속 '납평날'은 엿하는 날이다. 이날 한 엿은 약이 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설사가 날 때는 납평날 한 엿에 소주를 넣어 개어서 먹이면 나았다고 한다. 몸 보신을 위해서 꿩이나 돼지고기, 마늘 따위를 넣어서 엿을 해 먹었다고 한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에는 귀신이 지상에 없어서 어떤 일을 하여도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를 이용하여 이사도 하고, 집안에 고칠 데가 있으면 손을 본다. 귀신이 없기 때문에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이사할 때는 솥단지부터 옮기고, 이사를 한 후에 우선 밥을 해 먹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은 신구간을 찾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섣둘그믐

(1) 날짜 음력 12월 마지막 날.

(2) 풍속 섣달그믐은 설 준비로 바쁜 날이다. 설 준비로 아무리 바빠도 이날은 장을 담가야 한다. 섣달그믐에 장을 담그면 맛이 있다고 한다.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미리 메주도 씻어 놓고 소금물도 만들어 놓은 후에 섣달그믐날 소금물에 메주를 넣어서 간을 맞추면 장 담그기가 끝난다. 간은 달걀을 띄워서 맞췄다. 달걀이 다 잠기지 않고 동전 크기만큼 남아 있으면 간이 딱 맞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담근 장은 이월 말이나 삼월에 된장과 간장을 따로 분리하고, 볕을 맞춰가면서 익힌다.

4) 금기 · 속담

- 납평날 헌 엿은 약 뭰다.
- 소대한에 원행하는 사름덜은 기다리지 말라.

대정읍 보성리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보성리에서는 설날을 '정월 멩질'이라고 하였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조상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새해를 축복하는 덕담과 함께 서로 세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고, 설빔으로 곱게 차려입는다. 보성 마을에서는 귀한 백미를 이용해 명절 몇 달 전부터 청주를 준비했다.

(3) 멩질 준비

• **술 준비**: 소줏고리를 이용하여 청주를 빚었다. 상업용 소주가 제주에서 생산되면서 소주를 제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 **떡 준비**: 절편, '돌반착떡', 시루떡 등을 준비했다.

• **두부 준비**: 콩을 갈아 두부를 준비했다.

• **제숙 준비**: 보성리에서는 소를 많이 길렀다. 명절이 되면 서로 어울려서 소 추렴을 하여 쇠고기적을 제상에 올렸다.

• **콩질름**: '콩질름'은 콩나물을 보성리에서 이르는 말이다. 설이 가까워지면 일주일 전부터 콩나물을 키워 '탕쉬'로 제상에 올렸다.

(4) 구뭄밥 명절 전날인 섣달그믐날 친인척 어른들을 모셔놓고 밥 혹은 떡국을 만들어 대접했다. '구뭄밥'은 조반으로 아침을 대접하거나 저녁밥을

대접했다. '구뭄밥'을 먹고 돌아가는 어른들에게 버선 등의 선물을 드리기도 하였다.

(5) 차례 차례는 작은집부터 지내고 종가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지낸다.

(6) 과세 정월 초에 친척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린다.

2)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사내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놀았고, 젊은 청년들은 산태걸이를 하며 정월대보름을 즐겼다.

• **연날리기**: 할아버지들이 주로 사내아이들에게 연 만들기를 지도하고 함께 연을 날렸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면 어른들은 곁에서 연이 잘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 **산태걸이**: 청년들이 산태를 만들어 그 위에 사람을 앉히고 마을을 돌면서 즐기는 놀이다. 산태걸이를 할 때는 주로 유복한 집을 돌았는데 그 집의 오래를 돌고 나오면 들었던 사람들도 그 집 주인도 행운이 온다고 여겼다.

• **걸궁**: 보성 마을에서 걸립은 정월 마을제로 산태걸이와 함께 청년들의 축제로 이루어졌다. 나이 든 어른들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면 마을 청년들은 마을 집집을 돌며 풍물을 치면서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걸궁패를 맞은 집에서는 일정 금액을 희사하기도 하였다.

3) 기우제

(1) 날짜 마을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날짜를 정함.

(2) 풍속 보성, 인성, 안성 등 5개리에서 삼헌을 선출하고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세 헌관을 정하는데 서로 삼헌관에 들어

기우제에 참석하려고 권세를 이용했다고 한다.

4) 안택

(1) 날짜 집안에 따라 손 없는 날을 택함.

(2) 풍속 안택은 정월에 집안 식구들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 등을 기원하는 가족 의례이다. 당제, 토신제, 칠성제, 올레코시 등이 있다.

• **당제**: 본향당인 '할망당'에 메, 구운 옥돔, 술 등을 제물로 준비한다. 집안 제사를 할 때는 메 대신 떡을 올렸다.

• **토신제**: 보성 마을에서는 토신제를 '뒷제'라고 불렀다. 아녀자가 혼자 조용히 제를 지낼 때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기원하였지만, 크게 할 때는 희생으로 생닭을 제물로 올렸다.

• **칠성제**: 칠성제, 혹은 '코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모든 집안에서 지냈다고 한다. 심방을 빌려 가족의 생기를 맞춰 모두가 좋은 날로 굿을 하고, 일 년 운수를 보고 액막이를 하였다. 고사할 때는 네 가지 떡을 올렸다. 쌀로 만든 절편, 네모나게 자른 '인절미', 그리고 메밀떡 두 가지를 올렸다. 메밀떡은 둥근 '다데떡'과 길게 밀어 네 귀가 서로 어슷하게 자른 '귀떡'을 만들어 올렸다.

5)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입춘은 '새철드는날'이라고 하여 몸과 마음을 삼갔다. 이날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서 입춘대길이라 쓴 종이를 얻어다 대문에 붙이기도 하였다. 보성 마을에서는 '보리점'과 '푸는체점'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봤다.

• **보리점**: 입춘 드는 첫 시간에 보리를 뽑고 그 뿌리를 보며 그해 농사를 점쳤다. 뿌리가 하나 나오면 수확이 빠듯할 것이고, 두 개가 나오면 딱 좋고, 세 개나 나오면 아주 풍년이 든다고 인식하였다.

• **푸는체점**: '푸는체'는 키의 제주어다. '푸는체점'을 치기 위해서는 전날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엌 바닥에 키를 엎어서 놔둔다. 다음날인 '새철드는날'에 그 키를 뒤집어 보고, 키에서 어떤 씨앗이든 떨어져 있으면 그해 그 씨앗의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다.

6) 생업

(1) 보리 밟기 보성 마을은 예전에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정월에는 보리 밟기를 하였다. 보리를 밟아주면 보리 뿌리가 잘 고정되어 보리 수확량이 많았다고 한다.

□ 2월

1) 영등

(1) 날짜 음력 2월 1일부터 음력 2월 15일까지.

(2) 풍속 바닷가 마을에서 음력 2월 1일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영등굿'을 올린다.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 행하는 바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마을의 큰굿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성 마을은 바다를 끼지 않은 중산간 마을이어서 영등굿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날로부터 나가는 날까지는 빨래를 하거나 삶는 빨래는 삼갔다.

(3) 금기

• 영등 들어오고 나가는 날 삼사일은 빨래하지 마라. 구더기 인다.

• 영등할망 나갈 때까지 잿물에 흰 빨래 삶고 널지 마라. 구더기 인다.

□ 3월

1) 한식 멩질

(1) 날짜 양력 4월 5일 또는 6일.

(2) 풍속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써 떡국을 끓여 새벽 차례를 지냈다.

2)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무렵.

(2) 풍속 춘분과 곡우의 사이에 드는 이십사절기 중 하나이다. 청명에 묘를 손질하면 아무 탈 없이 무사하다고 하여 산소에 잡초를 뽑고, 산담을 정비하는 등 손질을 한다. 집안에 손질할 부분들도 이날에 하면 탈이 없다고 여겼다.

3) 생업

(1) 소 올리기 새 풀이 막 성장하는 시기라 방화를 한 목장에 소들을 올렸다. 특별히 날짜를 보거나 하지 않고 청명에는 소를 목장에 올리고, 목장담을 정비하는 등의 일을 한다.

(2) 보리밭 김매기 보리밭에서 잘 자라는 별꽃 등의 겨울 김을 뽑는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이날은 절에 가서 가족의 안녕과 소원을 빌었다.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빡빡 깎는 풍습이 있다.

• **부처님 공양**: 쌀과 양초를 올렸다. 가족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위해 연등 공양을 올린다.

• **머리 깎기**: 이날은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준다.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숱이 많고 곱게 자란다고 한다.

□ 5월

1) 단오 멩질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단오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 하나였다. 보성 마을에서는 예전에 5월 단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제보자들은 단오를 지내 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 생업

(1) 보리 수확 보리 수확은 망종 전에 해야 한다. 망종이 넘어가면 보리가 굽어 버려 수확에 지장이 있다. 보리 수확에 이어 바로 여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망종 전에 보리 수확을 마쳤다.

(2) 여름 농사 보리 수확이 끝나면 고구마, 조, 콩, 벼, 밭벼 등의 농작물을 심었다.

□ 6월

1) 유월절

(1) 날짜 양력 7월 7일 무렵.

(2) 풍속 유월절은 절기상 소서 무렵이다. 장마가 오기 전에 밭벼나 조 등 여름 농사의 파종을 마쳤다.

2) 둑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음력 유월 스무날은 '둑 잡아먹는 날'이다. 이날은 정이월부터 기른 닭을 잡아 온 식구가 모여 먹었다. 이 시기는 조 농사 등의 여름 파종을 마친 상태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 이때 몸과 마음의 보신을 위해 닭을 잡아 식구들과 나눠 먹었다.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도 버리지 않고 죽을 끓여 먹었다고 한다.

3) 생업

(1) 조 불리기 '조 불리기'는 조를 가는 일을 말한다. 제주는 화산회토여서 좁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흙에 단단하게 붙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조 밟기를 하였다. 조를 '불릴' 때는 여러 마리 말이나 소를 이용하여 구석

구석 단단히 밟아 주었다. 그래야 조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 조가 뿌리를 잘 내리지 않아 뿌리가 뜨면 이삭이 하얗게 되는 병에 걸려 수확 전에 조가 내려앉아 버린다고 하였다.

(2) 김매기 농촌에서는 음력 6월이 가장 바쁜 시기다. 여름 농사를 파종하고, 파종 후에는 김매기를 해야 한다. 조가 빽빽하게 나면 솎아주어야 하고, 여름철이라 김도 많이 나서 김매기로 바쁘다. 조밭, 콩밭 등의 김매기는 두벌 이상을 해야 한다. 조는 너무 빽빽하면 여물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싹이 많이 난 곳은 솎아줘야 한다. 초벌 솎고 두벌 솎기도 한다. 잘하는 사람은 세벌까지 솎는다. 잡초로는 쇠비름, 바랭이, 사초 등이 나온다. 잡초는 자잘하게 올라올 때 매줘야 김매기가 수월하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쌀독 맨 위의 쌀을 덜어 부처님께 공양했다.

2) 백중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백중은 우마를 기르는 사람들이 우마의 번성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나 보성 마을에서는 따로 백중제를 지내지 않았다. 다만 절에 가서 백중불공을 올렸다. 가족 중 돌아가신 영가를 모시고 불공을 드렸다.

3) 더위 깨기

• **물맞이**: 보성 마을에는 용천수인 '서림물'에 가서 물을 맞았다. '서림물' 외에도 여러 곳의 용천수가 있어 물맞이를 했는데 지금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물이 말라 샘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 **문중소분**: 예전에는 문중벌초를 음력 8월 1일에 실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날짜를 정해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여 8월 중 일요일에 진행한다. 보성 마을에서는 문중벌초 즉, 모둠벌초를 '큰벌초'라고 말하기도 한다. '큰벌초' 때 특별히 제를 지내거나 하지 않는다.

• **가지소분**: '큰소분'이 끝나면 직계가족끼리 벌초를 한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팔월 멩질'은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명질이다. 중추절, 추석, 한가위 등으로 불리며 햇곡식으로 밥과 떡을 하고 햇과일을 제상에 올려 차례를 지낸다. 보성마을에서는 정월 명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낸다. 예전에는 밀가루로 만든 '상웨떡'이나 빵 종류는 차례상에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리빵 등 판매되는 빵도 사다가 올린다고 한다.

(3) 놀이 남녀노소 동네 사람들이 모여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다.

• **혼다리인다리**: 혼다리인다리 개천개 지나오자 보믄개 오오장작 그나극낙 아롱다옹 꼿. 한다리인다리는 마을마다 가사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리를 서로 마주 어긋나게 뻗어 손바닥으로 치며 하는 놀이다.

• **공기놀이**: 돌을 주워다가 직접 둥글게 마서 자잘한 공깃돌을 만들고, 그 공깃돌로 공기놀이를 했다. 다섯 개로 하는 놀이도 있고, 많은 공깃돌을 놓고 공기를 따먹는 놀이도 있다. 독특한 건 유리구슬을 보성마을에서는 '뻥꾸리'라고 하였다.

• **방칠락**: 사방치기를 말한다.

• **삥이치기**: '삥이'는 삘기를 말한다. 띠의 꽃이 아직 패기 전 잎에 싸였을 때 그 순을 뽑아서 하는 놀이다. 제보자는 삘기가 나오는 4, 5월경에 이 놀이를 했다고 한다.

3) 생업

(1) 꼴 장만 추석을 지내면 바로 꼴을 장만해야 했다. 기르는 소에 따라 꼴의 양도 정해진다. 겨울에 방화를 놓았던 화전에 가서 꼴을 베 오고 화전이 없는 사람은 꼴밭을 사거나 '웃드르'까지 올라가서 꼴을 벴다. 소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당 열다섯 바리에서 스무 바리가 필요하다. 보성리에서는 꼴 마흔 뭇을 한 바리라고 하였다.

(2) 마늘 파종 요즘은 팔월에 마늘을 파종한다. 특용작물인 마늘은 가계에 보탬이 되는 환금작물인 셈이다.

□ 9월

1) 생업

(1) 가을걷이 음력 9월은 여름에 심거나 파종했던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다. 1차 농업이 주요 작물일 때는 양력 10월 23일 무렵인 상강 전에 메밀을 제외한 조, 고구마, 콩, 밭벼 등의 가을걷이를 했다고 한다.

• **고구마 수확**: 고구마는 절간고구마를 주로 하였다. 고구마를 썰고 말리는 데 온 가족이 동원이 됐다. 말린 절간고구마를 들일 때는 아이들까지도 중요한 일손이 되었다. 절간고구마를 하지 않은 날고구마는 고구마 가공공장에 팔거나 겨울 양식과 다음해에 쓸 씨앗으로 구덩이를 깊게 파서 그 안에 넣어 가리를 두르고 주저리를 씌워 저장했다.

• **조 수확**: 보성리에서 조 농사를 할 때는 주로 메조와 '돌와리', '동데기' 등 차조도 갈았는데, 주로 9월에 수확하였다.

□ 10월

1) 생업

(1) 메밀 수확 음력 10월은 상강 전에 채 수확하지 못한 곡식들을 걷어들인다. 또 9월에 수확하지 않은 메밀을 수확하면 가을걷이가 끝난다.

(2) 보리 파종 비료가 없을 때 보리농사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돼지우리에서 다져진 돼지거름을 마당에 내놓고, 그 거름에 보리씨를 섞어서 소로 밟고 쇠스랑으로 뒤집는다. 돼지거름에 보리씨가 골고루 섞이면 망태기에 담아서 소길마로 밭으로 운반한다. 보리씨를

섞은 돼지거름은 손으로 밭에 골고루 뿌려 보리 파종을 했다. 비료가 없을 때는 돼지거름에 의지하여 보리농사를 지었다.

□ 11월

1) 메주 만들기

가을에 수확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드는 일은 동짓달 초에 이루어진다.

2)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2일 또는 23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이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팥죽을 쒀 먹었다. 볍쌀이 귀한 제주에서는 밭벼쌀에 팥을 넣어 동지팥죽을 쑤어 먹었다.

3) 엿기름 장만하기

동짓날에 보리를 물에 담그는 것이 약이 된다고 하여, 이날에 엿기름을 만들 보리를 물에 담갔다.

4) 생업

(1) 새 허채 '새 허채'는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띠)'와 집줄을 만드는 짧은 새인 '각단'을 베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말한다. 보성 마을에서는 지붕을 정월에 이었다고 한다. 계를 만들어 '새'를 키우는 띠밭을 운영하였다. '새 허채'는 동짓달 초하루에 하였다. 이날에는 각자 지붕을 일 때 필요한

띠를 베었다. 한가한 날을 골라 집줄을 놓고 사려 두었다.

□ 12월

1) 납평날

(1) 날짜 동지 뒤 셋째 미(未)일.

(2) 풍속 이날은 엿을 고았는데, 동짓날 놓은 엿기름을 이용해서 엿을 고면 약이 된다고 믿었다.

2) 무명과 명주 잣기

보성리에서는 예전에 겨울 석 달간은 무명을 짜는 시기였다. 가을에 수확한 목화로 무명을 짰고, 봄에 기른 누에로는 명주를 짰다.

3) 지붕이기

지붕은 2년에 한 번 이었다. 정월이나 이월에 한가한 날을 골라 집을 이었다.

4)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이 기간에는 가신이 집을 비우므로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행사를 치러도 큰 탈이 없다고 한다. 보성 마을에서는 이사를 할 때 성냥과 '푸는제(키)', 솥, 화로를 먼저 갖고 간다고 한다.

5) 소한 · 대한

(1) 날짜 양력 1월 5일, 1월 20일 무렵.

(2) 풍속 소한과 대한은 아주 추운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소한에 나간 사람 찾지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위 때문에 외출을 삼가도록 하였다.

(3) 속담

• 소한에 나간 사람 찾지 마라.

대정읍 신평리 세시풍속

□ 1월

1) 정월 멩질

(1) 날짜 음력 1월 1일.

(2) 풍속 '정월 멩질'은 우리나라 명질의 하나로 정월 초하룻날이다. 이날은 가족과 친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설날을 위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한다. 명질 당일에는 친족의 집을 돌며 차례를 지내는데, 친족의 막내 집안부터 종손 집안 순으로 다녔다. 또 친족은 물론이고 마을 어른을 찾아뵈어 세배하였다.

(3) 멩질 준비

• **멩질떡**: 설날 제상에 올리는 떡은 '시루떡', '솔벤', '절벤', '중궤', '약궤', '빈떡', 기름떡 등 모든 떡을 갖춰 올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루떡'과 송편만 올리고 있다.

• **적**: 소고기적, 돼지고기적을 기본으로 하고 집안에 따라 '문어적'이나 '방어적'을 올리기도 한다.

(4) 차례

• **차례상**: 메, '게영'(국), '탕쉬'(고사리, 콩나물, 잡채), 떡, 적(소고기, 돼지고기), 바닷고기 구운 것, 과일 등을 올린다.

(5) 세배 설날에 차례를 지낸 후 웃어른들과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 부모님께 세배를 먼저 올린 후 친족의 집을 돌며 차례를 지낸다.

2) 포제

(1) 날짜 음력 1월 정일 또는 정해일.

(2) 풍속 포제는 일 년에 한 번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요를 기원하는 유교식 마을 제사로 '마을제'라고도 한다. 농사가 주업인 이 마을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치러지는 '기우제'도 '포제'에서 함께 진행한다.

• **제관**: 제관은 마을에서 정한 남자 유지들이 하는데, 주로 큰제를 지냈던 사람, 향교에 다녔던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관들은 향사에서 며칠간 머물며 정성 드린다.

• **제물**: 이장은 제를 지내는 날 새벽부터 쌀, 조, 보리 등과 희생으로 돼지를 정성껏 준비한다. 돼지는 내장은 빼내어 제물로 올린다. 모든 제물은 익히지 않고 생채로 올린다고 한다.

• **금기**: 포제는 남성이 지내는 제의로 여성은 참여하지 않는다. 또, 향사와 포젯단 주변으로 금줄을 매어 부정을 막기도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따로 금줄을 매지는 않았다.

3) 당제

(1) 날짜 음력 1월 7일.

(2) 풍속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에서 주민들이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벌이는 제의다. 대체로 음력 초이렛날에 제의를 지내지만 못 가는 경우 17일 · 27일처럼 이렛날에 간다고 한다.

• **제물**: 메('큰메', '중메', '소메'), 도래떡(메밀, 쌀), 적, 바닷고기 말린 것(옥돔), 쌀 한 사발, 소지, '멩씰', 과일(귤) 등을 세 쟁반씩 준비하여 올린다. 과일은 수확하여 '할망당'에 올릴 제물로 따로 준비하였다. 제보자의 구술에 따르면 좌정한 신이 '칠성할망'이므로 북두칠성을 향하여 제를 올린

다고 한다.

• **잡식**: '할망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제물을 조금씩 뜯어내고 뿌려서 귀신을 대접한다. 이때 띠로 만든 젓가락으로 제물을 떠다가 잡식하는 '돌고망'에 넣는다고 한다. 마을에 심방이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낸 후에 심방에게도 돈, 떡, 구운 바닷고기, 메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다만 제물 중에서도 '큰메'는 나누지 않았다.

• **정성**: '할망당'에 갈 때 아녀자들은 치마를 차려입는다. 제물은 '구덕'에 넣어 등짐으로 지고 향을 피워 손에 들고 간다.

• **금기**: 동네나 집안에 장사가 나면 가지 않으며 당을 오갈 때 마주치는 사람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는다.

(3) 조씨당 함안 조씨 집안과 자손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조씨 할망'이 좌정해 있는 당이다. 이곳은 자손의 번창과 건강을 기원한다. 제단에는 돌로 만든 동자석 두 개가 놓여 있고 제물을 차려 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4) 안택

(1) 날짜 음력 1월.

(2) 풍속 집안에 탈이 없도록 심방이나 스님을 불러 가신들을 위로하는 일을 말한다.

• **칠성제**: 새해를 맞이하여 '북두칠원성군'에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주로 '칠성'을 모시는 집안이 지내는 의례이며 집안에 '안칠성'과 '밧칠성'을 모신다.

• **문전제**: 제사나 명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자손이 없는 귀신을 먼저 대접하는데 제물을 뜯어 오래 귀퉁이에 고수레한다.

5) 정월대보름

(1) 날짜 음력 1월 15일.

(2) 풍속 정월대보름에 보름달을 보며 집안의 평안을 비는 날이다. 제주 4·3사건 이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허벅 장단에 맞춰 놀이도 하였지만, 이후에는 특별한 일을 치르지 않는다고 한다.

• **액막이**: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부정한 액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집안에 따라 심방을 빌려 굿을 한다고 한다. 굿이 끝난 다음 제물로 올린 떡, 음식 등을 모아 귀신을 대접하는데, 바다 근처는 짚으로 배를 만들어 띄워 보냈다고 한다. 한편, 제보자의 친정인 대정읍 보성리에서는 소나무밭 '항굴러'에 있는 소나무 아래 놓았다고 한다.

6) 걸궁

(1) 날짜 음력 1월 보름 이후.

(2) 풍속 마을 청년들이 모여 패를 짜고 풍물을 치며 집안의 가신을 위로하는 민속놀이를 말한다. 이들은 집안의 땅을 밟아 잡신을 쫓고 복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마을 안을 돌아다닌다. 여유가 있는 집은 이들을 위하여 쌀이나 돈으로 대접하였다. 이 놀이는 제주4·3사건 이후부터 전해지지 않는다.

7) 입춘

(1) 날짜 양력 2월 4일 무렵.

(2) 풍속 이십사절기 가운데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드는 첫 절기로 제주에서는 '샛절드는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안의 운수가 없다고 보아 그날은 특히나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물론 신평리에

무당이 있을 때까지는 '입춘굿'을 행하였지만 무당이 죽고 나서 그 풍습도 사라졌다고 한다.

8) 생업

(1) 보리밟기 겨울철 땅이 얼어서 보리 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겉흙을 밟아주는 일을 말한다. 신평리 땅은 찰흙이지만 겨울철 눈이 내리면 땅이 올라와 보리 뿌리가 잘 자리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2) 방에 부찜 목장에 마소를 올리기 전 새봄을 맞이하여 덤불이나 진드기를 제거하여 새 풀이 잘 돋도록 묵은 풀에 불을 붙이는 일을 말한다. 신평리에는 방화할 만큼 큰 오름이 없다고 한다.

□ 2월

1) 영등

(1) 날짜 음력 2월 15일.

(2) 풍속 음력 이월 바다를 관장하는 '영등신'이 들어오는 날을 말한다. 이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영등신'께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영등굿'을 올리기도 한다. '영등할망'이 들어오면 곡식과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간다고 여긴다. 이때 보시기처럼 생긴 좀주름찻잔 버섯에 씨가 가득하면 풍년 든다고 생각하였고, 그 반대는 한 해 농사가 흉년 든다고 믿었다고 한다.

(3) 속담

• 영등할망 온 때 서답헹 널민 구데기 인다.

2) 경칩

(1) 날짜 양력 3월 5일 무렵.

(2) 풍속 경칩은 이십사절기 가운데 하나로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드는 날이다. 이날은 얼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개구리나 맹꽁이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다.

□ 3월

1) 한식 · 청명

(1) 날짜 양력 4월 5일.

(2) 풍속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이다. 집안에 따라 한식 명절을 지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한식 무렵엔 조상의 묘를 찾아 '산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손보거나 간단하게 제물을 차려 제를 지내기도 한다.

2) 묘제

(1) 날짜 양력 4월.

(2) 풍속 제사하지 않는 조상의 묘에 지내는 제사를 묘제라고 한다. 집안에 따라 봄이나 가을에 지낸다고 한다. 제물은 명질 때와 같고 문어적, 소고기적, 돼지고기적 등을 올린다.

□ 4월

1) 사월 초파일

(1) 날짜 음력 4월 8일.

(2) 풍속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등을 달아 한 해의 건강과 소망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날 어린아이의 머리를 깎으면 머리가 곱게 난다고 하였다.

2) 입하

(1) 날짜 양력 5월 5일.

(2) 풍속 이십사절기 가운데 하나로 곡우와 소만 사이에 들며 여름이 오는 날이라고 여겼다.

□ 5월

1) 단오

(1) 날짜 음력 5월 5일.

(2) 풍속 단오는 명절 중 하나이지만 집안 대부분은 단오 명절을 지내지 않는다. 이날 쑥을 캐어 말려두고 목욕하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믿었다.

2) 망종

(1) 날짜 양력 6월 6일.

(2) 풍속 이십사절기 가운데 하나로 소만과 하지 사이에 드는 날이다.

이날은 보리, 마늘 등은 수확해야 하고 그 외의 작물을 파종하였다. 망종이 지나버리면 곡식이 모두 오그라들어 베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다.

3) 하지

(1) 날짜 양력 6월 21일.

(2) 풍속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드는 날이다. 이날은 여름이 왔다고 하여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 여겼다.

4) 생업

(1) 고구마 농사 오월 장마가 지고 나면 보리를 베고 난 자리에 고구마 모종을 심는다. 고구마 모종은 삼십 센티 정도씩 잘라서 심으면 그 뿌리마다 순이 생겨 고구마가 생긴다고 한다.

(2) 콩 농사 오월 장마가 지나갈 시기쯤 콩을 갈았다고 한다.

□ 6월

1) 둑 잡아먹는 날

(1) 날짜 음력 6월 20일.

(2) 풍속 제주에서 음력 유월 스무날이 되면 닭을 잡아먹는다. 이 무렵 농사일이 마무리되고 한가한 때여서 몸이 지치기도 한다. 이러한 몸을 보하기 위하여 정월에 깨운 병아리를 키운 닭을 잡아먹었다. 요즘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닭을 삶아 먹는다고 한다.

• **닭 기르기**: 옛날 닭은 닭장에서 키우지 않고 '굴묵' 위에 선반을 놓아

키웠다고 한다. 마을 청년들은 집마다 돌아다니며 '굴묵'에서 키우는 닭을 훔쳐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2) 유월절

(1) 날짜 양력 7월 7일 무렵.

(2) 풍속 음력 유월로 절기상 소서 무렵을 말한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날로 유월절 전에 모든 농사를 끝내야 한다. 신평리에서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김매는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3) 생업

(1) 조 볼리기 제주에서 조를 밭에 가는 것을 '조 볼리기'라고 한다. 소가 밭을 갈고 나면 그 위에 조씨를 뿌리고, 그 씨가 땅에 잘 묻히게끔 말떼나 '끙게'를 사용하여 밭을 다진다. 다진 땅은 촉촉한 기운이 남아 있어 더운 여름철에도 씨가 마르지 않도록 '조 볼리기'를 반드시 하였다.

(2) 김매기 조, 콩, 고구마 등 작물을 키우는 밭에 나는 여름철 김을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하며 맸다. 그 중 조밭에 나는 김은 세벌까지 매었다고 한다.

□ 7월

1) 칠월 칠석

(1) 날짜 음력 7월 7일.

(2) 풍속 칠월 칠석은 음력 칠월 초이렛날로, 직녀와 견우가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다. 이날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2) 백중날

(1) 날짜 음력 7월 14일.

(2) 풍속 '백중날'은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모여 마소의 번성을 위하여 제의를 지내는 날을 말한다. 그러나 신평리는 농사일이 주업이기 때문에 따로 백중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무렵 김매기가 마무리되고 주민들은 물맞으러 '서림'으로 갔다고 한다. '서림' 바닷가에서 돌틈에 있는 소라, 오분재기, 고둥, 전복 등을 잡으며 놀았다고 한다.

3) 모래찜

'모래찜'은 온몸을 더운 모래를 이용하여 찜질하는 민간요법을 말한다. 신평리는 농한기에 바다와 가까운 상모리나 사계리로 놀러 갔다. 상모리는 검은모래 사장으로 이루어져 '모살찜'을 하기에 좋았지만, 사계리 해변은 모래찜을 하기에 좋지 않았다고 한다. 새마을사업 전까지는 상모리의 검은 모래로 모래찜을 했다고 한다.

4) 처서

(1) 날짜 양력 8월 23일경.

(2) 풍속 이십사절기 중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다. 추워지는 날씨에 김과 풀이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한다.

□ 8월

1) 벌초

(1) 날짜 음력 8월 1일.

(2) 풍속 벌초는 조상의 산소에 난 풀을 베어 깨끗하게 하거나 허물어진 '산담'을 손보는 등 정비하는 일을 말한다. 예로부터 벌초는 팔월 초하루에 행하였지만 최근에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팔월 첫째 일요일에 하고 있다. '모둠벌초'가 끝나고 나면 '개인벌초'를 행한다고 한다. '모둠벌초'는 문중의 집안 사람이 모두 모여 행하는 벌초를 말하고, '개인벌초'는 8촌 이내 당 가족이 모여 행하는 벌초이다.

2) 팔월 멩질

(1) 날짜 음력 8월 15일.

(2) 풍속 팔월 명질은 우리나라 명질 가운데 하나로 추석을 말한다. 이날은 추수한 곡식으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누기도 한다.

(3) 절식

• **멩질떡**: 팔월 명질에는 송편, '세미떡'을 만들어 올린다. 떡에 넣는 소는 집안마다 다르다. '빙떡'은 정월 멩질과 달리 올리지 않는다.

• **묵**: 메밀묵, '청묵', '밀가루묵' 등을 집안 방식에 따라 올리고, 묵 대신 두부를 준비하기도 한다.

• **적**: 돼지고기적, 소고기적 등 생선이나 고기를 꼬챙이에 끼워 만든 적을 주로 올렸다. 집안에 따라 '전복적', '상어적', '재방어적'을 올리기도 한다.

3) 상강

(1) **날짜** 양력 10월 23일.

(2) **풍속** 우리나라 절기 중 하나로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드는 날이다. 상강이 들기 시작하면 작물들이 서리를 맞지 않도록 모든 작물의 수확을 끝내야 한다. 신평리에서는 이 무렵 고구마를 수확하였고, 그 고구마는 절간고구마로 만들어 팔았다. 남은 고구마덩굴은 걷어다가 말린 다음 소의 먹이로 썼다고 한다.

□ 10월

1) 입동

(1) **날짜** 양력 11월 8일.

(2) **풍속** 우리나라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한다.

□ 11월

1) 동지

(1) **날짜** 양력 12월 23일 무렵.

(2) **풍속**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드는 절기로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날 팥죽을 쒀 먹으면 집안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일들이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신평리에서는 동짓날 먹는 팥죽을 '동지 픗죽'이라고 한다.

• **동지 폿죽**: 먼저 팥을 삶아 밥주걱으로 잘 으깨고 쌀을 넣어 팥죽을 쑨다. 식성에 맞춰 팥 알갱이를 남기기도 하고 소금을 첨가하여 먹기도 한다.

(3) 속담

• 동지 넘으민 바느질와치 실이 ᄒᆞᆫ 재씩 늘어난다.

2) 새 장만

제주 전통 가옥은 초가다. 그래서 신평리 사람들은 지붕을 이는 '새(띠)'를 매년 장만하였다. 보통 신평리 사람들은 가을에 '모슬봉' 근처, '광대왓', '알동네' 등에 있는 띠밭에서 '각단'을 베어다가 가려두고, 11월이 되면 지붕을 맬 '줄'을 '호롱이'로 꼬아서 만들었다. 신평리는 농사가 한가한 시기나 오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지붕일 때는 바람이 잔 날, 좋은 날을 택하였고, 마을 주민 4~5명이 품앗이하여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 12월

1) 장 담그기

(1) 날짜 음력 12월.

(2) 풍속 신평리에서는 매년 '동짓ᄃᆞᆯ'에 장 담글 준비를 하였다. 가을에 콩을 장만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콩을 솥에서 삶았다고 한다. 삶은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방아확에 넣어 빻았지만, 지금은 비닐에 넣어 발로 밟거나 믹서기로 갈아 잘게 빻는다고 한다. 메주는

만드는 크기에 따라 그 수가 다르지만, 짝수가 되어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여겼다. 메주는 짚 위에 놓거나 창고나 서늘한 곳에 높이 매달아 한 달 정도 말린다. 메주 겉에 흰 솜털이 길게 올라올 때쯤 메주를 깨끗한 물에 씻어두고 섣달그믐 전 '말날'에 미리 준비한 소금물에 메주를 들이뜨려 장을 담근다. 장은 한두 달 후에 분리하는데, 된장은 메주를 꺼내어 주물러 만들고, 간장은 장물을 솥에서 끓여 만든다고 한다.

2) 신구간

(1) 날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2) 풍속 '신구간'은 지상에 내려온 신들이 천상에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이 내려오는 기간이다. 이날은 집수리, 나무 자르기, 돌담 쌓기, '돗통' 손보기, 이장, 이사 등 큰일을 치른다. 이 기간에 손을 보더라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 **이사**: 이사 갈 집에 미리 소금과 팥을 섞어서 뿌려 부정한 것을 없애 방사하였다. 이사 가는 날은 밥솥을 제일 먼저 가지고 갔다.
- **집알이**: 성냥이나 초를 선물하였다.

3) 소한 · 대한

(1) 날짜 양력 1월 5일, 20일 무렵.

(2) 풍속 소한과 대한을 가장 추운 날로 여겨 이날 나간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돌아오지 못한다고 여겼다.

(3) 속담

- 소한 대한에 나간 사름 춧아보지 말라.

4) 섣달그믐

(1) 날짜 음력 12월 마지막 날.

(2) 풍속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새해 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장에 가거나 떡을 만드는 일을 한다. 신평리에서는 이날을 '떡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찾아보기

ㄱ

가오리연 327, 460
가족묘지 359, 360
가족벌초 300, 740
가지궨당 233, 234
가지벌초 116, 117, 118
각단 137, 312, 313, 369, 370, 435, 475, 476, 630, 632, 633, 634, 635, 637, 638, 692, 693, 747, 748
각성바지 329
갈중의 396, 445, 446
감저떡 521, 522, 607
감저술 616
감젓메 230, 340, 349, 478, 479
감주 55, 60, 61, 151, 171, 172, 173, 178, 180, 249, 325, 457, 616, 617, 639, 640
감쥐 150, 248
감티 396
개인벌초 205, 495, 600, 601, 678, 679, 740
거리왓전 279, 280
거시림조팟 576, 578
건답 277, 279
걸궁 74, 75, 185, 255, 256, 334, 394, 395, 396, 469, 538, 541, 658, 717
걸름밧 223, 228, 297, 298, 307, 312
걸름콩 579
검은 창옷 325, 326
검은질왓 576, 578
고량ᄑᆞ 502, 579
고소리술 321, 456, 457
고시리술 320, 321, 616, 617
고팡제 58
곤밥 240, 328, 356, 357, 386, 450, 496, 529, 627
곤제물 246, 247

곤침떡 360, 361
골감주 313, 314
곰베 188, 365
과세 60, 325, 457, 531, 650
구감 92, 93, 349, 350
구멩질 233, 377
구황풀이 718, 719, 753
국멩질 233, 234
굴렁밧 279, 280
굽돋은접시 54, 55
궵시 324
귀떡 654
귀양풀이 152, 153
금줄 63, 183, 245, 246, 330, 382, 383, 465, 466, 701, 702
기름떡 59, 133, 134, 163, 697, 698
ᄀᆞ귀기 236, 237
께 361, 362
꿩엿 150, 640, 641

ㄴ

나록메 195
나룩메 276, 277, 345
낙인 292, 293
남선비본 331, 332, 333
남평날 639, 689, 690, 691
낭고지 370, 375, 376
낭도고리 162
낭웨 50, 51, 52
넵펭날 223
노루고기 235
녹뒤쉬 210
논나룩 363
농포제 384
눌터 86, 87
느젱이떡 201

ㄷ

달구경 304, 305, 429, 538
대맥 273, 275
대소상 304, 372, 373
대우리 115, 339, 340, 482
대종손칩 233, 234
댕우지 174, 322
댕유지 322
덩드렁마께 436, 437
도름쉐 83, 84, 85

돌레떡 69, 145, 179, 248, 249, 294, 330, 381, 385, 386, 433, 655, 705, 707
돌와리 276, 278, 688
돗거름테기 365, 367
돗걸름 228, 364, 366, 498, 499, 500, 638, 686
돗걸름밧 223, 228
돗걸름보리 686, 687
동고랑착 216
동고리착 85, 86
동글락떡 654, 655
동지ᄑᆞ죽 148, 628
동티 189, 190, 314, 315, 401, 402, 447, 642, 643, 752, 753
두건 125
두루막 121, 124, 125, 126, 127, 173, 178, 212, 529
두줄보리 96, 272, 273, 274, 275
뒌술 65, 66
뒤엣제 331, 332
뒤치기 263, 441
뒷제 652
ᄃᆞ엿 150, 313, 640
ᄃᆞᆯ마기 326
ᄃᆞᆯ반착떡 647, 648
뜬땅 576, 578
ᄯᆞᆷ바데 325, 326

ㅁ

마귇이 276, 278, 279, 280, 418, 419, 420, 574, 575, 577, 578
마귇이조 418, 419, 575, 577
마늘엿 640, 641
마당굿 652, 653
마을제 181, 384, 543, 658, 659, 700, 701
막은방 227
말멩 146, 147
맥문석 317
맥주보리 273, 274, 275, 366, 367, 640, 743, 744
메물 54, 128, 134, 135, 304
메살룸 90, 91
메역허채 267, 268
멘네 139, 140, 141, 317, 325, 691
멘넷정 140

멜망테 287, 288
멜망텡이 417
멩텡이 219, 228, 229
모동장 641, 642
모둠벌초 117, 118, 205, 300, 359, 495, 600, 601, 602, 678, 679, 739, 740
모멀묵 238, 519, 741
모믈돌레떡 294
모밀묵 170
모살뜸 111, 423, 591, 592
모살찜 422, 423, 493, 592, 736
모삿접시 54, 55
묘제 86, 190, 191, 266, 267, 402, 403, 427, 549, 724
무수채 70
무적떡 323, 360, 361
묵메물 54, 58, 128
묵탕쉬 522, 523, 614, 615, 616
문에상 713, 714
문전상 57, 58, 514, 515, 517
문전제 184, 185, 253, 331, 332, 333, 392, 467, 468, 713, 714
문제 101, 119, 120, 184
문체 253
문친떡 301, 302
물레 139, 140, 141, 317, 318
물박 숭눙 392
미녕 125, 142, 173, 220, 259, 317, 325, 396, 691
밀가루묵 520, 741, 742
밀ᄀᆞ르묵 519
밀레질 345, 346, 347
ᄆᆞᆯᄀᆞ레 96, 162, 219, 302
ᄆᆞᆯ놉 352, 353
ᄆᆞᆯ방에 625
ᄆᆞᆯ벵이 319
ᄆᆞᆯ석 198, 576

ㅂ

바레깃잔 510, 511, 512
박전 농사 275, 277, 278, 279, 280
반ᄀᆞ슬 271, 272, 273, 274
밧 ᄇᆞᆯ리는 소리 288
밧칠성 252, 253, 390, 391, 713
방쉬 222, 227, 241, 242, 243, 244, 380, 432, 627, 629, 716

방씨 229, 230
방에[1] 49, 50, 138, 162, 320
방에[2] 75, 336, 398, 471, 472, 720
방에산 75, 76
방에선 336
방지 412, 431, 432, 465
백시리 210, 329, 360, 361
백중제 106, 107, 201, 290, 291, 356, 357, 676, 677, 738
벌레기 114, 115, 198
벌초방학 601
베클 140, 143
벤줄 174
보리묵 211
보리클 96, 218
보릿골 150
보릿그르 102, 348, 487, 670
보시메 248, 249
본향 179, 180, 187, 188, 217, 247, 248, 252
본향당 179, 330, 331
봄검질 666, 667
부구리 76, 77, 398, 399
불치 216, 229, 297, 366
불치왓 576, 578
비념 381, 459
빈떡 697, 698
빙떡 182, 234, 235, 521, 522, 741
뻣데기 221, 497, 607, 608, 684, 743

ㅅ

사농젱이 256
사발메 248, 249
삭망 55, 56, 372, 373
산디 103, 137, 198, 218, 272, 348, 417, 418, 482, 491, 497, 558, 575, 576, 580, 584, 624, 626, 671, 684, 687
산메 63, 64
산물[1] 423, 424, 651, 677
산물[2] 322
산제 161, 162, 245, 464
산파 229, 230, 346, 347, 365, 367
삼도전거리 241, 242

삼수세기 112, 113, 114
삼승할망 344, 703, 704, 725
상단골 343, 344
상돌 249, 251
상ᄃᆞᆯ 470, 471, 751
상량 695
상량식 152, 153
상메 330, 331, 705, 706, 708, 709, 710
상ᄆᆞ루 152
상산 81, 82, 285, 286, 290, 291, 293
상웨떡 106, 111, 117, 210, 360, 495, 496, 679
새 헤치 312, 630, 692
새껍 176
새쉐 351
새왓 435, 630, 631, 692, 746
새철드는날 61, 62, 186, 240, 335, 655, 656, 657
생감쥐 246, 247
서미역 76, 77
서으레 345, 346
서포리 229, 230
선쉐 286, 287
선씨 일월 147
섬비 103, 104, 198, 199, 366, 416, 574, 733
섬비질 285, 287, 366, 415, 416
성주풀이 152, 153
세미떡 741
세콜방에 50
셍성 235, 387, 391, 429, 453, 655, 705, 708, 709
소분 359, 601, 602
소분새 597, 599
소웽이엿 150
소지 387, 388, 705, 706
속곳 325, 326, 327
솔라니 182, 236, 237, 322, 387
솔벤 59, 129, 132, 133, 134, 163, 165, 166, 167, 175, 177, 210, 233, 234, 301, 303, 304, 323, 377, 378, 525, 697
솔벤본 165, 167
솟밋할망 182, 183
송낙 256, 469, 470, 717

송펜 163, 210, 211, 233, 301, 697, 741
쉐촐 137, 522, 729, 743
쉐테우리 192, 193, 286, 290, 291
쉰다리 495, 496
시리떡 163, 164, 175, 210, 246, 302, 608, 647, 653, 697
시제 324, 342, 343, 549, 724
신구간 151, 152, 226, 227, 265, 314, 315, 316, 371, 446, 447, 448, 505, 547, 548, 642, 643, 644, 694, 752, 753
신멩질 377
솔오리 96, 273, 366
쑨묵 238, 239
씨망테 287, 288

ㅇ

안넷제 331, 332, 333
안방상 514, 517
안칠성 252, 253, 390, 391, 713
안택 68, 69, 70, 71, 73, 74, 184, 252, 467, 713
알보리 276, 278
애기동지 148, 222
액막이 180, 243, 244, 255, 256, 379, 381, 395, 397, 651, 652, 716
액멕이 243, 379, 381, 390, 391, 396
약궤 130, 131, 163, 167, 168, 303, 304, 697, 698
얍게 453, 454, 455
양벳띠기 349
양엣근 522, 523, 614, 615
영등굿 78, 79, 187, 338, 339, 399, 400, 417, 473, 721, 722
영등ᄃᆞᆯ 78, 258, 473, 474, 721
영등할망 78, 79, 258, 259, 399, 400, 546, 547, 661, 721, 722, 723
오른새끼 246
오메기떡 320
오월 멩질 81, 95
오월장마 272, 273, 276, 278, 728, 729, 732, 733, 748
옥겡이집 225, 226

올레코시 68, 467, 714
올렛본풀이 333
왕골초석 374, 375
요왕굿 332, 333
요왕제 355
우찍 59, 129, 133, 163, 175, 377
웃드르 192, 193, 240, 241, 393, 394, 417, 418, 419, 585, 683
웃쉬 134, 135, 207, 208
웬새끼 245, 246
웬ᄉᆞ끼 246, 330
유건 125
유월절 92, 93, 99, 102, 103, 104, 195, 199, 200,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3, 285, 286, 297, 298, 340, 341, 418, 419, 420, 486, 487, 490, 574, 575, 577, 583, 585, 732, 733
윤덜 108
윤ᄃᆞᆯ 157
은절미 163, 304, 377, 378
음복 67, 68, 331
이표 292
인절미 59, 129, 130, 131, 163, 304, 454
일레당 389, 390
일렛당 384, 385
일뤳당 179, 703, 704
ᄋᆞ드레당 385, 389, 390
ᄋᆞ드렛당 331

ㅈ

자리젓 112, 113, 114, 353, 354, 355, 370, 371, 583, 585, 622, 624
잡식 57, 101, 248, 249, 250, 468, 709, 710, 714, 716
장남 257, 258, 275, 277, 364, 365, 366, 367, 540, 542
재걸름 366
절벤 59, 129, 132, 133, 162, 163, 165, 166, 175, 177, 210, 233, 301, 303, 304, 323, 525, 697
절벤본 166, 167
정기떡 182

정벵이 121, 123, 127
정씨 416, 417, 418
제관 62, 63, 181, 244, 245, 246, 329, 382, 383, 462, 463, 652, 701
제반 101, 243, 244, 248, 249, 254, 255, 390, 391, 392, 468
제비 251, 252, 381, 382, 388, 389
제비쑬 71, 72, 146
제석할망 103, 104
제숙 209, 245, 249, 509, 611
제월전 86, 535
조떡 246, 323, 360, 361
조오메기 320
조왕제 184, 468, 543
조왕할망 185, 332, 546, 547
조제물 246, 247
조컴질 114, 115, 583, 658, 732
조파 346, 347, 365, 367
주넹이보리 273, 274, 275
주젱이 184, 225, 391, 515, 516, 540
줄호렝이 636, 637
줄호롱이 747
중게 453, 454, 455
중궤 130, 131, 163, 167, 168, 303, 304, 697, 698
중메 705, 706
줴기떡 201, 202
지름떡 163
지석사발 673
지월제 534, 535
진독 398
진둑 75, 76, 77
진설 53, 134, 174, 710, 716
진줄 263, 747
진풀 340, 482, 666
집줄 263, 313, 441, 444, 445, 635, 636, 693, 747
줄레 376
줌녀굿 332, 338
찔레 219, 220

ㅊ

창옷 126, 127, 325, 326, 470, 529, 530
천리 118, 119, 157, 265, 314,

752, 753
청묵 169, 170, 171, 238, 239, 377, 378, 520, 741, 742
청주 66, 320, 321, 455, 456, 523, 524, 651
체서 108, 200, 203, 357, 358
첵명 80
촐고지 621, 623
촐밧 81, 215, 683
촐왓 312, 552, 620, 622
추렴 161, 162, 322, 450, 509, 511, 647, 731
칠석제 355, 356
칠성 58, 69, 70, 253, 331, 333, 387, 390, 391, 468, 469, 653, 676
칠성눌 252, 253
칠성제 184, 333, 390, 391, 468, 653, 713
칠성할망 704, 705
칠월절 281, 283, 296
침떡 51, 59, 129, 130, 177, 233, 301, 303, 360, 361, 377, 428, 453, 454, 455, 495, 521, 532, 647, 697, 698

ㅋ

칼국 50, 51, 52
케파장 312, 313
켓보리 312, 313
큰옷 125
클방 211, 301, 308, 357

ㅌ

탕쉬 53, 54, 56, 57, 58, 70, 71, 145, 168, 174, 233, 234, 237, 238, 254, 265, 266, 304, 429, 513, 514, 522, 523, 614, 615, 699
테우리 82, 103, 104
테우리코시 106, 107
테우리코ᄉᆞ 291, 292
토신제 245, 329, 330, 331, 332, 383, 464, 469, 543, 651, 652, 702
톳 헤치 341
튼방 227

ㅍ

파니 59, 195, 651

팔월절 305, 359

포젯단 182, 382, 462, 700

푸는체 151, 164, 302, 505, 656, 657, 694

푸다시 395

ᄑᆞ쉬 210

ᄑᆞ죽 148, 222, 311, 368, 431, 432, 434, 503, 628, 687, 745

ㅎ

할망당 544, 655, 703, 704, 705, 706, 710, 711, 725

할망데 236

할망머리 344, 345

해바라기쿨 107, 108

호렝이 224, 225, 263, 441, 636, 637

호상옷 157

후루메 126, 127

흐렁논 188, 195

흐렁이 277, 279